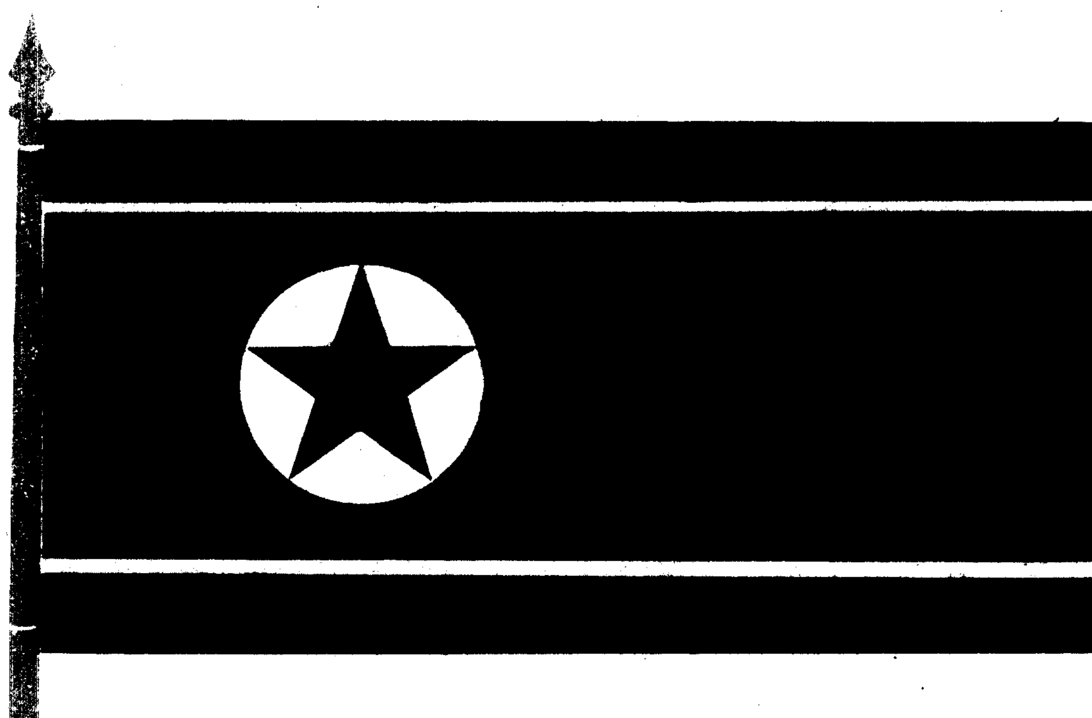
조선 중앙 년감

1964

조선 중앙 통신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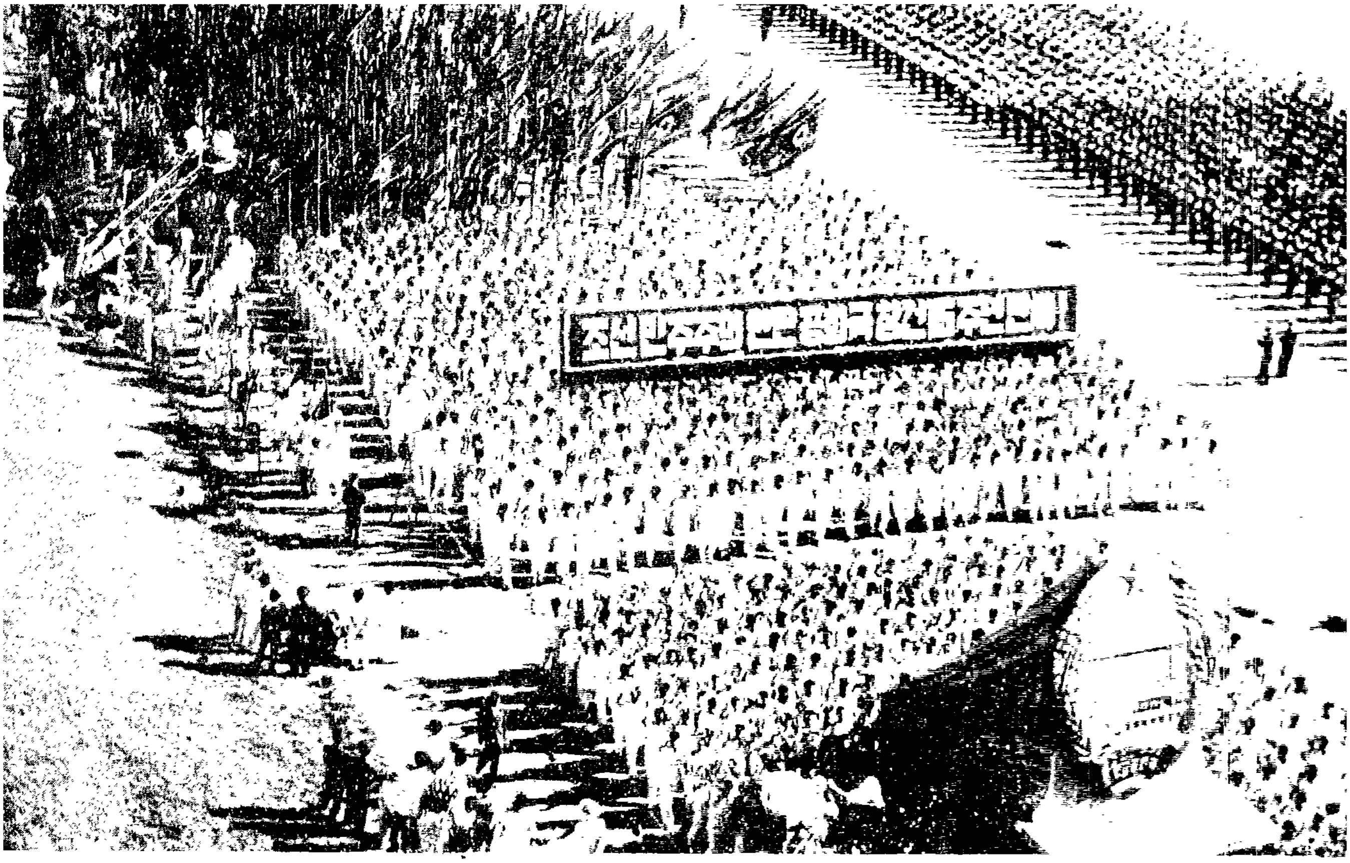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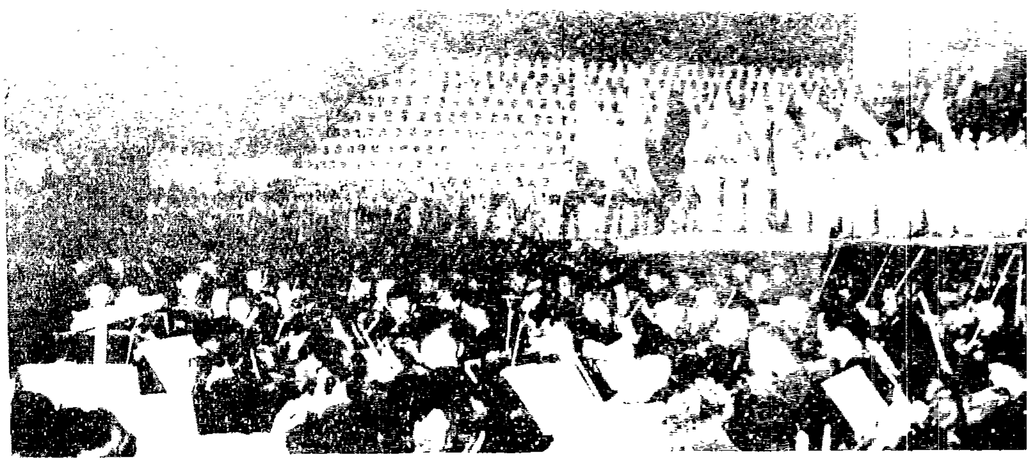
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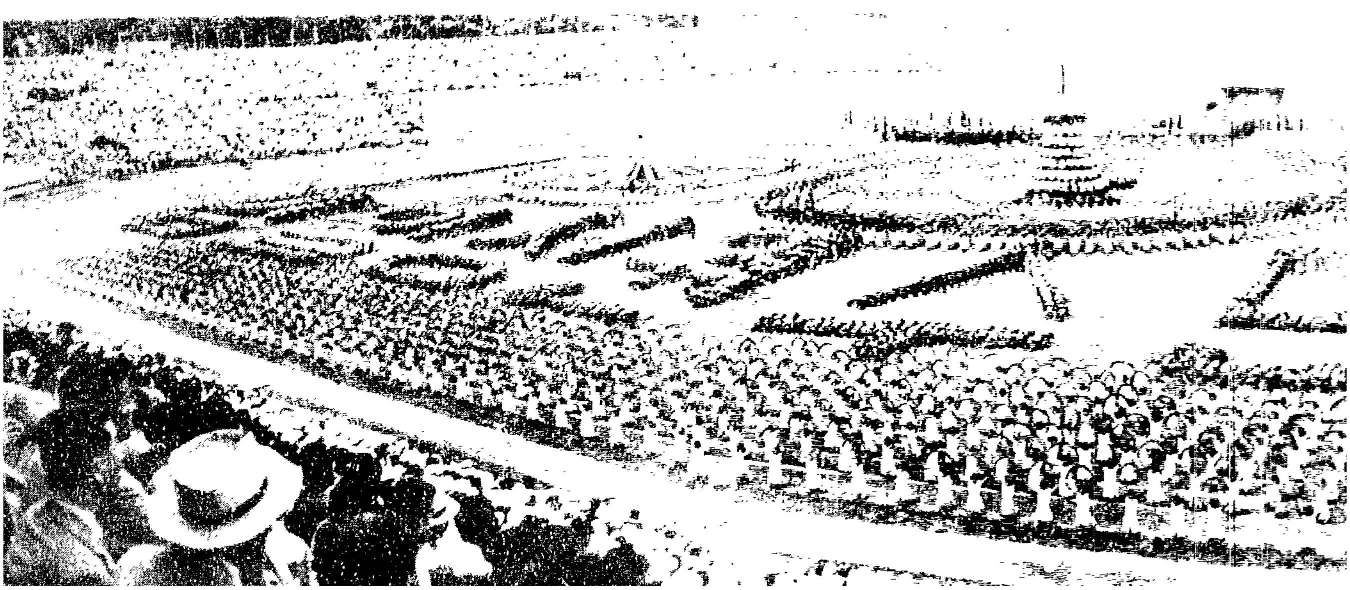


천리마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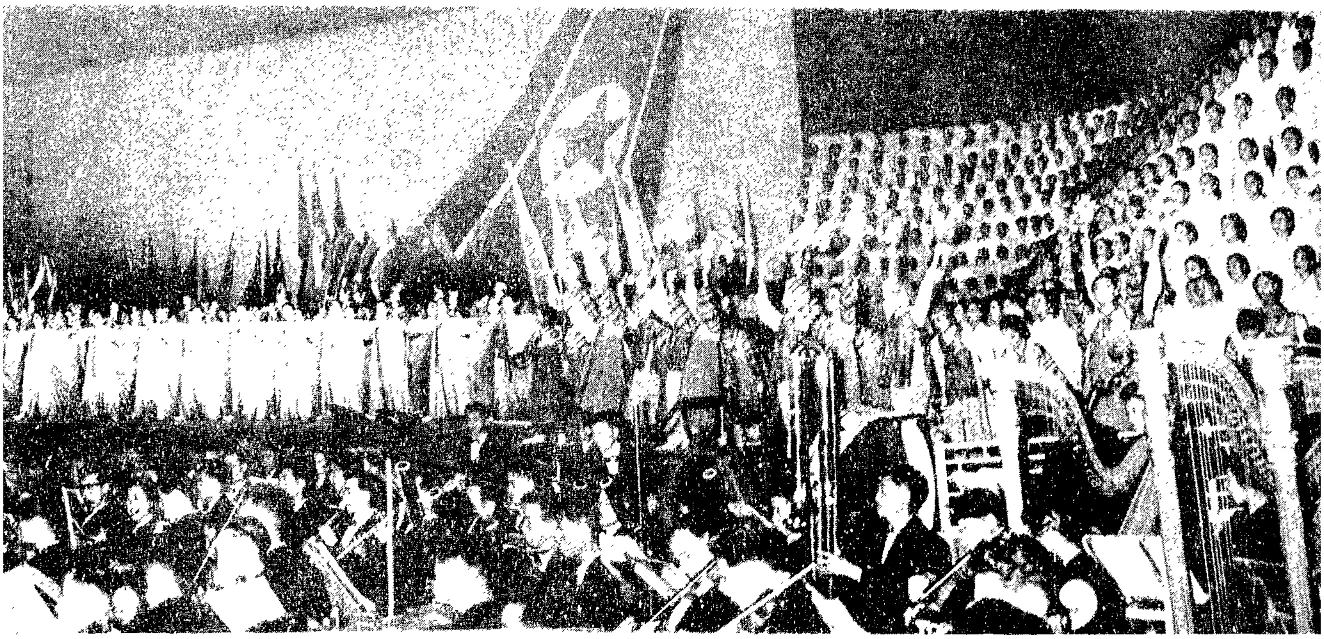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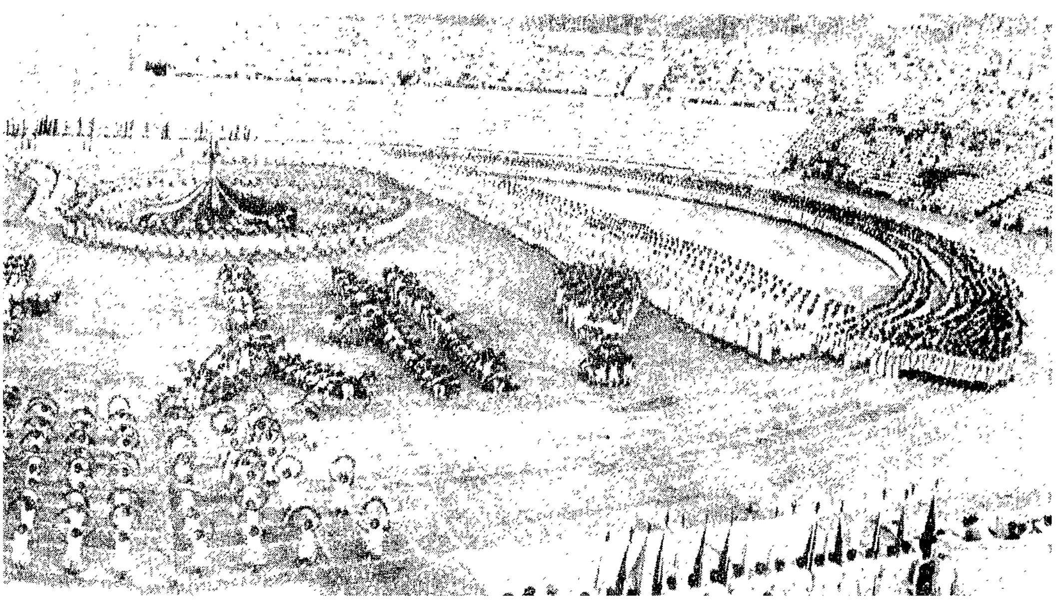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평양시 군중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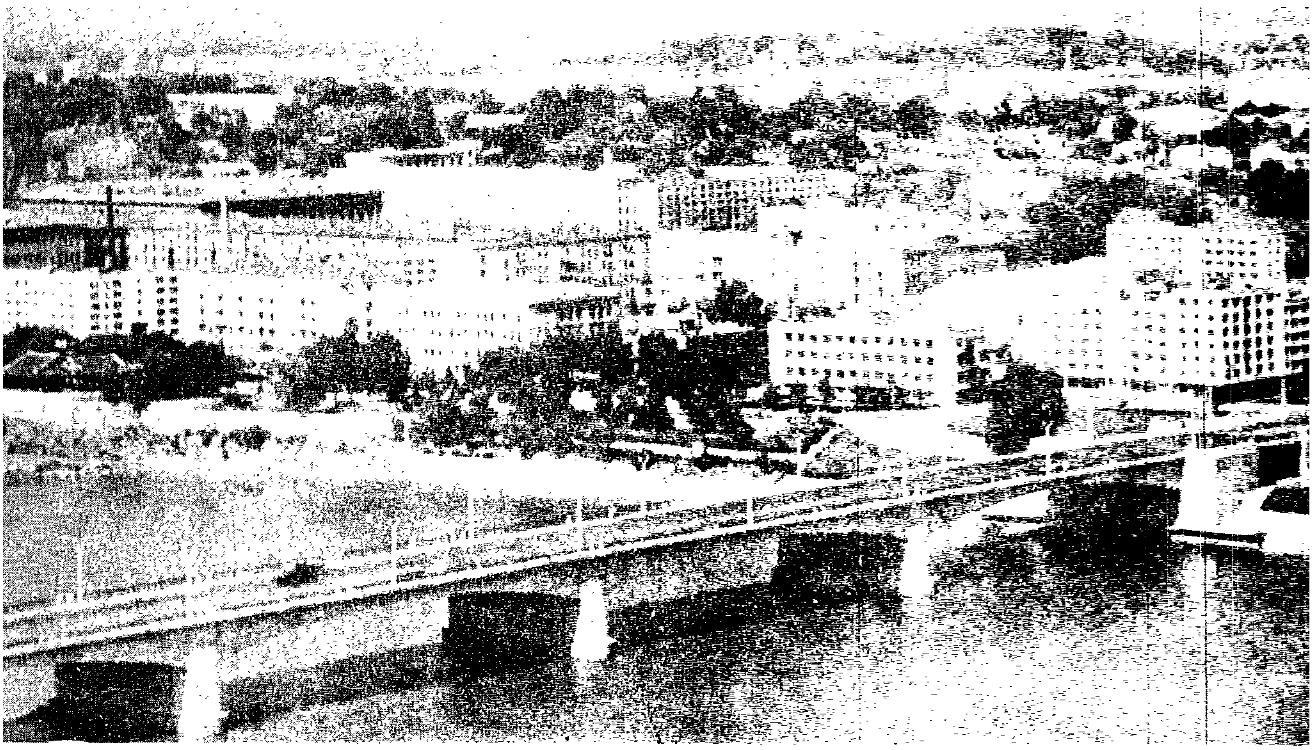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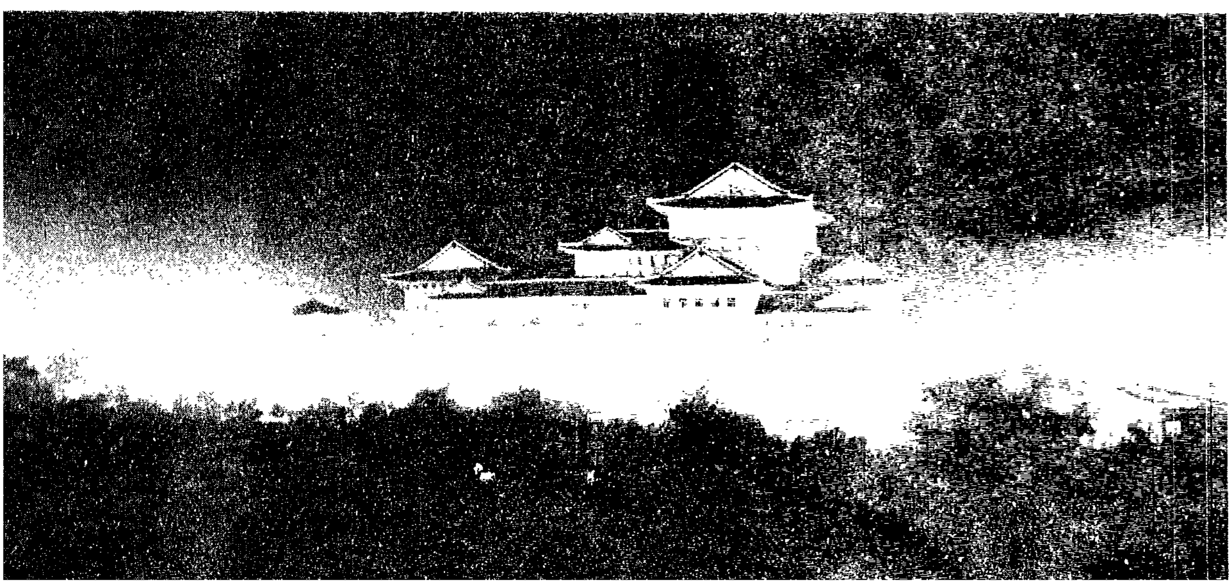
3천여 명이 출연한 음악 무용 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한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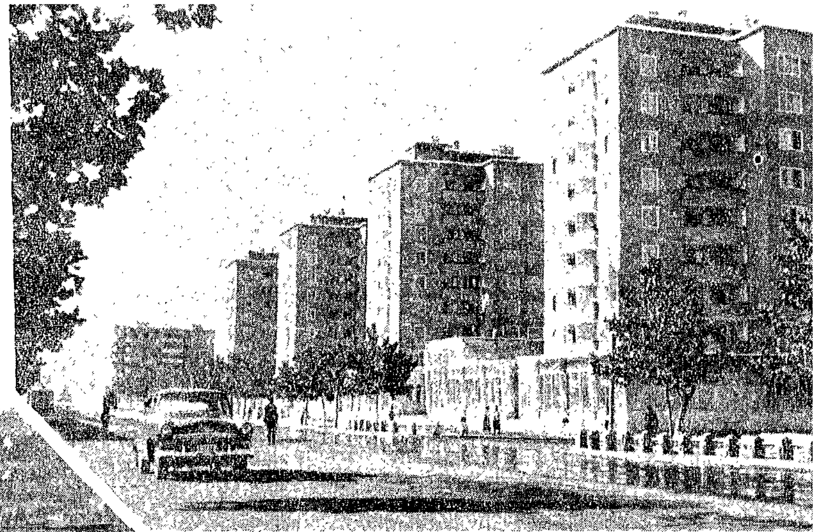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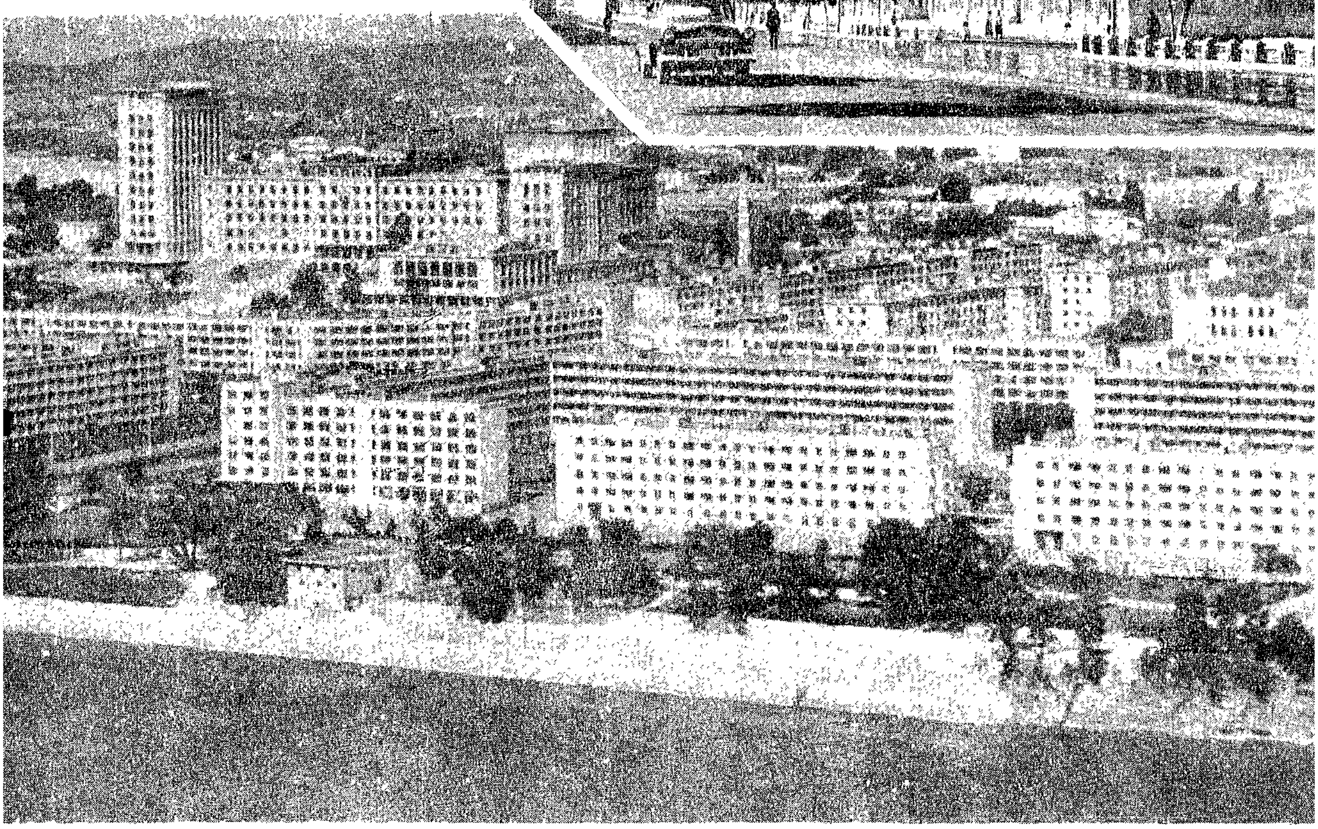


3만 5천여 명이 출연한 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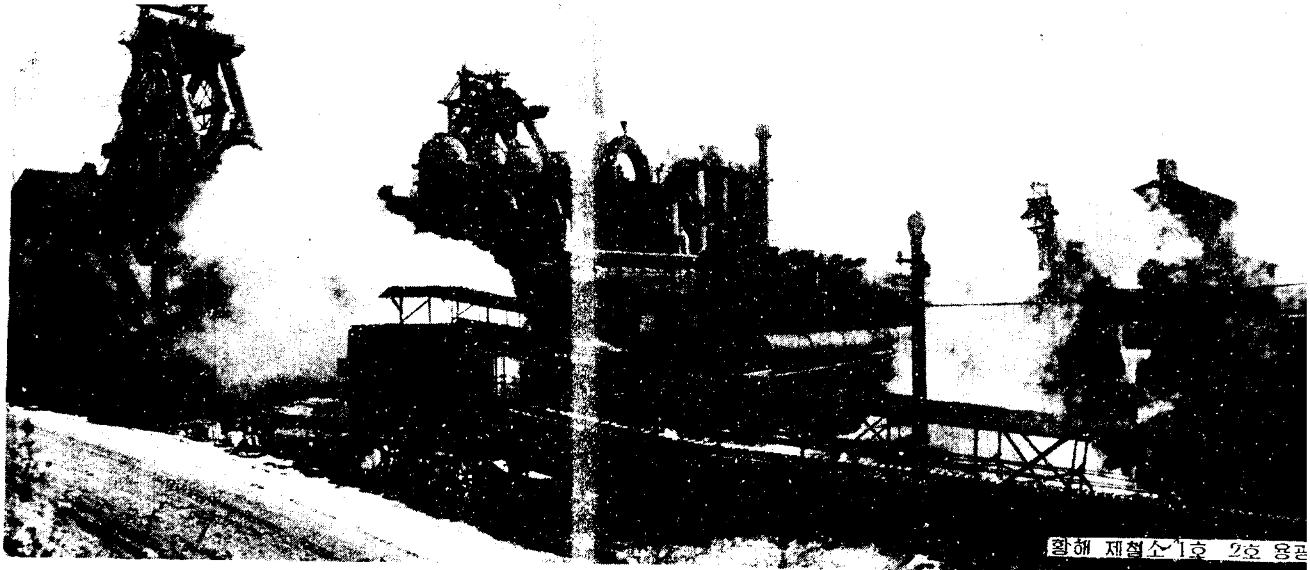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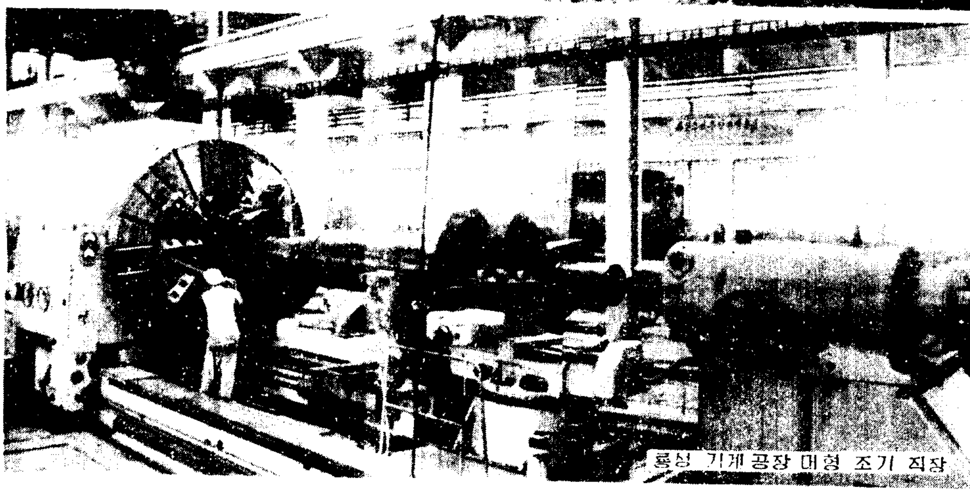
서평양 거리의 탑식 주택

동평양에서 바라다 본 평양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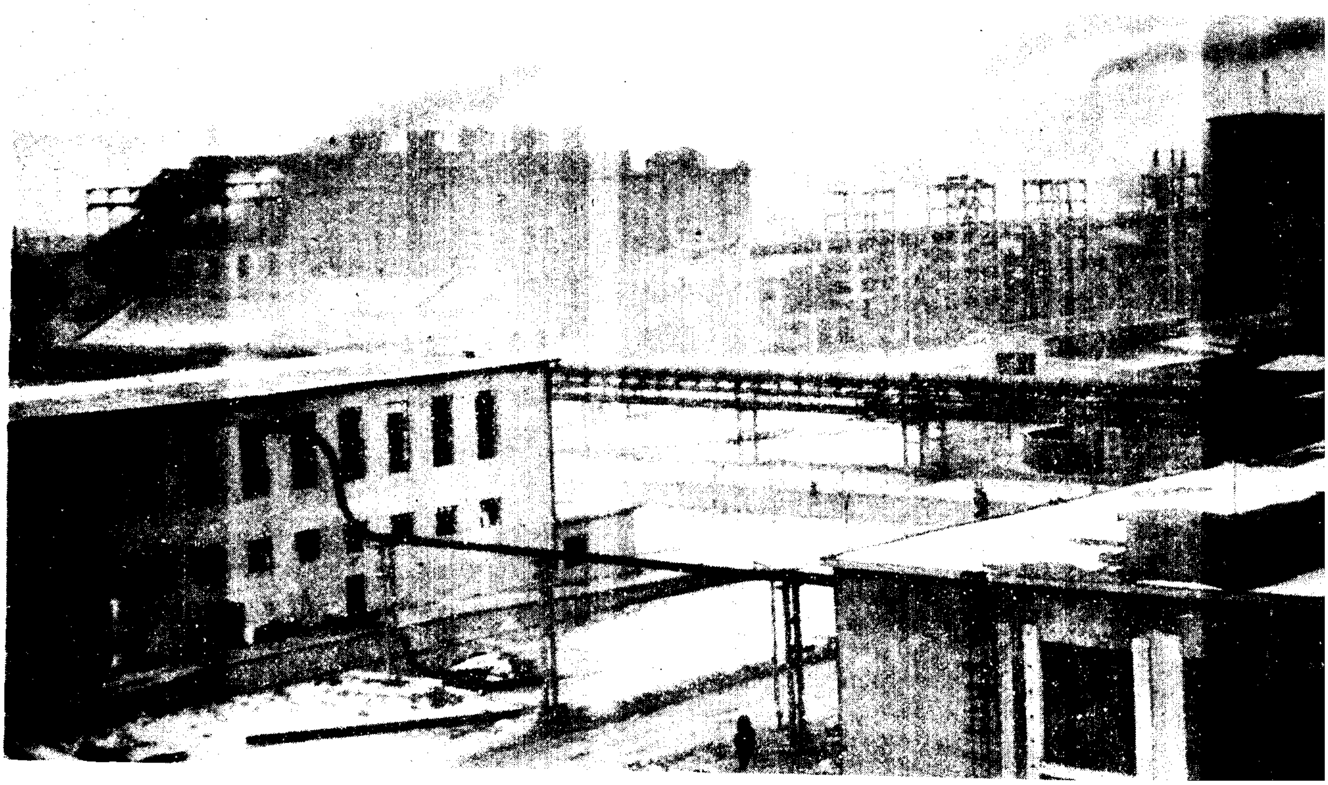
평양 대극장을 중심으로 한 평양의 밤'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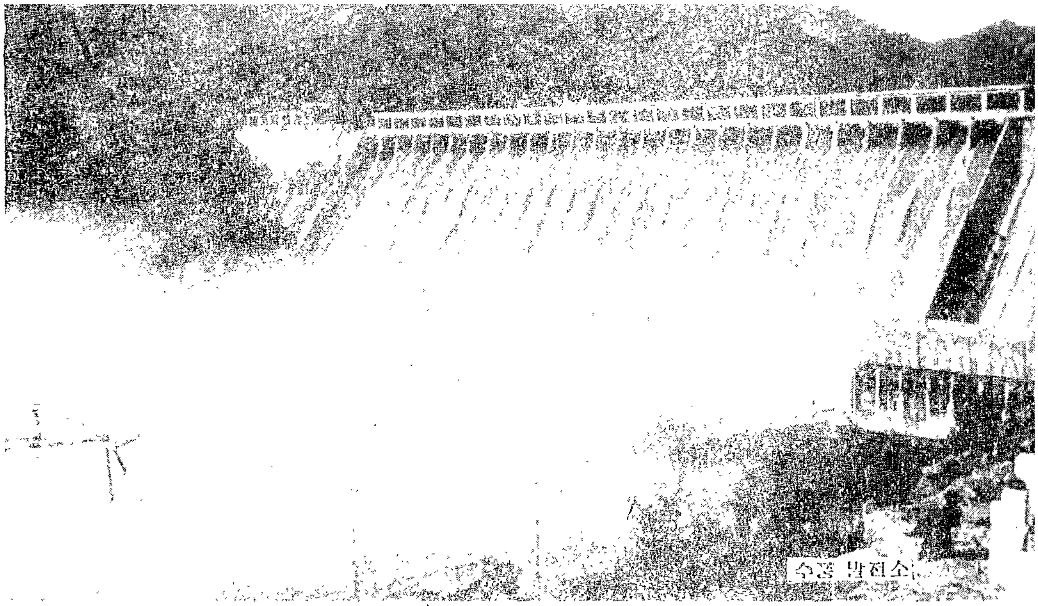


황해 제철소 1호 2호 용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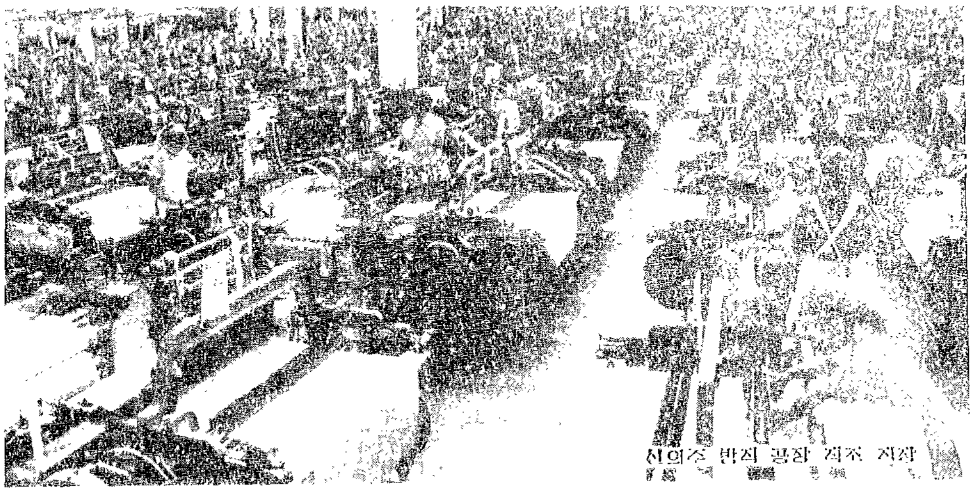


룡성 기계공장 대형 조기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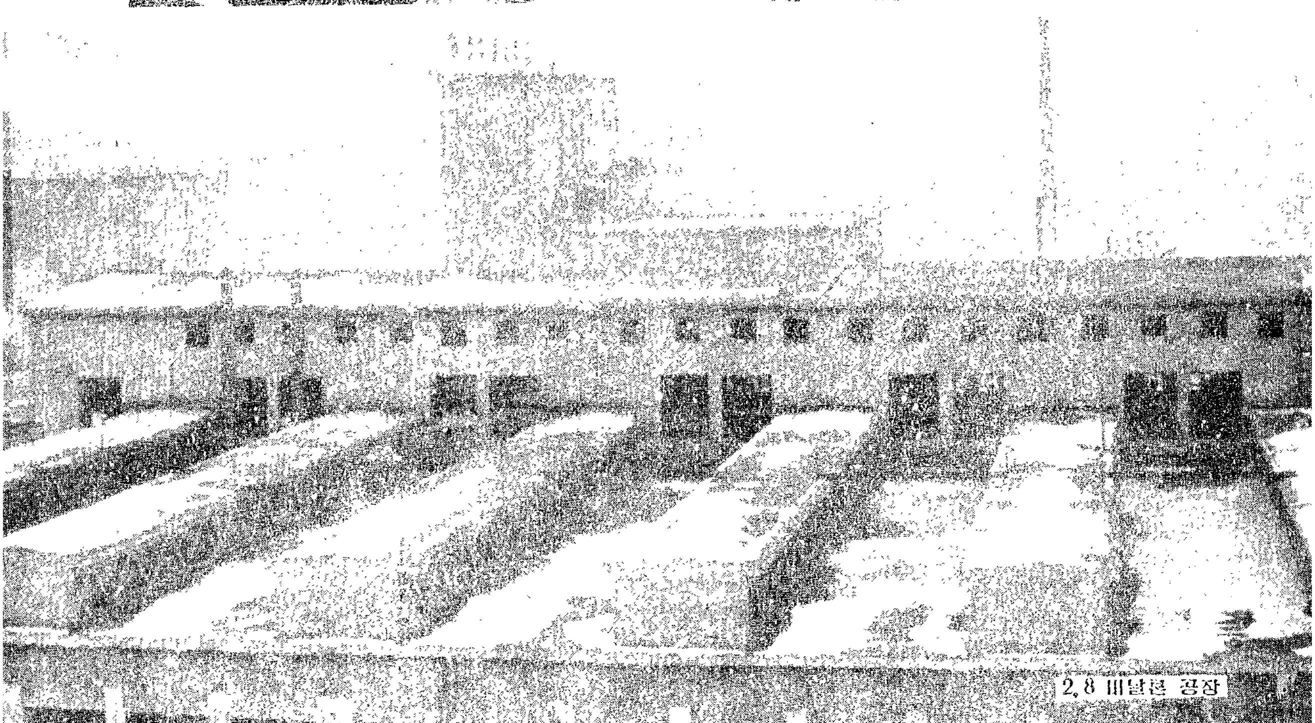




수풍 발전소



신의주 방직 공장 직조 직장



2.8 비날론 공장



우리 나라의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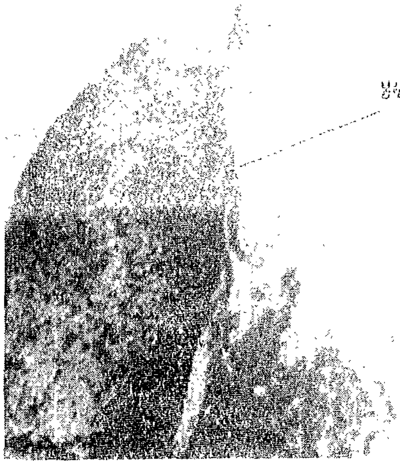


뜨락또르에 의한 씨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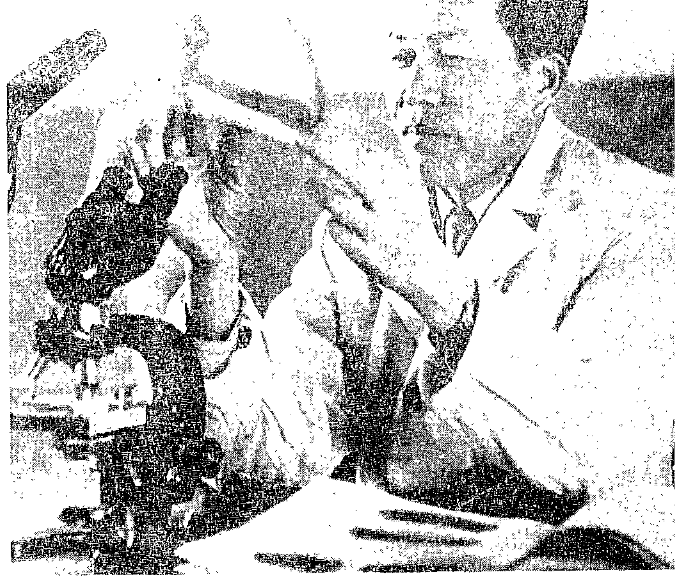


기양 관개 2단 양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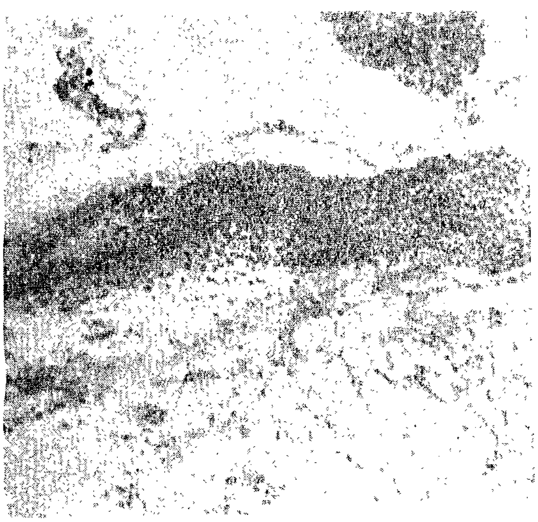
위대한 경락 체계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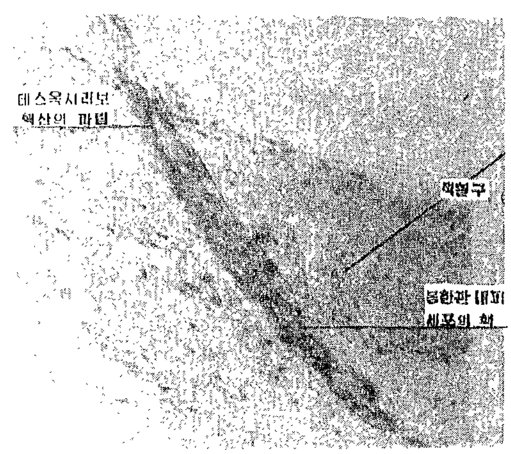
표층 봉한 소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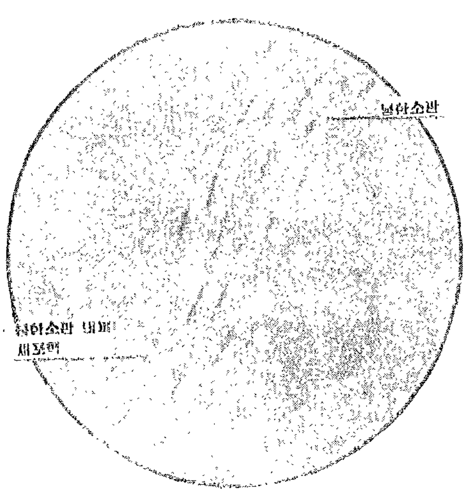
김 봉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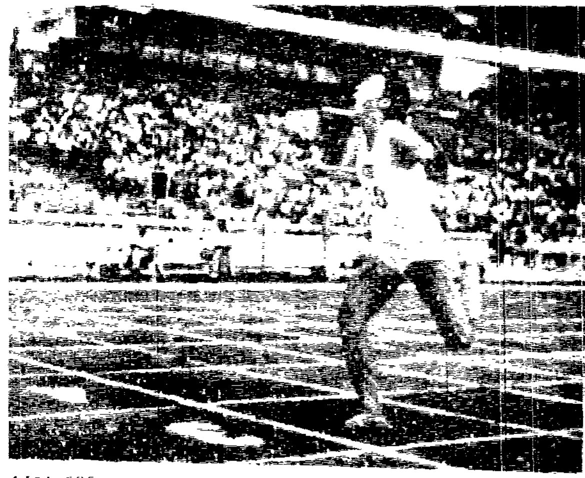
심층 봉한 소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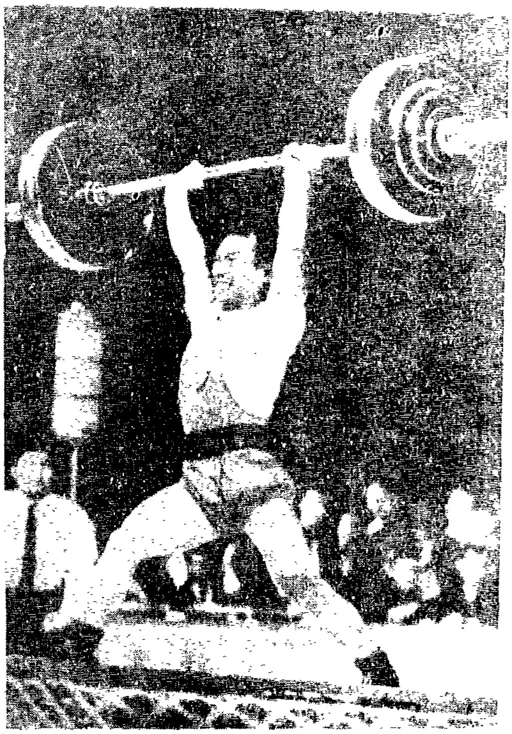
맥관내 봉한관 (Feulgen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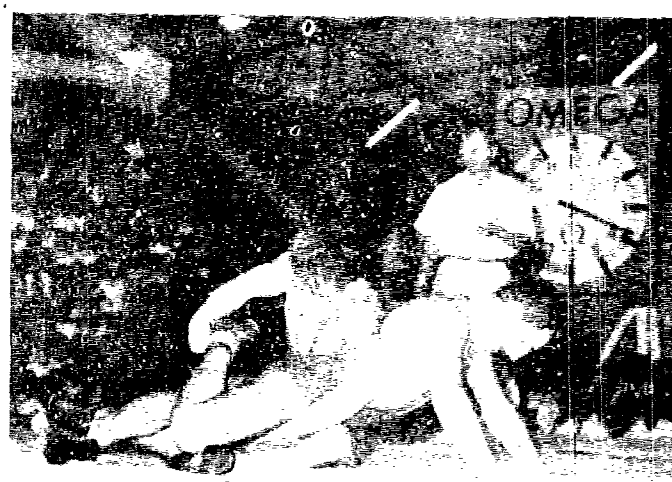
봉한관의 위상차의 현미경상



녀자 800메터 경주에서 세계 신 기록을 세운 신 금단 선수



력기 56 키로그람급 용상에서 세계 신 기록을 세운 리 홍천 선수



레스링 63 키로그람급에서 제 1 위 (거메보스)를 쟁취한 김 관호 선수



평양 축구단과 버마 축구단 간의 친선 경기

차 례

국 내 편

문 헌

서 술

자 료

국 제 편

서 술

자 료

국내편

문 헌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의 해인 1962년을 보내고 더욱 행복하고 광명한 앞날을 내다 보면서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새해—1963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의 비등된 열의 속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대의원 선거를 승리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방대한 과업을 내세우고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궐기한 우리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당이 제기한 전투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협동 농장 농민들은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겹치고 겹친 혹심한 자연 재해를 이겨 내고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습니다.

농업에서 어떠한 자연 재해라도 능히 극복하고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류례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승리이며 전체 우리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나는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근면하고 충직한 우리의 협동 농장 농민들과 국영 농장 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방직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방대한 목표도 성과적으로 달성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우리의 직물 생산이 전년에 비하여 138%로 장성하였으며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서는 20 배로 장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직물 생산에서 당이 내세운 전투적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한 방직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과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전체 경공업 부문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산 부문 일'군들은 온갖 창발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지난 해의 매우 불리한 해양 조건을 극복하고 12월 중순에 벌써 80만 톤의 수산물 고지를 점령하였으며 년말까지 84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나는 불굴의 투쟁 정신을 발휘하여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 내고 수산물 고지를 점령한 전체 수산 부문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전 인민적 지원에 의하여 주택 20만 세대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년말까지 총 24만 4,000여 세대의 도시 및 농촌 주택 건설에 착공한 중 18만 세대 이상이 이미 완공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였으며 2만 3,700여 세대는 마지막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도시와 농촌에서 수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문화 주택에서 즐겁게 설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택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우리의 전체 건설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공업 부문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지난 해에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

는 120만 톤 이상의 선철 및 립철을 생산하였으며 강철 생산 목표는 약간 미달되였으나 전년에 비하여 36% 증산하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나는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거대한 로력적 위훈을 세운 제철, 제강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전례 없이 긴 장마로 말미암아 생산 목표가 달성되지 못 하였으나 이 부문 일'군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석탄 채굴량은 전년에 비하여 111%로 장성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불굴의 투쟁을 계속한 전체 석탄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예비적 총화에 의하면 지난 해에 공업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120%로 장성하였습니다. 중공업과 경공업 기지가 더욱 강화되고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교육, 과학, 보건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문학과 예술이 찬란히 꽃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여섯 개 고지 점령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에서 우리가 달성한 빛나는 성과는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앞으로 2~3년 내에 인민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더 많은 고귀한 경험을 쌓았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7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 수행에서 이미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확신성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민은 우리 당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단결되였으며 모두다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 새 생활을 즐기면서 충천하는 기세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의 로동자, 농민, 기술자, 사무원들, 과학자, 교육 및 보건 일'군, 작가, 예술인들과 전체 인민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평화적 로동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고 있는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 사회 안전원, 로농 적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 동포들은 가혹한 탄압과 민족적 멸시와 참을 수 없는 생활고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군사 파쑈 도당들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 침략 세력까지 끌어 들이려고 온갖 흉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은 힘을 합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우리 나라를 또다시 침략하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반대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 강토에서 외래 침략 세력을 완전히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열렬한 형제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총련의 지도 밑에 여섯 가지 중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60만 재일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며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우리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은 제국주의와 전쟁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빠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에

서 출로를 찾으려고 광분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반제 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고수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통일과 단결을 훼손시키려는 어떠한 행위와도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항상 지지 성원하여 주고 있는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피델 카스트로 수상의 세련된 령도 밑에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꾸바 인민에게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한 성원과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 피착취 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며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건설하려는 굳은 결의와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천리마의 고삐를 튼튼히 틀어 쥐고 계속 힘차게 앞으로 내달릴 것이며 1963년을 새로운 위대한 승리의 해로 만들 것입니다.

1963년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면서 1964~1965년에 가서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의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강화하며 석탄과 철광석 생산을 증대시키고 각종 유색 금속, 희유 금속 및 비금속 광물들을 더 많이 채굴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성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강력히 진행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이미 조성한 중공업 기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를 더욱 공고화하면서 1964년에 가서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존 원료 기지를 정비하고 그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원료 기지를 조성하는 데 커다란 력량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경공업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를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공정을 기계화, 반 자동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수산물 80만 톤 고지를 견지하면서 수산물 생산에서 물'고기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어선들을 더 많이 건조하고 어로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며 수산물의 가공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알곡 500만 톤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1964년에 300만 톤의 벼와 20만 톤의 육류를 생산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유지 작물과 섬유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연 개조 사업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여 관개 체계를 정비 확장하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토지 정리 사업과 토지 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육종 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영농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였습니다.

7개년 계획 기간은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혁명의 시기입니다.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기술 혁명 수행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동원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 제작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모든 기계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기술 준비 사업과 기술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경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로동 행정 사업입니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력 조직을 더욱 개선할 것이며 로력의 류동을 적극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공장, 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는 로력을 절약하여 농촌에 파견하는 농촌 지원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를 널어 놓지 말고 중요한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여 중점적으로 건설할 것이며 건설 계획을 어김 없이 완수하는 강한 규률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관 본위주의를 퇴치하며 현존 건설 기관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분산된 건설 기관들을 지구별로 조직하여 건설 력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을 돌격식, 깜빠니야식으로 진행하는 현상을 근절하고 건설 사업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휘하여 없는 것은 찾아 내고 새 것을 대담하게 만들어 내며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용감하게 돌파하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실생활에서 이미 그 우월성이 실증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모든 분야에 확고하게 수립하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청산하고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하며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에 튼튼히 의거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을 적극 발동시키며 생산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이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에 비추어 우리는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의 인민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 인민적 방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우리의 온 국토를 철벽같은 요새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모든 초소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을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정신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갖 해이성과 권태증을 배격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혁명적으로 일하는 기풍을 확고하게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로 대중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혁명 대렬을 와해시키는 수정주의와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단결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우리는 당과 대중의 혈연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 세우며 전 사회를 굳게 단합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1963년은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의 해로 될 것이며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철옹성같이 더욱 굳게 다지는 해로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온갖 풍파를 뚫고 항상 승리하여 온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 것입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통일과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8.15 해방 18 주년을 경축하여 공화국 내각이 혜산시에서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오늘 혜산시와 량강도 근로자들과 함께 8.15 해방 18 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여기에 모인 동지들과 도내 전체 근로자들에게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은 해방 후 지난 18 년 간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의 자유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당과 인민이 일심 전력하여 투쟁한 결과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락후성을 청산하고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로 전변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량강도 내 근로자들도 전국 인민들과 함께 부강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사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량강도 내 인민들은 과거로부터 혁명 투쟁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인민들은 일제 통치의 암담하던 시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운 항일 빨찌산들을 물심 량면으로 도와 나섰으며 그들을 받들어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해방 후 도내 전체 근로자들은 당 주위에 굳게 뭉쳐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량강도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5 년 만에 다시 이 곳에 찾아 와 각지를 돌아 보고 도내의 경제와 문화, 인민 생활이 현저히 발전 향상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림업 부문 로동자들은 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한층더 공고히 하고 목재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으며 산림 자원을 육성 보호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도내 광부들은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고 증산 투쟁의 불'길을 높여 인민 경제 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동, 류화철,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 생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 공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현재 도내 매개 시, 군에는 7 개 이상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있으며 그의 생산은 해마다 높아 가고 있습니다.

금번 혜산 지구 건설자들은 전국의 지원 하에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우리 나라 제지 및 방직 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혜산 제지 공장과 혜산 방직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또하나의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근 년간 도내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농업과 축산물 생산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협동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불리한 기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사에서는 례년에 드문 다수확을 내다 볼 수 있게 되였습니다.

도내 교육, 문화, 보건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특히 도내 인민들은 사랑하는 자기 향토에 깃든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사적들을 더욱 잘 정비 복구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 선렬들이 이룩한 영광스러운 투쟁 전통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량강도에서 달성된 모든 성과들은 도당 위원회가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들을 옳게 집행한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지난 기간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림업, 광업, 지방 산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협동 농장원들, 국영 농목장 로동자들, 교육 문화 보건 일'군들 그리고 도내 당, 정권 기관 및 사회 단체 일'군들과 도내 전체 근로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만함이 없이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림업, 광업, 목축업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서 량강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전망도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량강도의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가일층의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림업입니다.

전체 림업 부문 로동자들은 기술 관리와 생산 조직 사업을 일층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증대되는 목재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중적 운동으로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 자원을 극력 보호 관리하며 그를 더욱 더 풍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량강도에서는 고산 지대 농업 발전에 대한 당의 방침에 확고히 립각하여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기후 풍토에 맞고 이 지방에서 수익성이 높은 아마, 감자, 호프와 함께 알곡의 다수확 품종을 선정 육성하여 콩, 밀, 옥수수 등의 작물을 광범히 재배하며 그리고 양, 소를 더 많이 길러 가까운 년간에 고산 지대에 공예 작물과 알곡이 풍성하고 양떼가 산야를 덮는 지대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지질 탐사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현존 광산들의 생산 능력을 높여 량강도 일대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적극 개발하며 광물 생산량을 현저히 제고하여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내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 전적지에서 사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체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지방 공업과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고 건설, 상업, 교육 문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유서 깊은 우리의 향토를 더욱 살기 좋고 문명한 곳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도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는 높으며 기세는 매우 좋습니다.

나는 모든 지도 일'군들이 청산리 정신,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지혜를 옳게 조직 동원하고 일을 더 많이, 더 잘 하여 도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뜻깊은 해방의 명절을 축하하면서 우리 조국의 부강과 륭성 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과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헌신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도내 모든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협동 농장원들, 국영 농목장 로동자들, 교육 문화 보건 부문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앞으로의 새로운 성과를 위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김 일성 수상께서 주 은래 총리의 8월 2일 부 서한에 대하여 회답 서한

중화 인민 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 동지

존경하는 총리 동지!

당신의 8월 2일 부 서한을 받았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핵 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파괴해 버릴 데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 정부 수뇌자들의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시종 일관 핵 무기의 시험, 생산 및 사용의 금지를 주장하며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발광적으로 군비 경쟁과 새 전쟁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모쓰크바에서 쏘, 미, 영 3 개국의 핵 시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였으나 그것은 미제의 핵 전쟁 준비를 구속하지 못 하였으며 핵 전쟁의 위협을 제거할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계속 평화를 위협하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확보할 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핵 무기의 전면적 금지와 파괴를 실현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우리는 핵 무기의 전면적 금지 및 파괴와 같은 세계 각국 인민들의 리익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력량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충심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1963년 8월 13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연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민족적 명절에 제하여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우리 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공화국의 륭성 발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북반부 인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나는 또한 60만 재일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공민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위한 재일 동포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명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귀중한 손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들을 통하여 친선의 사절을 파견하여 준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동지들!

창건된 지 15 년이 되는 우리 공화국은 지금 류례 없는 번영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거대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간고 분투하여 건설해 놓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업과 농업이 계속 급속히 발전하고 문화와 예술이 찬란히 꽃피고 있으며 페허 우에 일떠선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날로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착취와 빈궁에서 벗어 났으며 륭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 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전 사회가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 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열정과 혁명적 락관으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쥔 우리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전진 도상에서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당의 령도 밑에 굳게 단결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훌륭한 사회주의 새 조국을 건설하였으며 우리의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다져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더욱 흥겹고 보람찬 것으로 되였으며 우리 앞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결정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 기풍입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말고삐를 더욱 튼튼히 틀어 잡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새로운 거대한 앙양이 일어 날 것입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7 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부강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킬 것이며 우리의 모든 생활을 유족하고 문명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위력의 장성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조선 경제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빠졌으며 인민들의 생활고는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불만과 항거의 기세는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뒤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기만 술책에 매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으며 반미 애국 력량의 장성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필승 불패입니다. 남북 조선 전체 애국적 인민들은 단결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주되는 적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침략과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반제국주의 력량과 평화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결속시켜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만 세계 평화를 보위할 수 있으며 독립과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의연히 전쟁과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계의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대렬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 것이며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나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오늘 조선 인민의 뜻 깊은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과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륭성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통일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각국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성명

(남조선에서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연장하려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책동과 관련하여)

소위 《민정 이양》의 간판 하에 남조선에서의 군사 파쑈 테로 독재 통치를 무한정 연장하려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후안무치한 범죄적 책동은 지금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그들은 이미 총검의 위협과 사기 협잡의 방법으로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파쑈적인 《헌법》을 날조하였으며 뒤를 이어 《정당법》이니 《선거법》이니 하는 전고미문의 악법들을 련속 꾸며 내고 있다.

이 모든 추악한 문건들은 례외없이 군사 파쑈 도당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자기들 이외의 모든 정치 세력의 대두와 진출을 무조건 봉쇄하기 위하여 얼마나 파렴치하게 날뛰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이 그 어떤 《참신하고 량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넘겨 주겠다고 떠들던 것은 순전한 허위 기만이며 《민정 이양》이란 군정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교활한 변장극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게 되였다.

그들이 떠드는 《민정 이양》이란 다만 군복 우에 사복을 껴 입고 왼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더욱 튼튼히 바른 손에 옮겨 쥐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군사 파쑈 도당의 이와 같은 횡포무도한 책동은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의 치솟는 민족적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

남조선에서 파쑈 테로 통치를 끝 없이 계속하려는 범죄적 음모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오래 전부터 감행되여 왔다.

오직 군사 파쑈 테로 통치의 류혈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미제는 군사 파쑈 통치를 항구화할 것을 발광적으로 획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민정 이양》을 준비한다는 구실 하에 군사 파쑈 통치를 연장하기 위한 파렴치한 흉책을 다하여 왔던 것이다.

군사 파쑈 도당이 《반공》의 간판 하에 《구악을 일소》하고 《질서를 확립》하며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댄 것은 사실에 있어서 일체 애국 력량을 탄압하고 모든 정치 세력을 숙청하며 자기들만이 독판칠 수 있는 활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간악한 책동이였다.

그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한 혁신계 인사들은 물론 보수계의 구정치인들과 군부 내에 이르기까지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광란적인 폭압을 가하였으며 《정치 활동 정화법》이라는 희세의 악법을 조작하고 근 3천 명의 정계 인사들과 사회 활동가들을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는 것조차 서슴치 않았다.

다른 한편 군사 파쑈 도당은 장기 집권의 야욕을 실현할 정치적 기반을 축성하기 위하여 《재건 국민 운동》의 간판 하에 소위 《여당》 조직을 준비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와 같이 파쑈적 수법으로 장기 집권의 준비를 갖춘 그들은 군사 파쑈 테로 독재 통치 질서를 그 대로 성문화한 소위 《헌법》을 비롯하여 어떠한 정치 활동도 사실 상 금지하며 억제하는 수다한 악법들을 날조해 놓고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들은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의 립후보를 금지하는 동서 고금에 류례가 없는 횡포한 규정을 만들어 넘으로써 절대 다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 세력들의 정당 추천에 의한 립후보의 길마저 가로 막기 위하여 터무니 없는 《등록제》를 강요하는 반동적인 《정당법》을 조작하고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당은 립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

어떠한 정당이든지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으며 아무 때나 해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정당은 조직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군사 파쑈 도당 이외에 그 누가 어떻게 정당의 추천을 받고 자유로이 선거에 나설 수 있겠는가?

더우기 군사 파쑈 도당은 《야당》들의 정치 활동의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형식 상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였으며 《조기 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통령》 선거를 선행시키려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을 먼저 날조하고 그 직권을 리용하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독점하려는 비렬한 목적 이외에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또한 《국회 의원》 선거에서 무더기로 자기들의 당선을 날조하기 위하여 소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할 것까지 고안해 내고 있으며, 《선거 공영제》의 구실 하에 마음대로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는 철저한 관제 선거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

수천 수만의 애국적 인사들과 정치 활동가들을 검거 투옥하고 수족을 묶어 놓았으며 일체 정치

활동의 길을 봉쇄하고 오직 관권의 힘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선거가 군사 불한당들이 제멋대로 꾸며 내는 가장 추악한 협잡 이외에 아무 것도 될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군사 파쑈 도당이 《민정 이양》을 위한 소위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장기 집권을 위한 범죄적인 흉책에 그 어떤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 얼마나 악랄하고 철면피한 무뢰한들의 책동이며 인민 대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기만이며 우롱인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떠들고 있는 《민정 이양》의 정체이다.

2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군사 파쑈 통치를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영구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군사 정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 파쑈 도당이 감히 혁명의 이름을 도용하여 감행해 온 온갖 매국 배족적인 범죄 행위들은 너무도 명백히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들은 《군사 정변》을 조작한 첫날부터 남조선 천지를 공포 속에 몰아 넣은 군사 파쑈의 도가니로 전변시켰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한 애국적 인사들을 발광적으로 탄압 학살하고 인민들에 대한 대중적인 폭압을 가하고 있다.

이 야만적인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난 지 오랜 악명 높은 《반공》의 구호를 내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날 히틀러나 도조도 《반공》의 구호 하에 파쑈적 폭압과 강도적 침략을 감행하다가 멸망하였으며 리 승만 역도도 역시 《반공》의 구호 하에 《북진 통일》을 고창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다가 분노한 인민들의 손에 타도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군사 파쑈 도당은 바로 이 《반공》의 구호 하에 미국의 씨. 아이. 에이, 나치스 독일의 게슈타포, 일제의 고등 경찰의 가장 악랄한 것들을 모방한 류혈적 폭압 체계를 수립하고 3천여 건에 달하는 악법들을 조작하였으며 수만 명의 밀정을 도처에 박아넣고 살인적 특무 통치를 감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 대중을 《불온 분자》로 몰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고 있으며 기아에 허덕이는 실업자들이 배고파 못 살겠다고 한탄만 하여도 《리적 행위》라고 꺼리낌 없이 《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폭압에 의하여 《군사 정변》 직후에만도 10여만의 애국적 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이 검거 투옥되였으며 지난해에는 소위 《구속 령장》에 의한 검거 건수만 무려 9만 7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그들은 《교통 규칙 위반》이니 《징병 기피자 색출》이니 그 무슨 《단속》이니 하는 수백 가지 구실을 붙여 하루에도 수만 명의 주민들을 검거 처벌하는 무지막지한 폭압을 일삼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유린 말살되였으며 남조선은 다만 총검과 몽둥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군사 깡패들의 란무장으로 화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입과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무서운 범죄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무엇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더욱 엄중한 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남조선 천지는 문'자 그대로 피 비린내 나는 인민의 감옥으로 변하고 말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숨 막히는 질식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인민 대중의 고혈을 짜내는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강도적 략탈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경제는 여지 없이 파괴되였으며 인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5 개년 계획》이니 《중농 정책》이니 《중소 기업 육성》이니 하면서 《자립 경제를 수립》하고 《민생고를 해결》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인민 생활의 안정을 요구하는 인민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들은 남조선 경제를 미제의 군사 침략적 목적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고 있으며 민족 경제 건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군사 도로와 군항 및 군사 기지 확장과 군수 공장 건설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또한 허황한 《5개년 계획》의 소요 자금을 동원한다는 구실 하에 군사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인민 수탈에 광분하고 있으며 《외자 도입》의 명목 하에 미국, 일본, 서독 등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무제한한 리권을 넘겨 줌으로써 남조선을 완전히 그들의 투기 모리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 어떻게 《경제의 성장》, 《민생고의 해결》을 상상인들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남조선의 민족 산업이 전면적인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욱 급속히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그 시설들의 60%가 녹이 슬어 페물로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의 농촌 경리도 또한 가일층 황페화되였으며 경작 면적은 축소되고 농업 생산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작년에만 하여도 14만 정보의 농경지가 류실 매몰되고 재해를 입었으며 농업 생산은 50 년래의 대흉작을 면할 수 없었다.

산업과 농촌 경리의 파괴로 말

미암아 로동 능력을 가진 인구 10 명 중 6 명이 실업 및 반실업 상태에 빠지고 60% 이상의 농민들이 절량에 허덕이고 있으며 대중적 기아와 빈궁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다.

생활고로 인하여 집단 자살하는 목불인견의 참극이 도처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하여도 근 150만의 시민들이 주택이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군사 파쑈 도당은 인민들이야 얼어 죽건 굶어 죽건 판자'집 철거에만 미쳐 날뛰고 있으며 미국 침략 군대의 유흥장 건설에 수억원의 국고금을 탕진하고 있다.

《부정 부패를 일소》한다는 그들의 가소로운 기만적 구호의 정체도 이미 백일 하에 폭로된지 오래다.

홍수처럼 밀려 드는 말세기적인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은 날로 만연하는 사회악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패덕과 패륜, 살인과 폭행, 강도와 절도, 사기와 협잡, 뢰물과 매관 매직 행위가 오늘보다 더 성행한 때가 언제 있었던가?

지난해 첫 7 개월 간에 발생한 각종 범죄 건수만 하여도 1959년에 비하여 무려 2.5 배나 증가된 46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민족 문화는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다.

학술 연구와 예술 창조의 자유는 박탈되였으며 과학 연구 기관들은 군납 물자 생산의 부속 기관으로 전락되고 21 개의 대학이 일시에 폐쇄되였으며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추방되였다.

전체 인구의 90%가 각종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는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기생충 왕국》으로 되고 있으며 인구의 70%에 달하는 결핵 감염자를 비롯하여 수백만을 헤아리는 각종 만성 질환자들이 아무런 치료 대책도 없이 버림 받고 있다.

오늘 남조선이 《세계에서 최고의 리병률과 사망률》을 가진 《병마》의 소굴로 되고 있으며 그 소굴에서 30여만의 이 나라 녀성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륜락의 거리를 헤매고 있고 세계 제일의 자살자를 내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탓인가?

수십만의 우리의 귀여운 어린 것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문전 걸식하고 책보 대신 목판을 메고 구두닦기, 담배 장사로 나서고 있으며 수 많은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이민》의 명목 하에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할 산 설고 물 설은 만리 타국으로 팔려 가는 민족적 참극은 도대체 누가 빚어 내고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미국 양키들은 그들의 발'길이 가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쏘아 죽이고 군견으로 물어 뜯게 하고 있으며 부녀자들을 릉욕하고 재산을 략탈하는 등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모욕을 제멋대로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파쑈 도당은 미군의 만행을 반대하여 궐기한 애국적 청년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오히려 《한미 친선》을 고창하고 있으며 미국 침략자들의 지시 밑에 동족 상잔의 범죄적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에 70만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각종 신형 무기들을 계속 비법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으며 남조선 땅을 군용 비행장과 군수 도로와 군사 기지로 뒤덮인 하나의 《거대한 군인 야영소》로 전변시켜 놓았다.

그들은 《군사 정변》 이후 40만 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괴뢰군에 끌어 들였으며 《100만의 예비군》을 편성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각종 군사 연습을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전쟁 준비로써 대답하고 있으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악의에 찬 목소리로 동족간의 반목을 조성하는 반면에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는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의 본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또 하나의 상전으로 모시는 것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경제 협조》의 명목 하에 남조선 전역을 일본 독점 자본의 탐욕의 제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단 몇 억 딸라에 남조선 땅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넘기려 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일본 침략 군대까지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심지어 박 정희 도당은 오래 전부터 《일한 련방안》을 떠들면서 남조선 재침을 제창해 온 일본 군국주의 두목들을 서울에 들여다 놓고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당신과 우리는 부자간의 관계》라고까지 아양을 떨었다.

실로 군사 파쑈 도당이야말로 지난날 《동조 동근론》을 떠들던 일제의 주구들보다도 더욱 철저한 친일 주구이며 매국 역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멀지 않아 제 2 세 리 완용인 박 정희 역도가 서울 한복판에 을사 오적의 공적비를 세우고 리 완용의 동상을 세우지 않으리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으로는 애국자들과 인민 대중을 탄압 살륙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밖으로는 외래 침략자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천추 만대에 저주 받을 매국 배족 행위를 일삼는 군사 파쑈 도당이 입으로는 《민족 자립》을 떠들고 《사대주의 반대》를 떠들고 있으니 이보다 더 철면피한 수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박 정희 도당의 군사 파쑈 테로 독재 통치는 17 년 간에 걸친 고난과 원한에 가득찬 남조선 인민들의 식민지 노예살이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류혈적이고 가장 탐람적이고 가장 매국적인 야만 통치이며 암흑 통치이다.

바로 이러한 반인민적 통치를 계속 연장하기 위하여 군사 파쑈 도당은 《민정 이양》의 간판 하에 장기 집권의 야욕을 실현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3

지금 남조선 인민들의 머리 우에는 아직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전고미문의 위협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만일 군사 파쑈 독재 통치가 계속된다면 남조선 천지는 군사 깡패들과 특무 밀정들과 경찰 테로들의 란무장으로 될 뿐만 아니라 오만무례한 미국 야수들과 아울러 일본 사무라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2중 3중의 예속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3천만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통일은 더욱더 지연되고 남조선 인민들은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조국의 장래를 근심하고 겨레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몸서리치는 사태 앞에서 어찌 민족적 의분을 금할 수 있겠는가?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군인, 지식인, 상인, 기업가, 종교인, 공무원, 구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로소를 막론하고 민족적 량심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을 분쇄 파탄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궐기하여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절박한 순간에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 있는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남조선 전체 인민들이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과 지식의 유무, 과거의 여하에 관계 없이 일치단결하여 군사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음모를 단호히 반대 파탄시킬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그들의 장기 집권 음모를 파탄시키는 것은 곧 야만적인 군사 파쑈 통치를 청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는 길로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길로 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어떠한 회유 기만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군사 파쑈 통치를 연장할 목적을 가진 기만적인 선거 조작을 반대하여 과감하게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고 인민 대중을 죽음의 구렁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 데 있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북 조선 군대를 축소하고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여 경제 문화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한다면 우리 민족 주체적 력량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 자주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애국 애족의 정의로운 길이다.

인민 대중이 굳게 단결하고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하기만 한다면 능히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낼 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단결된 인민의 력량을 당해 낼 그러한 원쑤는 이 세상에 없다.

적수공권으로 리 승만 역도의 독재 통치를 전복하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근저로부터 뒤흔들어 놓은 4월 인민 봉기의 고귀한 경험이 그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지 않는가.

현 시기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의 시대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시대이며 전 세계적 규모에서의 위대한 혁명의 시대, 폭풍의 시대이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외래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선조들의 뜨거운 피를 이어 받은 우리 민족이 어찌 이 자랑찬 시대에 마 리 밖에서 기여든 미국 야만들의 침략을 감수할 수 있으며 잔인무도한 군사 파쑈 통치에 계속 얽매여 있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나라의 북반부에 위대한 혁명적 기지가 있고 조국 통일의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여 있는 오늘에 있어서 남조선 인민들이 궐기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을 것인가?

외래 침략자들을 몰아 내야 하며 반역자들에게는 죽음을 주어야 하며 민족적 통일과 장래 번영의 대로를 단호하고 대담하게 주저 없이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선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음모를 파탄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 인민적 투쟁에 나서라!

미제의 손때 묻은 특무이며 일제의 주구이며 반역자인 박 정희 역도가 《대통령》 자리에 기여 들지 못하게 하고 군복 입은 불한당들이 다시는 정권에 기여 들지 못하게 하라!

군사 파쑈 도당이 비법적으로 조작한 소위 《헌법》을 비롯하여 《정당법》, 《선거법》, 《정치 활동 정화법》 등 일체 악법들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며 군사 파쑈 통치를 그 대로 연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선거의 날조를 반대하며, 비록 《선거》가 감행된다 하더라도 일치하게 박 정희 군사 깡패들을 반대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서는 애국적 민주 력량을 총동원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 파쑈 통치를

청산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라!

체포 투옥된 일체 애국적 인사들과 정치 활동가들의 무조건 즉시 석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정치 활동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라!

언론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파쑈적인 억압을 반대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군사 파쑈 도당의 온갖 죄상과 허위 기만적인 《민정 이양》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하며 군사 파쑈 통치를 연장하려는 그들의 범죄적 책동을 분쇄 파탄시키기 위한 광범한 군중 투쟁을 전개하라!

군사 파쑈 도당이 조직하는 각종 집회들을 군중적 반미 반파쑈 투쟁의 전투적인 연단으로 전변시키라!

온 남조선이 군사 파쑈 통치를 청산하고 군사 파쑈 도당의 집권 음모를 반대 파탄시키기 위한 열화 같은 투쟁의 활화산으로 되게 하라!

남조선 전체 인민들은 반미 반파쑈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굳게 단합되여야 한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폭압이 아무리 가혹하다 하더라도 단결된 인민의 힘 앞에는 물먹은 담'벽과 같이 무력하다.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음모를 파탄시킬 수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거족적 투쟁으로 군사 파쑈 통치의 연장 책동을 파탄시킴으로써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남녘 동포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1963년 1월 14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는 당 중앙 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는 또한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 및 지방 당 일'군들,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위원장들, 성, 중앙 기관, 근로 단체 일'군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2.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의정 첫째 문제에 대하여는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당 위원회 위원장 지 창건 동지, 안주 탄광 당 위원회 위원장 박 기택 동지, 성진 제강소 당 위원회 위원장 김 능일 동지들이 보고하였으며 의정 둘째 문제에 대하여는 직총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 왈룡 동지가 보고하였다.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전원 회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수립하는 행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였으며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업 관리 분야에서와 공장, 기업소들의 당 위원회 사업에서는 새로운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다.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 하에 새로운 기업 관리 체계를 통하여 청산리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당의 군중 로선이 철저히 관철되게 됨으로써 생산과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 나고 있다.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가 우리 나라 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새로운 훌륭한 형태이며 생산자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체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우리 당 사업 발전에서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의의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혁명 진지를 가일층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이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고 가일층 심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우월성과 그의 거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하에 전체 군중을 기업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 위원회들의 령도적 역할과 집체적 기능을 더욱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생산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업소의 규모와 경영 활동의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 공정과 생산적 련계가 더욱 복잡하여 지고 있는 조건하에서 몇몇 사람들의 소《총명》으로써는 독단과 주관을 면할 수

없으며 기업 관리에서 복잡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 때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하에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집행함으로써 그 어떤 복잡한 경제 기술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들과 경험들로써 례증하면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통하여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 사업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만 과거의 낡은 관리 운영 체제에서 산생되던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극복하고 지배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사업에서 단련된 로련한 일'군들과 진취성이 강하며 새 것에 민감한 젊은 일'군들,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로동자들과 기술 일'군들을 옳게 배합하여 당 위원회들을 계속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 사업을 부단히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강화된 결과에 경제 지도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사업이 더욱 심화 발전되였으며 《키잡이》의 역할이 일층 높아진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한 다수 공장, 기업소들의 경험에 의하면 당 위원회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당 정책 집행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 낸 다음 그들과 토의하여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군중 속에 침투시키면서 당 조직과 당원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그의 실행을 보장하며 실천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시금 군중 속에서 발견하고 부단한 반복 과정을 통하여 경제 지도에서 남아 있던 관료주의, 형식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계속적인 앙양을 가져 오고 있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당 위원회가 《키잡이》를 옳게 한 결과 당의 모든 정책들이 신속 정확히 집행되게 되였으며 행정을 대행하거나 행정의 뒤꼬리를 따르는 일이 없어지고 모든 단위와 고리들이 다 책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생산에서 변혁이 일어 나게 되였다는 것을 구체적 사실을 들어 례증하였다.

전원 회의는 공장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당 위원회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결합하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제기된 과업의 집행을 위하여 분공을 조직하고 당 조직들과 군중들을 동원하며 사업 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해당한 문제의 해결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키잡이》의 역할을 높일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강화되고 《키잡이》의 역할이 제고된 결과에 당 조직의 전투력이 강화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밀접해지고 광범한 대중이 당 사업과 경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하게 되였다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안주 탄광을 비롯한 다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당 위원회가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당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과 방도를 명확히 수립한 다음에는 그의 실천을 위하여 산하 당 조직을 움직이며 당 조직은 당원들을 움직이며 당원들은 비당원들을 움직임으로써 상하가 소통하고 당 정책은 지체 없이 하부 말단까지 관통되며 전체 집단이 제기된 과업의 실행을 위하여 한 사람 같이 동원되고 있다.

전원 회의는 당 위원회들이 당 세포와 분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매개 당원들에게 능력, 취미, 체질에 맞게 빠짐 없이 분공을 주어 그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여 모든 당 조직들이 일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사업에서 성과 여부는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의 모든 물질 문화적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전원 회의에서는 잡다한 문서 놀음으로써가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통하여 설비 상태와 기술 공정을 알아 보며 직접 사람들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중 로선에 립각한 혁명적인 사업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행정 경제 사업에서나 당 사업에서 아래 일'군들을 함부로 우에 불러 올리거나 지시와 명령만으로 지도를 대치하는 낡은 행정 관료식 방법을 퇴치하고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도와 주고 배워 주며 사업 조건을 보장해 주며 걸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여기에 대안 사업 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지도 일'군들이 생산 현장에 직접 내려 가서 생산을 조직해 주고 지도하며 사업을 도와 줌으로써 모든 문제들이 제때에 원만히 해결되고 거대한 생산적 예비가 동원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특히 전원 회의에서는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가 확립되고 자재를 기대 옆에 책임적으로 날라다 주게 됨으로써 기본 생산 단위들이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자재 공급이 생산의 장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작용을 놀게 되였으며 자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우가 아래를 도와 주고 호상 방조하는 기풍을 더욱 발양함으로써 성이 국을 돕고 국이 기업소를 돕고 기업소가 직장을 도우며 기관, 기업소 호상 간에 서로 도우며 모든 사람들의 동지적 단결을 일층 강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에 따라 후방 공급 사업이 가일층 개선됨으로써 로동자들의 로력적 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고 지적하고 중요한 정치 사업의 하나인 이 사업을 계속 강화할 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되고 그 우월성이 발휘됨으로써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도덕 풍모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났다고 강조하면서 공장이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단합되여 서로 돕고 협력하며 서로 아끼고 이끌며 자각적으로 일하며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일'군들의 혁명가다운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모든 문제를 더 잘 알아야 하며 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배워주는 데 정력을 기울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에서 이룩된 거대한 변화는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경험과 성과를 계속 확대 발전시킨다면 당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는 일대 앙양이 일어 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 요강(잠정)을 채택하였다.

계속하여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 로선으로 된 천리마 운동이 심화 발전되는 행정에 일어 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그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대책을 토의하였다.

생산에서의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오늘 공장, 농촌, 교육, 문화, 보건, 상업 류통 부문과 가두 인민반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 운동으로 더욱 심화 발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8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 운동에 궐기하였으며 이미 43만 4천여 명을 망라한 1만 3천 626 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의 칭호를,3천 343 명을 망라한 131 개의 작업반이 2중 천리마의 칭호를 쟁취하였으며 또한 17 개의 천리마 직장과 우리 나라에서 첫 천리마 공장인 대안 전기 공장이 배출되였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가장 높은 형태로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생산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의 하나인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학교로서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의 결과이며 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고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결실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지도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으로써 이 운동을 한 계단 높이 끌어 올리며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과 근로 단체들이 천리마 기수들로 하여금 나라의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영예로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직 동원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또한 천리마 기수들이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현존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로력 조직을 잘하고 로력을 절약하며 원료와 자재를 애호 절약하며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부단히 창조하고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배 이상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전원 회의는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비롯한 새로운 대중적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광범히 일반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것을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더 많은 군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결속시킬 데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과 근로 단체들이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계급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는 혁명 투사로 교양 육성하며 특히 학생 청년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이고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소유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물질적 부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며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

관리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주인답게 꾸리는 정신을 부단히 배양시켜야 한다고 전원 회의는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또한 천리마 작업반원들 속에서 당의 정책과 결정, 지시들을 제 때에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항상 당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이악하게 달라 붙어 그를 끝까지 옹호 관철할 뿐만 아니라 군중 속에 들어가 당의 의도를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는 능숙한 정치 선동가가 되도록 교양할 것이 강조되였다.

특히 군중을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방법인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전원 회의는 당 조직들과 근로 단체들이 천리마 기수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무수히 발현되고 있는 긍정적인 모범을 제 때에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며 널리 소개 선전하고 일반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 기수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 주어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합될 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 가정과 마을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며 생활에서 검박하고 사회 공중 도덕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 시대의 새 인간이 되도록 교양할 것을 전원 회의는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천리마 작업반 내 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일층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하여 심중한 주목이 돌려졌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이 천리마 작업 반장을 비롯한 핵심들을 작업반의 전반적 사업을 잘 조직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된 믿음직한 일'군으로 꾸리며 이들에 대한 교양 체계를 확립하고 강습과 경험 교환회 등을 수시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당 정책과 경제 관리 지식을 배워 주며 특히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미 칭호를 쟁취한 작업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의 영향 하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기본 생산 부문에서 이 운동을 더욱 확대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이 운동 대렬을 계속 장성시키며 나아가서 2중 천리마 작업반과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의 대렬을 계속 확대 발전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에 대한 지도에서 직맹, 민청, 녀맹 등 근로 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근로 단체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 내부에 깊이 들어 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실'속 있게 발전시키며 그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에 대한 지도에서 각급 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면서 각급 당 위원회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거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자기의 책임적인 임무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각급 당 위원회들이 이 운동의 진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수시로 제시하여 줄 뿐만 아니라 천리마 작업반 내 당 력량을 옳게 배치하며 작업반 내의 당 세포, 당 분조들의 역할을 제고하여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며 당 조직과 당원 대중을 발동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공고 발전시킬 것을 전원 회의는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여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전체 군중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우리의 전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불패의 혁명 력량으로 전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 *

전원 회의는 우리 당 건설에서와 당의 군중 로선 관철에 있어서, 로동 계급 속에서 당의 핵심 진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본 전원 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체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우리 당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 한층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을 반드시 성과 있게 수행하려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의 공동 성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인 최 용건은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이며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부주석인 류 소기의 초청에 의하여 1963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함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인 리 효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인 박 성

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인 강 희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인 황 장엽이 동행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그와 동행한 기타 동지들은 북경, 천진, 하르빈, 장춘 및 심양을 참관 방문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중국 인민의 충심으로부터의 열렬한 환영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접대를 받았다. 이러한 열정에 넘친 분위기는 조 중 량국 인민 간의 두터운 형제적 친선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방문 기간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모 택동 주석은 최 용건 위원장과 리 효순, 박 성철, 강 희원, 황 장엽 동지들과 회견하고 친절한 담화를 진행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은 량당, 량국 간의 친선 단결과 호상 원조 및 협조 관계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그리고 당면한 국제 정세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우호적인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의 결과는 쌍방의 립장과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회담에는 조선 측으로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인 리 효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인 박 성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인 강 희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인 황 장엽, 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한 익수가 참가하였다.

중국 측으로부터 국무원 총리이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부주석인 주 은래,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 서기인 등 소평,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진 의, 외교부 부부장인 희 붕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재 중화 인민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학 더청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은 조 중 량당과 량국이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친선 단결을 날로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원조와 협조 관계를 날로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조 중 량당과 량국 간의 이와 같은 친선 단결은 1957년 모쓰크바 선언과 1960년 모쓰크바 성명에 규정된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에 완전히 부합되며 조 중 량국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또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한 사업에 기여로 된다. 쌍방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공동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맺어졌으며 1961년에 체결된 조 중 량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더욱 공고화된 량당, 량국간의 전투적 친선과 위대한 단결을 끝까지 수호하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운명을 같이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류 소기 주석은 형제적 조선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조선 혁명의 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 갱생의 방침을 확고 부동하게 관철함으로써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였다.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 로동당의 방침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시킨 조선 인민의 혁명 정신을 뚜렷이 구현한 것이다. 조선 로동당이 제시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 및 대안의 사업 체계는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켰다. 류 소기 주석은 조선 인민이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수상의 령도 하에 웅대한 인민 경제 발전 7 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확신한다.

최 용건 위원장은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과 모 택동 주석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국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흉책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최근 년간 계속된 혹심한 자연 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호전시켰으며 공업과 농업을 더욱 공고하고 견실한 토대 우에 올려 세워 놓았다.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중국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 로선, 대약진, 인민 공사의 세 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인도하고 있다. 최 용건 위원장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과학 문화, 현대적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 강국으

로 건설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쌍방은 현 시기 국제 정세가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매우 유리하며 제국주의와 각국 반동파들에게 불리하다고 일치하게 인정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민주주의 혁명 운동은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다. 이 두 개의 강대한 력량은 서로 지지하고 서로 고무하면서 력사의 전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세계의 면모를 변경시키고 있다.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근로 인민들은 독점 자본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권리의 쟁취와 생활상 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 인민들의 운동이 광범하고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고유한 모순들은 날로 더욱 첨예화되고 있으며 세계 자본주의 체계는 더욱 쇠퇴 몰락하며 썩어 가고 있다. 쌍방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 정당들이 반드시 이러한 유리한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리용하며 세계 평화와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각국 인민들의 투쟁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미국의 케네디 정부가 교활하고 모험적인 반혁명 세계 전략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는 것을 일치하게 지적한다. 그는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핵 전쟁을 준비하는 한편 상용 무기에 의한 전쟁을 또한 준비하고 있으며 소위《특수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무력 탄압, 정치적 기만, 경제적 침투 등 각종 수단으로 신 식민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서는 군사적 침략과 전쟁 위협을 감행하는 이외에 파괴 암해 활동을 강화하며 《평화적 진화》 정책을 추진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의 재생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또한 그의 동맹국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제국주의 나라들과 시장, 식민지 및 세력권의 쟁탈을 위한 싸움을 치렬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는 전 세계 반동 세력의 중심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 제국주의는 일관하게 서부 독일 군국주의를 강화 발전시키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재생시키는 것을 자기들의 전쟁 계획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삼아 왔다. 서부 독일과 일본은 더욱더 재 세계 전쟁 위협의 두 개 온상으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울 것을 목적하고 《한일 회담》을 하루 속히 결속하며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자기의 침략적 해외 팽창 야망을 실현할 것을 꿈꾸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핵 무장을 서두르는 한편 해외 파병 계획까지 공공연히 들고 나오고 있으며 특히 남조선에 대한 재침 기도를 실현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극히 위험한 존재로 되고 있는 오늘 그들의 침략 책동에 대하여 항상 경각성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서부 독일과 불란서는 한층 더 결탁하여 소위《협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불란서—서부 독일 조약의 체결은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모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는 실증으로 된다. 불란서—서부 독일 조약은 서부 독일 군국주의의 발전을 더욱 유리하게 하는 반동적 조약이다. 쌍방은 미 제국주의가 의연히 서부 독일 군국주의 세력을 뒤'받침하고 있는 만큼 서부 독일 군국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동시에 반드시 투쟁의 주요 화살을 미 제국주의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의 진보를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세계의 피압박 인민들 및 피압박 민족들과 가장 긴밀한 동맹을 맺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시켜야 하며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가장 광범한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확대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으로 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화 투쟁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각국 프로레타리아트 정당들은 오직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 민족 해방 운동의 력량, 국제 로동 운동의 력량 및 모든 평화 애호 력량의 공동 투쟁에 의거함으로써만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능히 좌절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다.

쌍방은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며 제국주의 진영과 그의 추종자들이 존재하며 또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압박과 착취를 받는 수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존재하는 이것이 현 세계의 실제 형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 관계와 대외 활동에서 반드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관

제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령토 완정과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기초한 각이한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여야 한다. 쌍방은 이 세가지 측면은 불가분리적으로 호상 련결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을 일면적으로 평화적 공존에만 귀결시키고 평화적 공존을 의식 형태의 투쟁과 경제적 경쟁으로만 해석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대한 각방으로 되는 견결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평화적 공존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우기 사회주의 국가 간의 평화적 공존을 압박 민족과 피압박 민족, 압박 계급과 피압박 계급간의 관계에까지 확대하여서는 안 되며 평화적 공존을 구실로 반제 투쟁을 그만 두거나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조 중 량국은 국제 무대에서 항상 호상 지지하여 왔으며 친밀하게 협력하여 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최전선에 서서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으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류 소기 주석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언명한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을 위한 범죄적 책동을 부단히 감행함으로써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합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 제국주의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 류 소기 주석은 조선의 인공적인 분렬 상태는 종식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의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며 조선 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 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평화적 공존에 관한 5 개 원칙의 창시자로서 평화적 공존에 관한 5 개 원칙과 반둥 정신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친선적 선린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조선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불가분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두 개 중국》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 등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적대 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를 견결히 규탄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중국 소동을 과감히 물리치며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 정부는 중 인 국경 문제를 회담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중국의 일관한 립장을 견결히 지지하며 중국 측이 취한 정화, 철수 및 인도군 포로의 완전 석방 등 전례없는 주동적 조치들을 높이 평가한다. 최 용건 위원장은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평화적 회담을 거부하며 중 인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인도의 립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인도 측은 중 인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관한 중국 정부의 합리적인 제의에 응당 호응하여야 한다고 언명한다.

쌍 방은 조 중 량국 정부가 전반적 군비 철폐와 핵 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시종 일관하게 주장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전반적 군비 철폐와 핵 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거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 무력 우세의 발전을 포함한 국방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우세에 의거하며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들을 가장 광범하게 동원하여 미 제국주의의 전쟁 정책과 핵 공갈 정책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만 비로소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군비 철폐에 관한 일부 협정과 핵 무기의 전면적 금지에 관한 협정을 접수케 할 수 있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쟁취 및 수호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각국 인민들의 투쟁을 열렬히 찬양하며 견결히 지지한다. 쌍방은 민족 혁명 운동은 현 시기 세계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력량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인정한다.

쌍방은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중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본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각성된 일본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벗어 나 자기들의 민족적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일본 인민이 미국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며 일미 《안보 조약》의 페기를 요구하여 전국적 통일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이다. 쌍방은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재무장시키며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음모를 견결히 반대한다. 쌍방은 또한 조 일 량국 인민의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한일 회담》

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쌍방은 미 제국주의에 의하여 조성된 라오스의 엄중한 현 사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쌍방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라오스의 모든 애국적 력량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1962년 제네바 협정을 파괴하고 라오스 반동파들을 리용하여 라오스 애국 력량을 분렬시키며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를 전복하고 라오스 내전을 재발시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견결히 반대한다.

쌍방은 투쟁을 견지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이 아세아 및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의 지지하에 반드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공을 분쇄하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한다.

쌍방은 남부 월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월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야만적이며 잔인한 《특수 전쟁》을 견결히 반대한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느고 딘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과 조국 통일을 위한 월남 인민의 투쟁은 정의의 투쟁이다. 월남 인민의 이 투쟁은 시종 일관 조선 인민, 중국 인민 그리고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쌍방은 영웅적 월남 인민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한다.

쌍방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는 꾸바 인민과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꾸바 인민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적 무력으로 반동파들의 반혁명적 무력을 격파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섰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인민의 지원 하에 미제와 그 주구들의 거듭되는 무력 침공과 침략 계획을 분쇄하였다. 꾸바 인민의 혁명 투쟁은 전 세계 모든 피압박 민족들과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대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꾸바의 정당한 5 개 조항의 요구를 거부하고 꾸바 침공의 자유를 가진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있으며 서반구의 공산주의와는 담판할 수 없다고 서슴 없이 선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의 강도적 본성을 여지 없이 폭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꾸바 혁명을 압살하며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민족 민주주의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범죄적 음모 책동에 더욱더 광분하고 있다. 조 중 량국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꾸바 인민과 라틴 아메리카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꾸바와 라틴 아메리카 각국 인민들이 두 개의 하바나 선언의 혁명적 기치하에 계속 승리적 전진을 하리라는 것을 깊이 확신한다고 거듭 언명한다.

쌍방은 아프리카의 일련의 신생 국가들의 독립을 열렬히 축하하며 또한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가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위업을 촉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한 것을 환영하며 축하한다. 쌍방은 장기간에 걸치는 무장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고 오늘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알제리아 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명한다. 쌍방은 카메룬, 앙골라, 케니아, 남북 로데시아, 남아프리카 및 기타 각국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전취하기 위하여 거세차게 투쟁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리라고 확신한다.

조 중 량당과 량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일관하게 견지하며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견지하며 이 혁명적 원칙들에 배치되는 어떠한 언행도 반대한다. 선언과 성명에 정확히 지적된 바와 같이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위험은 수정주의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정신을 거세하며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와 각국 반동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세계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혁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혁명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쌍방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인민들의 혁명 위업의 전도에 관계되며 인류의 운명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수호하는 것은 현 시기 각국 공산주의자들의 중대한 전투적 과업이다.

쌍방은 유고슬라비야 찌또 도당이 현대 수정주의의 대표자라고 일치하게 인정한다. 유고슬라비야 찌또 도당은 사회주의 진영을 로골적으로 배반하고 미 제국주의의 별동대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민족 혁명 운동과 세계 각국 인민을 반대하는 파괴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찌또 도당과 계선을 명백히 가르고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만약 찌또 도당과 한편에 선다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할 따름이다.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교조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교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국내 국제 혁명의 구체적 실천에 결부시키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머리를 쓰지 않고 관계되는 모든

사실들을 연구하지 않고 국내외의 중대한 문제들에서 남이 말하는 대로 말하며 남이 가는 대로 따라 감으로써 당을 실천으로부터 리탈시키며 대중들로부터 리탈시키고 있다.

쌍방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초 우에서,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의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단결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방도는 오직 선언과 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 즉 단결의 원칙, 독립, 자주 및 평등의 원칙, 협상을 통하여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원칙, 호상 지지하며 호상 원조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 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는 반드시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에 대한 존중, 국가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존중, 호상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립각하여야 하며 평등한 립장에서의 협상의 원칙을 위반하고 어느 한 당이나 나라의 의사를 다른 당, 다른 나라에 강요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호상 원조를 구실로 다른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훼손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쌍방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투쟁할 것이라고 재천명한다.

쌍방은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존재하는 의견 상이가 반드시 내부적인 평등한 협상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의견 상이를 제거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대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 쌍방은 중 쏘 량당 간의 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형제 당들의 국제 회의의 소집에 필요한 조건을 지어 주게 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쌍방은 최 용건 위원장의 이번 중화 인민 공화국 방문과 량국 지도자들간의 친밀한 회담이 조 중 량당과 량국간의 두터운 친선을 더욱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확신한다.

최 용건 위원장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인민을 대표하여 류 소기 주석이 그가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류 소기 주석은 이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1963년 6월 23일

내각 결정 제40호

1963년 6월 28일

남반부의 절량민들과 풍수해 리재민들을 구제할 데 대하여

지금 남조선에는 전례 없는 엄중한 식량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심각한 기근은 도시와 농촌을 휩쓸고 있으며, 남조선 도처에서 수백만 절량민들이 아사지경에서 신음하고 있다.

도시에는 식량 반입이 두절되고 있으며 쌀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

농촌에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절량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들은 아무런 구호도 받지 못 하고 방치된 채 생사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밀, 보리마저 각종 재해로 인하여 거의 전멸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령남, 호남 지방을 비롯하여 남조선 일대에 래습한 태풍과 홍수의 혹심한 피해까지 겹쳐 남조선 동포들의 불행과 고통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2중 3중의 재난을 겪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과 리재민들은 지금 구호의 손'길이 뻗치기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전체 북반부 인민들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전대 미문의 고통과 재난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시급한 구호를 열망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오늘 엄중한 불행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 남반부 동포들에게 심심한 우려와 동정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고상한 민족적 의무라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남반부의 절량민들과 풍수해 리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선 백미 10만 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 남반부의 절량민들과 풍수해 리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미를 시급히 전달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농업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우리의 숭고한 동포애적 조치가 하루 속히 실현되여 남반부 동포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평양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념원이 하루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급히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재외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최근 일

본 각지에서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현재 일본에는 60여만의 조선 공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8. 15 해방 후 18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단 한 명도 조국에 래왕할 수 없었으며 계속 조국과 해외에로의 래왕의 자유를 억제 당하고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재일 조선 공민들은 미제가 일본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을 분렬시킴으로써 조국과의 련계가 두절된 이래 끊임 없이 조국으로의 래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러한 노력은 일본 지배층의 비우호적 태도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 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일본 땅에 감금된 것과 같은 부자유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처지를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재일 조선 공민들은 최근에 와서 드디여 자기들의 절박한 생활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군중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였으며 그 운동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재일 조선 공민들은 도꾜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계속 군중 대회와 집회를 개최하고 조국에 자유로이 래왕할 데 대한 자기들의 절절한 념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며 또한 일본 인민들과 세계 각국 인민들에게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의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광범한 사회계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일본 지방 의회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을 시급히 허여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날로 광범한 사회 여론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지지하여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국 래왕에 대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리하게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할 데 대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정당하며 일본 정부는 이를 보장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이다.

한 독립 국가의 재외 공민이 생활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조국과 해외에로 자유로이 래왕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원칙이다.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제법의 이 원칙들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지금 일본 정부도 국교 관계의 유무를 막론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 공민을 제외한 모든 재일 외국인들에게 일본 국외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독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하여서만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억제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더우기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절박한 생활상 요구를 응당 보장하여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오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공민들은 그들이 가고 싶어 일본에 간 것이 아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지난날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에 의하여 징병 또는 징용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 갔거나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의 결과에 살'길을 잃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 나 일본으로 류랑한 사람들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제로 끌고 간 조선 사람들을 우마와 같이 혹사하면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 갖은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가하였으며 무자비하게 탄압 살륙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억압 하에서 수십년 간 재일 조선 공민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과 불행은 이루 다 형언할 수 조차 없다.

오늘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 공민들은 바로 일제의 이와 같은 악독한 민족적 멸시와 학대 속에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과거 일제가 저지른 모든 죄행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국제법의 제 원칙에 충실하려 한다면 마땅히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대하여도 지난날의 모든 일에 대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은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합법적인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재일 조선 공민들을 법적 보호 밖에 두고 그들에게 계속 민족적 멸시와 탄압과 각종 차별 대우를 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 거주하는 기타 모든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국외에로의 래왕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하여서만 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법적 차별 대우의 또하나의 전형적 실례이다.

이미 수십년 간이나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이국살이에 시달리고 있는 재일 조선 공민들이 그리운 조국 산천을 찾아 보고 부모, 형제, 친척, 친우들과 상봉할 것을 념원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또한 근 4년 간에 걸쳐 진행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에 의하여 이미 약 8만 명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귀국한 오늘 아직

도 일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아 있는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이 조국에 먼저 돌아 온 혈육들을 만나 볼 것을 요망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그의 일관한 비우호적 태도로부터 출발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미제의 사촉 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일 회담》에서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에 리용할 밑천을 얻기 위하여 이런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은 전적으로 비법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 어떤 구실로써도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포함한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보장할 데 대한 법적 및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념원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급히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63년 7월 15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행위를 비롯한 온갖 박해를 즉시 중지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과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폭행, 살상, 습격 사건들이 더욱 빈발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유린하는 불법 행위가 일층 우심해지고 있다.

재외 공민들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와 대우를 보장할 데 대하여 일본 당국에 이미 루차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재일 조선 공민들을 법적 보호 밖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온갖 범죄적인 인권 침해 행위들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엄중한 불상사들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그들에게 박해를 가한 사건들은 부지기수인바 그 중 몇 가지 사실만 하여도 사태의 엄중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작년 7월에 후꾸오까에서 규슈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 차 철이(14세)는 《정체 불명》의 일본인 청년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였으며 11월 3일에는 가나가와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 신 영철(15세)이 가나가와현 가와자끼시 호세이 대학 부속 제 2 고등 학교 전람회에 초청되여 갔다가 동 회장에서 동교 일본인 학생들에 의하여 타살되였고 17일에는 나가노현 가미 이나군에 거주하는 김 여성(32세)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또한 금년 5월 2일 도꾜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 5 명이 일본 고꾸시깡 고등 학교 학생 25 명에 의하여 집단적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으며 이에 뒤'이어 5월 17일에는 도꾜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 권 종호(16세)가 일본 다꾸쇼꾸 대학 제 1 고등 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백주에 칼에 찔리여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살상 행위에 대하여 전체 재일 조선 공민들은 물론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층들은 격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렬히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살인범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으며 지어 체포한 범인들을 석방하는 비법 행위까지 감행하고 있다.

더우기 엄중하게도 일본 당국은 각종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을 반대하는 모략적 책동을 직접 조직하고 있다.

1962년 2월에 이바라기 조선 중고급 학교는 하등의 리유 없이 150여 명의 일본 무장 경찰들에 의하여 불의의 습격을 당하고 문건을 탈취 당하였으며 이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이 학교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각되였다.

또한 일본 당국은 작년 초에 《해상 보안청》의 《보안관》들까지 동원하여 재일 조선인 총 련합회 쯔시마 본부를 습격하였으며 작년 말에는 일본 경찰들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쳐 오사까 조선 고급 학교 학생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하여 박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 당국은 중무장한 경찰대들을 수백 명씩 동원하여 백주에 조선인 부락들을 습격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횡포한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 당국은 소위 《외국인 등록》을 《갱신》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조선 공민들의 국적을 변경시키는 불법 행위를 감행하였다.

심지어 일본 당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남조선 괴뢰 당국과 공공연히 결탁하는 것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괴뢰 당국이 파견한 특무들의 테로 행위를 적극

비호하고 있으며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의 교형리들에게 넘겨 줌으로써 무참히 학살 당하게 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 권리를 보호할 데 대한 공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과 국제 관례에 대한 란폭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인도주의적 규범마저 유린한 범죄 행위이다.

더우기 지난날 일제가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끼친 죄악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일본 당국이 감행하고 있는 이러한 박해 행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오늘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과 그의 민주주의적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로골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 일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 관계의 발전을 저애하며 일본 인민들 속에 민족 배타주의 사상을 부식시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이며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 옹호와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재일 조선인 총 련합회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려는 흉모이다.

특히 미제의 사촉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재일 조선 공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하여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고 그것을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아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여 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 모든 범죄적 책동은 재일 조선 공민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로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에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일본 당국의 이 모든 부당한 처사를 국제법과 인도주의의 제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 당국은 국제법적 원칙들과 국제 관례에 따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포함한 일체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며 재일 조선 공민들과 그의 민주주의적 단체들의 완전한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행위를 비롯한 온갖 박해를 즉시 중지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가한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 일 량국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거역하고 만일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유린하는 부당한 책동을 계속 감행한다면 그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963년 7월 20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미국 측의 조선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선에서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3 년 간의 가렬한 전쟁의 불'길이 꺼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조선 정전은 전 조선을 정복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새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던 미 제국주의자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의미하였으며, 동방 피압박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거대한 고무적 힘을 주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수립된 식민지 통치 제도를 무력으로써 북조선에까지 확장하려고 최신 기술로 무장한 자기의 전체 륙해공군과 15 개의 추종국가 군대들과 남조선 괴뢰군을 동원하여 침략 전쟁을 도발한 첫 순간부터 온갖 야만적이며 파괴적인 전쟁 방법을 다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화학 무기와 세균 무기까지 사용하였으나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전 인민적 항전에 궐기한 조선 인민은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 성원 특히 중국 인민 지원군의 피로써 되는 원조밑에 미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주었으며 그들이 전쟁을 도발한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부득불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미국의 《만능》에 관한 신화는 여지 없이 깨여졌다.

조선 정전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정전 협정 서언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정전 협정은 조선에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되였다.

세계 인민들은 정전 협정의 정신 대로 정전 후 하루 속히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고 조선과 극동에서의 평화가 공고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간 오늘까지도 조선에서의 정전은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되지

못 하고 정세는 부단한 긴장과 위험 속에 놓여 있으며 조선은 남북으로 분렬된 채 남조선은 기아와 무권리의 생지옥으로 더욱더 전락되고 있다.

바로 이것은 미국이 조선 정전 협정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의무를 배신적으로 유린하며 남조선에서 계속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조선에서의 정전은 오직 미제의 끊임 없는 전쟁 도발 책동에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단호한 방어 태세와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높은 경각성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 정전 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으면서 이 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하고 남조선에서 군비 확장과 새 전쟁의 도발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위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정전 협정 제 60 항의 규정에 의하여 3 개월 내에 쌍방의 정치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였다.

조 중 측은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속히 정치 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 회의 소집 자체를 극력 반대하였다.

벌써 정전 협정이 조인된 후 10 일도 못 되여 미국 정부는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예견한 정전 협정 제 60 항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반되게 미국 군대의 남조선 《무기한》 주둔을 규정한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남조선 괴뢰 정부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미리부터 정치 회의를 자기들의 침략 목적에 부합되게 리용하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파탄시킬 것을 획책하였다.

이 사실은 1953년 8월 8일 《한미 호상 방위 조약》과 관련하여 발표된 덜레스—리 승만 공동 성명에서 《정치 회의를 90 일간 개회한 후…우리들은 동 회의에서 동시 퇴장》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데서 여실히 나타났다.

정치 회의가 합리적인 기초 우에서 개최되려면 우선 정전 협정 체약 쌍방 간에 협의가 진행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렇게 할 대신에 조선에서의 교전 일방에 불과한 유엔에 가서 조 중 측 대표의 참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 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강요하는 데 적합하도록 날조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책동으로 인하여 정치 회의는 정전 협정에 규정된 기일 내에 열리지 못하고 미국 측의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는 조 중 측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1953년 10월 26일에 판문점에서 겨우 정치 회의 소집을 위한 쌍방 예비 회담이 개최되였으나 그것도 허사로 돌아갔다.

이 정치 회의 예비 회담의 과업은 정치 회의에 참가할 성원과 회의 장소 및 시일을 확정하며 정치 회의와 관련한 기타 일련의 행정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면 되는 것이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등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 회의 소집에 관심이 없는 미국 측은 각종 방법을 다하여 예비 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며 국제 회의 관례에서 볼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을 거듭하던 끝에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즉 미국 측은 정치 회의에 어떤 나라가 참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비 회담에서 토의하는 것이 응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 회담 의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만으로써도 18 일 간이나 문제 토의를 지연시켰다.

심지어 미국 측은 정치 회의의 표결 절차 문제를 토의할 때에 《정치 회의에 참가하는 매개 정부는 다만 그가 동의하는 특정한 합의들에 대하여서만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조선 괴뢰 정권으로 하여금 미리 합의 달성을 반대하도록 하였다가 후에 어느 때든지 정치 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그것을 파괴할 수 있도록 획책하였다.

미국 측은 자기들의 이러한 황당 무계한 《제안》에 즉시 서명할 것을 거듭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 중 측이 회담을 《무기 휴회》시키려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도적으로 위협하여 나섰다.

미국 대표는 이러한 책동으로써도 회담을 파탄시킬 구실을 찾아 낼 수 없게 되자 마침내는 2만 7천여 명의 조 중 측 포로 인원을 강제 억류한 미국 측의 배신 행위를 규탄한 조 중 측의 발언이 《모욕》으로 된다는 난데없는 생트집을 걸어 1953년 12월 12일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말았다. 그 후 조 중 측은 미국 대표가 회의장에 되돌아 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미국 측은 이를 완고히 거부하였다.

이리 하여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할 데 대한 조선 정전 협정 제 60 항은 실현되지 못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극력 방해하면서 남조선

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고 전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였다.

때문에 미국은 그 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소집되였던 1954년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회의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정치 회의 예비 회담과 제네바 회의가 파탄된 후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게 노력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의 무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며 남북 조선 당국이 일체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 데 대하여 호상 선포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천적인 모범으로 8만 명의 조선 인민군 무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

1958년 2월 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시종 일관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 제의에 호응하여 1958년 10월까지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주동적으로 중국 인민 지원군을 전부 철수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그 어떠한 외국 군대도 없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이 철거한 지도 벌써 5 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남조선에 주저앉아 야만적 식민지 통치를 계속하며 군비 확장과 새 전쟁의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예견한 정전 협정 제 60 항이 파괴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

(2)

조선 정전 협정은 조선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 기간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과 증강하는 작전 물자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 정전 협정 제 13 항에는 《군사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 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리롭게 하기 위하여》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을 들여 오는 것을 정지》하며,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 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정전 협정의 이 조항들을 옳게 준수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진심으로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로 되는 것이였다.

조 중 측은 다른 모든 정전 조항들과 함께 이 조항들도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군사 정전 위원회의 기록들과 기타 공식적 문건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정전 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조항을 백방으로 유린하였다.

원래 정전 담판 시에 조 중 측은 정전 후 조선에 외국 군대가 남아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가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측은 소위 《륜환》과 《교체》라는 구실 밑에 정전 기간에도 조선에 외국 군대와 군사 장비들을 계속 들여 올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 중 측은 조선 정전을 하루 속히 성립시키려는 성의로부터 출발하여 잠정적 기간 군사 인원의 《륜환은 1 인 대 1 인의 교환 기초 우에서》 《정전 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1대 1로 교환하는 기초 우에서》 정전 협정 제 43 항에 렬거한 특정한 출입항을 통하여 《중립국 시찰 소조》의 감독과 시찰을 거쳐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던 것이다.

미국 측은 정전 후 이 협정 조항들을 위반하면서 남조선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대량의 신형 무기들을 반입하며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길에 들어 섰다.

미국은 남조선 괴뢰군의 병력을 정전 당시의 16 개 사단으로부터 1956년에는 31 개 사단으로 확장하였다.

미국 측은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4 일 후인 1953년 7월 31일에 벌써 4.2 인치 박격포 106 문을 분해하여 상자에 넣어 《군상점 공급품》이라는 가명으로 남조선에 비법 반입하려다가 중립국 시찰 소조에 의하여 발각 당하였다.

미국 측이 각종 위법적 수단으로 작전 물자를 반입하다가 중립국 시찰 소조에 의하여 적발 당한 것만 하여도 정전 이후 1954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 작전 비행기 177 대, 각종 구경포와 류탄포 465 문, 각종 로케트 포 6천 400 문, 각종 구경의 박격포 145 문, 각종 구경의 기관총 1천 365 정과 기타 각종 탄약 수백만 발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정전 협정 제 43 항에 렬거한 출입항 이외의 지점을 통하여서도 수 많은 작전 무기와 군사 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였다.

중립국 시찰 소조에 의하여 이것이 발각된 것만 하더라도 1953년 11월부터 1954년 7월까지의

기간에 엠—26 땅크 240 대, 155 미리포 32 문, 105 미리포 241 문, 로케트포 759 문, 57 미리 반전차포 163 문, 81미리 박격포 169 문, 60 미리 박격포 203 문, 12.7 미리 기관총 55 정, 7.6 미리 기관총 871 정, 7.6 미리 경기관총 482 정, 엠완 보총 3만 4천 89 정, 카빈총 1천 263 정에 달하였으며 1954년 6월부터 1955년 2월까지의 기간에는 해군 함정 17 척, 에프 86형 작전 비행기 34 대, 에프 51형 작전 비행기 21 대가 출입항 이외의 지점을 통하여 비법 반입되였다.

미국 측은 중립국 시찰 소조에 의하여 자기들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가 계속 드러나게 되자 중립국 시찰 소조를 점점 더 눈에 든 가시처럼 증오하며 소조의 감독과 시찰 활동을 각방으로 저해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정전 협정은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가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하며 그들이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9월 11일 부산항에서 미국 측 인원은 중립국 시찰 소조원들이 교체되는 작전 무기에 대한 시찰을 하며 할 때 《자기 상급으로부터 중립국 시찰 소조가 요구하더라도 상자를 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시찰을 거부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9월 12일에도 중립국 시찰 소조원들이 새로 입항한 미국 선박에 적재되여 있는 작전 물자에 대한 시찰을 위하여 승선하려 할 때 미국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전 미국 측 수석 위원 레이시는 《중립국 시찰 소조가 시찰의 목적으로 배에 오르는 데 대하여 유엔군은 허락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락치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명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측은 부산 출입항에 주재하였던 중립국 시찰 소조에 대해서는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 시찰만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인천 출입항에 주재하였던 시찰 소조에 대해서는 그들의 숙소 내에서만 시찰 활동을 하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시찰 활동을 봉쇄하였다.

이 밖에 미국 측은 중립국 시찰 소조 인원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히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며 살해하는 등 각종 범죄적 행위를 수다히 감행하였다.

1953년 9월 1일 대구 중립국 시찰 소조에 배속된 미군 일등병 암스트롱은 서전 조원 라르손 대위를 구타하였으며, 1955년 11월 7일 미국 측은 비행기 추락 사고를 조작하여 중립국 감독 위원회 파란 대표단 성원 3명을 살해하였으며, 1956년 1월 7일 미국 측은 중립국 감독 위원회 본부 구역에서 서전 대표단 군사 사령관 엘리크손 대좌를 자동차로 깔아 죽이였다.

미국 측은 1954년 7월 31일에는 부산 출입항에서 중립국 시찰 소조원들의 숙소를 향하여 총탄을 발사하였으며, 1954년 8월 1일 군산 중립국 시찰 소조의 숙소에 대하여는 폭탄까지 투입하였다.

1955년 여름 이래 미국 측의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대한 횡포한 공격은 절정에 달하였다.

1955년 8월 6일 미국 측은 남조선 괴뢰 도당을 사촉하여 중립국 시찰 소조가 주재하고 있는 남조선의 5 개 출입항들과 기타 여러 지방들에서 일제히 중립국 시찰 소조의 철거를 요구하는 위협적인 시위를 감행케 하였으며 부산, 인천, 대구, 군산 출입항의 중립국 시찰 소조 숙영소를 직접 습격 파괴케 하였다.

이러한 수 많은 범죄적 폭행을 끊임 없이 감행하여 오던 끝에 드디여 1956년 6월 미국 측은 남조선에서 중립국 시찰 소조를 강제적으로 축출하였으며 그 때로부터 1 년 후인 1957년 6월에는 정전 협정 제 13 항 ㄹ 목의 일방적 파기를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이것은 정전 협정 제 13 항 ㄷ, ㄹ, ㅅ, ㅊ 목, 제 17 항, 그리고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직책과 권한을 규정한 정전 협정 제 41, 42, 43 항을 엄중히 유린하는 행동이며 정전 협정의 어떠한 조항이나 문구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전 협정 제 61항, 62 항에 대한 란폭한 위반 행위이다.

자기 자신이 서명한 국제적 협정을 이렇게 공공연히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미국 정부의 행위는 필요하다면 어떤 배신적 파괴 행위라도 서슴 없이 감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 앞에 자체 폭로하는 것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 추악한 배신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치 조 중 측이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조선 경외로부터 그 어떤 증강하는 군사 력량을 들여 온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 내며 소위 《군사력의 상대적 균형 유지》에 대하여 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기만할 수 없다.

우리 측은 정전 후 시종 일관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조선 정전을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기들의 주장을 립증할 단 하나의 증거조차도 제시하지 못 하였다. 당시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북조선 지역에서 진행한 조사의 결과 《유엔군 측이 주장하는 정전 협정 위반 사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지어 전 미 태평양 지구 지상군 사령관이였던 화이트도 말로써는 《북조선이 그의 전투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떠벌리였으나 사실상 《북조선 무력의 수'

적인 증강에 대하여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호노룰루 1960년 1월 5일 발 《에이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측은 정전 협정의 제 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어떠한 구실도 없으며 더우기 정전 협정 제 61 항과 제 6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전 협정의 일방적 폐기란 절대로 용허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 정전 협정 제 61 항에는 《본 정전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엄연히 규정되였으며 제 62 항에는 본 정전 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정전 협정 제 13 항 ㄹ 목과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직책과 관련된 일련의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군사 정전 위원회에서 추궁 당하면 그 때마다 《유엔군 측은 해당 조항의 준수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1957년 6월 21일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에서 한 미국 측 수석 위원 릿슨버그의 발언)고까지 감히 떠벌리였다.

정전 협정에는 《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되여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멋대로 일방적 파기를 선언한 것이 《권리》라고까지 하는 미제의 론법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하며 국제적 협약을 강도적으로 유린하는 데 습관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 측이 정전 협정의 여러 중요한 조항들의 일방적 파기를 공공연히 선포한 목적은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새 전쟁 준비를 더욱 적극 추진시키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였다.

1957년 5월 당시의 미 국무 장관 덜레스는 미국이 남조선에 《보다 현대화되고 효능이 좋은 여러 무기를 도입시킬 것을 고려중》이라고 하면서 《정전 협정은 현실적인 태도로 해석되여야 한다. 그것이 작성된 것은 근 5 년 전이며 생각컨대 짧은 기간을 위한 것이였다. 그런데 5 년이란 세월이 지나 간 오늘날 똑 같은 것 끼리 바꾼다는 것 (정전 협정 13 항 ㄹ 목을 그 대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함)은 실제적이 못 된다.》고 언명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미국은 정전 협정 제 13 항 ㄹ 목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 조항들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한 후 대대적으로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탄 기지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국은 남조선 주둔 미군 사단을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고 1957년 10월에는 일본에 있던 미 제1 기갑 사단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오네스트 죤》 로케트, 280 미리 원자포, 《마타돌》, 《나이크 헤르큘레스》 및 《호크》 유도탄 등을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 무기를 남조선에 비법 반입하고 수 많은 최신형 군용 비행기와 대소 함정을 남조선에 끌어 들였다.

이 모든 사실은 조선에서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 추구하며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3)

미국 측은 정전 협정 중의 전쟁 포로 송환과 관련한 조항들도 허다히 파괴 유린하였다.

조선 정전 협정은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 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 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해도 가해서는 안 되며 (정전 협정 제 51 항목) 《직접 송환되지 않은 나머지 전쟁 포로를 그 군사 통제와 수용소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 협정 부록(중립국 송환 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정전 협정 제 51 항 ㄴ 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미 전쟁 시기에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 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 중 측 포로 인원들에 대하여 류례 없는 야만적 박해를 가하였으며 포로를 정치적 모략의 밑천으로 삼으려고 책동하면서 소위 《자원 송환》에 관한 황당한 주장을 꾸며 내여 우리 측 포로를 집단적으로 학살하며 강제 억류하는 등 갖은 비인도적 만행을 감행한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측은 전쟁 포로 송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된 후에도 계속 우리 측 포로들을 탄압 살륙하고 수 많은 우리 측 포로 인원을 강제 억류하였다.

1953년 6월 전쟁 포로 송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된 지 10일도 못 되여 미국 측은 리 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2만 7천여 명의 조 중 측 포로 인원을 《석방》이라는 구실 밑에 강제 억류케 하는 배신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 측은 정전 후에 계속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조 중 측 전쟁 포로들의 송환을 각방으로 거부하였다.

미국 측은 그들 자신이 조 중 측에 수교한 포로 명단에 지적된 인원들 중 아직 수만 명을 돌려 보내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정전 협정에 의하여 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이관한 2만 1천여 명의 조 중 측 포로 인원들에 대하여 조 중 측에 의한 규정된 90 일의 해설 사업이 진행

될 수 없도록 갖은 방해 책동을 다하던 끝에 중립국 송환 위원회 관리 하의 수용소로부터 강제 랍치하여 갔는바 이에 대하여는 중립국 송환 위원회 최종 보고도 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견결히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중립국 송환 위원회의 관리 하에 넘겼던 조 중 측 포로 인원들을 강제 랍치함으로써 정전 협정 제 51 항과 《중립국 송환 위원회 직권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미국 측은 전쟁 기간 북조선 지역에서 강제로 랍치하여 간 수많은 우리 측 실향 사민들도 돌려 보내지 않고 있다.

정전 협정 제 59 항은 전시 중에 남북으로 흩어진 실향 사민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조항도 리행하지 않았다.

미국 측의 야만적 탄압과 비인도적인 방해 책동으로 발미암아 자기 고향에 돌아 올 길이 가로막힌 수 많은 우리 측 전쟁 포로들과 실향 사민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적 협정을 배신적으로 파기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면모는 여기에서도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4)

정전 협정을 각방으로 유린하고 있는 미국 측은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 협정의 조항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 행동을 부단히 감행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조선 정전 협정에는 체약 쌍방은 《조선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정전 협정 제 12 항)하며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조선 지역을 존중하며 조선 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며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조선 지역 및 이 량 지역에 린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정전 협정 제 13, 15, 16 항)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또한 쌍방은 《본 정전 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 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정전 협정 제 13 항 ㅁ 목)할 것이라고 규정되여 있다.

우리 측은 시종 일관 정전 협정의 제 조항들을 준수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정전 협정에 의하여 정화가 실현된 당일에만도 3 차에 걸쳐 우리 측 지역에 대하여 총포 사격을 가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953년 7월 28일에도 3 차에 걸쳐 군용 비행기를 우리 측 령공에 침입시켜 정찰 행동을 감행하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절히 이 협정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비무장 지대와 우리 측 지역에 대하여 총포를 란사하며 군사 인원과 무장 간첩을 침입시켜 습격, 살인, 방화, 랍치 등 적대 행위를 감행하며, 공중에서는 우리 측 령공에 군용 비행기를 부단히 침입시켜 정찰 행동과 도발적 공격을 감행하며, 해상에서는 우리 측 연해에 군함과 무장 함선을 침입시켜 해안 지역에 대한 함포 사격을 감행하며, 우리 측 함선을 공격하며, 어선을 습격하여 평화적 어민들을 살해하고 랍치하여 가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성립된 이래 현재까지의 기간에 미국 측이 우리 측에 대하여 감행한 이러한 각종 적대 행위와 기타 정전 협정 위반 행위는 우리 측이 정식으로 항의한 것만 하여도 무려 7천 75 건(평균 1일 약 2 건)에 달한다.

미국 측이 이러한 각종 적대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감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다음의 몇 가지 실례들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1953년 8월 7일 미 군용기 8 대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 측 지역 깊이 청천강 하구와 평북도 남시 상공에까지 침입하여 적대적인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1953년 12월 21일 미 군용 제트기 9 대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원산, 홍남 상공에까지 불법 침입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또다시 8 대의 미 군용 제트기가 청천강 하구와 몽금포리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1954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의 6 일 동안에만 미국 측은 4 차에 걸쳐 미 극동 공군 6006 부대와 8240 부대 특무대 및 미 극동군 사령부 3112 부대 서울 파견대에 배속된 간첩들을 우리 측 지역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1954년 10월 11일 미국 측 무장 부대는 비무장 지대에 침입하여 정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측 민사 행정 경찰을 불의에 습격하여 1 명을 살해하고 1 명을 랍치하여 갔다.

1955년 2월 5일 미국 측 아르. 비 45 형 군용 정찰기 1 대와 미 군용 제트 비행기 8 대는 우리 측 후방 깊이 한천 상공까지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는 한편 당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측 군용 비행기들에 대하여 불의의 공격을 감행하다가 우리 측의 자위적 조치에 직면하자 도주하였다.

1955년 3월 25일 미국 측 에취. 아이. 디 3519 부대 379 지구대 제진 지대장을 비롯하여 무장

간첩 13명은 함경남도 퇴조군 서중리 부근 우리 측 해안 지대에 은밀히 침입하여 평화적 주민 가옥을 습격하고 재산을 략취하였으며 무고한 인민을 랍치하여 갔다.

1955년 7월 22일에 미국 측 무장 선박은 우리 측 연해인 평북도 운무도 계선에까지 침입하여 어로 작업 중인 어선을 불의에 습격하여 12명의 우리 측 어민을 랍치하여 갔다.

1955년 8월 17일 미국 측 군용기 1 대는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 행위를 하다가 우리 측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격추되였다.

우리 측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1956년 1월 9일 2 대의 군용 제트기를 백두산 상공에까지 침입시켜 강계, 벽동, 녕원 상공을 선회하면서 도발적인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1956년 11월 7일 미국 측은 2 대의 군용 비행기를 우리 측 지역 신계 상공에 침입시켰다. 우리 측은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중 1 대를 격추하였다.

1956년 12월 2일 미국 측은 8 명으로 구성된 무장 집단을 우리 측 지역 황해남도 옹진군 갈항리에 침입시켜 주민 가옥을 습격하여 무고한 주민을 사살하고 당년 17 세의 김 광주 소년을 랍치해 갔다.

1957년 4월 27일 미국 측 무장 함선 3척은 우리 측 해상에 침입하여 어로 작업 중인 어선들에 대하여 기관포와 기관총을 란사하여 수 많은 어민들을 부상시키고 어선 《남포 18호》를 어민 7 명과 함께 나포하여 갔다.

1957년 9월 20일에는 미국 측 군용 비행기 7대가, 10월 30일에는 12 대가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1958년 1월 26일 미국 측 무장 선박 1 척은 우리 측 연해에 침입하여 어로 작업 중인 우리측 어선을 습격하여 어민 2 명을 살상하고 4 명을 랍치하여 갔다.

1958년 3월 6일 미국 측 군용 비행기 2 대는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였다가 그 중 1 대는 우리 측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격추되였다.

1958년 5월 19일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를 통하여 우리 측 지역에 침입시킨 간첩 김 학경을 체포하였다. 그는 전쟁 시기 미국 측에 의하여 강제 랍치되여 간 우리 측 실향 사민으로서 미군 첩보 기관인 화진포 《에취.아이.디》 파견대에서 간첩 훈련을 받고 파견되였다.

1959년 8월 5일 미국 측 무장단은 우리 측 지역 고성 부근에 침입하여 평화적 주민 가옥을 습격하고 2 명의 녀성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 당년 55세의 로인을 랍치하여 가다가 도중에서 학살하고 도주하였다.

1959년 9월 3일 미국 측 무장 선박 1 척은 우리 측 연해에 침입하여 우리 측 어선을 습격하여 5 명의 어민을 살상하고 2 명의 어민을 랍치하여 갔다.

1960년 1월 7일 미국 측 무장 인원은 비무장 지대 내에서 연막탄과 총탄을 발사하면서 도발적인 《군사 공격 훈련》을 감행하였다.

1960년 3월 13일 미국 측은 비무장 지대 우리 측 지역에 대하여 소이탄을 발사하여 광대한 면적의 지대를 연소시켰다.

1960년 3월 29일 미국 측은 우리 측 지역에 대하여 무려 4 시간에 걸쳐 1천여 발의 각종 총탄을 발사하는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1960년 5월 4일 미국 해군 함정 1 척은 우리 측 연해에 침입하여 우리 측 소형 함정에 대하여 총포를 발사하는 적대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1 척의 미국 구축함이 우리 측 연해에 침입하여 우리 측 경비선에 대하여 6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1961년 6월 6일 미국 측 구축함 705 호는 우리 측 해안 지대에 침입하여 100여 발의 각종 포탄을 발사하였다.

1961년 8월 25일 미국 측은 비무장 지대 우리 측 지대에 대하여 200여 발의 총탄을 발사하였다.

1961년 8월 28일 미국 측 구축함 제72호는 우리 측 해상에 침입하여 경계 근무 중인 우리 측 순찰선에 대하여 8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1962년 8월 7일 미국 측 해군 함정 1 척은 우리 측 해상에 침입하여 어로 작업 중인 우리 측 어선 《금강 제 1 호》에 대하여 맹렬한 사격을 가한 끝에 5 명의 어민을 랍치하여 갔다.

1962년 9월 5일 17 명의 미국 측 무장 집단은 비무장 지대에 침입하여 정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6 명의 우리 측 민사 행정 경찰을 불의에 습격하여 중상을 입힌 후 5 명을 강제 랍치하여다가 그 중 3 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2 명을 불법 억류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1962년 11월 24일 미국 측은 군용 비행기의 엄호 하에 구축함을 비롯한 20여 척의 대형 해군 함선을 우리 측 연해인 청진 앞바다에까지 침입시키는 엄중한 침략 행위를 감행하였다.

1962년 12월 17일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정전 협정 제 16 항을 직접 위반하고 《금후 미국의 공중 촬영기가 북조선과 기타 지역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시찰로서의 역할을 실지 놀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렸는바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62년 12월 6일 미국 측 《유—2》 간첩 비행기는 우리 측 령공 깊이 침입하여 적대적인 정찰 비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측의 도발 행위는 비무장 지대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 협정 제 1, 제 6 항과 정전 기간 자

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일체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규정한 정전 협정 제 12, 14, 15, 16, 17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다.

최근에 이르러 미국 측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더욱더 빈번히 감행되고 있다.

1963년 1월 29일 미국 측 에프 86형 전투기 2 대가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였으며 1963년 2월 9일과 25일에는 각각 1 대의 군용 비행기가, 3월 18일과 20일에는 4 대의 군용 비행기가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군 사령부는 《서울 북방 병영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1 군단에서 출동하는 미륙군의 정찰기로 매일 정찰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있다.

1963년 1월 17일 미국 측 중형 상륙함 제 606 호는 우리 측 연해인 동해 해상에 침입하여 정찰을 하면서 50여 발의 포탄을 우리 측 해안에 발사하는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1963년 3월 13일 미국 측 무장 집단은 또다시 비무장 지대 우리 측 지역에 불법 침입하여 정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측 민사 행정 경찰을 향하여 수백 발의 집중 사격을 가하였으며 3월 19일에는 약 120여 명의 미국 측 군사 인원이 경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 무기로 정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측 민사 행정 경찰과 우리 측 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집중 사격을 가하는 대규모적인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다.

미국 측은 지난 5월 11일 로케트포함 311 호를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평화적인 어선에 대하여 로케트 포탄 800여 발을 발사하여 우리 측 어민 5 명을 살상케 한 사건을 비롯하여 5월 12일과 14일, 17일, 21일, 24일 련속적으로 각종 해군 함선들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적인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다.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이 도발 행위들에 대하여 그 때마다 엄중히 항의하고 정전 협정에 근거하여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과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항용 우리 측의 항의를 거부하며 회피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있는 것도 《고의적이 아닌 위반》이니, 《과실》이니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며 정전 협정 위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실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있어서도 미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하는 것은 다음의 사실만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다.

1956년 11월 7일 에프 51 형 미 군용 비행기가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였다가 격추되였을 때 미국 측은 그것을 《무장하지 않은 프로펠라식 비행기》라고 생억지를 쓰다가 6 문의 12.7 미리 기관총을 장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엄폐할 수 없게 되자 《경고 없이 공격을 가한 것은 훨씬 더 엄중하게 정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 측을 비난하여 나섰다.

이것이 바로 미제의 상투적인 강도적 론법이다.

1963년 5월 17일에 우리 측 령공을 침범하였다가 우리 측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작전 비행기의 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고의적이 아니며》 《거짓 없는 과오》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도리여 우리 측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하여 떠들어 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실들은 조선에서 정전 협정이 부단히 유린되고 정전이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조선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화근이 바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리 측에 대한 각종 도발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공격할 것을 가상한 대대적인 군사 《연습》 소동을 끊임 없이 일으키고 있다.

미국 측은 1961년 1 년 동안에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34 건 이상의 각종 대규모적 군사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17 차나 더 많은 51 차에 달하는 각종 대규모적 군사 《연습》을 감행하였다.

1963년에 들어 와서는 더욱 빈번히 군사 《연습》을 진행하며 《전시 비상 동원 체제》 확립 등을 고창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 들이며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미제의 사촉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일본 군대를 파견할 데 대해서까지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도당을 재무장시켜 그를 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흉계는 조선과 극동의 평화를 더욱 엄중히 위협하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정전 협정을 파괴 유린하고 재전쟁의 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흉악한 범죄자이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정전 후 지난 10 년간 미국 측은 끊임 없이 정전 협정의 중요한 매 조항들을 유린하며 파괴하여 왔다.

이것은 미군의 지속적인 남조선 강점이야말로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부단히 격화시키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자기 자신이 서명한 국제적 협정을 그렇듯 란폭하게 공공연히 파괴하며 유린하는 미국 측의 모든 행동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조선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침략적 목적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현하여 보려고 정전 후에도 남조선에 계속 주저앉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 준비를 강화하며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억압과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소위 《유엔 결정》에 빙자하여 자기들의 이 모든 범죄적 행위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 소위 《유엔군》을 파견할 데 대한 《유엔 결정》 자체가 미제의 강압에 의하여 유엔 헌장에 위반되게 비법적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 전쟁 준비 책동과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며 그들에게 갖은 폭압과 학살과 민족적 멸시를 가하고 있는 등의 모든 침략적 행위는 유엔 헌장의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군의 남조선 장기 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서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기의 침략적 정체를 엄폐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남북 조선 쌍방이 호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의 무력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데 대하여 거듭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으며 시종 일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오직 미국의 방해 책동 때문이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이 이상 머물러 있을 어떠한 리유도 없다.

조선 정전 협정에 엄숙히 규정되여 있는 바와 같이 미군은 남조선에서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킴으로써만 조선에서 긴장 상태는 제거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할 것을 시종 일관 견결히 주장하여 왔으며 또 주장하는 바이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이것은 조선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각국 정부들과 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와 함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유엔이 헌장에 의하여 부과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다면 그의 기'발을 도용하여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새 전쟁 도발 책동과 각종 비인도적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미군의 침략적 죄행들을 규탄하고 지체 없이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남조선에 미군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이 더욱 모독되고 유엔의 위신이 더욱 훼손될 뿐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조선 정전 협정을 확고하게 준수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1963년 7월 2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범죄적 정체를 은폐하며 미군의 남조선 장기 강점을 정당화하려는 미 국무성의 성명을 규탄하여)

지난 7월 26일 미 국무성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식민지 략탈 정책과 전쟁 도발 책동의 범죄적 정체를 은폐하며 미군의 남조선 장기 강점을 정당화해 보려고 시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사실을 전도하며 허위 날조를 일삼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교활성과 침략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성명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 인민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이 《북쪽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거운 방위 부담》에 있는듯이 묘사하였다.

미제가 떠벌리는 《북쪽의 위협》이란 바로 그들 자신의 침략 행위를 합리화해 보려는 상투적 수'법이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소위 《북쪽의 위협》을 운운함으로써 그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전쟁 도발 책동을 은폐하며 그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막대한 군사비의 부담으로 극도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만과 반미 투쟁 기세를 무마하여 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다.

미제는 조선 정전 협정을 파괴 유린하면서 원자 및 유도 무기로

포함한 각종 신형 무기를 비법적으로 반입하여 남조선을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고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대한 각종 도발 책동을 부단히 감행함으로써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10 년간 미국 측이 감행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와 각종 적대적 도발 행위는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정식 항의한 것만 하여도 7 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미제 침략군의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대한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각종 도발 행위는 더욱 빈발하고 있다.

미제는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을 강점하고 새 전쟁 도발을 위한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면서 남조선 인민을 오늘과 같은 기아와 빈궁, 무권리와 참담한 생활고 속에 몰아 넣은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국무성 성명에서 미제는 또한 《한국 인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남조선 장기 강점을 합리화하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파렴치하게 시도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이후 특히는 조선 전쟁 기간에 수많은 조선 인민을 학살하였으며 정전 후에도 계속 남조선에서 탄압, 폭행, 방화, 략탈, 강간, 학살 등 온갖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대양을 건너온 가증스러운 양키 침략자들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단한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피로써 두 손을 물들인 미제 침략자들이 그 무슨 《보호》에 대하여 운운하는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바로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소위 《원조》의 미명 하에 감행되는 미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를 배격하며 자생, 자결,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 머물러 있을 어떠한 구실도 있을 수 없다.

미제가 대양을 건너 와 남의 나라를 18 년 간이나 강점하고 있는 이 엄연한 침략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 수 없다. 만일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애당초 분렬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미제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합리적 방안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통일은 이미 오래 전에 실현되여 조선 인민은 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을 것이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 나는 유일한 길은 우선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는 데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1963년 7월 3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호 소 문

친애하는 동지들!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

전체 조선 인민들!

조선 인민은 오는 9월 9일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힘찬 로력 투쟁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한 비상한 혁명적 열의로 들끓는 환경 속에서 이 뜻 깊은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이하면서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 왔으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린 전체 근로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15 년 간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를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는 길에서 실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락후하고 가난하였던 우리 나라는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생기 발랄하고 힘이 약동하는 부강한 나라로 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여 날로 공고 발전되고 있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든 우리 당과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과거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지난날 기계 공장이라고는 거의 없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창설되여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만들어 내고 발전소, 화학 공장, 야금 공장 등 대규모의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세울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으며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우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은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여 가고 있다.

중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힘있는 경공업 기지가 창설되였다. 지난날 대부분의 인민 소비품

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체로 생산하는 상품으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도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 났다.

농촌 경리는 개인농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대규모의 사회주의 협동 경리로 전변되였으며 식량이 부족하던 공화국 북반부가 오늘은 식량을 완전히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농촌에서 수리화가 완성되고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1만 7천 5백 대(15 마력 환산)의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수천 대의 화물 자동차와 각종 선진 농기계들이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와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고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 나고 있다.

문화 혁명 과업 수행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전체 인구의 4 분의 1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이 선진적인 교육 제도 하에서 무료로 마음껏 공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일하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18만 명 이상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학들에서는 매년 약 2만 5천 명의 새로운 민족 간부들이 배출되고 있다.

우리의 붉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귀중한 과학 연구 성과로써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 민족 문화 예술은 우리 시대에 와서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다.

전반적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는 좋은 보건 제도 하에서 인민들의 건강은 급속히 증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며 래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내다 보면서 락관에 충만되여 살고 있다.

수천 년의 조선 력사에서 그 어느 때 우리 조국이 오늘처럼 륭성하고 인민들이 오늘처럼 행복하게 살아 본 적이 있었던가!

지금 우리 인민은 조국의 북반부에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고 있는 민족적 대번영의 시기에 살고 있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각계 각층 인민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붉은 대가정에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

우리가 쟁취한 이 모든 력사적 승리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의 정책을 심장으로 받든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로동의 고귀한 열매이며 무궁 무진한 생활력을 가진 사회주의 제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국제적 위신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라도 분쇄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할 수 있는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창건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3 천만 조선 인민의 진정한 리익의 대표자이며 자유와 행복의 기치이다.

나라를 잃고 오래'동안 헤여졌던 재일 동포들이 공화국의 품으로 계속 돌아 오고 있으며 귀국한 그들은 조국의 륭성과 재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 60만 재일 동포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되여 있으며 공화국의 공민 된 당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민주주의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의 위업을 위하여, 민주주의 민족 권리의 옹호와 조국에로의 자유 래왕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 동포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날로 륭성 발전하는 공화국의 존재와 그 위력의 장성 강화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은 더욱 고립되여 가고 있다.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은 지금 극심한 정치 경제적 혼란과 파국적 위기에 처하여 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전대미문의 횡포한 테로 통치에 의하

여 남조선의 모든 진보적인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은 해산되였으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마저 완전히 유린 말살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살인적인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경제는 미국 독점 자본에 완전히 예속되였으며 미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부속물로 전락되였다.

미제의 략탈과 민족 경제의 전면적 파산으로 말미암아 인민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빠지고 있다.

지금 무서운 식량 기근이 남조선 전역을 뒤덮고 있다.

남조선의 수 많은 동포들이 사랑하는 향토를 등지고 다시는 돌아 올 길 없는 수천 수만 리 먼 이국 땅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고 있다.

온갖 패덕과 패륜 행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사람들은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 수 없을 끝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을 이어 가고 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남조선을 암흑 천지로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쑤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 들이는 천추 만대에 저주 받을 범죄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타락한 미국식 문화의 범람으로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귀중한 모든 것이 병 들고 시들어 가고 있으며 사회악과 혼란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남조선의 도시와 마을들에서 미제 야수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고 있으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화근은 바로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 대중의 증오와 불만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더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 자립과 자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날로 증대되여 가고 있는 인민 대중의 불만을 억제하며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도발적인 소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미국의 위정자들은 《민정 이양》의 간판 밑에 군사 테로 통치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인민 대중과 사회 여론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떤 흉책도 썩어 무너져 가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남조선에서 더는 유지해 낼 수 없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폭압을 박차고 민족의 자주, 자립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친애하는 동지들!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

전체 인민들!

우리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달성한 성과에 결코 자만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고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을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내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성취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하루 속히 도탄 속에서 구출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이하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당신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그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며 계속 전진하라!

1963년은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대한 7 개년 계획의 전반기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전체 근로자들이여!

지난해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수행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 것은 찾아 내며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아껴 쓰면서 더 좋게,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고 건설하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이며 인간 개조에서의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라!

인민 경제를 새로운 기술로 장비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라!

현존 설비의 정비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라!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며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라!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금년도 인민 경제 모든 부문 앞에 나선 중요한 전투적 과업이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 정량 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환경에 적응하게 계획화 사업을 더욱 개선하라!

협동 생산은 나라의 전반적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협동 생산에 망라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자재와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며 련쇄된 부문의 완제품 생산에서 책임성을 더욱 높이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 반자동화를 실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 시기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품의 품종을 더욱 확대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라!

제품 생산에서 원단위 소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며 원가를 부단히 저하시키라!

전체 근로자들이여!

국가 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모든 부문에서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 별, 지표 별, 규격 별로 어김 없이 완수 및 초과 완수하라!

국가 및 사회 재산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고상한 애국심의 표현이다.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 한 토막의 목재라도 더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라!

조국의 일목 일초를 사랑하고 자기의 가정과 일터,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거두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알뜰하게 꾸리라!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이며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고리인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며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한다.

광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모든 광산에서 갱 건설과 굴진 및 박토를 생산에 선행시키고 채굴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여 더 많은 광석을 캐 내며 채광 및 선광 공정들에서 채취률과 실수률을 제고하라!

매장량이 풍부하고 유망한 기존 광산들을 더욱 확장하며 그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라!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더 빨리 정비 강화하여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하며 클링카 생산 비중을 더욱 높이라!

새로운 중소 규모 광산들을 도처에서 개발하라!

우리에게는 지금 더 많은 석탄이 요구된다. 석탄은 공업의 량식이다.

석탄 생산을 앞세워야만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을 계속 증대시킬 수 있다.

석탄 공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갱 건설에서 계단식 굴진 방법을 비롯한 고속도 굴진 운동을 강화하여 확보 탄량을 계속 증대시키라!

갱 건설과 채탄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기계화, 자동화 비중을 더욱 높이며 후충탄 채굴에서 장벽식, 후면 붕괴식을 비롯한 선진 채탄법을 도입 일반화하여 채취률을 제고하며 석탄의 질을 더욱 높이라!

석탄 생산에서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석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라!

지질 탐사 부문 일'군들이여!

금은 보화로 가득 찬 우리 나라의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더 많이 탐사하여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라!

채취 공업 발전에 지질 탐사 사업을 결정적으로 선행하여 더 많은 유용 광물을 확보하라!

합금 원소와 경금속 광물 자원의 탐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에 대한 증대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철이 있어야 한다.

금속 공업 부문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들이여!

현존 설비로써 생산 능력을 더욱 증대하기 위하여 설비 보수 정비와 그 관리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라!

제강로들에서 산소 취입법을 비롯한 선진 용해 방법을 더욱 합리적으로 도입 발전시키며 열관리 사업을 개선하여 로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연장하고 제강 시간을 극력 단축하라!

제철로들에서 주부 원료의 예비 처리를 강화하여 그 질을 제고하며 철콕쓰를 정상적으로 생산 도입하여 로당 생산성을 더욱 높이라!

강재의 규격과 품종을 확대하며 강관, 와이야 로프, 철선 등 2 차 가공 제품의 생산을 더욱 증대시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라!

철제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박판 생산을 증대 시키라!

현존 제련 설비들을 정비 확장하고 제련 실수률을 백방으로 높이며 수은을 비롯한 각종 유가금속을 완전히 회수 리용케하라!

내화물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내화물의 질을 제고하며 고질 내화물의 생산 비중을 증대시켜 야금로의 수명을 연장하라!

황해 제철소 분괴 압연 직장, 강선 제강소 인발 강관 직장 건설을 촉진하라!

전력은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며 심장이다.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하며 증대되는 인민 경제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공업을 계속 앞세워야 한다.

전력 공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수력 발전소들의 수차 효률을 높이고 물 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기존 화력 발전소들과 중소 규모 발전소들의 능력을 제고하여 전력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하라!

전력 계통망을 더욱 정비 강화하며 송배전선의 전압 단계를 높이여 전력의 도중 손실을 감소시키며 전력 계통의 융통 능력과 그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력 절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라!

제품 단위 당 전력 소비 기준을 극력 낮추며 화학 및 금속 공업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문에서 전력을 적게 쓰는 새로운 기술 공정을 도입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강계 및 운봉 발전소와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 조업 개시 기일을 앞당기라!

기계 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초석이다.

기계 공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기계 공업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기술 수준을 더욱 높여 대형 자동차, 대형 엑쓰까와또르 등의 생산을 적극 추진하라!

현존 기계 설비들과 생산 면적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협동 생산을 정확히 조직하여 부과된 과제를 지표 별로 어김 없이 초과 완수함으로써 조립 부문에서 15 일 이상의 부분품 준비를 반드시 선행시키라!

농촌 경리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양수기를 비롯한 각종 선진 농기계와 자동차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라!

선박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착암기, 적재기, 공기 압축기, 권양기 등 새로운 탄광, 광산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라!

기계 공업 부문에서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제품을 더욱 가볍고 정밀하고 튼튼하게 만들라!

화학 공업은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실현하며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 고리다.

화학 공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비날론, 염화 비닐, 가성 소다 생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기술 관리, 설비 관리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그 생산을 증대시키며 값싸고 질 좋은 경공업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여 인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라!

화학 비료의 증산은 곧 알곡의 증산이다.

알곡 증산에 떨쳐 나선 농민들에게 다양한 화학 비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현존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높이며 암모니아 공장 신설 공사를 촉진하라!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라!

의약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소 의약품 생산을 증대하며 합성 의약품과 생약 제제를 더욱 발전시키라!

중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 필수품 직장을 더욱 잘 꾸리고 폐설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다종 다양한 일용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라!

전체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우리 나라에 있는 풍부한 각종 건설 재료들을 광범히 탐구 동원하여 건재의 품종 별, 규격 별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라!

건설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건설에서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건설을 집중화, 정규화하며 전상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공장, 주택, 문화 후생 시설을 비롯한 모든 건설물을 더욱 편리하고 값 싸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설하라!

인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각종 일용품과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금년도 경공업 부문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경공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2억 5천만 메터 직물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명년에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라!

모든 방직 공장들에서 실을 더 가늘게 뽑고 더 잘 꼬아 질 좋은 양복천과 카바징, 뽀쁘링, 본견직 등 각종 고급 직물과 혼방직을 더 많이 생산하라!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은 경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다.

길주 팔프 공장, 청진 화학 섬유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라!

지방 공업의 자체 원료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모든 지방 원료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라!

경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일용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라!

근로자들에게 질 좋고 값 싼 각종 신발과 비옷, 가구, 도자기, 법랑 철기, 유리 그릇, 가방, 초물기류 제품 등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며 자전거, 재봉기, 세탁기, 선풍기, 전기 다리미 등 철제 일용품 및 각종 문화 용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라!

학생복과 어린이 옷을 비롯한 각종 기성복을 맵시 있고 다양하게 더 많이 생산 공급하라!

학용품 및 아동 용품을 비롯하여 각종 악기, 운동구, 완구를 더 많이 더 잘 만들어 자라 나는 후대들의 학습, 체육, 정서 생활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라!

모든 식료 공장들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고 간장, 된장, 기름 및 두부를 비롯한 다종 다양한 부식물들과 식료 가공품들을 맛 있게 더 많이 생산 공급하라!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더 많은 종이가 요구된다.

제지 공업 부문에서 대중적 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종이를 생산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라!

소금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염전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정보 당 소금 생산량을 증대하며 새 염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라!

소금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염전 작업에 기계화를 적극 도입하며 새로운 공업적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도록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라!

수산물 생산을 증대하는 것은 부식물을 더욱 풍족하게 해결하는 중요한 방도다.

전체 수산 부문 로동자들과 수산 협동 조합원들이여!

대형 어업과 중소 어업을 병진 발전시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함으로써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하라!

당면한 8, 9월에 낙지를 비롯하여 공치, 갈치, 백하 등을 더 많이 잡기 위하여 투쟁하라!

전체 포경 포수들이여!

기술을 더욱 련마하여 백발 백중의 사격술로 한마리의 고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으라!

광활한 동서 해안의 천해와 간석지들에 각종 수산 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라!

미역, 곤포, 김, 굴, 조개 등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대대적으로 양식하며 기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위 당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라!

모든 호수, 저수지, 강하천, 논판 등 물 있는 모든 곳에서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

전체 수산물 가공 부문 일'군들이여!

잡은 물'고기를 제때에 가공하며 주민들에게 물좋은 생선과 랭동어를 사철 떨구지 말고 더 많이 공급하라!

주민들에게 더 맛 있고 깨끗한 새우젓, 조개젓, 명란을 비롯한 각종 젓갈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라!

전체 선박 부문 일'군들이여!

중형 뜨랄선, 대형 어선들과 함께 중소 어업용 소형 선박들을 대대적으로 만들며 운반선과 봉사선을 더 많이, 더 빨리 건조하라!

예비 기관과 예비 부속품을 규격 별로 제때에 공급하며 정비원들의 역할을 높여 선박 수리 기일을 결정적으로 단축하라!

수산 부문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여!

우리 나라 해양의 특성과 선진 어로 방법에 대한 연구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바다의 무진장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리용케 하라!

알곡 500만 톤 고지를 공고히 하며 명년에 300만 톤의 벼, 20만 톤의 육류와 인구 1 인당 1 일 10 그람 이상의 기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금년도 농촌 경리 부문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전투적 과업이다.

전체 협동 농민들과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이여!

알곡 생산을 계속 증대하며 그 질적 구성을 개선하고 공예, 유지 작물, 채소, 축산, 과수, 잠업 등 금년도 계획에 예견된 생산 과제를 지표 별로 어김 없이 초과 수행하라!

밭벼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의 중경 제초 및 비배 관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여 단위 당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라!

질 좋은 자급 비료를 계속 생산하여 모든 농작물에 더 많은 덧거름을 주라!

땅을 아끼고 사랑하며 한 치의 땅도 묵이지 말고 최대한으로 리용하라!

채소 생산 기지를 조성하며 계단식 재배를 강력히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라!

압록강 관개 공사를 비롯한 큰 관개 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기한 전에 이를 끝내도록 하며 도처에서 대소 양수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관개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라!

기존 관개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며 그 리용률을 더욱 높이여 관수 면적을 적극 확장하라!

논 면적을 명년에 60만 정보 이상으로 되게하고 1967년 이내에 70만 정보로 확장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수확고가 높고 안전한 벼 재배 면적을 확장하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라!

대형 농기계와 중소 농기계를 옳게 배합하여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모든 농산 작업을 적극 기계화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하라!

중소 농기구를 충분히 갖추고 그것을 적극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여 로동 생산성을 더욱 제고하라!

역축 두수를 계통적으로 증가시키라!

농작물 재배에서 농약과 살초제를 광범히 리용하여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며 각종 병충해의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라!

생산 조직과 로력 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의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하라!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라!

다수확 군 창조 운동과 근위, 선봉, 붉은 기 칭호 쟁취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라!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이여!

한 대의 뜨락또르도 놀리지 말라!

뜨락또르를 비롯한 일체 농기계들의 정검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 뜨락또르와 농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라!

국영 농목장 일'군들이여!

작업반 독립 채산제를 일층 강화하며 농산 작업에서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이라!

모든 농산물의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어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투쟁하라!

전체 축산 부문 일'군들과 협동 농민들이여!

협동 농장의 공동 축산과 개인 부업 축산을 옳게 배합하여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모든 농가들에서 돼지, 토끼, 가금들을 더 많이 기르라!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하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 목초를 광범히 리용하여 송아지, 면양, 염소 등 초식 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라!

전체 인민들이여!

조국의 모든 산과 경사지를 리용하여 과수원과 뽕밭을 더욱 확장하라!

이미 심어 놓은 과실 나무와 뽕나무를 정성껏 가꾸어 우리의 향토를 오곡 백과 무르익는 황금 산과 비단산으로 전변시키라!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부원이며 인민의 재산이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으며 심은 나무를 알뜰히 가꾸어 더 잘 자라게 하라!

나라의 산과 산림 및 강하천, 도로를 더 잘 관리하며 자연의 모든 피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여 우리 나라를 보다 아름다운 락원으로 만들라!

교통 운수는 인민 경제의 동맥이다.

교통 운수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철도의 기술적 개건을 촉진하며 현존 륜전 기재의 기술 상태를 개선 강화하고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장성하는 수송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라!

교통 운수 규정과 기술에 정통하고 혁명적 질서와 자각적 규률을 준수하며 사령 지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무사고 정시 운행을 보장하라!

전기 기관차 생산과 철도의 전기화 및 새 철도 건설 공사를 촉진하며 선로의 기술 장비를 개선 강화하여 철도의 통과 능력을 백방으로 높이라!

역 및 전용선들의 상하차 작업과 부두 상하선 운반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여 화차 회귀 일수와 선박의 체류 시간을 극력 단축하라!

항만 및 부두 시설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며 해상 운수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무역항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라!

자동차 및 련결차의 계획적인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기술 관리 사업을 강화하며 수송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그 실동률을 백방으로 높이라!

체신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중앙으로부터 리에 이르기까지 유선 통신 시설과 기술 장비를 더욱 개선 강화하고 통신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라!

산업 통신 선로를 적극 다중화하며 전신, 전화 회선의 연장을 증가하여 증대되는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라!

무선 방송의 출력을 높이고 그의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여 봉사 구역을 확장하고 인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목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림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원목 생산에서 자연 지형적 조건에 적응하게 각종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집중적 생산 조직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 목재 생산을 더욱 증대하라!

원목 생산과 운재에서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더욱 제고하고 그 능력을 높이여 벤 나무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제때에 운반하여 건설장에 보내라!

목재의 모든 부산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아름답고 맵시 있는 목재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라!

도시 경영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여!

주택, 공공 건물 및 문화 후생 시설의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상하 수도망을 더 잘 관리하고 정비 확장하라!

인민들이 문화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리며 공원과 유원지들을 더 잘 관리하여 록음이 우거지고 백화 만발하게 하라!

전체 상업 류통 부문 일'군들이여!

상업망을 인민 생활에 더욱 편리하게 포치하며 모든 상품 원천들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도시와 로동자구 및 농촌 주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을 더욱 강화하라!

모든 상업망들에서 부식물과 각종 아동복을 비롯한 상품 가공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다종 다양한 기호와 수요를 충족

시키라!

편의 시설망을 확대하고 그 업종을 다양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상 편의를 적극 도모하라!

전체 근로자들과 무역 부문 일'군들이여!

외화 획득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수출품 생산 기지를 공고히 하고 그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 함으로써 금년도 수출 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라!

전체 수매 부문 일'군들이여!

수매 방법을 더욱 개선하고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식료품과 공업 원료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업 생산을 더욱 자극하라!

재정 부문 전체 일'군들이여!

재정 관리 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체계적으로 증대하여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라!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촉진은 과학 및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육 부문 일'군들이여!

나라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양성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라!

우리의 후대들을 풍부한 지식, 튼튼한 체력, 고상한 도덕 품성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라!

교수 교양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과학성과 사상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수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라!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적 투사로 육성하라!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각급 학교들에서 학과 규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라!

성인 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라!

전체 보건 일'군들이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는 사람이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예방 치료 사업에 정성을 다하라!

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의료 봉사성을 더욱 높이며 모든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라!

의학 과학 기술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현대 의학과 함께 동의학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여!

선진적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부단히 섭취하며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을 최단 기간 내에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과학 연구 사업에서 고도의 책임성과 완강성, 혁신성을 발휘하라!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라!

기술 혁명 과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기계 공학 연구 사업에 온갖 정열과 지혜를 남김 없이 발휘하라!

전체 사회 과학자들이여!

우리 당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전개하며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우리 인민의 우수한 과학 문화 유산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서 리론 선전자의 역할을 일층 높이라!

전체 작가, 예술인들이여!

계급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훌륭한 문학 예술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계급적 각성과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높이도록 하라!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항일 투사들과 우리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적극 형상화하라!

작품 창작에서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광범한 대중을 적극 인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대담하게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욱 강화하라!

부르조아 문예 사상과 수정주의의 침습을 배격하고 문학 예술 창작에서 당성, 계급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라!

출판 보도 부문 일'군들이여!

당 정책을 대중 속에 더욱 철저히 침투시키며 그들을 애국적인 로력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적극 로력하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 모범을 적극 지지하며 그것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라!

체육은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준비시키는 강유력한 수단이다.

전체 체육인들이여!

훈련에서 과학적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더 많이 땀을 흘려 체육 스포츠 기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라!

모든 종목에서 국제적 기록들을 계속 돌파하여 천리마 시대 붉은 체육인들의 영웅적 기개를 남김 없이 발휘하라!

청년들은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다.

전체 청년들이여!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라!

어떠한 난관도 용감히 극복하며 언제나 어렵고 힘 든 일에 앞장서라!

청년들은 로력 전선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며 기술 혁신 운동에서 선구자가 되라!

전체 학생들이여!

선진 과학 기술과 지식을 부단히 습득하며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지,덕,체를 겸비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가 되라!

천리마 학급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전체 녀성들이여!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며 정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을 더욱 높이라!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들의 고상한 임무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이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미래의 훌륭한 공산주의 투사로 교양 육성하라!

일터와 가정을 항상 아름답고 깨끗하게 거두며 가정 생활을 계획적으로,문화적으로 꾸리라!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사회 단체 일'군들이여!

우리 당의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하며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제기된 혁명 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수립하라!

공업과 농업에 대한 새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기업 관리 운영에서 집체성을 보장하며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라!

농업 생산에 대한 집중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고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라!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의무이다.

분초를 아껴 학습에 더욱 열중하라!

각계 각층 군중들을 교양하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공화국 북반부를 단합되고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혁명적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는 것은 인민군 장병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이라도 제때에 격멸 소탕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라!

우리 당 정책과 혁명 선렬들의 불 타는 애국주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 전사가 되라!

인민 군대를 간부 군대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군인들을 유능한 군사 정치 간부로 육성하며 인민군 대렬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라!

관병 일치, 군민 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상하부 간의 단결과 인민들과의 혈연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라!

전체 사회 안전원들과 경비대원들이여!

인민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원쑤들의 온갖 파괴 암해 책동을 걸음마다 철저히 폭로 분쇄하라!

혁명적 경각성을 고도로 높이여 원쑤들에게 발 붙일 틈을 주지 말라!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적극 보위하며 사회 질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라!

전체 근로자들과 로농 적위대원들이여!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도 물리치고 우리의 거리와 마을, 우리의 사랑하는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하라!

전체 인민이 무장하며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자!

친애하는 동지들!

남북 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유일한 출로는 민족의 평화적인 자주 통일에 있다.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선 인민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나서자!

남조선 인민들이여!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완전한 민족적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인 미제 침략군을 하루 속히 철거시키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용감히 전개하라!

미제 침략자들에게 한 알의 쌀, 한 모금의 물도 주지 말며 남조선에서 한 놈도 배겨 낼 수 없게 하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며 군사 기지의 철폐와 원자 유도 무기의 즉시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라!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을 념원하는 모든 인사들은 정견의 차이, 재산과 신앙의 유무, 과거 여하를 불문하고 애국 애족의 일념으로 전 인민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하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 시위, 사상 선택의 자유와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라!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

하여 미제와 그 괴뢰들의 통치 기구를 철저히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군인, 중소 상공업자 등 각계 각층 인민들의 대표가 광범히 참가하는 민주주의적 자주 정부를 수립하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 인민의 진정한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적 정당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라!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새로운 지도자들을 내세우라!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정치적 자주도 없다.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초래한다.

미제의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고 침략적 《원조》를 단연코 배격하라!

《한일 회담》을 폭로 분쇄하며 《경제 협력》으로 가장한 일본 독점 자본의 재침투를 저지시키라!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 북반부에 튼튼한 경제력과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매여 달리겠는가.

외세 의존의 사대주의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전 민족이 힘을 합쳐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남북 조선의 경제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라!

조국 통일을 위한 중간 걸음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련방제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라!

남조선 로동자들이여!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온갖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나서라!

모든 수단을 다하여 미제 침략군의 군수 생산을 파탄시키고 군사 수송을 마비시키라!

미제와 예속 자본가, 친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운수 및 은행의 국유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반동적 《로동법》을 페기하고 민주주의적 로동 법령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8 시간 로동제와 소년들에 대한 6 시간 로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여 투쟁하라!

동포들을 해외의 현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먹는 《이민》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로조의 어용화를 반대하며 로조의 자주성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라!

《로자 협조》와 《생산성 향상 운동》의 기만적 설교에 속지 말고 온갖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라!

실업을 없이 하고 완전 취업을 보장하며 주택, 식량을 비롯한 일체 생활 보장을 요구하여 단호히 투쟁하라!

로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농민들과의 전투적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라!

남조선 농민들이여!

미제와 매국 역도들의 토지 수탈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토지는 밭갈이하는 당신들에게 돌아 가야 한다.

반동적《농지 개혁》의 후과와 일체 봉건적 소작 제도를 청산하며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하는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라!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토지 징발을 반대하며 징발 당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온갖 봉건적 착취와 신분적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기만적인 《중농 정책》에 우롱당하지 말고 량곡 강제 수탈과 저미가 정책을 반대하며 가렴 잡세의 철폐를 요구하여 투쟁하라!

국가 자금에 의한 토지, 산림 보호 대책과 관개 수리, 제방 시설의 복구 확장을 실현하며 농기구, 비료, 농약의 가격 인하와 원활한 공급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절량 농민과 리농가에 대한 항구적이며 실질적인 구호 대책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앉아서 굶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하여 도처에서 들고 일어 나라!

남조선 어민들이여!

미군과 괴뢰군이 봉쇄하고 있는 어장들을 탈환하며 해상의 남북 장벽을 뚫고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남조선의 모든 청년 학생들이여!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배격하고 민주주의 민족 교육을 실현하며 국가 부담에 의한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라!

학원의 군사화와 청년 학생들에 대한 괴뢰군 강제 징소집을 반대 거부하라!

학생들의 애국적 투쟁을 분쇄하려는 원쑤들의 흉책을 분쇄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회 정치 활동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라!

학원의 모리화를 반대하고 잡부금의 철폐와 공납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여 투쟁하라!

《반공 교육》을 반대하며 선진 과학 탐구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라!

고학생들에 대한 국가 장학금제의 실시와 졸업생들의 완전 취업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남조선 과학자, 문화인들이여!

양풍의 침습으로부터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을 보호하며 미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민족 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고귀한 과학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라!

학술 연구 및 창작 활동의 자유와 그 물질적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남조선 녀성들이여!

미국 강도 놈들이 우리 나라 녀성들을 릉욕하는 민족적 멸시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하라!

우리 녀성들의 머리를 깎고 하

반신에 뼁끼칠을 하는 등 갖은 악행을 다하여 민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원한에 사무치게 하는 미제 야수들을 복수하라!

녀성들에 대한 온갖 봉건적 구속과 사회적 차별에서 벗어 나 남성들과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쟁취하라!

모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는 아동들의 국가적 양육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사랑하는 남편들과 아들들이 치욕스러운 《국군》살이에 끌려 나가는 것을 반대하며 빼앗긴 그들을 죽음의 병영에서 돌아 오게 하라!

남조선 군인들이여!

당신들은 학대 받고 굶주리는 로동자, 농민, 소시민의 자제들이다.

북조선에는 당신들의 원쑤가 없다.

미제의 고용군이 되지 말고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며 국토를 방위하는 참다운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되라!

양키들의 손아귀에서 《국군》의 통수권을 탈환하며 미국 고문들의 명령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라!

생존과 자유,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부모 처자들의 가슴팍에 총을 겨누는 수치스러운 도구가 되지 말고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

남조선 중소 상공업자들이여!

민족 산업을 파괴하고 당신들을 파산 몰락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라!

과중한 세금 부담을 반대하며 자유로운 영업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우리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며 지구상에서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체 인민들이여!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 로동 계급 앞에 부과된 혁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라!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1957년 선언 및 1960년 성명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루마니야, 몽고, 불가리야, 알바니야, 월남 민주 공화국, 웽그리야, 체코슬로바키야, 파란의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 열렬한 형제적 인사를 보낸다.

미제의 부단한 침략 책동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혁명적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영웅적 사회주의 나라 꾸바 인민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남부 월남 인민들의 영웅적 무장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성원을 보낸다!

미 제국주의와 국내 독점 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토 완정을 위하여 견결히 전진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제국주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 자유와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전투적 련대성을 보내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라!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 상 권리와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의 로동 운동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친애하는 동지들!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

전체 인민들!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어려운 혁명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체 근로자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천리마의 고삐를 더욱 튼튼히 틀어 쥐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며 언제나 항일 빨찌산들이 백두산에서 싸우던 그 혁명적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라!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라!

부화하고 안일한 현상들과 일체 낡은 생활 인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검박하게 생활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라!

현대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자본주의 사상의 잔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에 끝까지 충실하라!

미제를 비롯한 원쑤들의 온갖 침략적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반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대표하고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의 기치이다.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혁명적 전취물인 사회주의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며 더욱 공고 발전시키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

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선두에는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당-조선 로동당이 서 있다.

우리 당의 령도 아래 당과 함께 전진하는 조선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 뿐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만세!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만세!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 로동당 만세!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 만세!

1963년 8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선 중앙 통신사의 성 명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은 지난 7월 29일과 30일 량일 간에 걸쳐 우리 측 무장 인원들이 마치 군사 분계선 남쪽 지역에 《침입》하여 미군을 《살해》하였고 8월 1일과 3일, 5일에는 우리 측이 군사 분계선 비무장 지대에서 자기들에게 《총포 사격》을 가한듯이 급작스러이 《사건》을 조작하여 또다시 있지도 않은 소위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어 대고 있다.

워싱톤의 고위 계층은 지금 《성명》과 《담화》들을 통하여 이러한 허위를 류포시키고 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미제의 어용 보도 기관들도 진실을 외곡하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중앙 통신사는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미제 침략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살해 사건》과 《사격 사건》이란 사실상 전혀 무근거한 조작이며 완전한 허위 날조이다.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전쟁 심리를 고취하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선과 아세아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그들이 이 지역에서 감행하고 있는 새 전쟁 모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추악한 음모 책동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사기적인 《민정 이양》 책동과 극도에 달한 식량난을 비롯한 정치 경제적인 파국적 상태로부터 인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며 저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비방 중상하기 위한 허위 날조는 미제 침략자들이 계통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비렬한 상투적 수'법이다. 바로 이 번 《사건》도 그러한 기만극의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측은 정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선에서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또 다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평화 애호적 립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은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파괴 유린하고 우리측을 반대하는 적대적 도발 행위를 끊임 없이 감행함으로써 조선에서의 평화를 상시적으로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그들은 남조선에서 《전시 동원 태세의 확립》과 《비상 동원》을 선포하고 또다시 대규모적인 전쟁 도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동해에서 《대 기뢰전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한미 련합 해상 보급 및 사격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포하였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군과 괴뢰군의 륙해공군을 동원하여 남조선의 동남 해안 일대에서 미군 사령부의 《상륙 전투 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한미 합동 상륙 작전》 연습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일대에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으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데 광란적으로 날뛰고 있다. 최근에 미제 침략자들은 지어 무장한 장갑차를 비무장 지대 중앙 분계선까지 침입시키며 공화국 북반부 지역을 향하여 수차에 걸친 총사격까지 하는 엄중한 도발 행동을 감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탐, 파괴, 암해, 살인을 위한 무장 간첩들을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더욱 대량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야말로 조선에서의 평화를 파괴 유린하고 있는 침략의 원흉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어떠한 허위 날조로써도 자신의 이러한 죄행을 은폐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방 중상으로써도 조선에서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을 훼손시킬 수 없다.

아무 근거도 없는 황당한 《사건》을 날조하여 전쟁 히스테리를 조장하며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는 미제 침략자들의 범죄적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에서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유일한 담보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데 있다.

오늘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 이 이상 더 머물러 있을 어떠한 구실도 없다.

미제 침략자들은 원자 및 유도

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1963년 8월 7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9월 3일부터 5일까지에 걸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는 당 중앙 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 및 지방 당 일'군들, 성, 중앙 기관 일'군들, 지방 정권 기관 일'군들, 지방 농촌 경리 부문 및 지방 산업 부문 일'군들, 공장, 기업소 지배인, 당 위원장들, 근로 단체 일'군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1.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대한 예비적 총화와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2.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

의정 첫째 문제에 대한 보고는 내각 부수상 겸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인 정 준택 동지가 하였으며

의정 둘째 문제에 대한 보고는 농업 위원회 위원장 김 만금 동지가 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기하면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채택하였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진지를 공고히 한 토대 우에서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는 장엄한 시기에 들어 섰다고 강조하면서 전원 회의는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맑스-레닌주의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하에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과 인민이 굳게 뭉쳐 푼전을 아껴 가며 간고 분투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7 개년 계획의 첫 3 년 간의 과업을 실행하는 투쟁 행정을 통하여 중공업 기지는 더욱 정비 보강되고 경공업과 농촌 경리가 발전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준비가 갖추어졌다.

우리가 쌓아 올린 민족 경제의 토대는 자기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게 되였으며 훌륭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이 힘 있는 밑천에 근거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우리 조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의 성숙된 과업이라고 전원 회의는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또한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혁명 정세가 이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내달아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선다면 조국 통일 위업에 새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원 회의는 오늘 국제 정세는 우리들에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계속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성과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책동을 분쇄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증시할 것이라고 전원 회의는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첫째 문제에 대한 토의에서 금년도 10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달성된 성과들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면서 1964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규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앞당겨 작성하게 된 것은 대안의 사업 체계가 도입되고 당의 군중 로선이 관철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모든 준비를 충분히 하여 명년도 계획을 성과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방향에 립각하여 공업 총 생산액을 명년에 금년도 예정 실적에 비하여 121%로,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을 113%, 소비재 생산을 135% 이상으로 각각 장성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계속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원 회의는 명년도에 생활 필수품 생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다종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생활 필수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것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공업의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경공업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중공업 공장들의 생활 필수품 직장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것을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일용 필수품 생산에서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 최근 1~2 년 내에 소비품의 품종을 3만 종으로 확대하며 2~3 년 내에 그 질을 선진 수준에 끌어 올릴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다음으로 농업에 계속 주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명년도에 알곡 특히 벼의 증산을 위하여 논 면적을 확장하여 그것을 62만 정보 이상에 도달케 하며 단위 당 수확고를 높이고 2모작과 간혼작을 광범히 실시할 데 대해서와 토지를 개량하며 치산 치수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공업이 지닌 무거운 임무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특히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채취 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며 굴진과 갱 전설을 선행시키고 설비를 정비 강화하며 대규모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중소 규모의 탄광들에서 생산을 강화하여 석탄 생산을 장성시키며 새로운 광산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유색 금속, 희유 금속, 비금속 광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할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원 회의는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개편한 기계 공업의 관리 체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현존 공장들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설비와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경공업, 농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계 설비들과 탄광, 광산 설비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 공급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금속 공업 부문에서 현존 설비를 더 잘 리용하여 각종 규격 강재와 2 차 가공 제품 및 박판 생산을 증가시키며 화학 공업 부문에서 경공업 원료와 화학 비료 및 농약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해서와 기본 건설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림업 부문에서 목재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일련의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모든 사업에서 성과 여하는 지휘관들의 능력과 조직 사업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전원 회의는 '각급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이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 잘 구현하여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모든 부문에서 절약 투쟁을 강화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고 더욱 검박하게 생활하는 동시에 전 당이 기술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기하였다.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전투적 과업의 성과적 실행과 관련하여 전원 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인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의 정확한 축산 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축산업은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락후성을 현저히 퇴치하고 대규모 사회주의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해 놓았다고 지적하고 금후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이미 축성된 토대에 기초하여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첫째로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게 소, 양, 토끼 등 초식 가축의 사육과 양돈업을 발전시키면서 닭을 비롯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둘째로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 공동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 부업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며 협동 농장들에서 공동 사육과 개인 사육, 소집단 사육과 분산 사육을 배합하여 축산물 상품 생산 비중을 급속히 증가시키며, 세째로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축산업을 가축 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하도록 할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육류 생산량을 명년에 13만 톤에 달하게 할 것이라고 전원 회의는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사료 문제를 해결하며 종축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가축들의 품종을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축산 작업의 기계

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가축의 사양 관리 사업과 수의 방역 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 과학 연구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또한 축산물의 수매 및 공급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 제고하며 특히 축산물의 판매에서 농민 시장을 더 잘 리용하게 하며 직매점을 광범히 설치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축산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단련된 핵심들로써 축산 부문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이 부문 일'군들 속에서 당의 축산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 올 데 대한 새롭고 웅대한 과업을 제기하면서 1956년 12월 전원 회의와 1958년 6월 전원 회의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킨 것처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금번 전원 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다시 한 번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도처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1964년을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 실현에서 결정적인 전진의 해로, 인민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되게 하며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킬 데 대한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최 용건

동지들!

조선 인민이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한 때로부터 15 년이 지나 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걸어 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 행로를 회고하며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투쟁 업적을 무한히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 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선 인민은 오래 동안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말할 수 없는 간난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장구한 기간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자기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숙망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후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북조선에서 낡은 일제 통치 기구를 철저히 파괴하고 인민 주권을 수립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과 봉건 세력을 청산하는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북조선에서 수행된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에 토대하여 미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거족적인 투쟁 속에서 창건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 자신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입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쥔 독립된 민족으로서 세계 무대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첫 날부터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기도하여 왔으며 마침내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3 년 간의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독립과 영예를 사수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으며 오늘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더욱더 장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이며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피로써 지켜낸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자기들의 영웅적 로동으로써 건설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입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공화국의 륭성 발전에서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어떠한 원수들의 침해로부터도 공화국을 사수하며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동지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공화국의 국가 사회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세기적인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독립 국가의 튼튼한 경제 토대를 축성하여 놓은 것입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함으로써 생산력은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해방되였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영원히 청산되였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불문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자주 독립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서 세계 선진 국가들의 대렬에 설 수 없습니다.

더우기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해방 후에도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우리 민족의 흥망과 조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였습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치하여 우리의 혁명 진지를 반석 같이 다지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힘 있게 추진시키며 통일되고 독립되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공업은 류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공화국 창건 후 15 년 동안에 절반 이상의 시일이 전쟁과 파괴된 경제의 복구 사업에 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은 14.5 배나 장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업은 해방 후 첫 11 년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업 제품을 단 한 해 동안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집중함으로써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 부문들을 다 갖춘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축성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였으며 국내의 자연 부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중공업은 114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1천 320만 톤의 석탄, 120만 톤 이상의 선철과 립철, 105만 톤의 강철, 78만 톤의 화학 비료, 237만 톤의 세멘트를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1962년에 그 생산액은 1948년에 비하여 45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대형 공작 기계,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써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제 힘으로 생산한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습니다.

수 많은 대규모의 현대적 경공업 공장들과 함께 전국 도처에 2천 여 개의 중 소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고 경공업의 튼튼한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습니다.

1962년에 방직 공업은 1948년에 비하여 31 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12 배로, 문화용품 및 일용품 공업은 62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방직 공업은 2억 5천만 메터 이상의 각종 직물을 생산하였습니다.

15 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소비품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의 모든 상점들을 국내산 상품으로 채우고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는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알곡 생산을 증가시켜 식량을 자급 자족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당은 승리한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농기계와

영농 기술을 부단히 도입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였습니다.

1962년에 관개 면적은 1948년에 비하여 6 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2.6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년간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현재 농촌에서의 뜨락또르 대수는 15 마력으로 환산하여 1만 7,500 대에 달하였으며 이 밖에도 수 많은 현대적 농기계들이 도입되여 농민들의 고되고 힘든 로동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1962년에 알곡 생산은 1948년에 비하여 1.9 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예 작물, 채소, 과실, 축산물 생산도 급속히 증대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으며 장차 알곡을 더욱 풍족하게 생산하고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로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독립되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 경제 토대와 함께 국가와 경제를 능히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체의 민족 간부를 가져야 하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 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족 간부를 양성하며 과학 기술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당과 정부의 거대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중등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와 대학이 대대적으로 증설되였습니다.

각급 학교 수는 1948년의 4,240 개로부터 현재는 9,191 개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대학은 11 개로부터 97 개로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255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생 수는 2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후 15 년 동안에 우리는 국내의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24만 명 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체의 민족 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간부들의 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가진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은 인민 정권 하에서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아름답고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 예술로서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였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민족 경제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부단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1962년에 국민 소득은 1946년에 비하여 8.7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지금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그들에게 안착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주택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여 인민들의 주택 조건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10 년 간에만도 도시와 농촌에 3천 290만 평방메터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도 해마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대학 및 전문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유급 휴가제와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국가 및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유치원과 탁아소들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제도인 전반적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봉사는 날로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민 보건 사업이 강화되고 인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1962년에는 해방 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근 절반으로 감소되였으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 년이나 연장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도, 류랑인도, 걸인도 없으며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의 의식주에 대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병 치료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거대한 배려의 뚜렷한 표현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증시하는 것입니다.

새 조국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창조적 로동의 결실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점령하지 못 할 어떠한 요새도 없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 더욱 훌륭한 미래를 명확히 내다 보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우리 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전망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이미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이미 축성된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더욱 정비되고 강화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계속 앙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으로써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서는 중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고 기계 제작 공업과 화학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우리의 중공업을 전반적으로 더욱 정비하고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중공업은 앞으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훌륭하게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 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우리 인민은 지금에 와서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특히 금속 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 목재 가공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초물 제품 등 다양한 일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더욱 문명하고 유족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논 면적을 계속 확장하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알곡을 풍족하게 생산하고 특히 벼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일 것이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울 것입니다. 7개년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공화국은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휘황한 전망에 무한히 고무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 밑에 더욱 높은 열성과 창조성과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7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완수할 것이며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와 경제 토대는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는 전례없이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화국은 유일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립각하고 있으며 위력한 사회주의 공업과 공고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착취 계급도 피착취 계급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토대 우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확고한 정치 도덕적 통일이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바로 이와 같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전투적 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혁명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적대 분자들과 제국주의의 주구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자기의 인민들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우리 당은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기지를 와해시키려는 인민의 원쑤들의 파괴 활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도를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고도로 발현시키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데 거대한 관심을 돌려 왔습니다.

특히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수립된 결과 모든 사업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군중의 적극성을 발동시키는 우리 당의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습니다.

당은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 세대의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의 계급적 관점과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는 사상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교양되고 있으며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사회는 굳게 단합되고 혁명적 열정으로 충만된 하나의 전투 집단으로,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 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였습니다.

조선 인민이 자기의 독립 국가

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시 당하고 억압 당하던 고난의 력사는 영원히 과거로 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는 근로 인민의 진정한 조국,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한 강유력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류례 없는 번영의 시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파괴할 수 없으며 공화국의 기치 밑에 단결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동지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승리와 영광에 찬 위대한 새 생활이 건설되고 있는 반면에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공화국 남반부는 치욕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 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되고 가장 야수적인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3 년째 극단적인 군사 파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 운동은 전대미문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 명맥을 탈취하였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적 목적에 완전히 예속시켰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식민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공업은 전면적으로 파괴되였습니다.

더욱더 심각하여지는 원료 및 자금의 부족과 미국 상품의 압박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부단히 파산 몰락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18 년이 지난 오늘 남조선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농업도 말할 수 없이 황폐되였습니다. 남조선 통치자들은 농촌에 투자는 하지 않고 바닥이 나도록 농촌을 긁어 냈습니다.

산림이 황폐되고 관개 시설이 파괴된 결과 남조선 농토의 절반 이상이 복구 개간하지 않고서는 수확을 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였습니다. 심한 토지의 부족과 가혹한 봉건적 및 식민지적 착취로 인하여 농민 경리는 극도로 령세화 되였습니다.

1962년에 남조선의 알곡 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근 30%나 감소되였으며 금년에 농사 형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면적인 파탄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의 부단한 파산과 조업 단축은 이미 오래전에 수백만에 달한 실업자의 대렬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끝 없는 물가의 폭등과 조세 수탈의 강화는 인민 생활을 빈궁의 밑바닥에 몰아 넣었습니다.

지금 무서운 기근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는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18 년 간에 걸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와 그에 추종한 남조선 지배층의 매국 정책은 조국 남반부를 죽음의 땅으로,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수습할 수 없는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뒤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며 고 테로와 폭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민정 이양》으로 남조선 사태가 개변될 것 같이 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민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들은 벌써 10 년 이상 《민정》이 가져다 준 온갖 재난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군정》을 《민정》으로 바꾸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남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으며 새 생활과 새 정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사 파쑈 《정권》에 대한 남조선 인민 대중의 증오와 항거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외세 의존을 배격하며 자생, 자결과 경제의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사활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 민족의 념원에 부합되는 이 애국적 주장을 지지합니다.

지어 현 남조선 《정권》의 일부 당국자들까지도 자립 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이 인민 대중의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나온 것인지 혹은 민족적 량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똑똑치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조선 경제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고 있는 이것이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 경제를 예속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을 그대로 두어 두고는 남조선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함으로써만 남조선은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습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말로만 자립 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떠들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계속 외세에 의탁하며 제국주의의 《원조》를 끌어 들이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사태를 조금도 개변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처참한 지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립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 합작을 실현해야 하며 전 민족의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남북이 합작하고 협력하는 외에 남조선이 재생할 수 있는 다른 출로는 없습니다. 남북의 합작과 협조를 실현함으로써 북조선 공업 지대와 남조선 농업 지대 간의 련계를 회복하며 전국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남북 조선의 전체 경제력을 동원한다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먼저 건설하고 통일한다》느니,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북 간의 어떠한 협조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도리가 없으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전 조선을 침략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남조선이 재생하기 위하여서는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지금부터 남북의 힘을 합치면서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먹고 먹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배격하고 전 민족이 힘을 합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도탄에서 구출하는 데 있습니다.

남북이 합작하지 못할 어떠한 리유도 없습니다. 남북 간에 현존하는 정치적 견해와 사회 제도의 차이는 우리가 민족의 사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하고 협력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적 력량이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단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공산당과 자산 계급의 정당이 합작하여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한 력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오늘도 공산당과 다른 정당들이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민족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4월에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김 구 선생을 비롯한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력사적인 남북 련석 회의에 모여 앉아 반미 구국 대책을 세웠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 자산 계급의 대표자들이 외적을 반대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서 투쟁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남북 협상의 기회를 조성하며 남북의 합작을 실현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남북이 합작하여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며 남반부 동포들을 사경에서 구원하는 것은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3천만 전 민족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집권자들과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사 숙고하여야 하며 전 민족의 이 절박한 요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 누가 끝끝내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반공》이니, 《승공》이니 하면서 계속 민족의 화목과 단결을 파괴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진창 속에 짓밟으려 한다면 그는 결코 리 승만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을 위하여, 남북의 합작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애국적 인사들은 반미 구국의 기치 밑에 북조선 인민들과 손을 맞잡고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 침략 군대를 몰아 내지 않고서는 조선 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 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자기 군대를 계속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가리기 위한 방패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저들의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할 어떠한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 가야 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사람들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호상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군비를 축소함으로써 남북 조선이 다 같이 민족 경제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무력을 축소하고 남북 합작이 실현되면 남조선은 민족 보위에 필요한 무력을 외국의 군사 원조 없이도 민족 자체의 힘으로 능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남북 합작과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의 체결은 남북 간의 불신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새 국면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통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민주주의—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 부동한 원칙입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극동과 아세아에서의 평화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전체 조선 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우리의 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반동적 매국 세력만이 우리의 이 원칙적인 방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온갖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 애국적 자본가 등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단결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미제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에 일어 서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힘으로도 조선에서 무너져 가는 식민지 제도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 전체 애국적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격파되고야 말 것이며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들!

전체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0만 재일 동포들은 공화국의 륭성과 발전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 보고 있으며 무한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8만여 명에 달하는 재일 동포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안에 돌아와 행복한 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일 조선 공민들은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투쟁은 일본 각계의 민주 단체들과 진보적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 공민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는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하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지체 없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은 재일 동포들의 침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동포들의 이 정당한 요구는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버리고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전례 없이 공고화되였으며 전반적 국제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에 유리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전쟁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도처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닺치고 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가면 밑에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극동과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자기들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제는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장 개석 도당을 사촉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책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발광적인 반중국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네루 정부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에로 사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부 월남에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 또다시 국내 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를 재무장시

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가장 흉악한 원수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을 연막으로 하여 핵 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광적으로 자기의 동맹국들에 핵 무기를 전파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핵 구력의 우세를 확보할 데 대하여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반제국주의 력량과 평화 애호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결속시켜 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음모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우리의 국방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미제의 침략 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 위업을 달성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더욱 더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국주의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의무입니다.

조선 인민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모든 식민지 및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느고 딘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과 조국 통일을 위한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국내 반동의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 통일과 평화와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며 영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음모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와 국내 독점 자본을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꾸바 인민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조선 인민은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제국주의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 대외 정책의 확고 부동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명확히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동지적인 호상 지지와 호상 원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강요하거나 또는 당들 간의 의견 상이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하여 형제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이러저러한 형제 나라를 고립시키고 우리 진영에서 떼여 내려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지 행동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선언과 성명에 규정된 형제 국가들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만 우리 진영의 통일은 수호될 수 있으며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복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파괴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가적 관계를 설정하며 우호적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시종 일관한 방침입니다.

지난 기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기니아, 말리, 알제리아, 아랍 련합 공화국, 예멘 아랍 공화국, 우간다 등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버마, 캄보쟈, 쎄일론, 이라크, 우루과이 등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우리 나라의 경제 문화적 협조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와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 밑에 지난 15 년 동안 영광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 왔으며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독립되고 힘 있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되였으며 날로 더욱 번영하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자유와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구현하였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 인민의 투쟁에서 강력한 성새로 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확신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의 담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가로 막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유엔 총회 제18차 회의 의정에 또다시 《조선 문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금번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 의정에는 례년과 같이 또다시 《조선 문제》가 포함되였다.

이것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조선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 자신이 해결할 내부 문제로서 이에 그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

유엔 헌장 제 2 조 7 항은 타국 내정에 유엔이 간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 헌장 제 107 조에 비추어 보아도 조선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 것은 비법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유엔 헌장을 횡포하게 유린하면서 계속 조선 문제를 유엔의 심의에 상정시키고 진부한 《결의안》을 반복 통과시켰으며 유엔을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적 목적에 순응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이리하여 유엔에서의 《조선 문제》 토의는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하였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유엔은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조선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데 있다.

만일 유엔이 진정으로 그의 헌장에 부과된 사명을 정당하게 수행하려 한다면 계속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고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엄폐하는 데 리용될 것이 아니라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며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해체시키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일단 유엔에서 《조선 문제》가 토의되는 이상에는 응당 이 문제의 당사자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여야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기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조선 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조작되는 조선에 관한 유엔의 그 어떠한 《결의》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1963년 9월 25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별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한다.

2. 본 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 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서기장 **림 춘 추**
1963년 10월 9일 평양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1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

제 2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은 그의 거주지에는 관계 없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외국에 거주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은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할 수 있다.

제 4 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령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과 외국 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3)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령역 내에서 발견된 자녀로서 그의 부모를 알지 못 하는 자

제 5 조 외국에 거주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과 외국 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의 국적은 부모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제 6 조 외국인은 민족 별 및 인종 별에 관계 없이 그의 청원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결혼하여도 그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 8 조 부모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적에 입적하거나 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적으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14 세 미만의 자녀들의 국적은 부모를 따라 변경되며 18세 미만의 자녀들의 국적은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제 9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 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자녀들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 10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에의 입적 또는 그로부터의 제적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 정

제 1 장 선거의 일반 원칙

제 1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3 조에 근거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제 2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일반적이다.

즉 만 18 세 이상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 별, 성분, 신앙, 거주 기간, 재산, 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조선 인민군 (경비대 포함)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조 만 18 세 이상의 녀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4 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1.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 당한 자

2. 따로 제정된 절차에 의하여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정신병자

3. 검찰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구금 중에 있거나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자

제 5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지역 내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 한다.

제 6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평등적이다.

즉 선거권을 가진 매개 공민은 투표에서 1 인 1 표이며 평등한 기초에서 선거에 참가한다.

제 7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직접적이다.

즉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은 직접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한다.

제 8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할 때의 투표는 절대 비밀이다.

제 2 장 선거자 명부

제 9 조 선거자 명부에는 그를 작성할 당시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지역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며 선거일에 이르러 선거권을 가지는 공민들이 전부 등록된다.

선거자는 선거자 명부에 단 한 번 등록된다.

본 규정 제 4 조 및 제 5 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자 명부에 등록되지 못 한다.

제 10 조 선거자 명부는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가 인민반 순위에 의하여 선거 분구 단위로 작성하고 그를 작성한 인민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이 서명한다.

조선 인민군 부대(경비대 포함) 내에 있는 선거자들의 선거자 명부는 해당 군 부대장이 작성한다.

제 11 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선거일에 이르기 20 일 전에 선거자 명부를 선거 분구 지역 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선거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성명 또는 기타가 오기되였거나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그릇 등록되는 등 선거자 명부에 오유가 있을 경우 선거자들은 그 명부를 작성한 인민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인민 위원회는 그 청원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선거자 명부에 필요한 정정을 가하거나 그 청원을 거절하는 근거를 5 일 이내에 청원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청원자는 자기의 청원에 대한 인민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민 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 재판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와 해당 인민 위원회 대표자의 참가 밑에 이를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는 선거자가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때로부터 선거일에 이르는 기간 내에 등록된 자기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혹은 타 지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정된 양식에 의한 《선거권 증명서》를 교부하고 선거자 명부에 《전출》이라고 기입한다.

전출한 선거자는 새 거주지 인민 위원회에 《선거권 증명서》와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선거자 명부에 새로 등록된다.

제 15 조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선거자가 선거일에 이르는 기간 내에 사망되였을 경우에는 선거자 명부에서 제명하고 《사망》이라고 기입한다.

제 3 장 대의원 선출 비률

제 16 조 도 인민 회의 대의원은 인구 5,000명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평양시 인민 회의 대의원은 인구 5,000 명에 1 명, 개성시, 함흥시, 청진시 인민 회의 대의원은 인구 2,500 명에 1 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 17 조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은 인구 3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구 500 명에 1 명, 인구 3만 명 이상 6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구 700 명에 1 명, 인구 6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구 900 명에 1 명, 인구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0 명에 1 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 18 조 리 인민 회의 대의원은 인구 2,000 명 미만인 경우에는 15 명, 인구 2,000 명 이상 5,000 명 미만인 경우에는 23 명, 인구 5,000 명 이상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27 명, 인구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31 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은 인구 4,000 명 미만인 경우에는 15 명, 인구 4,000 명 이상 1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31 명, 인구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41 명,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51 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 4 장 선거구와 선거 분구

제 19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로 구분하지 않고 리(읍, 로동자구) 행정 구역 단위로 진행한다.

제 20 조 선거구는 본 규정 제 16 조 및 제 17 조의 대의원 선출 비률에 근거하여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가 조직한다.

제 21 조 선거자들의 투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는 인구 300~1천 명 범위내에서 선거 분구를 조직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직할시) 인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구 300 명 미만되는 지역에도 선거 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환자가 25 명 이상 있는 병원, 료양소와 철도의 주요 역 기타 이와 류사한 기관에는 특별 선거 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조선 인민군 부대(경비대 포함) 내에는 따로 선거 분구를 조직한다.

선거 분구는 선거일에 이르기 30일 전에 조직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 위원회

제 22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을 조직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위원회를 조직한다.

1. 도(직할시)선거 위원회
2. 시(구역), 군 선거 위원회
3. 구 선거 위원회
4. 리(읍, 로동자구)선거 위원회
5. 분구 선거 위원회

제 23 조 각급 선거 위원회들은 정당, 사회 협동 단체 대표들로써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도(직할시) 선거 위원회는 도(직할시)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45일 전에 15~17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2. 시(구역), 군 선거 위원회는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40 일 전에 7~9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3. 도(직할시)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 선거 위원회와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 선거 위원회는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35 일 전에 각각 5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4. 리(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는 리 (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30 일 전에 5~7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5. 분구 선거 위원회는 해당 시 (구역), 리 (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30 일 전에 5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 24 조 도 (직할시) 선거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 (읍, 로동자구) 대의원 선거 사업을 조직하며 도내에서 본 규정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지도 검열한다.

2. 각급 선거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하고 해결한다.

3. 투표함의 규격, 선거표의 양식, 구, 리(읍, 로동자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 회의록 양식, 선거자 명부, 선거권 증명서, 당선 증명서 양식 및 선거 위원회들의 인장을 제정 배포한다.

4. 선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작성하며 승인된 예산을 각급 선거 위원회에 배정하고 그의 집행을 지도 통제한다.

5. 도(직할시)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구 선거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선거 결과를 확정한다.

6. 시(구역), 군 선거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확정한다.

제 25 조 시(구역), 군 선거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 리(읍, 로동자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 사업을 지도 검열한다.

2. 구, 리(읍, 로동자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선거표, 선거 문건 양식, 선거 위원회 인장, 선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도(직할시) 선거 위원회로부터 받아 구 및 리 (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에 배정한다.

4. 시 (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구 및 리 (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시(구역), 군내의 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도(직할시) 선거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 구 선거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규정 제 6 장에 의하여 자기 선거 구에 추천된 후보자를 등록한다.

2. 분구 선거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분구 선거 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자기 선거구 내의 투표수를 계산하며 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상급 선거 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자기 선거구에서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에게 당선 증명서를 내여준다.

제 27 조 리 (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규정 제 31 조 및 제 32 조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를 등록한다.

2. 분구 선거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선거표, 선거 문건 양식 및 분구 선거 위원회 인장을 배포한다.

4. 선거자들에게 선거 규정을 해설 침투시킨다.

5. 분구 선거 위원회의 회의록에 근거하여 자기 리 (읍, 로동자구) 내의 투표를 계산하며 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상급 선거 위원회에 보고한다.

6.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에게 당선 증명서를 내여 준다.

제 28 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선거자 명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선거자들에게 선거 절차를 해설 침투시킨다.

3. 선거실을 장식하며 투표함을 준비한다.

4. 선거일에 이르기 15 일 전에 선거일과 선거 장소를 공시한다.

5. 선거표를 접수하여 책임적으로 보관하며 본 규정에 립각하여 선거자들의 투표를 보장한다.

6. 도 (직할시), 시 (구역), 군,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가 받은 투표를 계산하여 그결과를 해당 상급 선거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9 조 각급 선거 위원회에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는 거수 방법

으로 다수 가결에 의하여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후보자 추천 절차

제 30 조 도(직할시), 시 (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은 정당, 사회 단체와 기관, 기업소 종업원 회의, 협동 농장 농장원 회의, 협동단체 조합원 회의, 주민 회의 및 군무자 회의에서 할 수 있다. 도 (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추천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한다.

정당, 사회 단체들은 공동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31 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 총회에 참가한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자로부터 구두 혹은 서면으로 그 리(읍, 로동자구)에서 투표를 받겠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도 (직할시), 시 (구역), 군,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후보자가 적당한가 적당치 못 한가에 대하여 자유로 토론할 수 있다.

선거자들의 토론이 끝난 다음 후보자 추천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한다.

제 33 조 본 규정 제 30 조에 의하여 추천 받은 후보자들은 선거일에 이르기 20 일 전에 해당 구 선거 위원회에 등록되여야 하며 본 규정 제 31 조에 의하여 추천 받은 후보자들은 선거 일에 이르기 15 일 전에 리 (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되여야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단 한 개 구 선거 위원회에 등록된다.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그를 추천한 구, 리(읍, 로동자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제 34 조 도 (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사회 단체와 기관, 기업소 종업원 회의, 협동 농장 농장원 회의, 협동 단체 조합원 회의, 주민회의 및 군무자 회의 회의록과 후보자의 승낙서를 구 선거 위원회에 제출하며 리 (읍, 로동자구)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자 총회는 추천한 회의록과 서면으로 받는 승낙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첨부하여 리(읍, 로동자구)선거 위원회에 제출한다.

회의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 명칭
2, 후보자 추천 시일 및 장소
3, 후보자의 성명, 성별, 년령, 정당 또는 소속 단체 명 및 직장 직위
4, 회의 의장 및 서기의 서명

제 35 조 구 선거 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등록된 날부터 그들의 성명, 성별, 년령, 정당 또는 소속 단체명 및 직장 직위를 라지오, 출판물 기타 방법들을 통하여 선거자들에게 반드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 36 조 정당, 사회 단체들과 매개 선거자들은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후보자 들에 대하여 자유로 선전 선동할 수 있다.

제 7 장 선거일과 투표 절차

제 37 조 도 (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같은 날에 진행한다.

선거일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도 (직할시), 시 (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6시부터 24 시까지 실시한다.

제 38 조 선거일 6 시에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과 같이 투표함과 선거자 명부를 검열하고 투표함을 선거 위원회 인장으로 봉인한 후 선거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

제 39 조 선거자들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선거자들은 선거 장소에서 자기의 공민증 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에게 내보이고 선거자 명부와 대조 확인한 다음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먼저 도 (직할시) 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선거표를 받아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자들은 도 (직할시)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끝 마친 다음 다시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시(구역), 군·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선거표를 받아 전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한다.

선거자들은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끝 마친 다음 본 조 1 행의 절차로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선거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도 (직할시), 시 (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표를 단번에 받아 각각 투표할 수 있다.

제 40 조 선거일에 선거자가 질병 또는 로쇠 기타 신체 불구로 인하여 선거 장소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 그는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선거표와 투표함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구 선거 위원회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신체 불구로 인하여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선거자는 자기 립회 하에 측근자를 통하여 투표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 41 조 각 선거구에서는 1 명의 대의원이 선거되며 매개 선거자는 한 선거구에서 1 명의 후보자를 찬성하며 단 한 번 투표한다.

제 42 조 투표가 진행될 때에 투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전 선동을 금지한다.

제 8 장 선거 결과 확정

제 43 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선거 시간이 끝나면 투표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투표함을 개함한 다음 투표한 투표 수와 선거자 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 수와 대조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 44 조 제정된 양식, 규격 및 색갈과 틀린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거수 방법으로 다수 가결에 의하여 해결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입한다.

제 45 조 분구 선거 위원회가 투표 수를 계산하는 장소에는 상급 선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정당, 사회 단체 대표 및 출판 보도 기관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다.

제 46 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매개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계산하되 도(직할시), 시(구역), 군 및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의 기록을 각각 따로 한다.

제 47 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제정된 양식에 의하여 투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각각 2 부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고 분구 선거 위원회 인장을 찍는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에 관한 회의록 1 부는 해당구 선거 위원회에,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에 관한 회의록 1 부는 리(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에 각각 12 시간 이내에 특사로 보낸다.

남은 회의록과 일체 선거표는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가 보관 한다.

제 48 조 구 및 리(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는 투표 수의 계산을 분구 선거 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에 관한 회의록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구 및 리(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 수를 확정한 후 제정된 양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2 부 작성하여 해당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고 그 선거 위원회 인장을 찍는다.

구 및 리(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 1 부는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해당 상급 선거 위원회에 특사로 보낸다.

남은 회의록은 해당 인민 위원회가 보관한다.

제 49 조 도 (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해당 선거구 및 리(읍, 로동자구)의 전 선거자 과반수가 참가하여야 유효하며 전 선거자의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당선된 자로 인정한다.

제 50 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찬성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 순위로서 본 규정 제 18 조에 규정된 대의원 수에 해당한 후보자를 각각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51 조 리(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는 본 규정 제 18 조에 규정된 대의원 수보다 더 많은 후보자로 투표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 이상이 동점의 찬성 투표를 받았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 순위에 의하여 당선을 결정한다.

제 52 조 본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 또는 리(읍, 로동자구)의 전 선거자의 과반수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 하였거나 또는 후보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받지 못 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 및 리(읍, 로동자구) 선거 위원회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지적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 선거 위원회에 보고한다.

전 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가 있은 후 15 일 이내에 본 규정에 의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 한다.

부 칙

제 53 조 도 (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중 사망, 소환, 기타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급 인민 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리(읍, 로동자구)에서 보충 선거를 실시 한다.

보충 선거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 54 조 공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진다.

제 55 조 선거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 명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지난 10월 8일 최근의 남부 월남 사태를 《조사》한다는 구실 하에 소위 《유엔 조사단》을 남부 월남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14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는 남부 월남에 대한 《유엔 조사단》의 파견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점에 의하여 남부 월남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진상을 엄폐 외곡하며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말살할 목적으로 감

행되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이라는 것을 폭로 규탄하면서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간섭 행위와 무력 침략을 중지하며 이 지역에서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이 정당한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남부 월남에 《유엔 조사단》을 파견할 데 대한 유엔 총회 결정은 유엔이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에 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 남부 월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험악한 사태는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성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벌써 수년째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은 무고한 남부 월남 불교도들과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탄압과 학살을 감행하였으며 남부 월남을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과 범죄 행위는 인도지나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아세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적 행동은 월남 인민들과 불교도들의 치솟는 격분을 야기시켰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고 남부 월남에서 감행한 저들의 범죄적 만행을 엄폐하며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을 합법화할 목적으로 소위 《유엔 조사단》을 조작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타국을 침략하며 그 나라 인민을 식민지 노예화하는 데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미 오래 전에 그들이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고 소위 《유엔 한국 위원단》,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 등을 조작하여 저들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에 대한 침략을 합법화하려고 책동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흉책으로써도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 행위를 엄폐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남부 월남에 대한 자기의 침략 행위를 엄폐하며 세계 인민을 기만하지 못할 것이며 저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벗어 날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부 월남에 《조사단》을 파견할 데 대한 유엔의 결정을 비법적인 것으로써 반대 배격하며 남부 월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 새로운 음흉한 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월남에서 침략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자기의 침략 군대와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한다.

남부 월남에서 식민지 전쟁을 확대하며 월남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어떠한 침략 행위도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형제적 월남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남조선과 남부 월남에서 미제 침략 군대를 몰아 내기 위한 공동 투쟁에서 월남 인민과 영원히 함께 나아갈 것이다.

1963년 10월 25일

평 양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월 혁명의 위업을 계승하자!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6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박 금철

동지들!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세계에서 첫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창건된 때로부터 46 년이 지나 갔습니다.

10월의 기치는 위대한 레닌의 영상과 함께 오늘도 계속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을 자유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 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명절을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였으며 오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위대한 쏘련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10월 혁명은 인류 해방의 새로운 력사적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10월 혁명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최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튼튼히 틀어 쥐고 인류의 리상인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붕괴의 발단이였으며 모든 착취자들과 억압자들에 대한 멸망의 선고였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근로 대중의 세기적인 념원과 숙망을 실생활에서 구현한 것으로서 전 세계

를 진감시켰으며 모든 피착취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에게 해방의 앞길을 밝혀 주는 불멸의 홰'불로 되였습니다.

10월의 기치 하에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의 혁명 대오는 날이 갈수록 더욱 장성하였으며 오늘 그것은 낡은 착취 세계를 파괴하고 새 세계를 창조하며 인류 력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였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맑스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철저히 고수하였으며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을 제국주의 시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레닌주의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레닌은 수정주의자들이 혁명 승리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개량주의를 설교하고 있을 때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의 력사적 위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국주의의 시대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로 규정하였으며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에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략 전술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일국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레닌의 천재적 예견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그의 학설의 정당성을 생활로써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리론을 배반한 수정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종국적 파산으로 되였습니다.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반동 세력들은 첫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그의 요람기에 교살하며 10월 혁명에 의하여 개시된 위대한 혁명의 흐름을 막아 보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전인 미답의 길을 헤쳐 나아가는 쏘련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백전 백승의 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의 간악한 공격을 분쇄하고 10월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레닌의 서거 후 쏘련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간고한 시기에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볼쉐위크 공산당은 뜨로쯔끼, 부하린 기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격파하고 레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면서 전체 쏘련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힘 있게 동원하였습니다.

쏘련 인민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극복하고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농업 집단화의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쏘련 인민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모든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자기 조국을 세계 일등급의 공업을 가진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이 발전한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쏘련 인민은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격멸함으로써 진보적 인류 앞에 위대한 공훈을 세웠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견고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전 세계에 시위하였습니다.

전후 쏘련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쏘련의 위력은 더욱 장성하였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쏘련 인민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레닌의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된 쏘련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의 위대한 결실입니다.

쏘련 인민은 내외의 원쑤들과의 끊임 없는 투쟁에서, 새 사회 건설 도상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의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혁명의 기치를 고수하고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으로, 해방된 인민의 위대한 창조적 로력으로 웅대한 사회주의 건물을 하나 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10월 혁명 후 40여 년간의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업적에 기초하여 오늘 쏘련 인민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레닌,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쏘련 공산당의 령도 하에 쏘련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쌓아 올린 력사적 경험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밑천입니다. 레닌은 10월 혁명의 경험은 《사회주의의 전취물로서 력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리고 이 경험에 기초하여 장래의 국제 혁명은 자기의 사회주의적 건물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의 길은 철저한 혁명의 길입니다.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혁명적으로 궐기하여 폭력으로 낡은 통치 기구를 분쇄하였으며 계급적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쟁취하고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10월 혁명은, 로동 계급은 개량주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혁명의 길에 의하여서만 자기의 해방을 실현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박 인민들이 혁명 투쟁에 궐기할 때 어떠한 반동의 아성도 능히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0월의 사상, 레닌주의는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거함으로써만, 계급적 원쑤들과 외래 침략자들, 모든 낡은 세력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고수할 수 있으며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0월의 경험은 로동 계급은 오

직 맑스주의로 튼튼히 무장되고 기회주의와 완전히 결별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을 가짐으로써만, 그리고 국가와 광범한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0월의 길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의 혁명적인 대외 정책의 모범과 전통을 창조하였습니다.

레닌과 쓰딸린은 민족 배타주의와 사회 배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는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 피압박 민족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투쟁을 전력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레닌은 《우리 위업은 국제적 위업이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명한 국가들도 포함하여)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의 승리는 절반 또는 아마 그 이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로씨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혁명을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에로 전변시키는 것—이것만이 이 혁명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담보로 될 것이다.》라고 교시하였습니다.

10월의 길은 인민들을 해방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입니다.

여기에서 리탈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수정주의와 온갖 종류의 기회주의에 굴러 떨어지게 되며 혁명 위업을 배반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기치를 견결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합니다.

10월의 위업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 나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사회주의는 구라파와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 기치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바로 문 앞에 있는 섬 나라 꾸바에서도 휘날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10월 혁명 후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한 가장 큰 국제적 사변이였습니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구의 3 분의 1과 지구 륙지의 4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대한 경제력과 발전된 과학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10월 혁명 이후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가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입니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민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견인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은 전례 없이 장성하였습니다.

10월의 사상,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한 수백 수천만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수로서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선두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10월 혁명은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10월의 포성은 동방 인민들의 세기적 잠을 깨우고 그들을 세계 혁명의 전반적 흐름에 끌어 들이였습니다. 10월 혁명은 서방의 로동 계급과 동방의 피압박 민족들 간에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제국주의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꾸바 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여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에서도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 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으로 되였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각성된 수억만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과 식민지 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제국주의는 결정적으로 약화되였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이 계속 앙양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가 발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인민 대중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는 력사 발전의 전 과정은 자본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미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속한다는 것을 론박할 여지 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지들!

10월 혁명의 승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기반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선 인민에게 승리의 서광을 비쳐 주었으며 위대한 해방의 무

기—레닌주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은 10월의 길을 따라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투쟁의 거대한 조류에 자기의 투쟁을 합류시킴으로써 비로소 해방의 앞길을 찾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10월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장구한 기간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전체 조선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영웅한 쏘련 군대는 우리 인민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함으로써 자유와 해방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여 주었습니다. 조선 인민 앞에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광활한 앞길이 열려졌으며 우리 인민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섰습니다.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낡은 일제 통치 기구를 완전히 분쇄하고 인민 주권을 수립하였으며 극히 짧은 기간에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 확고한 민주 기지를 축성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전후 우리 인민은 전쟁의 폐허 우에서 도시와 농촌을 복구 건설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투쟁에서 쏘련 인민은 항상 우리 인민의 편에서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물심 량면으로 막대한 원조를 주었습니다.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원조자입니다. 다시 쏘련은 혁명을 먼저 한 나라로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을 혁명적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쏘련 인민의 국제주의적 원조는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고무하여 주었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 사업에 커다란 기여로 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이 우리에게 준 이와 같은 고귀한 원조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쏘련 인민과 함께 중화 인민 공화국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이 또한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형제적 원조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고무되면서 혁명을 대담하게 전진시켜 공화국 북반부를 튼튼한 사회주의 진지로 꾸리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제 때에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레닌의 학설에 기초하여 그 수행 방도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인민 대중을 그 관철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매우 순조롭게 완수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됨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이 열려졌으며 우리 사회의 계급적 진지가 결정적으로 공고화되고 인민 대중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국가 주권이 착취자들의 온갖 반항을 종국적으로 진압하고 자기의 완전한 공고성과 충분한 지배력을 보장한 후 모든 산업을 대규모적 집단적 생산과 최신의 기술적 기초와 원칙에서 개편하는 때에만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의 공고화는 비로소 보장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교시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중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자립 경제를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으며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원래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았으며 더우기 국토가 량단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문제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혁명 진지를 반석 같이 다지는 기본 담보였으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룡성 발전을 위한 민족적 과업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힘을 동원하였으며 전후 간고한 나날에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가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는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기간적 부문들을 다 갖춘, 그리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국내의 자연 부원에 립각한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였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공고한 원료 기지를 가진 수많은 현대적 대규모 경공업 공장들과 전국 도처에 2,000여 개의 중 소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함으로써 자체의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 나라

공장에서 자기가 만든 상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상품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 더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농촌 기술 혁명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공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어렵던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농업 생산의 모든 부문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기후 조건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해마다 농업 생산을 장성시켜 왔으며 금년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농업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을 자기의 힘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족 간부의 대부대가 꾸려졌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문명하고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의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인민 대중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재능을 발동시키고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전체 근로 대중은 자력 갱생에 기초한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열렬히 접수하였으며 전 인민적인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형제 국가들로부터 많은 경제 기술적 원조를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는 원조에만 매여 달린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을 위주로 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자립 경제 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락후하고 파괴되였던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며 하루 속히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다지며 수호하여야 할 국제주의적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자력 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견결히 관철시켜 왔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우리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형제 국가들과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제 발로 확고하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보답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은 자력 갱생의 길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인민 자체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합니다. 자기 나라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때에만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를 거부하거나 주는 원조를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다 호상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호상 협조는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형제 국가들 간에 동지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특히 어려운 처지에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형제 나라 인민들을 적극 도와 주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또한 형제 국가들의 원조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언제나 호상적인 것입니다.

형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그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원조를 자랑하기만 좋아하고 심지어는 서로 유무 상통하는 무역까지도 원조로 묘사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모든 성과가 마치도 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듯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더우기 원조나 무역 관계를 리용하여 형제 나라들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며 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협조하고 지지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위업을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국가들과의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라고 교시하였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 투쟁 과정입니다.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을 부단히 진행하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모든 반동 세력의 잔재와 낡은 사상 인습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 하에서든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려는 것은 곧 계급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결국은 혁명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력사적 경험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 그것은 부르조아적 영향을 강화하고 적대 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게 하며 반혁명의 공세 앞에서 혁명 대오를 무장 해제시키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진지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독재와 인민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적대 분자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함으로써만 인민 대중에 대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중 속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고 로동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근로 인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적대 분자들을 더욱 고립시키며 철저히 분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그의 기능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왔으며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하여 관철시켜 왔습니다.

우리 당은 온갖 적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부단히 강화하는 한편 혁명의 편에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발동시켰습니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기본 열쇠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자유주의적 수정주의적인 견해의 침습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며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험은 오직 당의 령도적 역할이 강화될 때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양될 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강화되고 모든 전선에서 계급 진지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으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에 기초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창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적 지도가 대중 속에 더욱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게 되였습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혁명 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일성 동지는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이것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국토의 한 부분에서만 혁명이 승리하고 전국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와 세계 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는 현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라고 교시하였습니다. 국제 국내적으로 계급 투쟁이 계속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계급적 원수들과 투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수 없으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며 또 계급 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을 약화시킨다면 부르조아 사상 잔재가 소생되고 조장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존립 자체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급적 원수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전 세계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정신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하며 우리의 혁명 대오를 와해시키는 온갖 부르조아 사상의 독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제고하며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당 주위에 굳게 묶어 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

동시키는 것을 당 사업의 기본으로 인정하였으며 전 당의 력량을 기울여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왔습니다.

이리하여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의식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점차 수립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있으며 전체 인민 대중이 하나의 불패의 혁명 대오로 결속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반석 같은 지반을 축성하여 놓았으며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불패의 요새로 전환되였습니다. 레닌주의는 조선 땅우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은 날로 륭성 발전하는 북반부의 현실에서 민족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앞길을 뚜렷이 내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외세에 의한 예속을 반대하고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반미 애국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남조선 동포들을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남북 조선을 통일하는 것 뿐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발악적인 책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세는 더욱더 우리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은 반제 민족 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들!

10월 혁명에 의하여 일어 난 혁명의 불'길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계속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자본의 압박과 착취가 지배하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마수가 뻗치고 있는 지구 상의 모든 곳에서 압제자와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피착취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은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과 반혁명 간의 치렬한 투쟁에서 혁명 력량은 반혁명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멸망하여 가고 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횡포하여지고 있으며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전면 전쟁과 핵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인민들을 억압하며 침략하는 국제 반동의 원흉이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수입니다.

미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념원하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오직 평화의 원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실 밑에 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만 하고 그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투항의 길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적들의 침략적 야욕을 조장시키며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 투쟁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해방과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업은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일체 반제 력량과 평화 력량을 굳게 결속시켜 제국주의가 발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국제 로동 계급이 이미 쟁취한 혁명의 진지를 고수하여 그것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 위력의 장성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전 세계 인민들을 해방과 독립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 강유력한 요인으로 됩니다.

지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사회주

의 진영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는 위험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는 것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최대의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하나의 전일체로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을 때 강력하고 위대하며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옹호해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고립시키며 배제하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는 범죄적인 행동이며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에서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공동의 혁명 진지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결코 그 어떤 사람들의 롱락물로 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고립시키려고 책동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들의 소란스러운 반중국 깜빠니야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규정된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동지적 립장에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 나라도 특권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을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통일을 구실로 하여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내려 먹이고 남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며 자기에게 추종하지 않는다 하여 이러저러한 부당한 감투를 씌우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대국 배타주의의 표현입니다.

또한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자주성을 잃고 남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 가는 것도 국제주의적 립장이 아니며 우리의 단결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사상 상의 의견 상이를 국가적 관계에 확대시켜 형제 국가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훼손시키며 형제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에 손실을 끼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적아를 구별하지 않고 적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계급적 형제들에게는 횡포하고 거만하게 대하며 혁명 동지들을 공격하는 행동은 응당 규탄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떠난 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수호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위업은 더욱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위대한 무기이며 인류 사회 발전의 길을 밝혀 주는 불멸의 학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훼손시킬 수 없으며 이 기치를 높이 추켜 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장엄한 전진 운동을 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력사가 전진함에 따라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은 더욱더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구 상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온 세상에서 압제자들을 쓸어 버리고 인민들을 해방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바로 10월의 사상,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혁명 투쟁의 방도를 가르쳐 주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는 것으로 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무한히 귀중한 것입니다.

10월의 사상은 압제자들의 탄압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맞받아 나가 싸워야 하며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으며 모든 피착취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계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수억만 인민들이 아직도 제국주의의 압박과 자본의 착취 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도중에서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락오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여 왔으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승리하여 왔습니다.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이것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신조입니다.

수천 수만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이 이렇게 웨치면서 원쑤들과의 결전에로 용감히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혁명하려는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을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 한 인민 대중은 계속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여 궐기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앙양될 것입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 투쟁 앞에서 수정주의는 분쇄될 것이며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민 대중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불패의 혁명적 기치로서 계속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며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들은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으며 10월이 개척한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항상 승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 수정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 력량이며 평화 력량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제국주의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타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지지할 것이며 자본주의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앞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웅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옹성 같이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인 성과를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며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잔재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안일성과 해이성, 권태증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당과 대중의 통일은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대중의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하겠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민은 그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백전 백승할 것입니다.

10월의 기치—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10월의 기치—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 만세!

—위대한 쏘련 인민과 조선 인민의 영구 불멸의 친선 단결 만세!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 만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비망록

조선 통일 문제 해결의 길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에는 례년과 같이 또다시 《조선 문제》가 상정되였다.

지난 10월 16일 소위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역시 상례에 따라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허위적인 《년례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 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

유엔에서의 《조선 문제》 토의

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애당초 유엔은 그의 헌장에 비추어 《조선 문제》를 토의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유엔 헌장 제107조에 의해서도 《조선 문제》가 유엔의 토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며 임의의 나라, 임의의 민족의 내정 문제에 유엔이 간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에 비추어도 유엔은 《조선 문제》를 토의할 수 없다.

조선 인민은 처음부터 《조선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유엔 헌장을 존중하는 많은 국가들도 유엔에서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오직 미국 정부만이 유엔 헌장을 유린하고 유엔에 《조선 문제》를 상정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미제는 자기의 침략 행위를 유엔의 이름으로 감싸는 데 필요한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조작해 내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유엔은 16년 간이나 《조선 문제》의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하였으며 또 줄 수도 없었다. 도리여 그것은 사태를 더욱 복잡화하고 악화시켰을 뿐이다.

더우기 미국에 의하여 유엔은 그의 고상한 기'발을 조선 침략 전쟁에 도용 당함으로써 조선 전쟁에서 교전 일방의 처지에 전락되였다.

미국이 유엔에 《조선 문제》의 토의를 강요한 목적이 오직 조선에 대한 그의 침략 행위를 유엔의 이름으로 엄폐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이 문제의 토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한사코 방해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유엔에서 《조선 문제》가 일단 토의되는 이상에는 그 문제의 당사자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를 참가시키는 것이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가 《조선 문제》의 토의에 참가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서도 다른 한편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조작한 소위 《유엔 결정》에 대하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무조건 접수하라고 한다.

과연 이것은 철면피한 행동이 아닌가.

결정은 저희들끼리 그것도 부당하게 지어 놓고 접수는 우리더러 하라니 이것이 《인민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고 있는 유엔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결국 이것은 형태를 바꾼 미제의 강도적 수법이다. 이러한 강도적 요구가 그 누구에게나 단호히 거절 당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것을 다시 방패 삼아 《조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책임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있는듯이 흑백을 전도한다.

미국이 년례 행사와 같이 유엔 총회 때마다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제기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술책으로써 여론을 기만하며 자기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려는 데 있다는 것은 사리를 정당하게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백하다.

유엔은 이 이상 미제의 어용 도구로 리용되지 말아야 한다.

2

유엔에서의 《조선 문제》의 토의는 아무리 반복하여도 허사로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진정한 암을 제거할 데 대하여 전혀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근원은 바로 미군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이 암을 제거함이 없이 그 어떤 조선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조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원인이 마치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소위 《조선에 대한 유엔의 목적》을 접수하지 않는 데 있는듯이 항상 판에 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들이 운운하는 《조선에 대한 유엔의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대의제 정부 형태 하에 통일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의 수립과 동 지역에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완전한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란 조선 속담격으로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엄폐하기 위하여 꾸며 낸 위선적인 공담에 불과하다.

그것은 소위《유엔의 목적》을 미군이 계속 남조선을 강점한 조건 하에서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통하여 실현하려 한다고 하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외국 침략군이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과연 그 어떤 《평화적 방법》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외국 침략군의 총검의 지배 하에서 과연 그 무슨 《자유로운 선거》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력사상 타국 령토를 강점한 외국 군대가 억압과 략탈, 도발과 분규의 화근으로 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또한 선거의 실시는 매개 나라 인민의 내정 문제인데 무슨 리유로 여기에 《유엔의 감시》가 필요한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야욕이 없다면 애당초 이 모든 것은 제기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자유 선거 실시의 전제 조건으로서 우선 일체 외국 군대의 철거를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외국이나 어떤 외국 군대나 국제 기구의 지배와 간섭도 없이 모든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이 남북 조선 전 지역을 통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조건 하에서 조선 사람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인 남북 조선 총 선거를 실시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군의 총검의 억압과 소위 《유엔 감시》하에 지역 단위로 진행되는 《선거》와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감시와 통제도 없이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하여 진행되는 남북 조선 총 선거 중 어느 것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정당하며 민주주의적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명백하다.

남의 나라 절반 땅에 자기의 침략군을 주둔시켜 놓고도 그 무슨 《유엔의 목적》이니 하는 것부터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미국 침략자들의 이러한 언행이야말로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며 우롱이다.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변명하기 위하여 《북으로부터 공산주의 위협》에 대하여 떠든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애당초 《공산주의 위협》, 《남침의 위협》이란 없으며 있어 본 적도 없다.

최근 년간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며 남북 조선 당국이 호상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거듭 제의하였다.

바로 이 제안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미제이다. 한편으로는 제기된 평화 협정의 체결을 가로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침의 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자체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검은 배'속을 그대로 자체 폭로하고 남음이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변명이나 허위 선전으로써도 미군의 남조선 주둔이 국제법의 제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침략 행동이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근본 장애라는 사실을 결코 가리울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명맥과 통수권을 장악하고 전권을 휘두르며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은 아무 비밀이 아니다. 남조선에 있는 소위 《정부》는 미국의 괴뢰에 불과하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무권리, 경제적 빈궁, 사회적 혼란 등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

미군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하여 갖은 민족적 멸시와 만행을 다하고 있다.

미군의 계속적인 남조선 강점은 또한 조선과 극동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유엔 공식 기록으로 배포된 1963년 7월 25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참조)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지 않고서는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없으며 극동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의 평화 통일을 원치 않았다.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간판 밑에 전 조선을 힘으로 정복하던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틀어 쥐기 위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 감시하의 선거》라는 외마디 말밖에 하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모든 공명 합리적인 평화 통일 방안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 하도록 덮어 놓고 방해만 하여 왔다.

만약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미제의 방해 책동이 아니였다면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이미 오래 전에 조선 사람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화목하게 실현되였을 것이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를 방해하는 암을 제거하는 일—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3

미국과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떠드는 소위 《조선에 대한 유엔의 목적》이니 《유엔 감시 하의 선거》니 하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의 현실을 볼 때 더욱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들은 《유엔의 목적》이 남조선에서는 모범적으로 실현되였다고 한다. 그런즉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의제 정부》라는 것은 세계에 추명을 남긴 리 승만 괴뢰 독재 정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금 류혈적 군사 테로로써 악명을 떨치고 있는 박 정희 군사 파쑈 정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대의제 정부 형태하》 이른바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 조선》을 수립한다느니 《동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는 것도 결국은 미제의 무력에 의한 전 조선 병탄과 그 조건 하에서의 소위 《평화》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조선에 미군을 보존할 것》이라는 공공연한 침략적 《결의》와 함께 미국이 조선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원자 및

유도 무기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여 도발적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사실들이 또한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유엔의 헌장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감히 리 승만 독재 정권이나 현 남조선의 군사 파쑈 정권 같은 것을 가지고 《유엔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감히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며 전 조선을 침략하고 정복하려는 것을 가지고 《유엔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1963년 10월 15일 미국은 남조선 군사 파쑈 정권에 《민정》의 외피를 씌워 주기 위하여 리 승만 괴뢰 정권 시기의 마지막 협잡 선거였던 1960년 3월 15일의 《대통령 선거》 때 보다도 더 가혹하다고 하는 《선거법》의 통제 밑에 기만적인 소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도 사태의 진상을 가리우지는 못 한다.

바로 미제의 침략 정책과 그의 총검의 억압 하에 《유엔 감시 하의 선거》에 의하여 날조된 남조선의 력대 괴뢰 정부의 파쑈적 반인민적 정책의 결과에 남조선 인민들은 일찌기 없었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과 참혹한 민생고를 겪고 있다.

기아, 빈궁, 무권리의 암흑 천지—《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오늘의 남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가지고 그 누구도 감히 《유엔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그의 사환'군들에 불과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유엔의 이름으로 그 어떤 위선적인 미사려구로 희롱하건간에 현실은 현실 대로 엄연히 남아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이 유엔의 이름으로 《보증》한 것은 소위 《대의제 정부》요 《민주주의》였으나 남조선 인민들은 1960년 4월 자신의 막대한 류혈적 희생을 무릅쓰고 대중적 봉기로써 소위 《대의제 정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리 승만 괴뢰 독재 정권을 《민주주의 정부》로서 《보증》한 자들은 과연 무엇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이 4월의 피값을 치를 수 있는가? 치를 수도 없거니와 책임 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군사 파쑈 정변을 조작하고 인민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류혈적 탄압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도 유엔의 이름으로 남조선에 《대의제 정부》의 존재를 《보증한 자들은 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며 또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여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추물들은 군사 파쑈 정권까지도 《행정적 민주주의》니 뭐니 하면서 찬양하였다.

《악》을 《선》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들의 천성이다. 그러되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직업적 행위이다. 이것이 가리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보는 바와 같이 유엔은 그의 《목적》에 관하여 백 번 보증하여도 사실상 그것은 미제의 침략 행위를 감싸 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결국 조선 내에서 일어 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조선 인민 자신이 지게 마련이며 또 져야 한다. 미국도 유엔도 그 밖의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 감당할 수 없다.

수천 년의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문화의 전통을 가진 조선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밑천을 가지고 있다.

오늘 조선 북반부의 인민들이 자주적 발전의 길에서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건설하여 놓았으며 조선 력사 상 일찌기 없었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고 있는 사실이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 준다.

조선 북반부의 인민들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들은 물론 《유엔의 목적》이니 《감시》니 하는 가면 밑에 감행하려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단호히 물리친 데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오직 모든 외세의 간섭을 제거하고 조선 문제의 해결을 조선 인민 자신에게 맡기며 남북 조선의 애국적 력량이 합작하고 협력할 때에만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것이며 극동의 공고한 평화도 유지될 것이다.

조선에서 불화와 분규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켜야 하며 미국도 유엔도 조선에 대한 일체 간섭의 손을 떼야 한다.

4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시종 일관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항상 조선 통일 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 실시되는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실현하며 남북 조선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할 것을 제의하였다.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 형제, 친척, 친우들 간에 서신 거래라도 우선 실현할 것을 거듭 제의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동포애적 구호 물자를 제공할 데 대하여도 제의하였다.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60년 8월 14일, 1960년 11월 19일, 1962년 6월 21일, 1962년 10월 23일, 1963년 9월 8일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명 합리적인 구체적 방안들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자유로운 남북 조선 총 선거의 실시에 어느 때도 응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이 이것을 당장 접수하기를 두려워하는 데 비추어 조선의 통일 문제를 일련의 중간 걸음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또한 제기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중간 걸음의 첫 조치로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 조선이 호상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남조선 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남북 간의 불신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북 조선 간의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의 합작과 협조의 실현은 북조선 공업 지대와 남조선 농업 지대 간의 련계를 회복하게 하며 북조선에 이미 튼튼하게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남조선의 파괴된 공업과 농업을 복구하며 수백만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령락된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조치로서 남북 련방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련방제는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를 그 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대한 민국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 민족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남북 련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는 데 극히 유리한 새 국면을 열어 놓을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북 조선 간에 현존하는 정치적 견해와 사회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사활적 문제인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간에, 공산주의자들과 민족 자산 계급의 대표자들 간에 합작하지 못할 어떠한 리유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중간 걸음들을 거쳐 남북 간의 접촉과 호상 리해를 촉진시키고 민족적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전 조선 자유 선거를 실시하여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을 망라한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하고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조선의 통일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방안은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며 극동과 아세아에서의 평화의 리익에 부합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 모든 성의 있는 합리적인 제안들이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의 집요한 방해 책동 때문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통일된다면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권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의 실시를 극력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주 독립 국가 건설에서 조선 북반부 인민들이 달성한 성과가 남조선 인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남북 조선 간에 어떠한 사소한 접촉이 설정되는 것 조차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을 그 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상과 같은 모든 엄연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만약 유엔이 그의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충실하게 행동하려거든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유린하고 날조한 《조선 문제》에 관한 일체의 비법적인 결정들을 취소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침략 정책 수행의 도구에 불과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해체시켜야 한다. 조선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관건은 여기에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전체 피압박 민족들과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투쟁의 일환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자기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이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귀중히 여기는 전 세계 각국 정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1963년 11월 22일

평 양

성 토 문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의 무고한 주민들을 과녁 삼아 원자 무기 시험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의분을 격발시키는 또하나의 비통한 참변이 일어났다.

경기도 련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은 원자 무기 시험을 위하여 지난 21일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 간 련천면 고문리 주민들을 과녁 삼아 《원자 포탄》을 발사함으로써 그중 9 명을 학살하고 9 명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천인공노할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18 년 동안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강요하여 온 미제 침략군은 오늘에 와서 남조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백주에 원자 무기 시험을 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륙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의 살인귀적 만행이 오늘 어느 정도에 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와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민족적 분노와 저주에 불타고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미제 침략자들의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단호히 항의 규탄한다.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극동과 아세아 침략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남조선을 원자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원자 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륙 무기를 계속 끌어 들이고 있으며 《원자 전쟁 가상 하》의 《대기동 훈련》이니 《공격, 방어, 철퇴 연습》이니 하는 대규모적 군사 도발 소동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전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는 아세아를 침략하고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그들의 흉악한 음모의 일환이다.

또한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의 연막 뒤에 숨어서 핵 공갈과 원자 전쟁 준비를 얼마나 발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가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파쑈적인 식민지 테로 통치를 수립하고 민족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탄시켰으며 인민들을 세기적인 빈궁과 기아와 질병 속에 몰아 넣고 온갖 민족적 멸시와 모욕과 학살 만행을 감행하여 왔다.

미국 침략군에 의하여 조선의 금수 강산은 무고한 주민들의 피로 물들여 졌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들씌워졌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모욕 밑에 몸부림 쳤던가!

인간 살륙을 《오락》으로 삼고 있는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 도처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쏘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깔아 죽이고 목을 달아 매여 죽였으며 오늘도 인간 도살을 계속하고 있다.

략탈과 패덕에 습성이 된 미제 침략자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자동차에서 사격하며 달리는 렬차에서 사람들을 내던지며 군견을 풀어 사람들을 물어 뜯게 하며 부녀자들을 릉욕하며 녀성의 머리채를 깎고 하반신에 뼁끼칠을 하는 등 악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또한 집단적으로 부락을 포위하고 주민들의 가장 집물을 략탈하며 백주에 상점을 습격하고 행인들의 금품을 탈취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에서 피에 주린 흡혈귀의 행세를 태연히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을 살륙한 그 야수성과 노예 매매를 일삼던 그 잔인성과 인종 차별의 악습을 그 대로 남조선에서 재현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원조자》로 자처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져다 준 《자선》이며 바로 이것이 《현대 문명》을 떠벌리는 미제 야만의 정체이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이 모든 만행들은 인류의 도덕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며 국제법의 제 원칙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극악한 범죄 행동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감행한 이 모든 범죄적 만행으로 하여 조선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살인마이며 강도적 략탈자이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인류 공동의 원쑤이다.

미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 내지 않는 한 남조선 인민의 불행과 고통은 제거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한시도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도 못되는 미제의 주구들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략탈과 군사적 침략 정책 수행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동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모욕하는 미제 침략군의 만행을 적극 비호해 나서고 있으며 그들의 영구 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침략 세력에 계속 매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우리 인민을 략탈하고 억압한 철천지 원쑤

인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을 외래 침략자들의 란무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의 애국적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민족이 어찌 남조선 동포들에게 가해지는 미제 침략군의 야수적 만행과 그 주구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 인민들은 오직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원자 무기 시험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같은 오늘의 참경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재산의 유무,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기치 하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 침략자들에게 한 알의 쌀, 한 모금의 물도 주지 말며 남조선 도처에서 그들이 발 붙일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신성한 우리 조국 땅에 미제 침략자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원자 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당장 나가야 한다.

《원자 포탄》의 발사로 우리의 겨레들을 무참히 살상한 미군 야수들을 체포하여 처단하라!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를 더럽히며 동포 형제들에 대한 살륙 만행을 일삼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저주와 죽음을 주라! 양키 침략자들을 복수하라!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생사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주저와 방관은 용허할 수 없다.

오직 투쟁만이 살 길이며 승리의 길이다.

승리는 단결하여 싸우는 인민의 편에 있다.

전 민족이 단결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울 때 어떠한 힘도 이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해방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상을 간직하고 민족적 해방과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을 위하여 전 인민적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라!

자주, 자립, 자생, 자결의 기치 하에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 나며 남북이 힘을 합쳐 나갈 때 남조선 인민들은 광명한 재생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며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비인간적 죄행을 단호히 규탄하며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1963년 11월 23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미제의 내정 간섭과 침략 행위를 반대하는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오늘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횡포한 내정 간섭과 침략 행위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의 이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 반도에서 전쟁과 침략의 발판을 확대하기 위하여 1954년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부 월남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라오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캄보쟈를 중립의 길에서 떼여 내고 자기들의 예속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타이와 남부 월남의 괴뢰 도당들과 캄보쟈의 반역자들로 조직된 《자유 캄보쟈 운동》을 사촉하여 캄보쟈 령토에 대한 직접적인 침범 사건을 빈번히 도발하고 있으며 간첩들과 파괴 암해 분자들을 캄보쟈에 침입시켜 정부 전복 음모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남부 월남에 《자유 캄보쟈》 방송국을 설치하고 캄보쟈 왕국 정부를 반대하는 악선전을 계속 류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침략과 파괴 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원조》를 통하여서도 자기들의 탐욕적인 침략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는 캄보쟈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화하며 미국 독점체들의 리윤을 증가시키는 데 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상 관계의 확대를 방해하며 캄보쟈에 대한 각종 경제적 압력과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무모한 책동은 아세아에 대한 그들의 침략 책동의 일환으로서 캄보쟈 왕국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될 뿐만 아니라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된다.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 캄보쟈 왕국 정부는 미제

의 주구인 남부 월남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얼마 전에 캄보쟈 국민 의회는 미국의 《원조》를 종식시킨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미국의 군사, 경제, 문화 기관들과 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캄보쟈 왕국 정부의 정당한 투쟁과 단호한 조치는 캄보쟈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평화 위업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

조선 인민은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현실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의 침략적 본질을 잘 알고 있으며 오직 자주 자립만이 갱생의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다.

캄보쟈 인민이 외세를 배격하고 미제의 《원조》를 거부한 것은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이다.

캄보쟈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며 광범한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으며 그들의 단결된 력량 앞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는 도처에서 파탄되고 있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캄보쟈 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침략 행위를 견결히 항의 규탄하면서 캄보쟈 왕국에 대한 미제의 내정 간섭은 즉시 중지되여야 하며 미제 침략자들은 아세아와 세계 도처에서 물러가야 한다고 강경히 요구한다.

조선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항상 캄보쟈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 있을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그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용감한 캄보쟈 인민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1963년 11월 25일 평양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 및 사회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 소 문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과 지식인, 군인, 청년, 학생, 상인, 기업가, 종교인들!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

남조선 국회 의원 제씨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은 18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비극을 더는 참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공동 련석 회의는 인민 대중의 이 절실한 요구를 실현할 대책을 다시금 진지하게 토의하고 우국의 일념으로 충만된 우리의 심정을 담아 당신들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민족의 분렬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얼마나 막대한 장애로 되고 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를 너무도 통절하게 체험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 조선에 풍부한 자원과 생산력 발전의 제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족 경제의 통일적 발전에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지혜와 재능을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 하고 있다.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는 발전과 퇴보의 각이한 길을 걷고 있으며 부모, 형제, 친척, 친우들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안부조차 전하지 못 하고 있다.

실로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3 천만 조선 인민의 가장 절박한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 민족적대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종 일관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온갖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남북 간의 인공적 장벽을 제거하고 민족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쌍방이 접수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한 두 번만 제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도들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민족 내부 문제를 민족의 주체적 력량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통절히 느끼면서 남조선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반부 인민들의 재부를 동원하는 것을 고상한 민족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제의한 모든 방안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동포애를 체현하고 있으며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한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의 제의들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일일 천추로 갈망하

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 제의들은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과 국회로부터 응당한 지지를 받지 못 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제의를 접수하고 민족 내부의 힘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대신에 계속 외세에 의존하는 그릇된 길로 나아갔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참담한 현실은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민족적 협조와 통일의 길을 버리고 외세 의존과 민족 분렬의 길로 나아간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가져 왔는가를 너무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에 의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였다.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는 유린되고 있으며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례외 없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의 공업은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민족 경제의 자주성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였으며 시장에는 외국 상품만이 범람하고 있다.

농촌 경리는 피폐화되고 농업 생산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름 난 곡창 지대이던 남조선은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락되였다.

민생은 참담한 처지에 빠졌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과 수십만의 류랑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패덕과 패륜은 더욱 만연되고 있으며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 생활난을 겪지 않는 가정이 없으며 기아에 허덕이지 않는 마을이 없고 불안에 떨지 않는 도시가 없다.

미제 침략군의 야수적 만행과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하여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민들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외세 의존과 민족 분렬 로선에 의하여 초래된 비참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과 국회가 우리의 제의를 접수하고 남북의 협조를 실현하는 애국적인 길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비극적 사태는 미연에 방지되고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과 같은 고통에서 이미 오래 전에 벗어 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날의 력사적 경험은 전체 남조선 인민들과 남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최근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자주 자립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며 남북의 협조와 교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 가고 있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하며 남북 간의 서신 거래와 언론인 왕래의 실현을 제기한 남조선 국회 의원 서민호씨의 제의도 환영한다.

이 엄숙한 시각에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도를 수립하는 길에 주저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청년, 학생, 상인, 기업가, 종교인들!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

남조선 국회 의원 제씨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근심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현 난국을 타개하는 기본 관건은 어디 있는가?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도탄에서 헤여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기본적 장애물이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에 대하여 운운할 수 조차 없다.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추구하는 군사 기지화 정책과 새 전쟁 도발 소동은 조선과 극동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 재산과 일상 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의 대가로 유지하고 있는 60만 남조선 군대는 국토 방위와 민족 보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그들의 침략 정책 수행을 위하여서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감당해 내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으로 되며 사회적 불안의 근본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혹은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금 제의한다.

남북 조선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군비를 축소한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 인민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북 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국 통일을 위한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평화를 념원한다면 누구를 물론하고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면서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주장해 나서야 하며 평화 협정의 체결과 남북 조선 군대의 축소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는 남북 간에 가로 놓인 인공적 장벽을 제거하고 두절된 민족의 뉴대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 뉴대를 회복하는 초보적 조치로서 남북 간의 서신 거래와 인사 래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자유로운 래왕과 서신 거래는 기본 인권에 속하는 신성 불가침의 권리이다.

하물며 한 국토 안에서 왕래의 길마저 막히고 부모, 형제, 처자들과 친척, 친우들 간에 편지 한 장 전할 길 없으니 이 기막힌 사정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우리는 남북 간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인사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대책을 강구하며 전신 전화 통신 련락과 우편물 교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북 간의 리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자, 언론인들의 래왕을 실현하며 호상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단 및 체육단의 교류를 실현하며 학술 연구와 관광을 위한 인사 래왕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남북 간의 래왕과 서신 거래의 실현은 량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정을 두텁게 할 것이며 호상 오해와 불신임을 제거하고 남북 간의 리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제거되고 호상 래왕과 접촉이 이루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련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 간의 경제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것을 또다시 제의한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하나의 민족 경제권 내에서 살아 온 단일 민족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

공업 지대인 북조선과 농업 지대인 남조선을 련결하며 전 조선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리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민족적 과업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긴절한 생활상 요구이다.

남북 조선의 경제 교류가 실현되면 남조선 농업은 북조선의 공업과 련결되고 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북조선의 기계 공업과 화학 공업은 파괴된 남조선 농업을 복구하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게 할 것이며 북조선의 풍부한 원료, 연료, 동력 및 자재 설비는 파산 령락의 길을 걷고 있는 남조선 민족 산업을 갱생의 대로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농업과 공업의 복구 발전은 수백만 절량 농민들과 실업자들에게 식량과 일'자리를 주게 될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

파국에 처한 남조선 경제를 추켜 세우며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하며 현실적인 길은 오직 이 길 뿐이다.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으로써는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도 없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경제 교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판문점에 남북 대표들로 구성된 상설적인 경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간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토의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거듭되는 이 모든 제의의 실현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남북 경제 문화 교류의 실현을 보장하여 줄 것이며 남북 간의 접근을 촉진하고 경제 문화적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민족적 화목과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는 실제적 대책으로 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 련방제를 비롯한 일련의 합리적인 통일 방도를 모색하여 완전한 통일에 도달하는 대로를 열어 주게 될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분렬의 비극을 통탄하고 민족의 앞날을 우려하며 남조선에 조성된 난국을 수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동포애적 제의에 응당한 관심을 돌릴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 국회가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려 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제의에 심중히 대하여야 할 것이며 우선 조국 통일 문제를 심의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 사태는 한시도 수수 방관할 것을 허용치 않으며 조국 통일의 민족 대업을 위하여 남북이 협상하고 3천만의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 조선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협의해야 한다. 만나 보지도 않고 덮어 놓고 협상을 반대하며 장벽만을 쌓아 놓는 것으로써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조장하면서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남북 조선 대표들은 판문점이나 기타 지역에서 시급히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민족의 관심사로 되는 당면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남북 협상에는 제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남조선 국회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제도와 사상의 차이는 민족의 사활적 문제 토의에 결코 장애로 될 수 없으며 같은 조선 사람끼리 모여 앉아 협의 못할 아무런 리유도 있을 수 없다.

더우기 《반공》을 구실로 통일을 반대하고 남북 간의 협상과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가 아니다.

북조선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인민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하게 수립되였으며 인민들은 이 제도를 일치하게 지지 옹호하고 있다.

엄연한 사실이 바로 이러하거늘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통일할 수 있으며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승공》의 구호 하에 먼저 건설하고 실력을 배양한 후에 통일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반공》과 《승공》의 구호는 예외 없이 통일을 거부하는 것이며 결국은 조국의 운명을 외세에 내맡기려는 것이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 인민이며 운명은 우리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민족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문명한 민족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들은 하루 바삐 한 자리에 모여 앉자!

민족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거국 일치하여 총력을 기울이자!

오늘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고 피압박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인민들은 도처에서 노예의 철쇄를 끊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세계의 대세는 바로 이러하거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자랑하며 불굴의 민족 정신을 간직한 우리 민족이 어찌 외래 침략 세력의 억압에 굴종할 수 있으며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과 량심 있는 인사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나라의 통일 독립과 남북 조선의 접근 및 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라!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이 우리의 이 진지한 호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남조선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과 남조선 국회 의원 제씨들로부터 우리의 이 호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1963년 12월 1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공동 련석 회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에서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또다시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 12월 13일 전원 회의에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또다시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과거 《조선 문제》에 관한 유엔의 모든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미제의 남조선 장기 강점과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조선 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 《조선 문제》가 상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할 조선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 것은 비법적이라는 것과 일단 문제가 상정된 이상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 데 대하여 토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로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가 응당 그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자기의 원칙적 립장을 루차 명백히 천명하였다.

금번 유엔 총회에서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립장에 대하여 지지하면서 조선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였으며 《조선 문제》를 일방적으로 토의하고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한 14 개 국의 소위 《결의안》을 강압 통과시킴으로써 유엔을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 행위에 계속 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주었다.

미제는 소위 《14 개국 결의안》에서 지난 시기의 《조선 문제》에 관한 유엔의 모든 《결의》들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후안 무치하게도 조선 전쟁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침략적 야욕을 조선 인민에게 다시금 강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헛된 시도이다.

미제가 소위 《결의안》에서 《재확인》하고 있는 지난 시기의 모든 《결정》들이 완전히 허위 날조된 침략적 문건이라는 것은 이미 폭로된 지 오래다.

미제가 유엔의 간판 하에 그렇게도 비호한 리 승만 《정권》은 이미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에 찬 투쟁에 의하여 타도되였으며 미제와 그 사환'군들이 분식하기에 애써 온 남조선 경제는 오늘 미국의 식민지 략탈 정책에 의하여 총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엄연한 력사적 사실과 현실을 그 무엇으로써도 엄폐할 수 없으며 기만할 수도 없다.

《결의안》에서 미제는 또한 조

선에서의 《안전》이니, 《평화적 해결의 알선》이니 하면서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남조선을 강점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며 갖은 략탈과 학살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가 조선에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부터 가소로운 일이다.

오늘 남조선의 현실은 미제야말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조선과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 대로 말해 주고 있다.

미제는 18 년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북 간의 사소한 접촉도 총칼로 가로막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며 조선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로서 이에 유엔이나 그 어떤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한이 없다.

만일 유엔이 자기의 헌장 정신에 충실하려면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시킬 데 대한 조치를 취하며 미제의 침략 도구인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금번 유엔 총회에서 자기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조선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전적으로 배치되게 제멋 대로 조작한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며 단호히 배격한다.

유엔은 이 이상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에 리용되지 말아야 하며 조선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1963년 12월 15일

평양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자

로동 계급은 그가 력사 무대에 등장한 그 때로부터 국내 또는 국제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 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였다.

지난 100여 년간에 걸쳐 험악한 가시 덤불 길을 헤치면서 영웅적 투쟁으로 승리하여 온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는 **《전 세계 로동 계급은 단결하라!》** 이렇게 우리들의 혁명적 기치에 아로새긴 그 불멸의 사상의 위대한 힘을 시위하였다.

모쓰크바 회의 성명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반동이 공산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백방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통일과 단결은 우리 운동의 힘을 십 배로 증대시키며,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원쑤들의 온갖 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조성한다》.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단결된 힘은 제국주의 세력을 제어하고 약화시키며 그 진지를 계속 부단히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 진보와 반동 간에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 발전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먼저 그 중심에 서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이는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우리 시대의 모든 진보적 력량의 보루이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 단결된 힘은 비단 이 진영 내제 국가 인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운명과 깊이 련관되여 있으며 현 시기 국제 생활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바로 사회주의 진영의 단합된 노력에 중요하게 달려 있다.

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확고한 통일과 그 위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과 각국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고 고무할 수 있다.

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반제 평화 력량을 결속하고 동원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침략 및 전쟁 정책을 저지 파탄시킬 수 있으며 평화를 수호할 수 있으며 평화적 공존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성은 이 진영이 10억의 인구를 망라하는 하나의 전일체로서 굳게 통일 되고 단결되여 있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 길을 개척하여 온 쏘련을 옹호하는 것이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였던 것처럼 오늘에는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며 그 통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적 의무로 된다.

형제적 대가정인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에

게 있어서 원자탄이나 그 어떤 신형 무기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힘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들이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통일 단결을 파괴하려고 파렴치한 책동을 다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형제 당들 간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원쑤들에게만 리익을 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된 일련의 형제 당 대회들의 행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 상이와 관련하여 더욱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제 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원쑤들의 온갖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수호하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와 형제 당들 간에 조성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12차 대회와 독일 사회 통일당 6차 대회를 비롯한 일련의 형제 당 대회들에서는 형제 당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동지적이며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태도들이 발로되였다.

형제 당들의 국제 회의가 아닌 개별적인 당들의 대회에서 형제 당들 간의 의견 상이에 대하여 론의하며 더우기 공개적으로 형제 당을 공격하는 것은 모스크바 회의 성명에 규정된 형제 당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주의 진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고립시키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위태롭게 하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 세력이 꾸바와 특히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을 로골화하며 발광적인 반중국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것은 결국 적들의 반중국 합창단에 끼여 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오늘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인 위대한 쏘련과 함께 사회주의 진영의 3분의 2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존재와 그와의 단결을 떠나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그 위력의 강화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수호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을 수호하며 국제 로동 계급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반대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대회와 독일 사회 통일당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당 대표단은 계속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개적 공격이 가해지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자기의 정당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앞에 두고 자기 인민들의 위업과 세계 로동 계급의 위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는 편향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립장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심지어는 우리에게 《당신들은 누구의 편인가?》 고까지 묻고 있다.

도대체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이편 저편으로 가르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이러저러한 편으로 갈라 보려 하며 어느 한편에 서서 자기를 다른 편에 대치시키려는 립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는 당들을 그 어떠한 편으로 만들어 내려는 것이나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편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공동의 리익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인민들의 리익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서 있으며 혁명과 단결의 리익의 편에 서 있다.

만일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어제는 한 당과 한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며 오늘은 또 다른 당과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통일은 어떻게 되며 우리의 단결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래일에는 또 어느 다른 당과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된다면 사회주의 진영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서 강력한 성새이며 그 힘의 원천인 사회주의 진영을 홀시하거나 그 단결에 손실을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사회 통일당 제6차 대회와 관련하여 우리는 또 한 가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 인민은

위대한 맑스, 엥겔스의 혁명 전통과 에른스트 텔만 동지를 비롯한 독일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영웅적 투쟁과 불굴의 혁명 정신을 계승한 독일 로동 계급과 그 전위대인 독일 사회 통일당에 대하여 항상 깊은 존경을 가지고 대하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 세력과 서독 군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독일 인민에게 형제적 친선과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과 독일은 다 같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렬된 처지에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과 서방 초소를 수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조선 인민은 독일 인민에 대하여 각별한 친선의 정을 품고 있다.

우리 당은 금번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형제적 독일 인민에 대한 조선 인민의 깊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독일 사회 통일당의 령도 하에 독일 인민이 달성한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독일 사회 통일당 대회에서는 심지어 유고슬라비야 찌또 수정주의 집단의 대표까지 연설을 시키면서 우리 당 대표에게는 이러저러한 구실로 축하 연설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 당 대표단은 서면으로 축하 연설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마저 대회 대표들과 형제 당 대표들에게 전문을 알려 주지 않았다.

유고슬라비야 찌또 집단은 모쓰크바 회의 성명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그것이 낡았다고 선포하면서 자기의 반레닌주의적 수정주의적 강령을 1957년의 선언에 대치시켰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저들의 수정주의적 《강령》을 조금도 시정하지 않았으며 소위 《쁠럭 불가담 정책》을 비롯한 모든 대내 대외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계속 그것을 고집할 것을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일치하게 유고슬라비야 찌또 집단을 현대 수정주의의 대표자로 규정하였으며 그 후 형제 당들의 어느 국제 회의에서도 이 결정을 변경시킨 일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사회 통일당 대회는 찌또 집단의 대표를 초청하여 연단을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회주의 진영내 권위 있는 형제 당을 중상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심지어 이에 대하여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호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친선적인 형제 당 대표들에게는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맑스—레닌주의 배신자에게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을 누가 과연 정상적인 사태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진영의 친선 단결의 리익과 량립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행동이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에 대한 그 어떠한 《기여》로 되며 《훌륭한 성과》로 된단 말인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에서 힘을 얻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고무되고 있는 각국의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자각적인 수 많은 부대들은 오늘 형제 당들 간에 조성된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품고 있다.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우리의 공동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단결에 해로운 모든 행동을 즉시 중지하며 단결에 저해를 주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의 리익의 절박한 요구이며 진보적 인류의 한결 같은 요구이다.

만일 진정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귀중히 여기며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그 누구도 이 엄숙한 요구에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결하지 못 할 그 어떠한 리유도 없다.

우리에게는 공동으로 작성하고 일치하게 서명한 행동 통일의 확고한 기초가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모쓰크바 회의의 선언과 성명에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기본 원칙들이 명시되여 있다. 이 문헌들에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 과업들이 천명되여 있으며 각국 당들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이 규정되여 있다.

모든 형제 당들이 오늘의 정세 발전은 이 문헌들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동 강령에 기초하여 단결을 도모한다면 해결하지 못 할 문제가 없다.

문제는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이 문헌들의 원칙들과 규범들을 말로써만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 활동에서 일치하게 준수하는 데 있다. 그 어떠한 당도 모쓰크바 회의 선언과 성명에 위반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모쓰크바 선언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과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 간의 내정 불간섭의 제원칙에 립각하여 자기들의 호상 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호상 지지 협조하여야 한다.

이 호상 관계의 규범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그 집권당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공동의 준칙이다.

모든 형제 당들은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원칙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규정한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은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이 다른 형제 당들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거나 다른 당에 압력을 가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거나 그를 음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전우들인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과 각국 형제 당들은 호상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호상 원조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간의 상호 관계의 확고한 초석으로 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평등과 호혜, 호상 협조와 단결의 원칙은 매개 당들이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과 형제 당들 간의 호상 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가를 명백히 규정해 주고 있다.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형제 당들의 공동의 관심사와 호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단결과 호상 존중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지적인 접촉과 협의의 방법을 통하여 원칙적인 견해의 일치를 달성하며 행동의 일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형제 당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상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반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내부의 의견 상이를 적들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로출시키거나 더우기 그것을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사소한 일로 국교를 단절하거나 대사를 추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의견 상이로 하여 다른 형제 당들에 가해지는 여하한 일방적인 공개적 비난도 오직 단결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항상 간주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 형제 당들이 공개적 론쟁을 중지하고 현존하는 의견 상이를 수습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해당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강구할 것을 제기하였었다.

금번 독일 사회 통일당 제 6차 대회에서도 쏘련 공산당을 비롯하여 일련의 형제 당 대표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기쁜 일이다.

그런데 일부 동지들이 한 편으로는 의견 상이에 대한 공개적 론쟁을 중지하고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하여 말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의연히 공개적으로 형제 당들의 립장을 시비하며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나섰는데 이것은 결코 성실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모든 형제 당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하여 말로써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써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는 때에라야만 현 사태를 수습하고 실질적인 단결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반적 리익과 단결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시종 일관 현존하는 의견 상이를 포함하여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인내성 있게 진지한 동지적 협의를 통하여 어디까지나 우리 대렬 내부의 문제로 해결하며 단결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또 주장하고 있다.

경험은 호상 협의의 방법이 형제 당 호상 간의 관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공동의 사상과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들 공산주의자들과 형제 당들이 호상 성의를 가지고 모여 앉아 허심하게 협의하면 해결하지 못할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의 의견 상이를 유관 형제 당들의 개별적 접촉과 모든 당들의 국제 회의에서 토의하며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의견 상이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리용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더우기 원쑤들이 우리 조선 로동당과 형제적 쏘련 및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그 무슨 틈이나 생길듯이 엿보며 기대하는 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형제 당들 간에 아무리 심각한 의견 상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항상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파괴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쏘련 공산당과 단결하며 중국 공산당과 단결하며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라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 일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규범에 확고히 립각하여 모든 형제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

련하여 왔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 호상 협조를 부단히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 일성)

모든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원쑤들의 반동 공세에 강력한 단결로 대답하여야 하며 통일된 위대한 힘으로써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각국 정부와 부르죠아지가 로동자들을 분렬시키며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기에 열중할수록… 자기들의 계급적 단결, 자기들의 국제주의, 자기들의 사회주의적 신념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자각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의무는 더욱 긴박한 것으로 된다.》 (레닌)

위대한 레닌의 이 말은 오늘에 있어서도 그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을 울려 주는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혁명적 기치 하에 전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굳게 단결하여 우리 위업의 종국적 승리와 전 인류의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 (1963년 1월 30일 로동 신문)

출로는 민족의 자주 통일에 있다

오늘 남조선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에 처하여 있다.

현 통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참을 수 없는 생활고에서 벗어 나려는 대중의 열망은 날을 따라 비등하고 있다.

첨예화되고 있는 식민지 통치의 위기에 직면하여 불안하여진 미국의 지배층들과 남조선의 통치배들은 조석으로 언동을 달리하면서 《군정》이요, 《민정》이요 또는 《과도적 합작》이요 하며 떠들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실증한 바와 같이 이로부터 남조선 인민들이 기대할 그 아무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바야흐로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정객들이나 남조선의 군사 통치배들과 정상배들의 소동과는 다른 목소리가 더욱더 강하게 울리고 있으며 다른 움직임이 더욱더 힘차게 일어 나고 있다.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에는 현 남조선 사태의 원인이 외세의 예속과 외세 의존에 있다고 개탄하며 민족의 자주 정신과 자주권을 강조하는 주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우려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남조선 현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이러한 주장을 지지 환영한다.

무엇 때문에 남조선이 오늘과 같은 파산과 몰락에 처하게 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과 같은 도탄에 빠지게 되였는가?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불행에 처하게 된 것은 남조선이 미제 침략 세력의 예속 하에 있는 데 있으며 단일한 민족으로서 한 국토 내에서 통일적인 경제적 련계와 동일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살아 오던 우리 민족이 분렬된 데 있다.

우리 조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미증유의 민족적 재난을 겪고 있는 것도 조국의 절반 땅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 당하고 있는 데 있다.

문제는 바로 북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에서 완전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고 남북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것이 남조선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 유일한 출로이다.

원래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민족이나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행사함으로써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약소 민족들이 장구한 기간에 걸친 피의 투쟁 속에서 얻은 진리이다. 모든 민족의 독립 운동,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가 이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민족적 억압과 착취와 멸시를 당하여 온 조선 인민이 해방 후 한결 같이 념원한 것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의 실현이였다. 그리하여 남북 조선 인민은 다 같이 빼앗겼던 자기의 주권을 도로 찾고 독립되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화 같이 일어 났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국토는 량단되였으며 같은 혈통을 이은 한 민족이 벌써 18 년간이나 상반되는 두 길을 걸어 오고 있다.

오늘 조선의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은 자주와 예속의 상반되는 길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 오며 어느 길이 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길인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해방 후 조선 인민은 북조선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총의에 의하여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자기들의 오랜 념원인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숙청하고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해방적 사명을 띠고 북조선에 진주하였던 쏘련 군대는 조선 인민 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도록 도와 주고 곧 철수하였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조선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 시기 조국

의 자유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전하였던 중국 인민 지원군도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후 철수하였다.

북조선에 수립된 인민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시종 일관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주권을 튼튼히 틀어 쥐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와 문화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일제와 미제 침략자들이 파괴한 경제를 복구하였으며 푼전을 아껴 가며 우리 내부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북반부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는 강력한 공업을 건설하고 지난날 외래 침략자들이 략탈하여 가던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 원천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 리용하고 있다.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 힘으로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생산하여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북조선은 원래 경지가 적고 토지가 척박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공업의 힘에 의거하여 관개를 하고 기계를 대 주고 전기를 보냄으로써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켰으며 식량도 자급 자족하고 있다.

우리의 이 튼튼한 자립 경제는 정치적인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침략하고 우리 인민을 예속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 누구든지 우리의 민족적 권리와 존엄성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중상과 비방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가 사회주의 진영의 한 성원이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공통한 리념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약육 강식의 승냥이 법칙에 기초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는 평등과 자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 호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세계 인민의 공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결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벗들과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그들의 경험에서 필요한 것을 섭취하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도 역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형제 국가들로부터 경제 기술적 원조도 받았으며 다른 나라와 무역도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원조》와는 달리 원조 받는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그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우리 자신의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우리의 인민 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무역은 우리에게 없고 필요한 것을 사오고 많은 것을 수출함으로써 유무상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복무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경제적으로 예속되여 있지 않으며 더우기나 경제적 관계로 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걸은 북조선에서는 과거 외래 침략 세력의 예속으로 인하여 조성되였던 모든 락후성과 빈궁이 이미 청산되였으며 그 흔적마저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력사적인 전변이 일어 났으며 민족적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생활고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였다. 그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기능과 지식에 따르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실업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동력이 부족할 정도이다.

북조선 인민들은 누구나 병 나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녀들을 무료로 각급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아직 부유하게 산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과거 이국의 산야에서, 일제의 감옥과 교수대에서 쓰러지면서도 《조선 독립 만세!》를 힘 있게 부른 우리 선렬들이 념원하던 그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사태가 어떻게 되였는가?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후 남조선에 들어 온 미군은 처음부터 조선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모든 권력을 틀어 쥔 정복자로 군림하였다.

그들은 상륙 즉시 조선 인민 자신이 창건한 인민 위원회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남조선 전역에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전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 민족의 독립을 말살하려고 범죄적인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전후 계속 남조선의 최고 통치자로 전횡을 다하고 있다.

지난 18 년 간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 기관의 간판이 이러저러하게 달라졌으나 이 모든 것은 미 군정의 연장이며 변종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 자결의 신성한 권리는 미국 침략자들에 의하여 유린 당하고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미국의 위정자들과 선전 기관들은 남조선이 마치 자립적인 《주권 국가》인듯이 사태를 묘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외래 침략 군대가 그 령토를 강점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판국에서 그 어떤 자주권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주권 국가이라면 정권이 그 민족의 수중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소위 《대한 민국 정부》는 근본 조선 인민이 세운 것이 아니라 유엔의 간판 밑에서 미군의 총검에 의하여 날조되고 강요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 침략자들의 정치적 위장물에 불과하다.

오랜 식민지 정책의 《경험》을 가진 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식민지 약소 국가에서 저들의 괴뢰들로 《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도 사태가 례외로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장 로골적인 형태에서 그것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제 정부》의 표본으로 미국 사람들이 떠들던 《리 승만 정부》도 그 후의 모든 남조선 《정부》도 미군의 총검의 비호 하에 미제가 조작한 것임은 폭로된 지 오래다.

현 남조선의 군사 《정권》도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국 정보국의 오랜 특무인 박정희, 김 종필 도당을 조종하여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남조선 《정부》가 미군의 비호 없이는 하루도 존속될 수 없으며 미국의 지시 없이는 그 아무 것도 하지 못 하는 괴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주권 국가라면 적어도 그 나라는 대외적 관계에서 평등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자기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정부》는 미제의 요구 대로 조선 인민의 신성한 권리와 나라의 재부를 떠 넘겨 주고 있을 뿐이다.

우선 남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미군이 남조선 전 지역 그 어데나 장기 주둔할 것을 미국에 《허여》하는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남조선의 모든 재산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그 소유를 인정》하며 미국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까지도 남조선이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한 《한미 재정 이양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과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치외 법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온갖 전횡을 자행하고 있다.

이른바 《대전 협정》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인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만이 재판할 수 있》으며 《미군인에 의한 한국인의 재산상 손실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미군의 일방적 통고로써 처리하게 되여 있다. 이러한 굴욕적인 질서는 식민지나 조차지 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남조선의 재산을 《관심》만 있으면 가지게 되여 있으나 남조선 인민들은 미군의 우심해지고 있는 만행에 의하여 생명을 잃고 재산을 강탈 당하여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치욕적인 관계가 과연 자주권과 어떻게 량립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미군은 남조선 군대의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60여만의 방대한 남조선 군대는 민족 보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인민을 탄압하며 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외래 침략자들에 의하여 자주권이 유린 당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이 학살 당하며 한 나라의 주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통수권이 전'적으로 강점군에게 속해 있는 곳에서 과연 그 어떠한 주권 국가의 흔적이라도 찾아 볼 수 있는가?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자주권을 보장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은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군의 강권으로 남조선의 재부를 수탈하고 침략적인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있으며 남조선 《정부》의 모든 경제 재정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우선 남조선 《정부》의 재정 예산 세입의 근 절반이 미국 《원조》에 의한 《외자》로 충당되고 있으며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에서 공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남조선 《정부》는 예산 편성으로부터 그 지출은 물론 지출 항목의 일시적인 융통까지도 미국 《원조》 감독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남조선 《정부》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그리고 미국 상전의 승인이 없이는 예산도 편성할 수 없으며 재정 지출도 마음 대로 못 하고 있다.

남조선 《정부》의 경제 재정 활동은 미제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인민을 수탈하며 군사비를 확장하고 군사 시설을 증설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남조선의 대외 무역도 완전히 미국에 예속되여 있으며 남조선의 경제 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다. 해마다 수입 초과가 수출의 20 배에 달하는 참혹한 사실은 이를 너무도 명백히 말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상품과 자본 시장으로, 원료 수탈지로 전변시켰다. 그들은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 공업을 완전히 예속시키고 민족 산업을 파괴 몰락시켰다.

그들은 잉여 농산물의 강매와 가혹한 수탈로 남조선 농촌을 황페화시켰다.

그런데 미제의 추동 하에 군사 통치배들은 과거 36년 간 조선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한 일본 독점 재벌들까지 또다시 공공연히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여 있기 때문에 남조선 공업과 농업이 질식되고 물산은 고갈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남조선이 미제에 예속되여 있기 때문에 나라의 북반부에 강력한 민족 경제가 있으나 이것이 남조선 경제의 부흥과 민생 문제의 해결에 리용되지 못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켜 남조선에서 조선 민족의 모든 우수한 것을 병들고 시들어지게 하고 있다.

인종주의를 저들의 침략 정책의 주요한 사상적 무기로 삼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천대 멸시하며 온갖 모욕을 다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있으며 무서운 빈궁과 기아에 신음하고 있다.

수백만 실업자와 절량 농민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나 법죄적인 산아 제한에 대한 소란스러운 설교와 이국 땅에 이민의 명목으로 동포들을 종신 노예로 팔아 넘기는 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

남조선 출판물들이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것이 《선의》로 가장한 《미국의 대한 정책》이며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이라고 지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빚어 내였다.

지난 18 년 간의 력사와 남북의 판이한 현실은 민족 자결, 민족 자주의 길만이 자유와 독립의 길이며 남조선이 자주, 자립하는 길이 오늘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 나는 유일한 출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이 자주, 자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야 한다. 외래 침략 군대를 자기 나라에 둬 두고는 어떠한 독립도 보장할 수 없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에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남조선의 파국적 위기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기만 책동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괴뢰 도당들의 매국 행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야 한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군정》이건 《민정》이건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남조선 정권에 누가 들어 앉던 괴뢰 《정권》으로서의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진정한 자주권을 가지자면 외래 침략자들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반역자들을 몰아 내고 인민들 자신이 발동하여 자기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며 자기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자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인민의 정권이 수립됨으로써만 진정한 독립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특히 민주주의적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부패하고 정권욕에 사로잡힌 정상배들은 민족과 인민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인민 대중 속에서 인민 대중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자유와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

정치적 자주권은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외세 의존은 오직 파멸을 가져 올 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반대 배격하고 자생 자결하여야 하며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실현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이 외래 침략 자본의 예속에서 벗어 나 북조선과 경제적 련계를 가지고 남북이 호상 유무 상통한다면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능히 수습할 수 있으며 민생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한다.

남조선도 북반부와 같이 자주적이며 자립적이여야만 그리고 이러한 기초 우에서만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완전한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력사상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하여 민족적 독립을 달성한 전례는 없다.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부르짖으며 자본주의 렬강의 침략을 반대하여 궐기한 우리 조상들의 투쟁은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결실을 맺지 못 하였으며 외래 침략자들에게 아부 굴종한 매국노들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망국의 비운을 맛보게 되였던 그 울분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서리여 있다.

또한 구미 렬강의 《선심》을 바라며 《청원》이나 《애걸》로 《독립》을 달성하려던 뭇 정객들의 모든 시도가 제국주의 강도들의 우롱물로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날의 우리의 침통한 력사의 교훈은 오늘도 얼마나 랭정하게 진실을 말하여 주는가!

우리는 이 쓰라린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외국의 간섭이 없이 우리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무엇 때문에 조선 인민이 자기 조국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를 양키들의 간섭에 맡기겠는가.

조선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장구한 기간 자기의 독립국가를 지켜온 용감하고 고매한 기개를 가진 민족이다.

조선 인민은 자기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으며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

조국의 통일 문제는 시비를 운운할 론쟁 문제가 아니며 우리 민족 지상의 임무이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북조선에 《먹힌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구실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는 누가 먹고 먹히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시적으로 분렬된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적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중간 걸음으로서 남북간의 련방제의 실시를 제의한 것도 우선 전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며 남북의 리해를 촉진하며 조국 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자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정치 형태를 선택하는가는 인민의 의사에 맡기며 남북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가 망국의 비운에 처하였던 지난날에도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피 흘려 싸웠으며 오늘도 우리는 이 숭고한 위업을 위하여 굴함 없이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념원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남조선 동포들을 구원하며 통일된 조국에서 전 민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 것 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도탄에서 벗어 나는 길은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민족의 자결과 자주를 실현하고 이 기초 우에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지금은 다만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승리는 오직 투쟁을 요구하며 또한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더욱더 용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적 량심이 있고 우국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함께 유린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이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남 조선의 모든 애국 력량은 민족 자결, 자주, 자립을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을 십배, 백 배로 강화한다.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책동을 반대 배격하며 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배겨 나지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하라!

미제와 그 주구들은 지금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고 헤매고 있으며 대중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결된 인민의 힘은 원쑤의 어떠한 아성도 무너 뜨릴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이 실증하였다.

3천만 인민의 단합된 힘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야 말 것이며 반드시 그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 내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땅에도 려명은 밝아 오고야 말 것이며 이 땅에 통일 독립의 기'발이 휘날릴 그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1963년 4월 11일 로동 신문)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대한 정책》과 미국 《원조》가 남조선에 가져 온 파멸적 후과를 개탄하면서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뼈저린 생활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정당한 요구로서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본지 사설에서 민족의 자주적 통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론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며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기초로 되는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론하려 한다.

어떠한 민족을 막론하고 경제의 자립적 기초가 없이는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없으며 나라의 부강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47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기초로 된다. 경제에서의 외세 의존은 정치에서의 외세 의존을 가져 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가져 온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한다면 어떻게 민족의 평등권과 자주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부인하는 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민족들의 평등권과 자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의 독립과 주권을 유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떠들고 있는 《구라파 공동 시장》이니, 《대서양 공동체》니 또는 《세계 경제의 통합》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다 이러한 《공동체》들에 망라되는 약소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말살하고 이 나라들을 제국주의 렬강의 지배에 복종시키려는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외래 제국주의에 예속된 민족은 외견상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정치적 예속과 략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다른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 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의 대소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지 않고는 국가의 륭성을 기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 자체로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만한 밑천이 없이 어떻게 문명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자기 민족의 내부 자원과 내부 력량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힘에 의거하여 잘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직도 외세에 의거하여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하여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킨 실례를 알지 못 하고 있다.

사실상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지지 못 한다면 과학도 기술도 문화도 발전시킬 수 없으며 현대의 문명 세계에서 유리된 락후한 민족의 운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발전된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문명한 민족으로서 현대 사회의 모든 복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인류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외세 의존의 길,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존하는 길은 예속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다. 자주적 발전의 길,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길은 국가적 독립을 보장하며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남북 조선의 판이한 두 현실은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로 된다.

과연 《선의의 조력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남조선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미국의 소위 《원조》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식민지적 예속과 략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 전고 미문의 빈궁고와 사회적 부패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남조선 반동 세력의 매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제'날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오늘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일체 경제 생활을 통제하고 있으며 남조선 경제를 미국의 군사적 부속물로 만들었다. 남조선 지배층은 일련의 매국적 협정들에 의하여 미국 독점 자본의 침입에 자유로운 길을 열어 주었으며 미국 정부에 남조선 경제에 대한 무제한한 지배권을 넘겨 주었다.

남조선《정권》의 재정 경제 활동의 기본인 예산부터가 미제 침략자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쥐여 있다. 남조선의 재정 예산에서 세입 총액의 근 절반은 미국 《원조》에 의한 《외자》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남조선 《정부》는 미국 상전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자금을 지출하지도 못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재정 예산과 함께 금융 기관들까지도 자기 수중에 틀어 쥠으로써 남조선 《정부》의 재정 경제 활동을 좌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기관들과 기업체들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 은행》을 비롯한 남조선의 은행들과 일체 금융 기관의 대부 자금 원천에서 미국 《원조》에 의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원조》로써 남조선 공업을 미국의 원료와 자재에 얽어 매여 놓았다. 남조선은 국내 자원을 개발하여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재, 원료를 무역을 통하여 외국에서 구입할 만한 자체의 밑천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강재, 목재,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 원자재의 대부분과 유연탄, 원면, 인견사, 가성 소다 등 원료의 거의

전부를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단 이 《원조》가 중단되기만 하면 공업도 운수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의 대외 무역도 역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남조선 대외 무역에서 수입은 수출의 20배에 달하며 수입 총액의 80%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시장은 바다를 건너 온 미국 상품으로 흘러 넘치고 있다.

결국 남조선에서는 재정 예산도, 기업 자금도, 중요 자재와 원료도 모두다 미국의 손아귀에 쥐여 있으며 대외 무역도, 국내 시장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 생활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의 대표 기관으로서 미국의 《원조》를 관리하고 있는 《주한 미 경제 협조처》인 것이다.

미국 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남조선 경제가 남조선 인민들의 리익과 우리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 경제는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침략 정책과 식민지적 략탈의 목적에 복종되고 있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들어 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억 딸라 이상에 달하는 미국 《원조》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원조》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군사 《원조》이다.

6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남조선 군대가 민족 보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복무하는 고용 군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 조선을 침략하고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 군대보다 훨씬 값싼 남조선 군대를 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다. 그들은 수 많은 남조선 청장년들을 괴뢰 군대에 강제로 징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기들의 군사비 지출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있다. 사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괴뢰군 1개 사단을 유지하는 데는 미군 1개 사단을 유지하는 비용의 25분의 1 밖에 들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 경제를 파괴하고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실업에 빠뜨렸는바 이것은 그들에게 값싼 고용 군대를 확보하여 주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방대한 괴뢰 군대를 유지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의 부담을 들씌우면서도 마치 그 어떤 《원조》를 주고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남조선은 60여만의 청장년들을 미국 침략자들의 대포'밥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년간 총 생산액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경제 건설을 위한 여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위 《순 경제 원조》라는 것도 남조선을 미국에 예속시키고 남조선의 자원과 생산을 미국의 군사적 목적에 동원하기 위한 밑천에 지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민족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계 설비나 생산 시설들은 애당초 들여 오지도 않는다. 그들이 가져 오는 《원조》 물자란 남조선 경제를 얽어 매기 위한 일부 자재와 원료들, 남조선 인민 대중의 생활과는 인연이 없는 양담배, 화장품 등을 비롯한 사치품들이다.

남조선 지배층은 이러한 《원조》의 대'가로 나라의 주권과 경제의 명맥을 송두리째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원조》 총액보다 훨씬 많은 재부를 공물로 제공하였다. 1962년까지 미국은 남조선에 33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주었는데 한편 이 기간에 그들이 남조선의 재부를 략탈한 액수는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80억 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준 것보다 2.4배나 더 많은 것을 남조선으로부터 빼앗아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대외 원조 교서》에서 《원조》가 《우리의 국가적 리익에 주는 기여는 명백히 그 비용보다 크다.》고 하면서 그것이 좋은 '돈'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독점 자본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나라의 주권과 부원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한 숨도 못 되는 남조선의 반동적 매국 세력이 치부하고 있다. 미국 《원조》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친미 매국 세력을 육성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공업 부문에서만도 남조선 기업소 총 수의 1%에 불과한 예속 자본가들의 기업체들에 공업 총 생산액의 40%가 집중되여 있다.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부단한 압박으로 인하여 남조선에서 민족 공업 발전의 길은 완전히 폐쇄되였으며 일제로부터 넘겨 받은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은 더욱 심하여졌다.

남조선의 국민 소득 총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며 경제적 자립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전략 물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광산들을 채굴하고 있을 뿐 남조선의 지하 자원은 개발되지 못 한 채 파묻혀 있다.

남조선에 약간 있다고 하는 방직 공업과 식료품 공업조차 그 대부분은 군수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예속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다.

남조선 공업은 자기의 원료 기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

간적인 중공업 부문들을 가지고 있지 못 하는 기형적 공업으로서 완전히 미국에 예속되여 있다.

더욱더 심각하여지는 원료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소 기업은 부단히 파산 몰락하고 있다. 수 많은 중소 기업체들이 폐쇄되였으며 남아 있는 기업체들도 그 60% 이상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침략적 미국 《원조》로 인하여 만신창이된 남조선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 하고 있다.

외세에 추종한 남조선 매국 집단은 남조선의 공업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농업마저 여지 없이 령락시켰다. 광범한 농민 대중은 여전히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 하에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남조선 통치자들은 농촌 경리에 투자는 하지 않고 농촌을 밑창이 나도록 긁어 냈다.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 국토는 날로 황페되여 가고 있다. 남조선 산림 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300만 정보가 벌거숭이로 되였으며 이미 있던 관개 시설마저 완전히 파괴되였다. 이리하여 해마다 많은 비옥한 땅이 백사장으로 화하고 있으며 농토의 절반 이상은 복구 개량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확을 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10만 정보 이상의 땅을 군용지로 빼앗아 냈다.

공업이 파산되고 농촌 경리가 극도로 령세한 조건에서 남조선 농촌은 어떠한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농업 기술은 중세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농업 생산력의 파괴와 침체, 미국 잉여 농산물의 부단한 압박은 생산의 심한 쇠퇴를 가져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잉여 농산물을 끌어 들여 남조선의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써 농민들의 경리를 파탄시키고 농업 생산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알곡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하여 3분의 2로 감소되였으며 목화 생산은 거의 완전히 없어지고 축산과 잠업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리하여 지난날 우리 나라의 곡창이였던 남조선이 지금은 해마다 500만～700만 석의 미국 잉여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농업을 이 지경에 빠뜨려 놓고는 그 어디에서도 판로를 찾을 수 없는 썩은 밀'가루를 《원조》로 들여 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 빠져 있다. 로동 능력 있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만 이상의 근로자들이 만성적 실업 및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군사비의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의 격화는 남조선 통화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인민 생활을 빈궁의 밑바닥에 몰아 넣고 있다. 해방 후 18년 동안에 물가는 무려 5천 배나 올랐다. 군사 파쑈 집단이 집권한 이후 민생고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물가는 매일과 같이 올라만가고 로동자들의 임금은 벌써 3년째 동결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하다. 광범한 농민 대중은 지주와 고리대의 채무 노예로 전락하였다. 농민들은 도합 180억원의 부채를 걸머지고 있다. 매년 수만 호의 농가가 파산하여 리농하고 있으며 그들은 산과 들을 헤매면서 초근 목피로 하루하루 연명하여 가고 있다.

지금 무서운 기근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다. 식량은 수요에 비하여 1, 000만 석이나 부족하며 수백만 대중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 한 채 영양실조와 만성 질환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다 못 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인간 생지옥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18년 간에 걸친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가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결과이다. 이것이 외세를 끌어 들이고 외세에 의존하는 남조선 지배층의 매국 정책이 빚어 낸 결과이다.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은 자기들이 마치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듯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니, 《중농 정책》이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왔으나 그들의 《새로운 처방》도 역시 완전히 파탄되였다. 파괴된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을 복구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밑천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자금을 동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 통치배들에게는 아무런 밑천도 없으며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이다. 그 누가 테로와 협잡을 일삼는 박 정희와 같은 자들을 믿고 경제 건설에 힘을 바치며 자기의 자금을 내놓겠는가?

군사 통치배들은 《대일 재산 청구권》에 의한 몇 푼 안 되는 《배상금》이나 그 어떤 외국의 차관으로 자금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인민들 자신이 자기의 정권을 수립하고 모든 인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국내 자원을 개발하며 민족 경제를 복구 발전시켜야 한다.

남조선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지배 하에 놓여 있고 계속 미국 《원조》에 매여 달려 있는 한 사태는 결코 개변될 수 없는 것이다.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간 북조선의 형편은 미국의 《원조》에 얽매인 남조선의 사태와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북반부 인민들은 해방 후 첫날부터

인민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예속성을 청산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 받았고 민족 간부가 부족하였으며 경제 건설의 경험이 없었던 형편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락후하고 무력하였던 탓으로 외래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고 모욕 당하고 천대 받던 쓰라린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떳떳하게 어깨를 겯고 나아갈 수 있는 독립되고 힘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동요 없이 전진하였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간부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자기 힘으로 꾸려 나아가자면 반드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이며 인민 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이 없이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국가의 독립도 보장할 수 없다.

과거 우리 나라에 중공업이 약간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제가 조선의 자원을 략탈하며 조선 인민을 착취하기 위하여 건설해 놓은 락후한 식민지 공업이였으며 그것마저 전쟁으로 인하여 다 파괴 되였다.

우리는 중공업의 복구와 발전에 거대한 힘을 집중함으로써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 기지를 축성하여 놓았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다 갖추어졌다.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였으며 국내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민족 경제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중공업이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중공업이며 광활한 발전 전망을 가진 공고한 중공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962년에 북조선에서는 114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1천 320만 톤의 석탄, 120여만 톤의 선철과 립철, 105만 톤의 강철, 238만 톤의 세멘트, 약 78만 톤의 화학 비료가 생산되였다.

특히 과거에 없던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되고 발전됨으로써 공작 기계를 비롯하여 전기 기계, 광산 기계, 금속 및 화학 공업 설비, 운수 및 건설 기계, 방직 기계, 농기계 등 각종 현대적 기계 설비들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1962년에 기계 제작 공업은 전체 공업 생산액의 23%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92%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민족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료, 동력, 원료, 재료 및 기계 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자체의 중공업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기술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 밑에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리는 락후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빨리 추켜 세우며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의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방의 원료 원천과 예비를 적극 동원하며 군중의 힘을 발동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 중소 규모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여 놓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발전된 방직 공업이 있고 다양한 식료품 공업과 일용품 공업이 있다. 우리는 자체로 경공업의 원료도 충분히 해결하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지난 시기에는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북조선이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비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점들에 사치품은 적지만 모든 상점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생활 필수품으로 가득 차 있다.

북조선에는 원래 농경지가 적고 그것도 매우 척박한 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북조선은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없는 지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현대적 농기계와 새로운 영농 기술을 부단히 도입함으로써 알곡 생산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지금 우리는 식량을 자급 자족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공예 작물과 채소, 각종 실과와 잠견도 많이 생산하며 목축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았다.

민족 경제와 함께 교육이 발전하고 민족 문화와 예술이 개화되고 있다.

북조선에서는 이미 1958년부터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멀지 않아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민족 간부의 양성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결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가 꾸려졌으며 북조선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우리의 민족 기술 간부들의 손으로 훌륭히 관리 운영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실업자란 없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다 일하고 다 배우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누

구에게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택이 보장되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였다.

물론 우리 나라를 발전된 현대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우리 인민을 더욱 부유하게 잘 살도록 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기본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는 세기적인 락후성과 빈궁에서 완전히 벗어 났다. 오늘 우리 나라 경제는 자기의 기술, 자기의 원료, 자기의 간부와 근로자들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과 농산물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이것은 조선 민족의 력사에서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으며 우리 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의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7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우리의 공업은 더욱 발전되고 최신 기계 설비들과 각종 생산 수단들,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기술적·개조가 실현되고 알곡을 비롯한 모든 농작물과 축산물 생산량이 결정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는 우리 나라가 발전된 공업 국가로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모두다 남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될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의 축성은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 쥐고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굴함 없이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아감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 경향을 배격하고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주로는 자체의 힘과 자체의 자원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우리는 정전 직후 철도, 기계도, 세멘트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모자라는 형편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초석을 하나 하나 쌓아 올렸다.

우리 근로자들은 세기적 락후와 빈궁에서 하루 속히 벗어 나기 위하여,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대들의 번영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 일어 나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민족 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닦았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는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도합 5억 루블리 (5억 5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경제 기술적 원조를 받았으며 이러한 원조는 물론 우리의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때에도 우리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자체의 힘이였다. 당시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는 원조에만 매여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힘과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는 원조를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닦는 데 돌렸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침략과 예속과 략탈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원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원조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원조 받는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도와 주는 진정한 국제주의적 원조를 다른 나라에 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였으며 자기 힘으로 살아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대외 무역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무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있는 물건들은 수출하고 없고 필요한 것은 수입함으로써 형제 국가들과 유무 상통하고 있으며 호상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건설하여 놓은 자립적 민족 경제는 우리의 정치적 자주성의 믿음직한 토대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경제에서 자립하였고 자주적인 대내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외적의 침해로부터도 자기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위력을 가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은 우리 민족이 능히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수 있으며 또 이 길로 나아감으로써만 진정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며 경제 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북반부에 창설된 자립적 민족 경제는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재부이며 그것은 전 조선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로 된다.

남북 조선이 걸어 온 상반되는 두 로선과 그 결과로부터 우리는 응당한 결론을 찾아 내야 한다.

지금 남조선은 새로운 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남조선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북조선 형제들과 손을 맞잡고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다시 소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세에 의존하여 영원히 멸망의 구렁에 빠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조선은 망국 로선과 단호히 결별하고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서야 하며 민족 내부에서 재생의 힘을 찾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두 다리로 튼튼히 서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꾸리며 문명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때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곡절을 겪었으나 오랜 세월을 두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 온 용감하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며 자기 힘으로 나라의 재부를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여 온 근면하고 총명한 민족이다.

우리의 국토는 아름답고 우리 나라의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북에는 발전된 공업이 있고 남에는 비옥한 농토가 많다. 전국 각지에 수력 자원이 있고 다종다양한 지하 자원이 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 수산 자원이 또한 무진장하다.

국내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의 절반 땅에 민족 재생의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어 받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양키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매여 달려 천대 받고 멸시 당하며 헐벗고 굶주리겠는가? 근 반 세기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였으며 또다시 18년 동안이나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 얽매여 온갖 민족적 멸시와 굴욕을 다 당하여 온 후에도 미몽에서 깨여 나기에 아직 부족하단 말인가?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여전히 제국주의의 《원조》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원조를 구걸하고 있다. 이것은 도적에게 집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제 나라 제 땅에서 남의 종노릇을 하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병들고 굶어 죽어 가는 이것이 과연 미국의 《원조》를 받아 들인 결과가 아니란 말인가?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출로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원조》에서 찾으며 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적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여 남조선을 미 일 제국주의의 2중적 예속 하에 밀어 넣음으로써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을 헤여 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에 빠뜨릴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버려야 한다. 외세 의존의 길에서 단연코 벗어 나 전 민족의 힘을 합쳐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외에 다른 출로는 없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실현하여 호상 유무 상통하며 남북 조선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리용하며 전 민족의 지혜와 재능과 힘을 동원하여 어떠한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 발로 튼튼히 설 수 있는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 지리적으로 보아도 북조선의 공업 지대와 남조선의 농업 지대를 련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렇게 하여야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고 조화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 내부에 튼튼한 경제력이 있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매여 달리겠는가?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나라들끼리도 경제적으로 협조하며 호상 유무 상통하거늘 같은 민족끼리 교류조차 하지 못할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정치적 견해와 사회 제도의 차이는 남북 간의 협조와 교류에 장애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답고 기름진 강토가 외래 침략자들에게 짓밟혀 날로 황폐되여 가고 있으며 우리의 동포들이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만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치 문제는 제쳐 놓고 경제 교류라도 실현하여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점차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경에 처한 남조선 부모,형제,자매들을 구원하며 민족을 멸망의 비운에서 구원하려는 오직 한 가지 념원으로부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남북 조선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는 남북에 다 같이 유익하며 전 민족에 리익을 가져 올 뿐 손해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경제 교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북조선 공업과 남조선 농업 간의 련계를 회복하여야 한다. 우리가 북조선의 전력,석탄,철재,목재, 세멘트,각종 기계 설비 등 중공업 제품들과 남조선의 농산물을 교역한다면 파괴된 남조선의 농업과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에서 주요 생업인 농업을 추켜 세우고 인구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남북 간의 교역과 협조는 극도로 피폐한 남조선 농촌에 생기를 불어 넣고 농업 생산을 일으켜 세워 남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의 잉여 량곡을 수입하지 않고도 살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서로 협력하여 남조선 공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원료,기자재,연료 및 동력의 부족을 타개하고 남조선 민족 공업

을 복구 건설함으로써 공업 제품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파괴된 남조선의 민족 공업을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점차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공업화를 하지 않고는 경제의 자주적 발전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남조선에는 풍부한 수력 자원이 있고 석탄, 철광석, 중석 기타 지하 자원이 많다.

우리는 이 귀중한 부원을 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지 말아야 하며 헛되이 파묻혀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힘을 합쳐 남조선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이미 북조선에 건설하여 놓은 공업의 힘을 공동으로 리용한다면 남조선에서도 연료 동력 공업,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인 중공업 부문들을 창설할 수 있다.

중공업의 건설은 남조선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국가의 통일을 달성한 후에 전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점차 공업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또한 남북 조선 공업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며 남북 조선 공업 간에 합리적인 분업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유무 상통한다면 우리는 파괴된 남조선 민족 공업을 소생시키고 나라의 독립의 기초로 되는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과 경공업 부문들을 창설할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있으며 남조선을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 나게 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조는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으로 될 뿐만 아니라 원쑤들이 우리들 사이에 뿌려 놓은 불신을 제거하고 호상 접근하게 함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당하고 애국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군사 통치배들은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나라의 통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간의 어떠한 접촉도 교류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승공》이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며 외세에 의탁해서 힘을 기를 수 없다는 것도 역시 명백하다.

미 제국주의의 《원조》를 밑천으로 세운 박 정희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탁상 공론으로 끝났으며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기른다는 그의 반역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전무 후무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바로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며 국토를 개발하고 파묻혔던 나라의 재부를 찾아 내여 민족 경제의 터전을 닦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며 민족의 재생과 번영의 대로를 개척하는 애국적 위업을 이루어 놓지 않았는가? 바로 《반공》을 부르짖는 자들이 양키들에게 나라를 팔아 먹으며 민족 경제를 파탄시키고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며 민족을 암흑 천지에 몰아 넣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문제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절반 땅이 기한에 떨며 피에 젖고 있는 오늘 전 민족이 단결하여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며 경제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반공》 정책과 민족 리간 책동에 넘어 가지 말아야 하며 남북이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 민족이 힘과 재능을 합치고 나라의 모든 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문명하고 부강하고 독립된 현대적 공업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남조선의 전체 애국적 동포들은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남북의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1963년 4월 23일 로동 신문)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우리 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는 길에서 위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락후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가렬한 전쟁까지 겪은 조선 인민이 극히 짧은 기간에 모든 난관을 뚫고 달성한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의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 섰다.

우리는 전면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수행하여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만들며 조국 통일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닦아야 한다.

이 모든 과업들은 오직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계속 견지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자력 갱생—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 기풍이며 철저한 혁명 정신이다.

이것은 자기의 혁명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며 자기의 힘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다.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본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과 호상 지지 원조는 혁명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되며 국제 혁명 력량의 장성은 개별적 나라에서의 혁명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준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서로 도와 주며 지지 성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국제적 련대성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주인은 오직 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 대중이고 그의 향도적 력량인 맑스—레닌주의 당이며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의 내부적 력량이다.

혁명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나라의 혁명도 다른 사람들이 해 줄 수 없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얼마나 급속히 진척되며 그것이 어떤 심도로 수행되는가, 혁명이 언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은 주로 그 나라 혁명 정세의 성숙 정도와 자체 력량의 준비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리로부터 흘러 나온다.

혁명 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 앞에 내부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도 적과의 투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우며 혁명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창조해 내며 도달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부단히 전진하는 정신—한 마디로 말하여 혁명에 대한 가장 높은 책임성과 견결성을 요구한다.

혁명 수행에서 외부의 지지와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도대체 혁명을 수행할 수도 없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바로 이것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내려는 창조적 정신이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안일과 자만, 동요를 모르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복잡 다단한 속에서도 혁명적 절개를 지키고 투쟁을 계속할 수 있으며 혁명 수행 도상에서 부닥치는 우여곡절도 이겨 내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반드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

자력 갱생은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은 원래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주의 철쇄를 끊어 버리는 투쟁이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 운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항상 국제주의적이다.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적 혁명 운동의 지지 성원 속에서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수행한다. 공산주의자들과 그 당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것은 국제 자본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다른 나라 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 다른 나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실제의 국제주의는 하나, 오직 하나 뿐이다. 즉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 운동과 혁명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며, 례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투쟁과 이와 같은 로선을 오직 이 한 로선만을 지지하는 (선전으로써, 동정으로써 또 물질적으로) 것이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도, 국내 반동들과의 끊임 없는 투쟁에서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일관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항일 빨찌산은 후방도 없는 간고한 조건 하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적의 무장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며 탄약도, 식량도, 의복도 자체로 해결하면서 15 개 성상이나 영웅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실로 1930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 승리의 매 걸음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정신의 산 모범으로 된다.

항일 빨찌산들의 이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당은 해방 후에도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힘에만 의거하려는 민족 허무주의와 사대주의의 경향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체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형제 국가들의 지지 성원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선 혁명을 촉진시키는 가장 옳은 길로 될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튼튼히 다지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자기가 지닌 민족적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앞에 지닌 국제주의적 임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실로 자력 갱생은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립장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자립적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자력 갱생의 기치하에 제 나라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여 나가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일성)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나라의 자주 독립을 보장함에 있어서나 또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떠한 나라든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확고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성이 없이는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 나갈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자주권을 말살하며 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예속하기 위하여 그 나라들의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억제하며 그것을 자기들의 경제적 부속물로 전변시키고 있다. 공업이 발전된 나라가 락후한 농업 국가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하고 략탈하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는 완전한 평등,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 간의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형제적 호상 원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 자주성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자면 반드시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주, 평등, 내정 불간섭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실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의 자주권과 평등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자면 반드시 기계 제작 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중공업을 건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도, 농업도 다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에 식민지, 반식민지였던 나라들과 락후한 농업 국가들에서 력사적인 락후성을 시급히 청산하고 선진 국가들의 대렬에 들어 서기 위하여서는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며 나라를 공업화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의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연 부원과 원료 자재, 자체의 민족 간부들에 의하여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 발전되여야 한다.

민족 경제가 하나의 종합적 경제 체계를 이루어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제 발로 확고히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여야만 나라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과학 기술과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더 빨리 이행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생산 전통》이나 《자연 경제적 유리성》 혹은 《수익성》을 론하면서 제한된 일부 생산 부문만을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나라의 민족 경제를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며 다른 나라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 공업이 발전하지 못 하였던 나라들에서 《생산 전통》이 있는 부문만 발전시키게 된다면 이 나라들은 현대적 공업을 가지지 못 한 채 계속 락후한 처지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개 나라에서 자체의 요구에 적응하게 경제 건설을 주동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도 없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

생산의 자연 경제적 조건과 전통이란 결코 고정 불변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과학과 기술, 생산의 발전에 의하여 개변시킬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더욱더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을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만들며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부들을 동원 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힘을 배가할 수 있다.

수익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타산함과 동시에 인민 경제의 전반적 견지에서 보아야 하며 또한 목전의 수익성을 타산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견지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만일 수익성에 대하여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도대체 어떠한 새로운 공업 부문도 창설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전반적 인민 경제의 수익성 우에 올려 세우며 목전의 수익성을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리익의 우에 올려 세우는 것은 장사'군식 타산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유해로운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 내의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호상간의 밀접한 련계와 협조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는 그를 형성하고 있는 매개 단위가 강력할 때 그 위력도 강대해지며 내부적인 경제적 련계도 더욱 심화 발전될 수 있다.

만일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의 민족 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지 못 하여 확고한 자립성을 보장하지 못 하고 독자적인 자기의 역할을 놀지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되며 이는 결국 전일체로서의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가 다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기의 자립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기초에서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원만히 움직이며 자기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립적 민족 경제가 있어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협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나라들 간의 경제적 원조와 동지적 협조 관계를 더욱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실상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경제적 협조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국제적 협조의 리익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원만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된다.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경제적 련계와 협조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남김 없이 자체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폐쇄적인 경제》 (《아브따리끼야》)라거니 사회주의 체계로부터의 《고립화》의 길로 나간다거니 지어는 《민족주의》라는 따위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폐쇄적인 경제》니 《고립된 경제》니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있지도 않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부족한 것은 형제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해결하며 동시에 형제 나라들에 없거나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들과 제품들을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투쟁해 나아가야 한다. 형제 나라들 호상 간의 경제적 협조는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데 돌려져야 하며 생산력 발전의 소여 단계에서 모든 나라가 다 유무 상통하여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형제 나라들이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 사회주의 공동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 있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립적 민족 경제를 튼튼히 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호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만 매개 나라의 경제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고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매개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족적 리익과 국제

적 리익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제도와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투쟁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정치적 자주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인민 생활은 어떻게 향상되여 가는가를 주의 깊게 바라 보고 있다.

특히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앞에는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며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며 완전한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가면 밑에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화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 나라 인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들과 거의 같은 처지에 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 길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긴밀한 경제적 협조 하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확립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선 민족들이 어떻게 진정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행복한 살림살이를 꾸며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경제 건설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제국주의 억압과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수억만 인민들을 사회주의 편에 끌어 들이는 거대한 힘으로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인민은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넘겨 받았으며 기술 문명으로부터 뒤떨어져 있었다.

해방 후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조국이 량단된 결과 경제의 편파성은 더욱 가중되였으며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인민 경제는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 되였으며 우리는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편파성과 락후성을 청산해야 하였고, 인민 생활을 하루 속히 안정 향상시켜야 하였으며 부강하고 통일된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의 공고한 경제적 지반을 닦아야 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선 혁명의 승패를 규정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것이 없이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살수도 없는 그런 사활적 문제였다.

력사적으로 경제와 문화가 락후하였고 민족 간부가 부족하였으며 경제 건설의 경험이 없었던 형편에서 자립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락후하고 무력하였던 탓으로 외래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고 모욕 당하고 천대받던 쓰라린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겯고 나아갈 수 있는 독립되고 힘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형제 나라 인민들과 손을 맞잡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하여 일관하게 이 로선을 견지하였으며 완강하게 실천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는 정신으로 자체의 힘과 국내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극히 짧은 기간에 자립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여 놓았다.

생활은 우리 당이 내세웠고 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오늘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위력을 과시하여 주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위대한 힘은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업은 전후 기간(1954—1962년)에 년 평균 33.6%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196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나라 공업은 해방 후 첫 10 년간(1946—1955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특히 자립 경제 건설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중공업 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1954—1962 년 간에 우리 나라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22배로 장성하였으며 1962년에 그 생산액은 해방 초기인 1946년에 비하여 145배에 달하였다.

중공업의 지원 하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1962년에 알곡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하여 근 2배로 장성하였으며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자립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퇴치되였으며 나라의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946년에 공업과 농업 총 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였는데 1960년에는 그것이 71%에 달하였다. 과거에 가장 락후하였던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제고되였으며 공업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가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였다.

이제는 우리가 제 발로 걸어 갈 수 있게 되였으며 제 힘으로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였으며 자체로 대규모적인 발전소, 화학 공장, 야금 공장 등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상점망을 우리의 생산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였으며 일용 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인민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성과적 건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놓았다.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북반부의 현실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만이 민족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오직 이 길이 진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간섭과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며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을 성취하려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형제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으로 유무 상통할 수 있게 되였으며 호상 협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 기지를 철벽 같이 다짐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믿음직히 지키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나라 인민들과의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킬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위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1963년 6월 12일 로동 신문)

자주 자립은 갱생의 길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는 것이 기적》으로 된 사상 최악의 민생고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상승》하였다고 개탄하면서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자립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값 비싼 대'가를 지불한 지난 18년간의 고통스러운 생활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가일층 심화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기아와 빈궁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수백만 동포 형제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하게 되였으며 래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길을 찾아 방황하게 되였다.

무엇이 이 커다란 민족적 재난을 빚어 내게 하고 있는가?

왜 날이 갈수록 살기는 더 어려워만 가는가.

고통 받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벌써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얻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한때 리 승만 《정권》의 교체에 기대를 걸어 보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4월 인민 봉기에 의하여 리 승만 《정권》이 타도된 이후에도 이미 《정권》은 여러번 교체되였으나 사태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 악화의 일로를 걸었다.

여기서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틀어 쥐고 있는 것은 남조선 《정권》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 《정권》에 불과한 남조선 《정권》의 이러저러한 교체만으로 사태가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니 《친선》이니 하는 가면 하에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괴뢰 정부를 조작해 놓고 그것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는 신 식민주의의 교활한 수법에 의하여 남조선을 철저하게 예속시켰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정치적 지배권과 군사적 통수권과 일체의 경제 명맥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쥐게 되였다.

만약 남조선 위정자들이 조금이라도 민족적 책임감과 량심이 있었다면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예속을 반대하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

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민 대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을 더욱더 깊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는 길을 택하였다.

그러니 침략자들과 야합한 그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고 민족적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망국적인 외세 의존 정책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의 재물로 제공하였으며 남조선 땅을 오늘과 같은 파멸의 구렁에 몰아 넣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미몽에서 깨여나지 않고 계속 외세 의존을 정당화하며 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는 것이 당연하며 심지어 마치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의 《원조》의 《더분》에 살아 가고 있다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허울 좋은 《원조》로 인하여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완전히 예속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전대 미문의 불행을 겪게 되였던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존하며 외세에 추종하는 길은 치욕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다.

이것은 우선 전면적으로 파괴 몰락된 남조선 경제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자선가》로 가장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원조》의 미명 하에 남조선 경제의 악랄한 파괴자로 등장하였으며 완전한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 상륙한 그 즉시로 남북 간에 장벽을 막아 놓고 남북 사이의 경제적 련계를 단절케 함으로써 원래 락후한 남조선 경제를 북조선의 공업 지대와 분리시켜 고립 무원한 상태에 빠뜨려 버렸다.

남조선 경제에 이러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난관을 리용하여 《구호 물자 공급》의 미명 하에 전후에 체화된 방대한 잉여 상품들을 대량적으로 남조선에 투입시켜 남조선 경제를 철두철미 예속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남조선 시장은 홍수와 같이 밀려 드는 이 잉여 상품으로 범람하게 되였다.

해방 후 1948년까지 단 3년 간에 남조선에 투입된 미국 잉여 소비 상품만 하여도 그것은 실로 5억 딸라에 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잉여 상품들이 남조선에 필요하거나 말거나 전혀 문제로도 삼지 않았으며 오직 미국 독점들의 식민지 초과 리윤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 그들의 안중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이 남조선에 투입한 5억 딸라의 상품은 1억 7천만 딸라의 식료품, 4천만 딸라의 피복류를 비롯하여 거의 전부가 완제품이였는바 그 중에는 42만톤의 맥류, 각종 주류를 비롯하여 칸디, 통졸임, 칠면조, 껌으로부터 담배, 성냥, 군복, 디디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식료품과 일용 잡화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조선 시장을 독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 《군정》을 통하여 1할 미만의 저률 관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미국 상인들의 잉여 소비 상품 투매를 더욱 조장시켰다.

이리하여 남조선 시장에 밀려든 미국제 소비 상품들은 마침내 취약한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째 압살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조선 경제는 첫 수년 간에 이미 파괴되고 말았다.

1947년에 남조선의 공장 수는 해방 전의 1만 65 개로부터 4천 500 개로 감소되였으며 1948년의 공업 생산액은 1940년에 비하여 80%나 격감되였다.

미국제 식료 가공품과 군복을 비롯한 각종 의류 직물의 범람으로 원래 보잘 것 없던 공업 부문에서 식료품 공업은 8.7%로, 방직 공업은 35.1%로 떨어졌으며 원자재 공급이 단절된 기계 공업은 24.4%로, 금속 공업은 45.1%로, 화학 공업은 49.4%로,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은 14.1%로 각각 생산이 저하되였다.

비료 공급의 결여와 미국 잉여 량곡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1946년에 이미 미곡의 정당 수확고는 해방전에 비하여 15.6%가 감소되고 미곡 생산량은 12.2%나 감소되였으며 특히 1947년에 와서 맥류 생산은 54.6%로, 잡곡은 58.1%로, 섬유 작물 생산은 37.7%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제의 경제적 침략의 서막에 불과한 것이며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전제를 조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조》를 공간으로 하는 미제의 남조선 경제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은 1949년 이후부터 더욱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으며 더욱 로골적인 양상을 띠게 되였다.

1948년 12월 소위 《한미 원조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미명 하에 무려 100여억 딸라의 군사 장비와 잉여 상품을 남조선에 투입함으로써 남조선을 더욱 철저히 자기들에게 예속시키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선 《원조》의 구실 하에 남조선 경제를 전면적으로 자기 수중에 장악할 수 있는 지배 체계를 수립하고 그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각종 《협정》들을 괴뢰 정권에 강요하였다.

이 기간에 미국과 남조선 《정권》간에 조작된 각종 《협정》들은 악명 높은 소위 《한미 경제 및 원조 협정》, 《대한 민국과 통일 사령부 간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 《경제 개전과 재정 안정

에 관한 협약》 등을 비롯하여 무려 10여 개에 달하는바 이 모든 자기 문건들에 의하여 남조선 경제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 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소위 《법적 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남조선 지배층은 미국 정부에 남조선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무제한한 감독권을 넘겨 주었으며 미국 독점 자본의 침입에 자유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일체 재정 경제 계획과 활동은 미제의 사전 《동의》와 《검토》와 《승인》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침략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략탈하고 관리할 《특권》이 부여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남조선 경제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방대한 기구 체계를 조작하고 경제 명맥의 모든 고리에 침투하여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남조선 경제의 모든 환절을 통제 감독하고 있는 미국 관리들의 인원수가 실로 괴뢰 정부의 경제 관계 부서 전체 인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남조선 경제에 대한 그들의 지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사실 상에 있어서 미국 정부 대표 기관으로서 《원조》를 관리하고 있는 《주한 미 경제 협조처》와 그 산하 미국 《고문단》들은 남조선 경제의 총체적인 관리자들이다.

그러므로 괴뢰들의 재정 경제 기관들과 부서들은 상전의 지시에 의하여 그가 제시하는 정책과 《계획》을 《통과》시키며 그 집행을 대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기구 체계에 의거하여 《원조》 물자와 그의 판매 대금으로 이루어지는 《대충 자금》을 자기들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두고 그것을 필요한 고리에 투하하여 그 부문 전반을 장악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되는 남조선의 재정 금융 체계는 바로 미제의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되였다.

미제는 우선 자기들의 전’적인 관리 하에 있는 《대충 자금》 전체를 괴뢰 정부의 예산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정부》 재정 예산 자체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틀어 쥐고 그의 편성과 집행의 전 과정을 지휘 감독하면서 남조선 《정권》의 재정 경제 활동 전반을 좌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자기들의 《원조》 자금을 괴뢰 정부의 예산 체계를 통하여 남조선의 은행과 금융 기관에 융자금으로서 투자하여 남조선 금융 기관의 대부 활동을 틀어 쥐고 모든 경제 기관들과 기업체들의 자금을 통제 감독하면서 남조선의 생산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에 배당된 《원조》 딸라는 물론 괴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체 외화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남조선의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괴뢰 정부는 미제의 승인 없이는 1 딸라의 외화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화에 의한 일체 수입은 미제의 철저한 통제 하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괴뢰 정부의 무역 계획은 전’적으로 미국 《원조》의 규모와 그의 품종 여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 대외 무역은 미제의 완전한 통제 하에서 수입이 수출의 20 배에 달하는 식민지 교역으로 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남조선 중요 전략 물자 략취와 미국의 잉여 상품 강매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의 모든 부문을 이와 같이 《원조》 자금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 물자의 공급과 분배에 의하여서도 지배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원조》 물자에 의한 경제의 지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을 미국 경제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공업을 완전히 미국의 원료와 자재에 얽어 매여 놓았다.

그들은 미국 잉여 상품 투매 정책과 남조선의 재정 금융 기관들의 융자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국내 자원의 개발을 극력 억제하는 한편 남조선의 공업 구조를 미국의 원자재 소비에 적응하도록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공업은 강재, 목재, 세멘트를 비롯하여 소요되는 중요 원자재의 대부분과 유연탄, 원면, 섬유 원료, 가성 소다 등 필요한 원료의 거의 전부를 미국에 의존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남조선 공업의 명맥을 완전히 장악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잉여 물자의 공급과 분배를 통하여 그의 생산 활동 전반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남조선 공업은 미국이 배정하는 원료와 자재의 품종에 따라 생산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그 수량에 따라 생산의 규모를 설정해야 하며 그 공급 시기에 따라 생산 기간을 규정해야 하며 그 가격에 따라 생산 가격을 조절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남조선 농업도 역시 사정은 동일하다.

남조선은 원래 풍요한 농업 지대로서 전체 인구의 70%가 농촌 경리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 대한 소위 《원조자》로 자처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기간 남조선에 비료 공장 하나도 제대로 세워 놓지 않고 토양에도 맞지 않는 값비싼 미국 비료를 대량적으로 강매함으로써 남조선 농업을 완전히 미국 비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농업을 의식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식생활마저도 완전히 미국의 잉여 농산물에 얽매여 놓았다.

원래 남조선은 곡창 지대로서 매년 800만 석 이상의 량곡을 외국에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식량 원천을 틀어쥐기 위하여 지난 18년 간 5천여만 석의 잉여 량곡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써 농민 경리를 파탄시키고 농업 생산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결과에 오늘 남조선은 매년 500만～700만 석의 미국 잉여 량곡을 구걸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10여 년간을 통하여 이와 같이 남조선 경제에 대한 철저한 지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남조선을 완전히 미국의 경제적 예속과 독점 하에 들어 가게 만들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형식을 통하여 남조선 재정 예산의 40～50%와 금융 자금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요 원재료 공급의 70～80%와 수입 무역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식량의 25%를 틀어 쥐고 있다.

그리하여 괴뢰 정부의 재정은 미국의 《원조》 딸라에, 공업과 운수는 미국의 원자재와 연료에, 농업은 미국의 비료에 매여 달리고 있으며 인민들은 미국의 잉여 량곡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공급이 일단 중단되기만 하면 남조선의 일체 경제 기능은 마비되고 생산 활동은 중단되며 사람들의 식생활도 위협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여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남조선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예속시킨 기본 목적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경제를 미제의 침략 정책 수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한편 남조선을 독점 시장으로 전변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을 무제한하게 착취, 략탈하는 데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음흉한 목적을 가장 위선적인 《원조》의 간판하에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미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란 침략적이며 탐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조를 받는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나라를 희생으로 하여 미국 자체의 군사력의 강화와 자본의 증식에 복무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이러한 《원조》의 명목 하에 세계 도처에 무수한 침략적 군사 기지망을 펼쳐 놓았으며 동서방에 걸쳐 광대한 식민지 시장을 탈취함으로써 막대한 초과 리윤을 빨아 들였다.

바로 남조선에도 이러한 《원조》가 투하되였다는 것은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

우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미제가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는데 필요한 군사 기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로서 그의 거의 대부분은 직접적 《군사 원조》이다.

이 《원조로써 남조선에서 6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고용 군대가 양성되고 있는바 미제는 여기에서 막대한 리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 군대 한 개 사단을 유지하는 비용이면 괴뢰군 25 개 사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제가 지금까지 년 평균 3억 딸라의 《군사 원조》를 남조선에 지출함으로써 매년 70억 딸라 이상의 군사비를 절약한 것으로 된다.

소위 《경제 원조》에 있어서도 기본 사명은 미국 침략자들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이 국방비의 대부분을 스스로가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체계를 만드는데》 있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괴뢰군 유지비의 념출과 남조선에서 군사 활동 상 필요한 제 조건을 조성하는 데 즉 군사 수송 동력 및 일부 군수품의 생산과 수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미제는 《경제 원조》를 미끼로 하여 《1 딸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로 하여금 5 딸라의 군사비를 소비하게 하라》는 원칙 하에 매년 남조선에서 년간 총 생산액의 3분의 1을 군사적 목적에 충당케 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10 년 간만 하더라도 최소 한도로 계산하여 94억 딸라에 달하는 군사비를 남조선 인민들이 미국의 고용 군대를 위하여 부담한 것으로 된다. 같은 기간에 투하된 20여억 딸라의 《경제 원조》가 근 5 배의 《효과》를 나타낸 셈이다.

남조선의 군사비 부담은 국민소득 중 군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미국의 2.6배, 일본의 15배, 타이의 9.7배에 달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원조》는 우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여 남조선 경제를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복종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미국의 소위 《원조》는 이것만으로써 그 략탈적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미제는 《원조》를 공간으로 하여 실로 막대한 자본의 리윤을 미국 군수 공업 독점체들과 잉여 상품 판매업자들에게 보장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배정된 《원조》 총액의 9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 독점체들이 《원조 물자》로 남조선에 실어 오는 잉여 상품들을 국제 시장 가격보다 평균 20% 이상이나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자본의 증식으로 지난 18 년간 월가의 억만 장

자들은 무제한하게 그 배가 불어난 대신 남조선에서는 몇 백만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온 겨레가 동땅 거지가 되여》 류례 없는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제 운영의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미국 독점들에게 민족 시장을 빼앗긴 데다가 생산된 모든 물적 재부들을 미제의 군사비로 빨리고 미국 독점들의 리윤으로 빨리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에서 과연 그 어떠한 경제 《발전》에 대해서 론의할 여지가 있으며 남조선 경제에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남조선에 남은 것은 오직 만신창이 된 락후한 식민지 경제 뿐이며 전면적인 결핍과 빈궁과 파산의 구렁 속에서 허덕이는 전대미문의 민생고가 남아 있을 뿐이다.

미제 침략군의 군화에 유린되고 미국의 잉여 상품에 억눌리고 감당할 수 없이 방대한 군사적 부담에 질식된 남조선 경제는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여지없이 파괴되여 현존 공장의 50%, 광산의 80%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해방 이후 20만 정보, 파종 면적은 40여만 정보가 축감되고 림야 면적은 40%가 황폐화되였다.

공장들의 평균 로동자 수는 14 명에 불과하고 농가 1 호당 경지 면적은 0.84 정보에 불과하며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심한 령세성과 기술적 락후성이 지배하고 있다.

생산은 전면적으로 위축되여 오늘날 공업, 농업 생산은 8.15 해방 전에 비하여도 3 분의 2에 불과한 형편에 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축감된 남조선에서 오직 늘어가는 것은 일'자리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수백만의 실업자와 절량민뿐이며 경제 생활의 모든 고리들에서 루적되고 있는 적자와 부채뿐이다.

대외 채무가 11억 딸라에 달하고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 부채가 683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체 수의 75%가 고리 부채에 의존하고 있고 로동자들의 생계 적자가 3분의 2를 넘고 있으며 농민들의 부채는 180 억 원에 달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과 매개 주민들의 생계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나 적자와 부채가 지배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극도로 파산된 남조선 경제의 현실이 숨어 있으며 바로 이것이 미국 《원조》에 의존하여 온 지난 18 년 간의 총 결산이다.

남조선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또한 완전히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공동 방위》라는 명목 하에 직접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방위》라는 말은 곧 《침략》이라는 말을 바꾸어 놓은 데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들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진정한 목적은 남조선에서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을 총검으로 탄압하고 자기들의 괴뢰 정권을 조작 유지하면서 고용 군대를 육성 장악하는 한편 전 조선을 병탄하며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 리용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침략 군대가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남조선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주적일 수 없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국 침략군은 모든 권력을 틀어 쥐고 나라의 정사를 좌우하며 조선 인민의 생명 재산과 인권을 제멋 대로 유린 모독하면서 치외 법권을 행사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이 군사적으로 예속되여 있다는 것은 이것만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의 소위 《국군》이라는 것도 역시 완전히 미제에 예속된 고용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주적인 국가라면 응당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권익을 수호하는 자주적인 민족 군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 《국군》은 이러한 민족 군대인 것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자신의 무장력의 연장이며 보충물》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미제 침략군의 《현지 부대》이며 《고용군》이다.

사실상 남조선은 60만 이상의 청장년들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대포'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국군》이 민족의 군대라면 어떻게 미제의 지휘 하에서 같은 동족인 북조선 동포들을 반대할 수 있으며 남조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진압하는 데 동원될 수 있겠는가?

일찌기 매국노들에 의하여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악명 높은 전쟁광인 밴 플리트가 《한국군은 어느 지역에서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이 남조선 《국군》은 미제의 범죄적 침략 전쟁에 끌려 나가 값싼 대포'밥으로 될 수치스러운 운명을 강요 당하고 있다.

남조선 《국군》은 그 지휘 체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통수 하에 있는 식민지 군대이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소위 《한미 호상 방위 조약》, 《한미 군사 원조 협정》, 《한미 회담 의사록》 등 일련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조약》들에 의하여 남조선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완전히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은 《국군》의 병력 규모, 륙해공군의

병력 구성 및 그 조직 편성, 징병, 훈련, 보급 및 군사 예산에 이르기까지 일체 군사 문제를 통제 지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직속 하에 《3 군 합동 군사 고문단》을 설치하고 괴뢰 정부 《국방부》와 륙해공군 참모부로부터 각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군사 고문》을 배치하고 《국군》 내부 생활을 완전히 지휘 통제하고 있다.

이리하여 《국군》은 무기, 탄약,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미제의 승인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괴뢰 정부의 전 《주미 대사》 량 유찬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우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쓸 모든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2 일 간 사용할 분량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방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

이처럼 미국 침략자들의 완전한 도구로 전락된 《국군》은 양키들의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비인간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현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 하우스가 1979년에 소위 《고문단》 단장으로서 남조선에 기어들 때 그와 동승한 남조선 《국군》 고급 장교 2 명을 객실에서 쫓아 내고 그 자리에 자기의 개를 태워 왔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바로 이와 같이 예속되여 있고 천대 받고 있기 때문에 각성된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이 《국군》 강제 징집을 반대하고 수 많은 《국군》 장병들이 병영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남조선은 또한 문화적으로도 철저히 예속되여 있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은 《반공》 숭미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도가니로 전락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 전통과 조상 전래의 아름다운 생활 풍습은 유린 말살되고 있으며 자주 독립이 고상한 민족 정신과 민족 주체 의식은 비굴한 사대주의 사상과 민족 허무주의로 대치되고 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애국주의 전통은 버림 받고 있으며 극단의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대대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 의식과 계급 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용이하게 실현할 목적 밑에 남조선에 강요하고 있는 반동적 문화 정책의 결과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양키 《문화적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공보원》과 《주한 미 경제 협조처 교육국》은 수백명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괴뢰 《문교부》 및 《공보부》와 그 산하 교육, 문화, 과학 기관들에 각종 《고문단》과 《시찰단》을 침투시켜 사회 문화 정책의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남조선을 문화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특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협정》들이 체결되였다.

영화와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침투의 중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영화 제작소와 수 많은 영사기를 가지고 직접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한편 남조선에서 수입하는 외국 영화의 80% 이상을 미국 영화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리하여 매년 110여 편씩 수입되는 퇴폐적인 미국 영화는 남조선의 극장과 영화관을 독점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수 많은 방송국들을 직접 운영하며 각종 정기 간행물과 전시물들을 직접 발간 배포하면서 《반공》 숭미 사상을 주입시키고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전파하고 있으며 매년 50만부의 각종 반동 서적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대학 교재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남조선의 모든 신문, 방송들과 각급 교육 기관들과 종교 단체들을 교묘하게 지배 통제하면서 그것들을 《반공》 숭미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대외 정책의 중요 수단》의 하나인 각종 《재단》들은 민간 교육 문화 기관들과 종교 단체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다.

《아세아 재단》, 《록펠러 재단》을 비롯한 이 소위 《재단》들은 《미국의 영향을 확대하며》 《반공의 자발적 의욕을 고취》하며 《민심을 쟁취》하며 《문화 정보》를 수집할 목적 밑에 자금과 자재를 투하하고 《연구 보조비》와 《출판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과학 연구 기관들과 교육, 문화, 출판 기관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다.

전염병 병균의 몇 개 군단의 침입보다 더욱 몸서리 나는 이 모든 가공할 문화적 침식은 《자유》의 이름 아래 미화되고 있으며 남조선 땅을 문'자 그대로 미국식 《깽 문화》의 악취 풍기는 시궁창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들은 유린 말살되고 파괴 류실되고 있으며 민족 문화는 외곡 변조되고 《만보화》하고 있다.

고유한 사회 륜리와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세기적인 미국식 사회 풍조가 범람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는 계속 격증하고 있다.

남조선의 모든 어용 선전 수단들은 더욱 발광적으로 패덕과 패륜, 허무와 절망,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행위들을 '장려하고 있다.

이 《문화적 식민지》의 썩어 빠진 사회에서 버림 받은 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구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오늘 절대 다수 남조선의 지식인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문화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화적인 소지(素地)와 주체성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면서 《깡통 문화》를 배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반 사실은 예속된 처지에서는 민족 문화의 건설은 고사하고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문화 유산을 보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은 경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예속되여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소위 《대한 민국 정부》를 통하여 진행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조선 《정권》은 사실 상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로서만 존재하여 왔으며 미국 출판물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원조 자금의 배당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이다.

남조선에서 서울 주재 미국 대사가 사실 상의 총독으로 되고 있으며 《주한 미 경제 협조처장》이 모든 재정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군사적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

소위 《대한 민국》이란 그 명색뿐, 여기에 그 무슨 《독립》이 있고 《자주》가 있는가? 양키들의 지휘 밑에 수족을 움직이고 있는 남조선 《정권》의 유일한 정책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이며 굴종 뿐이다.

바로 이를 위하여 그들은 수다한 《조약》과 《협정》들을 통하여 남조선의 모든 재부와 권력과 실제적인 지배권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 주었으며 잡다한 각종 《법령》들로써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고 파쑈적인 폭압 정치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위정자들의 외세 의존 정책을 반대하는 어떠한 주장이나 활동도 그것은 곧 가장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미군의 철거와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거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애국적 인민들과 우국 지사들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수십 만의 경찰과 군대를 풀어 놓고 있으며 감옥과 교수대를 확장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자기들의 주구들과 결탁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활무대로 변하였으며 오직 그들의 리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땅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들의 침략의 제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잘 살 수 있겠는가?

예속에서 벗어 나 자주 자립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길을 찾을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 있는 남조선과는 달리 확고하게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걸어 온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은 이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북반부에서는 해방 첫날부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고 민족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원래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았고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국토의 량단으로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가일층 심화된 조건 하에서 이것은 물론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미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3년간의 전쟁에서 입은 헤아릴 수 없이 막심한 피해는 경제와 문화 건설에서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여 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락후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외래 침략자들에게 천대 받고 모욕 당하던 쓰라린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따라 동요 없이 전진하였다.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고 문명한 강력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한 결과 이제는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며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는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간부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축성하였을 뿐 아니라 중공업의 지원 하에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킨 결과이다.

오늘 북조선에는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국내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는 튼튼한 중공업이 갖추어져 있다.

1962년에 북조선에서는 114억 키로 와트시의 전력, 1천 320만 톤의 석탄, 120만 톤 이상의 선철과 립철, 105만 톤의 강철, 78만 톤의 화학 비료, 237만 톤의 세멘트를 생산하였다.

특히 청소한 기계 제작 공업은 각종 정밀 기계들과 자동차, 뜨락또르, 대형 발전기, 수력 타빈, 대형 변압기 등과 같은 대형 기계 및 전기 기관차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발전 설비, 야금 설비, 광산 설비, 화학 설비, 운수 및 건설 기계, 방직 기계, 농기계 등 각종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립적 중공업

에 의거하여 필요한 동력, 연료, 원료, 자재 및 기계 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제 발로 확고히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중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만든 다종다양한 상품으로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였으며 농업에 있어서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가 실현되고 있는 우리의 농촌은 만년 흉풍을 모르게 되였으며 식량을 자급 자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량의 여유를 가지게 되였으며 공예 작물, 과수 및 목축업도 크게 전진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북조선에서는 교육, 과학, 문화, 예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 1958년부터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가 추진되고 있다.

지금 북조선에는 실업자도 없고 류랑인도 없으며 걸인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의식주에 걱정 없이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 받고 무상으로 치료 받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마련된 이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필요한 소비품들을 더욱 풍족하게 생산 공급하며 누구나 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보다 문화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력사적 과업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간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정치적 자주성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어떠한 외적의 침해라도 격퇴하고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위력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결코 북반부 인민들만이 잘 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건설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재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건설 성과가 남조선의 파국을 구원하는 데 리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일하였으며 또 일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지난 18년간 남북 조선이 걸어 온 상반되는 두 길이 각각 무엇을 가져 왔는가를 똑똑히 보고 있으며 그로부터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자립해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찾아 내고 있는 것이다.

자주 자립에 대한 요구는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 민족적 념원에 부합되는 애국적인 요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 반드시 이 요구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인정한다.

남조선이 자주 자립하기 위하여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해야 하며 남북의 합작을 실현하고 전 민족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

북조선의 공업 지대와 남조선의 농업 지대를 련결시키며 전국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남북 조선의 경제력을 동원한다면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농업 지대인 남조선에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파탄된 경제를 수습하며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절박한 과업이다.

외세와 인연을 끊고 남북이 합작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대대적인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진행하고 대규모의 개간 사업을 추진시키며 현대적인 농기계를 도입하는 등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어 줄 것이며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식량의 여유를 조성할 광활한 전망을 열어 줄 것이다.

남북의 합작은 또한 빈사의 위기에 있는 남조선 공업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게 될 것이며 그를 급속히 복구 재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남조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원료 자재 및 동력의 부족을 타개하여 줄 것이며 민족 공업을 복구 발전 시킬 제반 조건을 마련하여 줄 것이다.

나라의 공업화는 자립 경제 건설의 기초로 된다.

남북이 합작하여 남조선의 자원을 개발하고 북조선의 공업 토대를 리용한다면 남조선에서도 점차 연료, 동력 공업,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부문들과 경공업 부문을 창설하고 공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이 합작하고 호상 협조한다면 남조선 경제를 소생시키고 수백만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민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외세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내부 력량을 단합하고 동원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애국 애민의 길이며 문제 해결의 가장 옳바른 길이며 현실적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에 가서 더 많은 원조를 구걸해 와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18년 간의 외세 의존이 가져 온 비참한 후과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인가?

또한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자주 자립은 주장하면서도 남북의 합작을 반대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이나 또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는 외세 의존의 테두리 내에서 그 어떤 자주 자립이 가능한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외래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아부 굴종하는 매국노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자주 자립과 외세 의존은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외세 의존이 가져 온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서는 일언 반구도 말하지 않고 남조선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느니, 사람들이 《게으르다》느니 하는 황당한 구실을 들고 나오면서 자주 자립이 곤난하다는 것을 론증해 보려고 애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을 영원히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화 정책을 대변하며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얼빠진 자들의 잠꼬대에 불과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남북 조선을 통하여 무진장한 자연 부원이 있다.

남조선에만도 무연탄, 철광석, 석회석, 중석, 흑연, 동, 연을 비롯한 수 많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으며 수백만 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력 자원이 있으며 동서남 해안에는 백 수십 종에 달하는 어류, 패류, 등의 무진장한 수산 자원이 있다.

예로부터 농업 지대인 남조선은 또한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커다란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근 2백만 정보의 개간 적지가 있다.

여기에 로력 원천은 실업자, 반실업자만 해도 6백여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자원은 개발 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진장한 원료를 두어 두고서도 원료난에 허덕이며 원료를 수입하고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자원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발 리용을 억제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화 정책에 있다.

어떤 자가 감히 영웅적 조선 인민에 대하여,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에 대하여 《게으르다》고 떠벌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남이 던져 주는 빵 쪼각이나 먹고 사는 데 습관된, 자기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과 지혜를 믿지 못 하는 자들의 수치스러운 망발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왜 자주 자립할 수 없겠는가!

어떠한 외세도 배격하고 남북이 합작하여 전 민족의 력량을 동원한다면 남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온 겨레가 능히 자주 자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 침략자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남조선에 대한 그들의 지배 체계를 파괴하여야 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일체 불평등 《조약》들과 예속적 《협정》들을 페기하고 그들에 대한 일체 특혜 조치를 페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군》의 지휘 통수권을 탈환하여야 하며 《국군》과 기타 모든 부문에 배치된 미국 《고문》들을 축출하여야 한다.

《국군》은 더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고용군이 되지 말아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의 군대가 되여야 한다.

남조선은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퇴페적인 양키 문화를 쓸어 버리고 건전한 민족 문화를 개화 발전시켜야 하며 사대주의 사상을 뿌리 뽑고 확고한 민족 주체 의식과 애국주의 사상을 배양하며 조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아갈 우리의 귀중한 후대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교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완전한 자주권을 쟁취하고 완전한 자립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전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민족적 재난을 극복하려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정부만이 자주 자립에 대한 인민의 요구와 민족적 념원에 부합되는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남조선은 계속 외세에 매여 달려 멸망의 길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광명의 새 날을 맞받아 나갈 것이냐? 하는 두갈래 길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러나 문제는 결심하고 일떠서서 실천하는 데 달려 있다.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 한다면 능히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외세의 예속에서 벗어 나 자주 자립할 때에 비로소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살 길이 열릴 것이며 3천만 인민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것이다. 외세 의존은 파멸의 길이며 자주 자립은 갱생의 길이다.

(1963년 10월 26일 로동 신문)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

1958년 11월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연설이 있은 때로부터 5 년이 지나갔다.

이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시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내용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강령적 문헌으로 된다.

이것은 각 승리한 사회주의 제

도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더욱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였으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에 근거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새로운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지난 기간 근로자들을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사실로써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에 와서 우리는 우리 당이 근로 대중을 낡은 사상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려는 새로운 기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이며 인간 개조의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생산과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현대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공산주의 교양—이것은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으로 무장시켜 새 형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생산력을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 최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산주의란, 사람들이 낡은 사상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산해진미를 갖춘 식탁에 모여 앉은 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교양의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천명한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여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 적응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며 매개 나라의 력사적 전통과 현실에 부합되게 그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항상 사상 사업에 제1 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자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은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결부시키며,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를 기본 방법으로 삼으며, 생산 단위를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경험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된 조건 하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지체 없이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사회주의 사회의 그 어떤 성숙된 발전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며 사람들의 물질 생활 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져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대중의 혁명성을 믿지 않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그들의 억제할 수 없는 지향을 보지 않는 립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계급 교양은 모든 사상 교양 사업의 근저에 놓여 있어야 한다.

계급 교양이란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그의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근로자들을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킨다는 것, 이것은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전 세계에서 온갖 착취 제도와 계급을 청산하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혁명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계급 의식은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의 기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힘의 원동력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급 의식—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 정신은 그들의 모든 행동, 도덕, 사상의 근저에

확고히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각과 혁명 정신을 떠나서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새 형의 인간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 사업은 반드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데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상 교양, 도덕 교양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계급 교양을 홀시하고 로동에 대한 교양, 집단주의 교양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여도 그것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계급 교양을 배제하면서 로동에 대한 교양을 《사상 사업의 심장》이요 《척주》요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계급 의식이 확고할 때에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사회의 리익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높은 계급 의식을 소유할 때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공세에 대처하여 부르죠아 사상과의 효과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적대 사상의 침습을 격파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적들이 근로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며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높이는 것은 적대 사상의 침습을 격파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으로 된다.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긴절한 과업이다

현 시기 국제 혁명 발전의 객관적 정세와 사회주의 나라들 내부의 사태 발전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그것은 우선 현 시기 국제적 규모에서 전개되고 있는 계급 투쟁의 치렬성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대립되여 있는 두 사회 체계의 투쟁의 시대》(1960년 모스크바 성명)이며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다.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자본주의를 청산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력사 무대에서 물러 서려 하지 않으며 아직도 위험한 적으로 남아 있다. 그들은 멸망이 가까와 올수록 더욱더 광포하고 악랄하게 사회주의 진영과 피압박 인민들을 반대하여 책동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치렬하다.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책동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전쟁 준비 정책을 강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혁명 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데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반공산주의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 복구를 망상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 속에 부르죠아 사상과 서방의 퇴폐적 생활 양식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주요한 지주로 삼고 있다.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수정주의의 기본 립장은 계급 협조이며 제국주의·부르죠아지에 복무하는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백방으로 미화 분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혁명 력량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악한 책동을 은폐하며 조장하고 있다.

그들은 계급적 립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분렬을 조성하며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 반제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리용하여 자기의 흉악한 정체를 위장하고 반혁명 전략을 교활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 혁명과 반혁명 간의 투쟁은 극히 복잡하고 첨예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현대 수정주의를 극복하며 반제 투쟁, 혁명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 대중을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세계 혁명의 장구한 행정에서는 사람들 속에서 낡은 사상이 소생될 수 있다는 사정이 또한 계급 교양을 강화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첨예하게 진행될 것이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장기적이고 치렬한 계급 투쟁을 거쳐서만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 투쟁 행정에서는 온갖 시련과 우여 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판가리 싸움이 앞으로 더욱 치렬해질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의 혁명적 의식이 확고하지 않고 낡은 사상이 철저히 극복되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평온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들 속에는 혁명에 대한 권태증이 생길 수 있고 공산주의 위업을 배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력사는 장기적인 혁명의 시련

앞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한 각종 기회주의자들, 타락 분자들, 변절자들이 나타났으며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장기적인 세계 혁명의 시련을 이겨 내지 못 하고 혁명을 포기한 자들이며 제국주의자들 앞에 투항한 자들이다.

사람들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싸움이 앞으로 오래 동안 계속되는 행정에서 이러한 변절자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장구한 행정에서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사상이 점차 희박해지고 소소유자적, 부르죠아 자유주의적 사상이 소생될 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오랜 기간 남아 있게 된다.

수천년에 걸친 계급 사회에서 형성되였으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된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물질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여 결코 저절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사람들을 공산주의 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사상적 침습이 있는 조건하에서 그것은 오히려 소생되고 조장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낡은 사상이 조장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위협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관습과 습성, 전통과 편견은 사회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이것들이 가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존립 자체에 대한 커다란 위험을 조성한다.》(쓰딸린)

근로자들의 높은 계급 의식은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는 순탄한 환경에서나 혁명이 간고한 환경에서나 변함 없이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고 끝까지 투쟁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세대가 바뀌여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장구한 과정에서는 과거 사회에서 계급적 원쑤들의 압박과 착취를 당한 세대들을 대신하여 점차 새 세대들이 자라 나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 세대들은 부모들이 겪은 그 압박과 착취를 체험하지 못 하였으며 착취자들을 격멸하는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지 못 하였으며 나라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부유한 생활을 위한 토대를 닦는 간고한 투쟁에도 참가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 자본가, 지주 등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 수 없으며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을 개념으로써만 알고 있다.

이들에게는 체계적이며 생동한 계급 교양이 요구된다.

레닌은 청소년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지주와 자본가의 압박 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때,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개시한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자기가 몸소 느낀 때, 또 그들이 전취한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그 투쟁을 계속하는 데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며 지주와 자본가가 얼마나 광포한 적인가를 보는 때—그 때에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공산주의자로서 교양되는 것이다.》**

세계 혁명이 오래 끌면 끌수록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 모든 것은 근로자들과 후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혁명 력량을 정치 사상적으로 꾸리는 결정적 담보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필수 조건이며 혁명 수행에서 사활적 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 준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세계에 아직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일부 나라들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국토의 절반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한 나라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는 날카롭게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조성된 혁명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이것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국토의 한 부분에서만 혁명이 승리하고 전국적으로 승리하지 못 한 나라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와 세계 혁명이 완수되지 못 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계급 교양에 대하는 태도는 혁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준다

계급 교양—이것은 사상 분야

에서의 심각한 계급 투쟁이다.

이것은 부르조아적 세계관과 사고 방식을 극복하고 로동 계급의 세계관과 그의 계급적 립장의 승리를 이룩하는 과정이며 각종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과정이다.

사상 교양, 사상 투쟁의 그 어떤 약화도 그것은 곧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을 증대시키며 그의 침습에 길을 열어 준다.

사람들의 사상 생활에는 진공 상태란 있을 수 없다.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냐? 거기에는 중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온갖 경시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온갖 일탈은 동시에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의미한다.》

레닌의 이 교시의 정당성은 오늘 사회주의 하에서 더욱더 뚜렷이 증시되고 있다.

부르조아 사상과 인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경시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데서는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부르조아적 사조와 생활 양식이 침투되고 있으며 날로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데서는 부르조아 서방에 대한 환상적인 동경과 무비판적 모방, 퇴폐적 기풍이 수많은 젊은 세대들과 인테리들을 휩쓸고 있으며 혁명과 투쟁,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하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리익과 오늘의 향락에만 급급하는 개인주의적, 향락주의적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 나고 있다.

부르조아적 사조와 생활 양식이 침투되고 조장되는 것, 이는 곧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의미한다. 나라의 《자유주의화》, 이것은 사회의 사상 정치 생활, 물질 생활에서 부르조아적 관계의 조장,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의 약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며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양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나라의 《자유주의화》가 조장된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계급적 견지에서 보지 못하게 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거부하는 데로 나가게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헌신하지 않게 된다.

나라의 《자유주의화》,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소위 《평화적 진화》를 의미한다.

《평화적 진화》는 유고슬라비야의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점진적인 자본주의 복구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 반혁명적 폭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배제하면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떠드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진영은 모든 물질적 수단들과 함께 근로 대중의 사상적 무장이 튼튼할 때에만 굳건히 보위될 수 있으며 공고 발전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세계 혁명도 가일층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 여하, 혁명을 끝까지 하자는가, 안 하자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을 거부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그 어떤 민주주의의 발양으로 찬미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고 량자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반맑스주의적 견해로써 대중을 중독시키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핵심이며 진수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레닌이 천명한 바와 같이 모든 독재와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띠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건설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국가가 조락하는 때 이르기까지에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예견한 일이 없다.

사회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더는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혁명적 규률을 약화시키며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은 오직 반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줄 따름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맑스주의적 견해들을 철저히 폭로하고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을 계급 의식으로, 혁명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현 시기 계급 교양에서 주요한 문제들

오늘 계급 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문제이다.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피압박 계급들과 인민들의 해방을 달성함에 있어서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은 제국주의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모든 기회와 수단을 다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도발 정책을 폭로하며 대중이 제국주

외에 대한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근로자들 특히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그의 악랄성, 그리고 제국주의의 동맹자인 지주, 자본가들과 그 제도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오늘날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진보적 인류의 최대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켜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 투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으며 평화 투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두 제도 간의 평화적 공존은 사상 투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인민 대중을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제국주의와의 사상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염소가 아니고 승냥이다.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국주의를 욕하지 말고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하며, 마치도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원하는듯이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그들의 《리성》과 《선의》에 의하여, 그들과의 타협에 의하여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각성을 마비시키고 그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는 것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대중을 교양할 대신에 핵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류 멸망설》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인민들을 비관에 빠지게 하고 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핵 공갈과 침략 책동에 매여 달리도록 추동하는 것으로 된다.

현대적 과학 기술의 발전, 열핵 무기의 출현과 더불어 무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였으며 핵 전쟁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력사에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부인하며 전쟁의 정치적,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며 력사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무기는 그것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으며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력사 발전의 거류를 가로막을 수는 결코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핵 무기를 소유하고 핵 공갈을 일삼고 있으나 날로 더욱 궁지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며 날로 혁명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더욱더 큰 승리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인민 대중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핵 공갈에 매여 달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며 공산주의를 향한 진보적 인류의 전진 운동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필승의 신념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성, 악랄성 뿐만 아니라 그의 부패성, 취약성에 대하여, 그것이 진흙으로 된 다리로 서 있는 거상에 불과하다는 데 대하여 철저히 파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념과 그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침략 앞에서 대중을 무장 해제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반제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동시에 우리 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거기에 있다. 그것은 또한 생산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부단히 장성하며 사회의 모든 물질적 문화적 부가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돌려지는 데 있다.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 제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우월성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근본적 우월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쟁취되였는가를 인식할 때에만 사람들은 계급적 견지에 튼튼히 설 수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이 제도를 고수하려는 열렬한 투쟁 정신을 견지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이렇게 하지 않고 속물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수정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무원칙하게 자본주의 나라와 대비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대치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 근로자들과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단순히 로임만을 가지고 대비할 수 없으며 또 대비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수입 이외에 막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은 수다한 계층으로 나뉘여져 있으며 자기 로동의 결과에서 극히 작은 몫을 로임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 이러저러하게 착취 당하고 있다. 또한 거기에는 항시적으로 수 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취업 로동자들도 래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계급적 견지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비하여

야 하며 두 제도하에서의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문제는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이 속물적으로 진행될 때 근로자들이 계급적 견지에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할 줄 모르고 다만 목전의 물질적 생활에만 관심하게 되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응당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이 제도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우리 나라 남반부와 북반부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근로자들은 상반되는 두 제도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맑스-레닌주의 당들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다.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민들을 해방하고 공산주의에로 이끌어야 할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은 부단한 혁명 과정이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고 전국에서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며 세계에서 피압박 인민들이 다 해방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있다.

우리는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도달된 성과에 만족하여서는 안 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중도에서 주저 앉을 권리가 없다.

우리는 앉아서 제국주의자들, 계급적 원쑤들의 멸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그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공산주의 승리를 달성하기까지 계속 전진하고 계속 투쟁하기 위해서는 안일성과 권태증을 철저히 배격하고 항상 긴장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견지하도록 대중을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하며 달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고 한 위대한 레닌의 교시를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만 자족하지 말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부화와 안일을 배격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다.》(김 일성)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도덕 교양이다.

로동 계급의 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생활 전통과 인습에 있어서까지 온갖 낡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인적 리해 타산과 금전 관계에 기초한 생활 관습과 도덕, 퇴폐적인 생활 기풍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것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는 동시에 그것이 내부에서 소생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커다란 후과를 끼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낡은 도덕과 관습에 대치하여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며 생활하는 새로운 인간 관계, 새로운 도덕 기풍이 전 사회에서 승리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널리 발현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을 구감으로 하여 공산주의 도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도덕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자면 그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근로 대중과 청소년들을 열렬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함이 없이는 매개 나라에서 승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세계 혁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근로자들의 열렬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하고 자기 나라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빨리,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 인민 자신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에서 제기되는 혁명 과업들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주견과 철저한 책임감,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견이 있고 책임감과 민족적 자부심이 있을 때라야만 사람들은 애국주의를 행동과 실천에서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조건 하에서 애국주의를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 수 없고 국제주의를 떠나서는 애국주의도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오늘 그의 통일과 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친선 단결과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제재주의 원칙

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상으로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리간시키며 지어는 이 나라들의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까지 감행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진정한 국제주의는 모든 인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우선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다른 나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위력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력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들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실현하여야 하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의 무조건적 의무라는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곧 공동의 원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의 정신으로, 그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려는 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으로 된다. 계급 교양은 가장 중요한 국제주의 교양으로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계급적 원쑤와의 비타협적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떠나서 국제주의 교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며 자신이 혁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혁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정신으로 대중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응당 대중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하여야 하며 그들이 혁명의 기치를 견지하고 자기 나라에서와 전 세계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 ※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앞으로도 근로자들과 후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계급 의식과 혁명적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일체 부르죠아 사상과 수정주의의 잔습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것이며 세계 혁명 앞에서 지닌 우리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근로자》 1963년 20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더욱 심각하여 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멀리 리탈하여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깊이 굴러 떨어지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과 평화 위업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 속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적들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생활력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반대하며 그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절박한 공동의 투쟁 과업이라고 인정한다.

1.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사회주의는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구라파와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며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바로 문 앞에 있는 섬 나라 꾸바에서도 승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구의 3 분의 1, 지구 륙지의 4 분의 1, 세계 공업 생산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서 나아가고 있다.

세계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위대한 승리이다.

국제 로동 계급이 자본의 철쇄를 끊고 쟁취한 이와 같은 전 세계사적 승리는 결코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허다한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뚫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원쑤들과의 결사적 투쟁을 통하여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였다.

자본가들과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자기들의 가장 무서운 원쑤로 선포하였으며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진보적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온갖 흉악한 원쑤들을 반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투쟁을 담당하여 왔다.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때로는 뼈아픈 실패도 하였으며 고통스러운 퇴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투항주의자들과 변절자들이 나타나 혁명 대렬을 흐리게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실패에서 락심하지도 않고 승리에 도취하지도 않았으며 비겁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건 말건 계속 혁명의 붉은 기치를 고수하였다.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손에 무기를 들고, 때로는 철창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불사조와 같이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본의 진지를 끊임 없이 공격하였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위대한 혁명적 력량으로 자라 났다.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 계급이 자기의 주권을 수립하였던 파리 콤뮨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한 파리 로동 계급의 '70여 일간의 결사적 투쟁 끝에 실패로 돌아 갔다. 콤뮨은 야만적 백색 테로에 의하여 피바다 속에 잠겼다. 그러나 파리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 업적과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써 얻은 고귀한 교훈은 국제 로동 계급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초의 위대한 승리는 레닌의 령도 밑에 로씨야의 로동 계급에 의하여 이룩 되였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상으로부터 산 현실로 전환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의 강력한 보루를 가지게 되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궐기시켰으며 오래 동안 **《력사 밖에서 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 수억만》** (레닌) <1> 동방 인민들을 각성시켰다. 혁명적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은 동방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과 결합되여 제국주의에 더욱더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교살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쏘련 인민은 레닌 당의 령도 밑에 내외의 원쑤들의 간악한 공격을 물리치고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나아갔다. 원쑤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은 위대한 혁명의 기치—레닌주의 기치 밑에 강대한 력량으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국제 자본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주의—파시즘을 력사 무대에 등장시켰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 쏘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격대로 내몰았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혁명과 반혁명 간의 치렬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반파쑈 전선의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흉악한 원쑤들과의 결전에서 고귀한 피를 흘렸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피압박 근로 대중을 령도하여 장구한 기간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략탈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영웅적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부 군국주의자들은 완전히 격파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말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국제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근로 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분쇄되였으며 세계의 많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였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진영에 대치하는 강대한 진영을 형성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력사적인 대사변으로 된다. 이 때로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반석 같은 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력량은 점차 인류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인류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과 국제 자본가 계급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의 결과이다. 그것은 100여 년 동안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온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총화이며 장구한 기간에 걸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근로 대중의 피어린 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여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그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그 어떤 국제적 조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쁠럭》도 아니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 발전 과정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승리한 로동 계급들은 자기들에게 고유한 계급적 련대성의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하나의 진영에로 결합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이것은 국제적인 사회주의적 련대성의 긴밀한 뉴대와 공통적인 리해 관계 및 목적의 통일로 하여 단합되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인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협동체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2>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새 형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의 계급적 동맹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은 이미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이 진영에 망라된 형제 국가 인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평화 위업과 혁명 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통일되고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을 결속시키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은 전반적 국제 정세를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킨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모든 반동 세력들을 전률케 한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려는 음흉한 술책에 더욱더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리간시키고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며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다. 찌또 도당은 수정주의에 떨어진 첫날부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을 계통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오늘 일부 사람들은 찌또 도당을 적극 비호하면서 점점 더 사회주의 진영에 혼란을 조성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는 위험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찌또 도당의 책동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제 로동 계급과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그들이 피로써 쟁취하였으며 사수하여 온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2.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은 그 대렬의 통일에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합된 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실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은 공산주의 운동의 힘을 몇 배로 증대시킨다.

단결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로동 계급은 력사 무대에 등장한 첫 시각부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어려운 투쟁에서 자본가 계급을 타승할 수 있었다. 오늘도 사회주의 진영은 통일된 대오로 나아감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사실상 전일적인 대오로,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상 상의 론쟁을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고립시키며 배

제하기 위한 책동들이 감행되고 있다. 군중들과 다른 형제 당들과 국제 단체들까지 동원하여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반대하는 소란스러운 깜빠니야가 전개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혁명적 동지와 계급적 원쑤들을 분별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적들에게는 더욱 접근하고 《친선》과 《호의》를 표시하면서도 도리여 계급적 형제들과 혁명적 동지들에게는 원쑤처럼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형제 당,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뒤통수에 이러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 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등지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의견 상이를 리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떠벌리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기정 사실로 묘사하기에 서두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운명과 세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중한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장구한 투쟁의 력사적 전취물을 옹호하는 것이며 세계 혁명의 기지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의 사회주의 국가나 혹은 사회주의 진영에 망라된 일부 국가들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쏘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시금석으로 평가되였다.

지난 시기 쏘련은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지원하였다. 쏘련은 세계 혁명의 유일한 기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쏘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곧 세계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신성한 국제주의적 행동으로 되였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였다.

암담한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쏘련을 우러러 보았으며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라는 구호 하에 쏘련 인민에 대한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은 13 개의 나라로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쏘련과 함께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같이 국제 혁명 운동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직 <돌격대>가 하나 밖에 없었으며 거의 단독으로 이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물론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오늘에는 전혀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야와 웽그리야에 아르기까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돌격대>들이 출현한 오늘 우리 당은 투쟁하기도 용이하게 되였으며 또한 일도 흥겹게 되고 있다.》<3>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장성됨에 따라 세계 혁명의 기지도 확대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세계 혁명의 기지로 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쏘련과 함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행동으로 된다. 오직 이러한 태도만이 혁명의 승리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세계 혁명을 가일층 추진시키는 길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혁명을 한지 오랜 나라도 있고 오래지 않은 나라도 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혁명을 한지 오랜 나라가 오래지 않은 나라보다 국제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크고 혁명을 먼저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피착취 대중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결코 어느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대표하며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한 나라의 위력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역할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이건 오래지 않은 나라이건, 경제가 발전된 나라이건 뒤떨어진 나라이건 할 것 없이 다 같이 혁명적 립장에서 견결히 노력한다면 자기들이 차지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례컨대 오늘 꾸바는 서반구에서의 첫 사회주의 국가로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민들에게 거

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어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꾸바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단합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저러한 당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가 크며 방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단결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버린다고 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나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별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의 구체적 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한 특정된 나라의 혁명의 성과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가 다 같이 귀중하다.

우리는 국제 로동 운동의 영광스러운 전취물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고 그것을 더욱 반석 같이 다지며 그 토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는 것은 앞날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만약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위력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세계적 깜빠니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국제 반동 세력은 중국 혁명의 승리를 악의에 차서 증오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한짝이 되여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무근거하게 중상 비방하며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실 상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까 놓고 말하여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무슨 사회주의 진영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비단 큰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나라이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은 용허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장구한 혁명 투쟁의 결과에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내여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할 대신에 어제는 한 나라를, 오늘은 다른 나라를, 래일엔 또 그 어떤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가져 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킨다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는가.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것은 그 한 나라에만 관계되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운명과 관계되며 세계 혁명의 운명과 관계되는 근본적 문제이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라도 더 많이 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계속 확대될 것을 념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하물며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를 떼여 내버리려는 행동을 어찌 용허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보다 두 나라가, 12 개 나라보다 13 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일부 사람들은 개별적인 나라들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떼여 버리려고 하는 한편 제멋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치하게 규탄된 찌또 도당과 같은 제국주의의 사환군을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황당한 일이다.

어느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주관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나라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배제하며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 《사회주의 칭호》를 주고 이를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며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어느 한 개인의 롱락물로 될 수 없다.

분렬은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통일은 수호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통일되여야 한다. 이 원칙을 떠나서는 어떠한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물러 나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어떠한 경우에 부닥쳐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혁명의 전진 운동

을 가로막지는 못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일적인 대오로 굳게 단합되여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3.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은 호상 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일한 사상과 공통된 투쟁 목적으로 단합되여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은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본질과 원칙들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선언과 성명은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범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장구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력사적 경험들을 총화하여 형제 당들이 일치하게 내린 결론이다.

바로 이 규범들은 각국 당들의 단결의 기초로 되며 행동 통일의 규준으로 되고 있다. 이 규범들의 정당성은 이미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형제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호상 관계의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진실로 자원적이고 의식적이며 공고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이 위반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 사이에는 불피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해치게 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 존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즉 누구는 어떤 중앙적 위치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집행하는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당이 다른 당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 동지적으로 지지하며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형제 당들 간에 합의된 이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들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로는 누구나 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원칙들을 준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과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 집권적 원칙은 개별적 당들의 내부 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 원칙은 결코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한 당 내에서는 당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복종하며 모든 당 단체는 당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만약 개별적 당들의 이 내부 생활 규범을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그것은 기성된 권위를 가진 어느 한 당이 기계적 다수를 규합하여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다른 당들에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단결은 없게 되고 대국주의적 오만과 관료적 전횡이 지배하게 되며 호상간의 불신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형제 당들 간에 의지와 행동의 통일은 기할 수 없게 된다.

본래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오늘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형제 당들 간의 호상 관계에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주장은 이미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들에서 배격되였으며 파산 당하였다.

오늘 각국 형제 당들은 국제 공산당이 존재하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세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혁명 운동은 모든 대륙에 걸쳐 미증유의 규모와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발전되였으며 정세는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세련되였으며 유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 《중앙》으로부터의 유일 지도는 할 수도 없으며 또 필요도 없게 되였다.

이것은 물론 각국 형제 당들이 호상간에 아무러한 련계도 없이 분산적으로 혁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호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국 형제 당들은 공통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적인 전략과 전술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내린 평가와 결론들을 일치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형제 당, 형제 국가들 간의 계급적 련

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형제 당들 사이에서는 의견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각국 형제 당들이 활동하는 조건과 구체적 임무가 각이한 데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혁명에 대한 잘 못된 립장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형제 당들 간에 의견 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과 원칙에 근거하여 진지하고 인내성 있게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형제 당들간에 합의된 원칙들을 자의로 저버리고 의견 상이 문제를 각종 강압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하고 있다. 자기 의사에 복종하지 않는 형제 당들에 대하여 덮어 놓고 《교조주의》, 《종파주의》, 《민족주의》, 《모험주의》, 《호전 분자》 등의 감투를 씌우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그들은 당들 간의 사상 상의 론쟁 문제를 점점 더 국가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로 확대시키고 있다. 형제 국가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조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 싶이 하고 있다. 대사를 비롯한 외교 일'군들과 보도 일'군들을 빈번히 추방하고 있다. 형제 국가와 국교를 단절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다.

무엇 때문에 형제 당들 간의 사상 상의 론쟁 문제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야 하겠는가? 제국주의 나라들과도 국가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어떻게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리득을 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며 손실을 보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계급적 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 도덕과 의리를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련대성에 의하여 굳게 련결되여 있다. 계급적 동맹의 원칙을 떠난다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각국 형제 당들은 피부색갈이나 인종 및 지역 별이나 나라의 발전 수준 등 표징들에는 관계 없이 오직 계급적 전우로서 평등한 립장에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초보적 규범도 유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세아 당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민족이나 인종의 《우월성》과 특출한 역할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의 계급적 형제들을 멸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형제 당들을 모욕하는 거만한 태도이며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민족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락후한 아세아》에 관한 관념이나 《우월한 민족》, 《렬등한 민족》에 관한 관념은 이미 오래 전에 규탄되고 매장된 낡은 유물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쳐 버려야 한다.

형제 당, 형제 국가들 간에서 일방이 타방의 내정에 간섭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행위는 호상간의 정상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근원으로 된다.

어떤 사람들은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며 호상 협조하는 것은 그들의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이 호상 원조와 협조는 또한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당, 형제 국가들에 다 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혜택을 베푸는 것도 아니며 장사'군과 같이 치부를 해 두기 위한 것도 아니다.

원조에 대하여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 조건 있는 《원조》, 내정 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매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공고히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공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 대회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며 한 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동 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한다.

한 당의 결정이나 조치들은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며 결코 다른 당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더우기 소위 《개인 미신 반대》 운동을 다른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 나라들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바로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으로 하여 수 많은 형제 당들이 공연한 《열병》을 겪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다른 형제

당들의 대내외 정책들을 규정하여 주며 그 실천을 통제하려 한다. 다른 당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형제 당들에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지난 시기 일부 동지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 정책에 대하여도 응당한 리해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 개년 계획은 환상》이라느니, 《기계 제작 공업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느니, 《농업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농기계가 없이 어떻게 농촌 경리를 협동화할 수 있겠는가.》하는 등 남의 실정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결심 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손실을 받은 것은 없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정한 후과를 가져 올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다.

각이한 환경과 력사적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에서 어느한 당의 정책이나 경험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간에 서로 믿고 성과를 같이 기뻐하며 형제 당들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응당한 리해를 표시하며 형제 당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허심하게 서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달성하는 형제 당들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제 당들을 의심하며 형제 당들이 자기의 《훈시》대로 움직이는가,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가 않는가에 대하여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형제 나라 출판물들과 방송들에서 어느 한 당의 결정들과 문헌들을 의무적으로 보도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형제 나라들에서 어느 한 당의 력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까지 감독하려 하며 심지어는 어느 한 나라의 영화를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따지며 간섭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벌써 평등과 호상 존중의 정신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대국 배타주의의 표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형제적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가 이상과 같이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새 형의 국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말로는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는 력사 상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계이다.

이 형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심병》을 없애며 대국 배타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상실하고 다른 당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도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자기의 주체성도 없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국제주의에 충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기 나라 혁명 사업에 불가피적으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며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게 된다.

레닌은 **《각국의 공산주의적 로동 운동의 국제적 전술의 통일은 결코 다양성의 제거와 민족적 차이의 말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들(쏘베트 주권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을…민족적 및 민족-국가적 차이에 옳게 맞추어 옳게 적용하는 것을 요구》**<4>한다고 지적하였다.

각국 당들은 독자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혁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개 당들은 자기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령도하며 자국 인민 앞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정책을 작성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 서도 안 되며 또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형제 당들의 정책과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도 안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 발전 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

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 할 것이다.》<5>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켜서는 안 된다. 교조주의를 범한다면 결국 그 당은 현실과 인민 대중으로부터 리탈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앞에서 지닌 자기의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각국 당들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혁명 발전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각국 당들이 창조한 경험들에 대하여는 매개 당들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어느 특정한 당의 경험만이 유익하고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당에서 창조된 경험은 배울 것이 못 되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지난 년간 레닌과 그의 위업을 계승한 쓰딸린을 수반으로 한 쏘련 공산당의 령도 하에 쏘련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쌓아 올린 력사적 경험은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이 력사적 경험들을 부정하고 쏘련 인민이 걸어 온 지난 시기를 《암흑의 시기》로 묘사하는 것은 곧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10월 혁명의 길에서의 리탈을 의미한다. 찌또 도당의 소위 《유고슬라비야의 길》은 이의 한가지 실례이다.

과거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의 경험과 함께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창조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식민지 및 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들과는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과 력사적 전통과 민족적 풍습 등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특수성들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것들이다.

식민지 예속 국가였던 나라들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특히 피압박 민족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으로 된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서면 설수록,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이 다르면 다를수록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더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될 것이다.

각국 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 발전의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함으로써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데 집체적으로 기여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오직 매개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의 의식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할 공동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는 동시에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매개 사회주의 국가를 강화하며 그 힘을 단합함으로써만 전체 진영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의 사회 정치 제도를 튼튼히 다지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진지를 백방으로 공고히 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를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어느 당도 자기 인민과 국제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자체의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당의 령도 하에 자기 나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담보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요인은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만약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원조에만 의존한다면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립장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자력 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야만 형제 국가들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로 국제주의에 충실한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체의 힘이다. 우리는 주

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6>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창설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이한 사회 력사적 조건과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어떤 나라는 과거로부터 비교적 발전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 받았으며 어떤 나라는 과거에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였던 탓으로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은 나라들에서 하루속히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건설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나라의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발전된 현대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우에서만 형제 국가들과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물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극히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력 갱생과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극력 반대하며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편향》이요, 《페쇄적인 경제》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 로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진상을 외곡하면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마치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와 원조에 모순되는듯이 사태를 꾸며 대고 있다.

그들은 그 무슨 《생산 전통》이니 《수익성》이니 하면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종합 경제는 오직 큰 나라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한된 몇 개의 경제 부문만 발전시켜야 하며 항상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매우 괴이한 론리이다.

묻노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보장, 이 기초 우에서의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의 원칙이라면 어찌하여 이 원칙이 경제 분야에서는 《위험하고》 《유해로운》 것으로 된단 말인가?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들의 평등권과 자주성의 원칙을 유명 무실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발전되고 다방면적인 현대적 공업과 현대적 농업을 건설하지 않고는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사회주의 국가들의 《통합 경제》의 창설을 제창하고 있다. 그들은 《통합 경제》가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협조의 가장 리상적인 형태이라고 한다. 그들은 《통합 경제》의 간판 밑에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없애고 이 나라들의 민족 경제의 발전을 통제하며 그것을 다른 나라 경제에 얽매인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통합 경제》의 실시는 매개 나라의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없게 하며 인민들의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경제 발전에 혼란과 침체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통합 경제》의 실시는 결국 매개 사회주의 나라 경제를 어느 한 두 나라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어느 한 두 나라 경제 발전의 리익에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립성이 상실되면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권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독립과 자주권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국제적 협조도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자립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는 계속 락후한 처지에 있어야 하며 과거의 농업 국가는 계속 농업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 수준에서의 차이는 퇴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질 것이며 발전된 나라에 대한 락후한 나라들의 의존 상태는 의연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제국주의의 억압하에 있는 나라의 인민들에 대하여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세계 인민들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만약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자립 경제 로선을 부인하고 계속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며 락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불피코 식민지 예속 국가와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외곡된 표상을 주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예속되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자고 하겠는가.

사회주의 진영은 오직 어느 한두 개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다 같이 발전될 때에 더욱 위력하여질 수 있다.

그러자면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나라들의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먼저 혁명을 수행하고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후에 혁명을 하고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대렬에 들어 선 나라들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락후성을 퇴치하고 발전된 선진 국가의 수준에 올라서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자주성을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진정으로 반석과 같이 다질 수 있으며 세계 혁명의 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에 압도되여 감히 침략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형제 국가가 하루 속히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발전된 강국으로 전변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적극 받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행동이다.

사회주의 각국 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이러한 립장에 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철옹성 같이 다지기 위하여서는 역시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방력을 다 같이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와 제 인민들의 안전의 수호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은 제거될 수 없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중에 장악된 무장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방위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 하에 진행되든 사회주의 진영의 무장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치도 어느 한 나라의 무장력만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고 있으며 어느 한 나라의 수중에 장악된 최신 군사 기술만이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보위에서 다른 형제 국가들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당 하여야 할 호상 협조도 잘 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대하여 진심으로 념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립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과 최신 군사 기술은 그것을 소유한 당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제어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를 어느 한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는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에 의거하여야 하며 어느 한 최신 무기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방위함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정한 초소들을 수호하고 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자기의 초소를 지키는 데서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인민들을 반대하여 《전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군사력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동시에 자체의 힘과 가능성에 최대한 의거하여 적들의 어떠한 군사 전략적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하여 다 같이 최신 군사 기술을 소유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며 집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전투적 단결의 립장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 당들은 또한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을 강화하고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대중에 대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이 약화되는 곳에서는 부르죠아 사상이 머리를 들게 되고 대중의 계급적 각성이 마비된다.

지주, 자본가는 계급으로서 청산되였으나 그의 잔재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관습들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각종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침투시

키며 이 나라들에서 청산된 착취 계급의 잔존 세력들과 낡은 사상 잔재 및 낡은 생활 풍습들에 의거하여 각종 부르죠아 사상 독소와 퇴폐적인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변질시키고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계급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자유》요, 《민주주의》요, 《준법성》이요, 《인도주의》요 하면서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 혼란을 조성하며 계급 투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급이 청산되였다》느니, 《정치범이 없다》느니, 《진압의 대상이 없어졌다》느니 하는 구실밑에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 사명을 다하였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 진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태도이다.

물론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 계급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계급 투쟁이 없어졌다거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더는 필요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에는 부르죠아 사상이 만연되여 사람들이 안일 해이하여지고 부화 방탕하게 되며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내외의 원쑤들에게 파괴 활동의 틈을 지어 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계속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계속 꾸준히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지며 그 힘이 단합될 때에 사회주의 진영은 비할바 없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성새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다.

5.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종국적 목적은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세계 혁명의 구성 부분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세계 혁명이 종국적 승리에로 가는 과정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세계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 수 없으며 세계 혁명의 승리를 떠나서는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혁명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은 불가분리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일국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와 사회주의의 건설을 자체 목적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일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자기 민족적 과업이 아니다.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체를 자기 민족적인 단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로,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 쓰딸린) <7>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세계 혁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혁명 투쟁을 도중에서 멈추는 것으로 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위업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을 완수함으로써만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 인민과 함께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피압박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혁명의 기지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도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세계 혁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을 통하여 세계 인민들을 혁명 투쟁에로 부단히 고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잘 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통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권이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수중에 있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실업과 빈궁이 근절되고 로동과 휴식과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경제,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는 사실들을 뚜렷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전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과 인민들의 공산주의적 도덕과 고상한 풍모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킬 것이며 그들을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을 다만 경제적 경쟁에만 국한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개인 향락이나 누리게 되면 다 되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모범의 의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경제적 경쟁에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저절로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 경쟁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승리는 아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혁명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사회 발전의 주객관적 요인의 작용의 총체적 결과로서 일어난다.

혁명 정세의 성숙과 혁명의 수행은 우선 그 나라의 내부적 발전의 산물이며 그 나라 인민들의 각성 정도와 조직성에 달려 있다. 이러저러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인민들 자체에 의하여 준비되며 수행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다.

경제적 경쟁이 가지는 의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 계급 투쟁의 립장에서 물러 서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면 세계 인민이 자연이 다 해방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희생을 내면서 혁명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전횡을 계속 감수할것을 설교하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회피하려는 것이며 세계 혁명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희생이 두렵다고 하여 투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가도 해방과 독립은 얻지 못 한다.

혁명 투쟁에서의 희생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착취와 무권리, 실업과 빈궁,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매 시각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가. 인민들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제국주의 야수들의 박해와 탄압에 의하여 철창 속에서 신음하며 형장에서 무참히 쓰러지고 있는 것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세계 혁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레닌은 승리한 나라가 《**모든 나라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원하며 고무하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실행**》 <8>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누구와 동맹하여야 하며 어디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하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 로동 계급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인민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민족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전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과 동맹하여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제국주의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국주의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력량을 적극 쟁취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로동 계급에게 계급적 련대성과 전투적 지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철쇄를 반대하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혁명 수출의 음모를 저지시키고 파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의 위업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하

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 각층 세력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세를 제국주의에 더욱더 불리하게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킬 것이다., 오직 이러한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사회주의 진영은 명실 공히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지내며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원하지 않으며 전쟁의 위험성에 빙자하면서 그들의 무장 투쟁을 반대하는 것은 인민들의 혁명 위업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 앞에 투항하는 것이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지 않는 현상과 함께 《원조》의 구실 하에 세계 혁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비계급적인 현상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어데까지나 원조를 받는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 진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제공되여야 한다.

이러한 립장에서 리탈된 《원조》는 진보적 력량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반동 세력을 돕게 될 것이며 혁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군사 원조를 포함하여 각종 원조를 이러저러한 나라들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세계 혁명을 해치는 행동이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항상 투쟁하는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이 세계 혁명 운동 발전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만 만족하면서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누리기만 하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 간다면 어떻게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 혁명의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남보다 일을 적게하고 자신의 안일과 향락에만 급급하게 한다면 그들은 계급적 형제들의 고통도 망각하게 될 것이며 세계 혁명의 리익도 안중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며 공산주의자들의 의리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륭성 발전과 전 세계 근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계속 긴장하여 투쟁해야 하며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세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인류의 3분의 2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 없다. 아직도 적지 않은 인민들이 식민주의의 치욕스러운 멍에를 벗어 던지지 못 하고 있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하여서도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올가미를 들씌우고 있다.

만약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국제주의자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목전의 안일을 추구하여 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혁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혁명을 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

자기도 혁명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겠는가. 그 누구도 혁명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인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곤난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며 혁명에 권태증을 느끼고 대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은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적 당들은 전 세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혁명 운동을 더욱 전진시켜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 성원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인민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거대한 힘으로 되며 원조로 된다.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체계에 타격을 주며 그 진지를 약화시킨다.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으로 된다.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이 자국 정부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파탄시킨다면 이것은 그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커다란 지원을 주는 것으로 된다. 세계 각국 인민들의 완강한 공동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수족이 얽어 매여지고 평화가 유지 공고화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소동이 벌어졌을 때마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

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지하고 옹호하여 나선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에서 세계 인민들이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어떤 나라도 전 세계 근로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는 데서 우리의 힘은 배가될 것이며 혁명의 위업은 촉진될 것이다.

전 세계 근로 인민들과 피압박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6.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강력한 기지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다. 세계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륭성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며 거기에 자기들의 사활적 리해 관계를 결부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을 때에 강력하고 위대하며 진보적 인류 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엄중한 국면에 처하여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이미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 의견 상이로 발전하였다.

이 의견 상이는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단순한 투쟁 방법 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여 있으며 어떤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전략 전술의 전반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오늘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느냐 하지 않느냐,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현재의 론쟁은 결국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간의 투쟁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변하였다》는 구실 하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고 있으며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공공연히 유린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그들에게 덮어 놓고 양보하며 순응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을 싫어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각국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끌어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혼란과 긴장성을 조성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를 망신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이 장기간 피와 땀으로 쟁취한 위대한 진지를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도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공산주의 운동 대렬내에 대두한 우경 기회주의를 제때에 극복하지 않는다면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혁명 로선과 기회주의 로선은 량립할 수 없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전진시킬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긴절한 혁명 과업이다.

오늘 수정주의와의 투쟁은 개별적 당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현 정세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며 심사숙고하여 자기의 정확한 립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문제는 응당 우리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조성된 난국은 결코 몇몇 당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타개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해결될수 있다.

물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방법과 형태는 매개 당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방법과 형태를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당이 자체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

들은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에서 이 투쟁에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모든 당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정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수정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수정주의가 군중 속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수정주의에 끌려 들어 가지 않도록 하며 전체 공산주의자들과 군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확고히 서게 하며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매개 당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수정주의를 남에게 내리 먹이려는 행동을 단호히 제지하며 이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도처에서 수정주의를 범람시키며 다른 당들에 자기 뒤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정주의적 립장을 지지하고 협조하여 나설 《동료》들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내리 먹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수정주의자들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의 원칙적 립장을 굽혀서는 안 되며 항상 독자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와 각국 당 내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광범히 전개하며 사상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투쟁의 예리한 무기이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결국은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립장과 관련된 사상 정치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강압적 방법이나 사태를 어물어물 덮어 두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는 비판과 자기 비판, 심각한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기 운동의 약점들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9> 라고 레닌은 교시하였다.

우리는 사상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들과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더욱 단련시키며 군중을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준비시킬 수 있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립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에서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나 개별적 당에서나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종파》니 뭐니 하는 감투를 씌우며 보복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할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비판 사업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의 계선은 확연히 갈라질 것이며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수정주의는 파산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건전한 토대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는 락오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혁명 대렬은 그 순결성이 보장됨으로써 더욱 강화될 것이며 계속 장성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수정주의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오를 부단히 혁명적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경험은 오직 혁명 대렬이 유일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결속될 때에만 강력한 전투적 부대로 될 수 있으며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온갖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와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승리하여 왔다.

이 투쟁 과정에는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혁명적 로선을 견지하여 난관들을 극복하고 자기 대렬을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한때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도적 지위를 리용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다. 그때에 수정주의자들의 형세는 매우 큰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레닌을 선두로 하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혁명적 맑스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수정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다.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된 수백 수천만 공산주의자들의 대군이 자라났다.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는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되여 있으며 세계 도

처에서 휘날리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레닌주의의 가면을 쓰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리울 수 없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거대한 조류를 막을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압박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 투쟁 앞에서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폭로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회주의적 로선은 파산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더욱더 확증되고 있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는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 한 인민 대중은 계속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여 궐기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수정주의의 패배와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단결하여야 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하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의견 상이가 발생한 첫날부터 시종 일관 단결의 원칙을 수호하여 왔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근로 인민들이 불멸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 ※

<1>레닌 전집 제 31 권 272 페지
<2>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년 판 19 페지
<3>쓰딸린, 쏘련 공산당 제 19 차 대회에서 한 연설
<4>레닌 전집 제 31 권 98 페지
<5>김 일성 선집 제 5 권 245 페지
<6>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한 연설
<7>쓰딸린 저작집 제 6권 543 페지
<8>레닌 전집 제 28권 264 페지
<9>레닌 전집 제31권 214 페지
(1963년 10월 28일 로동 신문)

남북 합작은 남조선 경제 복구의 담보

우리는 본지에 발표한 론문 《자주 자립은 갱생의 길》에서 남조선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민생을 구원하는 길은 미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 자립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진정한 자주 자립의 성취는 그의 물질적 기초인 경제적 자립을 달성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 진리를 파악하게 되였으며 경제 자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다만 자립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리 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기에는 목전의 사태가 너무나도 절박하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렬과 남조선의 식민지 반봉건적 경제 체제는 남조선 민족 경제와 민생을 시시각각으로 더욱더 심각한 파국에 몰아 넣고 있다.

남조선 경제는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 정책과 식민지 략탈의 희생물로 전락되였으며 민족의 주체적 리익을 위한 자주적 발전의 길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남조선 경제는 공업, 농업, 재정, 금융, 운수, 체신, 무역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이 미국 독점 자본에 완전히 예속되였으며 그들의 군사비와 식민지 초과 리윤을 보장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탐욕적인 미국 독점 자본에의 철저한 예속 하에서 민족 경제의 토대는 여지 없이 파괴되고 식민지 예속성과 봉건적 락후성은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

민족 공업은 중공업이 없이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경공업에 매여 달리고 있으며 자재와 원료 기지를 가지지 못한 채 그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은 봉건적 지주 제도의 지배 하에서 그의 령세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잉여 농산물 강매 정책과 락후한 영농 기술로 인하여 식량조차 자급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와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는 민족 공업을 송두리채 파괴하고 농업을 령락시켰으며 민생을 굶

임없는 파국의 심연 속에 빠뜨려 놓았다.

심각한 위기가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을 휩쓸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더는 그 대로 살아 나갈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다.

우리는 남조선 형제들이 겪고 있는 이 참혹한 재난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들이 하루 속히 이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구체적 방도를 진지하게 강구하여 그를 지체 없이 실현하는 데 있다.

남조선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도는 오직 하나 뿐이다. 민족 경제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있는 식민지 반 봉건 경제 체제를 청산하고 남북이 합작하여 민족 주체적인 력량으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은 18 년 여에 걸친 우리 민족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유일한 결론이다.

남북의 민족적 힘이 합칠 때,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 할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극복하지 못 할 난관도 없다.

1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한 문제는 파괴된 농업을 복구하는 것이다.

농업을 복구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 절박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경공업 원료를 자급하여 민족 공업의 발전에 유리한 전제를 조성할 수 있다.

본래 남조선은 식량에 여유가 있던 우리 나라의 농업 지대이며 섬유와 식료품 등 경공업 원료도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 농업은 조국의 인공적 분렬로 말미암아 북반부 공업 지대와의 련계가 단절됨으로써 엄중한 장애에 봉착하게 되였으며 미국 독점 자본의 혹심한 식민지 략탈과 지주들의 가혹한 봉건적 착취로 인하여 전면적인 파탄 상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농업 경제는 미 제국주의의 군사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군을 위한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되였다.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인 농토는 10만 정보 이상이나 군용지로 징발되였으며 농업의 기본 로동력인 농촌 청장년들은 해마다 수십만 명씩 군대에 징집 당하고 있다.

농업 생산은 《농지세》를 비롯한 각종 가렴 잡세와 농산물 략탈의 형태를 통하여 군사비 조달과 군량미 확보에 복종되고 있다.

남조선의 농산물 시장도 미국 잉여 농산물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고 있으며 그의 압력 하에 량곡 가격은 생산비의 근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 반면에 비료 공급이 미국 독점 자본의 수중에 전적으로 장악되여 비료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보다 60%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농업은 생산면에 있어서나 류통면에 있어서나 모든 명맥이 완전히 미제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였고 예속 상태는 심화되였다.

남조선 농업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지배는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기초로 유지 강화되고 있다.

《농지 개혁》은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보존하며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였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는 지주들이 막대한 경작지와 미개간지 및 수리 시설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들을 반봉건적 예속 상태에 얽매여 두고 있다.

농민들은 소작제 하에서 수확량의 50% 이상을 물납 소작료로 빼앗기고 있으며 《고지》등 고역제와 고리 대금에 의하여 밑창이 드러나도록 착취 당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와 지주들의 략탈 하에서 남조선의 농민 경리는 해방 전보다도 더 령세화되여 호당 경지 면적은 8.15 전의 1.1 정보로부터 0.84 정보로 감소되였고 경작 규모 1 정보 이하의 농민들이 전체 농가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지적 예속과 봉건적 착취는 농업 생산력 발전을 억제하였으며 남조선 농촌 경리를 극도로 피폐 령락시켰다.

관개 수리, 치산 치수 등 농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극도로 억제 당한 결과 관개, 하천 시설들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여 해마다 혹심한 자연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농토는 해방전에 비하여 20만 정보, 파종 면적은 40만 정보나 축소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농업 생산은 해방전에 비하여 3 분의 2로 감소되였다.

그 중 알곡은 30%, 면화는 90%, 잠견은 40%나 감소되였다.

그 결과 남조선은 1 천만 석 이상의 량곡을 수입하고도 주민들의 절반이 절량 또는 반기아 상태에 빠졌으며 경공업 원료는 거의 전면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였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와 봉건적 착취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남조선 농업이 처하고 있는 파국적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가 시급히 취하여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조선의 농업이 미국의 비료, 농약에 의존하며 락후한 소농 기구에 매달려 있는 빈약한 현존생산 토대를 벗어 나서 자체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 수 있는 새 길을 타개하는 데 있다.

남조선은 우선 미제의 농촌 지배와 농민 착취의 기초로 되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장애물인 봉건적 토지 소유제를 철폐하여야 하며 밭갈이하는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그들이 농사의 주인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을 중세기적 락후한 상태에 얽매고 있는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철폐하며 미제의 농촌 침략의 거점으로 되고 있는 매국적 지주 세력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하지 않고서는 남조선 농업의 복구나 자립에 대하여는 상상조차도 할수 없다.

남조선 농업의 복구 재건을 위하여서는 농업 생산력을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벗어 나게 하는 것과 함께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 농업 생산력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는 토지, 관개 수리, 농기계 및 비료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다.

남조선에는 야산,황무지, 간석지 등 개간 대상 면적이 약 200만 정보에 달하고 있으나 거의 개발 리용되지 못 하고 농민들은 혹심한 토지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수리 시설들이 빈약한 결과 수리 불안전답은 논 면적의 45%인 55만 정보에 달하고 있으며 산림의 황폐화와 제방,보 등 농업 시설의 파괴로 인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가물과 홍수로 귀중한 농토가 백사장으로 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농업 발전에 필요한 현대적 농기구들을 생산하지 못 하고 있으며 영농은 힘 들고 능률이 적은 호미, 낫과 같은 소농기구들과 축력 및 인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농업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비료 공급은 소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남조선 농업을 복구 개건하려면 이러한 모든 상태로부터 결정적으로 벗어 나야 하며 새로운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뜨락또르, 자동차, 엑스까와또르, 불도젤을 비롯한 선진 농기계들과 관개에 필요한 양수기, 철재, 세멘트 등을 공급하고 현대적인 비료 공장, 농약 공장 및 농기계 공장들과 방대한 동력 및 농업 과학 시설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공업의 토대가 없는 남조선의 현 조건 하에서는 사실상 보장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남북이 합작하여 우리 민족 내부의 력량을 총동원하며 북조선의 공업에 의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북반부에는 자연을 극복하고 이미 농업을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하여 농업 발전에 필요한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한 강력한 중공업이 있으며 선진적 농업을 건설함에 있어서 쌓아 올린 고귀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북반부에 이룩된 공업과 남조선의 유리한 자연 조건을 결합시키고 남북 조선의 전 민족적 력량을 단합하여 호상 긴밀히 협력하는 데 있다.

북조선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와 남조선의 유리한 자연 조건을 옳게 결합한다면 남조선 농업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남조선 농업에서는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문제이며 묵여 있는 토지들을 개간하여 농민들의 토지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이 북반부에서 매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되는 각종 선진 건설 기계와 농기계들을 리용하며 짧은 기간에 광대한 농경지를 개간한 경험을 나누면서 남북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조선에서 100만 정보의 새 땅을 얻어 낼 수 있으며 이 땅을 토지 없는 농민들과 토지 적은 농민들, 그리고 리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조선에서 농가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을 현재의 0.84 정보로부터 1.4 정보로 증대시켜 남조선 농민들의 토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남조선의 농업 발전과 농민 생활의 개선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리화는 농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우기 논 면적이 많은 남조선에서는 기존 관개 시설들을 복구하고 논관개를 완성하며 치산 치수를 철저히 하여야만 자연 재해를 극복하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한강, 금강, 락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농업 발전에 유리한 수리 자원이 있으나 이것들은 매해 반복되는 남조선의 한재를 해소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여 홍수 피해의 온상으로 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이 수리화에서 얻은 경험을 리용하며 북반부에 축성된 중공업의 지원을 받아 남조선의 대소 하천의 풍부한 수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면 수년 내에 남조선 전야를 조밀한 관개망으로 뒤덮이게 할 수 있으며 10년 1등의 천수답을 모두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하고 남조선 농업을 한재와 수재에서 벗어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은 북조선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토지의 리용률과 단위당 수확고는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

만약 북반부에 축성된 기계 제작 공업에 의거하여 남조선 농업 중심지들에 농기계 공장들을 창설하며 현대적 농기계들을 남조선 농촌에 보급시켜 농민들이 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남조선 농업을 세기적 락후성에서 벗어 나게 하여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농민들의 고된 로동을 덜어 주고 로동 생산성과 토지의 리용률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조선 농민들의 우

수한 영농 기술과 종자, 종축, 묘목들 및 다수확 경험들을 리용한다면 남조선에서도 선진적 집약 농업을 도입하며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다.

남북의 합작과 경제적 협조가 실현되면 남조선은 값비싼 외국의 비료와 농약에 의존할 대신에 우리 나라 농업에 적합한 질 좋고 값싼 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북반부의 기계 제작 공업 및 화학 공업과 합작하여 자체의 비료 및 농약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조선은 수년 내에 알곡 생산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미국의 잉여 농산물에 의한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으며 식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족 공업의 발전을 위한 원료와 시장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농업의 복구 발전은 공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다.

민족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놀아야 할 공업이 복구되고 공고한 자립적 공업 토대가 구축됨으로써만 농업도 물질 기술적 토대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새로운 토대 우에서 재생될 수 있다.

사실상 오늘 남조선에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파괴된 공업을 자립적 기초 우에 올려 세우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민족 공업의 자립적 발전의 길이 완전히 페쇄되여 있다.

취약한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원조》의 간판 하에 밀려 들어오는 미국 잉여 상품의 범람으로 파괴 당하고 있으며 민족 자본의 발전은 억제되고 매판적인 예속 자본만이 비호 육성되고 있다.

예속 자본가들은 미제의 군사화 정책과 상품 시장화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남조선 공업 총 생산액의 40%를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고 있다.

민족 공업의 대부분은 심각한 원료난, 자금난, 판매난에 봉착하여 하루에도 평균 10여 개의 공장들이 파산 몰락되고 있으며 전체 공장의 70%와 광산의 80%가 정상적인 가동을 못 하고 있다.

공업의 쇠퇴로 민족 자본은 더욱더 령세화되였으며 남조선 공업 기업소들 중에서 10 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 수가 55%, 50 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 수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파탄에 직면한 남조선 민족 공업은 농촌에서 령락되여 밀려드는 실업자들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제와 예속 자본의 부단한 압박으로 인하여 남조선 공업은 모든 발전의 가능성을 말살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 편파성과 락후성도 더욱 심화되였다.

가혹한 군사비 략탈은 국민 소득을 민족 공업의 발전에 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중공업과 자체의 원료 기지, 연료 동력 기지를 창설할 수 없게 하였다.

오늘 남조선 사회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얼마 안 되는 공업 생산액 중에서도 식료, 방직 공업을 비롯하여 미국 잉여 농산물의 시장 확대와 군수 물자의 현지 조달에 복무하는 부문이 4분의 3이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공업을 비롯하여 금속, 화학, 전재 공업 등 자립적 민족 공업 발전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공업은 자주적인 생활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공업 생산은 전면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의 공업 생산 수준은 8.15 이전 수준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남조선 공업을 현재와 같은 파탄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자주적 발전을 억제하는 기본 질곡으로 되는 미 제국주의와 예속 자본가들의 압박을 제거하여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초를 청산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와 예속 자본은 전력, 석탄, 운수 부문들을 비롯하여 세멘트, 비료, 방직, 제분 등 남조선 공업의 중요 명맥을 장악하고 자금, 자재, 판로를 독점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수중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막으며 는 온갖 장애를 제거하는 경우라야만 남조선 민족 공업은 그 생활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조선 공업을 현재와 같은 파국에서 소생시키고 그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공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남조선 공업의 복구를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민족 공업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으로 되고 있는 원료난, 자금난, 기술적 락후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면화, 화학 섬유, 가성 소다, 합성 수지, 고무, 유지 등 소요 원료의 7분의 6을 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은 심각한 원료난에 직면하고 있다.

남조선의 민족 자본가들은 년간 중요 자금의 10분의 1 밖에 대부 받지 못 하고 있으며 그들의 75%는 고리대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 설비의 90% 이상을 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기술 갱신은 고사하고 로후한 기존 시설마저 유지하기 곤난한 처지에 있다.

이들이 처하고 있는 파멸적인 경영 조건은 원료, 자재, 설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공업 토대가 결여된데 기인하고 있다.

금속 및 기계 공장들은 수송 수단의 수리, 수입 부분품의 조립, 소농기구와 일용 가구의 생산에 국한되고 있으며 근대적인 기계와 설비품은 전혀 생산하지 못 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기초 화학 공업이 거의 없으며 수입 원료에 의존하여 고무 제품, 종이, 의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약간의 화학 공장이 있을 뿐이다.

많은 석탄 및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체의 연료 및 동력 기지를 축성하지 못 하고 있으며 심각한 연료난, 동력난을 겪고 있다.

남조선 공업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파괴된 공업의 복구 뿐만 아니라 그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여야 한다.

남조선 민족 공업에서 걸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면 방대한 자금, 자재와 기술,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남조선이 현재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남조선이 하루 속히 예속에서 벗어 나 경제를 재건하며 민생고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남북 합작의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된 북조선에는 현재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생산 수단의 대부분을 자체로 해결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대규모 공장들과 새로운 공업 부문들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발전된 연료 동력 공업, 금속 공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등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있다.

발전된 농업과 강력한 중공업 기지에 의거하여 북조선에는 또한 현대적인 대규모 중앙 공장과 수 많은 지방 공장들을 포괄하는 튼튼한 경공업 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우리의 경공업은 자체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자립적 공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훌륭한 공업 건설 경험을 쌓았으며 수십만의 우수한 기술 간부들을 길러 냈다.

북반부에서 달성된 이 모든 성과들은 실로 남조선 공업의 복구 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 담보이며 응당 남조선 공업의 복구 발전을 위하여 리용되여야 할 우리 민족의 가장 고귀한 밑천이다.

남북이 합작하여 이러한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남조선 공업에서 해결하지 못 할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남북의 합작이 실현되면 우선 절박한 처지에 있는 남조선의 민족 공업에 충분한 연료 동력과 기계와 원료가 공급되게 되며 중소 기업은 만성적인 운영난에서 벗어 나 생산 시설의 완전 가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공업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며 령세한 중소 기업들의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민족 공업이 재생할 수 있는 시초를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기계 제작 공업의 토대와 경제 건설에서 쌓아 올린 풍부한 경험은 남조선의 민족 공업을 복구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우에서 남조선은 점차 중공업을 건설하고 공업화를 실시함으로써 민족 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게 될 것이다.

자립적 민족 공업의 건설은 그의 토대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을 창설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계 제작 공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조선은 기술적 락후성을 면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도 개발하지 못 함으로써 경제의 대외적 예속이 더 심화되고 있다.

남북이 합작하면 남조선은 북반부에 이미 조성된 기계 제작 공업을 리용하여 현대적인 기계 설비를 자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자체의 기계 제작 기지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조선은 현재와 같이 기계 설비를 외국에 구걸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도 쓸모 없는 것을 사 들여야 할 불합리성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족 내부의 력량을 통일적으로 리용한다면 자원의 개발과 원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우리들은 남북 조선의 건설 능력을 효과적으로 잘 배합하여 수년 내에 충주, 단양, 평창, 안동 등지에 수력 발전소와 필요한 지점들에 화력 발전소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다.

동력 자원의 개발은 심각한 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남조선의 동력 공업을 미국 유류 독점체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게 할 수 있다.

기타의 모든 자원들도 민족 산업을 위하여 유리하게 동원 리용할 수 있으며 남조선에 소요되는 원료의 대부분을 민족 내부의 힘으로 자급 자족할 수 있다.

남조선에 묻혀 있는 철광석, 석탄, 석회석 등의 지하 자원과 염전을 개발하고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을 창설한다면 화학 섬유, 가성 소다 및 합성 수지 등 화학 제품과 세멘트, 철재 등 현재 남조선에서 심각한 부족을 느끼고 있는 각종 원료와 자재들을 비싼 값으로 수입하지 않고 자체로 능히 생산할 수 있다.

남조선에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가 축성되게 된다면 원료와 자재 부족으로 인한 외국 독점 자본에의 예속도,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자원의 략탈도 모두 근절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남조선은 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한 울산

지구에가 아니라 삼척, 녕월 지구와 같이 원료 원천과 동력 자원이 가깝고 민족 경제의 발전에 유리한 지대에 일대 공업 중심지를 창설하며 기타 각 지대의 특성에 적합하게 새 공업을 건설함으로써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할 수 있다.

파괴된 공장, 광산이 복구되고 모든 생산 시설들이 가동되며 새로 대규모 공장과 공업 부문들이 대대적으로 창설된다면 로동자들에게도 안정된 취업을 보장하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실업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의 힘을 합하면 남조선의 수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파탄된 남조선의 수산업을 복구하기 위하여는 어항, 어장들에 대한 미군의 강점을 즉시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부산, 인천, 속초를 비롯하여 중요 어항들을 해군 기지로 사용하고 동해, 서해, 남해의 중요 어장들을 해상 훈련장으로 전변시켰으며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 수산업은 일본 독점 자본의 부단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남조선 근해의 어로를 독점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면서 남조선 근해에서 년간 40만 톤에 달하는 수산물들을 잡고 있으며 계속 어로 구역을 확대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의 이러한 침략 책동은 남조선 수산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으며 80만 남조선 어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남조선 수산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외래 침략 세력으로부터 어항, 어장들을 보호하고 파괴된 어항 시설들을 복구하며 어민들이 남조선의 모든 수역에서 자유로이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괴된 어항들이 복구되고 사용 금지된 어항들이 탈환되며 미제 침략군에 의하여 억제되고 있는 어로상의 모든 자유가 회복됨으로써만 남조선 수산업은 복구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남북이 합작하면 남조선은 어선을 비롯하여 어망, 어구 등 어로 상의 기본 생산 수단을 튼튼히 꾸릴 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어선들이 8.15 당시에 비하여 3분의 1이나 감소되였으며 그나마 90%는 범선이고 60%는 로후하여 대부분이 쓸모 없는 상태에 있다.

어망, 어구들도 빈약하여 그 중 어망은 수요의 60% 밖에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합작하면 남북 조선의 설비와 자재들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남조선이 북조선의 조선 공업을 리용하고 자체의 조선 능력도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백 척의 대형 및 중형 철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어선대를 남조선에 건설하고 범선들도 다수 동력화할 수 있으며 어망과 어구의 부족도 완전히 해결하여 어로 시설을 일신하게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조선은 남북 간에 어선의 자유 래왕과 어항의 호상 개방을 실시하고 조류와 기상 상태와 호상 통보, 어군의 공동 탐색, 어족의 공동 보호 등 어로 상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으며 나가서는 공동 어선대를 조직하여 원해 및 심해 어업에까지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조선의 수산업은 세기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선, 어망, 어구 등의 부족으로 귀중한 재부를 바다 속에 묵여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다를 일본 독점 자본에 침해 당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간의 합작과 경제적 협조는 남조선 민족 공업의 존립에 최대의 위협으로 되는 시장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남조선의 민족 공업이 외국 상품의 침해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이 외국 독점 자본이 강요하는 부등가 교환으로 년간 1억 딸라 이상의 손실을 당하고 있는 오늘 국내 시장을 보위하고 민족 공업의 판로를 해결하는 것은 남조선의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긴밀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지금 남북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조선의 농산물과 북조선의 공업품, 남북 조선의 경공업품과 북조선의 중공업품 또는 량 지역의 각종 특산물들을 호상 유무 상통한다면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시장을 외국 독점 자본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게 할 수 있다.

남북 교류의 실현은 우리 나라 내부의 시장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며 남조선은 민족 공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조선에서는 자체의 귀중한 부원을 략탈 당하면서도 원료난에 고통을 받고 또한 비싼 외국 상품을 사 들이면서도 판로난에 허덕이는 불합리한 현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남북 간에 통상을 하는 것이 전 조선의 민족 경제와 특히는 남조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론의할 여지도 없다.

3

제반 사실은 남북의 합작이 남조선 경제 발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북이 합작하고 전 민족의 력량을 단합한다면 남조선에서 멎고 있는 공장들을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공업 부문들을 창설할 수 있으며 원료, 식량을 비롯하여 인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가 복구 재건되면 실업과

절량 문제가 풀리게 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이 오랜 경제적 침체 상태에서 소생되고 짓눌리고 버림 받던 기백만 인민 대중의 지혜와 힘이 솟아 오를 때 경제 건설이 급속히 추진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에게는 서로 협력하고 합작하지 못 할 여하한 리유도, 근거도 없다.

우리는 한조상의 피를 이어 왔고 한국토 안에서 수천 년 동안 화목하게 살아 온 단일 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서로 경제적 뉴대마저 끊긴 채 고락을 달리 해야 하겠는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수천 년의 민족 력사를 저버리고 분렬을 영구화할 그 어떠한 구실로도 될 수 없다.

오늘 서로 제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민족들 간에도 경제적 련계를 맺고 있는데 하물며 한국토에 사는 같은 겨레가 서로 장벽을 쌓고 등을 지고 있어야만 할 리유가 어디 있겠는가?

남북 간에 뉴대를 회복하고 합작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절박한 념원일 뿐만 아니라 사경에 처한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통일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방도로 된다.

민족 내부에 충분한 능력과 밑천이 있고 그를 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외세 의존의 진흙탕 속에서 허둥지둥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에 가서 인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조를 더 많이 얻어 오겠다》고 하면서 미국 《원조》의 증액을 애걸하며 그것으로써 마치 남조선 사태에 그 어떤 변화라도 가져 올 수 있을듯이 떠들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원조》를 미화 분식하며 인민들을 우롱하며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 행위이다.

바로 지금 남조선에 빚어지고 있는 파국적 사태가 미국 《원조》와 미국에 추종하는 외세 의존자들의 매국 정책이 가져다 준 통탄할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남조선에서의 어떤 사람들은 또한 말로는 《사대주의 배격》과 《자주 자립》를 운운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 《원조》에 매여 달리며 심지어는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 노예 생활을 강요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독점 자본까지 끌어 들이고 있다.

미국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옷자락에 매여 달리는 것이 반역 행위임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로는 사대주의를 나무라면서 실지 행동으로는 계속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원조》에 의존하는 것도 결국은 매국 행위이다.

말로만 떠드는 《외세 의존 반대론자》들과 외세 의존론자들 간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남조선의 엄연한 현실은 침략적 《원조》를 구걸하는 것으로써는 《라인강반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반의 비극》 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력사적 교훈은 외세 의존이 《민족의 중흥》은 커녕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초래할 따름이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 합작을 실현하는 길로 용감히 나아가야 한다.

외세 의존은 예속과 치욕과 망국의 길이다.

오직 전 민족의 합작만이 자립과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는 길이다.

이 두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에게는 외세에 의존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없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이 그를 말해 주고 있으며 해방 후 북반부에서 인민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찬란한 성과가 이것을 웅변으로 증시하고 있다.

북조선은 미제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황량한 폐허속에서 거의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모든 것이 부족하였고 애로와 난관은 중중첩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터전부터 반석 같이 다져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락후하였던 탓으로 외래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고 모욕 당하고 천대 받던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민족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떳떳이 어깨를 겯고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이 길로 만난을 극복하면서 전진하여 왔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북반부 인민들의 투쟁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이 땅에는 지난날의 락후한 농업국이 아니라 자기 살림살이를 능히 자체로 꾸려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경제 토대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힘으로 생산한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인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과 농산물을 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 가게 되였으며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근면하고 용감하며 그 힘은 위대하다.

1천 1백만 북반부 인민이 짧은 기간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창조하였거늘 하물며 남북 3천만 인민의 힘을 한데 합치고 민족 내부에 이미 마련된 밑천과 경험을 동원 리용할 때 그 무엇인들 못 할 것이 있겠는가.

북반부 인민들이 페허 속에서 국토의 절반 땅을 가지고 자립 경제의 토대를 오늘과 같이 훌륭하게 건설하였거늘 만일 국토를 합치고 전국적 판도에서 자원 개발과 경제 건설에 민족 내부 력량을 합친다면 보다 번영하는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누가 감히 의혹을 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이 반박할 수 없는 진리에 눈을 감고 남북 간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남북 협조가 남조선이 북조선에 먹히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황당한 구실을 붙여 《합작 불가능론》을 내걸고 있다.

남북 합작은 남북 간에 두절된 민족적 뉴대와 경제적 련계를 회복하며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민족적 재난을 극복하자는 데 그 본의가 있다.

여기에 무슨 먹고 먹히고 하는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주장은 오직 약육 강식의 제국주의 승냥이의 법칙만을 유일한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는 자들만이 내세울 수 있는 망발이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이 서로 힘을 모아 사경에 처한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 주자는 겨레의 목소리를 어떻게 감히 먹고 먹히는 문제에다 귀착시킬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러한 주장으로 사실상 국토의 분렬을 지속시키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영원히 식민지 노예 상태에 얽매여 두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 합작을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구실로써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민족적 합작을 반대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남북 합작을 순시도 지연시킬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것은 시급히 실현하여야 할 절박한 민족적 요구이다.

남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파국을 수습하고 외세 의존에서 벗어 나 민족의 자주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전 민족의 합작은 결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해야 한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광분하고 있으며 남북 인민들 간의 전 민족적 합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전체 애국 력량의 단합에 의거하여 원쑤들의 민족 분렬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민족의 합작과 재생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인민 자신의 투쟁에 의하여 성취되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남조선 인민들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는 데 있으며 하루 속히 북조선 형제들과 손을 맞잡고 자주 자립의 물질적 토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오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지조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남조선 현실을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 설 수 없다.

오직 일어나 싸움으로써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 수 있으며 전 민족의 합작을 성취하고 민족 갱생의 력사적 대로를 개척할 수 있다.

굴종은 죽음의 길이며 싸움은 승리의 길이다. (1963년 11월 17일 로동 신문)

서 술

지 리

자연 조건

【위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아세아 대륙의 동쪽 중앙부에서 남북으로 뻗은 조선 반도와 그 근해에 산재한 3,3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북쪽 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북위 43°0′ 36″)이고 남쪽 끝은 제주도의 서남 쪽에 있는 마라도(북위 33° 6′ 40″)이며 서쪽 끝은 평안북도 룡천군의 신도 서쪽에 있는 마안도(동경 124° 11′ 0″)이고 동쪽 끝은 울릉도 동남 쪽에 있는 독도(동경 131° 51′ 20″)이다.

우리 나라는 기후대적으로 북온대의 남부에 위치하므로 네 계절이 뚜렷하게 바뀌여 사람들의 활동에 적합하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가 가지는 특성은 우리 나라의 지체가 남북으로 길며 기후가 다양하고 지형, 지질이 복잡한 것과 결합되여 우리 나라의 자연계를 더욱 다종 다양하게 하며 또 각종 자연 부원을 풍부하게 한다.

【면적】 령토의 총 면적은 22만 791 평방 키로메터로서 세계 전 륙지 면적의 약 676 분의 1에 해당한다. 남북의 가장 긴 거리(중강—해남 반도 남단)는 840 키로메터,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장산곶—양양)는 354 키로 메터이다.

【경계】 우리 나라는 해양 국가이므로 바다 경계선이 전 국경선의 87%나 되며(약 8,700 키로메터, 도서들 제외) 륙지와의 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약 1,300 키로메터 구간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쏘련과 접하고 있다(그중 쏘련과의 경계선은 16.5 키로메터이다).

【지질】 우리 나라는 지체 구조상으로 동부 아세아의 대구조대들 사이에 놓여 있는바 대부분 지역은 조중 륙대(하부 원생대)의 동쪽 연변부에 속하며 북동부 지역은 씨호떼알린 지향사대의 일부인 상부 고생대 습곡대, 남동부 지역은 환 태평양 습곡대에 속하는 중생대 습곡대의 일부 지역으로 되여 있다.

륙대의 결정 기반이 전 령토 면적의 46 %를 차지하며 중생대의 관입암, 기타 암석들이 약 24 %, 신기 분출암이 8 %, 퇴적암이 약 22 %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안정된 륙대로서 화산 활동도 국한되여 진행되였고, 현재 활동 중의 화산은 없고 약간의 약진과 미진이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질 작용과 관련되여 80여 개의 광천들이 있다.

【지형】 우리 나라는 전 령토의 약 80%가 산지로 되여 있으며 평지는 20 %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평균 고도는 482 메터로서 전 세계 륙지의 평균 고도 875 메터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우리 나라는 산악국이라고 하지만 그의 약 65 %가 500 메터 이하로서 구릉성 또는 저산성 산지가 대부분이고 고산이라고 볼 수 있는 2,000 메터 이상의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좁다.

우리 나라의 각이한 높이의 비률

높이의 한계 (m)	면적 (%)
0～ 100	24.204
101～ 500	40.703
501～1 000	20.591
1 001～1 500	10.004
1 501～2 000	4.052
2 001 이상	0.446

우리 나라의 산지는 북부와 동부에 치우쳐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가면서 점차 완만하게 경사되여 저평한 지대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하계의 배렬에 반영되여 하천들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많으며 이 하천들의 류역에는 넓은 충적 평야들이 전개되여 있다.

평야—평야들은 주로 큰 하천들의 중류 및 하류 류역과 해안 지대에 있으며 특히 서해안에 넓은 평야들이 많고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평야가 적다.

평야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우리 나라 령토의 20 % 밖에 되지 않으나 토양은 기름지고 농경지 특히는 논이 집중되여 있어 우리 나라 농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서해안의 중요 평야들로는 룡천 평야, 운전 평야, 안주 평야들과 평양 준평원, 재령 평야, 연백 평야, 김포 평야, 평택 평야, 내포 평야, 호남 평야, 전남 평야가 있다. 동해안에는 수성 평야, 길주 평야, 함흥 평야, 영흥 평야 등이 있으며 남해안에는 진주 평야와 김해 평야가 있다.

이 평야들 중 가장 큰 평야는 재령 평야, 호남 평야, 평양 준평원 (그 면적이 각각 500 평방 키로메터) 등이며 그 다음은 안주 평야, 연백 평야, 함흥 평야 (그 면적이 각각 300 평방 키로메터)이다.

이 평야들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농업 지대로 되여 있다.

산지—우리 나라의 산지는 일정한 몇 개의 방향으로 배렬되여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동 방향으로 마천령 산맥이 동해안까지 달리고 있으며 이 산맥에는 2,000 메터 이상의 고산들이 련달아 솟아 있다. 이 마천령 산맥의 거의 중앙에서 북동 방향으로 함경 산맥이 뻗어 있고 반대 쪽에는 서남서 방향의 부전령 산맥이 뻗어 있다. 함경 산맥에는 2,000

메터 이상되는 산봉들이 수 많이 솟아 있으며 그 최고봉인 관모봉은 2,541 메터로서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 다음가는 높은 산이다. 함경 산맥과 부전령 산맥의 동쪽 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배면에는 비교적 완만한 개마 고원과 백무 고원이 전개되여 있다. 개마 고원의 서부에는 마천령 산맥에 병행하여 랑림 산맥이 뻗어 있다. 랑림 산맥 서쪽 지역에는 강남 산맥과 적유령 산맥이 점차 낮아지면서 서해안으로 뻗고 있다.

중부 지역의 동해안을 따라 우리 나라의 척량 산맥인 태백 산맥이 남북 방향으로 뻗고 있다. 동쪽 사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 사면은 점차 낮아지면서 고원상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산맥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 (1,638 메터), 1,211 고지, 설악산 (1,708 메터)과 오대산(1,563 메터), 태백산(1,561 메터) 등의 명산이 솟아 있어 아름답고도 장엄한 산악 경관을 이루고 있다.

태백 산맥의 서쪽에는 광주 산맥, 중부에 차령 산맥, 남쪽에 경상 산맥과 토령 산맥 및 소백 산맥(대부분이 500~1,000 메터 높이)이 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다.

【기후】 우리 나라 기후는 비교적 온난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의 년교차가 크며 겨울철의 건조기와 여름철의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년 평균 기온은 일부 내륙 고원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지방들에서 6°C 이상이 되며 남해안 일대에서는 14°C 이상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강수량도 많은바 동해안 북부 및 내륙 고원 지대 (500~700 미리메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들의 년 총 강수량은 800 미리메터에서 1,500 미리메터 정도까지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기후에서의 특징의 하나는 지리적 위치 및 자연 지리적 제 조건과 관련하여 대기 순환이 주로 계절풍적 성격을 띰으로 겨울철에는 대륙 고기압의 발달과 관련된 대륙성 계절풍이 지배적이며 여름철에는 반대로 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해양성 계절풍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겨울철은 춥고 메마르며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다(6, 7, 8월에 년 총 강수량의 50~60%가 내린다). 봄철과 가을철은 계절풍의 교체기로서 바다나 륙지의 영향이 현저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로 따뜻하고 개인 날씨가 많다.

봄철에 기온은 급격히 높아지며 이에 따라 증발량도 급격히 많아지는 관계로 이 시기가 년중을 통하여 가장 메마른 시기로 된다.

가을철은 일반적으로 개인 날씨가 많고 온난한 편이며 년중을 통하여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륙으로부터 불어 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군 한다.

기온—우리 나라의 년 평균 기온은 10°C이며 북부에서 4°C, 중부에서는 10°C, 남부 해안 지대와 남부 해상의 도서들에서는 14°C이다. 남해안 및 남부 해상 도서들에서 1월 평균 기온은 3°C 내외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기온을 대비하면 여름을 제외하고 동해안이 2°C 내외로 높다.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기온의 차이는 겨울에 특히 심하고 여름에는 그 차가 매우 적다.

가장 더운 7월 또는 8월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26°C 내외로 되여 있으나 동부 산지대 고원 지방은 20°C 정도이다.

1월 평균 기온은 남부 해안에서 약 2°C이고 북부의 내륙 지방에서는 령하 21°C 이하로 내려간다. 우리 나라의 최고 기온 극은 1932년 8월 1일 40.3°C(일부 북부 내륙 지방에서 7월에 40°C까지 되는 날도 있다)이며 최저 기온 극은 1933년 1월 12일 중강에서 령하 43.6°C로 관측되였다.

강수량—눈은 북부 산지에서는 10월 하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기타 지방에서는 11월 초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사이에 내린다.

비는 어느 지방이나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 간에 년 총 강수량의 50~60%가 내린다. 년 총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800~1,000 미리메터 내외이고 가장 많은 남부 해안 지대에서는 1,400 미리메터를 초과하며 가장 적은 두만강 류역에서는 500 미리메터 이하되는 곳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대는 남부 해안 지대와 서부 산지대의 청천강과 대령강 상류 지방과 추가령 지구대의 림진강 류역이며 제주도와 울릉도는 1,400 미리메터 전후이다. 강우량이 적은 지대는 백무 고원, 동해안의 북부, 대동강 하류 류역이며 이 지대의 강수량은 600~700 미리메터이다. 우리 나라에서 년 강수량이 제일 많은 기록은 1954년 장진의 3,150.3 미리메터이다.

【하천 및 호수】 우리 나라의 하천은 전체적으로 보아 서해 사면, 동해 사면, 남해 사면으로 흐르는 하천들로 구분된다.

서해 사면과 남해 사면은 지형이 완만함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한강, 금강, 섬진강, 락동강 등의 큰 강들이 흐르고 있으며 반면에 동해 사면으로는 항상 경사가 급함으로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긴 강이란 없다.

우리 나라에는 그 길이가 50키로메터 넘는 강만 하여도 30여개나 있으며 이 강들을 통하여 1년 동안에 97.45 립방 키로메터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드는바 이것이 곧 우리 나라 물 자원의 대부분을 이룬다.

우리 나라에는 천지와 장연호를 비롯한 수 많은 자연 호수들과 수풍호, 장진호, 부전호, 연

풍 저수지, 태성 저수지 등 수많은 저수지들이 있다.

【바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해양국이다.

우리 나라의 바다들 중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는 동해인바 동해의 면적은 약 100만 평방 키로메터이고 그 평균 깊이는 약 1,700 메터이며 가장 깊은 곳은 3,669 메터이다. 해안선(두만강 하구—부산 서남쪽)의 총 연장은 약 1,727 키로메터로서 서해와 남해에 비하여 단조하며 섬들도 적다. 수온은 여름에 표면에서 25°C~28°C까지 되며 겨울에는 1°C 정도로 된다.

동해의 염분은 34.5%이고 조석 간만의 차는 극히 적고(0.2 메터) 해류는 난류인 동조선 해류와 대마 해류가 남쪽의 조선 해협을 지나서 흘러 들고 북쪽으로부터 한류인 리만 해류가 흘러 든다.

서해의 면적은 약 52만 평방 키로메터이며 해안선의 총 연장은 4, 719 키로메터이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약 40 메터이며 가장 깊은 곳이라 하여도 106 메터 정도에 불과하다. 수온은 겨울에 령도 내외로 내려가며 여름에는 25°C 이상으로 올라간다. 염분은 대체로 33.0% 미만이다.

서해의 중앙부에는 태평양의 구로시오로부터 갈라져 나온 서조선 해류가 흐른다. 서해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인천항 8.1 메터, 아산만 8.2 메터)수심이 얕음으로 해안에는 50만 정보(공화국 북반부에만도 약 30만 정보)의 넓은 간석지가 있다. 이것은 중요한 농경지로, 토초전과 제염업 기지로, 천해 양식장으로도 리용될 전망이 크다.

남해의 면적은 약 10만 평방 키로메터이며 해안선의 총 연장은 2,246 키로메터이다. 평균 깊이는 약 120 메터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7 메터이다. 수온은 여름에 표면에서 28°~30°C, 겨울에는 13°C까지 되며 염분은 약 34.0%이다.

조석 간만의 차는 2 메터 내외이며 해안에는 약 20만 정보의 간석지가 있다. 남해안에는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를 비롯한 2,200여 개의 섬들이 있으며 세계적인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동,식물계】 동,식물계는 우리 나라 자연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매우 풍부하며 다양하다. 1963년까지 조사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식물에는 167과 903속에 속하는 약 4,000여 개의 종과 아종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북부 고지대의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린네풀 등을 비롯한 한대성 식물들과 남부 지대의 북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의 아열대 식물, 우리 나라 고유 식물을 비롯한 온대성 식물 등 실로 다종 다양한 식물들이 분포되여 하나의 대자연 식물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는 고 지리학적 발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산 식물이 많은 것으로 세계에서 유명하다. 금강산의 금강초롱꽃, 세계 1속 1종 밖에 없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미선나무, 검산령의 검산초롱, 장수산의 장수만리화, 금강산의 금강국수나무 등은 그의 한 실례로 된다.

우리 나라의 동물상도 역시 매우 풍부하며 다양하다. 1963년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척추 동물에 속하는 것만도 대략 1,100여 종이며 그중 포유 동물은 104 종, 조류는 423종, 파충류는 27 종, 량서류는 15 종, 어류는 520 종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 위치, 면적 등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아주 많은 수'자이다. 또한 동물에 있어서도 특산종이 많다.

우리 나라 특산속 포유 동물인 복작노루를 비롯하여 특산종인 유명한 클락새 (개성, 평산, 강릉 이남 지역에 분포), 특산 아종인 산토끼 등 100여 종의 특산 동물이 있다. 이 외에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노루까, 은흑색 여우 등 외국산 동물들을 풍토 순화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동물상은 날로 풍부해지고 있다.

【토양】 우리 나라에는 다종 다양한 토양이 분포되여 있다.

우리 나라 북부의 비교적 높은 산악 지대에는 분비, 가문비를 비롯한 침엽 수림의 영향 하에서 산악 표백토가 발달되고 산림 한계선 이상의 산정 부근에서는 산악 습초원토가 분포되여 있다.

비교적 한랭한 중부의 산악 지대에서는 침엽 수림과 침활 혼성림의 영향 하에 산악 산림 갈색토가 분포되고 그의 하부인 침활 혼성림과 활엽 수림이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산림 갈색토가 발달하고 있는바 이 토양은 밭 작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중부 온대 남부 활엽 수림이 생육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저산 및 평지대에서는 산악 산림 저갈색토와 산림 저갈색토가 발달하고 있다.

이 토양은 남부의 적색토와 북부 및 부분적으로 중부에 분포된 산림 갈색토의 중간적 위치인 점이 지대에서 형성된다.

남부 해안 지대에는 아열대성 기후와 동백나무를 비롯한 산록 활엽 수림을 포함한 아열대림의 영향 하에서 적색토 또는 황색토가 발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분포된 비대적인 토양은 논 토양, 충적토, 간석지 토양, 소택토들이다.

우리 나라 평야 지대 각 곳에 분포되여 있는 논 토양은 농업의 발전과 밀접히 련결된 문화적 토양이며 우리 나라 알곡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양이다.

간석지 토양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되여 있는바 자연 개조의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충적토는 하천의 범람과 과거의 충적지였던 하안 단구들에 발

달하고 있다. 충적토의 면적은 그리 넓지 못 하나 이 토양의 대부분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이 논 토양으로 변화되였다.

자연 부원

【지하 자원】 우리 나라는 지하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명하다.

현재까지 300여 종의 광물이 발견되였는데 그중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은 약 200 종이나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 월프람,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운모, 중정석, 형석 등은 매장량에서나 채취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든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무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철광, 석탄, 연, 아연, 동, 알루미늄, 린회석, 내화 재료, 각종 희유 원소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이 밖에 망간, 니켈, 활석, 규사, 고령토, 석면, 화강암, 대리석 등 여러가지 유용 광물이 많다.

【수력 자원】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1,000만 키로왓트 이상의 출력에 해당하는 수력 자원(서구라파에서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불란서의 580만 키로왓트보다 훨씬 많다)을 가지고 있다.

수력 자원이 많은 하천들을 보면 압록강 수계, 두만강 수계, 대동강 수계, 청천강 수계, 그리고 림진강 수계, 한강 수계, 금강 수계, 락동강 수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력 자원이 많은 지역은 압록강 류역(280만 키로왓트)과 두만강 류역(100만 키로왓트)인바 이 두 강 류역은 세계적으로도 수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실로 수백만 키로왓트에 달한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면 서해안에서만도 최소 400억 키로왓트시 이상의 발전 가능량을 가지고 있다.

【산림 자원】 우리 나라는 산림 면적의 비중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 면적은 1,600만 정보로서 이는 전 국토의 73%에 해당한다.

산림 면적의 58.6%는 북반부에 있고 나머지 41.4%는 남반부에 있다.

우리 나라 산림 식물은 1,100여 종이나 되며 그중 교목만 하여도 침엽수가 19종, 활엽수가 136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의 산림에는 700여 종의 약용 식물, 200여 종의 산채류, 450여 종의 공업용 식물 등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산림 내에 있는 유용 식물들 중 중요한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섬유 및 제지 식물로서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다나무, 노박덩굴, 유지 식물로서는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초피나무 등이 있다. 산과실로서는 밤나무, 돌배나무, 들쭉나무, 살구나무, 머루, 다래, 산딸기, 매지나무, 염료 식물로서 시다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특수 용재의 수종으로서 참대, 오동나무, 황경피나무 및 기타 등이 있다.

【수산 자원】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해양국으로서 수산 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체되는 지역임으로 한류성 어족과 난류성 어족들이 모여 오는 세계 3 대 어장의 일부에 속한다.

우리 나라 수산 자원은 650여 종에 달하며 그중 530여 종은 바다에, 120여 종은 호수, 저수지, 하천 등에 분포되여 있다. 이 중에서 자원의 량과 리용 가치로 보아 수산업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어류 75 종을 비롯하여 120여 종에 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서해에서는 조기, 새우, 민어, 도미, 삼치, 갈치, 바스레기, 대합 조개, 김, 굴, 미역 등이며 동해에서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가재미, 방어 등이며 남해에서는 도미, 고등어, 갈치, 새우 등이다.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북반부이고 그 중에서도 함경남도 해안에서는 전 조선 어획고의 40% 이상이 생산된다.

우리 나라는 7 개년 계획 말에 100만~120만 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정 치

1963년에 전체 인민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10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인민 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증산하고 절약하며 부단한 혁신을 일으켜 이 해의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항상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였으며 국방력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였다.

이 해 대안 체계와 숙천 체계의 전면적 확립,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철저한 구현,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기업 관리 운영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고 생산력 발전의 모든 예비가 남김 없이 동원되였다.

또한 이 해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하나의 전일체로 단합된 불패의 통일을 다시 한번 시위하였다.

조선 인민은 이 해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의 호소를 받들고 1964년을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여 나섰다.

1963년에 또한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이 해에 조선 인민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층 반석같이 다지였다.

이 거대한 전진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위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의 심화 발전】 1962년 12월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는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기본 방도로서 10대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그 첫째로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계속 관철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1963년에 성 및 관리국들과 경제 기관들에서는 당 결정을 받들고 생산 지도, 기업 관리 운영 등 모든 사업에서 당 조직들과 군중에 의거하는 기풍을 더욱 확립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각급 당 위원회들은 집체적 령도 기능을 높여 생산 지도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당 정책 관철에서와 당원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에서 전변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결과에 이 해 벽두부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당 정책 관철을 위한 근로자들의 열성과 창발성이 고도로 발양되여 생산과 생활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 오게 하였으며 따라서 상반년 인민 경제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적으로 101%로 초과 수행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든 사실은 대안의 사업 체계가 우리 나라 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새로운 훌륭한 형태이며 생산자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나라의 생산력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체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는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가 취한 조치에 의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는 더욱 심화 발전되였다.

전원 회의 후 당 위원회들의 령도적 역할과 집체적 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직 사업들이 진행되였으며; 생산 지도에서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도와 주고 배워 주며, 사업 조건을 보장해 주며, 걸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안 체계의 우월성이 더욱 발양되였다.

그리하여 1963년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들도 있었으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집체적 령도 밑에 혁명적 적극성을 가지고 10대 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이룩하고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101.5%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켰다.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과학 연구 사업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이 달성되였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현저히

향상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되고 심화 발전되는 행정에서 그 우월성이 더욱 발휘됨으로써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심화 발전 행정에서 얻은 이 거대한 성과들은 나아가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전환의 해로 될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을 례년에 비해 훨씬 앞당겨 작성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그 계획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 회의 (1963년 5월) 결정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1963년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이미 칭호를 쟁취한 작업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기본 생산 부문에서 이 운동을 확대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동시에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 기수들의 대렬을 계속 장성시키며 나아가서 2중 천리마 작업반과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의 대렬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2중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직장 대렬이 급격히 확대되였다.

또한 공화국 내각은 1961년 이래 천리마 인민반 창조에 일떠선 대중들의 열의를 받아 들여 1963년 9월 17일 결정 제 59 호로써 《천리마 인민반 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내각 결정이 나온 후 인민반들에서 이 운동은 더욱 앙양되였다.

1963년 말 현재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는 321만 명의 로동자, 사무원, 협동 농장원 및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58만 6,000여 명을 망라한 1만 7,000여 개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그중 179 개의 작업반이 2중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았다. 특히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안 전기 공장이 천리마 공장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81 개(1964년 2월 현재)의 인민반이 천리마 인민반 칭호를 쟁취하였다.

1963년에 천리마 기수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생산에서 부단한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영예로운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였다.

천리마 기수들은 1963년에 공업 및 건설, 운수 부문에서만도 소결광 생산에서 무연탄의 도입, 프로그람 장치에 의한 금속 절삭 가공의 자동화, 무정전 고압 선로 작업 등 6만 4,000여 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을 생산에 도입하였고 75 마력 뜨락또르, 75 톤급 탑식 기중기, 4 립방메터 엑스까와또르, 400 마력 디젤 기관 및 200 미리 보링 등 수 많은 대형 및 특수 기계들을 자체로 훌륭히 생산하였으며 탄광, 광산 설비들과 농촌 경리, 경공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리마 기수들은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로력 조직을 잘하여 로력을 아껴 쓰면서도 도처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현존 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종업원 한 사람의 생산액을 높이기에 힘썼다.

이와 함께 천리마 기수들은 기업 관리의 전 행정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생산의 예비를 대중적으로 탐구 동원하며 대중적 기업 관리의 방법들을 광범히 일반화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전개되는 모든 단위에서 천리마 기수들은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으며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이 해에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생활의 실천적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자기의 공장과 농촌,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나사못 한 개,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 사회 재산을 극진히 애호 관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꾸리는 기풍을 확립하였다.

또한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

	1963년도 수여		1963년 말 총계	
	작업반 수	인원수	작업반 수	인원수
◆ **로동자, 사무원**				
천리마 작업반	1 253	29 621	10 157	213 376
2중 천리마 작업반	36	736	130	3 031
천리마 직장	13	2 743	26	6 880
천리마 공장	1 (대안 전기 공장)	…	1	…
◆ **협동 농장원**				
천리마 작업반	1 141	127 971	3 127	232 636
2중 천리마 작업반	11	1 227	11	1 227
◆ **학생**				
천리마 학급	1 912	69 010	3 773	140 391
2중 천리마 학급	5	…	38	…
천리마 학교	3	…	3	…
모범 소년단	11	…	12	…
2중 모범 분단	57	…	57	…
모범 분단	4 384	…	7 008	…

교양 방법을 비롯하여 인간 교양의 다양한 방법과 형태들을 더욱 발전시켜 전체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기에 힘썼다.

이 해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며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의 정신, 도덕적 풍모가 한층 더 대중적으로 꽃피였으며 숭고한 감동적인 미거가 수 많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 인민들 속에서 피여나고 있는 이러한 아름답고 감격적인 미거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 사업의 빛나는 결실이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의 발현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 고조의 개시] 우리 인민의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과 호소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쥐였으며 그들을 한없는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오랜 세월 천대 받고 못 살던 우리 인민, 제 나라 제 땅의 번영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싸우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이 남보다 못 하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 영웅 조선의 이름이 세계의 선진 국가 대렬에서 빛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갈망하여 온 숙망을 이룩하기 위하여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전변을 일으키며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라고 부른 당의 호소에 호응하는 대중의 열의는 혁명적 열정의 폭풍으로 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을 휩쓸었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맵시 있고 쓸모 있는 다종 다양한 일용 필수품, 식료 가공품과 문화 용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중앙 공업 공장들과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는 공장을 더 잘 꾸리고 기술 장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곳에서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벌어졌다.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과 전체 협동 농장 농민들은 알곡 특히 벼를 증산하기 위하여 논을 늘구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열의를 발휘하였다.

1963년에 8만 9,000 정보의 관개 능력을 가진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와 순화강 치수 공사를 비롯한 수 많은 관개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황해북도 내 협동 농장 농민들과 관개 관리 부문 일'군들은 1963년 가을에 1만 2,215 정보의 논을 새로 풀었다.

생산적 건설을 앞세우면서 도시와 농촌 마을에 더 많은 문화 주택을 짓기 위한 건설 부문 일'군들의 투쟁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 건설인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자들은 영웅적 기개를 발휘하여 《새 평양 속도》를 창조하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켰다.

철도의 전기화를 적극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건설자들은 1963년 말까지 단천—홍원 간의 전기 철도 공사를 끝냈으며 전 인민적 지원 밑에 평양—신의주 간의 전기 철도 공사에 달라붙어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중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공업의 끝간에 살을 붙이고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시켰다.

각지 기계 제작 공장들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생산 면적을 2배 이상으로 확장하고 최신형 기계 설비들로 공장을 더욱 훌륭히 꾸리여 대형 기계들과 탄광 및 광산 설비와 각종 농기계, 그리고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소형 기계를 비롯한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이 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데 대한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전환의 해로 될 1964년의 새 전투에서 승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7 개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인민 생활을 1~2년내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킬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방침과 제반 조치, 그리고 이를 받들고 일떠선 전체 당원들을 선두로 하는 근로 대중의 투쟁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 회의

196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에 걸쳐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의 수립과 그의 심화 발전, 새로운 기업 관리 체계를 통하여 청산리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거대한 앙양과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소집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①《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②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의정 첫째 문제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

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였으며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우리 당 사업 발전에서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의의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혁명 진지를 가일층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이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고 심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우월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하에 전체 군중을 기업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의 기능을 한층더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공장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당 위원회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결합하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제기된 과업의 집행을 위하여 분공을 조직하고 당 조직들과 군중들을 동원하여 사업 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해당한 문제의 해결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키잡이》의 역할을 높일 것을 제기하였다.

특히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다주는 자재 공급 체계의 확립과 그것이 생산에 주는 능동적 작용에 대하여,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호상 방조하는 기풍을 발양하며 모든 사람이 동지적 단결을 일층 강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며 정치 사업의 하나인 후방 공급 사업을 계속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모든 일'군들이 혁명가다운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모든 사람이 배우고 배워 주는 데 정력을 기울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에서 이룩된 거대한 변화는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였으며 이 경험과 성과를 계속 확대 발전시킨다면 당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 요강(잠정)을 채택하였다.

의정 둘째 문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된 천리마 운동이 심화 발전되는 행정에 일어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거둔 거대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그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대책을 토의 결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생산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인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학교로서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지도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으로써 이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끌어 올리며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과 근로 단체들이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계급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 투사로 교양 육성하며 특히 학생 청년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이고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소유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특히 전원 회의는 천리마 작업반에 대한 지도에서 각급 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각급 당 위원회들은 이에 대한 지도를 자기의 책임적인 임무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1963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진지를 공고히 한 토대 우에서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는 장엄한 시기에 들어선 때에 소집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①《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대한 예비적 총화와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②《축산물 생산을 증대시킬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기하면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의정 첫째 문제에 대한 토의에서 전원 회의는 1963년에 10 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거둔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한 다음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계속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의정 둘째 문제 토의에서는 이미 축성된 토대에 기초하여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서 첫째로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게 소, 양, 토끼 등 초식 가축의 사육과 양돈업을 발전시키면서 닭을 비롯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둘째로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 공동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 부업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며 협동 농장에서 공동 사육과 개인 사육, 소집단 사육과 분산 사육을 배합하여 축산물 상품 생산 비중을 급속히 증가시키며 세째로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축산업을 가축별, 생산물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채택하였다.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의 발단을 이루어 놓은 1956년 12월 전원 회의와 같이 또한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을 더욱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품 생산의 거대한 재부를 급속히 찾아나게 한 1958년 6월 전원 회의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열어 놓은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2차 회의

시일 1963년 5월 9일—11일

의안 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62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3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첫째 의안에 대하여 한 상두 재정상이 보고하였다. 회의는 이를 심의하고 1962년 국가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3년 국가 예산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 결정에 철저히 립각하여 1962년 여섯개 고지 점령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앞으로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출 데 대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된 인민적 예산이라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회의는 1962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1963년 국가 예산에 대한 법령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둘째 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 기간에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채택한 정령들을 승인하는 법령과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

1963년 12월 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였다.

지난 해에 있은 제3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력사적 승리에 뒤'이은 금번의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는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새로운 대진군에 떨쳐 나선 전환의 시기에 진행되였다.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관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10월 15일 정령에 접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 정권을 반석의 기초우에 더욱 튼튼히 올려 세우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신의 불'길을 높이면서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에로 내 달리였다.

지하 수천 척의 채굴 막장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모든 단위에서, 도처의 건설장들에서, 풍년가 드높은 황금의 전야에서, 동서해의 어장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련일 증산의 개가를 올리였으며 들끓는 환희 속에서 자기들의 대표자들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를 앞둔 전 기간에 걸쳐서 전체 인민의 고도의 정치적 열의와 세인을 놀래우는 로력적 앙양이 온 나라에 물결쳤다.

선거 당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선거자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된 높은 긍지와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정을 안고 이른 새벽부터 앞을 다투어 선거장으로 달려 나갔으며 당의 령도하에 조국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더욱 앞당기려는 붉은 정성을 그대로 담아 찬성의 한표 한표를 바쳤다.

오전 6시 정각 전국 각 선거 분구들에서 투표가 개시되여 평양시에서는 불과 1시간 50분 만인 7시 50분 현재로 선거자 전원이 투표를 끝냈으며 전국적으로는 오전 9시 35분 현재로 모든 선거자들이 빠짐 없이 투표를 마치였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100%가 참가하여 등록된 대의원 립후보자에게 100%의 찬성 투표로 끝났다.

피선된 대의원들을 각급 인민 회의 별로 본다면 도(직할시) 인민 회의 대의원은 2,517 명(그중 녀성 571명),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은 1만 4,303 명(그중 녀성 3,820 명),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은 7만 250 명(그중 녀성 2만 1,062 명)이다.

새로 선거된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들 중에는 지난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 무장 투쟁에 직접 참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해방 후에 계속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혁명 투사들과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전선과 후방에서 영웅하게 싸운 일'군들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로력 혁신자들, 과학 기술 일'군, 교육 문화 보건 일'군 등 각 부문의 일'군들이 망라되여 있다.

또한 대의원들 중에는 32명의 공화국 영웅, 138 명의 로력 영웅들과 100 명의 공훈 광부, 28 명의 공훈 벌목공 및 공훈 류벌공, 9 명의 공훈 사양공, 10 명의 공훈 교원, 3 명의 인민 배우 및 공훈 배우, 3 명의 공훈 체육인들과 732 명의 천리마 작업반장들이 들어 있으며 각종 훈장, 메달을 받은 대의원 수는 무려 2만 4,167 명에 달한다.

제3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력사적인 승리에 뒤'이은 금번의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여 주었으며 그 주위에 철석 같이 결속된 전체 인민의 확고 부동한 정치 도덕적 통일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선거에서 달성한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시책의 정당성과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이다.

또한 선거에서의 승리는 우리 혁명의 온갖 원쑤들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과 조국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었다.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과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일층 공고히 하고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하에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 고조를 이룩할 대진군에로 계속 힘차게 나아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전체 조선 인민은 1963년 9월 9일, 적들과의 오래고 간고한 싸움을 거쳐 쟁취하였으며 자신의 손으로 세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1963년 8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영광스러운 민족적 명절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 당 중앙 위원회는 조선 혁명의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 창건 열 다섯 돐을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천리마 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 들었던 강선 제강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8월 3일에 가진 직맹 열성자 회의에서 년간 계획을 1 개월반 이상 앞당겨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 금속 공업 부문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하였다. 이에 뒤'이어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는 증산 경쟁의 불'길이 높이 타올랐으며 각지 근로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휘하면서 10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로력 투쟁을 강화하였다.

더우기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할 데 대한 위대한 구상을 전체 인민들 앞에 펼쳐 놓아 명절 맞이로 들끓는 그들을 더한층 흥분시켰다.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경축하는 행사는 9월 8일과 9일에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경축 대회와 군중 대회가 진행된 것을 비롯하여 학계, 문학 예술, 체육 등 각 부문들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각종 모임을 통해 조선 인민은 조국 강토 우에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들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총화하는 동시에 보다 찬란한 미래에 대한 감격으로 하여 더 한층 들끓었다.

한편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국 국회 및 정부 친선 대표단과 대표들, 친선 협회 대표단들, 형제 국가 직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다.

◇ **경축 대회 및 군중 시위**: 9월 8일 저녁 평양 대극장에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가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가 있었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 로동당

의 령도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걸어온 15 년간의 승리의 행로와 찬란한 업적을 총화하고 당이 제시한 행복한 앞날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과업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날 각 도 소재지들에서도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대회들이 있었다.

9월 9일 아침 김 일성 광장에서는 30여만 군중이 참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평양시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김 창봉 대장의 축하 연설이 있은 다음 백전 백승의 우리 인민 무력의 위력을 과시하는 조선 인민군 부대의 열병식과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무장한 로농 적위대의 장엄한 행진이 있었다.

로농 적위대의 시위에 뒤따라 평양 시내 근로자들, 문화 예술인들,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군중들은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화국의 기치하에 사랑하는 조국 땅 우에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들을 자랑하며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번 대고조를 일으킬 충천한 기세로 시위하였다.

이날 각 도, 시, 군들에서도 군중 시위들이 각각 진행되였다.

◇ **학술 발표**: 9월 2-5일까지의 기간에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기념하여 경제학 부문, 조선어 및 문학 부문, 력사학 부문, 사회 과학 부문 학술 발표회와 의학 과학 연구원 학술 보고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학술 발표회들에서는 15 년간에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을 개괄 총화하면서 우리 당 정책의 창조성과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론증하는 론문들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 후과를 분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이외에 각 대학들에서도 지난 기간 인민 정권이 쌓아 올린 업적들을 총화하는 학술 보고회와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 **문학 예술 부문**: 8월 13일에 개막된 전국 예술 축전(중앙과 지방의 약 30 개의 연극 및 음악 무용 단체들이 참가)과 9월 8일에 진행된 3,000 명의 평양 시내 예술인들이 출연한 음악 무용 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비롯하여 예술 써클 경연 대회들이 공화국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각지 영화관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예술의 급속한 발전 면모를 보여 주는 영화 상영 순간이 진행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 공업과 농업의 발전 면모를 보여 주는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을 비롯한 상설 전람관과 새로 준비한 각종 전람관들 그리고 중앙 사진 전람회, 미술 써클 전람회를 비롯한 각종 전람회들이 각각 열리였다.

◇ **체육 경기**: 9월 9일 모란봉 경기장에서는 3만 5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출연한 대 집단 체조 《천리마의 조선》이 진행되였다.

청진시에서 《9월의 명절》(2만 명 출연), 개성시에서 《우리 제도 만세!》(7천 명 출연)를 비롯하여 신의주, 원산, 사리원 등 각 도, 시 소재지들에서도 집단 체조가 진행되였다.

집단 체조들은 공화국의 찬란한 력사와 그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모습,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는 천리마의 기상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께 드리는 편지 전달 계주는 유서 깊은 보천보와 1,211 고지, 판문점, 아오지 탄광,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남포 제련소의 6개 지점에서 출발하여 이날 오후 4시에 모란봉 경기장에 도착하였다. 이 편지 전달 계주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학업에서 모범적인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 인민군 군인들 근 4만 명이 참가하였다.

김 일성 원수께 드리는 축기와 축하문을 가지고 8월 20일에 청진을 출발한 재일 조선 청년 학생 자전거 행진대가 역시 9월 9일 모란봉 경기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8월 11일부터 평양, 함흥, 개성, 신의주 등지에서 열린 제 2 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는 9월 14일까지 진행되여 경축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경축 행사들을 통하여 진정한 인민 주권을 창건하고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 준 당과 김 일성 동지에게 다함 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목숨으로 지키며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1963년에도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1963년 신년사에서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은 힘을 합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우리 나라를 또다시 침략하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반대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 강토에서 외래 침략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1963년에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국 통일 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

주의적 원칙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성된 정세에 상응하게 현실적인 방안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아울러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열렬한 형제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였으며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침략적이며 기만적 정책들을 폭로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북반부 인민들의 형제적 지지 성원에 고무 격려된 남조선 인민들은 전례 없는 파쑈적 폭압이 감행되는 조건하에서도 미제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을 반대하고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였다.

◇ **남북 합작과 군비 축소 및 남북간의 평화 협정의 체결을 또다시 제의:**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보고에서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지난 15 년간 남북 조선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를 총화하고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긴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일련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최 용건 동지는 우선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하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였다.

남북 합작과 군비 축소 및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의 체결은 남조선 인민의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불신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1963년 12월 10일, 남반부 각계 인민들 속에서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공동 련석 회의가 진행되였다. 동 련석 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련석 회의는 자주적 국토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과 사회계 및 정계 인사들의 지향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자주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공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을 제시하였다.

련석 회의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조건하에서 남북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조선의 군대를 축소하며 남북 간의 서신 거래와 인사 왕래를 실현하며 경제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것을 다시금 제의하면서 이와 같은 긴절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들이 판문점이나 기타 지역에서 시급히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회의는 그 실현을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을 남조선 동포들과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호소하였다.

◇ **미제의 침략 책동과 그 죄행을 폭로 규탄:** 정전 협정 체결 10 주년에 제하여 7월 25일 외무성은 비망록 《미국 측의 조선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비망록은 정전 이후 10 년간 정전 협정을 끊임 없이 란폭하게 파괴 유린하고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종 일관 방해하고 있는 미제의 범죄 행위의 진상을 세상에 폭로하였다.

7월 31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전쟁 도발 책동의 범죄적 정체를 은폐하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하려는 미 국무성의 7월 26일부 성명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7일 조선 중앙 통신사는 미제 침략자들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사계 사건》을 급작스러이 날조하여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어 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이와 같은 허위 날조는 저들의 새 전쟁 모험 정책을 정당화하며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 상태로부터 인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며 저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렬한 상투적 수'법임을 폭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에 또다시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하고 례년과 같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날조하였다.

공화국 외무성은 자기의 성명(9월 25일)과 대변인 성명(12월 15일)을 발표하여 그 비법성을 폭로하고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특히 11월 22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비망록 《조선 통일 문제 해결의 길》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비망록에서 유엔은 조선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만약 유엔이 진정으로 그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충실하게 행동하려면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정들을 취소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문헌 참조).

7월 19일 우리 나라 경제 학자들은 남조선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의 본질을 만 천하에 폭로 단죄하며 그들의 죄행을 전 세계 선량한 인류 앞에 제소하는 성토문을 발표하였다.

◇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화국 북반부 사회 단체들의 호소**: 1963년 1월 14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박정희 도당의 《민정 이양》 책동을 폭로하면서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음모를 단호히 반대하며 파탄시킬 것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뒤'이어 2월 4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4.19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다시 애국적 투쟁에 결연히 일떠설 것을 호소하였다.

5월 18일에는 조선 농민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선 먹고 살기 위하여 식량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남조선에서 기아를 면할 수 없거든 죽음의 땅을 버리고 공화국 북반부로 넘어 오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반미 반정부적 투쟁이 앙양됨과 관련하여 9월 6일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는 남조선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남조선 로동 계급의 투쟁에 대한 공화국 북반부 로동 계급의 열렬한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전 인민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자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반제 민족 해방 투쟁과 평화적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하여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6.25 13 주년과 조선 정전 협정 체결 10 주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 국제 기구 및 단체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과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당의 자주적 조국 통일 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지지하여 1963년에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 56 회의 보고회, 군중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에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시킨 것을 반대 배격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의 성명을 비롯한 184 건의 사회주의 진영 나라 정부 및 사회 단체들의 성명 및 서한들이 발표되였다.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로부터도 광범한 지지를 받았는바 이 지역 나라들의 44 개의 사회 단체들은 조선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18 회의 군중 집회를 조직하였으며 23 건의 성명, 결의문 및 서한을 채택하였다.

제 3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위원회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공동 투쟁 월간》을 설정할 것을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들에서도 우리 나라 정부의 통일 방책을 지지하여 56 건의 성명, 호소문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공화국 정부의 배려】 공화국 내각은 1963년 6월 28일 남반부의 절량민들과 리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백미 10만 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날 농업 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내각의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공화국 내각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제미를 판문점이나 기타 남조선 측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지점에서 7월 5일부터 인수하여 갈 것을 요망하였다.

7월 2일 재 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상무 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즉시 받아 들일 것을 요망하였다. 동시에 재일 전체 동포들의 절실한 심정에 기초하여 우선 구호미 1천 석을 보낼 것을 결정한 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전달하기 위한 대표단의 입국을 보장하여 줄 것을 남조선 당국에 요망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형제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보내려던 백미 10만 석은 괴뢰 도당의 반역적 태도로 말미암아 전달되지 못 하였다.

1963년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제의들은 이 해에도 역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 도당의 거부로 하여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곤경에 빠진 남반부 형제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려는 숭고한 민족적 의무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 가 기 관

최고 주권 기관

【최고 인민 회의】 최고 인민 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립법권은 오직 최고 인민 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 인민 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 년이다.

최고 인민 회의는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최고 인민 회의는 정기 회의 및 림시 회의를 가진다. 정기 회의는 1 년에 2차 소집하며 림시 회의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현 최고 인민 회의는 제3기로서 1962년 10월 8일에 실시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383 명으로 구성되였다.

제3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구성

◇ **대의원들의 계층별 구성**

대의원 총수	383 명
(그중 녀자)	35 명
로동자 대표	215 명
농민 대표	62 명
사무원, 지식인 대표	101 명
기타	5 명

◇ **대의원들의 년령별 구성**

18~29 세	12 명
30~39 세	99 명
40~49 세	181 명
50~59 세	71 명
60세 이상	20 명

◇ **대의원들의 지식 정도별 구성**

대학 졸업 정도	101 명
전문 고중 졸업 정도	26 명
중학 졸업 정도	256 명

의 장	최 원택	
부의장	리 기영	김 득란

◇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자격 심사 위원회**

위원장	최 용진	
위 원	박 웅걸	한 동백
	리 재윤	류 기익
	추 상수	로 영세

◇ **최고 인민 회의 법제 위원회**

위원장	김 익선	
위 원	허 봉학	김 동규
	최 기철	리 재영
	김 히준	로 익명
	김 국훈	김 시중

◇ **최고 인민 회의 예산 위원회**

위원장	림 계철	
위 원	강 희원	정 성언
	오 재룡	리 찬선
	정 종기	장 윤필
	리 창복	김 무회
	박 승흡	주 원생
	지 장건	윤 련환
	전 경화	리 석심

◇ **최고 인민 회의 외교 위원회**

위원장	박 용국	
위 원	김 왈룡	허 석선
	유 건양	정 광록
	김 옥순	최 학선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 최고 주권 기관이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 인민 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장	최 용건	
부위원장	박 정애	홍 명희
	강 량욱	백 남운
	박 금철	
서기장	림 춘추	
위 원	리 효순	하 앙천
	현 무광	박 신덕
	최 현	리 영호
	김 왈룡	김 옥순
	로 익명	김 창덕
	송 영	리 만규
	리 면상	계 응상
	리 재복	도 유호

1963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서술편 147 폐지 참조).

1963년에 공포한 주요 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시 및 산업 건설성, 농촌 건설성을 각각 폐지하고 건재 공업성을 설치함에 관하여(1963. 1. 8)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월남 민주 공화국 간의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비준함에 대하여 (1963. 2. 2)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무 군사 칭호를 제정함에 관한 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데 대하여(1963. 2. 2) △ 평안남도 룡강군, 온천군 일부 리를 분리하여 남포시에 편입하며 남포시 일부 동을 분할 및 조절할 데 대하여 (1963. 3. 18)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철도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63. 3. 18) △ 평양시 내 일부 행정 구역을 분할 및 조절함에 대하여(1963. 5. 8) △ 평안북도 내 일부 행정 구역을 개편 및 조절함에 대하여(1963. 5. 8)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간의 장기 무역 협정과 지불 협정을 비준함에 대하여(1963. 7. 1)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기계 공업성을 폐지하고 기계 공업 위원회를 설치함에 대하여 (1963. 7. 30)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63. 10. 9)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에 대하여 (1963. 10. 15)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63. 10. 15)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일부 행정 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대하여(1963. 11. 18)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상을 제정함에 대하

여 (1963.12.17)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63.12.17).

국가 중앙 집행 기관

【내각】 내각은 국가 주권의 최고 집행 기관이며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공포한 결정 및 명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령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내각은 각 성 및 직속 기관의 사업 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하며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 인민 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1962.10.22,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에 의하여 수상, 제1 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 위원장들과 그외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은 전원 회의와 상무 회의를 가진다. 전원 회의는 내각 성원들로, 내각 상무 회의는 수상, 제 1 부수상, 부수상들로 각각 구성한다.

현 내각은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제1차 회의(1962.10.23)에서 조직되였다.

◇ 내각 성원

수 상	김 일 성
제 1 부수상	김 일
부수상	김 광협, 김 창만, 정 일룡, 남 일, 리 종옥, 리 주연, 정 준택, 최 용진
민족 보위상	김 창봉
사회 안전상	석 산
외무상	박 성철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정 준택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 두삼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위원장	오 동욱
국가 경공업 위원회 위원장	림 계철
기계 공업 위원회 위원장	현 무광
교통 운수 위원회 위원장	최 용진
농업 위원회 위원장	김 만금
금속 화학 공업상	리 종옥
전기 석탄 공업상	정 일룡
수산상	강 점구
림업상	정 동철
건재 공업상	김 병식
철도상	김 회일
체신상	박 영순
재정상	한 상두
상업상	김 세봉
수매 량정상	한 대영
무역상	리 주연
로동상	백 선일
내무상	박 문규
고등 교육상	김 종항
보통 교육상	윤 기복
문화상	박 웅걸
보건상	최 창석

지방 주권 기관

【각급 인민 회의】 지방 주권 기관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지방 주권 기관 구성법》(1954년 10월 30일)에 의하여 구성된다.

도,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에 있어서의 지방 주권 기관은 해당 인민 회의이다.

각급 인민 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임기에 있어서 도 인민 회의는 4년, 시(구역), 군 및 리(읍, 로동 자구) 인민 회의는 2년이다.

도, 시(구역), 군 인민 회의 정기 회의는 6개월에 1차씩,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정기 회의는 3개월에 1차씩 소집하며 림시 회의는 해당 인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인민 회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각급 인민 회의는 자기 활동에 있어서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 기관의 결정, 명령, 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보장한다.

1963년 12월 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서술편 147 페지 《지방 주권 기관 선거》 참조).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들의 구성

도(직할시) 인민 회의 대의원

대의원 총수	2 517 명
(그중 녀자)	571 명
로동자	673 명
농민	464 명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	1 002 명
과학자, 기술자 및 문화 예술인	378 명

시(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대의원 총수	14 303 명
(그중 녀자)	3 820 명
로동자	4 062 명
농민	3 708 명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	5 419 명
과학자, 기술자 및 문화 예술인	1 114 명

리(읍, 로동자구) 대의원

대의원 총수	70 250 명
(그중 녀자)	21 062 명
로동자	6 644 명
농민	45 429 명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	13 980 명
과학자, 기술자 및 문화인	4 197 명

【각급 인민 위원회】 도,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의 집행 기관이며 지방의 국가 행정 기관이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와 상급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모든 국가 행정 사업을 수행한다.

모든 인민 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해당한 인민 회의 및 상급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재판소 및 검찰소

【재판소】 재판은 최고 재판소, 도, 시, 군 재판소에서 수행한다.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최고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최고 인민 회의에서 선거하며 도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시, 군 재판소는 2년 임기로 해당 인민 회의에서 각각 선거한다.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최고 재판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최고 재판 기관이며 모든 재판 기관의 재판 사업을 감독한다.

최고 재판소 소장 **김 익선**

【검찰소】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 기관, 단체, 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며 각 성의 성령, 규칙 및 지방 주권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 결정, 명령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 인민 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 검찰소의 검사 총장이다.

도, 시, 군 검사는 검사 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지방 주권 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최고 검찰소 검사 총장 **리 극진**

정당, 사회 단체

조선 로동당

조선 로동당의 전신은 조선 공산당이다. 조선 공산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항일 무장 투쟁에서 육성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1945년 10월 10일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창건되였다.

조선 공산당은 1946년 8월 객관적 혁명 정세 발전의 요구에 순응하여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조선 로동당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 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 투사들로써 조직한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며 그 일반적 원리를 조선 혁명의 실천 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며 조선 혁명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 로동당은 남북 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로부터 해방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 로동당은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혁명의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킨다.

조선 로동당은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조선 인민과 위대한 쏘련, 중국 및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모든 나라 근로 대중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지지 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당원 수 131만 1,563 명, 그 중 정당원 116만 6,359 명, 후보 당원 14만 5,204 명 (1961년 8월 1일 현재)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

김 일성　최 용건
김 일　박 금철
김 창만　리 효순
김 광협　정 일룡
남 일　리 종옥
박 정애　리 주연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

김 익선　하 앙천
한 상두　현 무광
김 창봉　박 성철

◇중앙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김 일성**

부위원장 **최 용건　김 일**
박 금철　김 창만
리 효순　김 광협

◇중앙 위원회 검열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김 익선
부위원장 황 원보 김 창덕
박 춘혁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장 김 려중
부위원장 리 호철

【1963년도 주요 사업】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 회의 (1963년 5월 13일—15일). 의안: ①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②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1963년 9월 3일—5일). 의안: ①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대한 예비적 총화와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②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 (문헌편 참조).

북조선 민주당

창립 1945년 11월 3일
위원장 강 량욱

천도교 청우당

창립 1946년 2월 8일
위원장 박 신덕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에 걸쳐 남북 조선 71 개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 대표 704 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 대회에서 결성(27일)되였다.

상무 위원 (1963년 12월 31일 현재)

김 일성	최 용건
박 금철	김 창만
리 효순	홍 명희
백 남운	강 량욱
박 신덕	한 덕수
김 천해	강 영창
홍 순권	리 면상
리 기영	천 세봉
김 왈룡	리 극로
고 준택	리 만규
안 숙용	

의장단

박 금철	강 량욱
박 신덕	한 덕수
리 극로	김 천해
고 준택	

조선 직업 총동맹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1945년 11월 30일 북조선 직업 총동맹이 창립되였다(당시 맹원 39만 9백 여 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3차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1951년 1월 20일—22일에 소집된 남북 조선 직업 총동맹 련합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북조선 직업 총동맹과 조선 로동 조합 전국 평의회를 단일한 조선 직업 총동맹으로 통합하였다 (당시 맹원 59만 3,978명).

조선 직업 총동맹은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대중적 조직이다.

조선 직업 총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옹호자이며 당과 로동 계급의 련계를 보장하는 인전대로서 당의 령도 하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개하며 로동 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 임무 수행에로 조직 동원한다.

조선 직업 총동맹은 1947년 5월 22일에 세계 직업 련맹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세계 직업 련맹 총리사회와 집행 위원회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맹원 수 172만 1천여 명(1962년말 현재)

위원장 김 왈룡

◇ 산업별 동맹 중앙 기구

조선 금속 화학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전기 석탄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기계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경공업 상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건설 림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농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수산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교통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체신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1963년도 주요 사업】 직총 중앙 위원회 제 7차 전원 회의(1963년 1월 24일—25일). 의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5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직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직총 중앙 위원회 제8차 전원 회의 (1963년 6월 27일—28일). 의안: 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6차 전원 회의 결정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집행하기 위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②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집행하기 위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 직총 중앙 위원회 제 9차 전원 회의(1963년 9월 6일). 의안: 최근 남조선 로동 운동에 대하여 ▶ 직총 중앙 위원회 제 10차 전원 회의(12월 21일—23일). 의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각각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1946년 1월 17일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이 창립되였다. 1951년 1월 17일에 있은 남북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련합 회의에서 남북 조선

민청을 조선 민주 청년 동맹으로 통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그의 역할을 일층 제고할 데 대한 조선 로동당의 방침에 따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5차 대회는 1964년 5월 15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 단체이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이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청년들을 우리 당의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 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한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1946년 6월 24일에 세계 민주 청년 련맹에 가입하였으며 1949년 9월 15일부터 진행된 국제 학생 동맹 제 4차 리사회 결정에 따라 이 동맹에 가입하였다.

맹원 수 271만 3,861 명(1964년 3월 말 현재)

위원장 홍 순권

조선 소년단

창립 1946년 6월 6일

소년단 단원 수 160만여 명

【1963년도 주요 사업】 중앙 위원회 제 15차 전원 회의(1963년 2월 2일—5일)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①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가 민주 청년 동맹 앞에 준 강령적 과업 집행 정형에 대하여 ②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 5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민청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3년 6월 20일—21일에 중앙 위원회 제 16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① 청소년 교양 사업에 대하여 하신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5월 3일 교시 집행 정형에 대하여 ②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차 대회 소집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3년 10월 27일—29일 중앙 위원회 제17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 민주 녀성 동맹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 녀성 동맹이 창립되였다.

1951년 1월 19일—20일에 걸쳐 소집된 남북 조선 녀성 동맹 합동 중앙 위원회 회의는 남북 조선 녀맹을 조선 민주 녀성 동맹으로 합동하였다.

1946년 10월 16일 국제 민주 녀성 련맹에 가입하였다.

맹원 수 250만 767 명(1962년 말 현재)

위원장 박 정애

【1963년도 주요 사업】 중앙 위원회 제 10차 전원 회의(1963년 2월 13일—14일)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62년도 녀맹 단체들의 사업 총화와 1963년도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중앙 위원회 제 11차 전원 회의(1963년 11월 25일—26일)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녀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창립 1961년 5월 13일

위원장 홍 명희

조선 농민 동맹

창립 1946년 1월 31일

조선 기자 동맹

창립 1946년 3월 10일

위원장 정 준기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창립 1961년 3월 2일

위원장 박 웅걸

◇ **문예총 산하 부문 동맹**

조선 작가 동맹

창립 1953년 9월 28일

위원장 천 세봉

조선 음악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20일

위원장 리 면상

조선 미술가 동맹

창립 1953년 10월 1일

위원장 정 관철

조선 연극인 동맹

창립 1961년 1월 19일

위원장 리 재덕

조선 영화인 동맹

창립 1961년 1월 17일

위원장 리 종순

조선 무용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18일

위원장 김 제홍

조선 사진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22일

위원장 고 룡진

조선 적십자회

창립 1946년 10월 18일
위원장 박 신덕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창립 1949년 3월 24일
위원장 강 량욱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

창립 1956년 4월 3일
위원장 서 철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창립 1956년 5월 31일
위원장 김 왈룡

조선 학생 위원회

창립 1961년 5월 27일
위원장 고 상준

조쏘 친선 협회

창립 1945년 11월 11일
위원장 리 기영

조중 친선 협회

창립 1958년 10월 3일
위원장 김 종항

조몽 친선 협회

창립 1961년 7월 7일
위원장 박 웅걸

조선 꾸바 단결 위원회

창립 1962년 12월 26일
위원장 박 세창

조선 남부 월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

창립 1963년 12월 13일
위원장 김 왈룡

조선 인도 문화 협회

창립 1957년 5월 8일

조선 불란서 친선 협회

창립 1958년 6월 20일

조선 인도네시아 친선협회

창립 1958년 11월 10일
위원장 송 영

조선 네팔 친선 협회

창립 1959년 11월 9일
위원장 리 면상

조선 쎄일론 친선 협회

창립 1963년 8월 30일
위원장 박 웅걸

조선 공업 기술 총련맹

창립 1946년 4월 14일
위원장 김 두삼

조선 농림 기술 총련맹

창립 1946년 12월 1일

조선 자연 보호 협회

창립 1959년 6월 25일

조선 건축가 동맹

창립 1954년 3월 26일
위원장 김 정희

조선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위원장 김 종항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창립 1956년 4월 10일
위원장 백 남운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창립 1954년 11월 30일
위원장 박 세창

조선 불교도 련맹

창립 1945년 12월 26일
위원장 안 승용

대외 관계

1963년에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와 함께 대외 관계 분야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더욱 제고되였다.

1964년 4월 현재 우리 나라는 19 개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4 개 나라들과 령사 관계를, 4 개 나라들과 무역 (대표부 설정)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밖에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경제,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공화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며 반제 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1963년에도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남조선과 아세아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침략 전쟁 준비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규탄함으로써 침략자들의 수족을 얽어 매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반제 투쟁 전선을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이 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149 페지,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참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대외 정책의 확고 부동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

1963년에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 해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있어서 최 용건 동지의 중화 인민 공화국 방문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월남 민주 공화국 방문, 그리고 중화 인민 공화국 류 소기 주석의 우리 나라 방문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중인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립장, 월남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는 월남 인민들의 투쟁, 미제에 항거하여 궐기한 꾸바 인민들의 투쟁에 항상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경제, 문화 교류와 과학 분야에서의 협조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1963년에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반제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기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국가적 및 우호적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관하게 성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서부 이리안을 해방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알제리아, 라오스 인민들의 투쟁, 그리고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이 지역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항상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특히 공화국 정부는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내정 간섭과 그의 무모한 책동을 반대하여 11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해에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로부터 9 개의 정부급 대표단과 2 개의 국회 대표단, 친선 대표단을 비롯하여 도합 56 개의 각종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캄보쟈 왕국 정부와 케니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 나라의 국경절 및 독립절에 정부 대표단을 참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말리, 알제리아, 예멘 아랍 공화국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캄보쟈, 버마, 쎄일론을 친선 방문하고 이 나라들과 정부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할 데 대한 합의를 보았으며 정부 무역 대표단이 우루과이, 칠리 및 볼리비아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호상 방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이 지역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적 련계와 협조 관계는 더욱 강화 발전되였다.

이 해 아랍 련합 공화국, 예멘 아랍 공화국 및 우간다와는 외교 관계를, 우루과이와는 무역 대표부를 설치할 데 대한 합의를 보았으며 쎄일론에 우리 나라 무역 대표부를 새로 파견하였다.

또한 말리와 경제 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문화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기도를 폭로 규탄하는 동시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공화국 정부는 1962년 12월 13일부 성명을 통하여 《한일 회담》의 본질과 그 침략성을 폭로하였으며, 1963년 7월 15일에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요구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와 조치는 일본 인민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해 우리 인민은 일본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면서 그들과의 반제 통일 전선을 강화하였다.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오끼나와의 귀속을 위한 일본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이 해 일본 사회당 국회 의원단과 일조 협회 대표단을 비롯한 일본 사회계의 진보적 인사들과 기자 및 무역 실무 일'군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3년에 우리 나라 상사들과 일본 및 영국의 개별적 무역 상사들 사이에 일련의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3년에 우리 나라는 100 건의 각종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에 참가하여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이 국제 기구 및 회의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안이 소개되였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표명되였다.

이 해 우리 나라는 국제 자연 보호 동맹을 비롯하여 도합 9 개의 국제 기구에 새로 가입하였다.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을 경축하여 많은 나라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행사에 22 개 나라로부터 41 개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그 중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로부터 9 개의 정부 대표단, 1 개의 국회 대표단, 8 개의 정당, 사회 단체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대표단들은 지난 15년 간에 공화국이 달성한 성과와 우리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을 시위하는 각종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다. 모든 대표단들은 우리 나라 체류 기간에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접견을 받았다. 그들은 평양 지구를 비롯한 함흥, 개성, 청진, 희천 지구들에서 24 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 16 개의 문화, 교육, 보건 부문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평양과 지방들에서는 대표단들을 열렬히 환영하여 군중 대회 및 예술 공연을 진행하였다.

모든 대표단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거대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든 대표단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방안과 조선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참가 각국 대표단

쏘조 친선 협회 대표단(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부장 에. 이. 쓰제빠꼬브) ◇ 중조 우호 협회 대표단(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원 문교 판공실 부주임 장 제춘) ◇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 대표단(인도네시아 협조 국회 부의장이며 인도네시아 공산당 제 1 부위원장 엠. 엔. 루꾸만) ◇ 꾸바 공화국 정부 대표(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꾸바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오스까르 삐노쌴또스) ◇ 기니아 공화국 정부 대표단(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기니아 특명 전권 대사 까마라 마마디) ◇ 말리 공화국 정부 대표단(말리 공화국 국민 회의 부의장 모하메드 팔 주모예) ◇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민족 회의 의원 우쎄디크 부알렘) ◇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단(로동상 안와르 쌀라마) ◇ 예멘 아랍 공화국 정부 대표단(대통령 리사회 성원 살레흐 알라슈왈) ◇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외무성 제1부상 에치. 이. 우마르야디) ◇ 캄보쟈 왕국 정부 대표(내정 및 종교부 국무 비서 멘쫌) ◇ 이라크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이라크 대사 아브둘 무탈리브아민) ◇ 가나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단(농업성 부상 이. 엔. 오칸세이) ◇ 일본 사회당 국회 의원단 (일본 사회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동 당 《일한》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장 야마모도 고이찌) ◇ 일조 협회 대표단(일본 중의원 의원이며 일조 협회 본부 상임 리사 니시무라 간이찌) ◇ 인도네시아 공화국 외무성 제3 부상 수페니, 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인도네시아 림시 대리 대사 수프리 휴스프 ◇ 독일 직맹 대표단(자유 독일 직맹 중앙 위원회 위원 칼 캄훼르트) ◇ 루마니야 직맹 대표단 (중앙 위원회 위원 두도루 콘스딴찐) ◇ 몽조 친선 협회 대표단(몽조 친선 협동 농장 관리 위원장 도르찌) ◇ 알바니야 직맹 대표단(직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국가 계획 위원회 부위원장 빼리까 뻬꿀리) ◇ 월남 총공회 대표단(월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월남 총공회 주석인 황 국월) ◇ 체코슬로바키야 직맹 대표단(체코슬로바

키야 직맹 중앙 위원회 서기국 성원 루돌프 빠쫍쓰끼) ◇ 파란 직맹 대표단(직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 몬되 그라프 얀)

이 외에 개별적 인사들과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최 용건 동지와 류 소기 동지의 호상 방문

최 용건 동지와 그 일행이 중화 인민 공화국 류 소기 주석의 초청에 의하여 6월 5일—23일 간에 중화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체류 기간 최 용건 동지와 그 일행은 북경, 천진, 하르빈, 장춘 및 심양을 방문하고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인민 공사, 문화 기관 및 명승 고적들을 참관하였으며 형제적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중국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최 용건 동지와 그 일행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주석인 모 택동 동지를 방문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었다.

최 용건 동지와 류 소기 주석은 진지하고 우호적인 회담을 가지였다. 회담의 결과 쌍방의 립장과 견해의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 1963년 6월 23일에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였다.

1963년 7월 24일 최 용건 동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공화국 내각,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련석 회의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친선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최 용건 동지의 중국 방문은 조중 량국 인민 간에 맺어진 불패의 친선과 단결을 시위하였으며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의 회담의 결과는 조중 량국 당과 정부가 당면한 국제 정세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히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또한 조중 두 나라는 다 같이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적 립장에 서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에서 온갖 기회주의와 수정주의 로선을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로선을 견지하며 관철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최 용건 위원장의 초청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류 소기 주석과 그 일행이 9월 15—27일 간에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방문 기간에 류 소기 주석과 그 일행은 평양, 함흥 등지에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 관개 시설 및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김 일성 수상,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은 조중 두 나라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친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1963년 6월에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이 발표한 공동 성명이 전적으로 정확하였으며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회담에서는 이 공동 성명 발표 이후의 국제 정세와 공산주의 운동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과 량당, 량국 간의 친선 단결과 호상 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월남 민주 공화국 방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인 박 금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 장 정 위원장의 초청으로 6월 19일—28일에 걸쳐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월남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 대표단은 하노이시를 비롯하여 홍가이, 하이퐁, 남딘 등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여 공장, 기업소, 농촌 및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월남 민주 공화국 상무 위원회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친선적인 회담을 진행하였다.

우리 대표단이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하노이시와 홍가이시들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공동 투쟁 월간》을 지지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 대회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7월 29일 박 금철 동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월남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박 금철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들을 지키고 있는 조월 두 나라 인민들 간의 형제적 친선은 《우리의 공동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특별히 귀중한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장성시킴에 있어서와 세계 평화를 수호함에 큰 기여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디. 엔. 아이디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이 9월 7일—15일 간에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 방문 기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하였으며 평양, 함흥 지구들의 공장, 기업소 및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 체류 기간에 동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와 함흥시 군중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은 조선 로동당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는 량당 간의 관심사로 되는 현 국제 문제들과 량당 및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 단결을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9월 29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본부에서 진행된 환영 집회에서 디. 엔. 아이디트 동지는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조선을 방문한 후 나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조선이 응당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였다.》《조선은 사회주의 진영의 중요한 력량이며 맑스—레닌주의 발전, 공산주의 운동 및 민족 해방 운동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1월 13일부터 1월 15일 기간에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2 부위원장 뇨또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체류 기간 김 일성 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위하여

재일 조선 공민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 갔거나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결과 살'길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류랑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에 대한 요구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절절한 념원은 일본 지배층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각지에서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63년 7월 1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이 정당한 요구를 보장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념원이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억제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다.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7.2), 민청 중앙 위원회(6.25), 녀맹 중앙 위원회(6.27) 및 법률가 협회(6.29)들에서도 일본 지배층을 규탄하며 재일 조선 공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광범한 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 래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이 투쟁은 일본 공산당 및 사회당을 포함한 정당, 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1963년 12월 25일 현재 일본의 전체 인구의 7할 이상을 포괄하는, 도쿄도의 의회를 비롯한 840여 개의 일본 지방 의회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 운동을 지지하여 세계 직련, 세계 민주 청년 련맹(6.24), 국제 학생 동맹이 재일 조선 공민들과 일본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일본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폭행, 살상, 습격 등 인권 침해 행위가 공공연하게 감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7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일 회담》과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 기도를 반대하여

미제는 침략적 《동북 아세아 동맹》 조작의 일환으로서 《한일 회담》의 결속을 10여 년이나 두고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

군사 정변 이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자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를 침투시켜 이를 수습해 보려고 일본 반동 지배층과 남조선 괴뢰 도당을 《한일 회담》의 《조속 타결》에로 내몰았다. 이를 기화로 하여 일본 군국주의 지배층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기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에 비추어 공화국 정부는 1962년 12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회담》의 범죄적 침략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자기의 원칙적이며 정당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성명에서 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사촉 하에 조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루적된 문제들과 전 조선 인민의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조선 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남조선 괴뢰 정권과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일본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조일 량국 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진정으로 공명정대하게, 조일 량국 인민의 리익에 다 같이 부합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응당 조선이 통일된 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언명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주장은 일본 인민을 포함한 세계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범죄적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전 군중적 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10월 18일 유엔 제18차 총회는 미제의 조종 밑에 남부 월남에 《조사단》을 파견할 데 대한 비법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 조사단》을 파견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목적을 폭로 규탄하고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간섭 행위와 무력 침략을 중지하며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10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월남 민주 공화국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유엔 총회의 결정을 비법적인 것으로서 반대 배격하고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음흉한 침략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또한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 침략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침략 군대와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조선 인민들은 남부 월남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조선 남부 월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을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 지지 주간》으로 설정하고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광범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7월 20일의 평양시 군중 대회를 비롯하여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들이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및 학교들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 단체들은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남부 월남 인민들을 집단 학살하려는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의 흉악한 책동을 반대 배격하여 월남의 해당 단체들에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였다.

꾸바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 인민은 미제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는 꾸바 인민의 투쟁을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1963년 8월 1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7월 22일 꾸바 공화국 외무성 각서에 대한 회답 각서를 보냈다. 회답 각서에서는 미국 은행들에 있는 꾸바 예금을 동결시킨 미제의 새로운 책동에 대응하여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몰수하는 꾸바 정부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꾸바 무장 봉기 10 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 대회에서 내각 부수상 정 준택 동지는 조선 인민은 꾸바 인민과 함께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의 전선에 서 있으며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꾸바 인민들의 투쟁에 계속 열렬한 전투적 련대성을 보내며 카리브 해역에서 평화를 위하여 꾸바 혁명 정부가 제기한 5 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자연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꾸바 인민을 하루 속히 도와 주려는 념원으로 그들에게 원호 물자를 보낼 것을 결정하고 이 해 11월

우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한 나라

국 가 명	설정 날'자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1948. 10. 12
몽고 인민 공화국	1948. 10. 15
파란 인민 공화국	1948. 10. 16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1948. 10. 21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1948. 11. 3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1948. 11. 11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1948. 11. 29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1949. 5. 17
중화 인민 공화국	1949. 10. 6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49. 11. 7
월남 민주 공화국	1950. 1. 31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1958. 9. 25
기니아 공화국	1958. 10. 8
꾸바 공화국	1960. 8. 29
말리 공화국	1960. 10. 31
우간다	1963. 3. 2
예멘 아랍 공화국	1963. 3. 9
아랍 련합 공화국	1963. 8. 24
인도네시아 공화국	1964. 4. 16

총령사 관계를 설정한 나라

국 가 명	설정 날'자
버 마	1961. 5. 15
인 도	1962. 3. 1
캄 보 쟈	1962. 3. 29
쎄 일 론	1964. 1. 25

무역 관계(대표부)를 설정한 나라

국 가 명	설정 날'자
이 라 크	1959. 7. 23
오 지 리	1960. 12. 7
소 말 리	1962. 12. 17
우루과이	1963. 5. 17

26일 백미 5,000 톤을 비롯하여 뜨락또르, 콩크리트 혼합기, 일용품 및 의약품들을 보냈다.

주요 대표단의 래왕

정부 대표단

(방문) 예멘 아랍 공화국 방문(2.27—3.12) ▶라이프치히 춘기 국제 시장(3.3—12), 제 32차 뽀즈난 국제 시장(6.9—23)에 참가▶말리 공화국 방문 (6.12—7.19)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방문(6.26—7.17),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독립 제 1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예멘 아랍 공화국 방문(9.26—30), 예멘 아랍 공화국 독립 제1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방문 (10.23—11.20), 알제리아 무장 봉기 제9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캄보쟈 왕국 방문(10.31—11.22), 캄보쟈 왕국 독립 제 1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케니아 방문 (1963.12.28—1964.2.21), 케니아 독립절에 참가.

(래방) 말리 공화국 정부 문화 대표단 래방, 단장 대통령 직속 청년 및 체육 사업 담당 최고 위원무싸케이타 (5.17—27) ▶쎄일론 국회 대표단 래방, 단장 쎄일론 국회 의원이며 자유당 총비서 에스.디.반다라나이케(10.12—25) 김 일성 수상의 접견을 받음.

경제, 무역, 통상 대표단

(방문)쏘련, 독일, 루마니야, 알바니야, 웽그리야 및 꾸바 방문(1.4—3.3) ▶우루과이, 칠리(4.17—5.17) 및 볼리비아 방문(6.10—18) ▶인도네시아, 캄보쟈, 버마 및 쎄일론 방문(10.23—12.17).

(래방) 인도네시아 무역 사절단 (단장 인도네시아 무역성 대외 관계 원동 과장 바스롤 쟈말) 래방(2.22—3.8) ▶중국(단장 대외 무역부 부부장 리 강), 독일 (단장 대내외 무역부상 윌리 휴헨라우스), 루마니야(단장 무역 부상

1963년에 체결한 협정 및 문건

협정 및 문건 명칭	조인 날'자	조인 장소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1. 12	모쓰크바
조쏘 친선 협회와 쏘련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련맹, 쏘조 친선 협회 간의 1963년도 계획서	4. 17	평 양
1963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 계획서	5. 13	평 양
1963년도 과학 협조 계획서	5. 13	평 양
◇중화 인민 공화국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3. 27	평 양
1963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6. 10	평 양
과학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6. 21	평 양
1964년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	10. 14	평 양
철도 공동 위원회 의정서	11. 4	평 양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 19	베를린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1963년도 실행 계획서	5. 13	베를린
과학 기술 협조 상설 위원회 제6차 회의 의정서	10. 24	평 양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2. 25	평 양
◇루마니야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 5	부카레스트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서	2. 13	부카레스트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3년도 사업 계획서	7. 17	평 양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및 1963-1964 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7. 17	평 양
1964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 20	평 양
◇몽고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4. 25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3차 회의 의정서	10. 1	평 양
◇볼가리야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4. 1	평 양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6. 29	평 양
◇알바니야		
1963년도 상품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2. 13	티라나
영화 필림 교환에 관한 계약	3. 23	티라나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4. 26	티라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서	9. 16	티라나
1964년도 상품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 13	평 양
◇웽그리야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 30	부다페스트
보건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3. 29	부다페스트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3년도 사업 계획서	6. 19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4차 회의 의정서	9. 14	부다페스트
1963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10. 17	평 양
◇월남 민주 공화국		

1962년 12월 6일 하노이에서 서명한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 비준서	3. 27	평 양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4. 25	하노이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4차 회의 의정서	9. 19	하노이
1964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0. 4	평 양

◇체코슬로바키야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2. 9	쁘라가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4. 19	쁘라가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8차 회의 의정서	9. 28	쁘라가

◇파란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 30	와르샤와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2. 1	와르샤와
1963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계획서	7. 29	와르샤와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서	10. 9	와르샤와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2. 29	평 양

◇꾸바

1963년도 통상 의정서	2. 4	하바나
텔레비죤 및 라지오 방송 협조에 관한 협정	2. 15	하바나
1963－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7. 1	평 양

◇말리 공화국

경제 원조 및 기술 원조에 관한 협정	6. 28	바마코

◇아랍 련합 공화국

장기 무역 협정	2. 16	카이로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8. 24	카이로

◇예멘 아랍 공화국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부 교환에 관한 협정	3. 9	사 나

◇인도네시아

무역 협정	11. 15	쟈카르타
과학 기술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11. 15	쟈카르타

◇캄보쟈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 23	프놈 펜

◇쎄일론

1963－1964년 문화 교류에 관한 계획서	9. 13	평 양
지불 협약	12. 6	콜롬보

◇이라크

1963－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 22	바그다드

◇우루과이

무역 대표부를 설치할 데 대한 합의 각서 교환	5. 17	몬테비데오

◇우간다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3. 2	엔테베

◇일본

제 2 차 정기 선박 배선에 관한 계약서	12. 26	평 양

◇영국

조선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와 영국 국제 무역 촉진 리사회 간의 무역 협정 및 공동 콤뮤니케	10. 8	평 양

와렌젠 스뻬리오쁠), 불가리야(단장 무역 부상)의 각 정부 통상 대표단 래방(3.22—4.2) ▶쏘련 경제 대표단 (단장 쏘련 내각 대외 경제 련락 위원회 부위원장 아.에.삐뜨루쇼브) 래방(7.25—8.7) ▶알바니야 정부 통상 대표단(단장, 조선 주재 알바니야 대사 씨리자르 차니), 월남 정부 통상 대표단(단장, 무역부 부장 황 문 엽), 파란 정부 통상 대표단 (단장, 무역성 부국장 얀 꾸비체크) 각각 래방(9.28—12.30) 우리 나라와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

친선 대표단

(방문) 조선—네팔 친선 협회 대표단 네팔 왕국 방문(2.7—3.8), 네팔 국왕 마헨드라의 접견을 받음 ▶우리 나라 친선 대표단 꾸바 공화국 방문(7.21—8.27), 피델 카스트로 수상의 접견을 받음 ▶조중 친선 협회 대표단 중국 방문(9.5—10.8) ▶조쏘 친선 대표단 쏘련 방문(11.2—11.20),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 46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우리 나라 친선 대표단 꾸바 공화국 방문(1963.12.19—1964.1.22), 꾸바 공화국 대통령 오스왈도 도르티코스의 접견을 받음.

(래방) 볼리비아—조선 친선 협회 대표단(단장, 볼리비아—조선 친선 협회 위원장 리몬 오리뗀 오르뚜노) 래방(5.3—5.25), 김 일성 수상의 접견을 받음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대표단(단장,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부위원장 마뿔라가마 비뿔라싸라) 래방(8.13—9.16).

과학, 문화, 출판, 보도 부문 대표단

(방문) 조선 기자 동맹 대표단 쎄일론 방문(1.14—2.3), 쎄일론 기자 협회 창립 제 5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로동 신문》사 대표단 중국 방문(4.10—5.17), 모 택동 동지의 접견을 받음 ▶우리 나라 기자 대표단 아

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에 참가(4.24—30) ▶《로동 신문》사 대표단 꾸바 방문(5.18—6.4), 꾸바 혁명 통일당 기관지 《노티시야스 데 오이》 창간 제25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우리 나라 과학원 대표단 중국 방문(6.22—8.27) ▶조선 중앙 통신사 대표단 중국 방문(9.28—10.29).

(래방) 중국 문화 대표단(단장, 중국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부주임 조 영) 래방(3.22—4.3) ▶중국 과학원 대표단 (단장, 중국 과학원 부부장 장 경) 래방(8.21—9.12) ▶칠리—조선 친선 문화 협회 대표단 (단장, 칠리—조선 친선 문화 협회 위원 까를로스 시보리) 래방(5.28—6.11) ▶캄보쟈 기자 대표단(단장, 캄보쟈 신문 《메아또—폼》 사장이며 캄보쟈 기자 협회 제1 부위원장 손 푸오크로) 래방(5.24—6.11) ▶꾸바 문화 대표단 (단장, 꾸바 민족 문화 지도 위원회 비서 오스민 페르난데스) 래방(6.22—7.1) ▶브라질—조선 문화 협회 대표단 (단장, 브라질—조선 문화 협회 총비서 울리쎄스 모따니아끼노) 래방(7.2—25) ▶루마니야 문화 대표단 (단장, 조선 주재 루마니야 대사 보드너라슈 마놀레) 래방(7.8—20) ▶말리 기자 대표단(단장, 말리 공보성 사무장 디아바 데마마두 쌈비) 래방(7.17—8.1)▶일본 사회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동 기관지 국장인 아까마쯔 이사무 부부 래방(7.19—8.5), 김 일성 동지의 접견을 받음. ▶일본 조선 연구소 대표단 (단장, 일본 조선 연구소 리사장 후루야 사다오) 래방(8.2—22) ▶네팔 문화 대표단 (단장, 네팔 왕실 리사회 위원이며 네팔 작가 협회 위원장 리쉬케슈 샤) 래방(9.27—10.19) ▶일본 사회 활동가 대표단 (단장, 일본 참의원 의원이며 일조 협회 도찌기현 련합회 상임 리사 이네바 세이찌) 래방(9.27—10.15) ▶인도네시아 인민 문화 련맹 대표단(단장, 인도네시아 인민 문화 련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인도네시아 미술가 협회 위원장 바쑤끼 레쏘보워) 래방(10.15—30), 김 일성 동지의 접견을 받음 ▶중국 《인민 일보》 대표단 (단장, 《인민 일보》 책임 주필 오 랭서) 래방(10.15—11.29), 김 일성 동지의 접견을 받음 ▶일본 문화인 대표단(단장, 도꾜 경제 학교 교수이며 경제 학자인 우에스기 세이이찌로) 래방(11.9—25).

사회 단체 대표단

(방문)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 체코슬로바키야 방문(4월), 체코슬로바키야 청년 동맹 제 4차 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 불가리야 방문(4월), 불가리야 지미뜨로브 공산 청년 동맹 제10차 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말리 방문(7.23—8.19), 말리 근로자 전국 동맹 제1차 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 중국 방문(9.28—10.29)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5.1절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쏘련, 중국, 꾸바를 각각 방문(5월)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과 녀성 대표단 알제리아 방문(10.23—11.23), 알제리아 무장 봉기 제 9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쏘련 방문(10.23—11.5), 쏘련 직맹 제13차 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독일 방문 (11.14—12.23), 자유 독일 직업 총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기니아 방문(11.20—12.13), 기니아 전국 근로자 련맹 제3차 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쎄일론 방문(12.26—1964 1.4), 쎄일론 로조 련맹 제6차 대회에 참가.

(래방) 우리 나라 5.1절 기념 행사에 참가한 외국 대표단—쏘련 직맹 대표단(단장, 쏘련 직맹 평의회 상무 위원 웨. 쎌루야노브 그리고리예위치), 중국 전국 총공회 대표단(단장, 중국 총공회 중앙 위원회 선전 부장 퐁 시운), 기니아 직맹 대표단 (단장, 기니아 서적 수출입 상사 로조 총비서 니오케 콩노), 칠리 직맹 대표단(단장, 칠리 광산 련맹 부서기장 까를로스 움베르또 교르떼스 디아쓰), 브라질 직맹 대표단(단장, 브라질 파나바라주 은행 리사 안루리죠 빨라노 빼뜨레이라) ▶6.25 기념 행사에 참가한 외국 대표단— 세계 직련 대표단(단장, 국제 상업 일'군 서기 우스트포이 두미트루), 꾸바 직맹 대표단(단장, 꾸바 광산 전국 로조 피나리델 리오주 서기장 안또니오 마르띤 깔라), 말리 근로자 전국 동맹 대표 마마드 케이타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대표단(단장,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삐나르벨 리오주 공청 위원회 총비서 호르헤 갈라르도 페르난데스) 래방(3.18—3.27) ▶베네주엘라 공산주의 청년 동맹 전국 위원회 비서 레이날도 몬떨랴 래방(3.15—4.1) ▶서남 아프리카 청년 동맹 대표단(단장, 카치무이나 베이) 래방(4.12—4.18) ▶쎄일론 로조 련합 련맹 대표단 래방(5.30—6.21) ▶기니아 녀성 대표단 (단장, 기니아 공화국 사회 사업 담당 국무 비서 까마라 로포) 래방(5.24—6.11) ▶우간다 전국 로조 대표단 (단장, 우간다 운수 및 일반 로동자 통일 조합 메소 지방 지부 위원장이며 우간다 인민 대회 전국 조직 부서기 데비드 리빙스똔 오 오제빠) 래방(6.3—17) ▶인도네시아 녀성 대표단 (단장, 인도네시아 녀성 운동 위원회 부위원장 우디크디오)래방(7.22—8.3) ▶토고 자유 청년 동맹 대표단(단장, 토고 자유 청년 동맹 전국 위원회 위원장 아케르 부르그 졸레롤레) 래방(10.15—30) ▶꾸바 녀성 대표단(단장, 꾸바 녀성 중앙 위원회 위원 싸라레온 빠뻬야)래방(10.21—11.8) ▶중국 공산주의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서기처 서기 왕 위) 래방(11.1—27)

이외에도 많은 대표단들의 래왕이 있었다.

정 전 관 계

조선 정전 협정은 조선에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 (조선 정전 협정 서문) 할 목적으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시종 일관 조선 정전 협정을 확고하게 준수하면서 조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하며 정전 협정의 정신대로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 정전 협정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의무를 배신적으로 저버리고 남조선 영구 강점을 획책하면서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 부단히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정전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되지 못 하였으며 조선에서의 정전은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되지 못,하고 정세는 부단한 긴장과 전쟁 위험 속에 놓여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조선 정전 협정 체결 10주년에 제하여 1963년 7월 25일 비망록 《미국측의 조선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문헌 참조).

미국측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

1963년에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정 이양》 극을 벌려 놓고 파쑈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전 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 유린하면서 군비를 확장하였으며 새로운 전쟁 준비를 더욱 로골적으로 추진시켰다.

미제는 1963년도 대외 군사 원조 총액 중에서 16.5%에 달하는 2억 1,860만 딸라를 남조선에 투입하여 괴뢰군을 증강하기에 날뛰였다.

1963년에 미제는 정전 협정 제13항 ㄹ목을 계통적으로 파괴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신형 무기들을 비법 반입하고 무력을 계속 증강하였으며 각종 군사 소동을 더욱 빈번히 일으켰다.

1963년도에 미제는 신형 엠-14 소총, 엠-60형 기관총, 엠-48 에스형 전차와 두 종류의 신형 제승 비행기 및 수개 종류의 새로운 무기와 화학 및 비행기 장비들을 비법 반입하여 남조선 강점군의 장비를 현대화하였다. 한편 미제는 두 척의 구축함을 비롯한 수척의 신형 전투함들을 끌어 들여 남조선 괴뢰 해군에 인도하였으며 새로운 작전 장비들로써 남조선 괴뢰군을 무장시켰다.

미제가 《전시 동원 태세의 확립》이니, 《전투 능력의 검증》이니 하면서 1963년도에 남조선에서 감행한 대규모적인 《한미 합동 군사 훈련》만 하여도 15차에 달한다. 지어 미제는 《핵 전쟁 상황하의 추기 대 기동 훈련》이니, 《핵 전쟁 상황하의 공격, 방어, 철퇴 연습》이니 하는 대규모적 군사 소동까지 빈번히 감행하였다.

1963년 11월 21일에는 경기도 련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이 원자 무기의 시험을 위하여 나무하려 산으로 올라 간 련천군 련천면 고문리 주민들을 과녁 삼아 《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그중 9명을 죽인 야수적 만행까지 서슴 없이 감행하였다.

1963년에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며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 행위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욱 빈번히 그리고 계통적으로 감행하였다.

1963년도에 미제의 정전 협정 및 합의 규정 위반 행위는 군사 정전 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측이 정식 항의한 것만 하여도 6,484건으로서 전년도의 1,618건에 비하여 무려 4배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미제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는 정전 이후 이 해 말까지 기간에 우리측이 정식 항의한 것만 하여도 1만 1,731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 침략자들은 저들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은페하기 위하여 이 해에도 터무니 없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어 대면서 소위 《미군 살해 사건》, 《총격 사건》을 날조하여 세계 여론을 기만하여 보려고 하였다.

1963년도에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더욱 엄중하여졌다.

미제 침략자들이 우리측 지역 상공과 연해에 군용 비행기와 해군 함선들을 침입시키며, 우리측을 향하여 총포를 발사하며, 군사 인원과 무장 간첩을 침입시켜 습격, 파괴, 살인, 랍치 행위를 감행하며, 비무장 지대 내에 중 무기와 자동 무기를 끌어 들이는 등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한 것만하여도 1,144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87건이 더 늘었다.

1963년에 미국측이 이러한 각종 적대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감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자료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공중 위반 행위】 1963년 1월 29일 미제는 에프 86 형 전투기 2대를 우리측 지역인 평강, 복계

상공에 침입시켜 적대적인 정찰 행위를 감행하였으며(제254차 비서장 회의) 2월 9일에도 한 대의 군용기가 동부 전선 우리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격파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163차 회의).

1963년 2월 25일 미국측은 《피—2 브이》 군용 비행기를 군사 분계선에서 수백 키로메터 떨어진 청진 이북 상공까지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164차 회의). 또한 3월 18일과 20일에도 미국측은 4 대의 군용 비행기를 우리측 지역 상공에 침입시켜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65차 회의).

1963년 5월 12일 미국측 군용 비행기 한 대는 서해의 우리측 연해 상공에 침범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5월 17일에는 미제8군 직속 55 비행 중대 소속 오 에이취—23형 디—394호 군용 비행기가 비무장 지대 이북 판문군 림한리 상공에 침입하여 군사 정탐 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 인민군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강제 착륙 당하여 나포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68차 회의). 나포된 미군 비행사 벤 위클리 스터쯔와 칼레톤 월리암 볼쯔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미제8군 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북조선 서부 지역에 있는 방어 시설물들과 부대 배치 정형 등을 탐지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우리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였었다.

1963년 5월 29일 미국측 엘—19형 군용 비행기 한 대는 우리측 지역인 개성시 대덕산 부근 상공과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 구역 상공에까지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71차 회의).

우리측 령공에 대한 미국측 군용 비행기들의 침범 행위는 8월 3일, 9월 12일, 12월 17일에도 감행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77차, 178차, 181차 회의).

이로써 미국측이 정전 이후 위반한 공중 침범 사건은 우리측이 항의한 것만 하여도 698건(1963년 12월 말 현재)이나 된다.

【해상 위반 행위】 1963년 1월 4일 미제는 경호함 58호와 호송 경비함 61호를 동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월 5일과 6일에도 호송 경비함 61호를 또다시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다(제253 차 비서장 회의).

1963년 1월 14일에는 미국측 중형 상륙함 606호가 동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여 무려 2시간에 걸쳐 정찰 행위를 하다가 우리측 해안을 향하여 50여 발의 포탄을 퍼붓고 도망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제254차 비서장 회의).

1963년 1월 30일, 31일, 2월 2일에는 미국측 경호함 53호가 동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63 차 회의).

1963년 4월 25일 미국측은 서해 우리측 연해 깊이 무장 집단을 침입시켜 우리측 어선을 공격하여 2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1명을 강제 랍치하여 갔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67차 회의). 또한 5월 11일 미국측은 로케트 포함 311호를 서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어로 작업중인 송림 수산 사업소 소속 안강망선 1,298호에 대하여 로케트포와 각종 중무기들로써 무려 800여 발의 사격을 가하여 어선을 파손시켰으며 3명의 우리측 어민을 살해하고 기타 선원들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68차 회의).

1963년 5월 24일에는 구잠함 203호를 서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도발적인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170차 회의).

미국측 함선들의 우리측 연해에 대한 침범 행위는 날을 따라 더욱 심하여졌다.

지어 미제 침략자들은 1963년 6월과 7월에 목함 지뢰를 포함한 각종 지뢰류들과 통조림, 비누갑, 분갑, 치약, 향수, 만년필, 샤프 등 모양으로 된 수십 종의 폭발물들을 서해의 우리측 해안으로 띄워 보내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77차 회의).

1963년 11월 하순에만 하여도 미제는 20여 차에 걸쳐 구축함 71호, 91호, 로케트 포함 311호 구잠함 706호, 경호함 53호 등 각종 해군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련일 대규모적으로 침입시키는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80차 회의). 미국측은 12월 14일, 20일에도 3건의 해상 침범 사건을 도발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81차 회의).

정전 이후 미국측이 위반한 해상 침범 사건은 342건(1963년 12월 말 현재)에 달한다.

【지상 위반 행위】 1963년 3월 13일 미국측은 무장 집단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우리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에게 불의에 수백발의 집중 사격을 가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3월 19일에는 120여 명의 미국측 군사 인원들이 경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 무기로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수천 발의 집중 사격을 가하는 대규모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65차 회의).

1963년 3월 하순 미국측은 비무장 지대내에 수차에 걸쳐 불을 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비무장 지대 우리측 부분의 넓은 지역이 불에 탔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66차 회의).

또한 미국측은 4월 11일과 16일에 비무장 지대 내에서 경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 무기를 휴대한 무장 인원을 동원하여 군사 훈련을 감행하였다(제256차 비서장 회의).

1963년 6월 14일 미국측은 중, 경기관총과 각종 저격 무기들로써 비무장 지대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1,500여 발의 총탄을 발사하였는바 미국측의 이와 같은 도발 행위는 6월 15일, 17일에도 계속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 172차 회의).

1963년 7월 29일 미국측은 완전 무장한 7명의 인원을 태운 장갑차를 비무장 지대 내에 침입시켰으며 30일에는 12.7미리 기관총을 설치한 두 대의 찝차를 비무장 지대 내에 침입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 176차 회의).

이와 같이 미제 침략자들은 적대적인 무장 침범 행위를 빈번히 감행하는 한편 무장 간첩들을 대량 양성하여 우리측 지역에 계속 들여 보냈다.

1963년 7월 19일 미국측은 미 제8군 첩보대 소속 무장 간첩 김 상천을, 7월 21일에는 남조선 괴뢰 해병대 첩보대 소속 무장 간첩 손 기천, 윤 현기를, 7월 23일에는 로 광호를 책임자로 하는 무장 간첩 집단을, 7월 27일에는 남조선 괴뢰 해군 첩보대 소속 무장 간첩을 각각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 176차 회의).

1963년 12월 17일 미국측은 또다시 미 제8군 첩보대 전곡 파견대 소속 무장 집단을 비무장 지대 우리측 부분에 침입시켜 정상적인 순찰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에게 도발적인 무장 공격 행위를 감행하여 1명을 부상시켰다. 우리측은 자위적 조치를 취하여 미국측 인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체포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181차 회의).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 **제163차 회의** 1963년 2월 14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2월 9일 우리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 행위를 감행하다가 격파된 미국측 군용 비행기 침범 사건과 우리측에 대한 미국측 함선들의 도발 행위들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제164차 회의 1963년 3월 8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2월 25일 우리측 후방 깊이에 군용 비행기를 침입시킨 미국측의 죄행과 비무장 지대에서 감행한 총격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규탄.

제165차 회의 1963년 3월 22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3월 13일과 19일에 감행한 미국측의 악랄한 무장 공격 행위와 각종 신형 무기들과 작전 장비들을 미국측이 끌어 들인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 규탄.

제166차 회의 1963년 4월 2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 지대내에 위험물들을 설치하였으며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적측의 죄행과 해군 함선들을 또다시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 규탄.

제167차 회의 1963년 5월 3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4월 25일에 있은 미국측의 해적 행위에 대하여 항의 규탄하고 랍치하여 간 우리측 어민들을 즉시 돌려 보낼 것을 강경히 요구.

제168차 회의 1963년 5월 1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5월 11일 우리측의 평화적 어선을 습격한 미국측 함선의 악랄한 무장 공격 행위와 1963년 5월 17일 우리측 지역 상공에 불법 침입하여 군사 정탐 행위를 감행하다가 나포된 미군 비행기의 침범 사건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규탄.

제169차 회의 1963년 5월 22일 적측의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의 함선 침범 사건과 총격 발사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1963년 5월 17일 우리측에 나포된 미군 비행사들을 돌려 보내 달라고 애걸.

제170차 회의 1963년 5월 27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5월 21일 또다시 우리측의 평화적 어선을 습격하여 우리측 어민을 랍치하여 간 미국측의 해적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5월 17일에 나포된 미군 비행사를 돌려 보내 줄 것을 집요하게 애걸,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미 군용 비행기가 우리측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응당한 타격을 받았고 미군 비행사들은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여 군사 정탐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정전 협정을 위반하였으며 우리 나라 주권을 침해한 범죄자이라는 것을 언명.

제171차 회의 1963년 6월 14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5월 29일 또다시 우리측 지역에 군용 비행기를 침입시킨 미국측의 도발 행위에 대하여 항의,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5월 17일에 나포된 미군 군용기와 비행사의 반환을 요구.

제172차 회의 1963년 6월 22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 지대 내에서 감행한 미국측의 총격 사건을 비롯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제173차 회의 1963년 6월 29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정전후 10년간 미국측이 감행한 무력 증강 행위와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 규탄.

제174차 회의 1963년 7월 16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해상 및 지상에서 감행한 미국측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항의 규탄, 적측은 5월 17일에 나포된 미군 비행사 문제를 또다시 제기.

제175차 회의 1963년 7월 26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지난 10년간 미국측이 감행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단죄 규탄하고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시킬 것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

제176차 회의 1963년 8월 3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군 살해 사건》이니 《총격 사건》이니 하는 미국측의 무

근거한 허위 날조를 폭로하고 우리측에 대한 그들의 계속적인 간첩 침입 행위를 강경히 항의 규탄.

제177차 회의 1963년 8월 2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8월 7일 우리측 어선에 대한 미국측 무장 집단의 살인 공격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규탄.

제178차 회의 1963년 9월 1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이 또다시 무장 간첩 집단을 우리측에 파견한 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감행한 12건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179차 회의 1963년 11월 16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또다시 소위 《사격 사건》을 날조하여 우리측을 비난하려는 미국측의 파렴치한 행위를 즉석에서 론박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감행한 미제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규탄.

제180차 회의 1963년 12월 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 함선들의 련속적인 대규모적 침범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규탄.

제181차 회의 1963년 12월 26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1963년 12월 17일 미국측 무장 집단이 우리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에게 감행한 도발적 무장 공격 사건에 대하여 강경히 규탄.

【군사 정전 위원회 비서장 회의】 **제253차 회의** 1963년 1월 1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 해군 함선들의 침범 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254차 회의 1963년 1월 29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 함선이 우리측 해안을 향하여 포 사격을 감행한 도발 행위와 비행기 침입 사건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제255차 회의 1963년 4월 11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의 총탄 발사 사건, 비행기 침입 사건, 비무장 지대 방화 사건 등에 대하여 항의.

제256차 회의 1963년 4월 30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의 해군 함선 침범 사건, 총격 사건 등에 대하여 항의.

제257차 회의 1963년 5월 9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지상과 해상에서 감행한 미국측의 도발 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258차 회의 1963년 6월 8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 지대에서 감행한 미국측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의, 적측은 1963년 5월 17일에 나포된 미군 비행사 문제를 제기.

제259차 회의 1963년 7월 23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의 정전 협정 및 합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260차 회의 1963년 8월 2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비무장 지대에서 감행한 미국측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의.

제261차 회의 1963년 9월 7일 적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공동 감시 소조 제4조 회의를 파탄시킨 미국측의 범죄 행동에 대하여 규탄하고 책임을 추궁.

제262차 회의 1963년 9월 27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이 비무장 지대 내에 장갑 수송차를 비롯한 중무기를 끌어 들인 데 대하여 항의.

제263차 회의 1963년 12월 14일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진행, 우리측은 공동 감시 소조를 악용하며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미국측의 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 규탄.

군사 정전 위원회 위원 명단

(1963년 12월 31일 현재)

◇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측

수석 위원 장 정환(조선 인민군 소장)
위원 임 영(중국 인민 지원군 소장)
위원 염 상기(조선 인민군 소장)
위원 박 인갑(조선 인민군 소장)
위원 김 원석(조선 인민군 대좌)

◇적 측

수석 위원 로버트 에프. 씨블락(미 륙군 소장)
위원 죤 엠. 앨포드 (미 해군 소장)
위원 윌리암 엘. 미첼(미 공군 준장)
위원 엠.엠.맨(영국 륙군 준장)
위원 장 우주 (남조선 괴뢰군 소장)

중립국 감독 위원회 위원 명단

체코슬로바키야 위원 바클라브 따우스 (소장)
파란 위원 머리 얀 스투크
서전 위원 스벤 우글라 (소장)
서서 위원 라울 티애보 (참사)

경 제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1963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해에 당과 국가는 10대 과업을 관철하며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기계 공업, 경공업, 건설, 건재 공업, 림업 등 부문에서 집체적 지도와 통일적 지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 기구를 개편하였다.

5월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 회의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대책들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한편 1963년 계획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6억 8,600만원의 기본 건설 자금을 지출하였다. 그중 생산적 건설에는 78%, 비생산적 건설에는 22%를 돌렸다. 농촌 건설에는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18.3%를 지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취해진 결과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심화되여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되여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이 더욱 발양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 관철을 위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의 점령을 준비하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1963년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101.5%로, 그 중 중앙 공업은 100.6%로, 지방 공업은 104.4%로 각각 넘쳐 수행되였다.

적지 않은 력량이 국방력 강화에 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08%로 장성되였으며 1954—1963년 간에 공업 생산은 매해 34.8 %라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1946	1949	1956	1960	1963
	100	337	615	21배	32배
		100	183	635	936

공업 총생산액의 년 평균 장성 속도

	1947—1949	1954—1956	1957—1960	1954—1963
공업 총생산액	49.9	41.7	36.6	34.8
생산 수단 생산	55.3	59.4	37.7	39.8
소비재 생산	42.3	28.0	34.9	30.5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장성(1946=100)

	1949	1956	1960	1963
생산 수단 생산	375	640	23배	33배
소비재 생산	288	598	20배	31배

1963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으로 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는 정치, 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졌고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가일층 촉진시키고 자립적 경제 토대는 더욱 공고화되였다.

이 해 중공업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과 국방 공업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골간에 살을 붙이고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할 데 대한 중심 과업이 빛나게 관철되였다.

1963년에 채취 공업 부문에는 전년에 비하여 123%로 장성되였고 공업 부문 투자액의 21%에 해당하는 자금이 투자되였다. 결과에 연료 동력 기지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이 해에 금속, 화학, 기계, 건재 공업도 일층 공고 발전되였다.

경공업 부문에서도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하에 물질 기술적 토대와 원료 기지를 일층 공고히 하고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서 많은 전진이 있었다. 특히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지방 공업의 기계화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원료 기지가 가일층 공고화되였으며 경제 문화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군이 더욱 종합적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경공업은 인민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가공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되였다.

1963년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다. 숙천 체계—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전면적으로 수립되고 농민들의 열성이 높아진 결과 자연 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곡 500만 톤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여 또다시 대풍작을 거두었다. 특히 벼의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가되였다. 수리화에서 새로운

성과가 달성되여 1963년 말에 논 면적은 1962년의 54만 정보로부터 64만 정보로 확장되고 발벼의 재배 면적이 확장된 결과 알곡 생산량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의 51%로부터 58%로 높아졌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더욱 촉진되여 1963년 말에 뜨락또르 대수는 1만 8천 대(15마력 환산)에 이르렀으며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 호수의 71%에 전기가 들어 갔다.

축산, 잠업, 과수 부문에서도 그 물질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 달성한 이 위대한 성과는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의 우월성과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생활력의 발현이며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정당성에 고무된 전체 농민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1963년에 경공업과 농업이 더욱 발전되고 이미 축성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자기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게 되였으며 인민 생활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가 다져졌다.

1963년에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촌 경리의 호상 관계에서 공업 특히 중공업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알맞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농산과 축산 등 인민 경제 부문 내부의 균형도 가일층 개선되였다. 그리고 국내의 자연 부원과 로동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였으며 계속 높은 속도와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통일적이며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인민 경제 체계를 형성하는 데 큰 전진을 가져 왔다. 그리 하여 혁명의 기지 공화국 북반부는 더욱 부강하게 되였으며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경제 토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 기지를 축성하게 되였다.

1963년에 사회 총생산액은 1960년에 비하여 138%, 1956년에 비하여 309%, 1949년에 비하여 502%로 장성하였다.

사회 총생산액의 경제 형태별 구성 (%)

	1946	1956	1960	1963
사회 총 생산액	100	100	100	100
사회주의 경제 형태	19.1	89.0	100	100
그 중 국영	18.9	60.2	69.1	74.0
협 동	0.2	28.8	30.9	26.0
소 상품 경제 형태	60.9	8.7	—	—
사자본주의 경제 형태	20.0	2.3	—	—

사회 총 생산액의 인민 경제 부문별 구성

	1949	1956	1960	1963
사회총생산액	100	100	100	100
공업	35.6	40.1	57.1	60.6
농업	40.6	26.6	23.6	21.5
운수, 체신	2.9	4.0	2.2	2.8
기본 건설	7.2	12.3	8.7	9.2
상품 류통	9.4	10.8	6.0	3.8
기타	4.3	6.2	2.4	2.1

1963년에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여 이 부문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종업원 수도 증가하였다.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촉진함에 있어서 그의 역군인 기술자 및 전문가 총 수는 1963년 10월 31일 현재 22만 3,654 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기사는 1960년에 비하여 275%로, 기수는 164%로 늘었다.

1963년에는 국내 자연 부원 및 각종 물자 재산과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였으며 설비 리용률을 높이고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전해에 비하여 104%로 높임으로써 국민 소득은 1962년에 비하여 1.1배로 장성하였으며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옳바로 설정하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켰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 당 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104%로 장성되였으며 농민들은 1963년 한해 동안에만 하여도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실로 2억 4,952 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회 문화 시책비도 전년에 비하여 106%로 장성되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을 주었다.

1963년에 달성한 새로운 승리는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하여 온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 대중의 자각적 로력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군중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의 시위로 된다.

조선 인민은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를 받들고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공 업

전력 공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는 전력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력 공업에 계속 많은 투자를 실시하여 중요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며 중소 규모 발전소 건설을 강화하여 전력 생산량을 장성시킬 것을 전력 공업 부문의 1963년도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당이 제기한 과업 관철에 나선 이 부문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의 결과 이해 전력 생산량은 1956년에 비하여 220%로, 1962년에 비하여는 103%로 장성된 117억 6,600만 키로와트시에 이르렀다.

전력 생산량의 장성
(단위 백만KWH)

	1956	1960	1962	1963
총계	5 120	9 139	11 445	11 766
수력	5 077	8 981	11 251	11 568
화력	43	158	194	198

1963년에 국가는 전력 공업 건설에 1962년의 114%, 이 해 전체 공업 건설 투자액의 14.6%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였다. 그중 93.5%는 발전소 건설 부문에 돌려졌다.

이 해에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도합 64만 키로볼트암페아의 능력을 가진 2개의 수력 발전소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일부 발전소가 조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40만 키로와트의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이 밖에 8 개의 중소 용량 발전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1963년 말에 우리 나라 발전 설비의 총 능력은 1949년에 비하여 140%로, 1962년에 비하여 108%로, 해방 전에 비하여는 120% 이상으로 자랐다.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해 전력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수풍 발전소를 비롯한 많은 발전소들의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이 부문 근로자들은 물을 더 많이 획득하고 발전기 보수 기일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증산하는 동시에 전기 절약 투쟁과 관련하여 자체 소비를 극력 낮추기 위한 투쟁에 기술 지도 력량을 집중하였다.

수력 발전소들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보수 점검 사업을 강화하여 그 효률을 높이는 한편 랭각 조건을 개선하고 도중 취수구를 비롯한 수력 구조물들을 보수 정비 또는 설치하여 전력 생산을 증대하였다.

전년에 비하여 1963년에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3억 2천만 키로와트시의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송배전 부문에서는 송전선 신설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송배전 시설을 개선 정비하여 전압 단계를 높이고 전력의 도중 손실을 적극 낮추었다.

또한 평양—재령간 66 키로볼트 송전 선로를 220 키로볼트로 전압 단계를 높이는 동시에 재령 변전소를 220 키로볼트로 개건함으로써 황해 남북도에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1963년에 송전선은 312 키로메터, 배전선은 847 키로메터가 새로 조성되였으며 29 개소의 변전소에 20만 5,000 키로볼트암페아의 능력이 새로 꾸려졌다.

이 해에 무효 전력을 보상하기 위한 정전 축전기 2만 3,500 키로볼트암페아, 동기 조상기 1만 5,000 키로볼트암페아를 더 보충함으로써 전력 계통의 력률을 높이였다.

또한 발전기의 유효 출력을 높이고 전력 계통의 도중 손실을 현저히 낮추었다.

송배전 설비의 장성 (1956=100)

	1960	1962	1963
변전 설비	139	163	178
송전 설비	117	120	124
배전 설비	135	177	185

전력 증산과 함께 이 해에 특히는 10월 10일부 내각 결정이 나온 후 전력 절약 투쟁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졌다.

전력의 도중 손실 방지, 각종 기계 설비들의 공회전, 공부하의 방지, 과대 용량 변압기의 교체, 예방 보수의 강화 등 전기를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취해졌다. 인민 경제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전력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제품 단위의 전력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결과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중요 제품인 암모니야, 카바이드, 립철, 아란담, 조동, 전기동 조연들의 생산에서 전력 소비는 기준 계획에 비하여 훨씬 낮아졌다.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중소 규모 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중소 규모 발전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여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 있다.

1963년 말까지 전체 농촌 리의 93.3%와 전체 농가 호수의 71%에 전기가 들어갔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 전력
소비의 장성 (1953=100)

	1958	1963
농업 부문 전력 소비 총계	474	738
그중 동력용*	10배	16배

석탄 공업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10대 과업의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1963년에 석탄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나라의 연료 기지는 일층 공고 발전되였다.

안주 탄광을 비롯한 모든 탄광들에서 10대 과업을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새로 확립된, 갱을 전투 단위로 하는 탄광 관리 운영 체계가 더욱 공고화되였다.

이 해에 현존 탄광들을 전망성 있게 개전 확장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였으며 새 탄광 개발이 적극 추진되였다.

유연 탄전들에서는 하면, 아오지의 회암, 오봉, 고건원과 안주의 제1 수직갱 등 운반 능력이 크고 기술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현대적인 수직갱 건설이 광범히 진행되였으며 그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무연 탄전의 신창, 형봉, 봉천 탄광을 비롯한 많은 탄광들에 심부 석탄 채굴을 위한 갱내 사갱 건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였다.

1963년에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전해에 비하여 84만 3천 톤이나 더 많은 1,404만 3천 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석탄 생산량 (단위 천톤)

년 도	생산량	년 도	생산량
1946	1 270	1960	10 620
1949	4 005	1961	11 764
1953	708	1962	13 200
1956	3 908	1963	14 043
1959	8 859		

대규모 탄광들과 중소 규모 탄광들의 개발을 병진시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1963년에 특히 중소 규모 탄광을 더욱 광범히 개발하며 신재림 조성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대한 내각 결정 (1963년 3월 28일)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지방 산업 및 자체 채굴 탄광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였다. 이 해에 지방 산업 및 자체 채굴 탄광들의 석탄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11%로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1963년에 전국적인 석탄 생산량 가운데서 중앙 공업 탄광들에서 생산한 몫은 82%, 지방 공업들에서 생산한 몫은 18%였다.

석탄 생산량의 계속적인 장성에 의하여 이 해에 우리 나라 연료 공업은 1956년에 비하여 358%, 1949년에 비하여 285%, 1946년에 비하여 858%로 장성되였다.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1963년에 신창, 룡등, 고원, 아오지, 안주, 고건원, 고참, 조양 탄광 등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 조건이 유리하며 전망성이 있는 현존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우선적으로 개전 확장하는 동시에 각지 탄광들에서 중요한 갱, 구역 및 채탄장들에 생산을 집중하여 석탄 생산량을 급속히 장성시켰다.

석탄 채굴이 집중화되여 년산 50만 톤 이상을 생산한 탄광이 1963년에 전체 탄광의 21.8%, 전체 생산량의 48.5%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 해에 석탄 공업 부문에서 매 채탄장의 월 생산량은 1960년에 비해 유연탄 부문에서 137.7%, 무연탄 부문에서는 177.8%로, 1956년에 비하여서는 유연탄 부문에서 260.5%, 무연탄 부문에서 362%로 높아졌다.

석탄 공업 부문 일'군들은 석탄 생산에서 기본 법칙으로 되는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키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1963년에 14만 8,000여 메터의 기본 굴진과 18만 5,000여 메터의 준비 굴진을 진행하였다.

각 탄광들에서는 전망 굴진과 현행 굴진을 옳게 배합하면서 고속도 굴진 대렬을 튼튼히 꾸려 성 등록 마구리를 비롯한 사갱과 운반 갱도 굴진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주, 고참, 고건원, 신창, 룡등, 고원 등 많은 탄광들에서 구역 단위 생산 체계로 이행하였다.

굴진 장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고속도 굴진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1963년에 매 마구리에서 월 평균 굴진 속도를 전년에 비하여 유연탄 부문에서 112.8%로, 무연탄 부문에서 105.6%로 높이였다.

1963년에 많은 탄광들에서 기술 개건의 기본을 이루는 갱도의 영구화에 커다란 힘을 경주하였다.

특히 무연 탄광들에서 가락지 동발을 광범히 보급 일반화하였으며 북부 지구 아오지 탄광을 비롯한 유연 탄광들에서는 철재 동발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대형 블로크에 의한 갱도 영구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결과 1963년에 7만여 메터의 주요 갱도가 새로 영구화되였다.

한편 석탄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질 조건에 알맞는 합리적인 채탄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석탄 채취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투쟁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였다. 유연탄 부문의 고건원 탄광에서는 수사 충전법을 적용하는 장주식 채탄법을 도입하여 석탄 채취률을 90~95%로 높였으며 아오지, 안주 탄광들에서는 공기 및 수사 충전 공사를 활발히 진척시켰다. 신창 지구 종합 탄광을 비롯한 무연 탄광들에서는 장벽식 채탄 방법과 수평 분층 채탄 방법이 널리 도입되여 석탄 채취률과 채탄 능률을 높이였다.

1963년에 장벽식(또는 장주식) 채탄 방법이 차지하는 몫은 유연탄 부문에서 76.5%, 무연탄 부문에서 13.5%에 달하였으며 석탄 채취률은 전년에 비하여 유연탄에서 4%, 무연탄에서 3.8%가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의 힘 있는 기계 제작

공업의 지원 밑에 1963년에 석탄 공업 부문에는 100여 대의 공기 압축기, 90여 대의 각종 권양기, 70여 대의 전차, 40여 대의 적재기, 90여 대의 각종 뽐프, 300여 대의 첸 콘베아, 500여 대의 국부 통풍기, 2,100여 대의 착암기, 4,800여 대의 탄차 등 채굴 및 운반 설비들과 배수 설비, 수직갱 설비들이 다량적으로 공급되였다.

결과에 탄광들의 주설비 보유 대수는 이 해에 1962년에 비하여 129%로 장성되였으며 탄광들의 기술 장비는 일층 강화되였다.

석탄 공업 부문 일'군들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우선 기계화하며 점차 채굴 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였다.

1963년에 신유선 탄광에서는 사갱 적재기, 안주 탄광에서는 스크레빠 적재기, 고건원 탄광에서는 자동 버력 전복기 및 모래 하차기, 신창 지구 종합 탄광에서는 탄차 추진기 등 새로운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들이 도입되였다.

그리하여 1963년에 전해에 비하여 석탄 및 버력 적재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7.9%, 채굴 막장에서 석탄 운반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6%, 갱내의 운반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5.1%가 각각 높아졌다. 10대 과업의 하나인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또한 힘차게 전개되였다.

안주 탄광 로동자들이 발기한 《모두가 운전공, 수리공 되기 운동》이 각 탄광들에 광범히 보급되고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 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설비 리용률은 훨씬 높아졌다.

1963년에 탄광 주설비의 리용률에 있어서 1962년에 비하여 압축기는 5.4%, 권양기는 7.6%, 전차는 10.5%, 첸 콘베아는 3.7%, 벨트 콘베아는 4.3% 높아졌다.

탄광들의 기술 개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3년에 룡등, 신창, 온성, 봉천 등 많은 탄광들에서 운탄선 레루를 중형 레루로 바꾸고 운반 계통을 정비하여 전차의 운행 속도와 운반 능률을 훨씬 높였다.

룡등 탄광에서는 1만여 메터의 운탄선 레루를 메터당 18 키로그람 레루로 바꾸고 운반 계통을 개선 정비함으로써 전차의 운행 속도를 2.5 배, 그 리용률을 40%로, 운반 능력을 일 생산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높이였다.

이 해에 석탄 채굴에서 우기의 자연 계절적 영향을 극복하고 석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룡문, 룡등 탄광을 비롯한 무연 탄광들에서 방수벽과 방수문 공사를 진행하고 우수 통갱과 우수 통로를 굴설하는 등 배수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또한 이 해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로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하는 데 각별한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63년에 탄광 종업원의 78%가 청장년들로 꾸려졌으며 전년보다 직접공 비중은 2.9%, 갱내공 비중은 5.8%가 각각 증가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은 1956년에 비하여 유연탄 부문에서 123.8%, 무연탄 부문에서 114.9%로 장성되였다.

이 해에 각 탄광들의 경영 활동이 일층 째임으로써 단위당 석탄 원가는 전년에 비하여 2.2% 낮아졌다.

광 업

1963년 광업 부문에서는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을 높이 받들고 증대되는 인민 경제의 광물 수요를 충족시키며 중요한 외화 원천인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광산들을 개건 확장하며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대안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 관리를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며 가까운 년간에 유색 금속 광물 생산을 2배 이상으로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1963년 4월 16일에 하신 김 일성 수상의 교시를 받들고 이 부문에서는 광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최근 년간에 유색 금속을 2 배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기계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광산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적 지원을 주었다.

이 해에 국가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더 많은 국가 건설 자금을 투하하여 광산의 개건 확장과 새로운 광산 개발을 활발히 추진시켰다.

결과 무산 광산 성흥 광산을 비롯한 많은 광산들에 락광정, 전차갱과 대규모의 수직갱들이, 그리고 통동갱과 사별장들이 건설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 밖에 조쇄장, 선광장을 비롯한 수 많은 확장 및 신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한편 여러 개의 중소 규모 광산이 새로 개발되였으며 일부는 벌써 생산에 착수하였다.

1963년에 광업 부문에서는 굴진과 채광에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조치가 취해지고 갱건설과 굴진을 생산에 결정적으로 앞세우기 위한 투쟁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갱건설과 굴진량이 현저히 증대되였다.

1963년 한해 동안에 전 해에 비하여 254%에 달하는 수직갱, 사갱, 통동갱이 현대적 규모로 건설되였으며 그중 수직갱 굴진량은 1962년에 비하여 139.8%, 사갱 굴진량은 137.9%, 통동갱 굴

치량은 400.7%로 각각 증가되였다.

이리 하여 앞으로 광물 생산을 급속히 높일 수 있는 믿음직한 기초를 마련하여 놓았다.

또한 이 해에 광업 부문에서는 탐광 굴진과 채굴 준비 굴진을 1962년 보다 1만 1,800여 메터나 더 많이 굴진하였는데 이것은 1959년에 비하여서는 147%로 증가된 것으로 된다.

흑색 광업 부문에서는 무산 광산, 룡양 광산, 은률 광산, 재령 광산을 비롯한 로천 광산들에서 박토를 6 개월분 이상 앞세우는 투쟁이 강화됨으로써 1963년에는 1962년에 비하여 29.7 %나 더 많은 박토를 처리하였다.

이 해 확보 광량은 전 해에 비하여 13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한 중공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광업 부문의 기술 장비가 더욱 강화되였다.

1963년에 금속 광업 부문에는 70 여 대의 압축기, 160여 대의 각종 권양기, 마광기, 파쇄기, 전차, 4,870여 대의 착암기, 140여 대의 펌프와 기타 선광 설비들, 각종 와이야 로프들이 공급되였다.

광산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갱 건설과 굴진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해에 수많은 광산들이 년간 광물 생산 계획을 성과 있게 수행하였다.

특히 유색 금속 부문의 검덕 광산, 갑산 광산, 성천 광산, 덕현 광산, 대유동 광산, 락연 광산, 수안 광산, 덕흥 광산 등을 비롯한 수 많은 광산들과 흑색 광업 부문의 무산 광산, 룡양 광산, 재령 광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산들이 년간 광물 생산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리 하여 1963년에 광업 부문 공업 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서는 272 %로, 1949년에 비하여서는 384%로 장성하였다.

이와 함께 광종별 생산량도 현저히 장성되였는데 1963년에 철광석은 386만 1천 톤, 마그네사이트는 97만 8,000 톤을 생산하였다.

광종별 현물 생산의 장성

	1963/1960	1963/1962
철광석	124	116
니켈	—	245
마그네사이트	252	135
형석	—	112
활석분	235	125
류화철	128	101

1963년에 10대 과업을 받들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함으로써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갱내 작업의 기계화가 현저히 촉진되였으며 선진 기술 공정을 광범히 도입하여 기술 지표들을 갱신하였다.

1963년에 기계화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광석 및 버력의 갱내외 운반 작업에서 6.5%, 굴진 막장 적재 작업에서 7.4%, 채굴 막장 운반 작업에서 0.9% 각각 더 높아졌다.

이 해에 새로운 고성능 착암기 《희천 5-29》를 새로 도입하여 천공 속도를 현저히 높이였다.

굴진 작업에서는 평행식 심발 발파법, 대공심발 발파법, 계단식 굴진 방법 등 여덟가지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고속도 굴진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963년에 막장 당월 평균 굴진 속도를 1962년에 비하여 0.4 메터 더 높이였다. 또한 채광 부문에서는 중단식 채광 방법과 련속 천공 종합 발파법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지질 조건에 알맞는 선진 채광법을 도입하여 착암기의 대당 락광량을 1962년에 비하여 6.9 톤이나 더 높이였다.

특히 덕현 광산에서는 중단식 채굴장에 대공 심발 발파법을 도입하여 착암기의 대당 락광량을 30 톤에서 평균 42 톤 이상으로, 최고 60 톤까지 높였으며 락연 광산에서는 《원형 파쇄》 발파법을 도입하여 거석이 생기는 것을 현저히 방지하고 대당 락광량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선진 채광법이 도입되고 기술 지표가 높아진 결과 1963년에 채광량은 1962년에 비하여 137만 700 톤이나 장성하였으며 1956 년에 비하여서는 569.1%로 증가하였다.

마광기의 급광 립도를 15 미리메터 85% 이상 보장하며 뽈 장입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마광기 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이 해선광 처리량은 1962년보다 32만 2,300 톤 더 증가하였다.

또한 이 해에 선광 부문에서는 물유리 시약 체제에 의한 종합 정선 다계단 부선 공정, 중간 산물의 재처리 공정, 립균별 별도 처리 공정과 이 밖에 새로운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하여 정광 품위와 선광 실수률을 현저히 높였다.

1963년에 10대 과업의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설비 관리 사업이 현저히 개선되고 그 리용률이 높아졌다.

당과 국가의 조치에 의하여 이 해에 단천, 신의주, 중암, 사리원 지구에 광산 기계 수리 공장이 신설되고 지구별 설비 보수대가 조직되여 광산 설비 수리 기지가 꾸려졌으며 광산 공무 직장이 강화되였다.

또한 전반적인 광산들에서 설비 점검 검열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대중을 설비 관리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여 계획적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진행하였다.

1963년에 광업 부문에서는 또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여 갱내공 비률을 70 %로 높이였다.

이와 함께 작업 조직 및 작업 조건을 개선하여 순 천공 시간을 높이며 로동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 하였다.

금속 공업

1963년에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업 관리 운영에서 대안의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금속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동시에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이 해 금속 공업 부문은 공업 총생산액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중요 공업 제품의 현물 생산 계획도 전반적으로 넘쳐 실행하였다. 그중 선철 및 립철은 104%(립철은 102%)로, 강철은 103%로, 합금철은 116 %로, 박판은 111%로, 와이야 로프는 105%로, 마그네샤크링카는 100.3 %로 계획을 각각 초과 수행하였다.

금속 공업의 규모가 커지고 매개 생산 공정들이 더욱 집약화됨으로써 1963년에 야금 설비를 확장하지 않고도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였다.

1963년에 금속 공업 총생산액은 1962년에 비하여 109.8 %로, 그중 흑색 금속 공업은 110 %로, 유색 금속 공업은 108.9 %로 장성되였으며 주요 금속 기업소들의 총생산액도 계통적으로 증대 되였다.

또한 선철 및 립철, 강철 생산량이 이미 올라선 100만 톤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완전히 공고화되였으며 기타 중요 제품의 생산량이 급속히 장성되였다.

중요 공업 제품 생산량의 년도별 대비(%)

	1963/1956	1963/1960	1963/1961
강 철	538	159	153.4
강 재	574	161	160.3
그중보통강재	518.5	155.0	139.2
특수 강재	1 760.0	229.5	192.0
형 강	502.9	153.2	134.6
강 판	554.8	159.3	150.1
박 판	288.6	116.1	109.6
철 선	2 165.7	113.8	102.2
와이야 로프	—	—	192.6
강관류	—	212.4	159.8
마그네샤 크링카	—	302.4	176.3

중공업을 더욱 정비 보강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이 해 금속 공업 부문에는 전년에 비하여 130.2 %로 증가된 기본 건설 자금이 투하되였다. 그중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자금은 151.4 %로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금속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생산 구조가 일층 개선된 결과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 선철 및 립철 생산, 강철 생산, 압연 강재 생산 간의 호상 관계는 변화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금속 재료들을 완제품의 형태로 더욱 원만히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압연 강재의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였다.

종전에 조동, 조연, 전기동, 전기연 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유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도 생산의 내부 구조가 보충 정비되여 동선, 동봉, 동관을 비롯한 각종 규격 유색 압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생산의 내부 구조를 완비하는 사업은 공업의 다면성을 보장하며 특히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요에 적응하게 제품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됨으로써 압연 강재의 품종과 규격이 부단히 확대되였다.

압연 강재의 질적 구성의 변화(%)

	1956	1960	1961	1962	1963
강 종 수	100	341	362.1	408.4	431.5
규 격 수	100	710	1 450	1 616	1 780

이리하여 우리 나라 금속 공업은 그 규모와 기술 장비에서는 물론 생산하는 제품의 품종과 규격 및 질에 있어서도 자립적 민족 경제의 요구에 상응하게 꾸려졌으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금속재들을 국내 생산으로 더욱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1963년에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창조된 성진 제강소의 설비 관리 사업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야금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데서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모든 기업소들에서 업간 점검 등 대중적인 설비 관리 방법과 집중적인 보수 방법이 도입되였으며 설비의 수명에 따르는 예비 부속품의 소요량을 재질 별로 정확히 확보하는 기풍이 수립되였다.

그 결과 중요 야금 설비들의 조업 일수는 전년에 비하여 회전로에서 102.09 %, 평로에서 104.2%로 연장되였으며 천장 수명은 평로에서 31.5회, 전기로에서 0.13 회 더 길어졌다. 중요 압연기들의 가동 시간은 성진 제강소 분괴 압연기에서 110 %로, 강선 제강소 분괴 압연기에서 107 %로, 후판 압연기에서 121.1 %로, 성진 제강소 박판 압연기에서 107.6 %로 각각 증가되였다.

내각 결정 제72호(1962년 12월 28일) 《1963년 기술 발전 계획에 관하여》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됨으로써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1963년에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이 광범히 도입되고 야금 설비들의 기술 지표들이 현저히 갱신되였다.

생산 현장에서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 기술적 문제, 선진 기술 공정의 도입, 생산과

운반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등 기술 발전 계획에 예견된 수많은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으며 한 해 동안에 9,254 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1,924만여 원의 리득을 국가에 주었다.

특히 황해 제철소에서는 선진 기술과 방법을 도입하여 칠콕스에 의한 선철 생산성을 19.5%로 높이면서도 선철 톤당 콕스 소비를 14.7%나 낮추었다.

이처럼 기술 혁신 운동이 전군중적으로 전개되고 그와 함께 기술 관리 사업이 개선된 결과 전년에 비하여 1963년에 용광로의 유효 용적당 생산량은 105.9%, 평로 로저 면적 평방메터당 1 주야 평균 강철 생산량은 121%로 장성되였으며 변압기 1,000 키로볼트암페아당 강철 생산량은 강선 제강소에서 107.1%, 성진 제강소에서 101.6%로 높아졌다. 평로에서 제강 시간은 48분, 해탄로의 탄화 시간은 김 책 제철소에서 32분, 황해 제철소에서 38 분이나 단축되였으며 소결광의 염기도는 0.06 더 높아졌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전력, 콕스, 석탄 등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1962년에 비하여 1963년에 선철 톤당 콕스 소비는 7%, 립철 톤당 석탄 소비는 4%, 강철 톤당 전력 소비는 강선 제강소에서 10.2 % 더 낮아졌다. 전류 효률은 연 전해에서 5.5%, 니켈 전해에서 1.39%, 문평 제련소 아연 전해에서 2.6%, 남포 제련소 아연 전해에서 2.4%가 각각 더 개선되였다.

공업 생산물의 원가는 전년에 비하여 3.6 %, 중요 공업 생산물의 원가에서 선철은 3.45 %, 립철은 1.3 %, 강철은 0.68%, ㄷ형강은 7.96%, ㄴ형강은 6.09%, 후판 (12 미리)은 1.81% 더 낮아졌다. 공업 총생산액 장성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이 차지하는 몫은 21.3% 더 높아졌다.

이리 하여 1963년에 금속 공업 분야에서는 있는 설비를 옳게 리용하는 한편 이미 마련된 공간에 살을 계속 붙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행됨으로써 우리 나라 금속 공업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일층 튼튼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성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

1963년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례년에 보기 드문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해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10대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 경리에 1962년 보다 14.3%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새로운 대형 기계들과 정밀 기계들을 만들어 내여 인민 경제 발전과 기술 혁명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해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 발전에서 일대 전환으로 되는 새로운 지도 체계가 수립되였다.

1963년 8월에 중요 기계 공장들이 하나의 지도 체계로 통합되고 전문 설계 기관이 설치되였으며 이를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계 공업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새로 발족한 기계 공업 위원회와 기계 공업 총국들은 중요 기계 공장들과 전문 설계 기관들을 직접 틀어 쥐고 지도에서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을 전망성 있게 집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설비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를 더욱 완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계 공업 내부의 잠재력을 보다 원만히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 하여 덕천 자동차 공장, 기양 뜨락또르 공장을 비롯한 많은 기계 공장들이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어렵고 방대한 년간 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자동차, 뜨락또르, 엑스까와또르 등 중요 기계, 설비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1963년 기계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은 현존 기계 공업의 내부 구조를 더욱 정비 강화하여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농기계와 채취 공업 설비, 경공업 설비 생산을 급속히 높이면서 새 기계 설비들과 자동화 설비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개건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이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이 해에 단능 설비, 특수 설비를 비롯한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새끼쳐 현존 기계 공장들을 더욱 보충 완비하며, 생산 면적과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소재 생산에서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프레스, 형단조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계, 설비 생산에서 전문화, 협동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생산 조직을 끊임 없이 개선하고 중요 정밀 기계의 가공, 조립의 흐름선, 자동선을 광범히 실현하며 공정별 검사 체계를 확립하여 기계 설비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협동 생산에 대한 규률을 세워 중요 설비의 완제품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였다.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제작 공업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해마다 이 부문에 막대한 기본 건설 자금을 돌리였는데 1963년에는 그것이 전해에 비하여 152.6%로 많아졌다. 결과 국가 기본 건설 총투자액에서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1956년의 6.3%로부터 1962년에는 7.4%로, 1963년에는 10.1%로 높아졌다.

이리하여 1963년에 덕천 자동차 공장의 단조 직장, 문천 기계 공장의 련속식 열 처리로가 새로 완공되였으며 기양 뜨락또르 공장의 대형 가공 조립 직장, 룡성 기계 공장의 주강 직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기계 제작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하여졌다.

이 해에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련대적 기술 혁신 운동을 줄기차게 조직 전개하여 한 해 동안에 최신식 프로그람 선반, 프로그람 후라이스, 수'자식 프로그람 장치 등 20여 종의 자동화 설비들을 새로 만들어 냈다. 또한 복잡하고 정밀한 대형 정밀 기계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높이 5.1 메터, 길이 7메터의 크기를 가진 200미리 만능 보링반을 비롯하여 1,600여 대의 기계 설비들을 새끼쳤다.

그리고 가공에서 높은 정밀도와 정결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종합적 자동화 체계로 된 축 가공의 자동선과 나사 절삭 공정의 자동화, 피스톤 구멍 가공의 자동화, 치차 생산의 흐름선 등 30여 종의 제품 및 부분품의 가공 및 조립의 자동선, 흐름선을 완성 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새로운 기계, 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였으며 앞으로 전면적인 자동화에로 넘어갈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또한 1963년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75 톤의 무게의 물자를 93 메터 높이까지 자유로 끌어 올릴 수 있는 75 톤 급 탑식 기중기, 한 교대에 2,500～3,500 립방메터의 광석을 캐내고 처리할 수 있는 높이 8.5 메터, 길이 20 메터의 4 립방메터 엑스까와또르, 열구 기관에 비해 절반 이상 가볍고 시속은 1.5 배 더 빠른 400마력 디젤 기관, 간편하고 능률 높은 희천 5—29형 착암기, 대형 무궤도 전차, 대형 뻐스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수 많은 새로운 대형 기계 설비들을 우리의 기술과 자재로 생산하였다.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한 각지 기계 공장 로동자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면서 생산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을 끊임 없이 개선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1963년에 기계 공업 위원회는 사기 계획을 생산액적으로 102%로 넘쳐 수행하였다.

1963년 기계 제작 공업의 총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162 배, 1949년에 비하여 30 배, 1956 년에 비하여 761%, 1960년에 비하여 163%로 장성 하였다.

이리 하여 공업 총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해방 전 1944년의 1.6%로부터 1949년에는 8.1%, 1956년에는 17.3%, 1960년에는 21.3%, 1962년에는 23%, 1963 년에는 24%로 높아졌다.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기계 설비의 자급률은 1956년의 46.5%로부터 1960년에는 90.6%, 1962 년에는 92.4%, 1963년에는 93.8%로 높아져 나라의 전면적 기술 개건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기계 설비들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1963년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151 대의 엑스까와또르, 384 대의 공기 압축기, 8,172 대의 착암기, 347 대의 첸콘베아, 1만 1,200여 대의 광차, 80여 대의 스크레빠 권양기를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또한 3,033 대의 뜨락또르, 2,700여 대의 쁠루그, 300여 대의 원판 써레, 1,540여 대의 가마니 짜는 기계, 4,022 대의 자동차 등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 및 종합적 기계화를 촉진함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해에 새로운 살충제 공장 설비를 비롯하여 40만 톤 능력의 황해 제철소 분괴 압연 직장 설비, 김 책 제철소 7단광 직장 설비, 강선 제강소의 년산 5만 톤 능력의 인발 강관 직장 설비 등 수십 개에 달하는 중요 대상 건설에 소요되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해서 보내 주었다.

이 외에도 단천—흥원간 철도 전기화에 소요되는 변전소 및 전철구 설비와 15 대의 전기 기관차 그리고 수산업, 광공업, 림업, 체신 등 인민 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수 많은 설비들을 생산 하였다

1963년 주요 설비 생산 계획을 열구 기관은 110%, 변압기는 138%, 첸콘베아는 104%, 광차는 103%, 정미기는 142%, 면직기는 145%, 뜨락또르는 100%, 쁠루그는 186%, 원판 써레는 151%, 가마니 짜는 기계는 155%, 광산용 전차는 107%, 화물 자동차는 101%, 권양기는 104%, 타빈 펌프는 150%, 휴갈 펌프는 168%, 감속기는 104%로 각각 초과 완수하였다.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또한 중요 기계 설비들의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 뜨락또르, 탄광 설비, 야금 설비, 선박 설비, 부작 기계의 부속품 생산에 힘을 돌리였다. 결과 1963년에 부속품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01%로, 그중 야금 설비 부속품 생산량은 226%로 늘었다.

1963년에 기계 공업 위원회 산하 각 기계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 기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전년의 1.5 배나 되는 1만 4,000여 건의 기술 혁신안을 실현하였다.

이리 하여 년간 152만 2,500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고 국가에 704만여 원의 리익을 주

었다.

또한 기계 공장들에서 설비 리용률이 높아진 결과 전년에 비하여 주물 주강 직장 평방메터당 생산량은 주강품에서 121%로, 주철품에서 110%로, 공작 기계 대당 생산량은 113%로 각각 장성되였다.

이 해에 기계 공업 제품의 총상품 생산물 원가는 계획보다 3.4%, 그중 대비 생산물 원가는 전년 평균에 비하여 8.4%나 낮아졌다.

화학 공업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은 지난 시기 주로 화학 비료만 생산하던 것이 오늘에는 합성 섬유, 합성 수지를 비롯한 각종 무기 및 유기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강력한 화학 공업으로 발전하였다.

1963년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튼튼한 화학 공업 토대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위한 화학 비료 및 농약 생산과 화학 섬유, 합성 수지를 비롯한 경공업 원료 생산에 힘을 집중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화학 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바 이 해에도 국가는 많은 국가 자금을 이 부문에 돌려 그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1963년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년 5만 톤 능력의 본궁 제2 가성 소다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흥남 비료 공장의 년 35만 톤 능력의 질안 석회 비료 직장, 본궁 화학 공업 경영국 산하 년 3,500 톤 능력의 살초제 직장 및 년 3만 톤 능력의 농약 가공 직장과 황해 제철소의 화학 직장,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국가 투자와 내부 예비 동원으로 80여 개의 중소 규모 화학 공장 건설이 진행됨으로써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더욱 확대 강화되였다.

1963년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기존 설비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새로 조업한 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한 결과 화학 공업 총생산액은 1962년에 비하여 111%로 장성되였다.

화학 공업 생산액의 장성(1946=100)

	1956	1960	1962	1963
화학 공업	288	13배	24배	26배

이 해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농촌 경리 부문에 각종 화학 비료와 농약을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현존 화학 비료 공장들을 개건 확장하며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강화하고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인 결과 전년에 비하여 7만 4,000 톤의 화학 비료를 더 생산하였으며 화학 비료의 품종 구성도 1962년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되였다. 이리하여 1963 시비 년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에 전시비 년도보다 6만 1,000톤이 더 많은 68만 3,000 톤의 화학 비료가 영농기 전으로 농촌에 공급됨으로써 정보당 시비량이 더욱 증가되였다. 같은 기간에 농촌에 살충제, 살초제 등 1만 톤의 각종 농약이 공급됨으로써 많은 로력이 절약되였다.

또한 1963년에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 섬유와 염화 비닐, 가소제, 가성 소다, 류산 등 경공업 원료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힘이 돌려졌다. 이 해에 1962년에 비하여 가성 소다는 1만 1,000 톤, 류산은 5,000 톤, 비날론은 3,045 톤, 스프는 1,379 톤, 염화 비닐은 333 톤 각각 더 생산되였다. 그리고 각종 염료, 도료, 안료, 가소제 생산도 장성되였다. 이리하여 경공업 부문에 섬유 원료와 각종 일용품 원료들을 전년보다 더 많이 공급하였다.

중요 화학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000 톤)

	1946	1949	1956	1960	1963
화학 비료	156	401	195	561	853
류 산	108	304	109	255	321
가성 소다	3	9	6	25	43
화학 섬유	—	—	—	14	21
염화 비닐	—	—	—	—	4
카바이드	42	136	99	125	191

중요 화학 공업 제품의 장성(%)

	1963/1956	1963/1960	1963/1962
화학 비료	437	152	109
류 산	294	126	100.2
가성 소다	699	174	132
화학 섬유	—	158	125
염화 비닐	—	—	110
카바이드	194	153	107

1963년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이 강화된 결과 흥남 비료 공장, 2.8 비날론 공장, 본궁 화학 경영국 염화 비닐 공장, 영안 화학 공장들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창의 고안이 생산에 널리 도입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이 전년보다 더 장성되였고 암모니야 톤당 전력 소비는 1962년에 비하여 2%, 스프 톤당 가성 소다 소비는 9%나 각각 낮아졌다.

건재 공업

우리 나라 건재 공업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산업 건설과 도시 및 농촌의 문화 주택 건설을 비롯한 일련의 건설 분야에서 소요되는 건재품들을 자체 생산으로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2.8 마동 세멘트 공장을 비롯하여 300여 개에 달하는 대중소 건재 공장들이 있다.

1963년에 국가에서는 건재 공업의 물질 기술적 장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 전년보다 32% 더 많은 기본 건설 자금을 투하하였다.

이 해에 2.8 마동 세멘트 공장의 공무 직장, 개성 가세트 공장, 성천 탄광 부재 공장, 평양 건설 기와 공장들이 신설되였다.

한편 이 해에 현실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건재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취해졌다. 국가에서는 건재 공업성을 새로 설치(1963년 1월 8일 정령)하고 지난 시기 분산적으로 관리 운영되던 건재 공장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체계를 세웠다.

또한 건재 공장들을 통합하고 통합된 공장들의 설비를 재정비, 보충, 완비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대성 요업 공장과 안변 요업 공장을 비롯한 10여 개의 공장들의 설비를 가일층 정비 보강하였다.

1963년에 건재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1.5%로 장성되였고 이 부문이 우리 나라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같은 기간에 4.9%로부터 5.6%로 높아졌다.

공업 총생산액에서 건재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1946	1956	1962	1963
공업 총생산액	100	100	100	100
그중 건재 공업	1.0	4.8	4.9	5.6

건재 공업 생산액의 장성 (%)

	1954	1956	1960	1962	1963
건재 공업 총생산액	100	236	11.3배	12.1배	14.7 배
		100	479	514	624
			100	107	130

중요 건재 공장들의 1963년도 계획 실행 정형

기업소명	계획 수행(%)
2.8 마동 세멘트 공장	104
해 주 〃	111
승호리 〃	110
천내리 〃	105
고무산 〃	109
대성 요업 공장	110
안변 〃	117
홍상 〃	111
강남 〃	110
평양 금속 건구 공장	103
길주 합판 공장	101
평양 건재 공장	120

1963년에 건재 공업 부문에서는 기존 세멘트 공장들을 정비 보강하고 원료 공급을 생산에 앞세우며 선진 소성법을 도입하여 세멘트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이 해에 세멘트 소성로에 열교환기와 세멘트 분쇄기에 선별 및 라선식 리판을 도입하는 등 선진 기술 공정이 도입되였으며 설비 리용률이 현저히 높아졌다. 설비 리용률은 1962년에 비하여 세멘트 소성로는 1.9%, 세멘트 분쇄기는 3.1%, 세멘트 원료 분쇄기는 4.1% 각각 더 높아졌다.

결과 1963년에 세멘트 소성로 대당, 시간당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02%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세멘트 생산량은 106%로 올라갔다.

1963년에 건재 공업 부문에서는 철재와 목재의 소비를 극력 절약하기 위하여 목섬유판 공장과 합성 수지 공장들을 신설 확장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재, 부석, 천연 스레트, 석비레 등 자원들과 석탄재와 광재 등 건재를 광범히 동원 리용하였다. 또한 이 해에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용 벽돌 생산에서 적점토를 원료로 하는 생산 방법을 도입하였다.

주요 건재품 생산량의 장성 (%)

	1963/1946	1963/1956	1963/1960	1963/1962
세멘트	25배	423	111	106
석 회	35배	369	125	…
내화 벽돌	15배	305	107	103
인조 스레트	—	122	108	…
건축 타일	—	—	—	130

1963년에 건재 공업 부문에서는 1,850건의 창의 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년간 17만 4,000여 공수의 로력과 168만 원의 막대한 자금을 절약하였다.

경 공 업

1963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직물 2억 5,000만 메터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1964년에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며 식료품 및 일용품 등 생산에서 최근 1~2년내에 품종을 3만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질을 선진적 수준에 끌어 올리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1963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하에 현존 경공업 공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특히 경공업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꾸리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2.8 비날론 공장, 청진 화학 섬유 공장, 길주 팔프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의 화학 섬유 기지들과 본궁 염화 비닐 공장, 영안 화학 공장, 원산 화학 공장을 비롯한 합성 수지 계통의 공장 설비들이 새로운 과학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장비되였다. 이와 함께 80여 개의 중소 규모 화학 공장 건설이 진행되였다.

서해안 일대에서는 기존 갈밭 관개 공사, 신도 및 비단섬 갈밭 조성 공사, 새 염전 개발 공사들이 성과 있게 추진되였으며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6,000여 정보에 이르는 자체 원료 기지가 새로

꾸려졌다.

1963년에 회령 제당 공장, 해주 판지 공장, 평양 제사 공장을 비롯한 20여 개의 중앙 경공업 공장들이 신설, 확장되였다.

그리고 중공업 부문 기업소들의 생활 필수품 직장이 대대적으로 확장되여 이 해 말에 이르러 그 수는 580여 개로 늘었다.

1963년에 경공업 발전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이 더욱 성과 있게 관철됨으로써 지방 공업이 계속 발전하였다.

강력한 중앙 공업 기업소들의 지원하에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 이후 1963년 6월 말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58개의 피복 공장과 토기 및 가구 공장을 비롯한 680여 개의 공장이 새로 꾸려졌다.

1963년에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경공업 부문의 기업 관리 및 지도 체계가 전국적 범위에서 개편되였다. 새 지도 체계가 나온 결과 경공업 원료 생산과 소비품 생산이 국가 경공업 위원회의 유일적인 지도 통제하에 진행되게 되였다.

또한 매 시, 군에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군을 거점으로 하여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근절할 데 대한 조선 로동당의 위대한 구상의 실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1963년에 경공업 부문 근로자들은 10대 과업과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거세차게 전개하였다. 국가 경공업 위원회에서는 평양 방직 공장, 청진 화학 섬유 공장, 길주 팔프 공장, 남포 유리 공장과 신천 지구 지방 공업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기업 관리, 기술 관리, 설비 관리에서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전국 경공업 공장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 기업소들의 립지 조건과 생산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고 인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전국적인 규모에서 생산의 전문화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업종을 재정비하고 제품의 모양, 규격, 질을 규정하였으며 제품 등록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1963년에 경공업 부문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된 기술 혁신 운동은 현존 경공업 공장들의 기술적 정비를 개선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 결정적 고리로 되였다.

강력한 중공업 공장들과 경공업 기계 기지의 지원에 의하여 대규모의 중앙 경공업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계 설비들이 보충되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널리 이루어졌으며 지방 공업 부문에서도 공정의 정비와 함께 점차 기계화에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해에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련계가 강화되고 작업반을 거점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이 나오게 되여 1만 4,500여 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결과에 절약된 로력은 291만 1,000여 공수, 국가에 준 리익은 1,850여 만원이나 된다. 그중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9,500여 건이 생산에 도입되여 214만 7,000여 공수의 로력이 절약되고 국가에 869만 5,000여 원의 리득을 주었다.

특히 이 해에 로동 조직이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되였다.

1963년에 수 많은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교대제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작업반의 규모를 세분하여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기업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중앙 공업 식료 공장들에서만 하여도 많은 인원을 다른 일터에 보내고도 연 2만 9,000여 공수의 로력을 더 절약할 수 있었고 년간 계획 액수보다 570여 만 원이나 더 많은 식료 가공품을 생산하였다.

10대 과업과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로 하여 1963년에 국가 경공업 위원회 경공업 총국의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100.4%로, 지방 공업은 104.4%로 각각 넘쳐 수행되였다.

중요 경공업 부문별 생산액의 장성

	1963/1946	1963/1949	1963/1956
방직 공업	107배	16배	518
문화용품 및 일용품 공업	248배	40배	11배
팔프 및 제지 공업	22배	10배	458
제혁 및 제화 공업	187배	9배	291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	16배	675	533
유지 공업	25배	12배	216

지방 공업이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1963년에 그 생산액은 1944년 공화국 북반부 공업 총생산액의 3.4 배에 달하였으며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59%였다.

1963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자재, 자금, 로력을 절약하고 설비 관리 사업을 일층 개선하여 제품의 생산 원가를 현저히 낮추었다. 이 해에 중앙 경공업 공장의 대비 상품 생산물 원가는 4% 낮아졌다.

【방직 및 피복 공업】 1963년에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전해의 직물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직물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1964년에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조건과 준비를 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해에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년 4,000 톤의 고치 처리 능력을 가진 최신 기술로 장비된 평양 제사 공장이 신설되였고 새로운 아마 방적 계통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 밖에 년 2만 톤의 스프 생산 능력을 가지는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였으며 원산, 청진 방적 공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의 기술 장비가 개선되고 정방기에서 목관 뽑기 기계화와 직기에서 자동 위장 장치, 경통기의 자동화를 비롯한 3,800여 건의 새로운 기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1963년에 섬유 원료 기지를 더욱 확대하며 현존 화학 섬유 공장의 생산 능력을 일층 높이기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이 해에 화학 섬유의 원료 기지인 1,000여 정보의 갈밭이 새로 조성되였으며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야생 섬유 원료 기지가 더욱 확장되였다.

2.8 비날론 공장의 기술 공정들이 새로운 과학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부단히 개선되였으며 길주 팔프 공장에서는 인견 팔프 계통과 스프 및 제지 팔프 계통이 분리됨으로써 이 공장들에서 화학 섬유 생산을 질량적으로 계속 높일 수 있는 토대가 공고화되였다.

이와 함께 화학 섬유의 수분 및 섬도의 균일성을 정확히 보장하고 스프 생산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며 비날론 생산에서 수중 연화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성과 있게 추진되였다.

그리 하여 이 해에 우리 나라 화학 섬유 생산량은 2만 1,000 톤에 달하였다.

화학 섬유 생산의 계통적인 장성과 섬유 가공 공업이 더욱 발전함으로써 1963년에 직물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면서도 2억 2,700만 메터의 직물이 생산되였다.

그중 모직물은 1949년에 비해서는 67.2%, 1956년에 비해서는 21배로, 내의류는 1949년에 비해서는 31 배, 1956년에 비해서는 847 배로 각각 장성 하였다.

특히 1962년에 비하여 직물 총생산량 중에서 겨울용 직물의 비중은 27%, 연사 직물의 비중은 6%, 고급 직물의 비중은 10%로 각각 높아졌다.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 전년에 비하여 캬바진은 134%, 모직물은 131%, 비날론 혼방직은 2배 이상으로 각각 증가되였다. 직물의 질적 구성의 변화에 적응하게 이 해에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고번수의 방사 비중과 현존 설비의 능력 및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들이 추진되였다.

결과 전국 방직 공장들의 방적사의 평균 번수가 현저히 높아지고 직기 한대의 매 시간 면직물 생산량은 1962년에 비하여 6% 장성하였다.

1963년에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는 지역별로 섬유 방사와 방직을 전문화하고 일부 편직물 공장들을 통합 개편하여 제품의 질을 현저히 높였다.

특히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 이후 1963년 말까지의 기간에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에는 5만여 추의 방적 설비와 1,500여 대의 력직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계 설비들이 공급되였다. 결과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 생산 공정의 기계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중 일부 공장들은 쟈카드, 도비기를 비롯한 최신식 방적, 방직 설비들을 갖추고 색동직, 뉴똥, 모직 양복천을 비롯한 고급 직물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 섰다. 이 해에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 생산한 직물은 우리 나라 직물 총 생산량의 26%를 차지하였다.

한편 피복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피복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개선하고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꾸준히 높이어 우리 나라 인민들의 생활 양식에 맞는 맵시 있고 아름다운 가가지 옷들을 만들어 내였으며 780만 벌의 기성복과 기타 막대한 량의 외투, 작업복 등을 생산하였다.

이 해 년말에 있은 전국 각지 농촌 어린이들과 제염소 종업원, 수산 조합원들의 자녀들에게 (4세 이상 10세까지) 겨울 옷을 무료로 공급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피복 공업 부문에서는 계획 이외에 100만 벌의 겨울 옷과 모자를 짧은 시일 내에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식료 공업】 1963년에 식료 공업 부문에서는 날로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름, 두부, 장, 채소, 수산물 가공품을 비롯한 부식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력량을 돌렸다.

대규모의 중앙 공업 식료 공장들과 함께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이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되고 기술적 장비가 현저히 개선되였다. 이와 함께 원료 기지가 튼튼히 조성되고 국내 식료 원료 원천들이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되였다.

그리 하여 1963년에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16 배, 1949년에 비하여 675%, 1956년에 비하여 533%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 해에 식용유와 간장, 된장, 두부, 옥수수 가공품을 비롯한 량곡 가공 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수요를 공업적 방법으로 해결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 있게 관철되였다.

이 해 6월에 이르러 전국 각지 공장들에는 2만여 립방 메터의 장 저장 땅크들이 증설되였으며 평양 장유 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장 공장들의 신설 확장 공사가 추진되였다.

1963년에 지난 해보다 간장 생산량은 1만 4,000여 키로 리터나 더 많은 13만 키로 리터, 된장 생산량은 9,000여 톤이 더 많은

14만 3천 톤이였다. 식용유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평양 최신 첨단식 제유 공장을 비롯한 중앙 공업 제유 공장들이 보다 최신식 기술로 장비되고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에는 300여 대의 착유기를 포함한 각종 제유 설비들이 증설되였다.

또한 증 연화, 압연, 건조 공정들이 개선되고 새로운 보온 랭각 설비들이 보강되였으며 선진 착유 방법이 광범히 도입되였다. 그리 하여 1963년에 식물성유 생산량은 1946년에 비하여 20 배로 장성되였다.

1963년에 채소, 과실, 수산물과 육류 가공 공업 분야에서는 룡성 육류 가공 공장, 신포 어류 통조림 공장 그리고 김 책, 신포 지구를 비롯한 동서해 연안의 수산물 가공 공장의 가공 설비들이 확장되여 통조림 생산량은 3,700 톤에 이르렀다.

제당 공업과 옥수수 및 각종 과실 가공 공업이 발전하고 원료 가공에서 실수률이 높아진 결과 사탕류, 과자류, 청량 음료, 술 생산량이 장성되였으며 품종도 확대되고 질도 더욱 좋아졌다.

이 해에 중앙 공업 식료 공장들에서만도 사탕류는 119.2%, 과자류는 357.3%, 가공주는 207.2%, 청량 음료는 145.8%로 각각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1963년에 제염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조치에 의해서 서해안 일대의 염전 개발 공사가 급속도로 진척되여 소금 생산 능력은 년산 50만 톤 수준을 넘었다.

이와 함께 1963년에 공예 작물의 파종 면적이 확장되고 담배 가공 공정이 더욱 질적으로 개선된 결과 이 해 담배 생산량은 전년의 110.4%인 1만 2,000 톤에 이르렀다.

1963년에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이미 공장의 규모가 정확히 선정되고 정비된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은 강력한 중앙 공업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의 지원에 의하여 기계화, 자동화에로 전면적으로 이행하였다.

결과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의 기계화 수준은 전년에 비하여 20% 이상 더 높아졌다. 그중 량강도 내 식료 공장들에서는 청량 음료 주입 작업과 과실 가공 및 장 생산 공정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여 생산 능력을 2~5 배로 높였다.

1963년에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에서는 1,500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52만여 공수의 로력을 손로동에서 해방하였다.

지난 해에 비하여 이 해에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에서 생산된 간장은 112%로, 된장은 106%로, 식물성유는 103%로 증대되여 우리 나라 총생산량 중에서 간장은 95.5%, 된장은 99.2%, 식물성유는 57.9%를 차지하게 되였다.

【일용품 공업】 1963년에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철제 일용품, 나무 제품, 수지 제품, 도자기 및 유리 제품, 초물 제품과 신발, 종이, 포장재 생산에 많은 력량을 돌렸다.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신의주 팔프 공장, 길주 팔프 공장,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 신의주 화장품 공장, 남포 유리 공장, 신의주 고무 공장을 비롯한 중앙 공업 일용품 공장들의 기술 장비가 확장되고 남포 유기 유리 공장을 비롯한 많은 일용품 공장들이 신설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그리 하여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일용품과 문화용 품의 생산이 확대되고 그 질이 더욱 높아졌다.

1963년에 중앙 공업 기계 공장들과 중공업 기업소들의 생활 필수품 직장이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되고 기술적 장비가 개선된 결과 중앙 공업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52%로 장성되였다. 이 해에 재봉기는 3만 4,000 대, 라지오는 1만 대, 자전거는 2만 1,000 대 생산되였다. 또한 각 시, 군마다 가구 공장들이 새로 서고 림산 공업 부문에서 단판, 합판, 목삭판을 비롯한 가구 용재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합성 수지 가공 공업과 유리 도자기 공업 및 문방구, 완구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1963년에 문화용품 및 일용품 공업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248 배, 1949년에 비하여 40 배, 1956년에 비해서는 11 배로 장성하였다. 제혁 및 제화 공업 부문에서는 합성 수지들이 광범히 활용되고 피혁 가공이 개선되였으며 제품 생산에서 프레스와 사출 장치들이 도입되였다. 결과에 1963년의 제혁 및 제화 공업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187 배, 1949년에 비해서는 9 배, 1956년에 비해서는 291%로 늘었다. 그중 신발류는 1962년보다 600여만 켤레나 더 많은 3,000여만 켤레가 생산되였다. 또한 1956년에 비하여 540.6%로 장성된 73만 매의 비옷을 비롯하여 238만 개의 각종 가방이 생산되였으며 141만 개에 달하는 만년필을 비롯하여 각종 학용품이 많이 생산되였다.

1963년에 유리 및 도자기 공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원료 원천들을 계속 탐구 리용하고 남포 유리 공장과 중앙 공업 도자기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개선하였다. 또한 경질 및 광학 유리와 연마 유리, 렌즈 생산 설비들을 신설 확장하고 경질 자기와 복식 자기 생산 비중을 현저히 높였다. 판유리는 523만 평방메터 생산되였으며 도자기 생산에서 경질 및 화문 도자기 생산 비중은 70% 이상에 달하였다.

이 밖에 신의주 법랑 철기 공장의 모든 생산 공정들이 최신식 기계 설비들로 기계화, 자동화되였고 [illegible]천, 북청 등 지방에서는 지방 공업 법랑 철기

공장 건설이 촉진되였다. 1963년에 법랑 철기는 1956년에 비하여 254.6%로 장성된 761만 2,000개나 생산되였다.

제지 공업 부문에서는 1963년에 팔프 및 제지 원료 기지가 광범히 조성되고 해주 판지 공장을 비롯한 제지 공장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 밖에 90여 개의 지방 공업 제지 공장들의 기술 장비가 강화되였다.

이 해에 팔프 및 제지 공업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22배, 1949년에 비하여 10배, 1956년에 비해서는 458%로 장성되였다.

그중 종이 생산량은 1946년의 17.5배로 장성되였으며 지난 해보다 6,000여 톤이 더 많은 7만 1,000 톤에 이르렀다. 또한 각종 포장 용기, 포장 용재 생산이 급속히 증대되였다.

1963년에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일용품의 업종을 정비하고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 체계를 확립하며 기업 관리 운영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현저히 높였다. 중앙 공업 일용품 공장들의 품종 수는 지난 해에 비하여 1,179종이 더 늘었다. 이 해에 지방 공업 부문의 일용품 생산량도 현저히 자랐는바 경공업 부문 신발 및 비옷 생산량에서 지방 공업은 31.1%와 76%를 차지하였다.

림 업

과거 원목 생산과 제재를 위주로 하던 우리 나라 림업은 최근 년간에 현대적인 목재 가공 및 목재 화학 공업을 겸비한 튼튼한 자립적 공업으로 발전하였다.

1963년에 림업 부문에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성 및 관리국 지도 체계를 생산 현장에 접근하고 생산의 전문화에 유리하게 개편하였다.

1963년에 국가에서는 림산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년보다 125.8%로 장성된 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리 하여 림업 기계 수리 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기계톱을 비롯한 많은 림업 기계가 생산 공급됨으로써 림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1960년에 비하여 1963년 말 현재 림업성적인 보유 기계 총대수는 1.7배; 그중 자동차는 1.7배, 뜨락또르는 3배, 기계톱은 1.4배로 늘었다.

1963년에 림업 부문에서는 장성하는 목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쓴 결과 림업성적으로 년간 공업 총생산액 계획을 102%로 초과 수행하였다.

주요 기업소들의 1963년 계획 수행 정형

기업소 명	계획 수행률(%)
부전 림산 사업소	105
풍서 〃	109
유평 〃	101
연암 〃	102
유곡 〃	101
보천 〃	107
화평 〃	106
룡림 〃	101
오가산 〃	108
대관 〃	104
합흥 갱목 생산 사업소	109
회령 〃	103
무산 림산 사업소	102
두만강 제재 공장	104

1963년에 림산 및 목재 가공업의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03%로 장성되였다.

림산 및 목재 가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1949=100)

1956	1960	1962	1963
177	327	423	434

1963년에 림업 부문에서는 림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집중적 생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 8월 량강도 현지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순환식 채벌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 연구 사업이 8개 도, 107개 군에 걸쳐 4개월간 (1963년 9월—12월) 진행되였다.

그리고 림산 사업소의 규모를 순환 주기에 알맞춤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분산된 생산 현장들을 림산 공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정리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리 하여 도처에 분산되였던 생산 현장을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정리 통합하여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해에 각지 림산 사업소들에서는 순환식 채벌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면서 원목 생산을 높이는 데 힘을 집중하였다.

1963년에 채벌 작업과 중간 운재 작업에 기계를 더 많이 리용하였는바 1960년에 비하여 채벌 작업에서 기계화 비중은 23.4%, 같은 기간에 중간 운재 작업에서 기계화 비중은 14% 더 높아졌다.

이 해에 림산 부문에서는 설비의 예방 보수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기에 힘쓴 결과 1962년에 비하여 자동차의 리용률은 0.4%, 기관차의 리용률은 7.8% 더 높아졌다.

현존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의 제고, 생산 준비의 철저한 진행, 류벌 운재의 대대적인 도입 등으로 운재의 능력은 현저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 해에 1962년에 비하여 원목 실수률은 2.3% 더 높아졌다.

결과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55만 6천 립방 메터가 더 많은 374만 립방 메터의 원목이 생산되였다.

원목 생산량의 장성 (1949=100)

1956	1962	1963
160	198	232

1963년에 각지 제재 공장들에서는 기대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잘하고 규격품을 생산하며 선진적 제재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였다. 결과 이해 제재 실수률은 1962년에 비하여 1.2% 더 높아졌다.

1963년에 목재 가공업의 발전에 계속 힘이 돌려졌다. 목재 가공에서 목재의 종합적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나무초리, 아지, 제재 부산물 등을 광범히 리용하였다. 이리 하여 47만 2,000여 평방 메터의 목삭판이 생산되였으며 목섬유판, 쇄목 팔프, 가구, 일용품의 생산량도 증대되였다. 그리고 림업 기업소들에서 나무뿌리, 송지 등을 리용하여 각종 화학 제품도 많이 생산하였다.

1963년에 림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계획을 101%로 초과 수행하였는바 이는 1961년에 비하여 21%나 장성한 것이다.

수 산 업

1963년에 수산성의 공업 총 생산액은 1962년에 비하여 103.6%로 장성하였다.

이 해에 국가에서는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공업 건설 투자액의 13.4%에 해당하는 기본 건설 자금을 이 부문에 돌렸다.

1963년에 수산성 산하 각 조선소들과 선박 수리 공장들에서는 선박 수리를 위주로 하면서 어선 건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상가선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건설을 진행하고 많은 설비들을 증가시켰다.

조선소, 선박 수리 공장, 수산 사업소의 공무 직장 능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할 목적 밑에 어선 기관의 수리 작업을 기업소별, 마력별로 전문화하고 15일 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또한 선박의 예비 기관과 예비 부속품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한 결과 각지 수산 기업소들에서의 열구 기관 생산량은 1962년 실적의 103.9%로 늘었고 소요량의 115.1%에 해당하는 예비 부속품을 장만하였다. 이리 하여 1963년에 선박 한 척의 대수리 기일은 전년보다 1.6일 단축되였으며 수산성'적인 선박 수리 계획은 113.4%로 넘쳐 실행되였다.

1963년에 3천여 척의 기관선과 범선이 공급되여 각지 수산 기업소들의 어선 척수는 전해에 비하여 103.4%로, 그 중 기관선은 107.3%로, 뜨랄선은 2배로 늘었다.

연안 중소 어업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중소 어업에 알맞는 비기관선들도 많이 늘었다.

어선 척수의 증가 (1953=100)

	1956	1961	1963
기 관 선	1 550	4 360	6 470
비 기 관 선	190	410	490

수산업을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에 계속 커다란 국가적 관심이 돌려진 결과 1963년에 어군 탐지기는 1956년의 40.7배로 늘었다.

1962년에 비하여 1963년에 어구, 자재 공장들에서의 그물 생산량은 175.9%로, 섬유 로프 생산량은 102.2%로 증가되고 솜동복, 고무 비옷, 어로용 방수의, 고무 장갑, 잠수복, 잠수 투구, 고무폐, 장화 등 제품의 년간 생산 계획은 훨씬 넘쳐 실행되였다. 생산의 장성에 따라 이 해에 4천여 톤의 로프와 어망을 비롯한 각종 어구들이 공급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직접 부문 로력의 비중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1963년에 국영 수산 기업소 종업원 중에서 어로공 (양식공 포함)이 차지하는 몫이 현저히 높아졌다.

1963년에 각지 수산 기업소들에서 기술 혁신 운동이 광범히 전개된 결과 수산성'적으로 전년보다 근 2배나 되는 창의 고안이 제출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이 한해 동안에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높아졌는바 하륙에서는 16.8%, 구내 운반에서는 13.2%, 상하차에서는 41.5%나 더 기계화되였다. 그리고 전광 어로법과 낙지 견착 어로 방법, 저예망 출사리는 기계와 개량 안강망 등이 많은 어선들에 도입되고 잠수기 펌프의 동력화와 염망 작업의 기계화, 김발 엮는 작업의 기계화가 적극 추진되였다.

1963년에 동서해에서는 기동적이며 적극적인 어로전이 다양하게 전개되였다.

수산성에서는 전망 탐색과 생산 탐색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각 도 수산 관리국에 생산 탐색대를 조직하였으며 동서해의 수산 연구소들에서는 전망 탐색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유일적인 지령 체계에 의하여 어황 및 해양 상태에 대한 통보를 제때에 받으면서 각지 어로공들은 연해로 들어 오는 고기떼는 마주 나가 잡고 나가는 고기떼는 따라가 잡는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하여 어기를 최대한으로 연장하기에 힘썼다. 각지 어로공들은 기망 회수를 높이기 위하여 300일 이상 출어 운동을 강력히 벌렸다. 그 결과 1963년에 기관선의 출어 일수는 전년보다 5% 더 올라 갔다.

각지 수산 사업소와 수산 협동조합들에서는 중소 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안 중소 어업에 힘을 기울였다. 1963년에 수산 사업소들은 중소 어업 전문 선단들을 늘이는 한편 67개의 중소 어업 직장을 새로 조직하였다. 또한 어로 조건이 유리하면서도 수산 협동 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곳과 도시 주변 및 로동자구들에 중소 어업을 위주로하는 40여 개의 수산 협동 조합들이 신설 또는 확장되였다. 국가는 중소 어업에 경첩

있는 어로공들을 이 부문에 많이 돌렸다.

1963년에 중소 어업 전수는 전년에 비하여 128.2%로, 그 중 자망은 108.5%로, 연승은 166%로, 낙지 공조는 104.5%로, 정치망은 116%로, 후리는 1,029%로, 잠수는 136%로, 행망은 133%로, 사돌은 119%로 각각 장성되였다. 이에 따라 이 해에 중소 어업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바 그중 정치망으로 잡은 물'고기만도 1960년 실적보다 41.3%나 더 많았다.

1963년에 대형 어업 전수는 전년의 107.1%로, 그중 저예망 어업은 132.6%로 늘었다. 가까운 바다 뿐만 아니라 멀고 깊은 바다에 적극 나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동서해 어로공들은 이 해에 더 넓은 수역에서 새로운 어구들과 작업 방법을 도입하면서 원양 어로전을 전개하였다. 포수들의 사격술이 현저히 높아지고 포경 선대 단위로 진행되는 협동 작전이 강화된 결과 포경 어업도 한 계단 더 발전하였다.

1963년에 수산성 산하 기업소들에서의 물'고기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낙지는 약 2.5배, 고래는 근 3.3배, 방어는 약 2배, 청어는 2.8배 이상, 대구는 약 1.5배, 큰 새우는 근 1.4배, 작은 새우는 1.5배 이상, 변즈미는 약 5.7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43 개소의 국영 양어장을 비롯하여 협동 농장 양어장들과 기관, 기업소 부업 양어장들이 있다.

이 해에 담수 양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창 지구에 10만 평방메터의 칠색 송어 양어장을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양어장들을 건설하였다.

양어 사업을 과학적인 타산 밑에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인 양어 적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였다.

1963년에 천해 양식 부문에서는 해당한 수역의 특성에 맞게 양식 사업을 전문화할 대책을 취하였다.

각지 천해 양식 사업소들과 수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년간 미역 투식 계획을 104%로, 바위닭기 계획을 103.8%로, 굴 2종 양식 계획을 101%로 넘쳐 실행하였으며 곤포, 미역, 김의 폐식과 곤포, 미역의 채묘 투석, 천초 투석, 해삼 산란지 조성도 광범히 하였다.

각지 양식공들은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양식 자원에 대한 기술 관리를 부단히 개선한 결과 1963년에 조개류는 119.6% (그중 굴은 147.2%), 해삼류는 105.9%(그중 해삼은 108.6%)로 생산 계획을 넘쳐 실행하였다. 특히 해조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24.6% (그중 미역은 117.1%, 곤포는 2.3배, 김은 132%)로 자랐다.

1963년에 동해안 지구 수산 사업소들에 인공 건조로가 많이 건설되고 그 밖에 각 수산 기지들에 2만 2,000 평방 메터에 달하는 16 개소의 수산물 옥내 가공 작업장이 신설되였으며 랭동 공장들의 능력은 1956년에 비하여 5.3 배로 높아졌다.

잡은 물'고기의 종합적 리용을 위하여 1963년에는 전년 실적보다 약 20% 더 많은 내장물이 회수되였다. 같은 기간에 소건품은 109.9%, 젓갈품은 114.8%, 유지류는 140.2%로 그 생산량이 장성되였다.

농 업

농촌 경리의 발전

1963년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의 지원 밑에 사회주의 농촌 진지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은 1962년부터 1963년의 농사를 예견성있게 준비하는 한편 농촌 진지를 공고화할 데 대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농촌에 대한 지원을 전 당적,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불리한 자연 조건과 특히 수십년 래의 대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알곡 500만 톤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1964년에 더 높은 농업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기술 혁명】 농촌에서 기술 혁명의 기본 내용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재와 한재를 극복하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인 수리화는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당은 수리화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대규모 관개 공사를 적극 추진하며 2~3년 내에 논 면적을 70만 정보로 확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의 방침에 따라 1963년에 기존 관개 시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비 보강 사업과 이미 착공한 대규모 관개 및 중소 규모 관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여 수리화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 해에 8만 9,000 정보의 관개 능력을 가진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와 4,300 정보의 관개 능력과 1,600여 정보의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순화강 치수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고 례성강 배수 갑문 공사를 비롯한 중소 규모 관개 시설들이 완공되였다.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에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36년간에 한 것과 거의 같은 관개 면적을 확장하였다.

우리 나라 논 면적은 1962년의 54만 정보로부터 1963년 봄에는 58만 정보로 확장되였으며 1963년 말에 이르러서는 64만 정보로 되였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 저수지 능력은 1953년에 비하여 273%, 양수장 능력은 같은 기

간에 993%로 증가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1만 4,000여 개의 수원 시설과 15만개의 각종 관개 구조물, 3만 1,300 키로메터의 수로로 이루어진 조밀한 관개망으로 뒤덮이고 있다.

1963년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더욱 촉진되였다. 이 해에 농촌 경리 부문에는 4,000여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 1,600여 대의 파종기, 2,000여 대의 탈곡기를 비롯한 수 많은 농기계들이 새로 공급되였다. 이 해에 전야 작업에 참가한 뜨락또르 대수는 1만 8천여 대(15마력 환산)에 이르렀으며 경지 100 정보당 뜨락또르의 대수는 1962년의 0.78대로부터 0.9대로 늘었다.

뜨락또르 및 화물 자동차의 대수

	단 위	1953	1958	1963
뜨락 또르 대수(15마력 환산)	대	764	2 671	18 002
경지 100 정보당 뜨락또르 대수	대	0.04	0.14	0.9
협동 농장당 뜨락또르 대수(환산 대수)	대	—	0.56	4.1
화물 자동차 대수	대		*756	2 200
농촌 견인력 중 동력이 차지하는 비중	%	6.6	18	71

*는 1960년

이 해에 농기계 부속품 생산이 확대되고 사리원, 해주, 정주, 함흥을 비롯한 각지의 뜨락또르 수리 공장과 농기계 작업소들의 수리 기지가 정비 강화되였으며 기대에 대한 점검 보수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운전수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제고됨으로써 뜨락또르의 가동률은 전년에 비하여 4.7%, 자동차 가동률은 5%나 높아졌다.

1963년에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량(연경 환산)은 전년에 비하여 123%, 그중 기경에서 117%, 정지에서 128%, 씨뿌리기에서 125%, 중경 제초에서 124%로 높아졌다. 결과에 방대한 작업량이 기계로 수행되였으며 협동 농장 농민들의 고되고 힘든 로동을 덜어 주었다.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량의 장성(%)

	1953	1958	1963
총계(연경 환산)	100	11 배	95 배
그중 논밭가리	100	551	15 배
정지	100	43 배	226 배
파종	100	125 배	156 배
제초	—	100	15 배
수송	—	100	37 배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량 (단위 정보)

	1956	1960	1963
뜨락또르에 의한 총 작업 면적 (연경 환산)	677	6 869	12 085
뜨락또르에 의한 총 기경 면적	370	1 145	1 761

1963년에 농촌 경리의 전기화도 계속 촉진되였다.

우리 나라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 호수의 71%에 전기가 들어감으로써 등화뿐만 아니라 탈곡,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을 비롯한 고정 작업의 동력화로 전기가 광범히 리용되였다.

농촌 전기화 (1953=100)

	1958	1963
전기가 들어간 리 수	125	187
전기가 들어 간 농호 수	137	196
농촌 경리에서 소비한 전기량	474	738
그 중 동력용	10배	16배
관개용	692	14배

농촌 경리의 화학화가 또한 성과적으로 촉진되였다. 1963년에 화학 비료 시비량은 전년에 비하여 106%로 장성되였으며 토지 개량을 위하여 30만 톤의 광재와 카바이드재 및 소석회가 농경지에 살포되였다.

또한 수 많은 농약들과 살초제들이 공급되였다.

화학 비료 시비량

	단 위	1953	1958	1963
화학 비료 정당 시비량	kg	16	173	300
그중 논	〃	28	279	420
밭	〃	12	124	272

【문화 혁명】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였다.

초등 및 중등 의무 교육제에 의하여 농촌의 젊은 세대들이 7년제까지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촌 기술 학교, 매개 협동 농장에 설치된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와 각종 기술 학습반을 통하여 협동 농민들이 기술 문화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

또한 대학, 고등 기술 학교 등을 통하여 농업 부문 기술자, 전문가들이 대대적으로 양성됨으로써 농촌 기술 간부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 질적 구성도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

농촌 문화 주택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문화 및 보건 시설이 증가되였을 뿐만 아니라 알뜰히 꾸며져 농민들의 생활이 문화 위생적으로 더욱 개선되고 있다.

매개 농촌 리에 진료소가 설치되여 농민들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 치료를 받고 있다.

모든 농촌들에 탁아소, 유치원들이 설치되여 농촌 어린이들이 훌륭히 양육되고 있으며 농촌 녀성들이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

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또한 농촌에 각종 출판물이 수많이 배포되고 공화국 북반부 전체 리의 90% 이상에 유선 방송이 들어 갔으며 협동 농민들 속에서 군중 문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수준 차이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진행되고 있다.

【사상 혁명】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 혁명이 기술 및 문화 혁명에 앞서 계속 꾸준히 전개되였다.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이 정력적으로 전개된 결과 그들의 정치적 및 계급적 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상 의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 났다.

농민들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 도덕과 미풍이 더욱 발양되고 있다.

1963년에 154만 4,000여 명의 협동 농민들을 망라한 2만 5,730 개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23만 2,000 여 명을 망라한 3,127 개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았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도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인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농촌에 대한 지원】 1963년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농촌을 지원하여 동원되였다.

국가는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 농촌을 지원하였다.

조선 로동당의 방침에 따라 국가는 매해 농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를 증가하였는바 협동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촌 경리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액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15.8%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134%로 장성되였으며 생산적 건설 투자 총액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의 16%로부터 19%로 올라 갔다.

농업 협동화를 실시하면서부터는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 지원이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협동화 이후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도 책임지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는 립장에서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국가 기본 건설 자금과 국가의 재정적 방조에 의하여 방대한 관개 공사들과 치산 치수 사업,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으며 농촌 문화 건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됨에 따라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농기계, 화학 비료, 농약, 건설 재료와 각종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였다.

국가는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웠다. 국가 대부금의 상환과 현물세 납부의 면제, 공예 작물과 축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 영농 자재와 농기계 설비 가격의 인하, 전체 농촌 어린이들에 대한 의복의 무료 공급 등 당이 취한 새로운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협동 농민들은 1963년 한해 동안에만도 실로 2억 4,952만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적 혜택을 받았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 협동 농장들을 튼튼히 하고 농민들의 문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농촌 진지를 튼튼히 하고 농촌에서 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로동자들과 제대 군인, 초중 및 고중과 기술 학교 졸업생들을 농촌에 파견하였으며 많은 간부들과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농촌에 배치하였다. 또한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지원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농촌 사업을 강화하며 농촌 진지를 튼튼히 할 데 대한 당의 부름에 따라 1963년에만도 27만 8,300여 명의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진출하였다. 1963년 협동 농장원 수는 1958년에 비하여 110%로 증가되였다. 또한 이 해에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이 영농 작업에 동원되여 1,700만 공수의 로력적 지원을 주었다.

농촌에 대한 로력적 지원 (단위 천명)

	1953	1958	1963
고정 로력으로 파견한 수	25	44	278
계절적인 로력 방조자 수	998	19 762	17 006
그중 로동자, 사무원	300	883	13 090

【협동 농장에 대한 국가적 지도】 조선 로동당은 농업 협동화를 실현하는 첫날부터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을 개선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취하여진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의 창설은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게 농업 지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조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새로 창설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자들과 농

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경리의 모든 경영 활동을 직접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가 강화되고 협동 농장의 관리 운영 사업이 계획화, 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련계와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일층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창설된지 불과 2년 동안에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생활력을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이리 하여 1963년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수십년 래의 대홍수와 불리한 기후 조건들을 극복하고 또다시 류례 없는 대풍작을 이루어 알곡 500만 톤 고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공예 작물, 축산업, 과수 및 잠업 등 부문들에서도 크게 전진하였다.

농업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고 국가적 혜택이 증가됨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은 현저히 높아졌다.

오늘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 수준에 이르렀다.

이 모든 성과는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계속 혁명의 정신으로 농촌 경리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대담하게 해결하여 나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과 그에 무한히 고무된 농민 대중의 헌신적 투쟁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농　산

전 당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 지원 밑에 1963년에 협동 농장원들은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데 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1963년에 벼는 전년도 보다 48만 톤 더 증산되였다. 결과 알곡 생산에서 벼의 비중은 1962년의 51%로부터 58%로 높아졌다.

이 해에 콩 생산량은 전년의 1.5배로, 채소 생산량은 1.36배로 올라 갔다. 목화, 담배, 인삼, 호프 등 공예 작물의 생산량도 현저히 높아졌다.

벼의 파종 면적을 확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1963년에 벼의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8만 3,000 정보 더 확장되였으며 알곡 파종 면적에서 벼가 차지하는 몫은 1962년의 24%로부터 28.5%로 올라 갔다. 이와 함께 매 지방에 적합한 이모작과 간혼작이 광범히 도입되였다.

경지 면적의 지목별 구성(%)

	1949	1956	1963
경지 면적 총계	100	100	100
논	23.6	25.9	29
밭	76.4	74.1	71
그중 과수	1.0	0.9	4.9
뽕밭	0.1	0.5	1.5
묘포	—	0.1	0.2

랭상모를 비롯한 선진 영농 방법이 광범히 도입되고 토지 개량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였으며 논'벼, 옥수수, 콩을 비롯하여 각종 농작물의 우량 품종의 육종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국가 채종 농장과 위탁 채종포 및 협동 농장 자체 채종 사업이 일층 개선 강화되였다.

결과 전해에 비하여 정당 수확고에서 알곡은 117%, 논'벼는 116.5%, 맥류는 106%, 콩은 147%, 저류는 114%, 목화는 123%, 담배는 146%, 사탕무우는 129%, 채소는 134%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1963년에 농업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어 군위 1급 군의 칭호를 쟁취한 문덕군, 락랑구역, 룡천군, 신천군, 황주군, 북청군, 숙천군들에서는 모든 논밭에서 전년에 비하여 정당 500 키로그람 이상의 알곡을 증수하였으며 논'벼의 정당 수확고를 5톤 수준으로 높이였다.

축 산 업

1963년에 축산 부문에서는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의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농장원들의 부업 축산을 병행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축산업이 더욱 발전되였다.

1963년 7월 창성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가금 고기를 비롯하여 축산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준비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종축 토대가 튼튼히 닦아 졌다. 특히 국영 목장들이 전문화 방향으로 재 정비 되였으며 축사 시설들이 확장되였다.

1963년 말에 축사는 1958년에 비해 234%로, 사료 조리실은 무려 26배로 증가되였다.

1963년 말 현재 가축 두수는 전년에 비하여 소는 101%, 양은 114%, 염소는 123%로, 그중 종자용 양은 111%, 종자용 염소는 130%로 각각 증가되였다. 종자용 가금은 113% (그중 게사니는 273%)로 증가하였다.

가축 두수의 장성 (%)

	1963/1946	1963/1956	1963/1960
소	145	141	102
돼 지	516	160	101
양	25배	239	138
염 소	147배	567	196
닭	—	231	118
꿀 벌	—	341	118

국영 농목장과 협동 농장들에서 사료 기지를 확장하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칡, 아까시아, 싸리 및 호무, 논밭 전작 사료 등 자연 사료와 재배 사료 기지가 더욱 공고화되였다. 이와 함께 옥수수짚과 콩깍지를 비롯한 각종 짚과 농업 부산물들을 부드럽게 분쇄하여 먹이며 사료에 대한 화학적 처리를 광범히 실시하였다.

수의 방역 사업이 강화되고 가축들에 대한 사양 관리가 일층 개선됨으로써 가축의 폐사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축사 및 사료 분쇄 시설을 비롯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사료의 분쇄 및 가공과 운반 등 축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축산업의 발전에 따라 축산물 생산량도 늘었다.

축산물 생산량의 장성 (%)

	1963 / 1956	1963 / 1960
육 류	3.3배	117.5
우 유	—	170.1
란 류	2.4배	124.3
양 털	2.8배	144.9
꿀	5.9배	194.3

과 수 업

1963년에 새로운 과수원 조성과 함께 이미 조성하여 놓은 유목원들을 알뜰하게 가꾸며 기존 결과원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개선하는 데 힘을 넣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 이후 전국 각지의 기관, 기업소, 학교들과 협동 농장들에서 과수원 조성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된 결과 1963년에 과수 림목 면적은 1960년의 1.5배인 12만 2,066 정보로 늘어 났으며 1962 년보다 7,130 정보가 더 많아졌다.

특히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과수원 조성 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이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종업원 100 명에 1.5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놓았다.

산 경사지에 조성한 유목원들에 대한 계단 만들기, 후치질, 김매기, 약제 뿌리기를 비롯한 비배 관리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결과에 북청 회의가 있은 이후 새로 조성한 적지 않은 과수원들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1963년에 결과원 면적은 1962 년에 비하여 1,400 정보가 늘었다.

동력 약제 살포기, 과실 수확기 등 새로운 각종 기계들이 창안 제작되고 분무기, 살분기를 비롯한 과수 작업에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들이 생산 공급됨으로써 과수업에서의 기계화 작업의 종류와 범위가 훨씬 확대되였다.

잠　　업

1963년에 잠업 부문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해에도 뽕밭 조성 사업을 계속 활발히 전개하였다.

결과에 1963년 8월 말에 순 뽕밭 면적은 전해에 비하여 103 %로 장성하였으며 비배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정당 수엽량을 현저히 높였다.

1963년에 가잠에서 합 사육 및 가지뽕 사육, 작잠에서 물도랑 사육, 가설막 사육 등 선진적 사육 방법들이 광범하게 도입되였다.

그리 하여 1962년에 비하여 집누에 한장 고치 생산량은 108% 로, 작잠 1키로그람에서 고치 생산량은 151%로, 고치 총생산량은 125% (그중 작잠견 생산량은 2.5배)로 각각 높아졌다.

교 통　운 수

1963년에 교통 운수 부문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제기한 10대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 해에 운수 기계 제작 공업은 더욱 발전 강화되고 운수 수단과 륜전 시설들이 보충 확장되였으며 철도 선로의 기술 개건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철도의 전기화를 촉진하며 이를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1963 년 11월 1일부 공동 결정 (결정에는 단천—홍원간 철도 전기화 공사를 1963년 내로 끝내며 1964년에 가서 평양—신의주 간을 8.15 까지, 평양—신성천간을 11월 말 전으로 끝내게 되여 있다.)에 따라 이 해에 전기 철도 건설 공사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였다.

이 해 교통 운수 부문에서는 운수 수단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고 설비의 점검 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일' 군들 속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그리 하여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철도 화물 순환은 105% 로, 철도 화물 수송량은 105% 로, 자동차 화물 순환은 104%로, 자동차 화물 수송량은 103%로, 선박 화물 순환은 106%로 각각 장성하였다.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 및 수송량의 장성 (1946=100)

	1956	1960	1963
화물 순환			
철도	658	14배	16배
자동차	14배	62배	73배
선박	129	555	9배
화물 수송량			
철도	559	12배	14배
자동차	39배	337배	396배
선박	342	10배	12배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의 비중

	1956	1960	1963
총 화물 순환	100	100	100
철도	96.0	92.7	92.1
자동차	2.9	5.6	5.8
하천 및 해상	0.7	1.4	2.0
기타	0.4	0.3	0.1

1963년 3월 18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정령으로써 조선 로동당의 운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철도 운수 부문 일'군들의 영웅적 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1일을 철도절로 제정하였으며 이 해 철도 운수 부문 일'군들은 당의 붉은 수송 전사로서의 영예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첫 철도절을 의의 깊게 맞았다.

【철도 운수】 단천—홍원간(126 키로메터) 전기 철도 건설 공사는 1963년에 예정 기일 보다 앞당겨 끝남으로 해서 이 해 말 현재 우리 나라 철도 전기화 구간의 총 연장은 328 키로메터에 달하였다. 한편 이 해에 평양—신의주간 (224 키로메터) 전기 철도 건설 공사가 시작되여 전 인민적 지원 밑에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채취 공업 발전에 상응하게 함남선의 64 키로메터 구간에서 60 톤급 화차와 대형 기관차가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수송 능력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 밖에 1962년에 착수한 청진—라진간 철도 신설 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전기 기관차 생산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철도 선로의 자연 조건에 적응하게 설계된 《붉은기》호 전기 기관차가 1963년에 15대 생산되였으며 1964년부터 매년 35대씩 생산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갖추어졌다.

1963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 생산한 만능 유개 화차 《511》을 비롯하여 1,245량의 각종 화차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철도 운수의 장비가 더욱 강화되였다.

1963년말 현재 가동 기관차 총수는 1960년에 비하여 112%로 장성하였다. 그중 전기 기관차 수는 1956년에 비하여 363.6%로, 1960년에 비하여 160%로 장성하였다.

화차 총수는 1953년에 비하여 1960년에 218.7%로, 1963년에는 280.9%로 장성되였다. 객차 수는 1956년에 비하여 1963년에 108.9%로 장성되였으며 객차의 내부 설비에 있어서도 문화성이 더욱 높아졌다.

1963년에 철도 운수 부문 일'군들은 철도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존 운수 수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기관차의 정상적인 점검 보수 사업과 함께 승무원들이 애차 운동을 강화한 결과 견인 능력이 증대되였다. 기관차의 선진적인 운영 방법의 일반화와 사령 지휘 체계의 개선으로 1962년에 비하여 기관차 실동률은 100.2%로, 화물 렬차 평균 견인 중량은 103%로 높아졌다.

철도 상하차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전년 보다 10.4% 더 높아졌으며 기술역 사업이 보다 개선되였다. 화물 적재 방법의 개선으로 화차 정적 화중을 화차 1 량 마다 200 키로그람씩 더 높였다.

철도 화물 수송에서 역수송, 반복 수송 등 비경제적 현상을 적극 방지하고 중요 물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송 조직이 진행되였다. 이에 따라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중요 물자 수송에서 석탄은 107.5%, 광석은 109.3%, 금속은 104.2%, 목재는 118.1%, 세멘트는 106.9%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3년에 중요 간선에서 운행되는 객차내 유선 방송 시설을 보충 정비하고 일부 려객 렬차의 운행 시간을 변경 조절하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더욱 개선하였다. 특히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에 대한 탐승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위연—보천 간의 선로를 보수 보강하고 1963년 8.15를 계기로 이 구간에서 려객 렬차의 운행을 시작하였다.

철도 려객 수송 인원은 1956년을 100으로 하여 1960년에 151.8%, 1963년에는 207%로 계속 장성되였다.

【자동차 운수】 1963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서는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운수 수단의 리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1963년에 도로 및 교량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과 함께 도로의 신설, 확장, 포장 공사들을 진행하여 자동차 수송망을 확장하며 그 수송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1963년 말 현재 화물 자동차 대수는 1962년 말에 비해 122%로 장성되였다. 또한 이 해에 80 대의 무궤도 전차가 생산되여 수송 사업에 인입되였으며 성능 높고 설비가 완비된 길이 13.5 메터의 대형 무궤도 전차와 90마력 기관을 단 대형 뻐스의 생산이 개시되였다.

자동차 대수의 장성 (1956=100)

	1961	1962	1963
자동차 총수	196	269	319
화물 자동차	199	278	338
뻐 스	387	542	586
무궤도 전차		100	160

1963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서는 수송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62년에 확립된 통일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보다 발전시켜 일부 광산, 기업소와 류통 부문의 자동차들을 통합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의한 수송 사업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륜전 기술 기재의 운영 관리 사업도 더

욱 개선되였다.

1963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서는 필요한 기계들을 자체로 만들어 수리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속품 생산을 확대하여 수리의 질을 높였으며 수리 기일을 단축하였다.

수리 체계의 확립으로 자동차의 수리 능력이 높아지고 운전수들 속에서 애차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1963년에 자동차의 실동률은 지난 해에 비하여 101.6%로 장성되였다. 수송 조직에서도 전문화와 집중 수송, 고리식 운행, 중요 물자에 대한 계획적인 배차 등 수송 지령 체계가 보다 개선되고 강화되여 공차 주행과 불합리한 수송이 현저히 감소되였다.

결과 1963년에 자동차 수송량은 1962년에 비하여 103%로 높아졌다.

특히 1963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서는 수 많은 자동차 운전수들을 자체로 양성하여 배치함으로써 자동차 운영의 교대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양성된 운전수의 일부를 농촌에 파견하여 농촌의 기술 혁명 촉진에 기여하였다.

1963년에 려객 수송도 더욱 발전하였다. 려객 뻐스 대수의 증가로 산간 지대의 교통망이 확장되고 정기 운영 대수가 증가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교통상 편의를 주었다.

1963년에 평양 시내의 륜환선에서 무궤도 전차 선로가 개통되였다. 1963년에 자동차 려객 수송은 1962년에 비하여 107%로 장성하였다.

【수상 운수】 철도 운수의 긴장성을 풀며 인민 경제의 화물 수송을 더욱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수상 운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조선 로동당의 방침에 따라 1963년에 수상 운수는 더욱 발전하였다.

이 해 수상 운수 부문에서는 수송 능력을 높이며 수송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질 기술적 로대를 강화하는 한편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항만 및 부두를 잘 꾸리기 위한 투쟁에 력량이 집중되였다.

1963년에 해상 운수에서는 성능 높은 새 선박들을 보충 받았으며 기존 선박들의 기술 장비도 보충 개선되였다.

대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역항들의 설비도 더욱 정비되였다. 남포항과 흥남항을 비롯하여 동서 해안의 일련의 항구와 포구의 설비들을 더욱 잘 정비하였으며 선박 운항의 안전 시설들을 개선하였다.

선박 수리에서는 예비 부속품을 선행하고 주기 수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기능공 대렬을 확장하였다.

선박 운항에서는 무선에 의한 지휘 체계가 확립되여 공선 운항이 감소되였으며 물자 수송의 기동성이 보장되였다. 따라서 선박의 가동률과 수송 능력이 높아졌다

철도와 수상 운수 간의 련대 수송이 더욱 강화되였는바 라진—청진—흥남 구간에서 해상떼에 의한 원목 수송과 석탄 수송이 활발해짐으로써 목재, 석탄 등 중요 물자들이 원만히 수송되였다.

1963년에 강하천 운수 부문에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선박의 기술 장비를 보다 개선하였다. 이 해 말 현재 우리 나라 강하천 운수는 압록강, 대동강을 비롯하여 독로강, 재령강, 순화강, 장진강, 청천강, 대령강 등 많은 강하천들과 수풍호, 장진호 등 주요 호수들에서 광범히 실시되였다.

압록강 하류로부터 상류에 이르는 삭주, 창성, 벽동, 만포 지구의 10여 개소의 지류에서는 새 항로가 개척되여 정상적인 수송이 보장되였다.

그중 평북 벽동군에서는 압록강과 그 지류를 리용하여 군내의 리와 리를 련결하는 수송로를 가지게 되여 우마차에 의한 수송을 보다 능률 높은 강하천 운수로 바꾸게 되였다.

1963년에 해상 및 강하천들에서의 선박 화물 순환은 전년에 비하여 105%로 장성되였다.

체 신

1963년 4월 3일 김 일성 동지는 체신 부문에서 산업 통신 시설을 확장하고 통신 지휘에서 중앙 집중화 원칙을 확립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통신망을 체신성이 유일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지도하는 체계가 수립되였다.

체신 부문 일'군들은 산업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중 통신 시설을 더욱 확장하여 전화 회선을 증대하며, 군 이하 통신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과 함께 방송 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1963년에 체신 총생산액 계획은 106.7%로 수행되여 1962년에 비하면 104.3%로, 1960년에 비하면 124.5%로 장성되였다.

체신 시설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우편국 수	101.8	106.9	105.1
시외 전신 전화 총연장	112	117	136
시내 전화국 능력	107	107	112
시내 전화 가입구 수	114	115	126
무선 방송 출력	124	192	203
유선 방송 출력	110	116	122

【우편 통신】 1963년에 우편 통신 부문에서는 우편 통신망 신설, 확장의 중심을 로동자구를 비롯한 산업 중심지와 농촌 리의 중심 지대에 두고 5 개소의 우편국을 신설하였으며 28 개소의 우편국을 조절 배치하였다.

이 해에 기동 수단에 의한 집배 및 체송 사업이 더욱 강화된 결과 1963년 말 현재 전체 집배구의 77%와 전체 체송 구간의 87%가 기동 수단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또한 이 부문 일'군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우편 통신 시설과 설비들이 문화적으로 꾸며지고 통신의 질과 봉사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해 우편 통신 부문에서는 년간 계획을 일반 우편물은 109.1%로, 소포 우편물은 102.1%로 초과 수행하였다.

우편 통신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일반 우편 접수	114.4	125.3	126.8
소포 우편 접수	131.8	144.1	139
우편 송금 접수	107	116.7	106
전보 접수	132.5	169.3	173
시외 전화 접수	117.2	147	172

1963년에 총 65종, 1억 3,000만 매의 우표가 출판되여 현업에 공급되였다.

【유선 통신】 1963년에 유선 통신 부문에서는 급격히 증대되는 산업 통신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해 유선 통신 부문 일'군들은 다중화의 방법으로 회선망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1통화로 반송 전화기 120여 대, 3통화로 반송 전화기 40여 대와 반송 전화 분리기들을 중앙—도, 도—군 간에 각각 설치하였다. 한편 1만 5,355 키로메터의 산업 통신 선로를 새로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과 도간의 전화 회선은 5.6 회선으로부터 7.1 회선으로, 도와 군 간에는 1.3 회선으로부터 2회선으로 늘었다.

지방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년간에 군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1963년에 군 우편국들에 20여 대의 공전식 교환기를 새로 설치 혹은 교체하였으며, 기타 군 이하 통신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정비 보강하여 그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였다.

1963년에 통신 선로를 하나의 계렬로 통합하며 그를 직선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7,733 키로메터의 통신 선로가 통합되여 직선화되였으며 일부 구간 선로들이 정비되고 도로 주변으로부터 안전 지대로 옮겨졌다.

이리 하여 이 해에 중앙으로부터 산업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산업 지휘 통신망과 지역적 및 부문별 산업 통신망 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다.

또한 이 부문에서는 교직류 통신 방식을 발명 도입하여 새로운 투자 없이 전신 회선을 22회 선이나 얻어냄으로써 전신 통신의 긴장성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60여만 메터의 절연선을 자체로 생산하여 전화 및 유선 방송의 실내 시설들을 정비함으로써 시내 전화 및 유선 방송의 질을 더욱 높였다.

1963년에 종적, 횡적으로 통신망이 확장되고 산업 전화 통신의 증대와 함께 전화 가입구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9.1%로 증가되였다.

【무선 통신】 1963년에 무선 통신 부문에서는 방송국들의 모든 설비와 기술 장비들을 보다 현대적인 수준으로 정비하며 방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부문 일'군들은 이 해에 무선 방송기의 자동 양극 변조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방송기들의 출력을 높였으며 방송 중계 시설들과 송신기들을 정비 보강하여 방송의 질을 더욱 높였다.

1963년에 무선 방송망을 더욱 확장하며 텔레비죤 방송국 건설을 위한 준비 사업이 진행되였다.

이 해 대출력 방송국이 새로 조업을 개시하였다. 결과 1963년에 무선 방송 출력은 전년에 비하여 105.7 %로, 1960년에 비하여는 203 %로 장성되였다.

무선 방송국 수의 증대와 함께 그 출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현대적인 과학 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우리 나라 방송의 전파 봉사 구역이 일층 확대되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그 수신 전계 강도가 현저히 높아졌다.

우리 나라에는 도시와 산업 지구는 물론 공화국 북반부의 거의 모든 농촌 리에까지 유선 방송이 설치되여 있다.

1963년에 유선 방송망을 확장하는 한편 산업 중심지와 농촌 리의 4,614 키로메터의 유선 방송선을 실선화하고 3,421 키로메터의 단선 선로를 복선으로 교체 고성기의 음질을 개선하였다.

이 해에 많은 고성기가 생산 설치되여 년말 현재 그 대수는 86만 6,460 대에 달하였다. 유선 방송 출력도 1962년에 비하여 106%로 높아졌다.

한편 이 해에 1만 대의 라지오가 생산 공급되여 라지오 수신기 수는 1962년에 비하여 107.3%로 증가되였다.

그리 하여 1963년에 방송 청취자 수는 전년에 비하여 115.4%로 증가되였다.

국제 교류—1963년에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정 기구 제5차 회의(부다페스트, 1963년 4월 29일)에 참가하여 국제 통신 교류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962년부터 전보 통신이 새로 시작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전보 교환이 1963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해에 평양—베를린간, 평양—하노이간, 평양—울란 바또르 간에 무선 통신 회선이 새로 구성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 본 건 설

1963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본 건설 부문 앞에는 채취 공업을 비롯한 산업 건설과 주택 및 문화 후생 시설 건설에 력량을 집중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철저히 립각하여 건설 및 설계 사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의 선후차를 옳게 가려 중요 건설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1963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수행된 국가 기본 건설 총 규모는 6억 8,638만 원(1957년 4월 1일 현재 견적 가격으로 설계 사업비 및 지질 탐사비 포함), 그중 건설 조립 작업액은 3억 1,063만 원에 달하였다.

1963년에 국가 기본 건설 총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106%, 5개년 계획 말인 1960년에 비하여 121%로 장성하였다.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률(%)

	1949	1956	1960	1962	1963
총 투자 액	100	396	640	734	775
		100	162	185	196
			100	115	121
				100	106
그중 생산적 건설	100	417	624	771	863
		100	150	185	207
			100	124	138
				100	112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과 그 구성
(단위 백만원 1957.4.1 가격)

	1956	1960	1962	1963	비 중 (%) 1956	1960	1962	1963
기본 건설 총 투자 액	351	567	650	686	100	100	100	100
그중 생산적 건설	258	386	477	534	73	68	73	78
비、생산적 건설	93	181	173	152	27	32	27	22

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구성 (%)

	1960	1962	1963
공업 건설 총 투자액	100	100	100
중공업 건설	80.6	63.7	68.2
그중 발전 공업	11.1	12.9	14.6
연료 공업	11.4	9.9	12.6
광석채굴업	23.9	15.7	17.5
야금 공업	5.7	5.0	5.8
기계 제작 및 선박 공업	11.7	7.4	10.1
화학 공업	8.6	6.3	3.4
건재 공업	1.9	1.0	1.2
림 업	2.1	1.7	2.0
경공업 건설	19.4	36.3	31.8
그중 방직 공업	4.6	7.2	8.7
식료 공업	4.0	5.0	5.2
일용품 공업	2.5	2.0	2.9
수산업	6.3	15.5	13.4

1963년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는 채취 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생산적 건설에 집중되였다. 기본 건설 투자액 중에서 생산적 건설에는 78%,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공업 건설에 56%가 투자되였다.

특히 채취 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액은 1만 1,474만 원으로서 1962년에 비하여 123%로 장성되였으며 공업 부문 투자액 중에서 채취 공업 부문 투자액이 차지하는 몫은 1962년의 26%로부터 30%로 높아졌다.

채취 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구성(%)

	1956	1960	1962	1963
채취공업 투자액	100	100	100	100
그중 연료공업	44	32	39	42
광석 채굴업	56	68	61	58

1963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건설 부문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중요 생산적 건설 대상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고 많은 대상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채취 공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탄광, 광산들에 력량이 집중되고 수 많은 중소 규모 탄광들이 개발되였다.

또한 아오지, 고건원, 하면 탄광들의 수직갱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33만 메터의 갱도가 굴진되고 7만 메터의 갱도가 영구화되였다.

그리고 광업 부문에서도 수 많은 신설, 확장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도합 64만 키로 볼트암페아의 능력을 가진 2개의 수력 발전소와 40만 키로왓트 능력의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청단 제 5호 발전소, 어지돈 제 1호 발전소를 비롯한 8개의 중소 용량 발전소들이 조업을 개

시하였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황해 제철소의 년 40만 톤 능력의 분괴 압연 직장, 강선 제강소의 5만 톤 능력의 인발 강관 직장, 문평 제련소의 웰쯔로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덕천 자동차 공장의 단조 직장을 비롯하여 기타 수개의 기계 공장들에 새로운 직장들이 완공되였으며 기양 뜨락또르 공장의 대형 가공 조립 직장, 룡성 기계 공장의 주물 직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년 5만 톤 능력의 본궁 제2 가성 소다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흥남 비료 공장의 년 35만 톤 능력의 질안 석회 비료 직장, 본궁 화학 공업 경영국 산하 년 3,500 톤 능력의 살초제 직장 및 년 3만 톤 능력의 농약 가공 직장과 황해 제철소의 화학 직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4,000 톤의 고치 처리 능력을 가진 최신 기술로 장비된 평양 제사 공장이 신설되였고 또한 이 해에 새로이 하나의 아마 방적 계통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 밖에 년 2 만 톤의 스프 생산 능력을 가지는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였으며 원산, 청진 및 강계 방적 공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화학 섬유의 원료 기지인 신도와 비단섬의 갈밭 조성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1,000여 정보의 갈밭이 새로 조성되였으며 6,000여 정보의 지방 공업의 자체 원료 기지가 새로 확장되였다.

제지 공업 부문에서도 년 2만 톤의 크라프트지 생산 능력이 이 해에 새로 조성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 해 수산 부문에서는 2만 2,000 평방 메터에 달하는 16 개소의 수산물 옥내 가공 작업장이 신설되였다.

1963년에 중요 생산물들의 생산 능력은 전년에 비하여 전력 108%, 철광석 사별장 처리량 107%, 가성소다 292%, 제지 115%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3년 농촌 경리 부문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8,900 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134%로 장성되였으며 생산적 건설 투자 총액중에서 농촌 경리 부문 투자액이 차지하는 몫은 1962년의 16%로부터 19%로 높아졌다.

농촌 경리 부문의 기본 건설 투자의 구성과 장성

	1960	1962	1963	장 성 (%) 1963/1960	1963/1962
농촌건설 투자액	100	100	100	135	134
그중 관개 및 하천 건설	32.4	51.3	48.3	202	129
농촌 기계화	26.3	25.9	30.0	154	158

1963년에 기존 관개 시설을 정비하면서 이미 착공한 대규모 관개 공사와 중소 규모의 관개 공사를 적극 추진한 결과 농촌 경리의 수리화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해에 8만 9,000 정보의 관개 능력을 가진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가 추진되여 새로 5,000여 정보의 논밭에 관수를 보장하였고 례성강 배수 갑문 공사를 비롯한 중소 관개 시설들이 완공되여 영농기 전으로 급수를 보장하였으며 4,300 정보의 관개 능력과 1,600여 정보의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순화강 관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1963년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158%로 장성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밖에 협동 농장들의 자체 자금으로 281 개소의 저수지와 양수장, 158 개소의 보, 5,639 동의 축사, 2,445 개의 잎담배 화건장과 잠실, 1,043 개소의 창고, 1,292 개소의 고정 탈곡장이 건설되였다. 또한 556 개소의 선전실 및 구락부, 920 개소의 유치원과 탁아소 618 개소의 목욕탕과 리발소 등 농촌 문화 후생 시설들이 완공되였다.

1963년에 민주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 및 군 소재지들을 문화적이고 아담한 도시로 꾸리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평양시에서는 4만 7,000여 평방 메터의 평양 학생 소년 궁전과 2,000 명의 열람자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국립 중앙 도서관이 준공되였으며 김 일성 종합 대학 제 1호 교사와 1만 4,000평방 메터의 교예 극장 건설 공사가 성과 있게 계속되였다.

1963년에 도시 및 농촌 문화 주택과 교육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였는바 비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47%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돌려졌다. 전후부터 1963년 말까지의 기간에 3,567만 평방 메터의 주택이 건설되였으며 그중 도시에는 1,820만 8,000평방 메터, 농촌에는 1,746만 2,000 평방 메터의 주택이 각각 건설되였다.

도시 및 농촌 주택의 구성 %

	1954~1956	1957~1960	1960	1962	1963
주택 총계	100	100	100	100	100
그중 국가 주택	42.0	71.8	90.1	96.5	91.6
주택중 도시	45.9	55.1	62.3	54.3	44.8
농촌	54.1	44.9	37.7	45.7	55.2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1963년에도 당의 건설 공업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조립식 건설을 광범히 실시하였다. 현대적 건설 기계의 도입과 아울러 새 형의 중소 건설 기계들을 광범히 창안 도입하여 굴착, 상하차, 운반, 콩크리트 혼합

작업 등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에서 기계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1963년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전년에 비하여 토공 작업에서 7.6%, 적재 적하 작업에서 2.7%, 콩크리트 혼합 작업에서 8.1%, 몰탈 혼합 작업에서 7.4% 더 올라갔다.

건설 작업의 기계화 비중 (%)

	1957	1962	1963
토공 작업	41.5	37.5	45.1
적재 적하 작업	16.7	55.8	58.5
콩크리트 혼합 작업	60.2	79.1	87.2
몰탈 혼합 작업	28.9	36.0	43.4

1963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발전소 건설에서 구간 콩크리트 타입 방법, 주택 및 공공 건물 건설에서 조립식에 의한 부뚜막 설치 작업, 공장 미장 방법을 비롯한 새로운 건설 방법이 도입되였으며 건설 기업소에서의 생산 조직에서는 현물 평가제가 도입 됨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높이며 건설 가치를 절약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성과가 달성 되였다

또한 이 해에 5,068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이 제기되였고 그중 2,913건이 시공에 도입되여 102만 공수의 로력과 420만 원의 자금을 절약하여 국가에 리익을 주었다.

1963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건설 기계 리용률의 제고, 내부 채산제의 광범한 도입에 의하여 건설 조립 작업의 가치는 5.7% 저하되였다.

1963년에 도시 경영 부문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63년에 주택 및 공공 건물 대보수를 위한 투자는 전년에 비하여 108%로 장성되였으며 9만 7,000세대의 주택과 64만 9,000평방 메터의 학교, 18만 1,000평방 메터의 병원, 진료소를 비롯하여 총 204만 평방 메터의 공공 건물이 보수되였다. 또한 공원, 유원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469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아동 유희장, 정각 등 시설을 설치하였다.

상 업

1963년에 상업 부문에서는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의 관철과 함께 상업에서 모범 시, 군 (구역)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시, 군 인민 위원회들이 상업을 자기의 첫째가는 혁명 과업으로 삼고 이를 인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리 운영 사업과 상품 류통 사업을 더욱 개선하였다.

1963년에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은 103%로, 그중 중앙 상업은 107%로, 지방 상업은 103%로 넘쳐 실행되였다.

이 해의 소매 상품 류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103%로, 그중 식료품은 100.4%로, 비 식료품은 105%로 각각 장성하였다.

1963년에 상품 공급량이 훨씬 증대되였는바 전년에 비하여 공업 상품에서 직물류 판매량은 117% (그중 면직물은 105.4%, 비날론 혼방직은 334.9%, 외투천은 111%, 내의류는 107%)로, 신발류는 108% (그중 비닐 구두는 104%)로, 재봉기는 117%로, 법랑철기는 156%로, 도자기류는 121%로, 문방구류는 102.2%로, 비누는 117%로 각각 장성하였다. 또한 식료품 공급에서 채소는 122%로, 된장은 104%로, 간장은 122%로, 통조림은 105%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 해에 농촌 상업망 수도 전년에 비해 107%로 증가되였으며 상품 공급량이 늘었다.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량 중 전년에 비하여 직물류는 116%로, 내의류는 112%로, 신발류는 1.3배로, 재봉기는 1.7배로, 법랑 철기와 도자기류는 1.3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를 비롯한 각종 편의 봉사 시설들이 전년에 비하여 122.1%로 증가되고 업종이 확대되여 근로자들의 편리를 적극 도모하였다.

1963년에 수매 량정 부문에서는 수매 활동을 생산지에 접근시키고 위탁 수매, 교역 수매, 집체 수매 등 다양한 수매 방법과 형식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이 사업에 참가시킴으로써 총 수매액 계획을 121.6%로, 그중 계획 수매 총액은 120.7%로, 자유 수매 총액은 127.8 %로 각각 넘쳐 수행하였다.

1963년에 우리 나라 상업 일'군들 중 녀성 종업원이 71.1%를 차지하였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중요 품종별 류통액의 장성 (1949=100)

	1956	1960	1963
식료품	164	413	550
그중 수산물	74	138	199
식용유	113	374	12.2배
채소	519	28배	48.6배
과실	517	17배	20.5배
비 식료품	192	8.6배	10.4배
그중 기성복	491	42배	53.2배
내의류	349	17배	25.4배
양말류	161	467	7.1배
신발류	164	368	456

날로 증대되는 부식물과 생활 필수품에 대한 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이 해에 상업 부문에서는 상업망을 신설 확장하는 한편 지구 도매소를 없애고 출하 도매소를 확장하여 상업망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 포치하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였다.

1963년에 우리 나라 매개 리에는 평균 3 개의 상점 및 봉사 시

설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복무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며 부식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식료품 전문 상점 수를 전년에 비해 1.5배로 늘이였으며 식료품의 자체 가공 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각지 주요 도시들에서 채소, 육류, 수산물 등 부식물 공급 기지를 확장하고 수매 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상업 부문 일'군들은 과학적인 수요 연구 체계를 확립한 기초 우에 대안의 사업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도매 일'군들은 상품이 실현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업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소매망들에서는 인민반 담당제를 실시하여 상품 공급 사업과 봉사 조직을 더욱 개선하였다.

1963년에 사회 급양망은 전년에 비하여 107%로 확장되고 더욱 문화 위생적으로 꾸려졌다.

이 해 사회 급양망에 의한 류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100.3%로 장성되였는 데 그중 일반 음식 판매량은 1.4배로, 청량 음료의 공급량은 128%로 장성되였다. 이 해 사회 급양 부문에서 자체 가공품의 비중은 72.6%를 차지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가진 음식과 료리의 품종이 늘어나고 질이 높아졌다.

무　　역

1963년에 우리 나라 무역액은 1956년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1962년에 비하여는 107%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일층 촉진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더욱 공고화된 데 기초하여 주요 수출품의 량이 현저히 증가되였으며 일련의 새로운 상품들과 각종 규격 상품들이 우리 나라 수출품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해에 일련의 공업 설비 일식의 수출이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 수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공작 기계, 전기 기자재 등의 기계류, 공구류, 화학 제품, 각종 흑색 금속 제품, 흑색 금속 압연 제품, 유색 금속 및 마그네샤크링카 등이다. 또한 일용 잡화, 홍삼을 비롯한 약재, 잎 담배, 파실 등 농산물 및 농산 제품, 수산물 등도 수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품의 구성 (%)

	1956	1961	1962	1963
총 계	100	100	100	100
그중 기계 및 설비	0.3	1.6	3.7	4.6
광물류	54.3	11.7	11.2	12.4
흑색 및 유색 금속	30.9	47.2	48.5	46.3
화학 제품	5.9	8.9	8.8	7.2
농 부산물	3.6	5.6	4.1	8.8
식료 및 기호품	1.3	3.7	7.3	7.4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풍이 더욱 발양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투쟁과 기술 혁신 운동이 강력히 전개됨으로써 종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 설비류와 화학 제품을 비롯한 적지 않은 상품들을 자체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였다.

수입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적게 생산되는 기계, 설비, 원유 제품, 고무, 면화, 콕스탄, 만암 철, 린회석, 양모, 사탕, 기타 공업 원료, 상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 우리 나라의 무역 대상 지역도 현저히 확대되였다.

우리 나라와 각국 간의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다. 우리 나라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대외 경제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는 대외 정책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과도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무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왔다. 그리하여 동남 아세아 지역을 비롯하여 중근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기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무역 관계가 급속히 확대 발전되였다.

1963년에 우리 나라는 일련의 나라들과 새로이 무역 관계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해 말 현재 40여개의 나라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재　　정

국가 예산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의 향상을 위해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2차 회의는 이 해 국가 예산으로 수입 29억 9,602만 원 (전해의 103.4%), 지출 29억 8,573만 원 (전해의 109.4%)을 채택하였다.

이 방대한 예산은 이 해 10대 과업 관철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적 재부의 축적으로 성과 있게 집행되였다. 1963년도 예산은 계획에 비해 101.4%로 증가한 30억 2,821만 원의 지출을 보장하고도 1억 1,661만 원의 수입 초과를 내여 우리 나라 재정 토대의 공고성을 남김없이 자랑하였다.

국가 예산의 장성 (1956=100)

	1960	1961	1962	1963
수 입	203	241.7	291.8	317
지 출	205	244.5	285.4	316.8

【국가 예산 수입】 국가 예산 수입은 국가 예산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 소득의 체계적인 증대에 의하여 계속 장성되고 있다.

1963년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으며 절약 제도가 확립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공업 생산물의 원가는 전년에 비하여 4.5%가 저하되였으며 비 생산적 지출도 14%나 절약되였다.

이리하여 이 해 국가 예산 수입은 협동 농장들에 공급하는 생산 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하, 현물세의 면제와 기타 일련의 시책으로 수입 원천이 적지 않게 감소되였음에도 불구하고 31억 4,482만 원으로 집행되였으며 1962년 실적에 비하여 108.6%로 장성되였다. 국가 예산 수입의 기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경리로부터 수입은 1954년부터 1963년까지의 10년 간에 매년 25.2%의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국가 예산 수입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몫은 이 기간에 52.9%로부터 98%에 달하였다. 반면에 주민으로부터의 세금 수입은 해마다 감소되여 국가 예산 수입에서의 비중은 1956년의 8.8%로부터 1962년에는 2.1%, 1963년도에는 2%로 부단히 감소되였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을 폐지할 것을 예견한 우리 당의 방침이 실현되여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가 예산의 수입 구성 (%)

	1956	1959	1960	1961	1962	1963
수입 총액	100	100	100	100	100	100
그중 사회주의 경리 수입	74.8	91.9	95.9	97.9	97.9	98
주민 세금 수입	8.8	2.2	2.1	2.1	2.1	2

우리 나라 국가 예산의 이러한 수입 구성은 국가 예산이 부단히 장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리에 그 확고한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장성하는 자금 수요를 인민 경제 내부 원천에 의하여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국가 예산 지출】 국가 예산 수입의 급속한 증대에 기초하여 1963년도 국가 예산 지출 실적은 30억 2,821만 원으로서 지난 해에 비하여 111%로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 예산 지출의 압도적 부분은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 문화 시책에 지출되고 있는바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은 국가 예산 지출 총액 중에서 1962년에 95%, 1963년에는 95.3%를 차지하였다.

국가 예산 지출에서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비가 차지하는 몫

	1956	1959	1960	1961	1962	1963
국가 예산 지출 총액	100	100	100	100	100	100
그중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	87	92	93.7	94.4	95.1	95.3

1963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지출은 전년에 비하여 113.2%로 장성하였으며 예산 지출 총액의 74%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그것을 더욱 정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이 부문에 막대한 자금이 공급되였다. 1962년에 비하여 채취 공업 부문에는 1.5배의 자금을 지출하여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는 사업을 보장하였으며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는 152.6%로 장성된 기본 건설 자금을 지출하였다. 전력 공업과 금속, 화학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많은 자금이 공급되였다.

이와 함께 이해에 농촌 경리 발전과 경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대한 자금이 지출되였다.

인민 경제에 대한 지출의 장성 (1953=100)

	1956	1960	1962	1963
장성률 (%)	296	568	825.3	934.0

1963년에 인민들의 사회적 복리 증진과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 예산에서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였다. 수 억원에 달하는 자금으로 로동 보호 물자의 무료 공급, 거의 무상이나 다름 없는 식량 공급, 주택 사용료, 연료비, 전등료. 교통비 등 여러가지 추가적 혜택을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주었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2억 4,952만 원에 달하는 자금이 돌려졌다.

1963년에 사회 문화 시책비는 전년에 비해 106%로 장성하였다. 그중 거액의 자금이 교육망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에 돌려졌다.

1963년에도 대학생들에게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였고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싼 값으로 학생복과 외투를 공급하기 위하여 2,742만 원의 국가 자금이 지출되였다.

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1963년에 만도 3차에 걸쳐 7억 9,106만 원(일본 화폐로)을 보내 주었다.

또한 이 해에 인민들의 장성하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시설의 증설 정비와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사업에도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였다.

【지방 예산】 지방 예산은 국가 예산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 정권 기관에 부과된 지방 경제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업 수행에 복무하고 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여 매개 시, 군들에 지방 공업이 널리 분포되고 인민 경제가 더욱 확대 발전함에 따라 모든 시, 군이 자체의 수입으로 장성하는 자금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고한 재정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1963년 지방 예산 수입은 계획의 104.3%로 집행되였고 모든 항목에 걸쳐 초과 수행되여 고정 수입도 102%로 수행되였다.

지방 예산 자금은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농촌 경리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촉진시키는 데 집중적으로 지출되였다.

1963년에 지방 경제의 발전과 사회 문화 시책에 돌려진 몫은 지출 총액의 95.1%를 차지하였다. 그중 농촌 경리와 지방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출 총액의 59.9%가 돌려졌다.

지방 예산은 이 해에도 그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지방 정권 기관들 앞에 나선 경제, 문화 건설의 제 과업들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였다.

국가 보험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보험에는 재산 보험, 인체 보험, 의무 려객 보험, 대외 보험이 있다.

국가 보험은 자연 재해 및 불상 사고로부터 나라의 재부를 보호하며 주민들의 유휴 자금을 동원하여 인민 경제 발전에 유효하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 보험은 그 제도의 우월성으로 하여 해마다 더욱 많은 근로자들을 망라시키고 있으며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1963년에 국가 보험료 수입은 계획의 106.6%로 초과 수행되여 1962년의 114.4%로 장성하였다.

국가 보험료 수입 장성 (1954=%)

	1956	1960	1961	1962	1963
재산 보험	273	1 281	1 331	1 526	18배
인체 보험	387	3 477	4 648	5 019	56.9배
려객 의무 보험	157	239	296	402	422
대외 보험	—	6 782	4 901	5 444	103배
계	254	1 375	1 669	1 870	22.6배

금 융

1963년에 은행 기관들은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인민 경제 각 부문 기업소, 기관들의 방대한 자금 수요를 정확히 보장하였으며, 사회주의 경리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통하여 모든 부문에서 내부 예비를 동원하며 절약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살림 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대부】 1963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자금 대부는 각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자체 자금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케 하면서 부족되는 추가적 자금 수요에 대하여 실시되였다.

이 해에 중앙 은행은 채굴 공업 부문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 통제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서 식료와 직물 공장 등 지방 산업과 협동 농장 및 류통 기관에 이르기까지 원료, 자재 계획으로부터 제품의 실현 및 상품 류통과 재정 부기 등 각 방면에 걸쳐 재정적인 통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중앙 은행은 대부금 리용에 대한 지도 통제를 통하여 인민 경제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을 개선하고, 자재, 자금 및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하여 생산을 자극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자금 회전을 촉진시켰다.

1963년말 중앙 은행의 대부 자원은 전년에 비하여 104%로 늘었다. 특히 이 해에 생산 류통이 강화되고 협동 농장들에서 농산물의 실현이 증대되여 결제 구좌 자금은 훨씬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계속적인 앙양에 따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자금 수요가 더욱 증대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1963년에 중앙 은행의 단기 대부금 총 잔고는 전년에 비하여 104.5%로 장성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 판매 활동과 자재의 수급 및 공급이 더 째여진 조건 하에서 전년에 비하여 1963년에 중공업 부문에 대한 단기 대부는 94.9%, 경공업 부문에 대한 대부는 93.9%로 각각 떨어진 반면에 결제 대부는

120.1%, 자재 관리 기관에 대한 대부는 113.3%로 각각 늘었다.

1963년에 내각 결정 제85호에 의하여 일부 협동 농장들에 대한 대부금 상환이 면제되고 농업 생산이 해마다 증가되여 협동 농장들의 재정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진 결과 1963년에 이 부문에서 단기 대부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1963년에 농촌 건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대되여 협동 농장들에 대한 기본 투자 대부가 현저히 감소되였고 따라서 중앙 은행의 장기 대부금 잔고는 전년에 비하여 86%로 떨어졌다.

【결제】 인민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결제 거래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소 호상 간의 경제적 련계가 긴밀해지고 복잡해진 실정에 맞게 중앙 은행은 결제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기관, 기업소들의 계약 및 지불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 해 중앙 은행은 기업소들에서 경상 계산을 강화하도록 통제를 개선하는 한편 복잡한 결제 업무를 대담하게 간소화하기 위하여 동일 시내 결제에서 한도 행표를 비롯한 행표에 의한 결제 방식의 적용 범위를 넓히였다.

이와 함께 9월과 12월의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 경제 각 부문 기관, 기업소 간에 지불 및 청구된 자재 및 상품 대금에 대한 상쇄 결제를 조직하여 류동 자금의 회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리 운영의 개선을 자극하는 데 기여하였다.

우리 나라 대외 무역이 확대되고 무역 및 비무역 거래가 장성하고 있는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1963년 7월 1일부터 무역 은행이 대외 결제 사업을 전문적으로 조직 집행하게 되였다. 이 해 무역 은행의 외국 은행들과의 거래 범위와 대외 결제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였다.

【화폐 류통】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 재정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1963년에 나라의 화폐 류통은 가일층 공고화되였다.

1963년 6월 19일 내각은 결정 제28호 《1963년 2.4 분기 대부 및 현금 계획에 대하여》로서 화폐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기관 판매를 축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현금 판매 수입을 높이는 한편 농촌 경리 분야의 현금 계획 규률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 은행은 1963년에 중앙 집권적인 발권 규률을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화폐 류통 사업에서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여 도, 시, 군적인 범위 내에서 수입 초과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기관들에 대한 상품 판매를 개선하고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재정 및 현금 계획 규률을 일층 강화하였다.

현금 계획 규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유휴 화폐 자금을 적극 회수하는 한편 상품 판매 수입을 그 전해에 비하여 104%로 증대시킴으로써 1963년에 중앙 은행의 현금 수입은 110.4%로 장성되였다. 이리하여 1963년에 협동 농장들에 대한 거액의 결산 분배 자금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현금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 해에 중앙 은행은 현금 수입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증대되는 현금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현금 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화폐의 구매력을 일층 높이였다.

【저금】 중앙 은행은 저금소 및 저금 대리소 등 저금 취급 단위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들의 자립적 역할을 높이였다.

특히 기관, 기업소들에서 저금 대리소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 주었다.

1963년에 공화국적으로 저금 잔고는 전년에 비하여 169.7%로 장성하였다. 특히 농민들의 화폐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여 농촌 저금은 381.2%로 장성하였다.

로 동

【로력 조직】 인민 경제의 생산적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종업원 수가 현저히 늘었다. 1963년 말 현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재적 종업원 수는 192만 3,700명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5만 8,700명이 증가되였다.

종업원 수의 장성과 함께 종업원 구성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관리 및 비생산 부문 로력을 극력 축소하고 생산 부문, 그중에서도 기본 생산 부문의 로력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정확히 관철된 결과 기본 생산 부문의 로력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특히 간접 부문 로력에 비한 직접 부문 로력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1963년에도 녀성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광범히 진출하였는바 종업원 총 수에서 녀성 로력이 차지하는 몫은 1962년의 34.9%로부터 1963년에는 36.2%로 높아졌다.

특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공동 결정 《농촌 로력을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63년 1월 7일)에 의하여 농촌에 대한 로력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였다.

결과 수 많은 도시 청장년들이 농촌에 자진하여 진출하였으며 농촌 로력의 질적 구성이 더욱 좋아졌다. 또한 《이앙, 제초 15일 전투》와 《추수 10일 전투》를 통하여 전국 각지의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은 농촌에 1,700만 공수에 달하는 로력적 지원을 주었다.

인민 경제 부문별 종업원 수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총　　계	100	217	221	311	561	720
그중 공　업	100	158	106	189	450	550
농　업		100	333	314	569	808
기본 건설		100	111	161	205	242
운　수			100	112	146	162
체　신			100	105	124	145

【로동의 기준화】 1963년에도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안이 광범히 도입되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불합리한 로동 정량을 재 사정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결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불합리한 로동 정량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로동 정량으로 개정되였다.

이와 함께 유일 로동 정량 제정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는바 1963년에 유일 로동 정량 총 건수는 20만 7,400여 건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로동 정량 총 건수 중 유일 로동 정량이 차지하는 몫은 11.5%로 높아졌다.

생산 및 로동 조직이 훨씬 째여지고 로동 정량 사업이 일층 개선됨으로써 1963년에 도급제 참가률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3년도의 도급제 참가률 (%)

	머리수에 의한 도급제 참가률	인시수에 의한 도급제 참가률
공업부문	71.9	56.4
기본 건설 부문	78.5	68.9

로동 정량 수행률은 공업 부문에서 115%, 기본 건설 부문에서 115.4%로 되였다.

【로동 임금】 국가에서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에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 임금을 계통적으로 높여 왔다.

1963년에 국민 소득의 체계적인 증대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전년에 비하여 102%로,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당 수입은 104%로 높아졌다.

국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체계적으로 높임과 함께 새 환경의 요구에 알맞게 로동 보수 형태를 부단히 개선 발전시켜 왔다.

1963년에 내각 비준 제 627호 《탄광, 광산 부문 일'군들에게 적용하는 작업반 우대제 규정(잠정)》에 의하여 작업반 우대제는 작업반 또는 종합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실시하게 되였다.

이 작업반 우대제는 탄광 부문에서 기본 굴진, 준비 굴진, 생산 굴진, 채탄, 갱도 영구화, 보갱, 갱내 운탄, 로천 채탄, 박토, 갱내 작업과 직접 련결된 첸 및 벨트 콘베아 운전공, 갱내 전차 운전공, 갱내 권양기 운전공, 승차공, 광산에서는 기본 굴진, 준비 굴진, 채광, 로천 채광, 박토, 갱내 운광, 전차 운전공 등 기본 작업 부문의 작업반 또는 종합 작업반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과 현장 지도 일'군들에게 적용하기로 되였다.

작업반 우대제는 탄광, 광산의 기본 작업 부문의 작업반에서 국가 계획을 작업반 우대제 적용 기준 이상 초과 수행하고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여 계획, 원가, 중요 원자재 소비 기준을 저하시켰으며 선진 기술의 도입과 제반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로동 재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1963년에는 내각 비준 제951호 《제염 부문 로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우대제 규정》에 의하여 제염 부문 로동자들에 대한 우대제가 실시되였는바 이 우대제는 내부 채산제를 실시하는 제염 직장을 단위로 하여 제염공들과 직장 관리 일'군들에게 적용하기로 되였다. 그리고 이 우대제 적용 기준은 년간 소금 생산 계획의 80%로 하기로 되였다.

【기술 기능 향상】 나라의 기술 혁명의 요구에 상응하게 기술, 기능자 양성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직장 기술 기능 학습 체계가 더욱 정비 강화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이에 망라되였다.

1963년 말 현재 각종 기술, 기능 학습반과 여기에 망라된 인원수는 아래와 같다.

	학습반 수(개)	인원수 (명)
단기 기능 전습반	2 038	36 555
기능 전습반	21 937	529 547
기술 학습반	1 607	19 953
합　계	25 582	586 055

직장 기술, 기능 학습반 사업이 강화된 결과 수 많은 기술자와 기능자들이 양성되였으며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1963년에 기술 학습반에서 양성한 기사, 기수 수는 1,420명 (그중 기사는 525명)이며 기능 수준이 한 등급 이상 높아진 기능공 수는 24만 7,723 명에 달하였다.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이 강화된 결과 1963년에 4만여 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새로 양성되여 1963년 10월 31일 현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총수는 22만 3,654 명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높아지고 로동자들과 과학자들,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가 강화된 결과 기술 혁신과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1963년에 공업 및 건설, 운수

부문에서 6만 4,000여 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로동 행정 사업이 더욱 개선 강화되고 기술 혁신 운동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1963년에 로동 생산 능률이 높아졌다.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1956	1960	1962	1963
100	140	157	164

【로동 보호】 내각 결정 제 9호 《로동 보호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대하여》(1963년 2월 20일)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을 《로동 안전 월간》으로 설정하고 로동 보호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 기간에 일부 원만하지 못한 로동 보호 시설을 개선 완비하고 직장내 강철 같은 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1963년에 각종 로동 안전 시설은 전년 보다 9.7%가 늘었으며 환기, 채광, 방음, 방광, 방한 시설을 비롯한 2만 4,070여 개소의 각종 로동 위생 시설이 개조되고 목욕탕, 녀성 위생 시설, 산업 탁아소 등 3만 3,190여 개소의 보조 위생 시설이 운영되였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녀성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치원, 탁아소 망이 확장된 결과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유치원 수는 123%, 탁아소 수는 101%로 장성되였다. 특히 녀성들에게는 77일 간의 산전 산후 유급 휴가가 보장되고 있는바 1963년에도 수 많은 녀성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국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산업별 특성에 따라 년간에 14일 내지 28일 간의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와 국가 부담에 의한 정양, 휴양을 보장하고 있다.

1963년에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이 정기적 휴가를 받았으며 9만 2,897 명의 로동자들이 보충적 휴가를 받았다.

1963년에 정양소, 휴양소 망이 더욱 확장되여 44만 명의 로동자, 사무원 및 농민들이 정양, 휴양의 혜택을 받았다.

국가에서 이 외에도 로동자들의 로동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그들에게 로동 보호 용구, 작업 필수품 및 영양제 등 각종 로동 보호 물자를 무상으로 주고 있다.

1963년에 내각 결정 제 78 호 《로동 보호 물자의 무상 대여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대하여》(1963년 11월 26일)에 의하여 산업별, 직종별, 특성에 맞게 작업복, 방한의, 신발류를 비롯한 로동 보호 물자의 규격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며 로동 보호 물자를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그를 제때에 정확히 공급할데 대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물질 문화 생활

인민의 물질 문화적 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선 로동당의 인민적 시책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1963년에 인민 생활은 더욱 향상되였다.

공업과 농업 생산이 급격히 장성됨에 따라 국민 소득은 해마다 장성되였다.

국민 소득의 장성 (%)

1962/1946	1962/1949	1962/1956	1962/1960
869	416	272	127

1963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또다시 1.1배로 장성되였다.

생산이 부단히 장성되고 로동 생산 능률이 계통적으로 높아진 결과 1963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전년에 비하여 102%로 장성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의 장성(%)

1963/1949	1963/1953	1963/1956	1963/1960
402	385	244	104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이 장성되고 소매 물가가 체계적으로 인하된 결과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계통적으로 높아졌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의 장성(%)

1949	1956	1960	1963
100	98	203	212

인민 경제 각 부분에 가정 부인들과 녀성 노력이 광범히 진출함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당 수입은 해마다 장성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당 수입의 장성 (%)

1963/1957	1963/1960	1963/1962
174	113	104

1963년에 당과 정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농민들의 생활 수준도 여기에 따라 접근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3년에 국가에서는 1,011 개의 협동 농장에 대하여 8만 7,900여 톤의 현물세와 대여곡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3,700여개의 협동 농장 중 1,331 개 농장에 대하여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

당과 정부는 1963년에 공예 작물의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협동 농장에 공급되는 자재와 기계 설비들의 가격을 대폭 인하함으로

써 농민들에게 무려 7,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적 혜택을 주었으며 1,286 개의 협동 농장에 대하여 3,648만 원의 은행 대부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정당 500 키로그람 이상의 알곡을 증수하고 농업 생산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어 근위 1급군 칭호를 쟁취한 문덕군, 락랑 구역,룡천군, 신천군, 황주군, 북청군, 숙천군 등 7 개 군 협동 농장원들에게 상품으로 80여 대의 화물 자동차, 2천 여 대의 가마니 직조기와 새끼 기계, 350여 대의 자전거, 18만 3,000여 벌의 동복과 고급 양복천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 밖에 새 해의 선물로 농촌의 전체 어린이들에게 100만 벌의 겨울 옷과 모자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리하여 1963년에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은 실로 2억 4,952만 원이나 된다.

소비품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대되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장성된 결과 1963년에 소매 상품 류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103%로 장성되였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의 장성 (%)

1963/1949	1963/1956	1963/1960	1963/1962
7.9배	3.8배	129	103

1963년에도 당과 정부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은 사회 문화 시책에 의하여도 많은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 예산에서 지출된 사회 문화 시책비는 전년에 비하여 106%로 장성되였다.

사회 문화 시책비 (1949=100)

1956	1960	1962	1963
322	12.8배	16.2배	17.2배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고등 기술 학교 학생들과 전체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1963년에 국가는 례년과 같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전체 학생들에게 싼 값으로 교복을 공급하였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257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중 대학생 수는 21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전반적 무상 치료제에 의하여 누구나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국가 부담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더 많이 주기 위하여 치료 예방 기관을 해마다 증설 확장하고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휴식을 위하여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녀성들에게는 77일 간의 산전 산후 유급 휴가를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은 정양, 또는 휴양의 혜택을 받는바 1963년에 그 수는 44만 명이였다.

휴양소 및 정양소 수

	1956	1960	1963
휴양소 및 정양소 수 (개소)	66	284	410
그 침대수(대)	5 395	22 313	25 984
휴양 및 정양자수(천명)	127	359	440

교 육

1963년에 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더 빨리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1963년 5월 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고 대학 사업을 한 계단 높이 올려 세우며 기술자, 전문가 양성 사업을 개선할 대책을 취하였다.

특히 1963년 7월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에서와 1963년 11월 내각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 나라 교육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기술 교육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1963년 11월 15일 공화국 내각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현존 기술 학교 체계를 공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하여 2년제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 체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중등 일반 교육을 주기 위하여 3년제 기술 학교와 준기사를 양성하는 2년제 고등 전문 학교를 1965~1966학년도부터 설치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 내각 결정에 따라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의 분포와 학과 조직을 인민 경제 발전과 기술 혁명의 요구에 적응하게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기술 학교 학생들의 실습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도 취해졌다.

교육 규률의 확립과 함께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학교에서 배운 선진 과학 리론을 익히면서 소질과 재능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3년에 과외 및 교외 교양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였다.

사범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체계를 더욱 잘 정비하고 사범 대학의 학과 조직과 교육 내용을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의 교원 양성에 부합되게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교원 대렬의 질적 구성을 개선 강화하였다.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 대학들의 사업에서

도 현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실시하게 될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서와 사회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기술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하여 1963년에 217 개의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가 증설되였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96 개의 대학을 포함한 9,190 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256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배우고 있으며 고등 기술 학교 일부 학생들과 전체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고 있다.

1963년에 4만여 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양성되여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기술자, 전문가 총수는 22만 4천여 명에 달하였다.

1963년에 국가는 례년과 같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복을 공급하였다.

【보통 교육】 1963년에 보통 교육 부문에서는 공산주의 도덕 교양과 계급 교양,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 육체 교양과 정서 교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 화학 등 각 과목 실험실들과 연구실들을 더 훌륭히 갖추며 실습 공장과 실습 농목장들을 규모 있게 정비 운영하였다.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 특히 혁명 전통 교양이 강화된 결과 학생들의 정치 도덕적 풍모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보통 교육의 발전

	1956~1957	1960~1961	1963~1964
인민 학교			
학교 수 (개)	3 777	4 145	3 992
학생 수 (천명)	1 508	957	994
졸업생 수 (천명)	241	317	236
중학교			
학교 수 (개)	1 247	2 839	3 147
학생 수 (천명)	445	1 031	836
졸업생 수 (천명)	89	297	269

학년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위하여 1963년에 기관, 기업소, 가두, 농촌 등에 새로 500여 개의 유치원이 더 설치되였다.

보통 교육 부문에서는 이 부문 교원들의 질적 구성을 개선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교양원 강습과 각종 시범 견학을 조직하는 등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1963년말 현재 유치원 총수는 5,667 개소이며 이에 망라된 어린이는 전년의 123%로 늘었다.

유치원 및 원아 수

	1960	1962	1963
유치원수 (개소)	4 470	5 121	5 667
원아수	295 485	476 401	587 859

【기술 교육】 1963년에 기술 학교는 1,218 교로, 고등 기술 학교 (주간, 야간, 통신)는 466 교로 확장되여 매개 군에 4~5교의 기술 학교와 1~2교의 고등 기술 학교가 설치되여 있다.

특히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들이 확장되여 1963년에 고등 기술 학교 신입생 구성에서 이 부문 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 이상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의 기지일 뿐만 아니라 기술 인재 양성의 기지로 되고 있다.

1963년 7월 29일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들에서는 실습 공장과 실습 농목장, 각종 실험실과 연구실들을 훌륭히 꾸림으로써 실험 실습을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학교 망의 확장에 따라 기술 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기술 교육의 발전

	1960~1961	1963~1964
기술학교		
학교수 (개)	855	1 218
학생수 (천명)	276	327
고등 기술 학교		
학교수 (개)	82	466
학생수 (천명)	11	145

1963년에 12만 5,436 명이 기술 학교를, 2만 3,695 명이 중등 전문 학교를 각각 졸업하였다(중등 전문 학교는 1963년까지 있었다).

【고등 교육】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96개의 대학에서 21만 4천 명의 대학생들이 선진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대학의 교수 력량도 1946년의 140 명으로부터 오늘은 9,200 명으로 장성하였으며 그 질적 구성도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다.

고등 교육성 산하 18 개의 대학에 연구원이 설치되여 있다. 특히 김 일성 종합 대학, 김책 공업 대학을 비롯한 일련의 대학들에는 박사원과 연구원 특설반이 설치되여 있으며 29 개의 과학 연구소들이 있다.

고등 교육의 발전

	1956~1957	1960~1961	1962~1963
대학수 (개소)	19	76	96
대학생수 (천명)	22	97	214
그중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생 수	6	48	149

1963년 5월 6일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은 대학 사업을 한계단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기술자, 전문가 양성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되였다.

대학 내에서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주체를 확립

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으며 교원, 학생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였다. 또한 교육 규률과 학습 기풍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각 대학에서는 과정안, 교수 요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를 우리 나라의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개작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끝났다. 또한 과학 연구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 일성 종합 대학 연구 집단의 이소프렌 합성 고무에 대한 연구, 함흥 화학 공업 대학 연구 집단의 가성 소다에 대한 연구, 김 책 공업 대학 연구 집단의 립철 회전로에 의한 련속 제강법의 확립, 아류산 가스에 의한 아연가드늄의 실수률 제고, 건설 대학에서 달성한 무심도 기초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비롯해서 각 대학 연구 집단들에 의해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분야들에서 일련의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1963년에 각 대학들에서는 2만 1천여 명의 기사, 전문가들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내보내였다.

공장 대학 1960년에 새로 창설된 공장 대학은 3년간의 짧은 기간에 36 교로 늘었으며 여기에서 1963년 말 현재 2만 5,000여 명의 로동자 대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고 있다.

공장 대학은 양성 지표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간적 부분들인 기계, 전기, 광업, 금속, 화학 등이 첫 자리를 차지하며 이 부문 학생이 92%이다.

공장 대학들은 이 해에 1,500여 명의 기사들을 양성하였다.

국가에서는 공장 대학생들의 학습에 각별한 배려를 돌려 해마다 교재들과 실험 기구들을 제때에 마련하여 주고 있으며 공장에서는 그들의 온갖 학습 조건을 백방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평양 공업 대학만 보더라도 5개의 학과와 8개의 강좌에 방직, 방직 기계, 물리, 화학을 비롯한 10 개의 실험실과 연구실을 가지고 시내 경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는 700여 명의 로동자들을 기술 일'군으로 양성하고 있다.

1963년도에만 하여도 청진 공업 대학에서는 141 명, 성진 공업 대학에서는 131 명, 성흥 공업 대학에서는 113 명의 로동자 대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소유한 기사로 되였다.

공장 대학들에서는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이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생산 활동에서 거대한 물질적 힘을 나타내고 있다.

청진 공업 대학과 평양 공업 대학에서만도 한 해 동안에 류동자 자동 제작기, 굽지 않은 남비 벽돌의 도입, 윤활제에 의한 베아링 수명 제고를 비롯한 620여 전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사범 교육】 1963년 7월 29일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에서와 1963년 11월 15일 내각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교육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교원들의 정치적 및 과학 리론적 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 강화하였다. 아울러 학과 조직과 교육 내용을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교원 양성에 부합되게 개편하는 등 일련의 대책들이 취해졌다.

그리하여 사범 대학들에서는 유치원 교양원으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 밖에 인민 학교, 중학교의 예능 과목 교원들을 위한 단기 강습반을 통하여서도 교원들을 양성하고 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교원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1964~1965 학년도부터 현존 사범 대학들의 신입생 규모를 2배로 확장하는 한편 현직 교원들을 재 교육하기 위한 2년제 특설반을 사범 대학들에 조직하였다. 또한 사범 대학 특설반에 입학하는 현직 교원들에게는 《간부 양성 기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온갖 학습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통신 교육】 내각 결정 제 20호 《국가 및 사회 협동 단체, 기관, 기업소 관리 일'군들과 재직 간부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할 데 관하여》(1962년 3월 2일)에 의하여 15 개의 대학과 138 개의 고등 기술 학교에 재직 간부반이 설치 되여 있다. 1963년 말 현재 고등 교육성 산하 대학에 망라된 대학생 수만 보더라도 성 산하 전체 대학생 수의 근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대학과 고등 기술 학교 통신 재직 간부반 졸업생들에게 해당 학과 지표의 기사, 기수, 전문가의 자격을 수여 하고 있다

특히 1963년 5월 6일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대학 교무 행정 사업, 교수 조직과 내용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통신 교육에서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며 전문 과목에 대한 실험 실습을 강화하는 등 해당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각 대학 통신 교육망들에서는 학년 시작전에 학생들과 기관, 기업소 책임자들에게 학기 진행 계획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작업 및 기업소 생산 조직과 대학의 전반적인 교수 조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별로 특성에 맞게 현지 학습 지도 분구를 설정하고 실험 실습 기지를 꾸려 통신 학생들을 생산에서 유리시키지 않고 현지 학습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성인 교육】 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는 각 기관, 기업소, 가두, 협동 농장들에서 광범히 조직 운영되고 있다.

성인 교육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수준에까지 높임으로써 기술 및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시킬 목적으로 1958년 12월 1일 개교된 이래 해마다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졸업시켰다.

1962년에만도 8천 여 개의 근로자 학교와 4천 여 개의 근로자 중학교에서 약 12만 명의 근로자들을 졸업시켰고 1963년에는 지난 기간 년 평균 졸업생 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들이 졸업하였다.

보통 교육성은 성인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 교육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전임 교육 일'군들과 교무 주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성인 교육 강습회》를 조직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교육 부장회의》, 성인 교육 과정안 재 작성 사업 등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근로자 학교들에 소요되는 교구, 비품들과 10만 여 부의 교과서들을 생산 보장하였다.

과 학

1963년에 과학 연구 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농업 과학 사업과 의학 과학 사업 분야에서 통일적인 지도 체계를 확립하며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화국 내각은 1963년 8월 7일 비준 제505호로 농업 과학 위원회를 농업 과학원으로 개편하고 농기계 운영학 연구소, 강계 채소학 연구소와 지역별 분원 (평양, 해주, 원산, 혜산, 경성) 을 조직하였다. 또한 11월 5일 내각 결정 제73호로서 의학 과학 연구원을 조선 의학 과학원으로 개편하였다.

1964년 2월 7일 내각은 사회 과학 부문 연구 기관들의 과학 연구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결정 제11호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 과학원을 창설하고 경제 법학 연구소를 경제 연구소와 법학 연구소로, 언어 문학 연구소를 언어학 연구소와 문학 연구소로 각각 분리하였다.

1963년 3월 20일—22일에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대회에서 과 연구 사업의 방향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와 과업에 대하여 교시 하시였다.

당과 내각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고무되여 과학 연구 사업에서는 경락 실태의 연구에서 거둔 거대한 업적을 비롯한 일련의 성과들을 거두었다.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1961년에 경락 실태를 발견한 후 그에 관한 연구를 독창적 방법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경락 계통의 형태와 그 기능의 전 면모를 기본적으로 확정하였으며 특히 핵산에 대한 유물론적 리론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연구 집단들은 이미 경혈부에서 발견한 구조물 (봉한 소체) 과 그를 련결하는 관상 구조물 (봉한관)의 미세한 조직학적 구조와 그 분포 상태를 상세히 해명하였으며 일련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봉한 소체는 특유한 조직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표층, 피하 조직의 심층과 혈관, 림파관 및 내장 장기 주위에도 분포되여 있다. 또한 봉한관은 동맥, 정맥, 림파관의 주위와 그 내부에까지도 유리 상태로 분포되여 있다.

경락 계통은 특유한 전기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해명되였다. 봉한 소체는 각이한 외'적 및 내'적 자극에 대하여 각이하게 반응하며 일정한 내장 장기와 호상 련결되여 있는 흥분 조직이라는 것도 증명되였다.

봉한관의· 내용물 (봉한액)의 화학적 조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봉한관 내에는 핵산 특히 데스옥씨리보 핵산이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도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경락의 실태는 생명 활동의 근저에 놓여 있는 생화학적 과정을 조절하며 통일적으로 련결하는 전일적인 계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모든 것은 실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발견이다.

경락 계통에 관한 연구 성과는 경락 계통의 엄격한 객관적 존재를 알지 못한채 생체의 조절기전을 포함한 생명 현상의 근본 문제를 일면적으로 설명하여 온 기존 학설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업적은 세포의 분화, 물질 대사, 유전, 유기체의 반응 현상, 질병의 발생과 그 발전 등 현대 생물학과 의학 부문 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한 근본 문제들을 연구 해명함에 있어서 광명한 전망을 열어 주며 또한 인간의 건강과 장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서광을 비쳐 준다.

이 위대한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현대 의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혁명적 사변이며 세계 과학사에 금자탑을 이루어 놓았다.

과학 연구 기관

우리 나라 주요 과학 연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과학원】 1952년 10월 9일 내각 결정 제183 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원장 **강 영창**

연구 기관 기계 공업 연구소, 기계화 및 자동화 연구소, 공학 연구소, 중앙 금속 연구소, 중앙 연료 연구소, 규산염 연구소, 함흥 분원(무기 화학 연구소, 유기 화학 연구소, 고분자 화학 연구소

중앙 분석소), 물리 화학 연구소, 생물학 연구소, 지질학 연구소, 지리학 연구소.

【사회 과학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 (1964. 1. 14) 에 근거하여 1964년 2월 7일 채택한 내각 결정 제11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원 장 **허 석선**

연구 기관 경제 연구소, 철학 연구소, 법학 연구소, 력사 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소, 문학 연구소, 고전 연구소 (사회 과학원이 창설되기 전에 과학원 산하의 사회 과학 부문의 연구소들로서는 경제 법학, 철학, 력사, 언어 문학, 고고학 및 민속학, 고전등 6개 연구소가 있었다).

【농업 과학원】 1963년 8월 7일 내각 비준 505호에 의하여 농업 과학 위원회가 농업 과학원으로 개편되였다.

원장 **김 계현**

연구 기관 농산학 연구소, 수의학 연구소, 축산학 연구소, 사료학 연구소, 육종학 연구소, 토양학 연구소, 농기계 운영학 연구소, 강계 채소학 연구소, 과수학 연구소, 잠학 연구소, 농업 경제학 연구소.

이밖에 1963년에 평양, 해주, 원산, 혜산, 경성에 분원이 새로 조직되였다. 또한 각 도 시험장과 전문화 시험장들과 그 산하 지구 분장들이 있다.

【의학 과학원】 1963년 11월 5일 내각 결정 제73 호로서 의학 과학 연구원(1958. 6. 16 창설) 이 조선 의학 과학원으로 개편되였다.

원장 **홍 학근**

연구 기관 동의학 연구소(11 개 연구실, 200 대의 부속 침대 시설), 위생 연구소 (11 개의 연구실), 미생물 연구소 (7 개의 연구실, 4 개의 생산 직장), 제2 림상 의학 연구소(6 개 연구실), 수혈 연구소 (3 개 연구실, 보존 혈액과, 급혈과), 약학 연구소 (13 개 연구소, 2 개소의 약초 시험장), 광천 물리 치료 연구실.

【건설 과학 위원회】 1961년 내각 결정 제118호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위원장 **조 선영**

연구 기관 건설 과학 위원회 본원, 건축 건설 연구소, 시공 기계화 연구소, 수리 공학 연구소, 건설 재료 연구소, 건설 경제 및 기준 연구소, 건설 기계 연구소, 지진 및 지질 연구소, 정량 연구소, 생산 시험소, 중간 시험 공장 및 기타 성 산하의 7개 건설 부문 과학 연구소가 있다.

문학 예술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1963년에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0대 과업 관철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며 특히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1963년 4월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1963년 2월 8일 교시 정신을 문학 예술 작품에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창조적 력량을 기울이였다.

1963년에 작가 예술인들은 공화국 창건 15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문학 예술 축전과 경연 대회, 전람회 등에 수 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1963년에 문학 예술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문학 예술의 당성과 계급성,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을 빛나게 구현하며 발전하는 인민들의 미학적 취미와 감정에 맞게 서정성이 강하고 작품의 형상성이 높은 주제 작품을 창작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들의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였으며, 온갖 부르죠아 반동 문예 사상과 수정주의 침습을 철저히 반대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고수 발전시켜 작품의 전투성과 예술성을 높이였다.

이 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계급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 소재와 적극적인 주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전형적 성격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창조와 기적으로 들끓는 공장과 농어촌에 직접 들어가 창작 기지들을 설정하고 수많은 성과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1963년에 우리 문학 예술이 이룩한 성과는 우선 우리 시대의 주인공인 천리마 기수들 특히 로동 계급의 전형적 성격들을 빛나게 창조한 데서 나타났다.

평범한 한 로동자의 장성 력사를 통하여 우리 시대의 특질을 거대한 예술적 일반화의 힘으로 천명한 인민상 계관 작품 예술 영화 《정방공》을 비롯하여 독로강 발전소 청년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과 위훈을 노래한 서사시 《조르라 나의 강아》, 로동과 집단을 사랑하며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얼어 붙은 강물 속에 빠진 일곱 명의 어린 꽃봉오리들을 구원해낸 김 정순 영웅을 원형으로하여 농촌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창조한 연극 《아침 노을》 등 천리마 기수들을 주인공으로 한 현실 주제의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이 현실 주제 작품들에 일관된 주요 특징과 성과는 작가들이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영웅적인 것의 본질을 계급적 자각과 시대에 대한 책임성과 열정에서 찾으면서 다양한 성격들과 화폭들을 창조한 데 있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과 그 투쟁의 본질을 더욱 미학 리론적 및 창작 실천

적으로 풍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1963년에 우리 문학 예술은 혁명 전통과 력사적 주제들에 크게 관심을 돌렸으며 창작 과정에서 훌륭한 성과와 일련의 미학 실천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1930년대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조국 광복회의 조직망을 확대해 가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모습을 폭 넓게 형상화한 장편 소설 《서광》 (제2부)과 조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 투쟁 모습을 랑만적인 필치로 형상화한 장편 소설 《청년 전위》 (상)를 비롯한 많은 성과 작들이 창작되였다.

특히 장편 소설 《청년 전위》 (상)와 《서광》(제2부)은 저작자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투쟁 경험과 사실에 기초하여 1930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고매한 성격과 혁명 투쟁 정형을 대 형식의 문학 작품에 일반화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 의식 교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농민들 속에서 전쟁 승리의 신심을 고무하며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설계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수상 동지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유화 《농민들 속에서》(림 렬, 송 찬형, 류 재경 합작)와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인민들이 수령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힘차게 전진하는 영웅적 기상을 형상한 오라또리오 《수령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윤 복기 작곡)등 혁명 전통과 수령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작품들이 창작되여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기여하고 있다.

력사적 사실을 취급한 작품들로서 또한 연극 《서 희 장군》, 예술 영화 《대지의 아들》(1, 2부), 장편 소설을 각색한 연극 《대하는 흐른다》, 조각 《종살이》 등은 과거의 력사적 소재를 취급하면서 현대성의 요구를 훌륭하게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거란의 침략을 반대하는 고려 인민의 투쟁을 취급한 연극 《서 희 장군》에서는 원쑤가 침략을 노리고 있는 이상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결코 무기를 놓을 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입에 대하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사상으로써 먼 력사적 거리를 뛰여 넘어 오늘의 혁명적 시대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1963년에 우리 문학 예술은 계급 교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제와 다양한 형상 수'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형상을 통한 대비 교양의 위력한 방법을 훌륭하게 개척하였다.

예술 영화 《정방공》, 씨나리오 《그날을 잊지 말자》, 영화 《붉은 꽃》, 《조국으로 돌아 오다》, 서정시 《벽동의 계선장에서》 등은 매우 의의 있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자본주의 제도의 비참상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대비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 비단 그 어떤 수'법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생활과 운명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창조적 실천을 통하여 해명하였는바 이는 우리 문학 예술의 형상 수'법의 풍부화와 사실주의적 진실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였다.

1963년에 우리 문학 예술은 또한 창작 실천을 통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이 해에 우리의 문학 예술은 서정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편향들 즉 서정성이라고 하여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인 내용으로부터 유리된 그 어떤 자연 풍경이나 심리 묘사 자체에만 관련시키려는 일부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혁명적인 생활 속에 서정의 생활적 기초를 탐구하고 이를 발현시킬 데 대한 옳바른 해명을 주었으며 작품 창작에서 이를 구현시켰다.

예술 영화 《백일홍》, 《새 세대》들은 특징적인 갈등과 참신한 개성적 성격의 창조를 다양한 수'법의 구사를 통하여 정서 심리적으로 풍부히 구현하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1963년도 문학 예술 창작 사업의 성과에서 특기할 점은 례년에 드물게 대 형식의 작품들인 장편 소설들이 수 많이 창작된 것과 특히 대중적이며 선동적인 교양 수단으로 되는 영화 예술의 발전에서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해에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영화 예술 부문에 창조적 력량을 집중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 영화 예술은 그 전년에 비하여 량적으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술적 질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우리 문학 예술이 달성한 이상과 같은 성과는 동시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능력과 예술적 기량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제고되였으며 창작적인 개성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화되였다는 것을 증시하는 것이다.

1963년도에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교류 사업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세계 각국의 고전 문학 작품들을 수록하는 세계 문학 선집의 번역 출판을 계속 성과적으로 진척시켰으며,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높이 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혁명적 작품들을 더욱 활발히 번역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성원하는 수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해에 우리의 예술 무대에서는 중국의 작품들인 가극 《홍루몽》과 《네온등 밑의 초병》, 월남의 단막극 《하나의 생명》들이 창조되여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 나라 인민상 계관 작품들인 연극 《붉은 선동원》과 무용극 《붉은 기'발》이 중국에서 광범히 번역 상연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주의

적 친선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쟈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가네포 국제 예술 공연에 참가한 우리 평양 가무단은 합창 《산으로 바다로 가자》, 군무 《쇠'물은 흐른다》, 군무 《무녀 춤》, 가야금 병창 《물레타령》 등 우수한 예술 종목들을 공연하여 로동당 시대가 낳은 우리 민족 예술의 창조력을 또다시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문 학

1963년도에 문학 분야에서는 력사적 소재를 취급한 계급 교양 주제와 함께 특히 로동 계급의 장성 력사와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적 성격을 통하여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형상화한 현실적 주제의 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되였다.

이 해에 작가들은 우리 시대의 현실적 본질과 그 특성을 미학적으로 옳게 인식함으로써 평범하고 소박한 근로자들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구가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였으며 훌륭한 창작적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천리마 기수들의 위훈을 묘사함에 있어서 생산 공정의 지루한 설명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되게한 시대와 혁명에 대한 고도로 각성된 사회— 계급적 책임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등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힘 있게 성격화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 생동하고 다양한 소재와 문학적 주제들을 탐구함으로써 장편, 중편 소설을 비롯한 대 형식의 문학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또한 많은 소설가, 극작가, 시인들은 이 해에 혁명 전통, 조국 해방 전쟁, 조국 통일, 천리마 시대들을 폭 넓게 반영하는 장편 소설, 씨나리오, 서사시 등의 대작 창작에 착수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풍만한 결실을 준비하였다.

【소설 문학】 소설 문학에서 성과의 하나는 우선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장편과 중편 소설들이 창작된 것이다.

그 중 성과작의 하나로서 장편 소설 《서광》 (2부) (박 달 작)은 조선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 기반하에서 신음하던 1930 년대 중엽부터 해방되기까지의 장구한 시기에 걸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온갖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국내에서 조국 광복회의 조직망을 확대하면서 줄기차게 반일 투쟁을 전개하는 슬기로운 혁명 투쟁 모습을 거대한 서사시적 화폭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특히 조선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인 김 일성 장군의 형상과 그의 지도하에 장성 발전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구체적인 력사적 시대 환경과 그 생활을 배경으로 진실하게 재현하였는 바 작가는 김 성호, 리 동순, 김 시욱 등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고매한 성격적 특질을 예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묘사하였다.

장편 소설 《청년 전위》 (상) (림 춘추 작)는 1930 년대 혁명 투사들을 원형으로 하면서 실지로 있은 수 많은 투쟁들에 토대하여 창작된 의의 있는 작품이다. 이 장편 소설은 항일 무장 투쟁의 거세찬 불'길 속에서 조선 청년들이 어떻게 어엿한 공청원으로, 그리고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유격대원으로 성장 발전했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진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인공 류삼손과 그의 전우들인 청년 투사들의 혁명적 랑만성이다.

소설에서는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원쑤들의 총칼의 위협과 일제 교형리들의 혹독한 고문,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굴함없이 오직 붉은 한 마음으로 싸운 강의한 의지와 고귀한 절개의 소유자들인 1930 년대 조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을 랑만적 필치로 형상화하고 있다.

중편 소설 《한 녀성의 운명》 (리 기영 작)은 1920 년대 말경으로부터 1945년 8.15 해방에 이르는 19년 간의 조선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가난한 한 소녀가 어떻게 일제와 지주에게 야수적으로 억압 착취를 당하면서 그와 어떻게 싸워 이기며 성장했는가를 보여 주는 전기 소설이다. 따라서 작품의 구성 자체도 전기적 형식으로서 주인공 전 필례가 그의 간고한 생활 행로에서 맞다드는 계급적 원쑤들인 지주이며 고리대금업자 리 태벽과 왜놈들인 우편 국장 부처, 공장장, 경찰, 선주들과의 치렬한 갈등과 투쟁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자본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조선 인민의 피눈물을 짜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케 하며 계급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편 소설 《노을》 (박 태민 작)은 나라의 공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무연탄 가스화 연구 사업에서 헌신하는 과학자들의 투쟁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이 과학자 집단의 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부르죠아적 개인 공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온갖 간난 신고를 겪으면서 연구 사업을 끝내 성공하는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인간 개조 정형을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들 외에도 장편 소설들로서 리 근영의 《청천강》 (2부), 황 건의 《며 명》, 리 상현의 《새

번째 봄》, 김 승권의 《탄부의 일가》와 김 홍무의 중편 소설 《회답》 등 성과작들이 발표되였다.

1963년도에 소설 분야에서는 또한 단편 소설 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는 바 우선 량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근 2배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의 참신성과 다양성 그리고 예술적 형상의 질에서도 발전을 가져 왔다.

최 명익의 《섬월이》, 석 윤기의 《행복》, 리 윤영의 《기쁜 날》, 진 재환의 《기사》, 박 승만의 《정복자》, 신인들인 정 창윤의 《정보로 걸어라》, 신 영자의 《봄》 등은 그중 성과적인 작품들로서 모두가 다 전투적인 쟌르로서의 단편의 기능을 옳게 살리고 있으며 혁명적인 기상이 나래치고 있다.

【시 문학】 시 창작 분야에서는 시인들이 취급한 시'적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기적들과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서정시, 정론시들이 수 많이 창작되였다.

정 문향의 《그대 말 없이 서 있어도》, 백 인준의 《큰 손》, 김 순석의 《벽동의 계섭장에서》, 안 룡만의 《락원 산수도》, 함 영기의 《몽금의 포구에》 등은 서정적 주인공의 심오한 개성화와 랑만적인 색채의 구현, 운률과 시 형식에서의 새로운 탐구 등으로 시 문학의 독창적인 세계를 개발한 성과작들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노래한 서정시로서는 박 세영의 《심장에 불을 달매》, 리 맥의 《무지개》, 최 영화의 《젖줄기》, 백 하의 《그는 청춘 도시를 걸어 간다》, 허 우연의 《조국》, 정 화수의 《해산 없는 대회장》, 오 영환의 《쾌청한 날》 등이 성과작들이며 로동을 주제로 한 윤 석범의 《시인》, 신 진순의 《교대를 바꾸세나》, 김 죽성의 《벗들에게 보내는 노래》, 전 천례의 《방직공 처녀에게》, 장 건식의 《겨울 밤》 등이 성과작들이였다.

또한 계급 교양을 주제로 한 김 광섭의 《땅》, 인민 군대와 조국 보위를 주제로한 시로서 려계심의 《영원히 전선 처녀의 마음으로》, 신 운호의 《포화》, 조 성관의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김 응하의 《먼 곳에서》 등이 성과작들이였다.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며 조국 통일의 념원을 주제로한 정론시로서 김 순석의 《낫을 갈아라》, 박 산운의 《그 놈이 그 놈들》, 백 하의 《앞에는 미해방 지구》등과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주제에 바쳐진 정론시들로서는 허 남기의 《〈우리〉속에서 읊은 노래》, 전 동우의 《불타는 베네주엘라의 하늘에》, 김 시권의 《내 총창은 온 세상의 혁명을》, 오 영재의 《선언》 등이 성과작이였다.

이 해에 시인들은 가사 창작에서도 자기들의 창작적 력량을 기울였는 바 그중 박 세영의 《숲속의 진달래》, 김 조규의 《금수 강산》, 김 병두의 《청봉의 달밤》 등은 성과작들이 였다.

서사시 창작에서도 천리마 시대 로동 계급의 영웅적 전형을 높은 사상 예술성으로 형상화한 원 진관의 《호르라 나의 강아》와 같은 성과작은 우리의 시 문학을 장식하였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기의 불타는 정열로서 로동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자연을 개조해 나아가는 독로강 발전소 건설자들의 불요 불굴성과 생활에 대한 락천성, 열렬한 동지애 등 우리 시대 로동 계급의 사상을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천명하였다.

【극 문학】 극 문학 분야에서는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천리마 기수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한 박 령보의 《아침 노을》, 사회주의 건설에 나선 가정 부인들의 자력 갱생 정신을 형상한 리 동춘, 리 완호 합작의 《새 살림》, 력사적 주제에 바쳐진 리 동춘의 《서 희 장군》 등 장막 희곡들과 로동 계급의 장성 력사를 서사시적으로 형상화한 한 성의 씨나리오 《정방공》, 인민 교원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준 리 종순의 《그날을 잊지 말자》, 해방 전후 농촌에서의 계급 투쟁을 반영한 주 동인의 《대지의 아들》 (1, 2부), 천리마 기수들의 뜨거운 동지애를 그린 김 승구의 《뜨거운 심정》 등 우수한 씨나리오들이 창작되였다.

【아동 문학】 아동 문학에서는 천리마 시대 학생들의 소년단 생활을 통하여 학생 소년들의 공산주의 교양을 주제로 한 강 효순의 중편 소설 《분단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소년들의 영용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강 룡익의 단편 소설 《자동차는 전선으로 달린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휘황한 정경을 노래한 김 북원의 서정 서사시 《2백집 새집들이》, 1930 년대 유격 근거지 인민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을 노래한 송 봉렬의 서정 서사시 《감자 꽃》, 천리마 시대 아동들의 생활 감정을 노래한 작품으로서 김 정태의 동요 《한 동네가 사는 집》, 윤 복진의 동요 《약수터에서》, 류 연옥의 동시 《길》과 계급 교양을 주제로 한 정 서촌의 동시 《발 자국》 등 많은 성과작들이 창작되였다. 특히 이 해에 아동 문학 분야에서는 만화 영화 씨나리오 창작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고전 문학】 이 해에 고전 문학 분야에서는 17—19세기 우리 나라 대표적 시인들의 작품을 수록한 《력대 시 선집》 (김 상훈 역), 16 세기의 대표적 산문 작가의 한 사람인 백호 림제와 석주 권필의 소설, 시, 정론들을 수록한 《림제, 권필 작품선》 (리 철화 역), 15세기의 탁월한 사실주의 작가 김 시습의 대표적 소

설 작품인 《금오 신화》를 비롯하여 그의 시, 정론들을 수록한 《김 시습 작품선》(류 수 역), 김 천택의 가집 《청구 영언》을 비롯하여 18—19세기 우리 나라 작가들의 우수한 시조들을 집대성한 《시조 선집》(김 하명 편주), 15—19세기 우리 나라의 평민 출신 작가들의 우수한 풍요들과 력대 악부 시가들을 수록한 《풍요 선집》(리 용악, 김 상훈 역) 등 고전 문학 선집이 계속 번역 출판되였다. 단행본으로서는 임진 조국 전쟁과 19세기 의병 투쟁 시기의 우리 나라 의병장들의 애국적인 격문들을 수록한 《력대 격문선》(김 일성 종합 대학 한문 강좌 번역),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풍악행》을 비롯하여 그의 우수한 시편들을 수록한 《리 률곡 시선》(김 창순 역) 등이 번역 출판되였다.

【외국 문학】 외국 문학 부문에서는 세계 문학 선집으로서 고대 희랍의 시인 호머의 장편 서사시 《일리아드》(림 학수 역), 미기엘 드 세르반테스의 장편 소설 《동키호테》(박 시환 역), 《쉑스피어 희곡선》(박 시환, 김 종욱, 김 해균, 백 락민 역), 《바이론 시선》(김 동욱, 림 학수 역), 《하이네 시선》(조 맹연 외 집체 역), 빅또르 유고의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2), 레브 똘스또이의 장편 소설 《부활》(박 우천, 표 병준 역), 막심 고리끼의 대표적 단편 소설들을 수록한 《고리끼 작품선》(1)이 계속 번역 출판되였다. 단행본으로서는 62편의 시편을 묶은 《괴테 시선》(홍 석근 역), 《스탕달 작품선》(황 경희 역),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콜롬바》(리 계수 역), 프리드리히 쉴러의 희곡 《군도》(공 익현 역), 《라 퐁테느 우화집》(김 병규 역) 등이 번역 출판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의 우수한 단편 소설과 시를 비롯하여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작가들의 단편 소설 및 서정시 640여 편이 번역 출판되였다.

【평론】 1963년에 우리 문학 평론은 우리 당의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문학 분야에 관철시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동원되였으며 우리 문학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순결성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기치를 고수함에 있어서 더욱 전투적이였다.

이 해의 문학 평론은 우리 문학 예술의 당성, 계급성을 옹호하고 그 사상 예술적 질을 높이며 부르조아 문예 사상과 그를 전파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예리한 필봉을 돌리였다. 박 종식, 한 중모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 부르조아 문예 사조》, 김 하명의 《전 인류적인 것을 반대하여》를 비롯한 저서들과 수십 편의 론문들은 각종 부르조아 문예 사조들과 그를 전파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의 반동적 본질을 리론적으로 폭로하고 우리 문학 예술의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고수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문학 평론 부문에서는 우리 문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된 형상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박 종식의 《소설 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한 방 연승의 《현대적 미감의 견지에서》, 강 능수의 《현대성의 높이에서》 등 형상성 제고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명한 적지 않은 평론들이 발표되였다.

이 해에 평론에서는 작품의 형상성 제고를 위해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 서사시와 서정시, 극문학 등 모든 쟌르에 걸쳐 창작 기교 문제를 제기하고 론의하였으며 특히 극 문학에서의 갈등 문제와 관련한 적지 않은 미학 리론적 문제들을 해명 하였다. 고전 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 정옥, 한 룡옥, 엄 호석 등의 집체적 창작인 《조선 문학에 있어서의 사조 및 방법 연구》, 평론가들의 집체적 연구 론문으로 된 《우리 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현 종호의 《조선 시가에서의 종류와 작시법에 대한 사'적 고찰》 등이 출판되여 우리 나라 고전 문학의 유산을 맑스-레닌주의의 미학적 원칙으로 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음 악

1963년도에 음악 예술 분야에서는 음악 창작에서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며 음악의 전투성과 형상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혁명적 가요 창작에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작곡가들은 근로자들의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조국 해방 전쟁, 조국 보위의 주제 등 다양한 쟌르의 음악 작품들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작들을 창작하였다.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오라또리오 《수령을 따라 공산주의에로》(윤 복기 곡), 가야금 병창 《귀틀집 실물레》(박 왈빈 곡)와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원쑤들에 대한 증오를 노래한 《교향곡 제 3번》(문 경옥 곡), 저음 독창곡 《신천의 영웅들에게》(김 덕모 곡) 그리고 조국 보위의 기백을 노래한 가요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박 송준 곡) 등 전투성과 서정성이 높은 음악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조국과 천리마 시대의 행복한 생활을 구가한 독창곡 《사회주의 락원일세》(리 정언 곡), 가야금 병창 《농촌 처녀》(리 근염 곡), 가요 《강선은 천리마의 고향》(인민 예술가 김 옥성 곡), 중창 《기쁨에 넘친 내 나라》(허 은석 곡), 민요 《갈매기》(윤 영환곡), 합창 《조국 찬

가》(리 정언, 모 영일 곡), 병창 《살기 좋은 내 고향》(설 명순 곡), 거문고 독주곡 《출강》(김 용실 곡) 등 성과작들이 창조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혁명적인 가요 창작에서도 《반제 투쟁가》(김 원균 곡), 《미국 흑인 해방 투쟁가》(궁 경일 곡), 《항쟁의 기'발 날린다》(김 재선 곡), 《신천을 잊지말자》(리 조영 곡) 등 성과작들이 창작되여 근로자들 속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아동 음악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피아노 소품집》이 출판되였으며 동요 《붉은 넥타이》(류 광준 곡), 아동 병창 《황금'벌의 제비》(윤 명환 곡), 동요 《아름다운 만경대》(박 용필 곡), 관현악 《학교 가는 길》(박 용필 곡), 동요 《무얼 만드느냐?》(김 관일 곡) 등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여 학생 소년들의 정서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1963년에 음악 무용 부문에서는 특히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가극 축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전국의 각 가무 극장들과 인민군 산하 협주단들에서 14 편의 가극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강원도 가무단이 창조한 《금강산 팔선녀》(박 세영 대본, 인민상 계관인 인민 예술가 리 면상 작곡), 인민군 제1 협주단이 창조한 인민상 계관 작품인 동명의 연극을 가극화한 《해바라기》(최 향일, 김 경수 작곡), 량강도 가무단이 창조한 《피여난 꽃송이》(박 수일, 김 경옥 작곡) 등이 성과작이였다.

이 해에 음악 부문에서는 또한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대회에 수 많은 연주가들이 참가하여 우수한 기교들을 과시하였으며 연주 기량을 일층 높이였다.

1963년에 많은 작곡가들은 영화 음악 창작에 힘을 기울인 결과 예술 영화 《정방공》(공훈 예술가 김 길학 작곡)을 비롯하여 아동 영화 《꼬마 기상대》(공훈 예술가 김 린욱 작곡) 등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영화 음악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무 용

1963년에 무용 예술 분야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성격의 긍정적인 혁명적 특질들을 무용 작품에 구현하며 민족 무용의 표현 수단들과 수'법들을 현대인의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 해에 수 많이 창조된 무용 소품들 중에서 독무 《옥패》(김 인해 안무)는 옛날 우리의 녀성들이 밤을 지새워가며 손수 옥패를 만들어 곱게 몸 단장하고 즐기던 아름다운 생활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집약되고 간결한 민족적인 무용 동작과 섬세한 률동 속에서 조선 인민의 문학적이며 근면하고 락천적인 성격적 기질을 생동하게 구현하였다.

4인무 《떼'목은 내린다》(한 성숙 안무, 자강도 가무 극장 출연)는 떼'목을 타고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장강을 흘러 내리며 바위와 사나운 물'결 등 장애를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자기들의 선물을 사회주의 건설장에 바치는 류벌공들의 보람찬 로동의 기쁨과 락천적인 생활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무용의 창조적 성과는 로동 계급—류벌공들의 성격이라고 하여 률동과 동작을 고식적으로 격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우아한 정서적인 률동을 통하여 그들의 정열적인 기백과 락천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강도 지방의 민족적 풍격에 상응한 독특한 춤가락과 동작들을 탐구하여 예술적으로 세련시킨 것이다.

평북도 가무 극장이 창조한 계급 교양 주제의 무용극 《회상》(김 동근, 홍 덕택 안무 연출)은 창성 땅의 산'골에서 머슴'군의 딸로 태여난 주인공이 일제와 지주의 모진 학대와 굴욕 속에서 살아 온 잊을 수 없는 지난 날의 쓰라린 생활을 회상하면서 해방 후 당과 수령의 은혜로운 배려 밑에 토지의 주인으로, 그리고 오늘은 협동 농장의 어엿한 주인으로 성장 발전하여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된 생활 로정을 과거와 오늘의 대비 속에서 형상화한 성과작이다.

1963년에 무용 부문에서는 또한 수 많은 무용가들이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독무 기량을 일층 제고하였는 바 특히 독무 《옥패》를 출연한 공훈 배우 최 정순, 《북춤》을 출연한 공훈 배우 홍 정화, 《까국새와 처녀》를 출연한 김 숙자 등이 우수한 기교를 과시하여 입상하였다.

영 화

1963년도는 영화 예술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일대 비약의 해였다. 이 해에 조선 예술 영화 촬영소에서만도 20 편의 장편 예술 영화를 제작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량적으로 가장 많이 생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 예술적으로도 우수한 작품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 해에 달성한 영화 예술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현대성의 구현에서, 특히는 현실적 주제의 창작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한 것이다.

영화 예술은 로동 계급의 우수한 전형들을 빛나게 창조하였으며 기념비적 대작들을 창작하였다.

예술 영화 《정방공》(씨나리오 한 성, 연출 공훈 배우 오 병초, 촬영 김 련학, 작곡 공훈 예술가 김 기라, 주역 공훈 배우 최 부

실)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천리마 시대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로동 계급의 전형을 창조하는 데서 높은 사상성과 현대성을 구현하여 영화 예술의 발전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인민상 계관 작품 《정방공》은 과거에 가난했던 탓으로 단돈 15원에 팔려 자본의 노예로 되지 않으면 안 되였던 처지로부터 해방 후 당의 품 속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며 자기의 보람찬 로동을 통하여 마침내 로력 영웅으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까지 성장 발전한 주인공 옥림의 운명과 생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영화의 특출한 성과는 주인공 옥림의 형상을 통하여 오늘의 위대한 현실을 낳은 사회 력사적 요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강력한 추동력이 무엇인가를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한 데 있으며 예술 영화 창조에서 대비적 수'법과 형상적 표현의 가능성을 새롭게 탐구하고 개척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영화 예술의 가일층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예술 영화 《붉은 꽃》(씨나리오 리 종순, 연출 천 상인)을 비롯하여 해방 전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계급 투쟁을 반영한 서사시적 대작인 《대지의 아들》 (1, 2부), (씨나리오 주 동인, 연출 신 태욱)과 《땅을 지키는 사람들》(씨나리오 한 복규, 연출 전 동민), 천리마 기수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형상화한 예술 영화 《백일홍》 (원작 및 씨나리오 권 정웅, 연출 최 익규), 《새 세대》 (원작 김 병훈, 씨나리오 및 연출 최 익규), 《뜨거운 심정》 (씨나리오 김 승구, 연출 민 정식), 한 인테리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 통일의 념원을 형상화한 예술 영화 《조국으로 돌아오다》 (씨나리오 및 연출 오 병초),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의 위훈을 현대성의 립장에서 형상한 《1,211 고지 방위자들》(집체 씨나리오, 연출 리 기성), 어린 시절에 자기 성명마저 빼앗기고 지주의 종살이로 갖은 천대와 압박 속에서 시달리던 한 녀성의 해방 전후의 운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천명한 예술 영화 《다시 찾은 이름》 (씨나리오 라 중홍, 연출 공훈 배우 전 운봉, 윤 효탁)등 실로 우수한 예술 영화들이 많이 창조되였다.

1963년에 기록 영화 부문에서도 커다란 창작적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위대한 생활력, 우리 인민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충천하는 로력 투쟁, 더욱 행복한 래일에로의 혁명적 지향 등 우리 사회 현실의 특질들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이 수 많이 창조되였다.

특히 《김 일성 수상의 량강도 현지 지도》 (구성 및 촬영 리 명제)와 《열두 삼천리'벌》 (씨나리오 전 자언, 연출 리 영준, 촬영 엄 정철), 《오늘의 대안》(씨나리오 전 자언, 연출 김 행민, 오 준서, 촬영 리 근배, 원 한식), 《황금산》(씨나리오 김 문규, 연출 리 춘섭, 촬영 엄 정철), 《위대한 승리》(구성 및 연출 김 영상, 촬영 최 순홍) 등 기록 영화들은 정론성과 선동성이 예술적으로 높이 구현된 우수한 작품들이다.

이 해에 과학 영화 부문에서도 《검은 금》 (씨나리오 및 연출 김 삼룡, 촬영 원 정남), 《뜨락또르 다각적 리용》 (씨나리오 박 천명, 연출 김 종철, 리 명진), 《게사니》(현상 응모 작품, 연출 김 종복, 촬영 최 명우), 《보물 땅》(씨나리오 및 연출 렴 병태, 촬영 최 운조, 렴 병태) 등 과학 지식 보급 영화들이 제작되여 근로자들의 기술 혁신 운동에 이바지하였다.

연 극

1963년도에 연극 창조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특히 공화국 창건 1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연극 축전 무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축전에 참가한 13 개 단체의 13 개 작품들은 우리 시대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을 비롯하여 토지 개혁 당시 농촌에서의 계급 투쟁,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 군대와 후방 인민들의 영웅주의, 제국주의 침략자, 지주, 자본가 등 계급적 원쑤들의 죄악상 폭로, 수정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등 그 주제의 다양성과 전투성으로 하여 특징적이였다.

특히 함흥 연극 극장이 창조한 장막극 《아침 노을》 (희곡 박 명보, 연출 서 기봉, 리 창규, 위정림)은 가장 우수한 성과작이였다.

연극 《아침 노을》은 청산리 정신이 나래치는 우리 나라 농촌 생활의 화폭을 생동하게 그렸으며 우리 당의 품 속에서 자란 젊은 새 세대의 전형 즉 로동을 사랑하고 동지와 집단을 사랑하며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얼어 붙은 강물에 뛰여 들어 일곱 명의 어린 꽃봉오리들을 건져내는 높은 공산주의적 품성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이 작품의 거대한 창조적 성과는 주인공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생활의 화폭을 단순하고도 선명한 슈제트 선을 따라 재치 있게 극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현대적 드라마에서의 갈등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한 데 있다. 연극의 창조자들은 극적 갈등을 인위적으로 《첨예화》함이 없이 정확히 설정하고 생활의 론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시대의 낡은 잔재가 무엇이며 그것이 긍정에 의하여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미

학적으로 정확하게 천명하였다.

신의주 연극단이 창조한 장막극 《새 살림》 (희곡 리 동춘, 리 완호, 연출 리 양권)은 사회주의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로력 전선에 나선 살간 지방 가정 부인들의 인간 관계와 그들의 내면적 심리 세계를 다각적으로 밝히면서 지방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과 자력 갱생의 위대한 생활력을 구가하고 있다. 이 연극은 경쾌하고 명랑한 극의 흐름 속에 극적 정황과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부단히 심화하면서 우리 시대의 약동적인 기백과 생신한 시대 감각을 서정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그 창조적 성과를 과시하였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진행된 심각하고 준엄한 계급 투쟁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장편 소설을 각색한 연극 《대하는 흐른다》 (원작 천 세봉, 각색 김 갑석, 최 형구, 평양 연극 영화 대학 창조)는 원작이 포괄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화폭들을 제한된 무대적 조건 속에 집약적으로 선명하게 형상하였으며 주요 주인공들의 성격 발전을 기본 슈제트 속에 전일적으로 훌륭히 재현하였다. 그리하여 연극은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간들의 군상을 각양한 개성을 통하여 생동하게 부각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계급 교양에 훌륭한 교재를 제공하였다.

거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고려 인민들과 그 선두에 선 명장의 애국주의를 형상한 력사적 주제의 연극 《서 희 장군》(희곡 리 동춘, 집체 연출, 사회 안전성 연극단 창조)은 반수정주의 투쟁을 밀접히 련결시킨 높은 사상성을 가진 작품으로서 력사물 창작과 현대성 구현 문제를 해결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해에 연극 예술 분야에서는 또한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전국 방송극 축전을 계기로 방송극 창작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방송극 축전에 참가한 21개 작품들 중에서 1등에 입상한 《그들이 가는 길》 (국립 연극 극장 출연), 2등에 입상한 《기다리던 사람》 (사회 안전성 연극단 출연), 3등에 입상한 《알뜰한 살림'꾼》 (청진 연극 극장 출연)과 《늪에 빠져 죽은 여우》 (국립 인형 극장 출연), 그리고 작품상을 받은 《노한 파도》(김 기진작) 등이 특히 성과작들이였다.

또한 국립 연극 극장에서 창조한 중국 번역극 《베온등 밑의 초병》은 반제, 계급 투쟁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반수정주의 투쟁 정신 등으로 관통되여 있는 원작의 심오한 사상성을 진실하게 구현하였으며 이 연극 창조 및 공연 과정을 통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친선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켰다.

미 술

1963년도에 미술 분야에서는 창작에서 당성과 계급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대의 본질을 천명하는데 창작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해에 미술 창작에서는 주제와 쟌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였으며 작품의 전투성 제고와 민족적 특성, 그리고 현대성의 구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3년도에 조형 예술 창작에서는 각 쟌르에 걸쳐 4,840여 점이 창작되였다.

특히 조형 예술에서의 창작적 성과는 제 7 차 국가 미술 전람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바 771 점의 우수한 작품 (그중 조선화 42점, 유화 91점, 조각 29점, 출판화 92점, 무대 및 영화 미술 22점, 공예 및 산업 미술 259점) 들이 전시되였다.

1963년에 조선화 부문에서는 천리마 시대의 보람찬 현실을 적극 반영하면서 종전의 수묵 담채화에 국한되였던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 미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적지 않은 전진이 있었다. 특히 자연과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치여 주제의 범위가 확대되였으며 혁명 전통과 전투화, 그리고 중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억센 투쟁 모습을 취급한 작품들을 비롯한 현실적 주제의 창작이 왕성해졌다.

김 두일의 《차장》, 최 병철의 《창성의 아침》, 한 명렬의 《첫 솜씨》등은 천리마 기수들의 슬기로운 성격을 형상화한 성과작들이며 김 금석의 《철광산의 아침》, 최 동선의 《화력 발전소 건설장》 등은 사회주의 건설 모습을 성공적으로 반영한 작품들이였다. 특히 정 현웅, 손 영기 합작으로된 안악 고분 벽화의 전면적인 묘사는 그 묘사 기량이 비상이 높은 기념비적 작품으로서 중앙 미술 박물관에 전시되여 인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화 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천리마 시대의 현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민족적 화풍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가 있었다.

림 렬, 송 찬영, 류 재경 합작인 《농민들 속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수상 동지의 교시를 직접 들으면서 전쟁 승리와 나라의 휘황한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농민들의 군상을 대화폭 속에 감동적으로 묘사하였으며 항일 빨찌산 녀대원들을 형상한 강 춘영의 《재봉대원》을 비롯하여 박 동진, 최 윤수 합작인 《리 찬화 영웅》, 정 온녀의 《새 결의》, 장 명룡의 《정오》 등은 우리 시대의 감동적인 사건들을 반영하면서 민족적 특성의 구현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 성과작들이다.

조각 부문에서는 평양 학생 소년 궁전에 건립된 유 진명, 김 종렬, 김 덕영, 김 홍재, 강 정치 합작 《수상 동지와 어린이》, 홍남 지구에 건립된 조 규봉, 전 종각, 리 동춘, 조 광호, 리 적림, 김 도환 합작 《김 일성 동지의 전신 립상》, 보천보 혁명 박

물관에 진렬된 지 청룡 작 《1930 년대의 김 일성 동지》 등은 수령의 형상에서 사상 예술성을 비상히 높인 성과작들이다. 또한 제 7차 국가 미술 전람회에 전시된 신인 김 재현의 《종살이》와 리 용택의 《고귀한 은정》 등은 우수한 작품들이였다.

출판화 부문에서는 종전에 비하여 판화, 만화, 아동 미술, 수채화 등이 급격히 발전하였는바 안 창수의 만화 《당황 실색한 미제》, 정 호석의 판화 《석개울의 새 봄》, 조 명식의 만화 《오래 살 수 있을가》, 리 석산의 판화 《전호 속에서》, 최 동수의 판화 《당을 따라 천리'길》, 리 찬우의 아동화 《미국놈 나가라》, 박 태전의 포스타 《우리 농촌을 사회주의 농촌으로》, 정 영식의 수채화 《저녁 노을》, 맹 동원의 포스타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등이 성과작이였다.

무대 및 영화 미술에서는 전반적으로 회화적 묘사 기량과 특히 구도 색채의 자유로운 구사에서 일정한 발전이 있었는바 그 중 영화 미술 《공청원의 심장》 (송 경진 작), 무대 미술 《유격대의 아들》 (박 청길 작), 영화 미술 《행복의 피리》 (김 찬규, 김 준옥, 임 영숙 합작), 무대 미술 《아침 노을》, (김 태범 작), 《해바라기》 (리 동진 작), 《재 살림》 (김 세철 작) 등은 무대 및 영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예 및 산업 미술에서는 그 쟌르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들의 실 생활에 적응하려는 시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상품 도안과 형태 도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리 철호의 《화골각》, 장 만희의 《달력 표지》, 김 보현의 《진사 유화병》, 임 능태의 상품 도안 《추리술》, 리 현수의 《응접상》, 오 분섭의 《산수 교재》 등은 그 실용성과 예술성이 잘 배합된 성과작들이였다.

1963년도의 미술 분야에서 특기할 현상은 신인 미술가들의 진출이 증가된 사실이다.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경축하여 진행된 전국 미술 써클 전람회에는 총 5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였는바 그 중 91점의 작품이 특등과 1, 2, 3 등 및 가작에 당선되였으며 특히 제 7 차 국가 미술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입선한 신인들이 120 명에 달하였고 그중 9 명이 상을 받았다.

군중 문화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 1963 년 말 현재 공화국 각지에서 1962년 보다 203 개가 더 많은 826 개의 구락부와 2,028 개가 더 많은 2만 9,863 개의 민주 선전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였다.

그 중 작업반 민주 선전실은 2만 3,516 개이다.

각 민주 선전실들에서는 도합 268만 6,722 권의 도서와 9만 2,100 개의 악기, 1만 3,681 개의 라지오를 비롯한 각종 문화 오락 기재들을 갖추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과 그들의 문화 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였다.

【도서관】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 중앙 도서관과 12 개의 도 (직할시) 립 도서관, 178 개의 시, 군 (구역) 도서관, 37 개의 아동 도서관 등 총 228 개의 군중 도서관이 운영되였으며 그 장서 수는 1962년의 588만 4천 부로부터 637만 1천 부(아동 도서관의 도서는 제외)로 48만 7천 부가 불었다. 이 밖에 500 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공장 도서관 (도서실)이 설치되여 있다.

1963년에 2백 만 권의 도서를 소장할 수 있는 연 건평 1만 7천 평방메터의 7층 건물에 2천 석의 좌석을 갖춘 웅장한 국립 중앙 도서관이 평양에 새로 건설되였다.

국립 중앙 도서관에는 문헌 열람실, 사회 과학 및 문학 예술 열람실, 기술 과학 열람실, 일반 열람실, 민족 고전 열람실, 학생 열람실, 특수 열람실, 등 10여 개의 부문별 열람실이 있으며 무대 및 영사 시설을 갖춘 500 석의 군중 공작실을 비롯한 봉사 시설들도 갖추어져 있다.

국립 중앙 도서관은 지난 전쟁 시기 방대한 량의 도서를 소실당하였으나 그간 보충 정비되여 1963년 말 현재 창립 초기의 34 배에 달하는 132만 9천 부의 장서를 가지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세계 43 개국의 80여 개 도서관들과 련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도서를 교환하고 있으며 매년 약 4천 종의 외국 신문, 잡지들을 받고 있다.

문헌 열람실에만 하여도 약 20 여 만 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창의 고안 관계 자료들이 소장되여 있으며 우리의 귀중한 민족 고전 10 여 만 부가 있다. 그 중에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출판 력사를 말하여 주는 고려 중엽의 목판본으로 된 《동의 지문》, 세계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활자본(리조 초기) 《한노 개록 권》 등 《국제 도서 예술 전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책들이 들어 있다.

각급 도서관들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 대출》, 《기관 대출》, 《현장 순회 대출》 등 여러 가지 창발적인 도서 대여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

1963년 말에 조직된 전국 도서관 일'군 학술 토론회는 도서관 사업을 개선 발전시킴에 있어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또한 전국 아동 도서관 일'군들을 위한 강습과 각 대학 도서관, 도 (직할시) 립 도서관, 시, 군 (구역) 도서관 일'군들을 위한 강습을 통하여 도서관 일'군들의 자질과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박물관】 1963년에 우리 나라에는 22개의 박물관이 있었다. 중앙 박물관으로서 조선 혁명 박물관,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 국립 중앙 민속 박물관, 신천 박물관, 묘수 박물관으로서 보천보 박물관과 묘향산 박물관이 있으며 평남도를 제외한 도 소재지 마다에 력사 박물관이 있다. 이 밖에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중강진 기념관, 고산진 기념관 등이 있다.

1963년에 전국 박물관들이 각지에서 수집한 유물은 1만 2천여 점에 달하였다. 1963년에 일본에 있는 조선 상공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재일 동포들로 조직된 재일본 조선인 귀국 100 차선 축하 실행 위원회와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조국 남북 선수단 환영 위원회는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 간 귀중한 문화재—310점의 고전들과 근 200 점의 가치 있는 유물 (병풍, 장식물, 보석 조각품, 보석불, 분채통, 활통, 장도, 패류 등)을 공화국 정부에 보내여 왔다.

이 해에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은 구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유물들을 보충 전시하고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은 안악 3호 고분의 벽화 모사품들을 새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각 박물관들에서는 진렬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전시 내용들을 개선하였다. 또한 혁명 투사들과의 상봉 모임, 이동 전람회, 력사 과학 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조직하였다.

보천보 박물관 (연 건평 2,800 여 평방 메터) 혁명 전적지인 가림천 기슭에 자리를 잡고 1963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 승리 26 주년을 계기로 하여 개관되였다. 여기에는 김 일성 동지의 혁명 활동 초기로부터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 특히 보천보 전투, 무산 지구 전투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혁명 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여 있다.

조선 혁명 박물관 조선 로동당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되였다.

현대적 설비를 갖춘 박물관은 1963년 말 현재 근 2만 점의 귀중한 문헌 및 유물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며 약 1,500 점의 전시품들을 진렬하였다.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19 세기 후반기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오랜 력사적 기간에 외래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특히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불멸의 력사적 업적들에 관한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관람자들은 여기에서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 인민 정권과 인민 무력 창설의 풍부한 경험들을 학습하고 있으며 온갖 간난 신고와 중첩되는 시련을 뚫고 일제와 싸워 이긴 항일 유격 투사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과 인민적 사업 작풍 및 방법들을 배우고 있다.

박물관은 김 일성 동지께서 탄생하고 성장하신 만경대와 칠골에 분관을 두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1953년 8월 16일에 창립된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은 영웅관, 작전관, 당정책 사업관, 중국 인민 지원군관, 포병관, 해군관, 미제 만행관 등 8 개 관으로 구성되여 있다.

기념관은 지난 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 군대가 발휘한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불굴의 혁명 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를 반영한 수 많은 유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은 인민 대중과 인민군 군인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창립후 10년간에 400만여 명이 기념관을 참관하였다.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된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은 구석기 시대로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의 수 많은 력사적 유물들을 원시 사회 (구석기, 청동기),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삼국 시기, 고려 시기, 리조 시기) 별로 진렬 전시하였다.

1963년에 박물관에서는 함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에서 발굴된 타제 석기들과 평양시 락랑구역 정백동에서 출토된 철제 시대의 유물들을 비롯한 수십 점의 유물들을 새로 더 전시하였다. 보충 전시된 유물 중에는 백과전서적 대학자인 다산 정 약용, 실학의 선구자인 지 봉 리 수광의 생애 및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과 우리 나라 고고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추사 김 정희의 새로 발굴된 필적들도 들어 있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수백 년간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15 세기 우리 나라 과학 문화 유산의 자랑인 《흠경각》을 원형대로 복구 제작해서 진렬장에 내놓았다.

박물관의 관람자 수는 년 평균 20만여 명이나 된다.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 (1954년 9월 28일 창립) 고구려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창조된 수 많은 회화 작품중 2천여 점을 체계 정연하게 전시하고 있다.

유구하고 찬란한 회화 전통을 보여 주는 전시품 가운데는 3세기 중엽 고구려 미천왕의 무덤 (종전까지 안악 3호 고분으로 일러 왔음) 벽화와 강서 고분 벽화며,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걸쳐 민족적인 풍경화를 창조한 사실주의 화가의 한 사람인 정 선, 18세기 우리 나라 회화의 최고봉을 이룩한 김 홍도, 19세기 후

반기의 탁월한 사실주의 화가 장승업을 비롯한 100여 명의 이름있는 옛 화가들의 작품들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전람회에는 해방후에 창작된 작품 가운데서 고른 500여 점의 우수한 조선화, 유화, 조각, 공예 작품 등이 전시되여 있다.

전람회에는 매일 평균 500여 명의 관람자들이 찾아 오고 있다.

국립 중앙 민속 박물관 우리 인민의 발달된 문화와 미풍 량속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할 사명을 지니고 1956년 2월에 창립되였다.

박물관에는 우리 인민이 창조한 생산 및 생활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생산 도구, 가장집물, 생활용품, 복식류, 문방구, 민간 예술품, 운동 기구 등 9,500여 조의 실물과 기록 및 문헌 자료들이 있다.

해마다 많은 유물들을 수집 정리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서는 1963년에 1천 여 점의 가구류, 음식 기구, 문방구, 화장용구, 장롱, 옷장, 해주 소반, 벼루'장들을 새로 수집하였다.

【혁명 전적지 정비】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의하여 1963년에 박 달 동지, 마 동희 동지, 리제순 동지가 살던 집들이 복구되였으며 집 근처에 동상들을 건립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량강도 운흥군 심포리에 있는 마 동희 동지의 집터에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 해에 량강도 후창군 포삼나무에 있는 기념비가 개축되였고 고산진 기념관 주변과 함북도 일대의 혁명 전적지들이 보수 정비 되였다. 답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군봉으로부터 백두산 천지에 이르는 구간에 900 메터 길이의 줄다리가 설치되였으며 리명수와 삼지연에 숙영소와 250 석의 좌석을 가진 식당들이 건설되였다.

1963년에 각 도 인민 위원회에 혁명 전적지 관리국이 새로 생기고 5 개의 지구 관리소(혜산, 보천, 리명수, 삼지연, 대홍단)가 설치되여 혁명 전적지 연구 사업과 정비 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맡아 보게 되였다.

【문화 유물 보존 사업】 1963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문화성 산하 해당 기관 일'군들과 사회 과학자들, 내무성, 도시 경영성,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중앙 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전문 일'군들이 도별로 조직된 전문 위원회와 시, 군 또는 지역 단위로 조직된 답사단 성원들과의 련계 밑에 해당 지방의 혁명 사적지, 문화 유물, 명승지, 천연 기념물들을 재 답사하고 고전물, 석조물, 유적 등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재정비된 건수는 5,721건 3만 1천 여 점에 달하였다.

황북도 정방산에 있는 고려 전물인 성불사, 강원도 안변군에 있는 가학루, 평북도 묘향산에 있는 백 운암, 함북도 칠보산에 있는 개심사를 비롯한 고전물들과 성지, 문화 유물들이 훌륭히 보수 정비되였으며 묘향산의 수충사와 화장암, 함흥의 본궁, 함북 경성군의 경성 남문, 금강산의 표훈사를 비롯한 고전물들이 아름답게 단청되였다.

발굴 1947년부터 답사 사업이 시작된 함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에서는 신석기 시대 문화층 밑에 있는 사질 양토층 (75센치메터의 두께)과 붉은 색갈의 진흙층(두께 1메터)의 경계 부근에서 타제 석기 3 점, 붉은 색갈의 진흙 층에서는 차돌 석기 한 점, 청록색 돌 한 쪽 모서리에 날을 세워 쓴 흔적이 있는 석기 한 점이 발굴되였다.

석영석과 혈암석으로 만든 이 석기들은 만여 년 전 구석기 시대 후기의 것으로 인정된다. 발굴자들은 구라파 구석기 시대의 것과 다른 독특한 형태를 가진 이 유물군을 《굴포 문화》라고 이름 지었다.

《굴포 문화》를 발견함으로써 조선에는 구석기 시대의 주민이 없었고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력사의 시초를 이루었다는 일제 어용학자들의 견해를 종국적으로 반박하였다.

평안남도 중화군 소재리에서 강남군으로 가는 도로 기슭에서는 길이 9 메터, 너비 12 메터의 구형으로 된 원시 시대의 주거지가 발견되였다. 여기에서 돌도끼, 토기편, 돌망을 비롯한 원시인들의 생활 도구들이 출토되였다.

평양 룡성 구역 북쪽 림원 저수지 근방에서 고려 초기의 5층 석탑 (외형은 4 각, 높이 2.23메터, 너비 1 메터, 석재는 화강석)이 발견되였다.

평양시 락랑 구역의 대동강안 토성에서 약 1 키로메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좁은 놋 단검, 철제 창, 권총형 및 버섯형 수레 장식품, 말 관자, 마구 장식품 등 고조선 시기의 유물들이 나왔다.

【전람관】 공업 및 농업 전람관 (1956년 9월 27일 창설)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진행하여 온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의 빛나는 창조력을 과시하는 1만 2천 여 점의 각종 전시품이 진렬되여 있다.

제1관 (중공업 부문), 제 2 관 (농업 부문), 제3관 (경공업 부문)의 3 개 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람관은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으면서 만능 유개 화차, 100마력 공기 압축기, 75마력 대형 무한 궤도식 뜨락또르, 자동 모사 후라이스반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공업, 농업, 경공업 제품들과 수산 부문, 교육, 문화, 보건 분야의 실물, 모형, 사진들이 새로 보충 정비되였다.

1963년에 이 전람관의 관람자수는 전년에 비하여 106%로 늘었다.

이 밖에 평북, 황남, 함북, 자강, 량강도들에도 상설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이 있다.

량강도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은 8.15 해방 18주년을 계기로 개관되였다.

어머니 전람관 (1961년 11월 1일 창설) 제1관 (종합 자료 및 탁아소 시기까지의 어린이 양육), 제2관(유치원 시기로부터 초중 시기까지의 어린이 교양), 제3관 (어머니 교양)으로 구성되여 있다.

1963년 말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과 아동 단원들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자녀들의 계급 교양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자료 418 점이 보충되여 모두 772 점의 사진, 그림, 모형 등이 전시되여 있다.

전람관에서는 동 및 구역별과 생산 단위 별로 되는 집단적인 관람 조직, 이동 강연, 어머니들과의 좌담회 등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자녀 교양에 방조를 주고 있다.

천리마 전람관 1963년 9월 14일에 개관된 천리마 전람관에는 우리 나라 천리마 운동의 전모를 보여 주는 1,480여 점의 각종 사진, 사관, 조각품, 경험 자료들이 진렬 전시되여 있다.

전람관은 서관, 공산주의 교양관, 기술 혁신관, 기술 관리 운영관, 종관으로 나뉘여져 있다.

서관은 천리마 운동이 발생하기까지의 빛나는 력사적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며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부문 별로 소개한 각종 도표 그림 등이 전시되여 있다.

공산주의 교양관은 공산주의 학교로서의 천리마 작업반, 기술 혁신관은 기술 혁신의 선구자이며 돌격대로서의 천리마 작업반 생활을, 기업 관리 운영관은 모두가 기업 관리의 주인으로 활동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전시품들로 꾸며져 있다.

【극장 및 영화관】 1963년에 31 개의 극장 및 영화관이 증설되여 이 해 말 현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21 개의 극장과 561 개의 영화관들이 운영되였다. 1962년에 비하여 극장 수는 110.5%로, 영화관 수는 105.6%로, 극장 및 영화관들의 좌석 수는 27만 555 석으로부터 27만 1,946 석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1963년도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문화 시설들이 건설되였다.

【학생 소년 궁전】 부지면적 11만 평방메터, 연 건평 4만 7,500 평방메터에 달하는 이 궁전은 우리 나라 학생 소년들의 과학, 문화, 예술의 전당이며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거점으로서 1963년 9월 30일 첫 학생절을 계기로 개관되였다.

평양 대극장의 거의 2 배나 되는 이 궁전은 12 층으로 된 탑식 건물(높이 44.8메터)과 5층으로 된 본관 건물, 7 층으로 된 극장 건물 (좌석 수 1,500 석), 높이 13.5 메터의 2 중 곡면 박막 구조로 된 반구형의 지붕을 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궁전 안에는 700~8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방들과 학교 교실과도 같은 방들을 포함하여 모두 414 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있으며 10만 권의 장서와 200 석의 열람실을 가진 도서관도 있다.

학생 소년 궁전의 교양부, 예술부, 체육부, 미술부, 과학 기술부, 동식물 연구부, 대중 사업부, 사업 방법 연구부 등 8 개의 부서들에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70여 개의 연구 소조들이 망라되여 있다.

【예술 써클】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학교들과 시, 군 소재지들에서는 170여 개의 야간 예술 학교가, 각 도에서는 동기 농촌 예술 써클 지도자 강습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3년에 1만 2천 여 명의 근로자들이 음악 기초 리론, 무용 리론, 연극 리론, 창작 실기 등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예술 써클 지도자들로 자라났다.

1963 년 말 현재 생산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된 각종 예술 써클 단체 수는 1962년 말의 9만 3,900여 개로부터 11만 2,210 개로 늘었다.

이에는 예술에 소질이 있고 생산에서 모범적인 203만 2천여 명의 써클원들이 망라되여 있다.

써클원들은 예술 창작에서 신비성과 소극성을 극복하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였다.

1963년에 있은 각종 예술 축전 무대에 오른 작품들과 각 부문에서 조직한 문예 작품 현상 모집 결과들이 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문화성에서 조직한 씨나리오 현상 모집에서만 하여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근로자들이 응모한 작품은 420여 편에 달하였다.

예술 축전

1963년에 진행된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예술 축전은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경축하는 전국 예술 축전, 전국 방송극 축전, 전국 영화 축전, 예술 써클 축전, 조선 인민군 제 12 차 군무자 예술 경연 대회,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대회들이다. 이러한 축전들은 우리 나라 민족 예술과 군중 예술의 비약적인 발전 면모를 과시하였다.

【전국 예술 축전】 1963년 8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4 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전국 예술 축전 무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약 30 개의 연극 및 음악 무용 단체들이 창조한 15 편의 장막 연극과 1 편의 인형극, 11 편의 가극, 1 편의 무용극 및 1편의 음악 무용 종합극이 상연되였다.

축전 작품의 대부분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우리 나라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과 해방 직후 농촌, 어촌, 광산들에서 치렬하게 진행된 계급 투쟁을 반영한 것들

이였다. 이 밖에 혁명 전통, 력사적 소재 및 군사적 주제의 작품들이 많이 상연되였다.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예술인들의 진지하고 탐구적인 노력에 의하여 축전 작품들은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고 우리의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적 기백과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 정서로 일관되여 있었다.

이것은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가극 《해바라기》, 로동당 시대의 근로자들의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 투쟁과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성을 구가한 연극 《아침 노을》, 《새 살림》, 가극 《바다의 붙사조》, 《피여난 꽃송이》, 조선 인민군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반영한 연극 《습격》, 해방 후 농촌의 계급 투쟁을 보여 준 연극 《대하는 흐른다》, 《개마 고원》, 계급 교양을 내용으로 한 인형극 《오누이》, 가극 《붉은 매》, 력사적 인물과 전설을 취급한 연극 《서 희장군》, 가극 《금강산 팔선녀》 등에서 높이 표현되였다.

축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 나라 지방 예술 단체들의 예술적 기량이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축전에 오른 가극 작품들은 우선 주제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였으며 더우기 이 모든 작품들은 계급 투쟁의 기백과 로동계급—천리마 기수들의 높은 정신적 미가 힘차게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징적이였다.

축전 무대에 오른 많은 가극들 중 《해바라기》와 《금강산 팔선녀》는 특히 우수한 작품들이였다.

금번 축전은 종전의 어느 축전보다도 규모가 크고 다채로왔다. 종전에는 음악, 무용 부문과 연극 부문이 따로 갈라져 진행되였다면 이번 축전에서는 이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였으며 극 작품들과 소품들로 엮어진 종합 공연들이 동시에 진행되였다.

◇ 전국 예술 축전의 성과작들

연극 부문

단체상: 1등—연극 《아침 노을》 함흥 연극단
1등—연극 《대하는 흐른다》 평양 연극 영화 대학
1등—인형극 《오누이》 인형 극장

가극 부문

단체상: 1등—가극 《금강산 팔선녀》 강원도 가무단
1등—가극 《해바라기》 조선 인민군 김 기섭 소속 군부대 붉은기 협주단

합창 부문

1등—조선 인민군 해군 협주단, 노래와 춤 《해병의 노래》 관현악과 합창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

1963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에는 전국 각지 공장, 기업소의 620여 개 작업반에 망라된 2,600여 명의 로동자 써클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 가운데는 평양 제사 공장 천리마 써클 집단과 기양 뜨락또르 공장의 천리마 기동 선동대, 고산 영예 군인 문화 용품 공장의 열두 쌍의 2중 천리마 부부들을 비롯하여 모두 1,042 명의 천리마 기수들과 로력 혁신자들이 들어 있다.

금번 축전에는 310 편의 연극 및 음악 무용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는데 그 중 230 편이 로동자 써클원들의 창작품으로서 그들의 창작적 기량의 눈부신 발전을 과시하였다. 상연된 작품을 주제별로 보면 천리마 기수들의 투쟁 모습을 반영한 것 136편, 계급 교양을 주제로 한 것 80편, 혁명 전통을 내용으로 한 것 50여 편이였다.

모든 작품들에는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으며, 당 정책 관철과 새 생활 창조에 일떠선 로동 계급의 끓어 넘치는 정열과 광명한 미래에 대한 랑만적 정서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었다.

축전은 군중 예술을 무한히 개화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의 성과작들

도 (시) 단체상

1 등 평남도 종합 예술 써클단
2 등 함흥시 종합 예술 써클단
3 등 개성시 종합 예술 써클단
3 등 평양시 종합 예술 써클단

부문별 성과작들

연극: 1등 《한 용해공의 범원》 황해 제철소

시극: 특등 《그날은 오리라》 평양 건설 기계 공장
1등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장풍 직물 공장

대화시: 1등 《우리는 뜨락또르 운전수라네》 웅진 농기계 작업소.

합창시: 1등 《승리의 노래 지심을 울린다》 학포 탄광

군무: 1등 《천리마 직포공》 신의주 방직 공장
1등 《전로공의 기쁨》 본궁 화학 공업 경영국
1등 《우리도 초병이다》 강선 제강소
1등 《꽃피는 고려 자기》 개성 도자기 공장

가무: 특등 《꽃비단》 박천 견직 공장
1등 《포구의 처녀들》 신의주 수산물 도매 사업소

가무 병창: 1등 《꽃피는 2중 천리마 부부》 고산 영예 군인 문화 용품 공장
1등 《군복을 누벼 가세》 개성 피복 공장

남성 중창: 1등 《우리 자랑 전하세》 외 1 곡, 본궁 화학 공업 경영국
1등 《십장의 나팔 소리》 외 1 곡, 기양 뜨락또르 공장

녀성 중창: 특등 《빨간 댕기》 외 1 곡, 평북도 종합 예술 써클단
1등 《오풍동 물레 방아》 외 1곡 평북도 종합 예술 써클단

민요 제창: 1등 《철철 넘치네》 법동

식료 공장

가야금 병창: 1등 《살기 좋은 내나라》 수안 광산

1등 《그물을 뜨세나》 외 1곡, 평양 제사 공장

1등 《락원으로 꽃피여 가네》 함남도 종합 예술 써클단

민족 기악 병창: 1등 《무쇠 철마 힘장수》 기양 뜨락또르 공장

입 피리 협주곡: 1등 《올 농사 대풍 이로세》 청진 화학 섬유 공장

현대 관현악: 1등 《남포항에 만선기 휘날린다》 남포 제련소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대회】 1963년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대회가 진행되였다. 례년의 경연에 비하여 금번 개인 경연은 지정 곡목들이 제시됨으로써 그 요구성이 더욱 높아진 반면에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7 개 단체들에서 15 명의 공훈 배우를 포함한 502 명의 예술인들과 예술 부문 대학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연 대회는 140여 명의 배우들을 망라한 전문가 부문과 360 여 명의 신인 및 학생들을 망라한 신인 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심사 결과 50 명의 우수한 예술인들이 영예의 1, 2, 3등 입상자로 선발되였다. 그중 28 명의 신인들이 입상되였는바 이는 금번 경연이 거둔 커다란 성과의 하나였다.

금번 경연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에 없었던 높은 예술적 수준과 새로운 경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연주 예술에서 민족적 스찔을 확립하고 이를 공고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훌륭한 전형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음악 무용 개인 경연 대회의 1등 입선자들

민족 성악 부문

1조: 김 정화(국립 민족 예술 극장 공훈 배우)

2조: 김 순희(신인, 평양 음악 대학 학생)

김 오희(국립 민족 예술 극장 배우)

민족 기악 부문

1조: 최 석복(아쟁, 평양 음악 대학 학생)

2조: 함 옥성(신인, 국립 무용 극장 단소 독주가)

현대 기악 부문

1조: 김 정순(국립 예술 극장 공훈 배우)

2조: 송 창정(신인, 조선 인민군 염 상기 소속 군부대 협주단 배우)

로 춘화(국립 교향악단 배우)

현대 기악 부문

1조: 민 병만(피아노, 평양 음악 대학 교원)

2조: 강 세혁(신인, 국립 교향 악단 첼로 연주가)

무용 부문

1조: 홍 정화(국립 무용 극장 공훈 배우)

2조: 김 숙자(신인, 국립 민족 예술 극장 배우)

【군무자 예술 써클 경연 대회】 1963년 8월 20일 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선 인민군 제 12 차 군무자 예술 써클 경연 대회에는 인민군 각 구부대들에서 선발된 예술 써클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출연자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차 및 제 6 차 전원 회의 결정과 1963년 2월 전 문섭 소속 군부대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온 나라를 난공 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초병들의 락천적인 군무 생활 모습을 담은 노래와 춤, 기악 합주, 합창 시, 재담, 시극 등 다양한 종목들을 경연 무대에 올리였다.

매 공연 종목에는 항일 빨찌산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인민군 군인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 정신, 백절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기백이 넘치고 있었다.

출연자들은 음악 창작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옳게 구현하며 무용 창작에서 생신하고 적극적인 주제와 독창적인 무용 언어를 창조하기 위한 행정에서 거둔 훌륭한 열매들을 경연 무대에 올리였다.

합창 《수령님이 다녀 가신 초소에 붉은 기 대대 기'발 휘날린다》, 《남녘 땅을 바라 보며》, 합창 서사시 《충성의 노래》, 기악과 노래 《쌍 피리》, 민요 제창 《학정'골》, 녀성 중창 《초병의 마음 그 누가 모르련만》, 현악 합주 《간호원의 지향》, 파중주 《초소의 아침》, 민요 이야기 《원명 마을에 깃든 이야기》, 녀성 군무 《남강 마을 녀성들》, 남성 군무 《철령을 넘어 전선으로》, 혼성 군무 《무장된 분계선 마을》, 시극 《애국자의 심정》, 재담 《일당백》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문화 교류】 평양 가무단이 1963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 1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네포) 국제 예술 공연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단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국제 예술 공연 (11월 7일)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 궁전, 쟈카르타의 부두와 극장들에서 수차 공연하였다.

쟈카르타에서 발간되는 유력한 신문들인 《하리안 라캬트》, 《인도네시아 옵써버》, 《빈땅 티무르》지는 우리 나라 예술에 대하여 거의 매일과 같이 특집 기사를 게재하고 《금 같이 황홀한 예술》, 《황금의 예술》, 《…정말 선녀가 아닌가?》, 《예술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답다. 그 비밀이 어데 있는가?》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예술단은 로동당 시대에 찬란히 꽃 피고 있는 우리의 《황금의 예술》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한편 인민상 계관 작품들인 연극 《붉은 선동원》과 무용극 《붉은 기'발》이 중국에서 번역되여 공연되였으며 중국 번역극인 《베

온등 밀의 《초병》과 《홍루몽》이 우리 나라에서 공연되였다.

9월에 중국 상해 실험 가극원 무극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무용극 《보련등》과 《소도회》를 가지고 평양과 지방에서 공연하였다. 또한 10월에 30 명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인민 문화 련맹 가무단, 26 명으로 구성된 일본 민족 가무단, 11—12월에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루마니야 가무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평양과 지방에서 공연하였다.

보 건

1963년에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 예방 사업을 위하여 전년보다 18.9%나 더 많은 보건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보건 위생 시설이 확장 정비되고 예방 치료 사업이 한층 발전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무료 치료 봉사가 더욱 개선되였다.

1963년에 보건 부문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가 제시한 선진적 의료 봉사 제도인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이 해에도 보건 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에 립각하여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전문과적 의료 방조를 계속 확대한 결과 인민 보건 사업이 대중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였으며 의료 방조의 질적 내용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1963년에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모범 위생군 창조 운동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여 모든 군들이 더욱 위생 문화적으로 꾸려졌다.

특히 이 해에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연구 집단은 세계 생물학 및 의학 발전 력사에서 위대한 공적으로 되는 경락 계통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과학편 참조).

【보건 시설】1963년에 보건 시설망이 신설 확장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잘 꾸려졌다.

이 해에 입원 치료 기관은 19 개소, 외래 치료 기관은 70 개소가 신설되였으며 의료 치료 기관들에 새로 3,133대의 침대가 설치되였다. 1962년에 비하여 이해에 입원 치료 기관 수는 104%로, 외래 치료 기관 수는 102%로, 병원 침대 수는 107%로 늘었다. 병원 수는 전년의 516 개소로부터 1963년 말 현재 535 개소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산업 진료소 수는 108.8%로, 농촌 진료소 수는 100.4%로 각각 늘었다. 그리고 이 해에 시,군 병원들에 많은 소아과 병동과 산원이 증설되였다

1963년에 국가 자금으로 18만 1,000평방 메터의 병원, 진료소를 대보수하여 그 설비를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였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 탁아소 수는 6,704 개소, 그 좌석 수는 72만 8,258석에 달하였는바 전년에 비하여 탁아소는 66개소, 그 좌석 수는 14만 6,294석이 더 늘었다.

【보건 일'군 양성】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의학 대학, 고등 의학 학교, 의학 학교들과 10 개의 각도 보건 간부 양성소 등에서 보건 일'군들을 양성하고 있다.

선진적 의료 봉사 제도인 의사 담당 구역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1963년도에도 많은 보건 일'군들이 양성되였다. 이 해에 의학 대학과 고등 의학 학교에서 3,179 명의 의사,준의들을 길러내였다. 그리고 1,020여 명의 의사, 준의들이 평양 의학 대학 재 교육 학부와 각 도 보건 간부 양성소들에서 재 교육을 받았으며 310여 명의 동의사들이 동의 간부 양성소(1년 및 6개월반) 들에서 재교육을 받았다.

1963년에 기술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현직 보건 일'군 913 명이 의사, 준의 자격을, 715 명이 간호원 자격을, 2,384 명이 보육원 자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 해에 1962년에 비하여 의사는 112.9%, 준의는 115.1%, 동의사는 152.6%, 약제사는 145.9%, 조제사는 113.9%, 조산원은 123.3%, 간호원은 111.9%, 보육원은 106.6%로 각각 늘었다.

보건 시설망의 장성 (1956=100)

	1960	1962	1963
입원 치료 기관 수	143	165	171
침 대 수	181	249	266
외래 치료 기관 수	324	344	349
과 수	274	334	358
인민 약국 수	207	292	274
모성 및 유아 보호 기관 수	32.5배	28배	28.6배
그중 탁아소 수	34배	30배	30배
좌 석 수	60배	89배	111배

주 : 인민 약국 수는 종합 약국으로 통합된 관계로 감소되였으나 그 질적 내용이 현저히 개선되였음.

보건 일'군의 장성 (1956=100)

	1958	1961	1963
의사	132	257	372.0
동의사	271	23배	15.8배
약제사	159	248	408
준의	131	230	266
조산원	383	588	620
간호원	143	294	291
보육원		16.3배	20.9배
조제사	137	193	179

주 : 보육원은 1958=100

의료 일'군들이 대대적으로 양성된 결과 인구 1만 명에 대한 의사 및 준의 수는 1946년의 1.1 명으로 부터 1963년에는 15.8 명으로 늘었다.

【위생 방역】 조선 로동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에 따라 위생 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에 중앙 위생 방역소를 새로 조직하고 군 병원들에서 위생 방역과를 떼내여 군 위생 방역소를 조직하였으며 위생 방역 기관 일'군들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위생 방역 기관의 의사 수는 1959년을 100 으로 하여 1962년에는 171.9%, 1963년에는 215.1 %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 해에 위생 방역 일'군들은 로동 위생, 식료 위생을 더욱 강화하며 급성 전염병들을 예방하는 데 힘을 집중하였다.

1962년 8월 이후에 시작된 모범 위생군 창조 운동은 1963년에 전국적으로 한층 높은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되였다.

결과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 마을들이 더욱 위생 문화적으로 꾸며졌으며 이해 말 현재 124 개의 군 (구역)들이 모범 위생군(구역) 칭호를 받았다.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145.5%로 장성된 각종 예방 약품들이 생산 공급되여 전체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예방 왁찐 접종이 실시되였다. 특히 홍역, 백일해, 류행성 간염을 비롯한 급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위생 방역 기관들에서는 매개 탁아소를 맡아 2개월에 한 번씩 전체 탁아소 어린이들에 대한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제때에 예방 대책을 세웠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창조한 홍역 능동 면역이 1963년에도 계속 널리 실시되였으며 홍역 예방약이 생산 도입되여 홍역 예방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고 이 해에도 국내산 비.씨.지 로서 12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인 결핵 예방 접종을 하였다.

위생 방역 사업이 강화된 결과 이 해에 각종 급성 전염병의 리병률이 현저히 줄었다.

【치료 예방 및 모성 유아 보호】 1963년에 각급 치료 예방 기관들에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치료 예방 사업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방조를 더욱 접근시키면서 리병률이 비교적 높은 질병과의 투쟁에 예봉을 돌리는 한편 만성 환자들을 급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힘썼다.

이 해에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 두 개 또는 세 개의 동(리) 진료소들을 통합하여 종합 진료소로 개편하였으며 의료 설비들을 더 잘 꾸리고 우선 소아과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의료 방조를 주기 위하여 전문과적 의료 방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였는바 이 해에는 1962년에 비하여 전문과 외래 직무 수는 111.8%로, 전문과 침대 수는 102%로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군 병원들에 이르기까지 내과, 외과를 비롯하여 소아과, 산부인과, 동의과, 구강과 등 각 전문과들이 설치되여 있으며 주민들은 높은 기술에 기초한 전문과적 의료 방조를 받고 있다.

1963년에 주민 1 명에 대한 년간 의료 방조 회수는 전년의 8.9 회로부터 9.2회로 높아졌다.

1963년에 동의학을 계속 발전시켜 그 치료에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해에 새로운 침자 료법 및 약침 료법들을 림상에 도입하여 일련의 질병 환자들을 효과 있게 치료하였다. 안과 연구 집단은 눈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한 경혈에 일종의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과 침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시신경 위축 환자들을 훌륭히 치료하였으며 현대 의학이 고치기 힘들어 하는 위 및 12 지장 궤양 치료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림파절 결핵에 대한 치료에서 신의학적 료법인 항 결핵제—이소니찌드, 또는 푸지바지드를 《칠보환》과 병합 치료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혈압, 특발성 궤저, 소아 마비 후유증, 대장염, 만성 간장염 환자들도 동의학적인 방법으로 훌륭히 치료하였다.

1961년 전국 보건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보건 부문 일'군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인간 생명에 대한 높은 도덕적 책임성과 공산주의적 미풍이 높이 발현된 결과 많은 《난치의 질병》들이 치료되였다.

전국 보건 일'군 열성자 대회(1961년 6월 7일)이후 1963년 말까지의 기간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 3만 8,400여 명을 치료한 것을 비롯하여 2,251 명의 귀거머리와 벙어리, 9,229 명의 앉은뱅이와 곱새등, 팔다리의 불구로 인하여 고통을 받던 환자들을 찾아내여 완치시켰다. 그리고 4,485 명의 소경 혹은 심한 시력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완치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에 특별한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1963년에도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 정치 생활에 참가하는 근로 녀성들의 편의를 더 원만히 도모하기 위하여 유치원, 탁아소망이 확장 정비 되였는바 1962년에 비하여 유치원 수는 123%로, 탁아소의 좌석수는 184.6%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망라된 어린이 수는 132만 명이였다.

우리 나라 근로 녀성들은 산전 산후에 걸친 77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 받고 있으며 모든 임신부들이 무료로 해산 방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1963년에도 산원과, 소아과 병동이 계속 증가되였는바 소아과 외래 직무 수는 같은 기간에 157.1 %로 장성되였다.

특히 소아 전염병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원만히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두를 비롯한 예방 제제들을 정기적으로 접종하였다.

【의료 기구, 의약품 생산 및 공급】 1963년에 제약 및 의료 기구 공업이 더욱 발전하여 그 생산량이 늘었으며 품종이 더 많아졌다. 이 해에 의료 기구의 품종은 1962년에 비하여 2.5배로 장성되였다.

제약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소니찌드 생산을 국내 원료로 해결하였으며 생약 조제에서 경제적인 련속식 침출 분무법을 도입하여 생약을 약물 형태로 발전시켰다.

1963년에 의약품 생산에서 여러가지 장기 제제들과 항생제를 비롯한 칼레누수 제제들의 생산량과 품종이 늘었다.

의약품 생산량의 장성

	1956	1962	1963
항생제	—	100	4.4배
칼레누수제제	100	4.9배	5.1배
합성약품	100	15.8배	15.9배

이 해에 신경통 약인 토이마존을 비롯하여 위궤양산, 수산화알미늄겔, 장내 살균제인 훨로탄, 호흡 흥분제들과 치티친, 혈압 하강제인 루찐, 질산 세코레닌 등 효능이 높은 새로운 의약품들이 많이 생산되였다.

1963년에 의약품 품종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4%로 늘었다.

1963년에 생약 사업이 발전됨에 따라 평양시와 각 도(개성시)에 새로 생약 관리소를, 각 시, (구역) 군에는 그 분소를 조직하였다.

이 해에 약초 재배 품종은 1962년에 비하여 109%로 늘었으며 감초, 생강, 단삼, 울금, 강황, 적하수오 등 20여 종의 생약을 국내에서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약초 재배의 확대와 자연생 생약 채취의 장성에 의하여 1963년도의 생약 수매품은 전년에 비하여 103.2%로 장성되였다. 그중 당귀, 천궁, 지황, 산약, 오미자 등 중요 품종의 수매량이 현저히 늘었다.

1963년에 일부 인민 약국들을 종합 약국으로 통합하고 그 설비를 강화하였으며 의약품 공급 기관망을 더욱 잘 정비하였다.

체 육

1963년에 체육 분야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 《군중 체육 사업을 강화하며 스포츠 기술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 (1958.12.30)의 실행 정형을 총화한 전국 체육 열성자 대회 (1962. 11. 2)의 결의 실천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해에 체육은 더욱 대중화되였다.

특히 공화국 창건 15주년을 경축하여 평양 시내 3만 7천여 명의 학생 소년들이 출연한 대집단체조 《천리마 조선》과 8.15 해방 18주년을 경축하여 혜산 시내 청소년들이 출연한 《로동당 기'발 따라》는 그 심오한 사상 예술성과 함께 높은 체육적 기교로 하여 우리 나라 집단 체조가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청 소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군으로 교양 육성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학교내 체육 사업에서 큰 전진이 있었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체력과 재능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륙상, 체조, 수영 등 체력 단련의 기본 종목과 함께 각종 구기, 민족 체육, 국방 체육 등 여러 종목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진행되였다. 한편 녀 학생들에게는 예술 체조와 체육 무용을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이 모든 학교들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육체적 준비 정도와 직업적 특성에 맞는 각종 생산 체조를 비롯하여 생산과 밀접히 결부된 군중 체육 활동이 강화되였다.

체육의 군중화가 더욱 실현됨에 따라 체육 교양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인민 체력 검정 사업에서는 1963년에 큰 전진이 이루어 졌으며 년중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다.

1963년 인민 체력 검정에서는 전년도 보다 22%나 더 많은 합격자를 냈으며 그중 1 급과 소년급의 합격자만 하여도 32만 8,588 명에 달한다.

체육 기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체육 리론 및 체육 생리학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교수 훈련 방법을 창안 도입하며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며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체육 기술 수준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것은 제2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와 제1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 (가네포)를 비롯한 수다한 국내, 국제 경기들에서 빛나게 과시되였다. 1963년에 우리 선수들은 11 개의 세계 기록과 229 개의 국가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64 명의 선수들이 73 회에 걸쳐 명수급 기록을 갱신하였다. 체육 간부 및 선수 후비 양성 사업에서도 일련의 성과가 이루어 졌다.

1963년에 전년도 보다 1만 5,000여 명이나 더 많은 체육 간부들과 선수 후비들이 양성되였으며 64 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체육 명수 칭호를 받았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170 개의 정규 경기장, 29개의 체육관, 354 개의 체육실을 비롯한 수 많은 경기장들(축구장 3,286, 롱구장 5,452, 배구장 8,115, 정구장 2,172, 탁구장 4,850, 씨름장 5,930)과 1,750여 개의 정규 및 간이 수영장, 3,844 개의 그네장이 있었다.

【제 2 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 제 2 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는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는 5년에 두번씩 열리는 체육 행사로서 이번 체육 대회는 온 나라와 인민이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경축하는 들끓는 환경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더우기 의의가 깊었다.

특히 각지 인민들이 참가한 김 일성 동지께 드리는 편지 전달 계주와 재일 조선 청년 학생 자전거 행진대, 그리고 평양 시내 3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대 집단체조 《천리마 조선》은 이번 체육 대회를 더욱 의의 깊게 장식하였다.

9월 9일 오후 4시 각지 인민들이 김 일성 동지께 드리는 편지 전달을 위한 계주 대렬과 재일 조선 청년 학생 자전거 행진대 대렬이 수만 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모란봉 경기장에 들어 섰다.

유서 깊은 혁명 전적지 보천보와 1,211 고지, 판문점, 아오지 탄광,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남포 제련소 등의 6 개 지점에서 출발한 김 일성 동지께 드리는 편지 전달 계주 대렬에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보위의 초소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모범적인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및 청년 학생들 근 4만 명이 참가하였다.

20 명으로 구성된 재일 조선 청년 학생 자전거 행진대는 김 일성 원수께 드리는 축기와 축하문을 가지고 8월 20일 청진을 출발하여 함흥, 원산을 거쳐 평양에 이르렀다.

이 두 대렬이 김 일성 동지께 편지와 축기 및 축하문을 각각 드린 다음 공화국의 찬란한 력사와 그 품 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억센 투지,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닫는 천리마의 기상을 다양한 형식의 체조로 보여 주는 대 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이 진행되였다.

체육 대회는 로동당 시대에 개화된 우리 체육의 발전상과 천리마 조선의 붉은 체육인의 기개를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는 우리 나라 군중 체육의 급속한 발전과 체육의 기술 및 전술적 측면들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회에서는 륙상, 체조, 구기 등을 비롯하여 민족 경기, 중경기, 국방 체육 경기 부문의 20여 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였는데 경기는 협회별 대항과 도 대항전으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각지 공장, 기업소, 기관, 학교 체육인들로 조직된 13 개의 도 종합 체육단을 비롯하여 총 30여 개의 단체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41 명의 선수들이 41 개 종목에서 58회나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무선 통신, 외국문 송신, 수'자 송신 경기 등 3개 종목에서는 세계 기록을 돌파하였다.

륙상 경기에서는 지난 제1차 대회때 보다 현저한 발전 면모를 보였다. 남녀 88 명의 선수들이 대회 기록을 돌파하였는바 협회 대항전에서는 49 명(녀자 16 명), 도, 시 대항전에서는 39 명(녀자 11 명)이 각각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특히 협회 대항전에서 6 명이 6 개 종목에서 연 7회에 걸쳐 공화국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번 체육 대회는 우리 나라 체육이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지고 있음을 넉넉히 말해 주고 있다.

【경기】 1963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제 2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 제1차 전국 대학생 체육 대회, 6회에 걸친 협회, 도 선수단 체육 대회와 2,626회의 체육 경기 대회들이 중앙과 지방들에서 진행되였으며 이에는 152만 508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국제 관계】 1963년에 우리 나라는 국제 빙상 호케이 련맹, 국제 요트 련맹, 국제 수영 련맹에 새로 가입하였다(1963년 말 현재 18 개 종목의 국제 체육 련맹에 가입).

1963년 10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60 차 총회에서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정식 성원으로 가입되였다.

1963년에 우리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경기 대회 및 친선 경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버마 축구 대회 (1963. 2, 버마)

◇조선—인도네시아 축구 대회 (1963. 3, 인도네시아)

◇세계 속도 빙상 선수권 대회(1963. 2, 가루이자와)

◇사회주의 국가 군대 친선 경기 대회(1963. 2, 하노이)

◇제27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1963. 3, 쁘라가)

◇모쓰크바상 쟁탈을 위한 국제 력기 선수권 대회(1963. 3, 모쓰크바)

◇국제 탁구 경기 대회(1963. 4, 부카레스트)

◇세계 레스링 선수권 대회(1963. 5, 쏘피야)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1963. 7, 모쓰크바)

제 2 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 도별 종합 성적

단체명	점수	순위	단체명	점수	순위
평양시	751	1	자강도	258	8
함남도	708	2	황북도	224	9
평북도	577.5	3	청진시	147	10
강원도	377.5	4	량강도	142	11
평남도	374	5	개성시	130	12
함흥시	320.5	6	황남도	96	13
함북도	277.5	7			

◇사회주의 국가 군대 친선 레스링 선수권 대회(1963. 9. 26-29, 부다페스트)

◇사회주의 국가 친선 배구 경기(1963. 7, 티라나)

◇사회주의 국가 군대 친선 권투 선수권 대회(1963. 10.1-10.6, 파란)

◇조선-중국 롱구 친선 경기(1963. 3. 3, 평양-2. 8탐: 중국 8. 1탐)

◇조선-인도네시아 롱구, 배구 친선 경기(1963. 8. 23 평양-월비산팀: 인도네시아, 1963. 8. 25, 평양-청년 종합 선수단: 인도네시아, 1963. 8.27, 청진-사회 안전성: 인도네시아)

◇조선-중국 륙상 친선 경기(1963. 9, 평양)

◇조선-알바니야 롱구 친선 경기 (1963.9, 평양)

◇조선-인도네시아 축구 친선 경기 (1963. 9. 4, 함흥, 1963. 9. 10, 평양)

◇조선-버마 축구 친선 경기 (1963. 9. 10, 평양, 9. 22, 함흥)

◇조선-캄보쟈 탁구, 롱구 친선 경기(1963. 10. 13, 평양)

1963년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국제 경기 대회에서 매 종목에 걸쳐 모두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특히 1963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 (가네포)와 부카레스트에서 있은 국제 탁구 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세계 각국 48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네포 경기 대회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20 개 경기 종목 중 13 개 종목에 걸쳐 135 명의 체육인들이 대회의 각종 경기에 참가하여 143 개의 금, 은, 동 메달을 받았다.

신 금단 선수가 400 메터에서 51초4, 800 메터에서 1분 59초1로, 리 홍천 선수가 력기 56 키로그람 급 용상에서 141 키로그람을 들어 각각 세계 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대회에서 수립된 5 종목의 세계 신 기록 중 3 개를 우리 나라 선수들이 차지하였다.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국제 탁구 경기 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구라파의 강팀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남자 단체에서 1등을 쟁취하여 우승컵과 5 개의 금 메달을 받았다.

신 금단 선수는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에서 녀자 400 메터에서 52초 5로 세계 신기록을 세워 제 1 위를 쟁취하였다.

800 메터에서도 제1위를 차지하였다. 리 홍천 선수는 《모쓰크바상》 쟁탈을 위한 제6차 국제 력기 대회에서 세계 및 구라파 력기 선수권 보유자들을 물리치고 140.5 키로그람을 들어 올리여 세계 신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 선수들은 1963년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 경기에 참가하여 천리마 조선의 기개를 온 세계에 떨치였다.

【남북 조선 유일 팀 구성 문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는 남북 조선 유일 팀 구성 문제의 실현을 위하여 10여년 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남조선 측의 무성의와 일방적인 파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북 조선 유일 팀 구성 문제는 실현되지 못 했다.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조선 유일 팀 구성에 대한 민족적 념원과 고상한 올림픽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 주동적으로 노력한 결과 1962년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59차 총회에서는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남북 조선 유일 팀 구성을 남조선 측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 체육 선수들을 조선 대표로 제18차 국제 올림픽 경기 대회(일본 도꾜)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59차 총회 결정과 우리 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1963년 1월 24일 로잔느에서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간의 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회담에서는 우리 측의 진지한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따라 유일 팀 구성 문제와 국가 문제 (1945년 이전부터 불러 오던 민요 아리랑), 대표단 단장에 대한 임명 방법 문제 등에 합의를 보았다.

국기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쌍방 대표단들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로 하여금 2월 7일에 진행될 동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는 로잔느 회담의 결정에 근거하여 유일 팀 구성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잔느와 홍콩에서 3차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우리 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1963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일 팀 선발 문제를 비롯한 실무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첫 회담이 홍콩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유일 팀 선수 선발을 위한 가장 기본 조건으로 되는 예선 장소와 시일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서 량측이 서로 접수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방안들을 제기하고 합의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의와 인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하였다.

우리 대표단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심판 문제, 운동 기구 문제, 예선을 할 데 대한 문제, 재정 문제 등 9 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유일 팀 선발을 위한 가장 기본 조건으로 되는 경기 장소와 시일 문제 등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 하였다.

남조선 측은 이미 로잔느 회담에서 유일 팀이 사용할 기'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사실상 명백하게 된 유일 팀 칭호 문제를 내걸고 부당한 요구들을 제기하였으며 회의장 내에서 회담을 방해

하며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지어 남조선 대표단은 예선 경기를 국내에서 할 것인가? 제3국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는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되였으며 그것을 토의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구실을 내 걸고 문제 토의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회담은 남조선 측의 부당한 태도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끝났다.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유일 팀 구성을 위한 전체 조선 인민과 남북 조선 체육인들의 념원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측의 성의 있는 노력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알선에 의하여 1963년 7월 26일 홍콩과 8월 13일 로잔느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였으나 남조선 측의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회담은 열리지 못 하였다.

남조선 대표단의 시종 일관한 무성의와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온 겨레가 그렇게도 바라던 남북 조선 유일 팀 구성 문제는 해결되지 못 하고 결국 올림픽 위원회 제60차 총회 결정(1963. 10. 19)에 의해 남북 조선이 각각 독자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이런 조건 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응당 자기의 독자적인 공인된 명칭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침해할 수 없는 조선 인민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60차 총회는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올림픽 경기에 파견하는 팀은 《북조선》이란 명칭하에 경기에 참가한다는 부당한 조건을 첨부하였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바와 같이 어떤 나라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정식 성원으로 된 이상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이름 문제는 그 나라 단체에 속하는 신성한 불가침의 권리이다. 국제 체육 기구가 그 나라 국호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롭게 규정할 수도 없다.

이것은 또한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킬 데 대한 올림픽 정신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팀 이름 문제에 대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보며 그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을 것이다.

출판 보도

【통신】 조선 중앙 통신사는 일간 《조선 중앙 통신》, 일간《사진 통신》, 일간《영문 통신》, 순간 《조선 소식》(로문, 영문), 그리고 《조선 중앙 년감》을 발행하고 있다.

조선 중앙 통신사는 쏘련의 《따쓰 통신》,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신화 통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통신을 수신 보도하는 동시에 대외 방송(방향별 영문 텔레타이프 방송과 대일 모사 방송, 사진 방송)과 공화국 각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방송을 하고 있다.

◇텔레타이프 및 사진 방송 시간

방송 방향	텔레타이프 (사진) 방송시간
아세아	14시—16시
	19시—21시
	1시— 3시
	(21시 30분—22시 30분)
아프리카	17시—18시 30분
	23시—24시 30분
	4시— 5시 30분
	(6시— 7시)
구라파	14시 30분—16시
	21시 30분—23시
	1시 30분— 3시
	(23시 30분—24시 30분)
미 주	16시 30분—18시
	19시 30분—21시
	7시— 8시 30분
	(9시 30분—10시 30분)
대일 모사 방송	10시—13시
	16시—19시
	21시—24시
지방송신 (각도대상)	10시—14시
	16시—20시

【방송】 1963년 2월 15일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와 꾸바 공화국 혁명 텔레비죤 방송국 간에 텔레비죤 및 라지오 방송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 데 관한 협정이 하바나에서 체결되였다.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는 쏘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방송 위원회들과 정기적인 교환 방송, 문예, 음악, 보도, 선전물 등 자료들을 교환하고 있으며 일본, 인도네시아, 가나, 분란을 비롯한 기타 아세아, 아프리카의 일련의 나라 방송 단체들과도 방송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지방 방송국들의 방송 주파수

	방송 국명	주 파 수
평북도	신의주	860kc
평북도	창성	990kc
자강도	강계	1 335kc
황남도	해주	1 045kc
황북도	사리원	725kc
강원도	원산	850kc
함남도	함흥	1 000kc
함북도	청진	1 300kc
함북도	회령	1 120kc
함북도	경원	935kc
량강도	혜산	1 285kc
개성시	개성	605kc

【신문】 우리 나라에는《로동신문》, 《민주 조선》을 비롯한 여러 종의 중앙 신문들과 각 도(개성시)에서 발행되는 지방 신문들, 그리고 생산 기업소들과 국영 농목장들에서 발간되는 직장 신문들이 있다.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중요 신문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 시간과 주파수

방송별	대 상	언 어	시 간 조 선 시 간	주 파 수
조선 중앙 방송	국 내	조선말	아침 5시—심야 2시	중파 785kc 단파 2850kc 6600kc
평양 방송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조선말	아침 5시—심야 2시	중파 585kc 685kc 625kc 655kc 800kc 1080kc 820kc 단파 3320kc 6250kc 6350kc
〃	재일 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조선말	아침 6시—6시 30분	중파 820kc 1080kc 단파 6250kc
조선 중앙 방송	재일 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조선말	19시 30분—20시	중파 785kc 단파 2850kc 6600kc
대외 방송	대 외	일본말	13시—14시 17시 30분—18시 30분 18시 30분—19시 30분 20시 30분—21시 30분 23시 30분—0시 30분	단파 7225kc 9752kc 단파 6141kc 7225kc 단파 6141kc 7225kc 단파 5044kc 6141kc 단파 5044kc 6141kc
대외 방송	재일 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조선말	6시—7시 중앙 방송 중계 7시 30분—8시 30분 11시—12시 15시—16시	단파 7225kc 9752kc 단파 7225kc 9752kc 단파 15240kc 9752kc 단파 15240kc 9752kc
대외 방송	대 외	중국말	16시—17시	단파 15240kc 9752kc
대외 방송	대 외	불어	7시—7시 30분	단파 7225kc 9752kc
대외 방송	대 외	영어	5시—6시 12시—13시 20시 30분—21시 30분	단파 7225kc 9752kc 단파 1524kc 9752kc 단파 5044kc 9752kc
대외 방송	대 외	로어	4시 30분—5시 21시 30분—22시	단파 7225kc 9752kc 11720kc 7150kc 5044kc 단파 7225kc 9752kc

▶《로동 신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 신문사 발행

▶《민주 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 조선사 발행

▶《평양 신문》 평양 신문사 발행

▶《로동 청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 청년사 발행

▶《로동자 신문》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자 신문사 발행

▶《교원 신문》 보통 교육성, 조선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교원 신문사 발행

▶《문학 신문》 조선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학 신문사 발행

▶《조국 통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기관지, 조국 통일사 발행

▶《소년 신문》 로동 청년 출판사 발행

지방 일간 신문 《평남 일보》, 《평북 일보》, 《황남 일보》, 《황북 일보》, 《자강 일보》, 《함북 일보》, 《함남일보》, 《강원 일보》, 《량강 일보》, 《개성 신문》

【잡지】 196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 《천리마》를 비롯한 20여 종의 사회 과학 부문 잡지, 《전력》, 《대중 과학》을 비롯한 20여 종의 자연 및 기술 과학 부문 잡지, 《조선 문학》을 비롯한 문학 예술 부문 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 선전용 잡지 등 정기 간행물들이 발행되였다.

1963년 말 현재 발간되고 있는 주요 잡지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 과학 부문 잡지

▶근로자(반 월간),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사 발행

▶선동원 (반 월간), 선동원사 발행

▶정치 지식(반 월간),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천리마(월간), 군중 문화 출판사 발행

▶조선 녀성(월간),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녀성사 발행

▶로동자(월간),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직업 동맹 출판사 발행

▶청년 생활(월간)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로동 청년 출판사 발행

▶소년단(월간) · ▶새세대(월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학생 잡지, 로동 청년 출판사 발행

▶국제 생활(반 월간), 국제 생활사 발행

▶체육 (월간), 체육 출판사 발행

▶선동원 수첩(반 월간), 교통 출판사 발행

▶조선 우표 (격월간), 체신 출판사 발행

▶화살(월간), 선동원사 발행

▶화보《조선》(월간), 조선 화보사 발행

▶유치원 (월간) ▶인민 교육 (월간) ▶기술 교육 (월간), 보통 교육성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교원 신문사 발행

▶고등 교육(월간), 고등 교육성,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발행

▶경제 지식(월간),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상업 (월간), 상업성, 경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상업성 발행

▶재정 금융 (월간), 재정성 기관 잡지, 재정성 발행

▶과학원 통보(격월간), 과학원 출판사 발행

▶력사 과학 (격월간), 사회 과학원 력사 연구소 기관 잡지, 사회 과학원 출판사 발행

▶조선 어학(분기간), 사회 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기관 잡지, 사회 과학원 출판사 발행

▶경제 연구(분기간), 사회 과학원 경제 연구소 기관 잡지, 사회 과학원 출판사 발행

◇ 자연 및 기술 과학 부문 잡지

▶전력(월간) ▶석탄 공업(월간), 전력 석탄 공업성 기관 잡지, 중공업 출판사 발행

▶금속 공업 (월간) ▶광업(월간) ▶화학 공업(월간), 금속 화학 공업성 기관 잡지, 중공업 출판사 발행

▶기계 공업(월간), 기계 공업 위원회 기관 잡지, 중공업 출판사 발행

▶림업(월간), 림업성 기관 잡지, 림업 출판사 발행

▶건축과 건설(월간), 국가 건설 위원회 및 조선 건축가 동맹 기관 잡지, 건설 출판사 발행

▶방직 공업(월간) ▶식료 공업(월간), 경공업 위원회 기관 잡지, 경공업 출판사 발행

▶조선 수산 (월간), 수산성 기관 잡지, 수산 출판사 발행

▶농업 기술(월간) ▶수의 축산 (월간) ▶협동 농민(월간), 농업 위원회 기관 잡지, 농업 출판사 발행

▶교통 운수(월간), 교통성 기관 잡지, 교통 출판사 발행

▶체신(월간), 체신성, 조선 공업 기술 총련맹 기관 잡지, 체신 출판사 발행

▶조선 의학 (월간), 보건성 기관 잡지, 의학 출판사 발행

▶대중 과학(월간), 조선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과학 지식 보급 출판사 발행

▶생물학(분기간) ▶수학과 물리(분기간) ▶금속(분기간) ▶화학과 화학 공업(격월간) ▶분석 화학(분기간) ▶기술 과학(분기간) 과학원 출판사 발행

◇문학 예술 부문 잡지

▶조선 문학(월간) ▶청년 문학 (월간) ▶아동 문학(월간), 조선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조선 미술(분기간), 조선 미술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조선 음악(격월간), 조선 음악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조선 예술(월간), 조선 연극인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조선 영화(월간), 조선 영화인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써클원 문예(월간), 군중 문화 출판사 발행

◇대외 선전 부문 잡지

▶오늘의 조선(월간—일문, 영문, 불문판) ▶새조선(월간—로문, 중문판) ▶화보 《조선》 (월간—일문, 로문, 중문, 영문, 불문판), 외국문 출판사 발행

이 외에 각 출판사들과 성 기관들에서《당 학습》,《정무원》,《철학 연구》, 《문학 연구》, 《조선 기자》, 《로동 행정》, 《원림 지식》 《기상과 수문》, 《조선 약학》, 《시문학》, 《국문학》 등 25종의 간행물이 발행되였다.

【도서】 1963년에 계급 교양을 내용으로 한 90종의 도서를 비롯하여 반수정주의 교양 자료, 기술, 문화 혁명에 필요한 도서, 민족 고전과 맑스주의 고전 등 지난해 보다 179종이나 더 많은 1,022종의 도서 2,485만 5천 여부가 발행되였다.

1963년에《김 일성 선집》 1권과 김 일성 동지의 기타 로작들 그리고 당 문헌 12종을 비롯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 로동당의 정책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킴에 필요한 도서들과 반수정주의 교양에 필요한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였다.

《공산주의 교양 독본》 (1, 2권), 《맑스 엥겔스 선집》 (1, 2집),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변절자 카우츠키》, 《프로레타리아 독재》, 《전 련맹 공산당(볼쉐비크) 내의 우경에 대하여》,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반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자》등 수 많은 도서들이 출판되였다.

또한 당 정책 선전물 출판에서도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농업 문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에 있어서 레닌적 당 건설 원칙의 창조적 구현》, 《승리한 대안의 경험》, 과학원 출판사의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현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부문에서 물질적 관심성의 창조적 적용》, 《국가 관리에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관철》 등 25종의 좋은 책들이 출판되였다.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출판물 48종을 포함하여 10대 과업 관철과 관련한 도서, 천리마 운동과 관련한 도서들도 81종이 출판되였다.

특히 이 해에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5월 3일 교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 제고에 필

요한 도서 150여 종이 출판 되였다.

민족 고전 도서로서는《목민 심서》 (1, 2, 3), 《고려사》(1, 2, 3), 《대동 수경》, 《경세 유표》(1, 2), 《반계수록》(4), 《동의 보감》 (잡병편, 향약편, 침구편), 《향약집 성방》, 《광제비급》, 《림제 권필 작품 선집》, 《리률곡 시선》, 《력대 명문선》, 《화성성역의 궤》등 38종이 출판되였다. 이밖에《재 옥편》, 《조선의 명인》, 《말과 글의 문화성》 (2), 《조선 경제 사상사》 (상)등 도서들이 출판되였다.

중요 출판사들은 아래와 같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 맑스-레닌주의 고전, 조선 로동당의 문헌, 김 일성 동지의 로작, 당 건설, 철학, 정치 경제학, 정치 지식, 경제 지식, 남조선 관계 서적, 당원들을 위한 교양 자료들과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형제 국가 당 사업 경험을 소개하는 서적들을 출판한다.

【과학원 출판사】 《과학원 통보》, 《력사 과학》, 《옥편》, 《학술 용어》를 비롯한 잡지들과 과학원 각 연구소들의 연구 성과들에 기초한 리론 서적과 민족 고전을 출판한다.

【로동 청년 출판사】 《청년 생활》, 《새 세대》, 《소년단》등 잡지와《소년 신문》, 사회 정치 도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산주의 교양 도서들을 출판한다.

【직업 동맹 출판사】 잡지 《로동자》, 직맹 일'군들을 위한 리론 실무 서적,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관한 서적들과 로동 보호에 관한 서적들을 출판한다.

【외국문 출판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과 경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모습,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 모습, 우리 당의 대외 활동과 거기에서 이룩한 성과,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문화와 우리 인민의 사회, 정치, 문화 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가지 책들을 로, 중, 영, 일, 불문으로 출판한다.

【조선 녀성사】 잡지《조선 녀성》과 자녀 교양 및 양육, 가정 생활 지식, 녀성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각종 도서, 자료들을 출판한다.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잡지《조선 문학》, 《조선 미술》, 《조선 음악》, 《조선 예술》, 《조선 영화》들과 우리 나라의 고전 문학 및 현대 문학, 음악, 미술 도서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기타 모든 나라들의 진보적 고전 및 현대의 문학, 예술 작품들을 번역 출판한다.

【선동원사】 잡지《선동원》, 강연 자료 및 선동원들을 위한 교양 자료와 표어, 포스타, 만화등 각종 선동 자료들을 출판한다.

【중공업 출판사】 《금속 공업》, 《화학 공업》, 《전력》, 《석탄 공업》, 《기계 공업》, 《지질 탐사》, 《광업》등 잡지들과 이 분야의 기술 리론 도서 및 대중 생산 기술 보급 도서를 출판한다.

【경공업 출판사】 잡지 《방직 공업》, 《식료 공업》, 《일용품 공업》과 경공업 분야의 기술 도서들을 출판한다.

【농업 출판사】 《농업 기술》, 《수의 축산》 등 잡지들과 협동 농장 관리 운영, 기타 농촌 경리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리론 도서들과 통속 도서, 농업 부문 고전, 기술 교재를 출판한다.

【건설 출판사】 《건축과 건설》, 《도시 경영》, 《조선 원림》등 잡지들과 기타 기술 통보, 건설 시공, 설계, 전재, 도시 경영에 관한 기술 리론 및 대중 기술 보급 서적을 출판한다.

【교통 출판사】 잡지 《선동원 수첩》, 《교통 운수》, 교통 운수 기술 통보 기타 기술 리론 도서 및 대중 통속 도서들을 출판한다.

【의학 출판사】 의학 보건에 관한 리론 서적들과 의학 고전 및 동의학 서적들을 출판한다.

【군중 문화 출판사】 잡지 《천리마》, 《써클원 문예》와 대중 력사, 지리 도서, 군중 문화 도서들과 영화 선전물들을 출판한다.

【체육 출판사】 잡지 《체육》과 체육 리론과 기술 및 군중 체육 도서들을 출판한다.

【로동 도서 출판사】 잡지 《로동 행정》과 로동 행정 교재들을 출판한다.

【과학 기술 출판사】 기술 과학 분야에서 달성한 연구 성과들과 경험, 연구 사업에 필요한 기술 도서, 참고 자료들과 과학 기술 번역 도서들을 출판한다.

【수산 출판사】 잡지 《조선 수산》과 수산 부문 기술 도서를 출판한다.

【과학원 통보사】 잡지 《과학 기술 문헌 통보》를 출판한다.

【과학 지식 보급 출판사】 잡지 《대중 과학》과 근로자들 속에 과학 지식을 보급 선전하는 각종 도서와 직관물들을 출판한다.

【아동 도서 출판사】 학생들의 과외 도서들을 출판한다.

【당 학교 교재 출판사】 각급 당 학교의 교재들을 출판한다.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고등 교육 부문 교과서를 출판한다.

【교육 도서 출판사】 보통 교육 부문 교과서와 교재들을 출판한다.

【사진 보도사】 단매, 련속 화보, 사진들을 제작한다.

【체신 출판사】 잡지 《체신》, 《조선 우표》와 체신 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 도서를 출판한다.

【림업 출판사】 잡지 《림업》과 림업 부문 일'군들을 위한 각종 도서들을 출판한다.

【무역 출판사】 잡지 《조선의 무역》과 각종 상품 까다로그, 대외 선전 포스타를 출판한다.

【규격 및 기상 수문 출판사】 잡지 《기상과 수문》, 《창의 고안 공고》, 《국가 규격 통보》와 기타 여러가지 기술 도서들을 출판한다.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

정 치

1963년의 남조선 정치 정세는 미제 식민지 통치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진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미제는 이 해에 《군정》에 《민정》의 외피를 씌우는 《민정 이양》이란 기만극으로 인민들의 반미, 반《군정》 기세를 무마하며, 날로 위급해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이 기만극은 그 시초부터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민정 이양》의 기만극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켰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군정 연장》을 반대하는 그들의 대중적인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민정 이양》의 기만극은 남조선 지배층 내부의 알륵과 대립을 한층 더 날카롭게 하였다.

괴뢰 정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군사 통치배들과 그를 앗아 내려는 구 정치 세력 사이의 추잡한 싸움은 괴뢰 통치의 부패와 무능을 천하에 폭로하고 남조선에서 정계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새 해 벽두부터 겪은 쌀 기근과 경제적 파탄의 더 한층의 심화는 미제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모든 사태의 발전은 그 어떠한 수'법으로도 미제는 남조선에서 총 파탄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사태를 바로 잡는 길은 오직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한길 뿐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

박 정희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

박 정희 도당은 《군사 정변》(1961년 5월 16일) 이후 《군정》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 기세가 높아지고 이에 편승한 구 정치 세력의 반항이 심해지자 미제의 조종하에 《민정 이양》이란 기만극을 조작해 냈다.

《민정 이양》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 인민들을 속이고 군사 파쑈 통치를 연장하려는 박 정희 도당의 흉악한 장기 집권 책동이다.

박 정희 군사 통치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종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 막 뒤에서 《민정 이양》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비밀리에 갖춘 다음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 활동을 허여》하고 이 기만극을 연출하는 길에 들어섰다.

【파쑈 폭압의 강화】 박 정희 도당은 《정치 활동의 허여》와 동시에 인민들의 항거와 혁신 세력의 진출을 탄압, 봉쇄하며 나아가서는 저들의 정적으로 될 구 보수 세력들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일련의 악랄한 조치를 취하였다.

갖은 악법의 조작 1962년에 《헌법》을 개악하여 군사 파쑈 통치 체제를 《합법화》하고 괴뢰 대통령의 권한을 《최고 회의 의장》 이상으로 강화한 박 정희 도당은 이에 기초하여 《정당법》(1962년 12월 31일 조작) 및 《정당법 시행령》(1963년 1월 19일 공포), 《국회 의원 선거법》(1963년 1월 16일 공포), 《대통령 선거법》(1963년 2월 1일 공포) 등을 조작하였다.

이 《악법》들에 의하여 《혁신 세력》은 물론 무소속 인사들까지 정치 활동을 봉쇄 당했으며 지어 구 보수 정객들도 군소 정당에 참가한 자들은 정치 활동을 제한 당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민정 이양》과 관련하여 《군사 정권》을 반대하여 나서는 인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1962년 12월 31일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조작 공포하였으며 1963년 2월 27일에는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례법》을 개악하여 《군사 정권》의 죄악을 약간이라도 말하면 《허위 사실 류포죄》에 걸어 10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게 하였다. 《선거일》이 림박한 9월 24일에는 《반공법》을 개악하여 종전보다 범죄 구성 요건과 적용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이 밖에 《사회 단체 등록법》(1963년 12월 3일 공포), 《로동 조합법》, 《로동 쟁의 조정법》, 《로동 위원회법》(1963년 4월 2일 공포) 등을 개악하여 근로 대중의 사회적 활동과 생존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억제하였으며 파쑈적인 《방송법》(1963년 12월 10일 공포)과 《신문 통신에 관한 법》(1963년 12월 3일 공포)들을 새로 만들어 언론 탄압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파쑈 폭압 기구의 강화 《민정 이양》에 대비하여 박 정희 도당은 수다한 악법을 조작하여 파쑈 폭압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한편 폭압 기구를 강화하는데 광분하였다.

1963년에 들어 이들은 《최고 회의》와 《군사 내각》 및 《중앙 정보부》, 《재건 국민 운동 본부》 등 괴뢰 기관과 단체들의 요직들을 저들의 심복으로 갈아 채웠다.

이와 함께 박 정희 도당은 1월 10일에 50 개의 《경찰 지서, 파출소》를 더 증설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8월에는 경찰관 3,000 명을 증원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10 개 경찰국 산하에 상설적인 《경찰 기동대》를 창설하고 《해양 경찰대》 수를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에는 《이동 경찰 파출소》를 신설하여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위한 기동성을 강화하였다.

인민들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군사 정권》은 《방첩 지도 위원회》와 600여 개의 《방범 위원회》, 《경찰 자문 위원회》들을 새로 만들어 냈으며 《정보망》을 확대 강화하였다.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 박 정희 도당은 악법을 조작하고 탄압 기구를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미제의 조종하에 군사 통치배들은 1963년에 《정치 활동 정화법》 해당자들에 대한 3차의 《해금》 조치와 《정치범》들에 대한 3차의 《특사》 조치로써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거나 감금된 구 보수 정객들의 대부분을 해금, 석방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 통일과 남북 협상을 주장한 《혁신계》 인사 50여 명은 그대로 감금하였으며 《군사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여 나서는 인사들에 대하여서는 별의별 구실을 붙여 계속 검거 투옥하였다. 5월 22일에는 《국가 반란 음모 사건》을 날조하여 《4월 혁명단》 단장과 《4월 혁명 총련맹》 간부들을 체포하여 투옥하였다.

또한 각종 《단속》이란 구실 밑에 광범한 군중을 구속하여 《재판》에 넘기였다. 1963년 상반년 중에 서울 《형사 법원》에서만도 13만 358 명(하루 평균 7백여 명)의 무고한 인민을 《즉결 심판》에 넘겼으며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13일 간에는 13만 8,291 건 (하루 평균 1만 1천 건)의 《범법자》를 《단속 처리》하였다. 탄압의 강화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진출을 억압하여 보려고 년초부터 발광적인 각종 군사 연습 소동을 벌렸다(군사란 참조).

【《장기 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박 정희 도당의 흉책】 2.18 성명 1월 5일 박 정희는 《1963년도 시정 연설》에서 《4월 초에 대통령 선거, 5월 하순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8월 하순에 《정권을 민간 정부에 이양》하겠다는 이른바 《민정 이양》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권 다툼에서 적수로 되는 구 보수 정객들에게 정당을 결성하고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짧은 시일 내에 전격적으로 《선거》를 치룸으로써 쉽사리 《군정을·연장》하려는 박 정희 도당의 음흉한 책동을 표시한 것이였다.

그러나 남조선에 조성된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본래의 의사와는 달리 저들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해 식량 기근은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였다. 추수가 끝난 지 3개월도 안 되는 1963년 1월 15일 현재 농촌에서 절량 호수는 이미 총 농가 호수의 30%에 달하게 되였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들에서는 쌀 소동이 일어날 직전에 다달았다.

이와 함께 1963년 1월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하여 량곡 가격은 30~40%, 공업품 가격은 20~50%나 뛰여 올랐다.

경제적 위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혹심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반《군정》 기세를 더 한층 돋우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합동통신》(1963년 2월 8일)은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에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본바탕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를 되 찾고 말리라는 전국민적인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민들의 반《군정》 기세에 편승하여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구 보수 정객들의 진출도 강화되였다. 이들은 《실질적인 군정의 종식》이란 구호 밑에 《박 정희의 대통령 립후보 사퇴》, 《중앙 정보부의 해체》, 《선거 기일 연기》, 《헌법, 정당법, 선거법 개정》, 《정치 활동 정화법 해당자의 전면 해제》, 《민주 공화당의 사전 조직의 백지화》 등을 요구해 나섰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박 정희 도당 내부에서의 파벌 다툼이 또한 격화하여 사분 오렬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앙 정보부》에 의거한 박 정희—김 종필 파의 전횡과 실권 독점은 군사 통치배 내부에서 반대파들의 심한 불평을 자아 냈으며 마침내 박 정희의 장기 집권 기도를 반대하여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나옴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 발전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밑뿌리채 뒤 흔들어 놓았다. 이에 당황 망조한 미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일련의 음모 책동을 벌렸다.

미제는 박 정희로 하여금 2월 18일에 《민정 참여》를 포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였으며 김 종필을 《민주 공화당》의 당직에서 떼내여 박 정희의 《특별 전권 순회 대사》라는 명목 밑에 2월 25일 해외로 도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군정 연장》을 반대하는 인민 대중을 달래여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조종하에 더 음흉한 수' 법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바로 《2.18 성명》 자체가 이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2.18 성명에서 박 정희는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으로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 《다음에 수립될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 것》,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않는다》, 《신 헌법의 권위를 보존할 것》, 《한일 문제에 대하여서는 초당적 립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등 범죄적 《군사 정변》을 정당화하며 파쑈 떼로 통치와 매국 배족 정책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는 9 개 항목으로 된 《정국 수습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에 구 정치 세력 측이 서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2월 27일에는 구 정치 세력 측과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선서》가 진행되였다.

3.16 성명 《2.18 성명》 후 박 정희 도당은 계속 심화되는 구 정치인들 내부의 세력 다툼을 기화로하여 3월 7일 제 1 군 사령부에서 《구 정치인들은 차제에 제2선에 물러서고 젊은 세대에 정국을 맡기라… 구 정치인들이 2.27 선서를 충실히 리행하지 않아 정국에 다시 무질서가 올 때에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나아가 3월 11일에는 《반정부 군부 쿠데타 사건》을 날조하고 괴뢰군 내의 박 정희 반대파 인물들인 박 림항 (《중장》, 전 괴뢰 《건설부 장관》), 김 동하 (예비역 《중장》, 전 《최고 위원》)를 비롯한 현역 및 예비역 장령과 고급 장교 32 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3월 13, 14일에 떼로 분자들을 동원하여, 15일에는 《수도 사령부》 소속 괴뢰군 장교와 하사관 약 100 명을 사촉하여 《구 정치인들의 활동 중지》, 《박 정희의 민정 참여》, 《군정 연장》을 불어대는 어용 시위를 연거퍼 펼치게 하였다. 《군정 연장》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모략과 깜빠니야를 조작한 다음, 3월 15일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버거 대사, 《유엔군》 사령관 메로이, 박 정희, 김 현철을 비롯한 《한미 고위층》들의 《철야 회담》이 있었고 다음 날인 3월 16일에 박 정희는 4년 간 군정을 연장할 데 대한 가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4월 25일)할 것에 대해서와 정당들의 활동을 즉시 중지하는 이른바 《3.16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박 정희는 일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을 억제하며 위반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비상 사태 수습을 위한 림시 조치법》을 공포하고 남조선 전역을 사실상 계엄 상태에 몰아 넣었다.

또한 박 정희는 《외무》, 《국방》, 《건설》, 《무임소》 등 4부의 괴뢰 《장관》을 심복 졸개들로 바꾸어 《군사 정권》의 진용을 강화하였으며 《최고 회의》는 《개정 헌법》 부칙 2조를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1967년 8월 15일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군정 연장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조작했다.

4.8 성명 파쑈적 군사 떼로 통치의 연장을 공공연히 선포한 《3.16 성명》은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의 일치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 일으켰다. 구 정치인들도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해 나섰다. 3월 20일 《민정당》과 《신정당》에서는 《전국적이며 결사적인 항쟁》을 벌릴 데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극한 투쟁》을 하겠다고 떠들고 나섰다.

한편 인민들 속에서는 《군정이건 민정이건 들고 일어 날 때는 마찬가지다》 라는 혁명적 기세가 드높아 갔다.

이런 형편에서 미제는 인민 봉기의 폭발적 사태가 일어 날 것을 우려하여 박 정희와 구 정치 세력이 타협하도록 조정하여 나섰다.

박 정희 일당은 코 앞에 닥친 보리'고개와 력사상 전례 없는 식량 기근, 4. 19 세 돐을 맞는 인민들의 동향 등에 크게 불안을 갖고 미제의 조종하에 구 정치 세력과 타협하는 길로 들어 섰다.

한편 구 정치인들도 저들의 《극한 투쟁》이 인민 봉기를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미제의 조종에 기대를 걸면서 리면 흥정을 통해 박 정희 도당과 타협하는 길에 들어섰다.

결국 3월 28일에 박 정희와 버거 간에 《회담》이 벌어졌고 뒤'이어 30일과 31일에는 박 정희, 윤 보선, 허 정 등이 연거퍼 《조야 정상 회담》을 벌린 끝에 4월 8일 박 정희는 군정 연장 《국민 투표》를 9월 말까지 보류하고 《정치 활동을 허여》한다는 《4.8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정 이양 계획의 공포 《4.8 성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3. 16 성명》의 연장이며 미제의 사촉을 받은 박 정희가 《2.18 성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에 립후보하겠다는 공연한 선언이다.

《4.8 성명》이 있은 후 미제는 《박 정희의 대통령 출마》에 대한 공공연한 지지를 표명하고 《민정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작하였다.

미제 상전과 거듭되는 협의를 거친 후 박 정희는 7월 27일에 10월 중순 《대통령 선거》, 11월 하순 《국회 의원 선거》, 12월 중순 첫 《국회》 소집이라는 《민정 이양》 일정 계획을 발표하고 파쑈 떼로 통치를 연장하기 위한 기만극을 강행할 차비를 갖추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 의원 선거의 조작】 추악상을 드러낸 선거전 괴뢰 《대통령 선거》 및 6 대 《국회 의원 선거》는 남조선의 정치적 혼란상을 여실히 반영하였으며 그 추악상을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대통령》 립후보는 5 명 (초기 7 명이였으나 선거일 직전에 2 명이 립후보 사퇴, 그 중에는 구금중에 있는 《자민당》 립후보 송요찬이가 들어 있다), 《국회 의

원》 립후보는 의석 175 석(그 중 지역 대표 131, 비례 대표 44)에 대해 1,001 명 (지역구 847, 전국구 154)이라는 란립상을 보였다. 《선거》에 참가한 정당 수는 12 개 (4대 《국회 선거》 시는 6 개, 5 대 《국회 선거》 시는 5 개 정당)였다. 이리하여 여당, 야당을 물론하고 판에 박은 《협잡 선거》, 《부정 선거》에 고유한 갖은 추악한 행위들을 감행하였다.

박 정희 도당의 《민주 공화당》은 괴뢰 《국회》 의원 선거에서만 하여도 10억 원 이상을 뿌려가면서 《황금 매표를 비롯하여 막걸리 잔치, 돼지고기 잔치, 현수막 짓기, 강연회 방해, 록음 채취에 의한 공포 분위기 조성, 폭행, 랍치, 야당원 매수, 공무원 선거 운동, 관의 선심 공세, 터무니 없는 지방 사업 공수표 람발》 등등을 감행하는 데 여당의 유리한 립장을 최대한으로 악용하였다.

구 정치 세력 각 당파들도 그들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전 력량을 표수 획득에 쏟아 부었다.

여, 야 당파들의 《선거》 연설은 인신 공격과 위협 공갈로 시종하였다.

민주 공화당은 야당 파가 승리한다면 군사 정변이 재발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야당 각파는 박 정희에 대한 인신 공격과 《군사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는 데 주력을 돌렸다.

2 차에 걸친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사범》은 도합 728 건에 908 명이나 되였으며 여, 야당들 사이에 고소질과 맞고소질이 번질나게 벌어졌다. 《국회 의원 선거》 때의 《선거 사범》은 먼저 벌린 《대통령 선거》 때의 그것보다 98 건에 124 명이 더 많았다.

그리 하여 이번 《선거》 역시 그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리 승만 시기의 악명 높은 3.15 부정 선거가 《무색할 정도의 살인적 및 금력, 관력 선거》였다.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선거》는 (《대통령 선거》 10월 15일, 《국회 의원 선거》 11월 26일) 박 정희 도당이 펼쳐 놓은 삼엄한 《비상 경비 태세》(10월 14일 선포)와 감시망 속에서 진행되였다.

모든 투표소들에서는 지난 시기의 《선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데기 투표》, 《유령 투표》, 《대리 투표》, 《투표 용지 절취》, 《투표지 바꿔치기》 등 갖은 사기 협잡이 판을 쳤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남조선 인민들의 현 지배층들에 대한, 특히는 박 정희 도당에 대한 불신과 배격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었다.

투표 참가자의 비률이 극히 저조하였다. 특히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참가률이 72.1% 밖에 안 되였으며 남조선 식민지 통치의 중심인 서울에서는 유권자의 42.5%가 투표를 거부하였다.

박 정희는 파쑈 관권과 《금권》을 휘둘러 《대통령》에 《당선》은 되였으나 투표자 수의 42.6%, 유권자 수의 36.2%의 표밖에는 긁어 모으지 못했다. 《국회 의원 선거》에서 제 1 당이 된 《민주 공화당》의 득표 수는 이보다 좀 더 떨어진, 투표자 수의 33.5%였다. 이것은 야당의 진출이 가장 강했었고 여당에 대한 인민들의 배격이 고조되였던 4 대 괴뢰 《국회 선거》에서 리 승만 《자유당》이 긁어 들인 42.1%에 비해서도 8.6%나 낮은 것이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6 대 《국회》가 과거의 《국회》 (1대—5대)들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그것들보다 더 파쑈적이며 반동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국회》 의원 직업별 구성에서 《정상배》, 《자본가》, 《지주》들 외에 파쑈적인 군인, 어용 지식인들의 수효가 늘었다. 4 대, 5 대 《국회》 때에는 없던 군인이 6 대 《국회》에는 35 명(20%)이나 되며 각각 2 명이던 미국 침략 사상의 대변자인 어용 교육인은 19명(10.8%)으로 늘었다.

특히 군인들은 《민주 공화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들로서 괴뢰 《국회》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회》 의원 중 67 명(38.2%)이 과거 리 승만이나 장 면 시기에 《국회》 의원을 해먹던 자들이다.

제반 사실은 6 대 《국회》 역시 선행 《국회》들과 마찬가지로 지주, 예속 자본가, 친미, 친일 분자들의 리익의 대변 기관이며 미제 식민지 통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대통령 선거》 결과

ㄱ. 유권자 총수	12 985 015	100	
ㄴ. 투표자 수	11 036 175	84.9	
ㄷ. 기권자 수	1 948 840	15.1	
ㄹ. 무효표 수	954 977	8.7	
ㅁ. 득 표 수		ㅁ/ㄴ(%)	ㅁ/ㄱ(%)
박 정희	4 702 640	42.6	36.2
윤 보선	4 546 614	41.2	35.0
기 타	831 944	7.5	6.4

주: 제 3 대 《대통령》 선거 때의 득표 비률은 유권자 총수에 대하여 52.5%, 투표자 총수에 대하여 55.6%였다.

◇ 《국회 의원 선거》 결과

ㄱ. 유권자 총수	13 344 149	100	
ㄴ. 투표자 수	9 622 183	72.1	
ㄷ. 기권자 수	3 721 966	27.9	
ㄹ. 무효표 수	323 353	2.5	
ㅁ. 득 표 수		ㅁ/ㄴ(%)	ㅁ/ㄱ(%)
《민주 공화당》	3 112 985	33.5	23.3
《민 정 당》	1 870 976	20.2	14.0
《민 주 당》	1 264 285	13.6	9.4
《국민의 당》	822 000	8.8	6.2
《자유 민주당》	752 026	8.1	5.6
기 타	1 476 558	15.7	11.1

◇ 정당별 의석 수

	지역 대표	비례 대표	계	%
《민주 공화당》	88	22	110	62.8
《민 정 당》	27	14	41	23.4
《민 주 당》	8	5	13	7.4
《자유 민주당》	6	3	9	5.1
《국민의 당》	2	—	2	1.1
계	131	44	175	

주: 구성 비률에서 0.1%가 못 되는 수는 버림.

◇ 《국회 의원》 성분 구성

자본가 (기업가)	18(명)	10.3(%)
지 주	5	2.9
관 료	14	8
군 인	35	20
교육인	19	10.8
언론인	6	3.4
정상배	72	41.1
변호사	5	2.9
의 사	1	0.6
총 계	175	100

주: 본 자료는 《한국 일보》, 《동아 일보》의 것을 가지고 분석한 것임.

◇ 력대 《국회 선거》 정형

		참가 비률	기권 비률	투표자 수에 대한 여당의 득표 비률
1차	1948	95.5	4.5	…
2차	1950	91.5	8.5	…
3차	1945	91.1	8.9	36 (자유당)
4차	1958	90.6	9.4	42.1(자유당)
5차	1960	84.4	15.6	83.1(민주당)
6차	1963	72.1	27.9	33.5 (민주 공화당)

민정 이양 1963년 12월 16일의 소위 《최고 회의 해산식》에 뒤'이어 12월 17일 박 정희의 《대통령 취임식》과 괴뢰 《국무위원》의 지명이 있었다. 이로써 남조선에서 2년 7개월 동안 군림하여 온 박 정희 《군사 정권》은 표면상 박 정희 《민간 정권》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미제는 박 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한국의 장래는 유망하다》느니, 《대통령 취임식이 모든 면으로 보아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진행》되였다느니 하면서 이른바 《민간 정권》에 온갖 찬사를 퍼부었다.

이들은 《민정 이양》의 기만극으로 남조선의 정국이 수습되고 안정이 보장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선거》 후 미제의 기대와는 달리 그칠줄 모르는 여, 야간의 물고 뜯는 개싸움으로 남조선의 정국은 더욱 혼란 상태에 빠졌다.

야당 측에서는 《부정 선거 규명》을 비롯하여 《물가 대책》, 《한일 회담 진상 규명》, 《군정 감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대여 투쟁 방안》을 꾸며 가지고 나섰다. 그리하여 여, 야간의 개싸움은 확대되였다.

한편 《선거》 후 여, 야당 내에서의 분파 싸움 역시 치렬해져 갔다. 야당 내에서는 락선 립후보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선거》 실패의 책임을 당 지도부에 빗대고 공격해 나섰으며 여당 내에서의 분파 싸움은 《선거》 후 인물 배치를 둘러 싼 갈루 싸움으로 확대되였다.

더욱 심화되는 정계 혼란

미제는 《정치 활동을 허여》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여당과 그보다 약한 다른 한 개의 야당에 의거하는 량당 정책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 격화되고 있는 사회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며 나아가서는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배격을 받고 있는 군사 파쑈 통치를 마치나 《민주주의적》인 《대의제》 정치처럼 위장하여 보려고 꾀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박 정희—김 종필을 두목으로 하는 여당과 윤 보선 등을 괴수로 하는 단일 야당을 형성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획책하여 왔다.

그러나 여당은 그 조직 과정에서 내분이 격화되였으며 단일 야당의 형성은 당의 령도권을 둘러싼 각 당파 간의 싸움을 불러일으켰을 뿐 실패로 돌아 갔다.

【민주 공화당의 지반 확대 흉책과 그 내분】 여당을 목표한 민주 공화당의 조직 준비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여 있던 때인 1962년 5월부터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중앙 정보부》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였다.

《정치 활동 재개》와 더불어 군사 통치배들은 《정당법》, 《정치 활동 정화법》, 《선거법》 등으로 반대파 세력들의 진출과 활동을 억제하면서 이미 말단 조직까지 끝낸 《민주 공화당》의 정치적 지반을 강화하기에 계속 광분하였다. 《직위 등급별 포섭 책임량의 배당》, 《자금에 의한 매수》 등 각종 교활한 방법으로 군사 통치배들은 당원을 획득하기에 날뛰는 동시에 외곽 단체인 《5월 동지회》, 《재건 국민 운동 본부》, 《재향 군인회》 등을 당세 확장에 최대한 발동시켰다.

다른 한편 박 정희 도당은 야당의 분렬 파괴와 구정객들을 꾀여 들이기 위하여 《과거의 계보나 파벌을 초월》한 《범 국민 정당》을 형성할듯이 나발을 불어댔다.

박 정희 도당의 《범 국민 정당》 형성 책동의 결과 야당들에서 일부 정객들이 떨어져 나와 《민주 공화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한 《자유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그 후 리권 분배를 둘러 싼 의견 대립으로 두 당의 합당까지에는 이르지 못 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또 야당 파괴를 목적하여 《자유 민주당》 《대통령》 립후보 송 요찬을 두 차례나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야당 간부들에 대한 빈번한 구속과 테로 행위를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한 개 지구당을 파괴하는 데 20만 원,

지구당 위원장을 매수하는 데 50만 원씩 정치 자금을 뿌려 가면서 야당의 분렬 파괴에 날뛰였다.

그러나 《민주 공화당》은 악랄한 당세 확장 공작에 의한 수'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 주도권 쟁탈을 위한 암투가 이 해 벽두부터 격화하였으며 따라서 내부로부터의 파괴 작용이 년중을 통하여 계속되였다.

박 정희는 1963년 1월 5일 《중앙 정보부장》 김 종필을 현역으로부터 예비역에 편입시켜 당 조직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민주 공화당》의 륜곽이 완전히 표면에 나타나게 되였다.

1월 18일 당 창건 발기 위원회 위원장이 된 김 종필은 박 정희—김 종필 선을 핵으로 하는 《사무 당원 중심》의 파쑈적 유일 지배 체계를 당 내에 확립하려는 그 일당의 획책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종필 파와 맞서 오던 리 주일—김 동하 파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마침내 자기들의 영향하에 있는 괴뢰군 부대들과 경찰을 동원하여 실력으로써 문제를 처리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대항하여 김 종필 파는 《중앙 정보부》를 동원하여 실력 대항으로써 판가름 할 기세를 보였다.

박 정희—김 종필 파와 리 주일—김 동하 파 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싸움은 결국 2월 18일 박 정희의 《대통령》 출마 포기 성명 발표와 김 종필의 《당직 사퇴》라는 결과를 가져 왔으나 김 종필 파에서는 계속 집요하게 맞서서 마침내는 3월에 《군부 쿠데타 사건》이란 명목을 걸어 김 동하를 구속하고 그 일파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민주 공화당》의 내분은 이 밖에 《자유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싼 《최고 회의》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 반김 종필 《주체 세력》과 김 종필제 《주체 세력》 사이에 벌어진 《5월 동지회》의 주도권 쟁탈전, 《민정 이양》 이후 《국회》 요직과 당 주도권을 둘러싼 김 종필 주류 세력과 장 경순 비주류 세력 간의 암투 등 그칠 사이가 없었으며 괴뢰 통치의 지주인 《민주 공화당》의 취약성을 전면적으로 로출시켰다.

【《범 야당 운동》과 그 결렬, 정당의 란립】 《민정 이양》과 관련하여 괴뢰 정권 쟁탈에서 당면한 적수인 박 정희를 때려 눕혀야 한다는 리해의 공통성은 《정치 활동 재개》 직후부터 구 정치 세력 각 당파 속에서 야당 련합의 기운을 조성하게 되여 이것은 곧 《범 야당 운동》에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혼란된 정국을 안정시키며,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며, 그것을 유지 강화하려는 데 보수 세력을 리용하려는 미제의 흉책과도 관련된다.

전 괴뢰 《대통령》 윤 보선 (구 《신민당》 계렬), 전 괴뢰 《대법원장》 김 병로 (무소속), 전 괴뢰 《참의원 의원》 리 인 (무소속), 전 괴뢰 《민의원 의원》 전 진한 (무소속) 등이 재야 세력의 《대동 단결》을 기도하여 《4자 회담》을 한 끝에 박 정희 일당의 계속 집권을 반대하기 위한 《범 야당》의 조직을 호소하였다. 그 후 구 《자유당》 계렬과 구 《민주당》 계렬에서 이에 호응하여 《각파 대표 확대 회의》가 벌려졌고 1월 11일의 제 2차 《회의》에서는 재야 세력의 단일 정당이 될 《민정당》 (가칭)을 설립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민정당》 형성을 위한 움직임은 당내 실권 특히 《대통령》 후보 선정과 지구 당 조직 문제를 둘러 싸고 구 《민주당》, 구 《자유당》 계렬과 구 《신민당》 계렬 및 무소속 사이에 대립을 로출시켰다. 결국 《민주당》과 구 《자유당》 계렬이 대부분 떨어져 나가 《범 야당》 조직으로서의 《민정당》 형성 운동은 와해되고 말았다. 그 후 미제의 조종에 의하여 2월 18일 박 정희의 《민정 참여》 포기 성명이 있었고 야당들 앞에는 괴뢰 정권을 탈취하려는 길에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였는바 《신정당》을 조직 중에 있는 허 정은 자기의 정치적 지반이 미약한 불리성을 고려하여 2월 20일 재빨리 야당들의 통합을 제창하여 나섰다. 그러나 이 제창은 각 야당파들의 랭대를 받은데 그치고 말았다.

그 뒤에 《3.16 성명》, 《4.8 성명》 등으로 남조선 정국은 거듭되는 혼란 끝에 박 정희의 《대통령》 출마가 확정되고, 《민주 공화당》의 야당에 대한 분렬 파괴 공작이 로골적으로 전개되여 야당 내부에서 파쟁과 암투가 격화되고 분해 작용이 촉진되자 다시 야당 각파들에서는 단일 정당 형성을 위한 기운이 조성되여 갔다.

결과 《신정당》 (허 정), 민정당(윤 보선), 민우당(리 범석) 3당이 통합체로서의 《국민의 당》 창당을 선언하고 9월 《창당 대회》를 벌리는 데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도 내부 주도권 쟁탈전 끝에 야당 통합은 재차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민정 이양》을 계기로 하여 군사 파쑈 도당과 구 정치 세력들의 리합 집산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해에 정당들의 출몰이 격심하였다.

괴뢰 《중앙 선거 위원회》에 정당 결성을 신고해 온 건수만 하여도 9월 1일 현재 29개를 헤아리게 되였다.

이 수다한 정당들은 도탄에 빠진 민생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괴뢰 정권 쟁탈을 위한 수라장을 펼쳐 놓아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을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하였다.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책동

일본 제국주의를 마름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관

리하게 하며 동시에 일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중추로 하는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해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는 기도 밑에 미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여 왔다.

특히 4.19 이후 더욱 급격하게 험난해져가고 있는 남조선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는 미제로 하여금 더한층 《한 일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게 하였다.

1963년 벽두부터 미제는 남조선과 일본의 《접근》이 《너무나도 오래'동안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 회담》을 급속히 결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미제 상전의 요구를 채워 주기 위하여 년초부터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박 정희는 1월 5일 《시정 연설》에서 《과거의 누적된 국민 감정을 초월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각오》를 천명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또한 남조선을 또다시 일제의 전면적인 침략에 내맡기는 대'가로 얻을 얼마간의 푼전으로써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와 미제의 《원조》 삭감으로 인한 《난관》을 일시 모면하여 저들의 장기 집권 흉모를 관철하려고 타산하였다. 이리하여 이자들은 《한일 회담》의 《민정 이양전 타결》을 목표로 서둘러 나섰다.

이 해 박 정희는 1월 22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예비 회담》 제 22차 회의를 시초로 하여 최대한의 《저자세》와 《굴욕 외교》로써 회담을 추진시키기에 발광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인민들 속에 높아 가고 있는 《한일 회담》 배격 기세, 《한일 회담》의 《현안 문제》로 되고 있는 《어업 문제》 등에서 일제와의 홍정, 혼란한 남조선 정세에 대한 일제의 일정한 고려 등이 원인이 되여 회담은 미제와 박 정희의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6월 말에 박 정희는 《외교 고문》 최 규하를 일본에 보내여 일본 지배층과 《어업 협정 교섭의 진전》과 《한일 회담 속결》을 위한 막후 교섭을 하게 하고 한편 7월 8일에는 일제에 《친서》를 보내여 《한일 회담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등 애걸을 하였다.

나아가 7월 16일—7월 18일에 워싱톤에서 벌린 《한미 회담》에서는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한일 회담》 타개책에 대하여 김 용식 괴뢰 《외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주었다.

그후 박 정희 도당은 《전관 수역》 기타의 홍정에서 일제에 더 한층의 양보를 하였으나 이는 또한 남조선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게 하여 부득불 《선거 전 어업 문제 타결》 방침을 《선거 후》로 후퇴시켰다.

이 해 12월에 일제의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는 박 정희의 《대통령 취임 경축 사절》이라는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여 들어 18일에는 박 정희와 만나서 《한일 회담》의 《현안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기로 결정하고, 19일에는 김 종필과 만나서 《규제 수역과 어업 협력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거래하였다.

반미 반정부 기세의 앙양

이 해에 미제의 추악한 주구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의 매국 반역적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미제가 일관하여 추구하여 온 식민지 략탈 정책의 불가피한 후과인 경제 파국과 민생고가 더욱 심화되자 반미 반정부 기세는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등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 속에 더욱 넓게 더욱 뿌리 깊게 뻗어 나갔다. 이는 여러가지 형태로 하는 투쟁 진출과 자주적 조국 통일을 위한 지향의 앙양을 수반하였다.

【로동 쟁의의 증대】 1963년에 남조선 로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새로운 발전적 추세를 보여 주면서 급격히 장성하였다.

세계 최저의 값싼 임금, 새 해 벽두부터 멈출줄 모르고 뛰여 오르는 쌀값, 한정 없는 굶주림은 남조선 인민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긴박감》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어느 해보다 강렬한 투쟁의 불씨를 안겨 주었다.

또한 이 해 《민정 이양》을 앞둔 정치 활동의 재개를 계기로 하여 로동자들은 《쟁의권 부활》과 《로동 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결과에 《군사 정권》은 4월에 로동 쟁의를 형식적이나마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이것은 남조선 로동자들이 극히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투쟁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로동자들의 투쟁이 4월 이후 급속히 증대하였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의 발전상은 우선 투쟁 건수의 증대에서 볼 수 있다. 개략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년초부터 7월 15일까지의 반년 남짓한 기간에 전개한 투쟁 건수는 지난 해 일년간의 그것을 따라 잡고 있다.

이러한 왕성한 투쟁의 물'결은 이 해에 군사 정변후 처음으로 되는 대중적이며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확대하였다.

1월 19일부터 2월 말일까지에 걸쳐 로동 조합 조직에 대한 탄압 반대와 《쟁의권의 부활》을 요구하여 파업을 전개한 서울의 《미왕 산업 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 로동자들 속에 파급되기 시작한 매개의 투쟁은 평균 참가자 수에 있어서 지난 해의 그것에 비해 4.7배나 되는 6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투쟁 참가 규모의 확대는 우선 이 해에 대기업체 로동자들의 투쟁이 증대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중요하게는 그들의

계급적 단결과 련대성이 강화되고 공동 투쟁이 발전하고 있는데 있다.

1월 중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 했던 투쟁은 2월 14일 영등포 지구내 화학 부문 로동자들의 지역적인 련대 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4월 9일 로동 조합 결성을 위해 단행한 부산 《금성사》 로동자들의 파업은 부산시내 14 개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공동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투쟁에서는 《쟁의권 수호를 위한 투쟁 위원회》, 《단결권 수호 대책 위원회》 등 공동 투쟁을 위한 조직체가 각각 나왔으며 《금성사》 파업에서는 이를 지지하여 로동자들은 《전위대》까지 조직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6월에 들어가 4일부터 시작된 섬유 부문 로동자(3만여 명)들의 임금 50% 인상 요구 공동 투쟁, 5일부터 시작된 광산, 금속, 전력, 운수, 화학, 해상, 금융 등 7개 산업 부문에 속하는 15개 《정부 관리 기업체》 종업원(4만 3천여 명)들의 《직원 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 페지를 위한 공동 투쟁, 같은 날 미군 부대의 청부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 기업체 《트랜스 에이샤 회사》(강원도) 로동자들의 임금 삭감, 부당 해고 반대 투쟁 개시를 기점으로 하여 9일부터 시작된 남조선 전체 외국 기관 로동자(1만 8천여 명)들의 《로무 협정 체결, 로동 조건 개선,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투쟁 등 동일 부문 산업 또는 전 남조선적인 투쟁에로 발전하였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발전은 《대한 석탄 공사》, 《대한 철광》, 《대한 중석》, 《장항 제련》, 《대한 중공업》, 《한국 전력》 등 괴뢰 정부 직할 기업체를 비롯한 로동 계급 대렬 내의 핵심인 중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진출이 현저히 강화된 데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로동자들은 투쟁 과정에서 적극성과 완강성을 더욱 발휘하였다.

《미왕 산업》 로동자들의 쟁의권 부활 요구 투쟁은 괴뢰 경찰의 검거, 대량적 해고, 공장 페쇄 등 탄압을 물리치고 40여 일간 계속한 끝에 요구를 관철하였으며, 40여 일간 계속된 《근신 산업》 파업의 요구 관철, 약 2개월 간에 걸친 《트랜스 에이샤 회사》 파업과 인천의 《삼화 제분》 파업 등 수많은 장기 파업과 요구 관철을 위한 반복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러한 투쟁의 파도는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식량 기근이 절정에 이른 5~6월부터 더욱 강렬하였으며 《민정 이양》 전후 시기에 급격히 앙양하여 괴뢰 식민지 통치의 지반을 덮치여 갔다.

11월 15일 경기도 부평읍에 있는 《새나라 자동차 회사》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간 뒤를 이어 18일에는 부산 어로 로동자 1,200명이 기준 임금의 보장 등 6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12월에 들어가 로동자들의 투쟁은 14일에 《대한 석탄 공사》, 《대한 중석 공업 공사》, 《양양 철광》 등 남조선 중공업 부문 3개 《관영 기업체》 2,000여 명 로동자들이 임금 50%~80%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간 것을 비롯하여 21일에는 《한국 전력 회사》(관영 기업체) 1만 2천여 명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 40% 인상과 《제 수당 인상》 요구 쟁의, 27일에는 철도 부문 2만 5천 명 로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쟁의, 23일과 28일에 있은 광산 부문 1만 7천여 명 근로자들의 임금 50~100% 인상 요구 쟁의 개시와 운수 부문 1만 3천여 명 로동자들의 임금 244% 인상 요구 쟁의 개시 등 참가한 로동자 수에 있어서나 요구 조건에 있어서나 그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였다.

생존을 위한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불가분리하게 민주주의적 권리 옹호를 위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1964년 1월 7일 남조선 로동자들은 《로동 위원회법》, 《로동 조합법》, 《로동 쟁의 조정법》 등 일련의 파쑈적 《로동법》들의 페기를 박 정희 《민간 정권》에 제기하고 투쟁에 들어 갔다.

1964년 1월 14일에는 쟁의 중에 있는 철도, 체신, 전매 부문 로동자(3만 6천여 명) 대표들이 회합을 가지고 《1. 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 투쟁할 것, 2. 실력 행사에 들어 갔을 때에는 행동으로 지원할 것, 3. 쟁의 목적이 100% 달성될 때까지 생사를 같이 해서 싸울 것》을 결의하고 투쟁 대렬의 단결, 련대성 및 행동 통일을 의식적으로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1963년 11월 이후 1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전개된 로동 쟁의에는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150개 이상의 기업체에 14만 명에 달하는 로동자가 망라되였다. 여기에는 전매, 체신, 철도 등 3개의 《관공서》와 5개의 《광업 기업체》, 9개의 민간 경영 탄광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의 운수 부문 로동자, 미군 기관 고용 로동자, 서울 시내 제화 로동자, 양복 제조공, 제약 로동자, 인쇄 로동자 등 남조선 경제의 전반 부문 로동자들이 포괄되여 있다.

이 기간에 경기도 평택군 농민들이 전개한 착취 지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 투쟁, 강원도 군사 분계선 린접 지구 농민들이 전개한 각종 부당한 《부채》와 《부과금》의 강제 회수를 반대하는 투쟁 등 농민들의 투쟁도 강화되였다.

【세 돐 맞은 4.19】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정치 활동의 재개》를 계기로 하여 1963년 초부터 《자유 민주 청년 련맹》, 《4월 혁명 총련맹》, 《전국 대학생 총련합회》, 《2월 민주 청년 련맹》, 《전국 대학 신문 련합회》 등 자기들의 력량을 결속하기 위한 단체

조직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학생들의 조직은 4월 인민 봉기 참가자들의 주동적 역할에 의하여 4.19와 그 이후의 투쟁 경험을 살리여 중앙적인 조직체와 지역적인 련합 조직으로 꾸려졌으며 이 조직을 통하여 서울과 지방의 학생들은 호상 간의 뉴대를 강화하고 력량을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1963년의 학생들의 움직임은 통일적인 조직에 의거하여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대중 투쟁에로 발전되리라는 전망을 보이였다.

《군사 정권》은 이 해 청년,학생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앞잡이들을 추동하여 《애국단》, 《청년 한국 련맹》, 《한국 청년 학생 총련맹》 등 수다한 어용 청년 학생 단체를 조작하고 반미 반정부적 애국 학생들의 운동을 분렬시키고 탄압 말살하기에 광분하였다.

이 해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박 정희의 3.16 성명을 계기로 하여 그들의 외세 배격과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더욱 명백하게 하였다.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과 《3.16 성명》 그리고 3월 22일에 발표된 괴뢰군 수뇌자들의 군정 연장 지지 성명들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극도로 분격케 하였다.

그것은 3월 17일의 《4월 혁명 총련맹》의 삐라 살포, 3월 24일에 있은 4월 인민 봉기에 참가하였던 《전국 4월 혁명 상이 동지회》, 《전국 4월 혁명 학생 동지회》 등 11 개 단체의 성명, 3월 29일에 있은 서울 대학교 학생들의 《자유 수호 걷기 대회》, 3월 30일에 있은 《청년 한국 련맹》의 성명들에서 단적으로 표명되였다.

련일 발표된 수다한 성명들은 그 모두가 군정 연장을 반대하여, 구 정치인들의 재집권 책동을 반대하여 《전체 학생과 국민의 이름으로 결사 투쟁》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4.19 세 돐을 맞아 서울 대학교와 고려 대학교 학생들은 기념식을 가졌다. 고려 대학교 학생들은 기념식에서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질서가 하루 속히 이 땅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소리 높이 웨쳤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군정 연장을 반대한다》, 《구 정치인은 자숙하라》, 《미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 말라》고 쓴 플랑카드를 추켜 들고 리 승만을 타도하기 위해 3년 전에 그들이 용감하게 돌진해 나간 코스를 따라 시위를 전개하였다.

같은 날 서울 운동장에서는 박 정희의 어용 《4.19 기념식》이 진행되였는데 식장에는 《군정 연장》을 반대 배격하는 수백 매의 삐라가 뿌려졌다.

4월 19일 이후 서울, 대구 등지에서는 《전국 남녀 대학생 학술 토론회》, 《모의 평화 회의》 등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각종 써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이러한 회합들에서 청년, 학생들은 군사 정부가 강요하는 《학생들의 정치 활동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일치하게 《정치 참여》를 요구하여 나섰으며 외세 배격과 자주 통일을 거듭 주장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 학생들은 군사 통치배들과 구 정치인들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더욱 표면에 내놓았다.

9월 10일 남조선 각 대학 학생 대표 63 명은 《대통령》에 립후보한 박 정희와 윤 보선을 비롯한 구 정치인들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13일 서울 시내 각 대학교 학생 대표들은 사기, 협잡 《선거》를 심판하기 위한 《전국 대학생 공명 선거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한국 학생 총련맹》은 군사 통치배들과 구 정치인 및 그와 결탁한 자들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는 삐라를 뿌리려다가 괴뢰 경찰에 저지 당하였다.

남조선 청년들은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 《한일 회담》 속결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재침 야망을 품고 박 정희 《대통령 취임 경축 사절》이란 이름 밑에 서울에 기여 든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를 반대 규탄하여 그가 투숙 중인 조선 호텔로 몰려가 롱성 투쟁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새 해 1964년 1월 중순에 《한일 회담》의 결속을 서둘러 서울에 기여드는 미 국무 장관 러스크를 반대하여 김포 비행장에 삐라를 뿌리였다.

4. 19 3 주년이 되는 1963년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농촌 실태 조사》와 방학 기간의 《농촌 봉사대》 등 합법적 계기들을 리용하여 전개한 광범한 군중 계몽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군사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농민 대중 속에 폭로하고 그들의 각성을 높이며 나아가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지향】 정치적 혼란, 극도에 달한 경제 파국과 민생고에 휩싸인 1963년의 남조선 정세의 흐름은 미제 강점의 필연적인 결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 주었으며 이러저러한 정권의 교체로써는 도저히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이 해에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팽배하게 울려 나온 외세의 배격과 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자립에 대한 요구는 막연한 념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체험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치적인 주장으로서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투쟁 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었다.

이러한 것은 《미 군정, 리 승만 정권, 장 면 정권, 박 정희 군사 〈정권〉 등 18 년이란 장기간 빈궁과 억압 하에서 신음해 온 국민은 지금에 와서 자유를 획득하는 길은 조국 통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부르

것은 서울 대학교 한 교수의 강연에서도 볼 수 있다.

이 해에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기만과 폭압, 공갈과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생존과 자유를 위한, 나라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조직적인 것으로 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투쟁은 공화국 북반부의 거대한 사회주의 력량의 건설 성과들에 의하여 더욱 고무되고 있다.

이 해 남조선에서 미제가 조작한 《민정 이양》을 앞두고 《경향 신문》이 서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 결과는 압도적 다수가 《북에 의한 통일》을 념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재차 천명된 조선 로동당의 조국 통일 방안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다.

《서울 신문》은 우리의 제의가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이번 제의에 대해서는 그 제의의 시점에 비추어 그 작용을 왕일(지난 날)보다 더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또한 이 제의로 인하여 《반미 기운이 촉진되고》 나아가 《양키 고―홈(미제는 물러가라)이 될》 정세가 남조선에서 촉진될 수 있다고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조국 통일이 얼마나 광범한 대중의 절박한 념원으로 되였는가를 단적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의 한 로동자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살'길이 열린다.》고 말하였으며 농민들도 《언제나 통일의 날이 오겠는지 꿈 속에서도 통일을 본다.》(1963년 5월 2일 《부산 일보》), 《죽기 전에 통일을 보고 싶다.》(1963년 4월 24일 《령남 일보》)고 말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열화 같은 지향은 괴뢰군 병사들 속에서도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괴뢰군 병사들 속에서는 《월북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공화국 품에 안기려는 지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동족 살해를 꾀하는 괴뢰군 살인을 반대하여 탈주하는 사건들이 련'이어 일어 나 《작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1963년 12월 24일 《서울 방송》)하였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미국은 내정 간섭을 말라》는 플랑카드를 들고 시위를 단행(1963년 4월 19일 《동양 통신》, 《국제 신보 지사》)하였으며 고려 대학교 학생들도 《외세의 어떠한 작용도 반대한다.》고 웨쳐 나섰다.

통일에 대한 지향은 언론인들 속에서도 증대되고 있는바 그들은 《통일은 우리 모두가 잘 살자는 첩경》이라고 부르짖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열화 같은 조국 통일에 대한 지향은 이 해에 하나의 여울목을 향하여 도도한 흐름을 이루어 갔다.

이 거세찬 흐름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더욱 막다른 멸망의 길로 밀어 나갔다.

남조선에서 사태는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력량과 이를 막아 보려는 미제와 박 정희 일당의 력량 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으며 그 것을 막을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경 제

1963년 한 해 동안에 남조선 경제 형편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적 위기를 거듭하여 마침내 《폭발적 단계》에 다달았으며 인민 대중의 빈궁화 과정은 급속히 촉진되여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경제의 위기는 특히 첨예한 식량난과 외화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 폭등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생산과 류통, 재정 금융의 모든 면에 걸쳐 혹심한 물자 결핍 상태를 조성하고 전반적 경제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경제 파국이 심화될수록 박 정희 도당의 외세 의존 정책과 미제의 지배와 통제력은 일층 강화되였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일본 독점 자본의 침투는 눈에 띄게 로골화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 경제는 더욱 더 심한 예속 상태에 굴러 떨어졌으며 이것은 경제 전반의 파국을 심화시키고 민족적 모순을 일층 격화시켰다.

1963년도 남조선 경제 정세의 기본 추세와 특징을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식량 위기 1962년도 쌀 수확량은 1,256만 석으로서 전년의 66.4%, 1963년도 밀, 보리 농사는 《전무 후무한 대흉작》으로서, 그 수확량은 평년작의 32%인 231만 석 (《합동 통신》 1963년 8월 28일)에 불과하였다.

이리 하여 괴뢰 정부는 1963년도 《량곡 수급 계획》에서 부족량을 1,081만 4,000 석으로 예견하였으나 《외국 도입》이 원활치 못했던데다 실제 수확고가 예상보다 감소되여 절대 부족량은 수요량의 절반에 가까운 1,500만 석을 넘었다. 《전례 없는 극심한 식량 위기》로 쌀 값은 한달 동안에 곱절씩의 폭으로 뛰는 현상이 거듭되였으며 쌀 소동은 남조선 전역에 확대되였다.

4—5월 춘궁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식량 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져 절량 호수는 농촌에서 140만 호, 도시에서 60만 호, 도합 200만 호에 달하고 결식 아동 수는 전체 《국민 학교》 아동 수의 4분의 1을 넘었다.

외화 위기 보유액이 계속 줄어 들어 《해방 후 최악의 위기》를 나타냈다.

1963년 말 현재 괴뢰 정부의 외화 보유액은 1억 3,150만 딸라로 1962년에 비하여 3,710만

딸라, 1961년에 비하여는 7,550만 딸라가 감소되였다. 그러나 명목상 보유액 가운데에는 결제해야 할 외화 부채 7,300만 딸라와 일본에 대한 주로 무역 거래상의 외화 부채 4,700만 딸라가 들어 있음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괴뢰 정부는 외화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서 민수 산업을 위한 원자재 수입을 전면적으로 억제하였다.

기업 파탄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심각한 원료난과 자금난으로 생산의 확대는 고사하고 현존 시설의 유지조차 불가능하여 파산 몰락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이 해에 남조선 민족 자본을 대표하는 광범한 중소 기업은 서울에서 510 개, 대전에서 100여개, 경상남도에서 140 개가 련'이어 파산하였으며 상반년 중 휴업 상태에 있은 공장 수는 월 평균 1,671 개에 달하였다 (《산업 경제 신문》 1963년 9월 10일). 이 밖에도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인 《기업 정비》 조치에 의하여 광업 부문에서만도 880 개의 중소 탄광들이 페쇄되였다.

비교적 토대가 있다는 제탕, 제분 공장들도 《년중 휴업 또는 대폭 조업 단축》을 계속하였으며 《기간 산업 건설》을 표방한 괴뢰 정부의 《울산 공업 쎈터 계획》은 심한 물자 부족과 재정난으로 완전 포기 상태에 빠졌다.

급격한 생산 감소 공업 기업과 건설의 파탄으로 생산도 급격히 축감되였다. 광업 부문에서는 1963년 첫 7 개월간에 10%, 같은 기간에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15%가 줄어 들었으며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12호), 고무 제품 생산은 10월 한달 동안에만도 그 전달에 비하여 35.8%나 대폭 감소되고 음식품도 11.5%나 줄었다 (《합동 통신》 1963년 11월 27일).

물가의 폭등 1963년 말 물가 지수는 1962년의126.7 (1960=100)에서 164.7로 년간 38.0이 올랐다. 이것은 전년도의 12.5의 상승에 비하여 3 배에 해당하는 폭등상이였다. 통화 가치는 년간에 50%로 떨어졌다 (《동화 통신》 1963년 12월 16일). 물가 등귀 현상은 식량 부족과 외화 위기로 인하여 투기와 매점 매석이 가장 심하였던 곡물과 수입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 해 12월 5일 현재 곡물 가격 지수는 1962년 동기에 비하여 47.7%나 등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식물 가격은 9월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69%나 급격히 앙등하였다. 수입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 품목에 걸쳐 2~3 배, 지어는 4 배까지 폭등하였다. 곡물과 공업 원자재 가격의 등귀는 점차 일용 소비품 가격에 전가되여 물가 전반에 확대되였다. 괴뢰 정부는 무모한 《물가 억제책》을 강구하였으나 이것은 도리여 물가 앙등을 자극하고 물자의 은익과 암거래, 매점 매석 등을 조장하여 전반적 류통 체계는 더욱더 수습할 수 없는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졌다.

외래 독점 자본에 의한 경제의 예속 외래 독점 자본에 의한 예속의 심화는 이 해 남조선 경제 추이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징표이다. 1963년도에 더욱 큰 규모의 미국 사자본 투자가 개시되였다. 7월에 미국 5대 석유 독점체의 하나인 칼프 회사는 《울산 정유 공장》 건설에 2,500만 딸라의 직접 투자와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공장의 운영권을 장악하였다.

외국 독점 자본은 《기술 협조》의 형태로도 광범히 침투하였다. 이러한 《기술 협조》는 남조선 산업의 기술적 예속을 심화시키고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요된 외국 원자재와 부속품, 완제품에 가까운 반제품들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민족 산업은 심한 압박을 받았으며 파산을 강요 당하였다.

특히 무역 부문에서의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은 아주 활발하였다.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또모》 등 50 개의 일본 독점 상사들이 자기들의 대리점을 설치하고 남조선의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과 비료, 수산물, 광산물 등의 취급을 독점하였다.

도탄에 든 인민 생활 각종 세금과 량곡 수탈의 강화, 물가의 폭등, 식량 위기와 기업체들의 파산 몰락으로 로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들의 실질 소득은 대폭 저하되였으며 식 생활은 악화되고 실업자는 더욱 증대되였다.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 8월 현재 남조선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전년 말에 비하여 업종별에 따라 겨우 3% 내지 10%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에 물가는 39%나 올라 실질 임금 수준은 20%~26%가 낮아졌다.

1962년도의 추곡과 1963년도 하곡의 계속되는 대흉작으로 인하여 빈농은 물론 중농층의 령락이 심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이 해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산다는 것이 고작 숨쉬는 것》뿐 (《매일 신문》 1963년 10월 12일)일 정도였다.

이 모든 파국적 사태는 1963년에 들어 와서 더욱 강한 압력을 가지고 감행된 미제의 식민지 《경제 안정화 정책》과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박 정희 도당이 강다짐으로 내몰은 《긴축 정책》의 결과이다. 미제는 딸라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 해 《원조》 규모를 전해에 비하여 2,000만 딸라나 줄인 반면에 박 정희 도당을 시켜 각종 조세(전매 익금 포함) 수탈을 전년보다 109억원이나 늘이어 현지 군사비로 충당케 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농지세》, 《영농 자금 회수》 등 명목으로 장 면 정권 때의 2 배나 되는 근 400여 만 석의 량곡과 150여 억 원의 자금을 강탈하기 위하여 년중 수탈 소동을 벌렸다.

《긴축 정책》 하에서 경제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은 가혹하게 억제되였으며 생활 필수품 생산에 대한 원자재 공급도 대폭 축감되였다. 지어 박 정희 도당은 외화 부족을 빙자하여 중소 공장들을 전면적으로 강제 폐쇄하려는 망국적인 《산업 구조 개편안》까지 조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범죄적인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과 《국교 정상화》의 실현에 광분하면서 그 막뒤에서 무역, 《보세 가공》, 《기술 협조》 등 각이한 형태로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들여 남조선 민족 경제의 파멸 과정을 촉진시켰다.

이 모든 정세 추이를 실지 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남조선 인민들은 해를 따라 더욱 심화되는 경제 파국과 민생고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욱 깊은 인식을 갖게 되였으며 모든 재난의 화근이 미제 강점과 그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있으며 이것의 종식 없이는 사태가 결코 달리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이 해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외세의 배격과 민족 자주와 자립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울려 나온 것은 이와 같은 지향을 반영한 것이였다.

1963년도 남조선 경제 정세 추이는 남조선에서 진정한 자주, 자립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 자체의 력량을 단합하고 그 부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는 남북의 합작을 실현해야 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다시 한번 똑똑히 실증하였다.

산 업

집권 이래 박 정희 도당이 줄창 웨쳐온 《기간 산업 건설 계획》은 《쑥밭이 되고》 생산 업계에는 《20년래의 불경기》가 휩쓸었으며 중소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여 《위기는 마침내 절정》에 달하였다.

이것은 미제와 박 정희 정권이 발광적으로 추구하여 온 《긴축》과 예속화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후과였다.

【산업에 대한 략탈, 예속, 파괴 정책】 1963년에 박 정희 도당은 《안정된 기초 우에서 자립 경제 확립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구실을 붙여 기만적인 종전의 《경제 성장》 정책을 당면한 《경제 안정》 정책으로 바꾸고 미제가 강요하는 대로 경제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3년도 재정 투융자 예산을 당초 계획의 349억 원에서 40%를 깎아내며 209억 원으로 줄이고 산업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을 최대한 축감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을 군사적 의의가 큰 동력 및 운수 부문에 투자하고 일반 민족 산업 부문은 거의나 도외시하였다.

명색치레인 《중소 기업 자금》도 전년의 10억 원으로부터 7억원으로 축감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다. 원료 공급면에서는 소위 《정부 보유 외화》에 의한 공업 원자재 수입을 주로 군수 산업에 치중했고 일반 민수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그 공급을 전면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요 공업 원자재의 가격 폭등과 품절이 지속되여 대부분의 중소 기업체들은 원료난으로 더욱 심한 운영난에 빠졌다. 더우기 괴뢰 정부의 매국적 외자 도입 정책 하에 소위 《기술 제휴》, 《물물 교역》등 명목으로 쓸어드는 외래 상품의 범람이 덮치여 민족 산업을 더욱 헤여날 수 없는 곤경에 몰아 넣었다.

특히 박 정희 도당은 중소 기업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긴축》과 《정비》 정책을 적용하였다. 그들은 소위 《대기업과의 계렬화》라는 구호 하에 중소 기업을 대기업체의 한낱 부속물로, 하청 공장으로 전락시켰으며 지어 종전의 《육성 정책》을 《정비 정책》으로 바꾸어 전체 중소 기업의 50~80%, 중소 인견직 공장 같은 것은 도합 4천여 개 중 20 개만 남기고 나머지 3,980여 개를 모조리 없애 버리려는 망국적인 《산업 구조 개편안》까지 조작하였다.

이 일련의 략탈적이며 파쑈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이해 남조선 산업 부문 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증대되고 그 경영 조건은 전례 없이 악화되였다.

【참담한 경영 실태】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의 《3난》이라고 불리워지는 자금, 원료, 판로 상의 애로는 이 해에 계속 험해졌다. 1963년 3.4분기간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의 경영난의 요인 중 자금난이 33.7%, 원료난이 28.7%, 거래 부진(판로난)이 27.7%로서 (《국제 신보》1963년 10월 26일)의연 자금난이 으뜸가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한국 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2년 1.4 분기에 조사 대상 전체 기업체중 68.9%가 사채를 사용하였다면 동년 4.4 분기에는 그것이 71.7%로, 1963년 2.4분기에는 75.7%로 증가되였으며 (《한국 일보》 1963년 8월 21일) 이러한 추세는 년말에 와서 더욱 심해졌다.

은행 융자가 막히고 사채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그 금리도 종전의 월 4~5%로부터 7~10%로 대폭 뛰였으며 《1일 1%, 월 30%까지의 고리채》 (《동아일보》 1963년 8월 24일)가 성행하였다. 이것도 정상적인 신용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미리 해두고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담보물을 방매하는 악랄한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자금난과 함께 생산 기업체들의 경영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원자재의 부족과 그 가격의 앙등, 괴뢰 정부의 편파적인

원료 배정 정책과 대기업가들의 중간 착취 등으로 인한 원료난이였다. 원료난은 특히 이해 하반년부터 출혈적인 《소비 억제 정책》이 강화되고 일반 민간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전면 억제된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해졌다.

그것은 이 해 4.4 분기의 남조선 생산 기업체의 경영 동태 분석에서 원료난이 31.2%, 자금난이 27.9%, 판로난이 24.4%, 기타가 16.5%(《부산 일보》1964년 2월 22일)로 되여 자금난이 으뜸 가던 이때까지의 통례를 깨뜨리고 원료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일부 들여 온 수입 원자재를 주로 군수 부문에 집중 공급하고 일반 민수 부문 공업용으로는 혹독한 제한을 가하였다.

1963년 9월 말까지의 중요 공업 원자재 수입 정형을 보면 직물과 섬유 원료는 전년 동기에 비해 3분의 2나 줄었으며 금속 제품도 3분의 2, 지류는 절반, 화학 제품은 32%, 의약품은 35%, 원모는 25%, 생고무는 24% 축감되였으며 종체적으로 이 해 남조선 공업의 원자재 확보량은 업자들의 요구에 비하여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괴뢰 정부는 이 근소한 원자재마저 일부 큰 기업가에게 《중점 배정》하고 절대 다수인 중소 기업은 《배정 대상》에서 거의나 제외하였음으로 원료난은 중소 기업의 경우 가장 혹심하였다.

1963년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약 1 개월 동안의 수입 원자재 (1,200만 딸라) 《배정》 정형을 보면 중소 기업가들의 손에 들어 간 것은 단 10%에 불과하였으며 90%는 대공장주 또는 큰 무역업자들에게 독점되였다(《동양 통신》 1963년 3월 2일).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은 외래 상품의 압력과 인민들의 구매력 감퇴로 심각한 판로난을 겪었다.

이 해에 남조선 시장들에서의 상품 판매 실적은 례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떨어졌으며 생산 기업체들의 제품 체화량은 년초에 비해 대폭 불어난 5월을 기준으로 하여도 8월에 와서 다시 193%로 늘었다(《전남 일보》 1963년 10월 19일). 같은 8월에 면사의 체화량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5 배로 격증하였다(《령남 일보》 1963년 9월 1일). 이것은 또한 업자들의 자금난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은 엎치고 덮치는 경영난 속에서 매번 출혈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생산 확대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 조차 불가능하게 되여 결국 휴업 또는 조업 단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이러한 파산 과정은 이 해에 더욱 심해졌다.

괴뢰 정부가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상시적으로 완전 휴업하고 있던 생산 기업체 수는 전년에 비해 153%로 증가하여 월 평균 1,671 개에 달하였다. 이 기업체들의 대부분은 더말할 것도 없이 중소 기업소들인데 남조선 중소 기업의 가동률은 전년 말의 65%로부터 1963년 5월에는 약 절반으로, 원료 고갈이 혹심해진 동년 10월에 와서는 단 25%로 전례 없이 떨어졌다(《부산 일보》 1963년 11월 5일).

지방별 가동률을 본다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남조선의 《공업 지대》들에서 37%～2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대전시에서는 1963년 7월 현재 조사 대상 137 개 기업체 중 100 개가 휴업, 나머지 37 개도 완전 가동은 단 1 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조업을 대폭 단축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기막힌 실정》이였다. 기업 파탄은 생산에 그대로 반영되여 대부분의 중소 기업체들의 생산은 196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1963년 1월에 20%, 3월에는 21%, 5월에 와서는 22.7%가 떨어졌다(《경향 신문》 1963년 7월 9일).

남조선의 공업 생산은 계절적 수요 증대에 따라 4. 4분기부터 일정한 상승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고 있으나 이 해에는 10월 이후에 있은 심각한 원료 고갈 상태를 반영하여 10월중 전체 공업 생산 지수는 전달에 비하여 도리여 6.4%, 그중 방직 공업은 12.6%, 고무 공업은 35.8%, 식료 공업은 11.5%가 저하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12호) 되였으며 11월, 12월에 걸쳐서도 계속되는 생산 침체 또는 감소를 보였다.

【부문별 산업 실태】 남조선 공업은 국민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중 제조 공업의 생산 수준은 아직도 일제 시기의 80% 내외의 락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산 수준이 락후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 식민지적 예속성과 편파성이 심하다. 전체 공업에서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비률은 약 1:4이며 제조 공업 내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되였어야 할 금속, 기계, 공업 등은 12.1%, 화학 공업은 17.1%로서 도합 29.2%를 차지하나 화학 공업 제품은 비누, 성냥 등 주로 일용품들이다. 그리하여 공업 내 부문 호상간에, 공업과 농업 간에 유기적 련관이 없고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원료는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 제조 공업 괴뢰 정부의 《한국 은행》에서 발행된 《경제 통계 년보》에 실린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 보고서》에 의하면 1960년 현재 남조선 제조 공업의 부문 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조 공업 부문별 구성(%)

	생산액	기업체수	종업원수
계	100	100	100
방 직	24.9	16.4	29.6
신발류, 의복, 장신품	4.7	11.0	5.4
식료품	13.2	13.2	10.1

	생산액	기업체수	종업원수
제재 및 목제품	6.2	6.5	4.3
가구 및 장비품	1.0	3.1	1.7
인쇄 및 출판	3.6	3.6	4.5
지 류	2.7	3.2	2.9
피 혁	0.8	0.4	0.4
음료품	8.1	9.6	5.5
고무제품	5.8	0.7	4.0
화학공업	6.1	2.4	4.7
석탄제품	3.7	5.2	3.5
유리 및 토석	5.9	8.6	6.0
제1차금속	3.1	1.2	2.6
금속제품	3.1	4.5	4.0
기계	2.2	3.5	3.5
전기 기계	1.3	0.8	1.6
수송용기계	2.2	4.0	3.5
기타	1.4	2.1	2.2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발행 《경제 통계 년보》 1963년 판 300—302 페지에서 산출.

기계 기구 제작 공업 남조선 기계 기구 공업은 전체 제조 공업 생산에서 5.7%, 기업체 수에 있어서 8.3%, 종업원 수에 있어서 8.6%를 차지하는 미미한 존재이다.

기업체 수에 있어서는 전체 제조 공업의 8.3%를 차지하나 그 대부분은 《하늘이 내다보이는 양철 지붕 밑에서 선반기 두 서너 대 차려놓고 망치 소리를 내고 있는 정도의 것》(《국제 신보》 1964년 1월 16일)이며 생산 내용도 간단한 기계 부속품과 소농기구류의 제작과 수리 등이 주로 되고 있으며 설비 생산은 거의 없다. 단지 부산과 경인 지방에 조선, 전기 기기, 재봉기 생산 시설들이 약간 있으나 부산에 있는 《대한 조선 공사》를 내놓고는 모두 중소 규모의 것이며 제품 생산도 중요 부분품은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다.

남조선 기계 기구 제작은 소요 강재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심한 원료 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이 부문 중소 기계 기구 공장들의 약 70%가 무데기로 휴업을 하고 있었다(《국제 신보》 1963년 5월 17일).

특히 박 정희 도당이 일본제 기계 기구류를 대량적으로 끌어 들인 결과 남조선의 보잘 것 없는 중소 농기구 제조 공장들도 《전면적 위축 상태》에 놓여 있었다(《한국 일보》 1963년 7월 10일).

남조선의 중요 기계 기구 제품 생산은 이 해에 전반적으로 저하되였는바 일례로 재봉기 생산은 1962년도에 비하여 74.3%로, 발동기는 82.8%로, 문직기는 1961년의 70%, 1955년의 28.6%로 떨어졌다(《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2호).

금속 공업 이 부문 비중은 남조선 전체 제조 공업 생산에서 6.2%, 기업체 수에서 5.7%, 종업원 수에서 6.6%를 차지한다. 기계 제작 공업과 함께 공업의 기간적 부문으로 되여야 할 이 부문은 오히려 보잘것 없는 존재로 되고 있다.

생산 구성에 있어서도 제1차적 금속 제조가 절반, 나머지가 금속 가공 공업이나 놋 그릇과 같은 일용품 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철, 제강, 제련 시설은 강원도 삼척에 《삼화 제철소》, 경기도 인천에 《대한 중공업 공사》 《인천 평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장항 제련소》 등이 각각 하나씩 있을 뿐이다. 이것들은 례외 없이 일제 유물들이며 심히 로후하다. 그러나 이런 것마저도 해방후 미제의 기간 공업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단 한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 하고 조업 단축 또는 장기 휴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생산적 련계도 없다. 《삼화 제철소》에는 20톤 용량의 소형 용광로 8개가 있으나 사용 가능한 것은 3개 뿐이다. 이것마저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 하여 선철 생산은 해마다 축감되고 있다.

선철 생산량

	단위 톤
1960	13 934
1961	9 106
1962	…
1963	5 426

자료 출처: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2호.

1962년에는 년중 휴업으로 단 한 톤의 선철 생산도 없었다.

1963년 3월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나 10월부터 다시 휴업에 들어가 생산도 중단되였다.

생산된 선철의 대부분은 자체 강철, 강관 제조 시설과의 생산적 련계가 없는 데로부터 해외로 실려 나가고 있다. 1961년도에 생산한 선철 9,106톤 중에서 89%인 8,079톤이 수출되고 자체 철강 공업 원료로 공급된 것은 564톤에 불과하였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3월 9일). 년산 5톤 능력의 《대한 중공업 공사》 《인천 평로》는 그 원료인 선철을 《삼화 제철소》에서 사 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철을 수집하여 리용하였는데 2~3년 전부터는 고철마저 고갈되여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설 빈곤 특히 제강, 압연의 일관 작업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데다가 극심한 《자금 부족》으로 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 하였다(《산업 경제 신문》1964년 3월 16일). 남조선 유일의 제련 시설인 《장항 제련소》는 금, 은, 동을 제련하고 있는데 련관된 공정간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 하여 생산 기능은 《반신 불구격》이다.

이러한 시설마저 운영 자금의 결핍과 광석을 사 들이기 어려운 것, 시설이 낡은 탓 등으로 해서 《극히 일부 밖에 가동하지 못 하고 있다》(《서울 경제 신문》 1963년 3월 10일).

이 밖에 《삼화 제철소》, 《대한 중공업 공사》, 《장항 제련소》들에서 원료를 사들여 오던 수십개의 중소 금속 가공 공장들은 1963년에 원료 부족과 그 가격의 앙등으로 해서 가동이 항상 불안정하였으며 특히 9월 경부터는 모두 《생산 중단 위기》에서 허덕이였다(《산업 경제 신문》 1963년 9월 20일). 그 중 대구와 부산 시내 중소 공장들 속에서는 5월부터 무데기 휴업사태가 속출하였다.

(≪령남 일보≫ 1963년 5월 31일, ≪국제 신보≫ 1963년 5월 15일).

화학 공업 전체 제조 공업 생산에서 19.1%, 기업체 수에서 11.9%, 종업원 수에서 15.5%를 차지하는 화학 공업은 고무신, 피혁, 성냥, 비누, 지류, 의약품 및 련탄 제조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카바이드, 가성 소다 등을 생산하는 기초 화학 공업은 보잘 것이 없다. 비료 생산은 정상적인 조업이 계속되더라도 수요량의 겨우 15%를 채울 수 있을 따름이다. 소요 원료는 거의 수입에 매달리고 있다. 가성 소다, 염소산 가리, 생고무, 동물성 유지등은 100% 수입에 의존한다.

1963년에 괴뢰 정부는 ≪외화 부족≫을 빙자하여 민수 산업 부문에 대한 수입 원료 공급을 전면적으로 억제한 결과 원료 가격의 폭등, 품귀 상태를 조성하여 수 많은 중소 화학 공업 제품 생산 업자들을 심각한 원료 구입난에 빠뜨렸다. 수입 소기름에 목을 매고 있는 비누 공장들은 원료 부족으로 하여 60%가 휴업하고 있었으며 (≪국제 신보≫ 1963년 5월 23일) 그 후 계속되는 원료 난으로 하여 나머지 공장들의 경영도 심히 위축되였다.

남조선의 ≪고무 공업 협회≫에 망라되여 있는 대부분의 중소 고무 공장들은 주원료인 생고무 부족으로 8월 초에 40%가 조업을 그만 두었으며 나머지도 ≪조만간에 모두 휴업할 형편≫에 빠져 있었다(≪산업 경제 신문≫ 1963년 8월 1일).

비교적 경영 형편이 낫다던 화장품 공장들도 원료가 떨어져서 7월 현재 75%가 조업을 중단 또는 대폭 단축하였다. 몇개 안되는 제지 공장들도 주원료인 수입 팔프 가격이 상반년 간에 22%나 오른 데다가 자금난까지 겹쳐서 모두 ≪전면적인 휴업 위기에 직면≫(≪산업 경제 신문≫ 1963년 7월 5일)하였으며 9월에 와서는 ≪2~3 개를 제외하고 모조리 조업 중단 또는 단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빠졌다 (≪합동 통신≫ 1963년 9월 25일).

또한 ≪산업 경제 신문≫(1963년 8월 7일)에 의하면 중소 피혁 공장들은 수입 탄닝 값이 2 배로 올라 뛰는 바람에 8월 초부터 ≪일시에 조업을 중단≫하였다. 이 밖에 남조선 화학 공업 시설로서는 비료 공장 두개와 카바이드를 생산하는 ≪부산 화학 공장≫이 있으나 생산 원가 구성에서 미국산 중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타 화학 공업 약품과 기계 부속품들의 수입을 위하여 해마다 200만 딸라씩 소비하고 있는 것 등으로 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화학 비료에 압도되여 판로난을 겪고 있다(≪산업 경제 신문≫ 1964년 3월 5일). 이 밖에 전라남도에 ≪라주 비료 공장≫이 있으나 아직 시운전 단계에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생산 원가가 높아 년간 5천만 원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남조선 기초 화학 공업 시설의 하나인 ≪북삼 화학 공장≫ (카바이드 생산)은 이 해에도 휴업 상태를 지속하였다.

건재 및 도자기 공업 이 부문이 전체 제조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에서 5.9%, 기업체 수에 있어서 8.6%이며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6%이다. 건재 생산 시설로는 남조선 강원도의 ≪동양 세멘트 공장≫과 ≪문경 세멘트 공장≫이 있고 인천에 판유리 공장이 하나 있다.

남조선에서 세멘트와 유리 제조는 일부 예속 자본가의 독점 기업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주로 군수 및 실질상 군수 산업용인 ≪관수용≫으로 돌려지고 일부가 ≪민수용≫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일반 민수 산업과 주민들은 상시적인 ≪세멘트 기근≫을 겪고 있으며 이것을 기화로 하여 1963년에 33만 5,000톤(민수용 세멘트 공급량의 약 3분의 2)이란 대량의 값 비싼 일본산 세멘트가 밀려 들었다.

유리 제조업은 광석 원료인 규사, 백운석 등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화학 제품 원료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외래 유리 제품의 압력으로 생산은 항상 불안정하다.

령세한 자금과 원시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벽돌과 도자기 공장들은 연료를 주로 수입 유연탄에 의존하여 왔는데 괴뢰 정부가 유연탄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값 비싼 경유를 사서 생산을 계속하였으나 수지가 맞지 않아 ≪조업 단축 또는 휴업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특히 남조선에서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 경상남도 합천 지방의 도자기 공장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 못해 이 해 11월 경에 모두 폐문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부산 일보≫ 1963년 11월 5일).

섬유 공업 남조선 제조 공업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섬유 공업은 제조 공업 총생산액에서 24.9%, 기업체 수에서 16.4%, 종업원 수에서 29.6%라는 비중을 갖고 있다. 섬유 공업은 식료품 공업과 함께 남조선의 ≪대표적인 공업≫이다. 이 공업들은 미제의 현지 군수 피복 및 식료품 수요를 충족시키며 미국 잉여 농산물인 원면, 밀, 원탕 등을 가공 처리하는 식민지 하청 공업이다.

미제는 강점 첫 시기부터 남조선 자체의 면화 생산을 파괴하고 자국 잉여 원면의 대량 투매, 기타 화학 섬유 원료의 강매로 이 부문 원료 공급은 물론 시설 공급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모든 면방직, 인견직 공장들은 해마다 수입되는 약 5,000만 딸라의 원면, 1,000여만 딸라의 인견사에 전'적으로 목을 매고 있다. 괴뢰 정부는 1963년에 외화 고갈 방지책으로 수입 억제를 강행한 결과 섬유 공업 부문에서는 원료 소요량의 3분의 1 밖에 확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면사, 인견사 등의 시장 가격은

의 해에 약 4 배로 뛰여 올랐다. 그리 하여 이 해에 《직물 공장들은 극심한 원료난으로 휴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원료 구득난이 극도에 달하여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나날이 늘고 그 가동률은 40% 선으로 내려갔다.》

남조선 《섬유 공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대구 지방 공장들은 원료난에다가 심각한 자금난까지 겹쳐 년초부터 시설의 70% 이상을 놀려왔었는데 이 해 7월 말에는 나머지 공장중 비교적 자본 토대가 있다는 《제 1 모직》, 《3호 모직》, 《대한 방직》, 《내외 방직》 등 이 지방의 《4대 공장》들마저 《조업을 대폭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평남 일보》 1963년 8월 17일). 남조선의 《직물 및 염색 공업 조합》에 망라되여 있는 2,000 여개의 중소 인견직 공장들은 년중 부분적 조업을 지속해 왔었는데 더 버틸 수가 없어 1964년 벽두에 《부분적 조업마저 일제히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산업 경제 신문》1964년 1월 28일). 편직물 공장들도 원료가 떨어져서 그 가동은 《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산업 경제 신문》 1963년 7월 24일) 부산 시내 편직물 공장들은 거의 《숨이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국제 신보》 1963년 5월 17일).

식료품 공업　이 부문이 남조선 전체 제조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에서 21.3%, 기업체 수에서 22.8%, 종업원 수에서 15.6%로서 방직 공업 다음 가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 공업도 미국 잉여 농산물인 밀과 원당이 없이는 하루도 움직일 수 없는 예속 공업인 데다가 이 해에도 원료 수입의 억제로 해서 원료난으로 인한 기업 파탄과 생산 감퇴가 혹심하였다.

남조선에 있는 7 개 사탕 공장중 4개는 1962년도에 이어 1963년에도 줄곧 휴업하였으며 나머지 3개도 년중 불완전 조업에 허덕이였다. 제분업의 중심인 부산 시내 (남조선 제분 공장 총수의 38%가 집중) 제분 공장들은 8월 초부터 《원료가 없어 일시에 휴업》하였다(《경향 신문》1963년 8월 22일). 시내 과자 공장들도 6월에 70%가 완전 휴업하고 《파산 위기에 빠졌다》(《산업 경제 신문》 1963년 5월 31일).

채굴 공업　남조선에는 태백 산맥 일대를 비롯한 광범한 지역에 다종 다양한 지하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알려진 것만 하여도 750만 톤의 중석광과 철광 등의 흑색 금속광, 500여만 톤의 금광과 동, 연, 아연, 창연 등의 유색 금속 광물들, 그리고 모나즈와 같은 희유 금속광과 흑연, 알루미늄, 규사, 석회석, 고령토 등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유용한 광물만도 약 60 종을 헤아린다.

그러나 해방후 미제의 침략 정책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 하에서 석탄, 중석 등 일부 군수 전략 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극히 미미하게 개발되여 있거나 거의 나 개발되지 않고 있다. 채굴된 광물들도 대부분이 아무런 가공도 없이 원광석대로 해외에 반출되고 있는바 이것은 이 부문 공업의 식민지 예속성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채굴업의 부문별 구성 (%)

	계	석탄	금속및 희금속	토사석	비금속
생산액	100	68.2	24.1	2.3	5.4
기업체수	100	27.7	31.3	17.9	23.1
종업원수	100	62.0	24.0	3.0	11.0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발행 《경제 통계 년보》 1963년판 300—302 페지에서 산출.

광물 총생산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1961	1962	1963
철광	88.0	77.2	109.8
연	92.7	51.0	127.7
중석	94.0	81.2	107.8
형석	119.3	71.6	79.4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5호, 1964년 3호

전체 광업 기업체의 경영 규모를 본다면 종업원 5~99 명까지의 기업체 수가 77.5%를 차지하고 100 명 이상의 기업체 수는 22.5%에 불과하다.

광업 기업체들의 규모별 구성 (1960 년)

규모별	비중
5~19 명	24.2
20~99 명	53.3
100 명 이상	22.5

자료 출처: 《경제 통계 년보》 1963년판 302 페지에서 산출.

남조선 채굴 공업의 시설과 기술 장비도 락후하기 짝이 없다. 채광 및 선광 시설은 대부분이 일제 시기 그대로의 원시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 도구도 수공업적인 구식 기계들이다. 선광은 주로 손로동으로 하고 있다.

철광의 경우 채굴 생산비 구성에서 47.1%가 《로무비》로 되고 있는 사실은 이 부문 시설의 락후성을 말해 주고 있다(《서울 경제 신문》 1963년 1월 10일).

석탄 채굴도 《석탄 공사》 산하의 몇몇 탄광을 제외하고는 《인력에 의한 탄층 상부 채굴》에 그치고 있으며 심부 채굴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1963년에 채굴 공업 기업체들은 미제와 괴뢰 정부의 가혹한 《긴축》과 유류 가격의 인상, 화물 수송의 독점 등으로 전에 없는 심각한 자금난과 유류난, 수송난을 겪었다. 결과에 남조선 탄광, 광산들의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평균 30% 이하로 떨어졌으며 채굴 공업의 중심지인 남조선 강원도 내 탄광, 광산들은 85% 이상이 《무리로 휴업》하였다(《경향 신문》 1963년 5월 16일).

특히 이 해 11월 전라남도 내의 도합 188 개의 금, 형석, 수연,

운고 광산들 중 가동하고 있는 광산은 21%인 41 개 뿐이였고 나머지는 《폐광 상태》에 빠져 있었다(《전남 일보》 1963년 11월 28일).

괴뢰 정부가 경영하는 《광업 기업체》로서 비교적 경영 조건이 낫다는 《석탄 공사》 산하의 장성, 도계, 함백, 은성, 화순 및 녕월 탄광들도 이 해 8월에 모두 《채탄 작업 중단 상태》에 빠졌었다.

중소 탄광의 경영 조건은 더욱 극심하였는바 이 탄광들은 워낙 시설과 자본이 빈약한 데다가 괴뢰 정부가 공급하는 유류를 비롯하여 갱목, 카바이트 등의 중요 자재 가격이 10월까지의 불과 몇달 사이에 20~30%나 오르고 채탄량에 대한 엄청난 세금 부과 등으로 심한 출혈 생산이 강요되여 전면적 파산 상태에 빠졌다.

더우기 박 정희 도당은 소위 《기업 정비》의 구호 하에 이해에 도합 880 개의 중소 광구들을 강제 폐쇄하였다(《동화 통신》 1963년 10월 26일). 계속하여 부채를 지고 강제 《차압》을 당했거나 경매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 소송 중에 있는 기업체로서 약 800 개로 추산되는 중소 탄광 및 광산들에 대한 폐쇄 조치가 기도되고 있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소위 《민영 탄광의 단일화》 정책을 강행하여 중소 민영 탄광과 광산들을 강제 통합해서 그 경영권을 일부 예속 자본가에게 집중시키며 나아가서는 이 부문에 대한 외국 독점 자본의 침략의 지반을 마련하려고 광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남조선의 광범한 중소 광업 기업체들의 경영은 더한층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전력 공업 6 개의 수력 발전소와 5 개의 화력 발전소가 있으며 총 능력은 약 40만 키로와트에 불과하다. 그나마 낡은 시설들이라 고장이 빈번하여 1963년 평균 출력은 능력의 63%인 25만 2,100 키로와트에 불과하였다.

1963년도 발전량
(단위 백만kwh)

	실 적	%
총 계	2 208.7	100.0
1. 수력 계	727.4	32.9
그 중 청평 발전소	221.6	
섬진강 〃	57.4	
보성강 〃	17.7	
운암 〃	11.1	
화천 〃	409.9	
괴산 〃	9.7	
2. 화력 계	1 199.3	67.1
그 중 녕월 발전소	468.7	
당인리 제1,제2 〃	46.0	
당인리 제3 〃	176.2	
마산 〃	311.4	
삼척 〃	197.0	
3. 발전선	204.9	
4. 디젤 발전	73.7	
5. 기타	3.4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2호.

이 해 괴뢰 정부는 《전력 개발》을 표방하면서 부산과 울산에 화력 발전소를, 춘천과 섬진강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부족되는 전력을 머지 않아 《남아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난 특히는 외화 부족으로 말미암아 울산과 당인리 발전소는 당초의 《건설 계획》에서 아예 빼던졌으며 기타들도 공사에 착수조차 못 했거나 하다가 도중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해에도 남조선 전력난은 풀리지 않았으며 전체 주민 세대의 77%, 그 중 농가는 98%까지가 의연히 전기'불 없는 암흑 세계에서 살았다. 남조선에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최소한 200만 키로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1963년도 남조선의 최대 출력은 41만 키로와트, 평균 출력은 25만 키로와트로서 현존 시설 능력으로써는 수요를 5 분의 1 밖에 충족할 수 없다(《한국 일보》 1963년 12월 13일).

현재의 전력 시설도 태반이 미국 유류에 의존하는 화력 및 디젤 발전이며 따라서 그 생산비는 수력 발전 원'가에 비하여 14 배나 높다. 송배전에서의 전력 도중 손실률은 30~40%에 달한다.

•농 업

박 정희 도당은 년초부터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떠들면서 이미 파산된 《중농 정책》을 크게 선전하였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 《과감한 영농 자금의 방출》, 《농산물 적정 가격의 유지》, 《영농의 다각화》, 《치산 치수》 등으로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을 증산하고 《령세 농민을 중농 이상의 안정된 농가로 만들》며 짧은 기간 내에 남조선 농촌을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괴뢰 정부의 《중농 정책》이란 남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제와 군사 통치 집단의 략탈적인 식민지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증하였다.

이 해에 남조선 농촌은 생산의 전면적 파탄으로 인하여 심대한 식량 위기를 겪었으며 《중농 정책》의 미명하에 방출된 《영농 자금》은 오히려 농민들의 부채를 가중시켰을 뿐이고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된 결과 생활 수준은 더한층 령락되였다.

【토지 소유】 남조선 농촌에는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토착 지주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일부 자본가 기타 부정 축재 공무원, 상공인들의 자금이 농촌에 침투됨으로써 새로운 신흥 지주가 늘어 가고 있으며 토지의 재집중 과정이 촉진되고 있다.

《한국 은행》이 500여 호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규모별 토지 매매 정형을 조사한 바

에 의하면 1956—1961년 간에 경작 규모 1 정보 이하의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1—2 정보 농가들도 토지를 사들이는 것보다 내파는 것이 현저히 많았다.

1956년 4—12월 간에 0.5～1정보 경작층과 1～2 정보 경작층들에서 매도액은 구입액에 비해서 5.6 배, 11.3 배에 각각 달하였으며 1957년에는 2 배와 1.2 배에 달하였다.

반면에 2 정보 이상 경영자들은 1956년과 1957년 간에 판 것보다 3.5 배와 2.6 배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여서 계속 소유 토지를 확대하였다(《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6년 11호, 《농업 년감》 1961년 Ⅲ—121페지).

토지의 재집중 과정을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로서 전라남도 구례군을 비롯한 몇개 군을 조사한 데 의하면 농토 중 지주의 소유 비중은 산간 지대에서 51.7%, 평야 지대에서 최고 65.2%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추산한다면 현재 남조선에서 지주적 소유 토지는 약 40% 내외에 해당하는 80만 정보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다 본질에 있어서는 지주적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상속 농지》를 비롯한 기타 토지를 합치면 그 규모는 약 53%에까지 달한다(《신 경제》 1961년 5월호, 《사상계》 1962년 6월 호,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6월호—12월호, 《농업 년감》 1961년).

지주들의 토지 소유 규모는 《농지 개혁》 실시 이후 종전에 비해 대토지 소유가 적어진 반면에 분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어 보통 5 정보 내외가 가장 많으나 최근 년간에 토지의 재집중이 촉진되여 20～50 정보를 가진 지주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100～200 정보 또는 그 이상의 토지를 가진 대지주가 나타나고 있다.

지주들은 이와 같은 봉건적 토지 소유에 기초하여 남조선 총농가 호수의 50%에 달하는 농민들을 직접 소작지에 예속시키고 있으며 이 밖에 일부 중농 층을 포함한 광범한 농민들을 《자영지》에 얽어 매여 놓고 가혹한 봉건적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

기만적 《농지 개혁》을 통하여 164만 6,180 호의 농가 매호에 겨우 0.35 정보가 차례짐으로 해서 농민들의 토지 소유 규모는 외관상 일정하게 확대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령세한 경작지를 얻은 대신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막대한 토지 대'가와 《토지 수득세》를 걸머진 채무 노예로 전변되였으며 고리대의 좋은 착취 대상으로 되였다. 따라서 《분배 농지》의 전매가 성행하게 되여 그의 40% 이상이 이미 농민들의 손을 떠났고 그 중 15%～20%가 또다시 소작지로 되였다.

국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농지 개혁》 이후 남조선 경지 면적 중 순 소작지는 다시 약 50만 정보 이상으로 증대하였다(《서울 신문》 1962년 2월 17일).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 농민들의 경작지에서 소작지의 비중이 급격히 커가고 있다.

경지 중 소작 면적의 비률은 0.3 정보 이하의 토지 소유 농민의 경우에 82.4%, 0.3～0.5 정보의 토지 소유 농민의 경우에 72.2%, 0.5～1정보의 토지 소유 농민의 경우에는 54.2%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지어 1～2정보 토지 소유의 중농의 경우도 경작지에서 소작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4.1%에 달한다.

【경지 면적의 축감】 남조선의 경지 면적은 미제 침략군에 의한 강제 징발과 군사 시설의 확장, 자연 재해 등으로 해서 《해마다 2만 헥타가 비경지화》하여 일제 시기에 비해 25만 정보가 감소되였으며 파종 면적은 40만 정보가 줄어 들었다.

경지 면적이 축감됨에 따라 매 농호의 평균 경지 면적은 1944년에 11.14 반보로부터 1962년 말에는 2.72 반보가 적은 8.42반보로 축감되였다.

농가 평균 경지 면적의 감소

(단위 반보)

	논	밭	계
1944	6.21	4.93	11.14
1945	6.09	4.69	10.78
1955	5.40	3.67	9.07
1959	5.35	3.61	8.96
1962	4.99	3.43	8.42

이 얼마 안되는 농경지나마도 토질에 맞지 않는 미국제 화학 비료의 강제 시비로 인하여 토지의 70% 이상이 산성화되였으며 전 경지의 27%가 이미 페토로 되였거나 페토 직전에 놓여 있다.

《군사 정변》 후 농토는 심히 파괴되여 복구 개량해야 할 면적은 총경지 면적의 65%에 해당하는 130여 만 정보로 확대되였다.

논 면적 중 수리 안전답은 19%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있다는 수리 시설들은 대부분이 일제 때의 유물로서 거의 전부가 당장에 보수해야 할 것 들이다.

더우기 치산 치수 사업이 전혀 도외시되고 있는 데로부터 풍수해와 한재 등 작물 피해는 고사하고 농토의 피해가 극심하다.

괴뢰 통치배들의 공식적 발표에 의하더라도 최근 9년간 농경지의 자연 재해에 의한 피해는 평균 한재로 28만 5,500 정보, 풍수해로 12만 3,002 정보, 기상 피해로 7,700 정보 등 도합 48만 5,502 정보에 달하고 있다. (《매일 신문》 1964년 2월 26일)

1963년 6월 하순부터 7월 5일까지에 있은 홍수로 인하여 류실 매몰된 농경지 피해는 12만 8,471 정보에 달했으며 맥류를 제외한 농작물 피해만도 약 20억 원에 달하였다 (《서울 방송》 1963년 7월 10일).

그러나 괴뢰 정부는 이 홍수에서 파괴된 하천, 농지, 사방 시설들의 《평균 30%의 복구》를 했을 따름이다(《동화 통신》 1963년

7월 6일).

【영농 기구, 역축】 남조선의 영농은 거의 다 중세기적 손로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현대적 농기계들은 전혀 볼 수 없고 조상 때부터 물려 받은 낡은 농기구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마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축력도 보잘 것이 없다. 괴뢰 당국이 발표한 농기구의 보급 정형을 본다면 보습은 4 호에 1 개, 제초기는 11 호에 1 대, 선풍기는 50 호에 1 대, 산분기는 125 호에 1 대, 분무기는 80 호에 1 대, 인력 제초기는 14 호에 1 대, 쟁기는 9 호에 1 개, 가래는 4 호에 1 개, 낫과 삽은 1 호에 1 개로 되여 있다. 경상북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 도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 중 약 20%는 이미 못 쓰게 된 것들이다.

남조선 농촌의 주요 생산 수단으로 되고 있는 소와 말도 일제 시기의 그것에 비해 73%와 52%로 각각 감소되였으며 역축이 없는 농가가 전체 농가 호수의 70% 이상에 달한다.

괴뢰 당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62년 현재 부림소의 두수는 농가 한 호에 0.3 두, 특히 농가가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0.2 두에 불과하였다. 이것을 계층별로 보면 부유층이 100 호에 78 두라면 0.5 정보 이하의 령세 농민의 경우에는 13두에 불과하다.

【영농 자금의 악화】 남조선 농촌의 년간 영농 자금은 최소한 150억 원이 필요되며 농가 한 호에 적어도 평균 6,400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농 자금은 군사 정권의 강압적인 자금 흡수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악화되였다.

1962년에 50 년래의 대흉작을 만난 농촌에서는 추수가 끝난지 2 개월도 채 못 되는 12월 현재 35만 호의 농가들이 절량되였으며 1963년 1월 현재로는 전체 농가 수의 20~30%가 절량 상태에 빠졌다. 기아 상태에 빠진 농민들로부터 군사 통치배들은 《경제 안정》이란 명목하에 1962년도 4.4분기 동안에만도 43억 원의 영농 자금 회수, 34억 원의 비료 대금 회수와 9억 원의 기타 자금 회수 등으로 도합 86 억원의 자금을 강제로 뽑아냈다. 이 밖에 고리채의 반환, 《농지세》의 납부 등으로 수십억 원을 농촌으로부터 짜내였으며 또한 《저축》이란 명목으로 1962년도에 41억 원이란 자금을 빨아냈다.

그리하여 1963년에 들어 와서 농업 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자체 자금은 고갈되였으며 군사 통치 집단의 《고리채 정리》 책동과 관련하여 이미 자금 융통의 길이 막혀 있는 데다가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농촌으로부터 흡수된 사정은 농촌 자금 류통을 완전히 마비 상태에 몰아 넣고 말았다. 더우기 《군사 정권》은 1963년도 예산에서 재정 긴축을 내세우고 농업 부문에 대한 지출을 전년에 비하여 11억 원이나 줄였으며 특히 《영농 자금》은 4분의 1로, 《축산 자금》은 50%나 축감하였다.

괴뢰 정권은 농사 자금의 방출에 있어서도 련대 보증이란 조건으로 1 인당 2만 원 내외의 한도에서 《실력 본위제》라 하여 중점 융자를 하였으며 특히 총 2만 1,000여 개의 리, 동 협동 조합 중 소위 《자립적이며 자조적》이라고 하는 1,088 개의 조합만을 융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집중 융자하였다.

이리하여 방출되고 있는 영농 자금마저 결국은 지주, 부농 등 부유한 계층과 일부 중농층에만 대부되고 《실력 없는》 압도적 대다수의 빈농민들은 물론 과거의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 한 다수의 중농층까지도 농사 자금의 융자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 농촌에서 자금 사정은 미제 강점 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수탈 및 협상 가격 정책】 괴뢰 통치배들은 1963년에 추곡을 《일반 매입》 62만 5,000석, 콩 《매입》 6만 석, 《량비 교환곡》 111만 730 석, 《교환 량곡》 30만 1,072 석, 《미곡 담보 융자》 150만 석 등 359만 6,800여 석과 그 밖에 《대여곡》, 《보리 종자 교환곡》 회수 등까지 합쳐 무려 400만 석 이상을 강탈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리하여 1964년 1월 25일 현재 《미곡 담보 융자》로 34만 1,600여 석과 1964년 2월 25일 현재 《매상》, 《량비 교환곡》, 《교환 량곡》, 《대여곡》 등으로 173만 2,200여 석을 강탈하였다(《동양 통신》 1964년 2월 4일, 2월 26일)

박정희 도당은 집권한 이후 1961년에 470만 석 이상, 1962년에 520만 석 이상에 달하는 량곡을 농민들로부터 수탈하여 왔는데 이것은 전쟁 시기 및 전후 시기의 년 평균 300만 석에 비해 157~170%에 달한다. 《미곡 담보 융자》에 의한 농민들로부터의 미곡 수탈은 1963년에 실제 생산비에 비해서 40~50%, 시장 값에 비해서는 70~80%나 낮은 가격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량곡 매상제》 역시 생산비의 30~40%, 시장 가격에 비하면 약 1,000 원이나 더 낮은 값으로 강탈하고 있다.

한편 미국제 비료를 비롯한 공업 제품 가격과 농산물 가격의 협상차에 의한 농민들의 손실도 막대하였다.

비료 가격과 곡물 가격의 변동 (%)

	비료가격 (ㄱ)	곡물가격 (ㄴ)	대비 ㄴ/ㄱ
1955	100.0	100.0	100.0
1957	313.8	183.2	58.2
1959	337.4	132.4	38.8
1961	455.8	195.3	42.7
1963.11	546.0	311.1	56.9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12월호.

미제는 처리하기 곤난한 그들의 공업 상품들을 남조선에 대량 강매하여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고 있다.

남조선에 투입되는 미제의 화학 비료는 국제 시장 가격보다

25~35%, 밀가루는 30~35%가 비싼 독점 가격으로 강매되고 있다.

이렇게 강매하고 있는 비료는 해마다 100만 톤에 달하고 있는데 이로써 미제는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추가적으로 15억~20억 원을 수탈하고 있다.

화학 비료의 수입 정형
(단위 천 딸라)

	수입액	비률(%)
1961	40 289	100
1962	62 310	154
1963	47 967	119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2호.

【농업 생산의 감소와 식량 위기】 농업 생산력의 파괴, 영농 조건의 악화 및 미제의 잉여 농산물 강매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농업 생산은 감소되여 왔다.

특히 1963년의 농업 생산은 6—7월에 있은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뒤'이어 계속된 병충해로 전년의 3 배나 되는 5만 7,674 정보의 피해 면적을 내였다.

남조선 벼 농사에서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매년 《무려 200만 석이나 되는 감수》를 내고 《금액상으로는 70억 원》이란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령남 일보》 1963년 4월 22일).

1963년도 비료 공급은 4—5월에 절정에 달한 식량 위기와 관련한 수송의 혼란으로 4월 말 현재 계획의 68% 밖에 확보 못 한 비료 중에서 45% 만이 5월 초 현재로 겨우 지방(도)에까지 수송되였을 뿐 영농기에 비료의 기근을 빚어 냈다. 이로 말미암아 비료의 시장 가격이 폭등하여 류안 비료 가격은 괴뢰 정권의 통제 가격의 약 2 배에까지 달하였다. 그리 하여 비료의 기근과 가격의 폭등은 절량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영농상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알곡 생산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박 정희 도당이 집권한 1961년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에는 12.8%에 해당하는 372만 7 천여 석, 1963년에는 18.6%에 해당한 554만 6천여 석이 감소되였다(《한국 년감》 1963년판, 《경제 통계 년보》 1963년판, 《합동 통신》 1963년 12월 4일).

알곡 생산의 격감으로 남조선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1963년은 전년도 추곡 생산의 대흉작과 1963년의 하곡 생산의 《전멸 상태》로 식량 위기를 더욱 심각한 궁지에 몰아 넣었다.

괴뢰 정부의 《1963년도 식량 수급 계획》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식량 부족은 1,081만 4,000 석에 달하였다.

이리 하여 괴뢰 도당은 이 해 914만 3,000 석의 량곡 수입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1960년의 351만 2,000 석, 1961년의 398만 석에 비해 2. 6 배와 2. 3 배에 해당한다(《산업 경제 신문》 1963년 11월 18일, 《한국 경제》 1963년 9월). 이것은 8.15 후 량곡 수입량에서 최고 수준이며 량곡의 자급률은 1960년의 81.1%로부터 1963년에 67.9%로 감소되였다.

식량 수급 정형 (단위 천석)

	총 수요량	생산량	부족량	자급률
1960	31 338	25 442	5 86	81.1
1961	32 390	27 726	5 506	83.4
1963	33 683	22 870	10 810	67.9

이리하여 매년 량곡 수입 량이 증가하고 있다.

량곡 수입량(단위 천석)

	수입량	증가 비률
1960	3 512	100
1961	3 980	103.3
1962	4 223	120
1963	9 143	260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경제》 1963년 9호, 《산업 경제 신문》 1963년 1월 18일.

수 산 업

우리 나라 해안선의 근 60%를 차지하고 있는 남조선은 수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해에는 어류 100여 종, 패류 20여 종, 여러 종의 해조류가 있으며 수산 기지도 많다.

또한 담수 양어에 유리한 류로 총 연장 6,652 키로메터에 달하는 15 개의 주요 하천과 57 만 5,328 정보의 양어할 수 있는 수면을 가지고 있다.

동, 서해와 남해에는 한류성, 난류성 및 온대성 어족들이 사철 회유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과 괴뢰 정권의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어장은 황폐화되고 어족은 멸족 상태에 있다.

현재 남조선 어민들이 리용할 수 있는 어장은 동해의 거진, 주문진, 죽변리, 방어진 앞바다의 일부와 남해의 일부 해수면, 서해의 연평도, 덕적도, 울도, 굴업도와 위도를 련결하는 극히 제한된 해수면들이다.

주요 어장들인 부산, 진해, 인천, 속초, 묵호, 포항 등은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해군 기지로 되고 있다.

어장들에서의 빈번한 군사 연습 소동과 어장 보호 시설이 없는데로부터 어업 자원은 고갈 상태에 있는바 예로부터 이름 있는 동해의 청어와 남해의 대구, 진해 앞바다의 멸치는 지금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남조선 어업 인구는 1961년 말 현재 85만 9,085 명(20만 2,256 호)으로서 1952년 어업 인구의 1.5 배이다.

어업 인구가 이처럼 격증하고 있는 것은 도시와 농촌에서 몰락된 주민들이 농촌으로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1961년 현재 어업 인구의 70% 이상은 배도, 어구도 없이 농업을 겸하는 계절적 어민이거나 임금 로동자들이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전체 어민의 94.3%가 품팔이하는 령세 어민이였다.

어업 인구 (1961년말 현재)

	어업 인구(명)	어업별 어민 구성 (%)	어민 호수
계	859 085	100	202 256
그중 어로	545 525	63	130 174
양식	271 291	31	60 185
제조 및 가공	42 209	6	10 327

계층별 어민 구성(%)

대 어업사	0.5
중 어업사	5.0
령세 어민	94.5

자료 출처: 남조선 《부산 일보》 1962년 10월 9일.

수산 기업체의 파산으로 어업을 전문하는 어민들의 구성은 1959년에 비해 1961년에 1.1%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에 겸업자는 7.4%나 증대되였다.

업종별 어민 구성(%)

	전업자	겸업자	고용로동자
1959	28.2	48.2	23.6
1961	27.1	50.8	22.1

주: 전업자는 3~4척 혹은 1~2척의 어선을 소유하고 고용 로동자들을 착취하는 근해 어업자들이다.
겸업자의 대부분은 기타 직업을 겸한 령세 어업자들이다.

어선은 그 60% 이상이 건조한 지 20년이 넘는 로후한 것들이며 그나마도 매년 감소되고 있다.

1961년 현재 어선은 일제 말기인 1944년에 비해 13.3%나 감소되였다.

동력 어선의 감소(단위 척)

	총수	10톤 미만	11~50톤	50~100톤
1958	5 046	2 965	1 833	502
1961	5 015	2 930	1 717	499

무 동력선의 감소 (단위 척)

	1957	1958	1960
목선	33 154	33 086	30 089

주: 1961년 현재 1958년에 비해 10톤 이상 급의 목선은 척수에서 18.7%나 줄었다.

어선들의 규모와 기술적 장비도 락후한바 1960년 현재 동력 어선은 어선 총수의 12.6%, 1961년에는 11.2%에 불과하며 20톤급 이상의 동력 어선은 3% 정도이다.

남조선 해역들에서 작업하고 있는 어선들의 70% 이상이 2톤 내외의 소형 범선들이며 저예망선, 건착선, 뜨랄선과 같은 비교적 큰 배는 수입 어선을 포함하여 전체 어선 척수의 0.9% 밖에 안 된다.

동력화되여 있지 않은 배에는 무전기, 어군 탐지기는 물론 구명대 하나 없다.

남조선의 대부분 어민들에게는 후리, 가두리, 챗배, 들망, 주낙, 문어 단지, 패류의 채집, 해초류의 채취 등에 필요한 간단한 어구마저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

외화 부족으로 어망의 수입이 줄었고 자체 생산도 급격히 감소되여 어망 공급률은 소요량의 60%도 못 된다.

수산용 유류 공급량은 수요량의 50%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마저 독점 가격으로 일부 업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수산물 생산의 감소】 남조선의 어업은 그 령세성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경영이 적은 반면에 소형 범선(쪽배) 또는 전마선으로 연안 어업을 하는 어민 경영이 지배적이다.

어민 경영은 어업 인구의 90%, 어업 생산물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 현재 어획량은 일제 통치 시기인 1938년에 비해 겨우 45% 밖에 안 되였다. 군사 《정권》 이후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여 어획고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의 감소 (단위 천톤)

	생산량	그 중 어류	패류	해조류
1962	450.5	297.2	20.1	45.6
1963	435.7	245.4	16.7	35.7

자료 출처: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4호

1956년에 비해 1961년에 정갱이는 61%, 갈치는 47%, 재우는 64%, 명태는 65%가 각각 감소되였다.

중요 어종별 생산의 감소 정형 (단위 톤)

	1957	1958	1960	1961
명태	43 000	39 000	22 000	16 000
조기	34 838	24 584	22 561	22 194
갈치	38 611	30 555	41 659	29 809
고등어	12 781	5 793	——	1 762
전광어	13 138	48 361	24 816	23 552

어획량의 감소로 말미암아 남조선 어민들의 1인당 어획량은 1957년에 비해 1959년에는 96%로, 1960년에는 80%로 저하되였다.

1962년에 인구 1인당 어획고는 공화국 북반부에 비해 4분의 1, 어업 인구 1 인당 어획고는 10 분의 1 밖에 안된다. 천해 양식업도 날로 위축되고 있다.

양식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 생산량은 일제 시기의 50% 이하로 감소되였다.

자금과 설비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수산물 가공 공업도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 1962년도 가공품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22.5%, 일제 시기인 1938년에 비해서는 60%나 줄어 들었다.

수산 가공품 생산량의 감소 정형 (단위 톤)

	건어	염어	통조림	기타
1961	29 862	23 756	6 716	9 193
1962	26 466	18 184	2 081	10 801

재 정

【1963년도 《예산》 집행 실적】 괴뢰 정부 1963년도 《재정 예산》은 집행 행정에서 파국에 이른 재정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여 3차에 걸쳐 수정이 가하여졌다.

1963년도 당초 《예산》은 1962년 11월 9일 《최고 회의》에서 총규모 868억 6,400만 원으로 《의결》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당초 예산을 공포하면서 악성 인플레를 수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떠들어 대였다.

그러나 기만적인 《민정 이양》을 앞두고 자기들의 장기 집권 음모 실현에 소요될 막대한 경비를 확정된 세원도 없이 부랴부랴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리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였다.

당초 《예산》에 예견하였던 20억 원의 《정부 주식 매각 수입》은 《증권 시장의 계속되는 불황》으로 년초에 벌써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경제 파국과 민생고의 심화로 28억 4,000만 원의 《산업 부흥 국채》도 소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련이어 확실하게 되였다. 그런데 4～5월 봄비로 입은 자연 재해와 하곡 작물인 보리의 《60년래 대 흉작》, 그리고 늘어나는 테로 통치 기구 유지비 등으로 재정 지출 수요만이 더욱 격증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7월 22일에 《1963년도 예산 운영 방침》을 조작 발표하고 《재정 세입 확보》에 날뛰는 한편 《예산》에 세웠던 《투융자금》이라도 《투자 효률 또는 사업 성과가 낮은 경우》 그 지출을 중지하고 《불요 불급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그러나 재정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악성 인플레가 더욱 격화되여 박 정희 도당은 8월 12일 하는 수 없이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소된 총 규모 741억 3,900만 원의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을 조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의 조작은 미제에 의해 강요된 《재정 긴축 정책》으로 생산, 류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경제 환절들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초래된 후과이며 박 정희 도당이 년초에 떠든 《건전 예산》의 기만성을 스스로 폭로한 단적인 례증이다.

박 정희 도당은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을 공포하면서 마치도 이 《예산》이 《명실 상부한 건전 재정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것으로 《재민 구호와 긴급한 풍수해 복구 사업비》, 그리고 《긴급한 기타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였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의 세출입 구성의 변동 정형을 보면 《재해 복구비》로는 단 1억 7,000만 원이 세워졌을 뿐이고 반면에 세입 원천이 제한된 조건하에서 《경제 안정의 달성》이란 구실하에 박 정희 도당은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 투융자금》을 당초 《예산》에 비해 30억 원을 축감하는 한편 파쑈 테로 통치 유지를 위하여 《일반 경비》와 《국방비》 등 도합 12억여만 원의 지출을 증대시켰다.

동시에 이 자들은 《예산》의 개정 과정을 통하여 재정 세입이 불가능한 28억 원의 《산업 부흥 국채》와 《정부 주식 매각 수입》 등을 포함한 28억 원의 세외 잡수입, 그리고 미국 《원조》의 축감으로 세입 결손이 확정된 17억 7,200만 원의 자금을 당초 《예산》에서 삭제하였다.

그리고는 이 엄청난 세입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 34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 들씌웠으며 《전매 익금》 3억 4,000만 원을 비롯한 기타 세입 항목들을 증대시켰다.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의 억제와 인민들에 대한 재정 수탈의 강화로 《경제 안정》을 달성한다는 이러한 략탈적 《긴축 정책》의 강행은 남조선 경제 파국과 인민 생활의 령락을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괴뢰 정권의 재정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 왔다.

이에 바빠맞은 괴뢰 도당은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을 조작 공포한지 겨우 1개월 반 밖에 지나지 않은 9월 30일에 남조선에서 만연한 《코레라의 구제 기금 념출》이란 명색하에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을 또다시 조작하여 세출입 항목들을 《재조정》하였으며 《예산》 규모를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2억 8천만 원이나 증대시켰다.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의 조작으로 인민 수탈을 전제로 하는 세외 잡수입은 10억 원, 《대충자금》 수입은 1억 5천만 원이 증대되였으며 반면에 세입 결손이 확실하여진 《귀속 재산 매각 수입》 8억 5천만 원이 또다시 삭제되였다.

결국 《제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증액된 2억 8천만 원 중에서 《코레라 대책비》로는 단지 1억 5,000만 원이 할당되였을 뿐, 그 대부분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에 탕진할 《선거 관리비》에 돌려졌다.

이러한 기만적인 괴뢰 정부의 재정 《예산》은 오히려 쌀 기근과 물가의 폭등, 그리고 생산 기업의 파산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중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 하여 《민정 이양》을 앞두고 자기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민심을 수습해 보려고 박 정희 도당은 12월 13일 《제 2 차 추가 경정 예산》에 4억 6,000여만 원을 증액한 총규모 748억 8,900만 원의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을 조작

하고 증액된 자금의 전액을 《세궁민 구호 량곡비》에 돌린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한편 《일반》 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던 1,700여만 원을 새로 구성될 《국회 운영비》로 돌리고 증액된 재원은 《한국 은행》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

당초 《예산》을 조작할 당시부터 빈번히 《적자 없는 건전 예산》을 떠들던 박 정희 도당이 《제 3 차 추가 갱정 예산》에서 재정 세입의 한 항목으로 차입금을 설정하게 된 것은 괴뢰 정부의 재정 위기가 년중에 얼마나 격심한 단계에 다달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1963년도 괴뢰 정부 재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당초 예산	1차 추갱 예산 (1963. 8. 12)	2 차 추갱 예산 (1963. 9. 30)	최종 예산 (1963. 12. 13)
△세입				
1. 조세	28 100	31 588	31 588	31 588
2. 전매 익금	4 260	4 600	4 600	4 600
3. 세외 잡수입	10 890	8 070	9 061	9 061
4, 부정 축재	249	422	422	422
5. 귀속재 전입	930	853	—	—
6. 조달 전입	112	112	112	112
7. 예탁금 리자 수입	1 053	1 373	1 373	1 373
8. 국 채	1 300	1 300	1 300	1 300
9. 대충 자금	25 357	25 822	25 971	25 971
10. 차입금	—	—	—	462
11. 물자대	862	—	—	—
12. 《기술 원조》	910	—	—	—
13. 산업부흥국채	2 840	—	—	—
합계	76 864	74 139	74 427	74 889
14. 대체(산업 부흥 국채)	—	1 433	1 433	1 433
(부정 축채 국유화)	2 536		—	—
총계	79 400	75 573	75 860	76 322
△세출				
1. 일반 경비	30 867	31 889	31 645	32 107
2. 국방비	21 250	21 432	21 432	21 432
3. 투융자	23 358	20 339	20 871	20 871
4. 협정 제비, 기타	1 389	479	479	479
합계	76 864	74 139	74 429	74 889
5. 대체(산업 부흥국채)	—	1 433	1 433	1 433
(부정 축재 국유화)	2 536	—	—	—
총계	79 400	75 573	75 860	76 322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호.

3차에 걸친 《예산 갱정》의 결과 당초 《예산》의 규모가 20억 원 축감되였으나 이것은 재정 세입 원천이 축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인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취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와 《전매 익금》 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하여 무려 38억 원이나 격증되였다.

《예산》의 세출 내용에서도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 투융자금》 지출이 24억 원이나 축감된 반면에 파쑈 테로 통치 기구의 유지비가 대부분인 《일반 경비》는 12억 3,000만 원, 직접적 《국방비》는 1억 8,000만 원이나 증대되였다.

그리하여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고 박 정희 도당에 의하여 충실하게 집행된 《재정 금융 긴축 정책》의 본질적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 놓았다.

【1964년도 《예산》】 1964년도 괴뢰 정부의 《예산》은 《민정 이양》을 수일 앞둔 1963년 12월 10일 군사 통치배들에 의해 조작 공포되였다.

이 《예산》에는 2년 8개월여에 걸쳐 감행된 군사 통치배들의 예속적 《경제 시책》, 1962년의 《증권 파동》, 그리고 불환 지폐 남발로 말미암은 악성 인플레의 격화 등에 의하여 조성된 후과들과 인민 수탈로 경제 파국을 수습해 보려는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략탈적 책동들이 그대로 반영되여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안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구호하에 군사 통치배들의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축소 긴축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재정 《예산》 조작에서 인민 수탈을 위한 항목들은 례외 없이 대폭 증액한 반면에 투자, 융자를 위한 자금 방출은 전례에 없는 최저 한도에까지 끌어 내리였다.

괴뢰 정부 1964년도 《예산》은 1963년 당초 《예산》에 비해 70억 원,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50억 원이 축감된 총 규모 698억 5,300만 원으로 되여 있다.

군사 통치배들은 1964년도 《예산》에 인플레의 요인을 제거하고 《효률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건전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으나 《일반 경비》와 《재정 투융자》 그리고 《국방비》 등으로 분류되여 있는 세출 《예산》에서는 외연히 파쑈 테로 통치 기구 유지비와 군사비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족 분렬, 전쟁 예산이라는 것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

괴뢰군의 피복비와 봉급, 부식물대 등 직접적 군사비만 포함하

고 있는 《국방비》는 전년에 비하여 다른 지출 항목이 례외 없이 축감되여 있는 것과는 반대로 유독 13억 3,400만 원이나 증액된 227억 6,600만 원으로 괴뢰 정부 《예산》 지출 총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상 순위로 보아 파쑈 통치 기구의 유지 강화가 위주로 되고 있는 《일반 경비》에 다음 가는 제 2위로 되여 있다.

그러나 여기에 직접적 군사비에 포함되여야 할 60여만 괴뢰군의 무장을 위한 지출과 군사력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투자》, 그리고 잠세력 강화를 위한 도로, 항만, 통신 시설, 비행장 건설비 등을 고려한다면 괴뢰 정부 세출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군사비로 되고 있다.

세출 항목중 43.6%를 차지하여 304억 7,700만 원의 최고액에 달하는 《일반 경비》는 그 전부가 파쑈 테로 통치 기구의 유지비이나 그 중에서도 《중앙 정보비》, 《내무비》, 《법무비》, 《대법원비》 등 사법 경찰 기구의 유지를 위한 경비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파쑈 통치 기구를 보강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진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 《정치 자문 위원회》 및 《대통령 경호실》 경비 등이 새로 엄청나게 계상되였다.

반면에 1963년도 《예산》 세출 항목 중에서 27.9%를 차지하였던 《재정 투융자》는 인플레 억제라는 구실 밑에 23.3%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되였으며 절대액에서도 46억 원이나 축감되였다.

그 중에서도 남조선의 기본적인 생산 부문이며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투융 자금》은 전년에 비해 무려 12억 9,000만 원이 감소되였다.

그 중 《농사 자금》은 4억 7,000만 원, 《조림 사방 자금》은 4억 3,000만 원을 축감하였으며 《수산 자금》을 전년에 비해 50%나 대폭 축감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중에 있은 홍수와 태풍으로 무너진 2,000여 개소의 기존 관개 제방들과 어선 어구들은 파괴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까려지고 있다.

광공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는 더욱 억제되고 있다.

군사 파쑈 악당들은 1964년 중에 외화 고갈을 완화하기 위한 방도로서 지하 자원 수출 증대와 아울러 군수 및 관수용 연료 조달을 위해 관영 기업인 《석탄 공사》와 전략 자원을 채굴하는 광산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 외에는 일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은 16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은 6억 4,000만 원을 줄이였다.

이 밖에 《제3차 산업》에 속하는 철도, 도로, 항만, 해운, 항공 시설 건설 비용은 군사력의 기동성 보장을 목적하여 전년에 비해 12억 4,000만 원이 증대되였다.

1964년도 일반 재정 《예산》
(단위 백만원)

	1964	1963년 최종예산	증(+) 감(−)
세입			
조세	35 036	31 588	+3 448
전매 익금	4 710	4 600	+110
세외 잡수입	5 819	9 031	−3 242
부정 축재	165	422	−257
조달 전입	114	112	+2
예탁금 및 리자수입	1 535	1 373	+162
국채	—	1 300	−1 300
대충 자금	22 474	25 971	−3 497
차입금	—	462	−462
합계	69 853	74 889	−5 036
대체(산업 부흥국채)	—	1 433	−1 433
총계	69 853	76 322	−6 469
세출			
일반 경비	30 477	32 107	−1 630
국방비	22 766	21 432	+1 334
투융자	16 260	20 871	−4 611
협정제비 및 기타	350	479	−5 036
합계	69 853	74 889	−5 036
대체(산업 부흥국채)	—	1 433	−1 433
총계	69 853	76 322	−6 469

1964년 《예산》의 세입 규모는 세출 규모와 같은 698억 5,300만 원으로 표면상 《수지 균형》이 보장되여 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은 지난 기간 괴뢰 정권의 그 어느 《예산》 보다도 파렴치한 인민 수탈을 전제로 편성되여 있다. 재정 세입 원천별 구성에서 미국의 《원조》 물자 대금으로 이루어지는 《대충 자금》 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34억 9,700만 원이 감소된 224억 7,400만 원으로 그가 차지하는 비중도 34.7%에서 32.2%로 저하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축감된 《대충 자금》 수입도 1964년도에 도입될 《원조》 규모 보다 과장되여 계상된 것으로 따라서 군사 통치배들은 미국의 《원조》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갱정 예산을 만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우기 《대충 자금》 세입 감소를 예상하여 괴뢰 정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일반 공정 환률과 암시장 환률과의 차이를 기정 사실화하고 그 차액 딸라당 남조선 화폐 50원을 《림시 특별 리득세》로 징수하여 《대충 자금》 수입에 충당하려 하고 있다. 이는 팽창하는 군사 경찰비를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수탈로 충당하고 자기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미제 침략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박 정희 일당은 1964년도 《예산》의 공포를 며칠 앞두고 《법인 소득세》와 《관세》, 《영업세》의 세률을 대폭 인상하고 철도 운임(화물, 려객)을 각각 15%나 끌어 올렸으며 지어 각급 학교들의 입학금까지 20~50%나 인상하는 동시에 《징세 행정을 강화》 하는 등으로 《세입》 확보에 혈안이 되여 있다.

그리하여 1964년도 《예산》 세입에서 《조세》와 《전매 익금》 등 직접적 인민 수탈로 이루어지는 수입은 전년도 최종 《예산》 보다 35억 5,800만 원이나 증대시켜 전년 보다 감소된 《대충 자금》 수입 34억 9,700만원을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1964년 《예산》 세입

에서 조세 수입은 전년 보다 3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3,600만 원으로 세입 구성 비중 역시 8%가 높아진 50.2%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매 익금은 1억 1,000만 원 (0.6%)이 증대된 47억 1,000만 원으로 되여 있다. 그리하여 1964년도 《예산》 세입에서 직접적 인민 수탈로 이루어진 몫이 차지하는 비중은 56.9%에 달하고 있는바 괴뢰 정부 《재정 예산》에서 이 몫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괴뢰 통치 이래 처음 있은 일이다.

결과 남조선 인민들의 세금 부담률은 전년도의 11.4%로부터 12.1%로 증대되였다.

조세 세입의 구성은 간접세가 71.1%(인지 수입 등록세, 증권 거래세, 톤세 등을 포함), 직접세가 전년의 비중 보다 3.2% 증대한 28.9%로 되고 있다.

직접세의 비중이 증대된 것은 《법인 소득세》와 같이 직접세의 세률들이 대폭 인상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생산 기업소들의 련'이은 파산과 인민 생활의 령락 등으로 세원이 고갈되여 가고 있는데로부터 괴뢰 정부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강제적인 인민 수탈을 노리고 있음으로 의연 간접세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다음으로 1964년도 《예산》 세입 항목 중에서 눈에 띄이는 것의 하나는 종래 괴뢰 정부의 《예산》마다 빠짐 없이 계상되던 각종 채권들과 《국채》의 발행과 같은 적자 요인들이 금번 《예산》에서 제거된 것이다.

군사 통치배들은 이것을 가지고 《적자 없는 균형 예산》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 이는 경제 부문과 민생고를 타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 한도의 경비 지출마저 강제적으로 축감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근 5,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채를 걸머진 괴뢰 정권의 궁여 지책에 불과한 것이다.

금 융

1963년에 들어서면서 미제는 그 전해에 실시된 략탈적인 《통화 개혁》과 금융 체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다 준 《증권 파동》,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격화된 물가의 폭등과 악성 인플레를 극복한다는 구실하에 괴뢰 도당을 통하여 전례 없는 파렴치한 재정 긴축 정책의 실시를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박 정희 도당은 년초에 《경제 시책》을 발표하고 《안정 기조에서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는 명목하에 《불요 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긴축하고 강력한 재정 금융 안정 계획에 의하여 인플레를 억제하고 통화의 안정을 기》하여 상전의 분부를 《충실히 집행》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상의 방침에 기초하여 괴뢰 정부는 1963년 1월 30일 년중 통화의 증가 한도를 33억 원으로 규정한 《재정 안정 계획》을 조작하고 통화의 증발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괴뢰 정부의 《재정 투융자》와 금융 기관들의 자금 대부를 극력 억제함으로써 인플레를 억제하고 통화 가치의 상대적인 《안정》을 이룩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년초의 한 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략탈적인 《재정 금융 긴축 정책》의 후과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외화 보유고가 더욱 고갈되고(외화란 참조) 보리 흉작으로 인한 쌀 기근이 격화됨에 따라 곡물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되였으며 악성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현지 사환'군들은 3월 중에 미 《국제 개발처 극동 담당 부처장 대리》와 동 《한국 과장》을 불러 들여 남조선에서 《한미 고위 경제 회담》을 벌리고는 외화 및 물동 계획과 《재정 금융 안정 계획》 등을 뜯어 고치였다. 《제 2차 외국 환 수급 계획》에서는 《정부 투자 기관》의 외환 지불을 870만 딸라 감소시켜 1차 수정계획의 지불 초과액 2,790만 딸라를 1,920만 딸라로 축감하였으며 《물자 수급 계획》에서는 2,550만 딸라 분의 물동 (미공법 480호 및 이월 조정분 제외)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33억 원의 통화 증가를 18억 원으로 깎아 내며 년말 통화 한도 400억 원 선을 385억원 선에서 억제하는 등 가일층의 《긴축》이 강요되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강압적인 조치에 따라서 이 해에 모든 금융 기관들의 자금 대부 《계획》이 당초 보다 절반 이상이나 줄어든 31억 원으로 감소되였다. 2.4분기부터는 상업 어음과 생산 시설에 대한 신규 자금 대부가 중지되였으며 1963년 중 괴뢰 정부 예산에 포함되었던 34억 원의 《재정 투융 자금》이 삭제되였다.

그리하여 당초 예견하였던 명목상의 《건설 대상》들이 공사 중단 또는 포기 상태에 빠졌다. 산업용 원자재와 시설 구입 자금을 비롯한 《중소 기업 자금》, 《농사 자금》에 대한 지출 억제는 더욱 가혹하여 남조선 전체 산업 기업체의 98%를 차지하는 《중소 기업 자금》은 최소한 소요액의 14분의 1 밖에 안 되게 계상된 7억 원중 불과 1억 원 밖에 방출되지 않았다. 농촌에 대한 자금 융자에서도 1963년 4월 8일에 조작한 《농어촌 진흥 자금 운동 요강》에 의거하여 《사업 실적이 있고 의욕적》이며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모범》적인 《조합》과 《군사 정권》이 승인하는 개인에 국한하여 자금 대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조선의 절대 다수 농민들에 대한 자금 지출을 사실상 봉쇄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중소 기업자들을 비롯한 농민 대중의 고리 대금 리용도와 각 금융 기관들에서 《예치》 자금을 끌어내는 현상이 격증하였다. 각 금융 기관들의 4월 말 현재 예금 잔고는 1962년 말에 비해 29억 6천여 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대출액은 그 25배가 넘는 738억 원에 달

하였다. 여기에다 이 해에 격심한 주식 시세의 폭락이 계속되여, 따라서 1962년의 《증권 파동》에서 입은 결손을 메울 수 없게 된 시중 은행들은 극심한 지불 준비금의 고갈을 겪게 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 은행들의 거래는 년중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시중 은행》들의 자금난이 격화되고 거래가 마비됨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군사 정권》 수립 이후 명목상 중지되였던 고리 대금업이 번창하여 경상 남북도 같은 곳에서는 200여 개의 《서민 금융 점포》가 출현하여 간판까지 버젓이 내 걸고 과거보다 2 배나 높은 금리를 받아내면서 고리 대금업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 금융 체계는 혼란에 빠지고 은행들의 마비 상태는 더욱 격화되여 갔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생산 기업소들의 파산과 몰락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파국이 절정에 달하고 괴뢰 정부의 재정난 또한 악화되였다.

외 화

1963년에 절정에 달한 남조선의 경제 파국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밑창을 드러낸 외화 기근이다.

군사 통치배들은 이 해 1월 18일에 《년중 외환 지출 초과 억제선》을 3,790만 딸라에 한정하는 《외환 수불 계획》을 조작하여 외화 기근을 다소라도 완화해 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1962년 10월 이래 《에이 아이디 민수 딸라》의 《공매 소진》 및 1963년도 《원조》의 전망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 등으로부터 있을 물자 수급상의 차질을 막기 위해 괴뢰 도당은 이 해에 일반 수입 신용장 발행을 대폭 증대시켰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해 이에 따른 수입 결제가 시작되여 계속 심한 지불 초과를 가져 오게 되였다. 다른 한편 이 해에 미제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일층 강화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 강점 미군의 직접 매상, 군납 및 용역에서 획득해 오던 외화가 축감되여 괴뢰 도당의 외화 사정 악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3년 1월 중 외화 감소액은 1,280만 딸라로서 이는 1962년간의 외화 보유 감소액 2,040만 딸라의 67.6%, 《외환 수급 계획》의 지불 초과액 3,790만 딸라의 36.4%라는 거액에 달하는 것이였다. 2월 중에도 역시 외화 보유액의 감소는 전년 월 평균 감소액의 2.8배 이상이라는 급속도를 보였다.

괴뢰 정부 《외환 수불 계획》에 책정된 지불 초과 억제선에 대한 외화 감소액의 육박 정형을 보면 3월 말 현재 년초 보다 2,970만 딸라가 줄어 78.3%에까지 압박하였으며 5월에는 4,540만 딸라가 감소하여 당초 계획의 한도선을 19.8%나 초과하였다.

괴뢰 정부는 5월 22일 수입 증가 보다 지불 삭감에 치중한 《외환 수급 계획》의 제 1 차 수정안을 조작하여 지불 초과 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1,000만 딸라나 낮춘 2,790만 딸라로 정하고 5월 말 현재 보유 외화의 감소액을 만회할 것 같이 서둘러 보았으나 밑받침 없는 《수정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에 돌아가고 7월 말 현재 보유 외화의 감소는 억제선을 당초 계획의 58%, 《제 1 차 수정 계획》의 2배 이상으로 초과하는 6,070만 딸라에 달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괴뢰 정부의 외화 보유고는 7월 13일 현재 겨우 1억 5,300만 딸라가 남게되였다.

그러나 이 잔액 가운데에는 1963년 중에 괴뢰 정부가 지불해야 할 대외 확정 채무액 7,613만 딸라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예약된 일부 자금을 여기에서 공제하고 나면 괴뢰 정권의 외화 보유고는 완전히 밑창이 드러나게 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부랴부랴 조직한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의 첫 회합 (7월 19일)에서 《외환 사정의 해결책》을 토의하고 결과에 7월 20일 제 2 차 수정 《외국 환수급 계획》이 작성되였다.

제2차 《수정 계획》은 제1차 수정 계획에서 실패한 2,790만 딸라의 지불 억제선을 840만 딸라나 감소시켜 1,950만 딸라로 다시금 낮춘 허무 맹랑한 것으로 미제와 괴뢰 도당의 당황망조한 꼴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였다.

한편 괴뢰 정부는 미제의 《긴축 강화》 지시에 순응하여 6월 30일 《물자 수급 계획》을 《수정》하고 비료, 농약, 원목, 팔프, 지류, 섬유류 및 화학 약품 등 3,550만 딸라의 민간 물자도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외환 매상제》를 도입하여 외화 사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요 원료의 8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남조선의 생산업자들이 이 해에 들어 전례없이 격심한 원료 기근에 휩쓸려 들어 8월 초순에 벌써 200여 개의 기업들이 파산 몰락하게 되였다. 따라서 생산이 년중 감퇴하고 수출 품목에서 첫 자리에 꼽히던 미곡이 계속된 흉작으로 수출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7,300만 딸라의 1963년도 수출 목표 달성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였으며 오히려 외화난만이 더욱 더 심화되였다.

이 해에 군사 통치배들은 외화 기근을 타개 하기 위해 1억 딸라의 상업 차관을 괴뢰 《한국 은행》의 지불 보증하에 끌어 들일 것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 차관 금리 5.7% 보다 높은 년리 6%의 고률일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 5%를 가산하여 원리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화 고갈 방지는 고사하고 나라의 재부만을 털어내는 결과 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 결국 괴뢰 정부의 외화의 감소는 속수 무책인 상태에서 년중 계속되여 년 말 현재

외화 보유고는 1962년 말보다 3,620만 딸라, 1961년 말에 비해서는 6,000만 딸라가 줄어 외화 기근은 격화되였다.

1963년 외환 수급 계획 및 실태
(단위 백만 딸라)

	수입	지불	지불 초과
계획			
ㄱ.당초계획 (1월 18일)	190.7	228.6	37.9
ㄴ.제1차 수정 (5월 22일)	191.3	219.2	27.9
ㄷ.제2차 수정 (7월 30일)	202.2	221.7	19.5
실적			
ㄹ 4월 현재	47.7	105.6	57.9
(ㄱ/ㄹ %)	(23.5)	(47.6)	(297.4)
ㅁ.5월 현재	69.6	115.0	45.4
(ㄴ/ㅁ %)	(36.4)	(52.4)	(162.7)
ㅂ.7월 현재	101.9	162.6	60.7
(ㄷ/ㅂ %)	(50.4)	(73.3)	(311.3)
ㅅ.년말 현재	177.1	257.5	80.4
(ㄷ/ㅅ %)	(82.6)	(116.1)	(409.9)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2, 5, 6, 8, 9호 및 1964년 4호.

증 권

1963년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의 증권 시장은 그 전해에 있은 《증권 파동》의 여파로 전면적인 파산 상태에 빠져 들고 말았다.

남조선 괴뢰 통치배들은 그들이 빚어낸 전년의 《증권 파동》의 후과로부터 증권 시장 경기를 회복시켜 보려고 이 해 1월 중에 《증권 금융 취급 요강》을 조작하고 10억 원 한도로 《증권 금융》을 실시 하였으나 사회의 불안과 주'가 전망이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증권 거래는 전년 말에 계속해 침체 상태를 지속하였다.

2월에 들어가 괴뢰 《통화 위원회》는 《증권 금융 취급 요강》을 대폭 완화하여 증권 시세의 회복을 자극해 보려 하였으나 주'가는 폭락하여 23일 결제 거래에서 월초에 비해 《증권 금융 회사》의 《구주》 (舊株)가 53 %, 《신주》(新株)가 42%의 대 폭락을 보였고 25일 오전 거래에서 《대한 증권 회사》의 주가 액면 가격의 3분의 1로 폭락하여 《증권 거래소》 개설 이래의 최저 가격을 호'가하게 되였다.

이러한 시세의 거듭되는 대 폭락은 마침내 투자가들의 대 소동을 일으켜 《증권 시장》은 문자 그대로 《폭력장으로 화》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군사 통치배들은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기동 경찰대를 동원하여 사태 수습에 날뛰는 등 추태를 연출하였으며 이날 오후부터 《증권 거래》는 《휴장》에 들어 갔다.

이번 《휴장》 소동은 《군사 정권》의 《내각 수반》과 《재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나가 떨어지게 한 작년 5월의 《증권 파동》 이후 두번째로 되는 것이다.

3월 중을 통하여 괴뢰 정부는 금융, 보험 기관들에 증권을 사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시장 수습책을 짜내기에 발광하였으나 자금 넘출에 막혀 시장 재개는 실현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3월 말로 예정하였던 거래소의 결산까지 연기하는 추태를 연출하였다.

결국 군사 통치배들은 1962년 4월에 법령을 개정하여 회사제로 만들은 현 《증권 거래소법》을 다시 고치였다.

이에 근거하여 5월 8일에 《공영제》로 하는 《한국 증권 거래소》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휴장》 이래 60일만인 5월 9일에 증권 거래가 다시 시작되였다.

그러나 5월 중 증권 거래는 여전히 혼미한 속에서 《재정 안정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된 괴뢰 정부의 《긴축 정책》 바람에 악화된 시중 자금 사정과 생산 파탄을 반영하여 시세의 하락과 2월 중에 비해 26.5%라는 거래액의 감소를 보였다.

그리 하여 1963년 중을 통하여 증권 거래는 시세의 폭락과 시장의 혼란을 거듭하면서 남조선 경제의 파탄상을 로출시켰다.

주식 거래 동태
(단위 억원)

	거래 주수 (억주)	거래액 (억원)
1962년중	1 482	983
1963년중	986	261
1962.12	76	42
1963.1	356	31
2	207	34
3	— 휴장	—
4	〃	
5	7	9
6	17	17
7	42	42
8	43	37
9	41	40
10	24	22
11	30	16
12	15	16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4호.

통 화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긴축 정책》에 기초하여 《인플레를 억제하고 통화 가치의 안정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1월 29일 《1963년도 재정 안정 계획》을 조작하였다. 이 《계획》에서 박 정희 도당은 년간 통화 팽창률을 8.9% (33억 원)이하로 억제하고 통화량을 400억 원 이하에서 유지할 것을 목표로 결정하였었다.

이는 《군사 정변》이 조작된 해인 1961년도의 팽창률 42.5%에 비하여 4분의 1도 채 안되며 1962년도의 그것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대폭의 《긴축》 《계획》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가일층의 《긴축》을 강요하여 괴뢰 정부는 4월 30일 《년말 통화 한도선》을 당초 계획보다 15억 원이나 더 적은 385억 원으로 끌어 내리게 하였다. 그리 하여 1963년에 인민 수탈의 강화와 일반 자금 지출의 억제는 괴뢰 통치 이래 극도에 달하

였다.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전년도에 비하여 60억 원이 더 많은 281억 원의 조세가 들씌워졌으며 8억 원이 더 많은 42억 원의 《저축》이 강요되였다. 괴뢰 정부의 재정 《투융자》는 당초 예경액의 3분의 1 이 삭감되였으며 중소 기업 자금은 전년도의 70%로, 농사 자금의 신규 지출은 4분의 1로 격감하였다.

그리 하여 1월 중에 20억 원의 팽창을 가져와 387억 원에 달하였던 통화량은 2월 이후 감소를 계속 (4월은 제외)하여 7월 말 현재에는 전년말에 비해 17억 원이나 적은 350억 원에까지 축감되였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물가를 도외시하고 강압적으로 조성한 이와 같은 통화 진축은 산업 생산 활동과 인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10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 정희 일당이 살포한 《정치 자금》이 요인이 되여 8월달부터 통화량은 다시 급격히 불었다. 8월에 11억 원의 증가를 보인 통화량은 9월에 들어서 상반월 중에 역시 11억 원, 하반월 중에 33억 원, 도합 44억 원의 증가를 보여 년말 《한도선》을 20억 원이나 초과한 405억 1천만원에 달하였다. 9월 하반월 통화 팽창액 33억 원은 실로 1962년 중의 화폐 증발고의 2배에 달한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격증하여 저들의 반 인민적 정체가 들어나게 되자 당황한 괴뢰 통치배들은 한 동안 (거의 2개월간)통화량 동태의 발표를 중지하는 (11월 11일 《국제 신보》) 졸렬한 수법까지 쓰는 한편《재정 안정 계획》을 또다시 뜯어 고치고 인민 수탈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괴뢰 정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9월부터 《영농 자금》의 강제 회수에 착수하여 통화 축감에 날뛰였으나 11월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또 다시 살포된 《정치 자금》은 공식으로 발표된 것만 하여도 23억 원이란 거액에 올랐으며 385억 원 선으로 통화량을 잡아 맬 것을 기도한 《재정 안정 계획》 은 실현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였다.

그리 하여 극도로 심화된 경제 위기로 식민지 통치에 위협을 느끼게 된 미제는 보유중에 있는 1,500만 딸라의 《추가 원조》중 1,000만 딸라의 공매를 승인하고 그의 대'가로 박 정희 도당에게 최대한의 《긴축》을 강행하게 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11월 11일과 12월 2일의 두 차례에 걸쳐 《제2차》,《제3차》로 수정한 《재정 안정 계획》을 조작하고 람발한 통화 흡수 깜빠니야를 악랄하게 전개하였다.

괴뢰 통치배들은 미제 상전의 지시대로 년말 통화량을 유지하기위해 《세금 징수》, 《연체 대출금》의 회수, 《영농 자금》의 회수, 딸라 매각에 의한 《원》화의 회수 등 각종 명목으로 맹렬한 인민 수탈을 강행하였다. 특히 《영농 자금》 회수와 같은 것은 불과 1개월 동안에 62억 원을 빼앗아 내기 위하여 일대 《차압 선풍》을 벌며 쌀독 밑까지 훑어내고 소, 돼지는 물론 솥까지 닥치는대로 빼앗아 갔다.

또한 수십 억 원의 《원》화를 딸라의 매각으로 회수함으로써 남조선 화폐 체계를 더욱 혼란 속에 몰아 넣었다. 그리 하여 11월 15일까지도 400억 원을 초과했던 통화량은 년말에 373억 원으로 줄었으나 그것도 전년 말에 비해서는 6억 원이, 1961년에 비해서는 61억 원이 팽창한 것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는 불환 지폐의 람발로 인한 인플레가 모든 경제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통화량 및 화폐 발행고

(단위 억원)

	통 화 량		화폐 발행고	
	금액	증가 지수(배)	금액	증가 지수(배)
1945	0.114	1	0.088	1
1946	0.249	2.2	0.177	2
1947	0.495	4.3	0.334	3.8
1949	1.211	10.6	0.751	8.5
1950	2.831	24.8	2.292	26.0
1953	30.316	265.9	23.132	262.9
1954	58.1	509.5	46.6	530.2
1960	219.1	1 921.7	146.3	1 662.5
1961	312.2	2 738.6	180.6	2 052.2
1962	367.1	3220.1	207.2	2 354.5
1963	373	3272.0	218.6	2 484.1

물 가

통화의 팽창과 첨예한 식량 위기, 외화 위기의 심화, 생산의 감퇴와 세금의 인상 등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년초부터 물가가 급격히 폭등하였다.

1963년 상반년 동안에만 해도 남조선 도매 물가는 평균 15.6%나 올라 불과 반년 동안에 그 전 시기의 년간 등귀률을 훨씬 넘어서 버렸다.

그 중에서도 쌀 값은 61.8%, 보리쌀 값은 51.1%, 저류는 64.4%, 기타 잡곡은 67.4%나 폭등하였다. 6월 하순에는 극심한 《곡가 파동》이 일어나 쌀 값은 하루 저녁 사이에도 한가마니에 100원, 200원씩 껑충껑충 뛰여 올라 최고 6,000원까지 했으며 한 동안은 보리쌀 값이 쌀 값과 같아지기도 하였다. 또한 극심한 외화 위기와 《관세률》의 인상 등으로 말미암아 수입 원자재 값도 전반적으로 폭등하였다. 공업 약품은 34.3%, 도료와 염료는 17.8%, 유지는 28.6%, 생고무는 27.8%나 뛰여 올랐다.

극도로 당황한 괴뢰 통치배들은 5월 15일과 6월 12일의 2차에 걸쳐 년초부터 물가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논 쌀 값의 《단속선을 5.15 통제 가격보다 25% 인상》한 수준으로 뜯어 고치는 한편 《수입 물자 가격 안정 대책》, 《종합 물가 대책》을 만들어(6월 24일) 내고 《물가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위선적인 《대책》을 연발하면서 그것으로써 마치 물가고를 수습할 수 있을 듯이 떠벌며 댔다. 그러나 그들은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파쑈적 폭압 방법을 규정해 놓았을 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적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조차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세금을 인상하고 8월 1일의 석유류 판매 가격 인상을 비롯하여 각종 독점 가격과 료금을 끌어 올리는 등 인민 수탈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도리여 《뛰는 물가에 부채질》만 계속했다.

이리하여 남조선 도매 물가는 하반년에도 평균 12.4%나 더 올랐다. 쌀 값은 추수기를 맞아 약간 떨어지기는 했었으나 1962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계속 40~50% 더 높은 값을 유지하여 왔었는데 12월에 들어서자 전달에 비하여 또 5.7%가 뛰여 올랐으며 보리쌀은 하반년 동안에 12.2%, 저류는 50.5%나 더 비싸졌다. 같은 기간에 대중 소비품인 장작과 목탄은 16.1%, 직물은 25.2%, 고무신은 48.8%, 전기 용품은 51.7%, 의약품은 32.4%, 가구류는 30.7%가 올랐고 수입 원자재인 면사는 86%, 생고무는 53.2%, 공업 약품은 58%, 염료와 도료는 80.8%, 팔프는 94.9%가 올랐다.

전반적인 물가가 이처럼 폭등하여 괴뢰 통치배들의 《물가 통제》는 완전히 파탄되여 버렸다.

1961년 5월 15일 시세 이하로 통제 한다던 쌀, 보리쌀 등의 가격은 1963년 11월 30일 현재만 하여도 소위 《통제 가격》을 35.3%와 72.4%를 각각 뛰여 넘었으며 1962년 6월 9일 시세 이하로 《억제》하겠다던 고무신, 면사, 철근, 아연도 철판, 세멘트, 각재 등의 가격도 다 10~100%의 상승을 가져왔다 (《매일 신문》 1964년 3월 5일). 이리하여 1963년 12월의 남조선 도매 물가 지수는 1962년 12월에 비해 평균 37.9%가 더 높아졌는바 이는 그 전 1년 동안 (1961년 12월 대비 1962년 12월)의 물가 등귀률에 비하여 실로 2.5배 이상이나 되는 《전례 없는 살인적인 상승률》이였다. 물가의 이러한 폭등은 남조선의 근로자들과 중소 기업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민생고를 절정에 달하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생산과 류통을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이리하여 물가 앙등은 마침내 중대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폭발하여 대중적인 로동 쟁의를 낳았다.

《물가 통제》의 파탄

	통제 구분	1961.5.15현재 (원)	1962.6.9 현재 (원)	1963.11.30현재 (원)
쌀 (가마니)	1961.5.15가격	1 980		2 680
보리쌀 (가마니)	〃	1 450		2 500
고무신 (100켤레)	1962.6.9 가격		2 900	5 800
면사(근)	〃	26 300	30 000	32 000
세멘트 (100포대)	〃	15 500	15 500	17 000
철근(톤)	〃	15 000	16 500	18 500
아연도철판 (톤)	〃	23 000	18 700	26 500
각재(륙송) (100才)	〃	1 400	2 800	3 200
각재(라왕) (100t)	〃	3 450	3 700	4 700
인견사 (200폰드)	주무장관 고시가격	18 000	18 500	품절
나이론사 (10폰드)	〃	5 200	4 800	8 000
스프사 (근)	〃	28 000	31 000	64 000
모사 (폰드)	〃	품절	460	780

가성소다 (드람)	〃	…	8 200	12 500
소다회 (톤)	〃	8 500	9 000	16 000
생고무 (톤)	〃	…	97 000	280 000
우지 (100폰드)	〃	1 904	2 024	4 300
설탕 (포대)	〃	1 190	1 375	2 700
류황 (톤)	〃	11 500	11 500	23 000

자료 출처: 《매일신문》 1964년 3월 5일.

1963년도 남조선 도매 물가 동태

구분	1962년12월평균	1963년6월평균	1963년12월평균	구분	1962년 6월평균	1963년 6월평균	1963년12월평균
총지수	126.7	146.5	164.7	인쇄용지	123.5	128.	166.5
쌀	134.6	217.9	191.4	지류	88.0	88.0	120.4
보리쌀	166.6	245.7	276.2	생고무	73.0	93.3	142.7
서류	125.5	216.4	325.8	고무신	85.0	89.5	132.8
기타 잡곡	156.4	261.8	249.0	전기용품	99.6	99.7	151.3
장작 및 목탄	255.6	257.7	299.3	가구류	126.4	130.3	170.4
목재	149.1	147.6	172.7	식용유	121.5	166.2	217.3
면사	134.7	146.5	199.3	조미료	127.5	162.7	197.5
직물	121.2	120.7	151.2	유지	114.6	147.4	149.1
공업약품	97.3	130.7	206.9	곡물	137.6	220.4	202.1
의약품	109.6	113.1	149.8	곡물제외	124.8	133.8	158.3
염료 및 도료	126.5	149.1	269.5	생산재	127.1	133.3	157.9
펄프	128.4	157.7	305.8	소비재	126 4	156.0	169 6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호.

《원 조》

침략과 략탈의 도구이며 예속의 올가미인 미국 《원조》의 진면모는 이 해에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미제는 자국 내에서 심화되는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남조선에 대한 《원조》 규모를 계속 축감하며 새로운 통제 기구를 조작하는 등으로 보다 많은 략탈과 효과적인 지배를 실현할 것을 추구하였다. 미국 《원조》 정책의 이러한 추세는 특히 이 해에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적 파국이 심화되고 그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이 심히 뒤흔들리게 된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 로골적이며 파렴치한 형태로 표현되였다.

조선 정전 이후 본격화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 《원조》를 개관한다면 《경제 원조》가 1956년도의 3억 2,400만 딸라를 최고로 하여 1954—1959년까지에는 평균 2억 5,000만 딸라로 되였던 것인데 미제의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1960년 이후 급격한 축감 일로에 들어서 1962년도에는 1억 딸라도 채 못 되는 9,250만 딸라에까지 떨어졌다.

1963년도 《원조》는 괴뢰 정부 요청액 《경제 원조》 1억 딸라, 《기술 원조》 800만 딸라로 도합 1억 800만 딸라에 대하여 할당액은 《경제 원조》 7,500만 딸라, 《기술 원조》 450만 딸라, 도합 7,950만 딸라로 요청액의 73.6%였으며 대폭 축감된 1962년도 할당액 9,900만 딸라에 비해 2,400만 딸라가 더 줄었던 것이다. 그후 이 해 5월 30일 《경제 원조》 1,500만 딸라가 《추가》 (괴뢰 정부 요청 2,500만 딸라) 되여 9,450만 딸라에까지 증액되였으나 그래도 전년도 보다 아직도 450만 딸라가 적은 것이였다.

더우기 《추가》된 《경제 원조》 1,500만 딸라는 1963년도 분인지 1964년도 분인지 미제 측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며 이것이 후자의 것이라면 새 년도 할당액에서 그만큼 공제되여야 할 몫이다.

1963년도 《원조》의 한 걸음 더 전진한 축감은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미제가 루차 말해 온 《원조》 중단의 전주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최소한의 딸라로서 최대한의 지배와 략탈을 노리는 동시에 나날이 정치 경제적으로 위

급해져 가는 남조선의 혼란된 식민지 통치를 던저의 침략자인 일제의 힘을 빌어 유지 안정시키는 동시에 그 경제적 부담까지도 분담하여 저들의 경제 위기를 만회해 보려는 음흉한 의도가 보다 더 로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해에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원조》와 결부시켜 박 정희 일당을 위협하고 사촉하여 《한일 회담》의 《년내 타결》을 서둘렀으며 공공연한 압력을 가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 원조 규모
(단위 1만 딸라)

	계	《경제 원조》	《기술 원조》
1956	32 900	32 400	500
1957	30 250	29 700	550
1959	21 580	21 000	580
1961	19 150	18 500	650
1962	10 150	9 250	800
1963	9 450	9 000	450

자료 출처: 《합동 통신》 1960년 5월 30일, 《동양 통신》 1961년 7월 6일, 《국제 신보》 1962년 1월 4일.

미제는 이와 같이 《원조》를 축감하면서도 1963년도에 《원조 공여》의 방법과 절차를 개악하여 남조선 경제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것은 1,500만 딸라의 《추가 원조》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미제는 《추가 원조》 통고와 아울러 ①남조선의 통화량을 소위 《화폐 개혁》을 백지화한 1962년 9월을 기준으로 한 385억 원 선에서 제한할 것 (괴뢰 정부 《계획》은 400억 원이다) ② 괴뢰 정부 재정 적자를 30억 원 이내로 억제할 것 (재정 적자—채권및 차입금만을 계산하여도—1962 최종 《예산》 70억 6천만 원 1963년 당초 《예산》 41억 3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③외환의 보유고를 최저한 1억 2,500만 딸라에서 유지할 것 (1963년 5월 말 현재 1억 2,080만 딸라였다)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원조》 할당 년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조건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조 중단》또는 다음 재 년도 《원조》 에서 그만한 액수를 체감한다는 고압적인 위협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 《추가 원조》는 1963년 8월부터 방출되기로 되여 있었으나 괴뢰 정부가 카나다와 호주로 부터 9,000만 딸라분의 곡물을 미제의 승인 없이 도입했다는 리유로 10월에 들어서 보기좋게 《공여》를 《거부》한 바 있으며 박 정희 일당의 애걸로 1963년 11월에 가서 1,500만 딸라 중 1,000만 딸라만을 공매할 것을 승인하였다.

또한 미제는 이해 7월 18일에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조》를 미끼로 하는 괴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통제를 일층 강화하였다.

이 기구는 지난날 남조선 경제 행정의 《실력 기관으로 군림》하여 괴뢰 정부의 일체 경제 활동을 직접 장악하고 지시와 감독의 역할을 담당해 온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의 재판이다.

사실상의 주재자인 《주한 미 경제 협조 처장》을 비롯한 6 명의 미국인 대표들과 괴뢰 정부 경제 관계 관리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비 공개리에 운영될 뿐만 아니라 토의된 내용은 미제의 승인 없이는 발표하는 것 조차 금지되여 있다.

이 통제 기구를 통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재정 및 물동 계획은 물론이고 정부 예산의 편성, 집행을 비롯하여 산업 및 금융 면에까지에 걸쳐 기본 정책을 협의하게 될 것이고 그 실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괴뢰 정부는 아무런 《독자적인 정책이나 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한국일보》 1963년 7월 2일).

실지에 있어서 7월 29일에 있은 제 1 차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에서 미제는 《외환 부족과 속등하는 물가 추세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조선 경제 정세 《전반을 재정, 금융 및 물가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박 정희 도당에게 구체적인 통제 방책을 제시하였다.

4.4분기에 들어서면서 미제는 괴뢰 정부에 대하여 년초에 작성한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정 안정 계획》을 철저히 집행할 것과 예산을 재 편성하여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예산 적자를 일소할 것, 《5 개년 계획》을 수정할 것 등 주로 투자 및 융자를 억제하고 전면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할 것이였다.

나아가 미제는 괴뢰 정부로 하여금 물가 억제와 《긴축》을 예견하는 《종합 물가 대책》의 강행과 《외환 수급 계획》을 재 검토하고 《외화 보유 한도액》의 보장을 위한 외화 지출을 극력 억제하게 하였으며 2.4 분기부터는 일체 상품 수입에 《전면적 허가제》를 적용하여 통제를 일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시켰다. 또한 경제의 《성장》보다 《안정》에 치중할 것을 강요하여 저희들의 유력한 경제 조사 기관인 《에이산 협회》를 남조선에 파견하고 2년간 장기 주재시키면서 《5개년 계획》의 전면 수정과 괴뢰 정부의 재정, 금융 정책, 예산 작성 절차와 투자 계획, 대외 무역과 외환 업무, 가격 정책과 산업 정책 등 경제 정책 일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1963년에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하여 현지 군사비 지출을 증대하며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전례 없이 강화하였다.

1963년도 《원조》 규모가 대폭 축감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 정부의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조세 부담을 전 년도 최종 예산에 비하여 97억 5천만 원이나 늘구었다. 동시에 미제는 《경제 안정》의 명목하에 괴뢰 정부의

재정 《투융 자금》을 33억 원이나 삭감시키고 이해 2.4 분기부터는 금융 부문에서의 신규 대부를 일체 금지하고 최대한의 민간 자금 회수에 광분하였다.

4.4 분기에 들어 서면서 미제는 《긴축 정책》강행에 더욱 악랄하게 나섰으며 특히 농촌에서 《영농 자금 회수》를 위한 일대 소동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년말 통화량은 278억 원으로 축감되고 괴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안정 계획》은 《성공적으로 집행》되였으나 이해 물가 앙등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통화의 긴축은 남조선 경제 활동에 출혈적 희생을 겪게하였다.

년중을 통하여 기업체들은 자금난에 허덕이였고 농촌에서는 《영농 자금 회수》에 걸며든 농민들이 영농 자금을 갚기 위해 역축을 방매하는 일이 허다했음으로 해서 3만 원은 해야 할 황소 값이 9천 원, 8천 원으로 떨어졌다.

외국 자본 및 《차관》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축감하며 그 일부를 일본, 서독 등 다른 렬강들로 하여금 《분담》케 함으로써 자국 내의 딸라 위기와 식민지 통치 위기를 수습해 보려는 미제의 침략적인 《대외 원조 정책》으로 말미암아 1963년에 외래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남조선 진출은 과거 어느 해 보다도 적극화되였다. 특히 극동에서 괴뢰들을 묶어 세워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로골적인 압력으로 하여 1963년에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 기운은 급격히 증대되였으며 그 막 뒤에서 남조선에 대거 진출을 노리는 일본 독점 자본의 침략적 야망은 일층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이러한 기본 정책에 추종하여 외자 도입 정책의 중심을 종전의 《차관》으로부터 《외국 자본의 직접 또는 합작 투자에로 전환》(《동화통신》 1963년 7월 22일)하고 더욱더 매국적인 외세 의존 정책에 매달렸다.

박 정희 도당은 특히 일본 독점 자본의 조속한 도입에 기대를 걸고 일제의 《고자세》 앞에 더욱 철저히 굴종하면서 《한일 회담의 년내 타결》을 서두르는 한편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장기 결제 방식에 의한 일본 자본 재 도입을 실현하기로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 처리 절차》까지 마련하였다 (《동양 통신》1963년 7월 10일).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이 일련의 조치로 말미암아 외래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는 현저히 강화되였는바 1963년 말까지 남조선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는 도합 4건에 958만 딸라의 《계약》이 체결 되였으며 《차관》은 46건에 2억 5,989만 딸라의 《계약》이 체결되였고 실제로 투자된 외국 자본 총액은 3,732만 딸라에 달하였다. 그 중 11월 15일 현재까지 《차관》에 의한 외국 자본 침투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차관》의 침투 정형

(단위 천 딸라)

국명	차관별	건수	차관액
미국(AID)	재정차관	11	74 390
미국(IDA)	〃	1	14 000
서부 독일	〃	2	13 930
서부 독일	상업차관	1	6 490
이태리, 불란서	〃	1	55 150
기타	〃	12	48 090
계		28	212 060

자료 출처: 《조선 일보》 1963년 12월 4일》.

다시 이것을 국별로 그 침투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미국 독점 자본은 남조선에 이미 구축된 유리한 지반과 자국 정부의 《원조》의 그늘 아래에서 이 해에도 계속 남조선에 진출하였다.

1963년에는 미국 석유 독점체인 칼프 회사가 울산 정유 공장 건설에 500만 딸라의 직접 투자와 2,000만 딸라의 《차관》을 투입하고 공장 주식의 25%와 중역의 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차관》금 2,000만 딸라는 미국 원유 구입에 충당하고 앞으로 15년 동안 도합 2억 바렐의 미국 원유를 구입할 의무를 괴뢰 정부에 지우는 등 공장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원료 공급을 독점하였다.

일본: 이해 일본 독점 재벌들은 《한국행 뻐스를 놓지지 말라》라는 침략적 구호를 고창하면서 남조선 재침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일본 독점체들의 재침의 기본 방향은 당면하게는 잉여 상품을 대량 처리하여 폭리를 취하는 한편 《한일 회담 타결》과 《국교 정상화》 후에 대거 진출할 침략적 지반을 구축, 강화하는데 집중되였다. 이 목적 실현을 위하여 그들은 일반 무역과 함께 《보세 가공》, 《기술 협조》, 《차관 공여》, 직접 투자 등 가지각색의 방법과 수단을 다하였다. 그 중에서도 무역은 가장 중요한 침략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일본의 남조선에 대한 수출액은 1961년의 6,920만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1억 910만 딸라로 늘었으며 1963년에 들어와서는 첫 7개월 동안에만도 전년 1년 간의 실적과 맞먹는 1억 260만 딸라로서 격증의 일로를 걸어왔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수출 (단위 천 딸라)

	1959	1961	1962	11993 1월~7월간
남조선의 수입 총액	303 807	316 142	421 782	322 357
그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액	32 372	69 212	109 171	105 341
%	10.6	21.8	25.8	32.6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1년 12호, 1963년 12호.

남조선에 대한 수출 상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학 및 금속 제품과 기계 설비 등 중화학 공업 제품들로서 이 부문 독점체들의 진출도 현저하였다.

1963년에 미쯔비시 화성, 스미도모 화학등 일본의 가장 큰 비료 제조 독점체들이 남조선 비료 소비량의 약 절반에 달하는 44만 톤의 화학 비료를 수출하였으며 계속하여 남조선 소요 비료의 전량을 수출할데 대한 《계약》을 괴뢰 정부측과 체결하였다.

또한 이 해에 미쯔이 물산은 자기 계렬의 도시바 제작소가 제작한 240만 딸라 분의 발전 시설을, 후지 통신기는 무선 통신 시설을, 도요 면화는 세멘트 공장 종합 설비를 수출할 데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일본 독점체들이 《수출 상업, 구조의 중점을 중 화학 공업에 돌리고 있을때 남조선은 그에 상응하는 시장을 제공》(일본 잡지 에코노미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조선에 수출되는 일본 중화학 공업 제품의 적지 않은 부문은 소위 《연불》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연불》이라는 《선심》을 가장하면서 우선 자국 내에서 처리에 곤난한 잉여 상품을 실현하며 일방적인 비싼 가격으로 떠 맡기며, 리자까지 받아내는 1석 3조의 리득을 노린 간교한 술책이다.

침략적인 대외 무역을 통하여 이 해에 남조선에 발을 들여 놓은 일본 독점 상사들은 상기한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도모 상사 외에도 이도츄, 마루베니 이이다 등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큰 종합적 무역 상사들을 위시하여 도합 50개에 달하였다. 이들은 남조선 대외 무역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 쌀, 수산물과 광산물의 수출입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무역과 함께 《기술 협조》의 명목으로도 광범히 침투하고 있다.

이 해에 일본 히다찌 제작소는 남조선 화력 발전기 설치 공사에 자국의 잉여 기계 시설과 함께 십여 명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 부문을 전담시키고 있으며 닛산 자동차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및 부속품 제공 계약》을, 니홍 전기는 《통신 기자재 제작 기술 및 부분품 제공 및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협조 계약》에는 부속품 수출과 《공동 투자》라는 부대 조건이 붙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는바 일본 독점 자본은 이러한 방법으로 남조선 산업의 기술적 예속을 강화하면서 상품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이러한 외국 부속품과 원료 및 반제품을 가공하여 거기에 외국 상표까지 붙여서 판매되는 《국산 아닌 국산품》이 200여 종에 달하는바 그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일본 독점 자본은 또한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과 휴업 상태에 있는 중소 기업소 시설을 리용하여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려는 《보세 가공》의 방법을 통해서도 진출하였다.

이 해에 일본의 니찌멩 실업과 도요 면화등 독점체들은 생고무, 면포 등의 원자재를 남조선에 반출하여 가공 재수출하고 있으며 산께이 물산은 운동화, 고무 장화 등을 만들어 미국 등지에 재수출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또한 이 해 11월에는 《일본 보세 가공 무역 조사단》이 남조선 각지의 중소 기업 시설들을 시찰하고 《상당한 보세 가공 상담을 성립》시키고 돌아갔다. 1963년에 일본 독점 자본 침투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사실은 상품 수출과 함께 자본 수출 책동이 강화된 사실이다. 이것은 남조선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금 부족을 기화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본 수출을 강화함으로써 주요 경제 명맥을 더욱 쉽사리 장악하려는 야망의 로골적인 발로이다.

이 해 기노시다 산업 회사는 남조선의 《조선 시설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딸라의 《차관》을 투입하기로 남조선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죠리상가와 니찌멩 실업은 남조선 수력 발전소 건설에 1,700만 딸라의 자금을, 마루베니 이이다는 방직 시설 도입 자금의 명목으로 1,600만 딸라를 남조선에 투입할데 대한 《계약》을 남조선 측과 체결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 밖에도 일본 독점 자본은 《대리점 업무 계약》, 《기술자 교환》, 《공동 조사》등 각양한 형식으로 남조선에 계속 손을 뻗쳐 왔으며 이에 발맞추어 미쯔비시 은행, 후지 은행, 스미도모 은행, 다이이찌 은행 등 일본의 대 은행들도 《국교 정상화》 즉시로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 사업에 분망하였다.

1963년 현재 남조선에 이미 침투하였거나 또는 침투의 촉수를 뻗치고 있는 일본 독점 상사 및 회사들을 재벌 계렬별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미쯔이 계렬: 미쯔이 물산, 도요 시바우라, 니홍 제강, 미쯔이 선박, 히노 자동차, 도요다 자동차, 도요 고압, 도요 레이온, 모노다 세멘트, 모지 제지, 가네부찌, 방직, 미쯔이 조선, 도꾜 식품, 미쯔꼬시, 도요 면화

2. 미쯔비시 계렬: 미쯔비시 은행 미쯔비시 상사, 신미쯔비시 중공업, 미쯔비시 전기 기계, 미쯔비시 조선, 미쯔비시 화성 공업, 니홍 무선, 니찌로 어업, 기린 비루, 모리나가 제과, 지요다 화공 건설, 메이지 생명

3. 후지 계렬: 후지 은행, 히다찌 제작, 닛상 자동차, 오끼 전기, 쇼와 전공, 니홍 세멘트, 니홍 차량, 마루베니 이이다, 니홍 강관, 후지 제철, 야하다 제철

4. 다이이찌 계렬: 다이이찌 은행, 고베 제강, 가와자끼 제철, 후지 전기, 후루가와 전공, 가와자기 중공업, 교와 발효,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후지 통신기, 메이지 제과, 핫또리 시계점

5. 스미또모 계렬: 스미또모 은행, 스미또모 상사, 이도 츄 상사,

스미또모 화학, 니혼 전기, 신니혼 질소 비료, 구보다 철강, 마쯔시다 전기, 메이덴샤, 스미또모 전공, 아다께 산업

6. 상와 계렬: 상와 은행, 니찌멘 실업, 에바라 제작, 마루젠 석유, 우베 흥산, 다이하쯔 공업, 후지 차량, 데이고꾸 인견

서독 및 기타 나라: 미일 독점 자본의 남조선 진출에 자극되여 서독과 기타 나라 독점 자본도 경쟁적으로 남조선 침투를 기도하였다.

1963년 1월 28일에는 서독 재건 은행과 괴뢰 정부 간에 남조선 통신망 확장을 위해 사용될 3,500만 마르크의 《차관 협정》이 확정되였으며 7월 11일 경에는 괴뢰 정부와 서독 정부와의 사이에 남조선에 진출한 서독 자본에 대한 면세와 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독 2중 과세 방지 협정안》이 작성되였다.

이 해 1월 21일 《이태리, 불란서, 어업 차관단》은 남조선 측과 5,985만 딸라 규모의 제1기 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어선과 어구 및 부속품을 남조선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이 해 10월말 현재로 서독 및 기타 나라들의 《차관》투입 확정 또는 교섭 중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구라파 나라들의 자본 침투

투입 대상	나라명	차관액(천딸라)	확정 날자
송, 배전선 시설	서독	2 950	1963.6.28
제4 세멘트 공장 추가	〃	580.6	〃 9.20
신문 용지 공장 확장	〃	292.3	〃 6.11
저마 방직 공장 건설	불란서	2 475	〃 6.28
원양 화물선 도입	서서	9 300	〃 3.8
항공기 도입	화란	2 077.8	〃 9.20

자료 출처: 《경향 신문》 1963년 11월 2일.

이상과 같은 외국 자본 침투가 강화됨에 따라 남조선은 급격히 막대한 대외 채무를 지게 되고 외국 자본의 채무 노예적 처지에 더욱더 전락되고 있다. 최근 년간에 《차관》, 《연불》 및 단기 무역 부채 등으로 남조선이 걸머진 대외 채무는 실로 2억 6,000만 딸라에 달한다. 이것은 남조선의 외화 위기를 가중하게 하고 수입 물가의 앙등과 그로 인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난을 조성하여 전반적 경제 활동에 심한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무　　역

《원조》 축감으로 심각한 외화난에 봉착한 박 정희 도당은 1963년에 소위 《수출 제 1 주의》를 표방하면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하여 악화 일방의 국제 수지를 개선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가장 반동적이며 파쑈적인 무역 정책을 강행하였다. 소위 《수출 진흥책》의 하나로 괴뢰 정부는 《수출 장려 보조금 교부 요령》을 조작하고 주로 예속 자본가들인 대무역 업자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한도 외의 수출 자금》을 대부하였으며 그 금리도 낮추어 주었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의 수 많은 중소 무역 업자들을 《대외적 신용 향상》 또는 《자격 상실》이라는 명목하에 대량 페쇄하였다. 그 대신 대 무역 업자들과 외래 독점 상사들의 무역권을 확장하여 주었다.

박 정희 도당은 이 해 2월과 8월의 두번에 걸치는 《무역 업체 정비》 시에 만도 도합 490개의 중소 무역 업자들의 무역권을 박탈하였다(《합동 통신》 1963년 2월 12일, 《동양 통신》 1963년 8월 6일).

그들은 또한 일제 독점 자본가들과의 《보세 가공 무역》을 통하여 수출 실적을 증대하려고 남조선의 로동력과 유휴 시설을 싼 값으로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박 정희 도당은 소위 《불요 불급의 물자 수입 억제》라는 구실 하에 년초에 《수출 실적 링크제 실시》를 강화할 것을 선포하고 일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업자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제한 정책을 강행하였다.

나아가 하반기부터는 《전면 수입 허가제》를 적용하여 일반 민수 부문에서 소요되는 원자재와 기타 제품들의 수입을 가혹하게 억제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의 피땀의 결정체인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수산물, 광산물들을 헐 값으로 략탈하여 출혈 수출을 강행한 결과 1963년도 남조선의 수출 실적은 8,680 만 딸라(《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3호)로서 전년보다 3,198만 딸라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원료를 수입하여다가 가공한 《보세 가공》품과 기타 가공품들, 그리고 《물물 교역》에 의한 수출까지도 다 포함되여 있다. 그러므로 그 수출 이전에 이미 막대한 외화가 지불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수출 증대로 인한 외환 가득액(稼得額)은 대단치 못한 것》이다(《기독교 방송》 1963년 7월 17일).

한편 이 해 남조선의 수입 실적은 괴뢰 정부의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억 3,849만 딸라나 더 많은 5억 6,027 만 딸라에 달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일반 민수용 수입 물자는 대폭 축감하면서도 군사 시설과 군수 산업 부문에 소요되는 막대한 물자 수입에 대해서는 도리여 그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특히는 일본 독점 상사와 결탁하여 그 잉여 시설재와 소비품들을 대량

적으로 끌어들인 사정 등과 관련된다.

남조선 신문도 비난한 바와 같이 박 정희 도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약 원료는 수입을 삭감》하여 《제약 공장의 태반이 문을 닫게 하고 국민 보건에 일대 위협에 직면》케 하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유, 장신용 은실, 텔레비죤 등 불요 불급한 사치품을 마구 수입》하여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경향 신문》 1963년 8월 2일) 예속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대량 수입하여 막대한 외화를 랑비하였다.

수출 상품 구성 (%)

	식료품	원료	완제품	기타	계
1946	81.4	10.1	0.3	8.2	100.0
1960	32.5	53.3	13.2	1.6	100.0
1963	20.9	53.7	17.9	7.5	100.0

자료 출처: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3년 4호, 1963년 7호 1964년 3호.

수입 상품 구성 (《원조》 포함)

	식료품	완제품 (소비품)	원료 및 반제품	유류 및 석탄	교통수단	계
1946년	42.3	22.1	7.7	20.2	7.7	100.0
1960년	9.6	45.5	26.7	7.0	11.2	100.0
1963년	21.4	78.4		6.9	3.3	

자료 출처: 우의 표와 같음.

이상의 지표들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값싼 원료의 공급지이며 그들의 독점적 판매 시장으로 전락되고 있는 남조선의 식민지적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남조선 무역의 식민지적 예속성은 수출입 국가별 분포에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특히 《한일 회담》이 다시 시작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독점 재벌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 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으며 이것을 반영하여 이 해에 일본과의 무역이 각별하게 불었다.

더구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60년의 7,040만 딸라로부터 1963년에는 그의 2.3배가 되는 1억 6,166만여 딸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입 초과도 1960년의 5,022만여 딸라로부터 1억 3,682만여 딸라로 늘었다.

결과에 1963년도 남조선의 수입 규모는 수출의 배에 달하여 국제 수지는 더욱 악화되였으며 그들이 년초에 떠벌린 《수출 제1주의》와 《국제 수지 개선》은 한낱 공담이 되고 말았다. 소위 《수출 제 1 주의》가 가져다 준 것은 남조선 무역에서의 고질적인 식민지적 예속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뿐이였다.

우선 수출입 상품 구성에서 볼 때 수출에서는 주로 농산물인 식료품과 원료가, 수입에서는 완제 소비품과 원자재 등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대외 무역 수출에서는

수출입 국가별 분포(%)

	1960	1962	1963
수출에서	100.0	100.0	100.0
미국	11.5	21.8	27.8
일본	63.4	42.8	28.5
홍콩	8.6	8.6	10.4
기타	16.5	26.8	33.3
수입에서	100.0	100.0	100.0
미국	40.6	51.5	50.2
일본	21.4	26.3	28.8
홍콩	12.4	4.6	1.0
기타	25.6	17.6	20.0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통계 년보》 1964년 판,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호.

일본이, 수입에서는 미국이 압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것은 미제의 사촉하에 최근 년간에 일본 독점 상사들의 진출이 현저히 강화된 사정과 관련된다. 이상의 사실들은 남조선의 무역이 남조선 자체의 자립 경제 건설이나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와 착취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군 사

1963년 1월 14일 미국 상하 량원 합동 회의에 보낸 《교서》에서 케네디는 《평화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고 떠벌리면서 《전면 핵 전쟁》과 《국부 전쟁 전략》을 병진하는 《량면 결합 전략》을 다시금 고창하였다.

특히 극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목적의 주요 대상은 여전히 한국》 (1월 30일 미 국방 장관담) 이란 구호 밑에 쎈또와 세아토를 련결하는 도꾜, 남조선, 대만, 방코크의 홉날 선상의 돌출점인 남조선에 대한 군사력 강화에 광분하였다. 동시에 미 강점군과 괴뢰군의 병력 장비를 저희들의 정책적 요구에 적응하게 증강 개편하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전쟁 광증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의 첨예화와 아울러 《한일 회담 조속 타결》 일본 군국주의를 맹주로 하는 《동북 아세아 동맹》 조작 기도 등과 관련시켜 일층 로골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를 핵 무기로 장비시킴으로써 《조선 반도에서 재차 위기가 닥쳐 올 경우에 미군 무력의 증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로이터 통신》 1963년 4월 17일) 수 있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의 전쟁 계획에 발맞추어 박 정희 도당은 1월 5일 《시정 방침》 발표에서 《공산군에 대한 반격의 태세》를 갖

줄 것을 고창하고 괴뢰군을 《최대한으로 전력화》하며 전쟁 도발 소동을 벌리기에 광분하였다.

미 침략군의 증강

【병력의 증강】 1962년 12월 31일 남조선의 《동화 통신》은 미제 호전광들의 전쟁 정책을 전하면서 《주한 미군을 삭감할 계획은 없다……앞으로 무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병력 교체가 있을 것이나 미국은 한국 수호에서 미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를 실증적으로 안받침하는 것으로서 남조선 강점 미 제 8 군 사령관 메로이는 1963년 7월 22일 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드》지상에서 다음과 같이 공언하였다. 《한국은 지리적 견지로 보아 독특한 국가이다. 이 나라의 국내 지리는 기계화 부대 및 장갑 부대들의 작전 행동과 사용에 적합한 그런 나라들에서 소요되는 수를 아마도 초과하는 병력의 할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형에서 보다 이곳의 전선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가져야 한다》. 이상의 메로이의 공언은 남조선에서 실현할 《량면 결합 전략》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1963년에 미제는 작전 지휘에서 복잡성을 피하며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남조선 강점 제 1 기병 사단과 제 7 보병 사단을 5원제로부터 3.3 제 사단으로 각각 개편(7월~9월)하여 4천여 명의 병력을 증강하였다.

또한 1963년 7월 9일에는 미 제1 기병 사단 소속 토이기 제13 중대를 토이기 제14 중대와, 7월 24일에는 미 제7 사단 소속 타이 제14 중대를 제15 중대로 교체하는 등 《유엔군》을 새로 훈련된 병력으로 보강하였다.

이외에 미제는 1959년~1961년간에 남조선 강점 미 군사 고문단장이였던 해밀론 호킨스 하우즈(대장)를 《유엔군》 사령관 겸 남조선 강점 미 제 8 군 사령관으로 임명(7.25) 한 것을 비롯하여 무려 10여 명의 미 강점군 고위층을 조선 경험자들로 교체하였다.

【장비의 증강】 미제는 《신 전략》 구상에 맞추어 1963년에도 남조선 강점 미군을 현대 핵 무기로 장비 시키기 위하여 계속 발광하였다.

미 제8군 사령부는 1963년도에 비유도탄 《오네스트죤》 발사기 2대(6월)를 비롯하여 《라크로스》 유도탄(9월)을 반입하였으며 고사 유도탄 《호크》 발사기(8.24) 및 각종 전파 탐지기와 그 부속품들을 반입하였다.

또한 엠 113형 장갑 수송차, 엠 60형 기관총, 엠 14형 보총과 기타 새로운 무장 장비를 반입하였다. 이 밖에도 미군의 편제 개편과 관련하여 100여 대의 비행기와 30여 대의 전차, 100여 문의 반전차포, 20여 문의 야포들이 각각 증강되였다. 이리 하여 미제는 남조선 강점 미군 무력을 침략적인 《신 전략》 구상에 적응하게 전년도에 비하여 상용 무기의 화력을 17%, 핵 무기 적용 수단을 근 6배, 공중 수송 능력을 근 3배, 지상 수송 능력을 근 2배로 각각 증강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군사 기지화 책동

1963년도에 미제는 총 군사 건설비의 약 7%에 달하는 1,233만 2천 딸라, 《방위 지원비》에서 9,000만 딸라를 남조선에 투자하여 강점 미군과 괴뢰군의 각종 군사 기지들을 현대전에 적응하게 신설, 보수, 확장하기에 광분하였다.

《항구 개발 5 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포항항의 확장 공사(공사비 5억환, 수용 능력 6천 톤급 이상 선박)를 비롯한 10여 개의 군항 공사와 근 100여 개의 각종 비행장, 50여 개의 직승기 착륙장을 신설, 보수 및 확장하는 공사를 하였다.

한편 현대전의 조건하에서 높은 기동과 수송 수요를 보장할 목적 밑에 서울과 춘일간(97 km)을 비롯한 약 500 km의 포장 도로 공사와 연 400여개 소의 도로 보수 공사 및 100 km의 도로 신설 공사(제주—서귀포간 43 km, 봉화—울진간 60km)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종 저격 무기와 야포 및 고사포들을 수리하면서 다이야 재생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는 《중포 다이야 재 생창》과 괴뢰군의 각종 차량을 조립 및 수리하고 있는 《차량 재생창》의 일부 시설들을 확장하는 한편 함선 수리를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는 《진해 해군 공창》과 괴뢰군의 피복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 7 피복창》을 정비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저들은 1963 년도에 약 30만 톤의 세멘트와 연 30여만의 로력과 약 4천 대의 차량을 투입하여 전투 지대와 병참 지대의 항만과 작전 비행장, 유도 무기 기지와 전파 탐지기 초소의 보수 및 신설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제 1 방어 지탱점의 화'점과 감시소의 영구 공사를 위주로하면서 지휘소와 은페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괴뢰군 지휘 체계의 개편

미제는 저들의 《전략 체계》에 적응하게 강점군의 지휘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괴뢰군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할 목적 밑에 그 지휘 체계의 일부를 고쳤다.

1963년 6월 《합동 참모 회의》를 새로 조직하고 그의 집행 기관으로 《합동 참모 본부》를 조직하여 미 8 군의 작전 지휘를 직접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미제는 작전 지휘면에서 통일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3년 1월 제주도의 륙해공군 부대 및 구분대들로 조직된 《제주도 통합 사령부》를 제 98 기동 분함대, 3 기동 전대, 5 기

동 분대로 개편하고 그를 남조선 주둔 미 해군 사령관의 작전적 지휘하에 소속시켰다.

괴뢰 공군에서는 공군 지휘를 강화할 목적으로 1963년 3월 공군 작전 사령부 작전처의 반항공과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반항공처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 개의 비행 대대와 1 개의 관제 경보 대대를 새로 조직하였다.

괴뢰군의 병력과 장비 증강

박 정희 일당은 미국의 《신전략 개념에 립각한 무기 체계와 훈련의 강화, 현대화를 위한 3군의 균형적 발전, 신형 무기의 계속 장비, 반공 의식으로의 정신 무장의 강화, 병사 행정의 쇄신, 후방 지원 태세의 확립》 등을 1963 년도 《국방 정책》으로 규정하고 괴뢰군의 병력과 장비 증강을 위한 일련의 책동을 감행하였다.

【병력 증강】 70만에 달하는 괴뢰군 병력을 유지하며 200여 만의 예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 파쑈 도당은 강제 징집과 병적 등록 및 군사 교육 강화와 징집 기피자 색출에 날뛰였다.

새로운 《병역법》 (1962.9.12 개악)에 근거하여 만 22 세부터 일부 33 세까지의 청장년들을 기본 징집 대상자로 선정하고 1963년간에 약 20만 명을 징집하여 괴뢰군에 끌어 들였으며 총 대상자 485만 9,900 명에 달하는 만 18—40세의 청장년들에 대한 병적 등록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괴뢰 국방부에서는 남조선 지역의 16 개 종합 대학에 조직한 《학도 군사 훈련단》에서 2년 간의 군사 교육을 마친 제 1기생 (1961.5~1963.3) 2,600 명에 대한 장교 임관식을 각 해당 지구별로 진행하여 현역 및 예비역에 배치하였으며 1963년 11월에는 제 4기생을 선발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 학생들에게 《국방 사상》을 불어 넣기 위해 7개 종목에 걸치는 《특수 체육》 훈련을 4차에 걸쳐 주어 년간에 약 324 명의 간부 후비를 양성하였다.

이 외에 1961년 12월에 조직된 《재향 군인회》에는 1963년 12월 말 현재 약 210만 명을 망라시켰다.

또한 1963년 6월 한 달 동안을 《징집 기피자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괴뢰 내무, 법무, 국방 등 3부가 합동하여 저들이 추산하는 3만 1,000여 명의 기피자들을 잡아내여 처리하기에 발광하였으며 괴뢰군 하사관 급의 도망병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그들을 장기간 얽어 매두기 위해 4월 6일부터 장기 복무 하사들에 대한 《영외 거주》를 허용하고 년춤 지불 대상자로 하는 등의 회유 기만 조치까지 취하였다.

【장비 증강】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반공 제 1 선을 맡고 있는 한국군은 병력》과 《계속적인 유도탄 장비 등 현대화로 전력을 증가》 (《한국 일보》 1963년 4월 20일)해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괴뢰군의 장비 증강에 미쳐 날뛰였다.

그들은 전술용 유도 무기들로 괴뢰군을 무장시키는 일방 지난 전쟁 경험과 조선의 산악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게 곡사 화력을 보충 증강하였으며 그의 기동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재래식 무기도 증강하였다.

《장비 현대화 3 개년 계획》에 의하여 1963년 2월 괴뢰 륙군 본부는 35만 딸라(남조선 화폐로 42억 원)를 들여 반전차 유도탄 수리 공구를 수입 하였으며 9월에는 반전차 유도탄 《ss 10》 발사기를 새로운 반전차 유도탄 《ss11》 발사기로 교체하였다. 이에 앞서 이 해 2월에는 반전차 유도탄(ss10) 115 발을 미제로부터 접수하여 관하 군단들에 공급하였다.

또한 105m/m 곡사포, 155m/m 곡사포, 106m/m 무반동포 등 각종 포 100여 문을 반입하였으며 엠 41형 (M41) 경전차와 엠 47형 (M47) 중전차 40여 대를 끌어들여 낡은 엠 4 에이 전차들과 교체하였다.

한편 폭격기 에프 86 에프형과 추격기 에프 86 디형 및 연습기 티 28형 등 근 40 대의 비행기와 구축함 1척, 경호함 1척, 호위 구축함 1척, 소해함 2척 도합 5척의 함선을 반입하였다.

이 외에 놈들은 전쟁 준비에 필요한 근 8,000대의 각종 자동차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반입하였으며 2만여 발의 포탄, 45만여 발의 저격탄, 근 100 대의 각종 신형 무전기, 9만여 정의 보총, 약 12만 개의 신형 방독면 등 기타 무장 장비들을 끌어 들이였다.

긴장 상태 격화와 전쟁 도발 책동

미제와 박 정희 일당은 1963년 벽두부터 《북진 통일》을 고창하면서 괴뢰군 장병들에게 《강철 같은 반공 정신 무장을 유지하며… …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어떠한 작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갖출것》 (괴뢰 《국방부 장관》의 신년사)을 지껄이는 한편 《휴전선에 연하여 매일 정찰 비행을 실시》(1963.1.2 미 제 8 군 당국 발표)하여 긴장 상태를 계속 강화하기에 날뛰였다. 아울러 국방부 소속에 두었던 《국가 비상 사태 대책 위원회》를 《내각 수반》 직속하에 설치하고 《전시 때와 같은 계획 수립, 수송 기관의 전시 동원 체제의 확립, 정기적인 비상 훈련의 실시, 주요 산업 시설의 분산 배치, 비상 식량 준비, 문서의 복사 기관》(1962.4.3 《국제 신보》) 등 전시 체제에 대비한 준비를 추진시키는 한편 군사 작전상 긴급한 물자와 시설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징발

법안》(1963.4.17 《동화 통신》)을 조작하였다.

한편 괴뢰군을 신형 무기에 숙달 시키기 위한 각종 유도 무기 시험 사격과 지휘관들의 지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휘 참모 연습, 미군과 괴뢰군의 협동 동작을 숙련 시키기 위한 지휘 참모 연습, 협동 동작을 숙련 시키기 위한 《한미 합동 훈련》, 북반부에 대량적인 《특수 부대》를 침입시키기 위한 《유격전》, 남반부 인민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반 유격전》과 괴뢰군, 경찰, 인민들까지 동원하는 《비상 훈련》 등 년간에 250여 차의 각종 전쟁 도발 책동을 벌려 놓았다. 그 중 몇 개의 소동에서 드러낸 미제 강점군과 괴뢰들의 도발 책동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렬공 63》 기동 훈련 (10월 17일~11월 8일) 제 1 야전군 관하 3개의 보병 사단 성원 약 6만 명을 비롯하여 미 유도탄 부대 헤리콥터 부대, 괴뢰 공군 병력 등 60여 개의 전투 및 행정 지원 부대를 참가시켜 원자 유도 무기와 공군의 지원하에 《적》을 《소멸》하는 것으로 가상하고 진행(1963.10.30 《동화 통신》) ◇ 《성난 호랑이》—상륙 작전 훈련 9월 26일—10월 12일 주문진과 강릉 근해에서 새로 반입한 신형 구축함 충무호를 비롯하여 34 척의 대소 함선과 해병 1 상륙 사단 및 공군 지원 부대를 동원하여 공화국 북반부 해안 상륙을 가상한 상륙 작전 훈련을 진행(1963.9.23 《동화 통신》) ◇ 《보, 전, 포, 공 협동 시범 훈련》(5월 14일) 괴뢰 31 예비 사단 장병들과 학도 군사 훈련 단원 등 만여 명과 에스에스 10, 11, 12 유도탄 및 전차 소대, 각종 포, 에스 86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그들의 협동 작전을 숙련시키며 동시에 전투력을 검열(1963.5.14 《서울 방송》) ◇《특수 부대》 침투 훈련(12월 6일) 괴뢰 공군에서 중형 헤리콥터와 각종 비행기 및 1개 련대의 병력과 락하산 부대까지 동원하여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특수 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한 훈련을 진행(1963.12.6 《서울 방송》).

군사 파쑈 도당은 《반정부 쿠데타 음모 사건》을 빙자하여 3월 11일에 남조선 전 지역에 비상 경계를 선포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전선 서부의 비무장 지대에서 《충돌 사건》을 조작하고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란 구실하에 《1962년 가을 꾸바 위기 이래 처음 최고도의 전투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 국방 장관은 《한국에서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 (1963.7.30 《유피 아이》)고 하면서 전반적 부대들에서 외부에 나간 인원들을 복귀시킬 데 대한 특별 명령을 하달하고 일체 출장, 외출, 제대, 휴가 등을 중지시키고 전연과 해안 경계 근무 성원을 증강시키는 등 일대 소동을 벌리였다.

특히 미제와 괴뢰 도당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군사 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계속 간첩을 침입시켰는바 인민 군대에 의하여 체포된 것만 하여도 년간 320여 명이나 된다.

또한 1963년 5월 8일과 5월 28일 및 8월 23일에 유—2 고공 간첩 비행기를 함북도와 조중 량국 지대에까지 침입 시킨 것을 비롯하여 18차의 공중 침범과 102차에 걸치는 아군 지상 전선과 해안에 대한 공중 정찰을 감행하였으며 138차에 걸치는 해상 침범과 5차에 걸친 《반잠 수색》을 감행하였다.

괴뢰군 장병들의 동향

1963년도 괴뢰군 장병들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괴뢰 정권의 《요직》 쟁탈을 위한 상층부의 파벌적 모순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였으며 중하층 장교들 속에서 직무 태만 부정 부패 행위들이 보다 로골화 된 것이다.

또한 사병들 속에서는 부모 처자들의 비참한 생활 참상과 괴뢰군 내 생활 조건의 악화와 심한 작업과 감시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하여 불평 불만이 증대되고 상부 반항과 탈영 도주 및 반정부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상층 장교들의 동향 《군사 정변》 이후 실권과 《요직》 쟁탈 문제를 둘러 싸고 파쟁을 계속하여 오던 괴뢰 군사 통치 집단내 파벌 간의 모순과 대립은 《정당 조직》, 《4대 의옥 사건》, 《민정 이양》 등과 관련하여 박 정희—김 종필 파와 리 주일—김 동하 파 간에서, 박 정희 파 내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에서, 예비역 상층 장교들과 박 정희 간에서 더욱 로골적이고도 공개적으로 확대되여 지어는 무력적 대결을 기도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남조선 정치란 참조).

군부 내의 추악한 파쟁은 박 정희와 군사 《정권》에 대한 괴뢰군 장병들의 불신과 반대 기세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당황한 박 정희 일당은 괴뢰 국방부를 통하여 괴뢰군 내 《인사법》을 개정하고 장교들 속에서 반대파 들이 지반을 꾸리고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 치우려고 발광하는 한편 1962년에 비해서 2 배에 달하는 200여 명의 상층 장교들을 조절 배치하였다.

례하면 군 사령관 2 명은 그 전부를, 군단장은 5 명 중 3 명(60%)을, 관구 사령관은 4 명 중 전부를, 사단장은 19 명 중 14 명(74%)을, 예비 사단장은 11 명 중 8 명(73%)을 교체하였다.

또한 1963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괴뢰군 상층 장교들 속에 깊이 젖어 들어 있는 권태증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기의 심복들을 요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3,600 명을 1군에서 2군으로 끌어 오고 3,300여 명을 2군에서 1군으로 끌어 갔다. 또한 박 정

원(내무부 장관)을 합동 참모 본부장으로, 박 윤석(최고 회의 외무 국방 위원장)을 공군 참모 파장으로, 장 지수(최고 회의 운영 기획 분과 위원장)을 진해 통제부 사령관으로 배치하는 등 군사 《정권》에 참가했던 자기의 심복자 30여 명을 원대 복귀시켜 괴뢰군의 요직에 배치하였다.

중하층 장교들의 동향 박 정희 일당의 군정 연장 책동과 상층부의 추잡한 파쟁 및 정치 경제적 파국이 격심해짐에 따라 괴뢰군 중하층 장교들 속에서는 군사 《정권》을 불신 반대하는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다수 중하층 장교들은 박 정희 일당을 가리켜 《추잡한 놈》들 《믿을 수 없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군정은 민생을 책임지고 물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 때에 괴뢰 1군 관하의 적지 않은 장교들은 사병들에게 《선거를 마음대로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군 사령부가 있는 원주를 비롯하여 야전군의 중심지인 춘천, 의정부 등지에서 박 정희 지지 표가 적게》(1963.10.17 《국제 신보 지사》) 나왔다. 심지어 해병 며단 관하 일부 부대에서는 반《정부》 음모까지 준비하였다.

또한 박 정희 일당의 파벌적 인사 조치에 의하여 축출된 자들은 《나도 장차 그냥 있지 않겠다》 (1963.10.7 《동향 통신》)고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현재 박 정희 일당에 의하여 등용된 자들 가운데서도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전면적으로 심각해 가고 있는 것에 비추어 심한 불안에 싸여 동요하고 있다.

그들은 로골적으로 《군대에 있는 기간에 밑천이나 마련해야 겠다》고 하면서 군무 집행을 태만하고 도박과 부정 부패의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괴뢰 1군 관하의 련대장 급 장교들 속에서는 사병들의 봉급을 횡령하는자, 사병들을 동원하여 술을 구어 팔거나 포차까지 동원하여 돈'벌이에 광분하고 있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중하층 장교들 속에서는 미군 만행과 《고문관》들의 간섭, 멸시에 분개하여 《코 큰 아이들》, 《양놈》, 《죽일놈》들이라고 욕할 뿐만아니라 《왜 우리 끼리는 못하는가》, 《미군에게 전의는 무슨 것이야》라고 하면서 미군을 증오 배척하는 기세가 높아가고 있다.

사병들의 동향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는 반전 염군 기세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바 1963년도에 괴뢰군 내에서 탈영 도주한 자의 수는 무려 1만여 명이나 된다. 그 중 무장을 가진 집단 도주 사건이 점차 증대되는 것이 이 해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 데 4월 한 달 동안에만 하여도 임의의 도주 사고 22건 81 명 중 집단 도주가 10건(45%)에 71 명 (약 88%)을 차지하고 있다. 사병들 속에서는 《배고파 죽겠다》, 《이러한 혁명을 한 번만 더 하다가는 다 죽겠다》고 하면서 《세상이 바꾸어 져야 이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높아가고 있는 반전 염군 기세는 나아가서 상부에 대한 불복종과 반항, 복수에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1963년 4월 20일 괴뢰 8사단 포 중대 소속 김 철수 1등병이 상관으로부터 혹독한 기합을 받은 데 격분하여 카빈총으로 상관을 쏘아 죽인 사실(1963.4.23《합동 통신》)을 비롯하여 괴뢰군 당국이 발표한 것만하여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5건의 상부 사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괴뢰군 내에서는 각종 범죄 사고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괴뢰군 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 7월부터 3 개월 간에 발생한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는 5,873건인데 그 중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군무 리탈은 155%나 증가되였으며 살인은 100%, 창간은 11%, 횡령은 34%, 사기는 39%, 자살은 8%가 각각 증가(1964.1.6 《합동 통신》)하고 있다.

한편 사병들 속에서는 공화국 북반부를 지지 동경하여 의거 입북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그들 속에서는 《죽어도 국군 살이는 못하겠다》, 《북에 의해 통일된다》, 《월북해야 산다》고 하면서 수 백 명의 대렬 앞에서 군사 《정권》의 비행을 폭로하고 박 정희 군사 깡패들을 반대하여 총을 들라고 선동하는 한편 공화국 정부 만세를 부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는 《코 큰 아이들이 보기 싫어 까츄사(미군 부대에 복무하는 괴뢰군)로 안 간다》고 거부하거나 자기들의 주둔 구역 내에 들어 온 미군을 집단 구타하는 등 민족적 울분으로부터 미군 양키들을 반대하는 기세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사 회

【로동】 군사 정변 후 박 정희 도당은 로동자들의 어떠한 투쟁도 금지하여 왔다. 《민정 이양》과 관련하여 1963년부터 《정치 활동》이 《재개》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 로동자들은 년초부터 로동 조합 조직과 《쟁의권 부활》을 요구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펼쳤다. 이 투쟁의 압력으로 박 정희 도당은 리 승만 통치 시기에 조작 시행되던 《로동 관계법》, 《로동 쟁의 조정법》, 《로동 조합법》, 《로동 위원회법》 등 일련의 로동법을 4월 2일과 17일의 2차에 걸쳐 개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로동법들은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 진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로동 쟁의법》과 《로동 위원회법》은 괴뢰 《내각

수반》이 위촉한 《공익 위원》이 주재하는 《로동 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일체의 로동 쟁의를 《폭력 파괴 행위》로 간주하여 엄금하고 있다. 더우기 괴뢰 통치배들은 《로동 조합법》으로써 어용 로동 조합인 《한국 로총》을 합법화하고 이밖의 로동자들의 어떠한 자주적인 조합의 조직이나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의 임금은 군사 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9일에 공포한 《경제의 침체 회복에 관한 특별 성명》에 의하여 이 해 5월 15일 수준에 못 박혀 있다. 또한 동년 9월 1일 《군사 정권》은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 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조작하고 22일에 그 《시행령》을 공포하여 《정부 관리 기업체》 로동자들의 임금을 10~30%를 삭감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체 로동자들의 로임도 전반적으로 삭감되였다.

로임은 《보수 통제법》에 의하여 현물 임금 체계와 현금 체계를 배합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유리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임금에는 정액 임금 제와 도급 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정액 임금은 월급제와 일급제로, 도급 임금은 수입 분배제, 청부업제, 수당제, 현물 도급제 기타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 기업 측이 착취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더욱 낮출수 있게 되여 있다.

남성 로동자들의 임금은 생계비의 3분의 1 정도이며, 녀성 로동자들은 그의 30~50%에 불과하다. 미군 기관 고용 로동자들은 《국영 기업체》 로동자들의 임금보다 35%가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방직 부문 로동자들의 85%를 차지하는 견습공 또는 무기능공들은 월 1,000 원, 석면, 고무 공업 로동자들은 1,000 원, 뻐스 차장들은 1,000~1,500 원 내외의 로임을 받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생계비(1세대 5 명 기준) 1만 1,410 원 (《부산 일보》 1963년 11월 20일)에 비겨 볼 때 《생존은 고사하고 로동력 자체의 재생산 조차 위협하는 기아 임금》이다. 이것마저도 기업주들은 각이한 명목의 《공제금》을 제한 잔액을 현금이 아니라 《전표》를 주거나 또는 3~4개월 내지는 1년 이상 체불하고 있다. 괴뢰 정부가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28 개 《주요 기업체》들이 《체불》한 로임만 하더라도 8,700여만 원에 로동자 수로는 5,142 명에 달한다 (《강원 일보》 1963년 9월 17일). 이외에도 《현재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사업장과 군소 기업체의 체불액까지 합치면 그 10배》를 넘는다(《부산 일보》 1963년 9월 19일).

1963년에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전년말 수준의 약 25%나 대폭 저하되였다. 그중 일용 로동자 경우는 21%, 광업 로동자는 26%, 제조 부문 로동자는 24%가 각각 낮아졌다.

실질 임금의 저하(%)

	일용 로동자	광업 로동자	제조 로동자
ㄱ. 명목 임금의 장성	110	103	106
ㄴ. 물가의 등귀	139	139	139
ㄷ. 실질 임금 (ㄱ/ㄴ)	79	74	76

주: 임금 및 물가의 비률은 1964년 8월 현재와 1962년 말을 대비한 것임.

남조선 로동자들의 생계비의 압도적 대부분이 주식비에 돌려지고 있는 조건하에서 1963년의 살인적인 곡가의 앙등을 고려할 때 실질 임금의 저하는 보다더 격심한 것이다.

로동 시간은 광업 부문 로동자들이 12~16시간, 제조 부문 로동자 12시간, 부두 및 운수 부문 로동자 12~18시간, 미군 부대 고용 로동자 12~16시간, 상업 봉사 부문 로동자 16시간, 뻐스 차장 18~20시간이란 장시간의 노예 로동인데 이러한 로동은 박 정희 도당이 공장 기업소에 배치한 《근로 감독관》(현역 군인)의 감시 밑에 강요되고 있다.

로동 안전 시설은 없으며 《위생 환경은 엉망》이다. 때문에 《로동력 보존이 어려운 형편》에서 재해와 질병으로 《많은 로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더우기 《환기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방직 계통 공장에서는 폐결핵 리환률이 높으며 유독 가스를 취급하는 화학공업 약품 공장에서는 많은 종업원이 불구의 몸이 되고》(《한국 일보》 1963년 12월 4일)있으나 《거기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가 되여 있지》 않다(《부산 일보》 1963년 8월 9일). 그러므로 로동자들의 리환률은 1960년에 22.8%, 1962년에 28%, 1963년에 3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민 생활】 남조선 농촌에서 식민지적 착취는 일제 시기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 정권》 전후 시기에 토지의 재집중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봉건적 착취의 강화는 더 한층 혹심하여졌다.

오늘 남조선 농촌은 부분적 부락들의 실태 조사에 의하더라도 70% 이상의 농민들이 소작, 병작, 고리대와 뒤얽힌 고역제 등을 통하여 지주들에게 직접 예속되여 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건적 착취 형태는 다음과 같다.

분익 소작제 지주들이 자기 경영이란 형식하에 비료, 종곡 및 기타 생산 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그 대'가를 수확량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가 착취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어우리》, 《뭇갈림》, 《반작》 등이 이 형태에 속하며 《분익 소작제》에 의하여 지주들은 수확물의 50~60% 를 농민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다.

토지 대차에 의한 착취 《위토》, 《보

리'논》, 《머슴답》, 《행랑답》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위토》 (속칭 《제답》): 이 착취 형태는 《농지 개혁》에서도 합법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되였던 것이다. 지주들은 《묘지기》, 《산지기》 등으로 불리우는 빈, 고농에 분묘의 관리를 시키는 대'가로 《제답》을 부치게 하여 인습적인 신분적 예속과 로력 및 경제적 착취를 하고 있다.

《머슴답》, 《행랑답》: 고농들이 일정한 땅을 부치는 대'가로 지주 토지의 경작 또는 부역을 강요당하는 형식.

《보리'논》: 2모작 지대에서 빈, 고농들이 논에 보리를 부쳐 먹는 대'가로 지주들이 자기 토지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는 착취 방법.

신분적 지배 또는 고리 채권에 의한 착취 여기에는 《고지》, 《통고지》, 《품의 곡식》, 《전방답》 등 형태가 있다.

《고지》, 《통고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지주에게 예속되여 있는 농민들이 현물 또는 현금을 꾸어쓰고 그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지주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착취 방법. 지주들은 2~3두의 곡물을 농민들에게 꾸어 주고 한 마지기의 논을 1년간 경작시키고 있다.

《품의 곡식》, 《전방답》: 빈농, 고농들에게 식량 또는 현금을 꾸어주고 그 대'가로 지주들이 자기 땅에서 계약한 날품 수의 고용로동을 강요하여 착취하는 방법.

이 밖에 머슴 로동에 의한 지주들의 토지 《자영》 (지주가 직접 경작한다는 토지 경영)은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더욱 성행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는 이상과 같은 봉건적 착취 뿐만 아니라 고리대적 착취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수탈의 강화, 토지의 강매 및 유상 《분배》, 농업 생산력의 계속적인 쇠퇴, 자연 재해, 령세농 대렬의 증대, 절량 농가의 확대 등은 고리대 착취의 온상으로 되여 있다.

1963년 현재 고리채를 걸머지고 있는 농가는 남조선 총 농가수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액은 해마다 26.3%씩 늘어나 한 농가에 평균 1만 1,294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1953년의 403 원에 비해 28 배를 넘는다.

고리대 착취에서 가장 가혹한 형태는 《립도 선매》인바 이것은 2~3개월 간에 100% 이상의 리자를 지불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립도 선매》에 결박되여 있는 농가만도 년 평균 40~50만 호에 달한다.

농토의 황폐화와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전면적 파괴, 영농 조건의 악화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은 감소되고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은 년년이 줄어 들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에 나타난데 의하면 1960년을 100으로 하여 1961년에는 96.7%, 1962년에는 91.1%로 감소되였다. 더우기 1963년에는 농가 수입이 현저히 감소되여 농가 수지에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1963년 5월말 현재 농가의 수지 적자는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 당시의 그것의 2.1 배에 달하는 1,060 원이였다.

농업 생산의 감소와 농가 수입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랄하여 지는 략탈로 인하여 농민들의 절량은 시간적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그 심도도 깊어 가고 있다.

1963년 초에 벌써 35만 호의 농가가 절량되였고 4월에 와서는 130만 호가 절량되였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더는 살'길이 없어 정처 없는 류랑의 길을 떠나는 리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1963년에만도 1만 3,734 호가, 전라북도 옥구군에서는 1962년에 비해 1963년에는 907 호가 더 많이 리농하였고 화순군 춘양면에서는 1962년에 비해 리농민이 20 호가 더 증가되였으며 강원도 원성군에서는 6,128 명이, 원주시에서는 60 호에 665 명이 리농했고 경상북도 경주시 로동리는 농가 71 호중 모두 리농하고 현재 5 호만이 있을 뿐이다.

【어민 생활】 남조선 어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및 어용 수산 단체인 《어업 조합》, 그리고 선주, 객주업자, 중간 상인, 고리대금업자로부터 3중 4중의 착취와 략탈을 당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수산업 시설의 락후성을 기화로 하여 어선, 어구 및 그 기자재를 국제 시장 가격보다 40%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 먹고 있으며 어업용 유류 가격을 1960—1961년에 만도 70%나 대폭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어업 조합》은 《위탁 판매》라는 명목으로 어민들에게 어물을 시장 가격보다 10~20%나 싼 값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 판매 수수료》로 어물 판매량의 5~12%를 략탈하고 있다.

미역 양식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은 《어장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어획물의 70~90%를 수탈하고 있으며 객주업자들은 입출항 수속을 해 준다는 구실 밑에 어선 1 척당 1 회 입항에 120~150원의 《수속 비용》을 어민들에게서 빼앗아 내고 있다.

괴뢰 정권은 수산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면서도 각종 세금과 잡부금을 들씌워 어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군사 정권》은 1963년에 어업 인구 1인당 어획고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어업세》, 《소득세》, 《호별세》, 《교육세》, 《입출항료》, 《군경 원호비》 등 잡다한 명목으로 매 어민들에게 들씌웠다.

선주들은 《3.7제》, 《4.6제》로써 어민들의 어획물의 60~70%를 빼앗아 내고 있다.

수산업의 전면적인 파탄과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남조선 어민들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생활모는 결정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 어민들의 년간 평균 수입액은 취업 인구 1 인당 6,500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업 로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

	년간 취업기간	월 평균 로임 (원)
건착망 선원	9개월간 고용	600~2 100
저예망 선원	7 〃	500~2 000
권현망 선원	6 〃	600~2 000

어민들의 수입이 적은 반면에 소비 물가는 천장 부지로 뛰여올라 그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그리하여 《어부들은 한국에서 가장 비참한 하루살이》(《국제 신보》 1962년 1월 9일)로 되고 있다.

【실업】 남조선에서 실업군의 범람은 절박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인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감에 비추어 그를 무마하기 위하여 《춘궁기 실업 대책》을 떠들면서 《국토 건설》, 사방 조림, 《귀농 정착》, 도시 토목 사업 등을 벌릴듯이 기만하여 왔다.

한편 실업이 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처럼 이에 빙자하고 《가족 계획》, 《산아 제한》 등 멸족 매국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실업자, 반실업자 수는 해를 넘길수록 증가하여 1963년 현재 로동 능력 있는 인구의 60% (700만 명)라는 《세계 최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

남조선의 실업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 기술 또는 일정한 숙련을 소유한 자들이며 년령별로 보아 20~30대의 청년들이 51.9%나 되는데 그들 중 대학 졸업자들도 적지 않다.

실업자의 증대 정형(단위 만 명)

	실업자 수	증가 비률
1947	50.0	100
1952.3	109.7	219.4
1956	111.5	222.7
1959	243.9	487.8
1960	221.8	443.6
1961	300.0	600.0
1963	310.0①	620.0

주: 우의 자료에는 반 실업자 수는 포함하지 않음. ①은 실업률로 계산한 것임.

실업자의 계속되는 격증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 남조선 산업이 부단히 파괴 몰락되고 농촌 경리의 파탄이 격심하여져 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1963년에 괴뢰 통치배들이 실시한 《재정 긴축》, 《경영 합리화》, 《기업 정비》 정책은 기업체들의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을 가중시켜 파산을 촉진하고 수많은 로동자, 사무원, 도시 수공업자 및 소상 인들을 로동력 시장으로 내몰았다.

군사 정변 직후 박 정희 도당은 철도 공무원(로동자) 5,160 명을 비롯하여 3만 5,600여 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고, 3개 전기 회사의 《통합》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관영 기업체》들의 《경영 합리화》와 관련하여 3,300여 명의 종업원을 해고했다.

박 정희 도당은 《군사 정권》 시기에 무려 1만 5,000여 개의 점포와 접객업소들을 강제 철거하고 수많은 중소 기업소들을 《정비》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직업을 빼앗았다.

1963년에 농촌에서의 절량 농가 수는 농가 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였는데, 그중 적지 않은 농민들이 리농하여 실업 대렬을 더욱 확대시켰다.

【녀성】 남조선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은 미제와 괴뢰 파쑈 도당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 2중 3중의 억압 밑에서 사회적 차별과 멸시, 굴욕과 예속의 존재로 되여 있으며 《녀권 옹호란 말을 꺼내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다(《경남 일보》 1963년 1월 4일).

남조선 도시 녀성들의 고통을 더한층 무겁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취직난이다.

로동 능력 있는 녀성의 95%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있다.

설사 일'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가혹한 로동 조건하에서 하루에 방직 부문 로동자들은 12시간 이상, 피복 부문 로동자들은 17~18시간, 식모는 16~18시간, 간호원은 20~24시간, 뻐스 차장들은 20시간이란 살인적인 장시간의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그것 마저도 일'자리를 떼울가 두려워 《묵묵히 작업에 열중》해야 하는 《한국적인 처지》에 있다.

차례지는 로임은 동일한 로동을 하는 남성 로동자들의 30~50%에 불과한데 섬유 부문 녀성 로동자들은 월 2,000 원, 화학 공업 부문 녀성 로동자들은 1,700 원, 피혁 및 인쇄 부문은 2,000 원, 차장들은 1,000~1,500 원 내외이며 생계 유지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아 임금이다.

녀성들을 위한 아무런 로동 보호 대책도 없다. 산전 산후 휴가제도란 없고 《환경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의료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동에 있는 《남한 제사 공장》 녀직공들은 《35도에서 36도를 오르내리는 습기가 가득찬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오락을 위한 후생 시설은 커녕 점심 한끼 먹을 수 있는 휴게실 등 최소한도의 시설마저 가추어져 있지 않》은 형편에 있다. (《대전 일보》) 서울 시내 고무 공장 녀성 로동자 814 명을 검진한 결과 《불면, 악몽, 다변, 현기증, 정신 착각, 시각 장애》 등 《열 가지 증상중 세가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의 52.2%, 다섯가지 이상이 45.4%》나 되며 심한 사람들은 《미치거나 죽게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한국 일보》 1963년 10월 20일).

농촌 녀성들의 처지도 례외로

될 수 없다. 추수 직후부터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하다 못해 살'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 들고 있다. 서울에 모여든 녀성들 중 식모살이를 지망하거나 기타 일'자리를 찾아 《녀경 안내소》 한 곳에 찾아든 것만도 1963년 한해 동안에 439 명에 달하였다(《경향 신문》 1964년 2월 29일).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녀성들은 일'자리가 없어 대다수가 《서울에 간 그날부터 륜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륜락 녀성 중 821 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0%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이 륜락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한국 일보》 1963년 3월 5일).

이리 하여 남조선에서는 《가난한 녀심(女心)을 팔고 사는 인신 소개가 한대목의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인육 시장》에서 헤매는 녀성이 무려 30여만 명에 달하고 있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을 그려내고 있다(《령남 일보》 1963년 7월 21일).

또한 남조선의 도시와 농촌에는 무려 50만 4,877 명의 미망인이 있다. 그들의 45%에 해당하는 22만 6천여 명(가족까지 합치면 77만여 명)이 구호 대상자이다(《국제 신보》지사 1963년 4월 27일, 《조선 일보》 1963년 6월 6일). 이들은 《삶의 투쟁이 여지없이 꺽일 때 〈악의 소굴〉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미제 야수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감행되는 릉욕, 폭행, 치사 등 만행은 조선 녀성의 고결한 절개와 전통적 미풍 량속을 여지 없이 짓밟고 있어 남조선 녀성들을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에로 몰아넣고 있다.

【어린이】 1962년 현재 남조선 총 인구중 1～7세의 아동은 26%, 8～14세의 아동은 16.5%로서 도합 42.5%를 차지하고 있다. 총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이들은 다만 년령상 미숙이라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사회적 허점에 제일 먼저 희생》되고 있다(《조선 일보》 1963년 5월 5일).

남조선 어린이들은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두가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다. 이들은 배고픔을 면해 보려고 잔뼈도 굳기 전에 책가방 대신 《로동 도구》를 둘러메고 밥벌이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맵짠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드는 이른 새벽부터 《가뭄에 터지는 논바닥 처럼 피나게 갈라》진 시뻘건 손으로 구두를 닦아야 하는 소년들, 《목이 터져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라이타, 만년필, 인단 등을 팔며 다니는 《꼬마 행상》들의 처지는 더욱 처참하다.

남조선 《직업 소년》들 중 서울에는 넝마주이 997 명, 신문팔이 417 명(《국제 신보》 지사 1963년 9월 5일)을 비롯하여 1만 명(《한국 일보》 1963년 7월 16일), 부산 시내에는 14세 미만의 구두닦이, 신문팔이, 넝마주이, 껌, 인단 등을 파는 소년만도 도합 3,758 명 (《국제 신보》 1963년 3월 5일), 인천 시내에서는 구두닦이 소년만도 400여 명 (《경기 매일 신문》)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꼬마 행상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군사 정변 이후 《농촌 경제의 파탄》이 더욱 심하여 진 것에 크게 기인되고 있는데 《성균관 대학》에서 서울 시내 구두닦이 소년 550 명을 조사한 데 의하면 전라남도 출생이 43.5%, 경상남도 출생이 10.6%, 충청남도 출생이 12.8%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일보》 1963년 7월 12일).

한편 《열살 안팎 밖에 되지 않은 소녀를 유흥장의 녀급으로 쓰고, 겨우 제 나이를 일만한 어린이》를 《손발이 닳도록》 혹사하는 일이 허다하다. 괴뢰 당국이 발표한 것에 의하더라도 1963년 1월부터 5월 초까지의 기간에 적발된 14세 미만의 어린이 학대 건수는 무려 3,658 건에 달하고 있다(《동화 통신》 1963년 5월 3일).

남조선에는 학령을 넘은 100여만 명에 달하는 소년들이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 하고 있으며 부모 잃고 의지할 곳 조차 없어 거리와 마을로 무리를 지어 류랑하는 소년, 어린이는 50만 명이 넘는다. 이 대렬은 매년 《4,400 명 가량》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 방송》) 사회적 버림을 받은 이들은 범죄의 구렁에로 떨어지기가 일수다.

박 정희 도당은 이러한 고아들을 마치 《보호》와 《선도》나 할듯이 《고아원》이나 《아동 보호소》에 극히 일부를 수용하고 있으나 수용소라는 것도 《죽음의 수용소》로 이름이 높으며 수용된 소년, 어린이들은 《하루 한끼적을 먹》고 헐 벗고 있는 형편이다(《조선 일보》 1963년 5월 3일).

경기도 인천시 《보육원》의 원아들은 《고구마 등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 왔고 때로는 꿀꿀이죽으로 배를 채워 왔》으며(《경향 신문》 1963년 7월 27일) 전라북도 군산시 《영아원》에 수용된 고아 90 명 중 45 명이 굶어 죽었다(《동아 일보》 1963년 7월 26일).

남조선 어린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병이 나도 아무런 의료상 혜택도 못 받고 앓다가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 학생들이 전라남도 내 12 개 면의 어린이들의 보건 상태를 조사한 데 의하면 1년 간에 14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에서 사망자가 무려 1,020 명에 달하며 괴뢰 《문교부》가 조사한 어린이 보건 실태를 보면 영양 실조에서 오는 근시 94%, 청취 장애 53%, 충농증 18%, 전염성 피부병 58%, 충치 52%, 결핵 15%란 놀라운 비률을 나타내고 있다(《대한 일보》 1963년 1월 12일).

설사 병원에 들어 갔다 해도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부산 《아동 자선 병원》의 실태만 보아도 수용된 65 명의 어린이들은 그 모두가 《얼굴이나 몸의 피부가 쭈굴쭈굴하

고 머리털이 앙상하고 팔 다리의 피하 조직이 파괴되여 마른 무우처럼 여위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퉁퉁 부어 오르고》(《국제 신보》 1963년 5월 9일) 있었다.

또한 남조선 전역을 휩쓴 절량 위기로 하여 매일 한끼 또는 두끼를 굶으며 등교하는 《국민 학교》 아동들이 1963년 4월 현재 108만 4,000 명을 넘었다(《기독교 방송》 1963년 4월 30일).

【식량 부족】 해마다 추수 직후부터 절량 농가를 내고 있는 남조선의 식량 기근 실태를 《수원 농과 대학》이 1961년 현재로 농가 85 호에 대해 실시한 조사 자료에서 본다면 0.5 정보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가는 조사 대상 57호 중 4월 10일 현재 65%인 37 호, 4월 말 현재 87.7%인 50 호, 5월 말 현재 96.5%인 55 호가 완전히 식량이 없었다. 또한 0.5 정보 이상 1 정보 미만 농가 조사 대상 25 호의 경우에서는 4월 10일 현재 16%인 4호, 4월 말 현재로는 36%인 9호, 5월 말에는 64%인 16호가 절량에 빠져 있었다.

이것을 1960년 말 현재 남조선의 전체 농가 호수 234만 9,506 호와 대비해서 살펴 본다면 5월 말에 가서는 그 43.1%를 차지하고 있는 경지 0.5 정보 소유 농가 100만 8,624 호 중 97만 3,322호,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지 0.5 정보 이상 1 정보 미만 소유 농가 70만 6,689 호 중 45만 2,275 호, 도합 142만여 호인 전체 농가의 60.6%가 완전히 끼니를 굶고 있는 형편으로서 남조선의 식량 부족은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사회 정치적 중대 문제이다.

식량 부족 형편을 다시 리 승만 괴뢰 정권 시기인 최근 5년간 (1957—1961년)의 괴뢰 정부 식량 수급 계획에서 찾아 본다면 년 평균 소요량 3,018만 9천 석에 대해 공급량 (생산량과 해당 년도에 이월된 수입 량곡을 합한 것)은 2,539만 8천 석으로 매년 479만 1천 석이 모자라고 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기아 상태는 일제가 남겨 놓은 봉건적 생산 관계와 략탈 수단, 방법들이 8.15 이후 미제에 의하여 유지되고 보다 강화된 데 있거니와 군사 《정권》 시기에 와서 식량 기근은 더욱 악화되여 1963년에는 앞서의 년 평균 부족량의 갑절을 넘는 1,081만 4천 석이라는 근래에 없던 기록을 내였다.

그리 하여 괴뢰 관변 측이 축소해서 발표한 절량 농가 수는 1961년 1월 현재 100만 호, 1962 년에 130만 호, 1963년에는 200만 호(농가 140만 호, 도시 령세민 60만호)로서 남조선 전체 인구의 절반이 기아에 휩쓸렸다.

군사 《정권》은 1963년의 부족 량곡을 보충하기 위한 방도로서 이 해 9월 1일 현재로 3 차의 《식량 수급 계획》을 작성하였는 데 미 공법 480 호에 의한 외곡 도입 684만 2천 석, 대만, 일본, 타이, 남부 월남, 버마 등지로부터의 안남미와 기타 방도에 의한 잡곡 도입 194만 4천 석, 도합 878만 6천 석의 외곡 도입을 계상하고도 202만 8천 석의 부족량은 도입 방도가 없은채 무능력한 식량 정책의 몰골을 로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리'고개가 지난 6월 말까지에 도입이 실현된 량곡은 부족량의 32%도 채 안 되는 345만 3천 석이였다.

따라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의 식량 반입은 수요량의 30~10% 정도에 불과하였고 량곡의 집산지인 광주, 전주, 대전 등 지방 도시들에서도 수요량의 40% 정도 (《경향 신문》) 밖에는 반입되지 않았거나 《쌀, 보리, 밀가루 등 주곡이 모두 품귀 또는 품절》되여(《동화 통신》 1963.5.6) 5월에 들어가서부터는 미곡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있었다(《합동 통신》 1963.5.7).

식량의 공개 시장 류통이 끊어지고 미곡 가격 통제가 완전히 파탄된 5월 초부터는 매점 매석과 암거래가 극도로 성행하여 쌀 값은 년초에 비해 쌀 한 섬에 50%나 올라 군사 《정권》이 설정한 《통제 가격》선을 2,100 원이나 뛰여 넘어 근 2 배에 달하는 6,000원이였다. 서울에서는 5월 첫 3일 간에 쌀 값이 20%나 뛰여 올랐고 5월 5일에는 하루 몇 시간 동안에 300원이나 폭등하는 등 쌀 값 소동을 일으켰다.

부산, 강릉, 인천 등지에서의 쌀 값은 소매 가마니당 2,800 원으로 거래되였고 지어 탄광 지대에서는 한 말에 600원(한 가마니에 8천 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는 데 그나마도 사기 힘들었다.

◇ 식량 부족 (단위 천석)

	수요량	공급량	부족량
1957	28 444	20 347	8 097
1958	29 256	23 863	5 393
1959	30 114	28 187	1 927
1960	31 822	27 906	3 716
1961	31 338	26 689	4 649
1962	32 390	27 726	5 506
1963	33 68	22 87	10 814

◇ 괴뢰 정부 1963년 식량 보충 계획
(1963년 9월 1일 현재)

부족량	수량 (천석)	공급량	수량
잉여 농산물 의존량	5 700	미 잉여 농산물도입협정분	6 842
하곡 감수량	5 114	기타 도입 분	1 944
		조달 량곡 합계	8 786
		계획상의 부족량	2 028
합 계	10 814	합 계	10 814

◇ 절량 농가
(단위 만호)

	농 호 수
1954.4	47
1955.2	38
1956.4	65
1957.3	98
1961.1	100
1962	130
1963	200

【주택】 남조선에서 집이 없는 세대는 109만 2천여 세대나 된다. 이것은 1962년 말 현재 전체 세대 수 458만 9천여 세대의 24%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한 세대의 평균 식구 수 5.7인을 가지고 따진다면 600만 명을 넘는 산 목숨이 하늘을 천정 삼아 새우잠을 자고 지내는 것이다.

더우기 109만 2천 세대 중에는 19만 7,162 세대가 들어 있는 낡은 주택, 29만 8,566 세대가 살고 있는 불량 주택 (1963.9.4《합동 통신》)과 그 숱한 판자'집, 천막, 토막, 움막, 다리 밑에 거적을 둘러친 집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친다면 집이 없는 세대 수는 150~160만을 넘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주택 부족 현상은 미제와 괴뢰 정권이 《도시 미화》라는 명목으로 감행하는 강제 철거, 군사 관계상 내모는 강제 철거와 아울러 낡은 집들이 저절로 쓸어져 가는 것, 풍수해 또는 화재 등 각종 재해로 말미암은 손실로 해서 해마다 최소한 1만 6천여 채가 없어지는 데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1963년에 강제 주택 철거는 서울에서만도 1월부터 11월 초순까지에 무려 9,641동 (1962년 강제 철거 7,600여 동의 151.6%)이나 된다(1963년 12.15 《조선 일보》, 1963.11.18 《한국 문화 방송》).

주택 부족은 도시일 수록 더욱 심각하다. 1960년 현재로 괴뢰 당국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전체 세대 수에서 농가와 빈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강 절반 정도인데 빈농가 세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42.4%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주택이 없으며 농촌에서는 16.4%의 세대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서울 주택이 없는 세대는 1958년에 비해 244%로 증가한 27만 7,348 세대로 서울 전체 세대 수의 절반이다 (1963.9.2 《한국 문화 방송》). 집에서 사는 세대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진 세대 (판자'집, 천막, 토굴, 움막 등 포함)는 5.15%에 불과하며 전세 세대가 19.8%, 월세 세대가 23.7%, 기타가 50% (1963.2.1 《한국 일보》)이다.

주택 총 수 중에는 다 쓸어져 가는 낡은 집이 6만 3,084호 (전체 주택 수의 23%) (1963.6.11 《대한 일보》), 50년을 넘은 낡은 집에 사는 세대가 2만 2,521호 (전체 주택 수의 8%), 24~50년 까지가 4만 6,318호 (16.8%), 1~10년 까지가 9만 1,825호 (33.2%), 1년 미만 되는 것이 1만 4,618호 (5.2%) (1962.12.20 《경향 신문》), 이 밖에 《집아닌 집》들인 판자'집 2만 9,864동, 천막 1만 860동, 토굴 3,140동, 기타 6,375 동이 (전체 주택 수의 5분의 1) 있다.

서울 주택 부족의 증대 정형

	부족수	증가비률
1958	113 551	100.0
1959	158 443	139.5
1960	175 739	154.8
1961	249 613	218.9
1962	265 574	233.8
1963	277 348	244.2

주요 도시의 주택 부족

	집 없는 세대수	집없는 주민의 비중
서울	277 348	약 50
부산	52 600	23
대구	38 726	45
대전	—	40
광주	17 469	—

자료 출처: 남조선 《부산 일보》 1963년 11월 23일, 《매일 신문》 1962년 12월 14일, 《대전 방송》 1962년 7월 24일, 《전남 일보》 1962년 9월 23일.

【이민】 조선에서 《이민》의 력사는 1905년부터 시작되였다. 당시 미제는 서울, 부산, 인천 등지에 《대륙 식민 회사》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륜선을 타고 바다를 건느면 지상 락원이 있다》고 꾀여 1천 백여 명의 조선 인민을 랍치해 갔다.

미제 강점 시기에 들어와 리승만 도당은 식민지 착취로 말미암은 경제 파탄에 기인한 실업 군중의 증대를 《폭발 선상의 한국 인구》에 빗대이고 1959년 1월 9일 《이민 요강》을 조작하였다. 이해 5월 11일 리 승만은 《대통령 령》으로 《해외 이민 위원회》 설치를 공포하고 1960년도 재정 예산에 6억 3천만 환을 세워 우선 2,500명을 해외에 이주시킬 작정이였으나 4.19 폭발로 와해되고 말았다.

장 면 괴뢰 정권은 《이민》 정책을 7 개 기본 대외 정책의 하나로 제창해 나섰으며 이때부터 《이민 문제》는 남조선 사회에 확대 반사되였다. 따라서 민간 이민 단체인 《이민 협회》, 《대한 이민 협회》, 《한국 해외 이민 협회》, 《한백 협회 이민부》 등이 장 면 정권의 매족 정책에 발맞추어 1960년 1월 《한국 이민 협회》로 통합,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고 《이민》 모집에 나서는 등 《활약》을 하던 중에 6.25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였다.

《군사 정권》 수립후 박 정희 일당은 력대 괴뢰들의 매족 정책을 계승하여 1962년 2월 20일 《최고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해외 이주 정책》을 토의하고 《해외 이주 법안》과 괴뢰 《보건 사회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 이주 위원회》 및 《해외 이주 5 개년 계획》을 조작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인구 정책의 적정, 국민 경제의 안정을 기》하며 《국위를 선양》한다는 엉터리 없는 간판을 내들으면서 《이민》을 적극 추진시켜 이 해 12월 18일 제 1 차 이주민 (15 세대 97명)을 부산항에서 떠내 보냈다.

《해외 이주 5 개년 계획》

	세대수	지 역
1차 년도	550	브라질
2차 년도	1 350	중남미, 동남아
3차 년도	3 750	〃
4차 년도	6 750	〃
5차 년도	7 750	〃
계	20 150	

자료 출처: 《동아 일보》 1962년 12월 4일.

1962년에 박 정희 도당은 《이민 정책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3억원을 들여 《이민 공사》들의 년내 설치를 서두르는 한편 《해외 이주 법안》을 개악하였다. 《해외 이주법》의 개악으로 《이주 대상 범위를 확대》한 《군사 정권》은 《기독교 봉사회》, 《이민 협회》, 《재향 군인회》 등 어용 단체들을 통하여 《이민》 책동을 적극 추진시켰다.

이와 아울러 소위 《이민 교섭단》이란 것을 조작하여 브라질, 파테말라, 파라과이, 니카라과, 멕시코, 페루 등지에 파견하였고 2월 28일에는 소위 《기술 조사단》이란 것을 중미, 파테말라에 파견하였다. 한편 《이민관》을 두기 위한 《협의》를 브라질 당국과 벌려 왔다. 이리 하여 브라질에 332세대, 파테말라에 100 세대, 서독에 500 명, 북부 보르네오, 사라와크에 로동자 5,000 명을 《이주》시키기 위한 《교섭》을 하였다.

결과에 《군사 정권》은 1963년 9월 18일 브라질 농장에 19 세대에 60명, 12월 21일 서독에 광부로 246 명을 《이주》시켰다.

이 밖에 《군사 정권》이 《어용 단체》를 추동하여 해외에 《이주》시킨 것까지 합친다면 1962—1963년에 도합 2,571 명에 달한다(《국제 신보》 지사 1963년 12월 12일).

이 밖에 《양자》라는 명목으로 13—14세까지의 어린이들이 해외로 《이주》되였다. 1955년 이래 1963년 10월까지의 5개의 외국 민간 《구호》 단체들에서 취급한 《입양자》수는 4,562 명에 달한다.

대상국 별 《입양》 실적

	《입양자》 수
미 국	4 513
노르웨이	23
서 전	10
일 본	10
영 국	4
인 도	1
포도아	1
계	4 562

자료 출처: 남조선 1963년 10월 23일 《합동 통신》.

【범죄】 《깡패》와 《부패》를 일소하겠다던 박 정희 도당들의 구호는 완전히 공담으로 돌아 가고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깽 문화》의 본을 딴 각종 범죄가 《해마다 늘어 나고 있으며 범죄 방법도 흉악화되여 가고》 있다(《동아 일보》 1963년 12월 11일).

괴뢰 치안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1963년도에는 9월말 현재 56만 9,658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발생 건수는 1961년도의 1,296건의 배에 가까운 2,087건으로 증가되였다.

범죄 건수의 증가

	발생건수	하루 평균 범죄 건수
1960	325 531	881
1961	473 522	1 297
1962	723 985	1 983
1963 1월—9월	569 658	2 087

자료 출처; 《조선 일보》 1962년 1월 23일,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10월 12일, 《대한 일보》 1963년 3월 1일, 《기독교 방송》 1964년 1월 4일.

이러한 범죄중 살인 사건은 1961년도에 362건, 1962년도에 341건이던 것이 1963년도에는 9월말 현재 353건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다.

1963년도에 들어와 범죄는 더 악랄하고 잔인해진 것 뿐 아니라 교활하고 지능화되였다.

10월 19일 강원도 린제에서는 일가족 6 명을 도끼로 패죽였다. 10월 31일 경기도 시흥에서는 아우가 돈을 탐내여 10촌 형과 형수, 조카 등 3 명을 자귀로 까죽였다. 이 밖에도 경북 영주에서 일어난 일가족 4 명 몰살 사건, 경남 함안에서의 일가족 4명 몰살 사건, 서울 공덕동에서 발생한 형 일가족 3명 몰살 사건 등 《떼죽음이 그치지 않아…한 두 사람람의 살인은 사건 축에도 못》드는 형편이다(《조선 일보》 1963년 12월 20일).

남조선에서 《범죄 행위 또한 악독》하며 《수법이 악랄하고 잔인 무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동화 통신》 1963년 4월 10일) 중의 하나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다.

또한 남조선에서 일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년 범죄의 증가이다.

미국의 서부 활극과 색정 영화, 강도, 살인 만행을 그대로 본 딴 남조선 소년들의 1963년 중 범죄 건수는 공식으로 발표된 것만 하여도 1959년의 4배로 증가한 9만 8,794 건이다.

소년 범죄의 증가

	건수	%
1959	24 059	100
1960	31 559	126
1961	41 800	167
1962	72 898	292
1963	98 794	396

자료 출처: 《동양 통신》 1964년 2월 26일.

남조선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서 더욱 심각성을 띠고 있는 리유는 그 건수의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더욱 집단화되고 란폭해지고 있으며 광범한 소년 층으로 옮아 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 밖에 이 해에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은 《부산 기업 은행 강도 사건》, 《명일동 살인 사건》, 《선암사 살인 강도 사건》등 현역군 괴뢰 관료들의 부패상을 반영하여 그 범행들이 악랄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각종 범죄의 격증과 함께 깡패들의 증가와 그 횡행은 날로 우심하여 가고 있다.

서울 신흥 깡패 중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 만 하여도 《구화랑도 지회파》, 《애국 청년단 파》

《유도파》, 《돼지파》, 《기동파》, 《감바피》, 《쇠잡이파》 등 7개를 헤아리고 있다.

속칭 《네다바》라는 강패단은 남조선 전 지역에 조직망을 가지고 경부선, 호남선을 무대로 수많은 려행자와 행인들을 해치고 있다.

【부패】 박 정희 도당은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며 《청신한 기풍을 진작》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으나 력대 괴뢰 정권의 몇십 배에 달하는 부정 부패를 감행하여 《구악을 뺨 치는 신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세칭 《4대 의옥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거니와 박 정희 도당은 1963년에 들어와 소위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치 자금》 조달을 위해 세칭 《제2 4대 의혹 사건》, 《조선 방직기 도입 사건》, 《새나라 자동차 도입 사건》, 《외국 차관에 대한 정부 지불 보증의 란발 사건》, 《소 기름 부정 횡령 사건》, 《티브이 에이 어망사 《1억 3천 딸라 일본 자금 수수 사건》등 헤일 수 없는 부정 부패를 감행하였다.

제2 4대 의옥 사건 《3분 업자 폭리 사건》, 《암코타 사건》, 《외환 관리 사건》, 《교포 재산 수입 사건》등 4개 사건을 말한다.

《3분 업자 폭리 사건》 박 정희 도당이 《3성》등 예속 재벌들과 결탁하여 외국에서 밀, 사탕, 세멘트를 끌어 들여다가 밀은 밀가루, 납작 보리로 만들어 33억원, 설탕은 4차에 걸친 가격 인상의 방법으로 10여억원, 세멘트도 이러한 《수법》으로 10억원, 도합 50~60억원의 부정 리득을 사취한 것.

《암코타 사건》 괴뢰 정부가 저들과의 결탁 한 예속 무역업자들에게 많은 금액과 품종들을 할당해 주어 폭리를 얻게한 후 업자들에게서 수 많은 뢰물들을 받아 먹은 것.

《외환 관리 사건》 《상공부 암코타 사건》과 관련한 사건으로서 일정한 예속 무역 업자들에게 뒷구멍으로 외화를 주어 거액의 리익을 보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뢰물을 받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화를 사취한 것.

《교포 재산 수입 사건》 일본 민간 자본을 《교포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관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여 끌어 들이는 대'가로 일본 재벌로부터 숱한 정치 자금을 받아 먹은 것.

박 정희 도당은 이상 《제2 4대 의옥 사건》을 조작하여 70~80억 원을 얻어내여 정치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일본 재산 수수 사건 박 정희 도당들이 《한일 회담》의 흥정 과정에서 《평화선을 양보》하여 남조선 어민들의 리익을 팔아 넘긴 대'가로 일본 군국주의자들로부터 《1억 3천만 딸라의 정치 자금》과 일본 돈 400억 원을 받아 탕진한 것.

괴뢰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군사 파쑈 두목들의 부정 부패를 배경으로 하여 그의 졸개 속에서도 부정 부패가 더욱 우심해졌다.

《군사 정권》의 《감찰 위원회》가 94개의 괴뢰 중앙급 기관을 《감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군사 정변》이후 1963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공무원》만의 각종 부정 사건이 3,901건에 금액은 250억원이나 되며 그중 《최고 회의》와 《내각》에서 차지한 것이 60%에 달한다(《한국일보》 1963년 3월 19일).

괴뢰 중앙급 기관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괴뢰군 상층 장교들 속에서도 7월부터 3개월 간에만 하여도 1962년에 비해 34%가 더 많은 사기와 협잡, 횡령과 수뢰 행위들이 있었다.

【사고】 **교통 사고** 괴뢰 정권의 《치안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63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자동차 사고는 5,538건으로 1,205명이 사망하고 6,79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하루 평균 16.6 건이 발생하여 3.6명이 죽고 20.4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는바 1962년에 비하면 하루 2.6건이 더 늘고 사망도 0.8명, 부상도 4.4명이 늘었다.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반영하는 남조선의 이러한 교통 사고는 미제 침략자들이 제멋대로 날치며 미친듯이 자동차를 몰아대는 판에 더 가중되고 있다.

1963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9 개월 동안에 걸쳐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391 명, 2,831척의 선박이 침몰, 파손되였다.

1월 18일 로후한 려객선 《연호》는 려객과 화물을 정원을 초과하여 싣고 운행중 목포 앞바다에서 뒤집혀 139 명이 익사했으며, 10월 23일 경기도 려주군 북내면 천송리 앞 남한강 도선장에서는 로후한 나루'배에 정원을 배나 초과하여 려객을 태운 관계로 전복되여 49 명의 생명을 수장하였다.

폭발물 사고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발광적인 전쟁 도발 소동으로 인한 각종 폭발물 사고는 1963년 초부터 12월 초까지 11 개월 동안에 788건이 발생하여 무려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매일 평균 5 명 이상의 주민들이 생명의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이 해 11 개월 간의 인명 사상수는 1962년 1년 동안의 그것보다 216 명이 더 많다.

【재해】 **수해** 미제와 그 주구들이 산림을 람벌하여 군사 시설 장비의 설치에 사용하고 치산 치수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남조선에서는 약간한 비만 내려도 홍수가 범람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963년 5월 30일부터 남조선 전반에 걸쳐 내린 폭우와 6월 16일부터 령남, 호남 일대를 휩쓴 태풍 《샤리호》로 인하여 사상자 448 명, 리재민 8만 2,214 명, 건물 피해 2만 2,499동, 경작지 피해 12만 8,471정보, 선박 피해 1,526척, 가축 피해 4,949두, 공로 시설 피해 8,189 개소 등 총 45억 6,830만 원에 해

당한 피해를 내였다. 이는 작년도 1년간 풍수해에 비하여 리재민은 4.4배, 건물 피해는 2.2배, 총 피해액은 4.8배의 증가이다.

그 후 계속된 폭우로 말미암아 강원도, 경기도 지방에서도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풍설해 1963년 1월 6일, 강원도 강릉, 울진, 영덕, 울릉도 등지에 있은 풍설과 풍랑은 점차 동해안 일대를 휩쓸어 리재민 1,200 명, 사망자 50 명, 선박 피해 460여 척을 내였다.

화재 1963년 간에 1,9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100여 동의 가옥이 불에 타고 100명이 타 죽었으며 5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보건】 군사 파쑈 도당은 집권 첫날부터 남조선 인민을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겠느라고 떠들면서 《보건 사회부》와 그 산하 기구들을 개편하고 《국민 의료법》 등 수다한 《법규》들을 조작 또는 《개정》 공포하며 또한 《국민 의료 균점의 확립》이란 구호하에 《무의면 일소》를 불어 대여 왔으나 그 모두가 인민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였다는 것이 들어 나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오늘날 《없는 병 없고 고치는 병 없는》병마의 땅인채로 남아 있다.

의료 시설 1963년에 의사가 없는 읍, 면은 전년보다 408개가 증가하여 1,108개이다(《경향 신문》 1963년 2월 27일). 이 무의면에는 남조선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700여만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병원들도 대부분이 간판만 내 걸고 있을뿐 《제 구실 못하는 병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원시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령남 일보》 1963년 8월 6일). 경상 남도 진주시 내에 있는 도립 종합 병원에는 《단 한 명의 의사가 집을 지키고》있는 형편이며 각 병원들에는 약품의 《품절과 품귀 상태》로 인해 환자가 병원에 왔다가도 《약이 없어 병원 복도에서 절명》하고 있다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7월 23일).

남조선에서 의사 한 명 앞에 돌아가는 인구 수는 도시에서 2,500 명 내외, 지방에서 1,500명 내외인데 적지 않은 농어촌에서는 3 만명에 한 명의 의사가 있을 뿐이다.

《군사 정부》는 1963년도 예산에서 보건 및 사회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겨우 0.3% 밖에 아니되는 2억 3천 만 원을 세웠을 뿐이다. 그나마도 실제 투자는 원 계획의 3분의 1인 8천만 원을 했을 뿐 의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시설들의 의료 일'군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은 전혀 도외시 하였다.

군사 파쑈 악당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동의학의 찬연한 성과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유일한 동의사 육성기관인 《동양 의학 대학》의 《한방과》를 폐쇄하여 버렸다.

의약품 남조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100%가 수입품이다. 1961년 10월말 현재로 593 개의 제약 공장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제약 공장이기 보다는 수입된 의약품들을 재조제하거나 작은 용기에 나누어 재포장하여 상표만 바꿔 붙이는 수공업적 경영들이다. 그나마도 그중에서 53 개의 공장만이 명색뿐인 시설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1963년에 《군사 정권》의 《긴축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입 약품들이 없어지거나 극히 희귀하여져 이들 제약 공장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가짜 페니실린, 가짜 마이싱, 가짜 다이야찡 등 위조 의약품들이 암시장에서 더욱 횡행하였다.

의료 기구 제작 공장이란 남조선에는 거의나 없다.

각종 질병 괴뢰 당국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에 4,200여 명의 장티브스 환자가 발생 하였으며 코레라도 남조선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였다.

폐결핵에 감염된 환자는 남조선 전체 주민의 70%이며 그중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만 하여도 80~100만 명 (《대한 일보》 1963년 1월 17일)에 달한다.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150만의 새 결핵 환자가 발생하며 년간에 4만명, 매 시간 평균 4~5 명이으로 죽어가고 있다(부산 일보 1963년 11월 6일).

이리하여 폐결핵 사망률은 10만 명당 160 명으로서 《전 세계에서 으뜸을 차지하고》있다(《동화 통신》 1963년 5월 28일). 지스토마 환자는 전체 인구의 41%에 달하며 농촌 인구의 50% 이상이 12지 장충에 걸려 있다. 이 밖에 50만 명의 정신병 환자, 240만 명의 신경 노이로제 환자가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기생충 보유자이다.

소아마비는 해마다 무섭게 늘어 가고 있는데 1963년에 서울시내에서만도 2,300여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대다수가 만성적인 질환에 걸려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은 병들어 죽어가는 무수한 주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도리여 《산아 제한》 만을 웨쳐 왔다.

남조선에서 인구 사망률은 1천 명당 19.8 명으로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은 무려 42~45%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 주민의 평균 수명은 일제 시기보다도 10년 이상이나 줄어든 33세에 불과하다.

【종교 미신】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식민지 우매화 정책의 비호 밑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대종교, 천도교를 비롯한 25 종파에 600만 명 (남조선 총 인구의 약 4분의 1)의 신자를 가진 각종 종교 및 사교가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있는 기독교는 현재 남조선 각처에 6,785 개소의 교회와 20여 개의 외국 《선교단》을 가지고 있으며 신도 수도 가장 많다.

최근 년간에 박 정희 도당의 직접적인 안내로 《니찌렌교》의 일파인 소위 《창가 학회》란 광신적

신흥 종교가 《한일 회담》 추진 책동과 관련하여 일제의 남조선 재침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급격히 침투하였다.

《창가 학회》는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 광주, 순천, 제주, 울산, 부산, 며수 등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신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창가 학회》는 《회원이 되면 일본에 갈 수 있다》, 《병을 고칠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남조선 인민을 꾀여 《가미다나》 (신주함)에 《아마데라스오미가미》라는 신주를 써 붙이고 《동방 요배》를 하며 《남무묘 호렌게꾜》라는 일본말 념불을 외우게 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광신적 종교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를 비호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 책동을 항의 규탄하고 있으나 《한일 국교 정상화에 유감이 없도록 선도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군사 정권》은 그를 은밀히 조장시키고 있다.

이 밖에 남조선에는 《천리교》라는 또 하나의 일본 종교가 침투하여 일제의 재침을 위한 사상적 첨병으로서의 세력을 뻗쳐가고 있다.

이른바《천신》을 믿는 것을 《교리》로 한다는 이 사교는 미신을 전파하고 《황민화 사상》을 침투시킴으로써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격화되는 반일 기세를 마비시키는데 복무하고 있다. 현재 이 종교는 경상남도 진해를 중심으로 하여 령남 지방 일대에 전파되고 있는데 벌써 약 15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신도 성행하고 있는바 《정감록》이니 《토정 비결》이니 하는 미신 서적들이 다량적으로 간행 류포되고 있으며 무당, 점쟁이, 관상쟁이, 사주쟁이 등 미신 업자가 20여만 명이나 있다.

【미군 야수들의 만행】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귀축 같은 만행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심해가고 있다.

양키 살인귀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토착 흑인들을 도살하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여 사격 연습으로, 심심풀이로 《도락》 삼아 함부로 남조선 인민들을 쏘아 죽이고 차로 깔아 죽이고 녀성을 롱락하며 폭행을 가하는 등 용서못할 죄행들을 무수히 감행하고 있다. 1963년 11월 21일에는 《원자 포탄》까지 끌어내여 남조선 인민을 무리로 학살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

원자 포탄 사건 1963년 11월 21일 오후 4시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고문리에 사는 유' 길섭(남, 35세)의 부락민들이 산에올라 나무를 하던 중 이 군 백학면에 있는 미군 원자 무기 시험장에서 내쏘은 원자 포탄에 맞아 9 명이 즉사하고 9 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천인 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에 미 제 8군 대변인은 《이는 불발탄이나 지뢰 폭발로 인한 사고로 여겨진다》. 이번의 만행은 《과거 수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에 무단 출입한데서 일어난 사고》라고 궤변을 토하면서 놈들의 죄과를 남조선 인민에게 전가하려하였다. 미제의 무고한 주민에 대한 원자 포탄 사건으로 그후 국제적인 여론까지 일어나게 되자 양키 살인광들은 12월 16일에 이르러 일본 군부 당국자들까지 동원하여 《원자 포탄이 폭발하여 일련의 남조선 주민들이 죽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떠벌리게까지 하였다.

1963년 중에 감행한 수 많은 만행중 남조선 출판물에 반영된 것 몇가지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총기에 의한 살상 5월 12일 낮 12시 10분경 미 제 1 기갑 사단 13 통신대 소속 상병 토마스 버틀러는 서울 룡산구 후암동에 사는 김 경옥 (녀, 30세)을 대구경 권총으로 쏘아 즉사 (1963. 5. 14 《조선 일보》). △ 7월 20일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주둔 미군 부대 순찰병이 그 부락에 사는 전 덕순(남, 27세)에게 4발의 총을 쏘아 복부와 다리에 중상(1963. 7. 22 《동화》). △ 8월 5일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추양리 채석장 경비원 미군 ?? 손이 채석장 옆을 지나가는 조의형(남, 39세)에게 엽원총 7발을 쏘아 즉사(1963. 8. 6 《동아 일보》). △9월 15일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주둔 미 제 2 공병단 소속 대위 마파이스가 조선 청년 두 명에게 권총을 쏘아 그 중 한 명이 즉사 (1963. 9. 16 《동아 방송》). △10월 1일 미 8 군 병기창 제 59 병기 중대 소속 팔이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파곡 4리 내'가에서 나물을 씻고 있는 김 순기 (27세)녀성에게 렵총을 쏘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10. 1 《동아 일보》). △ 11월 10일 미 제 7 군수 기지 사령부 소속 장교 스미드와 노리스 2 명이 제주도에서 꿩 사냥을 한다고 변. 선길 소년을 사냥총으로 쏘아 즉사 (1963. 11. 11 《경향 신문》). △ 11월 21일 경기도 련천군 주둔 미군이 나무하러 산에 오른 련천면 고문리 주민들에게 원자 포탄을 시험 발사, 주민 9 명을 학살하고 9 명에게 치명상 (1963. 11. 22 《합동》). △ 11월 30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갈산리 주둔 미 제 7사단 31 포대 2중대 소속 암스 제이 발미트가 3 명의 조선 녀성에게 총을 쏘아 그 중 1 명 (김 정자 31세)이 중상 (1963. 12. 6 《경향 신문》).

특실 상 1월 2일 미 8 군 696 탄약 중대 소속 트럭이 서울 시내 청량리에서 길가에 피해 서 있는 우 영희 (녀, 6세)를 깔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1. 3 《대한 일보》). △ 1월 20일 미군 스리코타가 경북 금릉군 농소면 월곡동에서 김 월보(60세)를 들이 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10. 24 《매일 신문》). △ 2월 10일 경기도 양주군 음현면 상패리 주둔 미군 538 공병 소속 미군이 박 을자(녀)를 땅크로 깔아 즉사(1963. 3. 12 《조선 신보》).

△ 2월 22일 미군 야수가 전북 옥구군 미면 산북리에서 그 마을에 사는 김 득보 (녀 35세)를 군용차로 깔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2. 25 《전주 방송》). △ 4월 6일 충남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서 미 제 833 부대 13 병원 소속 자동차가 그 부락에 사는 리 기영(2세)을 깔아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 (1963. 4. 6 《평남 일보》). △6월 16일 강원도 철원군 성환면 대홍리 대정 부락 앞 길에서 미 제 71 병기단 거리 통신대 소속 병장 로버트 엘이 부근에 거주하는 김 학임(녀 19세)을 스리코타로 깔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6. 19 《대전 일보》). △ 6월 8일 경기도 부평 새나라 자동차 공장 앞에서 미 8 군 45 공병단 600 공병대 소속 스리코타가 서울시내 청천동에 사는 신명주 (5세)를 깔아 즉사시키고 도주 (1963. 6. 10 《경향 신문》). △ 7월 10일 서울시 성북구 룡암동 앞 길에서 미군 트럭이 경기도 의정부시 남구에 사는 림 춘성을 들이 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7.11 《한국 문화 방송》). △ 8월 9일 미군 트럭이 전라북도 익산군 망산면 사살리 앞길에서 부락민 리 동면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8. 10 《전주 방송》). △ 8월 3일 미 제 8 군 소속 운전수 상등병 체이미가 서울 영등포구 내방동에서 최 병규를 스리코다로 깔아 중상 (1963. 8. 3 《한국 문화 방송》). △ 8월 23일 미군 36 공병단 소속 운전수 1등병 도릭이 서울시 성북구 창동 앞 길에서 《동아 일보》 배달원 김 형진(17세)을 찦차로 깔아 치명상 (1963. 8.23 《동아 일보》). △ 9월 27일 미군 제 51 통신대 소속 운전수 2등병 게랄드가 경기도 의정부 금오리 손 영순의 집을 트럭으로 들이 받아 집안에 있던 손 경자(5세)는 즉사, 김 승권(37세)과 그의 처가 중상 (1963. 9. 28 《동아 방송》). △ 9월 29일 전라북도 임실군 강상면 화산리 앞 길을 달리던 미군 찦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김모(30세)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9. 29 《전주 방송》) △ 10월 5일 서울 근교 오류동 구름다리 밑을 달리던 미 8군 방송국 소속 운전수 미첼이 길 옆에 비켜선 김 영식 외 1명을 자동차로 깔아 즉사 (1963. 10. 5 《경향 신문》). △ 11월 3일 서울시 룡산구 신당동 전늘목 길에서 미군 제 1 기갑 사단 소속 미군 야수가 김 동문을 자동차로 깔아 중상 (1963. 11. 3 《동아 방송》).

부녀자들에 대한 만행 1월 7일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김 옥희(21세)의 집에 미군 야수 한놈이 뛰여 들어 겁탈하며 덤비는 것에 항거하자 미군 야수는 김 옥희의 얼굴을 칼로 마구 찍은 후 그를 발'길로 차서 높이 3 메터 되는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중태에 빠지게 하고 도주 (1963. 3. 15 《경기 매일 신문》). △3월 23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에서 술에 취한 미군 두놈이 리 애숙에게 덤벼들어 롱욕하며다가 완강한 항거로 수욕을 채울 수 없게 되자 그의 가슴에 연막탄을 던져 심한 화상을 입히고 도주 (1963. 4. 6 《경향 신문》). △ 5월 12일 새벽 미 36 공병단 본부 중대 소속 운전수 1등병 라자스가 김 정자(22세)를 롱락한 후 마을 뒤'산으로 끌고가서 돌로 마구 때려 앞 이를 부러뜨리고 온 몸에 중상을 입힌 다음 도주(1963. 5. 14 《동아 방송》). △ 6월 2일 밤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하사 죠지 제일스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사는 배 정순(23세)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며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주먹과 구두'발로 마구 때리고 차서 중상을 입히고 도주(1963. 6.12 《경기 매일 신문》). △미 제 1기갑 사단 소속 양키 얼베네로우는 경기도 파주군 면천면 법원리에 사는 김 정배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며다가 필사적인 항거에 부딪치자 닥치는 대로 때리고 걷어 차서 전신에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3. 12 《조선 신보》). △ 6월 30일 춘천 주둔 미 제 4 유도탄 기지 사령부 소속 미 사병 탁크, 2등병 피더슨 등 3명이 조선 녀성을 랍치하여 세탄차 안에 가두고 집단적으로 롱욕 (1963. 7.19 《동화》). △ 7월 14일 경상북도 울산에 있는 미국인 회사 소속 양키 로이드와 폴 두놈은 길 옹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싣고 가서 롱욕 (1963. 7. 16 《마산 일보》).

폭행, 략취, 파괴 1월 22일 밤 부산시 대창동 골목에서 미군 제 142 보급창 소속 2등병 오엔스가 도 미옥 녀성에게 행패, 피해 달아나는 그에게 돌을 던져 지나가던 박 숙자 녀성의 머리를 깨고 김 성락의 점포 유리를 깨뜨린 후 도주 (1963. 1. 23 《부산 일보》). △ 1월 11일 밤 미군 1 명이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릅리 로 현종의 상점에 뛰여 들어 돈 궤짝과 각종 재물을 략취, 주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밖에 대기 시켰던 찦차로 도주 (1963. 1. 12 《경향 신문》). △ 2월 28 일 충청남도 단진군 고대면 장항리 미군 부대 앞 길에서 미 제 44 공병단 씨 중대 소속 1 등병 백클, 1등병 너노죠 외 1 명이 노 병익(44세)에게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하고 도주(1963.3.1 《충남 일보》). △ 3월 21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서 미군 한놈이 이곳에 사는 리 인자(녀), 신 영해 (녀, 22세)를 마구 때려 심한 골절상을 입히고 도주 (1963. 4. 7 《서울 신문》). △ 3월 23일 밤 경기도 동두천읍 보산리 부락을 싸다니던 미군 한놈이 김 상택의 집 지붕에 연막탄을 던져 불을 지르고 도주 (1963. 4.17 《경향 신문》). △ 3월 30일 미 83 공병단 소속 하사 베기리 (41세)가 인천시 중

양동 2가 3번지 골목길에서 시내 관동에 사는 김 제(녀 28세)에게 돌연히 달려들어 폭행, 중상을 입히고 도주 (1963. 4. 17 《경향 신문》). △ 4월 28일 밤 미 제 7 사단 32 련대 에이 중대 소속 2등병 치스리 외 3 명의 미군 야수들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서 부락민 김 금옥(36세, 산후 3개월)의 얼굴을 다짜 고짜 삽으로 찍어 중태에 빠뜨리고 도주 (1963. 4. 30 《대한 일보》). △ 8 월 31일 밤 미 제 7 사단 32련대 1 대대 소속 미군 카가슈 외 3명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48 번지 박 장룡(39세)의 집에 뛰여 들어 내외를 때려 실신케한 후 옷장을 부시고 시계를 비롯한 귀중품 (시'가 38만 원)을 강탈 도주 (1863. 9. 2 《동아 일보》). △ 5월 8일 밤 미 8 군 44 공병 대대 41 중대 소속 미군 5~6명이 경상북도 포항시 대흥동 토상에서 손 상기(37세)를 비롯한 6 명의 행인들에게 마구 칼질을 하여 중 경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 (1963. 5. 9 《동화》). △ 5월 5일 미 제 7 사단 32 련대 비중대 소속 미군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관암리에서 부락 주민 김 수연(32세)을 때려 오른 팔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김 봉순(37세)을 란타하여 중상을 입힌 후 도주 1963. 5. 6 《경기 매일 신문》). △ 6월 23일 제 1 기갑 사단 소속인 하원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에서 조 영자 녀성에게 생트집을 걸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하고 도주 (1963. 7. 12 《조선 신보》). △7월 6일 경기도 파주군 임지면 단동리 정 정순(26세)의 집에 미군 3 명이 뛰여 들어 그가 차고 있던 팔목 시계를 강탈 도주 (1963. 7. 1 《경기 매일 신문》). △ 9월 9일 미군 선박 《뉴욕호》가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어장에 침입하여 어로중의 《황도호》를 고의로 들이 받아 어선 침몰, 많은 선원들이 중 경상, 어구, 어망은 파손 류실 (1963. 9. 9 《국제 신보》). △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서 《동기 훈련》을 하던 미 공군 소속 제트기 한대가 주민 부락을 습격, 저공에서 홍 사팔의 집을 폭파 (1963. 9. 17 《동아 방송》). △ 11월 27일에 미 5 공군 오산 기지 소속 양키 베일리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에서 길 가는 김 순복 (녀)의 복부를 무려대고 구두'발로 차서 장간막을 파렬시켜 실신 (1963. 11 《경향 신문》).

한미 행정 협정 날로 심악해 가는 양키들의 만행에 대한 남조선 인민의 격분이 높아가자 미제는 괴뢰 도당과 결탁하고 한미 행정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어루만져 보려고 기도하여 1953년부터 서울에서 한미 행정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 회의라는 것을 벌려왔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63년 말까지에 미제와 괴뢰 도당은 37 차에 걸치는 실무자 회의를 거듭하고 《항공 통제》, 《예비병의 소집 및 훈련》, 《접수국 법의 준수》 등 12 개 항목에 합의를 보고 미제 날강도의 《지위》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동 협정의 《핵심》이라고 놈들이 일컫고 있는 미 강점군에 대한 기만적인 《형사 재판 관할권에 관한 조항》 토의는 건드려 보지도 않았다.

문 화

교 육

1963년에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을 탄압하고 학원에 대한 군사 파쑈적 통제와 《반공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청 소년 학생들에게 《반공 도의 교육》을 강요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소위 《의무 교육 10 개년 계획》을 표방하면서 《교육》에서 어떤 《쇄신》이나 할 수 있는 듯이 떠들어 댔다.

【파쑈적 반공 교육】 1963년에 들어서면서 군사 통치배들은 《교원 학생들이 정치와 관여하는 경우 엄중 처단》 (《국제 신보 지사》 1963년 1월 9일)하겠다고 떠벌리면서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는 교원, 학생들을 위협 공갈하였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진보적 교원들의 영향을 배제하며 나아가서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교원들을 학원에서 축출하기 위한 《국 공립 학교 간의 교원 인사 교류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매 학년마다 주기적으로 단행할 것을 각 도, 시에 《지시》하였다 (《동화 통신》 1963년 5월 24일). 또한 《학원 내의 불순 분자 침입》과 《학생들의 탈선 방지》란 구실 밑에 학생으로 가장한 특무들로서 각급 학교에 《야외 단속반》과 《경찰 반공반》을 조직 배치하고 학생들의 사상 동향과 그들의 배후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학원 사찰》 (《전남 매일 신문》 1963년 5월 11일, 《동양 통신》 1963년 12월 19일)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내에서. 《군대식 기합》 교육과 《예비 군사 훈련》을 더욱 강화하였다 (《부산 일보》 1963년 1월 7일).

동시에 대학들에서 종래의 《시간제》 군사 훈련을 《학점제》로 개편하여 필수 과목에 넣었으며 학생들을 직접 괴뢰 군대에 끌어들여 훈련을 시키고 있다.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은 《반공 도의 교육》을 강화하여 조직할 목적으로 이 해에 각 대학 《대표》들로 《한국 반공 학생 련합회》를 조직 (《국제 신보》지사 1963년 6월 1일)하였으며 고등 학교 이상 각급 학교들에 《학생 생활 지도 교사》를 배치하였다 (《동화 통신》 1963년 8월 16일). 또한 교직원들로 조직한 《반공 교육 연구 협회》와 서울 대학교 내에 설치한 《한국 학생 지도 연구소》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반공 교육》과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반공 리론 지도 체계》의 확립과 《승공 신념의 배양》을 위한 《반공 교육 지도 지침》을 수립하고 《반공 교

과서》의 편찬, 《반공 강연》을 비롯한 각종 《반공 행사》와 교내 《반공 방송》을 강화 하였다.

한편 군사 통치배들은 교원, 학생들과 인민들을 무마하며 저들의 《문교 정책》의 파탄을 음폐하기 위하여 일련의 기만 술책을 피웠다.

박 정희 도당은 《국립 대학 설치령 중 개정의 건》, 《공사립 중 고등 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 인가 조치》 등을 공포하고 《학교 정비 기준령》의 시행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동양 통신》 1963년 2월 4일, 《합동 통신》 1963년 월 7일), 《학사 고시, 중고 등 학교 및 대학교의 입시 자격 고시》제도를 폐지하였다(《동화 통신》1963년 3월 23일).

【수학 조건】 박 정희 도당이 저들의 《문교 재건 5개년 계획》의 파탄을 은폐하고 소위 《의무 교육 5 개년 계획》을 《10 개년 계획》으로 뜯어 고쳤으나 부족 교실과 교원 부족 등 수학 조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교실 부족 괴뢰 《문교부》 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도 《국민 학교》 교실의 절대 부족 수는 1만 460 개 이다 (《동아 일보》 1963년 5월 4일).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교실 5만 6천 개 중에서도 금년 내에 개축하지 않으면 안될 교실 수가 2만 2천 개이며 그 중 당장 무너질 형편에 있는 교실이 무려 3천 개나 된다 (《동화 통신》 1963년 4월 15일). 이밖에 천막이나 창고를 학교로 쓰고 있는 《가교실》이 7,078 개나 된다(《조선 일보》 1963년 5월 14일).

이는 실지 부족 교실 수가 4만 2,400 개에 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군사 통치배들은 1963년도 교육 예산액을 전년도의 4분지 1로 감축하였다 (《서울 방송》 1963년 10월 12일).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3,4부제 수업》은 물론 한 교실에 정원의 3배를 초과한 《200 명씩을 수용》하고 있으며 (《조선 일보》 1963년 2월 27일, 《교육 평론》 1963년 1월호), 농어촌 학교들에서는 4부제가 아니라 10부제 수업을 하려해도 교실 조차 없는 형편에 있다 (《대한 일보》 1963년 1월 19일).

교원 부족 수 많은 사범계 학교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 하고 있으나 군사 통치배들은 《예산이 없다》는 구실 하에 각급 학교들에 교원들을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어 비위에 거슬리는 교원들을 《교육에 관한 림시 특례법》(2월 28일에 《교육 공무원법》으로 개정)에 의하여 강제로 축출하였다(《합동 통신》 1963년 3월 1일). 결과에 1963년도 교원 부족 수는 《국민 학교》에서만도 1만 4,000명에 달하였다(《서울 방송》 1963년 10월 12일).

대학들에서도 교원이 부족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일례로 《경북 대학교》에서는 각 대학들에 최소한 3명의 전임 교수가 있어야 하는데 단 《한 명의 전임 교수도 없》는 형편이다 (《령남 일보》 1963년 3월 21일).

기타 교육 시설 부족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교구, 비품, 책상, 걸상 등 초보적인 시설마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1963년에 《국민 학교》들의 책상 부족 수는 도합 22만 조나 되였다(《동아 일보》 1963년 5월 4일).

남조선의 《국민 학교》 학생들은 《실험 도구는 물론 지판물, 책상, 걸상, 흑판마저 없》이 공부하고 있으며 겨울철이 되여도 《화로 하나 없는 랭방에서 <랭방 수업> 을 하고 있다》(《국제 신보》1963년 10월 28일).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떠들어 대고 있는 실업 학교들의 형편도 실험 실습 도구가 전혀 없는 학교가 무려 90%를 차지한다 (《부산 일보》 1963년 10월 24일). 대학들의 실험 실습 도구란 것도 《제구실을 못 하는 명색뿐》인 것에 불과하다(《령남 일보》 1963년 6월 19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과서 사정도 막연하다.

그 중 경상남도 내 중 고등 학교의 경우만 보아도 전체 학생의 67%가 교과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령남 일보》).

【학비 부담의 증대, 진학난】 박 정희 도당은 1963년도에 증대되는 괴뢰 군사 경찰비의 충당을 위하여 교육 예산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늘구었다(《동아 일보》 1963년 2월 21일).

《공납금》 부담 1963년도에 한 학생이 《진학》을 위하여 물어야 할 《납입금》은 대학이 1만 2,350 ~1만 6,590원 (6개월 분), 고등 학교가 5,685~7,875원 (3개월 분), 중학교는 5,195~7,905원 (3개월분) (《대한 일보》 1963년 2월 9일)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박 정희 도당이 1963년에 《공납금》의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무려 45억 원 (남조선 화폐 발행고의 4분에 1에 해당)에 달하였다(《조선 일보》 1963년 2월 22일).

각종 《잡부금》 각급 학교에서 《공납금》 외에 각종 명목으로 부과하는 《잡부금》은 100여 종에 달한다. 그 중 《국민 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군사 통치배들은 한 학생에게서 《교실 환경 정리비》, 《교사 월동비》, 《향학 지도비》, 《교원 결혼비》, 《송별금》, 《기념품대》, 《학생 결상대》, 《선생 김장값》, 《재건 학생비》 등 잡부금으로 1만~2만 원씩 빼앗아냈다 (《동아 일보》).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어린이를 가진 학부형 거의가 2중 3중의 부담을 걸머진 《교육 채무자》로 되고 있다(《동아 일보》 1963년 12월 6일).

이러한 실정은 남조선 청소년

들의 배움의 길을 가로 막고 있다.

《군사 정권》당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인구 중 미취학자 수는 적령 아동 80만을 포함하여 742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국제 신보》 1963년 4월 4일).

1963년도 학생들의 진학률도 더욱 감소되였다. 《국민 학교》 졸업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률은 49.5%, 중학교는 61%, 고등학교는 30%에 불과하였다(《국제 신보》 1963년 2월 19일, 20일, 24일).

또한 입학은 하였으나 《살인적인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이 부지기수이다. 일례로 경상남도 경주 중고등 학교 학생 1,200명은 《납입금 미납》으로 쫓겨 났으며 서울 《고려 대학교》 학생 87명은 《입학금》을 내지 못하여 입학을 취소 당하였다(《부산 일보》 1963년 7월 20일, 《동양 통신》 1963년 3월 5일).

각 대학들의 학기 《등록률》도 낮은 형편이다. 서울 시내 각 대학들의 제 2 학기 등록률은 전체 학생의 67%에 불과하다(《한국 문화 방송》 1963년 8월 20일). 그 중 중앙 대학교는 전체 학생의 99.6%가, 동국 대학은 89%가 생활난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하였다(《동화 통신》 1963년 9월 2일).

이 외에도 군사 통치배들은 학생들의 하숙비는 50~60%, 합숙비는 40%, 학용품 값은 평균 30~40%씩이나 인상하였다(《조선 일보》 1963년 9월 4일, 《영남 일보》 1963년 9월 5일).

문학 예술

1963년도에 남조선 문학 예술은 더욱더 침체와 퇴폐의 말세기적 구렁텅이에 빠져 들고 있다.

《반공을 국시의 제 1주의》로 내세우고 파쑈적 폭압 통치를 감행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은 문학 예술을 파쑈 정치의 어용 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진보적 문학 예술인들의 활동을 말살하고 문학 예술인들의 일체 창작 사업을 통제하며 그를 어용화하기 위하여 괴뢰 《공보부》내에 《공보 자문 위원회》라는 감시 기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문학 예술 각 부문별 분과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문예 작품의 출판 및 상연 전의 검열을 강요하는 《흥행물 검열 사무 · 요강》을 비롯하여 《영화법》 등 악법들을 조작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집권 초기에 문학 예술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기만적으로 약속하였던 원고료와 극장 입장료에 대한 세금 인하, 영화 제작업자들에게 자금을 대부해 주는 《영화 금고》의 설치 등 사탕발림의 언약들을 모두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3년에 들어 서면서 오히려 문학 예술 부문에 대한 경제적 착취까지 더욱 혹독하게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작가들의 원고료에 대하여는 30 내지 40% 이상의 세금을 징수케 하였으며 심지어는 신문사의 작품 현상 응모에 당선된 현상금에서까지 40%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입장세법》을 새로 조작하여 종전에 40%이던 극장 입장세를 60%로 인상시키고 1962년에 비하여 160%나 더 많은 4억 8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이 한 해 동안에 징수함으로써 무대 및 영화 예술 부문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문학 예술에 대한 박 정희 도당의 파괴 행위는 그의 반동성과 퇴폐성의 강요에서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미국과 서구라파에서 끌어들인 실존주의, 프로이드주의, 추상주의 등 온갖 반동적 부르죠아 문예 사조를 더욱 장려하였으며 특히 매국적 《한일 회담》을 추진시키면서 1963년부터는 일본 영화의 상영을 허가하는 등 일본의 반동 문학 예술 작품들을 남조선에 범람시키고 있다.

그리 하여 해방 후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침습으로 인하여 타락한 남조선 문학 예술계는 왜색 풍조의 범람까지 겹치여 더욱 헤여날 수 없는 퇴폐의 말세경에 처하게 되였다.

【문학】 해방 후 미제가 류포시킨 실존주의, 실용주의, 프로이드주의, 추상주의, 모더니즘 등 각종 관념론적 철학 사상과 반동적 부르죠아 미학 사상의 류포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온 남조선 문단에는 이 해에 특히 극단한 반동 문학 경향인 미국의 《비트 문학》과 불란서에서 전파된 《앙띠 로망》 (반 소설)의 침습이 더욱 농후하여졌다.

그리 하여 남조선 문단에서는 실존주의를 신봉하며 《비트 문학》과 《앙띠 로망》을 모방하는데까지 이른 소위 《신 세대》라고 자처하는 《전후파 작가》들의 세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 해의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는 실존주의와 프로이드주의, 이것들과 밀접하게 련결되여 있는 허무주의와 색정주의가 호상 작용하면서 그 추악성과 퇴폐상이 일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63년도에 남조선에서 창작된 문학 작품의 절대 다수는 이 추악한 실존주의 철학 사상에 기초하면서 색정주의, 고독과 비애, 허무와 절망의 사상, 각종 종교적 신비주의, 반공 사상과 세계주의, 인간 증오 사상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것들이다.

특히 남조선 문학에서 색정주의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과 극단한 절망과 허무주의 사상이 순간적인 향락 사상과 결합되여 있는 실존주의 문학의 범람으로 인하여 그 추잡성의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례컨대 단편 소설 《너와 나의 정점》(《현대 문학》 1963년 8호)에서는 장기병으로 앓아 누운 남편을 옆방에 두고도 꺼리낌 없이 간통 행위를 자행하는 방탕한 녀자를 정당화하면서 그의 입을 통하여 《현대의 불안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 가나 하는 것만이 오늘의 과제요 현대인의 고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죽으면 갈 데 없는 현대인에게 륜리가 무슨 명분이 되겠습니까. 살기 위하여 또 자기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제와 래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인간상인 것입니다.》라고 파렴치하게 찰나적이며 동물적인 향락을 설교하고 있다.

또한 자식까지 있는 부부가 서로 안해와 남편을 바꾸어 살게까지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단편 소설 《행복이 산다는 언덕》(《소설계》 1963년 9호)을 비롯하여 추잡한 색정적인 작품은 헤아릴 수 없다.

남조선 문단에서는 의연히 불안과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일체 생의 의의를 부정하고 죽음과 허무주의를 설교하는 실존주의 문학이 판을 치고 있다. 단편 소설 《마지막 향연》(사상계 1963년 문예 증간호)의 작가는 토쇠한 가장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의욕을 상실한 일가족이 불안과 공포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항상 마지막 향연을 차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리를 날조함으로써 극도의 허무주의를 설교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 그들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이라는 성격 파탄자들을 등장시키고 색정과 불륜, 살인과 인간 증오, 극도의 불안과 죄의식을 설교하고 있는 단편 소설 《그대들의 조상은…》(《현대 문학》 1963년 11호)에서는 심지어 아들이 자기의 정부에게 아버지를 유혹하도록 추동하다가 정부와 동생이 관계된 것을 목격하자 동생을 죽여 버리고 쾌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를 통하여 력사의 시초부터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도덕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영원한 범죄와 절망이 있을 뿐이다》고 뇌까리기까지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비호하에 《전후파 작가》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문학이 얼마나 극악한 상태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가는 남조선 신문 《충청 일보》가 《현대 작품은 고독과 절망과 허무를 늘 먹고 또 배설하고 있다. 전후에 서구라파적인 자유주의에 깊이 빠져 현실 대상을 똑바로 못 보고 인간 본연의 자세를 리탈하게 하여 허무한 꿈 속으로 몰아 넣는 마취제의 극약처럼 진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개탄한 정도이다.

박 정희 도당의 사촉밑에 남조선의 일부 반동 작가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사회 제도를 허위적으로 중상 비방하며 《반공》을 선전하는 《동》(動), 《지겹고 긴 여름》, 《묵시록》과 같은 날조된 그나마 유치하기 그지 없는 소설들을 꾸며내고 있으며 《미국식 생활 양식》과 숭미 사상을 전파하는 추악한 서푼짜리 매문 행위들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이 해에 남조선 문학계에 나타난 묵과할 수 없는 현상은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 《한일 회담》흥정에 발맞추면서 왜색 문학 작품들이 범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무사도 정신》을 전파하는 사무라이 소설 《미야모도 무사시》, 한 조선 녀인을 두고 고려의 무사와 왜놈 무인 사이에 벌어지는 3각 관계를 그린 색정적인 력사 소설 《락일의 비가》, 심지어는 13 세기 고려에 대한 몽고의 침략을 묘사하면서 조선 력사를 외곡 모독하고 있는 일본 반동 작가의 력사 소설 《풍도》(風濤) 등을 비롯하여 전후 일본의 퇴폐적인 색정 소설들을 통속 잡지들과 단행본으로 광범히 번역 출판함으로써 친일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과 남조선 문학계의 이러한 부패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온갖 반동적인 부르죠아 문예 사조에 대항하면서 민족 문학이 나아갈 진정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량심적인 작가들은 박 정희 도당의 반동적 문예 정책과 문학에 대한 파쑈적 탄압 행위에 항거하고 있는바 남조선의 한 시인은 《우리 나라의 시단은 자고로 완전한 자유를 누려본 일이 없다. 자유가 없는 곳에 무슨 시가 있는가?》(《동아 일보》 1963년 4월 30일)라고 울분을 토로하였으며 한 평론가는 《독재의 권력, 정치적 현실에서 자유가 짓밟히고 정신이 억압되여 문학이 현실에서 제외당하는 이 자리에서 달팽이의 운명, 달팽이의 생리에 스스로 체념해 버려야 할 것인가》(《자유 문학》 1963년 5호)고 토로하면서 남조선 작가들이 현재의 낡고 부패한 문학 관념과 창작 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남조선 문단에서는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량심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비록 수'적으로 많지는 못 하나 인간 생지옥으로 화한 남조선의 부패한 사회 현실을 폭로하는 작품들이 창작되였는바 작가 자신의 비참한 생활고를 묘사하면서 《복지 사회를 장담하던 것이 빈지 사회를 이루 듯이 복지 가정을 꿈꾸던 것이 적빈으로 공전하는 고락서니였다》…고 남조선 사회를 더욱 헤여날 수 없는 빈궁과 기아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반동성을 폭로 규탄하고 있는 단편 소설 《세월》(《현대 문학》 1962년 2호) 한 녀성의 비참한 운명과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빈궁과 타락과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남조선의 사회악을 고발하고 있는 단편 소설 《안나의 유서》(《현대 문학》 1963년 4호), 남조선에서의 극심한 식량

난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단편 소설 《이단》(《현대 문학》 1964년 1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해에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 가운데서는 민족의 자주자립 사상을 호소한 시 《아아 내 조국》(《사상계》 1963년 4호)과 한 평론가가 《군사 정권의 죄과는 내정에 실패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 뿐만은 아니다. 보다 큰 죄과는 〈한국〉 국민의 능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과 조국 통일에 지장을 가져 온 그 것이다…쿠데타 직후부터 통일 운동에 대한 그지없는 탄압이 통일에 끼친 지장은 지대하였으며 그 반동적 행위는 군사 정권의 죄악 중 최대의 그리고 천추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통일 조선》)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이 박 정희 도당의 타도와 조국 통일의 념원에 대한 주장이 높이 울리고 있다.

더우기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과 죄행에 대하여 폭로 규탄하는 작품들이 창작된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시 《미 8 군차》(《현대 문학》 1963년 12월 호)에서는 해방 후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을 비법적인 것으로 선언하며 놈들의 죄행을 시인의 강한 내면적 울부짖음으로 폭로하고 있다.

《그래, 그 손님들이 우리에게 갖고
온 것은
한 장의 무자비한 청장
타오르는 가마 솥
전쟁의 날카로운 초대장》이라고 미제 침략자들의 침략적 본성을 밝히면서 바로 미제 침략자들 때문에 인민들이 죽음과 궁핍 속에서 허덕이게 되였음을 단죄하고 인민들을 4월 인민 항쟁과 같은 혁명에로 부르면서

《그래도 말을 맨 주둔이
버드나무에 머문지 어언
18년
동결된 다리
자욱한 미궁의 안개 속에서
그대로 동결된
끊어진 다리.

4월이
살구꽃 핀 잔치'집 같이
축제를 벌려 놓고 가도
동결된 다리.》라고 조국의 분렬을 통탄하며 조국 통일을 애타게 희구하면서 상징적인 수'법으로 미제 침략군을 조국 강토에서 몰아내자고 호소하고 있다.

【영화】 남조선 출판물까지가 《1963년도의 한국 영화계는 그대로 한국 영화사상 미증유의 위험한 고비'길에 다달은 감이 없지 않다. …제작비의 대폭 팽창, 거기에다 또 사회 일반의 불경기가 부채질하여 영화의 흥행은 전반적으로 위축 일로를 걷고 있다》(《영화 세계》 1963년 6호)고 개탄할 만큼 더욱더 퇴락 상태에 처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군사 정변 이후에 강요한 파쑈적인 검열 제도와 고률의 《입장세법》 등으로 점점 더 곤경에 빠지고 있는 남조선 《국산 영화》 제작계에서는 이 해에 특히 외화 부족으로 생필림조차 제대로 수입하지 못 하여 영화를 촬영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1963년도의 남조선 《국산 영화》는 의연히 일확 천금을 꿈꾸는 영화 제작 투기 업자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미국과 서구라파의 반동적인 영화들을 모방하면서 색정과 허무주의, 인간 증오, 반공 사상 등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전파하는 추잡한 것들이다.

자녀까지 있는 유부녀가 남편의 친구와 치정 관계를 맺는 불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중년 부인》, 심지어는 모녀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3각 관계의 추잡상을 벌려 놓고 있는 《두 녀인》 등 색정 영화들과 살인, 강도의 란무장을 연출하는 《상해의 밤》, 《미녀와 도적》과 같은 미국식 깽 영화의 모사판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미제 침략군의 살인 만행을 합리화하며 숙명론을 설교하고 있는 단편 소설 《림진강》을 각색한 영화 《돌아 보지 말라》 등이 제작되였는바 이것들은 모두가 그 내용의 반동성과 기술의 유치성으로 특징적이다.

또한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은 양키 영화의 수입을 대대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밤의 환락가에서 벌어지는 온갖 말세기적 추잡상으로 가득찬 도색 영화 《세계의 향연》을 비롯하여 《라체 전쟁》, 《아메리카의 리창》, 《암흑가의 신사》 등 한결같이 동물적인 욕정과 범죄를 유발하는 100 편 이상이나 되는 미국과 서구라파의 퇴폐적인 영화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도 《어찌하여 미국의 것만 일방적으로 가져 오는 것이며 서부활극류의 동교이곡 (同巧異曲)의 것을 그렇게도 많이 가져 오는 것이며…밤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을 수입해야 하는가?》(《매일 신문》 1963년 6월 8일 사설)라고 항의하면서 《성 문제와 관계되는 남녀 륜리의 탄맥과 강력범, 잔학범 등의 란무가 영화에 기인된 바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특히 이 해의 남조선 영화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박 정희 도당이 매국 배족적 《한일 회담》을 벌리면서 《일본을 리해》해야 한다느니, 그들에 대한 《친근감》을 가져야 한다느니 하면서 왜색 영화들까지 범람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결과에 제목만 보아도 구역질 나는 《요루노 세까이》, 《사요나라》, 《동경 암흑가》, 《검은 배》 심지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요술 소년》이라고 제명을 고친 일본 영화 《사루도비 사스께》 등 퇴폐적인 일본 영화들이 남조선 영화관들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렇듯 남조선에 밀려 들어 오고 있는 일본 영화들은 흥행업자들의 단순한 투기업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국

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데에 사태의 엄중성이 있는 것이다.

왜색 영화의 범람은 남조선의 《국산 영화》 제작에까지 추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일본 대본에 이름만 슬쩍 고쳐서 베껴 먹는 표절 행위들이 감행되고 있는바 례하면 일본 영화 《남자 사육법》이 《남자 조종법》으로, 일본 《사무라이》 영화 《요진보》가 리조 시기의 이야기처럼 가장된 《불한당》이라는 제명으로 《국산. 영화》의 행세를 하고 있는가 하면 《행복한 고독》이라는 영화에서는 남조선 배우에게 일본 옷까지 입혀 등장시킴으로써 《국적조차 분간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왜색 영화의 표절 행위와 퇴폐적인 일본 영화를 배격하는 목소리가 남조선 사회계와 인민들 속에서 높아지자 박 정희 도당은 어용 영화인들을 동원시켜 《대정 시기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좋다》고 지껄이게 함으로써 왜색 영화의 표절 행위를 더욱 조장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통속 소설까지 마구 베껴 먹다 못해 한 작품을 가지고 서로 제목만 다른 두 개의 영화까지 만들고있다. 일본 소설 《가정의 사정》이란 것이 《아버지 결혼하세요》 와 《오색 무지개》로 창씨 개명하여 나타난 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렇듯 어지러운 사태에 대하여 부산 일보도 《한 때〈미국의 것이면 똥도 달라〉는 식으로 받아 들인 것과 같이 〈사무라이〉나 〈쫀 마게〉할 것 없이 일본 것이라면 덮어 놓고 받아 들이고 있다》고 박 정희 도당의 친일 책동을 규탄하고 있다.

【연극】 박 정희 괴뢰 도당의 억압과 천시로 인하여 1963년의 남조선 연극계는 그야말로 연극 자체를 깡그리 상실해 버린 것과 같은 몰락 상태에 빠져 버렸다.

이 해에 남조선 연극계에서는 전문 극단의 연극이 통털어 년간 3 회 있었을 뿐이다. 즉 유일한 전문 극단으로 간신히 명맥이나 유지하고 있는 《국립 극단》에서 년간 2 회의 공연이 있었고 1961년에 《국립 극단》의 전속으로 들어 갔던 극단 《신협》의 성원들이 2 년 동안의 《국립 극단》 살이에서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 하고 더 심한 멸망 상태에 빠져 허덕이다가 마침내는 거기서 탈퇴해 나와서 《한국 일보》라는 한 개 신문사의 부속 극단으로 (봄, 가을 2 회의 공연을 예정하고 있을 뿐임) 떨어져 버린 후에 상연한 1 회의 연극 공연이 그 것이다.

이 외에 신인들의 연극 동호회와 대학들에서 써클 수준으로 진행되는 연극 공연이 있기는 하나 그것마저 대부분의 상연 종목이 미국과 서구라파의 퇴폐적인 번역극들이였다.

소위 연극 예술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드라마 센터》의 무대도 연극 상연은 없고 거의 쟈즈와 라체춤이 란무되는 《쑈》에 빌려 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 하여 남조선 출판물까지가 《오늘의 이 현실 상황이 연극에 맞지 않는지? 어쨌던 연극은 부진 상태이다. 불만한 희곡, 불만한 연기가 없어 보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탓인지 연극은 늘상 한산하다》(《자유 문학》 1963년 6호)'고 개탄하고 있을 만치 우선 량적으로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유치하기 그지 없는 도탄에 빠지고 있다.

그나마 상연된 공연 종목들이 또한 두 남자와 동물적으로 관계하는 미개한 《산 처녀》의 추태를 연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동물적인 색정주의를 설교하고 있는 연극 《산 녀인》(山女人)을 비롯하여 연극 예술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과 내용을 파괴해 버리고 1인칭 형식에 의하여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를 설교하고 있는 《달갈》 등등 미국과 서구라파 실존주의 작가들의 반동적인 《부조리의 극》과 강도,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열개의 인디안 인형》등 깽 연극의 번역판들이였다.

그러니 《예술은 잃어 버리고 수치만 남았다》(《국제 신보》1963년 12월 24일)고 한 남조선 출판물의 비평은 그대로 이 해의 남조선 연극계를 특징짓는 비유인 것이다.

【음악】 《거리마다 가정마다 격정적인 〈맘보〉, 〈차차차〉, 〈록큰롤〉 등이 마구 범람하고 땐스가 번창하여 주부들까지 바람을 피우는 시절》(《부산 일보》 1963년 4월 11일)이라고 남조선 신문이 개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 음악계는 더욱 심해지는 쟈즈의 광란으로 퇴폐와 타락의 도가니로 화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 특히 청년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과 반미 투쟁 기세를 마비시키기 위하여 이 해에 더욱 더 악랄하게 퇴폐적인 쟈즈 음악을 류포시켰는 바 종래에는 미군 부대에서만 출연시키던 《한국 흥행》이라는 쟈즈 악단으로 하여금 《영리를 떠난 쟈즈 보급》을 목적으로 《쟈즈 축전》까지 벌려 놓았으며 《정 씨리즈》라는 미 제 8군 전속 《쇼단》 등을 통하여 조선 민요들을 《룸바》, 《폴카》, 《스윙》, 《맘보》 조로 쟈즈화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 해에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미국의 쟈즈 악단들을 수많이 끌어 들여 판을 치게함으로써 남조선 음악계를 더욱 쟈즈의 광란 속에 몰아 넣었다. 미국 쟈즈단의 범람 때문에 남조선에서 유일한 대중 악단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예그린 악단》 마저 해산되여 버렸으며 소위 《국립 오페라단》은 년간 단 한번의 그나마 퇴페적이고 유치한 《가면 무도회》라는 엉터리 오페라를 1회 공연했을 뿐이다.

특히 친일 주구 박 정희 도당은 이 해부터 토끌적으로 일본 류행가의 보급을 장려하면서 일본 레코드들을 다량 수입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사꾸라부시》, 《오도꼬노 부르스》 등 일본 류행가와 심지어는 일본 군가들까지 류포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장려한 퇴폐적인 일본 류행가의 범람 속에서 남조선의 가요들도 《열두냥짜리 인생》 등 일본 류행가조를 모방하는 극단의 타락 상태에 빠져 버렸다.

【무용】 남조선 무용계에 있어서도 《1963년도는 아무런 희망도 제시 못하고 거의 절망 상태의 탄식만이 감도는 한 해였다》(《국제 신보》 1963년 12월 27일).

이 해 남조선 무용계에서는 단 하나 밖에 없는 《국립 무용단》의 발레부와 민족 무용부에서 각각 1회의 그나마 수준 이하의 유치한 공연을 가졌을 뿐이다.

개인들의 무용 발표회도 극장 사용료가 1962년보다 근 3배나 비싸진 것을 비롯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단 2회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박 정희 도당이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 무용 예술을 퇴폐의 길로 몰아 넣으면서 민족 무용의 전통을 말살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자들은 민족 무용을 《시대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떠벌리면서 미국의 소위 현대 무용이라는 온 몸을 비비꼬며 미친듯이 돌아치는 도색적인 《트위스트》, 《도롬바》, 《림보록》 등을 끌어 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민족 무용을 추잡한 양춤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리랑》, 《양산도》, 《봄타령》 등의 민족 무용이 모두 《트위스트》, 《룸바》 등의 양춤으로 변조된 것이다.

이 《현대화》된 양춤은 마침내 조선 녀성의 고유한 미와 정서를 풍겨주는 저고리 옷고름을 떼고, 저고리 섶도 없애 버렸으며 지어 옷소매까지 잘라 버렸다.

그리하여 무용 의상은 《국적 불명》의 것으로 변모되여 《도무지 저고리도 아니고 서양의 도레스도 아닌 그야말로 억지 춘향식 저고리 치마》(잡지 《녀원》)로 되여 버렸다.

남조선 무용계의 이러한 퇴폐상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이 《도라지를 캐는 처녀, 이 빠진 할머니도 룸바를 추고 논두렁에서 아낙네들도 맘보를》 추어야 할 판이라고 개탄하면서 《이 땅의 명랑성이란 기껏 이런 것들이다. 절박한 현실에 눈을 가리우고 특정 외래품 정서에 놀아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명랑성이다. 병든 명랑성, 도피의 명랑성, 기만의 명랑성이다》(《신 사조》 1963년 11호)라고 박 정희 도당의 반동적 문예 정책을 규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술】 해방 후 계속 추상파와 구상파의 싸움질로 뒤범벅이 되여 오던 남조선 미술계에서는 이 해에 특히 《국전》(대한 미술 전람회) 출품 문제를 둘러 싸고 추잡한 자리 싸움이 벌어졌으며 수십 개의 파벌적인 《동인회》들로 분렬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의하여 최근 년간에 더욱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인 추상주의 미술 조류로 말미암아 남조선 미술계에서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화의 전통이 유린 말살되고 추상주의 미술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추상주의를 모방하고 있는 반동 화가들은 주관적인 《자아》 관념의 광란 속에서 그 누구도 지어 화가 자신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빠져 들면서 형태가 없는 괴상한 그림을 만들고 있으며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색정과 패륜을 전파하는 추잡한 《라체상》과 지어 인체의 한 토막, 팔 다리가 없는 징그러운 《인간상》을 고안해 내고 있다.

이 해의 《국전》에 나붙었던 《고기'배를 기다리는 녀인》이라는 그림은 《폭주를 마시고 만취가 된 자가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괴상 망측한 것인데도 박 정희 도당은 《내각 수반상》까지 주면서 《걸작》으로 극구 찬양하였다.

《국전》에 전시되여 《특선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정》(靜), 《하구》, 《응결》 등을 비롯한 모든 그림들이 현실과는 완전히 유리된 정신 병자가 광적으로 마구 도료를 뒤여 뿌린 것 같은 해괴한 것들이였다.

조선화 분야에서까지 원근법을 전혀 무시하고 수묵을 마구 칠해 버린 《산수 에이》(山水 A)를 비롯하여 《작품 A》, 《작품 C》 등등 제명조차 없는 추상화들이 판을 치고 있다.

남조선 미술계의 이러한 반동적인 추잡상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미술가도 《국전은 5.16 후… 분별 없는 개혁 때문에…미술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조차 없게 뒤범벅이 되였고 그 기준도 무정부적이여서…급조 추상화를 마구 내여 놓는 것이 개혁 이후의 국전》이라고 박 정희 도당의 반동적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문화 유물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조선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귀중한 문화재들이 방치된 채 황폐화되고 있다.

1963년 현재 남조선에는 괴뢰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만도 623종이 있다. 이중 《국보》로 지정된 것이 116 점, 보물로 지정된 것이 386 점, 사적으로 지정된 것이 121 점이다 (《한국 년감》1963년판 546 폐지).

이외에 수 많은 문화재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괴뢰 당국이 《가치가 없다》는 구실 밑에 방치해 두고 있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국제 신보》 1963년 9월 5일) 되였으며 《옛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대전 일보》)는 형편에 있다.

일례로 충청남도에는 고대 건축술을 자랑하는 《무명사》, 《수덕사》 등 절들이 90여 개나 있는데 그 중 70%가 버림 받고 있

다(《대전 일보》).

괴뢰 당국은 미 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수할 데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그것들 역시 파괴되고 있다.

례컨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의 《지석탑》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랜 석탑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하지 않아 《9층이 6층으로 낮아졌고 탑 전체가 10도가량 기울어져 도괴 직전에 있다》(《동아 일보》 1963년 4월 6일). 남조선에서 《유일한 미술 박물관》인 경복궁 미술관도 《정문 한쪽이 부서지고, 천장이 새고, 유리창이 깨져 작품들을 전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대한 일보》 1963년 5월). 이 외에도 경주 《첨성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영천군 《은해사》, 경상남도 동래군 《장안사》,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루》, 《서장대》, 《북장대》, 경상남도 장성군 《백양사》의 《대웅전》, 경상북도 칠곡군 《대각국사비》,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서울 영등포구 《락성대》 등 수다한 성문, 성곽, 절들이 방치된 채 내버려져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그 원형을 잃어버릴 형편에 있는 문화 유물은 무려 463 점이나 된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 당국은 《예산이 없다》는 구실 밑에 보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어 문화재를 《미관상 거슬린다》느니 뭐니 하면서 파괴하거나 《외화 획득》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에 팔아 먹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리조 시기에 건립한 서울 4 대문중의 하나인 《광희문》과 《덕수궁》 담장은 《미관상 거슬린다》고 하여 헐었고 5월에는 리조 백자 55 점과 목제 장 및 함 85점 도합 140 여 점을 외국에 팔 것을 《성하 산업》 이라는 무역 회사에 《허가》하였다 (《동아 일보》 1963년 5월 11일,《경향 신문》 1963년 5월 20일). 이에 대하여는 남조선 출판물들도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암매되여 앞으로 연구를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해야할 판이니 서글픈 일》이라고 개탄하였다(《동아 일보》1963년 10월 3일).

남조선에서는 문화재가 파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난 당하고 있다.

괴뢰 경찰의 《조사》라 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 2월 현재 전문적인 《도굴단》이 고분, 고총을 파 헤치고 횡취한 금부치만해도 80여 점이나 된다. 또한 《국보》급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도난, 소실, 파괴 당한 것은 17 점에 달한다 (《동화 통신》 1963년 2월 7일, 《경향 신문》 1963년 2월 4일).

언론 출판

【언론 탄압】 1963년에 박 정희 군사 정권은 장기 집권을 꾀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박 정희 괴뢰 집단은 2월 28일 군사 정권의 죄악을 규탄하는 사소한 언행이나 놈들이 비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민 탄압 기관과 수탈 기관을 《부인하는 언행》에 대해서도 10년까지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례법》을 개악한 후 뒤'이어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림시 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

2월 5일과 3월 25일 박 정희 도당은 《허위 사실 류포 혐의》를 날조하여 《조선 일보》 기자와 《한국 일보》 기자를 《비상 상태 수습을 위한 림시 조치법》에 걸어 재판에 회부하였다 (《동양 통신》 1963년 2월 16일,3월 25일). 또한 4월 19일에는 《4. 19 기념 식장》을 취재 중인 《조선 일보》 기자와 《코리안 리퍼블릭》 기자들을 체포하여 집단 폭행을 감행한 다음 고문까지 하였다 (《동양 통신》 1963년 4월 20일).

특히 1963년에 박 정희 도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민정 이양》 놀음에서 《대통령 선거》의 부정 행위를 폭로하였다 하여 《동아 일보》 목포 주재 기자, 《조선 일보》 남원 주재 기자, 경상북도 주재 《동아 일보》, 《한국 일보》, 《매일 신문》, 《대구 일보》의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용공 문서, 선거 방해 죄》로 체포하였다 (《국제 신보》 1963년 12월 2일, 《서울 방송》 1963년 11월 17일).

뿐만 아니라 괴뢰 도당은 신문 및 통신, 정기 간행물의 등록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한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조작하여 《각종 정기 간행물 발간》을 억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 출판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출판사들이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구실로 등록에서 제외되였다 (《대한 일보》 1963년 6월 14일). 이러한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여 남조선의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한국 사진 기자단》,《한국 신문 발행인 협회》 등 언론 단체들과 사회 계에서는 박 정희 도당의 언론, 탄압 책동을 규탄 항의하는 《항의문》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당국》에 들이댔다. 남조선 언론인들은 출판물을 통하여 《걸핏하면 신문 기자의 신변부터 구속》하며 《국민의 입을 송두리째 틀어 막는》 박 정희의 《경거 망동적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우리에게 말 할 자유를 달라》고 웨쳤다 (《동양 통신》 1963년 4월 20일).

【언론 출판계 동향】 남조선 출판물들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어용 선전 수단으로서 그들의 침략 정책과 매국 정책을 남조선 인민들 속에 류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량심적인 언론인들과 출판물들은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규탄 배격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목소리에 동조하여 나섰다.

《경향 신문》, 《부산 일보》는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적 파국과 위기는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미제의 내정 간섭을 폭로하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였다.

《한국 일보》는 오늘의 위기가 《모든 것을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며 한 바로 그 것》이라고 하면서 《사대 근성 일소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주체 확립을 주장하였다.

특히 출판물들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적지 않게 반영하였는바 《경향 신문》은 미제의 지시하에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박 정희 도당을 배격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였다. 《조선 일보》는 《평범한 사람끼리 하는 정치》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 분렬을 일삼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비난하였다.

【언론 출판 기관의 실태】 1963년에 남조선에는 일간 신문 80여 종, 일요 신문 1종, 통신 10여 종, 주간 잡지 30여 종, 월간 잡지 170여 종, 기타 80 종이 있었다.

통신사는 《합동》, 《동양》, 《동화》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다. 상기 3개 통신사들도 현대적 통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은 미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미 주둔군 방송국》과 그 통제 밑에 있는 관영 방송국 및 민영 방송국이 있다.

출판사는 심한 경영난과 《수입 펄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종이값 25% 인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산업 경제 신문》 1963년 10월 11일). 특히 잡지사의 경우는 더 한심하다. 종합 잡지로 되여 있는 《사상계》, 《녀원》, 《현대 문학》 등 《2~3 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재정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남조선 《한국 년감》 1963년 판).

재일 조선 공민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

현재 일본에는 60여만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제 로동에 끌려 갔거나 또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살'길을 잃고 일본에로 류랑한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 갔거나 류랑하여 간 조선 사람은 약 500만명이나 된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전시 로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에 《전시 징용 제도》를 실시하고 334만여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전선 로무자로 투입하였거나 일본으로 끌어 갔다. 그들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1939 년부터 1945년 간에 연 115만여 명을 일본으로 끌어 갔다.

일제는 이렇게 끌고 간 조선 사람들을 례외 없이 탄광, 광산, 토목 공사장, 군사 시설 건설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로동 부문에 투입하였다. 일본의 공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로동 재해가 가장 심하던 일본 탄광들에서만 하여도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한 조선인 로무자 수는 40만 명이였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저 생활비 마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갖은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가하였다.

일제는 일본에서 지방 경찰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소위 《협화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들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하여 사소한 언행에 대해서도 트집을 걸어 검거, 투옥하였다. 1933년에만 하여도 일제는 《치안 유지법 위반》, 《공무 집행 방해》 등의 죄명을 씌워 재일 조선인들을 4만 9,468 명이나 검거 투옥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일제는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 사건을 두차에 걸쳐 조직하였다. 1923년 9월 관동 대 지진 시에 일제는 군대와 경찰과 테로단을 동원하여 도꾜와 그 부근에서만도 6,600여 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하였다.

또한 일제는 재일 조선인들을 탄광, 광산들에서 참살하는 것을 례상사로 삼았으며 군사 시설 건설에 동원되였던 조선 로무자들을 《비밀 보장》이라는 구실로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도 부지기수이다. 1938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에 홋까이도 탄광들에서 830여명이 학살된 것을 비롯하여 1940—1944년 간에 일본 전국 탄광에서 6만여명의 조선 로무자들이 학살되였다.

일제는 구릴 렬도의 《가시마구미》에 동원되였던 5,000여 명의 조선인 로무자들을 참살하였으며 에무지섬에서도 2,500명의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에 재일 조선인들에게 가한 학대와 살인 만행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오늘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들은 바로 일제의 이러한 악독한 민족적 멸시와 학대 속에서 간신히 살아 남은 사람들이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여 조선이 해방된 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재일 조선인들은 당당한 독립 국가의 공민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외국인으로서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지니였다. 더우기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에 비추어 또한 그들에 가한 저들의 죄행에 비추어 재일 조선 공민들을 응당 보호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일본 점령 미군 당국과 야합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학살을 비롯하여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계속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8.15 직후에 일제 잔당들은 미에현, 지바현, 교도부, 아오모리현, 홋까이도, 도꾜도,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후꾸시마현, 도야마현 등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1945년 8월 24일 일본 해군 당국은 홋까이도 탄광들에 강제로 끌려 갔던 3,745 명의 조선 로무자들을 기만과 공갈로 수송선 《우끼지마마루》에 태운 후 선박을 폭파시켜 학살하였다.

그후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일관하게 미제와 공모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민족적 차별과 압박 정책을 실시하였는바 그들은 무장한 경관대들을 대량 동원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의 부락과 기관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며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수 많은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에 강제 추방함으로써 괴뢰 도당으로 하여금 살해케 하는 범죄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 당국은 1949년 9월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재일 조선인 련맹과 재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강제 해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또한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조국의 력사, 지리 등을 배워 주기 위하여 설립한 각급 조선인 학교들을 1948년 《교육 탄압 사건》을 도발한 후 강제 페쇄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47년 5월에 《외국인 등록령》을 발표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국적을 남조선 괴뢰 《국적》으로 변경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외국인 등록증》을 악용하여 1947년부터 1963년 말까지 20여만의 재일 조선 공민들을 검거 투옥하고 각종 형벌에 처하였는바 이들로부터 빼앗은 《벌금》만도 4억 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로부터 토지 소유권, 광산권, 선박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활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1963년에도 일본 당국의 비호밑에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및 폭행 사건이 빈발하였다.

더우기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에서 소위 《재일 조선 공민들의 법적 지위》를 운운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 괴뢰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함으로써 더욱 박해를 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1963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비법적인 박해와 탄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며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63년에 미제의 조종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 도당과의 《한일 회담》 결속 음모를 로골화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엄중히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해에 일본의 권력 기관과 우익 테로단, 불량배들의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폭행, 살상, 습격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계속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에 비추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63년 7월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념원이 하루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문헌 참조).

또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일본 당국이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감행하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비호 조장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과 관련하여 1963년 7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박해를 즉시 중지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과 앞으로 불법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문헌 참조).

특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10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재일 조선 공민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 주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63년에도 재일 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원조하기 위하여 세차례 (3월, 6월 9월)에 걸쳐 7억 9,109만 원(일본 화폐)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었다.

이리하여 공화국 정부가 1957년 4월부터 1963년 말에 이르기까지 보내준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13 차에 28억 9,294만여 원(일화)에 달한다.

또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는 5월, 총련 창립 8 주년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일에 총련 일'군들에게 공화국 훈장 (국기 훈장 1급 1명, 로력 훈장 3명, 국기 훈장 2급 8명, 국기 훈장 3급 32명, 공로 메달 384명)을 수여하였으며 5월에는 교육 사업에 헌신한 재일 조선인 교원들 3명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교원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외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316 명의 총련 일'군들을 표창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재일 동포들의 귀국 념원을 계속 실현시켜 주기 위하여 현행 귀국 협정의 유효 기간이 1963년 11월 12일로 끝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한을 그대로 1년간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동포애적 시책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1963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공화국으로의 귀국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1963년 한해 동안에 12 차에 걸쳐 2,570명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리하여 1959년 12월 16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이 시작된 이후 1963년 말까지 113차에 도합 8만 845명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귀국하였다. 그들중 남자는 4만 3,370명이며 녀자는 3만 7,475명이다. 귀국자들중 95.5%는 남조선에 고향을 두고 있으며 2,435명은 일본 사람이다.

공화국 정부는 귀국 동포들에게 그들의 희망과 기술 기능에 따라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과 과학, 문화, 보건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일터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과학자들에게는 과학 기관들에 배치하고 모든 연구 시설들과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다.

또한 공화국 정부는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귀국 동포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에 보내여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었는바 그들은 국가로부터 의복, 학용품을 공급 받으며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귀국 동포들은 현대적인 새 문화 주택을 받았으며 무상 치료를 비롯한 광범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로력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년로자들 528명은 양로원에서 국가 비용으로 부양을 받고 있다.

귀국 동포들은 정권 기관, 사회 단체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고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1963년 12월 3일에 진행된 공화국의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에서는 919명의 귀국 동포들이 대의원(도, 직할시 대의원 70명, 시, 군, 구역 대의원 372명, 리, 읍 대의원 477명)으로 선거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 10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귀국 동포들이 각급 주권 기관 대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수백명의 귀국 동포들이 중공업, 경공업 등 각 부문의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고 있다.

오늘 전체 귀국 동포들은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또한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렬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운동에 나서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1963년 9월 6일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귀국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박 도술에게 로력 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1,159명 에게 국가 훈장 (국기 훈장 1급 3명, 로력 훈장 3명, 국기 훈장 2급 13명, 국기 훈장 3급 137명, 공로 메달 1,003명)을 수여하였으며 44명은 내각 수상 표창장과 선물을 받았다.

그리하여 1963년 말까지 국가 훈장과 표창장을 받은 귀국자들의 총수는 로력 영웅 1명, 국기 훈장 제 1 급 6명, 로력 훈장 3명, 국기 훈장 제2급 35명, 국기 훈장 제3급 327명, 공로 메달 1,945명이며 80명의 귀국 동포들이 내각 수상 표창장을 받았다.

1963년도 총련의 애국 사업

총련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 1963년에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 동포 앞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반미 구국 투쟁의 강화,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옹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의 강화, 총련 조직의 공고화와 간부 일'군들의 학습의 강화, 조일 량국 간의 경제 문화의 교류와 우호 친선의 강화 등 다섯 가지 중요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이 애국적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 붙어 높은 애국적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총련은 산하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의 애국적 열성에 의거하면서 제때에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1963년 3월에 진행된 총련 중앙 위원회 제 30 차 회의는 총련의 제반 애국 사업 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의 애국적 열성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전 동포적으로 경축하며 총련 결성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더욱 발양되였으며 그 성과는 더욱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총련이 제기한 1963년도 다섯가지 중요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 사업】 1963년에 총련은 전체 재일 동포들 속에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안을 꾸준히 해설 선전하면서 수많은 군중 집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 통일 행동들을 통하여 미제의 전쟁 도발 준비와 기만적 《민정 이양》 책동을 철저히 폭로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군의 즉시 철거와 범죄적《한일 회담》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리고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고 60만 재일 동포들이 단합된 력량으로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기 위한 통일 전선 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 총련 중앙 위원회 제 30 차 회의 이후 통일 전선 사업이 전 기관적, 전 군중적 사업으로 발전함으로써 《민단》 영향 하의 동포들과의 하층 단합이 강화되고 상층 단합이 이에 배합되여 민족적 단합이 더욱 폭 넓게 추진되였으며 재일 동포들 속에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위한 대중적 지반이 급속히 확대되여 갔다. 총련은 3.1 운동 기념일을 비롯한 민족적 기념일의 공동 모임, 야유회, 영화 감상회, 체육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적 단합의 모임들을 널리 조직하였으며 이런 기회를 리용하여 《민단》에 속한 동포들과 민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론하여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민족 단합의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민단》에 속한 많은 동포들과 인사들 속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전체 재일 동포들이 모두 다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정신으로 단합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총련 중앙 위원회 제 32 차 회의 (11월 15일) 결정은 재일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과 통일 전선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총련은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요구하여 나선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총련과 재일 동포들은 4.19 3주년 기념 행사와 6월 25일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과 관련한 군중 집회를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공화국 정부가 남반부 절량민들과 리재민들에게 백미 10 만석을 보낼 것을 제기한 것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총련도 1,000석의 백미를 구호미로 남반부 동포들에게 보낼 것을 결정하고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과 사회계에 서한을 보내여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총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총련은 일본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 속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과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방안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광범한 일본 인민들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견결히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총련 조직 대렬의 확대 공고화와 간부 일'군들의 학습 사업】 1963년에 총련 전체 일'군들의 원칙적 통일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그들의 정치 리론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일'군들 속에서 정책 학습이 혁명 전통 학습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 간부 교양 육성 사업이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이해부터 새로 통신 교육 체계가 확립되여 많은 현직 일'군들이 사업에서 리탈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였으며 지부 일'군들에 대한 개별 교양 체계도 더욱 확립되였다. 그리고 간부 일'군들 속에서의 매주 1 회씩의 집체 학습과 매일 2 시간 이상의 자체 학습이 꾸준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간부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군들의 군중 관점이 확립되고 군중 로선이 더 잘 관철되여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였다.

1963년 5월에 진행된 총련 지부 정기 대회와 9월에 있은 지부 위원장 회의를 계기로 총련의 말단 지도 기관인 지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그 지도 기능이 높아졌으며 아래를 도와 주는 체계가 확립되였다.

또한 총련의 기층 조직인 분회 사업이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분회 일'군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조국의 천리마 운동을 본 받아 전개하고 있는 《모범 분회 창조 운동》은 군중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여 이 해 말 현재 651 개의 총련 분회들이 참가하였다. 2중 도꾜 오다 지부 마고메 분회를 비롯한 3 개의 분회들이 《2중 모범 분회》 칭호를, 71 개의 분회들이 《모범 분회》 칭호를 쟁취하였다.

총련 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미조직 동포 인입 사업이 계획대로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그리고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과 재일본 조선 민주 녀성 동맹을 비롯한 각 단일 단체에 대한 총련의 유일 지도 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그 대렬이 더욱 확대 공고화되였다.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는 사업】 총련은 1963년에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이 해에 재일 조선 공민들은 자기들의 정당한 민족적 권리인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문제와 관련한 공화국 정부와 우리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 성원은 재일 동포들을 크게 고무하여 주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1963년 5월 1일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실현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개시한 후 이 해 12월 말까지 4 차의 통일 행동을 일본 각지에서 전 동포적으로 조직 진행하였으며 일본 당국에 계속 요청과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총련은 일본 인민들 속에 재일 동포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실현을 위한 선전 사업과 함께 서명 수집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일본의 수 많은 정당, 사회 단체 및 광범한 인사들이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실현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정당한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는바 4,000여 명에 달하는 일본인 대표들이 직접 도꾜에 찾아가 일본 정부에 재일 조선인들의 조국 래왕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근 1,000만 명의 일본 인민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여 서명하였다. 12월 28일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7할 이상을 포괄하는 884개의 도도도 외회를 비롯한 일본 지방 의회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받았다. 1963년 6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 인민들에게 보낸 총련의 호소문,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국제 기구들과 사회 단체들에 보낸 총련의 지지 요청서에 대하여 세계 직련, 세계 민청, 국제 학생 동맹, 국제 기자 동맹 등 15 개의 국제 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수 많은 사회 단체들과 각계 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지지 성명과 편지를 받았다.

1963년에 일본 반동들의 재일 동포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특히 조선 중 고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 살상, 습격 등의 악랄한 도발 책동이 일층 격화되였다.

이에 대처하여 총련은 일본 반동들의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부당한 범죄적인 행위들을 일본 인민들 속에 널리 폭로하였으며 재일 동포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한층 강화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해결, 호상 방조 사업을 비롯한 동포들의 생활권을 옹호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살'길을 잃고 일본으로 피난해 간 남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업도 강화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 상공인들의 기업권을 옹호하는 투쟁도 일층 강화하였으며 동포들의 신용 조합 사업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1963년 말 현재로 일본 각지에 꾸며진 22개의 재일 동포들의 신용 조합들의 예금액은 무려 215억원 (일본 화폐)에 달하였다.

1963년에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노력과 재일 동포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귀국 협정은 1년간 그대로 연장되였으며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귀국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사업】 1963년에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사업 발전에 큰 관심을 돌렸다. 특히 이 해 8월에 있은 제 3 차 재일 조선인 교육 열성자 대회는 이 사업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 해에 교육 일'군들의 원칙적 단결이 강화되고 교원들에 대한 통신 교육, 예술 학원 등 재교육 체계가 더욱 확립됨으로써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높아졌다.

교원 대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범 교원 집단 창조 운동》에는 이 해 말 현재 전체 교원의 60%나 되는 800여 명의 교원들이 참가하여 교수 교양의 질을 한 계단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지고 교수 교양 사업에서 그들의 창의 창발성이 발휘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 실력이 더욱 높아졌으며 정서 교양과 육체 교양이 한층 강화되여 학생들이 지, 덕, 체를 겸비한 훌륭한 애국자로 자라나고 있다.

이 해에 많은 학생들이 공화국으로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입 사업을 강화한 결과 계속 4만여 명의 학생 수를 보장하였으며 《하기 학교》에는 5,000명의 학생들을 망라시켜 교양하였다.

1963년에 15 개 학교들에서 3억 1,500만원 (일화)의 자금으로 교사 건설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10 개의 학교 신축 증축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교육 시설이 전반적으로 더욱 잘 정비되였다.

재일 조선인 과학자들의 과학 연구 사업에서도 일련의 성과를 기두었는바 이해 8월에 있은 학술 연구 보고회에 15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하여 66 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사업】 1963년에도 총련은 동포 대중들이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살아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하였다. 또한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를 철저히 증오하고 반미 구국 투쟁에 힘차게 나서도록 그들을 교양하였다.

총련은 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에서 우선 사상 교양 체계를 보다 튼튼히 꾸리고 선전 교양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진행하기에 노력하였다. 1963년 7월에 있은

총련 선전원 열성자 대회는 선전 교양 사업을 더한층 높이 올려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해 말 현재 재일 동포들이 살고 있는 일본 각지에 430여 개의 조국 연구실, 1,090여 개의 강연구, 286 개의 청년 학교와 536 개의 성인 학교 등 선전 교양망이 포치되여 있다. 총련은 이 선전 교양망들에서 수 많은 선전원들과 일'군들을 발동하여 《조선 신보》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 직관물 등 다양한 선전 교양 자료들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특히 문맹 퇴치 사업이 한층 강화되였는바 성인 학교, 청년 학교를 통하여 이 해에 1 만명의 재일 동포들이 문맹을 퇴치하였다.

총련은 이 해에 동포 상공인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또와 낑끼에 경제 학원을 개설하고 3,000여 명의 상공인들에게 교양을 줌으로써 그들의 애국적 열성을 더욱 높였다. 각종 출판물들의 질적 내용이 더욱 개선되고 《조선 신보》 독자망이 확대되였다. 이 해에 총련 산하에서 발간되는 《조선 신보》를 비롯한 25종의 정기 간행물과 각종 서적 수십만 부와 조국에서 보내 준 많은 출판물이 재일 동포들 속에 정상적으로 보급되여 그들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학 예술, 체육 활동】 1963 년에 총련의 문학 예술, 체육 사업이 더욱 군중화되였으며 한층 높은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교양하며 일본 인민들에게 공화국의 새로운 모습을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조국 영화 상영 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 해에 조국에서 보내 준 45 편의 영화를 가지고 연 2,095 회 상영하여 55만 9,700여 명에게 관람시켰다.

이 해에 재일 동포들 속에서 군중 문화 사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였는바 조국의 노래와 무용을 위주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써클들을 각급 학교들과 사회 단체들에서 수 많이 조직하였다.

예술 써클 사업이 잘 된 결과 이 해에 진행된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중앙 예술 경연 대회에는 1,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해 11월에 있은 학생 예술 경연 대회에는 1,800여 명의 학생들이 115 종의 종목을 가지고 참가하여 경연 무대를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그리고 재일 동포들 속에서 조국의 노래와 무용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총련은 400여 개의 무용, 음악 테프와 새 노래집 1만부를 재일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해에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183 편의 시를 비롯하여 1,103 편의 소설, 수필, 미술, 음악, 무용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총련 시보》를 비롯한 기록 영화 등 14 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재일본 조선 중앙 예술단 예술인들은 이 해에도 일본 각지에서 202 회의 순회 공연을 하였으며 31만 5,180여 명의 관중들이 이를 관람하였다.

이 해에 총련 산하 각급 학교들과 직장들에서 체육 활동을 더욱 군중화하였다. 공화국 창전 15 주년 기념 체육 축전에서는 2,700 명의 선수들이 13 종의 경기 종목에서 이전 기록을 갱신하였다.

특히 재일 조선 축구단은 이해에도 련전 련승하여 축구단이 생긴 후 1963년말 현재 58전 55승 하였으며 도꾜 중 고급 학교 축구팀은 일본 고등 학교팀들과 50회 대전하여 매번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재일 동포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북돋아 주며 조일 량국 인민간의 친선을 두터이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 친선 강화】 재일 조선 공민들은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안을 광범한 일본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 속에 널리 알리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 및 《한일 회담》의 범죄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는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일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일본의 민주 세력은 이 해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철거를 요구하며 조선의 평화적 자주 통일을 지지하는 월간으로 정하고 투쟁하였다. 특히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줄기찬 투쟁에 호응하여 이 해에 일본 인민들은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 《안보 공투 회의》는 1963년 1—3월 기간에만도 세차례에 걸쳐 수백만 군중의 참가하에 《일한 회담》을 반대하는 전국적 통일 행동을 진행하였다.

조일 량국 간의 경제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며 인사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 실현을 위한 운동을 통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 친선과 국제적 련대는 더한층 강화되였다. 일본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40여 개의 일본의 정당, 사회 단체들은 8월에 조일 량국간의 인사 래왕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며 특히는 자기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조직체로서 《일조 왕래 실현 련락 회의》를 결성하고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 인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작하고 있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폭행 특히 재일 조선 중 고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상 행위를 조사하여

그 죄상을 날날이 폭로하였으며 이 해 9월에 법률가 단체들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 및 저명한 일본 인사들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는 사업을 협력하기 위하여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재일 조선인 단체 및 기관

재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 (총련)

1955년 5월 25일 재일 조선 민전이 발전적으로 해소되여 재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로 창립되였다. 총련은 사상, 정견, 신앙 및 사회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 승인하는 재일 조선인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전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그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공화국 정부 주위에 집결시키는 유일한 조직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오늘 총련은 51 개의 현 본부와 403 개의 지부, 2, 247 개의 분회 및 니이가다 출장소를 가지고 있다.

총련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가입하고 있다.

중앙 상임 위원회 의장 한 덕수
부의장 리 계백, 리 심철, 로 재호, 윤 봉구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
위원장 김 상권

재일본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위원장 박 정현

재일본 조선인 중앙 교육회

재일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 협회
재일본 조선 문학 예술가 동맹
재일본 조선 류학생 동맹
재일본 조선인 상공 련합회
재일본 조선인 신용 조합 협회
재일본 조선인 통일 동지회
재일본 조선인 불교도 련맹
재일본 조선인 체육 련합회
조선 신보사
재일본 조선인 언론 출판 협회
조선 통신사
구월 서방
학우 서방
조선 문제 연구소
조선 화보사
조선 중앙 예술단
조국 무역 추진 재일 조선인 위원회
동해 상사 주식 회사
조선 청년사
재일본 조선인 통신 교육 협회
조선 총련 중앙 학원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달성한 성과

△ **세계 신기록 수립자:** 신 금단 (녀자 400 메터) 51.4 초 ▶ 신 금단 (녀자 800 메터) 1 분 59. 1초 ▶ 리 홍천(력기 56 키로그람급) 용상 141 키로그람

△ **금메달 수상자:** 신 금단 륙상 (녀자 200 메터) ▶ 신 금단 륙상 (녀자 400 메터) ▶ 신 금단 륙상 (녀자 800 메터) ▶ 선 만홍 마라손 (42 키로 195 메터) ▶ 조 원락 유술 (68 키로그람급) ▶ 김 안홍 유술 (80 키로그람급) ▶ 박 창만 력기 (60 키로그람급) ▶ 한 종호 권투 (57 키로그람급) ▶ 김 용선 권투 (51 키로그람급) ▶ 김 우필 권투 (71 키로그람급) ▶ 홍 광자 수영 (녀자 400 메터 자유영) ▶ 김 관호 자유형 레스링 (63 키로그람급) ▶ 박 태현 자유형 레스링 (70 키로그람급)

△ **은메달 수상자:** 김 중일 력기 (82.5 키로그람급) ▶ 엄 정일 력기 (52 키로그람급) ▶ 리 홍천 력기 (56 키로그람급) ▶ 여 영자 자전거 (20 키로메터 도로 시간 경기) ▶ 황 관더 마라손 (42 키로 195 메터) ▶ 조 훈희 륙상 (남자 800 메터) ▶ 강 현만 륙상 (남자 1,500 메터) ▶ 박 영호 륙상 (5,000 메터) ▶ 설 여걸 자유형 레스링 (52 키로그람급) ▶ 최 원서 자유형 레스링 (57 키로그람급)

△ **동메달 수상자:** 엄 봉진 력기 (75 키로그람급) ▶ 김 영숙 륙상 (녀자 100 메터) ▶ 리 수학 륙상 (녀자 포환 던지기) ▶ 오 성환 륙상 녀자 (주고도) ▶ 림 태규 유술 (68 키로그람급) 리 기춘 륙상 녀자 (원반 던지기) ▶ 현 태빈 권투 (75 키로그람급) ▶ 김 영도 권투 (63.5 키로그람급) ▶ 김 영춘 권투 (60 키로그람급) ▶ 전 봉익 권투 (54 키로그람급) ▶ 한 준 체조 남자 (평행봉) ▶ 주 중섭 수영 (남자 100 메터 평영) ▶ 림 청자 사격 소구경 보총 엎드려 사격 (자유 선택) 50 메터, 60 발 ▶ 한 용모 수영 (남자 200 메터 나비영) ▶ 주 중섭 수영 (남자 200 메터 평영) ▶ 김 귀선 자유형 레스링 (78 키로그람급) ▶ 정 길화, 박 신일 조 (탁구 남자 복식) ▶ 한 용모 수영 (남자 100 메터 나비영)

△ **은메달 수상팀:** 자전거 남자팀 (100 키로메터) ▶ 탁구 남자팀 ▶ 배구 남자팀 ▶ 롱구 녀자팀 ▶ 축구팀

△ **동메달 수상팀:** 체조 남자팀 ▶ 체조 녀자팀(규정 종목) ▶ 배구 녀자팀 ▶ 탁구 녀자팀 ▶ 롱구 남자팀

자 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년간 주요 일지

(1948년 9월—1963년 9월)

1948년

9 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일 김 일성 수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강》 발표.

12일 김 일성 수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 경축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연설: 《모두다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민주 조선 창건을 위하여 전진하자》.

10 월

12일 조선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5일 조선과 몽고 인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6일 조선과 파란 인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21일 조선과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1 월

3일 조선과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1일 조선과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3일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3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은 민청 단체들의 기본 임무》.

29일 조선과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2 월

26일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에서 쏘련 군대 철거 완료.

1949년

1 월

2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2차 회의 진행 (1.28—2.1), 1949—1950년 2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2 월

1일 김 일성 수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2차 회의에서 연설: 《2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은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

12일 북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5차 회의 진행(12—13), 《하급 당 단체들의 9개월간 사업 총결에 관한 총화와 당 조직 사업 강화에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49년—1950년 2개년간 북조선 인민 경제 부흥 발전 계획 실시에 있어서의 당 단체들의 과업》, 《도, 시, 군, 구역 인민 위원회 대의원 선거 진행에 대한 당 단체들의 과업》을 토의.

3 월

17일 조선과 쏘련간의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30일 도, 시, 군, 구역 인민 위원회 대의원 선거.

4 월

19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3차 회의 진행(19—23).

21일 김 일성 수상,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3차 회의에서 《쏘련을 방문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

5 월

17일 조선과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6 월

25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 대회 진행(25—28).

8 월

2일 김 일성 수상,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책에 대한 조국 전선의 선언과 관련하여 중앙 신문 기자단과 담화.

9 월

8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4차 회의 진행(8—10),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채택.

9일 김 일성 수상,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4차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립 1주년》에 대하여 보고.

22일 항일 빨찌산 투사이며 김 일성 동지의 가장 친근한 전우인 김 정숙 동지 서거.

10 월

6일 조선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1 월

7일 조선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2 월

1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 (15—18).

1950년

1 월

25일 김 일성 동지, 농림, 수산 부문 지도 일'군 련석 회의에서 연설: 《농촌 경리와 림업, 수산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31일 조선과 월남 민주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2 월

8일 국영 농기계 임경소 설치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21일 김 일성 동지, 교통성 산하 종업원 및 교통 로동자 직업 동맹 열성자 련석 회의에서 연설:

《2 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서의 교통 운수 부문 일'군들의 임무》.

25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5차 회의 진행(2.25—3.3).

28일 김 일성 수상,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연설: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할 데 대하여》.

4 월

1일 국립 건설 자금 은행 창립.

6 월

25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공화국 북반부를 무력 침공, 이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개시.

26일 김 일성 동지께서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방송 연설.

27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전시 상태에 관한 정령 발표.

7 월

4일 김 일성 동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함에 관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발표.

8일 김 일성 동지, 인민 군대와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미제의 무력 침략을 격퇴할 것을 호소.

9 월

8일 혁명 투사이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인 강 건 동지 서거.

10 월

11일 김 일성 동지 방송 연설: 《조국 해방 전쟁의 전략적 제 2 단계와 관련하여》.

25일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기치 밑에 중국 인민 지원군 조선 전선에 참가.

12 월

2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3차 전원 회의 진행(21—23),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현 정세와 당면 과업》.

1951년

1 월

13일 유자녀 학원을 설치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제192호 채택.

17일 남북 조선 민청 중앙 위원회 련합 회의 진행.

19일 남북 조선 녀맹 합동 중앙 위원회 진행.

20일 남북 조선 직맹 중앙 위원회 련합 회의 진행.

31일 불굴의 혁명 투사 김 책 동지 서거.

6 월

30일 김 일성 동지 종견 작가들을 접견하시고 《전체 작가 예술인들에게》 교시.

7 월

10일 정전 및 휴전 회의 정식 회의 개시.

11 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차 전원 회의 진행(1—4),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당 단체들의 조직 사업에 있어서 몇가지 결점들에 대하여》.

30일 김 일성 동지, 보건 일'군들과의 접견 석상에서 연설: 《전시하에 있어서 보건 일'군들의 당면 임무》.

12 월

16일 김 일성 동지 문학 예술인들과의 접견 석상에서 연설.

1952년

2 월

1일 김 일성 동지, 도, 시, 군 인민 위원장 및 당 지도 일'군 련석 회의에서 연설: 《현 계단에 있어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4 월

4일 김 일성 동지, 내무 기관 내 간부들과 정치 일'군들 앞에서 연설.

6 월

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배우, 공훈 배우 및 공훈 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발표.

11 월

13일 무상 치료제를 실시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203호 채택.

12 월

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개원식 진행.

1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 진행 (15—18),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로동당의 조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22일 공화국 북반부의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에 관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발표.

1953년

2 월

7일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 일성 동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민족 보위상 최 용건 동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발표.

7 월

27일 조선 정전 협정 체결.

8 월

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 진행(5—9),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10 월

23일 조선과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간에 경제 및 기술 협정 체결.

11 월

23일 조선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에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2 월

18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7차 전원 회의 진행(18—19).

20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6차 회의 진행(20—22),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형제 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

1954년

3 월

2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21—23), 회의에

서 김 일성 동지 보고: 《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결함들과 그 시정 대책에 대하여》.

4 월

20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7차 회의 진행(20—23),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1954—1956) 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5 월

6일 김 일성 동지, 전국 림업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연설: 《전후 복구 건설에서 림업 부문 일'군들의 과업에 대하여》.

11일 김 일성 동지, 교통 운수 부문 모범 일'군 회의에서 연설: 《교통 운수 부문 일'군들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7 월

12일 김 일성 동지, 함경 북도 당 열성자 회의에서 연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함경 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30일 남 일 외무상, 재일 조선인을 오무라 수용소와 기타 각지 수용소에 불법 수용하여 박해를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여 성명 발표.

10 월

28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8차 회의 진행(28—30),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토의,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 채택.

11 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1—3), 김 일성 동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결론.

12 월

19일 김 일성 동지, 조선 로동당 평안남도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평안남도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연설.

1955년

3 월

9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9차 회의 진행(9—1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54년 국가 예산 집행 결산과 1955년 국가 예산에 관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간부의 대량적 양성과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 준비에 관하여》 토의.

4 월

김 일성 동지,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발표.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1—4),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당원들의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4일 김 일성 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결론: 《사회주의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12일 미제와 리 승만 통치를 반대하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을 보호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채택.

8 월

14일 김 일성 동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8.15 해방 10주년 경축 대회에서 보고.

12 월

2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2—3),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로동당의 금후 투쟁 대책에 관한 당 중앙 위원회 11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 정형에 대하여》, 《조선 로동당 제 3 차 대회 소집에 대하여》 토의.

20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10 차 회의 진행(20—22),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토의.

28일 김 일성 동지 당 선전 선동 일'군들 앞에서 연설: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1956년

1 월

30일 김 일성 동지,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연설: 《건설 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

3 월

2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 참가하였던 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의 귀환 보고 청취.

4 월

7일 김 일성 동지, 평안북도 당 대표회에서 연설: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23일 조선 로동당 제 3 차 대회 진행 (23—29), 의정 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② 《조선 로동당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③ 《조선 로동당 규약 개정에 관한 보고》 ④ 《당 중앙 기관들의 선거》, 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언 채택.

5 월

31일 조선 인민군 병력 8만 명을 축소할 데 관한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6 월

20일 일본에서 귀국하는 조선 공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데 관한 내각 명령 제53호 채택.

8 월

1일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

3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30—31), 《형제적 제 국가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사업 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

11 월

7일 최고 인민 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 진행(5—7), 남북 조

선의 군비를 축소하며 남북간의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조선에서 전쟁 발발을 방지할 데 대하여, 남조선 《대한 민국 민의원》과 남조선 사회계에 호소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 채택.

12 월

4일 공화국 정부, 매국적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반대하여 성명 발표.

1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11—13),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 관한 문제를 토의.

28일 김 일성 동지, 강선 제강소 로동자들과의 담화 석상에서 교시: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최대한의 절약과 증산을 보장할 데 대하여.

1957년

1 월

21일 김 일성 동지, 평안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연설: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2 월

14일 김 일성 동지,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연설: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3 월

26일 김 일성 동지, 함경남도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연설: 《함경남도 당 단체들의 과업》.

4 월

18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18~19),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토의.

5 월

7일 내각에서 남조선 절량 농민들에게 구호미 10만 석을 무상으로 제공할 데 관한 결정 제143호 채택.

11일 김 일성 동지, 함경북도 당, 정권, 사회 단체 및 경제 기관 일'군들 앞에서 연설.

12일 김 일성 동지, 청진 철도 관리국 산하 지도 일'군들 앞에서 연설.

6 월

1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남북 조선 유일 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여 《대한 민국》 올림픽 위원회에 전문을 발송.

7 월

5일 김 일성 동지,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연설: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

8 월

25일 김 일성 동지, 송도 정치 경제 대학 제1회 졸업식에서 연설.

27일 제2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9 월

11일 기계 공업 부문 전국 열성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기계 공업의 발전은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열'쇠이다》.

18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진행(18—20),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선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조직.

20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 정권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10 월

17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17—19), 19일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결론: 《전설 부야에서 당 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

3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유엔 총회 제12차 회의 전원 회의에서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정을 또다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12 월

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 진행(5—6),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

13일 김 일성 동지,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에서 연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18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제2차 대회(18—19)에서 호소문—《전국 동포들에게 고함》을 채택.

1958년

1 월

29일 김 일성 동지, 경공업성 열성자 회의에서 연설: 《경공업의 금후 발전을 위하여》.

2 월

4일 김 일성 동지, 전기성 제3차 열성자 회의에서 연설: 《전기 공업 부문의 과업에 대하여》.

8일 김 일성 동지, 조선 인민군 324 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연설: 《조선 인민군은 항일 무장 투쟁의 계승자이다》.

17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2차 회의 진행(17—19).

3 월

3일 조선 로동당 제1차 대표자 회의 진행(3—6),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에 관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

6일 조선 로동당 제1차 대표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결론: 《제1차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7일 김 일성 동지, 도, 시, 군 당 위원장들과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연설: 《당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19일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

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4 월

20일 김 일성 동지, 흥남 질안 공장 조업식에서 연설.

29일 김 일성 동지, 전국 사법 검찰 일'군 회의에서 연설: 《우리 당 사법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5 월

10일 혜산시 군중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량강도 인민들의 투쟁 업적과 앞으로의 과업에 대하여》.

11일 김 일성 동지, 량강도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연설: 《량강도 당 단체들의 과업》.

6 월

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 (5—7), 7일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결론: 《인민 소비품 생산을 확대하며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9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3차 회의 진행(9—11), 제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 채택.

11일 김 일성 동지,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3차 회의에서 연설: 《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23일 김 일성 동지, 평북도 내 당, 정권 기관 일'군 회의에서 연설.

8 월

9일 김 일성 동지, 시,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습회에서 연설: 《시, 군 인민 위원회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12일 김 일성 동지,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개통식에서 축하 연설.

18일 김 일성 동지, 중앙 당 학교 3년제반 제1기 졸업식에서 연설.

21일 공화국 내각에서 미제 강점하에 신음하는 남반부 실업자들과 고아들을 구제할 데 대한 결정 제96호 채택.

30일 김 일성 동지, 수풍 발전소 복구 개건 공사 준공식에서 연설.

9 월

8일 김 일성 동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보고.

16일 김 일성 동지, 전국 생산 혁신자 대회에서 연설: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2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26—27), 《발 관개 및 논 관개 면적을 더욱 확장할 데 대하여》, 《금속 공업 발전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토의,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10 월

1일 최고 인민 회의 제2 기 제4차 회의 진행(1—2),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한 법령 채택.

8일 조선과 기니아 공화국간에 외교 관계 설정.

11일 농업 협동 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125호 채택.

26일 중국 인민 지원군, 조선으로부터의 완전 철거를 발표.

11 월

1일 력사적인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

14일 뜨락또르 《천리마》호를 생산.

18일 화물 자동차 《승리》호를 생산.

20일 김 일성 동지, 전국 시, 군당 위원회 선전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12 월

19일 불도젤 《붉은별 58》형 생산.

25일 김 일성 동지, 평양시 건설자 대회에서 연설: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959년

1 월

5일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 진행(5—9), 김 일성 동지 보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

9일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결론: 《농촌 경리의 당면한 과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26일 공화국 북반부에로 넘어 오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줄 데 대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발표.

2 월

12일 공화국 내각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데 관한 결정 제11호 채택.

21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5차 회의 진행(19—21), 농업 현물세에 관한 법령 채택.

2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23—25), 《쏘련 공산당 림시 제21차 대회에 대하여》, 《공업 제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 《교통 운수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당 사업에 대하여》 토의.

26일 김 일성 동지, 생산 기업소 당 조직원 및 당 위원장들, 도, 시, 군 당 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연설: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3 월

2일 공화국 내각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데 관한 결정 제118호 채택.

7일 강선 제강소에서 진 응원 작업반원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기.

23일 김 일성 동지, 함북도 당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연설: 《함경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5 월

4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4—6)에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결정.

22일 공화국 정부에서 리 승만

도배가 《이민》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길에 들어선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6 월

11일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수산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27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27—30),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전기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토의.

8 월

13일 인도 카르캇타에서 조선 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사 간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조인.

3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우리 나라의 현존 공업 관리 체계를 개편하며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1960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하여》 토의.

9 월

4일 황해 제철소 당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

23일 남반부의 리재민들을 구제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60호 채택.

10 월

12일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열성자 대회(12—15)에서 김 일성 동지 결론: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26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6차 회의 진행(26—28),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하여》, 《인민 교육 체계를 개편할 데 관하여》 토의, 《대한 민국 민의원》 및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

11 월

14일 황해남도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황해남도의 사업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2 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1—4) 진행, 《1960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지방 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경제림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성할 데 대하여》 토의.

4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결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16일 재일 동포들의 첫 귀국선 청진항에 도착.

17일 농촌 기계화 선구자 대회 진행(17—19).

1960년

2 월

8일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평남도 강서군 청산리 당 총회(8—9) 진행, 김 일성 동지 연설: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18일 김 일성 동지,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연설: 《새 환경에 적응하게 군당 단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25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7차 회의 진행(25—27),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58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0년 국가 예산에 관하여》,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하여》 토의.

3 월

2일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결성.

4 월

1일 우리 당과 인민의 우수한 아들이며 김 일성 동지의 가장 충직한 전우의 한 사람인 박 달 동지 서거.

2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남조선에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고함》을 발표.

27일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련석 회의에서 남조선에 조성된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성명 발표.

8 월

8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 진행(8—11),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국가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에 참가하였던 조선 로동당 대표단의 사업에 대하여》 토의.

14일 8.15 해방 15 주년 경축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보고.

22일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29일 조선과 꾸바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9 월

1일 비날론 공장 건설 관계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현대적 화학 공업 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28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국가 대부금과 미납곡을 면제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47호 채택.

10 월

31일 조선과 말리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11 월

19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진행(19—24),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촉진시킬 데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 실행 총화에 대하여》 토의, 《대한 민국 국회 및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편지》와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데 대한 의견서》를 채택.

12 월

2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 진행(20—23), 《1960년도 농촌 경리 부문 사업 총화와 1961년도 과업에 대하여》, 《1961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사업에 대하여》 토의.

1961년

1 월

12일 평양시 당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교시: 《평양시가 혁명의 수도, 민주 수도, 사회주의 수도답게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데 대하여.》

23일 평양시 승호 구역 리현리 당 총회(23—24)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당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단결시키는 것이다》.

3 월

7일 전국 로농 통신원 열성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교시: 《전체 당원들과 민청원들이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교양 개조할 데 대하여》.

2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20—22),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 소집에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의 실행 정형과 금후 과업에 대하여》, 《각 부문의 기본 건설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토의. ▶남반부의 절량 농민들을 구호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42호 채택.

23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9차 회의 진행(23—2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59년 및 1960년 국가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과 1961년 국가 예산에 관하여》 토의.

4 월

7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 진행, 《전국의 산들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뽕밭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데 대하여》 토의.

14일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촉진시킬 데 관한 내각 결정 제61호 채택.

25일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청 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28일 전국 림업 부문 열성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교시: 《목재의 종합적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에 대하여》.

5 월

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무상, 남북 학생들이 회담할 것을 제의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7일 2.8 비날론 공장 준공과 5.1절 경축 함흥시 군중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화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13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결성.

6 월

7일 전국 보건 일'군 열성자 대회 진행(7—9), 《보건 부문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보고.

12일 화학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무연탄 가스화를 시급히 도입 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제99호 채택.

7 월

6일 조선과 쏘련 간에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11일 조선과 중국 간에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9 월

11일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 (11—18) 진행, 의정 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② 조선 로동당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총화 ③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7개년(1961—1967) 계획에 대하여 ④ 조선 로동당 중앙 지도 기관 선거.

10 월

5일 김 일성 동지 참석 하에 강원도 내 당 및 정권 기관과 사회 단체, 경제 문화 기관 일'군들과의 협의회 진행.

10일 김 일성 동지, 리현 농업 협동 조합 현지 지도.

11 월

15일 전국 어머니 대회 진행 (15—17), 김 일성 동지 교시: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여 자녀들을 더 훌륭히 양육할 데 대하여.

27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진행(11.27—12.1), 《쏘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 로동당 대표단의 사업에 대하여》, 《1962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농촌에서 60만 동의 문화 주택을 건설할 데 대하여》 토의.

12 월

6일 김 일성 동지, 대안 전기 공장 현지 지도(6—16).

22일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를 조직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 157 호 채택.

1962년

2 월

15일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범죄적 《한일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5일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박 정희 도당의 범죄적 《이민》 책동과 관련하여 공화국 남반부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3 월

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진행 (6—8). 《청산리와 강서군 당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을 위한 황해남도 당 조직들의 사업 정형에 대하여》 토의.

4 월

5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10 차 회의 진행.

6 월

20일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 진행(20—21).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토의.

24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발표.

8 월

7일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 진행 (7—8), 산간 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정형에 대하여 보고.

10 월

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22일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진행(22—23).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선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 조직, 김 일성 동지 연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11 월

8일 김 일성 동지 참석 하에 대안 전기 공장 당 위원회 확대 회의 진행.

12일 김 일성 동지 참석하에 평안남도 내 당 및 농촌 경리 일'군 협의회 진행.

2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비망록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를 발표.

29일 출판 보도 부문 일'군들에 대한 3.1월간 사을 제정함에 관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발표.

12 월

1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 진행 (10—14),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1962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와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토의.

1963년

1 월

14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남조선에서 군사 통치를 연장하려는 책동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3 월

2일 우리 나라와 우간다 간에 외교 관계 설정.

9일 우리 나라와 예멘 아랍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5 월

9일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2차 회의 진행(9—1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62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3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토의.

1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 회의 진행(13—15),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

6 월

2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과 중화 인민 공화국 류 소기 주석의 공동 성명 북경에서 발표.

28일 남반부의 전재민들과 풍수해 리재민들을 구제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제 40 호 채택.

7 월

15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문제와 관련한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25일 공화국 외무성, 미제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폭로하여 비망록 발표.

8 월

13일 김 일성 동지 참석하에 량강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13—15), 량강도에 대한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에 기초하여 도내 농촌 경리와 림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토의.

9 월

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진행(3—5),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대한 예비적 총화와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 토의,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 기구

국 제 기 구 명		가입 년월일	소 재 지
1. 국제 민주 녀성 련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1946. 10	베를린
2. 세계 직업 련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1947. 5	쁘라가
3. 세계 민주 청년 련맹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s	1947. 6	부다페스트
4. 국제 학생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	1948. 6	부다페스트
5. 세계 평화 리사회	World Council of Peace	1949. 4	스톡홀름
6. 국제 금속 및 기계 공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Metal and Engineering Industries	1949. 6	쁘라가
7. 국제 방직, 피복, 피혁 및 모피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Textile, Clothing, Leather and Fur Workers	1949. 6	쁘라가
8. 국제 광산 로동자 직업 련맹	Miners Trade Union International	1947. 7	파리
9. 국제 건축 목재 및 건축 자재 공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the Building, Wood and Building Materials Industries	1947. 7	헬싱키
10. 국제 교원 직업 련맹	World Federation of Teacher's Unions	1949. 3	파리
11. 국제 식료, 연초, 음료 공업 및 호텔, 카페, 레스트란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Food, Tobacco and Beverage Industries and Hotel, Cafe and Restaurant Workers	1949. 11	쏘피야
12. 국제 농업 및 림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Workers	1949. 12	쁘라가
13. 국제 기자 동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	1950. 1	쁘라가
14. 국제 화학 및 석유 공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Chemical, Oil and Allied Workers	1950. 3	부다페스트
15.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 옹호 련락 위원회	Peace Liaison Committee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s	1952. 10	북경
16. 국제 운수, 항만 및 어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Transport, Port and Fishery Workers	1955. 3	쁘라가
17. 철도 협조 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1956. 6	와르샤와
18. 국제 라지오 텔레비죤 방송 기구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	1954. 11	쁘라가
19.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1955. 4	브류쎌(벨기)
20. 국제 공무원 및 종업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Public and Allied Employees	1955. 5	베를린

국 제 기 구 명		가입 년월일	소 재 지
21. 국제 모성 상설 위원회	Perman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Mothers	1955. 7	베를린
22. 국제 건축가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1955. 7	파리
23. 국제 배구 련맹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	1956. 12	파리
24. 적십자사 련맹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1956. 5	제네바
25. 사회주의 국가 규격 기관 대표 회의	Совещание по обменУ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соц стран	1956. 5	쁘라가
26.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Комиссия п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	1956. 6	북경
27. 국제 사격 련맹	International Shooting Union	1956. 10	와이스 바덴(서독)
28. 국제 아마츄 롱구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Basketball Federation	1956. 12	뮨헨
29. 국제 탁구 련맹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1957. 3	웰즈(영국)
30. 련합 원자 핵 연구소	Объединённый Институт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1956. 12	두브나
31. 세계 과학자 련맹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	1956. 12	런던
32. 국제 아마츄 권투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Boxing Associations	1957. 4	런던
33. 국제 빙상 련맹	International Skating Union	1957. 6	다보스(서서)
34. 사회주의 국가 농업 및 림업 부문 과학 사업 조성 위원회	Комитет по kooрдинации научных Работ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1956. 10	쏘피야
35. 국제 축구 련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1957. 6	쮸리히(서서)
36. 국제 지구 물리학 년도 특설 위원회	Comite Special De l'Annee Geophysique Internationale	1957. 7	파리
37. 국제 항공 련맹	International Aeronautical Federation	1957. 9	파리
38.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The Organization for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1957. 12	카이로
39. 국제 인형극 련맹	International Marionette Union	1957. 12	쁘라가
40. 친선 군대 체육 위원회	Спортивный Комитет Дрдественной Армий	1958. 3	모쓰크바
41.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ц. Стран в Области Элетрическoй и полтовой связи	1957. 12	
42. 국제 체조 련맹	International Gymnastic Federation	1958. 7	벨그라드
43. 국제 아마츄 레스링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Wrestling Federation	1958. 7	파리
44.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Afro-Asian Writers Conference	1958. 10	콜롬보
45. 국제 과학 동맹 리사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	1959. 4	런던

국 제 기 구 명		가입 년월일	소 재 지
46. 세계 평화 운동 에스페란트 협회	world Esperantist Association of Peace Mpvement	1959. 5	플렌(오지리)
47. 국제 상업 일'군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Workers in Commerce	1959. 6	쁘라가
48. 국제 력기 련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Weightlift	1959. 9	파리
49. 국제 자전차 동맹	International Cyclist's Union	1959. 3	파리
50.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Afro-Asi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1960. 5	카이로
51. 국제 항결핵 동맹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1690. 9	파리
52. 국제 영화 알히브 동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1960. 10	파리
53. 국제 천문학 동맹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1961. 8	크리니치 천문대(영국)
54. 국제 궁술 련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Archery	1961. 8	런던
55. 국제 영화 기술 협회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Techrical, Cinematographic Association	1961. 9	파리
56. 국제 과학 영화 협회	International Scientific Film Association	1961. 9	파리
57. 국제 올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1962. 6	로잔느
58. 국제 아마취 륙상 경기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Athletic Federation	1962. 9	런던
59. 아세아 경제 세미나르	Asian Economic seminar	1962. 11	콜롬보
60.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Afro-Asian Journalist Association	1963. 4	쟈카르타
61. 국제 자연 및 자연 부원 보호 동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63. 5	브류셀
62. 국제 규격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1963. 6	제네바
63. 국제 빙상 혹케이 련맹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1963. 8	런던
64.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항만 로동자 대회	Port Workers Conference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s	1963. 10	
65. 국제 전기 공학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963. 10	제네바
66. 가네포 련맹	Federation of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1963. 11	쟈카르타
67. 국제 요트 련맹	International Yacht-racing Union	1963. 12	런던
68. 국제 아마취 수영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Swimming Federation	1963. 12	도꾜

기상 개관

1963년도 기상 조건은 례년에 보기 드문 일련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월에는 매우 추웠고 농작물의 생육기인 봄철과 여름철에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으나 11—12월에는 대단히 따뜻하였다. 또한 봄철과 여름철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려 4—5월과 7월의 강우량은 대부분 지방에서 례년의 2배에 달하였다. 따라서 봄과 여름에 흐린 날이 많았으며 일조률이 매우 낮았고 평년에 비해 농작물 생장 기간의 적산 온도도 100~200도나 낮았다.

【기온】 년 평균 기온은 가장 높았던 지역에서 10.5도 정도였으며 백두 고원의 해발 1,000메터 이상에서는 령하로 내려 갔다. 례년에 비해 남부에서는 0.4도 정도 낮았고 북부에서는 0.4도 정도 높았다.

년 평균 기온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황해남도와 강원도의 남부 해안 지대에서 10도 이상이였으며 동서 해안의 평지대에서는 8~9도,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커서 2~6도였다.

최고 기온은 여름철에 오래 계속된 장마로 말미암아 높지 못하였고 년간 최고 극 기온은 28~33도였다. 최고 극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북부 지역으로서 무산 34.7도, 신의주 33.5도였다. 년간을 통해서 기온이 높았던 원산에서는 33.2도, 평양에서는 32.7도였다. 북부 고산 지대에서도 비교적 높아서 백암 25.9도, 삼지연 28.5도였다.

최저 극 기온은 —15~—35도로 평년과 같았다. 이것을 지대별로 보면 동해안 남부 해안 지대에서 —15~—17도, 서해안 남부 지대에서 —17~—19도였다. 최저 극 기온은 해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바다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급격히 낮아져 지역적 차이가 매우 컸다. 가장 낮았던 곳은 북부 고산 지대로서 삼지연—35도, 혜산—34도였다. 평양의 최저 극 기온은—22.4도였다.

1963년 기온에서 몇 개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1월의 강추위: 몽고 지방으로부터 매우 한랭한 공기가 련속적으로 우리 나라에 강하게 흘러 들어 개인 날씨가 오래 계속되고 일조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기온이 북부 내륙 지방을 제외한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2~4도 정도 낮았다.

뿐만 아니라 해가 쪼이는 낮 동안에도 기온은 올라가지 못하고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적었다.

이러한 추위는 1905년 이후 1922년과 1945년 1월에 있었던 것으로 20년 만에 1차 정도 있은 추위 였다.

1월 평균 기온의 평년과의 차이

1963년 1월	평 년	차
신 의 주 —11.2	—9.0	—2.2
평 양 —12.1	—8.3	—3.8
원 산 —7.6	—3.8	—3.8
김 책 —7.9	—5.2	—2.7
중 강 —20.7	—20.4	—0.3

5월—7월의 낮은 온도: 이 기간에 우리 나라 부근에 저기압과 전선의 활동이 심했고 남과 남동 방향으로부터의 기류의 발달이 왕성하지 못하여 열대 지방의 공기를 가져오지 못한 까닭에 5월—7월 기온이 낮았다.

5—7월 기온의 편차(평년 기온 대비)

	5월	6월	7월
신의주	—0.0	—0.1	—0.6
평 양	—0.5	—0.5	—0.5
원 산	—1.4	—0.8	—0.2
김 책	—1.0	—0.9	—0.9

12월의 높은 온도: 몽고 지방의 고기압이 우리 나라에까지 뻗지 못했고 그와는 반대로 남과 남서 기류는 례년의 배 정도 불었다. 따라서 12월은 례년에 보기 드문 정도로 따뜻했다.

12월 평균 기온과 평년과의 차

1963년 12월	평 년	차
신의주—3.4	—5.5	+2.1
평 양—2.0	—4.2	+2.2
원 산—1.6	—0.2	+1.8
김 책—0.2	—1.8	+1.6
중 강—1.41	—15.1	+1.0

【적산 온도】 1963년도 적산 온도는 평년에 비해 약간 낮았다.

5도 이상의 일 평균 기온이 시작된 날'자는 평년에 비해 남부에서 5일 정도 늦었으며 북부에서는 10~20일이 빠른 4월 10일로서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해발 800메터 이상되는 지역들에서는 높이에 따라 그 날'자가 늦어져 1,000 메터 이상 지대에 이르러서는 평지대보다 한 달이 늦었다. 이러한 현상은 4월 상순에 비가 계속 내리여 기온이 높아지지 못하다가 4월 중순에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 평균 5도 이상 온도의 마지막 날'자는 높은 지대에서 9월 말—10월초, 동서 해안의 평지대 및 중간 지대들에서는 11월 7일로 평년에 비해 약간 늦은 편이였으며 특히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15~20일이 늦었다.

일 평균 기온 5도 이상의 적산 온도는 평년보다 100~200도가 적어서 가장 많았던 서해안 남부 평지대에서 3,800도 중간 지대들에서 3,200~3,300도 북부 내륙의 높은 지대에서 2,000~2,600도였다.

일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간 날'자는 해발 500 메터 이하에서 5월 5~8일이였으며 높은 지대에서는 6월 상순이였다.

마지막 날'자는 평지대에서 10월 중순과 높은 지대에서 9월 중순이였다.

10도 이상의 적산 온도는 평지대에서 3,300도~3,500도, 북부내륙 지방에서는 2,400~2,700도, 고산 지대에서 1,500도 이하였다.

【서 리】 **마지막 서리:** 평년에 비해 일찍 끝났다. 즉 서해안에서 15일, 동해안에서는 10일 정도 일찍 끝났으며,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첫 서리: 례년에 비해 서해안에서는 한 주일, 동해안에서는 15일 정도 일찍 내렸으며 북부 내륙 지방에서 평년과 같았다.

주요 지점의 서리

	마지막 서리 (봄)		첫 서리(가을)		서리 없는 기간		
	1963년	평 년	1963년	평 년	1963년	평년	차
신의주	4.10	4.21	10.5	10.11	177	172	+5
평 양	4.9	4.23	10.7	10.12	180	171	+9
원 산	4.7	4.5	10.5	10.24	180	201	−21
중 강	5.15	5.12	9.23	9.26	162	168	−6

【강 수】 1963년의 년 강수량은 (량강도와 함경북도, 제외) 례년의 1.3~1.7 배였다. 비가 많이 내린 시기는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으로 특히 봄비가 많이 내렸으며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4~6월 강우량이 평년의 2~3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8월의 강수량은 (함경북도의 웅기 지방 제외) 전반적 지역에서 례년의 절반 정도였다.

1963년에 강수량은 북위 40도 이남 지역에서 현저히 많았으며 그 이북에서는 평년 정도였다.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동강과 청천강의 중류 및 상류 지역으로서 1,900~2,100미리였다(북창 2,100미리, 덕천 2,088 미리, 향산 1,955 미리). 강원도의 높은 지대와 개성 지구를 련결하는 지역에서도 년 강수량이 1,600미리 이상이였다(세포 1,884미리, 이천 1,603미리, 개성 1,625미리). 일반적으로 서해안에서는 비가 많이 왔으며 강수량이 매우 적기로 알려진 대동강 하구에서도 1,200미리 이상이였다 (남포 1,340미리, 광량만 1,274미리,). 자강도와 동해안 남부 지역은 (원산 제외) 1,000~1,300미리로서 이는 평년보다 약간 많은 정도였다.

량강도와 합경북도는 년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지방으로서 400~700미리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적었던 지역은 량강도의 중앙부 (갑산 432미리, 혜산 510미리)와 함경북도의 북부 내륙 (무산 439미리, 회령 517미리)지방이였다.

그러나 백무 고원에서는 년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다. 삼지연에서는 956 미리였으며 백두산 꼭대기에서는 1,500 미리를 초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년 강수 일수는 100~150일로 평년 정도 였으나 4—5월에 현저히 많았던 반면에 8월에는 매우 적었다.

강수일 수가 특별히 많았던 지역은 고산 지대인 세포 145일, 백암 141일, 삼지연 180일이였으며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덕천, 북창 지방은 120일 정도였다. 비가 비교적 많았던 평양은 90일, 원산은 101일로서 년간 강수일 수는 적은 편이였다. 년 강수 일수는 강수량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평지대에서 적었고 고산 지대에서는 많았다.

함북 지방의 4—6월 강우량
(단 위)

	4월	5월	6월	합계	평년	%
청 진	12	18	17	47	148	32
회 령	20	12	30	62	149	41
무 산	23	17	41	81	171	48

【장마와 폭우】 1963년도의 장마철은 대부분 지역들에서 6월 말에 시작되여 9월 초에 끝났다. 그러나 북부 내륙 지방과 동해안 남부에서는 6월 상순 또는 6월 중순에 이미 장마철에 들어섰다. 6—7월 특히 7월에 매우 많은 비가 내렸으나 8월에는 극히 적었다.

7월 12일부터 시작된 비는 근 20일간 계속되였으며 이 기간에 내린 비는 많았던 곳에서 600~800미리로서 강수량이 적은 해의 1년 분에 해당할 정도였다.

가장 심했던 지방은 덕천, 북창으로서 13 일간에 700미리의 비가 내렸다. 이와 같이 심한 장마는 최근 수십년래에 처음보는 것으로서 하루 사이에 200미리 이상의 비가 내린 곳도 있다.

4—5월의 강우량과 강우 일수
강수량 (단위 MM)

	4 월						5 월					
	강 우 량			강우 일수			강 우 량			강우 일수		
	1963년	평년	%	1963년	평년	차	1963년	평년	%	1963년	평년	차
신의주	90	48	187	14	6	+8	76	80	95	13	10	+3
평 양	130	44	308	13	6	+7	141	65	217	12	9	+3
사리원	107	39	274	12	6	+6	156	67	233	9	8	+1
개 성	230	68	338	18	7	+11	172	108	159	16	9	+7
원 산	130	66	199	10	9	+1	164	85	194	10	10	0
함 흥	122	42	291	9	6	+3	72	56	129	10	8	+2

7—8월의 강우량과 강우 일수(단위 MM)

	7 월				8 월			
	강우량		강우 일수		강우량		강우 일수	
	963년	평년에 대한 %	1963년	평년과 의 차	1963년	평년에 대한 %	1963년	평년과 의 차
신의주	766	259	22	+6	31	11	6	—6
평 양	764	306	18	+4	54	23	6	—8
해 주	465	148		+4	94	39	8	—5
원 산	560	198	22	+4	·264	85	15	—4
김 책	212	189	19	+4	118	73	10	—2
중 강	342	179	23	+5	161	93	16	0

심한 장마

	기 간	강우 일수	강 우 량
신 의 주	7.15—7.26	12	514.6
평 양	7.12—7.31	20	667.9
덕 천	7.15—7.27	13	731.4
북 창	7.15—7.27	13	772.9
신 계	7.12—8.1	21	732.7
세 포	7.15—7.31	17	582.3
함 흥	7.15—7.21	7	390.0
혜 산	7.12—7.16	5	65.2
강 계	7.12—8.2	22	344.0

【구름과 일조】 **흐린날:** 흐린 날은 4—7월에 많았다. 4—5월 및 7월에의 흐린 날을 평년과 대비하면 별표와 같다.

일조률: 우리 나라에서 일조 조건은 겨울철에 가장 좋고 여름철에는 매우 나쁜것이 통례인데 1963년에는 비교적 조건이 좋은 시기인 봄철에 매우 나빴던 반면에 조건이 나쁜 시기인 8월에 비교적 좋았다.

일조률이 가장 높았던 달은 2월로서 60~80% 정도였으며 가장 낮았던 7월의 일조률은 30%를 초과한 지역이 거의 없었다. 특히 일조률이 낮았던 지역은 동해안 북부와 서해안의 남부 해안지대로서 20% 이하였다 (청진 19.6%, 해주 17.8 %).

폭 우

	1일	2일간
구 성	150.6	251.0
평 양	147.0	216.2
덕 천	216.3	293.6
북 창	294.6	357 6
신 계	204.6	276.7
원 산	185.2	213.5
혜 산	33.6	50.0
강 계	86.5	101.4

흐린 날

	4월	5월	7월	합계	평년과의 차
신의주	14	12	20	46	+5
평 양	15	17	20	52	+15
해 주	17	18	22	57	+18
원 산	15	11	20	46	+4
김 책	10	5	20	35	—8
중 강	13	6	22	41	+1

1963년 일조률(%)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년
신의주	75.2	82.1	67.1	49.8	55.0	49.7	30.2	60.9	67.3	65.1	55.4	55.2	58.1
구성	75.8	77.7	64.7	48.3	57.5	56.0	28.6	65.4	68.1	68.7	48.4	55.6	58.5
평양	69.6	69.7	59.6	36.8	41.1	51.6	24.9	52.9	54.5	57.0	47.1	47.5	49.8
양덕	62.9	61.8	52.9	40.1	49.9	47.8	25.0	48.0	49.1	52.6	42.7	43.0	47.2
남포	70.7	72.9	63.2	42.1	42.6	56.5	24.0	58.7	59.6	67.7	52.2	46.0	53.5
사리원	69.7	72.8	60.8	40.4	41.3	47.1	27.5	55.4	64.9	66.8	54.4	44.6	53.8
해주	74.1	74.7	58.7	35.3	40.0	37.9	17.8	55.7	61.0	73.5	58.2	53.7	52.9
개성	75.1	75.9	62.9	39.4	43.6	42.6	23.2	52.0	60.1	67.8	50.0	47.9	51.8
세포	64.4	60.5	59.3	39.7	45.9	50.6	24.0	46.2	62.1	69.9	49.3	43.7	50.3
원산	77.2	76.1	59.3	48.0	60.0	40.4	34.1	48.5	62.5	63.5	68.5	64.3	
함흥	71.0	67.7	56.5	42.5	55.3	30.3	27.8	45.4	56.4	65.0	66.6	62.7	53.9
장진	70.5	73.3	61.7	46.5	59.5	46.8	28.5	45.6	50.6	54.8	45.6	55.8	53.3
김책	64.7	57.0	63.6	44.3	55.7	31.1	23.8	30.2	59.7	60.8	62.3	54.0	48.9
청진	55.9	66.0	61.9	50.4	58.2	28.7	19.6	31.1	50.9	64.2	50.5	49.3	47.3
백암	68.0	73.6	66.9	55.4	65.4	57.4	40.6	52.6	50.4	62.6	57.8	60.7	58.5
혜산	65.6	77.5	69.7	54.2	64.7	51.1	31.9	47.7	42.7	55.7	52.2	58.8	55.0
강계	54.8	66.0	59.7	49.5	58.4	55.9	25.8	48.3	48.6	51.7	42.1	44.9	50.5
중강	42.0	68.5	59.9	45.7	55.2	44.9	22.7	38.7	37.5	51.7	41.0	43.2	45.9
신계	67.2	68.4	59.5	40.3	42.8	44.4	23.4	46.6	61.2	66.7	49.4	42.3	51.0

1963년 강수량(MM)및 강수 일수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년	강수일수
신의주	6.9	6.8	14.5	89.7	75.7	26.6	765.6	31.2	173.2	87.8	46.2	17.8	1342.0	100
구성	6.0	7.5	25.0	166.7	77.1	134.9	1049.0	67.8	110.0	65.1	85.3	7.4	1801.8	107
평양	8.9	6.8	20.6	129.5	141.0	248.8	763.9	54.2	115.6	16.7	46.1	12.3	1564.4	90
양덕	8.2	9.5	28.5	126.1	145.7	161.6	562.8	128.4	93.5	33.4	54.0	15.0	1366.7	118.9
남포	5.5	10.2	36.0	91.5	138.4	128.0	671.3	26.4	96.1	25.9	88.8	21.9	1340.0	95
사리원	7.8	7.9	38.7	107.1	155.5	89.1	408.2	98.2	89.1	15.3	54.1	16.2	1087.2	96
신계	10.1	16.3	21.3	84.6	6.6	156.7	568.0	302.5	211.2	3.1	42.0	7.9	1431.1	112
해주	16.4	10.6	48.8	231.8	158.5	114.9	464.7	92.4	124.9	19.1	40.2	37.4	1359.7	107
개성	9.5	2.9	50.0	229.9	172.3	266.5	907.2	137.7	93.6	14.2	23.4	18.1	1625.3	121
세포	22.5	8.3	43.9	254.4	214.7	214.3	781.5	173.5	75.5	10.0	51.1	34.5	1884.2	145
원산	49.8	14.0	104.8	130.5	163.6	144.3	560.3	264.1	52.7	3.5	37.9	14.0	1539.5	101
함흥	7.1	8.1	58.7	122.1	71.8	102.2	547.7	107.4	42.0	8.9	16.8	22.9	1115.7	98
장진	4.4	2.3	49.9	90.6	67.1	68.8	485.6	106.3	46.8	13.9	30.8	7.0	973.5	107
김책	23.3	3.1	21.2	69.5	46.4	41.5	211.8	118.4	35.3	44.4	36.1	48.7	699.7	109
청진	0.1	0.0	11.2	12.2	18.0	16.8	135.3	177.2	57.3	4.8	42.9	21.0	496.9	90
백암	4.6	2.6	29.8	43.5	36.1	88.8	197.5	126.7	79.6	12.9	22.3	10.0	654.4	141
혜산	1.4	0.8	12.1	33.3	23.7	69.0	161.2	118.3	45.2	22.0	15.7	7.2	509.9	121
강계	1.1	3.4	10.1	59.7	75.8	151.6	435.7	109.8	46.3	56.5	49.0	11.7	1013.7	122
중강	1.2	0.9	9.8	49.7	37.3	95.0	342.0	160.8	104.5	46.2	46.4	10.1	903.9	125

월 평균 기온(°c)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년
신의주	−11.2	−3.9	3.1	9.0	15.0	19.9	23.3	25.0	18.5	10.7	3.1	−3.4	9.1
구성	−12.1	−4.9	2.5	8.9	15.2	20.0	22.4	24.0	17.2	9.5	1.7	−4.2	8.4
평양	−12.1	−4.7	3.1	10.1	15.7	21.0	23.9	24.8	18.3	10.7	3.7	−2.0	9.4
양덕	−15.2	−7.2	0.9	7.7	14.0	18.2	21.6	22.5	14.8	7.4	0.9	−3.4	6.8
남포	−9.7	−3.5	3.3	9.8	15.0	20.8	23.5	24.6	19.1	11.7	5.0	−0.9	9.9
사리원	−11.2	−4.2	3.2	10.3	15.8	21.3	24.1	24.9	19.2	11.3	4.3	−1.2	9.8
신계	−13.7	−5.9	2.2	0.9	15.2	19.5	22.3	23.5	16.7	9.7	2.2	−3.0	8.1
해주	−9.7	−3.2	4.1	10.2	15.8	19.9	22.9	25.0	19.4	12.4	6.1	0.4	10.3
개성	−10.5	−3.6	3.9	10.4	15.9	20.2	23.5	24.8	18.9	11.7	5.1	−0.5	10.0
세포	−16.2	−8.8	−0.2	6.2	12.3	15.8	19.9	21.0	14.4	7.4	0.6	−4.6	5.6
원산	−7.6	−1.5	4.1	9.0	14.4	18.0	22.4	23.9	18.6	11.8	6.4	1.6	10.1
함흥	−7.5	−2.2	3.1	8.2	13.8	17.6	21.5	23.0	17.7	11.1	5.0	−0.6	9.2
장진	−20.2	−14.8	−5.2	2.6	9.0	13.6	17.1	17.5	10.2	3.0	−4.2	−11.5	1.4
김책	−7.9	−3.0	1.6	6.1	10.7	14.4	18.9	21.7	17.5	10.9	5.1	−0.2	8.0
청진	−8.6	−3.8	1.4	6.6	12.0	14.4	18.2	20.7	17.2	10.1	3.6	−1.6	7.5
백암	−21.4	−14.1	−6.1	1.7	9.8	13.3	16.1	16.3	8.5	1.8	−6.3	−12.1	
혜산	−20.4	−13.4	−2.4	5.3	13.0	17.3	20.3	20.5	12.1	4.0	−4.0	14.0	3.2
중강	−20.7	−12.9	−0.6	7.4	14.7	19.6	21.8	22.3	14.1	5.7	−3.5	−14.1	4.5
강계	−17.4	−8.6	1.1	8.6	15.3	20.8	22.4	23.1	15.4	7.1	−1.2	−9.3	6.4

우 리 나 라 광 천

광 천 명	소 재 지	성 분	적 응 증
묘방산 약수 (삼신 약수)	평양시 대성 구역 삼신동	류산 알미늄	①만성 위염 ②위 및 12지장 궤양 ③만성 담낭, 담도염 ④빈혈
어음동 약수	평양시 룡성 구역 어음동	탄 산	①만성 위장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 ③ 담낭, 담도염
룡강 온천	평남도 온천군 온천읍	라돈 함유염	①고혈압병 2 기 *B*상까지 ②비특이성 전염성 관절염 ③ 신경염 및 신경근염 ④자궁 주위염 및 자궁내막염 ⑤ 불임증 ⑥ 부속기의 만성 염증성 질환
석탕 온천	평남도 양덕군 온정리	광물질 희박 류황	① 비특이성 전염성 관절염 ② 근염 ③ 신경근염 ④ 외상 및 좌상 후유증 ⑤ 복강 내염증 후유증 및 복강 내수술 후유증 ⑥ 만성 습진 ⑦ 양전 피부 소양증 ⑧ 건선 ⑨ 피부 신경증
양덕 온천	평남도 양덕군 양덕읍	광물질	① 비특이성 관절염 ② 말초 신경염 ③ 외상 및 좌상 후유증 ④ 녀성 생식기 질환 ⑤ 피부 질환
성천 온천	평남도 성천군 온정리	광물질	① 비특이성 전염병 관절염, 류마치스성 관절염 ② 각종 원인에 의한 신경통(뇌 척수막염, 지주막 후유증)③ 각종 창상 후유증 ④ 각종 부인과 질환 ⑤ 일련의 피부 질환
온양 온천	평남도 녕원군 온양리	광물질	① 비특이성 전염성 관절염 ② 말초 신경염 ③ 각종 후유증(각종 창상 후유증)④ 부인과 질환 ⑤ 일부 피부염
강서 약수	평남도 강서군 약수리	철함유 중탄산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대장염 ③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④ 만성 간염 ⑤ 만성 담낭염 및 만성 담도염
신송리 약수 (덕천 약수)	평남도 덕천군 신송리	류산 알미늄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장염 ③ 만성 담낭염 ④ 빈혈 ⑤ 외용시 일부 피부염
검산 약수	평남도 숙천군 검흥리	유리 탄산 함유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소, 대장염 ③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④ 만성 간염 ⑤ 만성 담낭염 및 만성 담도염
삭주 온천	평북도 삭주군 온정리	광물질	① 고혈압병, 혈전성, 전액염의 잔유증 ② 복강내 염증, 후유증, ③ 신경 계통 질환, 신경염, 다발성 신경염, 신경층, 말초 신경 창상 후유증 ④ 전염성 및 비 전염성 관절염 ⑤ 자궁 주위염, 부속기염, 란소 기능 부전, 불임증 ⑥ 피부 신경증, 지루성 습진, 만성 습진, 피부염증
운산 온천	평북도 운산군 온정리	광물질	① 말초 신경 계통의 만성 염증성 질환과 그의 창상 후유증(특히 신경통 경한 징조의 마비) ② 비결핵성 다발성 관절염 및 척추 질환가 골근 전 질환 ③ 만성 소, 대장염 ④ 비결핵성 만성 신우염 ⑤노결석증(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있는 크기)
사천 온천	평북도 향산군 석창리	광물질	①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③일부 피부 질환

광 천 명	소 재 지	성 분	적 응 증
신온 온천	평북도 대관군 신온리	광물질	① 농피증, 습진, 피부 소양증 ② 다발성 관절염, 경한 정도의 관절염 ③ 신경통과 신경염 ④ 수술 후유증 및 창상 후유증
창성 약수	평북도 창성군 약수리	중탄산 칼슘철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신우염 및 방광염 ③ 각종 빈혈 ④ 월경 장애
천진 약수 (백운 약수)	평북도 구성군 백운리	철함유 중탄산 칼슘	① 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③ 만성 소, 대장염 ④ 2차성 빈혈
옥호동 약수	평북도 선천군 약수리	철함유 중탄산 칼슘	① 만성 위염 ② 신우·신장염 ③ 노결석증 (결석의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싸근동 약수	평북도 선천군 석화리	유리 탄산 함유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중복되는 출혈이 없고 운동 이송 기능 장애 없을 때) ③ 만성 소, 대장염, ④ 만성 간염
느저리 약수	평북도 동창군 대동리	중탄산 칼슘철	① 만성 위염, 위 및 12지장성 질환 ② 만성 소, 대장염 ③ 궤양으로 인한 위 수술 후유증 ④ 만성 간염 및 담도 담낭염 ⑤ 노결석증 ⑥ 비결핵성 만성 신우염 및 방광염 ⑦ 빈혈증
어비 약수	평북도 구장군 북신현리	중탄산 칼슘철	① 만성 위염 ② 간담도 계통 질환 ③ 일부 비뇨기 질환 ④ 위수술 후유증 ⑤ 만성 소, 대장염 ⑥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⑦ 당뇨병 (경증)
신흥 약수	평북도 구장군 신흥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간담도 계통 질환 ③ 일부 비뇨기 계통 질환 ④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소니'골 약수	평북도 대천군 덕천리	중탄산 나트륨 칼슘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대장염 ③ 간담노 계통 질환
양하리 약수	평북도 구성군 양하리	유리 탄산 함유 나트륨	① 만성 위염 ② 12지장 궤양성 질환 ③ 위 수술 후유증, 창상 후유증 ④ 만성 소, 대장염 ⑤ 빈혈과 월경 불순 ⑥ 만성 간염 및 담낭염
우제 약수	평북도 운산군 룡흥리	광물질	① 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③ 만성 신우염 및 만성 방광염 ④ 전선, 만성 습진, 피부염, 피부소양증
소무 온천	자강도 동신군 온천리	광물질 희박 류황	① 각종 원인으로 오는 아급성 만성 관절염 (비결핵성)② 피부 질환 (피부 소양증, 습진, 어린선, 전선)③ 소화기 질환 ④ 불임증 및 기타 부인과 질환 ⑤ 말초 신경염 및 그 후유증 ⑥ 만성 중독(연, 창연, 수은 기타)
원흥 온천	자강도 동신군 원흥리	광물질 희박 류황	① 각종 원인으로 오는 관절염 (아급성 및 만성기), (비결핵성) ② 피부 질환(피부 소양증 습진, 어린선 건선)③ 부인과 질환 (월경 장애, 난소 기능 부전, 불임증, 성기 염증성 질환) ④ 신경통 말초 및 중추 신경 계통의 만성염 증성 질환 및 창상 후유증 ⑤ 만성 중독
전창 약수	자강도 송원군 전창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간염 ③ 만성 담낭염
전천 약수	자강도 전천군 신저리	중탄산염	①만성 위염 ② 만성 담낭염 ③ 만성 간장염 ④ 담석증 ⑤ 만성 방광염 ⑥ 만성 신우염 ⑦ 빈혈 ⑧신

광 천 명	소 재 지	성 분	적 응 증
			석증(자연 유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송천 약수 (붉은물약수)	자강도 송원군 송천리	중탄산염	①만성 위염 ② 만성 간염 ③ 만성 담낭염
치렬 약수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 ③ 만성 방광염 ④ 만성 신우염
외귀 약수	자강도 시중군 약수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③ 만성 소, 대장염 ④ 각종 원인의 간담도 계통 질환 ⑤ 신우 신장염, 뇨결석증, 비결핵성 만성 신우염 및 방광염, ⑥각종 빈혈 위장병, 월경 장애 ⑦ 당뇨병(경증) ⑥ 만성 기관지염 및 인후염
가하 약수	자강도 우시군 가하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간장염 ③ 만성 방광염 ④ 빈혈(속발성)
아룡성 약수	자강도 동신군 아룡성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간담도 계통 질환
여침 약수 (금석 약수)	자강도 동신군 금석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간염 ③만성 담낭염④ 빈혈
모두미 약수	자강도 희천군 지신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간담도 계통 질환 ③ 비뇨기 계통 질환
청량 약수	자강도 희천군 청운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방광염 ③ 만성 신우염 ④ 빈혈 (2차성)
정아주 약수	자강도 희천군 관대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비뇨기 계통 질환 ③ 빈혈
연하 약수 (독로강약수)	자강도 만포군 연하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방광염 ③ 만성 신우염 ④만성 간 및 담낭염
명대 약수	자강도 희천군 명대리	~〃~	우와 같음
창더 약수	자강도 전천군 창더리	~〃~	~〃~
미타 약수	자강도 만포군 미타리	~〃~	~〃~
대흥 약수	자강도 화평군 대흥리	~〃~	~〃~
리명 약수	자강도 화평군 리명리	~〃~	~〃~
운수리 약수	자강도 랑림군 운수리	~〃~	~〃~
월형 약수	자강도 송원군 월현리	~〃~	~〃~
신천 온천	황남도 신천군 온정리	광물질 희박 류황	① 만성 위염 ② 고혈압병 ③ 만성 염증성 부인과 질환 ④ 류마치스성 관절염 ⑤ 신경염, 신경통⑥각종 타박 후유증
안악 온천	황남도 온천군 온천읍	광물질	① 만성 위염 ② 류마치스성 관절염 ③ 각종 창상 후유증 ④ 좌골 신경통, 말초 신경염 ⑤ 연 중독

광 천 명	소 재 지	성 분	적 응 증
(은천 온천)			⑥ 만성 염증성 부인과 질환
달천 온천	황남도 삼천군 달천리	라돈 함유 광물질	① 류마치스성 관절염 ② 골절 및 수술 후유증 ③ 좌골 신경통 ④ 만성 염증성 부인과 질환 ⑤ 고혈압병
삼천 온천	황남도 삼천군 삼천읍	광물질	① 소화기 질환(만성 위염) ② 일부 비노기 질환 ③ 만성 습진
송화 온천	황남도 송화군 온정리	광물질	① 류마치스성 관절염 ② 만성 습진 피부염 ③ 자궁 내막염 ④ 고혈압병
이목 온천	황남도 벽성군 온정리	광물질	① 말초 신경염과 그 후유증 ② 비결핵성 전염성 관절염 ③ 피부염
옹진 온천	황남도 옹진군 옹진읍	라돈 함유염	① 저산성 만성 위염 ② 신경염, 신경근염, 신경통 ③ 류마치스성 관절염 ④ 만성 습진, 건선, 피부소양증, 농피증, 농가진, 신경성 피부염
배천 온천	황해남도 배천군 배천읍	광물질	①저산성 만성 위염 ② 고혈압병 ③ 신경염 신경통 ④ 녀성 생식기 염증성 질환 ⑤ 좌상 및 수술 후유증
연안 온천	황남도 배천군 금성리	라돈 함유염	① 저산성 만성 위염 ② 고혈압병 ③ 부인과 질환 ④ 류마치스성 관절염 ⑤ 신경염, 신경통 ⑥ 각종 타박 후유증
평산 온천	황남도 평천군 평천읍	라돈 함유 광물질	① 고혈압병 ② 신경통 ③ 류마치스성 관절염 ④자궁 내막염, 란소 기능 부전, 불임증 ⑤ 만성 위염
한동 약수 (대거리약수)	황남도 옹진군 대거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만성 대장염 ③ 만성 신우염 ④만성 방광염
초정리 온천	황남도 온천군 초정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담낭염 및 담도염 ③ 만성 방광염 ④ 만성 신우염
대천리 약수	황북도 린산군 대천리	광물질	① 만성 위염 ② 운동기 장애 ③ 각종 피부 질환
침교 약수	황북도 신계군 침교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장염 ② 만성 담낭염 및 만성 간염 ③만성 방광염
수천 약수	황북도 수안군 서평리	중탄산염	① 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 ③ 각종 원인으로 인한 만성 간염 ④ 만성 담낭 담도염 ⑤ 만성 신우 신장염과 만성 방광염
외금강 온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라돈 함유 광물질	① 고혈압병 ② 비특이성 전염성 관절염 ③ 기능성 관절 강직 및 변축 ④ 각종 외상 후유증 ⑤ 각종 원인에 의한 신경염 및 신경근염
로탄 온천	강원도 법동군 로탄리	광물질	① 만성 위염 ② 신경 계통 질환 ③ 복부 수술 후유증 ④ 고혈압병
갈산 온천	강원도 판교군 구당리	불소 함유 광물질	① 복강 내염증 후유증 ② 신경염 및 신경근염, 다발성 신경염 ③ 비결핵성 다발성 관절염, 골근 및 건의 좌상, ④ 중금속에 의한 만성 직업성 중독 ⑤ 녀성 생식기 부속기염 및 일부 부인과 질환 ⑥ 만성 자궁 내막염 ⑦ 란소 기능 부전 ⑧ 만성 섭호선염 및 고환 부고환염 ⑨ 자궁 주위 결채 직염 ⑩ 혈전성 정맥염의 잔유증 ⑪ 말초 및 중추 신

광 천 명	소 재 지	성 분	적 응 증
			경 계통 질환과 그의 창상 후유증의 일부 ⑫ 정지형의 건선 만성 습진, 피부염
삼방 약수	강원도 세포군 삼방리	철함유 중탄산 나트륨	① 만성 위염 ②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③ 만성 소, 대장염 ④ 각종 원인의 간담노 및 담낭의 만성염증 ⑤ 당뇨병(경증)⑥ 담석증 ⑦ 신우 신장염 ⑧ 비결핵성 만성 신우염 및 방광염
석왕사 약수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철함유 중탄산염	① 뽀뜨낀 경과 후의 만성 간장염 (황달이 완전히 소실된 후)② 담도 및 담낭의 만성 염증성 질환(담석증 제외) ③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을 합병한 간장염 ④ 산업성 중독 (연, 아연, 아류산 가스 기타 중독)
토란 약수	강원도 법동군 토란리	중탄산 나트륨 칼숨	① 만성 위염 ② 담도 담낭의 염증성 질환 ③ 각종 화학 중독 ④ 비결핵성 신우 신장 및 방광염
룡담 약수	강원도 천내군 신흥리	중탄산 나트륨 칼슘	① 만성 위염 ② 담도 및 담낭의 만성 염증성 질환 (담석증 제외) ③ 만성 신우염 ④ 뇨결석증 ⑤ 2차성 빈혈
금곡 약수	강원도 회양군 금곡리	류화 수소 함유 광물질	①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② 만성 위염 및 만성 소, 대장염 ③ 피부 질환 (습진, 농가진)
인흥 온천	함남도 인흥군 인흥리	라돈 함유염	① 신경염 및 저산성 만성 위염 ② 고혈압성 질환 ③ 피부 질환
주을 온천	함북도 경성군 주을리	약라돈 함유 광물질	골 관절 계통 질환—① 비특이성 전염성 관절염 (결핵성 제외) ② 기능성 관절, 강직 및 련축 ③ 각종 외상 후유증 (두부 외상 제외) ④ 기형성 척추 관절염, 신경 계통 질환—① 각종 원인에 의한 신경통 ② 각종 신경염 및 신경근염, 고혈압성 질환—① 고혈압병 ② 뇌출혈 후 불완전 마비 (6 개월 정도 지나서),부인과 질환—①만성 부속기 염증성 질환 ② 란소 기능 부전 및 월경 이상 ③ 자궁 발육 부전 ④ 만성 자궁 내막염 ⑤ 외음부 소양증 ⑥ 불감증 및 갱년기 신경증, 산업성 중독— 아류산 가스 중독
온포 온천	함북도 경성군 온포리	광물질	신경 계통 질환—말초 신경염, 신경통, 창상 후유증, 비결핵성 관절염 및 류마치스성 다발성 관절염, 관절 련축, 녀성 생식기 질환— 부속기염, 란소 기능 부전, 불임증. 고혈압병, 만성 습진, 피부염, 건선, 피부 신경증, 만성 직업성 중독
송흥 온천	함북도 김책시 송흥리	라돈 함유 광물질	지주 운동기 질환 —① 비특이성 전염성 관절염, 류마치스성 관절염, 비전염성 영양 실조성 관절염, 비결핵성 척추 질환 ② 좌상 ③ 전염성, 외상성 골염 및 골막염 ④ 근염, 건막염 ⑤ 관절 련축 피부 질환— ① 만성 습진 ② 건선 ③ 피부염 ④ 편평 홍색 태선, ⑤ 피부 소양증 ⑥ 백피증, 기타 섭호선염
온수평 온천	함북도 길주군 온수평리	광물질	① 만성 중독(연, 수은, 탄산 가스 중독의 후유증) ② 신경 계통 질환, 말초 신경 계통의 염증성 질환과 그 후유증, 뇌막, 척수 신경 근염, 척수, 척

광 천 명	소 재 지	성 분	적 응 증
			수막 창상 및 그 후유증 ③ 복강 내 염증 후유증, 위 주위염, 12지장 주위염, 간장 주위염, 담낭 주위염, 대장 주위염, 혈전성 정맥염의 후유증 (급성 아급성 증상이 없고 혈액 순환 대상 부선이 없는것)
세천 온천	함북도 김책시 세천리	강라돈 함유 광물질	① 류마치스성 심근염 후유증, 심근 디스트로피아, 고혈압병, 저혈압병 ② 말초 신경염 신경통 ③ 비특이성 전염성 관절염, 류마치스성 관절염 및 관절연축 ④ 부속기염, 부속기 외막염, 란소 기능 부전, 불임증 ⑤ 위 및 12지장 주위염, 간장 및 담낭 담초 주위염 ⑥ 만성 및 지루성 습진, 건선 피부염 ⑦ 만성 직업성 중독 (연, 수은), 특수 치료 후유증 (살발산) ⑧ 만성 위염, 위 수술 후유증
관장 온천	함북도 라진군 파장리	광물질	만성 습진, 건선을 비롯한 일련의 피부 질환
황진리 온천	함북도 명천군 황진리	류화 수소 함유 광물질	① 말초 및 중추 신경 계통의 염증성 질환 ② 비결핵성 관절염 ③ 녀성 생식기의 만성 염증성 질환 ④ 각종 피부 질환과 일부 알레루기성 질환
보상 온천	함북도 경성군 보상리	라돈 함유 광물질	①혈전성 정맥염의 잔유증 ② 복강 내 염증 후유증 ③ 말초 신경 계통 질환과 그의 창상 후유증 ④ 비결핵성 관절염 ⑤ 부속기염, 자궁 주위염 및 결체 직염, 란소 기능 부전, 불임증, 고환 및 부고환염, 섭호선염 ⑥건선 만성 습진 ⑦ 만성 중독
성정 온천	함북도 경성군 성정리	광물질	① 말초 신경염 및 그 염증성 질환의 잔유증 ②비결핵성 관절염 ③ 일부 위장 질환 ④ 일부 부인과 질환
삼포 온천	함북도 어랑군 삼포리	광물질	① 말초 신경염과 그 잔유증 ② 일부 부인과 질환
신웅 온천	함북도 어랑군 신웅리	광물질	① 골 관절 계통 질환, 부인병 ② 각종 중독 (산업성 및 약물성) ③ 각종 신경통, 신경근염
사리 온천	함북도 명천군 사리	광물질	①말초 신경염과 그 잔유증 ② 비결핵성 관절염 ③ 일부 부인과 질환 ④ 일부 위장 질환
십일리 온천	함북도 길주군 십일리	광물질	① 비결핵성 관절염 ② 말초 신경염과 그 잔유증 ③ 일부 부인과 질환
탕수평 온천	함북도 어랑군 인광리		① 비결핵성 관절염 ② 말초 신경염과 그 잔유증 ③ 일부 부인과 질환
룡천 온천	청진시 라남구역 룡천리	라돈 함유 광물질	① 말초 신경염 및 신경통 ② 란소 기능 부전, 불임증 ③ 만성 습진, 건선 피부염
팔당 온천	청진시 부령구역 구읍리	광물질	① 위장 질환 ② 피부 질환
보천 내곡 온천	량강도 보천군 내곡리	광물질 희박 류황 온천	① 말초 신경염 및 그 잔유증 ② 비결핵성 관절염 ③ 일부 피부과 질환 ④ 일부 부인과 질환 ⑤ 만성 소화기 질환

인민 경제 통계

인구의 장성 및 그의 성별 구성

	1946년 말 현재	1949년 말 현재	1953년 12월 1일	1956년 9월 1일	1960년 말 현재	1963년 10월 1일
총인구 수 (천명)	9 257	9 622	8 491	9 359	10 789	11 568
인구 수의 장성 (%)	100	104	92	101	117	125
인구 수의 성별 구성(%)						
총 인구 수	100	100	100	100	100	100
남 자	50.0	49.7	46.9	47.8	48.4	48.7
녀 자	50.0	50.3	53.1	52.2	51.6	51.3

주민의 직업별 구성 (%)

	1946년 말 현재	1949년 말 현재	1953년 12월 1일 현재	19 6년 9월 1일 현재	1960년 말 현재	1963년 10월 1일 현재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로동자	12.5	19.0	21.2	27.3	38.3	40.1
사무원	6.2	7.0	8.5	13.6	13.7	15.1
협동 농장원	—	—	—	40.0	44.4	42.8
개인 농민	74.1	69.3	66.4	16.6	—	—
기타 협동 단체 조합원	—	0.3	0.5	1.1	3.3	1.9
개인 수공업자	1.5	0.8	6.6	0.3	—	—
기업가	0.2	0.1	0.1	—	—	—
상 인	3.3	1.7	1.2	0.6	—	—

인구의 도시, 농촌별 구성 (%)

	총인구 수	그중 도시 인구	농촌 인구
1953년 12월 1일	100	17.7	82.3
1956년 9월 1일	100	29.0	71.0
1959년 12월 1일	100	38.0	62.0
1960년 12월 31일	100	40.6	59.4
1963년 10월 1일	100	44.5	55.5

인구의 출생, 사망 및 자연 증가

	1944	1949	1953	1956	1960	1963
인구 1,000 명당 출생자 수	31.3	41.2	25.1	31.0	38.5	42 7
인구 1,000 명당 사망자 수	20.8	18.7	18.1	17.6	10.5	12.8
인구 1,000 명당 자연 증가 수	10.5	22.5	7.0	13.4	28.0	29.9

사회 총생산액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1963
사회 총생산액	100	219	163	355	797	10배	11배
		100	75	162	364	475	502
			100	217	488	637	673
				100	224	293	309
					100	131	138

사회 총생산액의 인민 경제 부문별 구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1963
사회 총생산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 업	23.2	35.6	30.7	40.1	57.1	61.0	60.6
농 업	59.1	40.6	41.6	26.6	23.6	21.3	21.5
운수, 체신	1.6	2.9	3.7	4.0	2.2	2.8	2.8
기본 건설	—	7.2	14.9	12.3	8.7	9.1	9.2
상품 류통	12.0	9.4	6.0	10.8	6.0	3.6	3.8
기 타	4.1	4.3	3.1	6.2	2.4	2.2	2.1

국민 소득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1963
국민 소득	100	209	145	319	683	869	928
		100	70	153	328	416	445
			100	220	470	598	639
				100	214	272	291
					100	127	136

국가 예산 수입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수입 총계	100	13배	32배	61배	123배	192배
		100	252	475	966	15배
			100	188	383	596
				100	203	317
					100	156
그 중						
사회주의 경리로	100	21배	44배	99배	265배	413배
부터의 수입		100	207	470	13배	20배
			100	227	607	945
				100	267	416
					100	156

국가 예산 지출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지출 총계	100	15배	37배	71배	146배	224배
		100	252	486	10배	15배
			100	193	397	611
				100	206	317
					100	154
그 중 인민 경제 지출	100	35배	100배	298배	570배	938배
		100	289	855	16배	27배
			100	296	568	934
				100	192	315
					100	165
사회 문화 시책비	100	13배	19배	41배	162배	217배
		100	148	322	13배	17배
			100	217	862	12배
				100	397	533
					100	134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	100	252	197	386	539	631
		100	78	153	214	251
			100	196	273	320
				100	140	164
					100	117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의 장성(%)

	1949	1956	1960	1962	1963
로동자, 사무원 1 명당 평균 로임	100	165	386	394	402
		100	234	240	244

농가 매호 분배 몫의 장성 (%)

	1954	1958	1963
알 곡	100	239	372
		100	156
현 금	100	506	12배
		100	241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기업소 수 (개소)

	1954	1956	1960	1963
총 수	1 463	1 457	2 897	2 937
국 영	742	744	2 254	2 295
협동 단체	721	713	643	642

로동자 수에 의한 규모별 국영 공업 기업소 수 (개소)

	1954	1960	1963
총 수	742	2 254	2 295
100 명 까지	319	1 274	1 018
101～500 명	287	645	897
501～1,000 명	89	182	186
1,001～2,000 명	38	92	114
2,001～3,000 명	6	29	34
3,001 명 이상	3	32	46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공업 총생산액	100	337	216	615	21배	32배
		100	64	183	635	936
			100	285	990	15배
생산 수단(A)	100	375	158	640	23배	33배
		100	42	171	617	870
			100	405	15배	21배
소비재(B)	100	288	285	598	20배	31배
		100	99	208	689	11배
			100	209	695	11배

공업 총 생산액의 년 평균 장성 속도

	1947—1949	1954—1956	1957—1959	1957—1960	1954—1963
공업 총생산액	49.9	41.7	44.6	36.6	34.8
생산 수단 생산	55.3	59.4	46.5	37.7	39.8
소비재 생산	42.3	28.0	42.2	34.9	30.5

공업 총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

	1956	1960	1963
공업 총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13.3	33.8	37.8
소비재 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18.2	39.1	59.0

부문별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발전 공업	100	151	40	130	234	287
연료 공업	100	301	34	240	659	858
광석 채굴업	100	398	301	561	14배	15배
야금 공업	100	388	41	567	17배	25배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	100	535	663	21배	99배	162배
화학 공업	100	310	67	288	13배	26배
림산 및 목재 가공업	100	173	137	307	566	752
방직 공업	100	685	10배	21배	72배	107배
문화 용품 및 일용품 공업	100	616	556	22배	150배	248배
수 산 업	100	779	187	720	19배	23배
식료 및 기호품 공업	100	238	149	301	13배	16배

중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 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발 전 량	백만kwh	3 934	5 924	1 017	5 120	9 139	11 766
석 탄	천톤	1 270	4 005	708	3 908	10 620	14 043
철 광 석	〃	…	680	—	678	3 108	3 861
선철 및 립철	〃	3	166	—	231	853	1 159
강 철	〃	5	144	4	190	641	1 022
강 재	〃	10	116	4	133	474	762
전 동 기	대	—	668	—	8 818	40 588	50 040
금속 절삭 공작 기계	〃	—	…	…	1 010	2 904	3 097
뜨락또르	〃	—	—	—	—	3 002	3 033
자 동 차	〃	—	—	—	—	3 111	4 022
화학 비료	천톤	156	401	—	195	561	853
류 산	〃	108	304	—	109	255	321
가성 소다	〃	3	9	0.3	6	25	43
화학 섬유	톤	—	—	—	—	13 532	21 373
염화비닐	〃	—	—	—	—	—	3 631
카바이드	천톤	42	136	6	99	125	191
세멘트	〃	103	537	27	597	2 285	2 526
원 목	천m^3	540	1 610	1 017	2 582	3 601	3 740
종 이	천톤	4	17	4	26	47	71
직물류	km	2 691	12 842	21 623	77 080	189 659	227 187
내의류	천매	97	591	336	2 186	16 380	18 514
신발류	천켤레	322	5 790	7 095	17 532	23 297	30 052
물'고기	천톤	—	273	122	365	465	640
식물성 기름	톤	1 286	8 204	6 994	9 078	13 873	25 701
간 장	kℓ	612	17 926	17 730	28 042	85 569	130 437
된 장	톤	45	…	26 537	55 275	100 747	142 629

농업 기업소 수 (개소)

	1953	1956	1958	1960	1963
국영 농목장	213	188	178	169	190
농기계 작업소	15	48	70	89	154
협동 농장	806	15 825	3 843	3 736	3 732

농업 총 생산액의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농업 총생산액	100	151	115	160	224	268
농업 부문	100	146	113	154	205	242
축산 부문	100	185	133	208	301	369
잠업 부문	100	293	177	299	543	420

경지 면적 (8 월말 현재, 단위 천정보)

	1946	1949	1956	1960	1963
총경지 면적	1 860	1 983	1 899	1 913	1 996
논	388	467	491	510	583
밭	1 472	1 516	1 408	1 403	1 413
과 수 원	25	21	16	52	98
뽕 밭	10	3	9	26	30
묘 포	0.3	0.7	2	3	3

경지 면적의 지목별 구성 (%)

	1946	1949	1956	1960	1963
경지 면적 총계	100	100	100	100	100
논	20.9	23.6	25.9	26.7	29
밭	79.1	76.4	74.1	73.3	71
밭중 과수원	1.4	1.0	0.9	2.7	4.9
뽕 밭	0.5	0.1	0.5	1.4	1.5
묘 포	—	—	0.1	0.2	0.2

파종 면적의 작물별 구성 (%)

	1946	1949	1956	1960	1963
파종 면적 계	100	100	100	100	100
그 중 알곡	86.3	88.5	89.7	82.4	83.5
논 벼	20.1	16.0	20.4	18.1	21.9
옥 수 수	9.0	11.8	25.2	28.3	31.0
공예 작물	4.1	4.5	1.7	4.2	5.1
채 소	3.7	1.9	3.0	5.5	6.6
저 류	5.9	5.0	5.1	4.8	3.6
사료 작물	—	0.1	0.5	3.1	1.2

관개 시설 및 관수한 면적

	단위	1949	1953	1956	1960	1963
저수지 능력	천정미	44	59	73	122	160
양수장 능력	마 력	—	49 624	121 650	344 338	492 618
논 관개 면적의 장성	%	100	145	230	301	347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대수 및 그의 작업량

	단위	1953	1956	1960	1963
뜨락또르 대수(15마력 환산)	대	764	2 561	12 500	18 002
총 작업 면적 (연경 환산)	천정보	127	677	6 869	12 085
뜨락또르에 의한 총 기경 면적	〃	118	370	1 145	1 761
총경지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률	%	2.6	10.5	36	50
화물 자동차 대수	대	—	—	759	2 200

※ 경지 100 정보 앞에 뜨락또르 대수는 1958년의 0.14대로부터 1963년에는 0.9대에 달하였음.

화학 비료의 시비량

	단위	1949	1956	1960	1963
총시비량	천톤	260	215	307	599
1 정보 시비량	Kg	131	113	160	300
논	〃	—	—	248	420
밭	〃	—	—	126	272

화학 비료 시비량의 장성(%)

	1949	1956	1960	1963
총시비량	100	83	118	230
1 정보 시비량	100	86	122	229

농촌의 전기화 정형 (%)

	1953	1958	1963
전체 농촌 리 중에서 전기가 들어간 리의 비률	47.2	59.3	93.3
전체 농가 중에서 전기가 들어간 농가의 비률	41.0	47.1	70.8

농촌 경리에서 소비한 전력의 장성 (%)

	1953	1958	1963
농촌 경리 부문에서 소비한 전력	100	474	738
그 중 동력용	100	10배	16배
관개용	100	692	14배

농촌 부문의 전화 및 방송 시설(%)

	1953	1958	1963
전체 농촌 리 중에서 전화가 설치된 리의 비률	21.7	61.5	100
전체 농촌 리 중에서 유선 방송기가 설치된 리의 비률	2.2	18.4	51.9

가축 두수 (단위 1,000 마리)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소	472	788	504	485	672	685
돼 지	220	660	543	710	1123	1 135
양	6	10	21	60	105	144
염 소	1	3	4	27	79	154
토 끼	—	—	88	139	2 458	1 985
가 금	—	—	1 865	2 254	4 535	5 094
꿀 벌(천통)	37	91	57	57	166	195

축산물 생산량의 장성 (%)

	1949	1953	1956	1960	1963
육 류	100	83	94	264	311
양 털	100	380	11배	21배	30배
우 유	100	63	73	15배	25배
란 류	100	103	191	364	452
꿀	100	50	132	404	785

운수 수단의 장성 (%)

	1953	1956	1960	1963
철도 영업 거리	100	108	113	114
그 중 전기 철도	—	100	327	620
화차 총수	100	200	219	281
자동차 총수	100	160	314	511
그 중 화물 자동차	100	145	288	488
려객 자동차	100	435	17배	25배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 및 수송량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화물 순환 철 도	백만 톤 키로메터	652	3 405	1 980	4 288	9 095	10 361
자동차	〃	9	35	64	129	552	656
선 박	백만 톤 해 리	13	19	6	16	73	117
화물 수송량 철 도	백만톤	3.3	16.3	10.6	18.3	38.5	46.0
자동차	〃	0.2	1.5	2.2	9.2	78.6	92.3
선 박	〃	0.3	0.8	0.3	1.0	3.0	3.4

체신 업무량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우편국 수	개소	329	431	451	501	792	833
통상 우편 접수	천통	7 248	43 506	29 399	44 915	72 470	91 912
소포 우편 접수	천개	51	264	20	178	733	1 021
우편 송금 접수	천건	—	242	125	360	935	988
정기 간행물 취급	천부	—	136 051	140 049	202 168	286 478	184 268
전보 접수	천통	679	1 161	812	848	1 411	2 438
시외 전화 접수	천건	1 275	3 157	910	3 770	5 098	8 746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1957년 4월 1일 현재 가격)

	단위	1954—1956년 평균	1957—1960년 평균	1959—1963년 평균	1961—1963년 평균
기본 건설 총투자액	백만원	357	500	623	643
생산적 건설	〃	261	361	466	495
비생산적 건설	〃	96	139	157	148
총투자에 대한 생산적 건설의 비중	%	73.1	72.2	74.8	76.9
총투자에 대한 비 생산적 건설의 비중	〃	26.9	27.8	25.2	23.1
총투자액에서 농촌 건설 투자액의 비중	〃	9.2	11.6	15.8	16.5

주택 건설 (단위 천 m²)

	1954—1956 (3개년 계획 기간)	1957—1960 (5개년 계획 기간)	1961—1963 (7개년 계획 기간의 첫 3년간)	전후—1963
건설한 주택 총 면적	10 278	11 280	11 022	35 670
그 중 도시에 건설한 것	4 719	6 216	5 896	18 208
농촌에 건설한 것	5 559	5 064	5 126	17 462
건설한 주택 총면적 중 국가 자금에 의한 것	4 317	8 104	10 302	23 519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 (%)

	1957	1960	1963
적재 적하 작업	16.7	47.2	58.5
수직 운반 작업	77.5	86.2	91.5
콩크리트 혼합 작업	60.2	69.6	87.2
몰탈 혼합 작업	28.9	38.6	43.4

조립식 건설의 비중(%)

	1957	1960	1963
산업 건설	8.2	20.8	25.5
주택 건설	32.4	59.3	70.5
공공 건설	32.2	34.2	51.0

종업원 수 (단위 천명)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평균 재적 종업원 수	260	565	575	808	1 458	1 872
년말 재적 종업원 수	…	…	628	850	1 506	1 924
그 중 녀성 종업원 수	…	…	165	169	493	695
녀성 종업원 수의 비중(%)	…	…	26.2	19.9	32.7	36.2

인민 경제 부문별 종업원 수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인민 경제 총계	100	217	221	311	561	720
그 중 공 업	100	158	106	189	450	550
기본 건설		100	111	161	205	242
농 업		100	333	314	569	808
운 수			100	112	146	162
체 신			100	105	124	145
류 통		100	70	143	323	402

기술자, 전문가 수의 장성 (단위 명)

	1953 년 10월 10일 현 재	1957 년 9월 20일 현 재	1960 년 11월 15일 현 재	1963 년 10월 31일 현 재	장 성 률 (%) 1963/1953	1963/1957	1963/1960
기술자, 전문가 총수	21 872	73 358	133 466	223 654	10배	305	168
기 사	1 837	5 860	11 991	32 955	18배	562	275
기 수	6 763	22 429	57 978	95 150	14배	424	164
전 문 가 }	13 272	15 410	26 005	52 589 }	720	341	202
중등 전문가 }		29 659	37 492	42 960 }		145	115

천리마 작업반 수의 장성

	단위	1960년 말 현재	1963년 말 현재	1963/1960 (%)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수여 받은 작업반 수		928	17 057	18배
그의 인 원 수	(명)	21 167	586 403	28배
로동자, 사무원	(〃)	21 102	213 376	10배
협 동 농 장 원	(〃)	—	232 636	—
학 생	(〃)	65	140 391	2 160배
2중 천리마 작업반 수		15	179	12배
천 리 마 직 장		—	26	—
천 리 마 공 장		—	1	—
천 리 마 학 교		—	3	—

소매 상품 류통액 (해당 년도 가격, 백만 원)

	1949	1953	1956	1960	1963
소매 상품 류통 총액	368	811	771	1 806	2 230
그 중 국영 및 협동 단체	181	399	614	1 792	2 216
국 영	89	191	341	1 424	1 787
협 동	92	208	273	368	429
농민 시장	—	—	—	14	14

소매 상품 류통액의 장성 (대비 가격, %)

	1949	1953	1956	1960	1963
소매 상품 류통 총액	100	64	119	318	390
국영 및 협동 단체	100	83	205	642	789
국 영	100	72	231	10배	13배
협동 단체	100	94	180	259	300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중요 품종별 류통액의 장성 (%)

	1949	1953	1956	1963
식료 상품	100	108	164	550
육 류	100	—	169	10배
수 산 물	100	9	74	199
식 용 유	100	64	113	12배
채 소	100	72	519	49배
과 실	100	—	517	20배
비식료 상품	100	47	192	10배
면 및 스프 직물	100	260	995	13배
견 직 물	100	18	149	678
모 직 물	100	32	105	302
기 성 복	100	—	491	53배
내 의 류	100	81	349	25배
양 말 류	100	47	161	709
신 발 류	100	102	164	456

무역 총액의 장성 (%)

	1953	1956	1960	1963
총 액	100	192	440	568
수 출	100	210	491	626
수 입	100	176	396	518

수출품의 류별 구성 (%)

	1953	1956	1960	1963
총 계	100	100	100	100
그 중 기계 및 설비	0.4	0.3	5.3	4.6
전기 자재	2.2	0.1	—	2.3
연료 및 연유	—	0.4	3.2	3.1
광 물 류	81.8	54.3	12.8	12.4
흑색 및 유색 금속	9.0	30.9	43.7	46.3
화학 제품	0.05	5.9	12.1	7.2
농부산물	3.9	3.6	10.2	8.8

수입품의 류별 구성 (%)

	1953	1956	1960	1963
총 계	100	100	100	100
그 중 기계 및 설비	34.3	32.7	22.5	23.6
전기 자재	8.6	7.7	1.6	1.9
연료 및 연유	9.8	8.4	18.3	22.3
광 물 류	0.2	0.5	1.0	6.0
흑색 및 유색 금속	7.2	11.8	7.0	9.5
화학 및 고무 제품	9.8	7.5	6.2	11.5
농부산물	1.2	6.3	19.9	9.1

각급 학교 수 (개소)

	1946—1947 학년도	1949—1950 학년도	1953—1954 학년도	1956—1957 학년도	1960—1961 학년도	1963—1964 학년도
학교 총수	2 731	5 069	4 735	5 452	8 481	9 190
인민 학교	2 482	3 882	3 399	3 777	4 145	3 992
초급 중학교	217	926	1 013	1 247	2 839	3 147
기술 학교	—	—	—	—	855	1 218
중등 전문 학교	28	69	82	117	132	—
고등 기술 학교	—	—	—	—	82	466
대 학	4	15	15	19	76	96

각급 학교 학생 수 (천명)

	1946—1947 학년도	1949—1950 학년도	1953—1954 학년도	1956—1957 학년도	1960—1961 학년도	1963—1964 학년도
학생 총수	1 289	1 969	1 776	2 107	2 530	2 556
인민 학교	1 183	1 474	1 391	1 508	957	994
초급 중학교	73	353	292	445	1 031	839

	1946—1947 학년도	1949—1950 학년도	1953—1954 학년도	1956—1957 학년도	1960—1961 학년도	1963—1964 학년도
기술 학교	—	—	—	—	276	327
중등 전문 학교	30	58	36	64	107	—
고등 기술 학교	—	—	—	—	11	145
대 학	3	18	11	22	97	214
그중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생 수	—	6	3	6	49	149

각급 학교 졸업생 수 (단위 명)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졸업생 총계	125 138	273 399	238 436	351 020	674 366	689 023
인민 학교	119 000	196 114	175 207	240 608	317 489	235 714
초급 중학교	5 790	67 292	55 799	88 593	296 645	268 905
기술 학교					17 342	125 436
중등 전문 학교	348	3 849	3 789	4 969	14 606	23 695
대 학		1 177	1 143	2 833	6 455	21 537

문 화 시 설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극 장	개소	2	11	11	13	15	21
좌석 수	좌석	1 500	8 304	5 200	9 450	24 317	27 527
영화관	개소	81	110	112	248	402	561
좌석 수	좌석	44 900	61 026	35 078	92 345	168 161	244 419
구락부	개소	91	317	103	277	519	826
도서관	〃	35	106	181	185	185	228
도서 부수	천부	92	280	437	2 927	5 198	6 371
박물관	개소	2	6	9	13	18	22
영화 제작	편	—	29	26	102	182	184

보건 시설 및 의사 수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병원 수	개소	85	175	329	313	447	535
그의 침대 수	대	2 031	6 630	13 829	18 104	32 698	48 133
외래 치료 기관 총수	개소	93	854	793	1 346	4 364	4 696
탁 아 소	개소	…	12	64	224	7 626	6 704
그의 좌석 수	좌석	…	620	2 165	6 538	394 489	728 258
의사 및 준의 수	명	1 009	2 131	3 009	5 650	11 919	18 241
인구 만 명당 의사 및 준의 수	명	1.1	2.2	3.5	6.0	11.0	15.8

휴양소 및 정양소 수

	단위	1953	1956	1960	1963
휴양소 및 정양소 수	개소	30	66	284	410
그의 침대 수	매	2 625	5 395	22 313	25 984
휴양자 및 정양자 수	천명	36	127	359	440

남조선 통계

실업자 및 반실업자의 증대 (단위 천명)

	1949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3
실업자 및 반실업자	895	1 324	2 000	3 502	3 800	4 286	5 350	6 000	7 000
증가 비률 (%)	100	148	223	391	425	479	598	670	782

자료 출처: 《자유 신문》 1954년 10월 4일, 《전남 일보》 1958년 1월 24일, 《서울 신문》 1955년 2월 10일, 1958년 5월 12일, 《충북 일보》 1956년 9월 15일, 《조선 일보》 1959년 5월 30일, 《한국 일보》 1963년 2월 23일, 《카나디언 트리뷴》 1964년 6월 15일.

로동자들의 생계비와 로임의 대비 (단위 원)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월 생계비 (ㄱ)	4 352	4 800	5 380	7 138	8 200	9 200	—	11 410
제조 공업 부문의 로임 (ㄴ)	1 890	2 030	2 310	2 340	2 600	2 830	2 990	3 310
ㄴ/ㄱ (%)	43	42	43	33	31.7	30.7	—	29
공업 부문의 로임 (ㄷ)	2 590	3 160	3 570	3 270	3 570	4 060	4 550	4 990
ㄷ/ㄱ (%)	59	66	66	46	43.5	44.1	—	43.7

자료 출처: 《경제 년감》 1959년, 《경제 통계 년보》 1960년, 《조선 일보》 1962년 5월 15일,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12월호, 1963년 3월호, 1964년 4월호, 《부산 일보》 1963년 11월 20일

절량 농가의 증대 (단위 만호)

	1954.4	1955.2	1956.4	1957.3	1961.1	1962	1963
절량 농호 수	47	38	65	98	100	130	140
증가 비률	100	84	144	218	222	289	298

자료 출처: 《조선 일보》 1954년 5월 26일, 《경향 신문》 1955년 3월 26일, 《산업 경제 신문》 1956년 5월 1일, 《합동 통신》 1961년 2월 2일.

농가 부채의 증대

	1953.5	1954.5	1956.10	1957	1958	1959	1960	1962
부채 총액 (억원)	9.0	18.0	88.5	109.0	120.0	180.0	184.4	—
농가 평균 부채액 (원)	403.6	897.1	4 022.7	4 908.9	5 450	8 070	8 269	11 294
평균 부채액의 증가률	100	222	997	1 214	1 350	2 000	2 049	2 802

자료 출처: 《재정》 1953년 5월호, 《서울 방송》 1960년 8월 2일, 《동화 통신》 1960년 10월 17일, 《경향 신문》 1960년 10월 18일, 《전북 일보》 1961년 5월 30일, 《서울 신문》 1963년 12월 19일.

기아의 증가

(단위 명)

	1955	1956	1957	1958	1959	1961	1962	1963
기아 발생 수	715	1 425	2 506	2 113	2 415	1 837	2 263	1 385
월 평균 기아 수	60	119	209	176	201	153	189	115
증가 비률 (%)	100	119.3	350.5	295.5	337.8	256.9	316.5	193.7

자료 출처: 《동아 일보》 1960년 2월 2일, 《부산 일보》 1960년 2월 3일, 12월 2일, 《전남 일보》 1963년 2월 3일, 《동화 통신》 1963년 5월 3일, 《합동 통신》 1964년 5월 3일.

주택 부족 수의 증가 (단위 천호)

	1949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주택 부족 수 (호)	370	520	452	1 037	1 186	1 446	1 092
증가 비률 (%)	100	140.5	122.1	280.2	317.8	390.8	295.1

주: 1961년과 1962년 자료에는 사람이 들기가 곤난한 집들이 포함되였음, 절대 부족 수는 1961년에 105만 3천호, 1962년에는 107만 호임.

자료 출처: 《동아 일보》 1959년 6월 9일, 《세계 통신》 1958년 2월 18일, 《조선 일보》 1960년 8월 25일, 《민국 일보》 1962년 1월 1일, 《합동 통신》 1962년 9월 4일, 《산업 경제 신문》 1963년 4월 26일.

서울, 대구, 광주 시내 주택 부족 수

	서 울		대 구		광 주	
	부족 수(동)	증가 비률	부족 수(동)	증가 비률	부족 수(동)	증가 비률
1958	113 551	100	…		…	
1959	158 443	139.5	…		16 785	100
1960	175 739	154.8	47 686	100	…	
1961	249 613	218.9	58 000	120	…	
1962	265 574	233.8	…		17 469	104
1963	277 348	244.2	…		20 056	119

자료 출처: 《조선 일보》 1959년 11월 1일, 《전남 일보》 1959년 8월 3일, 《부산 일보》 1959년 11월 18일, 《동아 일보》 1961년 6월 28일, 《국제 신보》 1961년 10월 4일, 《매일 신문》 1961년 10월 11일, 《령남 일보》 1962년 1월 28일, 《전남 일보》 1962년 9월 23일, 《조선 일보》 1962년 1월 6일,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9월 2일, 《대저 일보》 1964년 2월 11일.

로 동 재 해

	1955	1956	1957	1958	1960	1961	1962
발생 건수	—	—	—	—	7 496	8 284	12 067
재해자 수	98	176	160	266	7 577	8 042	14 052
그 중 사망자 수	23	31	92	126	175	95	133
부상자 수	75	145	68	140	7 402	7 947	13 917

자료 출처: 《경제 년감》 1959년판, 《동화 통신》 1961년 4월 4일, 《산업 경제 신문》 1962년 3월 20일, 《한국 일보》 1963년 2월 1일.

풍수해 정형

(단위 명)

	리재민	인명 피해				경작지 피해 (정보)	피해액 (천원)
		사 망	부 상	실 종	계		
1960	44 568	71	153	86	310	423 901	77 000
1961	60 003	252	260	85	597	94 748	1 756 114
1962	18 662	370	203	184	757	…	1 057 430
1963 (6.17—7.5)	82 214	220	204	25	448	128 471	4 568 302

자료 출처: 《한국 통계 년감》 1962년판, 《동화 통신》 1963년 7월 6일.

폭 발 물 사 고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발생 건수	387	327	373	326	787	177
인명 피해 (명)	804	966	721	696	517	475
그 중 사망자 수	233	483	284	177	154	…
부상자 수	571	483	437	519	363	…

자료 출처: 《령남 일보》 1963년 5월 4일, 《매일 신문》 1964년 5월 28일.

자동차 및 렬차 사고

(단위 명)

	발생 건수	인 명 피 해			월 평 균	
		사 망	부 상	계	발생 건수	인명 피해
1951	1 695	1 294	2 978	4 272	141	356
1952	3 639	2 103	4 995	7 098	303	592
1953	4 921	2 628	6 235	8 863	411	739
1954	5 599	2 561	8 282	10 843	467	904
1955. 1—11	4 588	1 803	6 385	8 188	382	682
1956. 1—10	5 241	2 279	6 505	8 784	437	732
1957	4 188	1 663	5 547	7 210	349	601
1958	4 423	1 356	4 712	7 068	369	589
1959	4 909	1 276	6 206	7 482	409	624
1960	6 342	1 402	8 751	10 153	529	729
1961	6 954	1 169	7 222	8 391	579	699
1962	7 699	1 572	6 877	8 469	642	706
1963	6 053	1 324	6 486	7 810	504	651

주: 1963년도 자료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것이며 자동차 사고 건수는 1962년에 비해 1,300건, 인명 피해는 1,270여 명이 증가됨.

자료 출처: 《서울 신문》 1955년 1월 12일, 《동화 통신》 1957년 11월 18일, 《경향 신문》 1957년 12월 8일, 《동양 통신》 1958년 3월 17일, 《합동 통신》 1958년 11월 2일, 1958년 12월 16일, 1962년 1월 18일, 《서울 방송》 1962년5월 30일, 1964년 1월 16일, 《한국 통계 년감》 1962년판, 《전남 일보》 1963년 8월 14일.

화 재

	발생 건수	인명 피해 (명)			건물 소실 (동)	피해액 (천원)
		사 망	부 상	계		
1951	1 553	124	290	414	3 749	56.5
1952	1 566	177	507	684	3 862	96.5
1953	2 453	136	474	610	1 404	1 983.6
1954	2 485	168	339	507	9 664	171.2
1955	1 935	122	307	429	1 615	458.1
1956	1 341	109	278	387		130 000.0
1957	1 150	1 460	1 740	3 200	1 915	156 758.0
1958	1 667	112	180	292	2 566	170 804.8
1959	1 558	136	195	331	1 764	161 844.9
1960	1 946	130	287	417	2 901	939 131.8
1961	2 350	…	…	275	471	227 300.0
1962	2 200	131	317	448	2 204	200 000.0
1963	1 904	103	200	303	2 134	321 077.6

자료 출처: 《한국 년감》 1956년판, 《조선 일보》 1957년 7월 13일, 《합동 통신》 1958년 1월 15일, 《부산 일보》 1960년 1월 16일, 《경향 신문》 1963년 4월 3일, 《서울 방송》 1960년 11월 15일, 1962년 3월 17일, 1962년 10월 13일, 《동양 통신》 1960년 1월 15일, 1961년 1월 30일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7월 14일, 1964년 1월 20일, 《동화 통신》 1962년 11월28일.

범죄의 증가

	1950—1954①	1955②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5)
총 범죄 건수	384 392	106 085	177 505	168 265	180 527	185 518	325 531	715 675	723 985	310 197
일 평균 발생 건수	291	299	487	461	495	508	892	1 961	1 984	2 054
증가 비률 (%)	100	103	167	158	170	175	307	674	682	706

주: ① 1950년 10월—1954년 6월 기간에 발생한 범죄임. ② 1955년 12월 중순까지의 자료임.

자료 출처: 《동양 통신》 1954년 10월 13일, 《합동 통신》 1955년 12월 21일, 《세계 통신》 1958년 2월 9일, 《조선 일보》 1962년 1월 23일, 《대한 일보》 1963년 3월 12일, 《한국 일보》 1963년 7월 10일.

공무원, 소년, 학생 범죄의 증가

(단위 명)

	공 무 원	소 년	학 생	증가 비률 (%)		
				공 무 원	소 년	학 생
1957	3 322	15 139	…	100	100	
1958	4 154	18 690	2 271	125	123.5	100
1959	4 112	24 959	2 933	123.8	164.9	124.8
1960	3 470	31 559	3 570	104.5	208.5	157.2
1961	…	41 800	4 210	…	276.1	185.4
1962	5 184	72 897	4 282	186.2	481.5	188.6
1963	…	98 794	…	…	652.5	…

자료 출처: 《세계 통신》 1959년 1월 5일, 《합동 통신》 1955년 11월 6일, 1959년 4월 12일, 《동양 통신》 1960년 1월 11일, 1964년 2월 25일, 《민국 일보》 1961년 4월 2일, 《동화 통신》 1963년 2월 21일, 《국제 신보》 1963년 3월 19일,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7월 12일.

국내 주요 일지

(1963.1.1—12.31)

1 월

1일 김 일성 수상 신년 축하연에서 신년사.

4일 강선 제강소 강철 직장 제3호 로 2중 천리마 작업반원들 전국의 제철, 제강 부문 용해공들에게 로 단위 경쟁을 호소. ▶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웽그리야와 알바니야를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3.1 귀국). ▶ 우리 나라 녀성 대표, 꾸바에서 열릴 제2차 미주 녀성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1.22 귀국).

5일 우리 나라와 루마니야 간의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부다페스트에서 체결.

8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시 및 산업 건설성, 농촌 건설성을 각각 폐지하고 건재 공업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발표. ▶ 대안 전기 공장 주조 직장 로동자들이 전국 기계 공업 부문의 주물 주강 직장 종업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9일 조선 로동당 대표단, 독일 사회 통일당 제6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1.24 귀국). ▶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5 귀국). ▶ 평양에서 철도 협조 기구 지역별 수출입 및 통과 화물 수송 계획 합의 회의 1월 17일까지 진행.

12일 우리 나라와 쏘련 간의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모쓰크바에서 조인.

13일 민청 창립 17 주년 기념 전국 빙상 경기 대회 1월 22일까지 진행. ▶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평양 도착(1.15 귀국).

14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남조선에서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연장하려는 책동과 관련하여 성명. ▶ 개풍군 농촌 건설대, 전국 농촌 건설대들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 세일론 방문 우리 나라 기자 동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2.19 귀국).

16일 1962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중앙 통계국의 보도 발표. ▶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연극인 평양을 출발 (2.2 귀국). ▶ 창성군 약수 중학교에 우리 나라에서 첫 《천리마 학교》 칭호를 수여.

17일 전국 교통 운수 선로 반장 회의 진행.

21일 전국 자동차 운수 부문 열성자 회의 2 일간에 걸쳐 진행. ▶ 전국 체신 부문 열성자 회의 23일까지 진행. ▶ 평양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 윤 병권 청년 조립 직장 로동자들, 전국 주택 조립부문 로동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 숙천 농기계 작업소 제 1 중대원들, 전국 농기계 작업소 뜨락또르 운전수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3일 꾸바 방문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을 출발(2.22 귀국). ▶ 우리 나라 대표단이 제3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3.12 귀국). ▶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세계 직련 집행 위원회 제26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2.6 귀국).

24일 직총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25일까지 진행. ▶ 조선 유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회담 로잔느에서 개시.

25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단장, 제18차 국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회담을 26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남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단장에게 서한.

30일 로동 신문 사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자》 발표. ▶ 우리 나라와 파란 간의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와르샤와에서 조인. ▶ 우리 나라와 웽그리야 간의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부다페스트에서 조인. ▶ 쁘라가에서 열리는 사회주의 국가 재정상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 출발(2.18. 귀국).

31일 민청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 2월 2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 조선 기자 동맹 대표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회의 예비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 월

1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파란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와르샤와에서 조인.

3일 김 일성 수상 제3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에 축전.

4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 평양에서 제2 하바나 선언 발표 1 주년 기념회를 진행. ▶ 우리 나라와 꾸바 간에 1963년도 통상 의정서 하바나에서 조인.

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공화국 내각의 공동 명의로 조선 인민군 및 조선 경비대 내 모범적인 부대 구분대들에 축기를 수여.

7일 조선 인민군 창건 1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공화국 내각

의 공동 명의로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발표. ▶우리 나라 빙상 대표단이 1963년도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3.5 귀국). ▶조선—네팔 친선 협회 대표단이 네팔을 친선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3. 8 귀국).

8일 김 일성 동지의 참석하에 전 문섭 소속 군부대 장병들 조선 인민군 창건 15 주년을 성대히 경축.

9일 우리 나라와 체코슬로바키야 간의 1963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쁘라가에서 조인. ▶평양 축구단이 버마, 인도네시아, 캄보쟈를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3일 이라크 공화국 신 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외무상이 이라크 외무상에게 전문. ▶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간의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띠라나에서 조인. ▶녀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 14일까지 진행, 1962년도 녀맹 단체들의 사업을 총화하고 1963년도 과업에 대하여 토의.

15일 우리 나라와 꾸바 간에 텔레비죤 및 라지오 방송 분야에서의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 하바나에서 조인.

16일 김 일성 동지께서 가진 수산 사업소 민청호 557호, 558호 저예망선 전체 선원들에게 편지. ▶우리 나라와 아랍 련합 공화국 간에 무역 협정 카이로에서 조인.

22일 인도네시아 무역 사절단 평양에 도착.

24일 전국 스키 경기 대회 개막, 3월 4일까지 진행.

25일 전국 산림 부문 지도 일'군 회의 27일까지 진행.

27일 우리 나라 탁구 선수단 루마니야를 친선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8일 3.1 운동 44 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3 월

1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참석하에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 3일까지 진행.

2일 우리 나라와 우간다 간의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우간다에서 조인.

9일 우리 나라와 예멘 아랍 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 교환에 관한 협정 예멘 아랍 공화국에서 체결. ▶우리 나라 력기 선수단 국제 력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출발 (3.19 귀국).

10일 우리 나라 선수들이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국제 탁구 경기 대회 단체전에서 1위 쟁취.

12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참석하에 평양시 인민반 모범 일'군 회의 13일까지 진행,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공동 명의로 평양시 인민반 모범 일'군 회의에 축하문.

18일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철도절을 제정함에 대한 정령과 평안남도와 남포시의 일부 행정 구역을 분할 및 조절할 데 관한 정령을 발표.

19일 우리 나라 정부가 씨리아 아랍 공화국 신 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공화국 외무상이 씨리아 아랍 공화국 수상 겸 외상에게 전문.

20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하에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 진행, 남조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22일 페막).

22일 중국 문화 대표단 래방.

23일 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간에 영화 필림 교환에 관한 계약을 티라나에서 체결.

25일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전국 위원회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청년 학생 대회 진행.

27일 우리 나라와 월남 민주 공화국 간의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 비준서 평양에서 교환. ▶우리 나라와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를 평양에서 조인.

29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야 간의 보건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부다페스트에서 체결.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남북 유일팀 구성을 위한 선수 선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을 제의하는 전문을 대한 올림픽 위원회 서기장에게 보냄.

4 월

2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75톤급 대형 탑식 기중기를 제작.

4일 직총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대안 전기 공장에 첫 천리마 공장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

1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뉴질랜드 공산당 정기 대회와 분란 공산당 제13차 대회에 축전. ▶16세기 말 조선 인민이 낳은 백과 전서적 대학자이며 열렬한 애국자인 지봉 리 수광 탄생 400 주년을 기념. ▶로동 신문사 대표단 중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5. 17귀국).

11일 《로동 신문》 론설 《출로는 민족의 자주 통일에 있다》 발표. ▶조선 기자 대표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5.10 귀국)

12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벨기 공산당 제14차 대회에 축전. ▶서남 아프리카 청년 대표단 평양 도착 (4.18 귀국).

13일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이 체코슬로바키야 청년 동맹 제4기 대회와 볼가리야 지미뜨로브 공산 청년 동맹 제10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5일 김 일성 수상께서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을 표창,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천리마 공장 칭호 수여식 진행.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대회 개막, 5월 9일 페막.

16일 《박해 받고 있는 기자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순간》에 제하

여 남조선에서의 언론 탄압을 항의 규탄하는 평양시 언론인 집회 진행. ▶아르젠틴의 저명한 의사 씨메온 파터교프 평양에 도착(4. 27. 귀국).

17일 조쏘 친선 협회와 쏘련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련맹, 쏘조 친선 협회 간의 1963년도 협조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8일 남조선 인민들의 4월 봉기 3 주년에 제하여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대회에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19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에서 공예 작물과 잠견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데 대한 공동 결정을 채택. ▶우리 나라와 체코슬로바키야 간의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쁘라가에서 조인.

20일 평양시 지방 산업 종국 혼방직 모체 공장 종업원들 월남 남딘 지방 국영 방직 공장 종업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전국 아동 방송 예술 경연 대회 진행.

21일 김 일성 수상께서 제1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에 축전.

22일 위대한 웨. 이. 레닌 탄생 93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23일 《로동 신문》 론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발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와 조선 학생 위원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 학생들의 국제적 련대성의 날》에 제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학생 단체들에 서한.

24일 쏘련과 꾸바에서의 5.1절 경축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들이 평양을 출발.

25일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남북 유일 팀 선수 선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 조선 대표들의 실무 회담을 진행할 데 대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대한 올림픽 위원회》에 전문. ▶우리 나라와 몽고 인민 공화국 간의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우리 나라와 월남 민주 공화국 간의 문화 교류 계획서 하노이에서 조인. ▶중국 방문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 (5.13 귀국).

26일 우리 나라 5.1절 경축 행사에 참가할 중국 직맹 대표단이 평양 도착 (5.18 귀국)▶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간의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티라나에서 조인.

27일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중국에서의 5.1절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5.21 귀국).

28일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라틴 아메리카 기자 협조 위원회에 편지.

29일 우리 나라 5.1절 행사에 참가할 인도네시아 직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5.20 귀국).

30일 새로 건설된 평양 제사 공장 조업 개시 ▶우리 나라 5.1절 경축 행사에 참가할 쏘련, 칠리, 브라질, 기네아 직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중국 8.1 롱구단 평양에 도착(6.1 귀국).

5 월

1일 5.1절 기념 경축 대회 평양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성대히 진행.

3일 김 일성 수상께서 서부 이리안에 대한 행정권이 인도네시아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겸 수상 수카르노에게 축전. ▶볼리비아—조선 친선 위원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5.25 귀국).

4일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웽그리야 및 체코슬로바키야 직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5일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에서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과 관련하여 《대한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전문. ▶우리 나라 2.8 롱구단과 중국 8.1 롱구단 간의 첫 경기 평양에서 진행.

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평양시내 일부 행정 구역을 분할 및 조절하고 평안북도 내 일부 행정 구역을 개편 및 조절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로동 신문사 대표단 꾸바로 출발(6.4 귀국).

9일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2차 회의 개막, 5월 11일 폐막.

10일 원산 철도 공장에서 만능 유개 화차 《511》을 생산. ▶철도절 경축 교통성 기념회 진행.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유일 팀 선수 선발 문제 토의를 위한 남북 조선 대표들의 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으로 출발, 회담 5월 17일—6월 1일까지 진행(6.7 귀국).

1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6차 전원 회의 15일까지 진행, 1.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2.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 ▶우리 나라와 쏘련 간의 1963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 계획서와 우리 나라 과학원과 쏘련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우리 나라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간의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1963년도 실행 계획서 베를린에서 조인.

15일 강 진건 동지 서거. ▶우리 나라 대표단, 철도 협조 기구 제 8차 교통상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6.9 귀국).

17일 말리 공화국 정부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5.27 귀국). ▶우루과이에 우리 나라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는 데 합의.

18일 조선 중앙 통신사에서 우리 측 지역에 침입한 미 군용 비행기를 나포한 것과 관련하여 보도 발표.

19일 조선 농민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20일 압록강 지구 관개 매봉 저수지에서 선천, 동림, 철산 등 3개군의 6천 여 정보에 급수 개

시. ▶쎄일론 로동 조합 련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6.3 귀국).

21일 중국 과학원 대표단 평양에 도착 (6.12 귀국).

22일 김 일성 수상께서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 전문.

24일 말리 공화국 정부 문화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기니아 녀성 대표단, 캄보쟈 기자 대표단, 우간다 인민 대회당 조사 및 공보 비서 일'군들 평양에 도착.

27일 《로동 신문》 론설《맑스-레닌주의 배신자의 정체》 발표.

28일 우리 나라 레스링 선수단이 제15차 자유형 레스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6.11 귀국). ▶칠리—조선 친선 문화 협회 대표단 및 잔지바르 기자 평양에 도착.

29일 기니아 녀성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녀성 군중 대회 진행. ▶우리 나라 빙상 협회 대표단이 국제 빙상 동맹 제30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6.18 귀국).

31일 브라질 사회 활동가 및 쎄일론 문화인들 평양에 도착.

6 월

3일 김 일성 수상께서 내부 자치 실시를 위한 선거에서 케니아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이 승리하고 죠모 케니아타가 내부 자치 정부 수상으로 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 ▶ 우간다 로조 대표단 평양에 도착(6.22 귀국).

4일 새로 건설된 보천보 박물관 개관 ▶조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 대표단 평양에 도착(6.22 귀국).

5일 최 용건 동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6.23 귀국). ▶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 이 제32차 뽀즈난 국제 시장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우리 나라 대표 루마니야 소비 협동 조합 제4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7일 최 용건 동지와 류 소기 동지 간에 북경에서 회담. ▶ 중국 건설 견학단 평양에 도착.

10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중국 과학원 간의 1963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1일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는 경공업 부문 일'군 회의 15일까지 진행.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조선 유일 팀 선수 선발 문제 토의를 위한 남북 조선 쌍방 회담의 공동 합의서를 승인.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서부 독일 당국이 독일 방송 주필을 비법적으로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서부 독일 당국에 항의.

12일 말리 방문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7.2 귀국). ▶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7.2 귀국▶《로동 신문》 론설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발표.

14일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에서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미국 흑인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에서 조선 유일 팀 선수 선발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토의를 위한 홍콩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승인함과 관련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대한 올림픽 위원회》에 전문.

18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6.29. 귀국). ▶세계 직련 대표단 평양 도착.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조선 유일 팀 선수 선발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토의를 위한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간의 회담을 재개할 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서기장에게 전문.

19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3년도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 우리 나라 녀성 대표단이 세계 녀성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7.2 귀국).

21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와 하노이에서 회담.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유로운 조국 래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 민청 중앙 원원회 전원 회의에서 청소년 교양 사업에 대하여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정형을 토의하고 민청 제5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 ▶우리 나라와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과학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22일 우리 나라 과학원 대표단 중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꾸바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7.1 귀국). ▶인도네시아 기자 평양에 도착.

23일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의 공동 성명 발표.

24일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과 관련한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조선 유일팀 선수 선발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토의를 위한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을 7월 26일로 연기하자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옷토 마이에르 서기장의 제의에 동의하여 전문.

25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와 조선 학생 위원회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자유로운 조국 래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꾸바 직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26일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독립 1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평양 출발. ▶우리 나라 륙상 선수단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7.9 귀국).

27일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과 녀성들의 자유로운 조국 왕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28일 공화국 내각 결정 제40호 《남반부의 절량민들과 풍수해 리재민들을 구제할 데 대하여》를 채택. ▶공화국 농업 위원회 위원장이 남반부의 절량민들과 풍수해 리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미를 인수하여 갈 데 대하여 대한 민국 농림부 장관에게 전문. ▶우리 나라 정부와 말리 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협조 및 기술 원조에 관한 협정 바마코에서 체결. ▶우리 나라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아르젠틴 당국이 중국 신화사 기자 황 재만을 무근거하게 체포 구금한 데 대하여 아르젠틴 대통령에게 항의 전문.

29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 ▶군사 정전 위원회 우리측 수석 위원이 남조선 절량민들과 풍수해 리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미 인도 인수 사업 보장과 관련하여 군사 정전 위원회 적측 수석 위원에게 편지.

7 월

1일 우리 나라와 꾸바 공화국 간의 1963—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조인.

2일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 실현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 ▶우리 나라 신 금단 선수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 녀자 400 메터 경주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계 기록 수립.

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쎄일론 공산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쎄일론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축전. ▶우리 나라 신 금단 선수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 녀자 800메터 경주에서 1위 쟁취.

4일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아 독립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7.17 귀국). ▶우리 나라 작가 대표단이 아세아, 아프리카 대회 집행 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8.13 귀국).

8일 루마니아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에서 조국으로 래왕의 자유를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념원이 하루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급히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성명 발표.

17일 1963년도 상반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 총화에 대한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통계국의 보도 발표. ▶우리 나라와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3년도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우리 나라 과학원과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및 1963—1964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9일 우리 나라 경제 학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원조》의 본질을 폭로 단죄하여 성토문 발표. ▶일본 사회당 중앙 집행 위원회 기관지국 국장 평양에 도착(8.5 귀국).

2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행위를 비롯한 온갖 박해를 즉시 중지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과 앞으로 이러한 범죄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당국에 강력히 요구.

21일 꾸바 방문 우리 나라 청년 대표단 평양을 출발(8.27 귀국).

22일 인도네시아 녀성 대표단 평양에 도착(9.9 귀국). ▶중국 방문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

2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이 남북 유일 팀 선수 선발 문제 토의를 위한 남북 조선 대표단 제2차 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8.2 귀국).

2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에서 미국 측의 조선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비망록 발표. ▶쏘련 경제 대표단 평양에 도착 (8.7 귀국).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세계 직련 협의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8.5 귀국).

26일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 개막(8.8 폐막). 우리 나라 자전거 선수단이 1963년 세계 자전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7일 중국 체조 대표단 평양에 도착(8.17 귀국).

30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월남 민주 공화국 친선 방문 결과에 대하여 박 금철 동지 보고.

3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남조선에서 미제의 범죄적 정체를 은폐하며 미군의 남조선 장기 강점을 정당화하려는 미 국무성의 성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8 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2일 일본 조선 연구소 대표단 평양에 도착(8.22 귀국). ▶중국 연극 대표단 평양에 도착(9.11 귀국).

3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4일 《로동 신문》 사설 《미제의 핵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며 핵 무기를 철페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발표.

7일 우리 나라 체육 대표단이 제 3차 쏘련 인민 종합 체육 대

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8.27 귀국). ▶조선 중앙 통신사에서 미제 침략자들의 허위적인 조작 행위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10일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 선포 18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우리 나라 학생 대표단이 국제 대학생 건축가 꼰페렌찌야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1일 제2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 개막.

13일 김 일성 동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량강도 사업을 현지 지도, 김 일성 동지의 참석하에 량강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 진행 (13일부터 3일간). ▶김 일성 수상께서 주 은래 총리의 8월 2일부 서한과 관련하여 회답 서한.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 개막.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전국 미술 써클 전람회 개최. ▶공화국 창건 15주년 재일본 조선인 경축단 평양에 도착. ▶페루 좌익 혁명 운동당 대표단 평양에 도착.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9.16 귀국).

14일 8.15 해방 18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김 광협 동지 보고). ▶국제 적십자 대표자 리사회와 적십자 련맹 제27차 리사회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적십자회 대표단 출발 (9.18 귀국). ▶8.15 해방 18주년을 경축하여 량강도 혜산시에서 공업 및 농업 전람관 개관.

15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하에 8.15 해방 18주년 경축 혜산시 군중 대회 성대히 진행. ▶량강도 혜산시 내 청년 학생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을 모시고 집단 체조 《로동당기'발 따라》를 출연.

16일 월남 화보사 주필 오 더무 평양에 도착.

17일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 위원장이 버마—조선 친선 협회 창립을 축하하여 전문. ▶우리 나라 2.8 롱구 선수단 사회주의 국가 군대들 간의 남자 롱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남북 조선 유일 팀 구성 문제 토의를 위해 로잔르로 출발(9.4 귀국).

18일 조선 건설 림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일본 전국 건설 림업 로동 조합 제16차 대회에 축전.

19일 녀맹 중앙 위원회에서 일본 제9차 모친 대회에 축전.

20일 중국에 있는 외국 류학생 견학단 평양에 도착. ▶인도네시아 체육 대표단, 남자 롱구 선수단과 남자 배구 선수단 평양에 도착(8.31 귀국).

21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조선 인민군 군무자 예술 써클 경연 대회 개막. ▶우리 나라 대학생 체육 협회 대표단이 국제 대학생 체육 련맹 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2일 《로동 신문》 론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복무하고 있다》 발표.

23일 모란봉 경기장에서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 남자 롱구, 배구 선수들 간에 친선 경기 진행, 세번에 걸친 친선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승리.

24일 우리 나라와 아랍 련합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발표 ▶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연극 견학단 평양을 출발

27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예멘 아랍 공화국 정부 대표단 도착(9.11 귀국).

28일 우리 나라 대표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집행 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9.18 귀국).

29일 우리 나라 빙상 혹케이 협회 국제 빙상 혹케이 련맹에 가입.

30일 우리 나라 주재 몽고 인민 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 평양 도착. ▶인도네시아 축구단 평양에 도착.

31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캄보쟈 왕국 정부 대표 평양에 도착(9.15 귀국).

9 월

1일 조선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에서 조선 재외 동포 원조 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재일 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열세번째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7억 9,109만원(일화) 송부.

2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이라크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 도착 (9. 12 귀국). ▶우리 나라 사회 안전성 축구단과 인도네시아 축구단 간의 친선 경기 진행.

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5일까지 진행, 1.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대한 예비적 총화와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2.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 토의. ▶캄보쟈 체육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공화국 창건 15주년 행사에 참가할 중조 우호 협회 대표단 도착(9.18 귀국).

4일 우리 나라 대표단이 국제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기구 제19차 정기 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9.27 귀국).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독일, 루마니야, 체코슬로바키야, 파란 직맹 대표단 도착 (9.11 귀국). ▶공화국 창건 15주년 행사에 참가할 쏘조 친선 협회 대표단 도착(9.18 귀국).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말리 공화국 정부 대표단 도착(9.16 귀국).

5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영화 축전 개막. ▶중국 방문 조중 친선 협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8 귀국). ▶우리 나라 대표단이 조선 월남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발표(로동 신문).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전국 방송극 축전 시작.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남조선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월남 총공회 대표단 도착(9.16 귀국).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일본 사회당 국회 의원단 도착(9.19 귀국).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일조 협회 대표단 도착.

7일 디.엔. 아이디트 동지가 인솔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평양에 도착(9.15 귀국). ▶년산 5만 톤 능력의 본궁 소다 공장 조업식 진행. ▶현대적 설비를 갖춘 국립 중앙 도서관 준공. ▶김 일성 종합 대학 앞 대도로 개통. ▶제 18차 올림픽 경기 조직 위원회에서 이 대회에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를 초청.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꾸바 공화국 정부 대표단 도착 (9.12. 귀국). ▶ 인도네시아 공화국 외무성 제 3 부상과 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인도네시아 공화국 림시 대리 대사 평양에 도착(9.15 귀국).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평양에 도착(9.19 귀국). ▶공화국 창건 15주년 행사에 참가할 알바니야 직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기니아 공화국 정부 대표단 평양에 도착.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 대표단 평양 도착(9.14 귀국).

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대표단 평양 도착(9.16 귀국).

9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연에서 김 일성 동지 연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11일 디.엔. 아이디트 동지가 인솔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12일 조선 로동당 대표단과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간의 회담 진행.

13일 조선—쎄일론 친선 협회와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간에 1963년—1964년 문화 교류에 관한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4일 우리 나라 의학자 대표단이 중국 제8차 외과 학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0.25 귀국). ▶우리 나라 대표단이 조선—체코슬로바키야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 출발(10.15 귀국). ▶천리마 전람관 새로 개관.

15일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이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부주석인 류 소기 동지 평양에 도착(9.20 귀국).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제2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대회 폐막.

16일 가나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9.26 귀국).

17일 알바니야 롱구단 평양에 도착.

18일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대표단이 세계 과학자 련맹 동부 아세아 지구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 출발.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제 4차 국제 건축 목재 및 건재 로동자 직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8 권투 및 레스링 선수단, 사회주의 국가 군대들 간의 권투 선수권 대회와 레스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0.15 귀국). ▶우리 나라 건축가 동맹 대표단이 국제 건축가 동맹 제7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11.1 귀국). ▶중국 상해 실험 가극원 무극단 평양에 도착(10.17 귀국).

19일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와 조선 방문 일본 사회당 사절단 (국회 의원단) 간에 공동 성명 평양에서 조인. ▶조선과 알바니야 간의 과학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20일 《전 세계사》(쏘련 과학원 편)에서 조선 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로동 신문 론설 발표. ▶중국 륙상 대표단, 버마 축구단 평양에 도착.

21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농업 대표단 출발(12.6 귀국).

24일 중국 영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11.20 귀국).

2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에서, 유엔 총회 제18차 회의 의정에 또다시 《조선 문제》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조몽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할 몽고 대표단 평양에 도착.

26일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와 조선 방문 일조 협회 대표단간에 공동 성명 조인.

27일 일본 사회당 활동가 대표단 평양에 도착. ▶네팔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28일 중국 방문 조선 중앙 통신사 대표단 평양을 출발(10.29 귀국).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 평양을 출발(10.29 귀국).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10.17 귀국).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제3차 태평양 및 아세아 지역 항만 로동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0.25 귀국). ▶루마니야 방문 평양 신문사 기자 평양 출발(11.1 귀국).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조선 인민군 제12차 군무자 예술 경연 대회 폐막.

30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참석하에 평양 학생 소년 궁전 개관.

10 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첫 학생절에 제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축하문.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전국 학생 예술 써클 공연을 관람. ▶첫 학생절 기

념 평양시 학생 군중 대회에서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4일 우리 나라 정부와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 간의 1964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영국 국제 무역 촉진 리사회 서기장과 영국 무역계 인사들 평양에 도착(10.10 귀국).

8일 조선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와 영국 국제 무역 촉진 리사회 간에 무역 협정 및 공동 콤뮤니케 조인. ▶중국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10.16 귀국). ▶전국 판개 부문 일'군 열성자 회의 진행.

9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정령 발표.

11일 일본 민족 가무단 평양에 도착(10.23 귀국).

12일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이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60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쎄일론 국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10.25 귀국)

13일 우리 나라 체육절 14주년 기념 중앙 선수단 체육 대회 개막. ▶평양 탁구단과 캄보쟈 탁구단 간의 친선 경기 진행. ▶평양 롱구단과 캄보쟈 롱구단 간의 친선 경기 진행.

14일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평남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 진행. ▶일조 무역회 사무 국장 평양에 도착.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남부 월남 근로자 및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직맹 위원회 창립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11.1 귀국). ▶우리 나라와 중국 간의 1964년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 (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정령 발표. ▶인도네시아 인민 문화 련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토고 자유 청년동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우루과이 국제 시장 및 전람회 관계 위원회 총 조정관 평양에 도착.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제8차 전원 회의에 참가할 각국 대표단들 평양에 도착(11.6 귀국). ▶인도네시아 인민 문화 련맹 가무단 평양에 도착.

17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웽그리야 과학원 간의 1963—1964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8일 조선 독일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6 차 회의에 참가할 독일측 대표단 평양에 도착(11.27 귀국).

21일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정식 성원으로 가입. ▶중국 연극 대표단 평양에 도착 (11.9 귀국). ▶꾸바 녀성 대표단 평양에 도착(11.8 귀국).

2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알곡 증산 투쟁에서 특출한 성과를 달성하여 근위 1급군 칭호를 쟁취한 문덕군 내 전체 협동 농장원들과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공화국 외무성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월남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성명 발표. ▶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버마를 비롯한 동남 아세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무장 봉기 9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11.12 귀국). ▶우리 나라 방문 파란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쏘련 직맹 제13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11.15 귀국).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과 녀맹 대표단이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무장 봉기 9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독일 작가 평양에 도착. ▶웽그리야 방송 일'군 평양에 도착. ▶알바니아 방문 우리 나라 권투 선수단 평양을 출발.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상업 견학단 평양을 출발. ▶중국 《인민 일보》 대표단 평양에 도착(11.16 귀국).

29일 민청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 7차 전원 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민청 제5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 데 대하여 토의. ▶중국 경제 학자들 평양에 도착.

31일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캄보쟈 왕국 독립 1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1 월

1일 알바니아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 (11.20 귀국).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대표단 평양에 도착 (11.27 귀국). ▶조선 국경 철도 공동 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중국 철도 대표단 평양에 도착(11.15 귀국).

6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과학자들 평양을 출발(12.24 귀국).

9일 일본 문화인 대표단 평양에 도착.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무용 대표단 평양을 출발. ▶알바니아 방문 우리 나라 작가 평양을 출발.

13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도서관 일'군들 평양 출발.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 간에 1964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4일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자유 독일 직업 총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12. 13 귀국).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사진 전문가들 평양을 출발.

15일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통상 협정과 일련의 기술 협정들 인도네시아에서 조인. ▶아랍 련합 공화국 무역 일'군 평양에 도착. ▶중국 도시 건설 참관단 평양에 도착(12.17 귀국).

16일 우리 나라 철도 대표단이 철도 협조 기구 위원회 제62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8 축구단이 사회주의 국가 친선 군대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8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일부 행정 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대하여 정령 발표.

20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12. 26 귀국). ▶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기니아 전국 근로자 련맹 제3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우리 나라 대표단이 세계 평화 리사회 회의에 참가 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1일 우리 나라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대표단,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제4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2일 공화국 정부에서 비망록 《조국 통일 문제 해결의 길》 발표.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 (12.23 귀국).

23일 조국 평화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와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과녁 삼아 원자 무기 시험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성토문 발표.

24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에서 근위 1급군 칭호를 쟁취한 신천군 내 전체 협동 농장원들과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25일 공화국 정부에서 미제의 내정 간섭과 침략 행위를 반대하는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 1964년도 조중 압록강, 두만강 운항 협조에 관한 협정 장춘에서 조인.

26일 중국 보건 대표단 평양에 도착(12.19 귀국).

27일 우리 나라 민청 대표단이 세계 민청 집행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중국 방문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 기술 대표단 평양을 출발.

30일 출판 보도 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에게 3.1 월간 상 수여.

12 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에서 근위 1급군 칭호를 쟁취한 황주군, 북청군내 전체 협동 농장원들과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에게 축하문.

3일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 진행, 선거자들이 100% 투표에 참가, 100% 찬성 투표.

6일 인도네시아 신임 총령사 평양에 도착. ▶우리 나라 과학자 대표단이 민주 독일과 쏘련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8일 안주 탄광에서 1963년도 년간 석탄 생산 계획을 완수.

9일 일본 기자회 의장, 일본 실업계 대표단 평양에 도착. ▶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쎄일론 로조 련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0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공동 련석 회의 진행, 미제 침략자들에 의하여 18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이 가져다 준 통절한 사태를 토의하고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공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을 제시,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 및 사회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11일 꾸바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수산 대표단 평양을 출발.

13일 조선—남부 월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 결성.

15일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유엔 총회 제18차 회의에서 미제의 강요로 또다시《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단천—신북청간 전기 철도 첫 시운전.

17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과학상을 제정함에 관한 정령 발표. ▶쏘련 방송 일'군들 평양 도착.

19일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우리 나라 친선 대표단이 꾸바 혁명 승리 5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20일 공화국 내각에서 농촌 어린이들에게 겨울 옷과 모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채택. ▶제1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집회 진행. ▶우리 나라와 루마니야 간의 1964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21일 직총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 23일까지 진행,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 토의.

23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참석하에 전국 석탄 부문 열성자 대회 진행.

25일 우리 나라와 독일 간의 1964년도 통상 협정 평양에서 체결. ▶조선—꾸바 친선 주간 개막. ▶우리 나라와 일본 간의 정기 선박 배선에 관한 계약 체결.

28일 1963년도 전국 예술 축전을 총화.

29일 우리 나라와 파란 간의 1964년도 상품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30일 꾸바 해방절 5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남조선 주요 일지

(1963. 1.1—12. 31)

1 월

5일 박 정희가 《1963년도 시정 방침》에서 《4월 초에 대통령 선거, 5월 하순에 국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8월 중순에 《정권을 민간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떠벌임.

6일 동해 연안에 태풍, 8일까지 엄습.

7일 구 《민주당》계 정객들, 《정치 활동 정화법의 폐기, 대통령 및국회 의원 선거의 연기》를 주장하여 성명. ▶군사 《정권》이 내핍 생활》,《외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위 《국민 경제 선도책》을 조작.

8일 동해안 일대와 울릉도에서 해일, 피해액 1,145만 여원. ▶군사 《정권》의 전 《내각 수반》 송요찬이 박 정희의 장기 집권 책동을 비난. ▶매국적 《한미 령사 협약》 체결, 2월 5일 《최고 회의》에서 비준.

11일 《절도범을 고문으로 조작》이란 괴뢰 경찰의 만행 기사를 트집하여 《한국 일보》 기자 3명을 《남대문 경찰서》에 구속.

14일 박 정희 도당이 범칙을 확대한 《물가 조절 림시 조치법 중 개정 법률》을 조작.

17일 《정치 활동 정화법》 폐기와 《선거》 기일 연장을 거부한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여 야당 각파 구 정객들이 《공동 성명서》 발표.

18일 박 정희의 졸도들이 《민주 공화당》의 발기를 《선언》, 《발기 위원장》에 간첩 두목 김 종필을 선출.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에서 박 정희, 《유엔군》 사령관 메로이 등 《한미 고위 군사 회담》을 벌리고 《대공 국방 태세의 강화 문제》등을 밀의. ▶전라남도 해남—목포 간 정기 려객선 침몰, 138 명이 익사

21일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공설 시장에 큰 불, 피해액 1억 1,414만 여원.

22일 《성동 직물 공장》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버티기 투쟁에 들어감.

23일 대구에서 《자유 민주 청년 동맹》 발기인 대회 진행, 《4.19 혁명》 정신 계승을 선포.

25일 괴뢰 정부에서 반민족적 로동력 출가 추진 계획》을 작성, 1963년부터 년간 5백 명씩 3년 간에 1,500 명의 실업자를 외국에 팔아 넘기기로 결정.

28일 괴뢰 륙해군 현역병 복무 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괴뢰 《최고 회의》에서 결정.

2 월

2일 대전시 괴뢰 당국이 《잡곡 혼식의 불리행》이란 구실로 27개의 려관, 음식점들에 영업 정지 처분.

9일 《민정당》 주최 시국 강연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거슬린다는 구실로 괴뢰 경찰 당국이 중지시킴.

12일 괴뢰 상공부에서 《무역법 시행령》 제 37조 (무역 실적 기준 미달)에 의하여 295개의 무역 업체를 폐쇄.

13일 남조선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완전한 교육 자치제의 실현》을 요구하며 《조령모개식의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

14일 미왕 산업 회사 로동자들이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밀린 임금의 지불 등 8 개 요구 조건을 걸고 파업, 26일에는 일제히 롱성 투쟁에 들어감.

16일 남조선 로동자들 《쟁의 행위》를 금지한 군사 《정권》의 폭압 조치를 반대하여 《쟁의권 수호 투쟁 위원회》를 조직, 구속된 미왕 산업 회사 종업원의 즉시 석방을 요구. ▶괴뢰 정부 치안 국장이 《용공 행위와 반국가적 언동 및 행위 등 12 개 금지 사항》 발표.

18일 박 정희가 9 개 항목의 《정국 수습 방안》(2.18 성명)을 떠벌임. ▶괴뢰 정부 치안국에서 16—17일 량일간에 《반국가 사범 등 각종 사범》 1만 375건을 단속했다고 발표.

19일 미 륙군 차관 에일스가 서울에 기여들어 괴뢰 집단과 밀담하고 전선 지대와 후방 군사 시설을 시찰한 후 21일 귀국.

20일 괴뢰 정부에서 《어떠한 정치 정세의 변동에도 구애됨이 없이 한일 회담에 림하는 기본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떠벌임.

21일 도꾜 실업 련합회 사무리사를 단장으로 하는 《보세 가공 무역 촉진 한국 시찰단》이 서울에 기여 듬.

22일 미 군용차가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주민 1 명을 깔아 죽이는 만행 감행.

24일 남조선 각지 미군 부대 종업원들 《미군 종업원 로동 조합》 결성 준비 위원회 개최, 임금 2배 인상, 유급 휴가제 실시, 해고 반대 등을 요구키로 결의.

25일 박 정희의 《특별 전권 순회 대사》라는 명목으로 김 종필 해외로 도망, 김포 비행장에서 청년들이 《김 종필 출국 반대》, 《모든 흑막을 밝히라》고 시위. ▶증권 시세 폭락 (제2 《증권 파동》)으로 《증권 거래소》가 수라장으로 됨. ▶괴뢰 경찰이 《조선 일보》 정치부 기자를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미 제5 공군 사령관 스마트 (중장)가 서울에 기여듬.

28일 괴뢰 정부에서 《이민》 《기술 조사단》을 파테말라에 파견. ▶괴뢰 치안국에서 16—28일 기간에 《교통 위반》을 비롯한 각종 범법자 13만 8,291건을 단속하였다고 발표.

3 월

1일 서울 시내 금, 은상들 《개정 물품세법》 철폐를 요구.

2일 교육계 출신 인사들과 《4.19 의거 학생》들 중심의 《국민 주권 수호 련맹 발기인 대회》 진행.

5일 ▶ 《고려 대학교》 당국이 기한 내에 입학금을 내지 못한 87명의 입학을 취소.

7일 괴뢰 정부 치안국에서 남조선 각 시, 읍에 남조선 인민들의 일거 일동을 감시하며 탄압하기 위한 6,327 개의 《방범 위원회》를 조직.

8일 일본 외무성 아세아 과장 등 일행 3 명이 남조선의 정치 정세 시찰과 《한일 회담》 촉진을

목적으로 서울에 기여듬.

11일 경상남도에 있는 《대명 산업 건설 주식 회사》 로동자들,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회사 사무실을 습격. ▶괴뢰 중앙 정보부에서 박 림항(《중장》, 전 《건설부 장관》), 김 동하(《예비역 중장》, 전 《최고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 사건》 발표.

12일 서울 시내 《보성 고등 학교》 학생들이 교장과 교감의 사퇴를 요구하여 동맹 휴학.

13일 박 정희 졸개 일당이 쿠데타 관련자 즉결 처분, 구 정치인 배격 《시위》를 조작하고 삐라를 살포.

15일 《주한 미 교위 당국자》와 군사 《정권》 간에 《한미 교위 회담》 진행, 박 정희가 《군정의 4년간 연장 국민 투표》를 제기, 버거는 《본국에 즉시 보고》를 약속. ▶괴뢰 《정례 각의》에서 김 현철 내각이 《반국가 쿠데타 음모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직》을 결정.

16일 박 정희가 군정 연장을 꾀하여 성명(《3.16성명》) 발표. ▶삼남 지방 일대에 폭풍으로 풍수해 심대.

17일 박 정희의 군정 연장 책동을 반대하여 《4월 혁명 총련맹》의 청년들이 서울 시내에서 삐라를 뿌리다 괴뢰 경찰에 체포됨.

19일 서울 시내 안국동 일대에 군정 연장 반대 삐라가 살포됨. ▶《한국 신문 발행인 협회》에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 조치법》 제 3조의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20일 《민정당》, 《신정당》에서 《3. 16 성명》 반대 《공동 성명》발표.

22일 서울 시민들과 구 정치인들 시청 앞 광장에서 군정 연장 반대 시위. ▶광주, 부산 등지에서도 군정 연장 반대 시위.

25일 《2. 27》 선서식에 참가했던 《정치인》들 《3.16 성명》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여 《선언문》을 채택, 《군정 연장 반대 2.27 선서 정치 지도자 회의》를 상설 기관으로 조직. ▶미 태평양 지구 총사령관 콜린스가 서울에 기여듬.

26일 부산에서 청년들이 《군정 연장 결사 반대》 시위 진행. ▶《국민 주권 수호 련맹》 등 14개 단체들에서 《3. 16 성명》 즉시 철회, 《때묻은 구정치 세력》들이 물러갈 것을 주장하는 《주권 수호 선언문》 발표.

27일 괴뢰 국회 《의사당》 근방에 반미 삐라가 뿌려짐 ▶경남 창원군 가덕도에서 선박 2척이 전복, 22명이 사망.

29일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군정 연장 결사 반대, 구 정치인은 자숙하라》는 구호하에 《자유 수호 궐기 대회》 진행.

30일 괴뢰 륙군에서 경상남도 창원에 신병 교육 기구인 《훈련소》 《제 9750 부대》를 신설.

4 월

2일 경상북도 영덕군내 주민들, 조국 통일을 열망하여 《통일제》 진행.

4일 미 대사관에서 버거 대사, 《유엔군 사령관》, 《민주 공화당 의장》 등이 《격동하는 국내 정세》를 밀의.

8일 박 정희가 이른바 《중대 성명》 발표, 군정 연장 《국민 투표》를 9월 말까지 보류, 각 정당의 《체질 개선》과 《정계 개편》을 《권고》하고 《정치 활동》을 다시 《허용》.

9일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 중학교 학생들이 《실력 없는 교사는 물러가라!》고 동맹 휴학. ▶박 정희의 《4.8 성명은 3.16 성명의 연장》이라고 《2.27 선서자 상임 위원회》에서 성명.

12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생들이 학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경찰 간섭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박 정희와 괴뢰 각군 참모 총장 및 《중앙 정보 부장》등이 진해에서 《4.8 성명》 후의 《국내외 당면 문제》를 모의. 14일까지 계속.

13일 군사 《정권》이 학생들에 대한 군사 훈련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국 학생 특수 체육 총련맹》을 조작키로 결정.

14일 미 국무성 아세아 과장 조셉 이거가 《정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기여듬.

18일 서울 고려 대학교 학생들 《4.18 의거 3주년 기념식》 진행, 군정 철폐, 외세 배척,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주장하는 선언문 채택. ▶미 공군 참모 총장 리메이 대장, 미 제 5 공군 사령관 스마트 중장 등이 서울에 기여듬.

19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생들 《4.19 3주년 기념식》 진행, 《미국은 내정 간섭 말라!》, 《군정 연장 반대》, 《구 정치인은 자숙하라》 등 플랑카드를 들고 시위 행진. ▶박 정희의 관제 《제 3회 4.19 기념 식장》 (서울 운동장)에 군정 연장 반대 삐라가 뿌려짐.

20일 관제 《4.19 기념 식장》에서 경찰이 기자를 구타한 사건에 분격해 《신문 사진 기자단》이 괴뢰 당국에 항의문 제출, 22일에는 《4.19 기념 폭행 사건 규명 투쟁 위원회》,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 등에서 군사 당국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1일 일본 외무성 관방 총무 야스가와 다께시 참사관 등 3명이 서울에 기여듬.

22일 《2.27 선서자 회의》, 《민정당》, 《민주당》 등 35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이 《군정 연장 반대 전국 투쟁 위원회》 구성을 결정.

24일 미 태평양 함대 해병대 사령관 카손 에이.로버트 (중장)가 괴뢰 《해병대》 《시찰》을 위해 서울에 기여듬.

5 월

1일 대구 시내 5개 동 주민들에 대한 《식생활 실태 조사》 (조사 대상 57 세대)결과 밥을 먹은 집은 단 6세대.

3일 부산시 동래 고등 학교 학

생들, 괴뢰 문교부의 교장 전근 조치를 반대하여 롱성 투쟁 전개.

4일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만리 농민들이 빼앗긴 땅과 집의 보상을 요구하여 토목 공사 현장에서 앉아 버티기 투쟁 전개 (《한국 일보》).

5일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동양 제모 회사에서 해고 당한 로동자들, 퇴직금 및 해고 수당의 지불을 요구하여 롱성 투쟁을 단행.

6일 폭등하는 쌀값, 군사 《정권》의 《통제 가격》을 50%나 넘어서 일대 쌀 소동이 일어남.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우라베, 남조선의 정치 정세 타진과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절충을 목적으로 서울에 기여듦.

8일 포항시 대흥동 로상에서 미 제 8군 44 공병 대대 씨 중대 소속 미군 수 명이 6 명의 조선 주민들을 잭크 나이프로 함부로 찌르는 만행 감행.

10일 전라북도 임실군 섬진강 저수지 공사장 부근 주민 4만여 명이 토지 및 주택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군사 《정권》에 항의 (《한국 문화 방송》).

12일 미 36 공병단 본부 중대 소속 운전병이 조선 녀성 한 명을 마을 뒤'산으로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앞'이를 붙어 뜨리고 온 몸에 중상을 입히는 만행 감행.

15일 서울시 경찰국이 저희들의 비행을 보도한 《대한 일보》, 《경향 신문》, 《한국 일보》 기자 6명을 체포하여 보통 군법 회의에 붙임(《서울 동아 방송》).

17일 부산 수산 대학의 전체 학생들이 부산 종합 대학에서 수산 대학의 분립을 요구하여 동맹 휴학. ▶괴뢰 《내각 수반》, 《내무부 장관》, 미국 대사 버거 등이 유성 온천에서 《민정 이양 문제, 선거 분위기 전망 문제》 등을 밀의.

21일 서울시 장충동 주민들이 강제 철거를 반대하여 괴뢰 법원 집달리들에 항거.

22일 미국 대사 버거와 박 정희가 《한국 정치 정세와 추가 원조 문제》를 밀의. ▶《중앙 정보부》 차장이 군사 《정권》 전복을 기도한 《변란 음모 사건》 적발을 발표.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천일 곡산 회사 공장에서 원심 분리기가 폭발하여 7 명이 즉사하고 4 명이 중경상.

28일 《군정 연장 반대 전국 투쟁 위원회 의장단 회의》 진행, 박 정희의 《대통령》 출마 반대 성명.

29일 경상북도 금릉군 대덕면 관기리에 22 명의 장티브스 환자 발생.

6 월

3일 17개 《정부 관리 기업체》 종업원들이 《직원 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 페지를 요구하여 《쟁의》를 일으키기로 결의, 5일 《대한 석탄 공사》 등 14 개 《정부 관리 기업체》 4만 여 명 종업원들이 쟁의에 들어감.

4일 섬유 공업 각 공장 《대표》들, 《쟁의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고 임금 인상 요구 《쟁의》를 일으키기로 결정.

5일 6 개 시중 은행 사무원들이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6일 경상북도 김해군 내 절량 농민들, 황목병에 걸린 햇보리를 먹고 39 명이 식중독.

7일 대전에 있는 풍한 방직 회사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8일 4.19 인민 봉기에 참가했던 각 대학 출신 300여 명이 《민족 자유 청년회》를 결성, 구 정객들의 정파간 싸움과 군사 《정권》의 기만 책동을 규탄.

9일 외국 기관에 고용되여 있는 1만 1천 여 명의 로동자들이 로동 조건 개선, 생활 보장을 요구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10일 강원도 삼척에 있는 제일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광부 5 명 즉사, 1명 중상.

11일 서울 시내 근신 산업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롱성 파업에 들어감. ▶워커힐에서 《유엔군 사령관》, 《최고 회의 의장》, 괴뢰 《내각 수반》, 괴뢰 륙해 공군 참모 총장들이 모여 《군사 정부 시책 및 모종의 정치 문제》를 밀의.

13일 고려 석면 고무 공업 회사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 로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여 파업.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총장 해임 반대 성토 대회를 가짐, 17일에는 괴뢰 정부 문교부 청사 앞에서 시위.

14일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에서 범죄적 《이민》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이주 공사》를 설치하기로 결정.

17일 태풍 《샤리호》 남조선에 상륙. ▶괴뢰 《경찰 국장 회의》 진행, 《내무부 장관》이 《민정 이양》을 앞두고 치안 확보, 예방 경찰, 사찰 강화를 지시.

18일 버거 대사와 윤 보선이 남조선의 《정치 정세》를 밀의.

19일 미 해군 보급 기지에서 구축함 호위선 《홀트》호를 괴뢰측에 이양.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조흥 화학 회사에서 보이라 폭발로 로동자 2 명 즉사, 6 명이 중경상.

22일 《국가 국정 교과서》 인쇄 공장 로동자들이 밀린 연장 근무 수당금의 지불, 단체 협약 체결, 부당 로동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25일 서울의 쌀 값이 《사상 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앙등률》을 보여 한 가마니에 5,000 원, 군사 《정권》의 《쌔 미'가 단속선》을 2 배 이상 돌파. ▶폭우로 경상남도 거제군 장승포 고등 학교 언덕이 무너져 주택 10여 호가 묻히고 주민 130 명이 죽음.

27일 령남, 호남 지방 일대를 휩쓸은 태풍 《샤리호》에 의한 피해: 사망 186 명, 리재민, 6만

2,175 명, 피해 총액 25억 6,300 만원. ▶군사 《정권》에서 능력 부족이란 구실을 붙쳐 47개 건설 기업체를 정비. ▶륙군 보통 군법 회의, 《증권 파동 사건 언도 공판》에서 관계 피고 전부에 무죄 판결.

28일 괴뢰 문교부에서 극심한 식량난에 대처하여 서울 시내 각 대학교에 여름 방학을 앞당겨 하라고 《지시》.

29일 인천시에 있는 삼화 제분 회사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 중간 착취의 배제,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여 파업, 시위 단행. ▶인천 부두 로동자들이 식량 공급,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7 월

5일 경기도 포천군 동두천의 396개 가구 주민들이 징발한 토지 280여 만 평의 보상금을 내라고 미군 7 사단 앞에 몰려와서 시위 단행.

11일 미 국제 개발처 극동국 차관과 잉여 농산물 담당관이 서울에 기여듬.

15일 울산 정유 공장 건설 청부 회사인 미국 《플라오》 회사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 특별 수당금 지불, 해고 반대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 ▶일본 주둔 미 해군 사령관 및 동 해군 항공 기지 사령관 등이 《한미 당국자와 회담》하려고 서울에 기여듬.

16일 미국 대사 버거와 괴뢰 《내각 수반》간에 《한국 정치 정세 전반에 관한 문제》를 밀의.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밀담을 진행. ▶워싱톤에서 《한미 외상 회담》 진행. 토의 문제는 박 정희의 《대통령 출마》와 관련된 《민정 이양》 문제, 1964년도 경제 《원조》 전망, 잉여 농산물 추가 도입 요청, 《한일 회담》, 《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한미 행정 협정 교섭의 검토》, 제 18차 《유엔 총회 대책》 등.

18일 미제와 군사 《정권》간에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대신할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 설치를 합의.

19일 부산에서 《어업 자원 보호선 수호민 대회》 개최, 《한일 회담》에서 괴뢰 측이 제의한 《40 마일 전관 수역》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20일 일본 농림성 정무 차관이 축산, 수산, 량정 분야에서 《협조의 가능성 타진》이란 명목으로 서울에 기여듬.

21일 군사 《정권》은 《선거와 민정 이양》을 앞두고 폭압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2,915 명을 증원키로 결정.

22일 미국 씨아틀에서 괴뢰 해군이 피. 씨. 이(1001 함) 《신성호》 1척을 인수. ▶제주 지구 주둔 륙해공군 및 해병대와 경찰까지 동원하여 《인민 군대 가상 타격 전투 훈련》을 감행. ▶미 태평양 건축 회사 종업원들이 해고 당한 동료(120 명)들의 복직을 요구하여 괴뢰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시위 단행.

24일 《한국 경제 단체 련합회 한일 국교 정상화 대책 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일본으로 출발.

26일 《한일 회담》을 속히 결속짓기 위한 《한일 외상 회담》 도꾜에서 개시, 30일까지 진행.

29일 계속 폭등하는 물가로 해서 파국적 위기에 빠진 군사 《정권》이 《종합 물가 대책》을 조작 발표.

31일 새 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집단 해고 당한 종업원들이 투쟁 위원회를 구성.

8 월

2일 서울 시청과 세종로 사이에 《한일 회담》 반대 삐라가 뿌려짐. ▶괴뢰 《내각 수반》 김 현철이 《류언 비어의 류포자를 검거 처분하라》고 내무, 법무 등 관계 부, 처에 지시.

3일 재야 《5당 련락 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선거법 개정》 관철 투쟁을 선언. 5일에는 《5당 공명 선거 투쟁 위원회》를 구성.

4일 경주에 있는 대중 산업 회사 종업원들이 임금 70%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 어민들이 선주들의 략탈적 착취를 반대하여 출어를 거부.

5일 연세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종업원들이 임금 인상, 해고자의 복직, 단체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파업.

6일 괴뢰 정부 상공부가 수출 실적이 무역법 규정 기준에 달하지 못하였다는 구실로 195 개 무역 업자의 자격을 박탈.

7일 《한미 련합 해상 보급 및 사격 훈련》 감행, 9일까지 계속.

8일 전 괴뢰 《내각 수반》 송 요찬이 군사 《정권》의 무능 부패를 폭로하는 《공개장》을 발표, 군사 《정권》 당국이 11일 송 요찬을 구속.

10일 《륙군 보통 군법 회의 박 림항계 쿠데타 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림항 등 3 명에게 사형, 기타 4 명에게 2~10년의 체형을 언도.

11일 박 정희를 비롯한 《최고 회의》, 《내각》, 《민주 공화당》의 《수뇌자》들이 진해에서 《선거 방침》을 모의.

14일 《보통 군법 회의 공군계 쿠데타 음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는 리 종환에게 사형을 선고. ▶신임 미 제 5군 사령관(극동 주둔) 프래스톤이 박 정희, 김 현철과 밀담을 위해 서울에 기여듬.

16일 《선거》에 대처하여 《민주 공화당》이 청년 단체, 부녀 단체 등 10여 개 외곽 단체들을 청사회(靑思會)로 통합. ▶괴뢰 병무 당국에서 징집 년령이 넘은 《병역 미필자》의 《특별 징집》을 실시.

17일 《국정 교과서 주식 회사》 종업원들이 밀린 임금의 즉시 지불, 부당한 로동 강요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여 재차 파업. ▶괴뢰 《중앙청》에서 《한일 회담 조기 타결》을 모색하기 위한 《조야 회담》 진행.

20일 미군 산하 기업소 로동자

들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임금 40% 인상 등 6 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계속.

22일《한일 어업 문제》의 타결에 앞서 일본 외무성 동북 아세아 과장이 서울에 기여듦.

24일 군사 《정권》 당국이 90 개의 중소 건설 기업체, 150 개의 《군납업체》를 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고개에서 뻐스가 전복되여 40여 명이 사상.

26일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에서 미국제 폭발물이 터져 7 명의 어린이들이 사상.

28일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에서 뻐스 전복으로 56 명이 중경상.

9 월

3일 《최고 회의》에서 《비상 조치법》을 개악, 군사 통치배들이 《민정》에 참가하기 위한 《합법적》 기틀을 조작.

4일 경상남도 김해군 진례 중학교 학생들이 리권 다툼만 하고 있는 교장과 리사진의 사퇴를 요구하여 동맹 휴학 단행.

5일 미제가 소해정 《엠 에스 씨—295호》를 괴뢰 해군에 이관.

6일 서울시 괴뢰 당국에서 성동구 내 138 채의 판자'집을 강제 철거.

7일 미 공군 제트기가 투하한 폭탄으로 경기도 화성군내 주민 가옥 파괴.

11일 전북 대학교 농과 대학생들이 농업 경제과의 신설, 실습비의 조정 등 6개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하여 동맹 휴학 단행.

12일 《국립 마산 병원》에 입원중인 결핵 환자들이 투약을 안하는 병원 당국자를 규탄하여 단식 투쟁.

14일 미 제1 군단이 서울시 성동구 주민 지대에서 《도강 작전 훈련》을 감행, 22일까지 계속.

16일 서울 시내 청소년 로동자들이 괴뢰 서울 시장을 상대로 임금 인상 요구 쟁의를 제기.

18일 제2차 브라질행 《이민》 (60명—15 세대) 부산항을 출발. ▶미국 《륙군 장관》 싸이러스 알. 반스가 대만. 오끼나와를 거쳐 남조선에 기여듦. 19일 박 정희. 괴뢰《국방 장관》들과 《요담》.

19일 서울시 동양 의학 대학 학생들, 괴뢰 당국에 의해 강제 폐교된 모교의 부활을 요구하여 단식 련좌 시위.

26일 《민주 공화당》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 윤 보선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지방 검찰청》에 고발.

27일 《민주 공화당》이 12개의 《청년 단체》들을 규합하여 외곽 단체 《전국 청년 단체 련합회》를 조직. ▶김 동하, 박 창암 등의 《군사 쿠데타 음모》 사건에 대한 《륙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 6～7년의 체형을 언도.

28일 한양 대학교 학생이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를 뿌리며다가 괴뢰 경찰에 체포됨. ▶미군 제 51 통신대 소속 양키들이 경기도 의정부 장전 2리에서 주민 가옥을 들이 받아 2 명을 살상 ▶경상남도 김해군 구포에 있는 심양 제지 공장에서 폭발하여 직공 8 명 사망, 10여 명이 부상.

30일 하루 동안에 남조선 각지에서 코레라 환자 29 명이 새로 발생, 486 명에 달함.

10 월

1일 부산에 있는 《협성 해운》, 《근해 상선》등 7 개 해운 공사 소속 선원들이 임금 100%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단행.

4일 성동구내 주민들이 서울시 당국의 뻐스 구간 변경 조치를 반대하여 뻐스 7 대를 잡아 타고 시위 단행.

5일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방축리 일대에 조수가 밀며 들어 제방이 파괴되고 논 1만 평이 침수, 류실. ▶부산시 《경찰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우범 지대》에 대한 《지역 책임제》 강력 단속을 실시, 6 일까지 2일 간에만도 291건 342 명을 검거.

8일 괴뢰 대검찰청에서 《민주당》 총재 박 순천 등 간부 3 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립건 수사할 것을 청주 지방 검찰청에 지시 ▶서울시 성북 경찰서가 야당들로 조직된 《공명 선거 투쟁 위원회》 주최의 《시국 강연회》 (9일 개최 예정)에 집회 금지를 통고.

10일 괴뢰 정부 출입 기자단에서 《내각 수반》 김 현철이가 기자 회견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항의문 제출. ▶괴뢰 내무부 장관이 《공명 선거 투쟁 위원회》의 집회는 앞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

14일 괴뢰 대통령 《선거》에 대처하여 남조선 전역에 《전국 경찰 비상 경비령》 (14일—17일간) 선포.

15일 괴뢰 대통령 선거 실시. 17일에 투표 결과 발표, 유권자의 36.2%, 투표자의 42.6%의 득표로 박 정희의 《당선》을 조작.

17일 연세, 중앙, 경희, 고려, 동국 등 각 대학교 학생들의 《반정부, 반기성 정객 데모》 기도 (18일 강행을 예정) 미연에 발각, 군사 《정권》 당국은 사전 관련자를 체포하는 한편 서울 지구 괴뢰 군경에게 《특별 경계 태세》를 내림. ▶괴뢰 제 1 야전군 추계 기동 연습—《멸공 63》 개시, 11 월 8일까지 3 단계로 나누어 감행.

18일 서울시 성동구 약수동의 령세 주민들이 괴뢰 당국의 강제 철거 조치에 항거.

19일 경상북도 경찰국에서 《학생 공화국》 수립 음모 혐의로 경북 대학교 학생 2 명을 검거.

22일 예비역 준장 송 모의 조종하에 계획된 《4.19 때와 같은 전국 학생 데모》를 미연에 발각하였다고 괴뢰 수사 당국 발표.

25일 괴뢰 상공부에서 《관영》 료금 및 수입 소금 가격을 20～40% 인상.

27일 대구에서 경북 대학, 청구 대학, 대구 대학 학생들이 《정치 학회》를 조직.

28일 미군 고용 로동자 1만 2 천여 명이 임금 인상, 로동 조

전 개선 등 4개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해 《유엔군》 사령관을 상대로 로동 쟁의에 들어감. ▶서울 동양 의학 대학생들이 동 대학의 정식 의과 대학으로의 승격 등을 요구하여 단식 투쟁 단행.

11 월

1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남조선 전 지역 교원 대표들이 회합, 각도 단위 교육 자치제의 실시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 공무원법》의 개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4일 대구 《중등 교육회》에서 《교육 공무원법》 개악(교원 수당금 폐지) 반대 련판장 운동을 전개(《동화 통신》). ▶괴뢰군 8,172부대 전투단 2중대 소속 분대장 김 상철이 《기압》을 가한 소대장을 사살.

7일 《대검찰청》에서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도 수표 람발을 예상하여 부도 수표 람발자는 모두 구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

8일 《철도 로조 서울 공작창 지부》 조합원들이 반동적 《로조》 간부들의 《조합비》 인상 책동을 반대하여 서명 운동 전개.

10일 경상북도 대구 지구 주둔 미 제 7 군수 기지 사령부 소속 양키 장교 2 명이 제주도에서 소년 변 길선을 엽총으로 사살.

11일 영국 극동 지상군 사령관 레지날드 에취.휴즈(중장) 서울에 기여듬, 《전방》 분계선을 시찰.

12일 《대한 상공 회의소》 초청으로 일본 실업인 일행 24 명이 서울에 기여듬.

14일 서울 대학교를 비롯한 시내 7 개 대학 《학생 투쟁 위원장》들이 학생에 대한 정치 사찰과 정치적 리용을 기도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하여 성명 발표.

15일 새 나라 자동차 회사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 및 수당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롱성 투쟁에 들어감. ▶경상북도 경주 경찰서에서 동 서장의 《선거》 행위를 폭로한 5 개 신문 특파원 5 명을 검거.

16일 서울 시내 뻐스 차장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괴뢰 경찰에서 박 정희 도당의 부정 선거를 폭로한 목포 경찰서원 라 승원을 《특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체포.

18일 남조선의 《해상 로동 조합 부산 지부》 산하 어업 로동자들이 기준 임금 보장 등 6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감.

19일 서울 동명 학원(고아원) 원아들이 원장의 학대 반대 롱성 투쟁중 괴뢰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원장 사택과 사무실을 습격 파괴.

20일 《자유 민주당》 최고 위원 서 민호가 《남북 서신 교환 문제 등을 기어히 실현시켜야 한다》고 선거 연설.

21일 경기도 련천군 주둔 미 침략군이 나무하며 산에 올은 부근 부락 주민에 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9 명 즉사, 9 명 중상.

26일 괴뢰 경찰에서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비상 경계》 실시.

27일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양키가 서울 시내 리태원동에 사는 김 동문을 자동차로 깔아 즉사.

29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들이 《군정 반대 및 구 정치인 반성 촉구》 침묵 시위를 단행. ▶괴뢰 정부에서 《관영 료금》(철도, 항공, 선박)과 서울 시내 뻐스, 합승 료금 인상 (1964년 1월 1일부터 실시)을 발표.

12 월

5일 남조선의 《련합 로조 서울 지부 영등포 분실》 산하 로동자들이 임금 40~50%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경제 파탄상을 가리우기 위하여 《한국 은행》에서 도매 물가 지수 기준 년도 1955년을 1960년으로 변경 실시.

12일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사법과 학생들이 《고등 고시 사법과 고시령 개정》을 반대하여 롱성 단행, 13일에는 300명 괴뢰 경찰에 대항하여 시위.

13일 《4.19 유족 위원회》, 《4.19 부상 동지회》원들이 《부정 선거 원흉 석방 반대 투쟁 위원회》를 구성, 15, 16 량일에 걸쳐 부정 선거 원흉 석방 반대 롱성 및 시위 단행.

14일 《대한 석탄 공사》, 《대한 중석 공업 공사》, 《양양 철광》 등 3개 기업체 2천 여 명 로동자들이 임금 50~80% 인상 요구 쟁의에 들어감.

16일 경기도 평택군 평성면 내 농민들이 악덕 지주의 처벌을 요구하여 《최고 회의》 앞에서 시위.

18일 경북 대학교 문리 대학생들이 경제학과 부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박 정희와 괴뢰 문교부 장관에 항의.

20일 《대통령 취임 경축 사절》 오노 반보꾸의 망언에 격분한 서울 청년들이 동 사절 숙소인 《조선 호텔》에 밀며 들어 롱성 항의.

21일 전력 부문 로동자 1만 2천 여 명이 40% 임금 인상, 수당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서독 루르 탄광으로 팔려 가는 광부 제 1진 123 명 출발, 제 2진 122 명은 26일 출발.

23일 서울 시내 일반 료금 대폭 인상, 그중 리발료 50%, 숙박료 30%.

27일 2만 5천 여 명의 철도 로동자들이 임금 200% 인상 요구 쟁의에 들어감. ▶남조선 각 대학 학생 대표들이 괴뢰 당국의 저지를 무릅쓰고 서울에서 《한국 학생 총련합회》를 결성. ▶괴뢰 국회에서 의원 강 문봉이 《남북한의 서신 교환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고 괴뢰 정부에 질문.

28일 운수 부문 로동자 1만 3천 여 명이 임금 244% 인상 요구 쟁의에 들어감. ▶미국인 레이 애번트가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앞길에서 대학생 1 명을 승용차로 깔아 죽이고 도주.

재일 조선 공민 주요 일지

(1963. 1. 1—12. 31)

1 월

1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전체 재일 동포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냄.

8일 총련의 1963년도 사업을 위한 간또 지방 열성자 대회 진행 (한 덕수 의장 보고).

10일 총련의 1963년도 과업 실행을 위한 오사까 지방 열성자 대회 진행 ▶지바 조선 초 중급 학교 준공.

11일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남북 조선 선수단 환영 위원회 결성.

12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일본 경찰의 부당한 정탐 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시청에 항의.

19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2월 14일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25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 버려야 한다》는 성명 발표.

28일 제102차 귀국선 니이가다 출항.

31일 재일 조선인 과학자 대표 공화국에로의 려권을 일본 당국에 요구.

2 월

3일 2.8절 기념 도꾜 조선 청년 학생 역전 경기 대회 진행.

14일 공화국 빙상 경기 대표단 환영 집회.

22일 총련 중앙 《남조선의 현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25일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공화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28일 3.1 운동 44주년 기념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3 월

5일 총련 홋까이도 본부에 일본인 괴한 침입.

7일 3.8 국제 부녀절 기념 재일본 조선 녀성 중앙 대회 진행. ▶재일 동포 대표들 일본 정부에 《한일 회담》 즉시 중지를 요구.

12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반미 구국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구호 발표.

16일 오사까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원하며 미군 철거와 군사 파쑈 통치를 쓸어 버리기 위한 오사까 조선인 대회》 진행.

18일 조선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공화국으로부터 11번째로 보낸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받고 감사 집회 진행.

19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박 정희 도당의 군정 연장 책동을 반대하여 성명 발표.

20일 박 정희 도당의 《군정 4년 연장》을 반대하는 도꾜 조선인 대회 진행.

25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총련 조직을 반석같이 꾸리며 반미 구국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

26일 재 일본 조선 대학 제5회 졸업식 진행.

4 월

1일 재일 조선 각급 학교들에서 일제히 신학년도 입학식 진행, 한 덕수 의장 입학식에 제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재 일본 조선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28차 회의 2일까지 진행.

5일 재일 조선인 상공 련합회 리사회 제14기 제5차 회의 6일까지 진행.

6일 재일 조선인 교육회 중앙 리사회 제26차 회의 7일까지 진행.

7일 재일 조선 녀맹 중앙 위원회 제43차 회의 8일까지 진행.

11일 총련 도꾜 본부 집행 위원회 제4차 회의 확대 회의 진행.

15일 김 일성 수상 탄생 51 주년 기념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19일 남조선 4월 인민 봉기 3 주년 기념 도꾜 조선인 대회 진행.

24일 도꾜에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날 15주년을 맞이하여 재일 조선인 교육 일'군 간또 지방 대회 진행.

29일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련 도꾜 본부 산하 18개 지부들에서 수 천 명의 재일 동포들이 군중 집회 진행. ▶재일 조선 언론, 출판 일'군들이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남조선 언론인들에 대한 만행과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 진행.

5 월

1일 5.1절 경축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4일 재일 동포들, 조국 광복회 창립 27주년 기념 집회 진행.

10일 제106차 귀국선 니이가다 출항.

13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조국과의 자유 래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 회견을 갖고 성명 발표.

17일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위하여 도꾜에서 재일 동포들이 316 개의 일본 단체들을 방문하고 협력을 요청.

23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총련 창립 8주년과 조선 회관 준공을 축하하여 재일 각 대공사관 대표를 초청하고 축하연 배설. ▶도꾜의 조선 청년 학생들, 일본 불량배들의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에 대한 살상 행위를 규탄하여 항의 집회 진행.

24일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일본 각지에서 빈발하는 조선인 학생 살해 사건 및 학교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5일 총련 창립 8주년 기념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30일 재일 동포들, 일본 전국 각지에서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

6 월

5일 총련 중앙 위원회,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실현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 사회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서한 발송. ▶ 재일 동포들 일본 전국 각지에서 조국 래왕의 실현을 위한 군중 집회 진행.

7일 재일 조선인 언론 출판인 협회, 조국으로의 래왕의 실현을 일본 정부 관계 당국에 요청.

9일 제107차 귀국선 니이가다 출항.

12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래왕 실현을 위한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15일 재일 동포들, 일본 각지에서 조국 래왕의 실현을 위하여 제3차 통일 행동 개시.

19일 재일 조선 공민 대표들, 조국 래왕 요청서를 일본 정부 수상에게 수교.

25일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7 월

1일 총련의 선전원 열성자 대회 2일까지 진행.

2일 총련 중앙, 남조선의 절량 민들과 리재민들을 구제할 데 대한 공화국 내각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과 구호미(백미) 1천 석을 보낼 데 대한 결정을 발표. ▶ 총련 중앙, 남조선 절량민을 공동으로 구원할 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에 발송.

5일 도꾜 조선 중 고급 학교 학생 피살 사건 대책 위원회, 조선인 학생에 대한 살상, 폭행 사건과 일본 경찰 당국의 부당한 태도를 규탄하여 일본 인민들에게 호소. ▶ 제 108차 귀국선 니이가다 출항. ▶ 일본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범 사건 조사단을 결성.

10일 공화국에서 열 두 번째로 교육 원조비 및 장학금을 보내 준 것에 감사하여 재일 조선인 교육 일'군 중앙 대회 진행.

11일 총련 중앙 위원회, 《대한 민국 농림부 장관》에게 공화국에서 보내는 백미 10 만석의 구호미와 총련에서 보내는 백미 1천석의 구호미를 인수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 발송.

16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31차 회의 17일까지 진행.

23일 총련 중앙 위원회,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폭행, 살인, 습격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발표된 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26일 재일 조선인 제3차 도꾜 교육 열성자 대회 진행.

27일 남조선에서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도꾜 조선인 대회 진행.

30일 남녀 평등권 법령 실시 17주년 기념 재일 조선 녀성 중앙 대회 진행.

8 월

2일 조선 적십자회가 제의한 귀국 협정 무수정 연장을 일본 적십자사가 동의.

6일 제9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에 리 진규 단장을 위시한 우리 나라 대표단 참가.

7일 재일 동포들, 일본 각지에서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요구하는 제4차 통일 행동을 전개.

9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 재일 조선인 경축단, 제109차 귀국선으로 니이가다를 출발. ▶ 제9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에 참가하였던 각국 대표들 총련 중앙을 방문.

15일 8.15 해방 18주년 재일 조선인 중앙 경축 대회 진행. ▶ 총련 중앙 위원회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 실현 문제와 관련하여 또다시 성명.

18일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 실현을 위한 도꾜 조선 청년 학생 궐기 대회 진행.

19일 사이다마, 이바라기, 지바, 야마나시의 재일 동포들, 조국 래왕의 시급한 실현을 일본 정부에 요구.

22일 제3차 재일 조선인 교육 열성자 대회 25일까지 진행.

26일 총련 중앙 위원회, 공화국 창건 15주년에 제하여 구호 발표.

9 월

1일 공화국에서 13차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총련 중앙 한 덕수 의장 담화 발표.

2일 재일 조선 언론 출판인 협회, 조국으로의 래왕의 실현을 일본 정부 당국에 요구.

7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재일본 조선인 중앙 예술 경연 대회 진행.

9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10일 공화국 창건 15주년 재일 조선인 체육 축전 진행.

13일 도꾜, 가나가와, 지바 등지의 재일 조선인 청년 대표들, 조국 왕래 실현을 일본 정부 당국에 요구.

20일 제110차 귀국선 니이가다를 출항.

26일 총련 가나가와 대표들 가나가와 조선인 고중 학생에 대한 일본 경관의 폭행 사건 (9.20)에 분격하여 일본 정부에 항의.

30일 재일본 조선 통신사 창립 15주년 기념회 진행.

10 월

1일 총련 중앙 및 재일 동포들 재일 조선 학생들에 대한 일본 불량배의 폭행과 일본 경찰의 일방적 조치에 대하여 엄중 항의.

5일 일본 자유 법조단, 재일 조선 공민의 권리 옹호를 위해 결의.

8일 도꾜 조선인 고중 학생들에게 일본 불량배 6 명이 폭행을 감행.

10일 재일 동포들, 도꾜에서 조선 로동당 창건 18주년 기념 보

교회 진행.

1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법 발표와 관련하여 총련 중앙 한 덕수 의장, 조국과 수령에게 감사를 드리는 담화 발표.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제6기 제64차 회의, 《2중 모범 분회》 및 《모범 분회》 칭호 수여를 결정 발표.

14일 총련 분회 열성자 제3차 대회 15일까지 진행. ▶도꾜 조선 중 고급 학교 학생들, 《조선 학생들에 대한 살상,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궐기 집회》 진행.

17일 제111차 귀국선 니이가다를 출항.

19 총련 도꾜 아다찌 지부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 내고 남북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 대회》 진행. ▶도꾜 기다구 일본 주민들이 구성한 《조고생 모욕 사건 조사단》, 경찰에 항의코 성명 발표.

26일 총련 중앙, 재일 조선인 각급 학교 교육 일'군 37명에게 《10년 근속 교육상》을 수여. ▶총련 도꾜도 본부 대표들, 조고생 부상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건을 공정히 처리하라고 도꾜 아라까와 경찰에 강경 요구.

29일 재일 동포들, 조선 학생에 대한 일본 불량배의 폭행과 이에 대한 일본 경찰의 부당한 조치 및 일본 신문들의 날조 보도와 관련하여 엄중 항의.

11 월

2일 광주 학생 운동 34주년 기념 재일 조선 청년 학생 중앙 대회 진행.

5일 재일 조선 류학생 동맹 중앙 위원회 확대 회의 진행.

7일 재일 조선 초 중 고급 학교 학생 중앙 예술 경연 대회 8일까지 진행.

8일 제112차 귀국선 니이가다를 출항.

11일 재일 조선 청년 열성자 대회 진행.

13일 총련 중앙 한 덕수 의장과 재 일본 조선 청년 동맹, 녀맹, 체육 련합회 등 단체들, 쟈카르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공화국 선수들에게 축전.

15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3차 회의 16일까지 진행.

18일 재일 조선 녀맹 분회 열성자 대회 19일까지 진행.

23일 재일 조선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29차 회의 24일까지 진행.

25일 남조선 인민들을 《원자포탄》으로 학살한 미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재일 조선 대학생 집회 진행. ▶재일 조선인 신용 조합 협회 리사회 제11기 제2차 회의 도꾜에서 26일까지 진행.

26일 재일 조선인 신용 조합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축하회 진행.

27일 재일 조선 녀맹 중앙 위원회 제44차 회의 28일까지 진행.

28일 남조선 형제들을 원자포탄으로 학살한 미제 만행을 규탄하는 도꾜 조선인 대회 진행. ▶재일 동포들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을 구원.

12 월

1일 미제 만행을 규탄하는 가나가와현 재일 조선 청년 대회, 가나가와현의 각 지부 집회 진행.

4일 재일 조선 과학자들,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에 축전.

5일 재일 동포들, 새 학년도 학생 인입을 위한 제1차 통일 행동 개시(10일까지).

6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32차 회의 결정을 침투하기 위한 사업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

7일 재일 조선 대학과 일본 대학들 간의 친선을 위한 웅변 대회 진행.

8일 재일 조선인 문학 예술 동맹 제8기 중앙 위원회 확대 회의 진행. ▶조선 대학생들과 인도네시아 류학생들 간에 첫 친선 축구 시합 도꾜에서 진행. ▶일조 협회, 귀국 협력회 등 주최로 재일 조선인 귀국 4주년 기념 집회 니이가다에서 진행.

12일 총련 중앙, 남북 조선의 협상과 합작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공동 련석 회의 제안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13일 제113차 귀국선 니이가다를 출항.

17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련석 회의의 제안을 지지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25일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이 이룩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축하하는 간또 지방 재일 조선인 과학자들의 축하 모임 진행.

국제편

서 술

국제 정세 개관

1963년에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의 격렬한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세계 혁명의 기지인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계속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진영과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인 민족 해방 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 타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발전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마디마디 끊어 나아갔다. 서구라파, 북미 그리고 대양주의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은 독점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더욱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혁명적 인민의 공격 앞에서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난관은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였고 그들간의 모순 특히는 미국과 서구라파 국가간의 모순은 지금까지 있어 보지 못한 정도로 첨예화되였다. 제국주의 진영은 뿔뿔이 갈라지고 더욱 약화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저애하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추악한 정체는 더욱 폭로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

1963년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폭풍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대륙을 휩쓸었다.

이 세 대륙의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는 투쟁의 최고 형태인 무장 투쟁이 더욱 앙양되였으며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는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과 략탈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추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아세아에서】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강력한 타격으로 미제의 전쟁 및 침략 정책은 세계 어느 곳에서 보다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가 동남 아세아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남부 월남에서 인민들의 무장 투쟁은 승리적인 전진을 계속하였다.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2만 5천명의 병력과 막대한 량의 무기를 투입하고 하루에 약 200만 딸라의 군사비를 쏟아 넣으면서, 지어는 유독성 화학 물질과 나팜탄까지 꺼리낌 없이 쓰면서 남부 월남 인민의 반미 애국 투쟁을 말살하려고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괴뢰군은 1963년 1월 2일 아프 바크 (사이공 남쪽 35 키로 메터 지점)에서 백주에 인민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선전 포고 없는 전쟁》 개시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한 것을 이 해의 첫 출발로 하여 년중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였다.

1963년 말까지 월남 인민 무장대는 적들의 《소탕 작전》을 까부시고 전 령토의 3분의 2와 800만의 주민을 해방하였고 이 해에만도 근 1천 명의 미군을 포함한 8만 명의 적을 살상 포로하였다(지난 3년간의 적 살상 포로수는 25만 2, 500명). 또한 이 해에 7만 2,919명의 괴뢰군 병사들이 인민의 편으로 넘어 왔다.

특히 남부 월남 인민이 거둔 가장 큰 승리는 미제의 《특수 전쟁》의 결정적 구성 부분으로 되는 《공수 작전》과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의 기본으로 되는 《전략촌 계획》을 파산시킨 것이다. 그리 하여 《18개월내에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진압》하겠다던 미제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산산 쪼각이 났으며 《특수 전쟁》은 파탄되였다.

승리적인 무장 투쟁에 고무를 받아 인민들의 투쟁도 앙양되여 투쟁의 불'길은 남부 월남 전 지역을 휩쓸었다. 5월에 일어난 불교도들의 애국 투쟁은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과 결합되여 일대 반미 반정부 투쟁으로 번져졌다. 그리 하여 미제의 식민지 괴뢰 통치 제도는 밑뿌리부터 뒤흔들리여 심각한 군사 정치적 위기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오랜 준비 끝에 11월 1일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자기가 길러 낸 주구 디엠 형제를 죽이고 그 자리에 새 괴뢰를 올려 놓았다. 새 괴뢰도 인민 탄압에 무능함을 알게 된 미제는 1964년 1월 30일 또다시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남부 월남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헤여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라오스 인민과 애국 력량은 제네바 협정을 파괴하고 국내 반동파를 리용하여 애국 력량을 분렬시키며 민족 통일 정부를 전복하고 국내 전쟁을 재발시키려는 미제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애국 력량의 무력은 사반나케트 집단의 공격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는 한편 국내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인내성 있게 노력하였다. 그리 하여 미제와 라오스 반동파들의 정치적 음모와 군사적 도발은 수치스러운 실패로 돌아갔다.

예멘 인민은 미영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왕당파와 외래 무력 간섭자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전취물을 고수하였으며 오

만 인민들은 영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중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일본 인민은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일한 회담》과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 및 《에프 105—디》형 전투 폭격기의 일본 배치를 반대하며 일미 《안보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여 10여차의 전국적인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일한 회담》을 반대하는 1천만 명의 서명 운동을 벌렸다. 일본 민주 력량은 10여년간에 걸치는 줄기찬 투쟁으로 9월 12일 《마쯔가와 사건》 피고들을 무죄 석방시켰으며 민주 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것을 노린 《폭력 행위 등 처형 법안》을 매장하여 버렸다. 이 해에 이께다 정부는 인민들로부터 배격을 받고 더욱 고립되였는바 그것은 중의원과 지방 선거에서 민주 력량이 대대적으로 진출한 반면에 이께다의 자유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잃은 데서도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을 비롯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식민주의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동남 아세아에서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풍파산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1961년부터 꾸며 오던 《말레이시아 련방》을 1961년 9월 16일에 조작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이 새로운 음모는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은 영 식민주의의 새로운 음모를 반대하고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1962년 12월 8일 혁명 정부를 조직한 이래 계속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련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말라이와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끊었으며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대결 정책을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영국과 말라이 대사관들을 습격하였고 이 나라 소유 회사들을 몰수하였으며 정부의 대결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호소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북부 칼리만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하여 1964년 3월 말까지 2,500만 명의 인민들이 지원병으로 등록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또한 화란 식민주의자들과 그를 적극 지지한 미제를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한 결과 1963년 5월 서부 이리안의 귀속을 실현하였다.

아랍 국가 인민들은 이스라엘을 앞장 세워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며 중근동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하려는 미영 제국주의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63년에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적인 《원조》를 배격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려는 추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원조》를 배격하여 견결히 나섰다. 캄보쟈 정부의 오래전부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남부 월남에 있는, 캄보쟈의 민족 반역자들의 단체인 《자유 캄보쟈 운동》에 재정, 무기, 무전기 등 온갖 원조를 주어 현 시하누크 정부를 전복하도록 고취하였으며 타이와 남부 월남으로 하여금 캄보쟈를 반대하는 도발 행동을 감행하도록 추동하였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캄보쟈 정부는 11월 19일 미제의 일체 군사, 경제 《원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캄보쟈 정부는 미, 영 주재 자기 나라 대사관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미, 영 대사관들과 미국 《원조 사절단》이 1964년 1월 15일까지 캄보쟈에서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캄보쟈 정부를 중상 비방하는 미국 출판물의 배포와 미, 영 기자들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쎄일론 정부는 미제의 각종 압력을 박차고 미국과 기타 외국의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2월 16일 쎄일론 인민들은 미제의 경제적 압력에 굴함이 없이 외국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립장을 지지하여 일대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의 석유 공업을 독점하고 자국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여 온 미, 영 석유 회사들의 석유 정제 및 저장 시설들을 국유화하였다. 버마 정부는 석유 탐사 기한을 연장하라는 미제의 강요를 거부하였다.

【아프리카에서】 1963년에 아프리카 대륙 인민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1963년 12월에 잔지바르와 케니아가 수세기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이리 하여 이 해 말까지 아프리카의 59개 나라 및 지역중 34개 나라가 독립하였다(독립 국가의 면적은 아프리카 대륙의 83%, 인구는 2억 3천만). 식민지 통치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 식민주의자들이 1953년에 조작한 《중앙 아프리카 련방》이 남북 로데시아와 니아살랜드 인민의 10년 여에 걸치는 완강한 투쟁으로 1963년 말에 부서져 나갔으며 영령 감비아에서 내부 자치가 실시되였다.

1963년에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그리고 급속히 번져졌다.

1961년 이래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앙골라 민족 해방군은 투쟁속에서 초기의 20여 명으로부터 3만 명의 강력한 대오로 자랐으며 이미 국토의 6분의 1을 해방

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북부와 중부에 유격 근거지들을 세우고 끊임 없이 식민지 고용군을 공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1963년 1월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 선 포도아령 기니아의 애국적 무장 부대는 이미 나라의 40%를 해방하였다. 앙골라와 포도아령 기니아 인민의 승리적인 무장 투쟁의 영향 밑에 모잠비크 인민의 투쟁도 날을 따라 발전하고 있다.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통치하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종족 격리 정책과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이 류례 없는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끊임 없이 벌어졌다. 2년여 전에 조직된 지하 무장 조직인 《민족의 검》과 《독립과 순결》은 《피는 피로써》라는 구호 하에 버워드 정부의 군경들을 련재 없이 습격하였다.

미제와 아둘라 도당의 야수적인 탄압 밑에서도 굴하지 않고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온 콩고 인민들은 1963년말에 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예고하는 일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9월의 반미 반정부 시위에 뒤'이어 10월의 콩고 항공 회사 로동자들의 파업, 콩고 병사들의 폭동 등 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에 당황한 아둘라 도당은 《비상 상태》를 선포하였다. 1964년 1월 하순에 콩고 민족 해방 리사회의 령도 밑에 미제와 괴뢰 도당을 반대하여 무장 투쟁이 일어났으며 투쟁은 삽시간에 전국에 타번졌다. 콩고에서의 무장 투쟁은 이 나라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로 되며 어떠한 원쑤의 간악한 책동과 학살도 각성하고 단합된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63년에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인민들의 투쟁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있었다.

피로써 독립을 쟁취한 영웅적 알제리아 인민은 국내외 원쑤들의 온갖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새 생활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알제리아 정부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식민주의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300만 헥타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민족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1963년에 《50년래에 있어 보지 못한 대풍작》이 이룩되고 기업소들에서 생산이 현저히 증가되였다.

아랍 변합 공화국에서는 외국 회사들의 《애급화》와 국가 공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졌다. 모로코는 4개의 미 군사 기지를 철폐시켰으며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대농장원 4만여 헥타를 접수하였다. 튜니샤 인민의 투쟁으로 10월 15일 불란서 군대는 비제르타에서 최종적으로 물러갔다.

기니아와 말리는 식민주의자들의 기업을 몰수 또는 접수하였으며 식민지 통치의 후과인 단작경리를 다각적 경리로 개조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다. 가나는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전복, 암해 책동을 분쇄하는 동시에 자국의 농업과 광업에 대한 외국 독점 자본의 략탈과 지배를 배제하기에 힘 썼다.

탄가니카, 우간다 등 중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영국인들을 축출하고 간부들의 아프카인화를 실현하는 데서 일정한 전진이 있었다. 부룬디는 국가 주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이미 자기의 군대와 국방 위원회를 조직하고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각종 파괴 음모와 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특히 1963년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위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특기할 해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1963년 5월 22—25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베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를 들 수 있는바 회의에는 31개 독립 국가 수뇌자들과 아직 독립하지 못한 21개 나라의 해방 운동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며 전 대륙을 해방하는 문제와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아프리카의 노력을 단합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아프리카 통일 기구》 헌장과 기타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일과 단결을 촉진하며 자주권과 령토 완정을 수호하며 이 대륙에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였다. 회의는 특히 독립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독립 국가들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의 설정과 지원군 부대의 조직 그리고 이 원조 문제를 취급할 특별 위원회의 설치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회의 결의에 따라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은 포도아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외교 및 령사 관계와 통상 및 운수 관계를 끊었다. 또한 이 회의를 통하여 카사블랑카 회의와 몬로비아 회의의 두 개의 계렬로 분렬되여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일한 아프리카 통일 기구에 통합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1963년에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은 복잡하고 간고한 정세 속에서도 새로운 앙양을 가져 왔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 중에서도 특기할 것은 미제의 침략과 파괴 활동을 걸음 마다 성과적으로 까부시고 혁명을 착실하게 전진시킨 꾸바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이였다.

꾸바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5개 조항을 견지하면서 미제의 각종 침략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는 한편 혁명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1963년을 《조직의 해》로 규정한 꾸바 혁명 정부는 미제의 간섭과 반혁명의 온상인 농촌 부르조아지를 일소하기 위하여 1963년 10월 제 2 차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5카바레리아(1카바레리아=13.4 헥터) 이상의 개인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11월 28일에는 혁명 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 병역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이 해에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꾸바 인민은 미제의 경제 봉쇄와 10월의 태풍 피해로 조성된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꾸바 인민의 투쟁은 미제와 자국의 반동 지배층을 반대하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꾸바 혁명과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인민 혁명과 무장 투쟁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족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1963년에 반미 반독재 투쟁이 더욱 앙양되고 꾸바 혁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된 것은 이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지난 1년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무장 투쟁에 일어섰다. 베네주엘라의 애국적 무장 력량은 자기의 지반을 굳건히 다지면서 유격 전선을 확대하였다.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은 이미 산악 지대에 4개의 유격 전선을 폈다. 도시에서는 국내에 있는 미제의 군사, 경제, 문화 기관들과 베탕쿠르 독재 정권의 탄압 기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였다. 2월에 있은 《안조아 테귀》호 화물선의 랍치, 6월의 미 《군사 사절단》 습격, 11월의 미 《군사 사절단》 부단장 췌논트의 생포, 12월의 려객기 탈취 사건 등은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의 힘찬 투쟁을 보여주는 몇개의 대표적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과테말라에서는 3개의 애국적 무장 력량—《11월 13일》 혁명 운동, 《10월 20일》 혁명 운동, 《4월 12일》 혁명 운동이 련합하여 과테말라 봉기군을 조직하였고 11월 30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니카라과와 파라과이에서도 유격 부대는 산악 지대를 근거로 하여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였다. 도미니카와 혼듀라스에서도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유격대가 나타났다. 도미니카의 애국 무장 력량은 20여일간에 6개의 유격 전선을 폈다. 미제가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의 진렬장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는 콜롬비아에서도 미국의 기관과 기업소들이 자주 습격을 받았다.

토지 문제—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농업 인구의 3%에 지나지 않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전체 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57%의 농민이 겨우 35%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업 로동자와 토지 없는 농민은 농업 인구의 40%나 되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1963년에도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특히는 페루, 브라질, 칠리, 에쿠아도르, 멕시코, 아르젠틴, 콜롬비아, 혼듀라스, 코스타 리카 등 나라들에서 계속 앙양되였다.

토지 점거 투쟁이 치렬한 페루의 남부와 콜롬비아의 카우카, 아그다레나의 두개 주에서 농민들은 경찰대와 충돌하였고 브라질의 동북부에서는 토지 없는 농민들이 지주의 사설 군대와 충돌하였다. 에쿠아도르의 무장한 농민들은 미국의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와 《스탠다드 과실 회사》에 병합된 토지를 한두번만 탈취하지 않았다. 페루의 농민들은 미국인 소유의 동광 회사의 토지를 탈취하였다. 이와 같은 농민의 투쟁은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에 의한 기만적인 토지 개혁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되며, 라틴 아메리카의 대토지 소유자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꾸바 침략 책동을 반대하고 꾸바 혁명을 옹호하는 투쟁이다. 1월 꾸바에서 진행된 미주 녀성 대회, 3월 브라질에서 있은 꾸바 옹호 미주 대회들은 미제의 반꾸바 침략 책동을 규탄하고 꾸바 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꾸바를 고립시키며 집단적 침략 조치를 꾸미기 위하여 3월에 케네디가 소집한 중미 6개국 대통령 회의를 비롯한 《미주 국가 기구》 회의들을 규탄하여 중남미의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들이 각종 형식으로 투쟁하였다.

앙양되는 인민 운동의 압력하에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나라 정부들도 미국 자본의 침투를 제한하고 민족 경제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일부 조치들을 취하였다. 페루 국회는 10월에 미국의 석유 회사에 조차권을 주는 《라 브레아 파리아스 관정서》를 페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아르젠틴 정부는 11월 중순에 외국 독점 자본과 체결한 예속적인 석유 계약을 페기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2월 중순부터 1964년 3월 하순에 이르는 기간에 브라질의 굴라르트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광산의 채굴권을 취소하며, 리윤을 국외에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며, 국가가 석유 수입을 독점하며, 사영 정유 공장의 접수와 철도, 도로 및 운하 연변의 토지를 접수하는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미제의 경제적 략탈 정책에 대

한 라틴 아메리카 나라 정부들의 불만은 미국의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과 관련된 모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11월의 미주 경제 사회 리사회 회의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정부 대표들이 미제의 기만적인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을 비난하는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 상품 가격을 끊임 없이 낮추는 미국에 항의하였다.

이상 우에서 본 바와 같이 1963년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졌다. 이 불'길 속에서 식민지 체계가 더욱 무너져 나갔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실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는 위대한 혁명 력량으로, 현 시대의 강력한 혁명 투쟁의 무대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륙에는 아직도 수천만의 인민들이 식민지 예속하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수억만 인민들이 명목상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러저러한 형태로 정치,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 그들의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가 아직도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인민들 앞에는 민족 해방 투쟁의 과업이 의연히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미 식민지 체계가 청산되였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거의 모두 해방된 듯이 떠벌리면서 온갖 구실을 붙여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 자들은 《세계 열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무모한 행위》인 무장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선심》과 《리성》에 의거하여 식민지 민족 해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평화적 공존,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 유엔을 통한 협상 등이 마치도 현 시대에 있어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해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지껄이고 있다. 결국 이것은 피압박 인민들에게 해방 투쟁을 포기하고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계속 감수하라는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마비시키며 투쟁을 하지 못 하도록 하자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1963년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이 멸망해 가면 갈수록 더욱 발악할 뿐이고 결코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수정주의자들의 허황한 설교를 반박하여 주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있어서 압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버리고 자기의 혁명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주체적 힘에 의거하여 반제 투쟁 특히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다. 1963년의 정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었다.

로동 운동의 앙양

1963년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의 야수적 공세를 반대하며 생활 처지의 개선과 계급적 해방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였다.

1963년에 비 사회주의 국가 로동자, 사무원들의 약 5분의 3에 해당하는 1억 6,000만의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자본의 공격을 반대하는 투쟁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참가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일어난 파업 투쟁의 규모는 최근 10년간에 최고 기록이였던 1962년 수준과 비슷하였으며 1958년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파업 참가자 수는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1962년보다 약간 줄었다고는 하나 일련의 지역들과 나라들에 있어서는 1962년보다 장성하였다. 례하면 1963년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파업이 가장 많이 일어 난 한 해였으며 불란서에서는 최근 10년간 로동 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된 해였다.

파업 참가자 수 (단위 100만 명)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자본주의 국가 전체	25～27	35～37	54～58	50～53	56～62	52～57
제국주의 국가	13.5	16.0	43～46	41～43	42～44	…
라틴 아메리카	9～10	18～20	9～10	7～8	17	8～101①

주: ①은 9개월 간

1963년에 미국에서는 약 3,400건의 파업에 103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1,780만 로동일이나 잃었다. 영국에서는 이 해 첫 8개월 간에만도 1,280건의 파업으로 114만 8,000 로동일을 잃었다. 불란서 신문 《콩바》의 보도에 의하면 불란서 근로자들이 전개한 파업으로 로동하지 못한 로동일은 1953년 이후의 최고 기록인 약 1,000만 일이나 되였는 바 이는 1962년의 190만 로동일에 비하면 실로 5배 이상이나 된다. 희랍에서는 약 100만 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이 나라 력사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로동 운동의 앙양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독점들과 국내 부르죠아지 및 지주들의 억압과 착취가 더욱 혹심한 아세아, 아프

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도 앙양되였다. 례하면 싱가포르에서 파업 참가자는 1962년의 2.5배인 40만 명이였다. 10월에 있은 파업 참가자만도 1962년의 전 기간보다 많았다. 브라질에서도 파업이 급속히 앙양되였는바 파업 건수는 전년도의 2배 이상이나 되였다. 아르젠틴에서는 5월과 10월에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 났는바 5월에는 500만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우루과이에서는 7월에 30만의 로동자들이 이 나라 력사에서 최대의 전국적 파업을 단행하였다.

1963년의 파업 투쟁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투쟁이 치렬하고 완강한 것이였다.

례하면 근 4개월 간이나 신문이 발행되지 못 하였고 기업주들에게 1억 딸라 이상의 손실을 준 미국의 뉴욕 인쇄 로동자 2만 명의 114일간 (1962년 12월 8일—1963년 3월 8일)의 파업 투쟁, 미국 동해안의 40개 항구와 600여 척의 선박을 마비시킨 6만 부두 로동자들의 34일간의 투쟁, 1963년 1월 23일에 시작하여 1964년 3월 현재에도 투쟁을 계속한 미국 《플로리다 이스트 코스트》 회사의 1,300명 철도 로동자들의 투쟁, 드 골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를 조성한 불란서 탄광 로동자들의 34일간에 걸친 투쟁, 불란서 에이프뻐트라에 지구 철광 로동자들의 79일간의 파업 투쟁,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치는 완강한 투쟁 끝에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고야 만 에쿠아도르의 리오밤바 제화 공장 로동자들의 투쟁 등은 로동 계급의 투쟁이 얼마나 완강하고 치렬하게 전개되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해고를 반대하여 1961년 8월에 파업을 단행한 이래 1964년 3월에도 계속된 멕시코의 《안헬》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투쟁은 이 나라 파업 력사에서 가장 장기적인 파업으로서 기록되였다.

1963년의 로동 운동에서 다른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정치 투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된 것과 투쟁에서 호상 련대성이 강화된 것이다.

일본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은 전후 최대 규모의 춘기 공동 투쟁과 추기 공동 투쟁을 《일한 회담》과 미국 원자 잠수함의 기항 및 《에프—105디》형 전투 폭격기의 배치를 반대하며 일미 《안보 조약》 폐기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개하였다.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고 있는 미국 흑인들은 1963년에 인종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학살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인종 차별을 반대하고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초에 미국 남부의 아라바마주의 버밍감에서 일어 난 흑인 차별 반대 투쟁은 전국에 확대되여 미국 력사상 최대의 투쟁으로 번져졌다(2천여 회의 시위 단행). 미국 흑인들의 투쟁은 전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았다.

1962년의 전국적인 반프랑코 투쟁의 시초를 열어 놓았던 영웅적인 아스투리아 탄광 로동자들은 생활 조건과 로동 조건의 개선, 정치범 석방, 로조 활동 및 파업의 자유를 요구하여 7월 22일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들의 투쟁에는 광산, 야금, 자동차, 조선소 등 각 부문 로동자들이 참가하였으며 투쟁은 전국적인 반프랑코 투쟁으로 확대되여 11월까지 완강하게 전개되였다.

1963년 3월에 단행한 불란서 탄광 로동자들의 파업에는 철도, 체신, 전력, 가스 등 각 부문 로동자들이 련대성을 표시하여 파업을 전개하였다. 로동자들은 무력으로 강제 취업시키려던 드 골 정권의 시도를 분쇄하고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끝내 관철하였다. 서반아, 포도아, 희랍, 파라과이의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이 국제적으로 광범히 전개되였다.

1964년에 투쟁을 포기하고 《계급 협조》를 설교하는 개량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이 강화되였다. 일례로 미국 켄터키주 동남부의 탄광 로동자 1만 명은 반동들과 야합하여 파업을 파괴하려는 우익 로조 지도부를 반대하여 무장 규찰대를 조직하고 8개월간이나 영웅적으로 싸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에 자본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로동 운동이 앙양되였는바 이는 자본주의 모순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적 및 계급적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계급적 협조》를 설교하는 우익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1963년의 정세는 보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 렬강간의 모순의 가일층의 첨예화

1963년에 정치, 경제, 군사적 령도권과 시장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간의 모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워졌고 이에 따라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진영은 4분 5렬되였다.

제국주의 렬강간의 모순은 이 진영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을 일방으로 하고, 타방으로는 미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서구라파 나라들과 기타 나라들간에서 나토의 핵 무력 창설 문제, 구라파 《공동 시장》 문제를 둘러 싸고 날카롭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게 투쟁이 벌어진 것은 미국과 불란서간의 투쟁이였다.

자본주의 불균형적 발전 법칙에 따라 전후 초기에 절대적 우세를 차지했던 미국은 최근 년간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에 불란서, 서독, 이태리 등 서구라파 나라들과 일본이 상대적

으로 강화되였으며 이 추세는 1963년에도 계속되였다.

1958—1963년에 미국의 공업 장성률은 제국주의 렬강 중에서 제일 낮은 년 평균 3.6%에 불과했는데 구라파 《공동 시장》 6개국은 5.9%였다.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은 1948년의 53.9%로부터 1963년에는 44.8%로 낮아진 반면에 구라파 《공동 시장》의 6개국은 같은 기간에 12.9%로부터 20.2%로 높아졌으며 서독은 3.9%로부터 9%로 장성하여 계속 영국을 앞서 자본주의 세계 제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1%로부터 4.9%로 장성하여 1937년의 2.6%를 훨씬 릉가하였으며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4위를 차지하였다.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일부 나라들이 차지하는 몫(%)

	1937	1948	1953	1960	1962	1963
미 국	41.2	53.9	51.9	45.4	45.1	44.8
서 독	8.8	3.6	6.7	9.0	9.1	9.0
영 국	14.4	11.3	10.2	9.4	8.8	8.6
불란서	5.0	3.9	3.9	4.7	4.8	4.8
이태리	3.4	2.6	3.0	3.9	…	4.5
구라파 《공동 시장》	20.7	12.9	16.0	20.0	20.4	20.2
일 본	2.6	1.0	2.2	4.1	4.8	4.9

자본주의 세계의 수출에서도 미국의 몫은 1947년의 32.5%로부터 1962년에는 17.3%로 감소된 반면에 서구라파 《공동 시장》은 같은 기간에 11.4%로부터 27.6%로 늘어 났다. 서독은 0.5%로부터 10.7%로 급속히 장성하여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수출에서 일부 나라들이 차지하는 몫(%)

	1937	1947	1957	1962
미 국	14.2	32.5	20.7	17.3
영 국	11.2	9.8	9.2	8.6
서 독	10.1	0.5	8.6	10.7
불란서	4.1	4.0	5.1	6.0
이태리	2.4	1.4	2.6	3.8
구라파 《공동 시장》	…	11.4	…	27.6
일 본	5.1	0.4	2.9	4.0

자본주의 세계의 금 및 외화 보유량(단위 100만 미국 딸라)

	1937		1947		1957		1962	
	액수	비률	액수	비률	액수	비률	액수	비률
미 국	14 592	52.5	24 563	56.3	22 857	35.2	16 157	21.2
영 국	2 877	10.3	1 688	3.9	2 273	3.5	2 806	3.7
서 독	—	—	201	0.5	5 114	7.9	6 447	8.4
불란서	2 791	10.0	800	1.8	645	1.0	3 610	4.7
이태리	201	0.7	904	2.1	1 355	2.1	3 441	4.5
구라파《공동 시장》	—	—	3 246	7.4	9 265	14.3	16 863	22.1
일 본	289	1.0	226	0.5	524	0.8	1 842	2.4
자본주의 세계 총계	27 800	100	43 700	100	64 935	100	76 370	100

주: 년말 현재

발광적인 전쟁 및 침략 정책 수행에 따르는 지출의 증대로 미국은 1958년부터 국제 수지에서 련속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1960년 이래 심각한 딸라 위기를 겪고 있다.

1947년에 자본주의 세계의 금 및 외화 보유량에서 미국은 56.3%인 245억 6,300만 딸라였고 구라파 《공동 시장》 6개국은 7.4%인 32억 3,600만 딸라였는데 1962년에 미국은 21.2%인 161억 5,700만 딸라로 감소된 반면에 구라파 《공동 시장》 6개국은 22.1%인 168억 6,300만 딸라로서 미국을 따라 앞섰다. 1963년에도 미국의 딸라 위기는 더욱 심화되였다. 9월에 미국의 금 및 외화 보유량은 157억 8,900만 딸라로 떨어졌는데 《공동 시장》 6개국은 182억 2,200만 딸라로 계속 늘어 났다.

심각한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미제는 《딸라 방위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1962년 10월의 《통상 확대법》에 근거하여 1963년 5월에 《일괄 관세 인하안》(케네디 라운드)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트) 참가국 회의에 제출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국제 수지에 관한 특별 교서》를 발표하여 《바이 아메리칸 정책》(미국 상품 우선 구매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 비률을 인상하였으며 새로운 조치로서 리자 평형세라는 것을 설정하였다.

※리자 평형세란 1965년말까지 미국 이외의 나라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증권, 채권을 미국인이 구입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것은 서구라파 나라들과 일본 등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의 투자를 억제하며 딸라가 해외에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미국 경제력의 약화와 특히는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 렬강간의 모순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다.

【경제적 모순】 1963년 벽두부터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로 격렬한 투쟁을 벌린 서부 렬

강은 년중 추악한 시장 쟁탈전으로 일관하였다. 이 해 시장 쟁탈전에서 특히 날카롭게 벌어진 것은 미국과 구라파 《공동 시장》간의 관세전(關稅戰)이였다.

영국의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의 실패: 1963년 1월 28일 구라파 《공동 시장》브류쎌 각료 회의는 영국의 가입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불란서의 반대로 회담은 결렬되였다. 드 골에 한대 단단히 얻어 맞은 영국은 《공동 시장》에 대한 불란서의 지배를 반대하는 이태리, 벨기, 화란 등 나라에 의거하여 《공동 시장》에 뚫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브류쎌 회담이 결렬되자 맥밀란이 이태리를 방문한 것이나 벨기와 화란이 영국의 준 가맹안 또는 영국과의 정기적인 회합 방식을 제기한 것 등은 그 구체적 표현이다. 영국의 이러한 집요한 노력도 5월의 리사회 회의에서 불란서의 거부로 파탄되였다. 이리 하여 《공동 시장》에 가입하려고 1961년 가을부터 전력을 기울여 온 영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영국은 불란서, 서독을 중심으로 한 《공동 시장》이 출현하자 구라파 시장을 계속 확보하며 불란서와 서부 독일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1959년에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를 조직하고 이에 대항해 나섰다. 그러나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는 《공동 시장》과의 경쟁에서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렇게 되자 영국은 궁여지책으로 《공동 시장》 가입을 체면 불구하고 신청했던 것이다.

원래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를 반대하던 미국은 《공동 시장》이 점차 미국을 반대하는 길로 나가게 되자 영국을 《공동 시장》에 밀어 넣고 그를 앞잡이로 하여 《공동 시장》의 배타성과 반미적인 경향을 내부로부터 분쇄하는 동시에 《공동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대서양 공동체》의 구상을 실현하려고 영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때문에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의 실패는 영국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일대 타격으로 되였다.

한편 불란서는 영 련방 성원국들의 농산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제도의 적용을 고집하는 영국을 《공동 시장》에 가입시킨다면 《공동 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자기 나라가 손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구라파의 령도권을 쥐려는 자기의 야심을 실현하는 데서 직접 위협으로 되기 때문에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이리 하여 서구라파 시장을 둘러 싼 렬강간의 쟁탈전은 절정에 달하였다.

케네디의 일괄 관세 인하안(케네디 라운드): 1963년 5월 21일 서서의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트) 참가국 각료 리사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미국 대표(이전 국무 장관 허터)는 현존 관세를 일괄하여 50% 인하(매년 10%씩 인하하여 5년간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이것이 케네디 라운드이다). 미제는 일괄하여 관세를 50% 인하한다는 미명하에 《공동 시장》의 관세률보다 높은 자국의 관세률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동 시장》의 배타적인 관세 장벽을 허물고 자국 잉여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반면에 수입은 제한하자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를 비롯한 《공동 시장》 참가국들은 미국의 일괄 관세 인하안을 완강히 반대하고 《관세 격차 시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고률 관세(즉 미국의 관세률)는 대폭 인하하고 저률 관세(《공동 시장》의 관세률)는 약간 인하함으로써 미국의 과잉 공업품과 농산물의 투매를 배제하고 미국의 침투로부터 《공동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을 헐어버리자는 것이다.

이리 하여 미국과 《공동 시장》간의 격렬한 론쟁이 벌어져 결국 회의는 이렇다 할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 하고 1964년 5월까지 미루기로 하였다.

《닭고기 전쟁》: 1963년 5월 말에 《공동 시장》은 비 성원국의 닭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를 한 폰드에 13.4센트로 높였다. 이 조치로 하여 《공동 시장》과 미국간에 《닭고기 전쟁》이 벌어졌다.

최근 년간에 미국의 닭고기는 서구라파 (특히 서독)에 물밀리 듯이 대대적으로 들어 왔다. 《공동 시장》 6개국이 수입하는 닭고기의 90%는 미국의 것이며 《공동 시장》에 대한 미국의 닭고기 수출은 1958년의 300만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5천만 딸라로 즉 근 17배로 올라 갔다. 이는 《공동 시장》 성원국들의 가금업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공동 시장》은 성원국의 가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2년 7월부터 부과금 제도를 실시하여 닭고기 수입세를 대폭 높였다.

《공동 시장》이 1962년 7월부터 1963년 5월 말까지 닭고기 수입세를 4.9센트로부터 13.4 센트로 높인 결과 《공동 시장》에 대한 미국의 닭고기 수출은 1962—1963년간에 60%로 떨어져 년간 4,600만 딸라의 손실을 보게 되였다 (1963년 11월 가트는 미국의 손해액을 2,600만 딸라로 판정).

《공동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수입 방지를 위한 관세 행위》라고 노발대발한 미제는 1963년 8월 6일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보복 조치로 10월부터 서구라파의 포도주, 자동차를 포함한 19 개 품목의 상품 수입세를 높이며 때에 따라서는 서구라파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9월 24일 《공동 시장》은 미국이 관세를 25% 낮출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10%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너무 적다》고 하면서 이를 즉시 거부하였다.

《공동 시장》은 미국의 위협과 강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0월에는 미국 닭알에 대한 관세를 단번에 50%나 높였다. 이리 하여 《닭고기 전쟁》은 《닭알 전쟁》으로 번져졌다. 미국은 12월 4일

《공동 시장》에 대한 보복 조치로 1964년 1월 7일부터 19개 품목에 대한 수입세를 높이겠다고 정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과 공갈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들 간의 시장 쟁탈전은 더욱 격화되였다.

《공동 시장》내의 모순: 《공동 시장》내의 모순도 격화되였다. 그것은 불란서와 서독을 일방으로 하고, 두 나라의 지배를 두려워하는 기타 성원국들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에서 그리고 《공동 시장》의 지배권을 둘러 싸고 불란서와 서독 간에서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동 농업 정책》 문제를 둘러 싼 그들 간의 모순은 서방 출판물들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 시장》 조직 이래 최대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공동 농업 정책》에 대한 구상은 서구라파 농업 시장을 미국과 영련방 국가들의 침투로부터 보호하며 그러기 위하여 1969년까지 《공동 시장》내 국가들 간의 농산물 무역에서의 관세를 점차 페지하고 농산물 가격을 《일원화》하며 《공동 농업 기금》을 설정하여 구라파의 이른바 《경제 통합》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이 구상은 최근 년간 서부 렬강 간에 더욱 첨예화되여 가는 모순의 직접적 산물로서 본질에 있어서 구라파 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시장》을 더욱 페쇄된 배타적 련합으로 전변시키려는 것이다.

1963년 5월 9일 《공동 시장》 참가국들은 《로마 조약》에 예견된 본래의 기한을 6년간 앞당겨 1964년 초부터 농산물 가격의 《일원화》를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 농업 정책》 문제를 년말까지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불란서와 서독 간에 날카로운 싸움이 벌어졌다. 불란서는 서독에 대한 미국 농산물의 침투를 막고 자기의 농산물을 팔아 먹으려고 《공동 농업 정책》을 빨리 작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와 반면에 서독은 농산물 가격을 《일원화》한다면 생산 원가가 불란서보다 훨씬 높은 자국의 농업이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공동 시장》 밖의 나라 특히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자기의 공업 상품의 판로를 더욱 확장하자는 속심에서 불란서의 요구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서독의 반대에 불란서는 년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 하면 《공동 시장》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된다고 반발하여 나섰으며 서독은 그들 대로 원래 계획을 앞당길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12월 23일 겨우 합의를 보았으나 그들간의 모순이 해결된 것은 아니였다.

【군사적 령도권을 위한 투쟁】 1963년에 군사적 분야에서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투쟁은 《나토 핵 무력》 창설안을 둘러 싸고 날카롭게 벌어졌다.

1962년 12월 맥밀란과의 낫소 회담에서 케네디는 《다각적 핵 무력》안을 내 놓으면서 불란서도 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폴라리스》 원자 잠수함과 나토 성원국의 병력으로 함대를 편성하되 핵 방아쇠는 미국이 쥐며, 핵 무력은 미국 장군이 지휘하는 핵 무력 사령부에 속하며 핵 무력 유지비는 성원국들이 공동 부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은 미국이 《나토의 핵 무력》 창설이란 구실밑에 자기의 《동맹국》들 특히 불란서와 영국의 독자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저지하고 이 나라들의 핵 무력을 사실상 자기의 손안에 틀어 쥐여 핵 독점을 계속 유지하며 서독에 영불과 동등한 정도의 핵 참가를 허여하며 나토의 핵 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동맹국》들에 들씌우자는 음흉한 목적을 노리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은 불란서를 비롯한 서부 렬강의 날카로운 반대를 받았다.

《위대한 불란서》를 건설하려는 드 골은 1963년 1월 14일 기자 회견 석상에서 주권 국가가 자기의 안전을 《동맹국이라 할 지라도 타국의 핵 무기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케네디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독자적 핵 무력을 발전시킬 종전 립장을 다시 천명하였다. 3월 20일의 나토 상설 리사회와 5월 22—24일의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도 불란서는 《<다각적 핵 무력>이건 <다국가적 핵 무력>이건 간에 핵 무기의 사용에 관한 결정권이 미국에 속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고 비난하고 《핵 무력은 세계 주요 렬강 대렬에 불란서를 남아 있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독자적 핵 무력 창설을 완강히 고집하였다.

독자적 핵 무력을 창설하려는 불란서는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은 미국에 대하여서는 상징적인 것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후과를 가져 올 것인바 우리가 조약에 서명하게 된다는 것은 자체의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 체결을 위한 모쓰크바 회의 참가도 이 조약에 조인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불란서와 미국 간의 군사적 모순은 다른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1959년 3월에 이미 지중해 함대를 나토 사령부에서 철수한 불란서는 1963년 6월 21일 대서양 함대를 나토 지휘 하에서 철수할 것을 나토에 정식 통고하였다.

영국은 표면상으로는 미국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나 군사 정책에 있어서 량국 간의 투쟁은 음으로 양으로 매우 날카로워지고 있다. 1962년 12월의 낫소 회담에서 미국에 굴복하여 《독자적 핵 제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스카이볼트》 미싸일 제작 방침을 포기하고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것은 서구라파에서 강력한 적수로 등장하고 있는 불란서와 서독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들대로의 타산에서 출발한 것이고 핵 독점을 노리는 미국의 계획을 진심으로 받아 드린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그후 사태가 명백히 보여 주었다.

낫소 회담후 영국은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에 대치하여 《다국가적 핵 무력》안을 들고 나왔다. 이 안은 매개 나라들이 자기 무력의 독자성을 가지고 련합하여 《폴라리스》 잠수 함대를 조직하되 핵 무기의 관리는 핵 무기 소유 국가들이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다국가적 핵 무력》을 고집하면서 독자적 핵 무력 창설을 더욱 고창하였다. 1963년 11월 5일 영국 수상 흄은 선거 연설에서 독자적 핵 무력을 포기한다면 국방 및 외교 면에서 발언권을 잃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핵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방법과 형태를 가리지 않는 서독 복수주의자들은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것의 유지비의 40%까지도 걸머질 용의가 있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 대신 이 자들은 핵 무기의 관리권을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1963년 1월 4일 아데나우어는 《서독도 핵 방아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결심을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지껄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은 불란서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여 보려고 1963년 10월 11일 파리에서 벨기, 서독, 화란, 이태리, 토이기, 영국 등 7개국으로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연구 전문 그루빠를 조직하고 18일부터 워싱톤에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기 《동맹국》들에 대한 각종 압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나토 참가국 국회 의원 회의 군사 위원회는 《다각적 핵 무력》안에 대한 지지를 거절하였으며 11월 21일 벨기 외상 스파크는 미국의 계획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에서 언명하였다.

이리 하여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은 미제의 각종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부 렬강 간의 모순만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다.

【정치적 모순】 미국과 서구라파 국가들의 경제, 군사적 힘의 변화는 곧 정치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그들 간의 정치적 모순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다. 불란서, 서독 등 서구라파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대등한 지위를 얻을 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미국은 미국대로 서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유지,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리 하여 미국과 서구라파 국가들간, 특히는 미국과 미국의 지배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불란서간의 정치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다.

미국과 불란서와의 정치 투쟁은 구라파에만 머물지 않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확대되였다. 1963년 9월의 려행에서 드 골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불란서의 역할에 대하여 공언하였으며 외상 뮤르빌은 《불란서는 제3 세계에서 독자적인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명하였다. 드 골은 남부 월남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이 실패를 당하여 곤난한 립장에 빠지자 《남부 월남 중립화》를 들고 나왔으며 미국이 꾸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실시하자 자기의 배를 두번이나 하바나에 파견하였으며 계속 무역을 하고 있다. 1963년 말에 캄보쟈가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고 미, 영의 외교 사절의 철수를 요구한 직후 불란서는 캄보쟈에 경제 《원조》를 줄 것을 발표하였다. 1964년 1월 말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승인하고 외교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미제의 중국 《봉쇄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파리—본 축의 형성 불란서와 서독은 서로 결탁하여 미, 영과 맞서기 위하여 1963년 1월 22일 량국간의 《협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파리—본 축》을 형성하였다.

이 조약은 공동의 군사 계획을 작성하며 중요한 외교 문제는 사전에 협의한다는 등 정치, 군사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를 예견하고 있다.

불란서는 이 조약을 통해 서독의 경제적 힘과 정치적 지지를 리용하여 자체를 강화하며 《공동 시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파리—본 축》을 정치적 지주로 삼아 자기가 지배하는 《구라파인의 구라파》를 건설하여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 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서독은 불란서와 결탁하여 미국에 대등한 지위를 요구하며 《공동 시장》 내에서의 경제적 우세를 리용하여 불란서의 지위를 빼앗아 서구라파에서 패권을 쥘 것을 노리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시장과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배권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간의 쟁탈전이 매우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강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는 멸망하여 가는 저들의 운명을 침략과 전쟁 도발로써 구해 보려고 더욱더 횡포하게 날뛰였다.

미제는 1963년에도 전면적인 핵 전쟁과 《국부 전쟁》, 《특수 전쟁》을 배합한 군사 전략과 《평화》 전략을 골자로 하는 《기본 전략》을 추진하는 데 약에 받쳤다. 이를 위하여 1964 회계 년도에 직접적 군사비만도 제2차 대전 시기의 3년간을 제외한 미국 력사상 최고 기록인 560억 딸라

를 배당하였고 그 중 핵 무기 발전을 위해서만도 전 회계 년도의 2배나 되는 150억 딸라를 돌렸다.

미제는 핵 무장화와 군비 증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90 개 나라들에 벌려 놓은 2,200여 개의 군사 기지에 100여 만의 침략군을 널며 놓고 있다. 10월 21일 미 국방성은 구라파와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의 구식 무기를 다량의 핵 무기와 교체하여 핵 전투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미제는 혁명의 배신자인 수정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면서 자기의 흉악한 침략적 정체를 가리며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벌렸다. 바로 6월 10일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 케네디 연설과 8월 5일 모쓰크바에서 조작한 부분적 핵 무기 시험 금지 조약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케네디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평화》에 대하여서와 《랭전》의 종식에 대하여 그 어떤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시도하면서도 《자신의 사활적 요구를 고수》할 데 대하여서와 그 《요구를 고수》하기 위하여 《전쟁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떠들어댐으로써 자기 정체를 드러내 놓았다. 또한 이자는 《공산주의 블럭내의 건설적인 변화》를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여 예속시키려는 음흉한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1963년에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초점으로 된 지역은 극동과 동남 아세아였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된 나라들을 반대하는 데 기본을 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미제는 이 해에도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원자 및 로케트 무기로 강점군과 남조선 괴뢰군을 증강하였으며 조선 정전 협정을 계속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미제가 1963년에 남조선에서 벌린 대규모의 군사 연습만도 15차나 되며 우리측이 정식 항의한 미제의 정전 협정 위반 사건만도 전년의 4배인 6,484건이였다.

미제는 일본을 아세아 침략의 전초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원자 잠수함과 《에프—105 디》형 전투폭격기들을 일본에 끌어 들이며는 한편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한일 회담》을 빨리 결속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였다.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 군사 인원을 2만 5천 명으로 증강하고 각종 현대적 무기를 투입하였으며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사용하는 범죄 행동을 감행하였다. 5월과 11월에 호놀룰루에서 《고위급 전략 회의》를 벌려 놓고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10월 2일 미국 정부는 맥나마라와 테일러의 남부 월남 현지 시찰(9월) 보고에 근거하여 침략 전쟁을 강화할 데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제네바 협정에 대한 파괴와 내전 재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1963년에 라오스의 정세는 또다시 긴장되였고 민족 통일 정부의 기능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미제는 파테트 라오와 중립파 간의 단결을 파괴하고 서로 반목케 하기 위하여 매수, 암살, 모략 등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4월 1일 외상 귀님 폴세나의 암살을 비롯하여 중립파내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였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자기 군사 인원을 철수할 대신에 더욱 증원하였으며 사반나케트 집단의 무력을 증강하고 해방 지역에 대한 침투와 공격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4월에 미제의 사촉하에 중립파 군대내의 반동들이 자르 평원에서 무장 충돌을 일으킨 후 우파 군대들이 라오스 애국 력량의 통제 지역을 대규모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제는 제7 함대를 타이만에 파견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타이와 라오스 국경 지대에서 세아토 조작 이래 최대의 군사 연습을 벌려 놓았다. 9월 9일 노사방 군대는 라오스 세 관계측 간의 합의에 따라 비엔티안에 주재하고 있는 애국 전선당 군사 대표단의 호위 부대를 포위하고 대표단 숙소를 사격하였으며 동 대표단이 비엔티안에서 떠날 것을 비법적으로 강요하였다.

미제는 《중국 봉쇄》 정책의 한 고리로서 인도 반동 지배층과 결탁하여 반중국 소동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미국—인도 《공중 공동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 군사 연습》을 벌리며 군사 원조를 대대적으로 주는 등 인도 반동 계층을 인민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내몰려 하였다.

동남 아세아에서 앙양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며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여 보려고 영미 제국주의자들은 1961년부터 꾸며 오던 《말레이시아 련방》을 1963년 9월에 정식 조작하였으며 12월에 미제는 대만 해협에 있는 제7 함대의 활동 구역을 인도양에까지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리 하여 극동과 동남 아세아 정세는 긴장되였다.

1963년에 미제는 1962년 10월의 이른바 《카리브해 위기》를 통해서도 실현하지 못한 것을 달성하여 보려고 꾸바를 반대하는 침략 책동을 계속 강화하였다.

1월 12일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국회 상원에서 꾸바를 침략할 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렸으며 2월 7일 케네디는 기자 회견 석상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급한 지역으로 되고 있으며》 이것을 수습하는 방도는 꾸바 혁명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폭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꾸바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의 괴수 케네디의 직접 사회하에 1963년 3월 18—20일에 코스타 리카의 산 호세에서

중미 6개국(파나마, 살바도르, 과떼말라, 혼듀라스, 니카라과, 코스타 리카) 대통령 회의를 벌며 이른바 《산 호세 선언》이란 것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의 중심 목적은 미국과 중미 국가들이 《공동》으로 《꾸바를 고립시키기 위한 봉쇄의 벽을 쌓는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케네디는 이 《선언》을 구실로 하여 반공의 기'발 밑에 꾸바에 제재를 가하는 한편 중남미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공공연히 탄압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 회의의 결정에 따라 4월 초에 중미 내상 회의를 소집하고 꾸바 려행 금지와 꾸바 려행자에 대한 정보 교환, 《파괴 활동》이라는 이름 밑에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미주 국가들로 되는 경찰 부대의 조직과 훈련 등을 결정하였고 7월 3일에는 이 결정에다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의 결정이라는 딱지를 씌워 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2월에 미국 하원 특별 위원회에서 미주 담당 국무 차관보 마틴이 내놓은 안에다 상표만 바꾸어 붙인 것이다.

5월 초에 미제는 꾸바 혁명의 영향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것을 막아 볼 목적으로 미국 내에 《꾸바 반대 투쟁 위원회》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주동하에 5월말에는 미국에 도망해 가 있는 꾸바의 반혁명 조직들을 통합하여 《꾸바 해방 위원회》라는 것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아미에 만들어 놓았다. 2월부터 꾸바 반혁명 분자들을 미군 부대에 입대시켜 《특별 훈련》하던 미제는 《꾸바 해방 위원회》 밑에 《꾸바 해방군》이란 반혁명 전투 부대를 정식 결성하였다.

미제는 꾸바에 대한 경제 봉쇄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1월 12일 미 국무성은 꾸바에 대한 해상 운수를 그만두지 않으면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2월 6일에는 정부 특별 성명으로 1963년 1월 1일부터 꾸바와 통상하고 있는 외국 선박들에 대하여 미국 정부 자금이 들은 화물 수송을 일체 금지한다고 하였다.

꾸바에 대한 경제 봉쇄에 미쳐 날뛰는 미제는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꾸바 반혁명 분자들을 사촉하여 공해상에서 꾸바로 가는 선박들에 대하여 도발적인 공격을 가하게 하였다.

또한 꾸바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과 파괴 행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은 7월 8일 꾸바와 금융 거래를 금지하며 미국에 있는 꾸바의 재산을 동결하였고 8월 22일 미 하원은 꾸바와의 무역을 60일 이내에 중지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원조》를 중지한다는 《대외 원조 법안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 날뛰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하였다고 하면서 반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조하며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거세하려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의 허황한 설교를 분쇄하고 반제 투쟁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된다.

※ ※ ※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계속 장성한 반면에 제국주의 세력은 부단히 약화되였다.

오늘 사회주의는 세계 판도의 25.9%와 세계 인구의 35.5%, 세계 공업 생산의 37% 이상을 차지하며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도 세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의 위력의 장성은 세계 인민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는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적 전진을 계속하면서 제국주의 전쟁 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자들이 더는 침략과 전쟁을 일삼지 않게 되였다거나 《리성》적으로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국주의는 멸망해 갈 수록 더욱 발악하며 흉악해 진다. 1963년도의 제반 사실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배반한 수정주의자들은 우리 시대가 《평온한 시대》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와 투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성》에 의거하여 《협상》하며 《타협》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이 자들은 적들에게는 더욱 접근하고 《친선》과 《호의》를 표시하면서도 형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쑤들 처럼 대하고 있다. 이 자들은 세계 혁명과 평화의 믿음직한 담보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할 대신에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고 있으며 지어 이 진영에서 몇몇 나라들은 떼여 버린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듯이 중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합창단에 합류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고립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 정체는 세계 혁명적 인민 앞에 낱낱이 드러 났고 그들의 책동은 날을 따라 파탄의 길을 걷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며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이 투쟁에 일어 섰으며 그 대렬은 급격히 장성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정세는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환'군인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을 보장할 때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세아주

중 국
(중화 인민 공화국)

【면적】 959만 7,000 km²(아세아 대륙의 5분의 1 이상) 그 중 대만의 면적은 3만 5,759 km²

【인구】 6억 5,663만 명 (1957년, 홍콩, 마카오 주민 및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 제외)

【수도】 북경(주민 663만 명, 1958년 12월)

정치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외래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장 개석 반동파를 소멸함으로써 인민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1954년 9월 20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1 기 제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 공포하였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국가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1년에 1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군대, 화교 대표들로 구성된다. 1959년에 선거된 대표 수는 1,226 명이다.

상무 위원회 위원장　주 덕
비서장　팽 진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선거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령들을 공포한다.

주석은 대외적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을 대표하며 국가 무력을 통솔하며 대사령과 전쟁 상태를 선포한다.

주 석　류 소기
부주석　송 경령, 동 필무

【국무원】 국가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총 리　주 은래
부총리　진 운, 림 표, 등 소평, 등 자회, 하 룡, 진 의, 오 란부, 리 부춘, 리 선념, 섭 영진, 박 일파, 담 진림, 륙 정일, 라 서경, 습 중훈

비서장　습 중훈(겸임)
내무부 부장　증 산
외교부 부장　진 의(겸임)
국방부 부장　림 표(겸임)
공안부 부장　사 부치
국가 계획 위원회 주임　리 부춘(겸임)
국가 경제 위원회 주임　박 일파(겸임)
과학 기술 위원회 주임　섭 영진(겸임)
대외 무역부 부장　엽 계장
민족 사무 위원회 주임　오 란부(겸임)
화교 사무 위원회 주임　료 승지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주임　장 해약

【국방 위원회】 주석　류 소기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상해에서 창건되였다. 최고 지도 기관은 전국 대표 대회이며 그 임기는 5년이다. 당원 수 1,700여만 명(1961년 6월 현재)

정치국 위원 모 택동,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진 운, 림 표, 등 소평, 동 필무, 팽 진, 라 영환, 진 의, 리 부춘, 류 백승, 하 룡, 리 선념, 가 경시, 리 정천, 담 진림

정치국 후보 위원 오 란부, 륙 정일, 진 백달, 강 생, 박 일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모 택동,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진 운, 림 표, 등 소평

중앙 위원회 주석 모 택동
부주석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진 운, 림 표
총서기 등소평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중국의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 단체로서 1949년 9월에 창립되였다. 현재의 제 3기 전국 위원회 지도 기관은 1959년 4월 28일에 선거되였다. 명예 주석 모 택동, 주석 주 은래, 비서장 서 빙 **중국 국민당 혁명 위원회** 1948년 1월에 창립되였다. 주석 하 향응 **중국 민주 동맹** 1941년에 창립되였다. 주석심 균유(1963년 6월 11일 서거), 대리 주석 양 명헌 **중국 민주 건국회** 1945년 11월에 창립되였다. 주임 위원 황 염배 **중국 민주 촉진회** 1945년 12월에 창립되였다. 주석 마 서륜 **중국 농공 민주당** 1947년 2월에 중화 민족 해방 운동 위원회를 현명으로 개칭하였다. 주석 계 방 **중국 치공당** 1925년에 조직되였다. 주석 진 기우 9.3 **학사** 1945년 9월 3일에 창립되였다. 주석 허 덕형 **대만 민주 자치 동맹** 1947년 11월에 창립되였다. **중화 전국 총공회** 1925년에 창립되였다. 회원수 1,630만 명 (1957년 12월 현재), 주석 류 녕일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1949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신 민주주의 청년단을 1957년 5월에 현명으로 개칭하였다. 서기처 제 1 서기 호 요방 **중화 전국 청년 련합회** 1949년 5월 4일에 창립되였다. 주석 류 서원 **중화 전국 학생 련합회** 1949년 8월에 창립되였다. 주석 호 계립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부녀 련합회** 1949년 4월에 창립되였다. 명예 주석 송 경령, 하 향응, 주석 채 창 **중국 문화 예술계 련합회** 주석 곽 말약 **중화 인민 공화국 과학 기술 협회** 주석 리 사광 **중화 전국 신문 공작자 협회** 주석 오 랭서 **중국 인민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주석 곽 말약 **중국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주석 료 승지

중국 인민 대외 문화 협회 회장 초도남 **중국—조선 친선 협회** 회장 리 덕전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11월 17일—12월 3일 간에 북경에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2 기 제 4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리 부춘 부총리의 《1963년 인민 경제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와 리 선념 부총리의 《1963년 국가 예산 초안 실행 정형과 1964년 국가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또한 현 국제 국내 정세 (주 은래 총리 연설)를 토의하였으며 제 3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수와 선거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3년 11월 17일—12월 4일 간에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전국 위원회 제 3 기 4차 회의가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전국 위원회 상무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토의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상무 위원회의 사업을 찬동하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2 기 제 4 차 회의에서 한 주 은래 총리의 연설과 리 부춘, 리 선념 부총리들의 보고 그리고 당과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회의는 정치 협상 회의 제 3기 전국 위원회의 임기를 1964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외 관계】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총로선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친선, 호상 원조 및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며 5개 원칙에 기초하여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쟁취하고 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각국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중국은 1964년 1월 현재 48 개국 (그중 사회주의 나라 12개국, 아세아 11개국, 아프리카 16개국, 구라파 자본주의 나라 9개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1963년 7월 31일 중국 정부는 부분적 핵 무기 시험 금지에 관한 모쓰크바 조약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핵 무기의 전면적인, 철저한, 완전 금지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 수뇌자들의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8월 2일 주 은래 총리는 각국 수뇌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6월 5—23일 간에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이 류 소기 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친선 방문하였으며 6월 23일 최 용건 위원장과 류 소기 주석 간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였다. 한편 1963년 9월 15—27일 간에 류 소기 주석이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또한 이 해 우리 나라 로동 신문 대표단 (4—5월), 민주 법률가 대표단 (4—5월), 직총 대표단 (4—5월), 과학원 대표단 (6—8월), 보건성 대표단 (7—8월),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대표단 (7—8월), 조중 친선 협회 대표단 (9—10월), 농업 과학원 대표단 (9—12월), 중앙 통신사 대표단 (9—10월), 중앙 민청 대표단 (9—10월), 상업 대표단(11월)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조 우호 협회 대표단 (9월), 중국 총공회 대표단 (4—5월), 중국 과학원 대표단 (5—6월), 중국 정부 통상 대표단(9—10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동북국 대표단 (10월), 중국 인민 일보 대표단 (10—11월), 중국 공청단 대표단 (10—11월), 중국 철도 대표단 (11월), 중국 연극 대표단 (10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 밖에 예술단들과 개별적인 인사들의 래왕이 있었다. 10월 4일 주 은래 총리는 김 일성 수상께 천연색 예술 영화 《홍루몽》을 선물로 보내왔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7월 5—20일 간에 모쓰크바에서 중국 공산당 대표단 (단장 등 소평 총서기)과 쏘련 공산당 대표단 간에 현 세계 발전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중쏘 관계의 일련의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발표된 콤뮤니케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대표단의 제의에 따라 대표단들의 사업을 중단하고 후에 회담을 계속할 데 대한 합의가 달성되였다.

5월 10—16일 간에 류 소기 주석이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으며 7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저지시킬 것을 1954년 제네바 회의 외상들에게 요구한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의 7월 15일부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29일 모 택동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을 접견하고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괴뢰 도당의 인민 학살 만행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꾸바가 자연 재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10월 16일 주 은래 총리는 꾸바 수상 카스트로에게 서한을 보냈다. 중국 정부가 쌀 2만 톤, 밀과 옥수수 3만 톤, 돼지고기 통조림 200만 키로, 면직물 360만 메터 등 원호 물자를 꾸바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12월 31일—1964년 1월 9일 간에 주 은래 총리는 알바니야를 친선 방문하였으며 량국 간의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4월 12일—5월 6일 간에 류 소기 주석은 인도네시아, 버마, 캄보쟈를 방문하였으며 1963년 12월 14일—1964년 2월 4일 간에 주 은래 총리는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아, 모로코, 튜니샤, 가나, 말리, 기니아,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한편 세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 (1962년 12월 31일—1963년 1월 9일), 라오스 국왕 사방 바타나 (3월 6—10일),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2월 8—28일), 인도네시아 부수상 수반드리오 (1월 2—7일), 아랍 련합 공화국 행정 리사회 의장 알리 사브리 (4월 21—25일), 소말리 수상 쉐르마르크 (8월 4—10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1월 9일), 알제리아 정부 대표단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 정부는 1963년에 네팔 (1월 20일), 파키스탄 (3월 2일), 아프가니스탄 (11월 22일)과 각각 국경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 정부는 12월 11일과 14일에는 잔지바르, 케니아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1월 5일 파키스탄과 통상 협정을, 5월에는 소말리와 무역 및 지불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알제리아에 3,000톤의 건축용 강재를 원조하였다.

중국 정부는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4월 16일과 9월 13일 중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라오스의 민족 통일 정부를 전복하려는 미제의 간섭 및 파괴 행동을 규탄하고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호상 협상할 것을 1962년 제네바 회의 두 공동 의장국에 호소하였다.

11월 21일에는 미제의 《원조》를 단호히 거절하고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는 캄보쟈 왕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지지하며 캄보쟈에 대한 외래 침략자들의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인 국경 문제 중국 정부는 시종 일관 중인 국경 문제를 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63년 1월 19일 주 은래 총리는 반다라나이케의 1월 14일부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에서 콜롬보 회의 제안을 중인 공식 대표 회담의 초보적 토대로서 원칙적으로 접수하였다.

중국 측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1962년 11월 21일 정화가 실시된 후 중국 국경 경비대들은 사격을 중지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1963년 2월 28일까지 중인 국경 전역에서 철수하였다.

중국 국경 경비대들은 자위를 위한 반 공격 과정에 진출하였던 지역으로부터 1959년 11월 7일의 실제적 통제선 밖으로 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통제선으로부터 중국 쪽으로 20키로메터 철수하였다. 국경 경비대의 철수 후에 국경 지역들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구간 (1959년 11월 7일 선으로부터 중국 쪽으로 20키로메터)의 일부 장소들에 행정 관리 초소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화 실시 당시 분쟁이 존재한 4개 지역에는 행정 관리 초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국경 경비대가 자위를 위한 반 공격 전투에서 로획한 무기와 군용 물자를 인도 측에 반환하였으며 1963년 5월 25일까지 1962년 10월과 11월에 중국 국경 경비대를 공격하다가 포로된 인도 군인 3,942명과 26명의 시체 및 유골을 인도에 넘겨 주었다.

10월 9일 중국 정부는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회담을 회피하려는 인도 측의 1963년 4월 3일과 9월 6일부 각서를 반박하면서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회담을 또다시 념원하는 회답 각서를 인도 정부에 보냈다.

또한 정화 후 계속 중국 령공과 령토를 불법 침범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때 마다 인도 측에 항의 각서를 보내여 침략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측은 중인 국경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적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지원하에 국경 침범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 인도 측의 팽창 정책에 의하여 중인 국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제 정세 개관 참조)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에 중국 정부는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에 대한 침략 책동을 감행하며 중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였다. 1963년 11월 1일 중국 인민 해방군은 중국 동부 지방 령공을 침범한 미제와 장 개석 도당의 《유—2》형 간첩 비행기를 격추하였다.

1962년 10월 1일—1963년 10월 24일 간에 미제와 장 개석 도당이 24차에 걸쳐 중국 해안 지역에 파견한 무장 간첩 324명을 전부 소멸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령공과 령해를 부단히 침범하는 미제의 군사적 도발 행위와 관련하여 1963년 말까지 미국에 270차에 걸쳐 엄중 경고하였다.

10월 24일 중국 외교부는 유엔 총회 제 18차 회의에서 미국이 유엔에서의 중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을 또다시 방해한 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8일 모 택동 주석은 전 세계 인민들은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의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미국 흑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에 불란서 참의원 의원이며 이전 수상이던 폴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경 제

1963년에 중국은 농업을 기초로 하고 공업을 주도 력량으로 하는 경제 건설의 총방침 및 자력 갱생의 혁명적 방침에 따라 계속 조절, 공고, 충실, 제고를 위한 사업을 관철한 결과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 하여 1963년도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균형 특히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이 더욱 조절되였으며 새로 건설된 공업 기업소들과 관개 시설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결과 지난 3년 간의 혹심한 자연 재해와 기

타 원인들로 인하여 조성되였던 일시적인 경제적 난관들이 점차 극복되였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는 자연 부원이 풍부한바 석탄과 철광석의 매장량은 세계 제 2위, 월프람, 주석, 안티몬을 포함한 일련의 금속 및 비금속의 매장량은 세계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유의 매장량은 8억톤이며 동은 20개 성, 보키사이트는 10개 성에서 발견되였다.

양자강, 황하, 송화강, 료하 등에는 수력 자원이 풍부하며 산림 면적은 국토의 7.9%를 차지한다.

【공업】 1963년도에 공업 부문에서는 국가 계획을 전반적으로 완수하였다. 주요 농업 생산 수단, 경공업 제품, 중공업 제품 생산은 1962년에 비하여 각각 장성하였다. 1963년도 국가 계획을 화학 비료는 139%로, 농기계는 120%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130%로 넘쳐 수행하였다.

1963년 1—8월 기간에 대중소형 뜨락또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0%, 관개용 기계는 175%, 화학 비료는 43.8%, 농약은 27% 더 생산되였다. 주요 원료, 자재, 설비의 자급률도 더욱 높아졌다. 기계 설비의 자급률은 1957년의 약 55%로부터 1963년에는 85%로, 강재는 75%로부터 90%로 되였다.

이리 하여 중국은 100만 톤 능력의 탄갱, 150만톤 능력의 강철 콤비나트, 년 2만 5,000톤의 합성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화학 비료 공장, 65만 키로와트의 출력을 가지는 발전소 등 주요 건설 공사들을 자체의 설계와 기술로 건설할 수 있게 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413개,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013개의 대중형 공업 건설 대상들을 자체로 건설하였다.

1963년에는 23축 박판 压정기, 8톤급 화물 자동차, 6.3 메터의 타넝반 등 대형 설비와 정밀 기계 설비의 시험 제작에 성공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의 질이 더욱 높아졌으며 품종과 규격이 가일층 확대되였다. 1963년 상반년간에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시험 제작한 강재는 300여 종, 새 기계 설비는 220여 종이였다. 1963년 10개월 간에 주요 제철소들에서 선철의 합격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7% 높아져 99.5%에 이르렀다.

1957년에 비하여 1962년도의 강철, 강재 및 유색 금속, 공작 기계의 품종은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1963년에 석유 제품의 품종은 1959년에 비하여 3배로, 정유 공장의 가공 능력은 전년보다 5배 이상 증가되여 종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고급 석유 제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도 전국적으로 면사, 면포, 신발 등의 1등품 합격률은 전년도 보다 올라갔으며 모방직품의 1등품 비률은 96%로서 1962년에 비하여 130%로 높아졌다. 1963년에 새로 시험 성공한 모방직의 품종은 1,700 여 종인바 이는 해방 초기의 30 여 배나 된다. 1963년에 모방직품의 생산량은 1962년의 113.6%로 늘었다. 특히 산양 섬유의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1963년 4.4 분기의 사탕 생산량은 전해 같은 기간의 2배로 장성하였다.

수공업은 국영 공업의 유력한 방조자로서 공업 총생산액의 10%, 수공업 생산품은 시장 류통 상품 총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술 력량도 현저히 장성되였는바 1962년 말에 과학 기술자 수는 1957년의 170%였다.

그리 하여 중국은 현재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공업화의 초보적 기초를 축성하여 놓았다.

【농업】 중국 정부는 농촌 인민 공사를 정치, 경제, 기술적으로 강화하며 농업 생산을 가일층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자, 기술, 자금, 인재 등 모든 면에서 농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1961—1963년에 국가가 농촌에 공급한 뜨락또르는 약 4만 5,000대 (15 마력으로 환산), 기계, 배수 및 관개 설비는 300여만 마력에 달하였다. 1956년에 비하여 1963년에 전국적으로 뜨락또르 대수는 5.67배, 농기계 작업소는 3.87배, 뜨락또르로 기경한 면적은 4.65배로 증가되였으며 전국적으로 60% 이상의 현에 농기계 작업소가 설치되였다.

최근 년간 수십억 원의 자금이 농촌에 돌려졌으며 1963년에는 농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은행이 설치되였다.

1963년에 농업은 가일층 복구 발전되였다. 일부 지역들에서 수재와 한재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알곡 수확고는 전년보다 늘었으며 목화는 20% 이상, 기타 공예 작물도 현저히 장성되였다.

목축업에서도 양, 돼지, 소, 말들이 증식되였다. 내몽고에서만도 1962년 7월—1963년 6월 간에 1,000여만 두의 새끼 양이 증식되여 내몽고 력사에서 최고 기록을 이루었다.

【대외 무역】 1963년에 대외 무역 부문에서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수출 초과를 가져 왔다. 1963년에 중국은 120여개의 나라 및 지역들과 무역을 진행하였다.

교육, 문화

1963년 전국 대학 졸업생 수는 20만명 이며 160개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800여명의 연구생을 모집하였다. 1963년 겨울에 25개의 성과 직할 시 및 자치구들에서 업여 학교에 망라된 사람은 1,000여 만 명이였다.

1963년에 의학 과학 연구 기관은 1956년의 20개로부터 100개로, 의학 과학 일'군은 3배로 늘었다.

【출판】 통신— 신화 통신사

주요 신문—인민 일보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공인 일보 (중화 전국 총공회 기관지), 중국 청년보 (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 광명 일보, 대공보, 해방군보, 북경 일보

주요 잡지— 붉은 기 (중국 공산당 기관 잡지), 중국 청년, 중국 부녀, 문예보, 세계 지식, 신건설, 인민 문학, 해방군 문예

몽 고

(몽고 인민 공화국)

Бу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упс

【면적】 153만 5,000 km²

【인구】 114만 9,000명 (1963년 말 현재)

【수도】 울란 바또르 (주민 21만 7,800명, 1963년 1월 5일)

정 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후 몽고 인민당 (현재 몽고 인민 혁명당)의 령도하에 1921년 7월 11일 인민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1924년 11월 26일 몽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 인민 후랄】 최고 주권 기관이며 대의원 수는 270명이고 그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의 대 인민 후랄은 제 5 기로서 1963년 6월 9일에 선거되였다.

의장 바또치림 알만게렐

상임 위원회 위원장 즈. 쌈부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7월 2일 구성되였고 그 후 일부 변경되였다.

수상	유. 째덴발
제 1 부수상	드. 몰롬잠쯔 쓰. 룹싼
부수상	느. 쟈그바랄, 드. 마이다르, 쯔. 뿐짜그노로브, 브. 두게르쑤렌, 뜨. 라그차, 브. 르합쑤렌
외무상	므. 두게르쑤렌
인민군상	즈. 르하그바쑤렌
무역상	드. 곰보쟈브

【정당, 사회 단체】 몽고 인민 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몽고 인민당이 1924년 8월에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였다. 당원수 4만 8,902명 (1961년 4월 1일)

정치국 위원 쯔. 쌈부, 유. 째덴발, 쓰. 룹싼, 드. 마이다르, 느. 쟈그바랄, 쯔. 두게르쑤렌, 드. 몰롬잠쯔

후보 위원 브. 르합쑤렌, 느. 룹싼리브단

비서들 유. 째덴발(제 1 비서), 쯔. 두게르쑤렌, 브. 르합쑤렌, 쓰. 룹싼, 느. 쟈그바랄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즈. 밤바도르쥬 **인민 혁명 청년 동맹** 제 1 비서 츠. 뿌레브쟈브 **근로 녀성 동맹** 위원장 쓰. 우드왈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츠. 치미드 **청년 단체 위원회** 1963년 12월에 창설되였다. 위원장 츠. 뿌레브쟈브 **몽고—조선 친선 협회** 1960년 8월 12일 창건, 위원장 므. 쟘쓰란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2월 8—9일 대 인민 후랄 제 4 기 제 4 차 회의에서는 1963년도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계획과 국가 예산을 심의 비준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교육과 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 교육 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법령 등을 승인하였다.

6월 9일 대 인민 후랄 및 지방 후랄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유권자 총수의 99.99%가 참가하였으며 대 인민 후랄 립후보들에게는 99.99%, 아이마크(도) 및 시 후랄 립후보에게는 99.98%가 찬성 투표하였다.

7월 1—2일 대 인민 후랄 제 5 기 제 1 차 회의는 1963년도 국가 수매 계획 실행 및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대 인민 후랄 상임 위원회를 선거하고 새 내각을 승인하였다. 12월에 있은 대 인민 후랄 제 2 차 회의에서는 1964년도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국가 계획과 1964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였다.

1월 8일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가 소집한 사상 사업 문제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쏘련 공산당 대표단 (단장 일리이쵸브)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현 계단에서의 당 사상 사업의 과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2월 7일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 제 4 차 전원 회의에서는 1963년도 축산업 발전 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낮추며 임금이 낮은 로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조치, 그리고 학교와 현실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 교육 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조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20—22일에 진행된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는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성원국 공산당 및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들과 정부 수반들의 7월 (1963년) 회의 결과에 관하여》, 《공화국에서의 기본 건설 형편과 그 개선 방도에 관하여》, 《건설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 형편에 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또한 조직 문제를 심의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9월 몽조 친선 협회 대표단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 참가차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2월 9일 유엔 총회 제 18 차 회의 정치 위원회에서 몽고 대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된 《조선 문제》 토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도 참가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4월 25일 우리 나라와 몽고 간에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가 조인되였으며 9월 25일—10월 1일 간에는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3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에 유. 째덴발 수상이 민주 독일 (1월), 쏘련 (7월), 불가리아 (8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몽고 내각 제 1 부수상 드. 몰롬잠쯔 (4월 12—25일), 몽고 인민 혁명당 대표단(4월), 몽고 외무상 (8월), 몽고 군사 대표단 (4월), 몽고 경제 대표단(1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몽고 경제 대표단 (5월), 몽고 작가들(7월)이 중국을, 몽고 통상 대표단 (12월), 몽고 문화 대표단(5월)이 월남을 각각 방문하였다.

3월 25일 울란 바또르에서 1962년 12월 26일 북경에서 조인된 중국과 몽고 간의 국경 조약 비준서가 교환되였다.

한편 1963년 1월에 일리이쵸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공산당 대표단이 몽고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가 소집한 사상 문제에 관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몽고를 방문하였다. 중국 정부 통상 대표단 (8월), 파란 내각 부수상 꼬뜨르 야르쉐비치 (7월), 민주 독일 통상 대표단 (3월) 등이 몽고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4월에 몽고 군사 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다. 1963년에 몽고는 영국 (1월), 아랍 련합 공화국 (4월), 파키스탄 (6월), 오지리 (6월), 분란 (7월)과 각각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몽고 정부가 《쿠르드 인민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민족 말살 정책》 문제를 유엔 제 18 차 총회 의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것과 관련하여 7월 8일 이라크는 몽고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 제

인민 경제에서 목축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가축은 양, 말, 락타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원유, 철, 금, 은, 동, 망간, 탕그스텐 등이 있다.

최근 년간 목축업의 발전과 함께 농촌 경리 분야에서 밀, 사료 작물 재배를 비롯한 농업 생산이 새로운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업 분야에서는 연료, 동력 기지들과 일련의 경공업 공장들이 신설 확장되였다.

1963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기본 투자 계획은 95.5%로 수행되였다. 공업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20%, 농업 투자액은 19% 증가하였다.

【농업】 1963년에 가축 증식 계획이 초과 수행되였다. 1962년에 비하여 가축 두수는 6.8% 즉 140만 두 증가하였다.

파종 면적은 전년 보다 3.6% 더 확장된 45만 5천 헥타였다. 1963년에 알곡은 32만 2,000 톤 생산되였다.

파종 면적과 알곡 수확량

	1961	1962	1963
파종 면적 (1,000ha)	382.2	439.1	455
알곡 수확량 (1,000톤)	125.7	326.2	322

【공업】 1963년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93.5%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05.5%로 장성되였다.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3.6%, 소비재 생산은 7.2% 장성되였다.

196 년에 공업 총생산액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47.3%, 소비품 생산은 52.7%를 차지하였다. 공업 생산에서 생산 협동 조합은 17.5%를 차지한다.

1963년에 또쏜쩬겔쓰크 목재 가공 콤비나트, 다르한쓰크 산소 공장, 중부 고비 아이마크 설화 석고 공장, 다르한—샤린골 고압 송전선, 총연장 68키로메터의 철도 부설 등 10개의 대규모적인 대상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대외 무역】 수출품은 가축, 모피, 양모, 피혁 등이며 수출에서 약 90%는 축산품이다. 수입품은 기계, 설비 및 화학 제품들과 일용품이다.

교육 문화

1963—1964 학년도에 학생 수는 전학년도에 비하여 91%, 196 년 대학 졸업생 수는 43.9%, 중등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29.5% 증가하였다. 이해에 체육 대학이 창설되였다. 주민 1,000명 당 162 명이 각이한 교육망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1963년에 식물 재배 및 농업 과학 연구소와 축산업 과학 연구소가 창설되였다. 주민 1천 명에 의사는 1명 차례진다.

【출판】 통신— 몽고 통신 (몬짜메)

신문—우넨 (몽고 인민 혁명당과 정부 기관지), 허덜 머르(직업 동맹 기관지), 잘로쵸딘 우넨 (인민 혁명 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나뮌 아미드랄 (인민 혁명당 기관 잡지)

월 남

(월남 민주 공화국)

【면적】 32만 8,000 km²(민주 월남 면적은 15만 7,000 km²)

【인구】 1,700만 명 (1963년 민주 월남 주민)

【수도】 하노이(주민 64만 3,576 명, 1960년 3월 1일)

정 치

월남 인민은 1945년 8월 혁명을 수행한 후 9월 2일 독립을 선포하고 월남 민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월남 인민은 1946년 12월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도발한 불란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1954년 7월까지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1954년 7월 21일 제네바 정전 협정이 조인되고 북위 17도선이 남북 간의 림시 군사 분계선으로 되였다.

1959년 12월 31일 제 11 차 인민 회의는 1946년 제 2 차 인민 회의에서 채택되였던 헌법을 변동된 정세에 부합되게 수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임기는 3년이며 대의원 수는 362명이다. 현 인민 회의는 제 2 기로서 1960 년5월 8일에 선거되였다.

상무 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호 지명

부주석 손 덕승

【정부】 현 정부는 1960년 7월 15일에 구성된 후 1963년 1월 7

일 일부 개조되였다.

수상 범 문동

부수상 범 웅, 무 원갑, 원 유정, 펴 청의, 반 계수

외교 부장 춘 수

국방 부장 무 원갑

내무 부장 옹 문겸

대외 무역 부장 반 영

통일 위원회 주임 원 문영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원 유정

【정당, 사회 단체】 **월남 로동당** 전신은 1930년 2월 3일(1960년 9월 제 3 차 당 대회에서 당 창건일로 결정)에 창건된 인도지나 공산당이다. 1951년 2월 3일 인도지나 공산당 제 2 차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월남 로동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 수 50만명(1960년)

정치국 위원 호 지명, 펴 순, 장 정, 범 문동, 범 웅, 무 원갑, 펴 덕수, 원 지청, 원 유정, 펴 청의, 황 문환

정치국 후보 위원 진 국배, 문 진용

주석 호 지명

서기처 서기 펴 순 (제 1 서기), 범 웅, 원 지청, 펴 덕수, 황 영, 소 우, 펴 문량

민주당 총비서 엄 춘암 **사회당** 총비서 원 천 **조국 전선** 명예 의장 호 지명, 의장 손 덕승 **직업 련맹** 주석 황 국월 **로동 청년단** 제 1 비서 원 람 **청년 련맹** 위원장 범 옥석 **녀성 동맹** 위원장 원 씨십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펴 정탐 **월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손 광벌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4월 29—5월 8일 간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2 기 제 6 차 회의는 정부 사업 보고,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 사업 보고와 제 1 차 5 개년 계획(1961—1965) 및 1963년도 국가 예산 초안 문제들을 토의하고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

10월 28—30일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2 기 제 7 차 회의에서는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와 재정 정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부 월남 사태와 관련하여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남부 월남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각각 채택하였다.

4월 중순에 월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은 1963—1965년 내에 《농업 협동 조합의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기술을 개선하여 농업 생산을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19일에 진행된 월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9차 전원 회의는 국제 정세와 당의 국제적 과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통일과 인도지나의 평화를 위하여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8월 28일 호 지명 주석은 남부 월남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느고 딘·디엠 도당의 류혈적인 폭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1월 25일 월남 정부는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철거를 요구하며 월남인 자신들이 자기의 내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11월 8일부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는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침략 전쟁을 중지시키며 1954년 제네바 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국과 참가국들 그리고 월남 국제 감시 및 관리 위원회 참가국들에 8월 29일,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14일, 11월 5일, 11월 29일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6월 19—28일까지 박 금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9월 28일—10월 17일에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0월 10일 평양에서 량국 간의 1964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이며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비서인 유. 웨. 안드로뽀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 (1월 12—20일), 체코슬로바키야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 (1월 22—27일), 중화 인민 공화국 류 소기 주석 (5월 10—16일)이 각각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민주 월남은 체코슬로바키야와 령사 협정 (1월 14일)을, 몽고(8월 27일), 알바니야 (11월)와 각각 과학 기술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월남 민주 공화국은 미제를 반대하는 꾸바 혁명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폭풍 피해를 받은 꾸바 인민을 원조하기 위하여 50만동에 해당하는 각종 구호 물자를 보내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9월에 무꾸만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 대표단이 월남 민주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4월 15일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라오스 외상 퀴님 폴세나를 비롯한 중립파 인사들을 암살한 미제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조성된 라오스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경각성을 높일 것을 1962년 제네바 회의 참가국 정부들에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9일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도발과 침략 위협을 반대하는 캄보쟈의 정당한 정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캄보쟈의 중립과 령토 완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캄보쟈 왕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며 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각서를 캄보쟈에 보냈다.

월남과 타이 적십자사 단체 간에 1962년 12월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1963년 3월부터 매달 600명의 타이 거주 월남 공민(인도지나 전쟁 기간에 타이에 피난갔던 사람)들의 귀국 사업이 진행되였다.

1963년에 월남 민주 공화국은 아랍 련합 공화국(9월), 예멘(10월 10일)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 제

월남은 석탄, 철, 주석, 망간, 탕그스텐, 금, 아연, 린산염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고무, 사탕수수, 야자, 후추, 커피이다. 산림 면적은 토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월남은 1961년부터 경제 발전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월남은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실현에서 제 1 보를 내디디며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예견하고 있다. 1963년에 민주 월남은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3년 기본 건설 투자액중 생산 부문에 86%(그중 48%는 공업 건설에, 28%는 농업 건설에)를 투하하였다.

1963년에 189개 대상의 건설이 진행되고 그중 33개가 완공되였다.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는 민족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세(1962년에 경제의 80%)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1,100만 명의 근로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고 거의 모든 수공업자들이 개조되였다.

【공업】 1963년도 국가 계획은 중공업 부문에서 105%로, 경공업 부문에서 103.8%로 각각 넘쳐 수행되였다.

1963년에 공업 총생산액은 1939년에 비하여 7배로 장성되였다. 중공업의 총생산액은 1962년 보다 13.4% 증가하였으며 평균 로동 생산 능률은 7.2% 높아졌다.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전력은 23.5%, 린회석광은 36.5%, 벽돌은 57.9%가 각각 장성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000톤)

	1962	1963
전력 (100 kwh)	376.6	453.9
석탄	3 468.0	3 346.6
세멘트	462.0	494.8
린회석	678.0	925.5
직물 (100만m)	102.1	100.6

1954년에 41 개(큰 공장 20개)의 공장 밖에 없던 월남에서는 정전 후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야금 공업, 화학 공업, 광업 등의 중요한 시설들이 건설되여 1963년에 1,000 개(큰 공장 217개)의 공장을 가지게 되였다. 특히 이 해에 월남의 첫 제철 기지인 태원 야금 공장 제 1 호 용광로 건설이 완공되였다.

1963년에 월남에서는 선반, 보링, 양수기 및 디젤 기관 등과 같은 많은 새로운 품종의 제품이 생산되였다.

【농업】 1963년에 혹심한 자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종 계획은 97%로 수행되였으며 알곡 생산은 1939년의 2 배 이상, 축산물 생산은 거의 2 배에 이르렀다. 1963년에 벼는 460만 톤 생산되였다.

1963년에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국가는 생산적 건설 투자액의 23%를 농업에 돌렸으며 관개 시설 건설에 전년도 보다 5.7%나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다. 이 해 첫 9 개월 간만도 400여 개의 중소 규모의 관개 시설이 건설되였고 3만 헥타 이상의 처녀지가 개간되였다.

중공업의 지원 밑에 전년에 비하여 1963년에 양수기는 35%, 농업에서 사용한 전기는 2배 장성하였다. 각종 비료의 시비량은 전년 보다 35% 더 많았다. 또한 국가는 협동 조합의 고정 재산을 증대시켰으며 토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약적 영농법을 적용하였다.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쌀, 차, 커피, 주석, 린회석, 수공업품 및 수예품 등이며 수입품은 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설비, 기재, 원료 등이다. 1963년에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보다 4.7% 증가하였다.

교육, 문화

1963—1964 학년도 학생 총수는 1955년의 3 배인 291만 명이였다. 그중 중등 전문 학교 학생 수는 6만 6,000 명이며 13 개의 대학의 학생 수는 1만 6,000명에 달하였다.

1963년에 대학 졸업생은 3,000여 명, 중등 기술 학교 졸업생은 1만 3,000 명이였다.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160 여 만 명이 야간 학교들에서 공부하고 있다.

【출판】 통신—월남 통신

신문—인민 (월남 로동당 기관지), 구국 (월남 조국 전선 기관지), 로동 (월남 직업 련맹 기관지), 인민군 (월남 인민군 기관지)

잡지—학습 (월남 로동당 기관지)

남부 월남

정 치

1963년에 남부 월남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식민지 통치는 밑뿌리부터 뒤흔들리였다.

미제는 남부 월남 침략 전쟁에 2만 5천 명의 미군과 60만의 괴뢰군을 투입하고 매일 200만 딸라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1962—1963년 간에만도 7만 여 회의 《소탕 작전》을 벌리였으며 지어 화학 무기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는 1963년까지 16만 명의 인민을 학살하고 37만 명을 투옥하였다. 이러한 발악으로도 미제는 전쟁

에서의 패배를 만회할 수 없었으며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구원할 수 없었다.

1962년 말까지 남부 월남에서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겠다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미제 침략군은 1963년에 들어 서면서부터 큰 참패를 당하였다.

1월 2일 메콩강 삼각주에서 미제와 괴뢰군의 최정예 부대 2천 명은 백주에 그 10분의 1도 안되는 인민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500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였으며 14 대의 미국 직승 비행기를 격추 격상 당하였다. 이는 미제가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 전쟁 개시 이래 최대의 《굴욕적인 패배》로서 미국 지배층 내부에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백악관은 《남부 월남에서 당한 미군 직승 비행기의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고》를 내라고 미 국방성에 지시하는 한편 군사 작전의 실패와 관련한 정세를 《전반적으로 재 평가》하기 위하여 1월 9일 태평양 지구 미군 총사령관 펠트를, 1월 18일에는 미 륙군 참모 총장 휠러를 사이공에 파견하였다.

인민 무장대는 미제 침략군의 《소탕 작전》을 성과적으로 물리치면서 1963년에 적군 8만 명 (그중 미군 1천 명 포함)을 살상 포로하고 700 대의 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였으며 함선 126 척을 격침하였다. 유격 활동은 고원 지대의 밀림, 남부 월남의 삼각주, 소도시 및 주 행정 중심지 부근을 비롯한 모든 지역을 휩쓸었다.

1964년 5월 현재 인민 무장대는 남부 월남 전 령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을 해방하였다. 해방 지역에서는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 개혁들이 실시되였다. 인민 무장대는 미제의 《특수 전쟁》의 기본인 공수 작전을 완전히 파탄하였으며 유격 근거지를 봉쇄하려는 전략촌 계획도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미제는 1963년 11월 군사 정변 후 8천 개의 《전략촌》중 성한 것은 20%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괴뢰군의 내부에서도 일대 혼란이 일어나 1963년에 7만 3천 명의 괴뢰군이 인민의 편으로 넘어 왔다.

적들의 통치 지역이나 《전략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의 정치 투쟁은 새로운 력량을 인입하면서 확대되였다. 특히 5월 8일 유에시에서의 시위 투쟁으로 시작된 불교도들의 불교 탄압 반대 투쟁은 인민들의 애국 투쟁과 결합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였다. 이 투쟁은 학생, 인테리, 기타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여 미제와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인민 항쟁으로 전변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위기는 극도에 다달았다.

미제의 사촉 하에 8월 21일 디엠 괴뢰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괴뢰 정부 외상과 주미 남부 월남 대사의 사임 등 지배층 내부에서도 혼란이 조성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디엠 도당의 《전제와 불교도 탄압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모든 책임을 디엠 도당에게 넘겨 씌우면서 괴뢰를 바꾸어 채움으로써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8월 말에 모략가인 롯지를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로 파견하였다.

그후 미제는 남부 월남 주재 미 중앙 정보국 책임자 리차드슨을 소환하였으며 기타 남부 월남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을 조동하고 8 명으로 구성된 미국회 의원단을 남부 월남에 파견하였다.

9월 2일 케네디는 《남부 월남 정부와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로골적으로 말하는데 이르렀다.

케네디는 9월 24일 국방 장관 맥나마라와 합동 참모 본부 의장 테일러를 남부 월남에 파견하였으며 이 자들은 남부 월남에 있는 미국 기관들과 침략 전쟁 확대, 괴뢰들의 교체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 자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10월 2일 남부 월남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였다. 이 성명에서 케네디는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를 《조속히 소멸》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과업의 중요한 부문》을 1965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떠벌렸다. 이 때를 전후하여 미제는 디엠 도당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원조》를 중단하였다.

미제는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유엔의 간판으로 가리우기 위하여 불교도 탄압을 《조사》한다는 구실 밑에 10월 2[illegible]일 《유엔 조사단》을 남부 월남에 끌어 들였다.

10월 말에 태평양 지구 미군 총사령관인 펠트가 기여 들었으며 11월 1일에는 미 제 7함대의 병력을 남부 월남 근처에 이동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미제는 11월 1일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디엠 정권을 전복하고 두옹 반 민으로 교체하였다. 군사 정변 후 미제는 새 괴뢰에 대한 《원조》를 재개하는 동시에 11월 20일에는 하와이의 호놀루루에서 외교, 군사, 정보 관계의 수뇌자들이 침략 전쟁 확대 문제를 토의하는 한편 남부 월남에서 《민정 이양》을 서두르지 않고 군사 정권을 강화한다는 방침들을 결정하였다.

군사 정변후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11월 2일 10여만의 사이공 시민들이 《미제를 타도하라!》고 절규하면서 일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인민 무장대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의 정치, 군사적 위기는 더욱 심각하여졌으며 괴뢰 지배층 내부 호상간의 반목과 알륵은 첨예화되였다. 1964년 1월 30일 미제는 또다시 군사 정변을 조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월 8일 민족 해방 전선은 정변 이후의 남부 월남 정세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인민들

앞에 제기된 6 개 조항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1. 느 고 딘 디엠의 파쑈 독재 정권을 무조건 철폐할 것 2. 광범한 민주주의를 실시할 것 3.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을 즉시 중지할 것 4.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민족 경제 정책을 실시할 것 5. 인민들에 대한 테로 습격과 학살을 즉시 중지할 것 6. 남부 월남의 관계 당국들은 정화를 이룩하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담할 것

【괴뢰 정부】 1964년 2월 8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느구엔 칸, 외상 판 후이 쿠아트

【정당, 사회 단체】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설되였다.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애국 력량을 총집결한 광범한 반미 구국 투쟁 통일 전선체이다. 약 400만 명의 성원을 망라한 23 개의 정당, 사회 단체를 산하에 가지고 있으며 9 개의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전선은 남부 월남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1964년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제 2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원 우수 **인민 혁명당** 1961년 초에 창설된 남부 월남에서의 최초의 맑스—레닌주의 정당이다. **국가 혁명 운동당** 1954년 10월에 성립된 친미 반동 정당이다. 위원장 범 문유 **급진 사회당** 1961년 7월에 창립된 애국적 인테리를 망라한 정당이다. **근로 인위당, 대월당, 사회당, 공화당**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인 농업 생산(특히 수출 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벼와 고무)은 계속 감퇴되고 있다. 1945년에 325만 9,658 헥타였던 경지 면적은 1962년에 250만 헥타로 축소되였다.

1961—196 년에 주산물인 벼(1959년에 528만 톤 생산) 생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9 만 톤이나 감소되여 주요한 수출품이던 쌀을 10만 톤이나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196 년에 고무 생산은 1961년 (9만 톤 생산)에 비하여 20% 감소되였으며 같은 기간에 사탕수수는 4분의 1로, 담배는 3분의 1로 각각 감소되였다.

공업은 완전히 외국 자본에 예속되여 있다. 외국 자본의 총액은 남부 월남 민족 자본의 30 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외국 자본은 사탕 공업에서 민족 자본의 10 배, 제지 공업에서는 117 배, 고무 공업에서는 1,000 배나 된다.

무역은 완전히 미국에 독점 당하고 있다. 최근 년간 《원조》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침투한 미제는 남부 월남 자본 총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불란서는 12억 프랑을 투자하여 남부 월남에서 은행, 해운업, 운수 및 차, 커피, 고무 재배원과 공장, 상점들을 장악하고 있다. 1960—1962년에 불란서는 남부 월남의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공예 작물 재배원의 80%를 통제하였다.

그 밖에 일본, 서독 자본도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래 약간한 방직, 담배, 제당, 정미 공업 밖에 없던 락후한 민족 공업은 여지 없이 파산되여 1964년 초 현재 사탕 공장의 4분의 3, 방직 공장의 3분의 2가 폐쇄되였다.

1963년말 화폐 보유량은 1,400만 딸라에 불과하였으며 외국 은행 부채는 1억 4,000만 딸라나 된다.

피아스터 (남부 월남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35대 1이던 딸라와 피아스터의 환률은 1963년에 74대 1로, 암시장에서는 130대 1로 되고 있다.

예산의 90%가 군사비와 《정치 및 행정 기관 유지비》에 지출되며 경제 부문에는 3%도 지출되지 못하고 있다.

1963년 초에 실업자 및 반실업자 수는 180만 명에 달하였다.

불교가 성행하며 카톨릭교도들도 많다.

라 오 스

(라오스 왕국)

Royaume du Laos

【면적】 236만 6,800 km²
【인구】 300만 명 (1961년)
【수도】 비엔티안(주민 11만 명)

정 치 1954년 7월 21일 인도지나의 평화 회복에 관한 제네바 협정으로 라오스의 통일이 달성되였다가 그후 미제의 책동으로 다시 내전이 계속되였다.

1961년 5월 16일 제네바에서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4 개국 국제 회의가 열리였다.

1961년 6월 19—22일 서서의 쮸리히에서 열린 라오스 세 관계측 회의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림시 련립 정부의 정강과 당면 과업들 즉 대내 정책에서 라오스의 통일, 중립, 독립과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공존의 5 개 원칙을 준수하며, 군사 뿔럭에 참가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사 뿔럭의 보호와 외국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라오스로부터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 해 10월 6—9일 라오스의 힌 호프에서 세 관계측 지도자들은 회담하고 림시 민족 통일 정부를 구성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림시 민족 통일 정부 구성 문제는 사반나케트 도당의 방해 책동으로 지연되다가 1962년 6월 11일 쟈르 평원에서의 세 관계 측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비로소 합의를 보았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정부가 쮸리히 협정에 규정된 모든 조항들을 엄격히 집행하며 국가의 중대한 일체 문제들을 토의함에 있어서 세 관계 측의 일치 가결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196 년 6월 24일 라오스 전역에서 정화가 선포되였고 7월 23일 제네바 회의는 라오스의 중

립을 선언하였다.

라오스 세 관계 측은 7월 4일 합동 정화 위원회를 수립하고 그 후 군대와 경찰의 통합, 행정 기구의 통합 등 라오스 통일에 대한 일련의 문제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 사반나 케트 도당의 도발 행위로 말미암아 군대와 경찰의 통합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미제는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1962년 10월 7일까지 철거하여야 할 1,000 명의 군사 인원들을 《민간인》으로 가장시켜 그대로 남겨 두고 라오스 반동파 군대들을 지휘, 훈련시키고 있다.

【국왕】 사방 바타나 (1959년 11월 즉위)

【내각】 수상 겸 국방상, 재향 군인상 및 사회 문제상 수반나 푸마, 부수상 겸 경제 및 계획상 수파누봉, 부수상 겸 재정상 푸미 노사방

【정당, 사회 단체】 **라오스 애국 전선당**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 성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보적 정당으로서 1956년 1월 16일에 정식 창건되였으며 1957년 11월에 합법적 정당으로 되였다. 위원장 수파누봉,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 **라오스 련합당** 1958년에 자본가, 지주, 이전 정부 관리, 장교 및 일부 인테리들로 구성되였다. 위원장 수반나 푸마 **평화, 중립, 민족적 화목 및 통일 옹호 위원회** 1960년 10월 31일 애국 전선당, 평화 및 중립 정책 옹호 위원회, 청년 단체, 애국적 국회 의원, 현 정부의 주요 관리, 각 민족, 각 계층, 승려 및 왕족의 대표들로 창설되였다. 명예 위원장 수반나 푸마, 수파누봉, 위원장 펜 퐁사반 **평화 및 중립 정책 옹호 위원회**, **인민 사회당** 극단적인 친미 분자들과 군벌들로 조직된 《라오스 민족 리익 옹호 위원회》에 기초하여 1960년 4월에 조직되였다. 지도자 푸미 노사방 **녀성 련맹** 위원장 파이 분

【주요 사건】 미제의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의 란폭한 파괴 책동과 내정 간섭으로 말미암아 1963년에 라오스의 정세는 긴장되였고 림시 민족 통일 정부의 기능은 마비되였다.

미제는 동요하는 중립파 내의 일부 장교들을 매수하며 암해 분자들을 중립파 군대 내에 잠입시켜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라오스 애국 력량의 단결을 파괴하며 서로 반목케 하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1963년 2월 12일 케트사나 대좌를 살해한 후 중립주의자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암살 및 체포 사건이 련속적으로 일어났다. 4월 1일에는 라오스 림시 민족 통일 정부 외상 퀴님 폴세나를 암살하였다. 3월에는 중립파군 야전부대 사령관 봉 수반 대좌를 파테트 라오와 중립파 군대의 통제 구역인 쟈르 평원에서 죽이고 이것이 마치도 파테트 라오 측의 《작간》인 듯이 날조하여 대대적인 중상 깜빠니야를 벌려 놓았다.

미제는 중립 세력 내에서 파테트 라오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면서 중립파 군대 내의 일부 계층을 사촉하여 파테트 라오 군대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행동을 감행케 하였다.

미제는 라오스에 군용 도로와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반나케트 도당 군대를 민족 통일 정부 수립 당시의 5만 4,000 명으로부터 6만 3,000 명으로 증강하고 그들에게 비행기를 비롯한 현대적 무기와 군사 물자를 공급해 주면서 라오스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4월 5일 중립파 군대 내의 반동들과 사반나케트 군대들은 쟈르 평원에서 무장 충돌을 일으키고 그후 사반나케트 집단의 6천 명의 고용병들이 히엥 쾅—쟈르 평원에 기여 들었다. 5월에는 라오스의 애국 력량의 통제 지역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해방 지역의 중요한 진지들을 점령하였다.

미제는 타이와 남부 월남의 괴뢰군을 라오스에 끌어 들여 해방 지역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감행하는 한편 4월 타이만에 제 7 함대를 파견하고 타이에 더 많은 군대를 보냈으며 6월 11일 타이와 라오스 국경 지대에서 대대적인 군사 연습을 감행하였다.

9월 9일 노사방 군대는 비엔티안에서 자기의 상들과 자기 대표단의 안전을 호위하고 있는 애국 전선당 호위병들을 포위하였으며 애국 전선당 군사 대표단의 숙소를 습격하고 그들에게 비엔티안을 떠날 것을 강요하였다.

우기가 끝나자 노사방 군대와 중립파내 반동들은 미군 장교들의 지휘 밑에 11월 8일 이래 히엥 쾅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독가스까지 사용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내전 도발 책동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애국 전선당은 시종 일관 제네바 협정과 라오스 세 관계측 간의 합의를 엄격히 준수하며 민족 통일 정부를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4월 라오스 반동파들이 히엥 쾅—쟈르 평원에서 공격해 오자 애국 전선당은 단호히 반격을 가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4 개 항목의 제안을 제출했으며 5월 2—4일에는 애국 전선당의 제의에 의하여 캉카이에서 애국 전선당 지도자들과 중립파 지도자들 간에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반동파들은 5월 3일 히엥 쾅을 공격함으로써 회담을 파탄시켰다.

라오스 애국 전선당은 민족 통일 정부를 옹호하며 중립파와 계속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라오스 전국 특히 히엥 쾅에 조성된 무질서한 상태를 조정하기 위하여 5월 6일, 5월 29일에 10 개 항목과 6 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

8월 16일에는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며 쟈르 평원 사태를 공동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반나 푸마와 맞나

도록 공보, 선전 및 관광상인 후미 봉비치트를 전권 대표로 비엔티안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라오스 반동파들은 9월 9일 사건을 도발하였다. 이러한 도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애국 전선당은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최대의 인내성을 발휘하면서 애국 전선당 인원에 대한 안전 보장, 9월 9일 이전 상태의 회복, 비엔티안의 중립화와 비무장화, 도발자들의 처벌 등 6 개 항목의 제안을 제기하였다.

12월 20일 애국 전선당은 민족 통일 정부가 사업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반나 푸마의 대표와 회담하고 왕도 루앙 프라방을 중립화하며 비무장화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애국 전선당의 이 모든 제의와 노력은 미제와 국내 반동들의 책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라오스 사태는 극도로 긴장되였다. 미제는 사반나케트 집단을 사촉하여 1964년 4월 19일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경제, 문화 라오스는 봉건적 관계가 지배적인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약 9[illegible]%가 농업에, 약 [illegible]%가 공업에 종사한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외국 자본, 주로 불란서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발전소, 제재소, 주석 채굴, 정미소의 대부분).

주석, 연, 동, 금, 망간, 무연탄, 보석 등 지하 자원과 산림 자원이 풍부하다. 1960년 히엥광에서 발견된 철광의 철 함유량은 65~70%, 매장량은 1억~10억 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와 국내 전쟁으로 자원들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는 없다. 주요 농작물은 벼이다. 벼의 재배 면적은 75만 헥터로서 전 경지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벼의 년 생산량은 약 50만 톤이며 자급 자족하지 못한다. 옥수수, 목화, 담배, 커피, 아편, 고무 등도 생산된다.

공업의 대부분은 락후한 수공업이다. 비엔티안과 사반나케트 등 도시에 소형 발전소가 있으며 제재소, 정미소, 얼음 공장, 선박 수리 공장, 합판 공장, 세멘트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국가 재정 예산은 매년 적지를 내고 있으며 적자는 외국 특히 미국의 《원조》로 메꾸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1954—1961년 간에 2억 6,800만 딸라의 경제 《원조》를 받았으며 군사 원조를 합하면 매년 6,500만 딸라를 받은 것으로 된다(미국의 대외 《원조》중 인구 1인당 액수로서 최고).

대외 무역은 주로 불란서, 미국, 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석, 담배, 커피, 피혁, 목화, 고무 등을 수출한다. 수출은 수입의 약 10% 밖에 안 된다. 미국의 압력과 타이의 경제 봉쇄 등으로 키프 (화폐 단위)의 가치는 1958년의 1 딸라 대 80 키프로부터 1963년 5월에는 1 딸라 대 300 키프로 떨어졌다.

주민의 9[illegible]%는 문맹자이다. 정규적인 학교 수는 소학교 약 800 개, 중등 학교 10 개 미만이며 학생 수는 도합 약 8만 명이다.

【출판】 통신—라오 프레스

신문—라오 하크사트 (애국당 기관지), 로드 오브 뉴트랄리티 (중립파 계통), 라오 데일리 뉴스 (사반나케트 계통)

캄 보 쟈

(캄보쟈 왕국)

Royaume du Cambodge

【면적】 18만 1,000 km²

【인구】 575만 명 (1963년말)

20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크메르족(캄보쟈인)이다. 공용어는 캄보쟈어이며 불란서어도 사용한다.

【수도】 프놈 펜(주민 약 55만 명)

정 치 6세기에 통일적인 캄부쟈 (현재는 캄보쟈) 봉건 국가가 형성되였다. 1863년부터 불란서의 침입을 받아 그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에는 일제에 강점 당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불란서의 통치 하에 들어 갔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크메르 민족 해방군이 조직되였으며 1950년 4월 전국 해방 운동 중앙 위원회 (항쟁 정부)가 조직되였다.

캄보쟈는 1953년 11월 9일 독립하였고 1954년 6월 인도지나 문제에 대한 제네바 외상 회의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서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다. 1954년 8월 21일 항쟁 정부는 해산 되였다.

캄보쟈는 1957년 11월에 영구 중립법을 공포하였다. 캄보쟈는 1955년 5월 미국과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0년 12월에는 중국과 우호 및 불가침 조약과 경제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캄보쟈를 중립의 길에서 떼내여 침략적 군사 블럭인 싸아토에 끌어 넣으려고 《원조》를 미끼로 각종 압력을 가하는 한편 캄보쟈의 반역 도당의 집단인 《자유 크메르 운동》과 타이, 남부 월남 괴뢰군을 사촉하여 캄보쟈를 반대하는 각종 파괴 행동과 군사적 도발을 감행케 하고 있다.

1963년 11월 19일 시하누크는 《미국의 원조는 캄보쟈를 파괴하는데 리용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미국의 일체 군사, 경제, 문화 《원조》를 거부한다고 선포하였다. 그후 미국 주재 자국 대사관을 철수하였으며 12월에는 미국 대사관과 미국 《원조 사절단》이 1964년 1월 15일까지 캄보쟈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캄보쟈를 비방 중상하고 있는 미국 잡지, 신문들의 배포와 서방 기자들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타이는 캄보쟈 령토 내에 있는 프레아 비하르 사원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면서 끊임 없이

캄보쟈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 타이의 적대 행동과 관련하여 캄보쟈는 1958년 11월—1959년 2월의 국교 단절에 뒤'이어 1961년 10월 또다시 외교 관계를 끊었다.

남부 월남은 미제의 사촉 하에 국경 지대에서 캄보쟈 령토를 부단히 침범하며 남부 월남에서 《자유 크메르 운동》의 활동을 공공연히 비호하는 등 적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캄보쟈 정부는 1963년 8월 27일 남부 월남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미제와 그 괴뢰들의 이러한 침략 행위와 관련하여 캄보쟈 정부는 1962년 7월, 1963년 11월, 1964년 3월 캄보쟈의 중립에 관한 국제 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반대로 회의는 소집되지 못 하였다.

1963년 2월에 시하누크가 중국을, 5월에 류 소기 주석이 캄보쟈를 호상 방문하였다.

4월에 캄보쟈 정부 경제 대표단이 쏘련과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였다. 1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야 대통령이 캄보쟈를 방문하였다.

캄보쟈가 미국 《원조》를 거절한후 불란서는 금후 5년 간에 2,850만 딸라의 《원조》를 캄보쟈에 제공할 것을 결정(1964년 1월)하였다.

1963년 1월 9일 루마니야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1963년 8월에는 월남 민주 공화국과 총령사 관계를 각각 설정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29일 령사 관계를 설정할 데 대한 합의가 달성되였으며 7월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프놈 펜에 설치되였다. 1963년 5월 캄보쟈 기자 대표단, 9월에는 캄보쟈 왕국 정부 대표 및 캄보쟈 체육 대표단, 10월에는 롱구 및 탁구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이 11월 캄보쟈를 방문하고 무역 및 지불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캄보쟈 독립 10 주년(11월 9일) 기념 행사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1960년 6월 20일 즉위)

[의회] 의회는 2원제이다. 국민 의회(하원)는 립법권과 내각 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 77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왕국 외회(상원) 의원 수는 24 명이다.

[정부] 수상은 국가 원수가 지명한다. 현 내각은 1963년 8월 19일 성립되였다. 수상 겸 내상 노로돔 깐똘, 부수상 겸 국방상 및 체육 국무 비서 롱놀, 외무 담당 국무 비서 우오트 쌈바르.

[정당, 사회 단체] **《인민파》** 캄보쟈 인민당(공산당)이 공개적인 활동을 위하여 1955년 7월 《인민파》로 개칭하였다. 현재는 거의 활동하지 못 하고 있다. **인민 사회 동맹** (집권당) 당원은 약 50만 명이며 왕족 및 대 상인, 봉건 계층, 일부 인테리들로 구성되여 있다. 창립 선언에 의하면 동맹은 국가, 종교, 국왕의 3위 일체를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사회 단체로서는 **크메르 왕실 사회주의 청년 동맹** (1957년 창립)이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중공업은 거의 없고 다만 농산물 가공을 위주로 하는 약간의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있다. 광물 자원은 풍부하나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다. 중국의 원조로 합판 공장, 방직 공장, 제지 공장 등이 건설되였으며 또한 쏘련 및 체코슬로바키야의 원조로 수력 발전소와 제량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경지 면적은 150만 헥터이며 주요 농산물은 쌀, 고무, 옥수수 등이며 그 외에 콩, 목화, 락화생, 담배, 후추, 야자 등도 있다. 1961년에 벼는 160만 톤, 옥수수는 12만 톤, 목화는 2만 5,000 톤, 사탕은 5만 6,600 톤, 고무는 3만 9,756 톤 생산되였다. 1961년에 고무 재배 면적은 3만 9,400 헥터였다. 고무 생산의 약 절반은 불란서 자본이 쥐고 있다.

담수 어업이 비교적 발전되였다. 년 생산량은 담수어 10만 톤, 해어 3만 톤이며 어민은 약 1만 명이다.

축산업은 캄보쟈 국민 소득의 주요 원천의 하나이다. 1961년에 돼지는 48만 2,885 두, 소와 물'소는 5만 8,563 두 있었다.

산림 면적은 전 령토의 43%를 차지한다. 1961년 목재 생산량은 24만 6,000 립방 메터였으며 목재는 대부분 수출한다.

도로망은 비교적 발전되고 있으나 술으로 화력 발전소와 기관차들을 움직이고 있다.

캄보쟈는 남부 월남과 타이의 항구를 통해서 무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곤난성을 타개하기 위하여 1960년에 타이만에 면하고 있는 시하누크빌에 1만 톤 급의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무역에서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으며 외국의 차관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쌀, 고무, 옥수수 (이 3 종은 수출 총액의 80~85%를 차지함), 후추, 가축, 목재, 콩, 어물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 일본, 싱가포르, 서독, 화란, 중국, 쏘련, 월남 등이다.

미국, 불란서, 일본, 호주, 영국, 카나다 등은 경제 기술 《원조》의 명목 하에 캄보쟈에 침투하였다. 특히 미제는 1955—1962년 말까지 약 3억 딸라의 《원조》를 제공하였는바 그중 1억 5,670만 딸라는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충당시켰다. 한편 캄보쟈의 중립을 파괴할 목적으로 매년 《원조》를 삭감(1956년에 비하여 1961년에는 60%로 삭감)하는 등 압력을 가하였다.

1962년 5월 현재로 소학교는 3,561 개 (학생 수는 56만 6 천 명), 중학교는 159 개(학생 수는 4만 7천 명) 있었다. 그 외에 기술 및 직업 학교와 대학이 있다.

캄보쟈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불교도이다.

【출판 보도】 통신—캄보쟈 보도(략칭 A.k.P)

신문—캄보쟈 신문(캄보쟈어, 정부 기관지), 리알리떼 캄보쟈(불어), 라데뻬쉐 두 캄보제(불어, 인민 사회 동맹내 청년 진보파의 견해를 반영한다), 프렌드 오브 유스(진보적인 인테리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민간 신문), 기타 니에크 체아트니움(캄보쟈어), 중립보(월남어), 면화 일보(중국어) 등이 있다.

일 본

【면적】 36만 9,635 km²

【인구】 9,616만 명 (1963년 10월 1일)

【수도】 도꾜 (주민 1,035만 1,008명, 1963년 5월 1일)

정 치 일본은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제의 점령 통치 하에 들어갔다. 일본에 대한 미제의 강점은 1951년 9월에 조작된 쌘프랜씨스코 단독 《강화 조약》에 의하여 합법화되였다.

1960년 1월 19일 침략적 신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이 강압 조인됨으로써 일미 간의 군사 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등장하고 있다.

【천황】 히로히도(1926년 12월 25일 즉위)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이다. 중의원 의원 수는 467명, 임기는 4년이다. 1963년 12월 3일 현재 중의원 의석은 공산당 5, 사회당 144, 민주 사회당 23, 자유 민주당 294, 무소속 1로 되여 있다. 중의원 의장 후나다 나까

참의원 의원 수는 250명, 임기는 6년인데 그중 반수는 3년마다 개선된다. 1963년 1월 23일 현재 참의원 의석은 공산당 4, 사회당 66, 민주 사회당 11, 자유 민주당 141, 공명회 15, 기타로 되여 있다. 의장 마쯔노 쯔루헤이

【내각】 현 이께다 내각은 1960년 7월 19일에 조직된 후 1963년 7월 18일까지 4 차에 걸쳐 개조되였다. 내각은 20 명의 각료로 구성되였다.

수상 이께다 하야또, 법무상 가야 오끼노리,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대장상 다나까 가꾸에이, 농림상 아까기 무네노리, 통산상 후꾸다 하지메, 운수상 아야베 겐따로, 건설상 고노 이찌로, 방위청 장관 후꾸다 도꾸야스, 경제 기획청 장관 미야자와 기이찌, 국무상 사또 에이사꾸, 관방장관 구로가네 야스미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22일 창건. 당은 창건 첫날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23년간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당이 재건되였으며 합법적 활동을 전개하게 되였다. 의장 노사까 산조,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 2일 성립. 당원 수는 약 5만 2,000명이며 도시와 농촌의 중소 부르조아지, 인테리, 사무원, 일부 로동자, 농민, 수공업자들 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원장 가와까미 죠따로, 서기장 나리다 도모미

민주 사회당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온 우익 분자들로 1960년 1월에 구성, 자유 민주당을 추종하고 있다. 위원장 니시오 스에히로

자유 민주당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성립. 현 집권당으로서 대 독점 자본가, 지주, 관료, 군국주의자 및 부농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총재 이께다 하야또 **일조 협회** 1950년에 성립.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일본 로동 조합 총평의회**(총평) 1950년 7월 12일 성립. 1963년 현재 60개 산별 로조에 420만명을 망라한 일본 최대의 좌익 로조이다. 사회당 영향 하에 있다. 의장 오다 가오루, 서기장 이와이 아끼라 **전 일본 로동 총동맹 조합 회의**(동맹 회의) 1962년 4월 26일 결성. 조합원 수 173만명. 의장 나까지 구마조 **전 일본 로동 조합 회의**(전로) 1954년 4월 결성. 로조원 수 84만명 민주 사회당의 영향 하에 있다. **전국 산업별 로동 조합 련합**(신 산별), **전 일본 농민 조합 련합회**(전 일농), **신 일본 부인회** 1962년 10월에 결성. 공산당의 영향 하에 있다. **민주 청년 동맹** 공산당의 령도 하에 있는 청년 단체이며 세계 민청에 가맹하고 있다. **일본 사회주의 청년 동맹** 사회당 영향 하에 있다. **평화 위원회** 회장 히라노 요시따로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리사장 사까모도 도꾸마쯔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일본 협의회** 리사장 야스이 가오루

【국내 주요 사건】 1963년 초부터 《일한 회담》 조기 타결을 위한 책동이 로골화되자 일본 인민들의 《일한 회담》 반대 투쟁은 치렬하여졌다.

1963년 1월 《일미 안보 조약 반대 평화 및 민주주의 옹호 국민 회의》에 망라된 민주 세력은 《일한 회담》 반대 제 6 차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제 3 차 일미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진행 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전면적 핵 무장을 위한 제 3 차 방위 계획을 립안하였으며 동시에 《에프 105—디》형 전투 폭격기의 일본 배치(5월 12일 이다즈께에 도착)를 묵인하였다.

일미 지배층의 이러한 침략적 책동은 인민들의 반미 투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투쟁은 《일한 회담》 반대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이리 하여 5월부터 《일한 회담》 분쇄,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 반대, 《에프 105—디》형 전투 폭격기의 일본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은 대중적이며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되였다. 1963년 9월 1일에는 제 12차 공동 투쟁이 요꼬스가와 사세보 군항에서 전개되였는바 이에는 도합 23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제 6 차 공동 투쟁으로부터 제 12 차 공동 투쟁까지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동원되였다.

이께다 정부는 총파탄에 직면한 반동적 경제 정책인 경제의 《고도 장성 정책》을 저임금제 강화, 세금 증가, 물가 인상, 대량 해고의 방법으로써 기어코 추진시키려는 책동을 강화하였다.

이는 로동 계급과 인민들을 반정부, 반독점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1963년 봄 3 차에 걸쳐 전후 최대의 규모인 1,800만 명의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춘기 투쟁을 전개하였다. 추기 투쟁도 10월 25일부터 650만 명의 규모로 진행되였다. 11월 2일에는 《증세와 높은 물가를 반대하는 중앙 집회》가 1만 명의 로동자, 농민, 중소 기업가, 시민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민주 세력의 14년 간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9월 12일 마쯔가와 사건 피고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1960년 《안보 조약》 반대 투쟁 이후 일본 인민이 거둔 큰 승리이다.

3월과 4월에 지방 선거가 진행되였다. 지방 선거에서 공산당 출신의 지방 의회 의원 수는 종전의 893 명으로부터 1,136 명으로 늘었고 사회당의 지방 의원 수도 증가하였다. 그와 반면에 집권당인 자유 민주당은 108 석, 민주 사회당은 50 석을 잃었다.

11월에 있은 중의원 선거에서도 민주 세력의 의석 수는 현저히 장성하였다. 공산당의 의석은 3 석으로부터 5 석으로, 득표 수는 종전의 116 만표로부터 165 만 표로 늘었다. 사회당은 1 석이 감소되였지만 득표률은 27.56%로부터 29.03%로 높아졌다. 자유 민주당은 종전보다 13 석이 줄었고 득표률은 57.56%로부터 54.57%로 내려갔으며 민주 사회당은 6 석이 증가되였지만 44만 표가 감소되였다.

지방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민주 세력은 장성되고 그와 반면에 반동 보수 세력은 약화되였다.

민주 세력의 장성과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이께다는 반동 악법을 조작하여 민주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을 강화하였다.

2월 4일 이께다는 1961년부터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그때마다 실패한 《정치적 폭력 방지 법안》을 《폭력 행위 등 처형 법안》으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 내외 민주 력량과 일본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이 악법 역시 통과되지 못하였다.

3월 8일 7만 6,000 명 로동자들의 해고를 예견한 《석탄 산업 합리화 법안》을 자유 민주당은 국회에서 강압 통과시켰으며 6월 20일에는 기원절 부활을 포함한 《국민 축일 법안》을 강압 통과시켰다.

11월 13일 밤 오사까에서 선거 연설을 하는 공산당 의장 노사까 산조를 살해하려고 우익 폭력 단원이 달려들었지만 공산 당원들에 의하여 저지되였다.

3월 3일 독점 자본가들은 정부와의 공모하에 춘기 투쟁에 참가한 전 체신 로조원 5,848 명을 근무 시간 내에 파업했다는 죄명으로 처벌하였다. 또한 3월 9일에는 8,639 명의 전신 전화 부문 로동자들을 처벌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에도 일본 정부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계속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 괴뢰들과 결탁하여 침략적 《동북 아세아 동맹》을 결성하며 남조선을 재침하기 위하여 《일한 회담》을 조속히 결속지으려고 발악하였다. 일본 반동 지배층은 《일한 회담》에서 전 조선 인민에 관계되는 문제를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괴뢰 도당과의 홍정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1962년 11월 일본 외상 오히라와 당시 남조선 괴뢰 정권의 중앙 정보 부장이였던 김 종필 간의 회담에서 일본 측은 3억 딸라의 무상 공여, 2억 딸라의 정부 장기 저리 차관, 수출입 은행 취급의 무역 차관 1억 딸라를 괴뢰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한 홍정이 이루어졌다.

이리 하여 1963년 초부터 《일한 회담》에서 론의의 초점은 《어업 문제》로 옮겨졌으나 그들이 처한 정치 위기와 그들 호상 간의 모순으로 6월까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박 정희 도당에 대한 미제의 적극적인 부축과 일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으로 1963년 7월 26일과 30일 2차에 걸쳐 일본과 남조선 괴뢰 간의 《외상 회담》이 진행되였다.

《외상 회담》에서 일본은 《리 승만 라인》을 철폐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어업 전관 수역》을 12 마일로 하고 그 밖에 공동 어로 규제 수역을 28 마일까지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대신 일본은 남조선에 《재산 청구권》과는 별도로 남조선 측이 요구하는 1억 7,800만 딸라의 《어업 협력 자금》을 될수록 증액시켜 줄 데 대하여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그후 미제의 조종으로 《일한 회담》의 최종 결속을 위한 음모 책동은 로골화되였다. 일본 정부는 10월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를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오노는 남조선 괴뢰 도당과 수차 회담을 진행하고 《어업 문제》 타협을 위한 실무 회담을 년내에 끝내고 1964년초에 《고위 정치 회담》에서 미해결 문제들을 《호상 양보》하면서 《일괄 타결》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63년에 일본 정부는 《일한 회담》을 추진시키는 일방 남조선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침투를 더욱 적극화하였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보장하는 《민간 차관》을 리용하여 약 1억 딸라의 자본을 투입하고 40~50개의 일본 독점 회사의 《주재원》을 남조선에 상주시켰다. 이리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남조선의 수력 발전소 건설로부터 화장품 판매 부문에 이르기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1963년 여름 일본 정계와 재계의 반동 두목들이 《일한 문제 협력 위원회》를 조작하고 남조선 정계, 재계, 친일파들도 참가케 하여 일본과 남조선 간의 정계와 재계의 련합을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하여 문화, 예술, 종교 등 모든 방면으로 재침을 강화하였다.

1963년 9월 18일 이께다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파렴치하게도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이 있다고 떠벌렸다. 특히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 문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권리이며 일본 정부는 마땅히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께다는 8월 23일 각의에서 《일본이 북조선을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항해 조약도 체결되여 있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왕래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도전하여 나섰다. 9월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진행된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는 국제적 여론이 두려워 우리 나라 빙상 대표단의 입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9일 우리 나라 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사 간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협정의 기한을 1년 간 더 연장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일본 정부는 쏘련이 태평양 공해 상에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실험 발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5월 15일과 11월 30일 쏘련 정부에 항의하였다.

1963년 일본 정부는 미제의 《두개 중국》 조작 음모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 발전시켰다.

8월 20일 일본 정부는 중국에 비날론 설비를 수출할 데 대한 계약을 승인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 개석 도당이 일본 정부를 비난하자 10월 30일 이께다는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를 대만에 파견하였다.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와의 관계

1월과 10월에 각각 도꾜에서 제 3 차, 제 4 차 《일미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가 개최되였다. 미제는 회의에서 일본의 《자주 방위》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정책》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1월 6일 일본을 방문한 미 국방 차관 질패트릭은 이께다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핵 무장을 촉구하는 한편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승인하며 인도와 남부 월남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7월 21일 외상 오히라는 미국을 방문하고 일본에 대하여 미국의 《리자 평형세》를 면제할 것과 대일 군사 원조 삭감을 고려하며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월 28일—4월 5일에 영국 외상 흄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1962년 11월 런던에서 조인된 일 영 통상 및 항해 조약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영국은 1963년 초까지 일본에 적용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제 35 조(무역에 대한 차별 조치)를 철회하였다.

4월 12—20일 불란서 외상 뮤르빌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통상 협정을 정식 조인하였다. 이로서 불란서는 일본에 대한 무역 차별 조치를 철회하였다.

이께다는 9월 23일부터 비률빈,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말레이시아 문제》의 조정, 태평양 공동 시장의 창설, 서태평양 수뇌자 회담 개최 등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지역 나라들의 반대로 완전히 실패하였다.

일본 정부는 7월 26일 《경제 협조 및 개발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신 식민주의적 제국주의 팽창에 가담하게 되였다.

경 제 이께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제국주의 해외 팽창의 경제적 기초를 닦기 위하여 독점 자본을 위한 《경제의 고도 장성 정책》을 추진시켜 왔다. 최근 3년간 이께다 정부는 국가 및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매년 평균 100억 딸라의 설비 투자를 강행함으로써 공업 총생산 능력은 1955년의 239억 딸라로부터 1963년에는 550억 딸라로 증대시켰다. 결과 1963년 일본 공업의 총생산량은 전전(1934—1936년)의 5.5배로 장성하였다.

그러나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독점 자본의 착취와 략탈로 인하여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가 급속히 감소되고 또한 미제의 대일 무역 차별 정책, 미제의 강요에 의한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무역의 금지, 구라파 《공동 시장》 성원국들과의 격렬한 경쟁, 팽창의 주요 대상지인 동남아 국가들의 만성적인 외화 부족 등으로 일본의 해외 시장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수요와 공급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켰으며 1962년 초부터 일본 경제에 전반적인 《파잉》 생산 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와 독점 자본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공업 생산을 인위적으로 축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잉》 생산 위기는 계속되고 독점 계렬 내부에서 이께다의 경제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자 이께다 정부는 년말에 와서 경제의 《고도 장성 정책》을 명목상으로 《경제의 안정 장성 정책》으로 바꾸었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설비에 대한 투자액은 1962년보다 6억 딸라나 적은 91억 딸라로서 원유 정제, 화학, 자동차, 전자 공업 부문에 주로 투자하였다. 최근 년간 일본의 공업 생산 장성률은 저하되고 있다. 공업 생산 장성률은 1961년의 19.4%로부터 1962년에는 8.3%, 1963년에는 8%(예비적 자료)로 하강하였다. 1963년에 광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2% 감소되였다. 공업의 많은 부문에서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체화되는 것으로 하여 난관에 처하여 있다. 공업에서는 과잉 생산으로 1962년부터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 1963년에 들어서면서 조강 생산을 30% 축감하였으며 이해 상반년에 방직 공업에서는 30~42.5% 조업을 단축하였다.

9월 이후 방직 공업과 강철 공업 부문에서 생산의 축소를 완화하거나 취소했기 때문에 제품의 재고는 급속히 늘어났다. 1963년 9월에 생산자의 창고에 있는 제품의 재고는 1962년의 최고 수준보다 4%가 더 높았다. 제품 재고 지수(1961=100)는 1962년말의 173.1로부터 1963년 상반년 말에는 171.5로 내려 갔다가 1963년 하반년 말에는 194.3으로 급격히 올라갔다. 제품의 재고는 특히 기계, 금속, 화학 부문에서 많이 늘어 나고 있다.

중소 기업은 경쟁에 못 이겨 1,738개가 파산 당하여 독점체에 병합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전력(10억kw)	137.5	
석탄(100만톤)	54.4	52
철 광(〃)	2.4	
선 철(〃)	18.0	20
강 철(〃)	27.5	32
압연 제품(〃)	20.8	
세 멘 트(〃)	28.8	610
면사(1,000톤)	502	
인 견 사(〃)	137	182
면직물(10억m²)	3.2	

【농업】 1963년에 총 경지 면적은 1960년도 보다 6만헥타가 감소되여 532만헥타였다. 벼 파종 면적은 327만 2,000헥타 그중 논'벼 면적 313만 3,000헥타, 밭벼 면적은 13만 9,100헥타였다. 미국 잉여 농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밀, 콩의 국내 생산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1963년 밀 파종 면적은 1950년보다 30% 이상 축소되여 114만 헥타로 되였다. 콩은 1961년에 116만톤, 1962년에는 180만톤, 1963년(1—9월)에 90만톤을 수입하였는바 이는 일본 농민들의 콩 생산을 현저히 축감시켰다.

일본의 농업은 주민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께다 정부의 반동적 《농업 기본법》에 의하여 1963년에 76만명의 농민들이 리농하였으며 빈농은 총농가의 75%나 된다.

주요 농작물의 파종 면적 및 수확량

	파종 면적(1000헥타)		수확량(1000톤)	
	1962	1963	1962	1963
벼	3 285	3 272	16 261	16 099
밀	641	581	1 630	716
보 리	612	566	1 024	759
감 자	219	207	3 697	3 261
고구마	323	…	6 217	…
콩	266	…	336	…

【대외 무역과 경제적 팽창】 1962년에 비하여 수출은 10.8% 증가하여 54억 4,700만 딸라에 달하였으며 수입은 19.5% 증가되여 67억 3,600만 딸라에 달하였다.

1963년 (1—9월) 동남 아세아에 대한 수출은 11억 1,900만 딸라로서 전년 동기에 비하여 7.4% 증가하였으며 구라파에 대한 수출은 8%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이 현저히 증가되였는바 수입은 62.1%, 수출은 62.3% 늘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액은 총체적으로 5억 5,200만 딸라에 이르렀다.

일본 대장성 발표에 의하면 해외 투자는 1963년 말 현재 15억 7,500만 딸라(그중 직접 해외 투자 5억 6,400만 딸라, 연불 수출 10억 1,100만 딸라)로서 전년도보다 3억 200만 딸라 증가하였다.

동남 아세아에 대한 경제 팽창의 주요한 방도로 되고 있는 《배상》 지불액은 11억 5,200만 딸라에 달하고 있다.

8월 30일 일본 정부는 수입 《자유화》률을 89%로부터 92.2%로 높혔다.

일미간에 1월부터 날카롭게 대립되여 있던 일본 면제품 교섭에 관한 《회담》은 8개월만에 타협이 이루워져 1963년도 미국에 대한 면제품 수출은 대략 1962년도 실적과 같았다.

【재정 예산】 1963 회계년도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 총액은 2조 8,500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7.4% 더 증가하였다. 예산에서 세금 수입은 수입 총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20%이다.

직접적 군사비는 2,412억원으로서 전년보다 327억원 증가되여 세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사업 투자》 즉 도로와 항만 건설 등을 위한 투자는 작년보다 20% 증가되였다.

군 사

1963년 말 현재 자위대는 륙해공군 합하여 28만명이였다. 륙군에서는 13개의 미군식 준 원자화 사단(17만 1,500명으로 구성)이 기본 주력이다.

해군은 각종 함선 568척(총 톤수 12만 8,000톤)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중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가지고 있다.

공군은 《에프 86형》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여 총 1,595대의 각종 비행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의 화력은 전전(1936—1937년)의 5배, 기동력은 7배에 달한다. 1월 17일 《나이크—아잭스》형 유도탄 대대를 방위청 직속 부대로 조직하고 도쿄 근방 5개 지구에 각각 배치하였다. 8월 23일 600명으로 편성된 《호크》 유도탄 대대를 홋까이도에 배

치하였다.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동일한 지휘 체계 내에 있으며 173명의 미국 고문에 의하여 훈련되고 있으며 미군과의 공동 작전 태세를 취하고 있다.

3월에 전면적 핵 무장을 위한 제 3 차 방위 계획(1967—1971년)을 작성하였다.

1963년말에 4만 6,000명의 미군이 200 개소의 재일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5월 12일, 14일 미 공군은 류슈의 이다즈께 기지에 《에프 105—디》형 전투 폭격기 16대를 배치하였다.

7월 26일 미 원자 잠수함 1척이 사세보 군항에 잠입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제 7 함대 기함이 도꾜만에 입항하였다.

일본 경찰 총수는 1963년말 현재 15만명이며 그중 약 21%가 도꾜에 집중되고 나머지 56%는 8개 도시들에 집중되고 있다.

사 회 일미 독점 자본의 2 중적 착취로 하여 일본 인민은 날로 빈궁화되여 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계급 분화는 급속히 진척되고 있다.

1963년 소비 물자는 1962년에 비하여 식료품은 9.9%, 피복류는 6.6% 올랐다.

자본주의적 《합리화》로 인하여 중, 고령층의 로동자들이 대량 해고 당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의 《석탄 공업 합리화》 정책에 의하여서만도 1959년에 25만 6,000명이였던 탄광 로동자들은 1963년 3월에는 15만 9,000명으로 격감되였다.

이께다의 반동적 경제 정책에 의하여 계급 구성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63년까지의 3년간에 약 250만명의 농민이 리농하여 농민은 감소되고 로동 계급의 대렬은 2,054만명으로부터 2,389만명으로 증가되였다. 소부르죠아 계급은 2,175만명으로부터 1944만명으로 감소되였으며 자본가와 지주 계급은 80만명으로부터 8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완전 및 반 실업자는 600만을 헤아리고 있다.

1963년 1—7월 사이에 각 탄광들에서 6만 1,68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만 9,20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그중 259명이 죽었다. 1963년 11월 9일에는 미이께 탄광에서 대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일시에 455명의 로동자들이 희생되고 219명이 부상을 입었다.

1963년(1—11월)에 52만 9,000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1만 2,295명이 죽었다.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 깽 영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 소년 범죄 건수는 1962년의 16만 3,000건으로부터 1963년에는 21만 6,000건으로 증가하였다.

깽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5,300개 있으며 이에는 18만명이 망라되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출판】 통신—교도 통신, 지지 통신

신문—아까하다(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사히 신붕, 마이니찌 신붕, 요미우리 신붕, 산게이 신붕

잡지—젱에이(일본 공산당 리론 잡지), 세까이 세이지 시료(세계 정치 자료), 쥬오 고롱, 세까이 슈호

오끼나와

【면적】 2,388 km²(류큐 제도 전체)

【인구】 88만 1,900명(1960년 10월 1일)

【행정 중심지】 나하(주민 11만명)

정 치 일본 령토인 오끼나와는 1945년 6월 23일 미제에 강점된 후 1951년에 조작된 미일 단독 《강화 조약》에 의하여 그 강점이 합법화되였다. 1952년 4월 1일 미제는 류큐 정부를 조작하고 오끼나와의 행정, 립법, 사법 등 모든 실권을 미국 고등 판무관으로 하여금 장악케 하였다. 미제는 오끼나와에 공군과 해병대를 기본으로 하는 4만 4,000명(1963년 4월)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공군에는 《에프 105—디》형 전투 폭격기 75대를 주력으로 하는 항공대와 대공수 부대들이 있다. 오끼나와에는 미 제 7함대 기지가 있으며 이외에 도합 20개의 각종 유도탄 기지와 2,400km의 사정 거리를 가진 《메이스—비》 로케트(32개 발사대) 기지가 있다. 이리 하여 오끼나와는 미제 강점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기습 공격 기지로 전변》되였으며 핵 전쟁과 《국부 전쟁》 및 《특수 전쟁》 기기로 되였다.

오끼나와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인민들의 소득이 낮다. 물가는 일본 본토보다 3배 높으며 세금은 본토의 200배 이상이나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군 고용병들의 각종 만행들이 계속 일어 나고 있다.

오끼나와 인민들은 본토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과 미군 철거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나하시에서 1963년 4월 28일 《오끼나와의 날》 (1963년 2월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에서 결정)에 제하여 8만명 이상이 참가한 조국 복귀 현민 총궐기 대회가 진행되였으며 6월 26일에는 로동자, 시민들 약 1 천명이 미 원자 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1962년 11월 《아사히 신붕》 여론 조사에 의하면 오끼나와 주민의 93%가 미제의 오끼나와 강점을 반대하였다.

오끼나와에는 **인민당** (1947년 7월 20일 창건), **사회당, 사회 대중당, 자유 민주당** 등 4개의 정당이 있다.

경 제 오끼나와는 일본에서 유일한 아열대 농업 지대이다. 농업과 수공업이 주업인데 농업에서 주작물은 벼, 밀, 고구마, 사탕수수 등이다. 이외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도 재배되고 있다. 어업의 발전성도 있다.

비 률 빈

(비률빈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면적】 29만 9,404 km²

비률빈은 대소 7,109 개의 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인구】 2,969만 8,000 명 (1962년)

말라이, 인도네시아, 네그리토 등 42 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 국어는 타가로그어이며 영어, 서반아어도 공용어로 되여 있다.

【수도】 마닐라 (주민 179만명)

정 치 서반아의 식민지였던 비률빈은 1898년 이래 미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1946년 7월 4일 비률빈은 독립되였다고는 하나 미국과 체결한 《군사 기지 협정》 (1947년 4월), 《군사 원조 협정》 (1947년 3월), 《호상 방위 조약》 (1951년 8월) 등에 의하여 미제의 예속 하에 남아 있다. 비률빈은 침략적 세아토의 성원국이며 미제의 동남 아세아 침략 기지로 되여 있다. 미제는 비률빈 령토 상에 클라크 공군 기지를 비롯한 23 개의 륙해공군 기지들을 설치하고 약 1만 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비률빈 군대는 미 군사 고문의 통제 하에 있다.

비률빈은 1947년에 미국과 체결된 《군사 기지 협정》,《군사 원조 협정》의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비률빈의 요구에 의하여 1959년에 《군사 기지 협정》은 일부 개정되였으나 비률빈이 요구한 기지 관할권 문제, 경제 관계 제 법규의 기지 적용 문제는 의연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1963년 3월 26일 비률빈 하원 국방 위원회는 미국과의 《군사 원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는바 성명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무기, 군사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비률빈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비률빈은 1962년에 북부 보르네오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이전 비률빈의 술섭 토후가 북부 보르네오를 영국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나섰다. 1963년 1월 28일—2월 1일 간에 런던에서 북부 보르네오 령토권 문제에 대한 영국—비률빈 외상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비률빈은 북부 보르네오가 《말레이시아 련방》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련방》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1963년 3월 9일에 비률빈 대통령 마카파갈은 미제의 지지 하에 《말레이시아 지역》 외에 비률빈,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3 개국 련합(마필인도)의 창설을 제의하였으며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마닐라에서 3개국 (비률빈, 인도네시아, 말라이) 수뇌자 회담이 진행되였다.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 수는 24명,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 수는 104명,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 디오스다도 마카파갈(1961년 11월 14일 당선, 임기는 4년), 외상 로페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에 창건되였고 1957년 7월에 비법화되였다. **자유당** (집권당) 1946년에 조직. 봉건 지주와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하는 친미 정당이다. 지도자 마카파갈 **국민당** 친미 부르죠아지의 정당이다. 지도자 유로히오 로드리게스 **민족주의 공민당** 1957년에 창건된 반미 기분을 가진 부르죠아 정당이다. 총재 로렌소 타냐다 **로동 련합**(1959년 4월에 결성)

경제, 사회 비률빈은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 마닐라삼, 담배, 벼, 옥수수 등이다. 경지 면적은 678만 헥타이나 대부분의 토지는 지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농민의 3분의 2는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산림 면적은 1,317만 헥타이며 목재는 주로 미국, 일본에 수출된다. 지하 자원은 풍부하여 철, 석탄, 망간, 금, 크롬 등이 있으나 미개발 상태에 있다.

공업 발전 수준은 낮다. 국민 총생산액에서 공업은 다만 15~17%를 차지하며 야자 및 담배 가공 공업이 있을 정도이다.

미국 독점체들은 비률빈의 농업, 광업, 림업, 대외 무역 등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인은 1946년의 통상 협정에 의하여 비률빈인과 동등하게 이 나라 자연 부원을 개발하며 공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60년에 미국의 투자액은 약 8억 딸라였다. 최근 년간 일본 독점체들도 비률빈과의 5억 5,000만 딸라의 배상 협정 (1956년 5월에 체결)과 2억 5천만 딸라의 민간 차관 협정(1959년 9월에 체결)을 통하여 비률빈에 침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사탕, 야자, 담배, 마닐라삼 등이며 무역 대상국은 미국, 일본, 서부 독일, 영국 등이다. 1963년 초에 실업자 및 반 실업자 수는 400만 명이였으며 문맹자는 주민의 40%이다.

전 인구의 93%가 기독교도들이다.

【출판】 통신—비률빈 보도
신문—마닐라 타임스, 데일리 미러, 마닐라 크로니클, 프리프레스, 마닐라 불레찐

북부 칼리만탄

북부 칼리만탄은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 브루네이의 3개 지역으로 구성되여 있다.

북부 칼리만탄은 1888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사라와크는 1940년에 직할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 9월 16일 영제국주의자들은 사라와크와 북부 보르네오를 《말레이시아 련방》에 포함시켰다.

1962년 12월 8일 북부 칼리만탄 인민은 독립을 선포하고 북부 칼리만탄 통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영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 무장 투쟁은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까지 확대되였다.

1963년 1월 아자하리(브루네이 인민당 위원장)를 수상으로 하는 혁명 정부가 조직되였다. 아자하리는 이 혁명이 《말레이시아 련방》 형성을 위한 영 식민주의자들의 음모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의 길이라고 성명하였다.

8월 29일 사라와크 인민은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위한 《예비 조사》라는 이름 밑에 《유엔 조사단》이 기여든 것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북부 칼리만탄에 해공군을 포함한 무장력을 파견하였다. 식민지 당국은 브루네이 인민당을 금지하고 아자하리 수상의 체포를 명령하였다.

북부 칼리만탄 민족 해방군은 무장 봉기 당시의 2만 5천 명으로부터 1963년에는 4만여명으로 장성하였으며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사라와크

【면적】 12만 2,000 km²

【인구】 74만 5,000 명(1960년) 말라이족, 메라나스족, 다야크족, 화교 등이 살고 있다.

【행정 중심지】 쿠칭 (주민 15만명)

사라와크는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이며 기타 벼, 후추도 생산된다. 고무 재배원은 10만 헥타이며 외국인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매년 약 5만톤의 쌀을 수입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원유(년산 약 5만 5,000톤), 금, 보키사이트 및 린회석이 있으며 산림 부원이 풍부하다. 원유는 영국 《쉘 석유 회사》계인 《사라와크 석유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영국 독점체들은 사라와크에서 석유와 고무 및 보키사이트를 략탈하여 매년 6,000만 파운드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최근 년간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고 인민 련합당(1959년 6월 성립), 국가 통일당(1960년에 성립된 사라와크 최대의 정치 조직, 당원수 약 4만 5,000 명), 농민 협회(1961년 6월 성립) 등이 활동하고 있다. 집권당은 사라와크 련맹과 국민당이다.

북부 보르네오

【면적】 7만 6,112 km²

【인구】 45만 4,000 명

【행정 중심지】 제슬톤 (주민 2만 2,000명)

북부 보르네오의 많은 지방 토착민들은 아직 원시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 림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비옥한 땅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고무 재배원으로 빼앗겼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 벼, 야자, 옥수수 등이다. 벼 생산량은 1962년에 8만 428톤이였다.

북부 보르네오에는 풍부한 산림 부원이 있으나 모두 영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목재는 1961년에 7,265만 립방피트 (1 립방피트는 약 0.028 립방메터) 생산되였다. 석탄, 석유, 철, 금 등 지하 자원도 풍부하나 미개발 상태에 있다.

정당으로는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있다. 그 밖에 북부 보르네오 련맹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는 집권당), 련합당(《말레이시아 련방》을 지지하는 극 반동적인 정당) 등이 있다.

브루네이 (영국 《보호령》)

【면적】 5,765 km²

【인구】 8만 4,000명 말라이족, 게다얀족 등 원주민과 화교들이 살고 있다. 국어는 말라이어이다.

【행정 중심지】 브루네이 (주민 1만 8,200명)

브루네이에는 형식상 수상이 있으나 영국 고등 판무관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 1962년 8월에 선거된 립법 의회(56석중 55석은 인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1962년 12월 8일 폭동으로 해산되고 12월 20일 14명으로 림시 평의회가 조직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석유 (1963년에 350만톤 생산) 채취업이다(주요 산지는 세리아). 석유 로동자는 전체 로동자 수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석유 채굴권은 영국의 《쉘 석유 회사》계의 《브루네이 석유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석유는 수출 총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 야자, 고무 등이다. 고무 재배원은 1만 2,120 헥타이며 매년 1,000여톤의 고무를 수출한다.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정당으로는 인민당이 있다. 인민당은 1956년 8월에 조직. 1962년 현재 당원 수는 1만 6천명. 인민당은 민족 해방군을 조직하고 영 제국주의자들과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북부 칼리만탄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 위원장 아자하리 브루네이 련맹(집권당)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면적】 190만 4,845 km² (그중 서부 이리안 41만 2,781 km²)

【인구】 9,708만 5,348명(1961년 12월, 그중 서부 이리안 75만 8,896명), 대부분이 말라이족이며 국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수도】 쟈카르타 (주민 297만 3,052명, 1961년 12월)

정치

1602년에 화란은 인도네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창설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지배하다가 1800년에는 정식 식민지 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1817—1830년,

1873—1919년 간에 화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26—1927년에는 공산당이 지도한 인민 봉기가 있었다.

1942년 3월—1945년 8월 인도네시아는 일본 제국주의에 강점 당하였다.

제 2 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일제는 물러가고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수카르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1959년 2월 《향도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리념의 실시를 선포하였으며 7월에는 1950년 헌법을 폐지하고 1945년 헌법(대통령 책임제 내각을 규정)을 복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림시 인민 협상 회의를 비롯한 립법 기관들과 지방 행정 기관들에서 나사콤(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종교 그루빠 등 세 조류의 정치 세력) 협조를 실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며 반제 반식민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반둥 회의》 발기국의 하나이며 또한 신흥 세력의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네포》 발기국이다.

【대통령】 1963년 5월 19일 림시 인민 협상 회의 제 2 차 회의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림시 인민 협상 회의】 1960년 9월 15일 성립되였다.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헌법을 제정하며 대통령을 선거하며 주요 국가 정책들을 결정한다. 임기는 5년이다. 인민 협상 회의는 협조 국회 의원, 각 지역 대표, 직업별 대표 등 610 명으로 구성되였다.

위원장 하이룰 살레흐

부위원장 디. 엔. 아이디트 (공산당), 알리 사스트로 아미죠요 (국민당), 이담 하리드(회교 승려 협회)

【협조 국회】 1원제이며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령을 토의 비준할 뿐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립법 기관이다(국회에서 채택된 법령 초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국회에서 토의할 수 없다). 현 협조 국회는 1960년 6월 25일 수카르노가 임명한 정당 대표 130 명 (공산당 30 명, 국민당 44 명, 회교 승려 협회 36 명, 기타 6 개의 정당 대표 20 명), 직업별 대표 152 명, 서부 이리안 대표 1 명, 도합 283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의장 아루지 카르타위나타

【최고 평의회】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1959년 8월 15일 수카르노가 지명한 정당 대표 11 명, 지방 대표 10 명, 직업별 대표 23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의장 수카르노

【민족 전선】 1960년 1월 12일 수카르노 대통령의 민족 전선 조직 조례에 의하여 결성되였다.

국민의 총력량을 집결하여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며 서부 이리안을 회복 하기 위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정치적 조직이다.

민족 전선은 《나사콤》 정책의 실현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10 개의 정당들, 모든 대중 단체들 그리고 륙해공군과 경찰의 전체 무력 등 2,000 만 명 이상을 망라하고 있다.

위원장 수카르노

【내각】 1963년 11월 13일에 개조되였다. 내각 개조에 의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하게 되였으며 제 1상 직이 폐지되고 3 명의 부수상들과 8 개 부문의 상들, 대통령 보좌 관계 상으로 구성되였다.

수상 수카르노

제 1 부수상 겸 외무 및 대외경제 관계상 수반드리오, 제 2 부수상 겸 분배 관계상 레이메나, 제 3 부수상 겸 기간 공업 및 공업상 하이룰 살레흐

【정당, 사회 단체】 1961년 4월 15일과 7월 27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10 개의 정당을 승인하고 4 개의 정당을 비법화할 데 대한 문건에 서명하였다.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산하에 유력한 진보적 사회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1963년 12월 23일 당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2 차 전원 회의에서는 《황소 정신을 발전시키자! 견결히 전진하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아이디트 동지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맑스—레닌주의 투쟁 기치를 추켜 들고 계속 전진할 것과 수카르노 내각의 신정강을 지지하며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당원 수 250여만 명, 위원장 디. 엔. 아이디트, 제 1 부위원장 엠. 엔 루꾸만, 제 2 부위원장 뇨또 **국민당** 1927년 7월 3일에 성립, 사실상의 집권당으로서 민족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인도네시아의 세개 정치 세력중 중간파 세력에 속한다. 1960년 7월에 진행된 제 9 차 대표 대회에서는 《향도되는 민주주의》 리념에 기초를 둔 《평민주의》를 실시할 데 대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1963년 년차 대회에서는 공산당이 참가하는 《나사콤》 내각을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기할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둥 회의 5 개 원칙에 의거한 평화, 중립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한다. 위원장 알리 사스트로 아미죠요 **회교 승려 협회** 1952년 5월 마시우미당에서 분리되여 독립적인 당으로 발족한 인도네시아의 최대의 회교도 당이다. 이 당은 회교에 기초를 둔 민족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중립,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공산당이 내각에 참가하는 데 대하여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공산당과의 통일 전선 정책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다. 위원장 이담 하리드 **기독교당, 무르바당, 인도네시아 독**

립 옹호자 련맹, 페르티 회교당, 인도네시아당, 천주교당, 전 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중앙 련맹 (소브시) 1946년 11월 29일에 성립, 세계 직련에 가입, 맹원 320만 명, 위원장 노노 **민주 통일 로조** (국민당 계통), **회교 로조 중앙** (회교 승려 협회 계통), **농민 전선** 1945년 11월 25일에 창립된 진보적인 농민 단체, 맹원 640만 명 **녀성 운동 협회** 1960년 6월에 창립, 국제 민주 녀성 련맹 성원, 맹원수 150여만 명 **인민 청년 동맹** 1950년 11월 10일 창립, 맹원 수 150여만 명, 총비서 수카르노 **인도네시아—조선 친선 협회** 위원장 에마스 **평화 옹호 위원회** 총 위원장 라뚜 아미나 히다야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위원회** 위원장 우따미 수리야다르마

【주요 사건】 1963년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내외 문제로서는 서부 이리안 문제의 해결과 가네포의 진행, 반 《말레이시아》 투쟁이였다.

서부 이리안을 귀속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2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화란 간의 협정이 조인되고 이 협정에 따라 1963년 5월 1일 서부 이리안에 대한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이관되였다.

이리 하여 100여 년간 서부 이리안을 강점하고 있던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통치는 종식되였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영국, 화란 등 제국주의자들과의 밀접한 련계 밑에 국내 반동들이 일으킨 반란과 관련하여 1957년 3월 이래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최고 계엄 사령부》를 해체하였다.

5월에 국내 반동 분자들이 미 제국주의의 사촉 하에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친선을 훼손하려고 반중국 소동을 일으켰으나 진압되고 말았다.

가네포의 발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2년 8월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제 4 차 아세아 경기 대회에 장 개석 도당과 이스라엘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이것을 리유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의 인도네시아의 합법적 권리를 무기한 정지시키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1963년 2월 13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인도네시아의 탈퇴를 선언하고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 하에 새로 신흥 세력 경기 대회 (가네포)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1963년 5월 9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전 인도네시아 신흥 세력 축전 위원회를 조직하고 제반 준비 사업들을 진행시켰다.

이리 하여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1963년 11월 10—22일에 자카르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국제 기구편 가네포 참조).

《말레이시아》 반대 투쟁 1963년에 인도네시아 인민은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신 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1963년 9월 15일 인도네시아 외상 수반드리오는 《말레이시아 련방》 조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9월 16일과 18일 자카르타 주재 영국과 말라이 대사관 앞에서 《말레이시아 련방》 선포에 항의하는 일대 시위를 진행하고 영국 대사관과 영국 은행 및 수개의 영국 회사를 습격하였다.

자카르타에서 시위가 있은 후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투쟁은 이 《련방》 조작의 공모자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여 전국 각지에 번져졌다.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은 각지에서 영국인 농장들과 미국 및 영국 상사들을 몰수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있을 수 있는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9월 21일 《말레이시아 련방》과 통상 관계를 단절하고 국내에서의 말라이 딸라의 사용과 량국 간의 항공 및 해상 운수를 중지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제 3 국(싱가포르)을 경유하여 통상하던 나라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유항, 통상 지대 및 수출항을 설치하였다. 11월 28일에는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기업체들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10월 13일 서방 문화의 류입을 금지하는 결정과 10월 16일 《말레이시아》 대결 정책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데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민족 전선은 11월 13일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지도하는 본부로서 《말레이시아 분쇄 행동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인도네시아 륙군은 특공대를 포함한 정예 부대를 사라와크와의 국경선에 포치하였으며 10월 21일 공군 당국은 령공을 침범하는 외국 비행기를 격추할 것을 공군에 명령하였다. 11월 12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전국에 《경계 체계》를 취하는 《특별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1964년 3월 말까지 2,500만 명이 지원병으로 등록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9월에 아이디트 동지가 인솔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투꾸만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 대표단, 우마르야디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다.

1963년 11월 3—18일 간에 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11월 15일 량국 간의 통상 협정과 일련의 기술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4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아궁 화산이 분출하여 막대

한 인명 피해와 자연 재난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은 5만 루피아를,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집행 위원회(1963년 7월)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은 1만 루피아를, 각각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증하였다. 1963년 2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우리 나라의 사진 및 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되였다. 평양 축구팀(3월)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고 11월에는 우리 나라 체육단과 예술단이 가네포에 참가하였다.

인도네시아 배구, 롱구, 축구팀(8—9월), 인민 문화 련맹 산하 가무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4년 4월 16일 우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며 대사급의 외교 대표를 교환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4월 12—20일에 중화 인민 공화국 류소기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4월 20일 발표된 공동 콤뮤니케에 의하면 쌍방은 반둥 회의의 10 대 원칙과 평화적 공존의 5 개 원칙에 기초하여 량국 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기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쌍방은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며 민족적 자결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의 투쟁,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과 월남 인민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3월 쏘련 국방상 말리놉쓰끼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1963년 5—6월에 수카르노 대통령은 비률빈,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불란서, 이태리 등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인도네시아는 농업국이다.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은 75%를 차지하며 주민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주석광의 주요 생산국이며 동남 아세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다.

석유는 약 13억 6,000만 톤 매장되여 있다. 이 밖에도 지하자원으로 철광석, 석탄, 망간, 보키사이트, 니켈, 금, 은, 연, 아연, 금강석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는 350년 간의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통치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이 지배하고 있다.

화란 략탈자들은 자기의 전 통치 기간에 14억 3천만 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예속적인 경제로부터 벗어나 민족 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독립 후 227 개의 화란인 소유 농장과 104 개의 영국인 소유 농장을 국유화하였다.

1962년 1월까지 화란의 모든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4월에는 영국의 《쉘 석유 회사》에 속하는 채푸 (중부 자바) 지역의 석유 산지들을 국유화하였다. 1963년에는 인도네시아 석유 공업의 90%를 차지하는 미, 영 석유 회사들의 석유 정제 및 저장 시설들을 국유화하였으며 5월에는 외국 석유 회사들이 석유 수입의 60%(종전에는 50%)를 인도네시아에 물도록 하게 하였다. 정부는 1960년에 9 개의 국영 무역 회사와 7 개의 국영 은행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과 금융 부문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이리 하여 정부는 대규모 농장의 70%, 방직 공업의 90%, 주석광의 100%, 외국 자본이 장악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석유 채굴업 등 인도네시아 민족 자본의 80%에 해당하는 17억 딸라의 자본을 장악하였다.

1961년부터는 8개년 (1961—1968) 계획에 착수하였고 1963년 2월에는 경제 재정 문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 재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민족 경제의 창설과 외식, 생산 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둔 경제 선언을 발표하였다. 경제 선언의 일환으로서 5월 27일부터는 수출세 철폐 및 수출 우대 조치를 위시하여 관세 제도, 국영 기업의 운영, 공공 료금 등 광범한 개혁이 실시되였다.

【공업】 공업은 주로 채굴 공업과 농산물 가공 공업이다. 경제에서 공업은 약 25%를 차지하며 공업에서 채광업은 약 60%를 차지한다. 가공 공업으로는 고무, 정미, 제당, 세멘트, 방직, 제지 공업 등이 있으며 기타 일련의 부속품 공장들이 있다. 8개년 경제 계획을 실행하면서 정부는 제철소와 수력 발전소 등을 건설하고 있다.

1963년에 쏘련의 원조로 강철 공장, 과린산염 공장, 루마니야의 원조로 정유소 등이 건설되고 있다. 소규모 공업과 농촌의 수공업은 국내 시장을 위한 소비품의 주요 생산 부문으로 되고 있다. 국유화된 공업은 농산물 가공품과 소비품 주로 수입 원료에 의거하는 소비품을 생산한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000 톤)

	1961	1962	1963(예비적 자료)
석유	21 270	22 800	22 800
주석정광	18.5	17.4	12.5
보키사이트	419.8	470.0	476.8
석탄	564	305.3	300
망간	13.5	10.8	9.87
니켈	18.6	12.82	16.7
세멘트	445	467.5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업 생산의 증대와 함께 유용 광물의 개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63년 8월 29일에 금, 은, 린, 석유, 보키사이트 등의 민간 광산물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새 광업법을 채택하였다.

한편 정부는 제련소와 제철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12억

7,440만 루피아를 이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인도네시아 개발 은행을 새로 설치하였다.

【농업】 인도네시아에는 2 개의 영농 체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수출을 위한 농장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농 체계이다.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업 인구중 농업 로동자는 약 64%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농장에서 재배되는 수출용 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키니네, 야자, 사탕, 담배 등이다. 쌀은 주로 개인농들이 생산하여 왔는데 최근 년간에 정부는 외식주 문제의 해결과 농업에서의 식민지 편파성을 청산하기 위하여 점차 쌀 생산에 힘을 넣고 있다.

고무는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재정 수입의 기본 원천으로 되고 있다. 고무는 세계 생산량에서 35% 내외를 차지하며 세계 제 1—2위를 다투고 있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0톤)

	1961	1962	1963(예비적 자료)
쌀	8 268	9 550	9 800
코푸라	1 300	910	…
사 탕	962	955	900
차	65	66	60
커 피	117	100	…
생고무	682	669	584
담 배	81	82	

축산업은 쟈바와 마두라, 동부의 일부 지역들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 가축으로서는 소, 돼지, 산양, 면양 등이 있으며 특히 산양이 유명하다.

1960년 협조 국회는 《토지 개혁에 대한 기본법》을 채택하고 인도네시아 공민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61년 1월에는 1 명 혹은 한 농호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20 헥타르로 제한하고 나머지 토지는 정부가 유상 몰수하며 토지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외 무역】 대외 무역은 재정 수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9 개의 국영 무역 회사가 인도네시아 대외 무역의 약 80%를 쥐고 있으며 중요한 상품 수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생고무, 주석, 코푸라, 담배, 종려유, 차 등이다. 석유는 아세아 지역 수출의 30~35%, 이 나라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은 주로 미국, 쏘련, 중국, 일본, 영국, 버마, 구라파 《공동 시장》 성원국들과 진행하고 있다.

1963년 무역 적자는 약 10억 딸라였다.

【재정】 1963년에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1963년 예산 적자는 전년도의 389억 루피아로부터 335억 9,420만 루피아로 감소되였다.

외화 보유액은 1963년 7월에 1억 2천만 딸라였다.

【출판】 통신— 안따라 통신, 페르스 비로 인도네시아 (피. 아이. 에이)

신문—하리안 라캬트 (공산당 기관지), 와르따 베리따 (국민당 기관지), 메르데카 (정부 기관지), 헤랄드 인도네시아 (외무성 기관지), 인도네시아 옵써버 (정부계 신문)

타 이

Thailand

【면적】 51만 4,000 km²

【인구】 2,900만 명(1962년 말)

주민은 타이족(75%), 화교(14.5%), 말라이족(3.5%), 크메르족(2%) 등이다. 공용어는 타이어.

【수도】 방코크(주민 157만 명, 1962년 7월)

정 치 타이는 립헌 군주제 국가이다. 1947년 피분이 일으킨 정변, 1951년 륙해공군과 경찰에 의한 군사 정변이 있었고 1957년 9월에는 사리트 타나라트 등 륙군 수뇌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이 있었다.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리트 타나라트는 1958년 10월에 헌법의 페지, 국회와 모든 정당들의 해산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수립하였다.

현 군사 통치배는 철저한 반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62년 8월에 외회는 아무런 재판도 없이 애국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이른바 《공산주의 피의자 구금법》을 채택하였다.

타이는 동남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제의 전초 기지로 되고 있다. 1950년 9월과 10월에 미국과 《경제 및 기술 협조 협정》,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 9월에는 침략적인 세아토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에 가입하였다(세아토의 본부가 방코크에 있다). 타이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고 현재도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1962년 3월에 미국을 방문한 타이 외상 타나라트 코만은 《침략》을 당하는 경우 미국이 세아토와 협의함이 없이 타이를 《원조》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미국과 《특별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타이군의 증강을 위하여 전후 1961년까지 5억 4,600만 딸라, 1963년에는 3,500만 딸라를 군사 원조로 타이에 제공하였다. 타이에는 3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330 명의 미 군사 고문단이 타이군을 훈련하고 있다.

타이는 미제의 원조 밑에 버마, 라오스, 캄보쟈와의 국경 지대들에 총 연장 5,440 키로메터의 전략 도로를 건설하는 데 착수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와의 국경 지대에 군대를 집결하고 끊임없이 도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1963년 6월 11일 타이에서 세아토 조작 이래 최대의 군사 연습(2만 5천 명 참가)이 있었다.

【국왕】 푸미폰 아둘라디트(1950

년 5월에 취임)

【제헌 의회】 1959년 2월 5일 국왕이 임명한 240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대부분이 악질적인 장교와 경찰 관료배들이다.

【내각】 1959년 2월 9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겸 국방상 타놈 키티카쵸른 (1963년 12월 19일 취임), 외상 타나라트 코만

【정당,사회 단체】 1958년 10월 20일 군사 정변후 일체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고 군인, 경찰, 관리들로써 신 혁명당이 조직되였다.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되였으며 1947년부터 비합법적인 상태에 있다.

경 제 타이는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 수입이 국민 소득의 약 60%를 차지한다. 경지 면적은 전 영토의 12%인데 그중 93%가 논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1962년에 890만 톤 생산), 고무이다.

공업은 국민 소득에서 겨우 12%를 차지하며 주로 광업(주석), 세멘트, 제재, 식료 공업 등이다.

경제에서도 미제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타이는 1951—1960년 6월 간에 2억 2,000만 딸라, 1963년에는 3억 3,600만 바트의 경제 《원조》를 받았으나 1958—1961년 간에 미국 독점체들은 타이에서 193억 바트(9억 6,500만 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매년 증대되는 예산 적자(1963년에 23억 1천만 바트)는 외국 채권과 《원조》로 메우고 있다.

전체 주민의 근 70%가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다. 1962년 12월 현재 8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었다. 인구의 약 96%가 각종 종교(불교도가 92%)를 믿는 몽매한 나라이다.

말라이 련방

Federation of Malaya

【면적】 13만 1,287 km²

【인구】 713만 9,000 명(1961년)

주민은 말라이인(50%), 화교(37%),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11%)이며 언어는 말라이어, 중국어, 영어를 쓰고 있다.

【수도】 쿠알라 룸푸르 (주민 48만 명)

정 치 말라이는 1957년 8월 31일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한 립헌 군주국이다. 1957년 10월 3일에 체결된 영국—말라이 《대외 방위 및 호상 원조 협정》에 의하여 영국은 말라이에서 군대의 무기한 주둔권과 군사 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말라이에는 영국 군대와 5,000 명의 호주 및 뉴질랜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라흐만 도당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군대의 직접적인 참가 밑에 그리고 타이와 협동하여 말라이 민족 해방군(1949년에 조직)을 반대하는 군사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1962년 1월에는 《국내 안전 보장법》을 개악하고 진보적 력량에 대한 탄압에 더욱 날뛰였다. 1963년 2월 말라이 사회주의 인민 전선 지도자 아호마드 보에스타만을 비롯한 50여 명의 애국자들을 체포 투옥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10여 명의 야당 지도자들과 로조 활동가들을 체포하였다. 1963년 4월 말라이는 병력을 30% 더 증강하였다.

라흐만은 영국의 사촉 하에 1961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발기하였고 1961년 11월, 1962년 7월 영국 수상과의 회담을 거쳐 1963년 7월 8일 협정을 체결, 9월에 정식 《련방》을 선포하였다. 9월 17일에 라흐만 도당은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및 비률빈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인도네시아를 반대하는 적대 행동을 강화하였다.

【국가 원수】 사이에드 푸트라

【국회】 상원 의원은 38 명이고 임기는 6년, 하원 의원은 104 명이고 임기는 5년이다. 현 의회는 1959년 8월 19일의 첫 선거에서 성립되였다.

【내각】 1959년 8월 선거후 성립, 1962년 10월에 일부 개조되였다. 수상 아브둘 라흐만 푸트라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4월 30일 창건되였고 1948년부터 비법화되였다. 말라이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 총비서 진 평 따화의 련맹 1955년 4월에 봉건 귀족, 지주, 부르조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3 개 정당 (말라이 민족 련합 기구, 말라이 화교 협회, 말라이 인도인 대회당)이 망라되여 조직되였다. 그러나 매개 당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 지도자 아브둘 라흐만 인민 사회주의 전선 말라이인계의 인민당(1955년 창건)과 화교계의 로동당의 련합 조직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으로서 1958년 2월에 성립된 말라이 최대의 야당이다. 외국 자본의 침입, 외국 군대의 주둔,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반대하고 있다. 지도자 아호마드 보에스타만(인민당 위원장) 범 말라이 회교당, 인민 진보당

경제, 사회 말라이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산물은 고무, 주석, 철광석이다. 영국 독점 자본은 말라이에서 주석의 60%, 고무의 75%, 야자 재배원의 대부분, 수출의 70%, 수입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영국 독점체들은 1950—1960년의 11년 간에 말라이에서 고무와 주석에서만도 8억 5,400만 파운드의 리윤을 짜냈다.

1963년에 주석 정광은 6만 톤(자본주의 세계 생산량의 약 43%로서 제 1 위), 철광석은 684만 톤 생산되였다.

비옥한 토지는 외국 독점 자본, 추장, 지주들에게 장악되여 있으며 75만 명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경지 면적은 214만 1,200 헥터(그중 고무 재배원은 약 66%)이다. 고무 생산은 국민 소득의 약 40%를 차지한다. 1962년에 고무는 76만 7,800

톤, 중려유는 10만 6,462 톤, 차는 625만 9,000 폰드(1폰드는 0.45 kg) 생산되였다. 쌀은 1961년에 57만 4,000 톤(총수요량의 58 %)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고무(1962년 수출 총액의 60%), 주석, 차 등이다.

영어, 중어, 말라이어별로 소학교가 설치되여 있으며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대학이 하나 있다. 회교가 국교로 되여 있다.

싱가포르

State of Singapore

[면적] 585 km²

[인구] 168만 7,000 명(1961년) 주민은 중국인(76%), 말라이인(14%),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8.5%)이다.

[수도] 싱가포르 (주민 154만 9,000 명)

정 치 싱가포르는 1946년 4월 말라이에서 분리되여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5월 영 련방 내의 《자치국》으로 되였으나 영국이 외교권과 국방권을 쥐고 있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극동 최대의 해군 기지이며 극동 주둔 륙해공군 총사령부의 소재지이다. 1만 3천여 명의 영국 해군과 2,500 명의 영 련방군(호주, 뉴질랜드, 영국 군대로 구성)이 주둔하고 있다.

[립법 회의] 의원 수는 51 명. 1961년 12월에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계획을 승인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59년 6월 5일에 성립. 수상 리 관유

[정당, 사회 단체] **인민 행동당**(집권당) 화교를 중심으로 한 부르죠아지와 소부르죠아지, 지식 분자들로써 1954년 11월에 성립되였다. 당수 리 관유 **인민 련맹** 1954년 11월에 창건되였다.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위원장 림 유복 **사회주의 전선** 인민 행동당에서 탈당한 일부 당원들이 1961년 9월에 창건. 당은 독립적인 말라이 국가 창설을 주장하며 식민주의와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로동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위원장 리 슈쵸 **로동당**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영국 군사 기지의 철폐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장 다위드 마샬 **싱가포르 로조 평의회** 4만 명 이상의 맹원을 망라한 가장 큰 로조 단체이다.

경 제 싱가포르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의 하나이며 중계 무역이 이 나라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는 영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버 마

(버마 련방)

Union of Burma

[면적] 67만 7,950 km²

[인구] 2,086만 8,000명(1961년) 주민의 약 70%는 버마족이고 기타 카렌족, 산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버마어이다.

[수도] 랑군 (주민 82만 1,800 명, 1958년)

정 치 버마는 1820년대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885년에 완전히 식민지로 되고 그 다음 해에 영령 인도에 편입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후 앙양된 민족 해방 운동의 결과 1937년에 버마는 인도에서 분리되여 자치 정부를 수립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에 일본에 강점되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영국이 버마를 다시 강점하였다. 전후 반영 독립 운동의 앙양으로 《영국 버마 협정》이 체결되고 1948년 1월 4일 버마는 독립하였다.

독립후 집권한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은 1958년에 《결백파》와 《공고파》로 분렬되였다. 1958년 9월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총참모장 네 윈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1960년 2월 6일 제 3 차 국회 총선거에서 우 누의 《결백파》가 압도적 우세로 승리한 결과 동년 4월 4일 우 누 정부가 수립되였으나 정치, 경제적 불안정 상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1962년 3월 2일 군부는 다시금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군인들로서 혁명 리사회를 조직하였다. 혁명 리사회는 우 누를 비롯한 각료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3월 9일 네 윈 내각이 조직되였다.

집권후 혁명 리사회는 《버마식 사회주의》 건설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일련의 외국인 및 개인 기업소 및 공장, 은행들을 국유화하였다. 혁명 리사회는 《사회주의 로선당》을 조직하였다. 대외적으로 버마는 중립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각국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5월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하였으며 10월 2일 량국 간에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1958년 3월 2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무역 대표부가 랑군에 설치되였다.

1961년 5월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및 무역 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하고 량국 간의 령사 관계를 설정하였다(6월 27일 랑군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 설치).

버마 국회 대표단을 비롯하여 정부 친선 및 무역 대표단, 기타 각종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혁명 리사회] 의장 네 윈 장군 (1962년 3월 2일 취임)

[정부] 현 내각은 1962년 3월 9일 조직되였다. 수상 겸 국방상 네 윈, 외무상 우 티 한

[정당, 사회 단체] 1964년 3월 28일 네 윈은 버마 사회주의 로선당 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하였다. 금지되기 전의 정당은 다음과 같다. **버마 공산당**(백기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 1946년 2월 당내 의견 상이로 타킨 쇼를 비롯한 일부 중앙 위원들이 탈퇴하여 적기 공산당을 조직하였다. 1948년 버마 공산당은 지하 투쟁으로 들어갔다. 이 당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모쓰크바 회의에 참가하였다. **버마 사회주의 로선당** 혁명 리사회 정강 《버마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1962년 4월 30일 발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1962년 7월 4일 조직되였다. 위원장 네 윈 **민족 단결 전선** 1955년 11월 좌익 당파들이 련합하여 형성. **버마 통일 로동당** 1962년 12월 1일 버마 로동당(1950년 창건)과 인민 동지당 (1949년 창건)이 합당하여 창건. 위원장 타킨 치르 마웅 **인민 진보당** 1959년 4월 12일 인민 민주당과 민족 진보당이 합당하여 창건. 당수 수 아웅 딴 **련방당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의 《결백파》가 중심이 되여 1960년 3월에 조직. 당수 더킨 **먼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 1958년 동 련맹 3차 대회에서 《공고파》를 중심으로 조직 **버마 사회당** 1939년에 조직. 이 당은 아세아 사회당 대표자 회의 창설의 중요 발기자의 하나이다. 총비서 우 바 스웨 **버마—조선 친선 협회** 1963년 8월 14일 창립. 위원장 우 웅 킨 **버마 평화 옹호 위원회** 1949년 10월 창립 **버마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주요 사건**】 1963년 2월 9일 혁명 리사회 부의장이며 무역 발전상이였던 앙지 준장이 의견 상이로 하여 사직하였다. 4월 1일 혁명 리사회는 대사령을 실시하여 범인 1만 2,000명 중 6,000여 명을 석방하였다.

6월 11일 정부는 《평화 회담》을 진행할 것을 일체 지하 무장 조직에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7—29일 예비 회담을 거쳐 8월 10일부터 적기 공산당 대표단(단장 타킨 쇼)과의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8월 19일 결렬되였다. 버마 공산당(백기 공산당)과의 《평화 담판》은 8월 28일 예비 회담을 거쳐 9월 2일 이래 수차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11월 11일 결렬되였다.

정부는 국내 평화의 회복을 방해하였다 하여 8월 9일 우 바 스웨를 비롯한 정객들을 체포하였으며 평화 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11월 15일부터 수일 간에 근 600명의 인사들을 체포하였다.

버마 정부는 국영 경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에 보상을 지불하는 원칙에서 일련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1월 1일 영국과 공동 경영하던 버마 최대의 기업체인 버마 석유 회사(BOC)를 유상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또한 다보이 버마—영국 합영 주석 공사, 강철 유한 공사, 버마 유한 공사, 로이얄 백화점 등을 국유화하였다. 2월 23일 14개의 외국 은행과 10개의 개인 은행을 국유화하였다.

10월에 개인 기업소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600여 개의 개인 제재 공장, 6개의 개인 담배 공장과 진주 채취업을 국유화하였으며 10월부터 쌀과 쌀 가공품을 국영 상점이나 협동 조합 상점을 통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급유탑을 국영 버마 석유 회사에 넘기였다.

대외 정책에서 버마 정부는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63년 10월 말—11월 초에 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이 버마를 친선 방문했다. 2월에 우리 나라 축구단이 버마를, 9월에 버마 축구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4월에 중화 인민 공화국 류소기 주석이 버마를 방문하였다. 버마는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63년에 루마니야의 게오르기우 데스, 체코슬로바키야의 안또닌 노보뜨느이(1월), 쏘련 국방상 말리놉쓰끼(4월) 등이 버마를 방문하였다.

버마의 요구에 의하여 배상 증액에 관한 버마—일본 간의 회담이 1월 14—25일 일본 도꾜에서, 그후에는 랑군에서 진행되고 3월 29일 량국 간에 《경제 및 기술 협조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버마는 추가적인 배상액으로 1965년부터 12년 간에 1억 4천만 딸라, 차관으로 3천만 딸라를 받기로 되였다. 반면에 버마는 전쟁 배상 문제를 다시는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1963년에 버마 정부는 미국 대사관이 경영하던 도서관을 몰수하였고 미국 대사관이 발행하던 잡지를 폐간시켰다. 또한 퇴폐적인 미국 영화와 서적의 수입 및 배포를 금지하고 미국 대사관이 후원하던 23개의 이동 영화 선전대를 몰수, 해산시켰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및 공업의 생산 장성은 년 2~3%이다. 농경지는 700만 정보 이상이며 그 대부분이 논이기는하나 아직 관개 체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벼, 고무, 락화생, 목화 등이다. 1961년에 벼는 678만 8,900톤, 락화생은 35만 6,600톤, 감자는 105만 톤,[1] 목화는 1만 2,200톤, 참깨는 6만 5,000톤 생산되였다. 수박, 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빠빠야, 야자, 기타 야생 과실이 풍부하다.

버마 령토의 60%는 고무, 종려수, 찌크 등 290여 종에 달하는 각종 나무들이 무성한 산림 지대이다. 버마의 찌크재는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1963년에 30여만 톤의 찌크재를 비롯하여 100만 톤 이상의 각종 목재를 생산하였다. 목재 운반의 주요 수단은 코끼리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연, 주석, 석유 등이 풍부하다.

국민 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20%이다. 공업에서는 정미 공업, 식료품 공업, 제재 공업 및 석유 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원유는 560만 톤(1963년), 세멘트는 3만 8,900 톤, 사탕은 4만 2,700 톤(이상 1961년), 전력은 2억 1,410만 키로와트시(1959년), 강철은 2만 톤(1960년)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쌀(세계 제 1 위), 쌀 제품, 목재, 생고무, 보석, 광석 등이다.

수입품은 대중 소비품과 일부 공장 설비품들이다. 농산물, 목재, 광석 등 주요 수출품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수출 총액에서 쌀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1963년에 171만 5천 톤을 수출하였다. 1963년에 국가는 무역에서 91.6%를 독점하고 있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일본, 영국, 중국, 미국, 서독, 인도, 쏘련 등이다.

1963—1964년에 병원 수는 367 개(1961년에는 239 개) 있었다. 버마는 불교의 나라로서 인구의 80%는 불교도들이며 중만 하여도 10여만 명이나 된다.

【출판 보도】 통신 —버마 통신사(국가 통신사로서 1963년 7월 26일 설립)

신문—근로 인민보(정부 기관지), 가디언, 미라 뺑가드, 루두, 한사와디, 랑군 일보, 뉴라이트 오브 버마, 버만

네 팔
(네팔 왕국)
Nepal

【면적】 14만 700 km²

【인구】 940만 7,000 명 (1961년말)

주민으로는 구르카족, 네와르족, 라나족이 있다. 언어로는 바루파히아어, 구바류어, 티베트어 등이 있으나 공용어는 네팔어이다.

【수도】 카트만두(주민 약 20만 명)

정 치 1816년 영국은 네팔에 침입하여 이 나라를 자기 《속령》으로 만들었다. 1946년 잔 바하다 라나는 영국의 사촉 하에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1923년 영국은 네팔과 《영구 평화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표면상 네팔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제 2 차 대전 후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가게 됨에 따라 네팔에서 영국의 특권도 끝장나게 되였다. 1950년 라나 일가의 봉건적 세습 통치는 종말을 고하고 1951년 2월 18일 네팔은 립헌 군주국으로 되였다.

1960년 12월 15일 네팔 왕 마헨드라는 국회를 해산하였고 1961년 1월 15일에는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자기가 집정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12월 16일 왕은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헌법에는 의회제를 페지하고 부락 참사회 (판챠야트)제에 의하여 부락, 지구, 지방, 전국의 4 단계의 참사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1963년 2월부터 4월 중순에 걸쳐 전국 참사회 및 지방 참사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4월 18일 국왕 마헨드라는 전국 참사회 제 1 기 회의에서 대외적으로는 중립 정책을 견지하며 대내적으로는 민족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대내외 정책을 천명하였다.

4월에 왕국 리사회가 조직되였고 8월에는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전국 지도부 리사회가 창설되였다. 전국 지도부 리사회의 과업은 신 헌법의 조항과 정부의 조치들을 보급하며 특히 전국 참사회를 대중화하는 데 있다.

1963년 2월에 조선—네팔 친선 협회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하였고 9월 27일—10월 6일 네팔 왕실 리사회 위원이며 네팔 작가 협회 위원장인 리쉬케슈 샤를 단장으로 하는 문화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 20일에 네팔과 중국 간의 국경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네팔 왕과 인도 대통령이 8—9 월과 11월에 호상 방문하였으나 량국 간의 관계는 그리 개선되지 못하였다. 5월에 파키스탄 대통령 아유브 한이 네팔을 방문하였다.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 (1955년 3월 즉위)

【전국 참사회】 전국 참사회는 새 헌법에 근거하여 1963년 4월 14일 정식 성립되였다. 1원제이며 최고 립법 기관이다. 의원 수는 227 명이며 그중 30 명은 국왕이 임명한다. 전국 참사회에서 채택되는 일체 법령은 왕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가진다.

【내각】 국왕이 내각을 임명한다. 현 내각은 1963년 4월 2일에 구성되였고 그후 일부 변동이 있었다. 수상 겸 내상, 궁정상, 국회 및 행정상 툴시 기리, 외상 키르티니드히 비스타

【정당, 사회 단체】 1961년 1월 15일 국왕은 일체 정당을 비법화하였다. 비법화되기 전의 주요 정당은 다음과 같다. **공산당** 1949년 9월 15일에 창전, 총비서 캐이 제이. 라이마지 **네팔 대회당** 1947년에 인도에서 창건되였으며 상업 자본가와 중소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인민당** 중소 부르조아지들의 정당이다 **국민 대회당** 소부르조아 정당 **루르카당** 친미 친 라나계 대봉건 지주들의 정당 **네팔—조선 친선 협회** 1959년 11월 9일 창립, **네팔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경제, 사회 네팔은 인구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령토의 60%가 산림이다. 라나 봉건 왕조의 후손들과 봉건 지주들이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202만 헥타이며 주요 농작물은 벼, 밀, 옥수수, 목화, 차, 황마, 담배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동, 아연, 연, 석탄, 금, 석유, 대리석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과 약간의 경공업 공장이 있다. 1962년부터 생산의 증가, 경제의 안정화, 매년 증가하는 15만 인구에 대한 직업의 알

선 등을 중요 목표로 내세운 제2차 3 개년 계획이 시작되였다.

정부는 제 2 차 3 개년 계획의 투자액을 초기의 5억 8,600만 루피로부터 6억 7천만 루피로 수정하였는데 그중 80% 이상을 외국 원조로 해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밀, 쌀, 황마, 목재, 피혁 등이며 주로 인도와 무역한다.

주민의 대다수는 힌두교도이다.

1963년에 소학교는 4천 개, 중학교는 500 개, 고등 학교는 150 개, 대학은 1 개 있었다.

【출판 보도】 통신—《라스트리야 삼바드 사미티》 통신사

신문—고르카 파트라, 네팔 사마챠르, 콤모너

부 탄

히말라야 산맥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4만 6,600km²

【인구】 67만 명(1960년)

보티아스족 80%, 네팔족 20%이다. 언어는 티베트어를 쓴다.

【수도】 푸나카

【국왕】 지그므 도르지 왕츄크

부탄은 1910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었다. 1949년 8월 조약에 의하여 인도가 부탄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주되는 경제 부문은 목축업이다. 이 밖에 쌀, 목재, 인도밀, 약간의 직물 등이 생산된다.

주민들은 라마교를 믿는다.

시 킴 (인도 보호령)

시킴은 히말라야 산맥 끝자기에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 지방과 인도를 련결하는 요충지이다.

【면적】 7,109 km²

【인구】 16만 1,000 명(1961년)

네팔족이 약 75%, 보티아스족이 12%, 기타가 13%이다.

【행정 중심지】 강토크

【국왕】 팔덴 톤다프 남갈 (1963년 12월 취임)

시킴은 1817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 이래 인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정당으로는 인도와의 합병을 주장하는 국민 대회당과 시킴이 인도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당이 있다.

주산물은 쌀, 인도밀, 옥수수, 차, 사과, 모직물, 목재 등이다. 무역은 티베트, 인도 등과 진행한다. 자동차 도로는 160 km이다.

문화 수준은 낮으며 불교가 국교로 되여 있으나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이다.

인 도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

【면적】 294만 8,889 km²

【인구】 4억 3,800만 명(1961년 3월)

주요 민족은 벵갈족, 텔루구족, 타밀족, 판잡족, 아쌈족, 힌두스탄족 등이다.

현재 공용어는 영어, 헌법에는 영어를 폐지하고 1965년부터 힌두어를 공용어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1963년 4월 하원은 힌두어를 공용어로 한 후에도 영어를 계속 보조적인 공용어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도】 델리 (주민 264만 4천 명, 1961년).

정 치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정책으로 인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되고 영 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0년 1월 26일 인도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인도는 현재도 영 련방 성원국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상하 량원 의원들과 각 주 하원 의원들에 의하여 선거되며 임기는 5년이다. 헌법상 국가 원수이나 실권은 수상에게 있다.

대통령 사르바팔리 라다크리쉬난(1962년 5월 13일 취임)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최고 250 명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하원 의원들에 의하여 선거된다 (그중 12 명은 대통령이 임명).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 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은 최고 520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현 하원은 1962년 2월 제 3 차 총선거에서 선출되였다.

1962년 말 현재 하원 의석 분배—국민 대회당 369 석, 공산당 34 석, 자유당 26 석, 인민당 14 석, 인민 사회당 12 석, 기타 49 석.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4월 9일에 조직되였으며 1963년 7—8월에 일부 개조되였다. 수상 겸 외상 쟈와하를랄 네루 (1964년 5월 27일 사망), 재정상 티. 티. 크리쉬나마챠리, 내상 굴자릴랄 난다, 국방상 야쉬완트라오 발완트 라오 챠반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되였다. 현 지도부의 수정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당은 사실상 좌우 두파로 분렬되여 있다. **국민 대회당** 1885년에 조직된 부르조아 정당이며 독립 이래의 집권당이다. 기타 부르조아 반동 정당으로서 **자유당, 인민당, 인민 사회당** 등이 있다. 사회 단체로는 **전 인도 로조 대회**(공산당계), **인도 전국 로조 대회**(국민 대회당계), **전 인도 농민 협회, 인도 전국 녀성 련맹, 전 인도 청년 련맹, 인도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인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인도—조선 친선 협회** 등이 있다.

【주요 국내 사건】 인도 정부는 1963년 1월 4일 《태만하는》 정부 공무원들을 감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수정한 《방위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월 17일에는 《비상 사태》(1962년 10월 26일 선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선포하였고 12월에는 예방 구금법을 연장할 데 대한 결의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네루는 전국을 하나의 군사 조직체로 전변시키려고 시도하면서 1월 26일 《전 인도 농촌 지원군》을 조직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정

국 55만여 개 농촌의 장정들에게 이 《지원군》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도 정부는 1963년 2월 24일 현재 769명의 공산당원을 포함한 910명의 진보적 인민들을 체포하였으며 신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각 주 정부에 소위 《신문 고문 위원회》의 설치를 지시하였다.

1963년 1월 9일 네루 정부는 《방위법》을 발동하여 《금 통제법》을 공포하고 약간의 장식품을 제외한 일체 금 소지품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인민들에게 요구하였다.

4월 8일 국방상 챠반은 국회에서 국방력을 2배로 증가시킬 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네루 정부는 1963—1964년도 군사비 지출을 전년도의 2.4배로 증가하였다.

반동 지배층의 반중국 깜빠니야와 탄압, 수탈 정책으로 네루 정권과 국민당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5월에 국민 대회당의 세력 중심지인 북방주에서 진행된 하원 보충 선거에서는 국민 대회당이 참패를 당하였다.

비상 사태 하에서도 인민들의 투쟁은 앙양되여 8월 14일 뉴델리에서는 2만 명이 참가한 독립 이래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단행되였는바 시위자들은 네루의 사직을 요구하였다.

로동자들의 파업, 시위도 련일 일어 났다. 1962년 11월에 시작한 봄베이시 공무원들의 파업은 확대되여 8월 20일에는 140만 봄베이시 내 로동자들 중 100만 명이 이에 합류하였으며 시내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하여 재정상 데사이를 비롯한 6명의 각료들이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정부의 《금 통제법》에 의하여 생계를 잃은 50여 만의 장공들이 집회, 시위 등으로 정부의 금 수탈 정책에 항의하여 나섰으며 5월 21일에는 수천 명의 은장공들이 네루의 집 앞에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대외 관계】 네루는 1월 11일 중인 국경 문제에 관한 콜롬보 회의 건의안을 가지고 인도를 방문한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와 회담하였다. 1월 25일 인도 국회는 이 건의안을 쌍방 회담의 기초로서 접수한다는 것을 선포하였으나 네루는 중국의 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국경 지대에서 계속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다.

네루는 1월 4일 중인 국경 문제를 헤그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였으며 서방의 군사 원조로 군사력을 확장하였다.

네루는 1월 25일 미, 영, 카나다, 호주 공군 대표단과 《대공 방위 계획》을 토의하였으며 2월 1일에는 미국 국방 생산 대표단과 군수 생산 문제를 협의하였다.

4월에는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인도를 방문하고 네루와 반중국 깜빠니야에 대하여 밀담하였고 5월에 경제 국방 조정상 크리쉬나마챠리, 동 부상 부랄링감, 외무 부상 데사이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파견하였으며 6월에는 대통령 라다크리쉬난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군사 원조 문제를 협의하였다.

인도는 13개 사단의 현대화, 초음속 전투기, 폭격기, 대공 미싸일의 제공, 군비 확장 3개년 계획에 필요한 15억 딸라의 차관 등 내용의 《원조》를 미국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 7월 22일 량국 간에 《대공 방위 협정》이 체결되였는바 이에 의하면 미국은 중인 국경 일대에 레이다 망을 설치하며, 미, 영, 인도 공군은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 연습을 진행하게 되였다.

이에 근거하여 10월에 첫 공동 군사 연습이 진행되였다. 《시카고 산 타임스》지는 《공개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미, 영 량국과 인도 간에는 현재 사실상 군사 동맹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네루는 계속 《쁠럭 불가담 정책》을 고창하면서 반중국 깜빠니야에서 쏘련과 기타 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책동하였다.

인도 지배층은 네팔과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내상 샤스트리를 네팔에 파견하였으며 8월에는 네팔 왕을 인도에 초청하였고 11월에는 대통령이 네팔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네팔을 반중국 깜빠니야에 몰아 넣으려던 인도 지배층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량국 관계는 큰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관계는 지난 해 더욱 첨예화되였다. 1962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쌍방 간의 각료급 회담은 6차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5월 16일 드디여 결렬되였다. 4월 말에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5월 초에는 영 련방상 샌디스가 인도 및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쌍방 간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쌍방은 카슈미르의 현 정화선 일대를 국제화하고 사실상 정화선을 국경선으로 고정시키려는 조정안을 배격하였다.

경 제 인도는 아직 농업국으로 남아 있다. 인구의 70～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민 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2% 이상에 달한다.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제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경제는 더욱 소수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다.

1961년 3월 말 현재 10명의 대자본가들이 인도의 전체 개인 공업의 약 70%를 통제하고 있었다. 국가 독점 자본은 최근 년간 급격히 장성되였는바 137개의 회사 자본은 52억 4,400만 루피 즉 인도 전체 주식 회사 자본 총액의 30.4%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철도의 100%, 수리 관개의 5분의 4, 전력의 3분의 2 등 국가 경제 명맥을 독점하고 있다.

인도 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1962년 말 현재 외국에서 받은 《원조》

총액은 382억 3,370만 루피였다. 외국 사 자본의 투자액은 1955년의 45억 6,100만 루피로부터 1960년에는 69억 500만 루피로 증가되였다.

이러한 《원조》와 외국 자본 투자로 인도는 완전한 채무국으로 되였는바 제 3차 5개년 계획 기간만 하여도 차관 상환액은 69억 1,700만 루피(매년 13억 8,300만 루피)이고 무역 적자는 매년 40억 루피이며 리윤으로 10억 루피를 지불하여야 한다.

인도의 제 3 차 5 개년 계획은 극도의 재정난으로 수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11월 26일 인도 계획 위원회의 중간 보고는 1966년 말 계획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게 되였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보고에서는 지난 2년 간 국민 소득은 계획에서 5%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였으나 2.5% 밖에 장성되지 못했으며 그것도 인구 증가률이 2.5~2.7%라는 것을 타산하면 국민 소득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인도 경제는 1963 년도에 더욱 군사화되였다.

[공업] 인도 공업은 이 지역 나라들 중에서 비교적 발전한 편이다. 최근 년간 미국 자본의 대대적 도입으로 공업이 확장되였으나 이것은 인도 경제를 더욱 외국 자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2—1963 년도 공업 장성 비률은 군수 주문에 의한 자극으로 전해의 장성 속도를 유지하였으나 1960—1961 년도에 비하면 3%나 저하되였다. 비군사적 부문인 방직, 제탕, 화학 비료, 부속품 제작 공업 부문의 장성률은 더욱 낮으며 특히 심한 것은 중소 기업들이다.

인도의 1만 개소의 소형 주조 공장들은 대부분이 문을 닫았으며 서부 벵갈 지방의 700 개 방직 공장이 조업을 정지했고 북방 주들에서 600 개의 기름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2
전력 (억kWH)	191	214.8
석탄(100만 톤)	56	61.3
선철 〃	5.1	5.9
강철(1만 톤)	405	508
세멘트(100만 톤)	8.2	8.6
황마 제품(1,000 톤)	970	1 187
면직물(100만 메터)	4 702	4 561
사탕(100만 톤)	2.7	2.8
질소 비료(1,000 톤)	98.7	142.2
류안 비료 〃	53.8	62.9

[농업] 경지 면적은 약 1억 4,708만 헥타르로서 농촌 토지 면적의 45%이다. 농가 호수의 75%인 빈농이 전체 경지 면적의 겨우 12.5%를 소유하고 있으며 4%의 지주들이 전 경지 면적의 34%, 8.5%의 부농들이 31.5%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관개 면적은 전체 경지의 약 17%이며 1962 년도 시비량은 계획보다 10만 여 톤이 적은 40만 4,000 톤 수준에 머물었다. 알곡 생산은 1961—1962 년도의 7,982만 톤으로부터 1962—1963 년도에는 7,750만 톤으로 감소되였다.

인도는 매년 300만~400만 톤의 알곡을 수입하고 있다. 1962년 말 현재 미국 잉여 농산물의 수입액은 118억 8,200만 루피에 달하였는바 이는 인도에 대한 미국 《원조》 총액의 57%에 해당한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100만 톤)

	1960—1961	1961—1962
벼	33.66	33.61
밀	10.8	11.6
사탕수수	10.4	9.7
유종자	6.52	6.82
목화(10만 포대)	53.9	45
황 마	40.0	62.69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차, 면직물, 마제품, 광석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 설비, 목화 등이다. 주요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일본 등이다. 최근 년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도 급격히 장성하였다. 1961년도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수입이 7억 800만 루피, 수출이 5억 8,300만 루피였는데 1962년에는 수입이 11억 700만 루피, 수출이 8억 7,400만 루피로 늘었다.

[재정] 중앙 정부의 재정 예산은 국고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된다. 국고 예산의 주요 수입 원천은 주로 세금이며 지출은 국가 기관 행정비와 국방비이다. 자본 예산의 주요 수입 원천은 외국 《원조》, 공채 등이며 지출은 국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각 주 정부에 대한 대부이다.

2월 말에 국회에서 비준한 1963—1964 년도(재정 년도는 4월—다음해 3월) 재정 예산은 수입 158억 5,730만 루피, 지출 185억 2,400만 루피이며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의 36억 6,000만 루피에 비해 약 2.4 배인 86억 7,400만 루피로 늘어 전체 지출 총액의 46% 이상을 차지한다. 그후 인도 국회는 군사비 지출을 지출 총액의 51%까지 증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1963년도 재정 적자는 45억 루피에 달하였는바 이것은 그 전해의 24억 루피의 근 2 배로서 독립 이래의 최고 수준이다.

1963—1964 년도 예산에서 계획한 세금 징수 총액은 27억 5,000만 루피(1956—1957년도부터 1961—1962년도까지의 6 년간 세금 총액과 같음)인데 그중 70% 이상은 일반 인민들의 부담으로 되고 있다.

사 회 1962년 인도 계획 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인도 인민의 60%가 최저 생계비인 년 300 루피 수준을 유지 못 하고 있는바 그중 6,000만 명의 년 수입은 114 루피, 4,000만 명은 91 루피, 2,000만 명은 45 루피 밖에 안 된다.

1963년 9월 현재 생계비는 1년 전에 비하여 40%나 뛰여 올랐으며 6월에 쌀 값은 그 전해 동기에 비하여 25%, 사탕은 54%, 직물은 40%, 일용품은 10~20% 올랐다.

【출판】 통신—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피. 티. 아이)

신문—뉴 에이지(공산당 기관지), 스와디나타(서부 뱅갈 공산당 기관지), 나브 바라트 (국민 회의당 기관지), 인디안 엑스프레스,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파 키 스 탄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면적】 94만 7,695 km², 그중 동부 파키스탄 14만 1,157km², 서부 파키스탄 80 만6, 538 km²

【인구】 9,381만 명(1961년)

국어는 뱅갈어 (동부 파키스탄에서 많이 사용한다)와 우르드어 (서부 파키스탄에서 많이 사용)이고 1972년까지는 영어도 공용어로 사용한다.

【수도】 라왈핀디 (주민 34만 명, 1961년)

정 치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의 일부분으로서 1858 년부터 영국의 직할 통치 하에 있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영 식민주의자들의 정책에 의하여 인도에서는 인도교도와 회교도들 간에 오래 동안 분쟁이 계속되였다.

1947년 8월 14일 파키스탄은 인도와 분리하여 영 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6년 3월 새 헌법에 의하여 영 련방 내의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파키스탄은 세아토(1954년 9월)와 쎈토(1955년 9월)에 참가하였다. 1958년 10월 정변이 일어나 군사 정권이 수립되였다. 군사 정권은 국명을 파키스탄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1959년에 미국과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 3월 1일 새 헌법이 발포되고 5월에 국민 의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7월 15일 채택된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 활동이 재개되였다. 1964년 1월 15일 대통령이 비준한 헌법 수정안에 의하여 나라 이름을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으로 고쳤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 수는 150 명(동서 파키스탄에서 각각 75 명, 의원 중 녀성 6석)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국민 의회는 1962년 6월 8일에 성립되였다.

【정부】 1962년 6월 13일 성립되였다.

대통령 겸 국방상 아유브 한, 외상 알리 부토.

【정당】 1958년 10월 정변 후 모든 정당이 해산되였다가 1962년 7월부터 정당 활동이 재개되였다. 그러나 구 정객들의 활동은 계속 금지되고 있다.

【주요 사건】 1963년에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였다. 1962년 12월 27일부터 1963년 5월 16일까지 카슈미르 문제에 관한 파키스탄 인도 간의 회담은 여섯 차례 진행되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결렬되였다. 회담에서 파키스탄은 국민 투표의 방법으로 카슈미르의 귀속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량국 간에는 카슈미르 휴전선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동부 국경 지대에서도 빈번한 충돌 사건이 일어 났다.

인도에 대한 군사 원조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였다. 4월 15일 외상 부토는 카라치 종합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인도에 대한 서방의 군사 원조는 파키스탄이 미, 영과의 친선 관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8월 5일 아유브 한 대통령은 키따에서 열린 군중 대회에서 서방이 인도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중국이 인도를 반대하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도의 론거는 무근거한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3년 1월 6일 아유브 한 대통령은 쎈토와 세아토가 파키스탄의 안전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언명하였으며 부토 외상은 7월 8일 파리에서 열린 세아토 리사회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4월과 7—8월에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인도에 대한 군사 원조와 파키스탄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며 군사 뿔럭의 탈퇴를 요구하는 군중 대회들과 시위들이 광범히 벌어졌다.

1963년에 중국과의 친선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다. 1962년 12월에 달성된 합의에 근거하여 1963년 3월 2일 북경에서 량국 간의 국경 협정이 조인되였으며 통상 협정(1963년 1월 5일)과 항공 협정(1963년 8월 29일)이 체결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과 중국 간의 친선 관계를 파괴하려고 각종 압력을 가하였다. 7월 5일 미 국무성은 파키스탄과 중국 간의 항공 협정 체결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협정 체결 다음 날인 8월 30일에 미국은 다카 비행장 건설과 관련된 파키스탄과의 차관 협정 체결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9월 초에는 케네디의 특사로 국무 차관 볼을, 12월에는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테일러를 각각 파키스탄에 파견하였다.

아유브 한 대통령이 네팔(5월), 쎄일론(12월)을 방문하였고 6월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1961년 이래 단절되였던 아프가니스탄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으며 6월에는 몽고와 외교 관계 설정에 합의를 보았다.

파키스탄은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소집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네포에 참가하였다. 12월 5—9일에 카라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제 4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 파키스탄은 주민의 89%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석유, 석탄, 천연 가스, 크롬광, 우라늄광, 철광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공업으로는 방직, 황마 가공, 제탕, 세멘트, 성냥, 담배 공업 등 주로 경공업이 있다. 1962년에 석탄은 89만 2,000톤, 석유는 47만톤, 세멘트는 137만 3,000톤, 면직물은 6억 6,280만 메터, 황마 제품은 28만 6,400톤, 사탕은 18만 4,600톤 생산되였다.

국민 소득에서 농업 생산액은 약 59%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황마, 목화, 차, 밀, 벼, 보리, 담배 등이다. 파키스탄은 황마 생산에서 세계 생산의 약 60%, 목화 생산에서 세계 제 5 위를 차지한다. 1961—1962년에 목화는 32만 7천 톤, 벼는 1,537만 6천 톤, 황마는 124만 4천 톤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황마, 목화, 양모, 피혁, 차 등이며 수입품은 면직물, 기계, 금속, 차량, 약품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영국, 일본, 서독, 인도 등이다.

인구의 87%가 회교도이다.

【출판】 통신—파키스탄 련합 통신 (에이. 피. 피)

신문—돈, 파키스탄 타임스, 이브닝 스타, 러더, 파키스탄 옵써버

쎄 일 론

Ceylon

【면적】 6만 5,610 km²

【인구】 1,040만 명(1962년말)

싱하리족 68%, 타밀족 23%, 기타 민족이 9%이다. 1961년 1월 싱하리어를 국어로 결정하였다.

【수도】 콜롬보 (주민 45만 명)

정 치 쎄일론은 근 5세기 동안 포도아와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았으며 1795년부터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쎄일론 인민의 장기간에 걸친 민족 해방 운동의 결과 1948년 2월 4일 쎄일론은 영 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6년 총선거에서 1947년 이래 집권하였던 통일 국민당이 패배하고 솔로몬 반다라나이케의 자유당이 집권하였다. 쎄일론은 식민주의 후과를 청산하며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중립,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에 들어섰다.

1959년 9월 미제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암살되고 그후 통일 국민당이 집권하였다.

1960년 7월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한 결과 자유당 내각이 다시 성립되고 반다라나이케 수상의 미망인인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가 세계 최초의 녀성 수상으로 되였다.

1961년 1월 1일부터 싱하리어를 공용어로 제정한 정부 결정에 대하여 련방당과 타밀인이 타밀어에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비협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년 4월 비상 사태가 선포되였다가 1962년 4월 해제되였다.

1962년 1월 일부 군대 및 경찰 두목들과 반동 세력들이 조직한 반정부 음모 사건이 있었다.

쎄일론 정부가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1961년 5월 《석유법》을 발표하고 미, 영 독점체들의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자 미제는 쎄일론에 대하여 각종 압력을 가하는 한편 부당하게도 4,100만 루피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1963년 1월 18일부터 배상금 지불 문제와 관련하여 네 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미제의 위협과 압력으로 중단되였다.

미제는 2월 8일 쎄일론에 대한 《원조》 중지를 선포하였다. 그후 쎄일론의 고무, 야자유 가격을 인하하며 쎄일론의 차 수입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압력을 가하였다.

2월 8일 쎄일론 정부는 미제의 압력을 규탄하여 채택한 결정에서 《이번 체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쎄일론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자기 자신의 부원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반다라나이케는 특별 각의에서 《대외 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나라의 자유로운 행동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명하고 정부는 쎄일론 석유 회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정부의 단호한 립장을 지지하여 2월 16일 콜롬보에서 《쎄일론은 좋고 양키는 나쁘다》, 《아세아 기금은 물러가라》는 구호 하에 강력한 반미 시위와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을 박차고 쎄일론 국회는 1963년 7월 《쎄일론 석유 회사 보충 법안》을 채택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1963년 말까지 일체 외국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2월 12일 공공 기관들에서 채용한 외국인들을 1965년까지 쎄일론인으로 교체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2년 12월 31일부터 1963년 1월에 걸쳐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국과 인도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무역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963년 5월 우리 나라 무역 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4년 1월 25일에는 량국 간의 령사 관계가 설정되였다.

1963년 10월 12—25일까지 쎄일론 국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이 쎄일론을 방문하였다. 1963년 9월 13일 조선—쎄일론 친선 협회와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간에 1963—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를 평양에서 조인하였다.

【총독】 윌리암 코팔라와(1962년 3월 1일 취임)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 30명 중 반수는 하원에서 선거하며 반수는 총독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2년 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 의원 157명 중 151명은 선거하며 6명

은 총독이 임명한다. 임기는 5년이다.

1963년말 현재 하원에서 자유당이 81석, 통일 국민당이 30석, 공산당이 4석, 평등 사회당이 12석, 련방당이 16석, 기타가 14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국회(하원)에서 다수파를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으로 임명된다.

현 내각은 1960년 7월 2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국방상 및 외무상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재정상 티. 비. 일란가라트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 창건되였다. 1964년 1월 제 7 차 대회에서 35 명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로서 새로운 중앙 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총비서 피. 쿠마라시리 **자유당**(집권당) 1951년 7월에 결성되였다. 싱하리족 민족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농민들 속에서 일정한 지반을 가지고 있다. 이 당은 중립적인 대외 정책의 실시, 공화국의 선포, 외국인 은행 및 보험 회사의 국유화 등을 정강으로 내놓고 있다. **통일 국민당** 1943년에 결성되였다. 외국 기업소의 국유화를 반대한다. 당수 두들레이 세나나야케 **인민 련합 전선**(일명 혁명 평등 사회당) 1935년에 결성되였다. 쎄일론의 중립과 외국인 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좌익 정당이다. 당수 필리프 구나와르데나 **평등 사회당** 트로츠키 정당이며 외국인 소유 재배원의 국유화, 영 련방으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한다. 당수 엔. 엠. 페레라 **련방당** 1948년에 결성되였다. 주로 타밀족을 대변하며 련방 정부의 조직을 주장한다. 당수 에스. 제이. 브이. 첼바나야캄 **민주당**(우익 정당), **로동 조합 련맹** 1940년에 결성되였다. 위원장 웜슨 페르난도, 총비서 산무가타산 **공산주의 진보 청년 동맹** (세계 민청에 가맹), **스리랑카 자유당 청년 동맹** (자유당의 청년 조직, 세계 민청 가맹), **쎄일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1958년에 성립되였다. 위원장 테자 구나와르다나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1961년 10월에 결성되였다. 위원장 라트네[illegible]데샤 프리아[illegible]세나나야케

경 제

쎄일론은 차, 고무, 야자 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국이다. 경지 면적은 145만 5,200 헥타인데 그중 3분의 1은 차, 고무, 야자 재배원이다. 1962년에 차는 1955년 보다 23% 증가된 21만 2,000 톤, 쌀은 1957년 보다 70% 증가된 68만 4,000 톤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흑연(매장량 세계 제 1 위), 철, 운모, 석고, 형석, 보석 등이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은 주로 농산물 가공업이며 가내 공업이 많다. 1963년 공업 총생산액은 국민 소득에서 약 5%를 차지하였다.

무역은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외 무역은 국민 소득의 32%, 관세 수입은 국가 재정 수입의 약 48%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차, 고무, 야자 등이며 수입품은 쌀(1962년에 약 50만 톤 수입)과 석유, 소비품 등이다. 1963년 수출 초과액은 이 나라 무역에서 최고 기록인 2억 3,000만 루피에 달하였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중국, 미국, 쏘련 등이다.

최근 년간 쎄일론 정부는 외국 자본을 점차 구축하면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56년—1962년간에 약 1,000 개의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1958년에는 철도 수송과 콜롬보항을 국유화하였다. 1962년 4월에는 쎄일론 석유 회사를 창설하고 1964년 1월말까지 미, 영 독점 자본인 750 개의 석유 공급소들을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이 나라 석유 시장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막대한 리윤(미국 독점체들만도 매년 2,000만 루피)을 짜내던 외국 석유 독점체들을 몰아내고 1964년 1월 1일부터 석유 제품의 수입 및 분배와 관련한 일체 사업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또한 1963년까지 외국 은행과 106개의 보험 회사(그중 영국이 8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쎄일론 국내 보험 업무의 80% 내외를 장악하고 있다)들을 접수하여 국영 보험 회사와 인민 은행을 창설하였다.

차 및 고무 재배에서도 영국인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 1956년부터 1962년 간에 영국인 차 재배 면적은 49%로부터 40%로, 고무 재배 면적은 34.8%로부터 15%로 감소되였다. 무역, 상업 분야에서도 쌀, 사탕, 밀 수입을 국가가 장악하였다.

1962년에 정부는 경제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년산 6만 톤 능력의 철강 공장과 340만 대의 농기구와 농기계를 생산할 금속 가공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1962년에 국영 공업 기업소들의 생산액은 1957년에 비하여 3배로, 사회 총생산액은 3.6% 장성하였다.

사 회

각급 학교 수는 1955년의 6,700여 개로부터 1962년에는 7,540여 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에 학생 수는 75만 명 장성되여 188만 명에 달하였다. 대학으로는 유일한 종합 대학인 국립 쎄일론 대학 외에 불교 대학이 있다.

쎄일론에서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교육 체계는 통일되여 있지 않다.

싱하리족은 불교를 믿으며 타밀족은 인도교를 믿는다.

【출판 보도】 통신—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쎄일론

신문 —스리랑카(자유당 기관지), 쎄일론 데일리뉴스(영문), 쎄일론 옵써버(영문), 디나미나(싱하리어), 쟈나타(싱하리어), 타임스 오브 쎄일론 엘티디, 탄카디파(싱하리어), 비라케사리(타밀어)

말 디 브

The Sultanate of Maldive Islands

말디브는 쎄일론 서남쪽 640 키로메터 떨어진 인도양 상에 있다. 1,0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약 200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제일 큰 것이 말레섬이다.

【면적】 298 km²

【인구】 10만명(1959년)

인도인, 말라이인, 아랍인 등이 살고 있다.

【수도】 말레(주민 1만 2,000명)

【추장】 알 아미르 모함메드 파리드 디디

【수상】 아브라힘 나시르 (1957년 12월 취임)

말디브는 1887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2년에 형식상 독립하였으나 영국이 외교권을 행사한다.

영국은 1960년 2월 말디브와 협정을 체결하고 말디브의 간도 기지를 비롯한 기타 군사 시설들의 사용권 (1956년부터 30년간)을 강탈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과 무역에 종사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들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왕국)

Afghanistan

【면적】 65만 5,000 km²

【인구】 1,470만 명(1963년)

아프가니스탄인, 따지크인, 우즈베크인, 뚜르크메니야인 외 20여 종족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푸슈토어와 페르샤어이다.

【수도】 카불 (주민 31만 명)

정 치 아프가니스탄은 1878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고조된 인민들의 반영 투쟁에 의하여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5월 27일 독립하였으며 1921년에 법헌 군주국으로 되였다.

회교 (주민의 95%가 신자)가 정치, 경제, 사회 령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왕도 회교 교주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1926년 8월에 쏘련과, 1960년 8월에 중국과 각각 호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3년 11월 22일에는 중국과 국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1963년 8월에 부분적 핵 시험 금지에 관한 모쓰크바 조약에 조인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핵 무기의 완전 금지 및 청산에 관한 세계 각국 수뇌자들의 회의 소집을 제의한 중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의 서한을 지지하여 회답 서한을 보냈다.

1963년 10월 12—17일까지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장 브레쥬네브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였다.

1945년 7월—1962년 6월까지 2억 1,700만 딸라의 미국 《원조》를 받았으며 아프가니스탄 국민 회의 의장 아브둘 자히르(1963년 7월),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동년 9월)가 각각 미국을 방문하였다. 푸스토니스탄 지역의 병합 문제와 관련한 분쟁으로 1961년 5월 28일 단절되였던 파키스탄과의 국교 관계는 1963년 5월 28일 회복되였다.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 (1933년 즉위)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50 명이며 국왕이 임명한다(종신 의원). 하원 의원은 173 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내각】 국왕이 수상을 임명한다. 현 내각은 1963년 3월 1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모함메드 유수프, 제 1부수상 겸 재정상 아브둘라 말릭야르

경제, 사회 아프가니스탄은 농목축국이다. 주민의 85%가 이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이 국민 소득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지 면적은 190만~200만 헥터이나 대부분이 지주들에게 집중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사탕, 목화, 벼, 옥수수, 과실 등이다. 1962—1963년에 밀은 230만 톤, 목화는 8만 톤 생산되였다.

목축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가축은 면양, 염소, 소, 노새, 말, 락타 등이며 양모의 년 생산량은 약 8,000 톤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천연가스(매장량 6,000만m³), 금, 동, 석탄, 우라늄, 철, 은, 연, 흑연, 석면, 운모, 류황, 대리석 등이 있다.

최근 년간 방직, 제당, 기계 공장 등 현대적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나 아직 수공업이 위주로 되여 있으며 공업은 사회 총생산액에서 7%를 차지한다. 1962년에 전력은 1억 2,700만 와트시, 석탄은 6만 6,000 톤, 세멘트는 3만 톤 생산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1962년부터 농업 및 공업 생산을 증대하며 인재의 양성 및 자연 부원의 개발을 위한 제 2 차 5개년 계획 (1962—1966)을 수행하고 있다. 계획 년간 투자액은 제 1 차 5개년 계획의 2.7배에 해당하는 445억 아프가니인데 자금의 57%를 외국의 경제, 기술 《원조》로 충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1961년 10월 2 차 5개년 계획 기간에 3억 딸라 이상의 원조를 쏘련으로부터 받을 데 대한 경제 기술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목화, 양모, 과실, 융단, 양가죽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화란, 중국, 영국 등이다. 무역은 주로 파키스탄, 이란을 통하여 실현된다.

1962 학년도에 학생 수는 25만여 명, 학교 수는 1,600여개 있었다. 카불에 대학이 있다.

【출판】 통신—바크타르 통신 (국가 통신) 신문—이슬라 (정부 기관지), 아니스(반관변측 신문)

이 란

(이란 왕국)
Kingdom of Iran

【면적】 164만 5,000 km²

【인구】 2,300만 명 (1960년)

페르샤인이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기타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아랍인 등이 있다. 국어는 페르샤어이다.

【수도】 테헤란(주민 약 204 만명)

정 치 이란은 립헌 군주 국가이다. 이란은 1955년 10월 침략적인 쎈토에 가담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미국과 쌍무 군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에는 1만 2,000 명, 군사 부문에는 4,700 명의 미국 전문가들과 고문들이 침투하여 이란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그의 유지비로서 매년 2~3억 딸라를 지출하고 있다.

제 2 차 대전후 이란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여 1951년에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모사디크 정권이 수립되였으나 1953년에 미제의 사촉을 받은 반동들에 의하여 전복되고 친미 독재 정권이 수립되였다. 그 후 인민들의 반정부 기세에 의하여 1964년 3월까지 7차의 정권 교체가 있었으며 1960년 8월과 1961년 1월에 선거된 국회는 두 번이나 해산되고 말았다.

이란 통치 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지시하에 인민들을 무력으로써 탄압하는 동시에 계급적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량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60년과 1962년에 국왕은 두 개의 토지 개혁법을 발표하였으며 1963년 1월 26일에는 왕이 제기한 6 개의 사회 개혁안(농지 개혁법, 산림 국유화법, 토지 개혁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 기업소들의 불하법, 로동자들에 대한 리익금 분배법, 선거법, 문맹 퇴치를 위한 교사단 조직법)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진행되였다. 6월에는 극반동적 지주인 회교 승려들의 사촉하에 개량적인 《토지 개혁》마저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1963년 8월에 이란은 쏘련과 경제 원조 협정, 이라크와 석유 탐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파흘레비(1941년 9월 즉위)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60 명이며 그중 30 명은 국왕이 임명한다. 상원 의원의 압도적 다수는 인민 대회당이 차지하고 있다. 하원 의원은 200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국회는 1963년 9월 16일에 선거되였다. 하원 의석 200 석 중에서 인민 대회당이 180 석, 무소속이 20 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4년 3월 7일 성립되였다. 수상 하싼 알리 만수르, 외상 아빠스 아람

【정당, 사회 단체】 **인민당** 전신은 이란 공산당이다. 1941년 9월 20일에 성립되였다가 1949년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리자 라드마너쉬 **민족 전선** 1949년에 성립되였다. 쎈토 탈퇴, 중립 정책 실시, 인민들의 합법적 권리의 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족 전선 지도부 성원들을 《선동죄》라는 구실 밑에 수다히 체포하였다. **인민 대회당** 국왕의 사회 개혁안을 적극 옹호한다. 그 밖에 대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멜륜당, 마르돔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은 국민 소득(석유 수입 제외)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지 면적은 1,800만 헥타인데 그중 지주 및 추장들이 80%, 국왕이 5%, 승려들이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5%가 농민들에게 속한다.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배는 5:1로 실시되고 있다.

1962—1963년에 주요 농산물인 밀은 261만 3,000 톤, 목화는 9만 톤, 담배는 1만 3,500 톤, 사탕은 17만 1,300 톤 (1961—1962)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석탄, 철, 동, 망간, 대리석 등이 풍부하다. 석유 매장량은 50여억 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총 석유 매장량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석유는 1963년에 7,300만 톤 채취되여 세계 제 5 위를 차지하였다. 이란의 매개 유정의 단위당 생산량은 미국의 666 배, 베네주엘라의 27 배이다.

석유는 외화 수입의 78%, 국가 예산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이란 정부는 1953년에 《국제 석유 회사》(미, 영 자본이 각각 40%, 영—화란 석유 회사 자본이 14%, 불란서 자본이 6%)와 매국적인 석유 협정을 체결하고 40년을 기한으로 석유 채취 및 가공, 판매권을 이 회사에 양도하였다. 이 회사는 이란 석유 생산의 99%를 독점하고 있는바 1956—1962년 간에 3억 1,720만 톤의 석유를 생산하였으며 약 43억 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이란과 외국 석유 독점체들은 리익을 반분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상 이란의 몫은 3분의 1 밖에 안 된다. 아바단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이 있다.

대외 무역은 미국이 조종하고 있는데 매년 수입은 수출의 6 배이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목화, 실과 등이다. 석유는 1962년에 4,510만 톤, 1963년에 5,180만 톤(평가) 수출되였다.

매년 국가 예산의 50~60%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란은 생계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인데 그 지수는 매년 약 20% 씩 올라간다.

주민의 40%가 기아 상태에 있으며 40%는 반 기아 상태에 있다.

이 라 크

(이라크 공화국)
Republic of Iraq

【면적】 44만 4,442 km²

【인구】 700만명 (1962년)

주민의 79%가 아랍인이며 그 외에 쿠르드인(16%), 이란인 및 토이기인이 있다. 언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바그다드 (주민 108만 6,000명)

정 치 아랍 제국의 일부분이던 이라크는 17 세기초 오토만 제국에 정복 당하였다. 제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1914년 11월 영국 군대는 토이기 군대를 격파하고 이라크를 점령하였다. 1920년에 《국제 련맹》은 이라크를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만들었다. 이라크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자 영국은 1921년 바그다드에서 제 1 차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이라크에 《독립》을 부여하였으며 파이살을 국왕으로 하는 립헌 군주 제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930년에 영국—이라크 간의 불평등 조약(25년간 유효)을 체결하고 이라크의 두개 공군 기지 (하바니야와 사이바)의 사용권과 군대 주둔권을 강탈하였으며 치외 법권의 특권을 가졌다.

1932년에 《국제 련맹》은 이라크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를 페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정식 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4월에 이라크의 반동적인 누리사이드 정부는 미국과 비밀 《군사 원조 협정》을, 1955년에는 영국과 비밀 특별 군사 협정을 체결하고 침략적인 군사 쁠럭인 《바그다드 조약》에 참가하였다.

1957년에 이라크의 애국적 민주 력량은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1958년 7월 14일 카쎔을 위시한 군인 집단은 민주 력량의 지지 하에 군사 정변을 일으켜 반동적인 파이살 왕조를 전복하고 이라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9년 3월에는 《바그다드 조약》에서 탈퇴하고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한 영국 군대를 철거시켰다. 동시에 미국과 체결하였던 3개의 예속적인 협정을 페기하였다.

우리 나라는 1959년 7월 23일 이라크와 통상 및 지불 협정과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3년 1월 22일에는 1963—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에 조인하였다.

카셈 정권은 초기에 대내적으로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집권 1년 후부터는 진보적인 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개인 군사 독재를 실시하였다. 이리 하여 카셈 정권은 점차 인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였다.

1959년 3월 바아스당이 일으킨 모술 반란, 1959년 10월 카셈 암살 미수 사건, 《카셈 타도 운동》 등이 련이어 일어났다.

1963년 2월 8일 아레프를 비롯한 장교 집단이 바아스당과 합세하여 정변을 일으켜 카셈 정권을 전복하였으며 아레프를 대통령으로 하는 바아스당 정권을 수립하였다.

2월 7일 이라크 혁명 리사회는 모든 이라크 신문의 출판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4월 5일에는 이라크 공산당의 인쇄소와 출판사들을 몰수하였다.

2월 9일 혁명 리사회는 이라크에서 석유 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회사들에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부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월 18일에는 카셈 시기에 실시하였던 수출입 제한 조치를 철페하였다.

10월 5일 쿠웨이트에 대한 령토적 요구를 취소하고 그 나라를 정식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 승인하였으며 영국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라크 정부는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아랍 통일》의 구호 하에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다.

2월 19일 각료 리사회는 1958년 아련과 체결한 무역 경제 협조 협정을 회복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3년 11월 18일 바아스당 독재에 불만을 품은 아레프 대통령은 군사 정변을 일으켜 바아스당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아레프 정부는 대내적으로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영 석유 회사를 설치하거나 중공업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토지 개혁》등 《민주주의적》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중립》, 《쁠럭 불가담》,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아랍 국가들과의 확고한 관계 수립》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고 하면서 《조건부 없고 이라크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 한 어떤 나라의 원조도 환영한다》고 선포하였다.

【전국 혁명 리사회】 1964년 5월 11일 《혁명 리사회》를 창설할 데 대한 법령에 의하여 정식 창설되였다.

혁명 리사회는 20명의 장교들로 구성되였으며 국가 예산 승인, 국제 협정 및 조약의 비준, 선전 포고 및 정전 체결, 파도기의 전반적 국가 사업 지도 및 국가 안전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외장 아브델 살람 모하메드 아레프

【대통령】 아브델 살람 모하메드 아레프 (1963년 2월 8일 취임)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11월 20일 21명의 각료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타헤르 야히야, 외상 소브히 아브델 하미드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1일 창건되였다. 현재 비법화되여 있다. 바아스당 1943년 북

부 도시 알레포에서 창건되였다. 《자유》, 《통일》,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일체 애국 력량들을 탄압 학살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친 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을 적대시하였다. **쿠르드 민주당** 1945년에 창건되였다. 주로 쿠르드족 부락 성원들로 구성되여 있다. 쿠르드족의 내부 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민족 차별 정책과 탄압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 자치를 요구하여 장기간의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오다가 1964년 2월 10일 정부와 정화를 실현하였다. 지도자 무스타파 바르자니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 이상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1,200만 헥터이고 그중 경작지는 175만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대추, 야자, 밀, 보리, 쌀, 목화이다. 대추는 매년 평균 35만톤 생산된다. 이라크는 세계 대추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1963년에 밀은 45만톤, 쌀은 35만톤 (1962—1963년) 생산되였다. 식량은 자급 자족 못하며 수입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연, 석탄, 동, 망간, 니켈, 대리석 등이 있다. 1961년에 이라크에서는 연, 류황, 린산염, 방사성 광물 산지들이 발견되였다. 그중 석유가 가장 많으며 그 매장량은 33억 5,300 만톤(자본주의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0%)이다.

공업에서는 원유 채굴이 위주로 되고 있다.

1963년 석유 생산량은 5,550만톤, 1964년에는 6,150만톤에 달하였다.

석유세 수입은 이라크 재정 예산의 44%, 국민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라크 정부는 국영 석유 회사를 설치하고 석유 자원을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석유 리권은 의연히 영국, 불란서, 미국, 화란 자본으로 구성된 《이라크 석유 회사》 (영국은 45%, 미국, 불란서, 화란은 각각 15%)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이라크 석유 회사》는 이라크 령토의 98%의 지역에서 석유 개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매년 4억 6천만 딸라 이상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현 정부는 이라크 령토 내에서 외국 석유 회사들의 《석유 개발권》과 《석유 자원 리용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다고 정식 선포하였다.

이라크에는 43만 키로와트의 능력을 가진 4개의 화력 발전소와 년산 140만톤 능력의 세멘트 공장이 있다.

가공 공업의 주요한 부문은 석유 공업 외에 방직, 식료, 피혁, 건재 공업 등이다. 기업소들의 약 57%는 20명 미만의 소규모 공장들이다.

주요 수출품은 대추, 가축, 보리, 양모, 수공업 제품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쏘련, 중국, 아랍 국가들이다.

1962년 말 현재 각급 학교 수는 4,080 개, 학생 수는 111만 9,386 명이였다.

전 인구의 95%가 이스람교를 믿으며 극 소수가 기독교 또는 유태교를 믿고 있다.

【출판 보도】 통신— 이라크 통신사

신문— 알 타우라, 알 쥼 후리아, 알 마나르

씨 리 아

(씨리아 아랍 공화국)

Syrian Arab Republic

【면적】 18만 7,000 km^2

【인구】 530만 7,753명 (1963년 말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이고 그 외에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토르크만인, 쎄카시아인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며 영어와 불어도 사용한다.

【수도】 다마스커스(주민 60만명)

정치 9 세기 이전에 씨리아는 아랍 제국의 일부였다. 16 세기에 토이기에 강점 당하여 오토만 제국에 편입되였다. 제 1 차 대전 후 《국제 련맹》의 결정으로 1920년 4월에 불란서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제 2 차 대전 중인 1941년 9월 27일에 《자유 불란서군》 사령관은 련합군의 명의로 씨리아의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영국과 불란서 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1946년 4월 17일 영국과 불란서 군대가 씨리아로부터 철거함으로써 씨리아는 독립적인 자주 국가로 되였다. 씨리아 인민들은 이 날을 자기들의 민족적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1949년 3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다섯 차례의 정변을 거쳐 1958년 2월 21일 애급과 통합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 28일에 일어난 군사 정변으로 씨리아는 아랍 련합 공화국에서 탈퇴하여 씨리아 아랍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2년 3월 28일 또다시 군사 정변이 일어나 아젬을 수상으로 하는 우익, 좌익 및 중간 파의 련립 정부가 구성되였다.

【전국 혁명 리사회】 1963년 3월 8일에 있은 군사 정변 후 조직되였다.

의장 아민 하페즈 (수상 및 군사령관 겸임)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11월 12일에 구성되였다. 수상을 비롯하여 대다수 각료들은 바아스당원이다.

수상 아민 하페즈, 외상 하싼 므헤웨드

【정당, 사회 단체】 1961년 9월 28일 정변후 정당 활동은 비법화되였다. **씨리아 공산당** 1930년 씨

리아와 레바논의 공산주의 조직들이 통합되여 씨리아 및 레바논 공산당으로 창건 되였다가 1958년 11월에 다시 씨리아 공산당과 레바논 공산당으로 각각 분리되였다.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슈

바아스당(집권당) 1953년 아랍 부흥당과 아랍 사회당이 합당하여 아랍 부흥 사회당(일명 바아스당)을 창건하였다. 이 당은 씨리아에 본부를 두고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아덴 등과 기타 아랍 국가들에 비밀 조직과 지부를 가지고 있다. 당은 아랍의 민족 부르죠아지, 소부르죠아지(상인 계층), 지식인(장교 포함)들로 구성되여 있다. 총비서 무니프 라즈자즈, 씨리아 지역 전국 총비서 아민 하페즈 진보적 직업 련맹(바아스당의 외곽 단체), 씨리아 로동자 회의(세계 직련 성원), 로동자 직업 련맹

【주요 사건】 1963년에 씨리아의 정치 정세는 불안정하였다.

1월과 2월 다마스커스를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의 반정부 음모, 3월 3일 군대 내에서의 반정부 폭동, 1월 말—2월 초 바아스당 계렬 각료들을 비롯한 9명의 상의 사임 등으로 아젬 정부의 위기는 극도에 달하였다.

3월 8일 아타시를 비롯한 륙군 장교들이 바아스당과 합세하여 군사 정변(제 2 차 대전 후 여덟번째)을 일으켰다.

아젬 정부는 전복되고 아타시를 의장으로 하는 전국 혁명 리사회가 조직되였으며 3월 9일 비타르(바아스당)를 수상으로 하는 신 정부(그 중 바아스당원 14명)가 수립되였다.

비타르는 집권하자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 및 애국적 세력들에 대한 대중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4월 말에 군부 내에서는 100여명이 추방되였으며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5월 2일 부수상 카셈을 비롯한 6명의 각료들이 사임하였다.

5월 8일 다마스커스와 알레포에서 대규모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발포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국내 정치 정세와 관련하여 5월 11일 비타르 내각이 총사직하였으나 5월 13일에 다시 비타르를 수상으로 하는 바아스당 내각이 성립되였다.

7월 18일 륙군 부대 내에서 반정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진압되였다.

7월 말에 아민 하페즈가 전국 혁명 리사회 의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아민 하페즈가 수상을 겸임하는 바아스당 내각이 구성되였다.

씨리아 정부는 4월 17일 아랍 련합 공화국, 이라크와 3개국 련합 헌장에 조인하였으나 그 후 련합 방법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련합은 실현되지 못 하였고 7월 이후 씨리아와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였다.

10월 27일 바아스당 대회에서 씨리아는 이라크와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일 씨리아는 이라크와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의 협조를 촉진하며 완전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10월 8일에는 량국 합동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경제, 사회 씨리아는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계속되는 정치 위기로 경제는 정체 상태에 있다.

농업은 국민 소득의 65%를 차지하며 경지 면적은 400만 헥타르, 그중 87%는 인구의 1%도 못 되는 지주, 자본가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봉건적 토지 관계로 하여 농업 발전은 저애를 받고 있다.

토지 개혁으로 1963년 말 현재 85만 헥타르의 토지가 유상 몰수되여 1만 9,067호의 농가 (전 농가의 3.5%)에 16만 9,900 헥타르가 유상 (40년 기한으로 땅 값을 국가에 지불한다.) 분배되였다.

1962년에 주요 농산물인 밀은 137만 4,000 톤, 보리는 79만 8,000 톤, 목화는 15만 7,000 톤, 사탕무우는 8만 1,000 톤, 포도는 25만 4,000 톤, 올리브는 8만 7,000 톤, 담배는 7,600 톤 생산되였다.

목축업은 경제의 주요 부문이나 1958년후 계속된 흉작으로 말미암은 사료난으로 가축 두수는 감소되고 있다. 1962년에 양은 381만 두, 소는 23만 1천 두 있었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회석(매장량 5억여 톤) 연, 동, 안티몬, 천연 가스, 석유 (매장량 4억 톤) 및 기타 유용 광물들이 매장되여 있다.

가공 공업으로는 주로 수공업과 반수공업적인 방직, 식료, 세멘트, 피혁, 착유, 비누, 유리 공업 등이 있으며 그중 방직 및 식료 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였다. 방직 공업(면 방직 공업이 기본)은 공업 생산액의 근 절반을 차지한다.

1962년말 현재 15개의 타면 공장, 19개의 제사 공장, 100개의 방직 공장, 70개의 메리야스 공장 등 중소 규모의 섬유 가공 및 면직물 공장들이 있었으며 이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만 3,000여명이였다.

주요 수출품은 목화(수출액의 50%), 과실, 채소, 밀, 보리, 양모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불란서, 영국, 이태리, 쏘련, 아랍 련합 공화국이다.

1964년 초에 도합 52개의 병원과 1,680명의 의사가 있었다.

1960년말 현재 소학교는 3,083개, 학생 수는 40만명, 중학교는 305개, 중학생 수는 6만명, 사범학교는 8개(학생 수 1,331명), 대학은 1개 (학생 수 6,500명) 있었다.

실업자는 약 20만명이다. 주민의 85%는 회교도이고 기타 기독

교도, 유태교도 등이 있다.

레 바 논

(레바논 공화국)
Republic of Lebanon

【면적】 1만 400 km²
【인구】 200만명(1963년 4월)
【수도】베이루트(주민 약 60 만명)

정 치 16 세기 이래 오토만 제국의 일부였던 레바논은 1920년부터 불란서의 위임통치 령으로있다가 1943년 12월 12일에 독립하였다.

제 2 차 대전 시기에 이 나라를 강점하였던 영, 불 침략군은 1946년 8월에 철수하였다. 레바논은 정치에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다. 1943년 천주교와 회교 간의 협의 결과 국회 의석은 각종 교파에 따라 분배되며 대통령은 천주교의 마론파에서, 국회 의장은 회교의 순니파에서, 수상은 회교의 시아파에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여 있다.

1958년 5월 레바논 인민이 아이젠하워주의와 샤문 정부를 반대하여 전국적인 무장 폭동을 일으켰으며 동년 7월 14일 이라크에서 정변이 일어나자 중근동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7월 15일 미군이 레바논에 침입하였다. 인민들의 무장 폭동에 의하여 친미적인 샤문 정부가 붕괴되고 푸아드 쉐하브가 대통령으로 집권하였다. 1961년 12월 31일에는 영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을 받은 인민 사회당의 정변 음모 사건이 있었다. 1963년에 정부는 많은 공산당원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국회】 1원제이다. 의원 수는 99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1960년 6월 국회 선거에서 11개의 정당이 58석, 무소속이 41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푸아드 쉐하브(1958년 7월에 선출)

【내각】 1961년 10월 31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라치드 카라메, 외상 필리프 타크라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에 씨리아 레바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고 1958년 12월에 독립적인 레바논 공산당으로 되였다. 현재 비법화되여 있다. 아랍 해방당 1947년에 성립되였다. 레바논의 북부 회교도들과 지주,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한다. 레바논의 중립과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협조 정책을 주장한다. 파랑게당 천주교도들로 구성된 우익 민족주의 정당이다. 사회주의 진보당 회교도들로 구성되여 있다. 레바논이 군사 블럭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민 사회당 이전 씨리아 인민당에서 분리되여 조직된 당으로서 레바논, 씨리아, 이라크 및 요르단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동시에 아랍 련합 공화국을 적대시한다. 민족 전선 1958년 5월 정변 당시에 결성된 레바논의 각 민족주의 정당들과 교파들의 련합 조직이다. 레바논의 중립과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협조 정책을 주장한다. 평화 옹호 위원회,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로동 조합 련합회 등 사회 단체들이 있다.

경제, 사회 인구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한다.

이 나라 국민 소득에서 무역이 45%, 농업이 20%, 공업이 15%를 각각 차지한다. 경제에서 외국 자본이 전국 총투자액의 93%를 차지하는데 그중 50%가 불란서 자본이다. 경지 면적은 약 27만 헥타, 그중 8만 헥타가 116명의 대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여 있다.

농산물중 60%는 과실이고 20%는 채소이다. 알곡은 수입한다. 귤, 포도, 사과, 밀, 담배, 감자가 중요 농산물이다.

공업은 락후하며 로동자는 약 12만명 밖에 없다. 식료 가공, 방직, 피복, 담배, 세멘트, 피혁 공장등과 소규모적인 수공업이 주로 되고 있다.

주민의 반수는 기독교도이며 기타는 회교도들이다.

요 르 단

(요르단 왕국)
Hashimite kingdom of Jordan

【면적】 9만 6,610 km²
【인구】 175만 3,000명(1961년 말)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암만(주민 25만 명)

정 치 요르단은 팔레스티나의 일부로서 제 1 차 대전 전까지 오토만 제국의 예속하에 있었고 전후에는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었다. 요르단은 1928년에 대외 정책, 재정 및 무력을 영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두는 불평등 조약을 영국과 체결하였다. 요르단은 1946년 3월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1948년 3월에 영국은 1928년 조약의 기한 만료와 관련하여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요르단에서 공군 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요르단 군대(《아랍 군단》)의 지휘권을 획득하였다.

1956년 10월 21일에 실시된 선거 결과 27일 나불시 내각이 조직되였다. 동년 11월 나불시 정부는 1948년의 영국—요르단 조약의 폐기를 선포하였다. 1957년 4월 초에 영국 군대는 요르단에서 철거하였다. 1957년 4월 10일 반동적인 정변이 일어나 나불시 정부가 전복되였다. 그후 요르단 정부는 일체 정당과 로조의 활동을 금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면서 《아이젠하워주의》를 접수하고 아랍 분렬 정책을 실시하였다. 1958년 2월 14일 요르단은 이라크와 《아랍 련방》을 조작하였으나 같은 해 7월 14일에 있은 이라크 정변으로 이라크 군주 제도가 전복됨에 따라 련방은 해체되였다.

이라크 공화국의 창건에 고무되여 요르단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자 영국은 7월 17일 자기의 군대를 요르단에 상륙시켜

무력 간섭을 감행하다가 요르단 인민과 세계 사회계의 항의에 의하여 동년 10월에 철거하였다.

뒤'이어 미제가 요르단에 군사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1959년부터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8월 29일에 요르단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량국 군대의 합동군 사령부를 설치하며 량국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영국의 사촉하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청소한 예멘 공화국에'대한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1963년 4월에 요르단에서 왕정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4월 29일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을 탄압하였으며 영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후세인 왕정을 부추기기 위해 자기의 군대를 이 나라에 파견하였다.

【국왕】 아브둘라 이븐 후세인 (1953년 5월 즉위)

【국회】 상원 의원은 25 명(국왕이 임명)이고 그의 임기는 8년 (4년 마다 반수씩 개선)이다. 하원 의원은 60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는 1963년 4월 21일에 해산되고 같은 해 7월에 선거되였다.

【내각】 수상 후세인 벤 나쎄르 (국방상, 외상, 내상을 겸임)

【정당, 사회 단체】 1957년 4월 이래 일체 정당, 사회 단체의 활동이 금지되여 있다. 금지되기 전에는 **공산당**(총비서 푸아드 나싸르), **민족 전선, 국가 사회당, 아랍 부흥 사회당, 아랍 제헌당** 등이 있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의 기본은 목축업과 알곡 생산이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이 경지이고 기타는 사막이다.

봉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로 농산물 생산 수준은 극히 낮다. 유목민은 5만 명, 반 유목민은 12만 명에 달한다.

주요 농산물은 담배, 올리브유 등이며 주요 지하 자원은 린회석, 철, 석유 등이다.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미국 독점체들은 원유 개발권을 장악하고 있다. 1962년에 6,887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그중 65%는 식료 및 방직 공장이였다. 1962—1963년도 예산 지출의 50% 이상이 군사비에 충당되였으며 재정 적자는 외국의 《원조》로 메우고 있다. 주민의 75%에 달하는 농민들은 년 수입의 3분의 2이상을 지주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로동자들은 12시간 이상의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문맹자는 주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주민의 대다수는 회교도이다.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면적】 2만 700 km² (1949년 아랍 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 것, 1947년 11월 29일의 유엔 결정에 의하면 1만 4,000 km²)

【인구】 218만 4,000 명(1961년 말 현재), 대부분이 유태인이다.

국어는 헤브라이어이다.

【수도】 예루살렘 (주민 17만 명) 정부 기관의 일부는 텔 아비브 (주민 40만 명)에 있다.

정 치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던 팔레스티나에 아랍 국가와 유태인 국가를 수립할 데 대한 유엔 결정(1947년 11월 27일)에 의하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였다.

이스라엘은 창건된 첫 날부터 미, 영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로서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56년 수에즈 위기 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애급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였다가 그후 철거하였다. 그후에도 계속 아랍 국가들의 국경에서 도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팔레스티나 문제, 요르단강 수로 변경 문제를 둘러 싸고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팔레스티나 문제 지중해 동남안에 위치한 약 2만 여 평방키로메터의 팔레스티나는 제 1 차 세계 대전 전에 토이기 제국의 일부였으며 전후에는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원래 팔레스티나에는 현재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령토가 포함되여 있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영국의 전통적인 수법에 의하여 1962년에 요르단강을 경계로 팔레스티나를 동서 량 부분으로 분할하고 서부는 팔레스티나로, 동부는 요르단으로 불렀다.

제 2 차 대전후 이 지역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됨에 따라 영국은 부득불 팔레스티나에 대한 위임 통치를 포기하였다. 1947년 팔레스티나를 유태국과 아랍국으로 분할할 데 대한 유엔 총회 제 2차 회의 결정에 의하여 수립된 유태인 국가인 이스라엘은 미, 영의 사촉에 의하여 1948년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여 팔레스티나 전쟁을 일으켰다. 1949년 4월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에 정전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티나의 4,800 평방키로메터의 령토를 차지하게 되였다.

정전 협정 체결후 이스라엘은 근 7,000 평방키로메터의 아랍인 거주 지역을 강점하고 이 지역의 약 100만 명의 아랍인들을 요르단, 씨리아, 레바논 등으로 추방하였다.

아랍 국가들은 모든 피난민들을 받아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팔레스티나 문제이다.

요르단강 수로 변경 문제 요르단강 수로 변경 문제도 팔레스티나 문제와 팔레스티나 피난민 문제처럼 오래 동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씨리아, 레바논, 요르단 4개국을 흐르는 강으로서 길이는 320키로메터, 수량은 18억 립방메터이다.

이 강은 해'별이 뜨겁고 물이

적으며 사막이 많은 팔레스티나 지대의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미제의 지지 하에 일방적으로 요르단강 수로를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강의 상류에서 수로를 자기의 령토 안으로 돌림으로써 이 강물의 55%를 동력 및 관개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은 요르단강 수로 변경을 위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1964년 1월에 카이로에서 진행된 13개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와 3월 29일 18 개의 아랍 로조 단체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아랍 로동 련맹 회의는 요르단강 수로 변경 계획을 반대하여 투쟁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대통령】 잘만 샤자르(1963년 5월 21일 피선)

【의회】 1원제로서 의원 120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6월 24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레비 에슈콜(국방상 겸임), 외상 골다 마이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1년에 창건된 팔레스티나 공산당인데 1948년 10월 이스라엘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총비서 사무엘 미쿠니스 **로동당**(마파이당) 집권당이며 유태인 대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 **통일 로동당**(마팜당), **자유당, 진보당, 민족 종교당, 공산주의 청년 련맹, 평화 위원회, 유태인 로동자 총련맹, 민주 녀성 련맹**

경 제 락후한 반식민지 반봉건 농업국이다.

경제는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제는 아랍 국가들을 반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리용하기 위하여 경제, 군사적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1958년에 이스라엘에 침투한 외국 자본 중에서 미국 자본이 70%였다.

이 나라에 침투된 미국 독점 자본은 약 30억~45억 딸라에 달하는 데 미국 자본은 영국, 불란서 자본과 함께 400여 개의 이스라엘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제는 극히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방직, 식료, 제지, 화학, 석유 가공 공업 등이 있으나 거의 모든 원료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약 40만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귤, 밀, 옥수수, 담배 등이다. 농업은 국내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귤, 다이야몬드 등이며 무역 대상국은 미국, 영국, 토이기, 서독 등이다.

완전 실업자는 약 5만 명이며 불완전 실업자는 10 여 만 명이다.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면적】 1만 5,500 km²

【인구】 32만 1,621명 (1961년)

【수도】 쿠웨이트(주민 약 12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이다.

정 치 쿠웨이트는 1899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1년 6월 19일 독립하였다.

쿠웨이트가 독립하자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하였다. 영국은 이를 기화로 쿠웨이트 독립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1961년 7월 1일 군대를 파견하여 무장 간섭을 감행하였다.

1961년 7월 20일 쿠웨이트는 아랍 련맹에 가입하였다.

8월 12일 체결된 쿠웨이트와 아랍 련맹 간의 협정에 의하여 동년 10월 9일까지 영 침략군은 물러가고 아랍 련맹군 (아랍 련합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수단, 튜니샤)이 상륙하였다. 1963년 1월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 군대는 철수하였다.

령토권 주장으로 조성되였던 이라크와 쿠웨이트와의 분쟁 문제는 1963년 10월 쿠웨이트 수상 사바흐와 이라크 수상 바크르의 호상 방문으로 종식되였다. 방문 기간 이라크는 쿠웨이트 주권을 전'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8,400만 딸라의 무리자 차관을 제공하며 이라크로부터 음료수를 제한 없이 받는데 합의를 보았다. 쿠웨이트는 1963년 5월 14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추장】 아브둘라 아스 살림 아스 사바흐(1950년 1월 29일 취임)

【국민 회의】 1963년 1월 립헌 군주제, 의회 책임 내각제를 규정한 헌법이 선포되여 1월 30일 쿠웨이트 력사상 첫 국민 회의(1원제) 선거가 실시되였다.

【정부】 1963년 1월 30일 구성되였다. 수상 사바흐 아스 살림 아스 사바흐

경제, 사회 주요 경제 부문은 석유 채취업이며 주민의 20%가 석유 로동자이다. 석유 매장량 (82억톤)은 세계 제 1위이며 세계 석유 자원의 21%를 차지한다. 석유 생산량은 1962년에 9,300만 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제 3위를 차지하였다.

원유 수출량은 세계 제 2위를 차지하는바 1962년에는 7,980만 톤, 1963년에는 8,532만 3,000 톤(평가)에 달하였다.

석유 공업은 미, 영 련합 회사인 《쿠웨이트 석유 회사》 (1934—2009년 간의 석유 개발권 탈취)에 장악되여 있다. 1958년에 이 회사는 약 2억 4,800만 딸라의 순 리윤을 짜냈다. 쿠웨이트 석유는 영국 석유 수요량의 49%를 충족시키고 있다. 1958년 7월 협정에 의하여 일본《아라비아 석유 회사》는 44년 간의 석유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추장들과 상인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으며 해변의 주민들은 어업과 진주 채취에 종사한다. 1960년 현재 학교 수는 104 개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Kingdom of Saudi Arabia

【면적】 160만 km²

【인구】 700만 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이다.

【수도】 리야드(주민 35만 명, 정부 소재지), 메카 (주민 25만 명, 종교 성지)

정 치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 1 차 대전 전까지 오토만 제국의 속령(헤자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대전후 이븐 사우드 (네지드왕)는 령토 확장을 위하여 헤자즈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나라 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라고 지었다(1932년).

사우디 아라비아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여 있으며 회교 성전은 법처럼 되고 있다. 정당도 국회도 없으며 근로자들의 집회는 금지되여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자국 령토 상에 미국의 중거리 지상대 지상 유도탄을 설치할 데 대한 협정 (1962년 10월), 다란 공군 기지에 미국 분사식 추격기 중대를 주둔시킬 데 대한 협정 (1963년 5월)을 미국과 각각 체결하였다.

이 나라 군대는 미국제 무기로 장비되여 있으며 미국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여 훈련되고 있다.

요르단과는 1962년 8월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11월에는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예멘에서 공화국이 선포 (1962년 9월)된 이래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전복된 예멘 왕당파를 지지하여 요르단과 함께 예멘에 대한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1963년 4월 아랍 련합 공화국 및 예멘과 예멘에서의 정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에도 침략 행위는 계속되였다.

1962년 11월 아랍 련합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1956년 수에즈 운하 문제로 단절하였던 불란서 및 영국과의 외교 관계는 1962년 9월과 1963년 1월 각각 재개되였다.

【국왕】 사우드 이븐 아브둘 아지즈 알 파이살 알 사우드(략칭 사우드, 1953년 11월 즉위)

【정부】 1962년 10월 31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파이살 (외상 겸임)

경제, 사회 사우디 아라비아는 봉건 및 씨족 제도의 잔재가 농후하게 남아 있는 락후한 반 유목, 반 농업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초원 지대이고 경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약 15 %에 지나지 않는다. 식량은 국내 수요의 약 10 % 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요 농산물은 대추, 담배, 옥수수, 밀, 보리 등이고 주요 가축은 락타, 양, 말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금, 은, 동, 철광 등이 있다. 석유 매장량은 약 67억 톤이며 자본주의 세계 석유 총매장량의 약 20% 를 차지한다. 채유권은 《아라비아 미국 석유 회사》 (아람코), 일본의 《아라비아 석유 회사》 (1957년부터 40년 간 석유 채굴권 획득), 이태리의 석유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아람코》는 1933년부터 1999년까지 이 나라의 절반 이상 지역에서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특권을 장악하였다.

《아람코》는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요르단, 씨리아를 거쳐 레바논의 사이다항에 이르는 1,770 키로메터의 송유관을 부설(1943—1950년)하였으며 이 송유관을 통하여 매년 1,500만 톤의 석유를 뽑아가고 있다.

1963년에 석유는 8,100만 톤 생산되였다. 수출품은 주로 석유이며 기타 담배, 가축 등도 수출한다. 미국 석유 독점체에 고용된 사우디 아라비아 로동자들의 임금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로동자들의 임금의 6분의 1도 못 된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예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1963년에 정부는 석유 산지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노예 매매 가격을 인상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1961년에 약 45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이다.

바레인 제도

(바레인 추장국)
Sheikdom of Bahrain

바레인 제도는 페르샤만에 있는 여러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598 km²

【인구】 15만 2,000 명(그중 바레인도 주민은 14만 3,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기타 아프리카인, 이란인, 인도인들이 살고 있다.

【행정 중심지】 마나마 (주민 6만 1,837 명)

【추장】 술만 빈 하마드 알 할리파(1942년 즉위)

바레인은 186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제 2 차 대전후 미국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바레인에는 영국의 공군 및 해군 기지들과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다. 1959년에 독립을 요구하며 아라비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주장하는 바레인 민족 해방 전선이 창설되였다.

바레인 제도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1958년 말에 5,000만 톤으로 추산)하며 1963년에 225만 톤의 석유가 채취되였다.

미국의 《바레인 석유 회사》가 석유 채굴권을 쥐고 (1940년부터 1995년까지) 있으며 년산 1천만톤 이상의 능력을 가진 석유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 종려, 포도, 귤 등이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바레인 제도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진주 생산지이다. 화페는 없고 인도의 루피화를 사용하고 있다.

카타르

(카타르 추장국)
Sheikdom of Qatar

【면적】 2만 2,000 km²
【인구】 4만 명
【행정 중심지】 도하 (주민 3만 5,000 명)
【추장】 알리 빈 아브둘라 알 타니

카타르는 1916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형식상 추장이 있으나 영국인 정치 주재관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 카타르에는 미 해군 기지가 있다.

석유 자원이 풍부(매장량 3억 5,000만 톤)하며 1963년에 910만 톤의 석유가 채취되였다. 석유 채취 및 가공은 영국, 불란서, 미국 합동 회사인 《카타르 석유 개발 회사》 (2010년까지 채굴권 획득)가 독점하고 있다. 이 나라 경제에서는 석유 외에 농목축업도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목민이고 연해 주민들은 진주 채취를 위주로 하고 있다. 화폐는 없고 인도의 루피화를 사용하고 있다.

오 만

【면적】 21만 2,400 km²
【인구】 55만 명
대부분은 아랍인이다.
【수도】 니즈와(오만 회교 교주국 수도, 주민 4,000 명), 마스카트(마스카트 추장국의 행정 중심지, 주민 6,200 명)
【회교 교주】 칼리브 빈 알리
【추장】 사이드 빈 타이무르

정 치 오만은 18세기 말 영국에 강점 당하였다. 1913년 오만 내륙 지방 인민들은 영.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고 오만 회교 교주국을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때부터 오만에는 독립적인 오만 회교 교주국과 영국의 괴뢰 국가인 마스카트 추장국이 존재하게 되였다. 1951년 12월 영국이 강요한 불평등 조약에 의하여 영국 정치 주재관이 마스카트 추장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1955년에 영국은 마스카트 추장국을 사촉하여 오만 회교 교주국을 반대하는 내란을 일으키게 한 후 직접 오만 회교 교주국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개시하였다.

영국은 오만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2만여 명 (1963년)의 침략군을 주둔시켰다.

영국 무장 간섭자들과 그의 괴뢰 국가인 마스카트 추장국을 반대하는 투쟁은 1957년 이래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63년 민족 해방군은 약 1만 5천 명 (1962년에는 1만명)으로 증강되여 투쟁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전개되였으며 영국이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기지로 리용해 오던 자파르주까지도 항쟁의 지역으로 전변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유목업(락타)이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 알곡, 채소, 포도, 대추 등이다. 석유 산지들이 발견되였으나 채굴권은 영국 자본인 《이라크 석유 회사》의 분 회사인 《오만 석유 회사》가 탈취 (1937년부터 75년간)하였다.

미제는 1957년에 오만에 대한 영국의 《관리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영국으로부터 오만의 석유 탐사권을 앗아냈다.

오만에서는 아직도 씨족 제도의 잔재가 유지되고 있다. 화폐는 없고 인도의 루피화를 사용한다.

예 멘

(예멘 아랍 공화국)
Yemen Arab Republic

【면적】 19만 5,000 km²
【인구】 500만 명 (1959년 추정)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수도】 사나 (주민 약 6 만명)
1962년 11월 1일 사나를 수도로, 타이즈를 제 2 수도로 결정한 법령이 발표되였다.

정 치 예멘은 1932년에 토이기의 통치로부터 독립하였다. 1839년과 1882년에 예멘 령토인 아덴을 강점한 영국은 1934년에 예멘과 40년을 기한으로 불평등한 《사나 조약》을 체결하고 예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였다. 미제는 1947년 5월 예멘에 100만 딸라의 차관을 주는 대'가로 석유 채취권을 탈취하고 예멘을 침략하였다. 예멘은 1958년에 아랍 련합 공화국, 씨리아와 함께 아랍 국가 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1년 12월 26일 이를 해소하였다.

1962년 9월 27일 살랄(현 대통령) 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봉건 군주 제도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이 선포되자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예멘 공화국을 압살하고 군주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등을 사촉하여 예멘 공화국에 대한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다. 1962년 11월 아랍 련합 공화국은 예멘과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2만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래 무장 간섭자들을 반대하는 예멘을 지원하였다.

1963년 4월 13일 예멘 아랍 련합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간에 예멘에서의 정화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예멘에 대한 침략과 예멘 왕당파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며 아랍 련합 공화국은 4월 20일부터 군대를 계단 별로 철수하나 일부는 예멘 군대의 장비와 훈련을 방조하기 위하여 예멘에 남아 있게 되였다. 또한 예멘—사우디 아라비아 국경 20키로메터 구간에 《유엔 감시단》을 주둔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963년 7월 4일 200 명의 《유엔 감시단》이 예멘에 들어왔다.

1963년 4월 13일 예멘 력사상 처음으로 헌법이 선포되였다. 헌법에는 모든 공민들은 평등하다는 것과 회교를 국교로 규정하였다.

1963년 10월 20일 대통령 살랄은 군주 세력을 종국적으로 분쇄하며 민족 공업 및 민족 군대를 창설하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는 것이 예멘 인민들 앞에 나선 기본 과업이라고 언명하였다.

1963년 6월 1—16일 간에 대통령 살랄은 아랍 련합 공화국, 씨리아,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1963년 2월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예멘을 방문하였으며 3월 9일에는 우리 나라와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한편 예멘 정부 대표단이 9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대통령 리사회】 1963년 4월 18일 조직되였다.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부문의 모든 정책을 수립한다. 의원 수는 24 명이며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

【대통령】 아브둘라 살랄(1962년 9월 28일 취임)

【집행 리사회】 국가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현 집행 리사회는 1964년 2월에 성립되였다. 위원장 하싼 알리 암리, 외무상 하싼 마키, 민족 보위상 후세인 아드다파흐

【정당】 1963년 5월 대통령은 정당 및 사회 단체의 조직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경 제 농업이 경제의 기본 부문이며 주민의 90% 이상이 이에 종사한다. 경지 면적은 550만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수수, 보리, 밀, 옥수수, 커피, 목화, 야자, 종려, 과실 등이다.

알곡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수는 년 평균 90만～120만 톤, 커피는 약 4,200 톤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은, 찌단, 망간, 철, 연, 흑연, 석유, 석탄, 동, 류황, 석회석 등이 있으나 아직 광범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은 아직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현대적인 공업으로서는 소규모의 탄약 공장, 제분 공장, 비료 공장 등이 있다.

금, 은 장식물을 가공하는 수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였다. 전기는 몇 개의 도시에서만 디젤 발전기에 의하여 전등용, 방송용으로 공급된다. 철도는 없으며 운수 수단은 락타가 위주로 되고 있다. 수출품은 커피, 목화, 피혁 등이다.

공화국 수립 후 정부는 경제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우선 경제의 기본인 농업을 현대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 발전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왕족들과 지주들의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일부 국영 농장들을 창설하였으며 관개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예멘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족 자본과 국가 자본에 기초한 민족 공업 창설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1962년 10월 12일에는 미국 회사들의 석유 채굴 사업 (예멘 령토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진행)을 중지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에 민족 은행이 창설되여 국내외의 사자본을 자기의 통제하에 넣었다.

사 회 공화국 수립후 정부는 교육 발전 10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수년간 초등 교육과 교원 양성에 기본을 두며 비종교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교육 체계를 창설하였다. 이리 하여 주민의 90%가 문맹자였던 예멘에서 학교 수는 공화국 수립 이전의 10개로부터 1964년 초에는 60개로, 학생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 덴

【면적】 약 29만 km² (그중 직할 식민지 207 km²)

【인구】 80만 5,000 명(그중 직할 식민지 15만 5,000 명 1960년)

주민의 대부분은 예멘에서 이주해 온 아랍족으로 구성되여 있다.

【행정 중심지】 아덴 (주민 9만 9,000명)

정 치 원래 예멘의 령토였던 아덴은 1839년에 영국에 강점되였다. 영국은 1937년에 아덴을 《식민지》와 《동부 아덴 보호령》 및 《서부 아덴 보호령》으로 분할하였다.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59년 2월—1962년 4월 간에 《서부 아덴 보호령》과 《동부 아덴 보호령》에 있는 25 개의 보호 주들 중 11 개 보호 주들로써 소위 《남아라비아 련방》을 조작하였다. 그후 영국은 이 《련방》에 식민지를 끌어 들일 데 대한 협정을 식민지 (1962년 8월 16일)와 《남아라비아 련방》(1963년 1월 16일)과 각각 체결하였다. 1963년 3월에는 2 개의 보호령을 편입하여 도합 14 개의 지역을 《련방》에 포괄시켰다.

영국인 총독이 《련방》의 대내외 관계, 국방 등 부문의 실권을 쥐고 있다.

1962년 8월과 9월에 아덴에서는 인민 자유당과 로조 콩그레스의 지도 하에 식민지를 《남 아라비아 련방》에 병합할려는 영국 정부의 책동을 반대하는 시위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으며 9월 24일에는 수백명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963년 11월에는 아덴 군사 기지의 6,000 명 로동자들이 파업을 선포하였고 항구 로동자들은 연료 공급을 거절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아덴 비행장의 폭발 사건이 있었다.

경제, 사회 아덴은 영국의 중동 침략 기지로서 여기에는 영국의 중동군 사령부가 있다. 아덴시는 구라파—아세아 항로를 래왕하는 선박들의 주요 연료 보급지이며(매달 평균 500 척의 배들이 연료를 공급 받고 있다) 그 부근에는 년산 500만 톤 능력의 영국 정유공장이 있다.

식민지 주민들은 주로 부두, 원유 정제 공장 등에서 로동하고

있다. 보호령 주민들의 90%는 농사(기장, 커피, 목화 재배 등)를 하고 있으며 소금 생산, 어업, 축산업 등도 한다.

토 이 기

(토이기 공화국)
Republic of Turkey

【면적】 77만 6,980 km²

【인구】 2,941만 8,000 명(1962년 10월 20일 현재)

대부분이 토이기인이며 동부 지방에 쿠르드인이 살고 있다.

【수도】 앙카라(주민 64만 6,000 명)

정 치 토이기는 14세기 이래 오토만 제국으로서 구라파, 중근동, 북아프리카에 걸치는 광대한 령토를 가지고 있었으나 18~19세기에 점차 몰락하기 시작하여 제 1 차 대전에서 패배함과 함께 붕괴되였다. 토이기는 1923년 10월 29일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토이기는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고 그후 침략적 나토(1952년)와 쎈토에 참가하였다(앙카라에는 쎈토 본부가 있다).

1959년 3월 5일 이란,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과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0년 4월 멘데레스의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시위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를 리용하여 동년 5월 귀르셀을 두목으로 한 군사 집단이 정변을 일으키고 멘데레스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군사 독재를 실시하였다.

1961년 10월 15일 국회 선거 결과 11월에 군부의 지지를 받는 공화 인민당의 이노뉴 내각이 성립되였다.

이노뉴가 집권한 이후 멘데레스 도당의 석방 문제를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대립으로 2차의 내각 개조가 있었으며 그를 전복하려는 정변 시도가 2차(1962년 2월, 1963년 5월) 발생하였다. 그 후에도 토이기의 정치 정세는 경제의 침체와 아울러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토이기에는 120 여 개의 미 군사 기지가 있으며 8,700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토는 토이기에 11 개의 대규모의 군사 기지와 100여 개의 비행장을 설치하고 있다. 1961년에는 중근동에서 가장 큰 나토 공군 기지가 건설되였다.

【국회】 상 하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187 명,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은 450 명, 임기는 4년이다. 현 국회는 1963년 11월 21일에 선거되였다.

【대통령】 케말 귀르셀

【정부】 1963년 12월 25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이스메트 이노뉴, 외상 페리둔 케말 에르킨

【정당】 **공산당** 1920년 11월에 창건되였고 1923년부터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화 인민당**(집권당) 1923년에 창건되였다.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친미적인 우익 정당이다. 위원장 이스메트 이노뉴 **정의당** 1961년에 창건되였다. 대부분의 성원은 멘데레스 정부가 붕괴된 후 퇴역한 장교들과 해체된 민주당(멘데레스당)에 속했던 자들이다 **신 토이기당** 1961년에 결성되였다 **공화 농민당** 1948년에 결성되였다.

경 제 주민의 약 77%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알곡, 락화생, 사탕, 공예 작물, 과실, 담배 등이다. 지주, 농업 자본가들이 토지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석탄, 철, 동, 석유, 크롬(매장량은 자본주의 세계 제 1 위)등이 풍부하며 주요 공업은 채광업이다. 채광업은 국민 소득의 15%를 차지하며 이에는 총 인구의 12%가 종사한다. 가공 공업으로는 식료, 담배, 제지, 세멘트, 방직 공업 등이 있을 뿐이다.

1948년 이래 미국 자본은 경제, 기술 및 군사적 《원조》의 간판하에 차관의 형식으로 침투하고 있다. 1962년 6월 30일까지 미국 《원조》는 38억 6,930만 딸라였다(중근동과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다). 외국 독점체들은 토이기 전국의 9 개 지역중 7 개 지역에서 석유의 탐사 및 채취를 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와 투매 정책, 경제의 군사화로 민족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다. 공장들의 조업률은 생산 능력의 30~40%에 불과하다. 토이기는 농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1961년에 미국에서 100 여 만 톤의 밀을 수입).

1960년말 외부 채무는 토이기의 금 및 외화 보유량의 25 배 이상에 달하였다.

사 회 최근 3 년 간에 물가는 250% 인상되였다. 1만 2,588 개소의 주민 지대에는 학교란 전혀 없으며 등록된 문둥병 환자만도 2만 명에 달한다.

1963년에 실업자 및 반 실업자는 400만 명(그중 완전 실업자 150만 명)을 헤아렸다. 매년 30만의 농민이 리농하고 있다. 인구의 98%가 회교도이다.

싸이프러스

(싸이프러스 공화국)
Republic of Cyprus

싸이프러스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이며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 3 대륙을 련결하는 군사적 요충이다.

【면적】 9,250 km²

【인구】 58만 9,000 명(1963년 6월 현재)

그중 희랍족 82%, 토이기족 18%이다.

【수도】 니코시아(주민 8만 6,300 명)

정치 싸이프러스는 4 세기 말에 희랍 제국의 령토로

되였으며 1571—1878년 간에는 토이기 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다.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약화된 토이기는 영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로씨야에 맞서려고 하였으며 그 대'가로 1878년 싸이프러스에 대한 관리권을 영국에 넘겨 주었다. 1914년에 영국은 이 섬을 완전히 병합하였으며 1923년에는 《로잔느 조약》에 의하여 자기의 직할 식민지로 만들었다.

싸이프러스 인민은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며 민족 자결을 위하여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2차 대전 후 희랍계 주민들의 에노시스 운동(희랍 복귀 운동)이 격렬하여졌다. 1955년에 대 규모적인 반영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하여 1959년까지 반영 무장 투쟁이 전개되였다.

영국과 토이기는 싸이프러스가 희랍에 귀속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토이기는 싸이프러스가 희랍계인 및 토이기계인들로 분할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희랍, 토이기, 영국은 각각 서로 분쟁을 계속하다가 영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1959년 2월 6—11일 서서의 쮸리히에서 희랍과 토이기의 수상 및 외상들 간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이 회담에서 결정된 문제들은 2월 17—19일 영국, 희랍, 토이기의 외상들의 런던 회담에서 승인되였다. 이 회담들에서 영국은 군사 기지를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 싸이프러스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희랍은 이 섬에 대한 령토적 요구를 제기하지 않으며 토이기는 분할을 주창하지 않기로 하였다.

쮸리히 및 런던 협정에 기초하여 1960년 7월 6일 영국, 희랍, 토이기 및 싸이프러스 간에 3 개의 조약이 체결되였다.

싸이프러스 공화국 수립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영국은 2 개의 군사 기지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외에 항구, 도로, 비행장들의 사용권을 가지게 되였다. 한편 싸이프러스는 희랍 및 토이기와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 희랍, 토이기와는 싸이프러스의 독립과 령토 완정 및 안전에 관한 《담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담보 조약》에 의하여 4 개국은 싸이프러스의 타국과의 통합 혹은 분할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싸이프러스는 헌법에 제정된 국내 제도를 자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였다. 《동맹 조약》에 의하여 희랍군 (약 900 명)과 토이기군(약 600 명)이 싸이프러스에 주둔하게 되였다.

싸이프러스의 인구는 희랍계가 82%, 토이기계가 18%로 되여 있으나 싸이프러스의 독립 조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싸이프러스 헌법에는 희랍계 주민 7, 토이기계 주민 3의 비률로 국회, 정부 및 국가 기관들을 구성하기로 되여 있으며 군대에서는 6대 4로 되여 있다. 대통령은 희랍계 주민, 부대통령은 토이기계 주민 중에서 선출하기로 되여 있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각각 국회 및 정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1963년 12월 싸이프러스 대통령 마카리오스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강요된 쮸리히 및 런던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현 헌법의 폐기를 선포하고 《어떠한 형태의 외세의 간섭으로부터도 벗어난 진정으로 독립되고 통일된 국가를 창건》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토이기계 싸이프러스인 반동 집단을 사촉하여 도발 행동을 감행케 하였다. 이리 하여 토이기계 인들과 희랍계인들 간에 1963년 12월 22일부터 류혈적인 무장 충돌이 발생하였다. 무장 충돌을 구실로 영국, 토이기, 희랍은 싸이프러스의 내정에 간섭하여 나섰다. 특히 영국은 12월 26일부터 군대를 계속 증파하여 1964년 1월 14일 현재 8,000 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켰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1964년 3월 4일 싸이프러스에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데 대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의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싸이프러스에는 영국의 중근동 사령부가 있으며 영국이 관리하는 99 평방 마일의 주권을 가진 2 개의 군사 기지와 31개소의 군사 거점과 시설물, 10개소의 훈련 지구와 훈련 장소가 있다. 영국은 1962년에는 이 나라에 핵 무기를 반입하고 전파 탐지소를 건설하였다.

【의회】 의원 수는 50 명(희랍계인 35 명, 토이기계인 15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의회는 1960년 7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으로 된다. 대통령 마카리오스 대주교 (1960년 8월 16일 취임), 부대통령 쿠츄크, 외상 키프리아노우

【정당】 **근로 인민 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성립된 공산당이다. 1941년에 현명으로 개칭하였다. 싸이프러스의 완전 독립과 외국 군사 기지의 철페를 주장한다. 총비서 파파이오안노우

애국 전선 부르죠아지와 교회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마카리오스 **민족 련맹, 민주 련맹, 전 싸이프러스 로동자 동맹** (세계 직련에 가입), **통일 민주 청년 조직**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대부분이 고농이다. 전국의 경지 면적은 40만 4,680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목화, 보리, 귀밀, 포도, 귤 등이다.

싸이프러스에는 철, 동, 크롬, 석면, 석고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채광업이 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국의 《싸이프러스 광업 회사》는 전국 광물 생산량의 70%를 독점하고 있다.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인민 생활은 매우 락후하며 매년 수천 명이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아프리카주

아랍 련합 공화국

United Arab Republic

【면적】 99만 4,300 km²

【인구】 2,706만 4,000명(1961년 현재)

절대 다수는 아랍인(전 인구의 약 96%)이며 기타 베드인족(일명 스비아인) 등이 있다. 언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카이로(주민 334만 5,000명)

정 치 1651년부터 19 세기 초까지 오토만 제국의 한 개 주로 예속되여 있었다. 18 세기 말부터 불란서의 침략이 시작되였으며 1869년에 불란서가 수에즈 운하를 굴설한 후부터 애급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한 영, 불 간의 투쟁이 강화되였다.

애급에서 영,불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민족 해방 투쟁이 전개되자 영국은 1882년 7월에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알렉산드리아 항을 점령한 후 점차 애급을 강점하였다.

1914년 12월 영국은 제 1 차 세계 대전 시기 토이기 세력을 배제하고 애급을 정식 영국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애급에서 반영 투쟁이 앙양되자 영국은 1922년 2월 형식상 애급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운하 지역에서 영국 군대의 주둔 및 기타 일련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36년 8월에는 불평등한 《영국—애급 20년 동맹 조약》의 체결을 애급에 강요하였다.

1951년 10월 애급 의회는 인민들의 반제 투쟁의 압력 하에 1936년에 체결된 영국—애급 조약의 폐기를 선포하였다.

1952년 7월 23일에 일어난 혁명에 의하여 파르크 왕조가 전복되고 1953년 6월 18일 애급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54년 10월 19일 애급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영국은 수에즈 운하로부터 철거할 데 대한 《수에즈 운하 기지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56년 6월 13일 마지막 영국 군대가 철수함으로써 애급에 대한 70년 간의 영국의 군사적 강점이 끝장났다.

1956년 7월 26일 애급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포하였다. 영국과 불란서는 운하 관리를 《국제화》할 데 대한 저들의 음모가 실패되자 이스라엘과 결탁하여 동년 10월 29일 애급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으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급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

1958년 2월 애급은 씨리아와 아랍 련합 공화국을 형성하였으며 동년 3월 예멘 왕국도 이 련방에 가담하였다. 1961년 9월 씨리아는 아랍 련합 공화국에서 탈퇴하였으며 동년 12월 예멘과의 련방도 해체되였다.

1962년 10월 미,영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밑에 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의 무력 간섭이 감행되자 아랍 련합 공화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예멘을 지원하였다.

1964년 2월 3일에 발표된 신 헌법 선언(민족 회의가 항구적인 헌법을 정식 발표할 때까지 림시 헌법으로 된다.)에 의하면 아랍 련합 공화국은 《근로 인민 력량의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이며 근로 인민 력량의 동맹에는 농민, 로동자, 병사, 인테리 및 민족 부르죠아지들이 망라된다》고 규정하였다.

1964년 3월 26일 나쎄르 대통령은 민족 회의에서 《애급 혁명의 첫째 원칙은 제국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랍 련합 공화국의 3대 원쑤는 제국주의, 이스라엘, 아랍 반동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족 회의】 민족 회의는 국가의 최고 립법 기관이며 내각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신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족 회의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령도 발표할 수 없다. 현 민족 회의는 1964년 3월 10일과 19일의 2차에 걸친 선거에서 당선된 3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임기는 5년이다. 민족 회의 창설과 관련하여 1962년에 구성되였던 대통령 리사회는 폐지되였다.

【대통령】 대통령은 민족 회의가 임명하되 국민 투표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 부대통령은 7명이다.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3월 5일 12 명의 부수상과 40 명의 상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알리 사브리, 외상 마흐무드 리야드, 국방상 아브델 바하브 비슈리

【정당, 사회 단체】 아랍 사회주의 동맹 1962년 7월 14일 인민 력량 전국 대회에서 채택한 《민족 행동 헌장》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동년 11월 1일 첫 최고 집행 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1963년 5월 13일 기층 조직인 인민조 선거가 진행되였다. 지도자 가말 아브델 나쎄르

【주요 사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 4월 17일 아랍 련합 공화국, 씨리아, 이라크 정부는 3국 련방을 형성하는데 합의를 보았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964년 5월 26일 아랍 련합 공화국과 이라크 간에 통합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은 량국

대통령 공동 리사회 및 공동 군사령부의 창설을 예견하였다.

12월 23일 나쎄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수로 변경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 나쎄르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1964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는 요르단강 개발을 위한 아랍 국가들의 계획,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수로 변경 기도 저지 등 문제를 토의하고 이스라엘을 사촉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3년 5월 나쎄르 대통령은 알제리아를 방문하고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량국 지도자들은 외국의 지배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들을 도와 줄 데 대한 결의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은 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의 무력 간섭과 관련하여 예멘에 파견(1962년 10월)하였던 군대를 1963년 4월 13일에 체결된 3개국(예멘,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련합 공화국) 협정에 따라 일부 철수하였다.

1962년 11월에 단절되였던 요르단 및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외교 관계는 1964년 1월 13일, 3월 3일에 각각 재개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6월 25일 나쎄르 대통령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에 제하여 우리 나라 김 일성 수상께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을 보내 왔다.

8월 24일에는 우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대리 대사급 외교 대표를 교환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8월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쏘련과는 6월 19일 경제 및 군사적 분야에서 협조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4월에 행정 리사회 위원장(현 수상) 알리 사브리가 중국을, 12월에는 중국 주 은래 총리가 아랍 련합 공화국을 호상 방문하였다. 나쎄르 대통령과 주 은래 총리는 공동 콤뮤니케에서 온갖 형태의 신구 식민주의를 규탄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9월에 월남 민주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림시 대리 대사급 외교 대표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10월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가 아랍 련합 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10월 4일 나쎄르 대통령과 반다라나이케 수상은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고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 소집을 발기하였다.

1956년 수에즈 운하 문제로 하여 단절되였던 불란서와의 외교 관계는 1963년 11월 8일 회복되였다. 또한 1961년에 단절되였던 토이기(1963년 4월) 및 벨기(1963년 10월)와의 외교 관계도 각각 회복되였다.

한편 아랍 련합 공화국은 6월 29일 포르투갈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8월에는 포르투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행기들이 아련의 비행장들에 착륙하거나 령공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9월 15일에는 포르투갈와의 통상 및 경제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아랍 련합 공화국이 선포된 후 정부는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에즈 운하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일련의 기업소들과 농장들을 국유화하였다.

전체 은행 및 보험 체계와 중요한 공업 회사들,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수 수단들이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감으로써 경제에서 국영 부문은 현저히 확대되였다. 1963년에 국유화된 공업 부문의 생산량은 공업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하였다. 1952—1963년 간에 750 개의 공업 기업소들을 건설하였다.

정부는 외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토지를 몰수하였으며 200 페단(84 헥터)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다. (1961년 7월에는 100 페단으로 제한). 이리 하여 1962년 8월까지 65만 4,642 페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1963년 10월 8일에는 10 페단 이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땅 값의 상환 기간을 30년으로부터 40년으로 연장하고 년리를 3%로부터 1.5%로 낮춘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공업은 경공업이 위주이다. 1963년 국영 공업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억 1,930만 애급 파운드 더 많은 9억 5,260만 애급 파운드였다. 1962년에 비하면 기계 제작 공업 생산액은 28.5%, 방직 공업 생산액은 10.6%, 화학 공업 생산액은 19.4%, 석유 공업은 13.1% 증가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000 톤)

	1952	1963
전력(100만kWH)	992.0	4 091.0 ①
원유	2 379.3	5 650.0
석유 제품	2 366.3	4 803.3 ①
철광	—	489.0
망간광	191.0	185.7 ①
린광	527.2	601.7 ①
선철	—	204.2 ①
강철	53.0	357.0 ①
질소 비료	111.0	739.2
세멘트	951.0	2 231.7 ①
면사	55.7	123.0
면직물(100만m)	317.0	600.0
사탕	210.0	356.0

주: ①은 1962년 자료

농업은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다. 약 1,400만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업, 농업 총생산액 중에서 농업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260만 헥터이며 주요 농작물은 목화, 벼, 밀, 옥수수, 보리 등이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0 톤)

	1952	1962
목화 섬유	446	457 ①
쌀	517	1 000
밀	1 089	1 500 ①
옥수수	1 506	1 600
기 장	522	630 ①
보 리	118	146
콩	250	328
사탕수수	3 260	4 400 ①
감자	153	353
락화생	20	49

주: ①은 평가

목화는 농업 생산의 중심이며 1960—1961년도에 농업 생산액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1963년도 목화 파종 면적은 68만 3,340 헥터였으며 생산량은 43만 9,300톤이였다. 목화는 또한 주요 수출 원천이며 수출에서 75%를 차지한다. 목화 수출 회사들은 완전히 국유화되였다.

정부는 대외 무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목화 생산과 수출용 공업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한편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극력 제한하고 있다.

수입품은 공업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일부 공업 원료이다. 수입의 약 75%는 국영 부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25%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 부문들이다. 정부는 1970년까지 대외 무역의 국유화를 끝낼 것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쏘련, 서독, 중국, 영국, 기타 아랍 국가들이다.

1963년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 수는 운하 국유화 이래 최고 수'자인 1만 9,146척이였으며 운하 수입 총액은 7, 100만 애굽 파운드였다.

1961—1962년도 국민 소득 총액은 13억 애굽 파운드, 1962—1963년도에는 15억 3,190만 애굽 파운드였다.

6 세부터 12 세이하의 아동들에게 무료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 되였다. 1962년 7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아련에는 약 2만 300여 개의 각급 학교(직업 학교, 전문 학교 포함)가 있으며 학생 수는 333만 8천 여명이다. 1962년 1월에 정부는 외국인 경영의 학교를 금지하였다.

【출판】 **통신**—중동 통신(일명 멘 통신)

신문—알 굼후리아(정부 기관지), 알 아흐람(정부 대변지)

방송—아련 방송국(아랍어, 영어, 불어, 독일어, 희랍어, 이태리어 등 10 개어로 방송하고 있다)

수 단

(수단 공화국)
Republic of Sudan

【면적】 250만 5,823 km²

【인구】 1,283만 1,500명(1963년 7월 1일)

인구의 3 분의 1 은 아랍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아랍 흑인과 누비아인의 혼혈족이다. 언어는 10여 종에 달한다.

【수도】 하르툼(주민 13만 명)

정 치 19 세기 70년대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은 수단은 1899년 1월의 《영국—애급 협정》에 의하여 이 두 나라의 공동 관리 하에 들어 갔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장기간에 걸쳐 영국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한 결과 수단은 1956년 1월 1일에 공화국으로서 독립하였다. 1958년 11월 17일 륙군 총사령관 아뿌드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최고 권력 기관인 최고 군사 위원회와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군사 정권은 헌법을 폐지하고 의회와 모든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을 해산하였다.

아뿌드 정부는 중립 정책,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며 아랍 국가들과는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1963년 말과 1964년 초에 미국과 영국이 선교사들을 리용하여 수단 남부 지역을 북부 지역과 분리시키려는 반정부 음모를 꾸민 것과 관련하여 1964년 2월 27일 수단 정부는 약 300 명의 미국 및 영국 선교사들을 추방할 것을 선포하였다.

1962년 11월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수단을 방문하였다.

1963년 12월 유엔 제 18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 토의시 수단 대표는 미국의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최고 군사 위원회】 1958년 11월에 10 명의 장교들로 구성되였다. 위원장 이브라힘 아뿌드

【정부】 대통령, 수상 겸 국방상 이브라힘 아뿌드, 외상 아흐메드 헤이르

경제, 사회 수단은 농업국으로서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한다. 비옥한 토지와 대부분의 관개 수원은 모두 외국 독점 자본가들과 국내의 봉건 령주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작물은 목화, 아라비아 고무, 락화생 등이다. 1962—1963년도의 목화 생산량은 15만 5,000톤이였다.

목화의 대부분은 수출되며 외화 수입의 70%, 정부의 예산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아라비아 고무의 년 평균 생산량은 4만 톤으로서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공업 기업소로서는 약간의 타면 공장과 방직 기업소들과 1 개의 세멘트 공장이 있다.

지하 자원으로서는 금, 동, 철, 우라눔, 석유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에 침투한 외국 자본중 영국 자본이 우세하다. 영국 자본은 수단의 금융, 보험업과 항공 운수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목화와 아라비아 고무의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 미국이 《원조》를 미끼로 수단에 침투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1958—1960년에 수단은 미국으로부터 약 4,500만 딸라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

수단 정부는 외국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1962년 2월에 영 파운드 지역에서 탈퇴하였으며 9월에는 경제 및 사회 발전 10개년(1961—1971) 계획을 작성하였다.

수단 정부는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해 1963년에 390 개의 학교를 건설하였다. 회교가 국교이다.

리 비 아

(리비아 왕국)

Kingdom of Libya

【면적】 175만 9,540 km²

【인구】 125만 명(1960년 현재) 대부분이 아랍인이고 그 밖에 이태리인과 희랍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트리폴리 (주민 17만 2,000명), 벤가지 (주민 7만 5,000명)

가을과 겨울에는 트리폴리, 봄과 여름에는 벤가지에 정부 기관이 있다.

정 치 리비아는 1912년부터 이태리 식민지로 있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과 그 이후 영, 불의 점령 하에 있다가 1951년 12월 24일 립헌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리비아는 1953년 7월 영국과 《우호 동맹 조약》을, 1954년 9월에는 미국과 《기지 협정》을 체결하고 이 나라들에 군사 기지를 제공하였다. 리비아에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다.

1963년 4월 27일 리비아는 련방제를 폐지하고 리비아 련합 왕국으로 개칭하였으며 통일 정부를 가진 중앙 집권화된 국가로 되였다.

1963년 8월 1일 리비아는 포도아와 남아프리카의 인종주의 정책과 제국주의 정책을 규탄하여 이 나라들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였다.

1964년 3월 16일 리비아 국회는 1953년의 리비아—영국 《우호 동맹 조약》, 1954년의《리비아 미국 기지 협정》을 폐기하는 결정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1963년 12월 유엔 제 18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 토의시 리비아 대표는 미국의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국왕】 모함메드 이드리스 엘 세누씨

【국회】 상 하 량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상원 의원은 24 명, 임기는 8년이다. 하원 의원은 55명, 임기는 4년이다.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3월 20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오마르 마란시르, 내상 바니스 카다피, 국방상 사이프 나스르 아브둘 잘릴

【정당, 사회 단체】 정당은 없고 사회 단체로서 리비아 로동 총련맹과 키레나이카 로동 총련맹이 있다.

경제, 사회 리비아는 농업과 목축업을 위주로 하며 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락후한 나라이다. 국토의 85% 이상이 사막이고 농업에 리용할 수 있는 토지는 1,400만 헥타이다. 농경지의 50% 이상은 농촌 인구의 1% 밖에 안 되는 지주들이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보리, 밀, 락화생, 올리브, 담배 등이다. 식량의 년 평균 생산량은 11만 톤으로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목축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바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0년 1월에 약 273만 두의 면양과 염소, 17만 두의 락타가 있었다.

리비아에는 석유(매장량 약 14 억 톤), 철, 린회석, 동, 망간 등 지하 자원이 많으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에서는 채취 공업과 식료, 방직, 제혁 공업이 약간 발전되여 있을 뿐이다. 국민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0%이다. 1962년 말에 21 개의 외국 석유 회사가 리비아 령토의 3 분의 2 이상의 지역을 조차하고 (50년 기한) 238 개의 유정에서 석유를 채취하고 있었다(그중 미국 회사 14 개). 1962년 5월에 리비아 정부는 석유법을 제정하고 외국 석유 회사에 대한 세금을 높였다. 1963년에 2,400만 톤 (아프리카에서 제 2위)의 석유가 채취되였다. 미국 석유 독점체들은 리비아에서 채취되는 석유의 90% 이상을 략탈해 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 올리브유, 가축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이태리 등이다.

인민 생활은 곤난하며 문화 수준도 매우 낮다.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80%가 실업자로 된다. 주민의 94%가 문맹자이다. 전국에 병원은 4 개 뿐이며 유아 사망률은 45%나 된다. 회교가 국교이다.

튜 니 샤

(튜니샤 공화국)

Republic of Tunisia

【면적】 12만 5,130 km²

【인구】 415만 8,000명(1963년) 인구의 90%는 아랍족이며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튜니스 (주민 69만 명)

정 치 1837년부터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 온 튜니샤는 1881년에 불란서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튜니샤는 1956년 3월 20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57년 7월 25일에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1년 7월 비제르타의 불란서 침략군은 튜니샤를 반대하는 침략 행동을 감행하였다. 비제르타 기지로부터의 불란서군의 철거를 위한 튜니샤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1963년 10월 15일 불란서는 비제르타에서 자기 군대를 모두 철수하였다.

1962년 6월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튜니샤를 방문하였다. 1963년 12월 유엔 제 18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 토의시 튜니샤 대표는 미국의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90 명이고 그의 임기는 5년이다. 1959년 11월 8일 선거에서 네오 데스투르당이 의석을 모두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내각 수반이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59년 11월 8일 피선), 국무상 겸 국방상 바히 루애감, 외상 사도크 목카뎀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에 불란서 공산당 지부로 창건, 1934년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1963년 1월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모함메드 엔나파 **네오 데스투르당** 1934년에 성립,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집권당이다. 위원장 하비브 부르기바 **로동자 총련맹** 네오 데스투르당의 영향 하에 있는 로조 단체이다. **농업 련맹, 학생 련맹, 녀성 련맹, 자유 평화 위원회**

경제, 사회 튜니샤는 주민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국가이다. 국민 총생산액에서 농업은 80%, 공업 및 광업은 20%를 차지한다.

나라의 주요 경제 명맥은 외국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는바 특히 불란서 독점 자본은 55만 헥타의 옥토와 린산염 생산의 98% 이상과 철광, 연광, 아연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400만 헥타이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올리브, 포도, 담배 등이다. 올리브는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올리브 재배 면적은 70여만 헥타이며 1961—1962년의 올리브유 생산량은 3만 3,000톤이였다. 1962년에 밀은 40만 8,000 톤, 담배는 2,000 톤 생산되였다.

광물 자원으로는 철, 연, 아연, 린산염, 주석, 석탄, 우라늄 등이 있다. 광업과 식료 가공 공업이 약간 발전하였다.

1959년 이래 튜니샤는 수년 동안 자연 재해를 입어 공업 및 광물 생산이 감소되고 있으며 농업 생산도 대폭 감소되였다.

주요 수출품들은 올리브유, 밀, 린산염, 연, 철광석 등이며 주요 대상국은 불란서, 서독, 이태리 등이다.

튜니샤 정부는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2—1964년 3 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 3 개년 계획의 투자액은 2억 7,400만 디나르를 예견하였는데 그 절반 이상을 외국의 《원조》로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튜니샤는 1958—1962년 간에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에 따라 34만여 톤의 밀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실업자는 30만명 이상이며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회교도이다.

【출판】 신문—알 아말(네오 데스투르당 기관지), 아스 사바흐(정부를 지지), 쥰 아프리크

알 제 리 아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lgeria

【면적】 220만 5,000 km² (그중 사하라 지역이 200만 km²)

【인구】 1,045만 3,000명(1963년 7월 31일) 주민의 대부분은 베르베르족과 아랍족이다.

【수도】 알지에 (주민 96만명, 1964년 초)

정 치 알제리아는 1830년에 불란서의 식민지로 되였다. 그 때로부터 알제리아 인민은 132년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54년 10월에 민족 해방 전선이 조직되였으며 11월 1일에는 알제리아 민족 해방 전쟁의 시초로 되는 오레스산 지대에서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투쟁 속에서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이 조직되였고 1958년 9월 19일 알제리아 민족 해방 전선은 알제리아 공화국을 선포하고 림시 정부를 창건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80만의 병력 즉 륙군의 대부분, 공군의 60%, 해군의 90%를 알제리아 전쟁에 투입하고 1955년부터 1959년까지 매일 평균 30억 (구화폐)을 탕진하였으나 프랑 알제리아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였다.

궁지에 빠진 불란서 드 골 정부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만 술책으로서 1959년 9월 《알제리아 인민의 자결권을 부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0년 6월부터 1961년 7월까지 불란서는 드 골의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알제리아와 수차에 걸쳐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알제리아 림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하라 지역을 알제리아에서 떼내려는 부당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1961년 1월 알제리아 인민은 기만적인 알제리아의 《자결》 및 《공공 행정 기구》에 대한 《국민 투표》를 반대하여 기권하였다. 1961년 7월 불란서 점령 지역의 각 도시들에서는 사하라 지역을 알제리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불란서의 책동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시위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불란서 정부는 회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불란서 정부는 알제리아와 1961년 12월과 1962년 2월의 비밀 회담을 거쳐 1962년 3월 7—18일 에비앙에서 정식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3월 18일에는 알제리아의

정화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7년여에 걸친 전쟁은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협정에 의하여 3월 19일 정오부터 알제리아 전역에서 전투 행동이 중지되였다. 3월 21일에는 1955년 10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체포하였던 벤 벨라를 비롯한 5명의 민족 해방 전선 지도자들이 석방되였다.

알제리아 독립 직전까지의 과도기 기간에 알제리아—불란서 협정의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월 30일 《림시 행정부》가 조직되였으며 7월 1일 알제리아 자결에 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였다. 이 투표에서 99.99%가 독립하는 데 찬성 투표하였다. 9월 20일 제헌 민족 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9월 25일 제헌 민족 회의는 알제리아를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독립후 알제리아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규탄하며 모든 인민들 특히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민족 회의】 1963년 8월 28일 헌법 채택과 관련하여 제헌 민족 회의 (1962년 9월 20일 선거)의 기능은 종결되고 민족 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였다. 의원 수는 196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9월 18일에 구성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겸 수상 아흐메드 벤 벨라, 제 1 부수상 겸 민족 보위상 후아리 부메디엔, 제 2 부수상 모함메드 사이드, 외무상 아브델 아지즈 부테플리카

【정당, 사회 단체】 1962년 11월 29일 알제리아 정부는 민족 해방 전선을 제외하고 공산당 (1924년 창건)을 비롯한 일체 정당을 비법화하였다. **민족 해방 전선당** 알제리아의 유일한 정당이며 집권당이다. 1954년 8월에 조직된 《단결 및 행동 혁명 위원회》가 동년 10월에 민족 해방 전선으로 개칭되였다.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을 령도하여 7년여에 걸친 반불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4년 4월에 민족 해방 전선당 제 1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8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였다. 총비서 아흐메드 벤 벨라 **근로자 총동맹** 1963년 1월에 진행된 근로자 총동맹 제 1 차 대회에서는 반동적인 국제 자유 로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 학생 동맹, 전국 녀성 련맹, 알제리아 꾸바 친선 위원회**

【주요 사건】 1963년 3월 12일 민족 회의는 알제리아 공민권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법령에는 알제리아 해방 투쟁에 참가했거나 혹은 에비앙 회담에 부합되게 공민권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알제리아 공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8월 28일 민족 회의는 알제리아 최초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헌법에서 알제리아는 마그레브(모로코, 튜니샤, 알제리아의 국가 련합), 아랍 세계, 아프리카의 불가 분리적인 일부분이라고 선포하였다.

헌법에서 알제리아는 민주주의 인민 혁명을 수행하며 민족적 독립, 국제적 협조, 반제 투쟁 및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운동에 기초한 대외 정책을 실시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랍어를 공식적인 민족어로, 회교를 국교로 규정하였다.

9월 29일 알제리아 카빌리아의 행정 중심지 티지 우주에서 반정부 단체인 《사회주의 세력 전선》 지도자 아이트 아흐메드를 주모자로 하는 반정부 폭동이 일어났다. 이 폭동에 제 7 군관구 사령관 하즈 대좌도 합류하였다. 대통령 벤 벨라는 하즈 대좌를 그 직책에서 해임하였으며 10월 11일 정부군은 반란군의 본거지인 포르 나쇼날과 티루르다를 공격하고 폭동을 완전히 진압하였다.

알제리아 정부는 자유와 독립을 위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5월 24일 벤 벨라는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서 앙골라, 모잠비크 및 남 아프리카의 해방 투사들에게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가 원조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알지에 주재 포도아 령사관의 페쇄를 명령하고 6월 18일에는 포도아와 남아프리카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모로코 및 튜니샤와의 관계 10월 8일—11월 2일 알제리아 모로코 국경선에서 량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9—30일까지 바마코에서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정신에 따라 말리, 에티오피아, 모로코 및 알제리아 등 4 개국 수뇌자 회담이 진행되여 11월 2일부터 알제리아 모로코 국경에서 정화를 실시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11월 2일부터 국경선에서 무장 충돌이 중지되고 1964년 2월 19일 알제리아와 모로코 간에 국경 분쟁의 조정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튜니샤와는 1963년 1월 튜니샤에서의 대통령 암살 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악화되였었다. 5월 튜니샤와의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9월 1일에는 경제 협정이 조인되여 량국 간의 관계는 개선되였다.

불란서와의 관계 대통령 벤 벨라는 1963년 3월 불란서가 알제리아의 사하라 지역에서 핵 시험을 실시한 데 항의하여 에비앙 협정의 예속적인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5월 2일 알제리아와 불란서 간의 회담에 의하여 불란서는 1964년 말까지 사하라의 핵 시험 기지로부터 철퇴하며 기타 알제리아 주둔 불란서군도 1964년말까지 철수하기로 되였다(에비앙 협정에 의하면 불란서가 5년간 사하라를 핵 기지로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알제리아 주둔 불란서군은 3년 이내에 철수하기로 되여 있다).

1963년 2월 알제리아와 불란서간에 《원조 협정》이 조인되였다. 3월 5일 알제리아는 불란서가 강점하고 있던 아인 아르나 공군 기지를 접수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4월 알제리아 주재 우리 나라 초대 특명 전권 대사가 취임하였다 (1958년 9월 25일 외교 관계 설정).

7월 2—10일, 10월 28일—11월 5일 간의 2 차에 걸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아를 방문하고 알제리아 독립 1 주년 기념 행사와 알제리아 무장 봉기 9주년 행사에 참가하였다.

한편 알제리아 정부 대표단이 9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132년 간의 불란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알제리아 경제는 락후하다. 주민의 8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알제리아가 독립하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아 경제 특히는 농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3억 5,000만 프랑(구화폐)을 회수하여 갔으며 수 많은 기술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수천대의 뜨락또르를 파손하였으며 관개 시설을 파괴하고 종자, 역축마저 없애 버렸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알제리아 정부는 독립후 《토지는 밭갈이 하는 사람에게》라는 구호하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경제 로선을 취하였다.

1963년 3월 22일 《주인 없는 토지와 재산》을 국유화할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1963년 10월에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던 150만 헥터의 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300만 헥터(총경지 면적은 680만 헥터)의 비옥한 토지가 알제리아 인민의 것으로 되였다.

다음 단계로서 정부는 알제리아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게 된다. 계획에 의하면 알제리아인들은 자력으로 경작할 수 없는 토지는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여 있다.

국유화된 토지를 토대로 하여 1962년 11월에 포도와 공예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첫 국영 농장이 창설되였다. 알곡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소농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협동 농장이 조직되고 있다. 뜨락또르 대수도 1962년 10월의 800대로부터 1964년 3월에 1만 3,605대로 늘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영농 자금을 대부하여 주었으며 뜨락또르와 역축, 비료, 종자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 하여 1963년에는 《50년래의 풍작》을 거두었다. 1963년의 알곡 생산량은 250만톤, 담배 생산량은 9,000톤(1962년에 비하여 2.5배 증가), 주요 농작물인 포도(농업 총생산액의 3분의 1, 1962년에 포도주는 1,050만 헥터리터 생산), 채소, 귤, 목화, 보리 등도 풍작을 거두었다.

1962년 현재로 가축은 82만 두(그중 대각 가축이 18 만두) 있었다.

석유, 철, 천연 가스, 린산염, 류황, 석탄, 연, 아연, 동, 우라늄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사하라에는 15억 톤의 석유와 8,000억~1조 립방 메터의 천연 가스, 30억 톤의 철광석, 10억 톤의 석탄이 매장되여 있다.

공업 및 광업 생산은 국민 소득에서 25~27%를 차지한다. 1963년에 석유는 2,370만 톤이 채취되였다. 독립 전에 이 모든 재부는 불란서, 영국, 서독, 이태리 등 서방 독점체들에 략탈당하였다. 석유만도 1962년에는 2,000여만톤 빼앗겼다.

1962년에 철광석은 238만 5,000톤, 린산염은 42만 5,000톤, 연광은 1만 3,000톤 생산되였다. 가공 공업은 빈약하며 통조림, 비료, 농기구, 기름, 가루, 담배 공장 등이 약간 있을 뿐이다.

독립후 알제리아 정부는 외국 독점체들의 리권을 제한하며 《자립적인 경제 건설의 기본》으로 되는 민족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1964년 1월 말에는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송유관 건설을 시작하였고 제 2 정유 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국영 석유 및 가스 판매 회사와 국영 동력 자원 탐사 및 개발 회사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 4월 16일에는 년산 250만 톤 능력의 석유 정제 공장이 조업하였다.

무역과 기타 부문에서도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1963년 10월 20일부터 사자본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였다. 정부는 일부 상품들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1964년 3월에는 정부와 개인 도매 상업가들의 합자로써 상품 수입 회사를, 1월 중순에는 국영 액체 연료(원유) 및 가스, 수송 및 판매 회사, 보험 회사를 창설하였다.

통화 발행권을 갖는 국립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1964년 4월부터 신 화폐 《디나르》를 발행하였다.

대외 무역은 주로 불란서와 진행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포도주 (수출 총액의 3분의 1), 석유, 귤, 올리브, 가축 등이다.

독립 전에 알제리아의 학교 교원들의 절대 다수는 불란서인이였으며 불어로 교수를 진행하였다. 독립후 알제리아는 아랍어를 국어로 선포하고 점차 아랍어 교수 시간을 증가하고 있다.

1963—1964 학년도 교원 수는 독립 전의 2만 500명으로부터 3만 2,946명으로 늘었다. 그중 1만 8,377 명이 알제리아인이며 1만 2,364 명은 불란서인이다. 인민 학교 학생 수는 독립 전의 70만명으로부터 120만명으로, 중학생 수는 1만 4,000 명으로부터 3만 2,000 명으로, 대학생 수는 500 명으로부터 5,000 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외국인이 경영하던 100여 개의 영화관을 국유화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은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아직 곤난한 형편에 있으며 실업자가 200만명이나 된다. 문맹자는 주민의 80%이며 200만의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 하고 있다.

【출판】 통신— 알제리아 통신사(에이 피 에스)

신문— 알제 레뷰블리캉 (민족해방 전선당 기관지)

모 로 코

(모로코 왕국)
Kingdom of Morocco

【면적】 44만 5,577 km²

【인구】 1,280만 6,000명(1962년)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수도】 라바트(주민 22만 5,000명), 1962년 1월 1일부터 탄지르를 하기 수도로 결정하였다.

정 치 모로코는 19세기 40년대부터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912년 3월 30일 《페즈 조약》에 의하여 불란서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12년 11월에는 불란서와 서반아 간의 《마드리드 조약》으로 모로코의 남부, 이프니 지대가 서반아에 강점되였다. 1923년 12월 18일 불란서, 영국, 서반아는 모로코의 탄지르 지역을 소위 《국제 관리》 지구로 만들었다.

모로코 인민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모로코는 1956년 3월 2일 독립하였다. 같은 해 4월 17일 서반아령 모로코가 모로코 왕국에 귀속되였고 10월 29일에는 탄지르 지역의 《국제 관리》도 철폐되였다. 1962년 12월 7일 국민 투표에서 첫 헌법이 채택되였다.

모로코는 립헌 군주 국가이다.

【국왕】 물라이 하싼 2 세 (1961년 3월 3일 즉위)

【국회】 량원제이다. 하원 의원은 144 명이고 그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인데 3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11월 13일 성립되였다.

수상 아호메드 바호니니, 외상 아호메드 레다 게디라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에 불란서 공산당 지부로 창건, 1943년에 독자적 정당으로 되였다. 1960년 2월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알리 야타 립헌 제도 옹호 전선 집권당이다. 1962년 11월에 국왕이 모로코의 첫 헌법을 발표하였을 때 그를 지지하여 조직되였다. 지도자 아호메드 레다구 에디라 독립당(이스티클랄당) 1944년에 창건, 지주와 상공업자, 자유 직업자, 행정 관리들로 구성되여 있으며 현 정부를 반대한다. 당수 알랄 엘파씨 인민 력량 전국 련맹 국왕을 반대하며 아랍 련합 공화국과 련계를 맺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 립헌당, 인민 운동당

【주요 사건】 1963년 5월 17일 국회 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의석 144석 중 립헌 제도 옹호 전선이 69석, 독립당이 41석, 인민 력량 전국 련맹이 28 석, 무소속이 6석을 차지하였다. 10월 13일 진행된 상원 선거에서 립헌 제도 옹호 전선이 총의석 120석 중 118석을 차지하였다.

10월 14일 모로코와 알제리아 국경의 보르류 토르피 지역에서 충돌 사건이 발생하였다. 10월 말에 알제리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말리의 국가 원수들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회담을 가지고 정화하는데 합의를 보았다(11월 2일부터 정화).

12월 16일 모로코 정부는 미군이 강점하고 있던 누에세르 공군 기지를 접수하였다. 이 기지는 1961년에 모로코와 미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모로코에 이관된 5 개의 미 공군 기지 중에서 마지막의 것이다.

12월 27—30일 하싼 2 세의 초청에 의하여 주 은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모로코를 공식 방문하였다.

1963년 12월 유엔 제 18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 토의시 모로코 대표는 미국의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경 제 모로코는 농업 국가로서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민 소득의 약 40%는 농업에서 들어 온다. 총 경지 면적은 500 만 헥타르이다. 대 토지 소유자들이 총 경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불란서인들은 가장 기름진 땅 100만 헥타르를 가지고 있다. 농민의 절반은 대체로 토지도, 고정된 직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농업 생산에서 평균 65%는 농산물이며 35%는 축산물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포도, 올리브 및 귤 등이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 자족하고 있다. 목축업은 비교적 발전하였는데 가축으로는 양, 염소, 소, 당나귀, 노새, 말 등이 있다. 연해에는 수산 자원도 풍부하다.

공업은 나라의 총생산에서 25~30%를 차지하며 공업에서 주되는 부문은 채취 공업이다.

모로코에는 린산염(1961년 생산량 800만 톤, 세계 제 2 위), 코발트, 망간(1962년 47만 톤 생산), 연 등이 풍부하며 그 밖에 동, 철, 석유 등도 있다.

경제 명맥은 외국 독점 자본 특히 불란서가 틀어 쥐고 있다. 불란서는 400여 개의 공장, 광산들 중 73 개의 광산과 300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벨기, 서반아, 서독 독점체들도 모로코 경제에 침투하고 있다.

특히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모로코에 기여들고 있다. 미국은 1957—1961년 간에 모로코에 1억 7,500만 딸라의 《원조》를 주었으며 1962년에는 850만 딸라의 차관을 주었다. 1962년 6월 1일 미국은 모로코에 2,000만 딸라의 《원조》 차관을 제공하는 문건에 조인하였다.

대외 무역은 주로 불란서 독점체에 장악되여 있다. 대외 무역

은 해마다 결손을 내고 있다.

1960년에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취학하였다(독립하기 전인 1955년에 취학 아동 수는 23만여 명).

회교가 국교이며 문맹자는 주민의 93%이다. 도시 실업자는 20만 명이다. 전국 고용 로동자 320만의 50%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 프 니

【면적】 1,900 km²

【인구】 5만 4,000 명

【행정 중심지】 시드 이프니

이프니는 모로코 령토의 서남쪽 끝에 위치하며 대서양에 면해 있다.

1860년에 서반아는 원래 모로코 령토인 이프니를 강점하였다. 1956년에 모로코가 독립한 이후 이프니 인민들은 모로코에의 귀속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다. 서반아 식민지 당국은 이를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1958년에는 이프니를 서반아의 한개 《주》로 만들었다.

주민의 대다수는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맥류와 과실 등이다.

서반아령 사하라

【면적】 27만 3,000 km²

【인구】 약 7만 명 (그중 유목인 약 3만 명)

【행정 중심지】 빌라 시스네로스

모로코의 서남쪽에 있으며 세기아 엘 함라(면적 8만 3,000 km²)와 리오데 오로(면적 19만 km²)의 두 지역으로 구성되여 있다.

1916년에 사하라에 식민지 통치 제도를 수립한 서반아는 이 지역에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서부 렬강 지배층의 지지 하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사하라 인민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최근 년간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다. 1958년 초에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사하라 인민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1961년 3월에는 사하라와 남부 모로코 간의 접경 지역에서 《사하라 항쟁 투사》들이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서반아 군대와 석유 탐사소들을 습격하고 탐사소에 있는 외국인들을 체포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목축업과 어업에 종사한다. 주요 가축은 락타, 염소, 면양이며 농산물로는 쌀, 옥수수 등이 있다.

마우리타니아

(마우리타니아 회교 공화국)
The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면적】 108만 6,000 km²

【인구】 72만 7,000명(1961년말)

【수도】 누아크쇼트(주민 2,000명)

정 치 마우리타니아는 15 세기 포도아의 침입에 뒤'이어 불란서, 영국의 침략을 받았다. 1920년에는 불란서의 식민지로 되여 불령 서 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60년 11월 28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19일 마우리타니아는 불란서와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은 40명,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1961년 8월 20일 당선)

【정당】 마우리타니아 인민 동맹 1962년에 4개 정당이 통합하여 성립되였다.

경제, 사회 국토의 북부 및 중부는 사막 또는 반사막 지대이다. 이 나라는 농목축업 국가로서 주민의 4분의 3이 목축업에 종사한다. 1959년에 대각 가축은 약 130만 두, 양과 염소는 500만 두, 락타는 30만 두 있었다. 수수, 좁쌀(년산 10만톤 내외)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매장량 1억 2,500만 톤), 동 (매장량 50만톤) 등이 있다.

최근 철광이 발견된 후 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가공 공업으로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소규모의 수공업 및 반 수공업 기업소가 있다.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인민 생활은 가난하며 문맹자는 주민의 95%이고 취학률은 7%이다.

말 리

(말리 공화국)
Republic of Mali

【면적】 120만 4,000 km²

【인구】 441만 명 (1962년 7월)

만딘구스족, 토우아레그족, 마르카스족, 송하이스족, 풀베족, 기타 구라파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불란서어이나 지방에서는 반바라어(민족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도】 마바코 (주민 27만 5,000명)

정 치 말리(원명은 수단)는 1895년에 불란서 식민지로 되였다. 1956년에 불란서의 해외 령지법에 의하여 《반 자치제》가 실시되였다가 1958년 11월 24일 《불란서 공동체》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 4월에 수단(현재의 말리)과 세네갈이 통합하여 말리 련방을 형성하였고 1960년 6월 20일에는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불란서의 사촉하에 세네갈이 8월 20일 탈퇴함으로써 련방은 해체되였다. 1960년 9월 22일 수단 공화국은 나라 이름을 말리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말리는 불란서와 체결하였던 일체 《협정》을 폐기하고 1961년 2월 11일 《불란서 공동체》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식민지 경제 기구를 폐지하고 1961년 9월까지

말리에 있던 불란서 군대와 관리들을 축출하였으며 불란서의 군사 기지들을 철수시켰다. 동시에 말리는 민족 군대를 창설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중립과 블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의 종국적 청산과 아프리카의 통일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1960년 10월 31일에 말리 공화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민족 회의】 1원제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의원 수는 80명이며 전원이 수단 련맹 당원들이다.

의장 마하마네 아라산 하이다라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5월 13일 15명의 각료들로 구성되였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며 국방상과 외무상을 겸임하고 있다.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계획화 및 재정 조절 담당 국무상 쟝 마리 코네

【정당, 사회 단체】 **수단 련맹당** 말리의 유일한 정당이며 집권당이다. 1946년 10월에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로 창설되였다가 1948년에 수단 련맹당으로 발족하였다. 1962년 9월에 진행된 6차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수단 련맹당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 혁명적 당》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치국 성원은 19명이다. 총비서 모디보 케이타

사회 단체로는 수단 련맹당의 지도 하에 있는 **말리 로동자 전국 련맹, 수단 청년 동맹, 수단 민주 녀성 동맹** 등이 있다.

【주요 사건】 1963년 4월 9일 모디보 케이타는 민족 회의 선거전 군중 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말리의 유일당제를 반대하는 《서방 국가들의 책임적인 활동가》들을 규탄하였으며 말리에 주재하고 있는 일부 외교 대표부들이 말리 인민들을 매수하여 민심을 소란케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각성을 높일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4월 12일 독립 후 첫 민족 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6월 10일에 진행된 말리 수단 련맹당 전국 대회에서는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을 원조하기 위하여 말리에서 민족 해방군 지원병 모집 사업과 군사 훈련을 위한 야영소 건설을 진행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며 포도아와 남 아프리카의 인종주의 정권에 대한 뽀이꼬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7월 4일 정부는 2,500만 프랑을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에 기증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7월 7일에는 포도아 및 남 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일체 관계를 단절하였다.

1963년 9월 말리 정부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1월 말리와 꾸바 간에 사탕수수 재배와 사탕 공장 건설에서 꾸바가 말리에 경제 기술적 방조를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말리 련방이 해체된 후 단절되였던 세네갈과의 관계는 6월 22일 외교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정상화되였다. 이에 앞서 6월 7일에는 량국 간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철도 운행이 재개되였다. 이리 하여 내륙국인 말리는 세네갈의 다카르 항구를 다시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3월에는 1962년 6월에 개시된 불란서와의 경제 및 재정 문제에 관한 회담을 끝내고 1963년에 불란서가 말리에 차관을 제공할 것과 량국 간의 통상 관계를 재개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국과는 7월 9일 기술 교육 분야에서 협조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유목민은 약 70만명이다.

금, 철, 린산염, 망간, 주석, 연, 보키사이트 등 지하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독립 전에 말리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주로 락화생을 재배하였다. 목화, 고무, 벼, 옥수수, 차 등의 작물 재배는 독립 후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민족 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말리는 첫 5개년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1961—1965년)을 채택하고 기본 경제인 농업과 목축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식량 기지를 창설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계획 기간에 농산물 생산은 1959년에 비하여 70%, 공업 생산은 년 평균 8%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1961년에 정부는 말리에서 5만 헥타의 토지와 4만 명의 로동자를 가지고 있던 불란서의 경제 기구인 《오피스 듀 니제르》(대농장)를 국유화하였으며 대내외 상업 및 금융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영 농장들과 협동 조합들이 창설되였다. 1961년에 전체 농촌 주민의 15~20%가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으며 1963년에는 수천 개의 협동 조합이 조직되였다.

1962년 7월에 화폐 개혁을 실시하고 새로운 말리 프랑을 제정하였으며 새로운 은행을 창설하고 불란서의 식민주의자들의 조작물인 《서 아프리카 화폐 동맹》에서 탈퇴하였다.

말리 정부는 일부 개인 기업소들을 유상으로 국유화하였다.

1962년에 경지 면적은 190만 5,000 헥타에 달하였으며 기본 식료 작물인 기장과 수수의 파종 면적은 전체 파종 면적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벼의 파종 면적은 18만 8,000 헥타, 락화생 파종 면적은 18만 5,000 헥타이다.

1961년에 주요 농작물인 락화생은 12만톤, 벼는 19만톤, 조는 80만톤, 옥수수는 17만톤, 목화는 1만 6,000톤 생산되였다.

목축업은 서 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에 말리에는 390여만 두의 소, 600만두의 양이 있었다. 1965년에는 70만두의 가축을 수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공업으로는 9개의 정미 공장(정미 능력 년 2만 5,000톤), 수개의 타면 공장, 기름 공장(능력은 년산 102톤), 비누 공장, 2 개의 소규모 금속 가공 공장, 소형 선박 수리소와 자동차 수리 공장 등이 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말리는 수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세멘트, 방직, 가죽, 통조림, 제당, 비누, 담배, 도자기 공장들의 건설을 예견하고 있다.

말리는 니제르강을 중심으로 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무역은 주로 프랑 지역과 진행한다. 최근 년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무역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 가축, 축산물, 목화 등이며 수입품은 직물, 식료품, 각종 기계, 석유 제품 등이다.

독립 전에 말리 인구의 97%가 문맹자였다. 독립 후 정부는 우선 교육 시설을 국유화하였으며 1962년 10월에는 교육 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말리에서는 낡은 식민지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963년에 각급 학교 입학생 수는 12만 명이였으며 국립 학교 수는 1960년의 66교로부터 1963년에는 139교로 증가하였다.

1963년에 병원은 9 개, 산원은 43 개 있었으며 100명의 의사와 1,200명의 간호원 및 조산원이 있었다. 정부는 천연두 및 결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치료단을 조직하여 치료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판〕 신문—《예쏘르》(수단 련맹당 기관지), 《바라껠라》(말리 로동자 전국 련맹 기관지)

세 네 갈

(세네갈 공화국)

Republic of Senegal

〔면적〕 19만 7,161 km²

〔인구〕 310만 명 (1962년)

울로프, 세레르, 니오민카, 투쿨레라 등 종족들과 근 4만 명의 구라파인들이 살고 있다.

〔수도〕 다카르 (주민 38만 3,000명, 1961년)

정 치

세네갈은 중세기에 서아프리카의 가나, 말리 등 국가의 속령이였으며 1815년에 불란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46년 불란서 령 서아프리카 공동체에 편입되였다. 세네갈은 1960년 4월 4일 말리 련방의 성원국으로 독립(불란서 파리에서 독립을 부여할 데 관한 협정 조인) 하였고 그 해 8월 20일 련방에서 떠러져 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과의 정책상 의견 대립으로 수상 마마두 디아가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12월 20일 대통령은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963년 3월 3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의 결과 대통령 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였다.

7월 16일 정부는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결정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포도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포도아와 남아프리카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였다.

1963년 12월 1일 대통령과 국민 의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 수는 80 명, 임기는 5년이다. 1963년 12월 1일의 선거에서 진보 련맹 성원들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레오폴드 세다르 셍고르 (1963년 12월 1일 당선), 외상 두두 티암

〔정당, 사회 단체〕 **세네갈 진보 련맹** (집권당) 1958년 9월 25일 성립, 총비서 레오폴드 세다르 셍고르 **아프리카 독립당** 1957년 9월 성립,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정당이다. 1960년 8월 1일 비법화되였다. 제 1 비서 마제무드 디오프 **전국 로조 련맹**

경제, 사회

인구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1963년 현재 전체 로동자 수는 약 16만 명이다.

농경지는 령토의 약 10% 밖에 안 된다. 세네갈은 유명한 락화생 산지로서 그 재배 면적은 전 경지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국 인구의 약 3분의 2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나라의 락화생 생산량은 세계 제 4 위를 차지한다 (1961년). 1962년 락화생 생산량은 독립 전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였다. 기타 농산물로는 벼, 밀, 옥수수, 목화 등이 생산된다. 1963년에 벼 재배 면적은 7만 5,000 헥터였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하고 있다. 목축업과 수산업도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

세네갈은 기타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공업이 발전되여 있다. 1962년 현재 공업 기업소 수는 320 개였으나 종업원 수는 2만 7,000 명에 불과하였다. 의복, 메리야스, 담배, 세멘트는 국내 수요의 80%, 신발은 65%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광이 풍부하며 1962년에 그 생산량은 49만 7,000 톤이였다.

정부는 사회 경제 발전 4 개년 계획(1961—1964년)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인 락화생 및 그 제품의 수출액은 수출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입품은 쌀, 사탕, 기계, 원유제품, 흑색, 금속과 그 제품, 세멘트 및 목재 등이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17%이다. 다카르에 종합 대학이 있다.

【출판】 통신—세네갈 통신사
신문 《튜니트 아프리캔》 (진보련맹 대변지)

감 비 아

【면적】 1만 367 km²
【인구】 28만 9,000 명 (1959년)
【행정 중심지】 바더스트(주민 2만 1,500 명)

정 치 감비아는 1843년이래 영국의 식민지 (쎈트 마리섬)와 보호령 (감비아강 류역)으로 되였다.

최근 년간 감비아에서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여 시위와 파업이 빈번히 일어났다. 특히 1961년 1월 수도 로동자들은 임금의 90%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켰으며 주민들은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도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영국은 1961년 5월과 7월에 진행된 감비아 제헌 회의에서 감비아에 자치 정부를 수립할 데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2년 4월 27일에 식민지와 보호령에 내부 자치를 실시할 데 대한 《새 헌법》이 발표되였다. 5월에 의회 선거가 진행되고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다.

감비아는 1963년 10월 4일 완전한 내부 자치를 획득하였으며 이 날부터 새 헌법이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영국 총독이 의연 국방 및 대외 정책 분야에서 특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라의 내부 안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4일 수상 다비드 자와라는 방송 연설에서 철저한 정치적 해방과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당으로서는 **인민 진보당, 련합당, 민주당** 등이 있다. 이 정당들은 모두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독립 후의 국가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주산물은 락화생이다. 경지 면적은 22만 1,000 헥터이며 그중 락화생 재배 면적은 9만 헥터 이상이다. 락화생 년 평균 생산량은 3만~4만 톤에 달하며 락화생은 수출 총액의 96~98%를 차지한다.

현대적인 공업은 없고 수공업으로서 기름, 도자기, 제혁, 방직 공업 등이 있을 정도이다. 주요 수입품은 면직물, 식량 등이다. 주민의 95% 이상이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20% 미만이다. 원주민 출신의 의사는 2명 뿐이다.

포도아령 기니아

【면적】 3만 6,125 km²
【인구】 57만 명 (1961년 말)
【행정 중심지】 비사우 (주민 약 2만 명)

정 치 포도아령 기니아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있다. 1879년부터 포도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은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1959년 8월 3일 수도 비사우 부두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적인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투쟁에서 식민지 당국의 류혈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50여 명의 로동자들이 학살되였다.

1961년 8월 3일 포도아령 기니아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 총비서 카부라는 비사우 학살 사건 2주년에 제하여 이 날을 포도아령 기니아에서 무장 투쟁을 개시하는 날로 선포하였으며 그 때로부터 민족 해방 투쟁은 직접적인 행동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리 하여 1964년 1월 현재 포도아령 기니아 인민 무장대는 전국 령토의 40%를 통제하고 있다. 인민 무장대는 남부 일대를 비롯한 해방된 지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북부 지역으로 활동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포도아령 기니아 인민 무장대는 정규군과 유격대, 민병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1963년 한 해 동안에만도 포도아 침략군 1천여 명을 살상하였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은 날로 앙양되는 인민 무장대의 투쟁에 대처하여 자기의 침략군을 1959년의 1,000 명으로부터 1963년 말까지 2만 명으로 증가하고 1964년 2월부터 70일 간이나 코모섬에 상륙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인민 무장대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정당으로는 포도아령 기니아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있는 **포도아령 기니아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과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포도아령 기니아 및 베르데갑 제도 해방 운동**이 있다.

경제, 사회 주되는 경제 부문은 농업이다.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 코코아, 종려유, 피혁, 쌀 등이다. 락화생 년 생산량은 약 5만 톤, 코코아는 1만 4,000 톤, 종려유는 1,000 톤, 쌀은 1,500 톤이다. 최근 년간 미국 자본이 침투하여 석유 자원 탐사 및 채굴권을 장악하고 있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로 인하여 1942—1947년 간에 4만 명, 1958—1960년 간에는 약 2만명이 굶어 죽었다. 글을 아는 사람은 3천 명이며 전국에 병원은 1개 있다.

베르데갑 제도

【면적】 4,033 km²
【인구】 19만 4,465 명
【행정 중심지】 프라이아 (주민 3,575 명)

베르데갑 제도는 서부 아프리카의 베르데갑 서쪽 대서양에 있는 군도로서 1495년에 포도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포도아 정부는 베르데갑 제도를 《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년간 포도아령 기니아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의 영향 하에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고 있다.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사탕, 양주, 제염 및 어류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며 주요 농산물로는 피마추, 커피, 귤, 사탕수수, 담배 등이 있다.

기 니 아

(기니아 공화국)
Republic of Guinea

【면적】 24만 7,000 km²

【인구】 300만 명 (1961년 말)

주민은 주로 풀베족(49%), 만딩그족(25%), 수수족(14%) 등으로 구성되여 있다.

【수도】 코나크리 (주민 11만 2,500 명)

정 치 1848년부터 불란서가 기니아에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1885—1887년 간에 기니아 인민들은 불란서 침략군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불란서 침략자들로 하여금 강화 조약에 서명케 하였다. 그후 1890년에 불란서는 다시 침략을 개시하여 1895년에 기니아를 강점하였다.

불란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기니아 인민은 투쟁을 계속하였다. 1900년과 1908년에 대중적인 반불 투쟁이 있었다. 기니아 인민들의 반식민주의 투쟁은 2차 대전 후 더욱 앙양되였다. 1957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해 보려고 해외 령지 《기본법》을 조작하고 기니아에 《반 자치제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1957년 3월 기니아 령지 의회 선거에서 세쿠 투레가 지도하는 기니아 민주당이 총의석 60석 중 56석을 차지하였다. 1958년 9월 28일에 진행된 드 골의 《새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투표자의 95.4%가 이 《헌법》에 의한 《불란서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동년 10월 2일 기니아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동년 11월 12일 기니아는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0년 12월 기니아는 가나, 말리와 3국 동맹 (아프리카 국가 동맹)을 결성하고 1961년 1월에는 《카사블랑카 헌장》에 조인하였다(1963년 5월에 있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3국 동맹은 해체되였다).

독립후 기니아 정부는 정부와 군대 내에서 불란서인 관리들과 군관들을 추방하였으며 농촌에서의 추장 제도를 폐기하였다. 또한 기니아는 민족 군대를 창설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며 아프리카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는 1958년 10월 8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61년에는 통상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과 방송 분야 및 통신사들 간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여 있으며(전원 기니아 민주당원) 임기는 5년이다.

의장 레온 마가(1963년 10월 17일 당선)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며 군 사령관을 겸한다. 임기는 7년이다. 현 정부는 1963년 1월 2일 18 명으로 구성되였다. 2월 9일 일부 내각 개조가 있었다.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외상 루이 란사나 베아보기, 민족 보위 및 국가 안전상 호레바 케이타

【정당, 사회 단체】 민주당 기니아의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1947년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58년 10월 19일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족하였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 소부르조아지들로 구성되여 있다. 총비서 아흐메드 세쿠 투레 전국 로조 련맹 1945년에 조직되였다. 위원장 카바 마마디

【주요 사건】 1963년 8월 15—19일 기니아 민주당 제 7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제 6 차 대회가 제출한 당 규약의 비준, 민족 회의와 지방 기관들의 선거 준비, 국내 경제 개선을 위한 재정법의 개정 및 기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기니아는 아프리카 나라 령토들에 배치되여 있는 외국 군사 기지들이 《이 국가들 자체와 전반적 평화에 상시적인 위협을 주는》데 대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고하였으며 아프리카 통일 기구 헌장에 부합되지 않는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적 그루빠들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를 외국의 예속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적극적인 중립 정책을 확고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3월 10—14일 간에 정부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간상배들의 투기와 모리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화폐 교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월 18일부터는 상품 가격을 10% 인하하였다.

세쿠 투레 대통령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말리와 상아 해안(2월), 세네갈(3월), 나이제리아(4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5월의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 기니아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전 아프리카 민족 해방 기금》의 설립을 제의하였다.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후 세쿠 투레 대통령은 탄가니카, 콩고(브라자빌), 에티오피아, 리베리아 등을 방문하였으며 그후 말리, 에티오피아, 탄가니카, 리베리아, 상아 해안의 국가 원수들을 기니아에 초청하여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련의 외견

교환들을 진행하였다.

8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일체 관계를 단절하였다.

5월 10—16일간에 기니아에서 우리 나라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되였으며 9월 기니아 정부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6월에 쏘련 정부 대표단이 기니아를 방문하였다. 6월 중국으로부터 700만 딸라의 차관을 받기로 했다.

5월에 기니아는 불란서와 기술 및 문화 교류와 무역 관계를 재개하며 불란서 교원을 접수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불란서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기니아 정부는 독립 후 외국 독점 자본을 제한하면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기니아 정부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경영하던 대부분의 공장들과 전체의 은행, 보험 회사들을 국유화하였고 금융 및 대외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니아는 프랑 지역으로부터 탈퇴하였으며 국가 은행을 건설하고 자국 화폐를 발행하였다. 그 밖에도 정부는 운수 및 농업 부문에 국영 기업소들을 설립하였다. 기니아는 1960년부터 인민 경제 발전 계획 (1960년 7월—1963년 7월)에 착수하였다.

3개년 계획에서 기니아는 농업 생산 특히 수출 작물 생산을 증가시키며 쌀을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발전시킬 것과 공업 부문에서는 30 여개의 중소 공장, 광산의 신설, 국내 원료에 기초한 가공 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였다.

농촌 경리에서는 1961년 이래의 자연 재해로 인하여 주요 농작물의 생산이 감소되였으며 1963년도에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6만 7,000 톤의 쌀과 1만 2,000톤의 밀가루를 수입하였다.

1961년에 주요 농산물들인 쌀은 32만 톤, 감자는 12만 톤, 옥수수는 6만 톤, 바나나는 7만 2,000 톤, 락화생은 9,000 톤, 종려는 2만 4,000톤, 커피는 1만 5,000 톤 생산되였다. 또한 소는 135 만두, 염소 및 면양은 70 만두 있었다.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 (매장량 약 6억 톤), 철광석(매장량 약 25억 톤), 철반토, 금강석(1962년에 120만 카라트 생산), 금, 망간 등이다. 가공 공업으로는 중소 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 비누 공장, 기름 공장 및 알루미늄 공장이 있다.

독립 후 기니아 정부는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수립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보키사이트, 철광석, 철반토, 락화생, 차, 종려, 피혁,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며 (수출 총액에서 3분의 1은 농산물이 차지) 수입품은 공업 제품과 량곡이다. 대외 무역은 사회주의 국가들 (무역 총액의 약 3분의 1)과 미국, 영국, 서독, 이태리, 아프리카 나라들과 진행하고 있다.

기니아 정부는 1960년 초에 개인들이 경영하던 학교를 전부 국유화하였다. 1966—1967 학년도부터 전체 학령 아동(7—15세)에 대한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62—1963년도에 초등 교육 부문의 학교 수는 1,459개, 학생 수는 15만 494명, 중등 및 기술 교육 부문 학교 수는 41개, 학생 수는 1만 2,398명, 대학은 1개 있었다.

1962년도에 기니아에는 21개의 병원, 158 개의 치료원, 1 개의 폐결핵 예방 치료원이 있었으며 침대는 1958년의 1,903대로부터 1962년에는 6,843대로 늘었다.

【출판】 통신— 기니아 보도 련합사

신문—《호로야》(민주당 기관지)

방송— 기니아 방송국

시에라 레오네

Sierra Leone

【면적】 7만 2,366 km²

【인구】 260만 명 (1963년 현재)

주민은 멘데족, 템네족(이상 주민이 60%)을 비롯한 13 개 종족과 구라파인, 아세아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수도】 프리타운 (주민 10만 명)

정치 시에라 레오네는 15 세기 중엽부터 포도아의 침략을 받았다. 16 세기 중엽에는 영국이 침입하였다. 영국은 1888년 프리타운을 포함한 연해 지역을 식민지로, 1896년에는 내륙 지역들을 《보호령》으로 선포함으로써 이 나라를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시에라 레오네 인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4월 20일—6월 4일에 진행된 시에라 레오네 《제헌 회의》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에서는 독립 후에 영국과 《호상 협조 및 방위 조약》(시에라 레오네에 영국의 공해군 기지 건설)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에라 레오네는 1961년 4월 27일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하였다. 같은 해 5월 5일에는 미국과 《경제 및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2월에 정부는 앙골라를 비롯한 식민지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는 포도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총독】 헨리 제이. 엘. 보스톤

【국회】 1962년 5월에 있은 독립 후 첫 선거에서 62석 중 인민당이 28석, 진보 독립 운동과 인민 대회당이 20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2년 5월에 성립. 수상 밀톤 마르가이, 외상

존 카레파 스마트

【정당, 사회 단체】 인민당 (집권당) 1958년 9월 성립되였다. 당수 밀톤 마르가이 전국 인민 대회당 1960년 9월에 성립된 야당이다. 진보 독립 운동, 로조 리사회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경지 면적은 3만 6,617 평방키로메터이며 알곡 년 생산량은 25만 톤 내외에 불과함으로 식량을 수입한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종려씨, 락화생 등이다. 산림 면적은 전국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금강석(1962년에 260만 7천 카라트 생산), 크롬, 금 등이 풍부하다.

가공 공업으로는 기름 공장, 정미소, 가구 공장 등이 있다.

주요 수출품은 금강석(수출 총액의 약 50%), 철광석, 크롬광 종려씨, 코코아, 커피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식료품, 기계 설비, 직물, 차량, 석유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1963년에 수출의 81.2%, 수입의 42.9%를 차지하였다), 화란, 서독, 미국, 일본 등이다.

1962년 9월 20일 정부는 《10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자액은 1억 6,400만 파운드이다.

리베리아

(리베리아 공화국)
Republic of Liberia

【면적】 11만 1,400 km²

【인구】 250만 명(1958년)

원주민 89%, 미국에서 이주하여 온 흑인 8%, 백인 1%, 기타 2%이다.

【수도】 몬로비아(주민 약 6만명)

정 치 리베리아는 《미국 식민 협회》가 보낸 해방 노예들이 건립한 흑인 공화국이다.

1847년 7월 26일에 독립하였으나 사실상 미국 식민주의자들의 통제 하에 있다.

미국에서 이주하여 온 흑인의 후손들이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범한 토착 아프리카인들은 노예적 처지에 있다. 1955년에 비로소 정부는 토착 아프리카인들에게도 국가의 정치, 경제 생활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게 한다는 《통일 정책》을 공포하였다.

1963년 2월 5일 몬로비아에서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각되여 국가 경비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인들이 체포되였다(1955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10명, 그의 임기는 6 년이고 하원 의원은 30명 (그중 12 명은 토착 아프리카인), 임기는 4년이다. 흑인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 윌리암 타브맨 (1943년에 처음으로 취임하였으며 1963년 4월에 다섯번째로 련임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 명맥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으며 미국 딸라가 통용되고 있다. 인구의 75~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이 나라 경제의 기본인 고무인바 그의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커피, 종려, 바나나, 락화생, 코코아 등도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매장량 3억 3,000만 톤), 금강석, 망간, 흑연, 보키사이트, 우라늄, 동, 아연, 운모 등이 있다.

미국의 《파이아스톤 타이야 및 고무 회사》는 리베리아 고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베리아의 철광석의 탐사권과 채굴권은 미국 자본인 《리베리아 광업 회사》와 《리베리아 미국 서전 광업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고무, 철광석, 금광석이고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벨기, 화란, 영국이다.

주민 5만~7만 5,000 명에 의시는 한 사람이고 말라리아 환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아동들의 취학률은 10% 밖에 안 되며 문맹자는 주민의 90%에 달한다. 종교는 기독교이다.

상아 해안

(상아 해안 공화국)
Republic of the Ivory Coast

【면적】 33만 3,000 km²

【인구】 333만 8,000명(1963년)

다민족 국가로서 바울레족, 크루족, 발린카족 등 수 많은 종족들로 구성되여 있다. 구라파인이 2만 5천명 정도 있다.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 하며 불어를 사용한다.

【수도】 아비쟌(주민 25만 명)

정 치 19세기 이래 포도아, 서반아, 화란, 영국인들이 상아 해안에 침입하여 노예와 상아 장사를 하였다. 1887—1889년에 불란서에 강점되여 그 식민지로 되였다. 1904년에 불란서령 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59년 4—5월 상아 해안은 다호메, 니제르, 상부 볼타와 함께 4개국 《협상 회의》를 결성하였다.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결과 상아 해안은 1960년 8월 7일 《불란서 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0년 11월 신 헌법을 채택하고 국민 의회와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1961년 4월 24일 불란서와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1년 5월 31일 국민 의회에서 처음으로 군대 창건 법안을 채택하였다. 상아 해안은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의 성원국이다.

1963년 2월 17—20일 아비쟌에서 4개국 《협상 회의》 성원국 대통령 회의가 진행되였다.

1963년 9월 10일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7월 14—16일 대통령 펠릭스 우푸에 보아니는 아랍 련합 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량국 지도

자들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국민 의회】 의원은 7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아프리카 민주 련맹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펠릭스 우푸에 보아니, 외상 카밀레 알리알리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 민주 련맹 1946년 10월에 이전 불란서령 서 아프리카 및 적도 아프리카 12개의 주요 정당들로서 조직되였다. 1951년까지 진보적인 렬당으로서 아프리카의 단결과 반식민주의 투쟁을 주장하였다. 상아 해안 민주당(집권당) 1945년에 성립되였다.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이다. 당수 우푸에 보아니(기관지 《프라테르니테》), 민족 해방 위원회 1958년 9월에 성립되였다. 통일 로조 련맹 (1959년 현재 성원 12만 7천명)

경제, 사회 주민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1963—1964년에 20만 1,000톤 생산, 생산량에서 아프리카 제 1 위, 세계 제 3 위), 코코아(생산량은 세계 제 4 위), 바나나, 종려, 목재 등이며 벼, 옥수수, 목화 등도 재배 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강석, 망간, 석유, 철 등이 있으며 공업으로는 방직, 담배, 커피, 코코아 등 가공 공장이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상아 해안에 적극 침투하였는바 석유 채취업을 비롯한 일련의 기업소들에서 미국 자본은 30~50%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목재, 바나나(이상 4개 상품이 수출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고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1963년에 불란서는 상아 해안의 수출에서 48%, 수입에서 66%를 차지하였다.

상부 볼타

(상부 볼타 공화국)
Republic of the Upper Volta

【면적】 27만 5,000 km²

【인구】 450만 명(1963년)

기본 주민은 모시족을 비롯하여 보보족, 구루시족, 로비족, 만데족이다.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 하여 불어를 국어로 사용한다.

【수도】 와가두구(주민 6만 3,000명)

정치 상부 볼타는 1896년 이래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909년에 불란서의 식민지로 되였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결과 상부 볼타는 1958년 12월 11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공화국》으로 되였고 국명을 볼타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가 1959년 헌법에서 국명을 상부 볼타 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5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상부 볼타는 4개국 《협상 회의》 성원국이며 1961년 4월 24일에는 불란서와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공동 방위》 체계에는 참가하지 않음).

1962년 3월 대통령은 상부 볼타에서 불란서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상부 볼타 민족군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3년 9월 17일 상부 볼타 정부는 남아프리카와 포도아의 비행기가 자국 령토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상부 볼타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의 성원국이며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국민 의회】 의원은 7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겸 수상, 국방상 모리스 야메오고

【정당, 사회 단체】 민주 통일당(집권당) 아프리카 민주 련맹(상아 해안 참조)의 지부이다. 지도자 모리스 야메오고 흑아프리카 로동자 총련맹 상부 볼타 지부

경제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주요 경제 부문은 목축업인바 약 200만 두의 대각 가축과 300만 두의 양 및 염소가 있다. 토지는 비옥하며 전체 주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보장할 수 있는 경작지가 있으나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황폐화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옥수수, 기장, 수수, 조, 벼, 락화생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망간, 동, 우라늄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락화생 및 종려 가공 공장을 포함한 약간의 가공 공장이 있다. 1963년에 전력은 770만 키로와트시 생산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목화, 가축(수출 총액의 46%), 어류, 락화생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 (수입의 71%)와 가나(수출의 50% 이상)이다.

가 나

(가나 공화국)
Republic of Ghana

【면적】 27만 3,780 km²

【인구】 710만 (1963년 1월)

아산티족, 판티족, 에웨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통용된다.

【수도】 아크라(주민 39만 명)

정치 15세기에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이, 18세기부터는 영 제국주의자들이 가나를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1844년에 황금 해안(현재의 가나)은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가나 인민들은 100여 년 간에 걸쳐 영국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807—1901년 간에 여덟 차례에 걸치는 아산티족의 대중적인 반영 투쟁이 있었으며 1948년에는 영국 상품 배격 운동이 벌어졌다. 가나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1951년에 아프리카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가 조직되였으며 1954년 4월에는 《자치》가 실시되였다. 1959년 3월 6일 황금 해안은 영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 이름을 가나로 개칭하였다. 동시에 영국 후견령 토고가 가나에 통합되였다.

1960년 4월에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7월 1일에 가나 공화국을 선포하고 느크루마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가나는 1960년 12월에 기니아, 말리와 함께 《아프리카 동맹》을 형성하고 1961년 1월에 카사블랑카 헌장에 조인하였다(1963년 5월에 있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결정에 따라 해체됨).

독립후 가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맺았으며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영국 경제 세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영국인 고급 군관들을 해임하고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고 의원 수는 112명(10명의 녀성 의원들을 포함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국민 의회 의원은 1956년 7월에 선출되였으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임기를 1965년 7월 1일까지 연장하였다. 의장 아사두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1962년 9월 국민 의회는 느크루마를 종신 대통령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10월에 느크루마가 이를 거부하였다.)

내각에는 13개의 성과 2개의 위원회(계획 위원회, 검찰 위원회)가 있다. 현 내각은 1962년 9월에 개조되였다.

대통령 크와메 느크루마, 외상 코죠 보치오, 국방상 코피 바아코

【정당, 사회 단체】 인민 대회당(집권당) 1949년 6월 12일 창건되였다. 당원 수 250만명, 위원장 겸 총비서 크와메 느크루마

사회 단체로는 인민 대회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로동 조합 대회, 전국 협동 조합 평의회, 농민 련합 리사회, 녀성 전국 리사회, 청소년 선봉대, 전국 학생 련합회 등이 있다.

【주요 사건】 1963년 1월 8일 아크라에서 느크루마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나에서의 반정부 음모와 관련하여 각서에서 《어떤 외국의 정보 기관이 음모자들에게 재정적 원조를 주었다》고 지적하였는데 1월 7일 《가나 타임스》지는 이러한 정보 기관이 바로 미국 중앙 정보국이라고 지적하였다.

가나 정부는 나라의 다당제가 제국주의자들에게 발 붙일 지반을 주며 또한 아프리카 통일 정신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유일당제》 실시를 위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964년 1월 24—31일 간에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유권자의 96%가 유일당제에 찬성하였다.

그리 하여 야당의 활동은 법적으로 제한되고 집권당인 인민 대회당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가나 정부는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느크루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를 앞두고 5월 11일 《아프리카는 통일되여야 한다》라는 저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저서에는 아프리카를 하나의 정부와 상하 량원으로 구성되는 단일한 국회를 가지는 보다 큰 통일체로 결성할 데 대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느크루마 대통령은 5월 24일 아디스 아베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느크루마 대통령은 가나 인민 대회당 창건 14주년에 제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전취물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물심 량면으로 되는 원조와 지원을 줄 것을 호소하였다.

가나는 1월 13일 군사 정변으로 수립된 토고 신 정부를 승인하는 동시에 이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가나에서의 반정부 음모와 관련하여 악화되였던 량국 간의 관계는 개선되였다. 2월 10일 량국 간에 국경을 자유로 래왕하며 상품 교류를 재개할 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우리 나라와의 친선 관계 발전을 위하여 1963년 9월 16—27일에 걸쳐 가나 정부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 하순에 가나 정부 친선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3월에 쏘련과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2천만 루블의 차관을 받기로 하였으며 7월 20일 가나 인민 대회당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광업이 위주로 되여 있다.

가나에는 금, 금강석 (1962년에 320만 8,000 카라트 생산, 세계 제 3위), 보키사이트(매장량 2억톤), 망간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산림 자원도 풍부하며(국토의 3분의 2가 산림) 원목 년 생산량은 180만 립방메터나 된다.

가공 공업으로는 식료품, 일용품, 건재, 금속, 비료 공장 등이 있다.

주민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이며 그 밖에 락화생, 옥수수, 수수, 기장, 바나나, 커피, 야자, 생고무 등이 있다. 코코아 재배 면적은 48만 헥타이며 1962년에 40만톤 생산되였다. 코코아는 가나 국민 소득의 약 60%, 수출액의 50~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분의 2가 코코아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독립후 가나는 영국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청산하고 경제의 자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상업에 대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가나 정부는 자국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국의 《코코아 수매 회사》를 폐쇄하고 코코아 무역국을 설치하여 코코아의 수매 및 수출을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 또한 화란 독점체의 금강석 회사와 영국 독점체들의 5 개의 금광을 접수하고 1963년 1월 1일부터 금강석의 구매 및 판매를 통제하는 국가 기관을 설치하였다.

농업 및 공업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 금융 회사, 공업 발전 회사를 설립하고 일련의 국영 공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민간 공업에 방조를 주고 있으며 외국인과 외국 회사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재정 금융 분야에서는 국립 은행, 상업 은행을 설립하고 가나 통화를 발행하였다.

가나 정부는 1959년부터 5개년(1959—1964) 계획 수행에 착수하였다. 계획 수행 기간에 각종 농작물의 경지 면적과 생산량이 확대되었으며 공업 분야에서는 년 125만 톤 능력의 석유 가공 공장(1963년 10월 건설), 세멘트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 등이 건설되였고 테마 항구가 개항(1962년 2월)되였다. 그러나 계획 수행 과정에 나타난 계획 자체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 1963년 1월부터 7개년 계획(1963—1970)에 착수하였다. 계획 기간의 지출액 10억 1,600만 파운드 중 4억 7,600만 파운드를 정부 지출로, 나머지는 외국 자본과 민간 자본으로 해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7개년 계획의 가장 주요한 건설 대상이며 가나 경제의 기간적인 부문인 볼타강 수력 발전소와 테마 알루미늄 공장 건설 자금의 절반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 느크루마 대통령은 가나의 경제가 일정한 기간 강력한 사회적 및 협동적 부문이 개인 부문과 함께 작용할 혼합 경제로 있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가나에는 1963년 말 현재 국영 농장이 105 개, 협동 조합이 1,456 개 조직되여 있다. 가나는 수출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수입을 대폭 축감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1963년에 식료품, 자동차, 의류 등 수입은 1962년에 비하여 50% 나 축감되였다. 수출품은 코코아, 목재, 금강석, 금, 망간광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가나 수입 총액의 40%, 수출액의 30%), 미국, 일본, 화란, 서독, 이태리, 벨기, 불란서, 서서 등과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독립 후 가나 교육은 발전하였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70%~80%이다. 그러나 성인 문맹자 수는 아직 전 성인의 75%나 된다. 1963년 현재 초등 학교 수는 6,792 개소, 학생 수는 78만 9,000명, 중학교 수는 1,739개소, 학생 수는 24만 4,000명, 고중 및 전문 학교 수는 74 개소, 학생 수는 2만 6,000명, 대학은 2개소, 학생 수는 2,000명이였다. 1963년에는 중학교, 인민 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하였다.

1963년 말 현재 병원은 27 개소, 침대 수는 6,500 개이고 46 개소의 농촌 진료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독립 후에 신설한 것이다. 외사 및 약제사는 561명 있었다.

【출판】 통신—가나 통신사

신문—가나 타임스(정부 기관지), 이브닝 뉴스(인민 대회당 기관지)

토 고

(토고 공화국)

Republic of Togo

【면적】 5만 6,600 km²

【인구】 152만 명(1962년)

【수도】 로메(주민 10만 명, 1963년)

다민족 국가로서 에웨족, 미나족, 반투족, 하미틱족 등이 있다.

정 치 15세기에 포도아인들이 침입하여 노예 장사를 하였고 뒤'이어 불란서인과 독일인들이 침입하였다. 1844년에 토고는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4년 8월에 영국은 토고의 서부를, 불란서는 동부를 강점하였다. 1946년 12월에 토고는 영국과 불란서의 후견령으로 되였다. 1956년 9월 불란서 후견령 토고(동부)는 불란서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

1957년 3월 가나가 독립함에 따라 토고의 서부는 가나에 편입되였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토고 인민의 투쟁의 결과 1960년 4월 27일 토고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4월 9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실바누스 올림피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토고는 불란서와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60년 9월 20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1963년 1월 13일 군사 정변(이전 불란서군 내의 토고인들이 일으킴)에 의하여 올림피오는 살해되고 정부 각료들은 체포되였다. 1월 17일 독립 전의 수상이며 다호메에 망명해 있던 니콜라스 그루니쯔키가 림시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 해산과 1961년 4월에 제정된 헌법의 폐기를 선포하였다.

1963년 5월 5일 대통령 및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그루니쯔키는 아프리카의 단결, 아프리카—말가슈 동맹과의 제휴를 선언하였다.

1963년 1월 21일 가나와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였으며 2월 1일부터 량국 국경이 개방되였다. 2월 그루니쯔키는 가나를 방문하고 량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할 데 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국민 의회】 현 국민 의회는 1963년 5월 5일에 선거되였다. 의원 수는 52명이며 그의 임기는 5년이다.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5월

15일 구성되였다.

대통령 겸 내상, 국방상 니콜라스 그루니쯔키 (1963년 5월 10일 취임), 외상 죠르쥬 아페도 아마

【정당, 사회 단체】 토고 인민 민주 련맹 당수 니콜라스 그루니쯔키

토고 통일당 경제의 자주적 발전과 간부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한다. **《쥬벤토》당** 적극적인 《자립 정책》의 실시와 《아프리카 합중국》의 창건을 주장한다. 당수 아나니 산토스 **토고 인민 운동, 토고 전국 로조 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가경지는 211만 헥터이나 경지 면적은 그것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목화, 코프라, 옥수수, 락화생, 종려 등이다.

공업으로는 타면 공장과 착유(종려유 생산) 공장들이 있다. 가내 공업이 널리 발전하였다. 토고에는 린광(매장량 5,000만 톤)을 비롯하여 철광, 보키사이트, 크롬, 흑연, 석유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1960년 이후 토고는 농업 생산의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3 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수도 로메에 현대적인 항구가 건설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원료로 하는 방직 및 방적 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토고 행정 학교를 비롯한 일련의 학교들이 신설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종려유, 락화생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다 호 메

(다호메 공화국)
Republic of Dahomey

【면적】 11만 5,800 km²

【인구】 205만 명 (1961년)

에웨, 요르바, 폴베족 등 30여 종족들이 살고 있다.

【수도】 포르토노보(주민 5만 800 명)

정 치 15 세기부터 다호메는 구라파인들의 노예 시장으로 되였다. 19 세기부터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900년에 불란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0년 8월 1일 다호메는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다호메는 《협상 회의》 성원국이며 1941년 4월 24일 불란서와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1년 7월 1일 300 년간 포도아의 강점 하에 있던 산 쥬안 바프티스타를 회복하였다.

1963년 10월 27일 코토누에서 7천 명의 다호메 군인들은 불란서 장교들이 다호메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데 항의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28일에는 수천 명의 수도 시민들이 대통령 마가의 사직을 요구하였다. 이 날 군 총참모장 소글로 대좌가 정변을 일으키고 국회와 정부를 해산하였으며 림시 정부를 조직하였다.

림시 정부는 1964년 1월 19일 대통령과 국민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대통령】 술루 미간 아피티(1964년 1월 19일 선거에서 선출, 이전 마가 정부의 부대통령)

【국민 의회】 1964년 1월 19일 총선거에서 성립되였다. 의원 수는 72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1월 19일 선거후 부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구성되였다.

수상 쥐스땡 아호마데그베, 외상 가브리엘 로제스

【정당, 사회 단체】 다호메 민주당 1963년 12월 21일 현 대통령 아피티, 부대통령 겸 수상인 아호마데그베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총비서 가브리엘 로제스

경제, 사회 원주민의 94%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이다.

주요 농작물은 종려(총경지 면적의 50% 이상이 종려 나무 재배지로 되고 있으며 그 널 생산량은 2만여 톤이다.)이고 그외에 락화생, 목화, 커피, 옥수수, 바나나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있다.

주요 수출품은 종려유와 종려씨로서 수출 총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29%이다.

니 제 르

(니제르 공화국)
Republic of Niger

【면적】 126만 7,000 km²

【인구】 294만 7,000 명(1961년 말)

주민중 송가이, 제르마, 하우자족 등 흑인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그 외에 아랍족이 있다.

【수도】 니아메 (주민 4 만 명)

정 치 19 세기 초부터 니제르에 침입하기 시작한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1908년에 니제르의 전 령토를 불란서령 서 아프리카에 통합하였다.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타 번지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1957년에 이른바 해외 령지 《기본법》에 기초하여 니제르에 《반자치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1958년에는 《불란서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승인하였다. 1960년 8월 3일 니제르는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2월 11일 니제르는 《불란서 공동체》에서 탈퇴하고 이 해 4월 24일 불란서와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니제르는 상아 해안, 상부 볼타, 다호메와 함께 《협상 회의》 성원국이며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60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으로 된다.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1960년

11월 9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정부】 1962년 12월 31일에 조직되였다. 정부의 전체 각료는 니제르 진보당원이다.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외무상 아다무 마야끼

【정당, 사회 단체】 니제르 진보당 1946년에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로서 조직되였다. 1958년 이래 집권당이다. 지도자 아마니 디오리 사와바당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제를 반대하고 있다. 1959년 10월에 비법화되였다. 지도자 지지보 바카리 니제르 전국 로동 련합회 (현 정부를 지지한다)

경제, 사회 주민의 94%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과 목화이며 쌀, 옥수수, 수수 등도 생산된다. 1960년에 대각 가축은 350만 두, 면양과 염소는 680만 두 있었다.

지하 자원은 금, 망간, 우라늄, 철, 석, 석유 등이다.

1959년 이래 미국 석유 회사 《스탠다드 오일 캄파니 오브 뉴저시》가 35만 5,000 평방 키로메터의 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수출 총액의 80%), 가축, 가죽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 나이제리아이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8.5%이다.

챠 드

(챠드 공화국)
Republic of Chad

【면적】 128만 4,000 km²

【인구】 272만 1,300명(1960년)

북부에는 프라지어 계통의 하우사족, 남부에는 사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가누우리족, 우로족 등의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주민의 52%가 회교도, 5%가 기독교도이다.

【수도】 포르라미(주민 9만 4,000명)

정 치 챠드는 19세기 중엽부터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02년에 불란서의 식민지로 되였다. 챠드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장기간 전개하였다. 챠드는 1957년 초에 불명 해외 령지 《기본법》에 의하여 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58년 11월에는 《불란서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 1960년 8월 11일 챠드는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날 챠드는 대외 정책, 국방, 외교, 재정, 문화, 기술 분야에서 불란서와 《협조》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0년 11월 23일 헌법이 발표되였다.

1962년 1월 18일 대통령은 《아프리카 민족당》과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기타 정치 단체들을 해산시켰으며 1963년 1월에는 유일당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3년 9월 1일 챠드 정부는 남 아프리카와 포도아의 상품들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4 일에는 포도아와 남 아프리카의 비행기들이 챠드 령공을 비행하거나 이 나라 비행장에 착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다. 의원은 84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63년 12월에 국민 의회를 선거하였다. 진보당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프란수아 롬발바예 (1962년 4월 22일 재선, 수상과 국방상을 겸임)

【정당, 사회 단체】 1962년 1월 18일 챠드 정부는 아프리카 민족당과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기타 정치 단체들을 해산시켰다. 챠드 진보당 챠드의 유일한 정당이며 현 집권당이다. 위원장 프란수아 롬발바예

경제, 사회 챠드는 농업국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쌀, 락화생 등이다. 1961년에 목화 생산량은 3만 4,800 톤이였다. 이 나라 경제에서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1960년에 대각 가축은 400만 두, 면양 및 염소는 450만 두 있었다.

이 나라에는 24 개의 타면 공장 이외에 2 개의 기름 공장과 기타 가공 공장 등이 있다. 1961년에 가공 공업 로동자는 1,700여 명 있었다.

1961년에 목화씨 기름은 42만 리터, 육류는 7,700 톤 생산되였다.

수출품은 목화(수출의 80%), 육류, 가축, 가죽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이 나라에는 철도가 없으며 주민의 90% 가 문맹자이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 련방 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면적】 99만 3,500 km²

【인구】 5,565만 3,821 명(1963년 11월)

다민족 국가로서 이보족, 요루바족, 호싸족, 풀베족 등이 있다. 언어는 150여 종이나 되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언어는 호싸어, 이보어, 요루바어이다.

【수도】 라고스 (주민 35만 명)

정 치 15세기 이래 300년간 나이제리아는 포도아, 영국, 서반아, 불란서, 화란등 나라의 노예 상인들의 노예 시장이였다. 1861년 라고스를 점령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점차 라고스 지역 일대를 《보호령》으로 선포하였고 1914년에는 나이제리아의 전 령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장기간에 걸친 인민들의 투쟁으로 나이제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 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국민 투표 결과 영국의 후견령이던 북부 카메룬이 나이제리아에 편입되였

다. 1962년 1월 21일에 나이제리아는 영국과 체결(1960년 5월)한 예속적인 《방위 협정》을 폐지하였으며 1962년 8월 22일에는 나이제리아의 석유를 략탈하던 영국 독점체들을 청산할 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1963년 7월 25—26일 라고스에서 진행된 나이제리아의 모든 정당 대표들의 회의에서는 련방 공화국 선포와 관련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10월 1일 나이제리아 련방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나이제리아는 자체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북부, 동부 및 서부의 3개 자치 지역들로 련방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 주에는 2원제 주 의회가 있다. 나이제리아는 영 련방에 계속 남아 있다.

【대통령】 느남디 아지키배(1963년 10월 1일 련방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련방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44명(3개 주에서 각각 12명, 라고스에서 4명 선출, 총독이 4명을 임명), 하원은 312명(인구 10만에 1명 선출, 그중 북부주는 124명 선출)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1961년 7월 17일 북부 나이제리아 인민 대회당과 나이제리아 국민 회의의 량당이 련합하여 련방 정부를 구성하였다.

수상 아부바카르 타파와 발레와, 외상 자자 와츄쿠

【정당, 사회 단체】 **나이제리아 국민 회의** 1944년에 성립된 나이제리아 및 카메룬 국민 회의가 현명으로 개칭되였다. 동부 나이제리아의 집권당이다. **북부 나이제리아 인민 대회당** 1951년에 창설된 북부 나이제리아의 집권당이다. **행동파당** 1951년에 정식 성립된 서부 나이제리아의 집권당이다. **나이제리아 청년 대회당** 1961년 가을 라고스에서 제1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당 강령에는 《사회주의적 나이제리아의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이 당은 근본적인 사회 경제 개혁의 실시, 봉건 잔재의 청산, 국영 쎅또르의 강화, 외국 자본의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나이제리아 사회주의 로농당** 1963년 4월 16일에 창건되였다. 이 당은 첫 성명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그의 나이제리아인 주구와 투쟁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도자 툰지 오테그베예 **로조 대회, 청년 대회, 전국 학생 동맹**

경제, 사회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주요 농산물은 종려유(생산량에서 자본주의 세계 제1위), 코코아(자본주의 세계 제3위), 락화생 (1962—1963 농업 년도에 87만 2천 톤 생산), 담배, 목화 등이다.

나이제리아에는 각이한 사회 경제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북부주에서는 반 봉건적 농업 생산 관계가 존재하며 서남 지방과 동남 지방에서는 상품 생산과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니오븀(자본주의 세계 제1위), 주석, 석유, 석탄, 텅그스텐, 금, 은, 연 등이 있다.

1962년에 가공 공업은 국민 총생산액에서 8%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석유는 380만 톤, 1962년에 주석은 8,200 톤, 전력은 78만 6천 키로와트시, 석탄은 63만 4천 톤 생산되였다.

나이제리아 정부는 6개년(1962—1968) 경제 발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계획 기간에 소요되는 자금 약 20억 딸라의 약 절반을 외국 자본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나이제리아는 독립 후 3년 간에 방직 공장, 세멘트 공장과 기타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1963년에 년산 12~25만 톤의 강철 생산 능력을 가진 야금 콤비나트 건설에 착수하였다.

나이제리아는 1961—1962년에만도 3,300만 파운드의 차관과 2,500만~3천만 파운드의 사자본을 영국에서 받았다.

이 나라에는 5개의 종합 대학, 3개의 기술 대학, 22개의 전문 학교, 514개의 중학교, 317개의 사범 학교와 약 200개의 병원과 산원이 있다.

카 메 룬

(카메룬 련방 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Cameroun

【면적】 52만 270 km²

【인구】 432만 6,000 명 (1962년말 현재)

주민으로는 함족, 반투족, 셈족 등이 있으며 헌법은 불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야운데 (주민 5만 7,700명)

정 치 19세기 후반기부터 독일의 침략을 받아 온 카메룬은 1884년 독일의 《보호령》으로 되였다가 1916년에 영, 불 군대에 강점되고 제 1차 세계 대전 후에는 영령 카메룬과 불령 카메룬으로 분할되였다. 카메룬 인민들은 영, 불 강점군의 철거와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1928—1931년 간에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봉기가 련속 일어났다. 미, 영, 불 제국주의 자들의 조종으로 1946년부터 유엔 후견령으로 되여 영국과 불란서의 관리 하에 있었다.

불령 카메룬은 1960년 1월 1일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영령 카메룬에서 1961년 2월 11—12일에 국민 투표가 진행된 결과 북부 지역은 1961년 6월 1일 나이제리아에, 남부 지역은 동년 12월 1일 카메룬 공화국에 각각 편입되였다. 이리 하여 카메룬은 련방 공화국으로 되였다.

카메룬은 1960년 11월 13일에 불란서와 《협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불란서는 카메룬의 외교 인원의 편재 작성과 훈련을 《협조》하며 외교 사절을 파견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카메룬을 대표하며 카메룬 군대의 훈련과 장비를 담당하게 되였다. 카메룬은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의 성원국이다.

【련방 의회】 의원 수는 50 명(동부 카메룬 40 명, 서부 카메룬 10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련방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련방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같은 주에서 선출될 수 없다.

대통령 아호마두 아히조(1960년 5월 당선)

【정당, 사회 단체】 카메룬 인민 동맹 1948년 4월 10일에 창건되였고 1955년 7월에 불란서 당국에 의하여 비법화되였다. 농민, 로동자, 인테리들로 구성된 이 련맹은 이전 불령 카메룬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카메룬 련맹(집권당) 1958년에 조직되였다. 통일당, 국민 행동당, 민주당, 사회당, 로조 련맹, 민주 녀성 련맹, 민주 청년 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락화생, 고무, 담배 등이다. 700만 헥타의 기름진 땅 중에서 300만 헥타만이 경작에 리용되고 있다. 농업 로동자들의 수는 9만 7,000 명이다.

지하 자원으로 보키사이트, 금, 주석, 석유, 천연 가스 등이 있다. 카메룬 령토의 절반 이상은 열대림이며 유용한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국민 소득에서 공업은 약 15%를 차지한다. 이 나라 남부 지방에는 큰 합판 공장들과 제재소들이 있으며 서부 및 동부 지방들에는 크지 않은 주석 광산과 금광들이 있다. 최근 느가운데레 지방에서 보키사이트 및 철광과 천연 가스 산지가 발견되였다. 사나강에는 출력 15만 키로와트 능력의 수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 발전소 전력과 수입 점토에 기초하여 알루미늄 공장(불란서 회사 소유, 년산 4만톤 이상)이 건설되였다. 이 밖에 크지 않은 세멘트, 기름, 방직, 비누, 정미 공장 등이 있다.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목화, 목재, 고무, 야자 열매, 야자유, 락화생, 담배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제품, 기계, 강재, 직물, 의류, 식량 등이다.

【출판 보도】 통신—카메룬 통신사

신문— 프레쓰 디 카메룬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대변지), 테포르카메루네 (주간지), 라와되카메룬 (인민 동맹 기관지)

서반아령 기니아

【면적】 2만 8,051 km²

【인구】 21만 2,000 명

【행정 중심지】 산타 이사벨 (주민 약 2만 명)

서반아령 기니아는 카메룬의 남쪽과 기니아만에 있는 여러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1778년 이래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원시적인 농업과 야생 종려 채집에 종사하고 있으며 구라파인들이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사탕수수 등을 재배한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과실 및 채소, 목재 등이다.

산 토메도, 프린시페도

【면적】 964 km² (산·토메도 824 km², 프린시페도 140 km²)

【인구】 6만 3,337 명 (1958년)

【행정 중심지】 산 토메 (주민 3,200명)

아프리카의 서해안 기니아만에 있는 작은 섬이다.

1485년에 이 섬에 침입한 포도아는 그후 아프리카인들에 의하여 일단 구축되였다가 19 세기에 다시 이 섬을 강점하였다. 1951년에 포도아 정부는 이 섬을 《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 독립을 주장하는 산 토메도 프린시페도 해방 위원회가 있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바나나 등이다.

가　　본

(가본 공화국)

The Gabon Republic

【면적】 26만 7,000 km²

【인구】 45만 명 (1960년)

헌법은 공용어를 불란서어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리브르빌(주민 2만 5,000 명)

정 치 불령 적도 아프리카의 한 주였던 가본은 1960년 8월 17일《불란서 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이날 가본은 불란서와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3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64년 1월 21일 대통령 므바는 국민 의회를 해산하였으며 새로운 국민 의회를 선거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2월 24일에 구성되였다. 대통령이 수상, 외상, 내상, 공보 및 관광상직을 겸임한다. 대통령 레온 므바(1961년 2월 12일 선출, 임기 5년)

【정당】 가본 민주 련맹(집권당)지도자 레온 므바 민주 및 사회 련맹, 가본 민주 통일당 1958년 성립, 《불란서 공동체》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한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림업과 광업이다. 가본에는 백단, 장미나무(오꾸메) 등 귀중한 나무들이 많다. 목재는 1960년에 약 74만톤 채벌되였으며 60여 억 아프리카 프랑에 달하는 목재가 외국에 수출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철, 망간, 우라늄, 금, 금강석 등이 있다. 1962년에 우라늄 정광은 1,100 톤, 금은 500 키로그람, 천연 가스는 800만 8,000 립방메터, 망간광은 23만 톤(첫 4개월분) 생산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목서, 코코아,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락화생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와 석유이다.

중앙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면적】 61만 7,000 km^2

【인구】 178만 4,000 명(1961년 말), 방기아, 반다, 잔디 등 종족이 있다.

【수도】 방기(주민 8만 2,000명)

정치 1885년 이래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그 식민지로 된 우방기 샤리는 1958년 12월 《불란서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고 나라 이름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1960년 8월 13일 독립하였다.

【국민 의회】 일원제이고 의원은 50 명,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현 정부는 1963년 1월에 개조되였다.

대통령 다비드 다코

【정당, 사회 단체】 **흑 아프리카 사회 해방 운동** (집권당) 자기 나라가 《불란서 공동체》 내에 남아 있을 것을 주장. 위원장 다비드 다코 **중앙 아프리카 민주 해방 운동** 불란서와의 《협조 정책》을 반대, 1960년 2월에 비법화 **적도 아프리카 총로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지구 로조 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산물은 목화와 커피이다. 경제 명맥은 불란서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목화 파종 면적은 약 16만 헥타이며 27만 명이 이에 종사한다. 1960년에 목화는 2만 6천 톤, 커피는 7,100 톤 생산되였다. 이밖에 락화생, 벼도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금강석, 석, 연, 철, 망간 등이 있으나 금과 금강석을 내놓고는 거의 미개발 상태에 있다. 금강석은 1962년에 26만 5천 카라트 생산되였다.

가공 공업으로는 정미 공장, 정유 공장, 타면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목화, 커피, 금강석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인바 불란서는 이 나라 수출의 65%, 수입의 6?%를 차지한다.

인민 생활은 매우 락후하며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며 취학률은 28% 정도이다.

콩 고

(콩고〈브〉 공화국)
Republic of Congo

【면적】 34만 2,000 km^2

【인구】 86만 4,600 명(1962년) 바우옴비, 바테키, 바코타, 므보치, 바라리 등 종족들이 산다.

【수도】 브라자빌 (주민 10만 7,000명)

정치 1875년부터 콩고에 침입하기 시작한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1880년 9월에 이 나라를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불란서령 적도 아프리카에 편입시켰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콩고 인민의 오랜 투쟁으로 콩고는 1960년 8월 15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날 콩고는 불란서와 국방, 경제, 고등 교육, 재정 및 대외 관계 문제에서 《협조》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1년 3월 2일에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콩고는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되였다. 대통령 율루는 국내 경제 형편이 악화되고 자기의 통치 지반이 약화되자 《유일당 통치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체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억압하면서 자기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1962년 8월 25일 대통령 율루는 모든 정당을 해체하고 유일당 구성을 선포하였으며 1963년 4월 16일 국민 의회는 대통령의 유일당 구성 초안을 승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정당들과 정부 내에서는 율루의 정책을 둘러 싸고 모순이 격화되였다.

1963년 8월 13일 브라자빌의 3천명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체포된 로조 지도자들의 석방, 총선거의 실시를 요구하여 총파업을 선포하고 《율루를 타도하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시 형무소를 습격하고 전체 수감자들을 석방하였으며 방송국을 습격하여 방송 시설들을 파괴하였다.

8월 15일 로동자들의 폭동과 반정부 세력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율루 정부는 타도되고 새로운 림시 정부가 수립되였다. 이리 하여 8월 혁명이 승리하였다. 1963년 12월 8일 국민 투표로 새 헌법이 채택되고 국민 의회가 선거되였다.

【국민 회의】 1원제이다. 의원은 5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의장앙고르 레옹

【대통령】 마쌈바 데바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12월 24일 구성되였다. 수상 파쓰칼 리쑤바, 외무 및 공보상 샤를레 다비드 가나오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북부의 므보치족을 지반으로 하고 있으며 율루 정부를 지지한다. **아프리카 리익 보호 민족 련맹** 바라리족을 지반으로 하고 있으며 불란서 공동체 내에 머물러 있을 것을 주장하며 서부 렬강과 《협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장 안뚜완 하즈메 **진보당, 로조 련맹** 1964년 3월 20일 일부 로조 단체들이 통합하여 련맹을 결성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 부문은 농업과 림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산림 면적은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59년(1—10월)에 목재는 19만 7,000 톤 생산되였다. 목재는 이나라 수출에서 약 50%를 차지하며 그 주요 수출 대상국은 서부 독일이다.

공업은 국민 소득에서 약 18%

를 차지하며 기름, 정미, 사탕, 어류 통조림, 식료, 담배, 방직 공장등이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동, 연, 철 (매장량 약 1억 톤), 망간, 탄산염, 석유 등이 있다.

1959년에 금은 114 키로그람, 연은 8,700 톤, 석유는 5만 톤 생산되였다.

농산물은 쌀, 옥수수, 락화생, 코코아, 바나나, 담배 등이다. 농산물 및 유용 광물의 95~97%가 불란서와 프랑 지역에 수출된다.

카 빈 다

【면적】 7,770 km^2

【인구】 4만 6,277 명 (1940년)

카빈다는 콩고와 앙골라의 접경 지대인 대서양 연안에 있는 포도아 식민지이다.

최근 년간 카빈다에서는 자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1960년 9월과 1961년 7월에는 포도아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시위가 진행되였다. 1963년 초에 카빈다의 무장한 폭동군이 포도아 군대와 견결한 무장 투쟁을 진행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식민주의자들의 코코아 재배원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종려와 락화생 등이다.

콩 고

(콩고<레> 공화국)

Republic of Congo

【면적】 284만 4,932 km^2

【인구】 1,479만 명 (1962년)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38 종의 언어가 있다.

【수도】 레오폴드빌 (38만 9,547 명)

정 치 구라파 식민주의자들이 침략하기 전까지 (15 세기 말) 콩고 지역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었다. 당시 외래 침략자들은 여기에서 노예 매매를 진행하였다. 19 세기 후반기에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콩고를 강점하고 원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 한편 이 나라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략탈하였다. 1908년 이전에 콩고는 《콩고의 자유국》이라는 명칭하에 벨기 왕의 개인 소유지였으며 1908년부터는 벨기의 식민지로 되였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콩고 인민들의 장기간의 투쟁에 의하여 1960년 6월 30일에 콩고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 후에도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여전히 콩고의 정치, 경제, 군사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콩고 병사들이 1962년 7월 6일 콩고군을 통솔하고 있는 벨기 장교들의 축출을 요구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실로 콩고에 대한 무장 간섭과 침략을 감행하였다. 7월 11일 벨기, 영국,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촘베는 반란을 일으켜 《카탕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미제는 유엔 안보 리사회에서 7월 14일 《유엔군》을 콩고에 파견할 데 대한 결의를 강압 채택하였다. 미제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은 벨기 식민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콩고를 침략하였다. 미제와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주구인 대통령 카사부부는 9월 5일 수상 파트리스 루뭄바를 그 직책에서 해임하였고 반동적인 륙군 참모총장 모부투는 9월 14일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국회를 페쇄하고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였다. 미제와 콩고 반동들은 1961년 1월 18일 파트리스 루뭄바와 기타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

1960년 12월 12일 콩고 정부의 부수상 안뚜완 기젱가는 자신이 합법적 정부의 수상 직책을 담당하고 수도를 스탠리빌로 옮겼다. 기젱가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의 지지를 받았다. 콩고의 애국적 군대들과 인민들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키부주와 카탕가 북부 지역에서 《유엔군》과 촘베 및 모부투 도당과의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벨기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이 투쟁은 진압 당하였으며 1961년 8월 아돌라를 수상으로 하는 반동적인 중앙 정부가 조작되였다. 1962년 1월 기젱가는 체포되였다. 1962년 말 미제의 지시 하에 콩고 주둔 《유엔군》은 촘베 도당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개시하여 카탕가의 전역을 장악하였다. 1963년 1월 15일 촘베는 미제에게 굴복하여 《카탕가의 분리를 종식》시킨다고 성명하였다. 이러 하여 1960년 7월 이래 미국을 일방으로 하고 벨기, 영국 및 불란서를 타방으로 한 신구 식민주의자들 간의 투쟁은 일단락 짓게 되였다. 콩고 전역을 장악한 미제는 자기의 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제는 군사 원조를 제공하며 장교들을 파견하는 한편 콩고 군대를 개편함으로써 아돌라 도당의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아돌라 도당은 1963년 9월 29일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외국 《전문가》들로서 《헌법 초안 위원회》를 구성하고 《련방》 헌법을 조작함으로써 파쑈 통치를 강화할 것을 기도하였다.

5월 20일부터 2주일 간 콩고군 총사령관 모부투는 미국을 방문하였다. 10월에는 소위 《모부투 계획》에 의하여 미국의 군수 물자—《폭동 진압 장비》를 포함한 2만 5천 명의 병력을 장비할 수 있는 현대적 무기들을 반입하였다.

아돌라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10월 18일 유엔 총회는 1963년 12월에 철수하기로 되여 있는 콩고 주둔 《유엔군》을 6개월 간 더 연장하여 1964년 6월 말까지 콩고에 계속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콩고에서 쫓겨 났던 벨기는 다시 콩고에 기여들고 있다. 1961년 12월 27일 아돌라 도당은 벨

기와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으며 1963년 2월에는 벨기의 경제 기술 《원조》를 받아 들이기로 하였다.

콩고 인민의 투쟁 미제와 아둘라 도당의 압제 하에서도 콩고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위한 반미 반정부 투쟁은 부단히 전개되였다. 1962년 1월부터 1963년 말까지 콩고 인민은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20여 차의 시위와 파업을 단행하였다.

5월 28일 하원은 기젱가의 자유를 박탈하였던 1962년 5월의 표결을 무효로 선포하고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아둘라 도당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9월에 의회를 해산하고 말았다. 6월 14일 콩고 민족 운동당은 동부주에서 그렌펠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주 정부를 수립하였다. 28일 아둘라 도당의 압력과 잔인한 학살 만행으로 주 정부를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28일 콩고의 아프리카인들 2천 명은 기젱가를 박해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여 반정부 시위를 단행하였다. 콩고 인민들은 의회 투쟁이나 합법적 투쟁으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직 무기를 들고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1964년 1월 하순 레오폴드빌의 동쪽 약 300 마일 지점에 있는 퀼루주에서 대규모적인 반미 반정부 무장 투쟁이 일어 났다. 그 때로부터 4월 초까지 애국적 무장대들은 700 명으로부터 1만여 명으로 장성하였으며 활동 지역도 불과 몇백 평방 키로메터로부터 1만 5천 평방 키로메터로 확대되였다.

[대통령] 죠세프 카사부부

[국회] 1960년 5월 22일 처음으로 상하원이 구성되였다. 1960년 9월 14일 모부뚜 도당에 의하여 폐쇄되였다가 1961년 7월 27일 재개되였다. 1963년 9월 29일 대통령 카사부부는 국회를 해산하였다.

[정부] 아둘라 정부는 1961년 8월 2일 조직된 후 세 번이나 개조되였다.

수상 씨릴 아둘라

[정당, 사회 단체] 민족 해방 리사회 무뭄바가 조직한 민족 운동당과 기젱가가 조직한 아프리카인 단결당을 비롯하여 민족적 독립의 회복을 요구하는 콩고의 모든 애국자들을 집결하여 1963년에 조직되였다. 민족 해방 리사회는 인민 해방군을 창건하고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도자 가스톤 수미알로 《아바코》당 1948년 카사부부가 창건한 반동적인 정당, 당수 카사부부 《코나카트》 당 1957년 7월 카탕가주의 추장들로 조직되였으며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반동적인 정당이다. 당수 쏨베 **발루바 카트당, 전국 로조 련합회, 콩고 전국 청년 련맹**

경제, 사회 콩고는 지하 자원, 특히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자원이 풍부하다. 매장량에서 자본주의 세계 제 1 위인 우라늄, 동, 석, 금강석을 비롯하여 망간, 월프람, 은, 탄탈, 라듐, 코발트, 연, 아연, 게르마늄, 카드늄, 철 등이 있다. 콩고 지하 자원의 80%는 카탕가주에 매장되여 있다. 카탕가주의 광물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몫을 보면 동은 80%, 석은 14%, 금강석은 60%, 코발트는 75%, 라듐은 100%이다. 산림 면적은 전 령토의 절반(1억 헥타)을 차지한다. 콩고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채광업이다.

1961년에 금강석은 1,814만 카라트(자본주의 세계 생산의 56%), 동광은 19만 4천 톤, 코발트는 8,398 톤(자본주의 세계 생산의 50.2%) 생산되였다. 미국은 자기들의 정치 군사적 지위를 리용하여 카탕가의 자원을 략탈하고 있으며 소위 《원조》를 통하여 콩고의 경제, 재정, 대외 무역을 통제하고 있다. 1960년 6월 30일부터 1963년 9월 상순까지 미국이 콩고에 준 《기술 원조》 총액은 1억 6,300만 딸라이다. 미국 정부와 아둘라 정부 간에 콩고에 대한 《미국 사자본 및 회사들의 투자 보증 협정》이 체결되였다. 미국 독점체들은 콩고에 6억 5,000만 딸라를 투자하고 50%의 높은 리윤을 짜내고 있다. 미국은 콩고에서 채취하는 우라늄의 전부, 코발트의 80~90%, 석, 탄탈, 금강석 등 전략 원료의 전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자본은 경공업 원료, 가공 공업, 건축 공업에도 침투하였다. 독립 전에 콩고 광물 생산의 75%, 철도의 53%, 전력의 87%를 장악하고 있던 《유니옹 미니에르 회사》(벨기, 미국, 영국의 공동 투자)는 1962년 2월 업무를 재개하였다.

가공 공업에서는 정유 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소규모의 식료품, 비누, 방직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국민 소득에서 가공 공업은 7.5%(1956년 현재), 농업은 4분의 1을 차지하며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1억 3,650만 헥타이며 그중 가장 비옥한 5,200만 헥타는 7 개의 외국 회사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종려씨, 야자유, 종려유, 목화, 담배, 고무이며 이 밖에 차, 삼, 옥수수, 벼 등이 있다. 1959년에 종려유는 24만 5,200 톤, 목화는 6만 톤, 쌀은 16만 5,000 톤, 옥수수는 33만 3,000 톤, 사탕은 3만 1,000 톤 (1961—1963년) 생산되였다. 그러나 아둘라 도당의 집권 후 커피, 종려 생산은 감소되였으며 알곡, 목화는 수출로부터 수입에로 전화되였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대량적으로 수입한다.

재정 예산의 4분의 1은 군사비에, 65%는 관리들과 국회 의원들의 봉급에 탕진된다. 1962년에 예산 적자는 134억 콩고 프랑, 1964년 3월 현재 채무 총액은 380억 콩고 프랑이였다.

콩고 수출품의 대부분은 광물 다. 및 농업 원료이다. 주요 수입품은 광산 기계, 설비, 소비품이다.

콩고 인민들의 생활은 식민지 통치 시기와 다름 없이 날로 악화되여 가고 있다. 1960년 이래 통화는 약 10 배로 팽창하였으며 물가는 15% 등귀하였다. 1963년 초 현재 전체 로력자 수의 약 50 %가 실업 상태에 있다. 유아 사망률은 50%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회교도들이다. 학교는 정부와 천주교회의 통제 하에 있다.

르 완 다

(르완다 공화국)
Republic of Ruanda

【면적】 2만 6,338 km²

【인구】 266만 5,000 명(1960년) 인구의 84%는 바후투족이고 기타는 바투시족이다.

【수도】 키갈리

정 치 르완다는 1896년에 부룬디와 함께 독일 식민지로되였다. 1946년 12월 유엔 후견령으로 되여 벨기의 관리하에 있었다. 1959년에 벨기는 바후투족을 사촉하여 종족 간의 충돌을 조작하여 국왕을 내쫓았다. 1960년 9월 선거 결과 파루메후투당의 카이반다가 수상으로 되였으며 1962년 1월에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1962년 7월 1일 독립하였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바후투족과 와치족 간의 분쟁과 르완다와 부룬디 간의 분쟁이 자주 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며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그레고이 와르 카이반다, 외상 라자레느 파카니에

【정당】 바후투족을 대표하는 **파르메후트당** (벨기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당수 카이반다)과 와치족을 대표하는 **민족 동맹**이 있다.

경 제 전 령토가 고원으로 되여 있어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산물은 커피, 목화 등이 되며 가축으로는 소, 양 등이 있다.

부 룬 디

(부룬디 왕국)
Kingdom of Brundi

【면적】 2만 7,834 km²

【인구】 222만 4,000 명(1960년) 대다수가 바후투족이며 기타 와치족이 있다.

【수도】 부줌부라(주민 4만 5,000 명)

정 치 부룬디 왕국은 1896년에 르완다와 함께 독일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46년 12월 르완다와 부룬디는 유엔 후견령으로 되여 벨기의 관리 하에 있었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사촉으로 1959년에 바후투족과 와치족 간의 분쟁이 있었다. 1961년 9월 벨기는 반동들을 사촉하여 왕자인 르와가소레 수상을 암살하였다. 1962년 7월 1일 부룬디 왕국은 독립하였다.

독립 후 부룬디는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음모와 투쟁하면서 부룬디인이 지휘하는 민족 군대를 창설하였다. 대외적으로 부룬디는 뿔럭 불가담 정책을 선포하고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부룬디는 쏘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1963년 3월에는 부룬디 녀왕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국왕】 므와미 므왐부짜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6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느게단둠베, 외상 니부보나

【정당】 국민 진보 통일당, 인민당, 진보 동맹 등이 있다.

경 제 부룬디는 락후한 농목축국가이다. 토지는 비옥하며 금, 주석, 월프람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지하 자원은 《르완다 부룬디 광업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공업은 락후하며 제 2 차 대전 후에 소규모의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 공장이 건설되였다. 농산물로는 커피, 목화, 옥수수, 목서, 콩 등이 생산

우 간 다

Uganda

【면적】 24만 3,410 km² (그중 3만 5,431 km²는 호수와 소택지)

【인구】 684만 5,000 명(1961년) 그중 아프리카인이 약 93%이다.

【수도】 캄팔라 (4만 3,000 명)

정 치 우간다는 1896년 (부간다주는 1894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독립을 위한 우간다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국은 1961년 10월 우간다 제헌 회의에서 내부 자치를 거쳐 1962년 10월 9일에 가서 우간다에 독립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1962년 3월 1일 우간다에서 내부 자치 정부가 수립되고 10월 9일에는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국은 우간다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간다에서 복무하고 있는 1,200 명의 영국인 관리들을 우간다 정부가 귀국시키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1,200만 영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독립 후 정부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로 영국인)들을 점차 아프리카인으로 교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프리카인화》 로선을 제기하였다.

1963년 3월 16일 정부는 보도, 라지오 방송 및 사회 발전성을 비롯한 수개의 성들에 있는 상설 서기를 아프리카인으로 바꾸었으며 군대 내에 있는 107 명의 구라파인 장교들을 78 명으로 축소하고 앞으로 50 명 이하로 축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4월에는 경찰 총국장을 비롯한 경찰 내의 영국인 고위 간부들과 기타 기관 내

영국인들을 아프리카인으로 교체하였다. 9월 26일 우간다 국민회의는 영국 총독을 우간다 대통령으로 바꿀 것을 결정하였다.

우간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영국은 우간다에 있는 영국인들을 일시에 다수(40%) 철수시킬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우간다는 영국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4 개의 주 즉 부간다주(부간다 왕국), 북부주, 동부주, 서부주(서부주에는 부니요로, 안콜레, 토로 왕국이 있다)와 11 개 구역으로 구분되여 있다. 그중 부간다 왕국은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다. 1892년 영국이 부니요로 왕국을 정복할 때 부간다 왕국이 영국 군대를 방조한 대'가로 부니요로 왕국의 령토 중에서 6 개 주를 부간다 왕국에 넘겨 주었다. 현재 부니요로 왕국은 이 《잃은 땅》을 반환할 것을 부간다 왕국에 요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두 왕국 사이에는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1963년 3월 부간다 왕국에서는 이 분쟁 지역을 둘러싸고 큰 폭동이 발생하였다. 중앙 정부는 이 지역을 비상 지역으로 선포하고 부간다 왕국으로부터 동 지역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한 밤바족과 바뇨로족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우간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립 정책을 표명하고 아프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적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포도아와 일체 관계를 단절하고 령사관까지 폐쇄하였다.

1963년 2월 21일—3월 3일 간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우간다를 방문하고 3월 2일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에 조인하였다.

【국회】 의원 수는 91 명이다. 그중 82 명을 주민들이 선거하며 9 명을 국회 의원들이 선거한다. 부간다 왕국은 총 의석 중 24 석을 차지하고 있다. 1962년 4월 25일에 진행된 국회 선거 결과 인민 대회당이 37 석, 민주당이 22 석, 까바까 예까당이 21 석, 기타가 2 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프레데리크 무테사 (1963년 10월 취임)

【정부】 현 정부는 1962년 5월 1일 16 명(그중 부간다주에서 4 명)으로 구성되였다.

수상 밀톤 오보테

【정당, 사회 단체】 우간다에는 6 개의 정당과 6 개의 사회 단체들이 있다. 집권당인 인민 대회당은 유일당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들은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 있다. **인민 대회당** (집권당) 1960년 3월 현 수상 밀톤 오보테가 《인민 련맹》, 《우간다 민족 진보당》, 《국민 대회당》의 주요 세력들을 통합하여 조직한 민족주의 정당이다. 이 당은 북부와 동부주에 지반을 가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나라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과 경제 발전 및 국가 기구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쁠럭 불가담 정책과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고 있다. 당원 약 50만 명, 위원장 밀톤 오보테 **민주당** 1956년에 창건, 영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매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부간다와 서부주의 일부 주민 계층, 주로 천주교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제 천주교 조직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당원의 대다수가 천주교도이다. 이 당은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일 것을 주장하며 유일당 제를 반대한다. 영 련방과 련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당수 베네딕트 키와누카 **국민 대회당** 1952년에 창건된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중소부르죠아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다. 창건 초기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3 차에 걸친 당내 분렬로 하여 점차 약화되였다. 국가 기관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한다. 당원 수 약 10만 명, 위원장 부싸지 **까바까 예까당** 1961년 11월에 창건되였다. 이 당은 부간다 왕의 이름을 가진 당으로서 부간다 령토 내에만 국한되여 있으며 부간다 왕을 비롯한 봉건 세력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 당은 집권당과 합작하여 부간다 왕국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위원장 미첼 킨투(부간다 정부의 수상)

이밖에 봉건 세력의 지지를 받는 **련합 민족당**과 **아프리카 련맹** 등이 있으며 사회 단체로서는 **로동 련맹, 로동 조합 대회, 국민 대회당 청년 조직, 인민 대회당 청년 조직, 민주당 청년 동맹, 기독교 녀성 협회** 등이 있다.

경제, 사회 우간다는 주민의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이다. 농업 생산액은 국민 소득에서 75%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토지는 왕과 지방 관리,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영국 식민지 통치 기간에 우간다의 경제는 목화와 커피 생산을 위주로 하는 단작 경리로 전변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와 커피이며 기타 차, 사탕, 담배, 옥수수, 기장, 고구마 등도 생산된다. 목화, 커피, 차, 사탕 등은 주로 영국인 농장에서 재배된다. 목화와 커피 재배 면적은 경지 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목화의 년 생산량은 약 8만 톤이며 커피는 1963년에 14만 톤 생산되였다.

축산업은 우간다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약 350만 두의 대가 가축과 372만 4,000 두의 염소 및 양이 있었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광, 철광, 동, 연, 주석, 코발트, 월프람광, 탕그스텐, 망간, 금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다. 우간다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가장 큰 린 산지이며 린광은 년산 40만 톤이다.

가공 공업으로는 제탕, 제분, 방직(1 개소), 제재 공업 등이 있으나 이것들은 광업과 함께 영국, 미국, 카나다 등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독립 후 정부는 농업을 다각경리 체계로 개편하며 자체의 민족 경제를 창설하고 은행을 창설할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재정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영국 자본에 장악되어 있는 커피의 수매 가격을 20% 인하시켰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목화이며 이는 총수출액의 약 90%를 차지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일본, 서독, 미국, 카나다 등이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우간다의 경제 형편을 악화시키기 위하여 식민지 통치 시기에 우간다의 식민지 행정 기관들이 영국에서 받은 일체 차관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20%이며 550 명의 교원 중 우간다인은 34 명이다.

우간다에는 습지와 하천이 많고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하여 각종 질병이 성행하고 있다. 인구의 40%는 수명이 15세 미만이다.

【출판】 신문-우간다 포스트 (루간다어, 인민 대회당 기관지), 우간다 요게라 (루간다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왕국)
Empire of Ethiopia

【면적】 118만 4,320 km² (그중 에리트리아 12만 4,320 km²)

【인구】 약 2,200만 명 (그중 에리트리아 인구 117만여 명, 1960년 추산)

주민의 대다수는 사미테족, 하미테족과 아프리카 혼혈족이다. 언어는 암하라어와 영어이다.

【수도】 아디스 아베바 (주민 40만 명)

정 치 에티오피아는 립헌 군주국이다. 국가의 요직은 왕족 일파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는 정당도 없다.

1950년 12월 2일부 유엔 결정에 의하여 1952년 9월 15일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어 련방을 형성하였다. 에리트리아는 1962년에 정식으로 에티오피아의 한 개 주로 되였다. 에티오피아에는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으며 정부의 주요 기관 (외교, 재정 포함)에는 미국인 고문과 《전문가》들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소말리와는 령토 분쟁 문제를 가지고 있다(소말리 참조).

【국왕】 하일레 쎌라시에 1세 (1930년 1월 2일 즉위)

국왕은 국가의 최고 원수이며 나라의 행정, 립법, 군사, 외교 분야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105 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210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의회는 1961년 6—7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1년 4월에 개조되였다.

수상 아클릴루 하브트 웰드

경제, 사회 에티오피아는 농업국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자연 경제가 지배하는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는 봉건적 생산 관계 및 씨족 제도의 잔재와 자본주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특징된다. 경지 면적은 약 800만 헥타이다. 대부분은 국가와 대지주들 및 교회에 장악되여 있다. 방목지는 4,718만 헥타, 산림 면적은 3,038만 5,000 헥타에 달한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밀, 보리, 유지 작물, 바나나 등이다. 자연 커피림은 40만 헥타이며 커피나무는 1억 8,000만 그루에 달한다. 커피 년 생산량은 4~6만 톤이다. 커피의 90%는 야생 커피이다.

축산업은 나라의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 가축은 소, 양, 염소 등이다.

백금, 황금, 은, 석면, 류황, 운모, 연, 린산염, 우라늄 등 지하 자원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수출의 60~70% 이상을 미국에 수출), 피혁, 두류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이태리, 영국 등이다.

전후 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바 미국 《국제 협조처》의 자료에 의하면 1952—1961년 간에 에티오피아는 9,917만 3,000 딸라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인민 생활은 매우 락후하며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주민의 절반은 기독교도이고 기타 회교도도 있다.

소 말 리

(소말리 공화국)
Republic of Somali

【면적】 63만 7,593 km²

【인구】 약 210만 명(1961년)

대부분이 소말리인이고 소수의 아랍인, 인도인 등이 있다.

【수도】 모가디쇼 (주민 약 10만 명)

정 치 1880년대에 소말리는 영령, 불령, 이태리령의 3개 식민지로 분할되였다. 그 후 영국은 자기가 강점한 일부 지역을 에티오피아에 넘겨 주고 일부 지역은 자기의 식민지인 케니아에 편입시켰다.

소말리 인민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특히 20 세기 초부터 1920년까지 전 주민의 3분의 1이 희생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반영 투쟁을 전개하였다.

70 여 년간에 걸친 소말리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0년 6월 26일 영령 소말리가, 동년 7월 1일에는 이태리 후견령 소말리가 독립하였다. 이날 두 지역은 통합하여 소말리 공화국을 선포하고 영령 지역을 북부 지구, 이태리령 지역을 남부 지구로 명명하였다.

소말리의 독립에 동의하면서 식민주의자들은 각종 예속적인 부대 조건들을 강요하였다. 소말리는 이태리와 1960년 6월 30일—7월 1일 간에 《우호 조약》, 《령사 권리 협정》, 《재정 원조 협정》, 《항공 및 항해 원조 협정》 등 4 개의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과 협정에 따라 이태리는 매년 소말리에 200 만 딸라의 《원조》를 제공하여 소말리에 대한 경제 개발 투자를 실시하며 소말리의 외교 대표가 없는 나라에서 이태리가 소말리의 리익을 대표하기로 하였다. 소말리 국가 기관들의 요직은 이태리 고문과 전문가들에게 점탈 당하고 있다.

영국은 《군사 협정》을 통하여 소말리의 군사력을 틀어 쥐고 있다.

최근 소말리 정부는 야당의 공격과 5 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자금난 및 에티오피아와의 령토 분쟁 등으로 일련의 난관을 겪고 있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123 명이며 임기는 5 년이다. 1964년 3월 30일에 실시한 독립 후 첫 선거에서 청년 련맹당이 69 석, 민족 동맹이 22 석, 민주 련맹이 15 석, 기타 정당이 17 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 의회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6 년이다.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1961년 7월 6일 취임)

[정부] 현 정부는 1961년 7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이외의 내각 성원 중 남부 지구 출신 11 명, 북부 지구 출신 5 명이다. 수상 아브디 라쉬드 알리 쉐르마르크 (청년 련맹당), 외상 아브둘라히 이싸 모하무드(전 남부 지역 수상)

[정당, 사회 단체] **청년 련맹당**(집권당) 1943년에 이전 이태리 후견령 소말리에서 지주, 상인 및 상층 인테리들로서 성립되였다. 이 당은 의회와 정부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대와 경찰력을 장악하고 있으나 당은 3 파로 분렬되여 있다. 당수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민주 련맹** 1960년 9월 27일 이전 영령 소말리의 민족 동맹과 통일당이 통합하여 민족 동맹 통일당으로 되였다가 1962년 2월에 대 소말리 련맹과 합당하였다. 전 이태리 령 소말리 지역의 소부르죠아지와 로동자, 사무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반둥 회의 정신을 지지하며 외국 군사 기지를 반대한다. 당수 오말 아브기 **민족 동맹** 전 영령 소말리 지구 봉건 세력들과 일부 인테리를 대표하는 정당이다. 당수 아브 바카르 하므드 쏘코로 **독립 립헌당**, **민족 통일 전선** (당수 마리아노), **로동자 련합회** (남부 지역), **로조 련합회** (북부 지역)

[주요 사건] 1963년 7월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린》하는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킨다는 사회 질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정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 련맹을 비롯한 야당 세력들은 《헌법 정신을 배반한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1963년 6월 청년 련맹당 제 5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 정형을 토의하고 경제 건설의 기본 과업은 국내 자원의 최대한의 리용과 실업자의 축소, 소말리 공민들의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농촌 경리가 나라의 경제적 기초라고 규정하였다.

1963년 8월 쉐르마르크 수상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태리를 방문하였다.

1963년 말까지 7 차에 걸쳐 미, 영, 서독, 이태리 등 서방 국가들에 수 개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군사 원조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1963년 말에 소말리는 쏘련에서 3천여 만 딸라의 군사 원조, 중국으로부터 300만 딸라의 예산 보조금과 2천만 딸라의 장기 차관을 받았다. 8월에 중국과 《경제 기술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소말리는 중국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벼, 담배 재배와 피혁 공장, 도로, 비행장 건설에서 방조를 받고 있다.

국경 분쟁 소말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소말리 령토에서 떼내여 케니아에 병합한 케니아의 북부 국경 지역(케니아 전 면적의 근 절반, 인구 10만명)과 에티오피아에 병합한 오가덴 지방(에티오피아 전 령토의 5분의 1)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케니아의 독립을 계기로 케니아의 북부 국경 지역을 완전히 케니아에 넘겨주고 소말리를 반대하는 에티오피아와 케니아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케 하는 등 로골적인 적대 행동을 감행하였다.

1963년 2월 20일 소말리와 케니아 국경에서 영국 군대와 소말리 군대 간의 무장 충돌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4일 모가디쇼에서 5만 명의 시민들이 반제 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영, 불, 에티오피아 대사관과 에티오피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령토 완정을 요구하였다.

3월 14일 소말리 정부는 영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령사관을 축출하는 동시에 영국의 《재정 원조》를 거부하였다. 또한 영국과 체결한 항공 협정, 방송 협정도 폐기하였다. 에티오피아와의 국경 지역에서는 1960년 12월과 1961년 초에 무장 충돌이 있었고 1964년 2월 7일—3월 26일 간에 수차의 무장 충돌이 있었다. 국경 충돌과 관련하여 소말리 정부는 1964년 2월 8일 아프리카 통일 기구 특별 외상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2월 10일에는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제소하였다.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호소에 호응하여 3월 24—30일에 소말리와 에티오피아 간에 국경 분쟁의 조정에 관한 회담이 진행

되였다. 회담 결과 량국 군대는 4월 1—6일에 국경선에서 10~15 마일 철수하며 정화를 실시할 것과 군대의 철수를 감시할 공동 위원회를 조직하며 량국 간에 적대적인 선전을 중지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으로 국경 충돌이 계속 일어 나고 있다.

경제, 사회 유목 경제가 위주이며 국민 소득의 85%가 농업과 축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약 40%가 목축업에, 30%는 반농, 반 목축업에, 2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북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90%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상공업과 무역은 이태리인과 영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비옥한 초원이다. 주요 가축은 락타이며 그 두수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 정도를 잰다. 락타는 약 430만 두, 면양은 368만 두, 산양은 500만 두, 소는 110만 두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감자, 목화, 바나나, 락화생, 향료 등이다.

목축업과 농업 생산은 물의 부족(년 강우량 300mm)과 사료 부족으로 장애를 받고 있으나 독립 후 농업과 목축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보고 있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며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망간, 연, 동, 석, 록주석, 석유, 운모 등이 풍부하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1955년 이래 5 개의 미국 회사들이 석유 탐사를 하고 있다.

가공 공업으로는 기름, 방직, 사탕 등 약간의 공장이 있다. 소말리 대외 무역의 근 50%를 차지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이태리에 수출된다.

1960—1963년에 소말리는 3,300만 딸라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소말리는 1억 9,500만 딸라의 지출을 예견한 5 개년 경제 계획(1963—1967년)을 수행하고 있다. 총투자액 중 9,478만 딸라를 외국 《원조》로 충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인민 생활은 매우 락후하다. 도시 인구의 90%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다. 독립 전에 42 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중 소말리인은 2 명 밖에 없었다. 독립 후 정부의 위생 사업 개선을 위한 조치에 의하여 1964년 초에 전국적으로 23 개의 병원이 있었으며 비교적 큰 농촌들에도 진료소들이 설치되여 있다.

소말리는 고유한 민족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체의 문'자가 없다. 교육 부문과 출판물에서는 영어, 이태리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다.

불령 소말리

【면적】 2만 3,000 km²
【인구】 6만 7,300 명
【행정 중심지】 지부티 (주민 3만 1,300 명)

불령 소말리는 원래 소말리의 일부분이였다. 1882년 파리에서 불란서 정부와 다나킬족 추장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여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석탄 공급소가 설치되였으며 1882년에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지부티 거주권을 가지게 되였다. 그후 1884년에는 다날킬족과, 1885년에는 이바족과도 조약들을 체결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점차 전 령토를 자기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그리 하여 이 나라는 1896년부터 불령 소말리로 되였고 1958년 9월에 채택된 불란서 신 헌법에 의해서 불란서의 식민지로 되였다.

최근 년간 불령 소말리에서는 《불령 소말리 민족 운동》의 영향하에 불란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독립과 통일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나라 경제는 목축업이 위주이며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과 제염업도 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고, 운모, 류황, 석유 등이 있으나 매장량이 많지 못하다. 공업 기업소로서는 조선소 및 선박 수리 공장, 압축 가스 혹은 액체 가스 공장, 식료품 가공 공장, 소규모의 기계 공장이 약간 있을 뿐이다. 공업 제품과 식량은 전'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케 니 아

Kenya

【면적】 58만 2,600 km²
【인구】 880만 명 (1963년 말)

주민의 96%는 아프리카인이고 기타 구라파인, 인도인, 아랍인들이 있다.

【수도】 나이로비 (주민 약 28만 8,500 명)

정 치 케니아는 1895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가 1920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케니아에 대규모적인 군사 기지와 《동부 아프리카 사령부》를 설치하고 1960년에는 《사회 안전 보장법》, 《구류법》 등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케니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였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케니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1952년에 농민 조직인 《마우 마우》(반식민주의적인 애국 단체)가 령도한 케니아 농민들의 대규모적인 무장 투쟁이 있은 후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였다. 《마우 마우》는 백인들에게 빼앗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투쟁하였으며 이 투쟁은 동부 및 중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기타 지역 인민들의 반제 투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1952년 10월에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1억 5,200만 여 파운드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케니아 민족 해방 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마우 마우》 운동이 영 식민주의자들의

탄압에 의하여 해산된 후 애국적인 비밀 무장 조직인 《토지 자유군》이 출현하였다.

1960년 3월에는 케니아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이 성립되고 그 령도 하에 케니아의 즉시 독립을 요구하는 투쟁이 더욱 치렬히 전개되였다.

1962년 7월 영국—케니아 회담에서 영국은 총선거 실시 후 케니아가 내부 자치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3년 5월 18—26일에 의회와 지방 자치 기관 선거가 진행되였다. 영국은 아프리카 민주 동맹에 2만 5,000 파운드의 선거비까지 제공하면서 아프리카 민족 동맹의 집권을 방해하였으나 선거에서 아프리카 민족 동맹이 승리하여 6월에 죠모 케니아타를 초대 수상으로 하는 내부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다. 죠모 케니아타는 나라의 완전 독립과 케니아로부터의 영국 군대의 철거, 헌법의 재검토 등을 주장하였다.

1963년 10월 런던에서 진행된 케니아의 새 헌법과 관련한 회담에서 영국은 아프리카 민주 동맹을 사촉하여 케니아의 리프트—밸리주와 해안주 및 서부주의 3개 주를 분리시켜 별개의 공화국을 창건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케니아 대표단의 견결한 반대에 의하여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은 좌절되였으며 12월12일 케니아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국은 케니아가 독립한 후에도 케니아 소말리 간의 국경 분쟁 문제를 구실로 자기 군대의 케니아 주둔을 영구화하려 하고 있다.

1963년 10월 8일 잔지바르와 케니아 및 영국은 1895년에 1만 6,000 파운드를 받고 잔지바르에 임대하였던 몸바사항을 포함한 해안 지대를 케니아에 통합시킬 데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12월 12일부터 케니아 정부는 포도아 및 남 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통상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12월 17일 케니아 주재 포도아 령사관을 페쇄하였다. 1964년 1월 30일 케니아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에 가입하였다.

【의회】 량원제이며 하원은 117석, 상원은 41 석이다. 1963년 5월에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 하원에서 아프리카 민족 동맹이 64석, 아프리카 민주 동맹이 32석, 아프리카 인민당이 18석, 상원에서는 민족 동맹이 18석, 민주 동맹이 16석, 아프리카 인민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국가 원수】 영국 녀왕이 임명하는 영국 총독이다.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5월 30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죠모 케니아타(외상 겸임), 국무상 무룸비, 내상 오깅가 오딩가

【정당】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집권당) 1960년 3월에 성립되였다. 케니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한 정당이다. 위원장 죠모 케니아타 **아프리카 민주 동맹** 1960년 6월에 성립되였다. 우익적인 친영 정당이다. 위원장 로날드 느가라 **아프리카 인민당** 우익적인 민족주의 정당이다. 기타 구라파 이주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련합당, 케니아당, 케니아 련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케니아는 주민의 96%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케니아는 동부 아프리카 나라들 중 백인 이주민들이 제일 많으며 케니아를 비롯한 동부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회사가 집중되여 있다.

수리와 기후가 좋은 남부 고원 지대에 산업이 집중되여 있으며 백인들이 고원 지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백인들은 매인당 평균 240 헥타의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으나 아프리카인들에게는 평균 3 헥타의 척박한 토지가 차례지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커피, 차, 사이잘삼(이상 세 작물은 동부 아프리카 3 개국에서 제 1 위), 목화, 아마, 담배, 제충국(세계 생산량의 70%)이다. 주요 농산물의 94%는 백인 농장과 재배원에서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천연 소다, 소금, 동, 석면, 흑연, 석고 등이 있으나 모두 영국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등이다.

인민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구라파인들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지어는 50분의 1 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 등록된 실업자는 16만 명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기독교도와 회교도이다.

【출판】 **통신**－케니아 통신사 (1963년 12월 창설)

신문－ 이스트 아프리칸 스탠다드, 자 네이슌

탄가니카

(탄가니카 공화국)

Republic of Tanganika

【면적】 93만 9,400 km²

【인구】 956만 명 (1962년)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에 속하는 아프리카인들이며 인도인, 아랍인, 구라파인들도 살고 있다. 공식 용어는 스와힐리어이다.

【수도】 다르 에스 살람(주민 13만 명)

정 치 탄가니카는 1890년에 독일 식민지로 전락되였다가 1920년부터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제 2 차 대전 후에는 영국의 후견령으로 되였다. 1961년 12월 9일에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2년 12월 9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2월 10일 니에레레 대통령은 자기의 정강 연설에서 인종 차별 및 식민주의 악습을 종식시키며 어떠한 뿔럭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독립 후 니에레레는 탄가니카에서의 영국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정부 각료들과 경찰 및 행

정 일'군들을 아프리카인들로 교체하였다. 1963년에 탄가니카는 아프리카에서의 반제 투쟁 지원 기금으로 3천만 파운드를 제공하였으며 짐바브웨 애국자들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탄가니카는 1964년 4월 26일에 잔지바르와 련합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 수는 81명이다. 절대 다수 의석을 탄가니카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 1962년 12월 9일 14 명의 각료들로 구성되였다. 대통령 쥴리어스 캄바라게 니에레레, 부대통령 라쉬디 카와와, 외상 캄보나

【정당, 사회 단체】 탄가니카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집권당) 1954년 7월에 성립되였다. 이 당은 모든 애국 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통일 전선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며 탄가니카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고 있다. 당원 약 200만 명, 위원장 니에레레 **범 아프리카 민족 독립 운동** 1961년 1월에 성립.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전체 아프리카인들이 단합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근로자 동맹** (1964년 3월 창건), **전국 녀성 동맹**

경제, 사회 탄가니카는 농업국이다. 1958년 국민 총생산액에서 농업은 56%, 공업은 10.2%, 림업과 목축업은 16%를 차지하였다.

주요 농산물은 사이잘삼, 커피, 목화, 락화생, 사탕무우 등이다. 사이잘삼은 세계 생산량의 약 3분의 1 (1960년에 20만 8,200 톤 생산)을 차지하며 매년 약 10만 톤을 수출한다(총수출액의 4분의 1).

지하 자원으로는 금강석, 금, 석탄, 철, 탕그스텐, 마그네사이트, 운모, 석고 등이 있다. 1962년에 금강석은 64만 8,000 카라트 채취되였다.

가공 공업으로는 삼, 제분, 통조림, 피혁 등 공장들이 있다. 사이잘삼의 대 재배원들과 광업 및 가공 공업은 주로 영국, 벨기, 카나다 등 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사이잘삼, 목화, 커피, 피혁 등 농산물과 금강석, 연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등이다.

1963년 12월에 탄가니카 정부는 360만 딸라의 차관을 받을 데 대한 협정을 미 《국제 개발처》와 체결하였다. 1963년 3월 탄가니카는 독립 전에 벨기가 관리하던 2 개의 항구를 접수하여 탄가니카, 루안다, 부룬디, 콩고 등 4 개 국으로 항구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99년 기한으로 대여하였다.

【출판】 신문—내슈널 리스트(영문), 우후루(탄가니카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기관지), 탄가니카 스탠다드

잔지바르

【면적】 2,657 km²

【인구】 31만 5,000 (1961년)

주민중 아프리카인 22만 8,000 명, 아랍인 5만 1,000 여 명, 인도인 1만 8,000 여 명, 기타 구라파인, 아세아인들이 있다.

【수도】 잔지바르(주민 5만 7,923 명)

정 치 잔지바르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36 키로메터 떨어진 동쪽 인도양 상에 있는 잔지바르와 펨바의 두 개 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기 이전 시기 잔지바르는 매우 번영한 나라로서 국호를 《웅구쟈》(스와힐리어로 《부유한 땅》이란 뜻)라고 불렀다.

1503—1508년에 포르투갈 침략자들에게 강점 당하였으며 1890년에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자기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 리간 정책을 실시하며 서로 싸우게 하는 한편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잔지바르 인민은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여 73년 간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9년 초 민족 교육을 제한하는 식민지 당국의 법안을 반대하여 7만 5천 명(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대규모적인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0년 6월 민족당의 지도 밑에 인민들은 이 나라 령토에 로케트 기지를 설치하려는 미제의 기도를 반대하는 대규모(전국 인구의 3분의 1이 참가)의 시위를 단행하여 이를 좌절시켰다. 1961년 8월 30일에는 미국 령사관을 습격하여 건물을 소각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영국 정부는 1960년에 기만적인 《헌법 개혁》을 실시하고 1961년 6월에 선거를 진행하여 아프리카인을 수반으로 하는 《책임 정부》(국방, 외교, 재정 등 실권은 영국 식민지 당국이 장악)를 수립하였다. 그 후 잔지바르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6월 24일 내부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고 7월 8일에는 내부 자치의 실시를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1963년 12월 10일 잔지바르는 영련방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 후 정권은 의연 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장악되였으며 봉건적인 군주제가 존속되였다.

1964년 1월 12일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여 잔지바르 인민들은 군주 제도를 전복하고 인민 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날 새 정부의 대통령 카루메는 새 정부가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잔지바르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렬강들에 요구하였다. 잔지바르 정부는 추장을 추방하고 영국인과 미국인들을 철수시켰으며 식민주의와 봉건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3월 8일 대통령 카루메는 잔지바르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농민들에게 새로 분배할 데 대한 력사적인 《잔지바르 선언》을 선포

하였다. 1964년 4월 탄가니카와 련합하여 탄가니카—잔지바르 련합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혁명 리사회】 1964년 1월 24일 구성되였다. 국가를 관리하는 최고 주권 기관이다. 혁명 리사회는 대통령, 부대통령, 내각 상들, 경찰, 인민 무장 부대 대장들, 로조 대표, 청년 지도자, 부두 로동자, 농민 등 30 명을 망라하고 있다. 위원장 쉐이크 아베이드 카루메

【정부】 1964년 1월 15일에 성립되였다.

대통령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부대통령 쉐이크 아브둘 라호만 카심 항가, 외상 쉐이크 아브둘 라호만 바부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 시라지당 잔지바르의 유일당이다. 1956년에 창건되였으며 잔지바르의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하여 왔다. 1964년 2월 바부가 지도하던 움마당과 합당하였다. 당수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혁명 로조 련맹 1964년 1월 잔지바르 및 펨바 로동 련맹과 진보 로조 련맹을 통합하여 창건, 위원장 모함메드 므파우메 오마르

혁명 학생 련맹 1964년 3월 1일 창건, 위원장 아브둘라 하쥐 춤

잔지바르 및 펨바 아프리카 시라지 청년 동맹

경제, 사회 잔지바르는 정향과 야자가 유명한 것으로 하여 《인도양 상의 진주》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장구한 영국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경제는 혹심한 편파성과 기형성을 띠고 있는 농업국이다. 가경지는 13만 9,600 헥타이며 경작지는 6만 4,600 헥타이다. 혁명 전 경작지의 60%는 전국 인구의 13% 밖에 안 되는 아랍인 지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다.

주요 농산물은 정향과 야자이다. 정향의 재배 면적은 3만 2,000 헥타이며 정향나무는 400만 그루, 정향의 년 평균 생산량은 8,000~2만 톤(세계 생산량의 약 80%)이고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혁명 전에 이것은 영국 《정향 생산자 협회》에 독점되여 있었다. 야자의 재배 면적은 3만 2,192 헥타이며 야자나무는 600만 그루이다. 년 평균 야자 생산량은 1만 2천 톤~1만 5천 톤이며 야자 섬유 생산량은 5,000 톤이다. 1천 년 전부터 잔지바르는 상아의 주요한 집산지이다.

주요 수출품은 정향(수출 총액의 80%), 야자이며 수입품은 식량, 면직물, 기계, 섬유 제품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수입 총액의 30~40%), 인도네시아, 인도이다.

혁명 전에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가난하였다. 잔지바르 로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45 쉴링(쌀 0.45 키로그람의 값은 2 쉴링, 방 한칸의 세는 20 쉴링)이였다. 문맹자는 주민의 85%이며 학령 아동의 불과 28%가 취학하고 있었다.

잔지바르 정부는 식민지 및 봉건 통치가 남겨 놓은 기아, 질병, 몽매를 청산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출판】 통신—잔 뉴스(정부 통신사)

신문—크웨우페(정부 기관지)

모리샤스도

【면적】 2,090 km²

【인구】 62만 1,000 명(1959년)

【행정 중심지】 포트 루이스 (주민 10만 4,016 명)

말가슈 섬의 동쪽, 인도양 상에 있는 작은 화산 섬이다.

1411년 포도아인에 의하여 발견된 후 화란, 불란서에 강점되였다가 1903년에 영국 식민지로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 재배이다. 공업은 제당업 뿐이다. 1959년에 사탕은 58만 톤 생산하였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며 사탕은 수출한다.

세이셸 제도

【면적】 404 km²

【인구】 4만 3,149명(1959년)

【행정 중심지】 빅토리아 (주민 약 1만 명)

서부 인도양 상에 있으며 92 개의 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1756년에 불란서에, 1794년에는 영국에 강점되였다가 1903년에 정식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야자, 향초 등이다.

레유니옹

【면적】 2,511 km²

【인구】 33만 5,000 명(1960년)

【행정 중심지】 쌍 데니스 (주민 약 4만 2,000 명)

정 치 레유니옹은 말가슈 공화국의 동남, 인도양 상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1642년 이래 불란서의 식민지이다.

레유니옹 인민은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1958년 8월 부두 로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1959년 7월 드 골의 레유니옹 방문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시위 투쟁, 1962년 10월 부두 로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3 주일 간의 파업 등이 있었다.

【정당】 레유니옹 공산당 불란서 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성립되였다.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제 1 비서 베르게스

경제, 사회 주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로동자는 2만 명이며 경지 면적은 7만~8만 헥타이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이며 그 재배 면적은 3만 6,000 헥타이다. 1960년 사탕 생산량은 21만 7,778 톤이였다.

완전 실업자 수는 4만 명에 달하며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다.

다. 원주민의 수명은 24세이고 주민 5 명에 1 명이 결핵 환자이며 아동의 95%가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 병원은 하나 뿐이다.

말 가 슈

(말가슈 공화국)

Malgasy Republic

【면적】 59만 2,000 km²
【인구】 557만 7,000 명 (1961년)
【수도】 타나나리브 (주민 24만 8,000 명)

정 치 18세기 말까지 말가슈(마다가스카르섬)는 봉건 왕국이였다. 1895년에 불란서군은 말가슈의 수도를 점령하고 《보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1896년 8월 6일 불란서는 말가슈와 기타 부근의 섬들을 자기의 식민지로 선포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말가슈는 1960년 6월 26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이날 말가슈는 국방, 외교, 재정, 경제, 교육 등 분야에서 불란서와 예속적인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불란서는 말가슈의 군사 기지들을 마음대로 리용하고 있으며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말가슈는 《아프리카-말가슈》동맹 성원국이다. 이 동맹 (1961년 9월 11일 말가슈 수도 타나나리브에서 창설)은 불란서와의 협조를 주장하는 이전 불령 서부 및 적도 아프리카의 12 개 국이 외교 정책과 협조 관계의 모든 령역에서 행동 통일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1963년 8월 2일 말가슈 정부는 아디스 아베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포도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국민 의회 의원은 107 명, 참의원 의원은 54 명이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과 국방상을 겸임하고 있다. 대통령 필리베르 치라나나

【정당, 사회 단체】 **사회 민주당**(집권당) 1958년 9월 드 골 헌법을 찬성하였으며 불란서와의 《협조》를 주장한다. 위원장 필리베르 치라나나 **독립 대회당** 1958년 5월 창립, 이 당은 불란서와 말가슈간의 《협조 협정》의 수정, 식민주의 잔재 청산, 국민 의회의 개조 등을 주장한다. 여당으로서는 **민족 혁신 당**, **인민 사회당**이 있다. **로조 련합회**(세계 직련에 가입), **민주 청년 협회**(세계 민청에 가입)

경제, 사회 경제의 명맥은 불란서의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불란서 독점체들은 광업, 농업, 무역 및 금융업을 틀어쥐고 있다.

주민의 약 92%는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는 락후하다. 가경지는 180만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쌀, 감자, 커피, 락화생, 담배, 옥수수, 향료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갈탄(매장량 10억 톤), 려청(매장량 6,000만 톤), 니켈, 록주석 (1961년에 자본주의 세계 생산의 8.4%인 758 톤 생산), 흑연, 금, 철, 동, 석유 등이 있다.

공업은 국민 소득에서 3% 밖에 안 된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소규모적인 식료 공장과 제탕 공장, 정미 공장이 약간 있을 뿐이다.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향료, 담배, 쌀, 흑연, 운모들이며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수출의 근 3분의 2, 수입의 약 4분의 3), 미국, 알제리아, 영국, 서독 등이다.

농민들은 척박한 땅에서 극히 락후한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과 광산들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강제 로동을 하고 있다.

학령 아동의 과반수가 취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다.

모 잠 비 크

【면적】 79만 3,030 km²
【인구】 658만 6,900명(1961년) 그 중 아프리카인은 약 650만 명 구라파인은 8만 명.
【행정 중심지】 로렌소 마르케스 (주민 약 10만 5,000 명)

정 치 모잠비크는 1700년 이래 포도아의 식민지로 되여 있다. 식민지 당국은 모잠비크인을 포도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1917년부터 《동화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착 로동자 조례》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남자 로동자, 12—18세의 소년 로동자와 녀성 로동자들에게 《통행증》을 가지고 다닐 것을 강요하고 있다. 모잠비크에서 원주민들은 사실상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5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식민지 당국은 모잠비크에 이미 설치한 10 개의 군사 기지 외에 5 개의 새로운 군사 기지를 미제를 괴수로 하는 나토 군사 쁠럭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있다.

식민지 당국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1962년 6월에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과 모잠비크 민족 민주 동맹이 결성한 해방 전선은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유격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다.

【립법 회의】 23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중 15 명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8 명은 총독이 임명한다. 립법 회의의 수석은 총독이다.

【행정 기구】 포도아 정부가 임명하는 6 명의 상이 있다. 이 기

구 역시 총독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여 있다.

【정당】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탄가니카, 잔지바르 및 케니아에 그 지부들을 가지고 있다. 위원장 마누엘 기훌레 민족 민주 동맹 1960년 초에 망명자들이 탄가니카에서 창건, 위원장 에이.씨. 그왐베 모잠비크 해방 전선 1962년 6월에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과 모잠비크 민족 민주 동맹이 결성하였다. 아프리카인 반제 통일 전선 1963년 5월 19—21일에 진행된 3개 정당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민족 민주 동맹, 아프리카인 협회) 회의에서 결성, 공동 의장 몰레 그왐베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그외에 어업도 한다. 주요 농작물은 목화, 사탕수수, 야자, 옥수수, 차, 담배 등이다. 아프리카인들의 90% 이상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으며 비옥한 토지는 포도아 식민주의자들과 영국 독점체들에게 장악되여 있다. 포도아의 12 개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토지는 320만 헥터 이상이나 된다.

석탄, 철, 보키사이트, 금, 은, 주석, 동, 운모,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석탄, 금, 주석, 보키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미개발 상태에 있다.

최근 년간에 미국 독점체들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바 미국 회사들은 모잠비크 전역에서 광물의 탐사 및 채취권을 획득하였다. 특히 미국은 전략 물자인 우라늄의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주민의 99%는 문맹자이다.

잠 비 아

(북로데시아)

【면적】 75만 2,000 km^2

【인구】 248만 명 (1961년), 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고 기타 구라파인, 인도인 등이 있다.

【수도】 루사카 (주민 8만 3,750 명)

정 치

북로데시아(원래 이름은 잠비아)는 189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953년 10월 23일에는《중앙 아프리카 련방》에 강압적으로 편입되였다 (남로데시아 참조).

련방에서의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는 북로데시아 인민들의 투쟁은 1961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였던 무장 투쟁에 뒤'이어 계속 치렬히 전개되였다. 1962년 3월에는 전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적인 시위와 군중 대회들이 진행되였다. 이에 질겁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기만적인 새 《헌법》을 조작하고 이에 기초하여 1962년 10월 30일에 립법 회의 《선거》를 진행하였다.

북로데시아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 앞에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3년 3월 29일 북로데시아가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서 탈퇴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31일 드디여 《련방》이 해체되고 내부 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그러나 대외 관계와 국방 문제는 여전히 영국 총독의 관할하에 남아 있다.

【립법 회의】 1964년 1월 20—21일에 내부 자치제 실시를 위한 립법 의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립법 의회 총의석 75 석 중에서 민족 통일 독립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였다.

【내각】 1964년 1월 2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케네트 카운다, 내상 카프 베프베

【정당, 사회 단체】 잠비아 민족 통일 독립당 1959년 11월에 성립, 집권당으로서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위원장 케네트 카운다 아프리카 민족 대회당 1947년 성립, 헌법 개혁과 비 폭력적 방법으로 점차 독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할리 느쿰풀라 자유당, 통일 민족 자유당, 로조 련맹

경제, 사회

잠비아는 채광업이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다. 국민 소득의 80%는 채광업에서 얻고 있다. 주요 광물 자원으로서는 동 (매장량에서 자본주의 세계 제 5위), 철(매장량 60억 톤), 연(매장량 228만 톤), 석탄, 크롬, 코발트, 우라늄 등이 있다.

1962년에 동 생산량은 56만 5천 톤(자본주의 세계 제 2 위)이였다. 그러나 동의 채굴권은 8 개의 미, 영 동광 회사들에 독점되여 있다. 기타 채광업도 미, 영 회사들에 장악되여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해마다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동의 60%, 코발트의 70%, 우라늄의 전부를 략탈해 가고 있다.

농업은 락후하다. 총경지 면적 중에서 가장 비옥한 400만 헥터는 인구의 3% 밖에 안 되는 백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1,400만 헥터의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인들이 경작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담배, 옥수수, 락화생 등이다. 수익성이 높은 담배는 백인들만 재배할 수 있게 규정되여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인종 차별 정책과 가혹한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인들의 생활은 여지 없이 령락되였다. 같은 로동에 종사하면서도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 로동자들의 임금의 20분의 1 밖에 안 되며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2 배나 더 높다. 전국적으로 학령 아동의 93%가 취학하지 못 하고 있다.

짐 바 브 웨

(남로데시아)

【면적】 38만 9,300 km^2

【인구】 315만 명 (1961년)

【수도】 솔스베리 (주민 약 26만 6,000명)

정 치

짐바브웨는 19세기 70년대부터 영국, 독일의 침략을 받았으며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식민지 통치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

여 광물 자원이 풍부한 북로데시아와 로동력이 풍부한 니아살랜드를 백인 지배하의 남로데시아에 병합하여 1953년 10월 《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련방》 (략칭 《중앙 아프리카 련방》)을 조작하였다. 또한 반동적인 《련방 헌법》의 선포 이래 《사회 질서 유지법》, 《전복 활동 진압법》, 《아프리카인 류동 제한법》등 60여 종의 악법을 조작하여 극심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여 아프리카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련방》의 해체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1961년 12월에 민족주의 정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당의 창건과 함께 더욱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에로 발전하였다. 1962년 8월 애국적 인민들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2년 9월에 인민 동맹당을 비법화하고 애국자들을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였으나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 막을 수는 없었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의 압력하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3년 12월 31일 《중앙 아프리카 련방》을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짐바브웨를 계속 자기의 예속하에 두기 위하여 갖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

1963년 2월 탄가니카 모쉬에서 진행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는 3월 17일을 《짐바브웨》의 날로 설정하고 매년 이날에 싸우는 짐바브웨 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호소하였다.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는 《짐바브웨의 날》에 제하여 짐바브웨 인민에게 전문을 보내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립법 의회】 현 립법 의회는 영국 정부가 1961년 6월 13일에 발표한 《신헌법》에 기초하여 1962년 12월 15일에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조작되었다. 총 65 석 중 《로데시아 전선》이 35 석, 통일 련방당이 29 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4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더글라스 스미스

【정당, 사회 단체】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 아프리카의 국민 대회(1957년 성립), 민족 민주당(1959년 12월 성립)이 비법화된 후인 1961년 12월 17일에 창건되였다.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1962년 9월 20일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조누아 느코모 **《로데시아 전선》** 극단적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당수 윈스톤 필드 **범 아프리카 사회 동맹**

경제, 사회

짐바브웨는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다.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서부 지방에 있는 번커 탄전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탄전의 하나로서 석탄 매장량은 40억 톤이나 된다. 그 밖에도 철광(매장량 2억 5,000만 톤), 크롬, 동, 리듐, 니켈, 안티몬, 우라늄 등이 있다. 채광 공업은 외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영국 회사들은 짐바브웨에서 채굴되는 철, 니켈, 안티몬의 전부, 크롬의 50%, 석유의 85%를 장악하고 있다. 제 2 차 대전후 미국 자본이 이 나라에 점차 침투하고 있다. 석유, 크롬, 리듐의 채취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958년에 약 8,300만 딸라였다.

농업은 비교적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에 식민지 당국이 발표한 《토지 분배법》에 의하여 총 인구의 7% 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전국 경작지의 53%, 식민지 당국이 12%를 차지하였다. 주요 농산물은 담배 (농업 총생산액의 60~80%), 옥수수, 차, 목화, 락화생 등이다. 구라파인 농장들은 약 6,000 개의 농장들에서 담배, 옥수수, 과실을 재배하여 매년 7억 딸라의 리윤을 얻고 있다.

주요 수출품인 광물, 담배 등은 주로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서독에 반출된다. 아프리카인들은 하루에 12시간 내지 16시간씩 로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백인 로동자들의 임금의 20분의 1 밖에 받지 못 하고 있다. 문맹자는 인구의 80%나 된다.

말 라 위

(니아살랜드)

【면적】 12만 4,000 km^2

【인구】 289만 명(1961년), 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고 구라파인 약 1만 명, 기타 인도인이 있다.

【행정 중심지】 좀바 (주민 1만 7,690명)

정 치

19세기 말부터 영국, 독일, 포도아의 침입을 받아온 니아살랜드는 1891년 5월 15일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53년 10월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 강압적으로 편입되였다(짐바브웨 참조).

니아살랜드 인민들은 《련방》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니아살랜드 인민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0년 7월 25일—8월 4일에 런던에서 진행된 《제헌 회의》에서 영국은 니아살랜드에서 립법 회의 선거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962년 11월 런던에서 진행된 《제헌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행정 회의》를 대신할 수상제 내각을 조직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구체적인 독립 날자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1962년 12월 19일에 영국은 부득이 니아살랜드가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서 탈퇴하는 데 《원칙

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3년 2월 1일 니아살랜드에서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다(실권은 여전히 영국 총독이 장악). 9월 런던에서 진행된 영국과 니아살랜드 대표들 간의 회담 결과 니아살랜드는 1964년 7월 6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 이름을 원래대로 말라위라고 부르게 되였다.

【립법 회의】 1961년 8월에 선거되였다. 총 의석 28 석 중 말라위 대회당이 22 석, 통일 련방당이 5 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3년 2월 1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

【정당, 사회 단체】 **말라위 대회당** 1959년 9월 30일 성립,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헤스팅그스 반다 **국민 대회 해방당** 1958년 성립, 헌법 개정을 통하여 나라의 자결권을 얻을 것을 주장한다. **공화당** 1960년 7월 6일 성립, 비 폭력적 방법을 통하여 《련방》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한다. **로조 대회**

경제, 사회 말라위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총인구의 0.3% 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전국 경지 면적의 85% 이상을 가지고 있다.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만 하여도 100만 헥터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차, 목화, 담배, 락화생, 쌀, 커피 등이다. 담배(년산 10만 톤)와 차(1963년에 약 1만 2,000 톤 생산) 생산은 아프리카에서 제1 위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면, 보키사이트, 동, 석탄, 금, 철, 망간, 운모, 흑연 등이 매장되여 있으나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차, 담배, 커피, 목화 등이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인종 차별 정책과 가혹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인민 생활은 매우 락후하다.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의 임금은 월 평균 1파운드(4명의 식구를 가진 세대의 최저 생활비는 매월 15 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학령 아동의 3분의 2가 학교에 가지 못 하고 있다.

앙 골 라

【면적】 124만 6,700 km^2

【인구】 464만 2,000 명 (1960년), 반투족이 97%이며 포도아인, 기타 구리파인이 있다.

【행정 중심지】 루안다 (주민 20만 명, 1960년)

정 치 앙골라는 1885년 포도아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포도아 정부는 식민지 통치를 가리기 위하여 1951년 《식민지 법안》을 발표하고 앙골라를 비롯한 포도아령 식민지들을 포도아의 소위 《해외주》로 만들었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에서 파쑈 통치와 혹심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앙골라 주민들은 5 개 등급으로 구분되여 인종 차별을 받고 있으며 1899년의 노예 로동법으로 강제 로동을 당하고 있다.

1957년 초에 식민지 당국은 파쑈적인 《국가 정보 및 치안 경찰》을 설치하고 원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 있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 인민의 무장 투쟁을 진압하려고 무력을 1961년의 1만 명으로부터 1963년에는 6만 명으로 증강하였다. 포도아는 나토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앙골라에 비행기와 포를 비롯한 각종 최신 무기를 투입하였으며 매년 1억 딸라를 탕진하고 있다. 1963년까지만도 포도아 군대는 13만 1천 명의 앙골라인을 학살하였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가혹한 학살, 탄압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인민은 1959년부터 영웅적인 반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1960년 ?월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인민 봉기가 일어났다.

1961년 2월 4일 루안다에서 비법적으로 감금된 앙골라 애국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무장 습격을 단행함으로써 무장 투쟁의 첫 봉화를 들었다.

3월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반제 무장 투쟁이 발생하였으며 포도아 군대에 복무하는 일부 아프리카 병사들도 봉기를 일으켰다. 6월에 무장 투쟁은 앙골라의 13 개주 중 8 개주에 파급되였다. 1962년 12월 인민 해방 운동 제1 차 대회는 민족 해방 운동을 대중적 봉기로부터 무장 투쟁에로 이행하는 조치로서 《민족 해방군》을 창건할 것을 결정하였다.

앙골라 민족 해방군 대렬은 수십명으로부터 1963년에는 3만여 명의 정규군과 8천 명의 보조군을 가진 강력한 무장 력량으로 장성하였고 무장 투쟁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북부와 중부 밀림 지대에는 공고한 유격 근거지가 창설되였고 전국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11월 27일 유엔 총회 후견 위원회 회의에서 한 앙골라 대표의 연설에 의하면 앙골라 민족 해방군은 12 개월간에 포도아 군대 1,231 명을 소멸하였으며 3 대의 군용기를 격추하고 2 대의 군용기를 격상하였으며 11 대의 장갑차와 17 대의 자동차를 파괴하였다.

앙골라 민족 해방 투쟁은 인민 해방 운동과 인민 련맹이 지도하고 있다.

인민 해방 운동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민 련맹과 통일 전선을 형성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인민 련맹 위원장 로베르트는 이를 거절하였다. 로베르트는 1962년 4월에 콩고의 레오폴드빌에 자기를 수반으로 하는 림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

의 결정에 따라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은 앙골라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1963년에 포도아 정부와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단절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 1956년 12월에 성립된 진보적 정당으로서 앙골라의 민족 해방 운동을 령도하고 있다. 아랍 련합 공화국과 알제리아에 자기의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당의 본부는 콩고의 레오폴드빌에 있다. 위원장 마리오 데 안드라데 **인민 련맹** 1958년에 성립되였다. 당 창건 초기에는 평화적 해방만을 제기하였으나 앙골라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됨에 따라 점차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민족 해방군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정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 홀덴 로베르트 **전국 로동자 련합회**

경제, 사회

앙골라의 경제는 포도아, 미국, 영국, 벨기, 서독 등 식민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농업과 광업은 경제의 주되는 부문이다. 150만 헥터의 좋은 땅은 포도아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광범한 앙골라 인민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1천 명 중 3 명만이 토지를 소유) 구라파인들이 차지한 평균 토지 면적은 아프리카인들에 비하여 87.5 배나 된다.

주요 농산물은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생산되는 커피 (세계 생산량의 약 4%), 사이잘삼, 사탕 수수와 아프리카인들이 생산하는 면화, 락화생, 옥수수, 두류 등이다. 1959년에 커피는 9만 500 톤, 락화생은 2만 1,000 톤, 옥수수는 36만 톤 생산되였다.

앙골라에는 금강석 (생산량 세계 제 6위), 금, 석유, 동, 망간, 갈탄, 석고, 운모, 연, 아연, 철, 우라늄, 월프람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앙골라의 《나라 안의 나라》로 불리우는 미, 영, 벨기, 포도아의 합작 회사인 《앙골라 금강석 회사》는 앙골라 총 면적의 6분의 5나 되는 지역에서 금강석 채굴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교통, 운수, 상업 부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앙골라인 로동자 1만 7,000 명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 회사 주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959년에 이 회사의 순 리윤은 360여만 딸라였다. 《벨기 석유 회사》와 미국 《걸프 석유 회사》는 앙골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석유 채굴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 《뉴저시 회사》도 1950년부터 앙골라에서 석유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앙골라의 금강석, 석유, 망간, 우라늄, 월프람 등 광물의 탐사 및 채굴권도 통제하고 있다.

광석 채굴량(단위 1,000 톤)

	1962	1963
금강석 (1,000카라트)	1 081	1 100①
원 유	218.1	799.7
철 광	446	474
망 간	9.5	174

주: ①은 예비적 자료

가공 공업은 극히 락후하다. 소형의 어류 및 농산물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금강석, 커피, 삼, 어류, 옥수수, 사탕, 종려, 락화생 등이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빈궁하다. 앙골라의 로동자들은 매일 14 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임금은 3 에스쿠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년 평균 인두세는 100~280 에스쿠드이다. 로동자의 사망률은 40%, 유아 사망률은 60%이다. 주민 2만 6,000 명에 의사는 1명이다. 주민의 99%는 문맹자이다.

서남 아프리카

【면적】 82만 3,876 km²
【인구】 57만 2,000 명(1960년)
【행정 중심지】 윈드호크(주민 1만 3,000명, 1961년)

정치

서남 아프리카는 1915년 7월에 남아 련방(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강점 당하고 1920년 12월 17일 《국제 련맹》의 결정에 의하여 남아 련방(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남아 련방은 《사무 수정 법안》을 채택하여 서남 아프리카를 실제상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1963년 11월에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서남 아프리카 민주 단체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족 해방 전선을 창설하였다. 여기에는 서남 아프리카 인민 단체, 민족 동맹, 서남 아프리카 유색 인종 단체를 비롯한 기타 버워드 정부의 인종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망라되였다.

【립법 회의】 18 명의 백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정당】 **민족 동맹** 서남 아프리카의 독립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민족주의 정당이며 남아프리카 통일 전선에 참가하고 있다. 위원장 엔 제이 코종귀 **오밤보 인민당** 오밤보족을 대변하고 있으며 민족 동맹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 기타 백인들의 정당으로는 **국민당, 통일 국민당**이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광업과 목축업이며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금강석, 바나듐, 연 등이 풍부하며 동, 망간, 우라늄도 채굴된다. 경제 명맥은 미, 영, 남아프리카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금강석 채굴 회사의 주권의 80% 이상은 영국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으로 이 나라 원주민은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척박한 《보류지》로 추방되고 있다. 1962년에 50여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은 2,000만 헥터도 못 되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7만여 명의 구라파인들은 약 4,000만 헥

터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주민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생활비의 2분의 1도 못 된다.

베추아날랜드

【면적】 71만 2,000 km²

【인구】 35만 명(1960년)

【행정 중심지】 마페킹 (주민 4만 7,000 명)

베추아날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북부에 있다. 1885년 영국은 베추아날랜드의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북부 지역을 《보호국》으로 선포하였다.

영국은 혹심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60년 12월 30일에는 기만적인 새 《헌법》을 선포하고 괴뢰 립법 회의(31~35 명의 의원중 21 명은 선거하고 나머지는 영국 당국이 임명)와 행정 회의를 조작하였다.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의 민족주의적 정당인 **베추아날랜드 인민당**(총비서 모짜마이 므포)이 있다. 이 당은 1964년 전으로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62년 12월 28일부터 1963년 1월 3일 간에 진행된 이 당 제2차 년차 회의는 립법 회의와 현행 헌법을 폐지하고 베추아날랜드의 모든 정당 대표들이 참가하는 제헌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집회의 자유, 온갖 악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경제는 락후하다. 주요 경제 부문은 목축업이다. 목축업은 국민 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수수, 콩 등이다. 주요 광물은 석면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면적】 122만 3,000 km²

【인구】 1,700만 명(1963년 6월), 그 중 아프리카인은 1,100만 명 이상, 인도인은 50만 명, 백인은 350만 명이다.

【수도】 프레토리아 (주민 35만 1,000 명)

정 치 1652년 화란 식민지로 되였다. 그 후 영국은 화란의 세력을 내몰고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 영국은 1909년 《남아 련방 법안》을 제정하고 1910년 5월 자치령인 남아 련방을 형성하였다. 백인 통치배들은 《통행증법》, 《공산주의 진압법》, 《종족 격리 법안》, 《공동 치안 유지법》 등 70여 개의 악법들을 조작하여 혹독한 인종 차별과 인종 격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59년에는 《반투 자치법》을 채택하여 1962년 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악법은 《자치》라는 미명 하에 령토의 13%에 불과한 7개의 척박한 벽경에 흑인 거주지를 설정하고 여기에 모든 흑인들을 수용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1962년 5월에는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파괴 활동 금지법》을 공포하고 수 많은 애국자들을 체포하였다.

아프리카인들은 류례 없는 혹심한 탄압 속에서도 인종 격리 정책과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다. 1959년 6월 항구 도시 다반에서의 4만 명 아프리카인의 대 시위, 1960년 3월 샤프빌에서의 일대 시위들이 일어났으며 투쟁은 점차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61년 3월 영 련방 수상 회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대표들로부터 인종 격리 정책과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하여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되자 버워드 정부는 영 련방에서 탈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해 5월 31일 나라 이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고쳤다.

【의회】 의회는 모두 백인들만으로 구성되여 있다. 상원 의원은 54 명, 하원 의원은 156 명이다.

【대통령】 찰스 스워드

【정부】 수상 헨드리크 버워드

【정당, 사회 단체】 흑인 정당은 일체 비법화되여 있다.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6월에 비법화되였다. **국민당**(집권당) 화란계 백인의 농장주와 자본가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는 극 반동 정당이다. 지도자 헨드리크 버워드 **통일당** 영국계 백인 자본가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개별적 문제에서 국민당의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인종 격리는 주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의 대회》** 인종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구라파인들의 조직으로서 1962년 9월에 비법화되였다. **남아프리카 통일 전선** 1960년 3월 샤프빌 학살 사건 후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여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남아프리카 최대의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 정당), 남아프리카 인도인 대회, 범 아프리카주의자 대회(아프리카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보적인 백인들과의 협조를 주장), 서남 아프리카 민족 련맹, 서남 아프리카 오밤보 인민당 등이 련합하여 형성되였다. **남아프리카 로조 대회**(유일한 아프리카인 로조)

【주요 사건】 버워드 정부는 1963년에 진보적인 정당, 단체 지도자들과 애국적 인민에 대한 탄압을 전례 없이 강화하였다.

1월에 버워드 정부는 모든 로조 단체의 지도적 활동가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종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것을 강요하였다(2월 1일부터 발효). 3월에 국회는 아프리카인들을 도시에서 마음대로 추방하기 위한 《반투족에 관한 법령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6월에는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자들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거침이 없이 처형할 수 있는 악법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악법들의 조작과 함께 버워드 도당은 수 많은 진보적

인사들과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체포, 투옥하였는바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6월 16일 현재 수감자 수는 6만 7천여 명이나 되였다.

11월 말에 버워드 정부는 《반투 자치법》 (1959년)에 근거하여 트란스케이 지방에서 흑인들을 백인 거주지에서 추방하여 격리시키는 《반투족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립법 회의》 선거를 조작하였다.

버워드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앙양되였다. 이미 1960년 하반년부터 여러 지방들에서 벌어진 소규모적인 무장 그루빠들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였으며 남아프리카 해방 운동당의 무장 조직인 《민족의 검》은 1961년 12월부터 1963년 10월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백인 통치 기관들을 습격하였다. 또한 《독립과 순결》이라는 무장 단체는 트란스발주와 트란스키 지구에서 무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월 26일부터 지하에서 《해방 방송》이 사업을 개시하였다.

1963년에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결의에 따라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금, 금강석, 우라늄 및 석면 매장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매장량 2,050억 톤) 등도 풍부하다.

채광업은 아프리카에서 제1위나 개발권은 남아프리카의 백인들과 외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유엔 사무국의 자료에 의하면 1961년 말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투자액은 영국이 25 억 2,600만 딸라, 미국이 5억 500만 딸라, 불란서가 2억 3,100만 딸라였다.

1962년에 금강석은 391만 8천 카라트, 석탄은 4,100만 톤, 선철은 240만 톤, 합금강은 19만 9,000 톤, 망간광은 146만 5천 톤, 크롬광은 91만 3,000 톤, 백금은 7,100키로그람 생산되였다.

전국 농토의 87.5%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인은 척박한 땅에 강제 이주 당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목화, 담배 등이다.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은 하루에 14 시간 이상 일하고도 백인 로동자들의 20분의 1 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아동 사망률은 평균 20~30%나 된다.

바수톨랜드

【면적】 3만 344 km²

【인구】 69만 7,000 명(1961)

【행정 중심지】 마세루(주민 3만 4,000 명)

바수톨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령토 내의 동부에 있는 영국의 《보호령》이다.

영국 정부는 바수톨랜드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압력에 못 이겨 1959년 9월 바수톨랜드에 《자치권》을 주고 1960년 2월에 《국민 회의》 선거(의원 80명 중 40 명은 영국 당국이 임명하고 40 명만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방, 외교, 국내 치안 등 모든 실권은 여전히 영국 고등 판무관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정당으로는 **공산당**(1962년 5월 5일 창립)과 바수톨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당, 민족당**이 있다.

경제는 극히 락후하다. 자연 부원은 거의 개발되지 못 하고 있으며 전체 농호의 7%는 토지를 전혀 못 가지고 있다.

옥수수, 수수, 밀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주로 수입하고 있다.

주요 축산품은 양모이다. 혹심한 빈궁으로 이 나라 인민들은 해마다 일'자리를 찾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 간다(1959년에 그 수는 8만 3천 명).

쎈트 헬레나도

【면적】 122 km²

【인구】 4,760명(1958년)

【행정 중심지】 제임스타운(주민 약 1,700 명)

아프리카의 서쪽, 남대서양상에 있는 작은 섬이다. 1502년에 포도아인이 발견하였다. 1651년 이후 영국이 강점하고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략상 주요 요지로 삼고 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대마, 아마, 채소, 과실 등이다. 가축으로는 소와 양이 있다.

스워질랜드

【면적】 1만 7,366 km²

【인구】 25만 9,000 명(1960년)

【행정 중심지】 므바바네 (주민 약 2,000 명)

스워질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령토 내에 있는 영국 《보호령》이다. 1962년 2월 므바바네에서 영국의 세《보호령》 (스워질랜드, 바수톨랜드, 베추아날랜드)의 정당들이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목적으로 **범 아프리카 단결 대회**(민족주의당들의 통일 전선)를 형성하였다. 여기에 바수톨랜드의 아프리카인 대회당, 스워질랜드 진보당, 베추아날랜드 인민당이 망라되였다.

경 제 주요 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고 경제 명맥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총경지 면적의 60%에 달하는 비옥한 토지는 전 인구의 1.5%에 불과한 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고 있으며 인구의 90%나 되는 원주민은 척박한 《보류지》(경지 면적의 3분의 1)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수수, 락화생, 감자, 목화, 담배 등이다.

스워질랜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면 산지의 하나이다(1958년 3만 726톤 생산). 기타 자원은 중정석, 금, 토륨 등이다.

구 라 파 주

쏘 련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면적】 2,240만 3,000 km²

【인구】 2억 2,600만 명, 그중 녀성이 54.4% (1964년 1월 1일)

【수도】 모쓰크바 (주민 635만 4,000명, 1963년 1월 1일)

정 치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1922년 12월 30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이 형성되였다. 현재 15 개의 가맹 공화국, 20 개의 자치 공화국, 8 개의 자치 주가 있다. 쏘련 헌법은 1936년 12월 5일에 채택되였다.

【쏘련 최고 쏘베트】 련맹 쏘베트와 민족 쏘베트로 구성되여 있으며 임기는 각각 4 년이다. 현 최고 쏘베트는 제6기로서 1962년 3월에 선거되였다. 련맹 쏘베트 대의원은 791 명, 민족 쏘베트 대의원은 652 명이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엘. 이. 브레쥬네브
련맹 쏘베트 의장
이. 웨. 스삐리도노브
민족 쏘베트 의장 야. 웨. 뻬이베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4월에 구성되였고 같은 해 12월과 1963년 3월에 일부 변동되였다.

수 상 엔. 에쓰. 흐루쑈브
제 1 부수상 아. 엔. 꼬씌긴
아. 이. 미꼬얀
데. 에프. 우쓰찌노브
부수상 웨. 에. 딤쉬쯔
까. 엔. 루드네브
데. 에쓰. 뽈란쓰끼
아. 엔. 쉘레삔
뻬. 에프. 로마꼬
이. 떼. 노비꼬브
엠. 아. 레쎄치꼬
엘. 웨. 쓰미르노브
대외 무역상 엔. 에쓰. 빠똘리체브
외무상 아. 아. 그로미꼬
국방상 에르. 야. 말리놉쓰끼
인민 경제 최고 쏘베트 위원장
데. 에프. 우쓰찌노브 (겸임)
인민 경제 쏘베트 위원장
웨. 에. 딤쉬쯔 (겸임)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뻬. 에프. 로마꼬 (겸임)
당 및 국가 검열 위원회 위원장 아. 엔. 쉘레삔 (겸임)
국가 대외 경제 련락 위원회 위원장 에쓰. 아. 쓰까치꼬브
국가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위원장 에쓰. 까. 로마놉쓰끼
국가 안전 위원회 위원장
웨. 에. 쎄미챠쓰뜨느이

【정당, 사회 단체】 **쏘련 공산당** 1903년에 창건,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971만여 명 (1961년 10월 1일 현재)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 엘. 이. 브레쥬네브, 게. 이. 워로노브, 에프. 에르. 꼬즐로브, 아. 엔. 꼬씌긴, 아. 뻬. 끼릴렌꼬, 아. 이. 미꼬얀, 엔. 웨. 뽀드고르느이, 데. 에쓰. 뽈란쓰끼, 엠. 아. 쑤쓸로브, 엔. 에쓰. 흐루쑈브, 엔. 엠. 슈웨르니크

후보 위원 웨. 웨. 그리쉰, 샤. 에르. 라쉬도브, 까. 떼. 마주로브, 웨. 뻬. 므쟈와나제, 뻬. 에. 쉘레쓰트, 엘. 엔. 예프레모브

중앙 위원회 비서국 성원 엔. 에쓰. 흐루쑈브 (제 1 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에프. 에르. 꼬즐로브, 뻬. 엔. 제미체브, 엘. 에프. 일리이초브, 베. 엔. 뽀노마료브, 엠. 아. 쑤쓸로브, 아. 엔. 쉘레삔, 아. 뻬. 루다꼬브, 웨. 이. 뽈랴꼬브, 유. 웨. 안드로뽀브, 웨. 엔. 찌또브, 엔. 웨. 뽀드고르느이

쏘련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웨. 웨. 그리쉰 **레닌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에쓰. 뻬. 빠블로브 **쏘련 청년 단체 위원회** 위원장 뻬. 엔. 레쉬또브 **쏘련 녀성 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뽀바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련맹** 리사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뽀바 **전 련맹 정치 및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위원장 엔. 엔. 쎄묘노브 **쏘련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엔. 에쓰. 찌호노브 **쏘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엠. 뚜르쑨-자데 **작가 동맹** 제 1 서기 까. 페진 **쏘련 기자 동맹** 위원장 뻬. 아. 싸쥬꼬브 **쏘련 적십자 및 적반월 협회 련맹** 집행 위원회 위원장 게. 아. 미쩨레브 **쏘조 친선 협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 엔. 엔. 오르가노브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3월 3일과 17일 쏘련 가맹 공화국 최고 쏘베트 및 지방 쏘베트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12월 16—19일 쏘련 최고 쏘베트 제6기 제3차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1964—1965년 인민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 문제가 심의되였다.

9월 25일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는 대기권, 우주 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 무기 시험 금지에 관한 쏘, 미, 영간의 모쓰크바 조약을 비준하였다.

6월 18—21일에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당 사상 사업의 당면 과업》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12월 9—13일에 있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농업 생산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화학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관한 문제가 토의되

였다.

3월 8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쏘련 문학 예술 활동가들과의 회합에서 흐루쑈브는 현 시기 쏘련 문학 예술의 동향과 과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연설하였다.

1963년에 쏘련 과학원 총회(2월), 제2차 화가 대회(4월), 전련맹 공산주의 로동 운동 선구자 대회(4월), 제4차 전국 청년 작가 대회(5월), 쏘련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제13차 대회(10월)가 진행되였다.

6월 14일과 16일에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 5호》와 《워쓰또크 6호》가 발사되였다. 두 비행선은 집단적 우주 비행을 성과적으로 수행(5호는 지구 주위를 82회, 6호는 49회 이상 공전)하고 6월 19일에 예정 지점에 착륙하였다. 우주 비행선은 쏘련 우주 비행가 븨꼽쓰끼와 첫 녀성 우주 비행가 쩨레슈꼬바가 각각 조종하였다.

대기 상층부와 우주 공간의 연구를 위하여 3월 22일—12월 7일까지의 기간에 쏘련은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 13호부터 24호까지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중부 태평양상의 수역으로 보다 완성된 우주 비행체 운반 로케트의 시험 발사가 진행되였으며 11월 1일에는 유도 기동 우주 기구 《뽈료트—1호》가 발사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유엔 총회 제18차 회의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 쏘련 대표단은 조선에서 외국 군대 철거에 관한 몽고 대표의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1963년 1월 10—15일간에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10월 23일—11월 5일간에 쏘련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제13차 대회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 6월에 과학 기술 협조 대표단, 11월에 조쏘 친선 협회 대표단, 12월에 과학자 대표단이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7월 25일—8월 7일간에 쏘련 대외 경제 련락 위원회 부위원장 아. 에. 빼뜨루쑈브를 단장으로 한 쏘련 경제 대표단, 9월에 쏘조 친선 협회 대표단, 10월 15일—11월 6일에 쏘련 태평양 서부 어업 공동 위원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쏘련은 우리 나라와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1.26), 1963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 계획서 (5.13), 1963년도 과학 협조 계획서 (5.13)를 조인하였으며 4월 17일에는 조쏘 친선 협회와 쏘련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쏘조 친선 협회간에 1963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를 조인하였다. 6월에 모쓰크바에서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14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월 10—14일 흐루쑈브를 단장으로 한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이 파란을, 1월 15—23일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6월 28일—7월 4일 흐루쑈브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12월 10—15일 브레쥬네브는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였다.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전국 지도부 제1비서이며 수상인 카스트로(4. 27—5. 24), 야노쉬 까다르를 단장으로 한 웽그리야 당 및 정부 대표단(7. 10—23), 또도르 집꼬브를 단장으로 한 불가리야 당 및 정부 대표단 (8. 14—16),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한 체코슬로바키야 당 및 정부 대표단 (11. 25—28)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 문제, 국제 문제, 량국간의 관계 문제 및 경제 문제가 토의되였다.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1비서 안또닌 노보뜨느이(2월), 불가리야 공산당 제1 비서 또도르 집꼬브 (2월), 몽고 인민 혁명당 제1 비서 유. 쩨덴발(7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고 흐루쑈브와 회담하였다.

1963년도에 쏘련 공산당 대표단이 몽고 (1월), 파란 (4월), 루마니야(6월)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대표단 (2월, 10월), 독일 사회 통일당 대표단(5월),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대표단(5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또한 루마니야 대 민족 회의 대표단(5월), 체코슬로바키야 정부 대표단(6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대표단(7월), 파란 인민 쏘베트 대표단(10월), 불가리야 인민 회의 대표단(10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7월 5—20일에 모쓰크바에서 쑤쓸로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공산당 대표단과 등 소평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간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과 쏘중 량당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 문제가 토의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에 브레쥬네브가 아프가니스탄(10월 12—17일), 이란(11월 16—23일)을, 쏘련 정부 대표단이 말리(4월), 기니아(6월)를,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이 말리(1월)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그로믜꼬가 덴마크(3월), 말리놉쓰끼가 인도네시아(3월)와 버마(4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라오스 왕 사방 바타나 (2월, 10월),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대표단(6월), 가나 인민 대회당 대표단(8월), 라오스 수상 수반나 푸마(10월), 쎄일론 수상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10월), 네팔 수상 툴시 기리(10월), 브라질 국회 대표단, 알제리아 정부 대표단(9월, 12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3년에 쏘련은 이라크 주권당국이 이라크 공산당에 대한 탄압과 쿠르드족을 반대하는 전쟁에 대한 서방의 간섭과 관련하여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성명

(2월, 3월), 쏘련 정부 성명(7월), 따쓰 성명(6월)을 발표하였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에 흐루쑈브는 미국 국무 차관 해리맨(4월, 7월), 미국 농무 장관 프리멘(7월), 미국 최고 재판소 소장 워렌(8월)과 담화하였다.

11월 25—28일 미꼬얀은 케네디 장례식 참가차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존슨, 러스크, 영국 수상 흄과 담화하였다.

또한 쏘련 의료 일'군 대표단(1월), 로씨야 종교 대표단(2월), 루드네브 부수상이 미국을, 미국 원자 과학 일'군 대표단(5월), 미국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루빠(5월), 미국 농업 대표단(7월), 미국 동력 대표단(8월), 미국 대외 무역 전문가 대표단(8월)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쏘미 간에 핵 무기 시험 금지에 관한 회담(1.14), 우주 공간 연구 분야에서 협조할 데 관한 쏘미 쌍방 회담(3.11)이 진행되였으며 5월 21일에는 1963—1965년도 원자력 리용 분야에서 협조할 데 관한 쏘미 협정이 체결되였다. 8월 5일 모쓰크바에서 부분적 핵 무기 시험 금지에 관한 조약이 쏘, 미, 영 간에 조인되였다. 2월 25일에는 쏘미 문화 교류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6월 20일 쏘미 간에 직통 전화선 설치를 합의하는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흐루쑈브 (8.20—9.20), 쏘련 경제 대표단(3월)이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고 유고슬라비야 군사 대표단(9월)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월 10일 쏘련 유고슬라비야 간에 원자 에네르기 리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영국 레이버당 대표단(6월), 벨기 부수상 겸 외상 파울 앙리 스파크(7월), 이태리 사회당 대표단(9월), 불란서 사회당 대표단(10월)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3년에 쏘련은 쿠웨이트(3월 11일), 요르단(8월 20일), 르완다(11월 24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리 하여 쏘련은 87개국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 제 쏘련은 철, 망간, 석탄, 원유, 동, 연, 아연, 니켈, 보키사이트, 탕그스텐, 운모, 카리염 등의 탐사된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쏘련의 철 매장량은 383억 톤 (1958년 말)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매장량과 같다. 석탄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약 57%인 8만 6,690억 톤(1959년 초)이며 수력 자원은 세계 수력 자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은 10억 헥터, 목재 자원은 500억 립방메터로서 세계 산림 자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5억 헥터로 보며 주요 작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해바라기, 사탕무우, 면화, 대마 등이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제품 생산은 1962년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8.5%,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0% 이상, 소비재 생산은 5% 각각 증가되였다.

공업 생산 장성 속도

	7 개년 계획 '통제 수'자에 예견된 것	실제 달성한 것	전년도에 비한 장성률 (%)
1958	100	100	10
1959	107.7	111.4	11
1960	117	122.1	약10
1961	127	133.3	9.2
1962	139	145	9.5
1963	151	158	8.5

1962년에 비하여 1963년에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은 9%, 연료 및 전력 공업은 10%,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13%, 화학 공업은 16%, 전재 공업은 8%, 목재 가공 공업은 7%, 경공업은 2%, 식료품 공업은 5% 증가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2	1963
전력(억kWH)	3 280	3 690	4 120
석탄(100만 t)	511	517	532
원유(〃)	166.1	186.2	206
가스(100만m^3)	60 900	75 200	91 500
선철(1,000t)	50 900	55 300	58 700
강철(〃)	70 800	76 300	80 200
압연품(〃)	55 300	59 200	62 400
광물성 비료(〃)	15 300	17 300	19 900
금속 절삭 기대(1,000대)	166	176	183
자동차(〃)	555	578	587
뜨락또르(〃)	264	287	325
세멘트(1,000t)	50 900	57 300	61 000
종이(1,000t)	2 591	2 765	2 9 0
면직물(100만m^2)	4 875	4 913	5 069
모직물(〃)	454	469	471
견직물(〃)	682	787	801
가죽신발(100만 켤레)	443	456	463
사탕가루(1,000t)	8 376	7 800	5 500
동물성기름(〃)	781	940	874
식물성기름(〃)	1 815	2 090	2 100

1959—1963년 기간에 쏘련에서는 4,400여 개의 새로운 대규모 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1963년 한해 동안에만 하여도 700 개의 새로운 대규모 기업소가 조업을 개시하였다. 그 중에는 14 개의 대규모 화학 기업소가 들어 있다.

1963년에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5% 장성되였다.

【농촌 경리】 1963년에 농작물 총 파종 면적은 2억 1,800만 헥터로서 전년에 비하여 200만 헥터가 증가되였다.

1963년 한 해 동안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23만 8,000 대(15 마력으로 환산하여)의 뜨락또르, 8만 6,000 대의 화물 자동차, 7만 7,000 대의 알곡 수확 콤바인을 공급 받아 이 해 말에 이르러 약 260만여 대(15 마력으로 환산하여)의 뜨락또르, 90만 대의 화물 자동차, 53만 3,000대의 알곡 수확 콤바인을 가지고 있었다.

1963년에 쏘련의 농촌 경리는 대부분의 농업 지구들을 휩쓴 극히 불리한 일기 조건으로 알곡 생산이 감소되였다. 특히 밀은 1962년 보다 적게 수매되였으며 곡물과 종자에 대한 수요를 보장

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알곡 절약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농산물 국가 수매량
(단위 100만 톤)

	1961	1962	1963
알곡	52.1	56.6	44.8
면화	4.52	4.30	5.20
사탕무우	47.7	43.9	41.4
감자	7.6	5.7	8.0
해바라기	—	3.1	3.0

가축 두수
(1월 1일 현재, 단위 100만두)

	1961	1962	1963	1964
대각 가축	75.8	82.1	86.9	85.3
그중 젖소	34.8	36.3	37.9	38.2
돼지	58.7	66.7	69.9	40.7
양	133.0	137.5	139.6	133.6
그중 염소	7.3	7.0	6.7	5.6

【대외 무역】 1963년도 대외 무역 류통액은 5% 장성되여 127억 루블에 이르렀다. 1963년에 쏘련은 91 개 나라들과 통상하였다.

【재정】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수입은 886억 루블, 지출은 868억 루블로서 수입 초과액은 18억 루블이였다.

교육, 문화

1963년에 로동자, 사무원 수는 220만 명 증가하여 년 평균 7,050만 명에 달하였다. 생산 부문에 배치된 로동자 및 기술자, 전문가들의 수는 년간에 13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1963년에 주민의 3분의 1 (학령전 아동 제외)에 해당하는 6,400만 명 이상이 각종 교육 체계에 망라되였는바 보통 교육 학생 수는 4,400만 명 (전년도에 비하여 200만 명 증가), 대학 및 중등 전문 교육 기관 학생 수는 620만 명이였다. 그중 대학생 수는 330만 명이였다.

1963년에 84만 명의 각종 전문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진출하였는바 그 중 33만 명은 고등 교육을 끝마친 사람들이며 12만 명은 기사들이다.

1963년에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공부하는 체계에 망라된 학생 수는 750만 명이였는데 그 중 400만 명 이상이 로동자 및 농촌 청년 학교에서, 340만 명은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였다.

1963년에 전반적인 8년제 의무 교육에로의 이행이 도처에서 실현되였다.

1963년 말 현재 과학 기관들과 고등 교육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 일'군 수는 약 58만 명이다.

【출판】 통신—따쓰 통신, 노보쓰찌 보도사 (아베엔)

주요 신문—쁘라우다(쏘련 공산당 기관지), 이즈베쓰찌야(정부 기관지), 뜨루드(직맹 기관지), 쏘베트쓰까야 로씨야 (쏘련 공산당 로련국 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 공청 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 (국방성 기관지), 리쩨라뚜르나야 가제따(쏘련 작가 동맹 기관지), 에꼬노미체쓰까야 가제따(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주간지), 모쓰코 뉴스 (영문), 쏘베트쓰까야 꿀뚜라, 셀쓰꼬예 호쟈이쓰트보

주요 잡지—공산당원(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리론 잡지), 당 생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당 생활 리론 잡지), 력사 제 문제, 경제 제 문제, 철학 제 문제, 언어학 제 문제, 문학 제 문제,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국제 생활, 영화와 예술,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신 시대, 10월, 쏘련 녀성, 별, 불꽃

파 란

(파란 인민 공화국)

Poland People's Republic

【면적】 31만 1,730 km^2

【인구】 3,093만 9,700 명(1964년 1월 1일 현재)

【수도】 와르샤와 (주민 121만 3,000 명, 1963년 9월 30일 현재)

정 치

파란은 1944년 7월 22일에 히틀러 강점에서 해방되였다 (이 날을 파란 재생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43년 12월 31일과 1944년 1월 1일에 파란 민족 위원회가 조직되였는데 이 위원회는 1944년 12월 31일에 림시 정부로 재 조직되였다.

현행 헌법은 1952년 7월 22일 립법 회의 (쎄임)에서 채택되였다.

【쎄임】 현 쎄임은 1961년 4월 16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 수는 460 명이며 그의 임기는 4 년이다.

의장 체쓸라브 븨쩨흐
국가 쏘베트 위원장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내각】 현 내각은 1961년 5월 18일에 구성되였으며 그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내각 수상 유제프 찌란께비치
부수상 쓰쩨관 이그나르
뾰뜨르 야로쉐비치
제논 노바크
에우게니우슈 쉬르
율리안 또까르쓰끼
프란찌쉐끄 와니올까

내각 직속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쓰쩨관 엔드리홉쓰끼
민족 보위상 마리안 쓰삐찰쓰끼
내무상 블라지쓸라브 위하
외무상 아담 라빠쯔끼
대외 무역상 위똘드 뜨룸뻰친쓰끼
내각 경제 위원회 위원장 유제프 찌란께비치
대외 경제 협조 위원회 위원장 뾰뜨르 야로쉐비치

【정당, 사회 단체】 **통일 로동당** 1948년 12월 15일 로동당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147만 4,521 명 (1963년 9월 말 현재)

정치국 위원 유제프 찌란께비치, 에드와르드 게레크, 울라지쓸라브 고물까, 쓰쩨관 엔드리홉쓰끼, 제논 골리슈꼬, 이그나찌 로가—쏘빈쓰끼, 에드와르드 오하브,

아담 라빠쯔끼, 마리안 쓰삐할쓰끼,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비서국 성원 울라지슬라브 고물까(제 1 비서), 에드와르드 게렉크, 위똘드 야로쉰쓰끼, 블래슬라브 야슈크, 제논 끌리슈꼬, 에드와르드 오하브, 아르뚜르 쓰따레비치, 리샤르드 스첼레쯔끼

통일 농민당 총위원회 위원장 에쓰. 이그나르 **민주당** 위원장 쓰따니슬라브 굴친쓰끼 **인민 통일 전선** 전국 위원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이그나찌 로가―쏘빈쓰끼 **사회주의 청년 동맹** 제 1 비서 마리안 렌께 **농촌 청년 동맹** 위원장 까지메즈 바르찌꼽쓰끼 **녀성 동맹** 위원장 알리찌야 무썈로바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야로슬라브 이와슈께비치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2월 26—27일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12차 전원 회의는 《농업 부문의 투자를 증가하며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데 대하여》를, 7월 4—5일에 있은 제13차 전원 회의에서는 《당 사상 사업의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와 조직 문제를, 11월 29—30일에 진행된 제14차 전원 회의에서는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문제》와 조직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3년에 인민 통일 전선 전국 위원회(2월), 제5차 대학생 동맹 대회(2월), 파란 법률가 동맹 제6차 대회(3월), 농업 크루쇼크 제2차 대회(5월)가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1월 24—31일에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이 파란을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6월 9—23일에 진행된 뽀즈난 국제 시장에 참가하였다. 한편 9. 9 절 행사에 참가할 파란 직맹 대표단(9. 4—11), 파란 정부 통상 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과학원 간의 협조에 관한 협정(2. 1), 1963년도 통상 의정서(1. 30),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7. 29), 1964년도 통상 의정서(12. 29)가 조인되였고 10월에는 조—파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5차 회의가 와르샤와에서 진행되였다.

6월에 평양에서 파란 풍자화 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에 쏘련 수상 흐루쑈브(1. 10—13), 체코슬로바키야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3월), 웽그리야 수상 까다르 야노쉬(5. 16—18),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9. 25—30), 체코슬로바키야 외무상 다비드(7월), 웽그리야 군사 대표단(7. 5—12), 말리놉쓰끼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군사 대표단(10. 10—18)이 각각 파란을 방문하였다.

한편 7월에 고물까와 찌란께비치가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성원국 수뇌자 회의에 참가하였고 11월 18—22일에는 고물까와 찌란께비치를 단장으로 하는 파란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웽그리야를 방문하고 공동 공보를 발표하였다. 3월 28일—4월 5일에는 쓰삐할쓰끼를 단장으로 하는 파란 군사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3월 6—12일 찌란께비치 수상이 멕시코를, 파란 외무상 라빠쯔끼가 인도(1. 19—25)와 아랍 련합 공화국(11. 28—30)을, 인민 통일 전선 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야(11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라오스 왕과 수상(3. 1—4), 멕시코 대통령(4. 1—3), 쎄일론 수상(10. 17—21), 유고슬라비야 외무 관계 국무상 뽀뽀비치(9. 1—8), 벨기 부수상 겸 외상 스파크(12. 6—10)가 파란을 각각 방문하였다.

2월 15일 파란 정부는 불란서와 서독간에 체결된 군사 동맹과 관련하여 불란서 정부에 항의 각서를 보냈다.

12월 28일 고물까는 군비 경쟁을 저지시키고 군비 철폐를 실현할 데 관한 5 개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 갈탄, 니탄, 원유, 천연 가스, 철, 아연, 동, 니켈, 류황, 소금, 카리염 등이며 주요 농산물은 맥류,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산림 면적은 전 령토의 24.9%이다.

5 개년 계획(1961—1965년)의 세번째 해인 1963년에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회화된 부문에 1962년보다 2.5% 장성한 1,036억 즐로띄가 투자되였다.

1962년에 사회주의 경제 형태는 국민 소득에서 75.9%, 투자액에서 90.1%, 소매 상업에서 97.9%, 로동자, 사무원에서 98.1%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국민 소득은 약 450억 즐로띠, 사회화된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 수는 전년에 비하여 3% 장성한 770만 명 (사회화된 공업 부문 로동자는 321만 9천 명)이였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생산 계획은 100.6%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5.3% 증가하였다.

1963년에 기계 제품은 1962년에 비하여 112.6%, 화학 공업은 108.7%로 장성되였으나 식료품 공업은 2.7% 저하되였다.

1963년에 파란 조선소들에서는 총 배수량 30만 8,000 톤의 바다'배를 만들었다. 공업에서 기계 및 화학 공업은 공업 총생산액의 약 32%를 차지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37	1962	1963
전력(10억 kWH)	3.6	35.4	37
석탄 (100만 t)	36.2	109.6	113.2
선철 (〃)	0.8	5.3	5.4
강철 (〃)	1.5	7.7	8
세멘트 (〃)	1.3	7.5	7.7
면직물(100만m)	325	693	695

【농업】 1963년에 일기 조건의 불리로 해서 농업 생산 계획은 2.5% 미달하였으나 농업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3.8% 증가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만 톤)

	1960	1962	1963
4대 작물(밀, 쌀보리, 귀밀, 보리)	15.1	13.4	14.5
감 자	37.7	37.8	44.8
사탕무우	10.2	10.1	10.6

1963년 6월에 대각 가축 두수는 980만 두 (그중 젖소는 610만 두), 돼지는 1,170만 두있었다.

1963년 말에 농업 크루쇼크 수는 1962년 말 보다 7.5%가 더 많은 8만 개 있었으며 여기에는 124만 7천 명이 망라되여 있었다. 1963년 말에 농촌 경리에는 1962년도 보다 17.6% 장성한 9만 8,000 대의 뜨락또르가 있었다. 1963년에 농기계 임경소 수는 432 개 (그중 261 개는 국영 농기계 임경소)로 장성하였다.

1963년에 농촌의 전기화를 위하여 9억 5,000만 즐로띄(8.7% 장성), 수리화를 위하여 24억 즐로띄(15% 장성)가 투자되였다.

【대외 무역】 1963년도 대외 무역 총액은 1962년도 보다 6.2% (수출 7.6%, 수입 5%) 장성된 150억 즐로띄 (수출 71억 즐로띄, 수입 79억 즐로띄)였다.

주요 수출품은 석탄, 흑색 금속 제품, 아연, 세멘트, 목재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콕스탄, 철광석, 석유 제품, 화학 비료, 알곡 등이다.

1963년에 알곡은 전년도보다 58만여 톤이 더 많은 261만 3천 톤을 수입하였다.

1963년 무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65%를 차지하였다.

교육, 문화

1963—1964 학년도에 보통 학교 학생 수는 518만 명, 직업 학교 학생 수는 89만 5,500 명, 대학생 수는 20만 8,800 명이였다. 주민 1만 명에 대학생 수는 1937년의 14 명으로부터 1963년에는 65 명으로 늘었다. 1963년에 영화관 수는 3,448 개 있었다.

【출판】 **통신**—빠쁘(파란 통신)

신문—뜨리부나 류두(통일 로동당 기관지), 젠니크 류도비(통일 농민당 기관지), 쥐쩨 와르샤비(국가 쏘베트 기관지), 글로 쓰쁘라찌(직맹 기관지), 슈딴다르 믈로디호(청년 동맹 기관지), 쫄네쥬 월노스찌(인민군 기관지)

잡지—노웨 드로기(통일 로동당 정치 리론 월간), 쥐쩨 빠르띠(통일 로동당 월간)

체코슬로바키야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Czechoslovakia Socialist Republic

【면적】 12만 7,859 km^2

【인구】 1,400만 4,000 명 (1963년 12월 말 현재), 그중 체코인 969만 9,000 명

【수도】 쁘라가 (주민 101만 4,000 명, 1963년 말 현재)

정치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은 두 형제적 민족—체코인과 슬로바키야인들의 단일한 국가이다. 1945년 5월 9일 체코슬로바키야는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하에 체코슬로바키야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밑에 국내 반동 세력의 반혁명 음모를 분쇄하였다. 1960년 7월 11일 민족 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민족 회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대의원 수는 300 명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의장 즈데네크 피를링게르

슬로바키야에는 최고 민족 주권 기관인 슬로바키야 민족 회의가 있다. 민족 회의는 국방, 외교 및 대외 무역을 제외한 민족적 혹은 지방적 성격을 띤 문제들에 한하여 립법권을 가지며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 (1957년 11월 19일 취임)

【정부】 1963년 9월에 일부 내각 변동이 있었다.

수상 요제프 레나르트 (1963년 9월 취임)

부수상 오따까르 쉬무네크
올드리쥐호 체르니크
프란찌쉐크 크라이치르
얀 삘레르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올드리쥐호 체르니크

외무상 와쯜라브 다비드

내무상 류보미르 슈뜨로우갈

민족 보위상 보구미르 롬쓰끼

대외 무역상 프란찌쉐크 하무르

【정당, 사회 단체】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 1948년 6월에 사회 민주당과 합당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수 168만 819 명(1962년 10월 1일 현재)

상무 위원회 위원 야로미르 돌란쓰끼, 알렉싼드르 둡체크, 즈데네크 피를링게르, 이르쥐 겐드리호, 미할 후지크, 드라호미르 골데르, 보구슬라브 라슈또비츠카, 요제프 레나르트, 안또닌 노보뜨느이, 오따까르 쉬무네크

상무 위원회 후보 위원 안또닌 까베크, 미하일 싼블리치크, 마르띤 바쭐리크

비서들 안또닌 노보뜨느이(제1비서), 이르쥐 겐드리호, 드라호미르 골데르, 울라지미르 꼬우쯔끼, 프란찌쉐크 뻰즈

비서국 성원들 이르쥐 겐드리호, 드라호미르 골데르, 울라지미르 꼬우쯔끼, 안또닌 노보뜨느이, 안또닌 크르체크, 프란찌쉐크 주쁘까

인민당 위원장 요제프 쁠로이가르 **사회당** 위원장 알로이쓰 노이만 **슬로바키야 부흥당** 위원장 요제프 끼셀르이 **민족 전선** (통일 전선 조직임)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안또닌 노보뜨느이 **직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프란찌쉐크 주쁘까 **청년 동맹** 위원장 미로슬라브 자와질 **녀성 동맹** 위원장 젤레나 레프레로와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얀 무까르좁쓰끼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1월 4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1963년 인민 경제 계획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12차 대회 결정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부와 성들의 사업을 위한 결론》과 일부 조직 및 간부 문제를 토의하고 농업 생산 지도를 위한 당 중앙 위원회 및 정부 교미샤를 조직하였다. 4월 전원 회의(4.3—4)에서는 농업 생산 지도 체계 문제와 당 내부 사업 문제를, 5월 전원 회의(5. 29—30)에서는 12차 당 대회 결정 실행과 관련된 문제와 경제 문제를, 12월 전원 회의(12. 18—19)에서는 당 사상 사업 문제를 토의하고 각각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진행된 9월 전원 회의(9. 20)에서는 당 및 정부 기관들의 12차 당 대회 로선에 대한 집행 정형과 조직 문제를 토의하고 4 개의 당 중앙 위원회 교미샤를 조직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7일 정부 회의에서는 1964—1965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그리고 웽그리야와의 래왕을 확장할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63년에 청년 동맹 제4차 대회(4. 18—21), 기자 동맹 제4 차 대회(4. 22—23), 작곡가 동맹 제 3 차 대회(4. 24—26), 녀성 동맹 전국 녀성 대표자 회의(5. 11—12), 직맹 제5차 대회(5. 15—19)가 있었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에도 체코슬로바키야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 성원국으로서 계속 자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조선 정전의 공고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야는 우리 나라와 1963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정(2. 9),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4. 18),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8차 회의 의정서 (9. 28)를 조인하였다. 1963년 2월에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4월에 민청 대표단, 5월에 직맹 대표단, 9월에 정부 대표단이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야 직맹 대표단이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에 안또닌 노보뜨느이가 쏘련(1월), 월남 민주 공화국(1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6월)을 방문하였으며 3월에 체코슬로바키야—파란 국경 지대에서 고물까와 회담하였다. 7월에는 안또닌 노보뜨느이와 윌리암 쉬로끼를 비롯한 당 및 정부 요인들이, 11월에는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1943년 12월 12일에 조인한 《체코슬로바키야와 쏘련간의 우호 및 호상 원조 및 전후 협조에 관한 조약》을 20 년간 연장할 데 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1월에는 드. 꼴데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5월에는 민족 보위상 롬쓰끼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이 불가리야를, 7월에는 외무상 다비드가 파란을 방문하였다. 한편 발떼르 울브리히트(4월), 까다르 야노쉬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야 당 대표단(10월), 민족 쏘베트 의장 야. 웨. 빼이베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대표단(11월), 엘. 이. 브레쥬네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12월)이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였다. 10월 14일 체코슬로바키야 정부는 꾸바의 자연 재해와 관련하여 80만 크로나에 해당하는 구호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1월에 안또닌 노보뜨느이가 인도네시아, 캄보쟈 및 버마를 방문하였다. 한편 알제리아 국회 대표단(5월), 멕시코 국회 대표단 (5월), 케니아 정부 대표단(10월),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10월), 인도네시아 림시 인민 협상 회의 대표단(10월) 등이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였다.

1963년에 체코슬로바키야는 부룬디(3월), 쿠웨이트(6월)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예멘(4월), 토이기(4월), 서서(7월), 벨기(10월), 파키스탄(12월), 수단, 덴마크 등 나라와 외교 대표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다.

경제

자원으로는 석탄, 갈탄, 철, 망간, 흑연, 주석, 동, 우라늄 등이 있으나 풍부하지 못 하다. 중요 농산물은 맥류, 옥수수이다.

체코슬로바키야는 공업이 발전한 나라이다. 체코슬로바키야는 인민 경제 발전 제3차 5 개년 계획(1961—1965)을 작성하고 그 수행에 착수하였으나 1962년에 제3차 5 개년 계획을 재검토하고 7 개년 계획(1964—1970) 작성 방침을 채택하고 1963년을 조성된 경제적인 난관들을 극복하며 7 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의 해로 설정하였다.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1. 4 분기 경제 계획 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조절되였다.

1963년에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392억 크로나가 투자되였다. 1963년에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기업소(농업 협동 조합 제외) 종업원 수는 전년보다 1.6% 장성된 523만 3,000 명이였다.

【공업】 1963년 공업 생산 계획은 100.7%로 초과 수행되였으나 공업 생산은 1962년의 99.4%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전력 (10억 kWH)	28.7	29.9
석탄 (100만 t)	27.2	28.3
갈탄 (〃)	65.2	68.5
선철 (〃)	5.17	5.25
강철 (〃)	7.6	7.59
세멘트 (〃)	5.7	5.18
승용차 (1,000대)	64.3	56.5
화물 자동차 (〃)	15.5	13.0
뜨락또르 (〃)	32.4	28.4
면직물 (100만m)	478	466.9
신발 (100만 켤레)	85	76.3

사탕 (1,000 t) 928 993.6

1963년에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 계획은 101%로 수행되였으나 로동 생산 능률 수준은 1962년 보다 저하되였다. 1963년에 원가는 계획보다 0.4%가 제고되였다.

【농업】 1963년 농업 생산은 전년보다 6~7% 장성되였으나 1961년 수준을 넘지 못 하였다.

1963년에 농촌 경리에는 1만 2,900 대의 뜨락또르와 1,163 대의 곡물 콤바인 및 기타 많은 농기계들이 공급되였다. 년간을 통하여 총면적 5만 3,200 헥터의 토지가 개량되였는바 그중 3만 5,900 헥터에는 배수 체계가, 1만 7,400 헥터에는 관개 체계가 도입되였다. 경지 한 헥터에 시비량은 85.9 키로그람이였다.

1963년에 헥터 당 생산 계획은 감자, 다년생 목초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작물들이 미달하였으나 알곡 총생산량은 1962년 보다 더 많았다. 그중 밀은 6.3%, 옥수수는 33.6%, 감자는 27.8%, 사탕무우는 33.1% 장성하였다. 1963년 10월 1일 현재 농업 협동조합 수는 7,626 개였다. 1963년에 축산물 생산은 전년보다 1~2% 감소되였다. 1963년 말에 대각 가축은 448만 두 (그중 젖소는 198만 4,000 두), 돼지는 584만 5,000 두로서 년초보다 감소되였다.

【대외 무역】 1963년 무역 총액은 339억 크로나 (전년 보다 9% 장성), 그중 수출액은 183억 크로나, 수입액은 156억 크로나였다. 1963년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249억 크로나 (1962년에는 228억 크로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90억 크로나(1962년에는 84억 크로나)였다.

1963년 수출 총액에서 기계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3% (1962년에는 48%), 수입 총액에서 식료품은 21%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131 개 나라들과 무역하였다.

【재정】 1963년 국가 예산에서 수입은 1,258억 7,700만 크로나, 지출은 1,258억 1,500만 크로나였다. 국가 예산 수입에서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86.5%, 세금 및 기타 수입은 10.1%를 차지하였으며 지출의 88.8%가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에 배정되였다.

교육, 문화 1963—1964 학년도에 9년제 초등 학교 학생 수는 226만 명, 일반 중등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학생 수는 10만 5,000 명, 중등 전문 학교 및 전문 학교 학생 수는 30만 5,000 명, 대학생 수는 13만 8,000 명이였다. 대학생들 중 3분의 1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였다.

1963년에 유치원 원아 수는 31만 7,205 명이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63년에 39 편의 예술 영화와 783 편의 단편 영화들을 제작하였다.

【출판】 통신—체떼까 (체코슬로바키아 통신)

신문—루데 쁘라보(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기관지), 쁘라우다 (슬로바키아 공산당 기관지), 스보보드네 슬로보(사회당 기관지), 리도바 제모크라찌예(인민당 기관지), 쁘라쩨(직맹 중앙 평의회 기관지), 믈라다 프론따 (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노바 미쏠(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리론 잡지), 쥐보뜨 스뜨라느이(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잡지), 베지나로드니 뽈리찌까(체코슬로바키아 정치 및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잡지)

웽그리아

(웽그리아 인민 공화국)
Hungary People's Republic

【면적】 9만 3,030 km²

【인구】 1,010만 4,000 명(1963년 말 현재)

【수도】 부다페스트(주민 180만 7,299 명, 1960년 1월)

정치 웽그리아는 1945년 4월 4일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9년 8월 18일 국가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국가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현 국가 회의는 1963년 2월 24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 수는 340 명이다.

의 장 로나이 산도르
상임 위원회 위원장
도비 이슈트반

【로농 혁명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3월 21일에 성립되였으며 1963년 12월에 일부 변동되였다.

수상 까다르 야노쉬
부수상 아뽈로 안딸, 페헤르 라이오쉬, 포크 예네, 깔라이 지율라, 빠쁘 야노쉬
국무상 뮨니흐 페렌쯔
내무상 벵께이 안드라스
국방상 찌네게 라이오쉬
외무상 뻬쩨르 야노쉬
무역상 요제프 비르도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아이따이 미끌로쉬

【정당, 사회 단체】 사회 로동당 1956년 11월 1일에 창건되였다. 전신은 1948년 6월 14일 공산당 (1918년 11월 창건)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당원 수 51만 1,965 명(1962년 11월 현재, 후보 당원 포함)

정치 위원회 위원 아뽈로 안딸, 비쓰꾸 벨라, 페헤르 라이오쉬, 포크 예네, 가슈빠르 산도르, 까다르 야노쉬, 깔라이 지율라, 코모친 졸딴, 뮨니흐 페렌쯔, 네메쉬 제쬐, 로나이 산도르, 쇼모지 미끌로쉬, 씨르마이 이슈트반

후보 위원 아이따이 미끌로쉬, 브르찌오 야노쉬, 찌네게 라이오쉬, 초제르끼 라이오쉬, 빌꾸 빨, 니에르쉬 레줴

비서국 성원 까다르 야노쉬(제 1 비서), 비쓰꾸 벨라, 네메쉬 제쬐, 네메뜨 까로이, 니에르쉬 레줴,

씨르마이 이슈트반, 쵸쎄르끼 라이오쉬, 코로마 미하이, 수르지 이슈트반

애국 인민 전선 전국 리사회 위원장 깔리이 지율라 **직업 동맹** 전국 리사회 위원장 쇼모지 미끌로쉬 **공산 청년 동맹** 제 1 비서 메헤샤 라이오쉬 **녀성 전국 리사회** 위원장 에르네이 리쓸로베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2월 24일 국가 회의 및 지방 쏘베트 선거가 진행되였다. 등록된 전체 유권자의 97.2%(691만 5,644명)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투표자의 98.9%가 애국 인민 전선 립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3월 21일에는 국가 회의 제1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까다르 야노쉬를 수반으로 하는 신 정부 구성을 승인하였으며 도비 이슈트반을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상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하였다.

8월 2일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대내외 정책의 절박한 문제들과 웽그리야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쏘련 방문과 두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의 회담,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성원국 당 및 정부 대표들의 회의 그리고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정치 협상 위원회 회의에 관한 제 1 비서 까다르 야노쉬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10월 18일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대외 정책의 일부 주요 문제, 인민 경제 발전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2월 5일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한 지시문을 토의 결정하였으며 당 중앙 위원회의 비서국을 확장하며 당 중앙 위원회 기구내에 새로운 부서들을 설치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3월 22일 웽그리야에서는 대사령을 실시하여 1956년 사건 당시의 정치범들을 석방하였다.

이 해에 직업 동맹 제20차 대회(5월), 제6차 평화 옹호자 대회(6월)가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웽그리야는 우리 나라와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1. 30)을 체결하였으며 9월 14일에는 조선—웽그리야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부다페스트에서 진행하고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4월 10일에 부다페스트에서 웽그리야—중국 간에 1963년도 통상 및 지불 협정이 조인되였다. 7월 10—22일 까다르 야노쉬를 비롯한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23일에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1—4일 까다르 야노쉬는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여 량국의 당 및 정부 활동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각각 교환하였다.

11월 18—24일 고물까와 유제프 찌란께비치가 인솔하는 파란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웽그리야를 방문하여 웽그리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22일에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까다르 야노쉬는 유고슬라비야(9. 10—12)를, 웽그리야 국회 대표단이 불란서, 영국,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하였으며 유엔 사무 총장 우 탄트(7. 1—?), 이전 미국 부대통령 닉슨(7월), 불란서,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분란 국회 대표단이 웽그리야를 방문하였다.

웽그리야는 60 개 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330 개 국제 기구에 참가하고 있다.

경제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 석탄, 철, 원유, 망간 등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이며 국토의 93%는 경지, 목장, 초원, 과수원이다. 제2차 5 개년 계획의 세번째 해인 1963년에 사회주의 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1962년보다 12% 더 장성한 428억 포린트였다. 1963년 국민 소득은 1962년에 비하여 5% 장성하였다. 1963년 국민 소득에서 공업과 건설은 72%,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은 공업 총 생산의 98%를 차지하였다.

【공업】 1963년에 사회주의 공업 생산은 1962년에 비하여 7% 장성하였다. 그중 채굴 공업과 중공업(채굴 공업 제외)은 각각 7%, 경공업은 6%, 식료품 공업은 8% 장성하였다. 특히 화학 공업은 11%, 기계 제작 공업 생산은 8% 장성하였는바 그중 통신 기계 및 기구 제작 생산는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공작 기계 생산은 저하되였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식료품 공업 생산이 장성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석탄 (100만 t)	28.6	30.5
원유 (〃)	—	1.8
보키사이트 (〃)	1.5	1.4
전력 (10억 kWH)	9.1	9.7
강철 (100만 t)	2 33	2.4
압연 강재 (〃)	1.6	1.7
알루미늄 (1,000 t)	53	55.5
화학 비료 (〃)	776.7	900
면직물 (100만m²)	272.9	282.9
모직물 (〃)	34.1	34.5

1963년에 국가 공업 부문의 종업원 수는 3.7% 장성하여 123만 9,770 명에 이르렀다.

【농업】 1963년에 농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4~5% 장성하였다. 지난 3 년간에 알곡 생산은 8~9%, 목축업은 약 4% 장성하였다.

1963년에 알곡 작물의 파종 면적은 1962년에 비하여 11%(24만 6,700 홀드, 1 홀드=0.575 헥타)가 축소되였다.

그러나 1963년 가을에는 알곡 작물 파종 면적이 같은 해 봄 실적에 비하여 33만 홀드(16%)나 확장되였다. 겨울의 혹한과 여름의 가물 등 불리한 일기 조건으

로 하여 1963년에 알곡 생산량은 1962년 보다 45만 4,000 톤이 적은 173만 8천 톤이였다.

1964년 초에 국내에는 3,616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있었으며 1963년 5월말에 경지 면적의 96.7%가 사회주의 경제 형태에 속하였다.

1963년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일층 강화되였다. 이 해에 약 9,500 대의 뜨락또르와 1,800 대의 꼼바인 및 기타 농기계들이 공급되여 년말에 뜨락또르 대수는 약 5만 4천 대에 달하였다.

1963년에 경지, 과수원, 포도원 1 홀드당 평균 인조 비료의 시비량은 221 키로그람였다.

가축 두수는 1962년 7월 보다 훨씬 줄어 들어 1963년 9월말 현재 돼지는 700만 두, 유각 가축은 190만 8,000 두 였다.

【대외 무역】 1963년 대외 무역 총액은 1962년에 비하여 수입은 14%, 수출은 10% 각각 장성하였다. 1963년에 기계 설비는 수출에서 34%, 수입에서 20%, 원료는 수출에서 22.7%, 수입에서 54.7%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웽그리야는 100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들과 무역을 진행하였는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무역은 무역 총액의 69.7%를 차지하였다. 웽그리야는 원료 수입의 68%를 형제 국가들로부터 받고 있다.

【재정】 1963년 국가 예산에서 수입은 844억 포린트, 지출은 1962년에 비하여 약간 장성하였다. 화폐 단위는 포린트이다.

교육, 문화 1963—1964 학년도에 6~14 세의 아동들의 98.8%가 8 년제 인민 학교에 입학하였다. 4 년제 중학교에서는 38만 5,000 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1963년에 기능자 양성 학교 학생 수는 15만 명 이상, 대학생 수는 8만 명 이상이였다. 한편 야간 학부와 통신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30% 장성하였다.

【출판】 통신—웽그리야 통신

신문—네프싸바드 샤그(사회 로동당 기관지), 네프 싸바(직맹 기관지), 마쟈르 넴제뜨(애국 인민 전선 기관지), 마쟈르 이피유샤그(공청 기관지)

잡지—따르샤달미 쎄믈레 (사회 로동당 정치 리론 잡지), 빠르뗄레뜨(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루마니아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

Rumania People's Republic

【면적】 23만 7,500 km²

【인구】 1,887만 7,000 명(1964년 1월 1일 현재)

【수도】 부카레스트 (주민 약 135만 4,000 명)

정치 1944년 8월 23일 히틀러 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된 루마니아 인민은 1945년 3월 6일 인민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7년 12월 30일 루마니아 인민은 군주제를 청산하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 민족 회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며 대의원은 465 명이다. 현 대 민족 회의는 1961년 3월 5일 선거되였다.

의장 슈떼판 보이떼크

【국가 쏘베트】 1961년 3월 21일 대 민족 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대 민족 회의 상임 위원회를 국가 쏘베트로 개칭하였다.

위원장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

【내각】 현 내각은 1961년 3월 21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제 1 부수상 게오르게 아뽀스똘

부수상 에밀 보드너라슈

빼뜨레 보릴러

알렉싼드루 비를레댜누

알렉싼드루 모기오로슈

고구 러둘레쓰꾸

꼰쓰 딴띤 뚜주

부수상 겸 내무상

알렉싼드루 드러기치

부수상 겸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가쓰똔 마린

외무상 코르넬리우 메네쓰꾸

무력상 레온띤 쌀레쟌

대외 무역상

빅또르 이오네쓰꾸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48년 2월 공산당(1921년 5월 8일 창건)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수 124만 명 (1964년 2월 현재)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 끼부 쓰또이까, 게오르게 아뽀스똘, 에밀 보드너라슈, 빼뜨레 보릴러,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알렉싼드루 드러기치, 알렉싼드루 모기오로슈,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정치국 후보 위원 두미뜨루 꼴리우, 레온떼 러우뚜, 레온띤 쌀레쟌, 슈떼판 보이떼크, 알렉싼드루 비를레댜누

비서국 성원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제 1 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끼부 쓰또이까, 미하이 달랴

인민 민주주의 전선,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이싸크 마르띤

근로 청년 동맹 제 1 비서 뜨로핀 비르질 **녀성 전국 리사회** 위원장 쑤자나 그댜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랄랴(원사)

【주요 국내 사건】 4월 5일 국가 쏘베트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1월 3일에 실시한 대사령에 대하여 총화하고 새 공업 및 사회 문화 시설들을 건설할 데 대한 일련의 정령을 승인하였다. 10월 26일에 진행된 국가 쏘베트 회의는 일부 성 기관들을 개편(금속 및 기계 제작성을 폐지하고 금속 공업성, 기계 제작 공업성을 창설)하였다.

3월 5—8일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1963년 2월에 있은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집행 위원회에 참가하였던 내각 부수상 알렉싼드루 비를레댜누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3월 3일에 도시와 농촌 인민 쏘베트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 결과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였는데 선거자의 99.73%가 시 인민 민주 전선 후보자들에게, 선거자의 99.43%가 농촌 인민 민주 전선 후보자들에게 각각 찬성 투표하였다.

6월 15일 내각에서는 육류 수매 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10월 23일 반파쑈 전쟁 참가자 전국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9월 25일 유엔 총회 18차 회의에서 조선 문제를 토의할 때 루마니야 대표는 남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1963년에 우리 나라와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1월 5일), 1963년도 과학 기술 협조 의정서(2월 18일),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3년도 사업 계획서(7월 17일), 량국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7월 17일)를 조인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1월), 기술 대표단(6월), 학생 대표단(8월), 방송 대표단(9월) 등이 루마니야를 방문하였다.

한편 루마니야 강관 공장 기술자(2월), 루—조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대표(2월), 식료 공업 기술자(4월), 문화 대표단(7월), 직맹 대표단(9월), 가무단(11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 7월에 게오르기우 데스와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가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성원국 수뇌자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군사 대표단(3월), 대 민족 회의 대표단(5.12—6.2)이 쏘련을, 정부 무역 대표단(10월), 문화 대표단(6월)이 중국을, 끼부 쓰또이까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1월)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불가리야 당 및 정부 대표단(2월), 쥡꼬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불가리야 정부 대표단(3월),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대표단(4월), 엔. 웨. 뽀드고르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공산당 일'군들(6월), 중국 작가와 가무단 (9월)이 각각 루마니야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게오르기우 데스를 단장으로 하는 루마니야 정부 대표단(11월 22—30일), 근로 청년 동맹 대표단(1월)이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다. 3월에 루마니야 당 대표단이 오지리를 방문하였고 외무상 꼬르넬리우 메네쓰꾸가 브라질(10월), 미국(10월), 오지리(10월), 불란서(11월)를 방문하였다.

10월에는 무력상 레오떤 쌀레쟌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인도네시아 림시 인민 협상 회의 및 국회 대표단이 루마니야를 방문하였다. 미국 농무장관 프리맨(8월), 미국 최고 재판소 소장 워렌(8월 11—14일)이 각각 루마니야를 방문하였다.

1963년에 루마니야는 쿠웨이트(6월), 튜니샤(12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2월에는 영국, 벨기, 불란서, 아이슬랜드와 외교 대표부를 각각 대사관으로 승급시켰다.

경 제

루마니야에는 원유(매장량과 채취량에서 구라파 제2위), 천연 가스(세계에서 제4위, 그 순결도는 99.8%), 소금, 석탄, 금, 철이 풍부하며 망간, 연, 아연 등도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사탕무우 등이다. 산림은 국토의 약 26%이다.

1963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1962년에 비하여 28억 레이나 더 많은 345억 레이였다. 1960—1963년간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중에서 공업에 621억 레이, 농업에 180억 레이, 운수에 104억 레이가 투자되였다.

1963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 보다 거의 7% 증가하였으며 로동자 및 사무원 수는 19만 명 증가한 393만 명이였다.

【공업】 1963년도 공업 총생산 계획은 101.7%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5%,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4.3%, 소비재 생산은 9.3% 장성하였다.

1960—1963년 간에 공업 총생산은 74% 장성하였으며 년 평균 장성 속도는 15%였다(국가 계획은 13%). 이 기간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18.3%, 화학 및 제지 공업은 24.3%, 전력 공업은 17.6%, 흑색 야금 공업은 16.9% 장성하였다.

1963년에 140 마력의 화물 자동차와 65 마력의 뜨락또르 등 일련의 새로운 형의 기계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에 로동 생산 능률은 1962년 보다 8% 장성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38	1960	1962	1963
전력(10억kWH)	1.13	7.6	10.1	11.68
원유(100만t)	6.6	11.5	11.9	12.2
천연가스(1억m^3)	3	65	88	101
석탄(100만t)	2.8	8.2	9.6	10.3
선철(1,000t)	132.7	1 014	1 511	1 706
강철(〃)	284	1 806	2 451	2 704
압연품(〃)	319	1 255	1 665	1 921
세멘트(〃)	510	3 054	3 489	4 369
뜨락또르(1,000대)	—	17	21.5	55.8
면직물(100만m^2)	104	248	299	301
신발(100만 켤레)	—	30.2	32.4	34.4
사탕(1,000t)	95	391	342	287

주: 1963년의 뜨락또르는 15마력으로 환산한 대수

【농업】 1963년에 일기 조건이 불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전년에 비하여 70만 톤이나 더 많은 1,037만 톤 (그중 밀은 379만 톤, 옥수수는 약 600만 톤), 해바라기는 50만 톤, 감자는 268

만 3천 톤, 채소는 170만 톤을 각각 수확하였다. 국가 농산물 폰드는 전년에 비하여 알곡은 15%, 해바라기는 11%, 사탕무우는 11%, 채소는 24%, 과실은 2 배 각각 장성되였다.

축산업 발전에서도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1963년 말에 국영 농장 및 농업 협동 조합의 대가가축은 전년에 비하여 40만 두가 증가한 240만 두, 양은 70만 두가 증가한 630만 두, 돼지는 230만 두 있었다.

1963년 말에 농촌 경리에는 6만 5,000 대의 뜨락또르, 6만 2,000 대의 뜨락또르 파종기, 3만 2,100 대의 곡물 콤바인이 있었다. 뜨락또르 대당 평균 경지는 1963년에 152 헥타(1959년에는 270 헥타)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1만 8,000여 명의 농산 기사, 수의 및 기계 기사들이 일하고 있다.

【대외 무역】 1963년에 루마니야는 80여 개 나라들과 무역하였으며 29 개의 국제 시장 및 국제 전람회에 참가하였다. 1963년의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105억 레이)에 비하여 10.3% 장성하였다.

【재정】 1963년 국가 예산에서 수입은 820억 1,000만 레이, 지출은 784억 1,000만 레이였다. 1963년 예산 수입에서 사회주의 경제로부터의 수입은 1959년에 비하여 307억 300만 레이가 더 장성하였는바 이것은 1950—1959년 간의 수입보다 더 많다.

교육, 문화 1963년에 국가는 교육 부문에 전년보다 10.1%나 더 많은 55억 레이를 지출하였다. 1963년에 4,200 개의 교실이 건설되였다.

1963—1964 학년도에 각급 학교 학생 총 수는 344만 3천 명이였는바 그 중 일반 중등 학교 부문 학생 수(기술 학교 제외)는 37만 6,500 명, 직업 학교 학생 수는 18만 8,300 명, 기술 전문 학교 학생 수는 7만 2,000 명, 대학생 수는 11만 2,600 명이였다. 1963년에 직업 학교와 기술 전문 학교 졸업생은 6만 1,400 명, 대학 졸업생은 1만 1,700 명이였다.

【출판】 통신—아제르쁘레쓰 (루마니야 통신)

신문—쓰끈뗴아(루마니야 로동당 기관지), 로믜니야 리베라(인민 쏘베트 기관지), 쓰끈뗴아 떠네레뚤루이 (근로 청년 동맹 기관지), 문까(직맹 기관지)

잡지—룹따 데 클라쎄(루마니야 로동당 정치 및 리론 잡지)

불가리야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Bulgaria People's Republic

【면적】 11만 1,030 km²

【인구】 811만 1,182 명(1964년 1월 1일)

【수도】 쏘피야 (주민 79만 8,124명, 1964년 1월 1일)

정치 불가리야는 1944년 9월 9일 독일 파쑈 기반에서 해방된 후 1946년 9월 15일에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인민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 회의는 1962년 2월 25일 선거되였으며 대의원 수는 197 명이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게오르기 뜨라이꼬브(1964. 4. 23, 선거)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11월 27일 구성되였다.

수상	또도르 쥡꼬브
제 1 부수상	쥡꼬 쥡꼬브
제 1 부수상 겸 농촌 경리 쏘베트 위원장	게오르기 뜨라이꼬브
부수상	이완 미하일로브
	쓰딴꼬 또도로브
	따노 쫄로브
	펜쵸 꾸바진쓰끼
내무상	지꼬 지꼬브
인민 보위상	도브리 쥬로브
외무상	이완 바쉐브
대외 무역상	이완 부지노브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아뽀쓰똘 빠쉐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891년에 사회 민주당으로 창건되였다. 1903년 이후 사회 민주 로동당으로 불리워 오다가 1919년 5월 25일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57만 8,761 명(1964년 1월)

정치국 위원 보얀 뷜가라노브, 보리쓰 웰체브, 지미뜨르 가네브, 미뜨꼬 그리고로브, 또도르 쥡꼬브, 쥡꼬 쥡꼬브, 이완 미하일로브, 옌쵸 쓰따이꼬브, 쓰딴꼬 또도로브

후보 위원 지미뜨르 지모브, 따노 쫄로브, 펜쵸 꾸바진쓰끼

비서국 성원 또도르 쥡꼬브(제 1 비서), 보얀 뷜가라노브, 미뜨꼬 그리고로브, 볼리쓰 웰체브, 나쵸 빠빠조브, 루체자르 아브라모브, 이완 쁘리모브

조국 전선 전국 리사회 집행 위원회 위원장 옌쵸 쓰따이꼬브

인민 농민 동맹 총비서 게오르기 뜨라이꼬브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쓰또얀 규로브 **지미뜨로브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이완 아바지예브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라자 또도로바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위원회** 위원장 예까쩨리나 아브라모바

【주요 국내 사건】 5월 8—9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인민 경제에 대한 당 및 국가적 지도의 조직 형태 및 방법들의 가일층의 개선에 관한 또도르 쥡꼬브의 보고를 토의하고 공업과 농업의 통일적인 부문 관리 기관을 조직할 목적으로 당 및 국가 기관들의 개편을 예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7월 31일—8월 1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7월에 모쓰크바에서 있은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성원국 당 및 정부 지도자 회의, 그리고 와르샤와 조약 성원국 정치 협상 위원회 회의에 대한 통보, 농촌 경리의 일부 문제 등을 토의하고 당 중앙 위원회 성

명을 발표하였다. 12월 19일에는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도, 시, 구역 당, 행정 기관, 중앙당 책임 일'군들, 내무성 및 사법 일'군들의 련석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경각성을 제고하고 범죄, 반인민적 반사회적 행위들과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2월 24—25일에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당 선전 사업 문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9월 19일 내각 회의에서는 전국 각 도, 시들에서 채소 및 과실 공급이 두절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9월 25일에 내각 회의에서는 조합원들의 개인 부업으로 가금 사육을 증대시키며 양조업에 대한 부정 행위를 근절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4월 1—4일 문예 부문 일'군들과 사상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부르조아 사상의 표현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963년에 조국 전선 제5차 대회(3. 14—16), 지미뜨로브 공산 청년 동맹 제10차 대회(4. 25—28), 6월에는 민주 녀성 동맹 제3차 대회(6월), 중앙 협동 조합 동맹 제5차 대회(6. 20)가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평양에서 4월에 1963년도 통상 의정서, 6월 29일에는 문화 교류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2월 19—22일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귀국 도중 루마니야에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와 회담하였다.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8. 14—16), 외무상 이완 바쉐브(8. 9), 불가리야 인민 회의 대표단(10. 28—11. 14)이 쏘련을 방문하였고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5. 11—26)이 불가리야를 방문하였다. 불가리야 정부 대표단이 루마니야(3. 29—30), 체코슬로바키야(9. 30)를 방문하였고 5월 15—25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야 군사 대표단이 불가리야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또도르 쥡꼬브(1. 25—26), 조국 전선 대표단(4월)이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다. 불가리야 정부 경제 대표단이 일본과 인도(8. 30—9. 13)를 방문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유고슬라비야 근로 인민 사회주의 동맹 대표단(6월), 유엔 사무 총장 우 탄트(7월), 미국 농무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 전문가 대표단(8월)이 불가리야를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불가리야와 미국 간에 재정 문제 해결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불가리야는 1963년에 쿠웨이트(6. 15), 아이슬랜드(12. 26)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오지리(6. 20), 서서(7. 1), 영국(12. 2), 불란서(12. 17)와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매장량 43억 4,000만 톤), 철(매장량 3억 톤, 철 함유량 30—35%), 연 및 아연(합쳐서 매장량 1억 1,200만 톤), 동, 망간, 은, 금, 석유, 자연 가스 등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실, 채소 등이다.

불가리야는 해방 후 인민 정권 기간에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1962년에 국민 소득에서 국가 공업 기업소는 59%, 협동 단체 기업소는 30%를 차지하였다.

제4차 5개년 계획 수행의 세번째 해인 1963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투자액은 9억 4,200만 레브(전년 보다 9,300만 레브 증가)였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생산 계획은 101.6%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10%, 1956년에 비하여는 2.6배로 증가하였다. 1963년에 지방 공업도 자기의 계획을 104.5%로 초과 수행하였다.

1963년에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4.6% 장성되었으며 공업 생산 장성에서 48%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1963년에 공업, 건설, 운수 및 상업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가 전년에 비하여 7만 1,804명 즉 6.1% 증가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2	1963
전력(100만kWH)	5 406	6 043	7 182
각종 탄(100만 t)	18.6	20.8	22.0
선철(1,000 t)	206	223	300
강철(〃)	340	422	461
압연강재(〃)	271	330	353
연 (〃)	41.0	44.0	51.0
질소 비료 (〃)	88	94	101
세멘트 (〃)	1 749	1 893	2 205
면직물(100만m)	226	243	250
채소 통조림 (1,000 t)	164	173	178
과실 통조림 (〃)	159	176	194

【농업】 1963년에 농산물 총생산량은 불리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릉가하였으며 1956년에 비하여 42.5% 증가하였다. 1963년에 밀은 187만 7,000 톤 (전년 보다 2% 감소), 옥수수는 171만 9,710 톤(전년 보다 10% 증가), 포도는 110만 톤(전년 보다 4.5% 증가) 생산되였으며 해바라기씨, 목화, 사탕무우, 담배, 도마도 및 기타 등의 생산은 전년 보다 감소되였다. 1963년에 관개 면적은 전년 보다 14.1% 증가한 14만 1,100 정보였으며 기계화 작업은 전년 보다 9.8% 제고되였다. 1963년 2월 1일 현재 농업 기업소들은 4만 8,375 대의 뜨락또르(15마력 환산), 1만 577 대의 콤바인, 4,868 대의 탈곡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100 헥터당 약 1 대의 뜨락또르가 차례졌다.

1963년에 대각 가축은 감소되고 돼지, 양, 염소는 증가되였다. 1963년 1월 1일 현재 유각 가

축은 158만 2,000 두, 돼지는 206만 6,000 두, 가금은 2,096만 9,000 마리 있었다. 1962년 12월 31일 현재 1,023 개의 로력 농업 협동 조합이 있었으며 한 개 조합의 평균 경지 면적은 3,833 헥타였다.

【대외 무역】 1963년에 수출은 100.4%, 수입은 111.8%로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1963년에 수출은 9억 8,090만 레브, 수입은 10억 7,080만 레브였다.

1963년에 불가리야는 91 개 나라와 무역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이 나라 무역 총액의 82.9%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기계 및 설비는 수입액의 46.8%를 차지하였다.

【재정】 1963년 국가 예산에서 수입은 36억 2,656만 5,280 레브, 지출은 36억 889만 5,783 레브였다. 1962년 1월 1일부터 레브의 금 함유량이 순금 0.759548 그람으로 제고되였다(환률은 1 루블=1 레브 30 쓰또찐까).

교육, 문화 1963년에 대학은 해방 전의 5 개로부터 46 개로 증가되였다. 1963년에 전문 학교는 295 개, 직장 학교는 277 개 있었다. 1963—1964년도 학생 수는 전 학년도보다 5만 3,000 명이 많은 161만 3,000 명이였다. 그중 대학생은 7만 7,600 명으로서 인구 1 만명에 96 명이 차례졌다. 1963년에 3만 1,000 명의 전문 일'군들이 인민 경제 각 분야에 배치되였는바 그중 기사는 1,800 명, 준기사는 1만 명, 농업 기사는 6,700 명, 의사는 3,100 명, 교원은 약 3,600 명이였다.

1962년 현재 극장은 48 개, 영화관은 1,766 개, 곡예 극장은 1 개, 박물관은 125 개 도서관은 8,540 개 있었다.

【출판】 **통신**—불가리야 통신

신문—라보뜨니체쓰꼬 젤로(공산당 기관지), 오떼체쓰트벤 프론트(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조국 전선 기관지), 뜨루드(직맹 기관지), 나로드나 물라데쥬(지미또로브 공청 기관지)

잡지—노보 브레메(공산당 리론 잡지), 빠르찌엔 쥐보트(공산당 잡지)

알 바 니 야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Albania People's Republic

【면적】 2만 8,748 km²

【인구】 177만 5,000 명(1963년 10월 현재)

【수도】 티라나(주민 약 14만 명)

정 치 알바니야 공산당(현재 로동당)의 령도하에 이태리 및 독일 파시스트 강점자들과 국내 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전개한 5년 간에 걸친 알바니야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쏘베트 군대의 력사적 승리에 의하여 알바니야는 1944년 11월 29일에 해방되였다. 알바니야는 1946년 1월 11일에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고 동년 3월 14일에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 회의】 현 인민 회의는 제5기로서 1962년 6월 3일에 선거되였다. 대의원 수는 214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7월 16일 성립되였다.

수상 메흐메트 쉐후
제 1 부수상 스피로 콜레카
베키르 발루쿠
마누슈 무프티우
부수상 코초 테오도시 아브둘 켈레지
인민 보위상 베키르 발루쿠(겸임)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코초 테오도시(겸임)
내무상 카드리 하즈비우
외무상 베하르 슈툴라
상업상 키쵸 느겔라
국가 검열 위원회 위원장 쉐프 케트 페치

【정당, 사회 단체】 **알바니야 로동당** 전신은 1941년 11월 8일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8년 11월 18—22일간에 진행된 공산당 제1차 대회에서 알바니야 로동당으로 개칭하였다. 당원 수 5만 3,659 명(그 중 후보 당원 2,857 명, 1961년 2월 현재)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엔베르 호쟈, 메흐메트 쉐후, 휴스니 카포, 베키르 발루쿠, 고고 누쉬, 스피로 콜레카, 리타 마르코, 마누슈 무프티우, 라미즈 알리아, 하키 토스카, 아딜 챠르챠니

후보 위원 필로 페리스테리, 코쵸 테오도시, 카드리 하즈비우, 페트리트 두메

비서국 성원 엔베르 호쟈(제 1 비서), 휴스니 카포, 리타 마르코, 라미즈 알리아, 하키 토스카

민주주의 전선 로동당의 지도하에 있는 대중적 사회 정치 단체로서 1942년 9월 16일 알바니야 페자에서 창건되였다. 성원은 약 70만 명, 전국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엔베르 호쟈 **직업 동맹** 1945년 2월 11일 창건, 맹원 15만 5,000여 명, 중앙 평의회 위원장 고고 누쉬 **로동 청년 동맹** 1949년 9월 공산 청년 동맹(1941년 11월 23일 창건)과 인민 청년 동맹이 합동하여 로동 청년 동맹을 형성하였다. 맹원 수 13만 5,000여 명, 제1 비서 아김 메로 **녀성 동맹** 1943년 9월에 창립, 맹원 수 24만여 명, 위원장 비토 카포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카초레만 윌리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6월 10—11일 량일간에 걸쳐 알바니야 인민 회의 제5기 제3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교육 제도의 개편 문제》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교육 체계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2월 16—17일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5기 제4차 회의에서는 1964년도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196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인민에게 무상 치료제를 실시할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월 25—26일 진행된 알바니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1962년도 계획 및 예산 실행과

1963년도 계획 및 예산 실행을 위한 제 조치에 대하여》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6월 6—8일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농촌 경리, 사회 및 문화 사업 정형과 그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관한 조치》에 대한 엔베르 호쟈 동지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13—14일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당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 15일 알바니야 정부는 모쓰크바에서 체결된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간에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1.13), 1963년 영화 교류 계약서(3.26), 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4.26), 1964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1.13)가 조인되였으며 9월에는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5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2.8 배구단(6월), 평양 권투단(10.20—11.15)이 알바니야를 방문하고 친선적인 경기를 진행하였다. 한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알바니야 직맹 대표단(9.8—19)과 알바니야 빨찌산 롱구단(9.17—10.1)이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 12월 31일—1964년 1월 9일 주은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964년 1월 8일에는 량국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메호메트 쉐후 수상은 8월 19일 핵 무기의 전면적인 금지와 파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 수뇌자들의 회의 소집을 제의한 주 은래 총리의 서한을 지지하여 회답 서한을 보냈다.

1963년에 중국 직맹 대표단(4월), 중국 청년 대표단(4월), 중국 교육 대표단(9월) 등이 알바니야를 방문하였으며 알바니야 교육 대표단 (4월),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4월) 직맹 대표단 (4—5월), 기자 대표단(9월)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월남 정부 통상 대표단(4월)과 월남 작가(11—12월)가 알바니야를 방문하였다. 1963년에 꾸바 대사관이 티라나에 개설되였으며 1월에 알바니야—꾸바 통상 및 항해 조약이 체결되였다. 알바니야 문화 대표단(1월), 직맹 대표단 (4—5월), 미주 녀성 대회에 참가할 녀성 대표단 (1월)이 꾸바를 방문하였으며 4—5월에는 꾸바 직맹 대표단이 알바니야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1월에 알바니야는 알제리아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알바니야 정부 대표단(10월), 알바니야 가무단(5월)이 알제리아를 친선 방문하였다. 한편 알제리아 군사 대표단이 알바니야를 친선 방문(7월)하였다.

1963년 현재 알바니야는 32 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경 제

석유, 크롬광, 동, 피취, 석탄, 천연 가스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중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벼, 면화, 올리브, 포도, 귤 등이며 목축업도 발전하였다.

알바니야 인민은 제3차 5 개년 계획 (1961—1965)의 세번째 해인 1963년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8% 증가하였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생산 계획은 101.3%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총생산액은 1962년에 비하여 6.7% 증가하였다. 전력 공업 생산액 계획은 101.5%, 석탄 공업은 101.7%, 크롬광 공업은 100.6%, 동광 공업은 103% 전재 공업은 100.6%, 제재 공업은 101.3%로 각각 수행되였다. 주요 제품 생산 계획에서 원유는 100.8%, 석탄은 100.9%, 강재은 100.5%, 각종 기계 설비는 106.9%, 피취는 104.6%, 합판은 100.5%, 면직물은 100.7% 사탕은 103.5%, 채과 통조림은 107.9%로 각각 수행되였다.

1963년에 수력 발전소, 고압 송전선, 기계 공장, 세멘트 공장 대리석 공장, 3 개의 제유 공장 3 개의 신발 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1963년에 약 6,000 건의 창의 고안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000 톤)

	1938	1960	19
원유	108	727.5	784
원유 가공	—	369.2	406
석 탄	3.7	290.6	300
전 력(100만 kWH)	9.3	194.3	242
동 광	—	81.5	135
철 광	—	255.0	425
크롬광	7	289.1	251
면직물(1,000m)	358	25 239	27 1
모직물(〃)	—	1 198	1 2

【농업】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하여 큰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농업 총생산액은 1962년에 비하여 8%(1960년에 비하여 37%, 1938년에 비해서 235%) 장성하였다. 1963년에 농작물 생산 계획은 101.2%로 수행되였는바 그 중 벼는 172%, 면화 132%, 담배는 153%, 사탕무는 120%, 채소류는 121%, 당근은 168%로 수행되였다.

국영 농장들에서의 벼 생산 1962년에 비하여 26%, 면화 94%, 감자는 133% 더 생산되였다.

1963년에 벼 수매량은 196(2년) 보다 113%, 채소는 24%, 면(화)는 31%, 담배는 32%, 올리브 77%, 우유는 7.3%, 양모는

% 증가되였다.

1963년에 900대 (15마력 환산)의 뜨락또르가 농촌에 공급되여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량은 1962년에 비하여 18% 장성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0톤)

	1938	1960	1961
밀	38.6	62.3	94.6
쌀보리	3.0	5.6	7.2
옥수수	143.7	125.6	154.1
후작 옥수수	—	3.6	9.5
벼	0.6	4.6	4.6
보리	4.8	3.4	4.0
면화	0.1	16.1	18.4
담배	1.9	7.1	3.6
사탕 무우	—	72.7	83.0
채소	31.3	68.8	94.2

【대외 무역】 1963년도 대외무역액은 1962년에 비하여 112% (수입 117%, 수출 109.5%)로 장성하였다. 1963년에 알바니야는 30여 개 나라들과 무역을 하였다.

교육, 문화

알바니야에서는 인구 4 명에 1 명이 학생이다. 1963—1964 학년도에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학교 교육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7년제 학교로부터 8년제로 이행하였다. 1963년에 대학생 수는 전년보다 1.5 %나 더 많은 1만 1,900 명이 였으며 고등 교육을 받은 1,300 명의 전문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배치되였다. 1963년에 21 개의 7년제 및 11년제 학교와 4 개의 병원이 건설되였다.

【출판】 통신—아따 (알바니야 통신)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 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 전선 및 내각의 기관지), 푸나(직업 동맹 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 청년 동맹 기관지), 드리따(작가 예술가 동맹 기관지), 루프테타리(인민군 기관지)

잡지—루가 에 파르티스(로동당 리론 잡지), 슈키프타리야 에 레(녀성 동맹 기관지), 넨도리) 작가 예술가 동맹 기관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German Democratic RePublic

제2차 대전에서 쏘베트 군대 앞에 히틀러 파쑈 도배가 무조건 항복한 후 독일은 쏘, 미, 영, 불 4 개 국에 점령되였으며 독일의 최고 주권은 4 개 국 대표로 구성된 대독 관리 리사회에 속하게 되였다.

1945년의 포츠담 협정은 독일에서 파쑈 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 통일을 보장하며 강화 조약을 체결할 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 영, 불 제국주의자들은 포츠담 협정을 파괴하고 독일을 분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1949년 9월에 서독 단독 국가를 조작하고 재군국화의 길로 나아갔다.

독일 인민은 서부 렬강의 독일 분렬 책동을 반대하여 구국 대책을 세웠다.

1949년 5월 30일 동부 독일에서 진행된 제3차 인민 대표 회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10월 7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면적】 10만 7,834 km²

【인구】 1,712만 5,000 명(1962년)

【수도】 베를린 (면적 884 km²—그 중 민주 지구—403 km², 민주 지구 주민—105만 5,000 명, 1961년)

정 치

【인민 회의】 434 명의 대의원들과 66 명의 협의권을 가진 베를린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재의 제4기 인민 의원은 1963년 10월 20일에 선거되였다.

의장 요한네스 디코만

【국가 쏘베트】 1963년 11월에 인민 의원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임기 4년으로 선거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11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오토 그로테볼

제 1 부수상 빌리 슈토프

부수상 브루노 로이슈네르
막스 쥬르비에르
파울 숄쯔
알렉산데르 아부슈
에리히 아펠
그레테 위트콥스키

부수상 겸 외무상 로타르 볼쯔

부수상 겸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에리히 아펠

부수상 겸 보건상 막스 제프린

민족 보위상 칼 하인쯔 호프만

내무상 프리드리히 디켈

국가 안전상 에리히 밀케

대내외 무역상 율리우스 발코브

【민족 보위 리사회】 1961년 9월 26일 인민 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정당, 사회 단체】 **독일 사회 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160만 명 (제6차 당대회 당시)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발테르 울브리히트, 오토 그로테볼, 헤르만 마테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빌리 슈토프, 브루노 로이슈네르, 에리히 호네케르, 에리히 뮤켄베르게르, 알프레트 노르덴, 헤르베르트 바른케, 알프레드 노이만, 파울 프렐리히, 쿠르트 하게르, 파울 웨르네르

정치국 후보 위원 에리히 아펠, 헤르만 아크센, 게오르그 에발트, 게르하르트 그류네베르그, 마르가레쩨 뮬레르, 베르네르 야로빈스키, 균테르 미타크, 호르스트 진데르만

비서국 성원들 발테르 울브리히트(제1 비서), 에리히 호네게르, 알프레드 노르덴, 쿠르트 하게르, 게르하르트 그류네베르그, 균테르 미타그, 파울 베르네르, 베르네르 야로빈스키

민주 농민당 위원장 에른스트 골덴바움 **기독교 민주 동맹** 위원장 아우구스트 바하 **자유 민주당** 위원장 막스 주르비에르 **민족 민주당** 위원장 로타르 볼쯔 **자유 독일**

직업 총동맹 위원장 헤르베르트 바른케 자유 독일 청년 동맹 제 1 비서 호르스트 슈만 민주 녀성 동맹 위원장 일제 텔레 민주주의 독일 민족 전선 전국 리사회 위원장 에리히 코르렌스 평화 리사회 위원장 발레르 프리드리히 독일 통일 문제 위원회 위원장 막스 주르비에르

【주요 국내 사건】 1963년 1월 15—21일 독일 사회 통일당 제 6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의 보고와 중앙 검사 위원회의 보고, 《사회주의 강령과 독일 사회 통일당의 력사적 과업》에 관한 보고, 독일 사회 통일당 규약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1964—1970년)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생산 원칙에 따라 당 및 경제 지도 체계를 개편할 것과 독일 문제와 관련한 7 개 방안을 제기하였으며 새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1963년 10월 20일 인민 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전체 유권자의 99.25%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투표 참가의 99.95%가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11월 13—14일 인민 의원 제4기 제1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 의원 상무 위원회와 국가 쏘베트를 각각 선거하고 내각 구성을 승인하였다.

1963년에 제17차 로동자 대회(3월), 민주 농민당 제7차 대회(5월), 민족 민주당 제8차 대회(5월), 독일 청년 동맹 제7차 대회 (5월 28일—6월 1일), 직맹 제8차 대회 등이 진행되였다.

1963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과 복수주의자들은 경계선에서 살인, 무장 습격, 폭탄 투하 등 도발 행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도발 행동에 대처하여 민주 독일 정부는 6월 21일에 서부 베를린 경계선 근방에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12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대표와 서부 베를린 당국 대표 간의 회담에서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계기로 1963년 12월 19일—1964년 1월 5일 기간에 서부 베를린 주민들이 민주 베를린을 방문할 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약 120만 명의 서부 베를린 주민들이 민주 베를린을 방문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1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리 효순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독일 사회 통일당 제6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으며 9월에 공화국 창건 15 주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독일 직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최 원택 의장은 서독 나치즘 피해자 련맹을 탄압하려는 본 정부의 책동과 관련한 서한과 서독 련방 정부가 서독 민주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새 형법을 채택하려는 것과 관련한 3월 23일부 서한에 대하여 1월과 6월 18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인민 의원 디크만 의장에게 회답 서한을 보내여 독일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와 1963년도 통상 의정서(1월), 1963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 7월에는 울브리히트 탄생 70 주년을 계기로 흐루쑈브, 고물까, 노보뜨느이, 쥡꼬브, 까다르가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한편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5, 7, 11월), 로타르 볼쯔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8월), 인민 의원 대표단(8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4월에는 울브리히트가 체코슬로바키야를, 9월에는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파란을, 9월에는 정부 대표단이 체코슬로바키야를 각각 방문하였다.

민족 보위상을 단장으로 하는 파란 군사 대표단(3.28—4.5), 웽그리야 당 견학단과 볼가리야 당 대표단(6월),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7월)이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10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야와 입국 사증을 폐지할 데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1월 12일 민주 독일은 꾸바와 령사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급시켰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3월 31일—5월 3일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가나, 말리, 기니아, 알제리아를 방문하고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과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민주 독일 청년 대표단(2월), 정부 대표단 (3월), 직맹 대표단 (2월), 농업 대표단(5월)이 각각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으며 한편 유고슬라비야 당 대표단(1월), 정부 대표단(1월, 5월)이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아이디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8월), 덴마크 공산당 대표단(4월), 불란서 공산당 대표단(6월), 불란 정부 대표단 및 인도네시아 국회 대표단(9월), 불란서 및 벨기 국회 대표단(10월)이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2월 11일 민주 독일 정부는 이라크 신 정부를, 3월에는 씨리아 신 정부를 승인하였다.

경 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발전된 공업 국가이다.

주요 지하 자원은 갈탄(매장량 약 400억 톤), 카리염, 우라늄, 동 등이고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사탕무우 등이다.

1963년 1월에 진행된 독일 사회 통일당 제6차 대회는 현행 7 개년 계획(1659—1965)을 중단하고 새로운 7 개년 계획(1964—1970)을 승인하였다.

1962년 사회 총생산에서 공업은 66.7%, 농림은 9%, 무역은 7.4%를 차지하였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생산 계

획은 100.5%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4.9% 장성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50	1962	1963
전력(억kwн)	195	452	475
갈탄(100만t)	137	247	254
선철(1,000t)	337	2 076	2 100
강철(〃)	999	3 623	3 600

민주 독일은 갈탄 생산에서 세계 제1위, 인구 1인당 화학 제품 생산에서는 미국 다음 제2위다. 로동 생산 능률은 6.5% 높아졌다.

【농업】 1963년에 축산물, 알곡 및 감자 생산 계획이 수행되였으며 농산물 수매 계획도 수행되였다. 1963년 11월 30일 현재 대각 가축은 461만 4,000 두, 그 중 젖소는 210만 2,000 두, 돼지는 928만 8,500 두 있었다.

1963년에 1만 4,080 대의 뜨락또르, 1,801 대의 곡물 꼼바인, 510 대의 감자 꼼바인, 90 대의 사탕 무우 꼼바인이 공급되였다.

종합적 기계화 작업의 비중은 감자 파종에서 53.9%, 각종 수확에서 62.9%, 감자 수확에서 85%였다.

【대외 무역】 1963년에 대외 무역 총액은 처음으로 200억 마르크 수준을 초과하였다. 수출액은 전년에 비하여 113.3%로 장성한 112억 마르크였다. 그 중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114.2%, 자본주의 나라와의 무역에서는 110.3%로 장성하였다.

교육, 문화 1963—1964 학년도에 대학 및 전문 학교 학생 수는 25만 6,500 명(그 중 대학생 수는 6만 5,500 명)이였다. 1963년에 대학 졸업생 수는 1만 7,400 명,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4만 8,800 명이였다.

1962—1963년에 극장 공연은 2만 7,000 회, 극장 관람자 수는 1,300만 명이였다.

【출판】 **통신**—아데엔

신문—노이에스 도이칠란트(독일 사회 통일당 기관지), 쏘찌알리쓰찌세 데모크라티(국가 쏘베트 및 내각 기관지), 노이에 짜이퉁 (기독교 민주당 기관지), 데르 모르겐(자유 민주당 기관지), 나찌오날 짜이퉁(민족 민주당 기관지), 데르 프라이에 바우에르(민주 농민당 기관지), 트리뷰네(자유 독일 직총 기관지), 융게 벨트(자유 독일 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아인하이트(사회 통일당 월간 정치 잡지), 노이에르 베그(사회 통일당 당 생활 잡지).

서부 독일

(독일 련방 공화국)

German Federal Republic

【면적】 24만 8,000 km²

【인구】 5,476만 6,000 명(1962년)

【행정 중심지】 본 (주민 17만 8,000명)

정 치 **【대통령】** 하인리히 류브케(임기 5년, 1959년 9월 15일 취임)

【국회】 상하 량원제이다. 하원인 련방 의회(1961년 9월 10일 선거)는 의원 499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인 련방 참의원은 각 주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단순한 협의 기관으로서 의원 수는 45 명 (결의권 없는 서부 베를린 대표 4 명 포함)이다.

【내각】 14년 간 집권한 아데나우어가 물러난 후 1963년 10월 17일 성립되였다.

수상	류드비히 에르하르트
부수상 겸 전 독일 문제상	에리히 멘데
외상	게르하르트 슈뢰데르
국방상	카이우베 폰 하쎌
경제상	쿠르트 슈뮤케르

【정당, 사회 단체】 **독일 공산당** 1918년에 창건, 1956년 8월 17일 비법화되였다. 1963년 6월에 당 대회가 진행되였다.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막스 라이만 **기독교 민주 동맹** 1945년 7월 23일에 창건된 집권당으로서 대 독점체들과 대 토지 소유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가장 반동적인 정당이다. 위원장 콘라드 아데나우어 **기독교 사회 동맹** 기독교 민주 동맹의 자매 당이다. **사회 민주당, 자유 민주당, 전 독일당, 독일 평화 동맹**

【주요 국내 사건】 1963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핵 무장과 나라의 가일층의 파쑈화 정책을 발광적으로 추진시키면서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서부 독일 련방 국방 리사회는 7월 중순에 소위 《민간 방위군》을 창건할 데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민간 방위군》은 련방군에 징모되지 않은 적령자들 20만 명으로 구성되게 되며 3 개월 간의 군사 훈련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말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정부는 5월에 나치즘 피해자 련맹 대회 소집을 금지하였으며 10월에는 함부르그 시의 진보적 주간지 《블린크 포에르》가 원자 무장, 《비상법》, 반동적인 사회적 립법 및 국가 기관들에서의 나치스 분자들의 활보 등을 반대하는 글을 실었다는 리유로 이 주간지 주필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재군국화 및 인민 탄압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 운동이 더욱 앙양되였다. 레클링하우젠시의 광부들과 듀쎌도르프의 로동자들은 2월 중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상법》 채택 계획을 반대하는 서명 수집 운동을 전개하였다. 5월 말 화학 및 제지 공업 부문의 근로 청년들은 슈트트가르트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나라의 군국화를 반대 항의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10월에는 련방군의 병영들에서 군국화를 반대하는 삐라들이 살포되였다.

독점 자본의 공세를 반대하며 생활 처지의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도 일층 앙양되였다. 4월 29일 해고를 반대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단행한 바뎀 뷰르템

베르그의 10만 명의 야금 로동자들의 파업은 서독 력사상 가장 큰 파업으로 확대되여 40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도르트문트에서 3만 5천 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본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 항의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3년 첫 5 개월 동안에만도 서독에서 파업 투쟁으로 217만 로동일이 상실되였는데 이는 전후 최고 기록의 해였던 1957년의 로동일 상실수와 거의 같다.

【대외 관계】 1963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정치, 군사 및 각 부문에 걸쳐 미제의 침략적 대외 정책에 추종하는 한편 불란서와의 결탁을 강화하였다.

아데나우어와 외상 슈뢰데르는 케네디의 지령에 따라 2월 13—14일 서독을 방문한 미 국방 차관 질패트릭과 나토 핵 무력 창설 문제에 대한 밀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서독 지배층은 핵무기를 쥐여 보려는 타산에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에 《전면적으로 참가할 용의》를 표시하였다.

2월 24일 서독 국방상 폰 하쎌은 미국을 방문하고 케네디, 러스크 및 맥나마라와 회담하였다. 회담에서 서독 국방상은 미, 영 간의 의견 상이의 대상인 《다각적 핵 무력》창설 문제에서 미국에 지지를 표시하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보급 물자》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이 외에도 회담에서는 미국에서의 서독 비행사들의 훈련, 미국—서독 공동 연구 및 개발 활동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6월 23—24일에 이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본을 방문하고 아데나우어와 《구라파 통합》, 구라파 공동체와 구라파의 기타 국가들 간의 관계, 베를린 문제와 《독일 재통일》 문제 및 미국이 내놓은 《다각적 핵 무력》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회담에서 량국의 두목들은 《독일 재통일》 문제에서의 서독의 복수주의적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12월 28—29일 에르하르트는 미제의 두목 죤슨과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그들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주로 《독일 및 베를린의 장래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라파 정세》, 《대서양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 《나토에 관한 문제》, 《공동 시장》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담에 관한 콤뮤니케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의 선임자들인 케네디와 아데나우어의 전쟁 로선을 답습하고 그것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서독 수상은 미국과의 《친선》이 불란서와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동맹자인 불란서를 고립시키며 관세 장벽을 허물고 《공동 시장》에 침투해 들어 오려는 미국의 립장을 랭대하였다.

1월 21일과 22일 량일 간에 걸쳐 당시의 서독 수상 아데나우어는 파리에서 불란서 대통령 드 골과 회담하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량국 간에 협조를 강화할 것을 목적한 서독—불란서 《협조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협조 조약》을 통하여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불란서로부터 핵 무기를 획득하는 한편 구라파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여 보려는 목적을 노렸다. 7월 4—5일과 11월 21—22일에도 량국 수반들은 본에서 농산물 가격 문제, 량국 간의 협조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1월 7—8일에 외상 슈뢰데르는 런던을 찾아가 영국 정부 각료들과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와 나토의 핵 무력 창설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담에서 슈뢰데르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지지하고 나토의 핵 무력 창설에 서독이 참가할 용의를 표시하면서 영국의 지지를 요구하였다.

대통령 류브케는 외상과 함께 10월 말부터 11월 말에 걸쳐 일본, 비률빈, 이란, 인도네시아, 홍콩을 방문하였다. 일본을 방문한 류브케는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 간의 정치, 경제적 결탁 문제를 모의하였다.

1월 14일 서독 정부는 미국의 반꾸바 책동에 발 맞추어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자르, 루르 지방의 석탄이고 그 외에 아연, 연, 동, 석유도 있다. 주요 농산물은 보리, 밀, 감자, 사탕무우, 포도 등이다.

서독 경제에서 생산과 자본은 고도로 집중되여 있으며 독점체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63년 초에 서독에서 등록된 주식 회사 2,401 개 중 1억 마르크 이상의 자본을 가진 76 개의 회사 (약 3%)가 총 주식 자본의 55.3%인 206억 7천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38년에 자본 1억 마르크 이상을 가진 회사는 25개, 그 자본은 48억 마르크였다. 1963년 초에 각기 10억 마르크의 거래액을 가진 40 개의 독점체들이 독일 은행, 드레즈덴 은행, 상업 은행과 함께 서독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독점체들은 430 개의 주식 회사, 1,288 개의 유한(有限)회사 및 254 개의 기타 회사들과 서독 전체 로동자의 32%, 공업 기업의 거래 총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서독 독점체들의 대외 팽창도 강화되고 있다. 1963년에 서독 자자본의 해외 직접 투자는 13억 4,400만 마르크(1962년은 12억 7,950만 마르크)였다. 서독 경제성의 자료에 의하면 서독 회사들의 대외 투자 총액은 60억 7,100만 마르크나 되는데 그중 90%는 서구라파와 미주에 투자되였다. 특히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13억 7 천만 마르크로서 후진 국가들에 대한 투자 총액 18억 마르크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1961년에 시작된 경기 후퇴의 추세는 1963년에도 계속되여 경제 발전 속도는 최근 5 년간에 가

장 낮았다.

국민 총생산액의 장성은 1962년에 비하여 2.2% 떨어졌다. 공업에 대한 투자도 1962년의 135억 마르크에서 129억 마르크로 축소되였다. 자본 투자의 축소는 주요하게는 흑색 금속, 일반 기계, 광업, 피혁, 방직 및 일부 다른 공업 부문들에서 나타났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생산 장성률은 그 전해에 비하여 1.3% 떨어졌다. 기계 제작 및 야금 공업 생산의 장성률은 1962년의 3%로부터 1.4%로 저하되였다.

석탄 채굴은 의연히 난관을 겪었으며 1963년 석탄 채굴량은 377만 톤에 이르렀다.

흑색 금속 공업 생산은 4.6%, 일반 기계 제작 공업 생산은 4%, 선박 건조 공업 생산은 10% 축소되였으며 전기 공업 제품 생산의 장성률은 1961년의 14%로부터 1963년에는 1.7%로 떨어졌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2	1963
전력(10억kWH)	122	133.2	141.3
석탄(100만t)	142.7	141.1	142.1
선철(〃)	25.4	24 2	22.9
강철(〃)	33.5	32.6	31.6
압연제품(〃)	21.9	21.6	…
세멘트(〃)	27.1	28.6	29.2
면직물(100만m)	1 328	1 355	1 328

주: 1963년은 예비 자료

【농업】 경지 면적은 서독 령토의 약 35%이며 농업 인구는 로동 인구의 14.5%인 378만 명 (1963년 6월)이다. 총 농가 호수의 0.7%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의 근 30%를 가지고 있다.

1962년에 중소 농민들의 파산으로 농민 수는 8만 2,000 명이나 감소되였다. 1961—1962년에 농민들의 부채액은 15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대외 무역】 1963년에 전년에 비하여 수입은 6%, 수출은 10% 장성되여 60억 3,700만 마르크의 수출 초과를 가져왔으나 1961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수출 초과액이 전년에 비하여 장성하게 된 것은 주로 《공동 시장》 성원국들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전년의 2.2 배 이상에 달한 데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적자는 계속 증가되여 약 37억 5천 마르크에 달하였다 (1962년 약 31억 8천 마르크).

군사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련방군의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1963년에 미제의 지지 하에 핵 무장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저들의 복수주의적 야망의 실현에 필요한 핵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하여 미제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이나 영국의 《다국가적 핵 무력》 창설안을 다 지지해 나섰다. 또한 서독 복수주의자들은 불란서의 독자적 핵 타격력 창설 계획도 배제하지 않고 불란서와도 협조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서독 련방군은 불란서, 영국, 화란, 포도아 등지에서 군사 훈련장을 획득하였다.

1963년 12월 현재 련방군 수는 40만 4천 명에 달하였다. 그중 륙군은 25만 5천 명, 공군은 9만 3천 명, 해군은 2만 8천 명이였다.

1963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예산에서 그 전해에 비하여 20억 마르크나 많은 184억 마르크를 군사비로 배당하였다.

서부 독일에는 나토 및 《서구 동맹》 참가국들의 군사 기지가 30 개나 있는데 그중 20 개 이상은 미국의 것이다.

사회, 문화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며 군비 경쟁을 위한 독점체들의 공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처지는 더욱 악화되였다. 생계비는 1963년 1.4 분기에만도 3.3% 등귀하였다. 식료품 가격은 가장 많이 올랐다. 석탄 가격은 25%, 의류는 10% 등귀하였다.

12월 한 달 동안에 실업자 수는 12만 명 증가하여 25만여 명에 달하였다.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비호 하에 서독에는 86 개의 파쑈 및 반유태인 단체들이 있으며 이 단체들은 46 종에 달하는 파쑈적 신문과 잡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총 부수는 16만 부에 달하고 있다.

【출판】 통신—데페아

신문—프라이에스 폴크(독일 공산당 기관지), 디 벨트, 펠레그라프, 메르쿠리에르, 프랑크푸르테르 룬트샤우,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도이췌 폴크스 짜이퉁

잡지—비쎈 운트 타트 (독일 공산당 리론 잡지)

유고슬라비야

(유고슬라비야 사회주의 련방 공화국)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면적】 25만 5,804 km²

【인구】 1,917만 7,000 명(1963년 12월 31일)

【수도】 베오그라드 (주민 58만 8,200 명, 1963년 2월)

정치

유고슬라비야는 1945년 5월 히틀러 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이 해 11월 29일 련방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그러나 1948년 6월 20일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사태에 관하여》라는 공산당 및 로동당 보도국 결의에 지적된 바와 같이 찌또 도당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면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는 길로 나아갔다.

찌또 도당은 국내적으로는 《특수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적극적인 공존》과 《뿔럭 불가담》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찌또 수정주의자들은 1951년에 미제와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고 2년 후에는 침략적 나토의 부속물인 발칸 조약을 조작하였다.

찌또 도당은 저들의 수정주의 로선을 1958년 4월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성문화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을 《유고슬라비야 사회주의 련방 공화국》이라고 지었다.

【련방 인민 의회(쓰꿉쉬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의 련방 인민 의회는 새 헌법에 의하여 종전의 2원제로부터 5개의 의원 (련방, 경제, 교육 문화, 보건 사회 복리, 행정 정치)으로 되였다. 이 외에 련방 의원 대의원 70 명으로 구성되는 민족 의원이 있다. 각 의원의 대의원은 120 명씩이며 2년 마다 절반씩 개선된다. 현 련방 인민 의회는 1963년 6월에 선거되였다.

의장 에드와르드 까르델리

【대통령】 4년 임기로 련방 인민 의회에서 선거되며 오직 한 번만 재선될 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으나 찌또 (1963년 6월 30일 4대 대통령으로 선출)에 대해서는 례외로 되여 있다.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을 겸한다.

【련방 집행 위원회(정부)】 위원장(수상) 뻬따르 쓰땀볼리치 외무 관계 국무상 꼬차 뽀뽀비치 국방 관계 국무상 이반 고슈냐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주의자 동맹** 전신은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52년 11월 제 6차 대회에서 당 이름을 개칭하였다. 1958년 4월 동맹 제7차 대회는 1957년 11월 모쓰크바 선언에 대치하여 수정주의적 강령을 채택하였다. 총비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 근로 인민 동맹** 본래의 《유고슬라비야 인민 전선》을 1953년 2월 제4차 대회에서 개칭하였다. 위원장 라자르 꼴리쉡쓰끼, 총비서 밀레테제 뽀뽀비치 **직업 동맹, 인민 청년 동맹, 녀성 동맹**

【주요 사건】 찌또 도당은 1963년 4월 7일 집권 후 세번째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 새 헌법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수정주의적 강령(1958년)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새 헌법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허용하고 있으며 《오늘 유고슬라비야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의 수단 즉 사회주의 국가 제도의 수단이 덜 필요한 것》(새 헌법 작성자 까르델리)이라고 하면서 부르죠아적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새 헌법 제 22 조에는 공민들이 《수입을 얻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 수단과 로동 전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타인의 보충적 로동의 리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여 있다.

찌또의 새 헌법은 제국주의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 반동의 두목인 미제에 충실히 복무할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63년에도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소위 《적극적 공존》과 《쁠럭 불가담》이라는 간판 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떠 받들고 사회주의와 민족 해방 운동,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파괴를 위하여 날뛰였다.

찌또 집단은 1963년에 미제의 사촉 하에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찌또 도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유고슬라비야 신문《보르바》 1964. 1. 9)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중국 깜빠니야에 적극 합류하여 중국을 비방 중상하였으며 1963년 5월 17일에는 중국을 반대하는 인도 반동 지배층에 3천만 루피의 군사 원조를 줄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7월에 찌또 도당은 알바니야를 중상하기 위하여 국경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알바니야 외교관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찌또 도당은 미제가 라오스에서 암살을 감행하며 무장 충돌을 도발하던 1963년 5월에 라오스 애국 련맹이 《모든 일에 대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공격하였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적대 '행위와 미제에 대한 충성을 바친 대'가로 미제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았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찌또 도당은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때부터 1963년 1월까지의 기간에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54억 6,000만 딸라의 각종 《원조》를 받았다. 그 중 미국의 《원조》는 약 35억 딸라나 된다. 찌또 집단은 1963년에만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2억 2,000여만 딸라의 《원조》를 받아 먹었다.

1963년에 쏘련 수상 흐루쑈브(8.20—9.3), 몽고 대 인민 후랄 의장 쩬드(10월), 독일 외무 부상 요한네스 괴니히(1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4월), 미 국무 장관 러스크(5월), 리베리아 대통령 타브만(6월)이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으며 한편 찌또가 미국, 브라질, 칠리, 볼리비아, 멕시코 (9월 17일—11월 1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 자원으로는 보키사이트, 연, 안티모니, 수은, 동, 아연, 모리브덴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며 최근에는 우란광도 발견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유고슬라비야 찌또 수정주의자들은 경제 정책에서도 반 맑스주의적인 《유고식 길》로 나가고 있다. 찌또 도당은 《사회적 소유란 생산자 협동체의 직접적인 민주주의적 관리하에 있는 소유》라고 하면서 전 인민적 소유로서의 국가적 소유를 《독점》으로 묘사하고 유고식 《사회적 소유》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계획화를 부인하고 있다.

찌또 도당은 1950년부터 공장, 광산, 교통 운수, 무역, 농업, 림업, 공공 사업 등 모든 국영 기업에 대하여 소위 《로동자 자

치》를 실시한다는 일련의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 제도를 복구하였다. 이른바 《로동자 자치》의 내용은 기업소를 소위 《근로 집단》에 넘겨 주어 관리하게 하며 기업소 자체로 원료를 구입하고 제품의 품종, 생산량 및 가격을 결정하며 자체가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자체로 로임과 일부 리윤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리윤 추구가 경제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되고 있으며 기업소 호상간의 자유 경쟁이 지배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에는 개인 기업소가 11만 5천여 개나 되는데 이 기업소들은 《타인의 보충적 로동의 리용이 허용될 수 있》(《새 헌법》)으며 개인 기업가들은 5 명 이상의 고용 로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놓았으나 일부 기업가들은 50 명, 100 명 지어 500—600 명까지의 고용 로동자들을 가지고 있다(또도로비치).

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중소 기업소들의 파산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하루, 밤 사이에 백만 장자로 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신문 《뽈리찌까》 1963. 4. 13).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자본주의화가 촉진되고 있다. 찌또 도당은 1953년 9월에 소위 《농촌 로력 협동 조합 재산 관계 및 그 개편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이른바 《농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한 이래 《농촌 로력 협동 조합》의 대부분은 해산되였으며 그 후 토지의 매매, 소작제, 고용 로동의 사용까지 허용(1960년《농지 사용법》)하였다. 그 결과 1962년 5월에 개인농은 전체 농호의 98% 이상, 경지 면적의 91.3%를 차지하였다. 전체 농호의 70%에 달하는 빈농과 농업 로동자는 사유 토지의 38%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농호의 13.6%에 지나지 않는 부농은 사유 토지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 4월 7일에 채택한 새 헌법에는 《농호 당 10 헥타까지의 경작지를 소유할》 (제21조 2항) 수 있으며 《경작지 이외의 토지》 소유(제21조 3항)와 고용 로동의 리용을 《허용》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대외 무역에서의 결손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1963년에는 그것은 1962년보다 207억 지나르가 증가한 799억 지나르였다. 그중 미국과 카나다와의 무역 적자 (주로 미국)는 459억 지나르로서 19.8% 증대하였다.

1963년에 상품 소매 가격은 1959년에 비하여 평균 28%, 그중 식료품 가격은 62%나 올라갔다. 1963년 10월 29일 승차권 료금은 1961년 4월 15일에 비하여 3~4배나 비싸졌다. 이리 하여,생계비는 1959—1963년간에 62%나 올랐다. 1963년 2월에 실업자는 1962년의 23만 6,400 명으로부터 33만 9천 명(취업 인구의 10%)으로 늘어 났다.

유고슬라비야 사회 문화 생활에서는 완전히 퇴폐적인 《서방식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이 범람하고 유고의 민족 문화는 말살되여 가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뽈리찌까》지도 말세기적인 퇴폐한 춤인 《훌라후프 춤은 출 수 있으나 민간 무용인 콜로 춤은 출 수 없다》 (2월 1일)는 규정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출판】 통신—따뉴그(유고슬라비야 통신사)

신문—보르바(사회주의 근로 인민 동맹 기관지),뽈리찌까, 꼼무니쓰트(공산주의자 동맹 기관지)

잡지—쏘찌알리잠 (공산주의자 동맹 리론 잡지)

오 지 리

(오지리 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면적】 8만 3,849 km²

【인구】 707만 3, 807 명(1961년 3월), 주민의 대부분은 독일인이며 언어도 독일어를 쓴다.

【수도】 윈나 (주민 162만 7,566 명)

정 치 오지리는 1945년 히틀러 기반에서 해방된 후 쏘,미,영,불 4개 국의 공동 관리하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 강화 조약이 조인되였고 같은 해 10월 26일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 중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오지리 반동 지배층들은 이에 배치되게 1956년에 미국과 소위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침략적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 리사회》에, 1960년 5월에는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에 가입하였다.

【대통령】 아돌프 쉐르프 (1963년 4월 28일 재선)

【의회】 의회는 상원인 련방 의회(각 주 대표로 구성)와 하원인 국민 의회(의원은 165명이며 임기는 6년)로 구성된다. 현 국민 의회는 1962년 11월에 선거되였다.

【내각】 인민당과 사회당 간의 의석 배정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4 개월 간의 정부 위기가 있은 후 1963년 3월 27일 내각이 구성되였고 1964년 2월 24일에 개조되였다.

수상 요세프 클라우스, 외상 카를 보블레데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3일에 창건, 1956년 7월 15일 사회 로동당과 합당하였다. 위원장 요한 코플레니히 **인민당** 1945년 창건, 독점 자본가, 지주 및 부농의 리익을 대표하며 천주교 교회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당** 1945년 창건, 전신은 사회 민주당이다. **자유당** 1956년에 창건된 파쑈 정당이다. **평화 옹호 위원회, 로조 련맹, 민주 녀성 련맹**

경제, 사회 오지리는 공업과 농업이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다. 갈탄(매장량 30억 톤),철(매장량 2억 4,200만 톤), 원유 (매장량 5,16

0만 톤)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생산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에서 국가 자본주의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독점 자본의 침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20.1%, 초원 및 방목지는 28.8%이며 총인구의 약 2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에 불과한 대지주가 총경지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쌀 보리, 감자, 사탕무우이다.

1964년 초에 13만 5, 000 명의 실업자가 있었다.

신문—외스테르라이히쉐 폴크스 슈팀메(공산당 기관지), 윈나 짜이퉁(정부 기관지), 외스테르라이히쉐 노이에 타게스 짜이퉁(인민당 기관지), 아르바이테르 짜이퉁(사회당 기관지)

희 랍

(희랍 왕국)

Kingdom of Hellas

【면적】 13만 2,562 km²

【인구】 838만 8,553 명(1961년 3월 31일)

【수도】 아테네 (주민 185만 2, 709 명), 주민의 90% 이상은 희랍인이고 이외에 토이기인, 유태인, 마케도니아인, 알바니아인, 불가리아인들이 있다.

정 치 희랍은 립헌 군주국이다. 침략적인 《트루맨주의》(1947년), 《마샬안》(1948년)을 접수하였고 1952년에는 침략적인 나토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희랍 령토상에 미국 군사 기지를 설치할 데 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1962년 11월 1일 구라파 《공동 시장》 준 가맹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국왕】 파울 1세 (1964년 3월 서거)

【의회】 1원제로서 임기는 4년. 의원 수는 300 명이다. 1963년 11월 3일 선거로 성립된 의회는 1964년 1월 8일 해산되고 1964년 2월 16일 선거가 실시되였다.

【내각】 현 내각은 1964년 2월 18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외상 스타브로스 코스트폴로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17일 창건되였으며 1947년 10월에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통일 민주 좌익당** 1951년에 창건된 진보적 정당이다. 현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장 파살리드스 **중앙 동맹**(집권당) 1961년 초에 수개 정당들로써 구성된 부르조아 정당이다. 지도자 파판드레우 **국민 급진당** 미국 자본과 결탁한 대공업—금융 자본가들과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는 반동적 정당이다. **로동 총련맹, 전국 청년 통일 동맹, 평화 옹호 위원회**

경제, 사회 희랍은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주산물은 담배, 포도, 올리브, 밀 등이다. 경지 면적은 전국 령토의 20%이며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지하 자원은 철, 대리석, 동이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에서는 식료 가공업과 방직 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건포도, 담배 등이다.

희랍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매우 곤난하다. 1963년 상반년에 소비품 가격은 3.6%, 식료품 가격은 7.8% 각각 올랐다. 47만 1,000 명의 완전 실업자와 100여만 명의 반 실업자가 있다. 1963년 상반년에만도 4만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1963년에 파업 참가자 수는 약 100만 명이였다.

분 란

(분란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면적】 33만 7,009 km²

【인구】 452만 3,000 명(1963년 12월), 주민의 약 90%가 핀족이며 국용어는 분란어와 서전어이다.

【수도】 헬싱키 (주민 47만 7,500 명)

정 치 분란은 사회주의 10월 혁명 결과 1917년 12월 제정 로씨야에서 독립하였고 1919년 공화국으로 되였다. 1939년 11월과 1941년 6월의 2차에 걸쳐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당하였다. 1947년 2월 10일 분란은 쏘련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1948년에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을 맺았다.

【의회】 1원제이며 의원은 200명, 임기는 4년이다. 1962년 2월 선거에서 공산당이 47 석을 차지하여 제2 당으로 되였다.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62년 2월 재선, 임기 6년)

【내각】 1962년 4월에 성립, 수상 아호티 카라얄라이넨 (농민 련맹), 외상 벨리 메리코스키(분란 인민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에 창건되였으며 1963년 4월 12—15일에 걸쳐 제 13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아이모 알토넨, 총비서 빌레 페씨(기관지《칸산 우티세트》) **인민 민주 동맹** 1944년 공산당과 좌익 사회 당원들의 발기로 창건된 대중적인 민주주의적 사회 정치 단체이다. 위원장 지. 엘. 쿨로, 총비서 엔네 **농민 련맹** 1906년에 창건되였으며 농촌 자본가와 대지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사회 민주당, 인민당, 민족 련합당, 분란 중앙당, 로농 총 동맹**

경 제 주요 자원은 철, 동, 연 등이고 주요 농산물은 맥류, 감자 등이다. 경제의 주도적 부문은 제재, 제지, 팔프 공업이다. 산림 면적은 국토의 70% (2,167헥타) 이상이다. 주민의 60%가 림산업에 종사하며 국가 수입의 약 70%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 1963년에 119억 키로와트의 전력, 37만 5천 여톤의 선철, 187만 톤의 종이를 생산하였다.

1963년 1월 1일 구 화폐 100 마

르카=신 화폐 1마르카의 비률로 화폐 교환을 실시하였다.

서 전

(서전 왕국)
Kingdom of Sweden

【면적】 44만 9,200 km^2

【인구】 762만 1,000 명(1963년 말 현재), 주민의 태반은 스웨드족이고 기타 덴족, 고드족, 핀족들이 있으며 언어는 서전어이다.

【수도】 스톡홀름(주민 80만 3,600 명)

정 치 서전은 1521년 덴마크 왕국에서 분리되여 독립 왕국을 형성하였다. 중립국으로서 조선 정전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서전은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 참가국이나 1962년에 구라파 《공동 시장》 준 가맹국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하였다.

【국왕】 구스타브 아돌프 6세 (1950년 10월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임기 8년의 의원 151 명(공산당은 2 석), 하원은 임기 4년의 의원 231 명(공산당은 5 석)으로 구성된다.

【내각】 수상 타게 에를란데르, 외상 토르스텐 닐쏜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7년에 창건되였다. 창건 당시 명칭은 좌파 민주당이였으나 1921년에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였다(당 기관지 니다크). 위원장 힐딩 하그베르그 **사회 민주당** (집권당) 1889년에 성립되였다. 기타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 로조 중앙 련맹, 민주 청년 동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경 제 광물 및 림산 자원이 풍부하며 각종 기계, 금속, 조선, 제재, 제지 공업 등이 발전하였다. 1962년에 자본주의 국가 조선 공업에서 서전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농업은 경지가 적은 (경지 면적은 373만 헥타르) 관계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나 목축업은 발전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 종이, 금속, 기계류이며 수입품은 석탄, 석유, 면직물 등이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왕국)
Kingdom of Norway

【면적】 32만 3,917 km^2

【인구】 367만 6,000명 (1963년 10월 1일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노르드족이고 그 외에 스웨드족, 핀족들이 있다. 언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수도】 오슬로(주민 47만 8,000 명)

정 치 노르웨이는 1905년에 서전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40년 4월 9일—1945년 5월 사이에 독일의 강점 밑에 있었다. 노르웨이는 1948년에 《마샬안》을 접수하고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다. 1962년 4월 국회는 구라파 《공동 시장》에 정식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다. 오슬로에는 나토 북부군 사령부가 있다.

【국왕】 올라프 6세 (1957년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의원 38 명, 하원은 의원 112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수상 에이나르 게르하르드센(로동당 당수), 외상 하르바르드 랑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3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에밀 레블리엔 (기관지 《프리 헤텐》) **사회주의 인민당** 1961년 4월 16일 결성되였다. 원자 무기 반대, 나토 탈퇴 등을 주장, 위원장 크누트 레프스베스 **로동당** 1887년에 성립되였고 1935년 이래 집권하고 있는 부르조아 정당이다. 기타 **보수당, 기독교 인민당, 로조 련합, 공산 청년 동맹, 녀성 동맹** 등이 있다.

경 제 경제의 주요 부문은 해운업 (1961년 7월 현재 상선대는 자본주의 세계 제 3위), 림업, 어업(1960년의 어획고 159만 9천 톤으로 자본주의 세계 제 3위)이다. 국토의 24.2%가 산림 면적이고 겨우 2.6%가 경지 면적이다.

노르웨이의 주식 자본에서 외국 자본은 약 15%를 차지한다. 그 중 43%는 미국, 36%는 영국 자본이다. 외래 자본의 80% 이상은 화학 공업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 공화국)
Republic of Iceland

【면적】 10만 3,000 km^2

【인구】 18만 3,478 명(1962년 12월 1일 현재), 주민은 노르드족과 덴족이다. 언어는 아이슬랜드어이며 덴마크어도 통용된다.

【수도】 레이캬비크 (주민 7만 4,987 명)

정 치 아이슬랜드는 1941년 덴마크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을 선언하였고 1944년 6월 17일 공화국이 성립되였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에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 해공군 기지가 있다.

【의회】 량원제로서 하원 의원은 40 명, 상원 의원은 20 명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아스게이르 아스게이르쏜 (1960년 8월에 3선)

【내각】 수상 올라푸르 토르스(독립당), 외상 구드문두르 구드문드쏜(사회 민주당)

【정당, 사회 단체】 **통일 사회당** 1938년에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 좌파가 련합되여 조직되였다.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쏜 기타 **독립당, 진보당, 사회 민주당** 등 부르조아 정당들과 **로조 련합, 아이슬랜드 조선 문화 련락 위원회** 등이 있다.

경 제 경지 면적은 전 국토의 0.5%에 지나지 않는

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한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어업이다. 어업은 국민 총생산액에서 25%, 수출에서 수산물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영 국

(대브리텐 및 북 아일랜드 련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적】 24만 4,100 km²

【인구】 5,330만 1,000 명 (1962 년)

【수도】 런던 (주민 834만 6,000 명)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2월 6일 즉위)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왕족, 귀족, 승려 등 889 명의 의원으로, 하원은 임기 5년의 의원 630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현 의회는 1959년 10월 총선거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내각】 1963년 10월 9일 맥밀란이 수상을 사직한 후 흄 내각이 10월 20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알렉산더 흄
외상 리챠드 버틀러
국방상 피터 소니크로프트
영.련방 및 식민지상 던캔 샌디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 년 7월 30일에 창건, 당원수 3만 4,372 명 (1963년 4월), 위원장 프랜크 스탠리, 총비서 존 골랜 **보수당**(집권당) 19세기 중엽에 조직된 독점 자본가와 대 지주들의 정당이다. 당수 해롤드 맥밀란 **레이버당** 전형적인 개량주의 및 기회주의 정당이다. 당수 해롤드 윌슨 **자유당** 보수당과 거의 동일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당수 존 그리몬드 **로동 조합 콩그레스** 극우익적인 로동 귀족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 **공산 청년 동맹,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1963년은 영국에있어서 집권당인 보수당의 위신이 전례없이 떨어진 해였다. 이것은 맥밀란 정부가 1962 년 이래 《긴축 계획》을 계속 실시하면서 근로 인민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데 있다.

또한 경제는 의연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실업자는 1963년 2월에 전후 최고 기록인 93만 3,000 명에 달하였다.

인민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는 보수 당은 4월에 진행된 국회 보충 선거에서 투표 수의 45.6% 밖에 얻지 못 하였다. 보수당 정부에 대한 사회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맥밀란은 10월 9일 하는 수 없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구실하에 사임하였다.

맥밀란 사직후 외상 흄이 수상으로 되였으나 그도 역시 국내에 조성된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무능력하였다. 인민들이 보수당 정부의 반인민적인 정책을 반대하여 년중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로동성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년 첫 8 개월 동안에 1,280 건의 파업이 일어 났으며 (하루 평균 50여 건) 이로 말미암아 114만 8천 로동일이 상실되였다.

【대외 관계】 1963년에 영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고 영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 및 식민지 국가 인민들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다. 그것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와 나토 《핵 무력》 창설 문제 및 식민지 문제 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리권을 유지하며 령도권을 장악할 목적밑에 《공동 시장》에 가입하기 위한 영국의 1년 반에 걸치는 교섭은 1월 드 골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영국과 불란서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였다. 《공동 시장》 가입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었던 맥밀란은 2월 1일 이태리를 방문하고 판파니 정부로 하여금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적극 지지케 하며 《본—파리》축에 대항하기 위한 《런던—로마》축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나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 하였다.

군사적 분야에서 미국 간의 모순은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둘러 싸고 심각하게 나타 났다.

1962년 12월의 낫소 회담에 뒤이어 1963년 2월에 워싱톤에서 있은 미, 영 회담에서 영국은 미국의 《폴라리스》 잠수함과 자기의 《브이》 형 폭격기들로써 나토의 핵 무력을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해상 함선으로 구성되는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을 제의하였다.

3월에 케네디의 《특사》로 영국에 파견된 머천트와 흄간의 회담에서 미국은 자기의 통제 하에서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을 창설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흄은 《자체의 핵 제지력》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배격하였다.

중인 국경 분쟁을 격화시킬 목적으로 2월 16일 영국 륙군 참모 총장 헐이 뉴델리에 파견되였으며 미, 영 《합동 조사 사절단》은 3 주일간 인도에서 《조사 결과 개요》를 작성하여 인도 정부에 수교하고 중국을 반대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공중과 지상에서 인도 군대의 장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필요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조》를 줄 것을 약속하였다.

영국 정부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압력에 못 이겨 자기의 이전 식민지들인 잔지바르(12 월 10일), 케니아(12월 12일)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또한 12월 31일에는 영국에 의하여 조작된 《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련방》이 해체되였다.

영국은 날로 앙양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 하였다.

1963년 영국은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라이 및 북부 칼

리만탄에 군대를 계속 투입하고 이 지역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영국은 1954년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1963년 4월에 영국 해군 부사령관 소르처드를 비롯한 55 명의 장교와 700 명의 해군을 사이공에 파견하였다.

영국 정부는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영령 기아나의 자간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자기 주구들을 사촉하여 정부의 로동 법안을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키게 한 후 이를 구실로 수 많은 군대와 군함을 파견하였다.

1월 16일 영국은 자기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괴뢰 《남 아라비아 련방》 당국과 아덴을 이 《련방》에 병합할 데 관한 조약을 조작하였다. 아덴에서는 이 《련방》을 반대하는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는바 영국은 무력을 동원하여 아덴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경제

자연 부원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대부분을 식민지들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주요 자원으로서는 철광, 석탄 등이다.

농산물 생산은 보잘 것 없으며 식량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경제 명맥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장악되여 있으며 생산과 자본이 고도로 집중되여 있다. 1962년에 중소 회사들의 파산 건수는 전후 최고 기록인 4,6?8 건이였다. 이 파산 건수중 대부분은 또한 미국 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다. 1963년 현재 영국에 침투한 미국 자본은 1,100여개의 영국 기업소를 장악하고 있었다. 미국 자본의 직접 투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1950년의 8억 4,700만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38억 딸라로 늘어났다.

영국 정부는 1961년부터 다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추켜세워 볼려고 《긴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경제의 침체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영국의 지위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공업 생산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몫은 1958년의 14.8%로부터 1963년에는 8.6%(1962년에는 8.8%)로 떨어졌다.

【공업】 영국 공업은 2년 동안 계속된 침체후 1963년 2.4분기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월—2월 동안에 생산이 전례 없이 떨어지고 생산의 회복이 완만한 결과로 1963년 공업 생산은 3% 밖에 증가하지 못 하였다. 국민 총 생산도 거의 같은 규모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특히 로동 강도의 강화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1963년에 경제 전반이 다소 장성하였지만 기간적인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은 축감되였다.

1963년에 석탄 채굴량은 1962년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였고 강철 생산은 1960년의 최고 수준보다 10%나 감소되였다. 1963년에 기계 제작 공업 중에서 공작 기계, 방직 설비, 광산용 설비, 화학 설비 및 기타 공업 설비들이 전해와 같이 침체 상태에 있었거나 생산이 감소되였다. 특히 선박 건조 공업은 1963년에 전년에 비하여 11%나 감소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0	1962	1963
전 력(10억kwн)	132.5	156.8	169.3
석탄(100만t)	197	200.5	198.9
강 철(〃)	24.7	20.8	22.5
선 철(〃)	16.0	14.1	14.8
세멘트(〃)	13.4	14.2	14.1
면직물(100만m)	1183	1474.0	1440.7
모직물(100만m^2)	322	274.2	272.0

【농업】 농업 생산은 국민 총생산의 4%에 불과하다. 농촌 인구의 70%가 농업 로동자들이다.

1963년에 알곡 총 생산은 전년보다 거의 4%나 감소된 1,090만 톤이였다.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기계, 금속, 화학 제품, 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식료, 원료, 연료, 유류, 목재, 팔프 등이다. 영국은 매년 수입 초과를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과잉 생산과 주민들의 구매력의 저하 간의 모순, 만성적인 경제적 침체를 타개하는 출로를 대외적 진출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있다. 1963년에 대외 무역에서의 결손액은 5억 8,600만 파운드였다.

주요 무역 대상 지역은 서구라파와 파운드 지역이다.

【재정】 회계 년도는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3월 말로 끝난다. 영국의 예산은 군비 경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영국의 금 및 외화 보유액은 1962년 말의 10억 2,000만 파운드로부터 1963년 12월에는 9억4,900만 파운드로 축감되였다. 이것은 1961년에 있은 재정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군사

영국은 해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의 살륙 무기를 생산하며 전쟁 준비를 강화함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 군사비는 1962—1963 회계 년도의 18억 1,000만 파운드로부터 1963—1964회계 년도에는 19억 400만 파운드로 늘었다.

한편 영국은 핵 무장 분야에 있어서 《폴라리스》 로케트로 장비된 원자 잠수함들을 건조하며 또한 이것들이 건조될때까지 《비》형 폭격기들을 포함한 핵 무기를 나를 수 있는 비행기들을 대량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인민의 강력한 반대와 심한 재정적 난관으로 하여 군비 확장 계획은 뜻대로 진척되지 못 하고 있다.

영국에는 30 개소의 미 군사 기지가 있으며 3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서북부의 홀리로호만은 미국의 《폴라리스》 핵 잠수함 기지로 리용되고 있다.

사회

실업은 영국에서 의연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1963년 2월 현재 실업자 수는 93만 3천 명으로서 이

것은 1940년 이래의 최고 수준인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만 하여도 1963년 한해 동안에 5천 명의 탄부들이 해고되였다. 임금 《동결》 정책의 강행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주일 간에 10 파운드를 받는 로동자들의 수는 취업 인구의 42%나 된다. 그런데 생계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4월 1일부터 전기 료금, 식료품, 운임료 등이 인상된 데 뒤'이어 5월 27일부터 기름, 우유 등 식료품 가격이 또 등귀하였다. 1962년 1월 이래 일반 소비품 소매 가격은 4%나 올랐다.

영국에서 집 없이 거리를 헤매는 세대가 60만이나 된다. 영국에서 범죄 건수는 날로 격증되고 있는 데 런던에서 일어난 범죄 건수만 하여도 근 22만 건이나 된다. 특히 10대 소년들의 범죄 건수가 현저히 증가되였다.

【출판】 통신—로이터, 프레스 아쏘시에이슌, 브리티쉬, 유나이티드 프레스

신문—데일리 워커 (공산당 기관지),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라프 앤드 모닝 포스트 (보수당 기관지), 가디언(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보수계), 데일리 메일(보수계), 데일리 헤랄드(레이버당계),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월드 뉴스(공산당 주간지)

잡지— 막시즘 투데이(공산당 월간 리론 잡지)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Irish Republic

【면적】 7만 8,283 km²

【인구】 281만 5,000명(1961년 말)

【수도】 더블린 (주민 58만 4,000 명)

정 치 영국의 일부였으나 1921년 자치령으로 되였다가 1937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 영 련방에서 탈퇴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60 명, 하원 의원은 144 명,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에이몬 데발레라(1959년 6월 선출)

【내각】 수상 오드네일르(1963년 3월 취임)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62년 3월 로동자 련맹 제 4차 대회에서 현명으로 개칭하였다. 총 비서 마이클 오리르덴 **자유당** (집권당)지도자 에이몬 데발 레라, 기타 **레이버당, 《아이레 공화군》, 신페인, 아이레 로동 련맹**

경 제 미, 영 자본이 경제의 주도적 부문을 쥐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40%가 농민이며 수출에서 농산물이 60% 이상 (1959년)을 차지한다. 공업의 주요 부분은 담배, 목재, 제지 및 방직 공업이다.

덴 마 크

(덴마크 왕국)
Kingdom of Denmark

【면적】 4만 3,042 km²

【인구】 461만 7,000 명(1961년),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이며 언어는 덴마크어이다.

【수도】 코펜하겐 (주민 96만 명)

정 치 1940년 4월 히틀러 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 그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8년에 《마샬안》을 접수하고 1949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미국과 《그린랜드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0년 3월에는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에 참가하였으며 구라파 《공동 시장》에 정식 가입을 신청하였다(1962년 2월). 1961년 12월 서독과 빨찌해 합동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1963년 3월에 덴마크 국회는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동적인 법령을 채택하였다.

【국왕】 프레데리크 9세 (1947년에 즉위)

【의회】 1원제로서 4년의 임기를 가지는 의원 179 명으로 구성되였다.

【내각】 사회 민주당, 농민당, 무소속 련립 정부로서 1962년 9월에 성립, 수상 엔스 오토 크라그(사회 민주당), 외상 페르 헥크그루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9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기관지《란드 오노 폴크》) **사회 민주당, 농민당, 로조 련맹, 공산 청년 동맹**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목축업이며 지하 자원은 적다. 경지 면적은 전국 면적의 72%인 310만 헥타이다. 토지는 지주들에게 집중되여 있으며 농업 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로동자와 소농민들은 토지 면적의 15.7%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공업의 주되는 부문은 식료, 금속, 방직, 선박 건조, 제지 공업이다.

덴마크는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공동 농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산물 수출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63—1964 회계년도의 군사비는 1946년의 10 배 이상인 17억 크로네였다.

화 란

(화란 왕국)
Kingdom of Netherlands

【면적】 3만 2,400 km²

【인구】 1,200만 명(1963년 10월), 주민의 대부분은 화란인이고 언어는 화란어이다.

【수도】 암스테르담(주민 87만 2,428 명)

정 치 화란은 립헌 왕국이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고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했다. 1954년 6월 미국과 《원자 무기의 축적 및 생산에 관

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7년에는 구라파 《공동 시장》과 《유라톰》에 가담하였다. 1962년 8월 15일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이관할 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화란 정부는 1963년 1월 19일 서독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고 3,000 명의 서독군의 화란 주둔을 허용하였다.

【국왕】 율리아나 녀왕

【의회】 상원 의원은 75 명이고 하원 의원은 150 명이다. 현 의회는 1963년 5월에 선거되였다. 선거에서 공산당은 상원에서 1 석, 하원에서 4 석을 차지하였다.

【내각】 현 정부는 1963년 7월 24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마테이넨, 외상 요세프 룬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당 기관지 《드 바르하이트》) **로동당** 1946년에 창건된 반동적 정당이다. **천주교 인민당** 1945년에 창건된 부르죠아지의 정당이다. **평화 사회당** 자국 령토 내외 외국 군사 기지의 철폐와 화란의 일방적인 군비 축소 및 나토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교권주의 정당들인 **반혁명당**과 **기독교 력사 동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주요 공업은 선박 건조, 전기 기계 및 식료; 공업 등이다.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다. 농업 특히 축산업이 발전되였으며 우락 제품 생산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름이 높다. 1962년 말에 대각 가축은 252만 두, 돼지는 31만 6,000 두 있었다.

1962년 6월 말 현재 487 개의 기업소들에 외국 자본이 투하되였다. 1963년 4월 현재 실업자 수는 3만 7,000 명이였다.

벨 기

(벨기 왕국)
Kingdom of Belgium

【면적】 3만 507 km²

【인구】 922만 8,729 명(1961년 12월 31일), 주민은 화란계의 프라만이 55%, 불란서계의 왈룬인이 45%이다. 공용어는 불란서어와 프라만어이다.

【수도】 브류쎌(주민 139만 8,329 명)

정 치 벨기는 침략적 나토 (1949. 4. 4), 《구라파 석탄 강철 공동체》(1951. 4. 18), 서구 동맹, 구라파 《공동 시장》 및 《유라톰》 (1957. 11. 28 협정 비준)에 가입하고 있다. 1950년 벨기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국왕】 보도앙 1세 (1951년 1월 17일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175 명, 하원은 212 명이다. 임기는 4년이다.

【내각】 수상 테오 레페브르 (기독교 사회당), 부수상 겸 외상 파울 앙리 스파크 (사회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9월에 창건되였다. 1963년 12월에 진행된 견실한 벨기 공산주의자들의 전국 회의에서 에르네르 뷰르넬을 비롯한 수정주의 집단들이 제 14 차 대회(1963. 4. 13—15)에서 채택한 결정을 부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공산당의 재건을 선언하고 1964년 봄에 당 전국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9 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을 선거하였다. 중앙 위원회 비서 쟈크 그리파(기관지 《라 부아 듀 퍼플》) **기독교 사회당, 사회당, 자유당, 로동 총 련맹**

경제, 사회 석탄, 철, 아연 등 자국내의 자원과 식민지 략탈에 기초하여 공업은 비교적 발전하였다. 1962년에 벨기에 대한 외국 투자액은 68억 1,380만 벨기 프랑(그 중 미국 자본이 약 57억 프랑)이였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60%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식량은 국내 수요의 4분의 3을 수입하고 있다.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 대 공국)
Grand Duchy of Luxemburg

【면적】 2,586 km²

【인구】 29만 9,000 명(1960년), 주민은 룩셈부르그인, 독일인, 불란서인이고 독일어, 불란서어를 쓴다.

【수도】 룩셈부르그 (주민 8만 명)

정 치 립헌 군주제 국가이다. 1948년에 비무장 중립을 폐기하고 《서구 동맹》에, 1949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57년에는 구라파 《공동 시장》, 《유라톰》에 가입하였다.

【국왕】 샤를롯테 녀왕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52 명 (임기 6년, 3년 마다 반수를 개선)이다. 공산당이 3 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각】 수상 겸 재정상 피에르 베르네르(기독교 사회당), 부수상 겸 외상, 국방상 우제느 샤우스 (자유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6일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도미니키 우르바니 **기독교 사회당** (집권당), **자유당, 로동 총 련맹**

경제, 사회 공업이 발전한 나라이다. 강철 생산은 공업 총생산액의 70%,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1인당 선철 및 강철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제 1 위이다. 공업 로동자의 절반이 제철 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며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불 란 서

(불란서 공화국)
French Republic

【면적】 55만 1,208 km²

【인구】 4,809만 명 (1964년 1월 1일)

【수도】 파리(주민 303만 5,000명)

정치 불란서는 1944년에 히틀러 독일의 강점에서 해방되였다.

전후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참가하였고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가담하였다. 1954년에는 《파리 협정》에 조인하였다. 1958년 6월 1일에 집권한 드 골은 파쑈적인 《제5 공화국》을 수립하고 《제4 공화국》의 《불란서 련합》을 《불란서 공동체》로 개조하였다.

【대통령】 샤를르 드 골(1959년 1월 8일 취임, 임기 7년)

【국회】 국민 의회 (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이다.

1962년 11월에 진행된 국민 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은 총 의석 482 석 중 41 석을 차지하였다. 참의원은 의원 301 명으로 구성되였는데 3년 마다 3분의 1 이 개선된다(그중 공산당 출신 14 명).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12월 6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조르쥬 퐁피듀
외상 모리스 쿠브 드 뮤르빌
국방상 피에르 메스메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에 창건되였다. 당원 수 약 50만 명 **《새 공화국 옹호 투쟁 동맹》** 1958년 9월 28일 조직된 드 골의 당이다. **사회당** 총비서 기 몰레 **급진 사회당** (정식 명칭 급진파 및 급진 사회주의자 공화당) 위원장 펠릭스 가이야르 **인민 공화당** (카톨릭교당) 총비서 앙드레 콜랑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항쟁 동맹** 위원장 프랑소아 미테랑 **로동 총련맹**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최대의 로조 단체이다. 서기장 브노아 프라숑 **공산 청년 동맹** 총비서 폴 로랑 **전국 로동 련맹, 전국 학생 련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1963년에 불란서 정부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활상 권리를 요구하는 로동 계급의 대중적 진출로 하여 드 골 집권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불란서 정부는 년초부터 드 골의 파쑈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안전 재판소》 창설에 관한 파쑈 악법을 조작하고 1월 11일 이것을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1월 3일 불란서 동부의 엘리자스 지구 카리 광산에서 1만 명의 광부들이 드 골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한데 뒤'이어 3월 1일에는 22만 명의 탄부들과 《폐쵸》 자동차 공장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탄광 로동자들의 투쟁은 철도, 체신, 전선, 가스 및 기타 부문에 급속히 파급되여 3월 5일에는 100만 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참가한 전국적 총파업으로 확대되였다. 3월 12일에는 빨찌해와 흑해 연안의 부두 로동자들도 탄부들의 파업에 국제적 련대성을 표시하여 불란서로 가는 선박에 석탄을 싣는 것을 거부하였다. 탄광 로동자들은 35일 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요구를 관철하였다. 4월 3일 드 골 정부는 1963년 4월 1일부터 탄부들의 임금을 6.5% 인상하고 1964년 4월 1일까지에는 12.5%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4월 초까지 이미 500만 명 이상의 로동자들이 완강한 파업 투쟁으로 자기들의 일부 요구들을 관철하는데 성공하였다.

탄부를 비롯한 전체 불란서 로동 계급의 완강한 파업 투쟁은 로동 계급의 단결된 위력과 조직성 및 전투성을 남김 없이 시위하였고 드 골 정부와 불란서 독점 자본가들을 전률케 하였다.

앙양된 로동자들의 투쟁에 위협을 느낀 드 골 정부는 로동자들의 파업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파업 5일 전에 통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법안을 조작하고 7월 3일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드 골 정부의 거듭되는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이 년말에도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드 골이 9월에 발표한 《경제 안정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임금 동결과 물가 등귀를 반대하여 전개한 35만 철도 로동자들의 파업, 258 명의 로동자 해고를 반대하여 79일 간의 갱내 롱성 투쟁을 전개한 로타링기아 탄부들의 파업 등 수다한 파업이 전개되였다.

소농 경리가 우세한 남부 지역에서 농민 운동도 6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1963년은 불란서에서 로동 운동이 전후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해로 되였다. 이 해에 파업으로 손실을 본 로동 일수는 700만~800만 일에 달하여 전후 최고 기록으로 되였다.

【대외 관계】 드 골 정부는 1월 22일 파리에서 서독 군국주의자들과 《불란서—서독 협조 조약》을 조작하고 침략적인 《본—파리 축》을 형성하였다. 이 《조약》은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불란서 식민주의자들과 서독 군국주의자들 간의 결탁을 강화하고 구라파에서 패권을 장악하며 궁극에 가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정책에서 보조를 같이 할 것을 노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방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량국은 《불란서—서독 작전 연구 기관》들을 설치하고 《군사 교관들의 교류와 합동 군사 연습을 실시할 것》 등을 예견하고 있다.

드 골 정부는 또한 서반아 프랑코 독재 정권과도 결탁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파리—마드리드 축》을 조작하기 위하여 2월 초에 진행된 량국 군 참모 총장들 간의 회담에서 량국은 지중해와 대서양 지역에서의 전략 문제들을 토의하고 량국 군대의

합동 연습에 관한 계획들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여 1963년에 량국 해군들은 4 차의 합동 연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량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란서 군대들이 서반아의 항구와 비행장들을 사용하며 서반아 군대가 불란서의 군사 기지들을 사용하는데도 합의를 보았다. 또한 량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서반아 식민지들에 불란서의 로케트 및 핵 무기 시험장을 건설하는 문제에서도 합의를 보았다.

서구라파 령도권을 둘러싼 드골과 미, 영 간의 투쟁은 1963년에 더욱 첨예화되였다.

1월 14일 드 골은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반대하였고 4월 19일에는 독자적 핵 무력을 창설하려는 자기의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7월 29일에 드 골은 쏘, 미, 영 3 개 국 핵 시험 금지 조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끝내 조인을 거부하였다.

3월 말에 불란서는 알제리아의 사하라에서 핵 시험을 또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알제리아 인민들은 사하라 핵 시험 기지의 철페와 알제리아 주둔 불란서 군의 완전 철수 및 에비앙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여 나섰다. 이러한 압력에 못이겨 불란서 정부는 5월 2일 에비앙 협정의 군사 관계 조항을 수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협정의 수정에 의하여 불란서는 1967년까지로 되여 있던 기한을 앞당겨 1964년 말까지 사하라의 핵 시험 기지를 철페할 것과 1966년 7월 1일까지로 되여 있던 알제리아 주둔 불란서군의 완전 철수 기일을 1964년 말까지 단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미국, 서독 등의 제국주의자들이 이전 불령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계속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불란서와 이 지역에 침투하려는 미국, 서독 등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도 격화되였다.

또한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5월에 자치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12 명의 마르티니크도 애국자들을 《반 국가 음모》라는 죄명으로 체포 투옥하였으며 9월에는 불령 소말리인들의 독립 투쟁을 탄압하면서 무고한 애국자들을 수다히 검거하였다.

1963년 11월 이전 수상이며 참의원 의원인 포르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964년 1월 27일 불란서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 제 1962년 하반년부터 시작된 경기의 완만한 과정은 1963년에도 지속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 총생산액은 1962년보다 1.7%나 떨어졌다. 공업 회사들의 주권은 년 평균 13%나 떨어졌는바 이것은 1958년 이래의 최고 기록이다.

실업 경기의 이러한 완만한 과정은 특히 불란서에 대한 《공동 시장》의 악영향이 강화된 결과이다. 전후 불란서 독점체들은 《공동 시장》에서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 자본의 확장 및 갱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란서의 공업은 그 기술적 장비나 생산의 집중에 있어서 미국, 서부 독일 및 영국과 같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여전히 뒤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공동 시장》 참가국들과의 무역에서 관세가 인하된 결과 1962년 하반년도부터 외국 상품이 불란서에 물밀듯이 침투하였다. 1963년 《공동 시장》 성원국들과의 무역에서 불란서는 1962년의 수출 초과로부터 수입 초과로 전변되였다. 이와 아울러 불란서에는 계속 통화 팽창이 격증되고 물가가 등귀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드 골 집권 이래 프랑의 구매력은 4분의 1 이상 저락되였다. 1963년에 통화 팽창률은 17%에 달하였다. 불란서 독점체들은 자국 경제에 조성된 이러한 난관을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군비 경쟁의 방법으로 타개하려고 있다.

1963년 9월에 채택된 《경제 안정 계획》도 바로 이러한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가격에 대한 통제》라는 미명 하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독점체들에게는 더 많은 리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공채를 발행하며, 사회적 수요와 민간 수요에 대한 국가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그것을 군사비에 추가적으로 돌리는데 있다. 한편 농촌에서 개인농을 몰아 내여 실업 예비군을 조성하고 외국의 값싼 로동력을 끌어 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값싼 《로동력 예비》를 인위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있었다. 1963년에 불란서 정부가 발행한 장기 국채액은 20억 프랑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독점체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 하였다.

【공업】 1963년에 공업 생산은 약간 상승하였으나 공업 생산 장성률은 전년에 비하여 1.3%나 떨어졌다. 특히 석탄 생산량은 1959년보다 16%나 떨어졌고 1962년에 비하여서도 530만 톤이나 줄어 들었다. 철광석 생산(1959＝100)은 1962년의 109로부터 95로 대폭 내려 갔다.

채광 공업, 기계 제작 공업, 전재 공업 그리고 기타 공업의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2% 감퇴되였다. 또한 야금 공업은 그 생산 능력의 85% 밖에 가동되지 못 하였다. 기계 제작 공업과 야금 가공 공업의 장성 템포는 전년에 비하여 훨씬 떨어졌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단위 100만톤)

	1961	1962	1963
강 철	17.6	17.2	17.6
선 철	14.8	14.2	14.3
철광석	66.6	66.3	
석 탄	52.4	52.4	50
석 유	2.2	2.4	2.5

【농업】 전국의 근 45%가 경작에 가능한 지대이며 그중 3%는 포도원이다. 불란서는 구라파 《공

동 시장》 성원국들 중에서 가장 큰 농산물 생산국이다. 농업 총 생산액에서 축산은 64%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의 약 2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4.2%에 불과한 대토지 소유자(50 헥터 이상)가 전체 경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에 불순한 기후 조건으로 농산물은 전년에 비하여 8% 감소되였다. 특히 밀 생산은 1962년에 비하여 1963년에는 35%가 감소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단위 1,000톤)

	1961	1962	1963①
밀	9 570	13 770	9 570
쌀보리	340	360	340
보리	5 410	5 920	7 281
귀밀	2 590	2 600	2 810
옥수수	2 683	1 760	3 715
감자	14 894	13 165	11 700

주 ① 1963년 11월 1일

1962년에 농촌을 떠난 농민 수는 20여만 명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8년 간에 농촌을 떠난 농민 수는 129만 2,000 명에 달하였다.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식료품, 공업 제품이며 수입품은 주로 공업 원료와 기계류인데 1963년에 수출은 399억 프랑, 수입은 481억 프랑으로서 무역 적자는 82억 프랑인바 이는 1962년 적자의 4 배나 된다.

군 사 알제리아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불란서 정부는 군비 확장, 특히 핵 군비 강화를 발광적으로 진행하였다. 1963년에 불란서는 245억 프랑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1962년에는 186억 프랑). 《독자적 핵 무력》을 창설하려는 불란서 지배층은 1963년부터 원자 폭탄을 계렬식으로 생산하는 사업에 달라 붙었으며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라쥬—4》형 비행기 생산을 위하여 재 예산에서 20억 프랑을 지출하였다. 또한 4월부터는 태평양 상의 타이티도 동남부 1,200 키로메터 상거한 지점에 있는 아롤도에서 새로운 핵 시험장을 건설하기 시작였다.

사 회 지배층의 발광적인 군비 확장 정책에서 온 과중한 조세 부담과 독점체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불란서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악화 되였다.

주민 한 사람의 평균 소비세 지출액은 1962년의 990 프랑으로부터 1963년에는 1,000 프랑으로 증가하였다. 드 골 집권 이래 직접세는 57%, 간접세는 64% 등귀하였다.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1963년에 물가는 7% 등귀하였다. 불란서에서 주택 문제는 해마다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식 발표에 의하여도 180만 세대의 주택이 부족하다. 1963년에 집세는 또다시 8% 올랐다.

한편 교육 문화는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바 100여만의 학령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불란서 정부는 1963 년도 국가 예산 지출에서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3.6%를 지출한데 불과하였다. 불란서 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수'자에 의하여도 1963년에 로동 보호 대책의 결여로 매 40분에 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매 7분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출판】 통신—에이 에프 피 통신 신문—유마니떼(공산당 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 기관지), 포플라르 드 파리(사회당 기관지), 리베라숑(무소속), 콩바(드 골 계), 피가로(인민 공화당 기관지), 몽드(외무성 측근 부르죠아 신문), 오로르(급진 사회당 계), 쥬르날 오피셀(정부 기관지)

서 서

(서서 련맹)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면적】 4만 1,288 km^2

【인구】 547만 명(1961년 6월), 주민은 독일계, 불란서계, 이태리계이고 독일어, 불란서어, 이태리어를 쓴다.

【수도】 베른(주민 16만 1,000명)

정 치 1815년 윈나 회의에서 《영구 중립국》으로 되였다. 제2차 대전 후 서서는 《마샬안》을 접수하고 《구라파 지불 동맹》,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참가하였으며 1956년 6월에는 미국과 《원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0년 10월 국민 의회는 1,000 명 이상의 상비군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하고 상비군을 확장하며 핵무장할 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1963년 5월 26일 국민 투표에서 이에 대한 찬성을 조작하였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인 주 명의회는 44 명(매주에서 2 명씩), 하원인 국민 의회는 196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내각인 련방 평의회는 국회 량원 합동 회의에서 선출되는 각료 7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 7 명 중에서 매년 륜번제로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통령 윌리 슈퓔허(1963년도), 외상 프리드리히 와렌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 사회주의 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에 조직되였다. 서서의 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수정주의자들이 지도하고 있는 서서 로동당에서 탈당한 후 1963년 9월 17일 서서 페비에서 새로운 공산당을 창건하였다. 총비서 르랄 부야르 급진 민주당, 카톨릭 민주당, 사회 민주당, 로조 련맹

경 제 지하 자원은 적으나 1962년에 각지에서 우라늄광이 발견되였다.

공업이 비교적 발전한 나라로서 주민의 4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시계를 비롯한 정밀 기계 제작 공업은 세계에서 유명하며 수력 발전도 발달하였다. 농업 인구는 주민의 21%이며 농경지는 전국 면적의 6.7%에 불과하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나 자급 자족하지 못한다. 축산 수입은 전체 농업 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시계, 레스, 자수품이다. 화폐 단위는 프랑이다.

이 태 리

(이태리 공화국)
Republic of Italy

【면적】30만 1,226 km²

【인구】5,046만 3,762 명, 주민의 대부분은 이태리인이고 북부에 독일계, 불란서계, 슬라브계의 소수 민족이 있으며 언어는 이태리어이다.

【수도】로마 (주민 229만 1,000 명, 1963년 2월 말 현재)

정 치 1941년 6월 히틀러 독일과 함께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1943년 7월에 패망하였다. 1946년 국민 투표 결과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48년 6월 28일 이태리는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 나토(1949년), 《서구 동맹》(1955년), 구라파 《공동 시장》과 《유라톰》(1957년)에 가담하였다.

【대통령】안또니오 세니(1962년 2월 피선)

【의회】1963년 2월 상원에서 의회의 구성과 임기 개정안이 채택된 결과 상원 의원은 249 명에서 315 명으로, 하원 의원은 596 명에서 630 명으로 증가되였고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였다. 1963년 4월의 선거 결과 공산당은 상원에서 85 석, 하원에서 166 석을 차지하였다.

【내각】1963년 5월 16일 판파니 내각이 붕괴되고 36일 간에 걸친 정치적 위기 후 동년 6월 21일 레오네 정부가 수립되였다.

1963년 12월 4일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사회 민주당 및 공화당으로 구성된 련립 내각이 수립되였다. 수상 알도 모로 (기독교 민주당), 부수상 피에트로 넨니(사회당), 외상 쥬제페 사라가트 (사회 민주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1일 창건되였다. 총비서 팔미로 똘리아띠 **사회당** 1892년 창건, 파시스트 정권 시기에 비법화되였다가 1943년에 재 조직되였다. 당 내에는 넨니의 주류파와 온건파로 갈라져 있다. 1963년 12월에 구성된 현 내각에 참가하고 있다. **이태리 프로레타리아 통일 사회당** 1964년 1월 11일에 사회당 내 일부 좌파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지도자 뚤리오 벡키엣티 사회당 우익 지도부와 결별한 사회 당원들의 정당이다. **기독교 민주당** 전신은 인민당, 1943년에 현명으로 개칭, 대독점 자본가와 대지주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 민주당**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와 1951년 4월에 조직된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자유당** 1929년에 창건된 반공산주의 정당으로 기독교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 **사회 운동당** 1948년에 파쑈 잔당들이 조직한 정당이다. **로동 총 련맹, 공산 청년 동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경제, 사회 이태리는 공업—농업 국가로서 자원은 비교적 적다.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 아연, 연, 수은, 대리석 등이고 석탄과 철은 극히 적다.

이태리에서 자본은 고도로 집중되여 있는바 국내에 있는 3만 7,000 개의 주식 회사 중 21 개 회사가 전체 자본의 32%를 가지고 있으며 이 21 개의 매 회사의 자본은 500억 리라 이상에 달한다. 반면에 84%의 회사는 전체 자본의 25%를 가지고 있다. 1963년에 이태리 경제에서 외국 자본은 363억 리라(1962년은 283억)였는데 주로 석유 공업(110억), 전기 공업(68억), 제지 공업(47억), 식료 공업(46억) 등에 투자되였다.

농업은 경지 면적의 축소, 농업 생산의 감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벼, 감자, 포도, 올리브, 옥수수 등이다.

이태리 정부는 나라의 파쑈화와 전쟁 정책에 추종하면서 막대한 재정 예산을 군사비와 경찰 유지비에 돌리고 있다. 1963—1964 회계 년도 국가 예산 초안에서 군사비로 8,000억 리라(전년은 7,170억 리라), 경찰 유지비로 2,060억 리라 (전년은 1,860억 리라)를 각각 배당하였다.

정부의 반동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생활난은 더욱 혹심하여 졌다. 1962년 2월부터 1963년 2월까지의 1년 동안에 생계비는 9.8%나 올랐다.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1964년 1월말 현재 실업자는 1963년 12월보다 8만 4,518 명이 더 많은 134만 4,646 명이였다.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생활난으로 1963년에 30만여 명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출판】통신—안사 (아젠찌야 나찌오날라 스탐파 아쏘치아타)

신문—우니따(공산당), 단바띠(사회당), 가제따 델리 포폴로(기독교 민주당), 쥬스티찌야(사회 민주당)

바 티 칸

(바티칸 시 국가)
State of Vatican City

【면적】0.44 km²

【인구】1,000 명

【법왕】파울 6세(1963년 6월 21일 피선)

바티칸은 세계 천주교의 중심으로서 이태리 수도 로마 시내에 있다. 국가의 일체 권한은 법왕에게 집중되여 있다. 바티칸은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여 있는 대 독점체이기도 하다 (이태리에서만도 바티칸의 통제 밑에 있는 은행은 150 개를 넘는다).

바티칸은 교회 조직들과 자기의 외교 사절들을 통하여 천주교

가 전파되여 있는 나라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바티칸은 특히 미제의 침략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각종 암해 파괴 정탐 행위들을 감행하고 있다.

바티칸 기관지 《오쎄르바토레 로마노》

싼 마리노

(싼 마리노 공화국)
Republic of San Marino

【면적】 61 km²

【인구】 1만 4,000 명(1957년)

【수도】 싼 마리노 (주민 2,500 명)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0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정부는 의회 의원 10 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인 2 명의 섭정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정당】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에르멩길도 가스뻬로니 기독교 민주당, 사회 민주당

이태리의 중부에 있는 나라로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산물은 밀, 포도주, 옥수수, 과실, 축산품, 석재 등이다. 우표 수입과 관광업 수입이 주요한 국가 수입의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이태리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리히텐스타인

(리히텐스타인 공국)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면적】 157 km²

【인구】 1만 6,280 명(1959년)

【수도】 바두쯔 (주민 3,000 명)

【국왕】 프란쯔 요세프 2세 (1938년 7월 25일 즉위)

【의회】 의원은 15 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정부】 수상 알렉산더 프리크

서서와 오지리 사이에 있는 립헌 군주국이며 대외 관계는 서서가 대행하며 서서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축산업이 비교적 발전하였으며 발전소와 방직 공장도 있다.

모 나 코

【면적】 1.49 km²

【인구】 2만 1,000 명(1959년)

【수도】 모나코 (주민 2,000 명)

【국왕】 레니에 3세 (1949년 5월 9일 즉위)

【의회】 의원은 18 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불란서의 동남부, 지중해에 면한 곳에 있는 립헌 군주국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람지이다.

매년 평균 약 65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 몬테카를로의 카지노에는 《공설 도박장》이 있다. 국가 수입의 중요 원천은 관광업과 도박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다.

안 도 라

(안도라 공화국)
Republic of Andorra

【면적】 453 km²

【인구】 6,000 명(1957년)

【수도】 안도라 (주민 1,400 명)

【의회】 임기 4년의 의원 24 명으로 구성된다.

불란서와 서반아의 국경 지대, 피레네 산맥에 있는 나라로서 주산업은 목축업, 담배 가공업이다. 관광업은 주요한 재정 수입의 원천이다.

서 반 아

Spanish State

【면적】 50만 3,486 km² (발레아르, 카나리아 량 군도를 포함)

【인구】 3,012만 8,000 명(1960년). 주민의 대부분은 서반아인이고 서반아어를 쓴다.

【수도】 마드리드 (주민 230만 명)

정 치 1931년 4월 14일에 서반아 인민들은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 2월 총 선거에서 인민 전선이 승리하였고 그 결과 련립 정부가 구성되였다. 같은 해 7월 프랑코 도당이 내란을 도발하고 독일과 이태리의 파쑈 분자들의 직접적인 무력 간섭의 도움을 받아 1939년 8월에 서반아 공화국을 전복하고 파쑈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프랑코는 1947년 왕위 계승법을 발표하고 자신의 종신 대통령제를 법문화하였다.

서반아는 1953년 9월 미국과 《군사 기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3년 9월 26일에는 이 협정의 기한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5 개의 미 항공 기지와 2 개의 미 해군 기지가 있다). 1963년 2월에는 불란서와 군사 회담을 진행하였다.

최근 년간 프랑코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 투쟁이 앙양되고 있다. 1962년 4월 6일 서북부의 아스투리아스주의 7만 명 탄광 로동자들의 총 파업은 국내 각지에 급속히 확대되여 반정부 투쟁으로 전변되였다. 아스투리아 탄광 로동자들은 1963년 7월 22일 생활 조건과 로동 조건의 개선, 정치범 석방, 로조 활동 및 파업의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는데 이 투쟁은 국내 각지에 확대되여 4개월 이상이나 계속되였다.

1963년 4월 20일 프랑코 도당이 서반아 공산당 중앙 위원인 훌리안 그리마우를 사형에 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았다.

【의회】 1원제이며 의원 515 명 (절반 이상을 정부가 임명)이고 임기는 3년이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프랑시

스코 프랑코, 외상 페르난도 마리아 카스티엘라

【정당, 사회 단체】 팔랑헤당(당수 프랑코)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의 활동은 1939년부터 금지되여 있다. 공산당 1920년 4월 15일 창건되였다.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 총비서 카릴리오

경제, 사회 석탄, 철, 연, 원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며 특히 황철광 매장량은 세계 제 6위이다.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농업이며 이는 국민 소득의 태반과 수출 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가 지배하고 있다. 농업 인구 중 82.3%의 농민들은 다만 총경지 면적의 10.5%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0.86%에 불과한 지주들이 53.5%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맥류, 올리브, 포도 등이다.

1962년 5월에 외자 도입 확대법(투자 원금, 리윤, 배당의 본국 송금을 허용)이 공포된 후 외국 자본 투자가 현저히 증대되였는바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64% 증가인 6,608만 딸라에 달하였다. 그중 미국 투자가 30%를 차지하였다.

포 도 아

(포도아 공화국)

Republic of Portugal

【면적】 9만 2,200 km²(아조레스, 마데이라 군도 포함)

【인구】 919만 명

【수도】 리스본(주민 83만 명)

정 치 포도아는 침략적 나토 참가국이며 광범한 식민지 (총 면적 약 210만 km², 인구 1,300만여 명)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년간 앙골라, 포도아령 기니아 및 모잠비크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자 살라자르 정부는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며고 8만 명의 군대를 투입하고 매달 600만 파운드를 소비하면서 식민지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식민지 전쟁과 관련하여 포도아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살라자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다. 1962년 1월 1일에는 살라자르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으며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1961년—1962년에 3차의 정부 개조가 있었다.

살라자르 정부는 1962년에 애국자들을 재판도 없이 3년까지 감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파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포도아에는 2 개의 미군 기지가 있다(1963년 1월 15일 아조레스 군도에 있는 미 공군 기지의 대여 기한을 연장).

【대통령】 아메리코 데우스 토마스(1958년 6월 8일 취임)

【의회】 2원제로서 국민 의회는 130명, 조합 의회는 13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내각】 수상 안토니오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외상 알베르토 프랑코 데 노게이라

【정당, 사회 단체】 국민 동맹 (집권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들이 비법화되여 있다. 공산당 1921년 3월 31일에 창건되였고 1926년부터 비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비서 알바로 쿤할 (기관지 《아반테》) 민족 민주주의 운동(반파쑈 통일 전선체)

경제, 사회 구라파에서 가장 락후한 농업국의 하나이다. 나라의 경제 명맥은 미, 영, 불, 서독 독점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맥류, 옥수수, 코르크 (세계 제1위), 올리브(올리브유는 세계 제 3위), 포도 등이다. 약 6,000 명의 대지주들이 전국 경지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13만 명은 전혀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 주

카 나 다
Canada

【면적】 996만 547 km²
【인구】 1, 910만 2,000 명(1964년 1월 1일), 그중 영국인 계통이 48%, 불란서인 계통이 31%, 기타 독일, 화란 계통이 있으며 원주민인 인디안과 에스키모족은 1.1%에 불과하다. 공용어는 영어와 불란서어이다.
【수도】 오타와(주민 41만 8,000 명, 1962년)

정치 영국은 약 1세기에 걸친 쟁탈전에서 불란서를 패배시키고 1763년에 카나다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카나다는 1867년에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았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참가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가담하였다. 1951년 12월 국명을 카나다로 고쳤다(종전에는 카나다 자치령). 1957년 미국과 공동 반항공 협정을 체결하고 량국의 련합 반항공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핵 무기 반입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의견 대립으로 디펜베이커 정권은 붕괴되고 1963년 4월 8일의 국회 선거 결과 미국의 핵 탄두로 카나다 무력을 장비할 것을 주장한 자유당의 피어슨 내각이 수립되였다.

1963년 8월 말에 미국이 카나다 군대에 핵 탄두를 공급할 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1964년 1월에 《보마크》 로케트 핵 탄두를 카나다에 배치하였다.

【총독】 디. 바니에 (1959년 9월에 취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총독이 임명하는 종신 의원 102 명으로, 하원은 임기 5 년의 의원 265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현 의회는 1963년 4월 8일에 선거되였다.

【정부】 현 내각은 1963년 4월 22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레스터 피어슨, 외상 파울 마르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6월에 창건, 1943년부터 로동 진보당이라고 부르다가 1959년 10월에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위원장 팀 버크, 총비서 레슬리 모리스 **자유당** (집권당) 친미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 한다. 당수 레스터 피어슨 **진보 보수당**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죤 디펜베이커

경제, 사회 카나다는 비교적 발전한 자본주의 공업—농업 국가이다. 니켈, 백금, 석면, 금, 알루미늄, 석유, 동, 철, 연, 주석, 우란 (매장량 2억 2,500만 톤)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산림은 전국 면적의 49%를 차지한다.

경제 명맥은 국내 독점체와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1년에 카나다에 대한 외국 투자액은 1950년의 87억 카나다 딸라로부터 230억 카나다 딸라로 팽창하였다. 그 중 미국 자본은 170억 딸라이다. 1963년에 카나다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약 200억 딸라로 증가하였다.

1961년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은 카나다 석유 및 가스 공업의 69%, 채광 공업과 가공 공업의 59%를 통제하였다. 미국은 최근 5 년 간에만 하여도 3 개의 카나다 회사를 장악하였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8%이며 총인구의 20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담배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밀, 원유, 신문 용지, 목재, 면직물, 니켈 및 알루미늄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 설비, 자동차와 부속품들 및 방직 원료 등이다.

1964년 3월 말에 실업자는 45만 6,000명이였다.

【출판】 통신—카나디안 프레스
신문—카나디안 트리뷴(공산당 기관지), 글로브 앤드 메일(진보 보수당 계통), 토론토 데일리 스타(자유당 계통)

미 국
(아메리카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면적】 936만 4,000km²
【인구】 1억 9,081만 8,000명 (1964년 1월 1일), 그 중 흑인 1,900만 명(10%), 인디안 55만 명
【수도】 워싱톤(주민 76만 명, 1960년)

정치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이 곳에 이주해 온 구라파 인들은 인디안 원주민들을 대량 살륙하면서 식민지를 확장하였다. 영국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불란서, 화란 등을 물리치고 북미의 대서양 연안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였음으로 량자 간의 모순이 격화되고 1775년에는 드디여 《독립 전쟁》 (1775—1781년)이 일어났다. 1776년 7월 4일 각 식민지 대표들의 제2차 《대륙 회의》는 《독립 선언》을 발표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1783년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그

후 1787년 9월 미 합중국 헌법이 제정되여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되였다.

19세기 초부터 북부에서는 근대적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흑인 노예 제도에 기초한 남부의 농업 지대와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였으며 1861년 4월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1865년 4월 《남북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났으나 흑인들은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인종 차별과 박해를 받았다. 전후 미국은 급속히 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 섰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령토 팽창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는 길에 들어 섰다. 멕시코에 대한 침략 전쟁(1846—1848년), 제정 로씨야로부터 알라스카의 강탈(1867년), 서반아로부터 비률빈, 괌도, 푸에르토 리코의 탈취(1898년), 하와이의 병합(1898년), 파나마 운하 지대의 탈취(1903년) 등을 위시하여 미국은 20세기 초기까지만 하여도 무려 100여 차의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다.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 서면서 미국은 제국주의 렬강 간의 세계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싸움판에 뛰여 들었다. 2차의 세계 대전에 참가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은 미제는 전후에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모험적인 길에 들어 섰다.

특히 미제는 《반공》을 총전략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하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나토, 세아토, 쎈토(원래는 바그다드 조약 기구) 등 수다한 침략적 군사 동맹을 조작하였으며 세계 각지에 군사 기지망을 늘어 놓았다.

한편 미제는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며 서구라파 국가들을 정치, 경제 및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1947년 《트루맨 주의》, 《마샬안》을 조작하였다. 특히 미제는 서부 독일 복수주의와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켰다.

경제 공황에 빠진 미제는 1950년에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에서 참패를 당한 후에도 미제는 1956년의 중동 침략과 웽그리야 사건 조작, 1958년의 레바논, 요르단 침략, 1961년의 베를린 위기 조작, 라오스 내정에 대한 무장 간섭, 남부 월남에서의 《선전 포고 없는 전쟁》 도발, 콩고 침략, 쿠바 히론 침공과 《쿠바 위기》의 조작, 조선 정전 협정의 계통적인 위반 등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침략과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모든 력사적 사실은 미제야말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이며, 국제 헌병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제가 전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국회】 상하 량원제, 상원은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 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은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1962년 11월 6일에 상원 중간 선거와 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1963년 1월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은 67 명, 공화당 33 명, 하원에서 민주당은 258 명, 공화당은 177명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 의장—결원, 하원 의장—존 매코맥(민주당)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며 정부 수반이며 륙해공군 최고 사령관이다. 그의 임기는 4년. 대통령 린든 비. 죤슨(1963년 11월 22일 케네디가 암살된 후 대통령 계승권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라 부대통령이 36대 대통령으로 취임)

국무 장관 딘 러스크, 국방 장관 로버트 에스. 맥나마라, 재무 장관 더글라스 딜론, 농무 장관 오빌 이. 프리맨, 범무 장관 로버트 에프. 케네디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아메리카 공산당과 공산주의 로동당이 통합(1921년 5월)하여 창건. 전국 위원회 위원장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 총비서 거스 홀, 최근 당 내에서 수정주의 지도부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 투쟁 과정에 《맑스-레닌주의적 공산당 창건을 위한 림시 조직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민주당** 당수 린든 비. 죤슨 (대통령으로 추천된 자가 자동적으로 당수로 된다) 전국 위원회 위원장 죤 베일리, 상원 원내 총무 맨스필드 **공화당** 지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차드 닉슨, 넬슨 록펠러, 바리 골드워터, 캐봇트 롯지 전국 위원회 위원장 윌리암 에드워드 밀러 **에이 에프 엘-씨 아이 오 합동로조** 독점 자본에 매수된 어용로조 지도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 위원장 죠지 미니 **독립 로조**로서는 **국제 부두 및 창고 로조, 국제 광산 제련 및 용해공 로조** 등 50개(1961년말)가 있다. **대외 정책 협회, 미국 재향 군인단, 2차 대전 참전 미국 퇴역 군인회, 미국 녀성 콩그레스,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3케이단, 전국 흑인 콩그레스**

【국내 주요 사건】 케네디 행정부는 1963년에도 위기에 허덕이는 경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며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발광하였다.

케네디는 1월 14일에 발표한 《일반 교서》에서 독점체들의 리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00억 딸라의 《감세 조치》와 《세금 제도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을 회유 기만하기 위하여 《빈궁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3,200만의 미국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느니, 《학교에도 못 다니고 취직도 못 하고 있는 100만명의 미국 청년들》에게 배움터와 일'자리를 주겠다느니, 보건

사업을 강화하겠다느니, 《공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겠다느니하는 빈 약속을 늘어 놓았다.

케네디는 이 《일반 교서》에 근거하여 1월 17일에는 《예산 교서》, 1월 21일에는 《경제 교서》, 1월 24일에는 《감세 특별 교서》, 1월 31일에는 《농업 교서》, 3월 10일에는 《실업 교서》, 4월 2일에는 《대외 원조 교서》, 7월 18일에는 《국제 수지 특별 교서》를 련거퍼 발표하였다.

이 수다한 교서들에 예견되였던 온갖 《시책》들은 모두 실패하였으며 제국주의 지배층과 근로자들 간의 모순은 가일층 첨예화되였다. 이것은 미국 로동 계급 및 흑인들의 계급적 및 인종적 투쟁이 격화된 데서 뚜렷이 반영되였다.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며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미국 로동 계급의 투쟁은 1963년에도 계속 완강하게 전개되였다. 투쟁에서 완강성과 조직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1963년에 미국에서는 103만명 이상이 참가한 3,400건의 파업이 있었으며 그 결과 1,780만 로동일이 상실되였다. 1962년 말에 시작된 뉴욕 인쇄 로동자들의 파업은 1963년 3월초까지 114일간 완강하게 계속되였으며 부두 로동자들의 35일간의 파업 투쟁은 미국의 동해안 전 지역을 마비시켰다.

특히 1963년도 미국 근로자들의 투쟁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흑인들의 인종적 해방을 위한 투쟁이 전례 없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5월 2일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알라바마주의 버밍감에서 폭발한 흑인들의 대중적 시위를 신호로 하여 흑인들의 해방 투쟁의 불'길은 북부주에까지 확대되여 미국 전국을 휩쓸었다(종전에는 주로 남부주들에 국한되여 전개). 데뮤소트에서 12만 5천명의 흑인들이 참가한 시위(6월 23일), 미국의 수도 워싱톤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12만명 흑인들의 시위(8월 27일), 시카고에서 단행된 25만 명의 흑인 소년들의 동맹 휴학(10월 22일) 등은 자유, 민주주의, 평등, 취업과 교육의 권리를 절규하는 미국 흑인들의 해방 투쟁이 얼마나 고조되였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실례들이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사건들 중의 하나는 케네디 피살 사건이다. 케네디는 11월 22일 텍사스주의 달라스시에서 피살되였다. 케네디가 피살됨에 따라 부대통령인 죤슨이 그날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죤슨은 민주당 내 보수파에 속하며 텍사스주 출신이며 부유한 목장 경영주이다.

11월 27일에 국회에서 한 취임 연설에서 죤슨은 케네디의 침략적인 군사 전략과 《평화 전략》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외 관계】 케네디 행정부는 1963년에도 악명 높은 《총 전략》에 계속 매여 달리면서 발광적인 전쟁 준비와 침략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교활한 《평화》 구호를 더욱 소란스럽게 불어댔다.

케네디 행정부는 1963년에 560억 딸라의 직접적 군사비, 30억 딸라의 대외 군사, 경제 《원조》비로써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였다.

6월 10일 《아메리칸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에서 케네디는 미제의 침략 정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도 《평화》에 대하여 그 어떤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지껄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를 고수》하기 위하여 《전쟁할 각오》를 하여야 하며,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를 내세우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평화》를 위하여 민족 해방 운동과 국제 로동 운동을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들의 전쟁 및 침략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놓았다.

미제는 이와 같이 흉악하고 간교한 량면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을 무력으로 위협, 탄압하며 기만적인 《평화》의 구호로써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극동과 아세아에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 세계 제패를 위한 전략의 예봉을 아세아 침략에 돌리고 있는 미제는 이 지역에 21만 5천 명의 미군 병력(륙군 8만명, 공군 3만 5천 명, 해병대 3만명, 공군 7만 명)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미제는 1963년에 이 무력의 핵 무장을 서둘렀는데 오끼나와와 일본의 공군 기지들에 수소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에프 105—디》형 전투 폭격기들을 배치하였으며 남조선에 대공 유도탄, 대만에 전술용 로케트들을 반입하였다. 또한 미제는 태평양 함대의 작전 구역을 인도양까지 확장하였으며 이 수역에 《폴라리스》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데 착수하였다.

동시에 미제는 일본 군대의 핵 무장을 계속 추진하였다.

한편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을 적극 고무하면서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케 함으로써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고 서둘렀다. 이러한 군사적 책동의 목적에 대하여 1963년 4월 일본에 와서 군국주의 두목들과 침략 계획을 모의한 미국 국방 차관 질패트릭은 《아메리카의 생각은 중공의 핵 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에 대결할 수 있는 핵 공격력을 일본에 제공하며…장차 만약 조선 반도에서 재차 위기가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 군사력의 재증강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의 해공군력과 함께 한국이 재차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벌렸다.

이러한 목적 밑에 미제는 남

선에서 빈번히 군사 연습을 였으며 대만 해협, 오끼나와, 본 등에서도 미군과 장 개석 대, 미군과 일본 군대의 합 전쟁 연습들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는 공화국 북반부에 한 도발 사건들을 계속 조작 하였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공과 령해를 설사이 없이 침 범하였다.

한편 미제는 1963년에 남부 월남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11월에는 괴뢰 느고 딘 디엠을 새로운 괴뢰로 갈아 치운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라오스의 중립과 제네바 협정을 파괴하고 라오스의 내정에 더욱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1963년 4월 민족 통일 정부 외상 폴세나와 중립파 군대 내 고위 장교들을 암살하고 라오스 애국 력량을 분렬시킴으로써 라오스 정세를 또다시 혼란 속에 밀어 넣었다.

1963년에 미제는 군사 원조를 강화하면서 인도 반동들을 반중국 소동에로 내몰았다.

이 밖에도 미제는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 련방》을 적극 비호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으며 캄보쟈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 쎄일론의 내정에 대한 간섭 등 추악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1963년에 미제는 이 두 대륙에서 인민들의 민족 해방 혁명과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62년 10월 이른바 《카리브 위기》를 조작한 미제는 1963년에 들어 와서도 꾸바 령공을 상시적으로 침범하면서 폭격, 정찰, 간첩 투입 등 침략 책동을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꾸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일층 강화하고 꾸바와 무역을 하거나 꾸바로 화물을 수송하는 영국, 불란서, 서반아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온갖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은 미국과 이 나라들간의 모순을 격화시켰을 뿐이다.

또한 미제는 꾸바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3월에는 미국과 중미 6개국 대통령 회의를, 4월에는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를 소집하였으며 11월에는 베네주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제국을 사촉하여 반꾸바 소동을 일으켰다.

꾸바의 영향력을 막으며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혁명 투쟁의 불'길을 끄기 위하여 미제는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을 계속 내 휘둘렀으며 페루, 과테말라, 에꾸아도르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아프리카에서도 미제는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콩고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였으며 《평화군》이니,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이니 하는 허울 좋은 미끼를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실패한 느크루마 암살 사건의 조작 등 파괴 암해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가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는 《평화군》은 1963년 말 현재 7천명이였으며 9,600만 딸라의 비용을 쓰면서 47 개 국에서 활동하였다.

구라파에서 미제는 자기의 침략 도구인 나토의 전쟁 능력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날뛴 것이 특징적이다.

우선 미제는 나토 핵 무력의 창설과 서부 독일의 핵 무장을 위하여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재해 벽두부터 들고 나왔으며 나토의 핵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중해에 3척의 《폴라리스》 핵 잠수함을 파견했으며 10월에는 1만 5천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을 미국 본토에서 서부 독일까지 수송하는 이른바 《빅 리프트》 (대공수) 작전을 벌려 놓았으며 서부 독일에서는 2만 5천대의 각종 차량이 동원된 서부 독일 력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을 감행하였다.

이 밖에도 미제는 끊임 없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계선에서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 위협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제는 7월부터 제네바에서 17개국 군축 회담을 벌려 놓고 마치도 자신이 군비 축소에 관심이나 가진듯이 세계 여론을 기만하려고 책동하였으며 7월 25일에는 쏘, 미, 영 간의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을 조작하였다. 케네디는 이 조약이 마치도 《평화에 대한 기여》로 되는듯이 극구 찬양하면서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려 하였다.

그러면서 미제는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 약 10여 차에 걸쳐 지하 핵 시험을 련거퍼 감행하였으며 8월 24일 미 국방성은 년간 1억 딸라를 예견하는 핵 시험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 31일에는 카나다에 《보마크》 로케트용 핵 탄두 28 개를 배치하였다.

1963년에 서방 세계에서의 미제의 정치, 군사, 경제적 령도권은 전후 처음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미국을 맹주로 하는 서방 동맹을 강화하려던 케네디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모든 조치들은 불란서, 영국, 서부 독일, 이태리 등 서구라파 렬강들의 반항 특히 불란서의 반대를 받아 모두 파탄되였다. 1월 14일에 있은 불란서 대통령의 기자 회견, 1월 28일 브류쎌 회담의 결렬과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의 실패, 1월 22일의 불독 협조 조약의 체결,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에 대한 서구 《동맹국》들의 반발, 5월에 있은 《가트》 각료 리사회 회의의 결렬 등은 서방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가 전례 없이 약화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나토와 《공동 시장》

참조).

경제 방대한 군사비의 지출, 대부, 수출의 확대, 외상 판매 등 경기를 인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케네디 행정부의 발광적인 조치에 의하여 1963년에 미국 경제는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약간의 생산 장성을 보았다. 그러나 방대한 실업군의 존재, 금융 재정에서의 적자, 부채의 증대, 국제 수지의 악화, 근로 대중의 빈궁화의 심화, 체화 상품의 격증 등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질환은 일층 악화되였다.

생산을 인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신용 대부와 방대한 군사비 지출은 련방 정부와 주 정부의 부채를 더욱 증대시켰으며 외상 판매는 근로자들을 더욱 많은 부채의 노예로 만들었다. 또한 해외 수출의 강압적인 확대 시도는 미국과 서부 렬강간의 모순과 경쟁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다.

【공업】 케네디 정부가 1963년에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신용 대부를 맹목적으로 확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의 장성률은 1962년의 8.3%로부터 4.6%로 내려갔다. 특히 1963년에 생산이 장성된 부문은 비행기 공업과 전자 공업 등 군수 공업 부문이였다. 또한 외상 판매와 대부로 내구성 소비품 생산도 약간한 활기를 보였다.

그러나 많은 공업 부문에서는 생산이 지난 시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하였으며 1963년에 인위적으로 자극하여 이룩된 약간한 장성도 심한 파동성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1963년에 공업 분야에서는 생산 능력의 15%가 년간을 두고 휴지 상태에 있었다. 특히 강철 공업 분야에서의 조업률은 67.5%에 불과하였으며 기계·제작 공업 분야에서의 조업률은 79%에 지나지 않았다.

【농업】 미국의 농업은 1963년에도 《과잉》 위기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 약 90억 딸라분의 《잉여》 농산물이 사장되여 있는 반면에 1,500만 명의 농민은 빈궁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농가의 평균 수입은 농가가 아닌 매 가정의 평균 수입의 55%에 불과하다. 결과 매년 파산되는 농가 호수가 늘어 가고 있는데 1959년부터 1963년까지 130만 개의 중소 농장들이 파산하였다. 그리하여 농촌 류랑민들의 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대외 경제 관계】 과잉 생산 위기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미제는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으나 서구라파 렬강 및 일본과의 치렬한 경쟁, 후진국 시장의 구매력의 약화 등으로 인한 수출 시장의 상대적 및 절대적 축소로 하여 대외 경제 관계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갔다.

《리자 평형세》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63년 국제 수지에서 적자는 첫 9개월 동안에만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5억 딸라가 더 많은 26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62년 1년간의 적자 총액 보다도 4억 딸라나 많은 것이다.

또한 케네디 행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또다시 4억 6,500만 딸라의 금이 해외로 흘러나가 미국의 금 보유량은 1963년 말 현재 미국 력사상 가장 적었던 1939년 5월에 비하여서도 2,200만 딸라나 적은 155억 9,600만 딸라로 감소되였다.

【예산 및 재정】 1963—1964 회계 년도의 미국 예산은 미국 력사상 처음으로 1천억 딸라선을 돌파하였다. 이 예산은 《전후 두번째의 대폭 적자 예산》인데 세입은 1,122억 딸라, 세출은 1,225억 딸라로서 103억 딸라의 적자를 예견하였다.

1963—1964 회계 년도 예산에서 직접적 군사비는 560억 딸라였는바 이는 전 회계 년도에 비하여 33억 딸라의 증가로 된다.

1963년 련방 정부 및 주 정부의 부채 총액은 3,774억 딸라에 달하였다. 그중 련방 정부 부채액은 1945년의 2,780억 딸라로부터 3,090억 딸라로 증가하였다.

군사 케네디는 일반 교서에서 《언제나 세계 열핵 전쟁, 상용 무기에 의한 제한 전쟁 및 은밀한 게리라 활동에 대처할 준비가 되여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미국 군사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되여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핵 무기 발전을 위하여 150억 딸라를 배당하였는데 이는 《구라파 동맹국들의 방위 예산을 합친 것과 거의 같을 것》이다.

동시에 미제는 《원자 전쟁과 함께 세계의 근본적으로 다른 지형에서의 국부적인 비 핵 전쟁의 요구에 맞게》 미 륙군 《정규 사단들을 미국 력사상 최대의 중무장을 갖추고 최대의 기동성을 가진 군대로 재편성》하였다.

한편 케네디 행정부는 《특수 전쟁》을 위하여 《공중 공격 사단》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특수 부대》를 계속 증강하였다.

사회 침략과 전쟁 준비 정책으로 계속 팽창하는 군사비의 지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은 더욱 강화되였다. 1963—1964 회계 년도 예산에서 매개 미국인 1인당 세금 부담액은 641 딸라인데 이는 전 회계 년도에 비하여 35.82 딸라의 증가로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동결되여 있는데 도매 물가 지수는 1963년 12월 현재 100.5로, 소매 물가 지수는 107.3으로 올라갔다 (1957—1959=100).

미국 로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1963년 12월에 생계비는 전년 동기의 105.8로부터 107.6으로 지나 1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또한 농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농민들의 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5억 딸라 축감되였다.

미국 민간 부채(개인 및 회사) 총액은 7,530 억 딸라인데 이는 1945년의 5배를 넘는다.

1963년에 미국에서는 실업 문제가 《가장 폭발적인 사회 문제》로 되였다. 1963년의 년간 실업률은 로동력의 5.9%였는데 1963년 3월에는 실업률이 7% (550만 명)에 달한 일도 있었다. 약 1,100만명이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었다.

문맹자는 1,100만 명을 넘는다.

1963년에 미국에서 범죄 건수는 200만 건 이상이였고 각종 사고로 10만 500 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매일 275 명, 매 시간에 11.5 명이 사고로 죽은 것으로 된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 수는 24분에 1명의 비률로 되여 있다.

【출판】 **통신**—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미국 정부의 공식 통신)

신문— 데일리 워커 (공산당 기관지), 뉴욕 타임스, 뉴욕 헤랄드 트리뷴, 월스트리트 저널, 크리스챤 싸이엔스 모니터

잡지—폴리티칼 아페어즈 (공산당 기관지), 포츈,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라이프, 룩크, 타임스, 뉴스위크

멕 시 코

(멕시코 합중국)

Republic of Mexico

【면적】 196만 9,000km²

【인구】 3,730만명(1962년), 그중 구라파—인디안 혼혈인 55%, 원주민 29%, 백인 15%이며 국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멕시코(주민 463만 명)

정 치 1519—1521년에 서반아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 9월에 독립하였다. 1846—1848년에는 미국이, 1861—1867년에는 영, 불, 서반아 침략자들이 침략하였고 1914년과 1916—1917년에는 미국이 무력 침략을 하였으나 인민들의 항거로 실패하였다.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멕시코에서도 로동 운동이 앙양되였다.

1934—1940년 간에 집정한 카르데나스 대통령(민족 부르조아지를 대표)은 인민들의 압력 밑에 1938년에 미, 영 석유 회사 및 광산 회사들을 국유화하였고 토지 개혁도 실시하였다.

1940년에 카마초, 1946년에는 레만 등 반동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미국 자본이 급속히 침투되였다.

멕시코는 꾸바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60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은 162명이고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아돌포 로뻬스 마떼오스 (임기는 6년, 1958년 12월 1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사회당에서 분리되여 창건되였다. 기관지 《라보스데 멕시코》 **혁명 조직당** (집권당)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국민 행동당** 대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인민 사회당, 로동자 총련합회, 로동 혁명 련맹 전국 위원회, 농민 중앙 련맹,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주요 사건】 1963년에 멕시코에서는 미제의 략탈과 간섭 행위를 배격 규탄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1월 6일에 중앙 독립 농민 동맹 창설 회의가 개막되였다. 회의 끝에 발표된 콤뮤니께는 동맹의 목적이 민주주의와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앙 독립 농민 동맹은 3월 3일 수도 멕시코에서 꾸바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군중 대회를 조직하였다. 10개주에서 온 대회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영웅적 꾸바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지지 옹호하였다.

3월 17일 멕시코 민족 해방 운동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라의 완전한 경제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은 멕시코의 현 석유 관리 당국이 민족적 리익에 배치되는 많은 《차관 협정》들을 국회의 승인도 없이 미국 회사들과 체결한 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10월 4—6일 간에 진행된 멕시코 민족 해방 운동 제 1 차 전국 대회에서는 80명으로 구성된 전국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민족 해방 운동 지도자이며 이전 멕시코 대통령이였던 라사로 카르데나스는 자기 연설에서 동 단체의 사명이 나라의 독립과 경제적 해방을 달성하며, 토지 개혁의 실시, 로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의 충족, 전체 인민의 일반 교육의 보장 및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존중이 보장되게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농민들은 토지를 점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1월 10일 소노라주의 2,000 명의 토지 없는 농민들은 완강한 투쟁으로 야지와 마오 계곡에 있는 큰 면화 재배 농장을 점거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모렐로스주에서 1,500명의 농민들이 토지를 요구하여 수도를 향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3년 3월에 내각 수상 유제프 찌란께비치를 단장으로 하는 파란 정부 대표단이, 10월에는 유고슬라비야 대통령 찌또가 멕시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농업과 광업이다. 인구의 5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면화, 커피(1962—1963년에 13.2만 톤 생산), 사탕이다.

공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다. 특히 은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 1963년에 원유 생산은 1,650만 톤이였다.

1961년에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8억 2,200만 딸라였는데 그 중 가공 공업에 대한 투자액은 4억 1,400만 딸라였다. 미국은 류산, 농약, 염료 등 화학 공업의 거의 전부, 전력 생산의 약 70%, 연 생산의 64%, 동 생산의 73%, 아연 생산의 76%, 은 생산의 41%, 금 생산의 2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면화 수출의 전부와 타면 공업의 70%, 커피의 수매 및 가공, 수출, 그리고 농기계와 비료의 수입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면화, 커피, 광물이고 기계 및 설비품, 강철, 자동차, 화학 공업 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1963년에 대외 무역 적자는 2억 5천만 딸라였다.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콜로라도 강에 흘러 드는 오염된 물 때문에 매년 1억 페소 (약 800만 딸라)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 기아와 전염병으로 매년 23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죽고 있다. 전 인구의 54%가 문맹자이며 약 300만의 학령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과 테 말 라

(과테말라 공화국)
Republic of Guatemala

【면적】 10만 8,900km²

【인구】 398만 명 (1962년 6월), 주민의 53.5%는 인디안, 35%는 인디안과 서반아인의 혼혈족, 기타는 서반아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과테말라 (주민 43만 7,000명)

정 치 1524년 이후 300여 년간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은 과테말라는 1821년 서반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중미 제국과 중미 련맹을 결성하였다. 1839년에는 이 련맹에서 떨어져 나와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31년에 집권한 조지 우비코 독재 정권이 1944년에 전복되고 아레발로 정권이 수립되였다. 미제는 진보적 정책을 실시한 아레발로 대통령의 재임 6년 간에 30여 차의 전복 음모를 꾸미였다. 1951년 3월 국내 민주 력량의 지지하에 아르벤즈 구스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아르벤즈 정부는 1952년 6월 미국 자본의 《유나이테드 파실 회사》와 대 지주들의 토지, 정부 소유지 등을 농민에게 분배할 토지 개혁법을 제정하였으나 미제와 국내 반동 계급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 하였다. 1954년 6월 미제의 사촉하에 아르마스가 정변을 일으켜 아르벤즈 정권을 전복하고 파쑈 독재 정권을 조작하였다. 1955년 6월 미국과 예속적인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안전 보장》이란 구실 밑에 무역을 미국의 관리에 내맡겼으며 군대의 관리를 미국 군사 사절단에 넘기였다.

1957년 7월 아르마스의 암살, 같은 해 10월의 군사 정변을 거쳐 1958년 1월부터 이디고라스가 반공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1959년에는 파업과 시위들이 련달아 일어 났으며 1960년 11월 13일에는 대규모적 반정부 무장 폭동이 폭발하였다. 미제는 해공군을 카리브해에 출동시켜 과테말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였다.

1962년 2월 초에 과테말라의 동북부에서 《11월 13일》 유격 전선이, 3월에는 나라의 중심부에서 《10월 20일》 유격 전선이 조직되여 무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3월과 4월에는 강력한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났으며 11월 25일에는 공군 반란이 일어났다.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은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1960년 4월에 꾸바와 외교 관계를 끊었으며 과테말라 령토는 반꾸바 책동의 근거지로 리용되고 있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은 66명, 임기는 4년이다. 2년 마다 절반을 개선한다.

【정부】 1963년 3월 30일 군사 정변에서 국방상 알프레도 엔리크 페랄타 아주르디아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이 1952년 제2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개칭, 1954년에 비법화.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라도 몬존 **해방당, 민족 민주 운동당** 1955년에 창건, 대 자본가와 봉건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 **혁명 통일당, 민족 혁명당, 기독교 민주당, 로동 조합**

【주요 사건】 1963년에 인민 투쟁의 앙양으로 독재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

1963년 3월 23일 동북부에서 유격대와 정부군 간의 무장 충돌이 일어 났으며 24일에는 유격대가 경찰차를 습격하여 다른 감옥으로 이송하던 로동 운동 지도자를 구출하였다.

이러한 무장 투쟁의 앙양에 당황한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은 3월 25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민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3월 30일 미제는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인민 투쟁 앞에서 무력하게 된 이디고라스 정권을 알프레도 엔리크 페랄타 아주르디아 군사 정권과 교체하였다.

군사 정부는 헌법을 정지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4월 10일에는 《포고령》을 발포하여 어떠한 형태의 공산주의 활동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무고한 애국적 인민들을 마구 체포 구금 학살하며 진보적인 출판물까지 압수하여 소각하였으며 야수적인 《로벨》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과테말라 인민의 반미 반독재 투쟁은 계속 세차게 전개되였다. 무장 유격대들은 인민들 특히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나라의 동북부와 남부에서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인민 무장 유격대들은 미국의 《유나이테드 파실 회사》에 속한 철도의 폭파를 비롯하여 정부군과의 전투, 교량, 전신 전화선 절단, 《라지오 인터나쇼날》 방송국 점거 등 끊임 없이 전투를 전개하여 미제와 군사 독재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도 치렬히 전개되였다. 특히 5월 30일, 6월 2일에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유격 운동 사령부의 호소가 나온 이후 인민들의 반정부 기세는 더욱 앙양되였다.

3월에 있은 2만 5천여 명의 대중적 반정부 시위, 1월, 2월, 5월에 있은 학생들의 동맹 파업, 7월 19일 과테말라 애국적 단체들의 공동 투쟁 결의 등 친미 독재자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이 련'이어 일어났다.

유격 전선이 날로 확대되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이 계속 앙양되고 있을 때 11월 30일 유격 총사령부는 선언문을 발표하여 아주르디아가 지도하는 군사 정권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규탄하고 더욱 적극적인 반미 반독재 투쟁에로 인민들을 호소하였다.

경제, 사회 과테말라는 지하자원이 그리 많지 못한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며 인구의 2.2%에 불과한 지주들이 전국 토지의 70.5%를 소유하고 있다. 국토의 3분의 2는 산악 지대이고 주요 농산물은 커피(1962년—1963년에 11만 톤 생산, 1962년 수출은 9만 3,100 톤), 바나나, 면화 등이다. 경제 명맥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 잡지 《포춘》지 1963년 12월 호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 회사의 직접 투자액만도 1억 2,700만 딸라나 된다. 1955년의 《석유 개발》법에 의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가들이 29 개의 석유 회사를 독점하고 있다.

미국의 《유나이테드 파실 회사》는 커피와 바나나 생산을 독점하고 년 평균 1억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주민의 75%가 문맹자이다.

살바도르

(살바도르 공화국)
RePublic of El Salvador

【면적】 3만 4,258 km²

【인구】 262만 7,000 명 (1962년 6월)

【수도】 산 살바도르 (주민 25만 2,591 명, 1960년 7월)

정 치 **【의회】** 1원제로서 의원 수는 4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훌리오 리베라 (1962년 7월 1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9년 창건 1932년에 비법화되였다. **민주 통일 혁명당, 전국 행동당, 《4월 5일 혁명》당, 독립 민주당, 로동자 련합 총회, 대학생 련합 총회**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며 전체 주민의 75%가 농사를 하고 있다. 주요 경제 부문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토지는 비옥하나 인구의 4%에 불과한 대 지주가 커피 재배지의 53%를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재배 면적 13만 헥타), 목화, 옥수수, 사탕, 콩, 쌀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동, 철, 석유, 석탄, 연 등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상태에 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수출 총액의 75%), 목화 등이며, 밀, 밀가루, 연유, 세멘트, 비료 등을 수입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일본, 화란, 영국이다. 주민의 약 57.5%가 문맹자이다.

혼듀라스

(혼듀라스 공화국)
RePublic of Honduras

【면적】 11만 2,088 km²

【인구】 195만 명 (1962년 6월), 주민의 대부분은 서반아인과 인디안의 혼혈인 (90%)이고 언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테구시갈파 (주민 12만 명)

정 치 1520년 이래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정변이 빈번하다. 1957년 11월 모라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963년 10월 3일 로페스 아렐라노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모라레스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군사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반공을 기본 정책으로 내놓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을 감행하고 있다. 10월 13일에는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파쑈 독재를 반대하는 무장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4월에 50명의 봉기군이 콘셉시온 데 마리아시에 있는 병영을 습격하였다. 10월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유격대의 한 소조가 수도의 방송국을 점령하고 군사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통일 해방 운동》의 명의로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군사 위원회】 1963년 10월 3일의 군사 정변후 조직되였다. 위원장 오스왈도 로페스 아렐라노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54년 창건, 1956년에 비법화되였다. **자유당** (집권당), **민족주의당, 민족 개량 운동당, 혁명 민주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며 취업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는 전체 인구의 5.2%에 불과한 지주들에 집중되여 있고

75% 이상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 등이다. 미국 회사인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와 《스탠다드 과실 회사》는 바나나 농장들과 공업, 체신 및 철도의 대부분, 수출의 60~70%, 수입의 30%를 장악하고 있다. 혼듀라스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억 5천만 딸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이며 수출의 90%는 농산물이다. 전체 인구의 70%가 문맹자이다.

영령 혼듀라스

Britisi Honduras

【면적】 2만 2,957 km²

【인구】 9만 1,000 명(1960년)

【행정 중심지】 벨리제 (주민 3만 953 명)

16세기 이래 서반아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862년 5월 12일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 7월 22일 영국 식민지성 대표와 혼듀라스 련합 인민당 대표간의 런던 회담에서 1964년 1월 1일부터 영령 혼듀라스에 제한된 내부 자치를 부여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면적의 92%는 산림 지대이며 경지 면적은 약 20 만 헥터에 불과하다. 주산물은 목재, 야자, 바나나, 쌀, 콩 등이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하고 수입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과 미국이다.

니카라과

(니카라과 공화국)

RePublic of Nicaragua

【면적】 14만 8,000km²

【인구】 152만 6,000명(1961년 6월), 주민의 70%가 서반아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다. 언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마나과(주민 23만 명)

정 치 1524년 이래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었다. 1821년 서반아의 기반에서 벗어나 중미 련맹에 참가하였다가 1838년 련맹 해산과 동시에 독립하였다. 1916년에 미국은 니카라과 정부에 강박하여 《브리안 챠모로 조약》을 체결하고 니카라과 운하 굴설권과 폰세카만과 콘 군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할 특권을 탈취하였다.

1937년 1월 군 총사령관인 소모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파쑈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 1956년 9월 소모사가 피살되자 그의 아들 소모사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3년 2월 폭압 속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모사의 민족주의 자유당의 르네 쉬크 구테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야당들은 선거 참가를 거부하였고 선거 당일에는 수도에서 선거를 반대하는 대 시위를 단행하고 경찰들과 충돌하였다.

1959년부터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무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1963년에 반정부 무장 유격 부대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여 대서양 연안의 산악 지대로부터 나라의 북부 지역인 하노테가주의 산악 지대에까지 진출하였다. 3월 20일에 무장한 청년들이 수도 마나과의 방송국을 습격하고 《전국 해방 전선》의 이름으로 반미 혁명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니카라과와 혼듀라스 및 코스타 리카 간에 국경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 나라 령토는 미제의 반꾸바 기지로서 리용되고 있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임기 6년의 의원 16명과 종신 의원 2명 (이전 대통령이 된다, 하원은 42명으로 구성되며 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정부】 대통령 르네 쉬크 구테레스

【정당, 사회 단체】 **사회주의당** 1939년에 설립,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 **민족주의 자유당**(집권당) 지도자 소모사 **전통 보수당** 지주와 천주교회의 세력을 대표하는 친미 반동 정당, 야당으로서 **독립 자유당, 공화 동원당, 《혁명 행동당》** 들이 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목화,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금, 목재 등은 주요 산물인 동시에 수출품이다.

경제는 미국 자본과 소모사 일가에 장악되여 있다. 전체 농호의 72.2%가 15%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반면에 농호의 1.6%에 불과한 대 지주 (500 헥터 이상 소유자)들이 경제의 41.9%를 소유하고 있다.

문맹자는 주민의 65%이다.

코스타 리카

(코스타 리카 공화국)

RePublic of Costa Rica

【면적】 5만 1,000 km²

【인구】 127만 5,000명(1962년 5월), 주민의 대부분은 백인 및 서반아인과 인디안의 혼혈종이다. 언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산 호세 (주민 15만 명)

정 치 16세기 초부터 서반아 식민지였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1963년 1월 오를리치 대통령은 헌법이 군대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962년 12월 《중미 국가 기구》가 결정한 중미 국가 군대들의 통합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1963년 3월 18일 수도 산 호세에서 미제의 조작하에 미국과 중미 6개국 대통령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꾸바를 반대하는 《중미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를 앞두고 코스타 리카에서 검거 선풍이 있었다. 한편 인민들은 이 회의를 반대하여 집회와 시위를 단행하고 미제의 꾸바 침략 책동을 배격하였다.

【국회】 1원제이며 의원 57명(1962년부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 프란시스코 오를리치 (1962년 2월 취임, 임기는 4년), 외상 다니엘 오두벨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전위당 전신은 1930년에 성립된 공산당이 1943년에 현재 이름으로 고침, 1961년 5월 비법화, 위원장 마누엘 모라 민족 해방당, 민족 련맹당, 자유당, 공화당, 꾸바 혁명의 벗 코스타 리카 협회

경 제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 코코아, 담배 등이다. 이 나라 외화 수입의 약 절반은 커피에서 들어 온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은, 철, 망간, 석유, 류황 등이 있으나 미개발 상태에 있다.

경제 명맥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외국의 직접적 투자액은 1억 딸라로 평가되는 데 그 중 미국 자본은 8,000만 딸라이다. 미국 자본은 바나나 생산의 85%와 바나나 수출의 전부, 카카오 생산의 40% 이상, 철도망의 65%, 석유 가공 기업과 판매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유나이페드 파실 회사》는 이 나라의 토지 면적 182만 1천 헥터 중 28만 9천 헥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철도, 무역도 통제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바나나, 코코아, 목화, 목재 등이고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과 서독이다.

파 나 마

(파나마 공화국)
Republic of Panama

【면적】 7만 4, 470 km²(파나마 운하 지대는 제외)

【인구】 114만 6,000 명(1962년 6월), 대부분이 인디안—구라파 혼혈인이고 기타 흑인, 백인, 인디안 등이 있다. 국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파나마 (주민 30만명)

정 치 파나마는 1501년 콜럼브스에 발견된 후 서반아 식민지로 되였다. 1821년에 콜롬비아에 편입되였다. 1903년 8월 콜롬비아가 미국의 운하 건설 조건을 거부하자 미국은 파나마에서 《혁명》을 조작하였다.

이 《혁명》에 의하여 1903년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였다. 1903년 11월 미국은 파나마와 불평등한 운하 협정을 체결하고 운하 굴설권과 운하 량쪽의 각각 8 키로 메터의 너비를 가지는 운하 지대의 영구 조차권을 탈취하였다. 미국은 3억 6,600만 딸라의 건설비를 들여 1904년 5월에 운하 건설에 착수하여 1914년 8월 15일에 완공하였다.

1915—1958년 간에 미국은 운하 통과료로 26억 딸라라는 막대한 수입을 얻었는데 그 중 파나마는 운하 임대료로 그것의 1%도 못 되는 2천만 딸라를 받은데 불과하다. 현재 미국은 운하 통과료 만도 매년 1억 딸라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나 그 중 불과 193만 딸라 만을 임대료로 파나마에 지불하고 있다.

파나마에는 미국의 《카리브해 통합 미군 사령부》를 비롯하여 미군 기지가 있으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범미 경찰 학원》, 《밀림전 학교》 등 군사 간첩 훈련 기관들을 설치하고 꾸바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을 파괴할 고용병과 간첩들을 기르고 있다.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특히는 꾸바 혁명의 영향 하에 최근 년간에 운하 지대의 귀속을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1958년 5월에 3,000 명의 파나마 학생들이 파나마 운하의 국유화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1959년 11월 3—4일에는 파나마 대학생들과 수도 시민들이 운하의 귀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단행하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미국 국기를 찢어 버렸다.

1960년에 파나마 인민의 반미 투쟁이 더욱 앙양되자 미제는 1960년 9월 21일 파나마 운하 지대에서의 파나마의 명목상 주권을 인정하고 운하 지대의 끝쪽에 미국 국기와 파나마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962년 10월 29일에는 운하 지대 관리 중심지인 발보아 언덕에 파나마 국기와 미국 국기를 게양하는 데 동의하였다. 1963년 1월에는 운하 지대 내에서 미국 국기와 동시에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 협정을 위반하고 1964년 1월 9일 운하 지대 내의 미국인 학교에서 미국 국기 만을 게양하였다. 이에 격분한 3천명의 파나마 학생들은 반미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은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으면서 급속히 전국 각지에 파급되였다.

분노한 인민들은 미제의 류혈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운하 지대의 귀속을 요구하면서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공보원》, 미국 《항공 회사》 등 건물에 불을 질렀으며 수도에 있는 미국인 기업체의 약 80%를 파괴해 버렸다.

인민들의 이러한 완강한 투쟁의 압력하에 파나마 정부도 1월 10일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단절하였으며 예속적인 《파나마—미국 운하 조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제는 증원 부대와 땅크,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류혈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파나마 인민의 애국 투쟁을 진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탄압이 오히려 파나마 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격발시키게 되자 그들은 《평화》요 《협상》이요 하는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나오면서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해 보려고 시도하였

다.

【국민 의회】 1원제로서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마르코 아우렐리오 로블레스 (1964년 5월 취임)

【정당, 사회 단체】 **인민당** 전신은 공산당인데 1942년에 인민당으로 개칭, 1953년부터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루벤 다리오 소우자, 기관지 《마소》 **민족 자유당, 전국 민족 애국 련합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로동 조합 총련맹, 인민 청년 련맹, 학생 련맹**

경제, 사회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인데 식량은 매년 국내 수요의 60%를 수입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철, 수은, 석유, 보키사이트 등이 있다.

경제는 미국 독점체에 장악되여 있다. 파나마에는 《운하 지대 회사》, 《유나이테드 파실 회사》, 《텍사스 석유 회사》 등 106 개의 미국 독점 기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회사들의 직접 투자액은 5억 5, 600만 딸라이다.

파나마에서는 미국 화폐 딸라가 공식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파나마 통화인 발보아는 전체 통화량의 3.6%에 불과하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와 략탈로 파나마 인민들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처지에서 시달리고 있다.

파나마 로동자들은 미국인 로동자의 6분의 1 밖에 안 되는 로임을 받고 있다. 파나마에는 5만 이상이나 되는 실업 및 반실업자들이 있다.

파나마 주민의 3분의 1이 문맹자이며 아동 사망률은 53%에 달한다.

【파나마 운하 지대】 면적은 1,432 km^2 (그 중 륙지 면적은 952 km^2), 운하의 길이는 81.3 km, 깊이는 12m (제일 깊은 곳), 너비는 91.5~300m이다.

꾸 바

(꾸바 공화국)
Republic de Cuba

【면적】 11만 4,500 km^2

【인구】 703만 350명 (1963년 1월), 주민은 서반아 계통의 백인과 혼혈종 및 흑인이다.

【수도】 하바나 (주민 115만 8,000명)

정 치

꾸바는 1492년 콜럼브스가 발견한 섬이다. 그후 16 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었다.

꾸바 인민은 식민주의 통치를 반대하는 해방 투쟁을 강화하였다. 1868—1878년에 제1차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으며 1895년에는 호세 마르띠의 령도하에 제2차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1898년에 있은 미국—서반아 전쟁의 결과 꾸바는 미국의 예속하에 들어 가게 되였다. 꾸바는 1902년 5월 20일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미제는 1903년에 강압적으로 관타나모를 강점하고 해군 기지로 만들었다. 미제는 1906년 꾸바 인민의 반미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09년까지 꾸바에 대한 총독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1912년, 1917년에도 직접 무력으로 인민 투쟁을 탄압하였다.

1933년 9월 4일 미제의 주구 바티스타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군사 독재를 실시하였다.

꾸바 인민은 미제의 예속과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였다.

1953년 7월 26일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꾸바의 애국자들은 바티스타 독재의 요새 《몽카다》 병영을 습격하여 무장 투쟁의 첫 봉화를 들었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82 명의 봉기자들은 멕시코로부터 《그란마》 호를 타고 국내로 진격하여 1956년 11월 25일 동부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이 상륙전에서 생존한 12 명은 일곱 자루의 총을 가지고 씨에라 마에스뜨라 산중에 유격 근거지를 설정하고 투쟁을 확대 강화하였다. 6천 명의 무장 대오로 장성한 봉기군은 1958년 4월부터 총공세로 넘어가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1월 3일에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낡은 독재 통치 기구를 청산하고 혁명적인 사회 개혁을 실시하였다.

꾸바 정부는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및 도시 개혁 등의 사회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외래 독점 자본가들 특히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지반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제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꾸바 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며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1962—1965년 4개년 경제 건설에 착수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미제의 강화되는 침략 책동을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영웅적 꾸바 인민은 1961년 4월 1,600여 명의 미제 고용군의 침공을 72 시간 동안에 소탕하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2년 10월 22일 꾸바에 대한 미제의 해상 봉쇄와 관련한 《카리브해 위기》에서 꾸바 혁명 정부는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으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미제의 침략을 파탄시켰다. 꾸바에서 로케트 무기를 철수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꾸바 혁명 정부는 10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카리브해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5 개 요구 조항 (1963년판 조선 중앙 년감 참조)을 제기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미제가 요구하는 쏘련 미싸일 기지 철수에 대한 《국제 감시》나 《꾸바에 대한 시찰》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쏘련은 미제의 요구에 의하여 미

싸일들과 《일—28》 폭격기를 꾸바에서 철수하였다.

꾸바 인민은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투적 구호 하에 미제의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봉쇄를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였다.

【대통령】 오스왈도 도르띠코스 또르라도 (1959년 7월 17일 취임)

【혁명 정부】 수상 피델 카스트로 루쓰

부수상 겸 혁명 무력상 라울 카스트로 루쓰

공업상 에르네스또 궤바라

외 상 라울 로아 가르씨아

로동상 아우구스또 마르띠네스 산체스

내무상 라미로 발데스 메넨데스

무역상 알베르또 모라 베쎄라

전국 토지 개혁 위원회 위원장 카를로스 라파엘 로드리게스

【정당, 사회 단체】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7월 26일 운동》, 《인민 사회당》 및 《3월 13일 혁명 지도부》가 통합하여 1962년 3월 8일에 조직된 통일 혁명 조직을, 1963년 초에 개칭하였다. 1963년 7월 31일 현재 3,260개 당 단체가 조직되여 3만4,000여 명의 당원 및 후보 당원이 망라되여 있다.

제 1 비서 피델 카스트로 루쓰

제 2 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쓰

비서국 성원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에르네스또 궤바라, 오스왈도 도르띠코스, 불라스로카, 에밀리오 아라고네스

혁명 로동 총 련맹 사탕 수수 직맹을 비롯한 25개의 산별 직맹을 가지고 있다. 서기장 라싸로 뻬냐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1962년 3월 30일 《꾸바 청년 봉기자 협회》를 개칭하였다. 총비서 미구엘 마르띤 **꾸바 녀성 련맹** 1960년 8월 23일 창건되였다. 위원장 빌마 에스삔 데 카스트로 **혁명 보위 위원회** 1960년 9월 28일 창설되였다.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전 인민적 조직으로서 매개 동, 반에 이르기까지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이에는 150만 명의 근로자들이 망라되고 있다. 위원장 호세 마따르

【주요 국내 사건】 꾸바 혁명 정부는 1963년에도 새로운 혁명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2월 8일 혁명 정부는 보건 기관에 대한 국유화법을 공포하고 전국에 있는 62개의 병원, 그리고 수 많은 진료소들을 국유화하였다.

10월 2일 혁명 정부는 미국 간첩과 반동의 온상으로 되고 있는 농촌 부르죠아지를 일소하기 위하여 제2차 토지 개혁법을 공포하고 1차 토지 개혁에서 제외되였던 5~30 카발레리아 (1 카발레리아=13.43 헥타)까지의 개인 소유 토지 (약 1만 호)를 국유화하였다. 이로써 꾸바 농촌에서 착취적 요소는 청산되였다.

11월 28일에 혁명 정부는 의무 병역법을 공포하였다. 법령에 의하여 17~45세 까지의 남자들은 군대에 복무하게 되는바 12월 1—22일 간에 전국적 범위에서 의무 병역 등록 사업이 진행되였다.

2월 22일 하바나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을 창건하기 위한 당원들의 첫 군중 대회가 있었다. 대회에서 카스트로 수상은 꾸바의 혁명 발전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다음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3월 30일에는 마딴사스주 당원 집회가 진행되였다. 카스트로 수상은 집회에서 당원들은 계급적 원쑤와 능숙하게 투쟁할 줄 알아야할 것과 로동 계급의 전위대로 당을 튼튼히 꾸릴 것을 제기하였다.

꾸바 정부는 1963년 하반기부터 경제 건설에서 사탕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8월 10일 전국 수력 자원 연구소 창립 1 주년 기념 집회에서 카스트로 수상은 금후 경제 건설에서 사탕 생산에 중심을 두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10월 15일 김 일성 수상은 우리 나라 정부가 불의의 재해를 입은 꾸바 인민에게 원호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꾸바 혁명 정부 수상에게 전문을 보내였다.

8월 14일 우리 나라 외무성은 미국 은행에 예금되여 있는 꾸바 재산을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동결한 것과 관련한 꾸바 외무성의 7월 22일부 각서를 지지하여 조선 주재 꾸바 대사관에 회답 각서를 수교하였다. 이에 앞서 1월 15일에는 하바나에서 플라야 히론 전투에서 희생된 영웅들의 기념탑 건립 기금으로 보낸 우리 나라 청년들의 지원 물자 전달식이 진행되였다.

1963년에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대표단 (3. 18—27), 꾸바 혁명 보위 위원회 대표와 문화 대표단, 그리고 직맹 대표단 (6월), 녀성 대표단(10. 21—11. 8)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친선 대표단 (1963. 12. 19—1964. 1. 22), 정부 통상 대표단 (1월), 《로동신문》사 대표단 (5. 18—6. 4)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꾸바는 우리 나라와 1963년도 통상 의정서 (2. 4), 텔레비죤 및 라지오 방송 분야에서의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2. 15),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3월)를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 4월 28—6월 3일에 카스트로 수상이 쏘련을 방문하고 5월 28일 쏘련—꾸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2월 26일 북경에서 중국 통상 대표단과 꾸바 경제 통상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1963년 9월에 중국 문화 대표단이 꾸바를 방문하였으며 중국 국경절을 전후하여 꾸바 무역 대표단을 비롯한 8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9월 27일 하바나에서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꾸바 전국 원호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월에 꾸바는 독일 민주

주의 공화국과 외교 사절을 대사급으로 승급시켰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3년 11월에 꾸바 정부는 동남 아세아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정부 대표단을 쎄일론과 기타 나라들에 파견하였다. 1963년 말과 1964년 초에 걸쳐 정부급 무역 대표단이 영국, 불란서 및 서반아와 기타 나라들을 방문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제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1963년에도 꾸바 혁명 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평화의 보장을 위한 5개 항목의 요구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제의 침략에 대처하여 조국을 철옹성 같이 보위하였다.

2월 꾸바 혁명 무력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카리브 해상에서 꾸바 비행기가 미국 선박을 사격한듯이 주장한 미 국방성의 성명을 반박하였으며 미제의 고용병들이 4월 25일 하바나 부근의 정유 공장을 폭격한 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4일 꾸바 혁명 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에 예금한 꾸바 재산을 동결시킨 데 대한 보복 조치로서 하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을 몰수하였다.

경 제

꾸바에는 니켈, 니켈, 망간, 철, 크롬, 원유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 하에서 개발되지 못 하였었다. 경제는 식민주의자들의 강요로 사탕만을 생산하는 단작 경리 국가로 전락되였다.

꾸바에서는 1959년 5월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46만 5,000 카발레리아 (전국 경리의 70%)의 토지를 몰수하여 약 15만 호의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2～5 카발레리아의 토지를 분배하였다.

1963년 10월 2일 제2차 토지 개혁 법령을 발표하여 1차 토지 개혁에서 제외되였던 5～30카발레리아의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그리 하여 정부는 총 토지 면적 67만 카발레리아 (967만 7,000 헥타)중 75%를 국유화하였다.

꾸바 정부는 혁명 후 토지 개혁으로 형성된 15만 4,703 호 (이들은 234만여 헥타를 소유하고 있다.)의 소농 경리를 협동화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신용 대부 및 판매—공급 협동 조합》을 광범히 조직하고 있는바 소농들은 자원적으로 이 조직에 참가하고 있다.

꾸바 정부가 실시한 산업 국유화에 의하여 모든 산업이 국유화되였다. 1960년 8월 6일과 10월 25일에 공포한 국유화법에 의하여 미국 독점체들의 소유였던 12억 딸라에 달하는 80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그들의 일체 재산이 인민의 소유로 전변되였다. 이리 하여 1962년 말에 꾸바에서 공업 생산액의 90% 이상이 국가 또는 기타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에 의해서 보장되였다. 제조 공업은 1963년말 현재 97%가 국유화되였는바 정부는 1964년말까지 전부 국유화할 방침이다.

꾸바의 인민 경제에서 전 인민적 소유는 농업 부문에서 70%, 공업 부문에서 95%, 건설 부문에서 98%, 운수 부문에서 95%, 도매 상업 부문에서 100%, 소매 상업 부문에서 7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1961년부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은행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꾸바에서의 제반 개혁과 경제 건설은 미제의 경제 봉쇄와 무력 침략 책동 속에서 진행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1962년부터 락후한 농업—공업 국가를 현대적인 농업—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할 인민 경제 발전 4 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꾸바 혁명 정부는 1963년 말부터 사탕 생산을 급속히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일부 조절하고 1970년에 가서 1,000만 톤의 사탕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1959—1963년 간에 경제는 평균 6～7%의 속도로 장성하였다.

【공업】 1963년 공업 생산액은 1962년에 비하여 6% 장성하였다. 1963년에 강철 생산은 혁명 전의 12 배, 니켈 정광 생산은 2만 6,000 톤에 달하였다. 꾸바 정부는 니켈 공업과 제철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리엔떼주에 큰 제철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962년에 꾸바에서는 원유 산지와 함께 세계 굴지의 니탄 산지 (매장량 7억 톤)가 발견되였으며 이에 대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니탄을 리용한 25만 키로왓트시 능력의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었다.

꾸바에서 1963년에 26 개 공장, 기업소들이 준공하였으며 새로운 32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 중에 있었다.

꾸바 혁명 정부는 제탕 공업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1965년에 550만 톤, 1966년에 600만 톤, 1967년에 700만 톤, 그리고 1970년에는 1,000만 톤의 사탕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1962년 이래 꾸바에서는 전례 없는 심한 한발로 하여 농업 생산이 일부 감소되였다. 특히 1963년 10월 초에 있은 《플로라》 태풍으로 인하여 동부 지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63년에 사탕은 388만 톤 생산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0톤)

	1958	1960	1961	1962
담배	50.6	45.3	57.6	59
벼	225.9	304.2	—	320
옥수수	—	—	269.8	342.6
유지작물	—	—	184.0	300.7
면화	—	—	18.6	36.74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목지와 사료 작물 재배 면적을 확장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소는 1961년의 577만 6,358 두로부터 1963년 말에는 638만 1,250 두로 늘었다.

교육, 문화 꾸바 혁명 정부는 1961년을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주민의 23%에 달하는 문맹자를 완전히 퇴치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맹자 없는 첫번째 나라로 되였다.

1963년에 교육비는 혁명전 1958년의 3 배나 되는 8억 3,000만 페소였다.

정부는 반독재 혁명 봉기군 근거지인 씨에라 마에스트라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도시를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까밀로 씨엔뿌에고스》, 《씨우다드 리베르 따드》 등 학교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다. 1963년에는 1958년에 비하여 교원 수와 학생 수가 3 배로 장성하였다. 1963년에 초등 학교 학생 수는 127만 명, 중등 학교 학생 수는 12만 5,000 명으로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정부는 인민 경제 건설에 필요한 기술 간부 양성을 위한 기술 강습소들을 광범히 설치하고 있다. 1963년 말까지 41만 6,000 명의 로동자, 농민들이 일하면서 초등 및 중등 학교 수준의 특별 강습소에서 공부하였다.

꾸바에는 3 개의 종합 대학이 있는 데 하바나 종합 대학에서만도 1만 2,853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1963년에 학교 수는 1만 2,000 개로 늘었고 7만 7,104 명의 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0—1963년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2만 228 세대의 현대적인 문화 주택을 건설하였다.

꾸바 정부는 1963년에 보건 부문에 1억 1,970만 페소를 지출하여 병원, 진료소, 료양소, 휴양소 등을 광범히 건설하였는바 이 금액은 1962년보다 3,070만 페소가 더 많은 것이였다. 1962년에 의사 수는 주민 1,000 명에 0.9 명이 차례졌으며 산간 벽지에까지 진료소 망이 늘어 갔다.

【출판】 통신—쁘렌사 라띠나 (혁명 후 창설된 통신사로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큰 통신사이다.)

신문—레볼루씨온 (혁명 정부 기관지), 노띠 씨아스 데 오이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기관지, 부수 25만 2,000 부), 메리아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기관지)

쟈마이카

Jamaica

【면적】 1만 1,400 km²

【인구】 163만 8,000 명(1961) 주민은 흑인(80%), 혼혈인 (17%), 인디안, 백인 등이다.

【수도】 킹스톤(주민 12만 3,213 명)

정 치 꾸바의 남쪽 해상에 있는 섬 나라이다. 1670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원 주민인 아라와크 인디안은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16 세기에 전멸되였고 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후손이다. 1958년에 영 제국주의자들은 쟈마이카와 기타 서인도 제도로써 《서인도 련방》을 형성하였다. 쟈마이카는 1962년 8월 6일 《련방》에서 탈퇴하고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6월 6일 미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기로 하였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21 명(그중 13 명은 수상이 추천), 하원은 45 명이고 임기는 각각 5년이다. 1962년 4월의 선거에서 부스타멘테의 로동당이 26 석, 인민 국민당이 23 석을 차지했다.

【정부】 수상 알렉산더 부스타멘테

경 제 기본은 농업이고 주산물은 사탕, 커피, 코코아, 담배이다. 보키사이트(매장량 5억~6억 톤으로 추산)의 채굴은 미국—카나다계의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하 이 티

Republic of Haiti

【면적】 2만 7,800 km²

【인구】 434만 6,000명 (1962년 6월), 주민의 95%가 흑인이며 기타는 혼혈종이다. 언어는 불란서어이다.

【수도】 포르토 프란스 (주민 25만명, 1961년 현재)

정 치 하이티는 1492년부터 서반아 식민지로 있다가 1697년부터는 불란서 식민지로 되였다. 하이티 인민들은 1804년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1806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리 하여 하이티는 세계에서 첫 흑인 공화국으로 되였다.

1915년에 미국은 하이티를 강점하고 그를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켰다. 1934년에 미국은 반미 운동과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이 나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9년부터 해외 망명자들로 조직된 《하이티 혁명 해방 전선》의 령도 하에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통일 전선체인 하이티 전국 해방 운동은 자기의 혁명 강령을 발표하고 자기의 사명이 하이티의 모든 력량과 애국자들을 단합하여 폭정을 전복하고 민족적 리익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 민족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였다.

강령은 대외 정책 분야에서 국가 주권을 보호하며 평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을 지지하며 대내 정책에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1962년 1월에 있은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하이티 대표는 미제의 압력에 못 이겨 꾸바를 《미주 국가 기구》에서 《축출》할 데 대한 결의에 찬성하기는

하였으나 회의 과정에 구바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이티는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미제는 하이티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지하는 한편 새로운 친미 독재 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내정 간섭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의회】 1961년 4월부터 량원제를 폐지하고 1원제의 립법 의회를 수립, 의원 수는 58 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에프. 듀발리에 (1963년 5월에 재취임)

【정당, 사회 단체】 **인민 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의 후신으로서 1951년에 비법화되였다. **민족 통일당** (집권당), **사회 민주당,《하이티 혁명 해방 전선》, 하이티 전국 해방 운동, 전국 로동 총 련맹**

【주요 사건】 1963년에 미제는 하이티에서 민주 력량의 강력한 진출의 강화로 현 듀발리에 독재 정권의 지반이 약화되고 있는 데 비추어 보다 더 반동적이며 친미적인 다른 괴뢰를 정권에 들여앉히려고 하이티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3월 17일 미 하원 의원 존 필리온은 미 국무 장관 러스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이티는 오늘날 불안과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뒤엉킨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하면서 《행동 계획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케네디는 기자 회견에서 하이티 《사태가 긴장되여》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떠벌렸다.

한편 미제는 자기의 《주구》들을 사촉하여 4월 21일과 22일에 수도에서 반정부 삐라를 살포케 하는 등 반듀발리에 음모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또한 미제는 듀발리에 정권을 반대하는 하이티 《망명군》과 국 반동 분자들에게 직접 무기를 제공하여 내란을 도발하도록 사촉하였다. 이것을 발단으로 4월 24일에는 하이티, 도미니카 국경 분쟁까지 일어나 량국간에 긴장 상태가 조성되였다.

미제는 도미니카를 적극 고무 추동하는 한편 자기의 해군 함대와 기타 수단으로 하이티를 위협하였다.

이에 반하여 듀발리에 독재 정부는 4월 26일 미 해군 《사절단》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6월 14일에는 하이티 주재 미국 대사관 군사 아따쉐를 추방하였다. 8월 6일에는 동북 국경 지대를 전쟁 지대로 선포하고 미국 민간인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듀발리에는 미국의 《원조》가 단절되자 체코슬로바키야, 파란 등 사회주의 나라들과 경제적 련계를 맺는 길로 들어 섰다. 3월 6일 체코슬로바키야 통상 사절단이 하이티를 방문하였다. 1963년에 하이티 혁명 해방 전선의 령도하에 하이티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5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반대하여 포르토 프란스에서 《통일 혁명군》의 반정부 음모 사건, 7월 23일 듀발리에 독재 《정부군》을 반대하여 일어난 무장 충돌 사건 등을 비롯한 반미 반정부 투쟁이 년중 계속되였다.

경제, 사회 하이티는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농업국이다. 경지는 전국 면적의 3분의 1이며 주요 농산물은 커피 (전체 수출의 66%),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 면화 및 담배이며 식량은 부족하여 수입하고 있다. 나라의 대부분 경제는 미국 독점 자본이 장악 (외국 자본의 70%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유인 《하이네이 회사》는 하이티의 철도, 조선소 및 제탕 공장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2만 3,000 헥터의 사탕수수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이티의 풍부한 보키사이트와 아연광 및 전력 생산과 대외 무역도 모두 미국인 회사에 집중되여 있다. 1963년 10월 7일 태풍 《플로라호》로 인하여 4천여 명의 사망자와 10만호의 집을 상실 당하였고 전 령토의 5분의 2가 황폐화되였다.

하이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이며 1960년에 이 나라의 실업자 수는 15만 명이였으며 주민의 85%가 문맹자였다.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Republic of Dominica

【면적】 4만 8,700 km²

【인구】 320만 5,000명 (1962년), 주민의 대부분은 흑—백 혼혈인, 인디안—구라파 혼혈인이다. 서반아어를 사용한다.

【수도】 산토 도밍고 (주민 47만 7,782명, 1960년)

정 치 도미니카는 1492년부터 하이티와 함께 서반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795년에 불란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가 1801년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844년에 이 섬의 동부가 분리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0년 정변 이후 22년간 라파엘 트루힐로의 테로 독재가 계속되였으며 1952년 5월에는 그의 동생이 집권하였다.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의 압력으로 발라궤르 (1960년에 집권)는 1962년 1월 16일에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해 1월 18일 공군 장교 그루매들은 미국 림시 대리 대사의 직접적인 추동하에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1월 16일에 전복되였던 반동적인 《국가 회의》를 재수립하였다. 같은 해 12월 테로와 기만 속에서 진행된 총선거에서 후안 보슈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대통령】 에밀리오 데 로스 산토스 (1963년 9월 25일 군사 정변 이후 림시 집권자)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사회당** 전신은 1942년에 창건된 공산당을

1946년에 현명칭으로 개칭하였다. 1947년 8월에 비법화되였다. 《민족 공민 동맹》, 《도미니카 혁명당》, 도미니카 해방 운동, 《6월 14일 혁명 운동》, 로동 련맹, 기독교 민주당

【주요 사건】 1963년에 보슈 독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진보적 애국 력량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미제의 사촉하에 하이티에 대한 악랄한 간섭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재정, 군사적 원조 하에 보슈 정권은 하이티 《망명군》들을 사촉하여 반란 음모를 자주 일으키게 하였으며 4월에는 도미니카, 하이티 국경 충돌 사건을, 8월 6일에는 하이티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 공격을 조작하였다. 도미니카 인민들은 보슈 정부의 반동적 정책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2월 26일 수도 청년들의 반미 반정부 시위, 5월 7일의 2만여 명의 공무원들의 반정부 파업 투쟁, 7월의 미국 회사 소속의 사탕 농장과 《라로마나》 제탕 공장 로동자 약 2만명의 파업 등이 전국 각지에서 련일 계속되였다.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으로 보슈 독재 정권이 극도의 위기에 처하자 이에 당황한 미제는 주구의 교체로서 자기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여 보려고 획책하였다.

9월 25일 미제의 사촉하에 반공 군사 정변이 일어나 독재자 후안 보슈 정권이 전복되였다. 새로운 《군사 정권》은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모든 진보적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9월 28일에는 도미니카 혁명당 위원장 미올린을 체포한 것을 비롯하여 수 많은 애국자들을 투옥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류혈적인 탄압을 박차고 군사 정권을 반대하여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0월에 있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 10월 27일의 8천여 명 수도 시민들의 반정부 군중 대회 등이 있었으며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유격 투쟁이 일어났다. 유격부대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북부와 중부 산악 지대의 6개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민들의 반정부 무장 투쟁은 《도미니카의 해방 운동》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자기의 활동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 사회 도미니카는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되는 농업 생산물인 사탕수수는 국민 소득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등이 생산된다. 원탕를 비롯한 약간의 주요 농업 생산물을 수출할 뿐이고 식료를 비롯한 기계, 철강, 석유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을 포함한 경제의 주요 부문은 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으며 16 개 제탕 공장 중에서 9 개가 미국 자본에 속해 있다.

인민들은 무권리와 기아에서 헤매고 있다. 학령 아동의 절반이 공부를 못 하고 있으며 주민의 60% 이상이 문맹자이다. 대부분의 주민은 카톨릭교를 믿는다.

트리니다드—토바고

RePublic of Trnidad and Tobago

【면적】 5,128 km²(그중 트리니다드 4,828 km²)

【인구】 85만 9,000 명(1961년) 주민은 흑인 (43%), 인디안 (36%), 혼혈인, 백인 등이다.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 (주민 9만명)

정 치 카리브해에 있으며 1797년까지 서반아의 식민지로, 1802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1958년에 자마이카 및 기타 섬들과 함께 서인도 련방에 편입되였다가 1962년 8월 31일 영 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21명, 하원은 30 명으로 구성, 1961년 12월 선거에서 윌리암스의 인민 민족 운동당이 20 석, 민주 로동당이 10석을 차지했다.

【정부】 수상 에리크 윌리암스

경 제 주요 지하 자원은 석유와 피치이다. 1963년 석유 생산량은 700만 톤이였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 카카오이다.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공화국)

Republic of Venezuela

【면적】 91만 2,000 km²

【인구】 759만 명 (1961년), 주민으로는 인디안—구라파 혼혈인, 흑인—백인 혼혈인, 백인, 흑인, 인디안 등이 있다. 국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카라카스 (주민 125만 명)

정 치 1550년부터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에 독립하였다. 1821년에 콜롬비아의 일부로 되였다가 1830년에 독립하여 공화국으로 되였다. 1948년 11월 총참모장이였던 히메네스는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그후 1953년 1월 대통령으로 되였다. 1958년 1월 공군과 인민의 폭동으로 히메네스 독재 정권은 전복되고 군사 정부가 수립되였다. 군사 정부는 히메네스 독재 정권이 1950년에 선포한 정당 비법화 법령을 취소하는 등 일부 민주주의적 조치를 취하였다.

1958년 12월 선거에서 베탕쿠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베탕쿠르 정부는 혁명 력량의 장성에 질겁하여 점차 우경화하여 친미 독재 정권으로 되였다. 1961년 11월에는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1962년 5월에는 공산당과 《좌익 혁명 운동》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10월에는 헌법상의 담보마저 페지하여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베탕쿠르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앙양되였고, 그것은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62년 5월 베네주엘라 제2의 군항 카루파노 해군 륙전대의 폭동, 6월에는 베네주엘라 최대의 해군 기지 해병대의 폭동이 일어 났고 혁명적인 정당들로 민족 해방 전선이 조직되였다. 민족 해방 전선은 민족 해방군을 창설하였다. 학생, 로동자, 농민, 자유 직업자 및 장교 등 광범한 계층들로 구성되여 있는 민족 해방군은 일부 주 및 도시에로 진출하면서 투쟁하였다.

【대통령】 라울 레오니 (1963년 3월 11일 취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52 명, 하원 의원은 133 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7년 8월에 창건되였고 1950년에 비법화되였다.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가 1963년 10월에 다시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헤수스 파리아 **민족 해방 전선** 1962년 6월에 공산당을 비롯한 혁명적 당들로 조직 **민주 행동당**(집권당) 1941년 창건, 외국 독점체들과 련계를 가지고 있는 파두 정치 세력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공화 민주 련맹**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당** 지주, 대상업가, 고리대업자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좌익 혁명 운동》** 1960년 4월 민주 행동당과 분렬하여 조직되였다. 석유 공업의 국유화, 대토지 소유제의 청산을 주장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있다. 1962년 5월에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안토니오 델가도 로자노

【주요 사건】 베탕쿠르 친미 독재 정권은 인민들의 앙양되는 투쟁을 탄압하기에 날뛰는 한편 꾸바를 반대하는 추잡한 책동들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은 전례 없이 앙양되여 베탕쿠르 독재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갔다.

독재 정부는 2월, 6월, 9월 및 10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애국 련망을 대량적으로 검거하였으며 미군 장교의 직접 지휘 밑에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토벌 작전》을 빈번히 벌려 놓았다. 2월에 베탕쿠르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상전에 《원조》를 애걸하였다. 인민 탄압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5월에 비상 법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박두 함에 따라 인민 탄압은 더욱 우심하여졌다.

9월 30일에는 공산당 및 좌익 혁명 운동당 출신 국회 의원들의 특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체포하였다. 10월 6일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군 부대가 질서를 유지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예비병 소집 권한까지 국방성에 주었다. 민족 해방군의 공세에 대처하여 11월 30일부터는 《특별 안전 조치》를 취하고 시내에서 차량 주행 속도를 15 마일로 제한하고 선거장에 이르는 모든 거리들에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였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인민들의 주목을 딴데로 돌리며 꾸바를 반대하기 위하여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에 공급되는 《꾸바제 무기》들이 발견되였다는 허위를 날조하고 이를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에 제소하는 기만극을 벌리였다. 12월 9일 《미주 국가 기구 조사단》이 베네주엘라에 기여들었다.

12월 1일 베탕쿠르 도당은 테로와 폭압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날조하였다. 1963년에 민족 해방 전선의 령도하에 《조국의 해방이냐 베네주엘라를 위한 죽음이냐》하는 구호 밑에 무장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민족 해방군은 농촌 유격전을 무장 투쟁의 기본 형태로 하면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1963년에 20 개 주 중 11 개 주에서 투쟁하였다.

년초에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 유격 부대 전국 사령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1963년도 3 대 중심 과업으로서 민족 해방군 대렬의 확대, 민주주의 통일 전선 형성, 혁명 투쟁의 계속 전개를 제기하였다. 그후 카라카스에서 민족 해방 전선 제1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 및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을 쟁취하며 민족적 재부와 자원들을 베네주엘라에 귀속시키며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인민 정부를 창설할 데 대한 행동 강령을 채택하고 지도부를 선거하였다.

2월 11일 민족 해방군은 수도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산 안토니올로스 발로스시를 공격하여 수 시간 동안 점령하였으며 2월 13일에는 민족 해방군 소부대가 베네주엘라 화물선 《안조아테구이》호를 나포하였다. 미제는 함대와 항공기를 동원하여 푸에르토 리코로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온갖 위협과 공갈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월 18일 브라질 항구에 도착하였다. 베탕쿠르의 대통령 취임 4 주년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어난 이 사건은 베네주엘라 반동 지배층들과 미제에 심대한 타격과 일대 혼란을 주었다.

6월 5일 민족 해방군의 한 유격대 그루빠가 카라카스에 있는 미국 《군사 사절단》의 건물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환하였으며 미국 국기와 이전 대통령인 죠지 워싱톤의 초상화를 불살아 버렸다. 11월 27일에는 미 《군사 사절단》 부단장 체놀트 대좌를 생포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민족 해방군 소속 학생들이 슈다드보리바시를 출발하여 수도로 비행하는 려객기 1대를 랍치하고 《대통령 선거》를 보이꼬트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다.

이외에도 방송국, 경찰서들과 미국 석유 회사들, 백화점, 영국인의 방적•공장 등을 습격하여 미제와 독재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베네주엘라는 농업과 광업을 위주로

하는 반 봉건, 반 식민지 나라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와 철광석이 풍부하며 기타 금, 석탄, 망간, 니켈, 수은, 류황 등이 있다.

경제 명맥은 미국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베네주엘라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투하된 미국 자본의 60%가 집중되여 있으며 미국 자본은 이 나라에 투하된 외국 자본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잡지 《포춘》지 1963년 12월호에 의하면 베네주엘라에 투하된 미국 회사들의 직접 투자액은 28억 2,600만 딸라이다.

1963년에 석유 생산량은 1억 6,960만 톤으로서 세계 제3위였으며 수출은 세계 제1위이다. 이 나라 외화와 국고 수입의 70%는 석유 수출과 석유 산지 임대료에서 얻어지고 있다. 석유 부원은 미국의 3 대 석유 회사에 장악(그중 《스탠다드 오일》 회사만도 베네주엘라 석유 생산의 70% 장악)되여 있다. 미제는 철광석 채굴권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1년에 65%의 함유량을 가진 철광석 1,600만~1,700만 톤을 채굴할 수 있는 5만 7천 헥터의 철 매장지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농촌에서는 1.5%의 대 토지 소유자들이 유용 토지의 78.7%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71.6%의 농민들은 겨우 2.3%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1962—1963년도에 5만 1,000톤 생산), 코코아, 밀, 담배, 사탕, 면화 등이다. 농업은 극히 락후하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철광, 코코아 등이다. 석유와 철은 수출 총 량의 97%를 차지한다.

미제의 가혹한 략탈과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인민 생활은 극히 가난하다.

실업자 수는 70만 명에 달하며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농촌에는 아무런 의료 시설도 없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공화국)

Republic of Colombia

【면적】 113만 9,200 km²

【인구】 1,476만 8,510 명 (1962년), 주민은 서반아—인디안 40%, 백인 30%, 기타 인디안 흑인들이다. 국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보고타 (주민 132만 923 명)

정 치 1499년에 콜럼브스에 의하여 발견된 후 서반아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819년에 독립하여 대 콜롬비아 련방을 형성하였다.

1829—1930년에 베네주엘라, 에쿠아도르가, 1903년에는 파나마가 련방에서 떨어져 나갔다.

1948년 이래 보수당 정부는 친미 독재 정치를 실시하면서 근 20만 명의 인민을 학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가담하였다. 1952년에 미국과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7년 12월 《국민 투표》를 조작하고 앞으로 12년간(1958년 4월, 16년으로 수정) 자유당과 보수당이 4년 간식 교대로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최근 년간 주권과 자유를 옹호하며 토지를 위한 인민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으며 유격대의 무장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1959년 6월 25—27일 콜롬비아 국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통령】 레온 발렌시아 길레르모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80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 의원은 148 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총비서 힐베르토 비에라, 기관지 《보즈 데모크라시아》 **자유당**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보수당** 지주, 교회, 대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미국 독점 자본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자유 혁명 운동당, 로동 련맹, 전국 농업 로동자 련맹, 통일 로조 위원회**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호 총수의 3%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의 61%가 토지의 3%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주산물은 커피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이고 기타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등도 생산된다. 커피는 1962—1963년도에 45만 톤 생산되였고 1963년에 27만 7,000 톤을 수출하였다.

주요 지하 자원은 석유(1963년 생산량 830만 톤), 석탄, 금, 백금 등이다. 미국 독점체들과 국내 대 자본가들이 경제 명맥을 쥐고 있다. 미국 회사들의 직접 투자액은 4억 5,600만 딸라이며 특히 원유 채취의 85%, 공업 총 생산액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위주이며 여기에는 약 27만 명의 로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1963년에 생계비는 35% 올랐다. 주택 부족 수는 28만 세대이다. 아동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로서 기아와 병으로 매년 1천 명의 아동중에서 150 명 이상이 죽는다. 주민의 50%가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영령 기아나

【면적】 21만 4,970 km²

【인구】 58만 2,000 명(1961년), 주민중 인도인이 49.2%, 아프리카인 후손이 31.7%, 혼혈인이 12.2%, 아메리카 인디안이 4.6%이고 기타 포도아인, 중국인, 구라파인이 있다.

【수도】 죠지타운(주민 12만 명)

정치 기아나는 1814년에 영국 식민지로 되였다. 이 나

라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자 영국은 1953년에 헌법을 허용하고 4월에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인민 진보당의 자간 정부가 수립되였다. 자간 정부의 일련의 민주주의 개혁 강령에 당황한 영국은 이 해 10월에 무력으로 자간 정부를 전복하였다. 1957년 8월의 선거에서 인민 진보당이 승리하여 자간 정부가 또다시 수립되였다. 1960년 3월 《헌법 제정 회의》에서 영국은 기아나의 독립을 거부하고 내부 자치만을 넘겨 주는 새 헌법에 동의하였다. 대외 관계와 국방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영국이 장악하였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61년 8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승리한 인민 진보당이 자치 정부를 조직하였다.

자간 정부는 민족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한 계획 등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독자적 외교 정책, 각국 인민들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주장하고 영국에 완전 독립을 요구하였다.

인민 투쟁의 결과 나오게된 신헌법 (1961년 7월18일 발효)은 2년 이내에 영령 기아나의 완전 독립을 규정하였고 영국은 1962년 1월 영령 기아나의 독립 시일을 심의하기 위한 회담을 이 해 5월에 런던에서 열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영령 기아나 반동들과 결탁하여 영령 기아나의 독립을 지연시켰다. 1962년 2월 자간 정부가 새 예산안을 립법 의회에 제출하자 이를 반대하여 반동 정당인 《련합 세력》의 피터 다거를 괴수로 하는 친 제국주의 집단은 반정부 폭동을 일으켰다. 반동들은 미제로부터 4만 5천 딸라의 자금을 받았으며 영 제국주의자들은 《법과 질서 유지》라는 명목 밑에 기아나에 군대를 파견하여 반동들을 비호하는 한편 폭동을 구실로 영령 기아나의 독립을 지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들은 인민의 지지를 받는 자간 정부를 전복할 수 없었고 그들의 책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지연 정책으로 1962년 5월에 예정했던 회담은 밀리여 10월에 열렸으나 영국은 기아나 반동 정당들이 조성한, 이 나라 정당들 간의 헌법상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을 리용하여 회담을 파탄시켰다.

1963년에 영, 미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의 정부 전복 책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1963년 4월 16일 기아나 립법 회의는 공산주의 선전을 금지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법령(1957년에 공포)을 폐기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4월 초에 자간 정부는 우익 로조 지도부 내의 반동 세력의 흉계를 저지시키며 로조원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로동 관계법을 립법 회의 심의에 제출하였다.

4월 22일 반동적인 인민 대회당의 영향 하에 있는 로동 총 동맹은 로동 관계법을 반대하여 《총 파업》을 일으켰다. 반동 세력들은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지 밑에 미증유의 폭행과 파괴 행동을 감행하여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였다. 미제는 《파업자》들에게 재정적 원조를 주는 한편 기아나에 대한 석유 공급을 거절하는 등 이 나라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감행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병력을 파견하여 반동들을 적극 비호하는 한편 인종적 대립을 고취하였다. 인종주의자들의 책동으로 7월 2일 기아나 흑인과 기아나 인도인 간의 종족 충돌이 일어 났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자간 정부는 5월 9일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6월 10일 반동 세력의 반정부 시위에 대항하여 1만 5천명의 군중들이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단행하였다.

자간 정부와 인민의 단호한 투쟁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던 반동들의 시도는 또다시 수치스러 실패로 돌아 갔다. 9월 4일 부는 비상 사태를 해제하였다

【총독】 랄프 그레이

【립법 회의】 1961년 8월에 거, 의원 수는 35명, 인민 진보 20석, 인민 대회당 11석, 《 합 세력》 4석

【정부】 수상 체디 자간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진보** 1950년에 성립, 민족 부르조 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디 자간, 총비서 자네트 자간 **민 대회당** 1955년에 인민 진 당에서 떨어져 나간 우익 분자 이 조직, 지도자 린든 베른 **《련합 세력》** 국내 반동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 지도자 피테르 아기야르 **로동 총동맹** 인민 대회당의 영향 하에 있는 반동적인 로조 단체 **진보 청년 동맹** 정부를 지지한다. 맹원 5만명 위원장 브하그반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은 농민이며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쌀, 야자, 커피코코아 등이고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 망간, 금, 금강석 등이다.

사탕 생산과 보키사이트, 망간의 채굴은 거의 전부가 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사탕과 보키사이트는 이 나라 수출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75%를 차지한다.

1963년 10월에 첫 종합 대학이 개교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문맹자는 주민의 80%나 된다.

화란령 기아나

(수리남)

【면적】 14만 2,822 km²

【인구】 *30만 2,000명(1959년 추정)

【행정 중심지】 파라마리보(주민 10만 명)

화란의 식민지로서 령토의 90%는 무인 지대이다. 주산물은

보키사이트, 금, 사탕, 커피, 바나나, 목재 등이다.

불령 기아나

【면적】 약 9만 km²

【인구】 3만 2,000명 (1959년)

【행정 중심지】 카얀느 (주민 1만 3,000 명)

불란서 식민지이다. 가장 중요한 산업은 금 채굴이고 기타 쌀, 옥수수, 사탕수수, 코코아 등 농산물도 생산된다.

브 라 질

(브라질 합중국)
United States of Brazil

【면적】 851만 6,037 km²

【인구】 7,500만 명(1963년)

주민은 주로 백인, 인디안, 혼혈인, 흑인 등이다. 국어는 포도아어이다.

【수도】 브라질리아 (주민 약 15만 명)

정 치 19세기 초에 포도아 식민지로 되였다가 1815년에 브라질 왕국을 선포하였다. 1889년 11월 농장주들이 왕국을 전복하고 《련방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후 1891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국호를 《브라질 합중국》으로 개칭하였다. 1934년에 정권을 장악한 바르가스는 20여년간 반인민적 통치를 계속하였으나 나라의 극심한 경제 위기와 민족 주권 및 민족 자원의 보호를 위한 광범한 사회계의 압력, 그리고 미제의 사촉을 받은 브라질의 극 반동 군사 집단의 정변 위협에 직면하여 1954년 8월 자살하였다.

1955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련합 세력이 추천한 쿠비체크가 당선되여 신 정부가 구성되였다. 신 정부는 국내에서의 강력한 반미 운동의 압력 밑에 1956년 8월 미국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고 우라늄광 공동 개발에 관한 미국과의 협정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쿠비체크 정부는 의연 미국에 추종하였다. 1957년 1월 쿠비체크 정부는 브라질의 페르남도드 노로냐섬에 미국 유도탄 시험 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 기지 협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미국의 계획에 따라 남대서양 군사 동맹 조직 음모에 참가하였다. 1961년 1월에 집권한 콰드로스는 나라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게 독자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킬 데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꾸바를 옹호하였다 (1961년 3월에 웽그리야, 루마니야와 외교 관계를 수립, 11월에는 쏘련과 외교 관계를 회복). 1961년 8월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브라질을 방문하였으며 1962년 8월 1일에는 브라질에서 브라질—조선 친선 문화 협회가 창설되였다. 콰드로스의 이러한 립장과 브라질 인민들의 반미 투쟁 기세에 질겁한 미국은 브라질의 친미 반동 분자들을 사촉하여 1961년 8월 25일 콰드로스로 하여금 사임케 하고 헌법적 절차에 의한 부대통령 굴라르트의 대통령 취임을 토골적으로 반대하여 나서면서 친미 반동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군사 정변》 음모를 획책하였다. 인민들은 미제와 반동 세력을 반대하고 굴라르트의 대통령 취임을 요구하여 전국 각지에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브라질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1년 9월 7일에 굴라르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브라질 인민들은 미제와 브라질의 반동적 대토지 소유자들과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는바 1963년 1—9월 기간에 항구 도시인 산토스에서만도 평균 29일에 1차씩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그 건수에 있어서 최근 8년 간에 있은 파업 중에서 가장 많은 파업으로 된다. 1964년에 접어 들면서 나라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브라질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3월 한달 동안에만도 리오 데 쟈네이로를 비롯하여 전국의 대,중,소 공업 중심지들에서는 련일 로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들이 진행되였으며 브라질의 29 개소의 농업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대표 회의를 열고 대토지 소유주들의 토지를 점거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중간 계층도 이러한 투쟁에 합류하였다. 브라질의 사회계와 인민들의 이와 같은 강력한 진출과 요구를 반영하여 굴라르트는 자기의 대내 정책에서 일련의 진보적 개혁들을 실시하며 독자적 대외 정책 로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굴라르트는 대내 정책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1963년 1월 6일 국민 투표로서 《의회 책임제》를 《대통령 책임제》로 다시 회복하였다. 굴라르트는 조성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조치로서 외국 자본의 리윤 반출 제한법을 공포하였으며 1963년에 미국인 소유인 대기업소 11 개를 국유화하였다. 1964년 3월 국회에 보낸 교서에서 굴라르트는 선거권을 확대하며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활동의 합법화를 제기하였으며 토지 개혁을 실시할 데 대하여 선포하였다. 뒤'이어 3월 20일에는 석유 수입업과 일부 정유 공장을 국유화하는 등 일련의 긍정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외 정책에서도 굴라르트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민족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언명한 바와 같이 《타국의 정치 문제들에 대한 불간섭, 인민들의 자결, 모든 나라의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 존중, 국제적 협의를 준수》하는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 왔다. 굴라르트의 민

족적이고 일부 자주적인 경향은 미제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그들에게 불안과 초조감을 자아내는 《우환'거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1964년 3월 31일 브라질의 반동적 우익 세력들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4월 2일에는 친미 주구인 국회 하원 의장 마질리를 림시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를 조작하였다. 4월 10일에는 전 륙군 참모 총장인 카스텔로 브란코를 대통령으로 하는 군사 정권이 수립되였다. 정권을 탈취한 군사 집단은 브라질의 진보적 세력과 운동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말살하는 가장 포악한 파쑈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반란 두목들은 국회 내의 약 40명의 좌익 의원들,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장령급 60여 명 및 로조 지도자와 기타 진보적인 인사 4,000여 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지어 4월 3일에는 브라질 주재 중국 신화사 기자 2명과 중국 통상 사절단 7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대통령】 카스텔로 브란코(1964년 4월 15일 취임)

【국회】 련방 의회는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 수는 63명이며 그 임기는 8년이고 매 4년에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 의원 수는 326명이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브라질 공산당** 1962년 2월 브라질의 공산당 지도부의 프레스테스를 비롯한 반당 수정주의자들을 축출하고 당을 재조직하였다. 당은 현 브라질의 정세하에서 비평화적 혁명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수 호아오 아마조나스, 당 기관지 일간 신문 《로동 계급》 **사회당** 1948년에 창건되였다. 도시 소 자산 계급과 지식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당은 미국과의 군사 협정의 페지, 국영 기업소들에 대한 로동자들의 관리, 모든 전력 회사와 기타 공업 회사의 국유화, 공산당의 합법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의 회복, 대농장주들의 토지 몰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의 공산당** 1922년 3월 25일에 창건되였다. 1961년 8월에 채택한 강령에는 《민주주의 련합 정부》를 수립하고 사회 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지적되여 있으며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독재에 대하여는 지적되여 있지 않다. 당수 루이스 카를로스 프레스테스, 당 기관지 주간 신문 《노보스 투모스》 **로동당** 상공업자들을 비롯한 민족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당 내부는 세개의 분파로 분렬되여 있다. 당수 굴라르트 **전국 민주 련맹** 대독점 자본가와 대 농장주 및 예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다.

사회 민주당 기본적으로 공업 자본가와 신흥 상업 자본가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당내에는 민족 부르죠아지의 세력도 적지 않다.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로동 총 련맹, 농민 동맹, 브라질-조선 문화 협회** 1962년 8월 1일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린꼬

경제, 사회

주요 자원은 석탄, 망간, 우라늄, 철, 금, 원유 등 자원이 풍부하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철광석의 매장량은 350억 톤이나 되며 리오데 쟈네이로에서는 국내 수요의 59%를 생산하는 국영 철광 공장이 있다. 1962년에 강철은 290만 톤, 석탄은 230만 톤, 선철은 210만 톤, 석유는 430만 톤을 생산하였다.

공업에서 방직업은 중심으로 되고 있는바 공업 로동자의 25%가 이에 종사하고 있으며 방직업 비중은 공업 총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브라질은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총인구의 63.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땅은 한줌도 못 되는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집중되여 있다. 즉 주민의 2%에 지나지않는 지주들이 80% 이상의 경지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옥수수, 담배, 목화 등이다. 커피는 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생산하며 그 생산고는 350만 톤 이상에 달한다. 1962년에 면화는 54만 6,000 톤, 완두는 158만 8,000 톤(세계 3위) 생산되였다. 1962년에 소는 7,810만두 (세계 3위), 양은 1,950만두, 돼지는 5,200만 두 있었다. 국토의 58%가 산림으로서 무진장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1962년 수출 총액의 52%), 면화, 사탕, 목재, 철광, 석유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품, 뜨락또르, 연료, 윤활유, 기타 화학 제품 등이다. 무역 대상국은 미국 (1962년에 수출 총액의 39.9%, 수입 총액의 35.9% 차지), 서독(1962년에 수출 총액의 9%, 수입 총액의 10.3%를 차지) 등이다.

브라질 경제 명맥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 있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 투자 총액은 30억 딸라, 그 중 미국은 13억 딸라이다. 외국 자본은 자동차 공업의 60%, 기계 생산의 38%, 화학 공업의 37%, 자동차 부속품 생산의 57%, 제약 공업의 69%를 장악하고 있다.

브라질 인구의 절반이 문맹자이고 전체 아동의 58%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에쿠아도르

(에쿠아도르 공화국)
Republic of Ecuador

【면적】 27만 700km²

【인구】 439만 6,300 명 (1960년) 인구 중 혼혈인이 54%, 원주민이 27%이며 서반아어를 사용한다.

【수도】 퀴토 (주민 29만 9,900명)

정 치 1532년부터 3세기 기간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었다. 1822년에 독립하여 대 콜롬비아에 가입하여 있다가 1830년에 공화국을 건립하였다. 그 후부터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일어났다. 1961년 11월 7일 인민들의 강력한 반정부 투쟁에 의하여 반동적 벨라스코 정권이 타도되고 아로세메나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꾸바 림시 대리 대사를 출국시키기로 하였던 이전 벨라스코 정권의 결정을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62년 3월 31일 미국의 사촉을 받은 군부의 압력으로 아로세메나 정부는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군사 혁명 위원회】 1963년 7월 11일 군사 정변을 일으킨 친미 반동 군인들로 조직되였다. 나비오 라몬 카스트로 진촌을 수반으로 한 4명의 장교들이 나라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6년 5월 16일에 창건되였다. 기관지 《엘프 엘뿔로》, **보수당** 대지주와 천주교도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급진 자유당, 사회당, 로동 총련맹, 공산주의 청년 동맹, 혁명 청년 동맹, 민족 해방 전선**

【주요 사건】 1963년에 에꾸아도르 인민들은 미제와 친미 반동들을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월 과야껠에서 수만명의 로동자들은 미국 독점 자본과 국내 과두 정치 세력의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수도 공무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를 진행하였다. 1월 5일 에꾸아도르 혁명 청년 동맹 제2차 대회는 미제를 규탄하고 꾸바 혁명을 지지하였으며 1월 28일부터 꾸바와의 련대성 주간을 진행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3월 15일 두란역 철도 로동자들은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5월에 진행된 에꾸아도르 로동 총련맹 전국 위원회 회의는 결의에서 《진보를 위한 동맹》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략탈하기 위한 미제의 도구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앙양되는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7월에 친미 반동 분자들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군사 정권을 수립하였다. 7월 11일 군사 정변을 일으킨 친미 반동 군벌들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체 헌법상 담보들을 페지하였으며 군중 대회, 시위 및 파업을 금지하고 모든 출판물, 라지오 및 텔레비죤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였다. 12일에는 《반공》의 간판밑에 에꾸아도르 공산당 본부를 습격하고 문건들을 탈취하였으며 공산당 총비서를 비롯한 애국 인사들에 대한 체포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에꾸아도르의 진보적 력량은 미제와 군사 독재 정권을 반대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9월 과야껠에서 과야스주 로동자 련맹 제8차 대회가 진행되였는바 대회 참가자들은 토지 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개혁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결의에서 꾸바에 대한 군사적 모험과 위협을 규탄하고 진보적 애국 인사들에 대한 반동들의 범죄적 행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12월 20일에 에꾸아도르 각 정당들은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하였다. 《민족 해방 전선》은 군사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주의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광범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경제, 사회 에꾸아도르는 락후한 농업국으로서 전국토의 75%가 산림 지대이다. 경지 면적은 전 국토의 약 4.5%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호수의 1%에 불과한 지주들에게 40% 이상의 농경지가 집중되여 있다. 나라의 주요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1962—1963년에 4만 6,000톤 생산), 사탕, 쌀 등이며 주요 자원은 석유(1963년에 31만톤 생산), 금, 은, 동, 철, 석탄, 류황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바나나 (세계 제1위), 커피, 쌀 등이다.

주민의 약 50%가 문맹자이며 영양 부족과 각종 질병으로 매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종교는 천주교이다.

페　루

(페루 공화국)
Republic of Peru

【면적】 124만 9,000km²

【인구】 1,085만 7,000명 (1960년), 주민의 절대 다수는 인디안—구라파 혼혈인과 인디안이며 국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리마 (주민 131만 5,500명)

정 치 1531년 서반아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미제의 추동하에 1948년 10월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오드리아는 공산당과 기타 진보적 단체를 비법화하고 1952년 미국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6년 6월의 총선거에서 수립된 정부는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인민당의 합법화, 정치범에 대한 대사, 토지 개혁 허용 등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1961년 11월 4일 민족 해방 전선이 결성되였으며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인민들의 강력한 반정부 투쟁에 의하여 마누엘 프라도 우가르테체 정부는 사직하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미제는 1962년 7월 18일 반동적 군부 계층들을 사촉하여 1962년 6월에 집권한 프라도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대통령】 페르난도 벨라운데 테리 (1963년 7월 28일 취임)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52명, 하원은 18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임기는 각각 6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되였으며 1961년 1월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라울 아코스타, 1964년 1월 18—19일에 진행된 페루 공산당 제 4 차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는 지도부내의 일부 수정주의 분자들을 축출하고 새 지도부를 선거하였다. 제 1비서 사투르니노 파레데스 프라티스트 민족 운동당 (집권당), 인민당, 인민 행동당, 민족 련맹, 혁명 동맹당, 민족 해방 전선, 로동 총 련맹

【주요 사건】 1963년에 들어 서면서 미제와 반동 지배층들은 야수적인 탄압으로 저들의 반인민적 독재 정권을 유지하여 보려고 광분하였다. 1월 5일 군사 정권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애국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3월 3일에는 또다시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새로운 친미 군사 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 정변을 일으킨 륙군상 린들레이는 이전 군사 정권의 독재자 고도이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들어 앉았다.

그러나 민족적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은 전국을 휩쓸었다. 3월에 5만 명의 어부들이 1개월 간의 투쟁 끝에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5월 마드레 데클르스 주에서는 무장 유격대와 정부군 간에 조우전이 벌어졌다.

7월에 접어 들면서 파업 투쟁은 전국을 휩쓸었다. 7월 1일에 10 건, 2일에 20 건, 그리고 3일에는 28 건의 파업이 단행되였다.

한편 토지 점거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10월 15일 쿠즈코주의 2천 명의 농민들은 한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대토지 소유주들이 략탈한 수 천 헥터의 토지를 탈환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63년 8월—10월 기간에 토지 쟁탈을 위한 대규모적인 투쟁이 12차나 진행되였는 데 여기에는 2만 5천 명 이상의 농민들이 참가하여 약 10만 헥터의 토지를 탈환하였다. 페루 농민들은 산악과 수림 속으로 들어 가 유격대를 조직하고 쿠르크주와 라콘벤시온 등 지역에서 용감하게 무장 투쟁을 하고 있다.

경제, 사회 주요 경제 부문은 농업 및 광업으로서 주민의 약 70%가 이에 종사하고있다. 경지 면적은 169만 5,723 헥터인데 대농장주, 중소 지주 및 카톨릭 교회가 총 경지 면적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토지 없는 농민은 86%에 달한다.

주요 농산물은 면화, 사탕, 양모, 피혁, 커피 (1962—1963년 간에 4만 7,000톤 생산되였다), 쌀 등이며 식량은 자급 자족 못한다. 주요 광물은 연, 아연, 동, 은, 석유, 바나듐 등이며 특히 바나듐 생산은 세계 제 1 위이다.

1963년에 석유는 300만 톤 생산되였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이 나라 수입 총액의 약 44%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세로 데 파스코》 회사는 동 채굴의 70%, 연, 아연 채굴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석유, 면화, 사탕, 양모 등이다.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다. 종교는 천주교이다.

볼 리 비 아

(볼리비아 공화국)

Republic of Bolivia

【면적】 110만 km²

【인구】 354만 9,000 명 (1962년)

【수도】 라 파스 (정부 소재지, 주민 35만 5,600명, 법적 수도는 수크레)

정 치 볼리비아는 16세기부터 약 300년 동안 서반아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 독립하였다. 정치적 불안정이 심한바 독립이래 60 여 회의 정변과 14차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1952년 4월의 정변 결과 수립된 민족 혁명 운동당의 에스텐소로 정부는 미영 자본과 국내 매판 자본가의 3대 주석 광산을 국유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1956년 수아소 정부를 거쳐 1960년 6월 에스텐소로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1962년 에스텐소로 대통령은 미국이 주석 5만 톤을 투매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에 항의하고 9월 상순에 예견했던 자기의 미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볼리비아는 1962년 1월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꾸바에 대하여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반대하였으며 10월에 미제가 꾸바를 반대하는 군사 봉쇄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에스텐소로 대통령은 자결권과 불간섭 원칙을 존중할 것을 표시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27 명, 임기는 6 년이고 하원 의원은 111 명,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엔스텐소로 (임기 4년, 1960년 8월 16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대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재건되였다. 제1비서 마리오 몬제. 민족 혁명 운동당 (집권당) 1941년에 성립, 성원은 도시와 농촌 부르조아지와 광업 로동자들이다. 볼리비아 사회주의 파랑헤당, 볼리비아—조선 친선 위원회 1962년 5월 9일 성립, 위원장 라몬 오리엘 오르뚜노, 공산주의 청년 련맹, 로동 총련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사건】 1963년에 우리 나라

무역 친선 대표단이 볼리비아를 방문하였으며 볼리비아—조선 친선 위원회 위원장이며 국회 의원인 라몬 오리멜 오르뚜노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963년 6월 12일 볼리비아 외상은 《미주 국가 기구》가 라우가 강 제방 문제와 관련한 칠리와의 분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리유로 동 《기구》에서 정식 탈퇴하고 자기 대표를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7월 3일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미제의 압력하에 꾸바를 반대하여 이른바 《공산주의 파괴 활동》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성원국들에 강요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데 대하여 볼리비아 외상은 이것을 리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볼리비아 대표는 동 기구 회의에 참가하지 않음).

6월 25일 볼리비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편 볼리비아에서 로동 운동과 반제 투쟁이 계속 앙양되였다. 1963년 3월 카타 비 및 《시글로—20호》 광산들에서 로조 지도부를 제거하며 1천 50명의 로동자들을 해고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반대하여 광부들이 2주일 이상 파업을 단행하였다. 특히 12월 6일부터 수주일 간에 걸쳐 주석 광산 로동자들은 미국인 4명을 비롯하여 광산 관리들을 인질로 억류하고 정부 당국이 체포 구금한 로조 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파업을 전개하였다. 파업 로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 당국이 군대까지 동원하여 탄압하게 되자 광부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되였다.

12월 12일 수도 라파스에서는 3명의 로조 지도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한 당국에 항의하고 그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여 수천명의 군중들이 시위를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광업과 농업이다.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토지의 70~80%는 농촌 인구의 8~10%에 불과한 지주들에 장악되여 있다. 농업은 이 나라 국민 총생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국내 식량 수요의 50~70%는 수입한다.

1963년에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감자 70만톤, 옥수수 26만톤, 보리 12만 800톤, 밀 7만 8,400톤, 쌀 4만톤, 원당 6만톤이였다.

주석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2 위이며 1962년에 1만 9,100톤 생산되였다. 미제는 또한 국제 시장들에서 주석의 투매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볼리비아에 5천만 딸라의 손실을 주고 있다. 텅그스텐, 안티모니 생산은 세계 굴지의 수준에 있다. 1963년에 원유는 41만 톤 생산되였다.

대외 무역에서 총수출액의 98%는 광물(그 중 주석이 약 70%)인데 그 중 60%는 미국에, 31%는 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곤난하다. 1960년 12월에 생계비는 1953년에 비하여 36배로 등귀하였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신문—《푸에블로》, 《우니다드》

파 라 과 이

(파라과이 공화국)

Republic of Paraguay

【면적】 40만 6,800km²

【인구】 181만 6,890 명 (1961년 1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서반아 이주민과 인디안의 혼혈종이다. 국어는 서반아어

【수도】 아순시온 (주민 약 30만명)

정 치 1535년부터 서반아 식민지로 되여 있다가 1811년에 독립하였다.

1954년 5월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챠베스 정권을 전복하고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1959년부터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과 대중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1963년 2월 10일 폭압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스트로에스네르의 당선을 조작하였다.

1963년 4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있은 파라과이 정치 범들을 옹호하는 제1차 라틴 아메리카 회의는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의회】 1원제로서 의원수는 60명,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으로 국무 회의 (19명으로 구성)가 있다.

【대통령】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1963년 2월 3차로 피선)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3년 창건) 1947년 초에 비법화 되였다. 총비서 오스칼크레테 **국가 공화당** (집권당)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서 친미 대 부르조아지와 지주의 리익을 대표 한다. **민족 해방 통일 전선** 1959년 4월 우루과이에 망명한 파라과이 인들이 조직하였으며 공산당, 2월당, 자유당, 및 기타 민족주의적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지도자 파트리씨오모페스 **파라과이 전국 련맹 5월 14일 운동**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을 위주로하고 있는 락후한 나라이다. 주민의 7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농지의 70%는 외국 및 국내 지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미국의 《라푸네》 석유 회사 만도 600만 헥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주민의 70%는 농경지의 1%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담배, 사탕수수, 옥수수, 쌀, 육류, 목재 등이다. 식량은 매년 수입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철, 망간, 동, 석회석, 대리석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가공 공업이 몇개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 목화, 피혁, 육류 등이며 주

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과 아르젠틴이다. 1963년에 파라과이 경제 형편은 수출의 축감에 따르는 외화의 부족과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였다. 미제의 압력에 의하여 파라니(파라과이 화폐단위)와 딸라의 환률은 1960년의 1대 60으로부터 1대 140으로 올랐다. 또한 이해에 독재 정권은 4억 파라니에 달하는 세금을 미, 영 자본의 육류 통조림 회사에 면제해 준 대신 소비품세를 올렸다.

지난 15년간에 약 50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났다. 농촌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전체 농호의 97%나 되며 아동 사망률은 63%이다. 주민 1만 명에 의사 1명이 겨우 차례지고 있다. 문맹자는 주민의 약 60%이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Republic of Uruguay

【면적】 18만 6,900km²

【인구】 319만(1962년 현재)

주민의 다수는 백인종이며 기타 인디안—구라파 혼혈인, 인디안 등이 있으며 국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몬테비데오 (주민 95만)

정치

1516년에 서반아인 솔리스가 발견한 후 300여년간 포도아 및 서반아 식민지로 있었다.

1825년 8월 25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1830년에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865년부터 1958년까지 꼴로라도당이 계속 집정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우루과이는 1952년에 미국과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최근 기간 미제의 가격 인하 정책과 우루과이 대외 시장에 대한 잉여 상품의 투매 정책(실례로 1963년에 카나다에 대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투매로 우루과이는 쌀 수출의 전통적인 대외 시장을 상실하여 5만톤의 쌀이 체화)에 대응하여 대외 무역을 확대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1963년 3—4월에 정부는 무역 대표단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파견하여 무역 관계를 설정하였다. 미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꾸바,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웽그리야와 외교 관계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1963년 5월 17일 몬테비데오에서 우루과이 정부와 우리 나라 간에 정부 무역 대표부를 호상 설치할 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31명, 하원 의원은 99명이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국가 회의】 최고 행정 권력 기관으로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1951년에 수정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제가 페지되고 국가 회의가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의원중 6명은 다수 표를 획득한 당에서 선출되며 그 중 4명이 1년씩 교대제로 국가 회의 의장으로 임명되는데 그 순서는 득표 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의장 다니엘 페르난데스 그레스포 (1963년 3월 1일—1964년 2월 29일), 외상 데산 마르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1일에 창건되였다.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당은 당면하게 근로자들의 생활상 권리의 옹호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수호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을 반대하는 것을 투쟁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블랑코당 대목장주와 일부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다. 당 내부는 두개의 분파로 분렬되여 있다. 당수 에드왈드 로드리에스 랄레라 꼴로라도당 당내에는 세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으며 1958년 이전 93년간을 집권당으로 있었다. 사회당, 공민 련맹, 우루과이 전국 평화 위원회, 근로자 중앙 로조, 공산 청년 동맹, 꾸바 옹호 우루과이 전국 위원회

【주요 사건】 1963년에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였다.

2월 24일—3월 5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5만 2,000여 명의 전화국, 발전소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과 3월 5일 로조 지도자들의 석방, 《안전 보장법》의 페기 등을 요구하는 48시간 총파업, 7월 4일 나라의 경제적 위기의 해결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의 30여만 명의 로동자, 공무원들의 이나라 력사상 최대의 파업 등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성격에 있어서 종전의 파업보다 대중적이였으며 정치적 색채를 많이 띠였다.

한편 1963년에 국내 반동들의 민주 력량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며 꾸바 인민들과 기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 성원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3월에 정부가 국가 기관에서 진보적 인사들의 해고를 목적으로 《국가 기관 인원 채용 절차에 관한 법안》 (안전 보장법)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인민 대중의 반항에 직면하여 철페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일에 진행된 《좌익 해방 전선》 제1차 대회는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할 것을 산하 단체와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으며 베네주엘라,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 영령 기아나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8월 14일 몬테비데오 대학생들은 파라과이 독재자들을 반대하는 파라과이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시위를 단행하였다.

10월 《좌익 해방 전선》은 《국제 통화 기금》의 간섭과 국내 독점 자본가들의 반인민적 행위를 반대하는 항의 군중 대회를 소집하고 자국 내정에 대한 《국제 통화 기금》의 간섭을 단죄하고 자주적 대외 정책을 실시할 것과 꾸바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정부

에 요구하였다. 10월 초 꾸바 옹호 전국 위원회는 꾸바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수 많은 의약품 및 식량 등을 수집하여 원조하였다.

경제, 사회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이다. 주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밀, 아마, 쌀, 옥수수, 보리 등이다. 1962년에 밀은 37만 4,000톤, 아마는 10만 2,000톤, 옥수수는 19만 7,000톤, 쌀은 6만 1,000톤을 각각 생산하였다.

전국의 56% 이상의 토지는 총 농호수의 4.6%에 해당하는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집중되여 있다. 1959년에 2만 3,000대의 뜨락또르가 있었는데 이것은 라틴 미주에서 단위당 보유량에서 제일 많다.

전 토지 면적의 60%가 목축업에 리용되고 있다. 1961년 현재 양은 2,150만 두, 소는 750만 두, 말은 64만 두, 돼지는 27만 두 있었다.

금, 은, 동, 연, 망간, 철 등 광물 자원과 화강암, 대리석, 석회석 등 건축 자재가 풍부하다.

공업은 보잘 것 없고 육류 가공 공업과 원유 채취 공업 등이 있는데 주로는 미, 영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1년에 1만 8,713 개의 공업 기업소가 있었는데 평균 종업원 수는 7 명 미만이였다.

주요 수출품은 랭동 육류 및 육류 통조림과 양모, 피혁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자동차, 연료, 전기 기구, 약품 등이다.

1962년의 수출 총액은 1억 5,300만 딸라, 수입 총액은 2억 3,000만 딸라였다. 1963년 3월 1일 현재 4억 5,770만 딸라의 대외 부채를 지고 있다.

1962년에 도매 가격은 26.6% (1950년에 비하여 527.8% 등귀), 소매 가격은 63.6% 올랐다. 1963년 8월에 우유는 20%, 고기값은 25%, 전기 사용료는 50% 올랐다.

우루과이에는 1 개의 대학을 비롯하여 2,000여 개의 각종 학교가 있으며 학령 아동의 불과 32%가 취학하고 있다.

【신문】 엘 포풀라드 (공산당 기관지), 엘 데다레 (블랑코당 기관지), 라 트리브나(무소속)

아르젠틴

(아르젠틴 공화국)
Republic of Argentina

【면적】 280만 8,000 km²

【인구】 2,095만 6,000명 (1960년), 주민의 97%가 백인이고 인디안과 기타 인종이 3%이며 국어는 서반아어이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민 385만 명)

정 치 1516년 이래 300년간 서반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6년에 독립을 선포하고 1826년에 련방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그후 국내에서의 정권 쟁탈전의 격화, 미국 자본 침투의 강화 등으로 아르젠틴 국내 질서가 파쑈화한 반식민지 국가로 전변되였다.

제 2 차 대전 후 미국 독점 자본의 침투가 강화 되였는바 그후부터 그들이 조작하는 정변이 계속되여 왔다.

1955년 6월과 9월의 정변으로 페론 정부가 전복되고 그후 로나르디, 페드르 아람부르 등의 정부가 수립되였다. 1958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프론디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미제와 친미 반동 분자들은 장성하는 진보적 력량을 반대하는 횡포한 공세를 취할 목적 밑에 반동적 군부들을 사촉하여 1962년 3월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프론디시를 정권에서 내쫓고 당시 상원 의장이였던 귀도가 집권하였다. 귀도 정부는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력량을 탄압하였으며 9월 6일에는 1962년 3월에 선거된 국회를 해산시켰다. 1963년 7월 7일 테로와 기만 속에서 진행된 선거에 의하여 아르투로 일리아가 집권하게 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42명, 임기는 6년인데 3년에 3분의 1씩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192석이고 임기는 4년이며 2년에 반수를 개선한다.

【대통령】 아르투로 일리아(1963년 10월 12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에 형성되였던 국제 사회주의당이 192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1963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아르젠틴 공산당 제 12차 정치 대회가 진행되였다. 기관지 《누에스트라 팔라브라》 **급진 공민 동맹** (집권당) 대 금융 부르조아와 대토지 소유자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비타협 급진 공민 동맹** 중소 부르조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당, 보수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로동 총 동맹, 공산주의 청년 련맹, 꾸바와의 련대성 아르젠틴 전국 위원회**

【주요 사건】 1963년에 미제와 그의 비호하에 있는 아르젠틴의 반동 우익 분자들은 진보적 세력을 반대하는 횡포한 공세를 취하였다.

1월 31일 아르젠틴 정부는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안전법》을 발표하였다. 2월 말에는 미국과 새로운 군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는 아르젠틴 당국이 미국과 함께 꾸바를 침공하기 위한 《특별 려단》을 조직하며 국내 애국 력량들의 《유격 운동》을 《성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전투 단위들을 창설할 것을 예견하였다.

4월 2일 벤쟈민 메넨데스 중장의 지휘하에 군부 반동 계층들은 미제의 사촉 하에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이것은 현 정부의 친미 반동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그 지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던 다른 하나의 반동

적 집단의 시도였다.

7월 7일 새로운 대통령, 부대통령, 상하원, 주 지사 및 지방 행정 기관 선거가 테로와 기만 속에서 진행되였다. 아르젠틴 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7만 명의 군대와 수 천 명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펼쳤으며 선거 전야에는 약 100 명을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선거에서 모든 진보적 세력이 완전히 제외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인민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 하였다.

7월 10일 일리아 정부는 공산당을 포함한 30 개의 진보적 정당, 사회 단체들을 해산시킬 데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일리아 정부의 이러한 파쑈적 폭압 정책은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발시켰다.

1월 18일 15 개 운수 로조 산하 30만 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전국 각지 전화국 로동자 3만 6천명의 파업, 7월 4일에는 투쿠만 살타 쥬쥬이 및 사타 페주들에서 13만 명의 제탕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9월 9일에는 철도 로동자 22만 명의 파업 등이 계속되였다.

6월 25일에는 전국 학교들에서 24만 명의 교원들과 370만 명의 학생들이 총 파업과 동맹 휴학을 단행하였다.

11월 14일과 16일 수도 시민들은 아르젠틴 주재 미국 대사를 추방하며 아르젠틴 석유를 국유화할 것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시위를 단행하였다. 대중의 압력으로 11월 15일 일리아 대통령은 이전에 프론지시 정부가 미국 석유 회사들과 체결한 예속적인 계약을 페기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 및 목축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3천만 헥터이다. 토지는 대 지주들과 외국 회사들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80%의 농민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면화, 담배, 락화생 등이다. 축산물로서 양모가 유명하다. 양모 수출은 세계 제 2 위이며 생산량의 약 60%는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하 자원에서 주되는 것은 석유(1963년에 석유 생산량은 1,380만 톤), 석탄, 천연 가스, 철, 등이다. 공업은 남미에서 비교적 발전한 나라로서 육류, 전분, 석유 부문이 발전하였으며 기타 강철, 제탕, 세멘트, 담배 공업도 있다.

아르젠틴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 통화 기금》과 미국 독점체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민족 공업은 원료난과 자금 부족으로 파산되고 있다. 파산 당한 기업소들의 자본은 1961년에 27억 7,700만 페소, 1962년에는 130억 3,500만 페소, 1963년 11개월 간에는 119억 9,000만 페소에 달하였다.

1963년 첫 7개월 간에 취업 로동자 수는 1962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4% 감소되였다.

이 나라의 생계비 지수는 1960년을 100으로 하면 1963년 10월에는 190으로 높아졌다. 실업자는 50～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은 150만 세대나 부족되고 있다.

칠 리

(칠리 공화국)
Republic of Chile

【면적】 74만 1,767 km²

【인구】 762만 7,000 명 (1960년)

주민의 대부분은 인디안과 구라파 혼혈인이고 서반아어를 사용한다.

【수도】 산챠고 (주민 188만 명)

정 치 1541년부터 서반아 식민지로 있다가 1810년에 독립하여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38년에 공산당, 사회당 및 급진당으로 구성된 인민 전선 정부가 수립되여 약간의 사회 경제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급진당 출신의 비델라 반동 정부는 1947년 4월 미제의 압력으로 정부에서 공산당원을 배제하였으며 1948년 9월에는 소위 《민주주의 보호법》을 공포하고 공산당을 비법화하였으며 1952년 4월에는 미국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2년 9월에 정권을 장악한 이바녜스는 선거전 공약을 배반하고 반인민적인 정책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1956년에는 미국의 클레인 싹스 사절단이 권고한 임금 및 물가의 동결과 증세로 인플레를 억제한다는 소위 《클레인 싹스안》을 채택하여 국가의 경제 재정 형편을 더욱 악화시켰다.

1958년 11월 13일에는 호르헤 알레싼드리 로드리게스가 집권하였다. 이 나라는 침략적 《미주 국가 기구》 및 《미주 공동 방위 조약》에 참가하고 있으며 미제가 조작한 반공적인 1951년의 《워싱톤 선언》 및 《집단 방위 계획》, 그리고 1954년 3월의 《반공산주의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대통령】 호르헤 알레싼드리 로드리게스 (1958년 11월 취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45명 (공산당 4명) 이며 임기는 8년이다. 4년마다 반수를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147명(공산당 16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칠리 공산당** 1922년에 창건된 후 수차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 1965년에 전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지도부의 수정주의 로선을 반대하여 새로운 《맑스주의 인민 선봉대》를 조직하였다. **사회당** 1932년에 형성되였으며 지식인과 자산 계층들로 구성되였다. **반제 급진당, 기독교 민주당, 공산 청년 동맹, 근로자 통일 로조 중앙, 로동 통일 련맹,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인민 행동 전선, 칠리—중국 문화 협회, 칠리—조선 문화 친선**

협회 위원장 모랄레스

【주요 사건】 1963년에 칠리에서는 미제의 침략적인 간섭과 략탈 정책을 규탄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7월 3일에 개시한 미국인의 엘 텐렌테 동광 회사 8,000 명의 로동자들은 45%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여 2주일간 파업을 단행하였다. 칠리 정부와 사회계는 11월 7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칠리의 령해를 3 마일로 제한하는 《결정》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였다. 칠리 동광 로조 련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의 강도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로동 조건의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도 또한 끊임 없이 진행되였다. 1월 13일의 1만 5,000명의 국가 기업소 로동자, 사무원들의 파업, 7월의 칠리 수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파업, 8월 19일의 칠리 부두 로동자들과 칠리 종합 대학 및 국립 공업 대학 교원들의 파업, 12월 20일의 10만 명 근로자들의 총파업 등을 비롯한 파업 투쟁이 년중 계속되였다.

7월 9일 칠리 전국 꾸바 혁명 지지 및 옹호 운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주 국가 기구가 채택한 이른바 《공산주의 파괴 활동》에 관한 《특별 보고》는 꾸바의 정치적 자유와 공민들의 자유를 로골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 산업은 농업, 목축업 및 광업이다. 경지 면적은 300만 헥타이며 주산물은 맥류, 담배, 콩, 감자 등이다. 칠리에서는 1695개의 대 농장들이 경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칠리에는 초석이 풍부한데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생산량의 95% (년산 150 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동, 금, 은, 코발트, 연, 망간 등이 생산되며 특히 동 생산액은 공업 총 생산액의 60% 이상에 달하며 외화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공업은 비교적 발전한 편이나 거의 미국의 독점하에 있다.

미국 자본은 전동기의 100%를 장악하고 있으며 동의 95%를 략탈하고 있다. 지난 기간에 미국 동 회사들은 칠리에 5억 딸라를 투자하고 30억 딸라 이상의 리윤을 짜냈다.

주요 수출품은 동, 초석 등이고 기계류와 석유 등을 수입한다. 1963년에 칠리의 대외 수출량은 3분의 1 이하로 축감되였다.

1963년에 생계비는 45% 등귀하였다. 칠리 로동자들의 임금은 미국 로동자들의 임금의 17분의 1에 불과하다. 실업자는 30만 명이며 부족되는 주택은 55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 1963년 3월에 시작된 새 학년도에 취학 못 한 아동들은 50만 명이나 되였다.

대양주 및 량극

호　　주

(호주 련방)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적면】 770만 4,300km²

【인구】 1,075만 2,666명 (1962년 9월 30일) 주민의 약 90%는 영국계 주민이다. 국어는 영어이다.

【수도】 캔베라 (주민 5만 1,642명, 1960년 3월 현재)

정 치 영·련방 내의 독립국으로서 영국 녀왕이 임명하는 총독에 의하여 통치된다.

호주는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 호주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 쁠럭들인 《안쥬스》동맹 (1951년) 및 세아토(1954년) 성원국이며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직접 참가하였다.

또한 남부 월남과 《말레이시아》에 군대를 파견하여 이 지역 인민들을 탄압하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여 군사적 간섭을 하고 있다.

【총독】 라 일(1961년 취임)

【의회】 량원제이며 상원 의원은 60명,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122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현 하원은 1963년 11월에 선거되였다.

【내각】 수상은 총독이 임명한다. 현 내각은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 내각이며 1963년 12월 17일 개조되였다.

수상 로버트 지. 멘지스, 외상 가필드 바위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에 창건되였다. 1964년 3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당 지도부의 수정주의 로선을 반대하여 새로운 공산당을 창건하고 새 강령을 작성하였다. 위원장 이. 에프. 힐 **자유당** 현 집권당이다. 1931년에 레이버당 우익과 국민당이 합하여 호주 통일당을 결성하였다가 1944년에 현명으로 개칭되였다. 금융 및 공업 독점체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멘지스 **지방당** 대지주 및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중앙 집권제를 반대한다. 지도자 멕 웬 **레이버당** 1890년대에 성립된 개량주의적 정당이며 호주에서 가장 오랜 당이다. **유레카 청년 동맹** 1941년에 성립된 진보적인 청년 조직이다. **녀성 동맹, 평화 위원회**

경제, 사회 주요 경제 부문은 농·목축업이다. 양 두수는 세계 제 1 위이며 양모

생산량은 세계 양모 총 생산량의 약 4분와 1을 차지한다. 또한 양모는 호주 국민 소득의 약 10%, 수출의 45~60%를 차지한다.

1962년 3월 31일 현재 양은 1억 5,771만 4,000두, 대각 가축은 1,806만 7,000두, 돼지는 163만 3,000두 있었다.

1961-1962년에 밀은 670만 8000톤, 양모는 77만 1,000톤(1962—1963년도 예비적 자료) 생산되였다. 주요 지하 자원은 석탄 및 철이며 연, 아연, 금, 은 등도 풍부하다. 1964년에 첫 석유 산지가 발견되여 3월 부터 석유를 생산하게 되였다.

1962년에 선철은 344만 1,000톤, 강철은 415만 5,000톤 생산되였다.

호주의 주요 경제 명맥은 국내 독점 자본가와 미국, 영국 등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호주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962년에 10억 9,100만 딸라에 달하였으며 그중 54%는 기계 제작 공업에 투자되였다.

석유, 알루미늄, 고무, 자동차 등 공업 부문에 투자된 외국 자본중 약 50%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양모, 밀, 육류 사탕, 피혁, 연, 흑색 금속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일본, 미국 등이다.

1963년 3월말 현재 등록된 실업자만도 8만 4,912명이였다.

[출판] 통신—호주 련합 통신사 (에이 에이 통신), 신문—《뱅가드》 (공산당 기관지), 썬데이 모닝 헤랄드 (독점 자본가들의 대변지)

뉴질랜드

Dominion of New Zealand

[면적] 26만 8,700km²

[인구] 252만 1,000명 (1962년 12월 31일)

[수도] 웰링톤(주민 14만 4,900명)

정치 영 련방 내의 자치국이다. 뉴질랜드는 침략적 군사 쁠럭인 《안쥬스》 동맹 및 세아토의 성원국이다. 뉴질랜드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남부 월남에 군사 인원을 파견하여 미제의 침략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

[총독] 파가슨

[의회] 1원제이며 의원수는 80명, 임기는 3년이다.

[내각] 1960년 12월 12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케이트 홀리오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윌리암스, 총비서 브이. 지. 윌콕스 국민당 현 집권당이다. 자본가와 목장 주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로동당 보조 회원들과 소농, 자유업자, 지식 분자들에 기초하고 있으나 령도권은 우익 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사회 신용당, 로동 련맹, 진보 청년 련맹(로동 청년과 진보적인 청년 지식 분자들의 단체), 녀성 동맹, 평화 리사회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업이 위주이며 양모 생산은 세계에서 제 3 위를 차지한다.

1961년 1월 31일 현재 대각 가축은 599만 2,000 두, 돼지는 66만 두, 양은 4,848만 5,000 두 (1961년 6월말) 있었다.

1962—1963년도에 양모는 27만 4,000 톤, 육류는 77만 톤 (1961 농업 년도) 생산되였으며 1962년 (평가)에 밀은 26만 7,000 톤 수확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금, 은 등이 있다.

가공 공업은 주로 경공업이며 그중 축산물 가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경제 명맥은 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장악되여 있는바 뉴질랜드에 투하된 외국의 총투자액중 영국은 64%, 호주는 20%, 미국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양모, 빠터, 육류 등 축산물이다. 무역은 영국, 미국, 호주, 불란서 등과 진행한다.

서부 사모아

Western Samoa

[면적] 2,946 km²

[인구] 약 10만 7,000명 (1960년 6월)

[수도] 아피아

정치 서부 사모아는 호주 동쪽 서남 태평양상에 있는 사모아 제도의 서쪽 절반을 차지하는데 사모아도와 우폴루도를 비롯한 작은 도서들로 구성되여 있다.

서부 사모아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뉴질랜드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 후견령으로서 느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27년 서부 사모아에서는 대중적인 반제 민족 해방 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사모아인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1961년 5월 국민 투표가 진행되였고 1962년 1월 1일 독립이 선포되였다.

그러나 동북 사모아는 계속 미제의 강점하에 있으며 사모아인들은 나라의 인공적 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서부 사모아의 아피아항은 미제의 군사 기지로 되여 있다.

[정부] 수상 피아메 마따파 파우무이나 물리누우 2세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토지 전체가 화산질이다. 좋은 토지는 영국인들의 코코아 농장으로 되고 있다. 주산물은 야자, 바나나, 코코아 등이다.

티 모 르

【면적】 1만 4,925 km²
【인구】 51만 7,079명(1960년)
【행정 중심지】 딜리

정 치 포도아령 티모르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자바도 사이에 있는 섬이다. 티모르는 16세기 이래 포도아의 식민지로 되여 있으며 마카오의 포도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다.

포도아는 전략적 위치로 보아 티모르를 《동남 아세아의 관건》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이 섬을 아세아 침략 계획의 첫 대상들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으며 세아토는 이 섬에 예리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년간 티모르 인민들 속에서는 독립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여 1963년 4월 2일 《티모르 딜리 련합 공화국》이 수립되고 혁명 정부가 구성되였다.

혁명 정부 대통령 에마오 클라오, 수상 에말리에레, 부수상 에 임아니가 임명되였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주요 산물은 코프라, 커피 및 고무 등이다.

1961년에 코프라는 1,834톤, 커피는 1,510톤, 고무는 353톤 생산되였다.

티모르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하다. 미국의 《바굼》 석유 회사와 《슈페리어》 석유 회사, 화란의 《로얄 덧취》 석유 회사 그리고 미국, 호주, 카나다의 합자 회사인 《티모르》 석유 회사 등 외국 독점체들이 침투하고 있다.

남 극

【개관】 1958년 7월 남극 관계 12개국 대표 회의에서 남위 60° 이남을 남극으로 결정하였다.

남극 대륙의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000 키로메터 이상이며 면적은 약 1,401만 평방 키로메터 인바 이는 구라파 대륙과 미국의 면적을 합한 것과 같다. 남극 대륙은 해발 평균 2천~3천 메터의 높이를 가진 구릉 지대로 되여 있으며 도처에 약 4,500~6,000 메터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솟아 있다. 남극의 83%는 어름과 눈으로 덮혀 있으며 어름의 평균 두께는 1,800메터이며 최고는 4,480메터나 된다. 이 곳의 눈과 어름은 세계의 눈과 어름 총량의 10분의 9에 해당한다.

1819—1921년에 이 대륙이 발견된후 오늘까지 대륙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1958년 1월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 메터의 암반 우에 2,450메터 두께의 대륙빙이 있는데 그 우에 약 30메터의 눈과 어름이 쌓여 있는 해발 2,750 메터에 달하는 지점이다.

【기후】 영구성 동결 기후로서 년 평균 기온은 섭씨 령하 30°이다. 가장 따뜻한 계절(11~1월)에는 기온이 섭씨 령하 5°, 가장 추운 계절(6~7월)에는 령하 60°까지 내려간다. 1960년 8월 24일 밤 쏘련 남극 탐사대의 관측소는 기온이 88° 3′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등록하였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처음 관측된 최저 기온이다. 풍속은 초당 100메터이다. 1년에 1차의 주야 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3월부터 9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 이상의 전 지역은 년간을 통하여 거의 매일 폭풍이 불며 아데리 해안에서는 1년에 300일은 풍속이 30메터 이상에 달한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늄, 우라늄, 석탄 등의 자원이 매장되여 있다. 남부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100만 평방 키로메터에 달하는 석탄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조류로는 펭긴이 있으며 고래, 옷도세이 등 해수 등도 있다. 이 대륙 해안에서는 세계에서 잡히는 고래 총량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고래가 잡히는데 최근 년간 고래 자원이 적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고래 잡이를 제한하고 있다. 식물은 300종 이상 발견 되였다.

【관측】 현재 남극에서는 국제 물리학 년도의 계획에 따라 세계 많은 나라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56년 2월 첫 쏘련 관측소인 《미르느이》가 남극에 설치되였다. 대개 이 때로부터 파란, 미국, 영국, 불란서, 호주, 벨기,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아르젠틴, 칠리, 남 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남극에서 관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부터는 체코슬로바키야 학자들도 관측 사업에 참가하였다.

쏘련의 《미르느이》 관측소에는 600 키로왓트의 출력을 가진 발전소가 있으며 대형 비행기가 리륙 및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도 있다. 쏘련은 1959년까지 《미르느이》 관측소 외에 7개의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1960년에는 표류하는 어름 우에 3개의 림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1961년 11월에는 새로 두개의 기지외에 표류하는 어름 우에 자동 관측소를 증설하였다. 1963년 1월 초에는 1년 전에 중지되였던 《폼쏘몰쓰까야》 관측소가 사업을 시작하였다.

1959년 12월 1일에 남극 탐사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12개국 대표들이 남극을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할 데 대한 30년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1년 7월에 호주 수도 캔베라에서 제1차 남극 조약 회의가 개최되였으며 제 2차 회의는 1962년 7월 18—28일까지 브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진행되였다.

제 1차 회의에서는 남극에서의 원자력 장치 및 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 과학 조사, 생물 보호 등에 관한 가맹국들 간의 협력 문제가 토의되여 이에 관한 권고

안이 채택되였다.

제2차 회의에서는 남극의 평화적 리용 (군사 기지, 군사 연습, 우기 실험 등의 금지), 과학 조사의 자유, 령유권의 동결, 핵폭발의 금지, 시찰의 자유 등을 규정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쏘련 학자들은 남극 대륙 연구에 기여할 15개의 기후도를 작성하였으며 남극의 면적, 남극 대륙과 이 대륙의 빙하층의 형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발표하였다.

북 극

【개관】 북위 66° 30′ 이북을 북극 지방이라고 한다. 면적은 2,500만 평방 키로메터, 그중 약 1,435만 평방 키로메터는 북빙양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세아, 구라파, 북미의 3대륙의 북쪽 일부들과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극해가 북극 지방에 속한다. 북극의 대부분은 약 3 메터 두께의 어름에 덮혀 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219 메터이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보다 따뜻하다. 겨울(1~3월)의 평균 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섭씨 령하 40°, 북극 연안은 령하 30°이다.

여름(7~8월)의 평균 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섭씨 0°, 대륙 연안에서는 5°~9°이다.

북극에서는 1년중 179일은 밤이 계속되며 나머지는 낮이다.

강수량은 년간 200~400미리에 불과한데 저온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다. 최근 년간 온도가 높아져 기온이 온화해지고 있다.

【주민】 약 12만명이 살고 있다. 주요 민족의 거주 지역과 인구는 다음과 같다.

동부 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앙게바 지방 및 그린랜드에 걸친 지방에는 에스키모족 (약 4만명), 서부 씨비리와 노바야 제믈랴에는 싸모에드족 (약 2만명) 동부 씨비리에는 쮸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부에는 아메리카 인디안족, 구라파주의 북방에는 랍프족이 살고 있다. 그외에 소수의 백인들이 살고 있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이 풍부하며 철,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매장되여 있다.

남쪽 바다에는 어류가 많고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를 비롯한 짐승들이 살고 있다.

1960년 봄에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고 생태학 조사단은 1억년 이상으로 추산되는 화석 식물 표본을 약 400종 수집하였다.

【관측】 북극권 내에 령토를 가진 쏘련,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가 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 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37년 5월 21일 쏘련의 북극 탐험가들이 북극 중앙 지대에 도착하여 《북극 1호》 표류 과학 탐측소를 설치하고 274일간에 걸쳐 표류하는 어름 우에서 세계 최초의 북극 탐사를 개시하였다.

쏘련 과학자들은 지구의 북부 기상에 주는 북극권 기상의 결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북극해에 난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베링 해협에 원자력 뗌을 건설할 데 대한 문제와 또한 바이칼호와 북극해를 련결하는 수리 건설 사업과 북극해의 북동 항로의 개설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지구 물리학적 현상들의 합법칙성, 그 현상들의 발생 및 변화를 구명하는 고대 지구 물리학 연구의 결과 약 5억년 전에는 지리학적 극들이 현재의 적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등 흥미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쏘련은 북극에 21개의 탐사대, 4개의 연구소, 1천개의 극 관측소를 설치하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61년에는 《레닌》호와 신 쇄빙선 《모쓰크바》호를 주력으로하는 북극 조사 선단이 증강되였다. 1963년 1월 26일 쏘련의 원자력 잠수함 《레닌쓰끼콤소몰》호가 어름 밑을 항행하여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북극은 아세아 구라파 및 미주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 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하다.

미국은 이런 점을 리용하여 북극 지대에까지 공군 기지망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

국제 련합 기구
(유엔)
United Nations—UN

【성립】 1945년 4월 25일에 미국 샌프랜씨스코에서 열렸던 련합국 회의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 모든 국제적 분쟁 문제들의 평화적 조정, 국가들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로서 창설되였다(기구 헌장은 10월 25일 발효).

【성원】 113개 국 (1963년 12월 현재), 5월 14일 유엔 총회 특별 회의에서 쿠웨이트가 유엔 성원국으로 되였다. 총회 제 18차 회의에서 잔지바르, 케니아가 유엔에 가입하였다.

【기구】 총회 (전체 성원국으로 구성), 안전 보장 리사회 (쏘, 미, 영, 불 및 중국의 5개 상임 리사국과 6개의 비상임 리사국으로 구성), 경제 사회 리사회 (18개 국으로 구성), 후견 리사회 (14 개국으로 구성), 국제 재판소, 사무국

총회 보조 기관 제1(정치)위원회, 특별 정치 위원회, 제2(경제, 재정) 위원회, 제3(사회, 인도,문화) 위원회,제4 (후견) 위원회, 제5(행정 예산) 위원회, 제6(법률) 위원회

전문 기구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 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 국제 로동 기구, 세계 보건 기구,만국 우편 련맹, 국제 전신 련맹, 국제 민용 항공 기구, 세계 기상 기구, 국제 통화 기금, 국제 부흥 개발 은행, 국제 금융 공사, 국제 원자력 기구, 정부간 해운 사업 협의 기구

사무 총장 우 탄트(버마, 1962년 11월 30일 총회 제17차 회의에서 피선)

본부 소재지 뉴욕

【사업】 총회 제18차 회의는 9월 17일—12월 17일 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 문제,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 문제, 유엔의 주요 기구들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석 수를 증가시킬 데 대한 문제, 유엔 기구 위원회 개선 문제, 식민지 문제, 군비 철페 문제 등 90건이 토의되였다.

《조선 문제》 1963년 12월 9—11일 간에 열린 18차 총회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또다시 비법적으로 상정된 《조선 문제》가 토의되였다.

1963년 11월 22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회의에서 《조선 문제》가 상정되고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허위적인 《년페 보고》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 인민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을 천명한 비망록 《조선 통일 문제 해결의 길》을 발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9월 25일부 성명에서 《만일 유엔이 진정으로 그 헌장에 부과된 사명을 정당하게 수행하려 한다면 계속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고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엄페하는 데 리용될 것이 아니라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며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해체시키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일단 유엔에서 <조선 문제>가 토의되는 이상에는 응당 이 문제의 당사자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기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조선 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조작되는 조선에 관한 유엔의 그 어떠한 <결의>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정치 위원회 12월 9일 회의에서 몽고 인민 공화국 대표는 《조선 문제》 토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와 남조선 대표를 동시에 초청할 것을 제의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기계적 다수표로 강압 통과시켰다.

12월 11일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자기의 추종국들을 긁어 모아 《조선 문제》에 관한 《14개 국 결의안》을 비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조선에서의 《안전》이니, 《평화적 해결의 알선》이니 하면서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남조선을 강점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명하였으며 미제의 침략 도구인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존속시킬 것을 공언하였다. 미제는 또한 《결의안》에서 지난 시기의 《조선 문제》에 관한 유엔의 모든 《결의》들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조선 전쟁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침략적 야욕을 조선 인민에게 다시금 강요하려는 기도를 드러내 놓았다.

이《결의안》에 11개 국이 반대 투표하였으며 22개 국이 기권하고 14개 국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12월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총회에서 비법적으로 채택된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며 단호히 배격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의석 회복에 관한 문제 10월 12일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대표는 유엔에서 장 개석 도당을 축출하고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캄보쟈는 이 결의안의 공동 발기인으로 되였다. 10월 21일 총회 전원 회의에서는 알바니야, 캄보쟈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였다.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권리 회복을 지지하여 41개 국이 투표하였으며 12개 국이 기권하였다. 미제는 거수기를 발동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또다시 방해하였다.

유엔의 주요 기구들에서의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석을 증가시킬 데 대한 문제 12월 13일 유엔 아세아, 아프리카 37개국 대표들은 안보 리사회와 경제 사회 리사회의 의석수를 증가시킬 데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또한 총회 중위원회의 의석 수와 총회 부의장수를 증가시킬 데 대한 결의안들도 제출하였다.

12월 17일 유엔 총회 전원 회의에서는 안보 리사회 성원국 수를 현재의 11석으로부터 15 석으로 확대할 데 대한 결의안이 찬성 97표, 반대 11표, 기권 4표로 채택되였다. 경제 사회 리사회 성원국 수를 현재의 18석으로부터 27석으로 확대할 데 대한 결의안은 찬성 96표, 반대 11표, 기권 5표로 채택되였다. 그리고 총회 총 위원회 부의장 수를 현재의 13명 대신 17명으로 증가시킬 데 대한 결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식민지 인종 차별 문제 10월 11일 총회 전원 회의에서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찬성 106표, 반대 1표(남아프리카 공화국)로 채택되였다. 11월 13일 전원 회의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리고 11월 20일 전원 회의에서는 온갖 형태의 인종 차별을 철폐할 데 대한 선언이 만장 일치로 채택되였다.

10월 18일 총회 전원 회의에서는 콩고 주둔 유엔군을 아둘라 도당의 요청대로 1964년 6월 말까지 콩고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 결정되였다.

이에 앞서 진행된 총회 특별 회의 6월 27일 회의에서는 콩고와 중동에서 1963년 말까지 진행하는 유엔의 활동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4,250만 딸라의 차관 제공을 예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 밖에 유엔 총회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비 핵 지대 창설 문제, 우주 공간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국제적 협조 계획을 토의 채택하였다.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와르샤와 조약)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аршавский Договор)

【성립】 1955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상 회의는 서부 렬강 지배층들이 독일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며 서부 독일을 침략 쁠럭인 《나토》에 인입시킬 목적으로 《파리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새 전쟁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정세를 토의하고 구라파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침략적인 《나토》와 기타 침략적인 군사 쁠럭에 대처하는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와르샤와 조약)을 5월 14일에 체결하였다.

본 조약은 평화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안전과 그의 민족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공고화를 지침으로 하는 방위적인 성격을 띤 조약이다.

이 조약의 기한은 20년이다. 조약 참가국들이 조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1년전에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10년간 자동적으로 더 연장되게 되여 있다.

【성원】 쏘련, 파란,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웽그리아, 알바니아

【기구】 지도 기관은 정치 협상 위원회(정부 성원이나 혹은 특별히 임명된 대표가 매개 나라를 대표한다)이고 보조 기관으로서 상설 위원회와 합동 서기국이 있다.

합동군 총사령관 쏘련 원수 아. 아 그레치꼬, 합동군 총참모장 빠. 이바또브 대장(쏘련), 부사령관들은 체약국 무력 대표들로 임명된다.

본부 소재지 모쓰크바

【사업】 1963년 7월 25일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공산당 및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1 비서 및 정부 수석 회의가 있었다.

회의는 핵 무기 시험 중지 문제에 관한 쏘련 정부와 미, 영 정부들과의 회담의 결과들을 찬동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3년 7월 26일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정치 협상 위원회 정기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약 참가국들의 무력의 상태와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963년 2월 28일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국방상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군대들의 상태와 관련한 당면한 문제들과 군대들의 1963년 전투 훈련 조절 계획들이 토의되였다.

와르샤와 조약 성원국 군대들의 합동군 사령부 계획에 따라 1963년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남부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민족 인민군과 파란, 쏘련 및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들의 련합 군부대들이 참가한 군사 연습이 있었다.

아랍 련맹

League of Arab States

【성립】 1944년 9월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아랍 외상 회의에서 채택된 《알렉산드리아 의정서》의 원칙에 기초하여 1945년 3월 22일에 성립되였다.

【성원】 아랍 련합 공화국, 씨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예멘(성립 당시 가맹국), 리비아 (1953년 3월 가맹), 수단(1956년 1월 가맹), 모로코, 튜니샤(1958년 10월 가맹), 쿠웨이트(1961년 7월 가맹), 알제리아(1962년 8월 가맹).

【기구】 최고 기관인 리사회와 정치 위원회, 각 전문 위원회(경제, 보건, 위생, 교통, 문화, 법제, 사회), 서기국이 있다.

서기장 모함메드 아브델 할레크 하수나 (아랍 련합 공화국)

본부 소재지 카이로

【사업】 1963년 3월 30일—4월 2일 카이로에서 제39차 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오만 민족주의자들에게 물질 및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할 데 관한 제안, 불란서의 비밀 무장 단체들에 의하여 파괴된 알제리아의 도서관을 복구함에 필요한 자금을 수집할 데 대한 문제, 아랍 의약품 공동 시장을 창설하며 마라리아, 천연두, 암종과의 투쟁에서 아랍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제안들을 채택하였다.

1963년 9월 9일 카이로에서 진행된 제40차 리사회는 영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침략 행동을 중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예멘 아랍 공화국의 제소가 토의되였으며 요르단강의 수로를 변경하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1963년 9월 16일에 진행된 아랍 련맹 정치 위원회 전원 회의는 《예멘 아랍 공화국에 대한 영국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영국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예멘의 투쟁을 지지할 것을 아랍 련맹 성원국 정부에 호소하였다.

1963년 10월 19—20일 카이로에서 진행된 리사회 비상 회의에서는 알제리아와 모로코 간의 국경 분쟁을 즉시 중지할 것을 두 나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국경 분쟁을 중지할 목적으로 5개 국 특별 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963년 12월 9—17일 카이로에서 경제 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랍 공동 시장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할 것을 자기 산하의 림시 지도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라파 《공동 시장》 성원국에 어떠한 특권도 주지 말 것을 련맹 성원국에 호소하였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성립】 미, 영, 불 등 12개 서방 국가들이 1949년 4월 4일 워싱톤에서 조인한 《북대서양 조약》 (1949년 8월 24일 발효)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나토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서구라파를 통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 동맹이다.

나토 내에서 최근 년간 명도권 문제를 둘러싸고 성원 국가 간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성원】 미국, 영국, 불란서, 카나다, 이태리, 화란, 벨기, 룩셈부르그, 노르웨이, 덴마크, 포도아, 아이슬랜드 (조인시 참가국), 희랍, 토이기 (1952년 4월 참가), 서부 독일 (1955년 5월 참가)의 15개국

【기구】 최고 기관은 리사회 (외상 또는 국방상, 재정상 등 관계 각료로 구성되며 회의는 매년 2~3차 소집)이며 보조 기관으로서 상설 리사회 (가맹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상시 소집된다), 사무국, 군사 위원회 (최고 군사 기구로서 성원국 총참모장들로 구성되며 매년 1차 회의를 진행한다)등이 있다.

사무 총장 디르크 스티케르 (화란)

구라파 통합군 사령관 겸 나토군 사령관 렘니체(미국)

본부소재지 파리

【사업】 1963년에 나토의 핵 무장 문제를 둘러싸고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전례 없이 첨예화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은 핵 독점을 견지하며 서구라파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나토 성원국들이 제공하는 무력으로 조직되는 혼성 부대와 미국이 제공하는 《폴라리스》 원자 잠수함들로 함대를 조직하되 핵 탄두는 미국이 제공하고 미국이 관리 보관하며 핵 무력 유지비는 나토 성원국들에게 공동으로 부담 시키려는 것이다.

1963년 2월 27—28일 파리에서 진행된 나토 상임 리사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계획이 토의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하였던 케네디의 특사 머천트는 3월 3—17일에 걸쳐 런던, 브류쎌, 본, 로마, 파리를 방문하여 이 계획을 접수할 것을 이 나라들에 강요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계획은 기타 나토 국가들의 항거에 부딪쳤다.

영국은 《공동 시장》 가입이 봉쇄된 조건 하에서 구라파에 대두하는 불란서 및 서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련합이 필요하다는 전제로부터 미국의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이 계획에 인입되는 경우에도 자기의 핵 무력의 독자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것을 추구하였다.

이리 하여 3월 20일 파리에서 진행된 나토 상설 리사회 회의에서 영국 외상 흄은 나토 《다 국가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제기하고 그것을 미국의 계획과 동시에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영국 계획의 기본 내용은 나토에 참가한 매개 나라가 자기의 무력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기초한 련합 무력으로서 《폴라리스》 잠수 함대를 조직하며, 핵 무기 관리는 핵 무기 소유 국가들이 하며, 핵 사령부를 설치하여 영국인을 사령관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미국의 계획에 상치되는 것이다. 영국의 독자적 핵 무력 창설 구호는 흄이 수상으로 된 후 더욱 높아졌다.

한편불란서는 미국의 핵 독점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나아가서 미국을 구라파에서 구축하고 구라파에 대한 령도권을 자기가 독차지하려는 로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독자적 핵 무력》의 창설을 고집하고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가장 완강히 반대하여 나섰다.

이미 1월 28일 드 골은 기자단 회견에서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5월 22—24일 오타와에서 진행된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는 나토의 핵 무력 창설 문제와 나토의 전략 문제가 중심적인 안건으로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되여 온 모순이 발로되였다.

회의에서 미국은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이 《동맹국》들의 반대로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게 되자 그 계획의 비 본질적 부분만을 약간 고친 《동맹국간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 《새로운 계획》은 영국이 《다국가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데 비추어 미국은 나토에 3척의 핵 잠수함을, 영국은 전략 폭격기들, 그리고 기타 서구라파 국가들은 전술 공군을 넘겨주며 나토군 최고 사령관 (미국인) 밑에 핵 무력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둘 것을 예견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국이 나토 핵 무력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것과 대리인이 어떠한 명령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리 하여 회의에서는 《동맹국간 핵 무력》 이라는 형태로 나토의 핵 무력이 초보적으로 출현하였으나 이것은 미국이 노리는 《다각적 핵 무력》이라는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미국은 10월 11일 파리에서 벨기, 서독, 희랍, 이태리, 토이기, 영국 등 7개 국으로 《다각적 핵 무력》 연구 전문 그루빠를 조직하였으며 이 무력에 가입할 것을 원하는 몇개 나라로 우선 《다각적 핵 무력》을 창설하려고 시도하였다. 12월 16—17일 파리에서 진행된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는 나토 핵 무장 문제가 토의되였으나 콤뮤니케에는 《국가 당국들에 핵 문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성원국들이 이러한 조직에 광범히 참가할 것》 이라고 막연하게 지적되였을 뿐이다.

한편 나토 성원국들 간의 모순과 알륵은 다른 면에서도 발로되였다.

6월 15일 불란서는 나토군 사령부로부터 자기의 대서양 해군을 철수시킬 데 대하여 나토에 통고하였으며 서독과의 《본—파리 축》을 강화하고 서독을 자기 편에 끌어 넣음으로써 서독이 미국의 계획에 인입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다. 서독은 자기대로 불란서와 제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조하는 두 다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핵 무기를 소유하려고 광분하였다.

1963년에 나토는 각종 모순을 내포하면서도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오타와 회의 콤뮤니케는 서부 베를린 점령 제도를 계속 유지할 야망을 표시하였으며 꾸바와 라오스 사태에 대하여 《우려》와 《불안》을 표시하였다. 파리 회의 콤뮤니케는 구라파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을 《서약》한 죤슨의 서한을 《환영》하였으며 《동남 아세아에서, 카리브 지역에서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계속 불안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사태들에 류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참가국들은 또한 1963년에 공중 기동 연습 (1월 14—17일), 지중해에서의 공군 연습 (4월 2—3일), 미국—서독 공수 연습 (4월 7—10일), 노르웨이에서의 나토군 합동 군사 연습 (6월 4일), 대서양 횡단 공수 작전 (비그 리프트) (10월) 등 도발적 군사 연습들을 감행하였다.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세아토)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SEATO

【성립】 미제의 책동 밑에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조인된 《동남 아세아 집단 방위 조약 및 태평양 헌장》에 의하여 조직되였다(1955년 2월 19일 발효).

세아토는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이 지역의 독립 국가들을 예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 쁠럭이다.

【성원】 미국, 영국, 불란서, 호주, 뉴질랜드, 타이, 비률빈, 파키스탄

【기구】 각료 리사회 (최고 기관으로서 성원국 외상들로 구성되며 년 1회 이상 개최된다)와 그 밑에 방코크 주재 성원국 대사들로 구성되는 대표 리사회와 군사 고문단이 있으며 사무국에는 《파괴 활동》 방지 위원회, 군사 위원회, 경제 위원회 등이 있다.

사무 총장 콘티 수파몽콜 (타이)

본부 소재지 방코크 (타이)

【사업】 세아토는 1963년에도 남부 월남,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지나에 대한 침략 책동을 더욱 강화하며 동남 아세아 일대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1963년 4월 3일과 4일 파리에서 진행된 세아토 군사 고문관 회의에서는 동남 아세아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전례 없이 앙양되여 미제의 침략 기반이 파멸에 직면한 《변천되는 정세에 비추어 군사 계획들을 개정하고 수정》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세아토 참가국들의 《군사적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군사 연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 합의가 달성되였다.

4월 8—10일 파리에서 진행된 세아토의 제 8차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는 소위 《라오스 문제》를 비롯하여 《동남 아세아 정세》, 《남부 월남 정세》, 《카슈미르 문제》, 《세아토 방위 체계의 검토》 등을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특히 회의에서 미제는 《급변하는 라오스 사태에 대비》해서 세아토 성원국들이 《경각성을 유지》할 데 대해서 떠들었다. 세아토 회의가 끝나자 마자 미 국무성은 라오스 왕국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군사 물자의 원조》를 줄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 기도를 드러내 놓았다.

또한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내정 문제까지 제멋대로 토의하고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음모를 적극 추진시킬 데 대하여 모의하였으며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인도의 반동 계층과 《협력》하여 《반중국》 소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강요하였다.

10월 29일과 30일 방코크에서 진행된 군사 고문관 회의는 남부 월남, 라오스 및 기타 동남 아세아 지역들에서 간섭과 무장 침략을 강화할 계획을 토의하였으며 세아토 지역에서 진행할 《보다 더 포괄적인 훈련 계획》을 작성하였다.

1963년 4월 말에 중국 남해에서 세아토 합동 군사 연습, 6월 11일부터 19일까지에 걸쳐 타이에서 대규모의 세아토 군사 연습 등이 진행되였다. 이 군사 연습들은 특히 라오스에 대한 무장 간섭을 위한 준비로서 감행되였다. 세아토 조작 후 10년 간에 25차에 걸쳐 도발적 군사 연습이 감행되였다.

한편 1963년에 세아토의 내부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여 세아토가 일층 약화되였다.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세아토 성원국들의 《일치 가결 원칙》을 《과반수 가결 원칙》으로 변경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세아토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불란서와 영국은 《다수 가결》로서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려는 미제의 제안을 반대하였다.

영국은 자기의 특수한 사정 즉 《카슈미르 문제》 때문에 인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불란서는 거수기로써의 강압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우기는 라오스나 남부 월남에 세아토를 발동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영, 불 모두가 《헤여 나올 수 없다》는 태도였다.

한편 파키스탄은 인도 반동 계층에 대한 무기 및 경제 《원조》와 관련하여 미국에 로골적인 반기를 들었다.

그것은 각료 리사회 회의에 파키스탄이 각료 대신 파리 주재 대사를 참가시켰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중앙 조약 기구

(쎈토)

Central Treaty Organization—CENTO

【성립】 1955년 11월에 《바그다드 조약》이 조작되였다. 1959년 3월 24일 이라크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자 동년 8월 19일 기타 성원국들은 《바그다드 조약》 기구를 《중앙 조약 기구》(쎈토)로 개칭하였다. 쎈토는 나토 및 세아토와 련결된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성원】 토이기, 파키스탄, 이란, 영국(미국은 정식 성원국은 아니나 정치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들에 들어 있으며 사실상 쎈토를 통제하고 있다)

【기구】 상설 리사회는 최고 기관으로서 가맹국의 수상 또는 외상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소집한다. 리사회 밑에 군사, 정치, 경제, 《파괴 활동》 방지 등 4개 위원회와 서기국이 있다.

사무 총장 알리 할라르바리(이란)

본부 소재지 앙카라

【사업】 1963년에 미제는 쎈토를 중근동에 대한 저들의 침략 및 략탈 정책의 도구로 리용하기에 광분하였다.

1월 24—31일 워싱톤에서 벌어진 《파괴 활동》 방지 위원회 회의에서는 토이기, 이란 등 쎈토 참가국들에서의 《공산 활동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월 29—31일 카라치에서 있은 경제 위원회 회의에서는 카라치, 테헤란 및 앙카라를 1964년 초에 《초단파 전화 및 전신 무선 송신 체계》로 련결하며 앙카라, 이스탐불 및 구라파를 련결하는 철도를 완공하여 쎈토 성원국들 간의 군사적 련계를 강화할 문제가 토의되였다.

4월 27—28일 테헤란에서 진행된 군사 위원회 제 13차 회의는 전략적인 나토 지역의 《방위 계획》들과 쎈토의 군사 연습, 군사 련락과 조직 그리고 쎈토와 기타 군사 동맹들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4월 30일—5월 1일 쎈토 각료 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쎈토의 기타 참가국들을 중근동에 대

한 미제의 침략 정책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면서 《공산 침략》이라는 나발을 불어대고 쎈토는 《미국으로 하여금 그 성원 국들에 대한 원조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부분으로 되여 있다》고 떠벌렸다. 회의 콤뮤니케는 리사회가 군사 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동맹의 방위적 가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에 주목을 돌렸다》고 지적하였다.

11월 5—6일 앙카라에서 군사 위원회 제14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 콤뮤니케에 의하면 군사 위원회는 《쎈토 조약 기구의 방위 계획을 연구하고 1965년 합동 연습 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한편 1963년에 쎈토의 내부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다.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쎈토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한 미, 영의 태도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로이기, 이란 및 파키스탄의 태도는 대조를 이루었다. 회의에 파키스탄 대통령 아유브 한 대신 외상 부토가 참가하였는데 부토는 《어떠한 동맹도 그 성원국들 간의 신임과 협조 및 리해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무기 《원조》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부토는 또한 《쎈토가 경제 분야에서 자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필요 불가결하다》고 말하였으며 이란 외상 아람, 로이기 외상도 쎈토의 《경제 활동》과 《경제 협조》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견 상이로 말미암아 회의 콤뮤니케는 리사회가 쎈토 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을뿐 러스크와 영국 외상 흠이 강조한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제지력으로서의 쎈토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미주 국가 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성립】 1948년 4월 30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회의는 1890년 4월 14일에 성립된 《범미 련맹》을 《미주 국가 기구》로 개조하였다. 이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확립하며 이 나라들에서 앙양되고 있는 반미, 반독재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성원】 라틴 아메리카 나라 20개 국 (1962년 1월 22일 《미주 국가 기구》 제8 차 외상 회의에서 꾸바가, 1963년 6월 12일에 볼리비아가 각각 탈퇴)

【기구】 최고 기관인 미주 국가 회의 (5년에 1차 소집), 자문 기관인 미주 국가 외상 회의, 상설 기관인 리사회, 특별 회의 등이 있다.

본부 소재지 워싱톤

【사업】 1963년에 이 기구는 꾸바에 대한 새로운 《집단적 간섭》을 강화하며, 날로 앙양되고 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 적극 리용되였다.

4월 23일 《미주 국가 기구》리사회에서 미제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일련의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반구에서 공산 파괴 활동을 조사》한다는 구실 하에 꾸바를 반대하기 위한 특별 안전 위원회를 설치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기구 성원국들간의 모순도 강화되였다. 볼리비아 외상 벨라르데는 《미주 국가 기구》가 칠리와의 국경 하천 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6월 12일 이 기구로부터의 정식 탈퇴를 선포하였다.

꾸바가 《파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 베네주엘라의 제소를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3일 《미주 국가 기구》외상 각료 리사회에서는 아르젠틴 대표 로돌포 웨이드만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성원들로 《조사 연구》 그루빠를 조직하였다.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СЭВ

【성립】 1949년 1월 25일 모쓰크바에서 불가리야, 웽그리야, 파란, 루마니야,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경제 회의 결정에 의하여 성립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성원】 불가리야, 웽그리야, 파란, 루마니야,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알바니야 (1949년 2월 가입),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50년 9월 가입), 몽고 (1962년 6월 가입)

【기구】 리사회 총회 (최고 기관, 리사회 성원국 수도에서 년 2차 륜번제로 소집하며 회의가 진행되는 나라의 대표단 단장이 의장으로 된다), 리사회 집행 위원회 (성원국 내각 부수상들로 구성되며 2개월에 1차씩 소집), 리사회 성원국 대표자 협의회, 리사회 서기국

소재지 모쓰크바

총비서 엔.파제예브.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는 창설 초기 주로 리사회 성원국들의 대외 무역 활동을 조절하는 데 기본을 두었으나 1954년부터는 성원국들의 인민 경제 계획들을 호상 조절하는 데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중요 생산 분야들에서 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경제 및 과학 기술 상설 위원회들을 창설하였다.

1958년 5월에 쎄브 성원국 당 제1비서 및 정부 수반들의 회의가 있은 후 이러한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다.

【사업】 1963년 7월 24—26일에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쎄브 성원국 당 제1 비서 및 정부 수반들의

회의에서는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1962년) 결정 실행 정형에 관한 쎄브 집행 위원회 보고를 심의하고 쎄브 성원국들의 경제적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제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쎄브 성원국들이 가까운 년간에 1966—1970년도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의 조절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며 이에 기초하여 생산의 전문화 및 협동화를 확장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가 작성한 성원국들 간의 통상에서 다각적 결제제도 이행할 목적으로 국제 경제 협조 은행을 창설할 데 대한 제안들을 비준하였다.

196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집행 위원회 제9차 회의가 있은 후 이 회의에 참가한 리사회 성원국 대표들은 환치성 루블의 다각적 결제와 국제 경제 협조 은행 조직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협정은 협정 조인국들 간의 상품 납입과 기타 지불에 대한 결제가 1964년 1월 1일부터 환치성 루블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예견하였다.

협정에 의하여 국제 경제 협조 은행이 창설되였다(소재지—모스크바, 협정 조인국들이 은행 성원국으로 된다). 협정에는 모든 협정 조인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협정의 목적과 원칙들을 승인하며 협정의 의무와 은행의 규약을 접수하는 기타 나라들도 이 협정에 가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3년에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집행 위원회 회의 (제4차—제10차)에서 성원국들의 경제 협조와 관련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철도 협조 기구

【성립】 1956년 6월 쏘피야에서 있은 제1차 사회주의 국가 철도상 회의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루마니야, 몽고, 불가리야, 알바니야, 월남 민주 공화국, 웽그리야, 체코슬로바키야, 파란

【기구】 상 회의 (최고 기관으로서 매년 1회 소집), 철도 협조 기구 위원회 (상 회의 휴회 기간의 집행 기관), 10개의 상설 분과 위원회, 자동차 운수 및 도로 분과 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헨리크 드론쥐께비치 (파란)

본부 소재지 와르샤와

【사업】 사회주의 국가들의 철도 협조 기구 제8차 상 회의가 1963년 5월 20—24일에 와르샤와 (파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수송 부문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조를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려객 수송과 화물 수송 사업을 개선하며 과학 기술 협조를 확대하며 철도를 더욱 전기화하며 철도 및 자동차 운수에서 전자학 및 기타 선진 기술 수단을 리용할 데 대한 문제 등에 관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성립】 1956년 6월 12일 북경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 몽고

【기구】 전원 회의와 비서처, 해양 어업, 어업 자원 보호 분과 위원회들이 있다. 전원 회의는 매년 가맹국들의 수도에서 륜번으로 열린다.

위원장 허 더행(중국)

본부 소재지 북경

【사업】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제8차 전원 회의가 1963년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 성원국 대표단들과 동 위원회 상설 비서처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7차 전원 회의 이후의 위원회 사업(1962—1963년도 사업) 총화에 대한 보고와 성원국들이 제출한 학술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1963—1964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하였다.

회의에서는 수산 과학 분야에서 달성한 경험들을 교환하였는 바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산업 발전》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각 체약국들 간의 1963—1964년도 어업 해양학 및 호소학 등 각 방면에 걸치는 합작 건의안들을 토의 비준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Afro—Asi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성립】 1958년 12월 8—11일 카이로에서 진행된 제1차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되였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41 개 국이 가입

【기구】 대회—최고 기관이며 2년에 1차 소집된다. 리사회—상설 기구로서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인도, 버마,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아, 에티오피아, 기니아, 모로코, 수단 등 12 개 국이 성원으로 되여 있으며 파키스탄이 위원장, 말리가 제1 부위원장, 일본이 부위원장으로 되여 있다.

【사업】 1963년 12월 5—9일까

지 카라치 (파키스탄)에서 제4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국, 월남, 아랍 련합 공화국, 기니아, 말리 등 아세아, 아프리카의 29 개국 대표가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후진 국가들과 선진 국가들에서의 균형적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역》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으며 새로운 리사회가 선출되였다.

1963년 4월 11—15일 간에 진행된 리사회 년차 회의에서는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아세아—아프리카 은행의 창설 문제를 토의하였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조직 경위 및 목적】 쎄일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헤자 구나와르다나가 아세아 경제 토론회를 조직할 것을 발기하였다. 일련의 아세아 나라들이 이 발기를 적극 지지하였다.

1962년 9월 25일 콜롬보에서 쎄일론, 중국, 일본 등 5 개국 대표들로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는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와 축적한 경험에 기초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하루 속히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구】 경제 토론회 위원회, 서기국(1963년 2월에 발족)

【주요 사업】 제1차 토론회 196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에 걸쳐 쎄일론의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월남 민주 공화국, 남부 월남, 쎄일론,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0 개 국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세아 경제 발전의 기본 문제들》, 《경제 협조의 제 형태들과 아세아에서 그의 적용》, 《아세아에서의 무역 형태의 변화》, 《신생 아세아 나라들의 민족 경제 발전의 제 요인》, 《구라파 〈공동 시장〉이 아세아 각 나라에 미치는 영향》 문제들을 토의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및 발전과 경제적 협조에 관한 아세아 경제 토론회의 콜롬보 선언》과 《일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조선, 중국, 월남 민주 공화국, 남부 월남, 쎄일론,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으로 구성된 아세아 경제 토론회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아세아 국가 호상간, 그리고 아세아와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들에 호소하였다.

회의는 또한 아세아 경제 토론회 위원회의 소재지를 콜롬보로 하고 위원장으로 쎄일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인 헤자 구나와르다나 녀사를 선거하였다.

구라파 《공동 시장》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설립】 구라파 《공동 시장》은 1957년 3월 25일 이태리의 수도 로마에서 구라파 석탄 및 강철 공동체 성원국들인 불란서, 서부 독일, 이태리, 벨기, 화란 및 룩셈부르그의 6 개 국 대표들이 《구라파 경제 공동체 조약》(로마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성립되였다. 동 조약은 195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이 축소되고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형성이 심화된 결과 산생된 제국주의 모순의 산물로서 불란서와 서독이 서구라파에서 미, 영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들의 령도권을 확립하려는 배타적인 쁠럭이며 침략적인 북대서양 《동맹》(소위 나토)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6 개국의 독점 자본의 국제적 련합이다.

《로마 조약》에 의하여 《공동 시장》은 관세 동맹을 결성하고 3 단계 (12년 내지 15년간)에 걸쳐 《공동 시장》 성원국 간의 관세 및 수출입 제한을 철페하는 동시에 《공동 시장》 지역 외의 제3 국에 대하여 통일적인 관세 및 통상 정책을 실시하며 성원국들 간의 자본 및 로동의 자유로운 류동을 실현하고 농업 및 운수 분야에서 공동 정책의 실시 등을 예견하고 있다.

즉 《공동 시장》은 그 성원국인 6 개 국을 하나의 페쇄된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국경 없는 《구라파 합중국》을 형성하며 독점체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독점체들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얻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 기반과 《나토》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 민족 해방 운동,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반혁명 세력들의 공동 진출을 도우며 후진 국가들에 대한 략탈과 예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기구】 각료 리사회 (6 개 국 각료들로 구성되는 정책 결정 기관), 집행 위원회 (조약의 집행을 감독하며 각종 결의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각료 리사회가 준 지시를 집행하는 기관), 구라파 의회 (《공동 시장》, 석탄 강철 공동체 및 원자력 공동체의 공동 의회)

【성원】 불란서, 서부 독일, 이태리, 벨기, 화란 및 룩셈부르그, 이외 준 성원국으로서 희랍, 토이기

【사업】 《공동 시장》은 1958년 1월 1일부터 1961년 말까지 경제 통합 제1 단계를 끝마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제2 단계로 넘어

갔다.

《공동 시장》의 경제 통합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 렬강 간의 시장 재분할을 위한 개 싸움은 날이 갈수록 우심해 졌으며 1963년에 들어와 그것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공동 시장》 내부의 대립, 《공동 시장》을 일방으로 하고 미, 영을 타방으로 하는 대립, 약육 강식의 법칙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미, 영, 불, 서독 등 호상 간의 암투가 더욱 첨예화되였으며 로골적인 충돌에까지 다달았다.

영국은 《공동 시장》의 대외 관세 장벽을 뚫고 서구라파 시장에 침투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며 구라파에서 령도권을 유지해 보려는 계획 밑에 이미 《구라파 자유 통상 련합》을 형성하여 《공동 시장》과 맞섰다가 실패하자 1958년 8월에 《대영 제국》 간판을 내 던지고 《공동 시장》에 가입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하여 나섰다. 그러나 《공동 시장》 측에서는 미제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오늘까지 거부하고 있다. 한편 미제가 1962년에 영국이 《공동 시장》 가입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통상 확대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 권한을 가지고 《공동 시장》과 영국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타산도 파탄되였다. 이리하여 1963년에 들어와 그들간의 추악한 개싸움이 더욱 로골화되였다.

1963년에 들어서자 1월 14일부터 영국의 가입에 관한 회담이 재개되였다. 그러나 불란서는 1월 17일 《공동 시장》 각료 리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영국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영국의 가입 문제의 토의를 무기 중단할 것을 제기하였다. 1월 28일에 재개된 각료 리사회에서 6개 국 각료들은 영국의 가입 교섭을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미제는 전술을 바꾸어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회의에서 소위 케네디 라운드라는 관세 일괄 인하 교섭을 통하여 각국의 수출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50% 인하시켜 자기의 공업품과 잉여 농산물을 서구라파 시장에 밀어 넣으려고 온갖 술책을 다하였다.

관세 일괄 인하 교섭을 위한 일련의 예비 교섭에서 미국과 《공동 시장》 간에는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미국은 농산물을 관세 일괄 교섭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을 일률적으로 50% 인하할 것을 고집하고 있으며 《공동 시장》 성원국들은 현재의 미국의 높은 관세률과 《공동 시장》 간의 낮은 관세률과의 큰 차이를 우선 좁힐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인하가 실현되면 《공동 시장》의 관세는 극히 낮은 것으로 되고 관세률이 20%를 넘는 것이 전체 수입 상품의 5.3%에 불과할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50% 인하하여도 수입 상품의 38%가 20% 이상의 관세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공동 시장》 측은 필사적으로 반대하였다.

5월 30일 《공동 시장》 6개 국 농업상들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료 리사회에서 누은 닭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3국 (주로 미국, 덴마크 및 이스라엘)으로부터 수입되는 랭동 닭고기의 수입 부과금을 키로그람 당 20 페니에서 30 페니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미제는 12월 4일 화물 자동차, 술 및 전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렬강 간의 무역 전쟁은 더욱 치렬해지고 있다.

《공동 시장》은 7월 1일부터 성원국 간의 관세를 제6차로 10% 인하하였다. 이것으로써 《공동 시장》의 성원국 간의 관세는 1957년 당시 수준의 40%로 떨어졌다.

《공동 시장》과 아프리카 18 개 국은 7월 20일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아프리카 18 개 국과 구라파 《공동 시장》 간의 련계 조약에 조인하였다.

1963년 9월 12일 앙카라에서 《공동 시장》 6 개 국과 토이기는 《공동 시장》 준 가맹 협정에 조인하였다.

1962년 4월 5일 《공동 시장》 6 개 국의 외상 및 농업상들은 각료 리사회에서 공동 농업 정책 실시와 관련한 규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성원국들 특히 서독과 불란서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공동 농업 정책 실시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형편에 처하자 불란서 대통령 드 골은 1963년 초에 유일적인 농업 정책이 1963년 12월말까지 확립되지 못 하는 경우 《공동 시장》의 제반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일괄 관세 인하 교섭에 참가하기 전에 《공동 시장》의 유일적인 농업 정책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각료 리사회, 집행 위원회 회의들에서 대 론쟁이 거듭된 끝에 12월 23일 6 개 국 각료들은 쌀, 소고기 및 우락 제품에 관한 규정, 농업 방침등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공동 시장》 수립의 제1보로 되며 공동 농업 정책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일적인 곡물 가격을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자는 소위 만스홀트 계획을 6개 국이 1964년 4월 1일까지 접수할 것이라는 믿음성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원래 유일적인 농업 정책이 확립되지 못 한 최대의 원인은 《공동 시장》의 2대 세력인 서독과 불란서 간의 리해 관계의 대립에 있다. 불란서는 《공동 시장》에서의 최대의 농업 국가이며

농산물 수출 국가이다. 이와 반대로 서독은 최대의 공업 국가인 동시에 농산물 수입 국가이다. 불란서 농업과 서독 공업의 통합이 불란서가 《공동 시장》 결성에서 노린 최대의 목적이였던 것이다. 때문에 불란서는 공업면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접수하고 소위 《제2 단계에로의 이행》, 즉 유일적인 농업 정책의 실시를 기대하면서 서독과 협조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은 《공동 시장》 이외의 후진 국가에로의 경제적 진출에만 급급하면서 이 나라들에 공업품을 수출하고 그 대신 원료,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불란서의 농산물 수입에는 극히 랭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서독은 자기의 공업 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을 강경히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독의 농산물 생산 원가가 불란서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일적인 농산물 가격이 설정되고 《공동》 농업 시장이 발족하게 되면 서독의 농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폭발하여 서독은 심각한 정치 및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통일적인 농업 정책의 실시를 지연시켜 왔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교섭이 실패한 원인도 주로 원료 및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영 련방 국가들의 원료 및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려는 불란서의 강경한 반대에 있는 것이다.

세계 평화 리사회

The World Council of Peace

【설립】 1949년 4월 20—25일간에 파리와 쁘라가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1차 세계 평화 옹호 대회에서 상설 위원회로 조직되였다가 1950년 11월 16—22일 와르샤와에서 열린 제2차 세계 평화 옹호 대회에서 창건되였다.

【성원】 세계 평화 리사회는 76개의 국가 및 8개의 국제 기구 대표 500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기구】 리사회, 뷰로, 집행 위원회, 서기국이 있다. 집행 위원회 위원장 존 버날 (영국)

본부 소재지 윈나

기관지 《평화 옹호》, 《세계 평화 옹호 리사회 통보》

【사업】 1963년 3월 2—3일까지 말뫼(서전)에서 집행 위원회 확대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구라파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군비 철폐와 평화를 위한 춘기 깜빠니야를 전개할 데 관한 호소문, 그리고 제3차 아. 아 인민 단결 대회 결의를 지지하는 문건 등을 채택하였다.

9월 30일 윈나에서 진행된 집행 위원회 회의는 핵 무기 시험 금지에 관한 조약 체결 이후의 평화 운동의 과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963년 11월 28일—12월 2일간에 와르샤와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80여 개 나라 대표 300여 명의 참가하에 세계 평화 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 평화 리사회 집행 위원회 위원장 존 버날의 보고를 비롯하여 《열핵 전쟁의 위협의 방지와 전반적 군비 철폐를 위한 투쟁》에 대한 보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한 보고, 《경제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조의 발전》에 대한 보고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강량욱 단장은 평화의 탈을 쓰고 침략적인 전쟁 정책을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날날이 폭로 규탄하면서 반제 투쟁과 유리된 《평화적 공존》이나 《군비 철폐》의 구호만으로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을 파탄시킬 수 없으며 진정한 평화를 공고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각국 인민들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련의 결의들과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12월 2일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의에서 리사회는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보다 광범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모든 나라 평화 단체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The Organization For The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설립】 1957년 12월 26일부터 1958년 1월 1일까지 카이로에서 진행된 제1차 아. 아 인민 단결 회의에서 창설되였다. 1960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코나크리에서 진행된 제2차 아. 아 인민 단결 회의에서 명칭을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로 개칭하였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60여 개 국의 아. 아 인민 단결 위원회들이 망라되여 있다.

【기구】 정기 회의 (2년에 1 차 소집), 집행 위원회 및 상설 서기국이 있다.

서기장 유세프 세바이 (아련)

본부 소재지 카이로

기관지 《저널》

【사업】 1963년 2월 4일부터 10일까지 탄가니카 수도 모쉬에서 제3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가 진행되였다.

김 일성 수상은 2월 2일에 제3차 아. 아 인민 단결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대회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적 해방과 독립, 그리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쟁취하며 사회적 진보를 위한 공동 투쟁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함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대회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대회에는 박 세창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을 비롯하여 약 60 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제2차 아. 아 인민 단결 대회 후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이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그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일반 선언, 정치 결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단결 대회 소집에 관한 특별 결의, 경제, 문화, 사회 및 조직 문제들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27 개의 결의들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들 가운데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공동 투쟁 월간》을 설정할 것을 호소하는 결의도 포함되여 있다.

대회에서 채택한 일반 선언과 결의들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주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고 고무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반 선언에서 제기한 1963년도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

ㄱ.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

ㄴ.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아직 해방되지 못한 지역들을 조속히 해방하는 위업에 최대한으로 기여할 것

ㄷ. 아직 해방되지 못한 매개 나라들에서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며 독립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민족 전선들의 행동을 일치 시킬 것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 결의에서는 2차 대회 후 국제 정세 발전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및 전 세계 각국 인민들과 반제국주의적 정부들에 기타 일련의 조치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호소하였다.

ㄱ)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나라들의 단체들과 정치 운동에 배울 수 있는 해당한 조건들을 마련하여 줄 것

ㄴ)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에게 군사적 및 재정적 원조를 줄 것

ㄷ) 민족 해방 운동에 정치, 외교 및 도덕적 지원을 줄 것

ㄹ) 이스라엘과 유태인 민족주의를 통한 신식민주의의 침투에 경각성을 높이며 이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

ㅁ)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 당국의 박해를 받는 모든 민족주의자들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정치 결의는 또한 단결을 강화하며 아. 아 인민들의 목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확인하였다.

1.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단합시키고 일치시키며, 인민들의 해방을 촉진시키며,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보장할 것

2. 이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번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와 권고들을 집행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

3. 량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단결 운동을 촉진시키고 강화하며 단결 운동의 테두리 내에서 각국을 호상 련결시키는 상설 기관으로서 행동할 것

4. 아세아, 아프리카의 단결을 강화하며 단결 기구에 참가한 매개 나라의 자유와 반둥 회의 10 개 원칙을 유린하려는 제국주의 렬강의 기도를 파탄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

대회에서 채택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단결 대회 소집에 관한 특별 결의는 아. 아 및 라틴 아메리카 단결 대회를 하바나에서 소집하자는 꾸바 수상 피델 카스트로의 제의를 열렬히 환영하고 이 대회의 목적이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며 근본적인 민족적 독립과 경제적 해방, 또한 전 세계에서의 진보와 평화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12 개 국 대표들과 6 명의 라틴 아메리카 대표들로 구성되는 3개 대륙 대회 준비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1963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기간에 싸이프러스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아. 아 인민 단결 기구 집행 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30 개 나라들에서 온 1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반 선언과 일반 정치 결의, 그리고 구체적 문제들과 조직 사업에 관한 20여 건의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이 결의들 중에는 조선에 관한 결의, 재일 조선 공민들에 관한 결의, 그리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유로운 조국 왕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 수상에게 보내는 전문이 들어 있다.

회의는 다음 번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리사회 회의를 1964년 상반년 기간에 알제리아에서 소집할 데 대한 결정과 아. 아 인민 단결 기구 집행 위원회 회의를 1964년 가을에 우간다에서 소집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년 10월 19일 아. 아 인민 단결 리사회 상설 서기국은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미제에 의하여 조성된 카리브해 지역의 긴장 상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꾸바가 제기한 5개 항목의 요구를 다시금 견결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년 12월 11일 아. 아 인민 단결 리사회 상설 서기국은 남조선 경기도 련천군에서 미군이 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한 귀축 같은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아. 아 인민 단결 리사회 상설 서기국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군사 조약과 외국 기지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아세아 아프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촉진시킬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남조선에 핵 무기를 반입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고 원자 무기로서 나토군을 장비하며 극동과 지중해에 로케트로 장비된 핵 잠수함을 배치하려는 미제를 단죄하였다.

련합 원자 핵 연구소

Объединенный Институт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성립】 19?6년 ?월에 성립되였다.

【성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쏘련, 중국, 몽고,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웽그리야, 불가리야, 알바니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

【기구】 전권 대표 위원회, 학자 리사회, 재정 위원회가 있다.

소장 드미뜨리 블로힌제브

본부 소재지 두브나

【사업】 1963년 11월 두브나에서 전권 대표 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11 개 국 전권 대표자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196?년도 사업이 총화되고 성원국들의 부담금 문제, 연구사 파견 등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연구소의 금후 연구 활동 계획이 제시되였다.

국제 기자 동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IOJ

【성립】 1946년에 코펜하겐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4 개 국의 35 개 단체

【기구】 최고 기관인 대회 (4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와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쟝 모리스 에르망(불란서)

서기장 이르쥐 메이쯔네르 (체코슬로바키야)

본부 소재지 쁘라가

기관지《민주 기자》(월간 잡지이며 영어, 불란서어, 서반아어, 독일어, 로어로 발행)

【사업】 196?년 2월 22—24일 쟈카르타에서 국제 기자 동맹 집행 위원회 상무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기자 동맹의 196?년도 사업 계획을 비준하고 기자들에 대한 반동 세력의 박해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을 전 세계 기자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 기자들의 국제적 양성 기관을 부다페스트에 설치할 데 대한 결의, 196?년 가을에 제?차 세계 기자 회합을 진행할 데 대한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 및 기타 일련의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 국제 기자 양성소가 설치되였다. 6월 25일 국제 기자 동맹은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 침략자들의 범죄적인 전쟁 도발 13 주년 및 조선 정전 협정 체결 10 주년에 제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이 인민들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자기의 정책을 폭로하는 객관적이며 진실한 보도를 두려워 하면서 남조선 기자들에 대한 테로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196?년 9월 2?일 알지에에서 자기 사업을 개시하고 10월 3일 베이루트에서 끝마친 제?차 세계 기자 회합에는 세계 69 개 국에서 온 260여 명의 기자들이 참가하여 인민들 속에서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기자들, 세계 각국 기자들의 사업 및 취업 조건, 후진국에서의 출판물 및 저널리즘의 형편 문제들을 토의하고 콤뮤니케를 채택하였다.

국제 건축가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성립】 1948년 국제 건축가 상설 위원회와 국제 건축가 대회가 련합하여 성립되였다. 동 기구는 건축가들 간의 협조와 련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59 개 국 53 개 단체들

【기구】 최고 기관인 대회(2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와 집행국이 있다.

위원장 로버트 매튜 (영국)

부위원장 양 정보 (중국)

본부 소재지 파리

기관지《국제 건축가》(격월간)

【사업】 196?년 9월 29일—10월 3일 하바나에서 진행된 제 7 차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69 개 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국토 계획에 관한 문제, 주택 구역의 계획화 및 건설 기술에 관한 문제, 소구역 계획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196?년 10월 8일에 개막된 제8차 총회에서는 조직 문제와 인도, 알제리아, 몽고 등 국가들의 가맹 문제를 취급하였다.

총회 참가자들은 태풍의 피해를 입은 꾸바 인민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전문을 꾸바 수상 피델 카스트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국제 방송 및 텔레비죤 기구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 —IRTO

【성립】 1946년 6월 28일 브류쎌에서 성립, 이 기구는 세계 평화와 인민들 간의 친선과 문화적 련계를 강화하는 데 라지오, 텔레비죤 및 방송 수단들이 리용되도록 하며 선진 방송 기술을 보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23개 국의 방송 기관들

【기구】 총회 (2년에 1차 소집), 행정 리사회 (매년 1 차 소집),4개의 위원회, 총서기처가 있다.

행정 리사회 위원장 [illegible] 이슈트반

본부 소재지 쁘라가

【사업】 1963년 9월 10—14일에 걸쳐 부카레스트에서 국제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기구 총회 제19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총회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화 인민 공화국, 불가리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몽고 인민 공화국, 파란, 웽그리야, 루마니야,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꾸바, 말리 및 분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기간의 기술 위원회, 라지오 프로그람 위원회, 텔레비죤 프로그람 위원회, 상설 기관들의 활동 정형에 대한 행정 리사회의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새 지도 기관들을 선거하였다.

세계 과학자 련맹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WFSW

【성립】 1946년 7월에 창립되였다. 련맹의 목적은 각국 과학자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며 과학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22개국의 20만 이상의 과학자들이 망라

【기구】 최고 기관인 대회 (3년에 1차 소집), 집행 리사회와 집행국이 있다.

위원장 에쓰 포웰 (영국)

본부 소재지 런던

【사업】 1963년 2월 23—24일 제네바에서 국제 과학자 련맹 리사회 뷰로 회의가 100여 명의 학자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후진 국가들에서의 과학과 기술의 적용 문제를 토의하고 국제 과학자 단체 성원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IADL

【성립】 1946년 10월 파리에서 결성되였다. 협회의 목적은 법을 평화 옹호에 복무케 하며 법률학의 발전, 각국의 법률가들 및 법률 단체들 간의 접촉의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데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63개 국의 단체들과 법률가들

【기구】 최고 기관인 대회 (3년에 1차씩 소집),리사회, 상설 위원회, 서기국

명예 위원장 디. 엔. 프리트 (영국)

위원장 피에르 코트(불란서), 무돌프 비스뜨리쯔끼(체코슬로바키야), 페랠라 (쎄일론)

서기장 조애 노르만 (불란서)

본부 소재지 브류쎌

【사업】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서기국 회의가 1963년 1월 와르샤와에서 11개 국의 법률가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평화적 공존의 제반 법적 측면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서부 독일 사법 기관에서의 나치즘 재생조사 국제 상설 위원회 및 남부 월남 인민과의 련대성 상설 위원회를 창설 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1964년 4월에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세계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서기국은 1963년 7월 31일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하루 속히 실현될 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의 호소와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가 발표한 성명에 찬동을 표시하였다. 성명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을 방해하기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일본 당국의 론거 (일본과 북조선 간에 외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론거)는 법률적 가치를 가지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창립】 1894년 6월 23일 불란서 파리에서 열린 국제 체육 단체 회의 (후에 이 회의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1차 총회라고 부름)에서 창립되였다.

【성원】 114 개 나라 올림픽 단체 (1964년 3월말 현재) ·

【기구】 위원회 (최고 기관)는 69 명의 위원으로 구성, 집행 위원회는 9 명으로 구성(1964년 3월 31일 현재)

위원장 애버리 브란데지(미국)

부위원장 엑쎄터 (영국), 맛사드 (불란서)

서기장 옷토 마이에르(서서)

본부 소재지 로잔느(서서)

【사업】 1963년 2월 7—8일에 서서의 로잔느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1월 24일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간의 로잔느 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적인 문제들에 근거하여 조선 유일 팀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 유일팀의 기'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권고안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 올림픽 대표단은 두 가지 권고안 중 어느 것이나 다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대표단은 기'발 문제에서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남조선 측에 기'발 문제의 동의 여부를 확답할 여유 기한을 15일 간 주었다.

회의는 또한 제4차 아세아 체육 대회에 이스라엘과 장 개석 도당을 참가시키지 않았다는 리유로 인도네시아에 앞으로 무기한 올림픽 경기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부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3년 10월 16—20일까지 서부 독일 바덴—바덴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60차 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남조선측의 계통적인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유일팀이 구성되지 못한 조건에서 남북 조선을 각각 독자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총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정식 성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총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파견하는 선수단이 《북조선》이란 명칭 밑에 경기에 참가한다는 부당한 조건을 첨부하였다. 우리 나라 팀 호칭 문제에 대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60차 총회의 부당한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은 현지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상아 해안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7개 국가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성원으로 새로 가입시켰으며 1968년 제19차 하기 올림픽 경기 대회 장소를 멕시코시로 선정하였다.

1964년 1월 28—29일에 인스브룩크(오지리)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61차 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는 알제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4개 국을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성원으로 새로 가입시키고 배구를 정식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1968년 동기 올림픽 경기 대회 장소를 불란서의 그레노블로 선정하였다. 총회는 또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꾜 올림픽 경기 대회 참가를 금지시켰다.

가네포 련맹
Federation of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창립】 1963년 11월 24—25일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카르타에서 48개 국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제1차 가네포 대표자 회의(가네포 리사회 제1차 총회)에서 창립되였다. 가네포 창설 리념은 1963년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에 의하여 세상에 밝혀졌다. 수카르노는 이 해 2월 13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성원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하에 새로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네포)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의 구상은 곧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이 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쟈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12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에 가네포 창설 준비 회의가 진행되였다. 준비 회의는 이해 11월에 쟈카르타에서 제 1 차 가네포 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48개국 (1964년 2월말 현재)

【기구】 집행국 14 명의 성원으로 구성, 상설 국제 서기국

본부 소재지 쟈카르타

명예 위원장 수카르노(인도네시아 대통령)

집행국 위원장 말라디(인도네시아)

부위원장 4 명: 아세아 담당 황중(중국), 아프리카 담당 데 루니(아련), 구라파 담당 까. 아호메또브(쏘련), 라틴 아메리카 담당 (결원)

【사업】 제1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 (가네포) —1963년 11월 10—22일에 쟈카르타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49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구라파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약 3,000명의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륙상, 자전거, 체조, 마라손, 사격, 레스링, 유술, 권투, 력기, 축구, 롱구, 배구, 탁구, 격검, 궁술, 수영 등 20개 종목에 걸친 체육 경기와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예술 공연 및 각국 대표들의 상봉 모임들이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5개의 세계 신 기록이 수립되였다. 그중 륙상 2개 종목—녀자 400메터와 800메터 경주 (조선, 신 금단)

력기 2개 종목—56 키로그람급 용상 (조선, 리흥천), 56키로 그람급 인상 (중국, 류 기원)·

궁술 1개 종목—녀자 30메터 (중국, 리 숙람)

또한 이 대회에서는 60개 종목에 걸쳐 각 지역 및 각국 기록들이

갱신되었는데 그중 수영 23개, 륙상 16개, 력기 12개, 궁술 6개, 사격 3개 종목이다.

13일간 진행된 대회의 전 과정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신흥 세력 국가 인민들 간의 긴밀한 친선과 단결의 시위로 되였으며 훌륭한 재능과 새로운 도덕적 풍모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대회 성과—자료편 참조).

제1차 가네포 총회—1963년 11월 24—25일에 쟈카르타에서 제1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에 참가한 48 개국의 대표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상설적인 신흥 세력 체육 경기 기구를 창설할 데 대한 결정과 가네포 헌장이 채택되였다. 가네포 헌장에는 신흥 세력 체육 경기 대회를 매 4년에 한 번씩 진행할 것이며, 한 경기 대회와 다음 경기 대회 기간에 가네포 참가국들 간의 체육 경기를 조직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 지적되였다. 총회에서는 가네포 련맹을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련맹의 지도 기관으로서 14 명의 성원들로 구성된 집행국을 선거하였다. 또한 총회에서는 1967년의 제2 차 신흥 세력 체육 경기 대회의 진행 장소로서 카이로가 지정되였으며 예비 장소로서 북경이 인정되였다.

세계 직업 련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

【성립】 1945년 9월 25일—10월 9일 파리에서 57 개 국 6,700만 명의 맹원을 가진 65 개 민족 직맹 대표 215 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창립 대회 10월 3일 회의에서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성립되였다.

【성원】 39 개 국 민족 중앙 조직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맹원 수는 1억 1,950만 6,300 명(1961년말 현재)

【기구】 대회 (최고 기관으로서 4년에 1차 소집), 총리사회 (대회 휴회 기간의 지도 기관으로서 세계 직련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며 2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 (총리사회 휴회 기간의 지도 기관으로서 매년 2차 소집), 집행 뷰로 (세계 직련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며 집행 위원회 휴회 기간의 사업을 담당), 서기국(1 명의 서기장과 9 명의 서기로 구성)이 있다.

위원장 레나토 비토씨 (이태리)
서기장 루이 싸이앙(불란서)
본부 소재지 쁘라가
기관지 《세계 직맹 운동》

【산하 산별 직맹】 세계 직련 산하에는 11 개의 산별 직맹이 있다.

국제 금속 및 기계 로동자 직맹
국제 광산 로동자 직맹
국제 화학 및 섬유 로동자 직맹
국제 농업 및 림업 로동자 직맹
국제 건축, 목재 및 건재 로동자 직맹
국제 운수, 항만 및 어업 로동자 직맹
국제 방직, 피복, 피혁 및 모피 로동자 직맹
국제 식료, 담배, 음료 공업 및 호텔, 카페, 레스트란 로동자 직맹
국제 상업 일'군 직맹
국제 공무원 직맹
세계 교원 직맹

【사업】 1963년 1월 29—31일 쁘라가에서 진행된 제 26차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행동 통일 분야에서의 새로운 경험, 세계 직련 활동의 발전, 직맹 국제 련합들의 활동, 근로 녀성 문제에 관한 제2차 국제 직맹 대회의 준비에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1월 30일 오후 회의에서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은 자기 연설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력량이 일치 단결하여 단호하고 견결한 투쟁을 전개할 때만 평화는 수호될 수 있다고 언명하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의 통일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는 근로 녀성들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2차 국제 직맹 대회를 소집하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남부 월남 근로자들 및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직맹 위원회를 설치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3년 10월 21—23일 하노이에서 남부 월남 근로자들 및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직맹 위원회 회의가 우리 나라를 포함한 35 개의 직맹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 로동자들과 직맹 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남부 월남 로동자들과 해방 로동 협회에 보내는 서한,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에게 보내는 서한, 월남 국제 감시 및 관리 위원회에 보내는 전문, 남부 월남 근로자 및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직맹 위원회의 규약을 채택하고 7 명으로 되는 위원회 서기국을 선거하였다.

1963년 11월 27일—28일 라이프찌히에서 국제 직맹 행동 통일 협상 위원회 창설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독점체를 반대하는 공동 조치의 토의를 위한 세계 직련의 협상 및 반독점 행동 통일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기타 사업—세계 직련 서기국은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조선 및 일본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1963년 2월 1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면서 세계 모든 로동자들과 직맹 단체들이 각종 수단과 형식으로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강

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세계 직련 서기국은 1963년 6월 17일에 6.25 13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강력한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전 세계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세계 민주 청년 련맹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WFDy

【성립】 1945년 11월 10일 63개 나라의 청년 대표 437 명 참가하에 런던에서 진행된 세계 민청 대회에서 창건되였다.

【성원】 세계 97개 국의 1억 100만 명 (1960년 말 현재)

【기구】 최고 기관은 대회이고 대회 밑에 집행 위원회,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피에르 피에랄리(이태리)

기관지《세계 민청》(11개 어로 출판)

본부 소재지 부다페스트

【사업】 1963년 2월 6—10일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집행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40개 나라 청년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6일 오후 회의에서 조선 민청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반제, 반미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앞에 나선 기본 과업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각국 청년들의 력량을 튼튼히 통일 단결시키며 그들을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고 언명하였다.

회의에서는 4월 24일을《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국제적 투쟁의 날》로 기념할 것을 세계 청년 단체들에 호소하였으며, 남부 월남 청년 및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일반 결의는 1963년도 세계 민주 청년 련맹 과업을 규정하였다.

집행 위원회에서는 또한 6개의 청년 단체를 새로 련맹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63년 1월 9일 세계 민주 청년 련맹 뷰로 회의에서《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한일 회담》의 범죄적 목적을 폭로하고 이를 사촉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면서《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조일 량국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전'적인 련대성과 지지를 보낼 것을 전 세계 청년들과 그의 단체들에 호소하였다.

1963년 5월 25일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서기국은 6.25 13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18 년간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침략 정책을 규탄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즉시적인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1억 100만 맹원의 이름으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고 강조하였다.

1963년 11월 29일 세계 민주 청년 련맹은《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남조선 주민들을 무참히 살상한 미제 침략자들의 범죄 행위를 견결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 학생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IUS

【성립】 1946년 8월 18—27일 쁘라가에서 48개 국 학생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제1차 세계 학생 대회에서 창설되였다. 동맹은 학생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평화,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국가들의 민주주의적 학생 조직들을 단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69개 국의 63개 학생 단체 (1962년), 약 370만 명을 망라

【기구】 최고 지도 기관인 대회 (2년에 1 차 소집), 집행 위원회 (매년 2 차 소집) 및 서기국이 있다.

본부 소재지 쁘라가

기관지《세계 대학생 소식》(월간)

【사업】 1963년 5월 13—21일간에 알지에에서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가 58개 국 학생 대표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총결의와 50여 개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기타 결의에는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를 비롯하여 라오스 정세에 관한 결의, 남부 월남에 관한 결의, 꾸바에 관한 결의 등이 들어 있다.

조선에 관한 결의는 남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과 식민지 침략 정책의 범죄적 흉계를 단호히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면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과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1963년 3월 11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은 일본 반동 정부와 박 정희 군사 정권 간의 범죄적《한일 회담》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한일 회담》

의 흉모를 규탄하고 전 세계 학생들과 그 조직들, 특히 동맹 성원 단체들에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조선 및 일본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호소하였다.

7월 22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은 조선 정전 협정 10주년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문을 채택하였다. 항의문은 조선 통일의 기본 장애가 바로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에 있으며, 미국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침략과 도발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일체 무기를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63년 11월 28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은 남조선에서 《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살상한 미제 침략군의 야수적 만행을 규탄하는 전문을 미국 정부에 보내였다.

국제 민주 녀성 련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WIDF

【설립】 1945년 12월 1일 파리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제 녀성 대회에서 창립되였다.

【성원】 80여 개 국가의 녀성 2억 이상을 망라(1962년)

【기구】 최고 지도 기관인 대회(4년에 1차 소집), 뷰로,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유제니 코똥 (불란서)
서기장 카르멘 잔티 (이태리)
본부 소재지 베를린
기관지 《세계 녀성》

【사업】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이 소집한 세계 녀성 대회가 1963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모쓰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 녀성들의 권리 및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의 투쟁》이라는 보고와 《사회와 가정에서의 녀성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 《평화, 군비 철폐 및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위한 녀성들의 투쟁》, 《민족적 독립을 위한 녀성들의 투쟁》, 《청년들의 건강, 교양 및 교육》에 관한 보고들이 토의되였다.

6월 25일 전원 회의에서 연설한 우리 나라 녀성 대표단 단장은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 독립도, 세계의 공고한 평화도,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과 권리도, 후대들의 행복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온갖 투쟁 방법을 배합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사면에서 타격을 가하여 수족을 얽어매놓음으로써만 민족적 독립과 해방도, 녀성들의 권리와 후대들의 행복한 미래도, 공고한 세계 평화를 위한 위업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평화, 군비 철폐 및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위한 녀성들의 투쟁》 분과 위원회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 나라 대표는 전쟁을 방지하며 제 인민 간의 평화와 친선,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교살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해서는 얻을 수 없으며 인민들의 투쟁으로써 쟁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 단결을 념원하며 이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녀성들의 이름으로 각국 대표들에게 녀성들의 첫째가는 과업인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녀성들의 투쟁》 분과 위원회에서 연설한 우리 나라 대표는 오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은 곧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이 없이 평화에 대하여 론의한다면 그것은 공담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들어 폭로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반대하는 강력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며 미제가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 녀성 대표단은 6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여 대회에서 발로된 일련의 비정상적인 사태들과 일부 대표들의 토론 및 대회의 문건들에 반영된 부당한 견해에 대하여 우리의 원칙적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조선 녀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녀성 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권리를 위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와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투쟁에서 세계 녀성들과의 국제적 련대성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대회에서는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의 행동 강령》, 《모든 나라 모든 대륙의 녀성들과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기타 권고들이 채택되였다. 그리고 새 지도 기관이 선거되였다.

미주 녀성 대회

1959년 11월 칠리에서 있은 남미 녀성 대회는 미주 녀성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대회 준비를 위하여 1961년 7월 26일, 1962년 1월과 8월 31일에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소집

되였다.

그리하여 1963년 1월 11—15일 꾸바의 하바나에서 미주 녀성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19 개 국에서온 423 명의 대표와 15개 나라에서 온 95 명의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어머니로서, 근로자로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녀성들이 참가하는 중요성》, 《청소년들의 건강, 교육, 편리, 행복에 대한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녀성들이 참가하는 중요성》, 《제 인민들의 자주권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녀성들이 참가하는 중요성》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일치하게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규탄하였으며 영웅적 꾸바 인민의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과 지지를 표시하였다.

1월 12일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이 연설하였다. 그는 자기 연설에서 꾸바 혁명의 승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주 및 전 세계 녀성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는 미제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조선 녀성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 착취와 빈궁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 인류의 진보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단결할 것을 전 세계 녀성들에게 호소하는 결의 등을 채택하였다.

조선 녀성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에서 대회는 미제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시키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할 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결의는 또한 6.25 13주년인 1963년 6월 25일을 전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투쟁 기간을 설정하고 조선 녀성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 옹호할 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는 미주 특히는 남미주 녀성들을 미제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키며 그들을 단결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대회 폐막 회의에서는 꾸바 혁명 정부 수상 피델 카스트로가 연설하였다.

꾸바 옹호 미주 대회

1963년 3월 28—30일 브라질의 니떼로이시에서 꾸바 옹호 미주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아르젠틴, 우루과이, 칠리, 베네주엘라,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푸에르토 리코, 미국 등 나라에서 온 300여 명의 대표를 포함한 1,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중국, 벨기, 서반아의 대표가 옵써버로 참가하였다.

회의는 꾸바를 반대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려는 미제의 침략 책동이 강화되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미제는 3월 18—20일 코스타 리카의 수도 산 호세에서 이른바 미국과 중미 6개국의《대통령 회의》를 벌려 놓고 꾸바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고립과 경제 봉쇄를 더욱 강화하며 중미 국가 졸개들로써 반꾸바 《십자군》을 조작하려는 흉책을 꾸미였다. 또한 미제는 브라질의 극 반동적인 과나바라주 지사 라세르다를 사촉하여 회의를 리오 데 쟈네이로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표들을 체포하는 등 회의를 파괴하려고 온갖 비렬한 수단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브라질 반동들의 책동은 파탄되고 말았다.

대회는 자결권과 불간섭 원칙, 꾸바 인민과의 련대성과 자유 옹호,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자주권과 민족적 해방, 평화와 세계에서의 제국주의적 통치의 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많은 대표들이 미제를 규탄하고 꾸바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회는《모든 미주 국가들에 보내는 호소문—니떼로이 선언》과《자주권과 불간섭 원칙에 대한 침해 행동 및 핵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 투쟁》에 관한 결의, 《꾸바 옹호, 자주권의 존중 및 라틴 아메리카 단결을 위한 투쟁》에 관한 결의, 《미국의 침략측 미주 국가 기구의 행동과 그리고 유엔의 역할 및 꾸바의 5개 조항의 요구》에 관한 결의, 꾸바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호상 존중 및 정상적 관계 유지 정책을 견지할 필요성에 관한 결의, 미주 대륙과 꾸바와의 련대성 행동의 강화 및 일치에 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니떼로이 선언》은《자결에 대한 꾸바의 권리를 수호하며, 꾸바의 내정에 대한 간섭과 국제 무대에서 외국의 간섭 행위를 견제하는 것은 현재나 또는 미래에 있어서 자신의 결심에 따라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 나라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선언은 산 호세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꾸바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담'벽을 쌓을 것을 호소한 것은 꾸바에 대한 새로운 공격과 침공의 명백한 신호라고 규탄하였다.

선언은 꾸바를 공격하며 그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방해하며 카스트로 수상의 5개 항목에 포함되여 있는 꾸바 인민의 합법적인 요구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매개 나

라에서 꾸바와의 련대성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모든 형태들을 리용할 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는 미주 대륙과 꾸바와의 련대성 행동의 강화 및 일치에 관한 결의에서의 제의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 각국에서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7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꾸바를 성원하는 대규모적이고 강력한 시위들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대회는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혁명적 꾸바 인민들과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의 긴밀한 련대성에 대한 시위로 되였으며 꾸바 혁명을 수호하며 민족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 데 대한 그들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 주었다.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

제1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는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예비 회의 (1963. 2. 11—15)를 거쳐 1963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수도 쟈카르타에서 진행되였다.

김 일성 수상은 4월 21일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대회가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하에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들을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의 행동 통일을 강화하며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보다 큰 기여를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대회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기자 대표단을 포함한 48 개 국에서온 197 명의 대표들과 기타 옵써버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데 관한 결의,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들의 사업의 지도적 원칙으로 되는 쟈카르타 선언 및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규약, 그리고 기타 29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들 가운데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자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가 포함되여 있다.

또한 대회는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를 구성하고 그 협회 집행 뷰로를 선거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집행뷰로 서기장으로 인도네시아 기자 협회 위원장인 쟈보로가 선출되였으며 중국, 일본, 파키스탄, 쎄일론, 씨리아, 말리, 알제리아, 탄가니카, 남아프리카 및 북로데시아가 집행 뷰로성원국으로 선출되였다.

대회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데 관한 결의에서 미제를 《현대 제국주의의 주요 아성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단죄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제기하였다.

대회 결의에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독립과 해방의 위업은 주로 그들의 단결과 투쟁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대렬을 분렬 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온갖 음흉한 술책을 분쇄하기 위하여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 제2차 대회의 소집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결의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기자들의 투쟁에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기자 대회를 소집할 것을 라틴 아메리카 기자들에게 제의하였다.

대회는 쟈카르타 선언에서 기자 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이 자유라고 지적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고 유지하며 사회 발전을 전진시키며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키며 민주주의적 권리를 획득 및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공동 리익을 위한 국제적 협조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민족적 념원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선언은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들의 사업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지도 원칙을 규정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들은

1. 신 식민주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군사적 간섭과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국토 완정과 민족적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2.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에 헌신한다.

3. 세계 평화 및 평화적 공존, 군비 축소 그리고 핵 무기 시험 및 사용의 금지를 위한 투쟁에 헌신한다.

4. 유엔의 인권 선언에 명시된 기본 인권을 쟁취하며 인종 격리와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헌신한다.

5. 경제 문화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6. 1955년 반둥 회의 정신과 계획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헌신한다.

7. 진리를 보급하는 사업에서 직업상의 협조를 촉진시키고 센세이숀을 일삼는 방법을 피한다.

기타 결의에서 대회는 라오스, 남부 월남, 꾸바 및 중국, 대만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일본에서 핵 전쟁 위협을 조성하는 미제를 규탄하였다. 결의들은 또한 남아프리카, 북부 칼리만탄, 앙골라, 포도아령 기니아, 모잠비크 및 기타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는 1963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베바에서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 앞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외상 회의(5.15—5.21)가 있었다.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는 31 개의 아프리카 독립 국가 대표들과 아직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21 개의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주의 정당 대표들이 옵써버로 참가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를 축하하여 5월 22일 전문을 보내였다. 김 일성 수상은 금번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함에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통일 문제, 아프리카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지지 문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 문제, 인종 격리 및 인종 차별 종식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토의 결과 수뇌자 회의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헌장과 6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33조로 된 아프리카 통일 기구 헌장에 의하면 이 기구는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및 린접 도서들에 위치한 국가들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통일 기구 헌장은 이 기구의 목적을 모든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의 통일과 단결을 촉진시키며 자주권과 령토 완정 및 독립을 수호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하며 정치, 경제, 문화, 보건, 과학, 기술 및 국방 분야에서의 협조 강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위하여 성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제 원칙들을 규정하였다.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매개 아프리카 국가는 이 기구의 성원국으로 될 권리를 가지며 기구의 모든 성원국들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무를 가진다.

헌장은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기관으로서 국가 및 정부 수뇌자 총회, 각료 리사회, 총사무국, 조정, 화해 및 중재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기구의 최고 기관은 국가 및 정부 수뇌자 총회이다. 총회는 국가 및 정부 수뇌자들이나 혹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주재하고 있는 대표들로 구성되며 매년 적어도 1차씩 소집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비 식민지화에 관한 결의에는 아직도 식민지적 억압을 받고 있는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의 무조건 독립을 요구하였으며 이미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 기금을 설정하여 지원군 부대와 9 개 국으로 되는 조정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규정하였다.

인종 격리 및 인종 차별에 관한 결의에서는 아프리카와 세계에서의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즉 남아프리카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과 아프리카 경외 특히는 미국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회의는 인종 격리를 반대하는 투쟁에 물질적 지원을 주기 위한 기금을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남아프리카의 모든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결의들에서 회의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자기의 경제를 발전시키되 외부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는 요구를 극력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아프리카에 있는 일체 외국 군사 기지들을 철수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국과 체결한 군사 조약들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의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헌장이 채택된 5월 25일을 《아프리카 해방의 날》로 결정하였다.

1963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외상 회의는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아프리카 그루빠》를 창설하였으며 아프리카 통일 기구 상설 본부 소재지를 아디스 아베바로 정하였다. 아프리카 통일 기구에는 현재 32 개 국이 참가하고 있다.

제 9 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

1963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9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 앞서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일본 협의회는 이전 리사장 야스이 가오루 등 28 명의 담당 상임 리사 간부들을 선출하였으며, 제 1, 2차 담당 상임 리사회 회의 (7.22, 23)에서는 대회 일정과 운영 방법, 그리고 기본 보고 등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세계 20 개 국가와 7개의 국제 단체로부터 온 71 명의 외국 대표들과 1만여 명의 일본 각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당면한 공동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결의와 국제적 공동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호소문을 각각 채택하였다.

결의와 호소문은 일본의 핵 무장,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정책,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과 《에프—105 디》형 전투 폭격기의 일본 배치 등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강화하며 전면적 핵 시험 금지를 실현하며 핵 무기 없는 지대를, 특히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즉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의와 호소문은 각국의 군사 기지들의 철폐와 외국 군대의 철수, 신 구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과 미제국주의 군대를 철거시키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조선,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할 것을 지적하였다.

결의와 호소문은 계속하여 남조선, 오끼나와, 남부 월남, 라오스, 북부 카리만탄, 앙골라, 포도아령 기니아,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모잠비크 및 기타 지역에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부분적 핵 무기 시험 금지 문제와 관련한 쏘, 미, 영 3개국 회의

1963년 7월 15—25일 모쓰크바에서 부분적 핵 무기 시험 금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쏘련, 미국 및 영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7월 25일 회의는 《대기권, 우주 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 무기 시험을 금지할 데 대한 조약》에 가조인하였다. (8월 6일 정식 조인)

조약은 조약 참가국들이 지하 핵 시험을 제외하고 대기권, 우주 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 시험을 금지하며 핵 무기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핵 시험 폭발을 추동하거나 그에 참가하지 않을 데 대한 의무를 지게 되여 있다. 또한 조약은 조약 참가국들이《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따라 조약에서 탈퇴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약은 미제가 핵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을 구속하지 않으며 핵 전쟁 도발 정책을 구속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조약의 가조인과 관련하여 7월 26일에 한 방송 연설에서 케네디가 《이 조약은 핵 전쟁의 위험의 종식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조약은 핵 축적을 축소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핵 무기의 생산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다. 조약은 전시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데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지하 핵 시험을 합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 시험 금지를 핵 무기 금지와 분리시킴으로써 핵 무기의 생산, 축적 및 사용도 합법화하고 있다.

케네디는 7월 26일 방송 연설에서 미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권 시험을 재개》할 것이며 나아가서 조약에서 《탈퇴》하고 《모든 형태의 시험을 재개할 용의를 의연히 가지고 있다》고 떠벌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 조약은 사실상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미제가 핵 무기에서 우세를 차지하며 핵 무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길을 열어 주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핵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제는 이 조약을 통하여 핵 무기의 《전파 방지》라는 구실 밑에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 무기를 소유하는 데 장애를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약에서 미제가 노리는 다른 목적의 하나는 이 조약에 의하여 마치도 국제 긴장 상태가 완화되고 핵 전쟁의 위협이 다소라도 감소된 듯이 허위를 류포시키며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고 인민들의 경각성을 마비시키며 대중들을 반제 투쟁에서 떼여내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이 조약은 전 세계 인민들을 우롱하는 일대 기만이며 사기적 문건이다.

국 제 자 료

대륙의 면적

	면적 (1,000km²)		면적 (1,000km²)
아세아주	43 000	구라파주	10 000
아프리카주	30 000	호주및대양주	9 000
북미주	24 000	남 극	15 000
남미주	18 000	총 계	149 000

주요 호수

	면적 (km²)	깊이 (m)	소재지
스페리오르호	82 400	393	북미주(미국및카나다)
빅토리아호	69 400	80	아프리카주
아랄해	65 500	68	아세아주(쏘련)
휴론호	59 600	228	북미주(미국및카나다)
미시간호	58 000	281	북미주(미국)
탄가니카호	32 900	1 435	아프리카주
바이칼호	30 500	1 741	아세아주(쏘련)
니야사호	30 800	706	아프리카주

주요 산악

	높이 (m)	소재지
조몰룽그마산 (에페베스트산)	8 848	중국 히말라야 산맥
쵸고지산	8 611	인도 카라코룸 산맥
킨첸 장가산	8 585	인도 히말라야 산맥
다울라기리산	8 172	네팔 히말라야 산맥
낭가파르바트산	8 126	인도히말라야 산맥
울투그무즈타그산	7 723	중국 쿤룬 산맥
티리즈－미르산	7 690	인도 힌두쿠스 산맥
궁가산	7 590	중국
쓰탈린봉	7 495	쏘련 파미르 고원
승리봉	7 439	쏘련 천산 산맥
일리암푸산	7 014	볼리비아 오리엔탈 산맥
아콘카과산	6 960	아르젠틴 안데스 산맥
한텐그리봉	6 995	쏘련 천산 산맥
오호스델 살라도	6 885	아르젠틴 안데스 산맥
일리마니	6 882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주요 바다

	면 적 (km²)	가장 깊은 곳 (m)		면 적 (km²)	가장 깊은 곳 (m)
태평양	179 679 000	10 960	흑 해	423 000	2 245
산호해	4 791	9 140	발틱해	412 000	463
중국 남해	3 447 000	5 420	**인도양**	74 917 000	7 450
베링해	2 304 000	4 773	아랍해	3 683 000	5 203
오호쯔크해	1 590 000	3 658	안다만해	602 000	4 171
중국 동해	752 000	2 700	홍해	450 000	2 604
동해	978 000	4 036	**북빙양**	13 100 000	5 220
대서양	93 363 000	9 218	바렌쯔브해	1 405 000	600
카리브해	2 754 000	7 241	노르웨이해	1 383 000	3 860
지중해	2 505 000	4 594	그린랜드해	1 205 000	4 864
북 해	544 000	463			

주요 강하

	길이 (km)	류역 면적 (천km²)	소재지		길이 (km)	류역 면적 (천km²)	소재지
미씨시피강	6 230	3 248	북미주	콩고강	4 640	3 690	아프리카주
나일강	6 450	3 690	아프리카주	메콩강	4 500	810	아세아주
아마존강	6 480	7 050	남미주	흑룡강	4 350	1 843	아세아주
양자강	5 530	1 726	아세아주	레나강	4 320	2 416	아세아주
황 하	4 840	745	아세아주	나이제르강	4 160	2 092	아프리카주
라플라타강	4 700	3 194	남미주				

1943년 후 독립한 나라들 (1964년 4월까지)

나라 이름	년 도	면적(km²)	인구(1,000명)
▲ 아세아주			
조 선	1945	220 000	11 568(북반부)
월 남	1945	330 000	30 017
라오스	1949	236 800	3 000
캄보쟈	1953	181 000	5 750
비률빈	1954	299 404	29 698
인도네시아	1945	1 904 345	97 085
말라이 련방	1957	131 287	7 139
버 마	1948	677 950	20 868
인 도	1947	2 948 389	438 000
파키스탄	1947	944 824	93 810
쎄일론	1948	65 610	10 400
씨리아	1943	187 000	5 000
레바논	1943	10 400	2 000
요르단	1946	96 610	1 753
이스라엘	1948	20 700	2 184
쿠웨이트	1961	15 500	321
싸이프러스	1960	9 262	589
▲ 아프리카주			
리비아	1951	1 759 540	2 250
튜니샤	1956	125 130	4 158
알제리아	1962	2 205 000	
모로코	1956	445 577	12 806
마우리타니아	1960	1 086 000	727
말 리	1960	1 204 000	4 410
세네갈	1960	197 161	3 100
기니아	1958	247 000	3 000
시에라레오네	1956	72 326	2 450
상아 해안	1960	315 500	3 375

나라 이름	년 도	면적(km²)	인구(1,000명)
상부 볼타	1960	274 000	4 404
가 나	1957	273 780	7 100
토 고	1960	56 600	1 520
다호메	1960	115 800	2 050
니제르	1960	1 189 000	2 870
차 드	1960	1 284 000	2 721
나이제리아	1960	879 000	55 653
카메룬	1960	520 270	4 326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960	617 000	1 784
수 단	1956	1 505 823	12 109
소말리	1960	637 593	2 100
가 본	1960	267 000	450
콩고(브라자빌)	1960	342 000	864
콩고(레오폴드빌)	1960	2 344 932	14 790
우간다	1962	243 410	6 845
르완다	1962	26 338	2 665
부룬디	1962	27 838	2 224
케니아	1963	582 600	8 800
탄카니카	1961	939 400	9 560
잔지바르	1963	2 657	315
말가슈	1960	592 004	5 298
▲ 미주			
쟈마이카	1960	11 300	1 607
트리니다드—토바고	1960	5 123	858
▲대양주			
서부 사모아	1962	2 946	107

각국 화폐명

	통화 단위	통화 단위의 금 함유량(g)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 (100전)	
중화 인민 공화국	원	
몽 고	뚜그리크 (100뭉고)	
월남 민주 공화국	동	
라오스	키프	
일 본	엔 (100센)	0.002 468 53
비률빈	페소 (100 쎄타보)	0.444 335
인도네시아	루피아	
타 이	바트 (100 사탕)	
말라이	딸라 (100센트)	

	통화 단위	통화 단위의 금 함유량(g)
버 마	캬트 (100피아)	0.186621
네 팔	루피	
인 도	루피 (16 안나)	0.186621
파키스탄	루피 (16 안나)	0.186621
쎄일론	루피 (100 쎈트)	0.18662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	
이 란	리알 (100디나르)	0.0117316
이라크	디나르(1,000필)	2.48828
씨리아	파운드 (100피아스터)	0.405512
레바논	파운드	0.405512
요르단	디나르(1,000필)	2.48828
이스라엘	파운드(1,000프루토트)	0.296224
사우디 아라비아	리얄	0.197482
토이기	리라(40쿠르스)	0.0987412
싸이프러스	파운드	
아랍 련합 공화국	파운드(100피아스터)	2.55187
리비아	파운드	2.48828
튜니샤	디나르	
알제리아	디나르	
모로코	디르함	0.175610
말 리	프랑	
기니아	프랑	
리베리아	딸라	
나이제리아	파운드	
수 단	파운드	2.55187
에티오피아	딸라 (100쎈트)	0.357690
콩고 (레오폴드빌)	프랑	
남 아프리카 공화국	파운드	1.24414
쏘 련	루블 (100꼬뻬이까)	
파 란	즐로띄	
체코슬로바키야	크로네	
웽그리야	포린트	
루마니야	레이	
불가리야	레브	
알바니야	레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마르크 (100펜니히)	
서부 독일	마르크	0.2216
유고슬라비야	디나르	0.00296224
오지리	쉴링 (100그로쉔)	0.0341796
희 랍	드라크마 (100렙프트)	0.0296224

	통화 단위	통화 단위의 금 함유량 (g)
분 란	마르카 (100페니아)	0.0027771
서 전	크로나	0.171783
노르웨이	크로네	0.124414
아이슬랜드	크로나	
영 국	파운드 (20설링 240페니)	2.48828
덴마크	크로네	0.128660
화 란	길다	0.245489
벨 기	프랑(100쎈팀)	0.0177734
룩셈부르그	프랑 (100쎈팀)	0.0177734
불란서	프랑 (100쎈팀)	0.180000
서 서	프랑	
이태리	리라 (100쎈티시미)	0.00142187
서반아	페세타 (100쎈팀)	0.0148112
포도아	에스쿠도	0.0309103
카나다	딸라 (100쎈트)	0.822021
미 국	딸라 (100쎈트)	0.888671
멕시코	페소 (100쎈타보)	0.0710937
과테말라	케트짤	0.888671
혼듀라스	렘피라 (100쎈타보)	0.444335
살바도르	콜론 (100쎈타보)	0.355468
니카라과	코르도바 (100쎈타보)	0.126953
코스타 리카	콜론 (100쎈팀)	0.134139
파나마	발보아	0.888671
꾸 바	페소 (100쎈타보)	0.888671
하이티	구르 (100쎈팀)	0.177734
도미니카	페소	0.888671
베네주엘라	볼리바르	0.265275
콜롬비아	페소(100쎈타보)	0.455733
브라질	크루제이로(100쎈타보)	0.0480363
에꾸아도르	수크레(쎈타보)	0.0493706
페 루	솔 (100쎈타보)	
볼리비아	볼리비아노 (100쎈타보)	
파라과이	과라니 (100쎈팀)	
우루과이	페소	0.120091
아르젠틴	페소(100쎈타보)	
칠 리	에스쿠도	

도량형 환산표

길 이

센치메터	메터	키로메터	인치	푸트	야드	마일	척(尺)	리(里)
1	0.01	0.00001	0.39370	0.03281	0.01094	—	0.033	—
100	1	0.001	39.370	3.28083	1.09361	0.00062	3.3	0.0025
100 000	1 000	1	—	3280.8	1093.6	0.62137	3300	2.5463
2.5400	0.02540	—	1	0.08333	0.02777	—	0.8382	—
30.480	0.30480	—	12	1	0.33333	—	1.0058	—
91.440	0.9144	—	36	3	1	—	3.01752	—
160.930	1609.3	1.60934	63360	5280	1760	1	5310.8	4.0978
30.303	0.30303	0.00030	11.930	0.99419	0.33140	—	1	—
392 727	3 927.3	3.9273	154620	12885	4295	2.44029	12960	10

면 적

평방메터	아르	헥터	평방키로	평방푸트	평방야드	에이커	평방마일	평방척(尺)	평(坪)	반(反)
1	0.01	0.0001	0.000001	10.764	1.1960	0.000247	—	10.890	0.30250	0.001008
100	1	0.01	0.0001	1076.4	119.60	0.024711	0.000039	1089.0	30.250	0.10083
10 000	100	1	0.01	—	11960	2.4711	0.003861	108900	3025.0	10.083
0.092903	0.000929	0.000009	—	1	0.11	—	—	0.0117	0.02810	—
0.83613	0.008361	0.000084	—	9	1	—	—	9.1055	0.25293	—
4046.8	40.468	0.40468	0.004047	43560	4840	1	0.00156	—	—	4.0804
2589900	25 899	258.99	2.5899		3.097600	640	1	—		261.15
0.091827	0.000918	0.000009		0.98841	0.10982	—	—	1	0.02778	—
3.3058	0.033058	0.000331	0.000003	35.583	3.9637	—	—	36	1	0.00333
991.74	9.9174	0.099174	0.000992		1186.1	0.24506	0.000382	10800	300	1

용적 및 체적

립방센치메터	립방데시메터	립방메터	립방인치	립방푸트	립방야드	갈론	립방척(尺)	승(升)	석(石)
1	0.001	0.000001	0.061024	0.000035	—	—	0.00004	—	—
1000	1	0.001	61.024	0.03531	—	0.26417	0.03594	0.55435	—
100000	1000	1	61024	35.315	1.30795	264.17	35.937	—	5.5435
16.387	0.01638	0.000016	1	—	—	—	—	—	—
28317	28.317	0.02831	1728	1	0.03704	7.4805	1.0176	15.698	0.15698
764529.8	764.53	0.76453	46656	27	1	201.97	27.475	423.83	4.2383
27826	27.826	0.02783	1698.1	0.98274	0.03670	7.3509	1	15.426	0.15426
1803.9	1.8039	—	110.08	0.063704	—	0.47654	0.064827	1	0.01
180390	180.39	0.18039	11008	6.3704	0.23668	47.654	6.4827	100	1

중 량

그람	키로그람	톤	온스(상형)	파운드(상형)	돈(刄)	근(斤)	관(貫)
1	0.001	—	0.03527	0.00220	0.26667	0.00167	—
1000	1	0.001	35.273	2.20462	266.67	1.66667	0.266667
1000000	1000	1	—	2204.62		666.7	266.67
0.06480	—	—	0.00229	0.000743	0.01728	0.00108	—
28.350	0.02835	—	1	0.0625	7.5600	0.04725	—
453.6	0.45359	0.000454	16	1	120.957	0.75600	0.12096
3.75	—	—	0.32277	0.00827	1	—	
600	0.6	0.0006	21.164	1.32277	160	1	0.16
3750	3.75	0.00375	132.28	8.26723	51000	6.25	1

올림픽 년대표

	년월일	장 소
★ 하기		
1차	1896. 4.6—4.15	아테네(희랍)
2차	1900. 7.14—7.26	파리 (불란서)
3차	1904. 8.29—9.3	센트루이스(미국)
올림픽 중간 경기 대회	1906. 4.22—5.2	아테네 (희랍)
4차	1908. 7.13—7.25	로마(이태리)
5차	1912. 7.6—7.14	스톡홀름(서전)
6차(1차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중지)		
7차	1920. 8.15—9.12	안트워프(벨기)
8차	1924. 7.5 —7.27	꼬롬프(불란서)
9차	1928. 7.28—8.12	암스테르담(화란)
10차	1932. 7.30—8.14	로스안젤스 (미국)
11차	1936. 8.1—8.16	베를린 (독일)
12차 및 13차 (2차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중지)		
14차	1948.8.29—9.14	런던(영국)
15차	1952.7.19—8.3	헬싱키(분란)
16차	1956. 11.22—12.8	멜보른(호주)
17차	1960. 8. 25—9.11	로마 (이태리)
★ 동기		
1차	1924. 1.25—2.5	샤모니(불란서)
2차	1928. 2.11—2.19	산 모르츠(서서)
3차	1932. 2.4—2.13	레구 프라시트(미국)
4차	1936. 2.6—2.16	갈밋슈 파텐겐(독일)
5차	1948. 1.30—2.8	산 모르츠(서서)
6차	1952. 2.14—2.25	오슬로(노르웨이)
7차	1956. 1.26—2.5	꼴티나 단페쵸 (이태리)
8차	1960. 2.18—2.28	스쿼벨리(미국)
9차	1964. 1.29—2.9	인스브룩크 (오지리)

제 1 차 가네포 기록

륙상

	종 목	기 록
▶ 남자	100 m	10초 7
	200 m	21초 8
	400 m	49초 5
	800 m	1분52초 3
	1 500 m	4분00초 8
	5 000 m	14분57초 5
	10 000 m	31분05초 2
	마라손	2시간49분50초 9
	110 m 장애	14초 3
	400 m 장애	52초 5
	4×100 m	41초 8
	4×400 m	3분20초 6
	3 000 m 장애	9분17초 1
	주광도	7. 51메터
	주고도	2. 01메터
	삼단도	16. 40메터
	봉고도	4. 40메터
	원반	48. 42메터
	포환	17. 02메터
	창	66. 71메터
	철주	62. 33메터
	10종 경기	5 900 점
▶ 녀자	100 m	12초 4
	200 m	23초 5
	400 m	51초 4
	800 m	1분 59초 1
	80 m 장애	11초 4
	4×100 m 계주	48초 2
	원반	47. 17 메터
	포환	15. 25 메터
	창	47. 32 메터
	주고도	1. 70 메터
	주광도	5. 47 메터
	5종 경기	4 525 점

수영

	종 목	기 록
▶ 남자	100 m 자유영	55초 5
	100 m 평 영	1분 12초 4
	100 m 나비영	1분 02초 1
	100 m 배영	1분 07초 4
	200 m 자유영	2분 06초 5
	200 m 배영	2분 29초 6
	200 m 나비영	2분 20초 9
	400 m 자유영	4분 37초 6
	1 500 m 자유영	18분 46초 8
	4×100 m 혼계영	4분 15초 6
	4×200 m 자유계영	8분 04초 6
▶ 녀자	100 m 배영	1분 20초 5
	100 m 자유영	1분 06초
	100 m 평영	1분 25초 3
	100 m 나비영	1분 16초 5
	200 m 평 영	3분 05초 5
	200 m 자유영	2분 32초 5
	400 m 자유영	5분 35초 4
	4×100 m 혼계영	5분 12초 4

력기

급수 (kg)	종합 성적	(추상+인상+용상)
52	285	(85+87.5+112.5)
56	337.5	(97.5+105+135)
60	355	(107.5+107.5+140)
67.5	382.5	(125+115+142.5)
75	405	(127.5+120+157.5)
82.5	430	(135+132.5+162.5)
90	400	(130+120+150)
90 이상	445	(140+135+170)

경 기 기 록

※ 1963년 12월 31일 현재 올림픽 경기 및 세계 선수권 대회들에서 수립된 중요한 개인 경기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륙 상

종 목	올림픽 기록 (시간-분:초•)	세계 기록 (시간-분:초•)
▶남자		
100m	10•2	10•0
200m	20•5	20•3
400m	44•9	44•9
800m	1:46•3	1:44•3
1 500m	3:35•6	3:35•6
5 000m	13:39•6	13:35•0
10 000m	28:32•2	28:15•6
마라손	2-15:16•2	2-14:28•0
4×100m 계주	39•5	39•1
4×400m 계주	3:02•2	3:02•2
110m 장애	13•5	13•2
400m 장애	49•3	49•2
3 000m 장애	8:34•2	8:29•6
20km 경보	1-31:27•0	1-25:57•2
50km 경보	4-25:30•0	4-11:18•2
주광도	8m12cm	8m31cm
주고도	2m16cm	2m26cm
봉고도	4m70cm	5m20cm
삼단도	16m81cm	17m03cm
포환 던지기	19m68cm	20m08cm
원반 던지기	59m18cm	62m62cm
창 던지기	85m71cm	86m74cm
철 추	67m10cm	70m67cm
10종 경기	8 392점	9 121점
▶녀자		
100m	11•0	11•0
200m	23•2	22•9
800m	2:04•3	1:59•1
4×100m 계주	44•5	44•3
80m 장애	10•6	10•5
주광도	6m37cm	6m48cm
주고도	1m85cm	1m91cm
포환 던지기	17m32cm	18m55cm
원반 던지기	55m10cm	59m29cm
창 던지기	55m98cm	59m55cm

력 기

종 목	올림픽 기록 (kg)	세계 기록 (kg)
최경량급(56kg까지)		
추 상	105.0	116.0
인 상	107.5	108.0
용 상	135.0	141.0
종 합	345.0	352.5
차경량급(60kg까지)		
추 상	120.0	125.5
인 상	110.0	120.0
용 상	142.5	150.5
종 합	372.5	377.5
경량급 (67.5kg)		
추 상	125.0	139.5
인 상	122.5	131.5
용 상	155.0	163.5
종 합	397.5	417.5
중량급(75kg까지)		
추 상	140.0	146.0
인 상	132.5	140.5
용 상	170.0	173.5
종 합	437.5	440.0
경중량급(82.5kg)		
추 상	140.0	160.0
인 상	132.5	146.5
용 상	180.0	187.0
종 합	447.5	477.5
차중량급(90kg)		
추 상	157.5	163.0
인 상	142.5	147.0
용 상	177.5	190.0
종 합	475.5	480.0
최중량급(90kg이상)		
추 상	180.0	192.5
인 상	155.0	167.5
용 상	202.5	212.5
종 합	537.5	557.5

수 영

▶남자 종 목 (m)		올림픽 기록 (시간-분:초•)	세계 기록
자유영	100	55•2	53•6
〃	400	4:18•3	4:1[illegible]
〃	1500	17:19•6	17:05•5
배 영	100	1:01•9	1:01•3
평 영	200	2:34•4	2:29•6
나비영	200	2:12•8	2:08•2
계영(자유영)	4×200m	8:10•2	8:03•7
계영(혼영)	4×100m	4:05•4	4:00•1

▶녀자 종 목 (m)		올림픽 기록 (시간-분:초•)	세계 기록
자유영	100	1:01•2	59•5
〃	400	4:50•6	4:44•5
배 영	100	1:09•3	1:08•9
평 영	200	2:49•5	2:48•0
나비영	100	1:09•5	1:06•1
계영(자유영)	4×100	4:08•9	4:08•9
계영(혼영)	4×100	4:41•1	4:40•1

속도 빙상

▶남자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500	40•2	39•5
1 500	2:10•4	2:06•3
5 000	7:51•3	7:34•3
10 000	15:46•6	15:33•0

▶녀자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500	49•5	44•9
1 000	1:34•1	1:31•8
1 500	2:25•2	2:19•0
3 000	5:14•3	5:06•6

자전거

▶남자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1 000	1:06•27	1:06•27
500		28•4
5 000		6:15•2
10 000		12:37•3
20 000		25:20•0
97 800		2-05:45•0
100 000(도로 단체)	2-14:33•0	
112 600		2-28:48•5
196 800		5-10:20•0
175 000(도로 단체)	4-20:37•0	

▶녀자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1 000		1:17•9
5 000		7:03•3
20 000		29:02•6
100 000		2-49:59•7
200		12•3
500		32•2
64 000		1-53:56•0

사 격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속도 권총	(25m 60 발)	587 (점)	593 (점)
자유 선택 소구경 권총	(50m 60 발)	560 〃	566 〃
자유 선택 소구경 보총	(50m 120 발)	1 149 〃	1 157 〃
자유 선택 보총	(300m 120 발)	1 129 〃	1 150 〃
자유 선택 소구경 보총 복사	(50m 60 발)	590 〃	595 〃
흙비둘기 원형대	(200 발)		200 〃
흙비둘기 참호대	(300 발)		295 〃

스 키

종 목		세계 기록 (시간-분:초•)	비 고
▶남 자	15km 활주	49:39•	제7차 올림픽 경기
	30 〃	1-42:26•	1961년 세계 선수권 대회
	50 〃	2-50:27•	제7차 올림픽 경기
계주(4×10km)		2-18:45•	제8차 올림픽 경기

종 목		세계 기록 (시간-분:초•)	비 고
▶녀 자	5km 활주	20:09•	1961년 세계 선수권 대회
	10 〃	38:11•	제7차 올림픽 경기
계주(3×5km)		1-04:21•4	제8차 올림픽 경기

국제 주요 일지

(1963 1.1—.12.31)

1 월

1일 꾸바 혁명 승리 4 주년 경축 행사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60여 개 국 대표들이 참가 (하바나에서 진행) ▶노르웨이 어부 2만 8천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이 나라 력사상 최대의 총파업 단행.

2일 인도네시아 수반드리오 외상, 중국을 방문(7일까지)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 아프 바크에서 백주에 미군과 괴뢰군을 습격, 미 제국주의자들 《선전 포고 없는 전쟁》 개시 이래 최대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고 비명.

7일 서독 외상, 8일까지 영국을 방문하고 영국 외상과 나토의 《다국가 핵 무력》 창설 문제에 대하여 회담 진행.

8일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중국—쎄일론 공동 성명 발표▶정부가 공산당을 비법화한 것을 규탄하여 튜니샤 공산당 제1 비서 모함메드 엔나파 성명 발표 ▶ 미 국무성, 꾸바에 대한 침략 책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특별 위원회》를 설치.

11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제2 부위원장 노또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조선, 중국을 22일까지 방문 ▶ 하바나에서 제 1 차 미주 녀성 대회 진행, 꾸바 인민의 반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15일 폐회 ▶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까하다》 11일과 12일 호에 《우리 당은 한 형제 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형제 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라는 표제의 론설 게재 ▶ 이태리에서 의사 8만 3,000 명이 의료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

12일 꾸바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수립 ▶체코슬로바키야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가 인도네시아 (1.12—17), 캄보쟈(1.18—21), 월남 민주 공화국(1.22—27), 버마 (1.27—30)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2월 1일 귀국.

13일 토고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실바누스 올림피오 대통령 피살, •16일 니꼴라스 그루니쯔키를 수상으로 하는 신 정부 수립.

14일 말라이에서 30만 명의 철도 로동자들, 임금 인상과 보조금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 (22일간의 파업 끝에 승리)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침략적인 일반 교서를 국회에 제출.

15일 독일 사회 통일당 제 6차 대회 21일까지 진행.

16일 이태리 수상과 미국 대통령 간에 17일까지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콤뮤니케 발표(워싱톤에서).

17일 케네디, 1963—1964 회계 년도 예산 교서를 국회에 제출 ▶ 브라질 상원 특별 회의, 의회 책임제로부터 대통령 책임제로 복구하기로 결정.

19일 주 은래 총리, 1월 14일부 쎄일론 수상의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에서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한 콜롬보 회의의 제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립장을 천명 ▶쎄일론 외무성, 중인 국경 분쟁 해결에 관한 6개 국 회의의 조정안을 발표 ▶파란 외무상 아담 라빠쯔끼가 인도를 방문 ▶화란 수도 헤그에서 서독과 화란 간에 서독군(3천 명)의 화란 주둔을 허용하는 군사 협정 체결.

20일 중국과 네팔간에 국경 의정서 북경에서 조인 ▶서독 수상 아데나우어 불란서 방문, 드 골과 회담하고 22일 불란서—서독 《협조 조약》 조인.

22일 이태리 야금 로동자 90만 명, 생활 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23일 베네주엘라의 여러 도시들에서 반정부 폭동, 수도에서 24시간 사격전 전개.

25일 꾸바 혁명 승리 4 주년 경축 행사와 미주 녀성 대회에 참가하였던 라틴 아메리카 대표단 성원들, 미제를 규탄하고 꾸바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 발표.

27일 중국 《인민 일보》, 《모쓰크바 선언과 모쓰크바 성명에 기초하여 단결하자》라는 사설 게재 ▶ 서전 공산당 대표단, 독일 사회 통일당의 초청으로 2월 3일까지 민주 독일을 방문.

29일 쁘라가에서 세계 직련 제26 차 집행 위원회 31일까지 진행 ▶영국의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 요청을 불란서가 재차 거부 ▶멕시코 정부, 반꾸바 음모를 위하여 3월에 소집될 중미 국가 대통령 회의에 자기의 옵써버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

31일 아르젠틴 정부,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에 관한 범죄》에 극형을 규정한 포고령 발표.

2 월

1일 영국 《보호령》인 니아살랜드에서 내부 자치제 실시.

2일 영국 공산당 총비서 죤 골랜, 중국을 방문(9일까지) ▶영국 수상 맥밀란이 이태리 방문(3일까지), 이태리 수상 판파니와 《다각적 핵 무력 창설 문제》, 영국의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 문제들을 토의.

5일 쁘라가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12개 사회주의 국가 재정상 회의(5—8) 진행, 회의에서는 이 나라들 간에 비무역 지출 결재에 관한 다각적 협정을 체결 ▶ 영국이 브루네이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1,120 명의 군대를 파견.

7일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 유격 부대 전국 사령부가 베탕쿠르 친미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무장을 들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성명 발표.

8일 이라크에서 쿠데타 발생, 카셈 정부 전복되고 살렘 아레프 대좌가 대통령으로 취임 ▶제 3 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 탄가니카의 모쉬에서 진행, 조선에 관한 결의, 《한일 회담》 반대 결의 등을 채택 ▶ 이태리 전국 로동자들이 수개월째 투쟁하고 있는 100 만 명의 야금 및 기계 제작 로동자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여 전국적인 4시간 총파업 단행.

10일 월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에 관한 성명 발표 ▶파라과이에서 삼엄한 경계 속에서 대통령 선거 진행, 친미 독재자 스트로에스네르가 대통령으로 재선.

12일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이 정부의 화물선 《안조아헤귀》 호를 나포.

16일 쎄일론 수도 콜롬보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미제의 경제적 압력을 반대하여 반미 시위 단행 ▶미제가 쿠바 반혁명 분자들을 미군 부대에 입대시켜 《특별 훈련》하는 데 착수.

17일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 《쎄일론은 자기의 자유를 미국의 원조와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명.

18일 이란 알람 내각 총사직▶ 남로데시아의 루사피시 주민들,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당 위원장 느코모에 대한 식민지 당국의 박해에 항의하여 시위 단행 ▶에쿠아도르의 툰구라와주의 암바토시 참사회 로동자들, 임금 인상, 취업의 안전 보장, 해고된 로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여 단행한 35일간의 파업에서 승리▶ 이태리의 100만 금속 로동자들, 장기간의 파업 투쟁으로 임금 인상 등 자기의 요구를 관철.

19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1963년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 23일까지 진행▶제네바 18개국 군축 회의에서 쏘련 대표단,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과 북대서양 조약 참가국 간의 불가침 조약안 제출.

21일 전 아프리카 부인 회의 상설 서기국, 7월 31일을 《아프리카 부인의 날》로 결정.

22일 하바나에서 쿠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당원들의 첫 집회 진행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 부장, 미제와 느고 딘 디엠 괴뢰 도당의 독약 살포와 관련하여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에게 각서.

24일 소말리 수도 모가디쇼에서 5만 명의 시민들, 대규모적인 반제 시위를 단행, 시위자들은 미, 영, 불 대사관을 습격▶5만 명의 페루 어부들, 로동 조건의 개선과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2주일 간).

25일 일본 총평 제 22 차 림시 대회에서 《일한 회담》 분쇄 등 춘기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정▶이태리 탄광 로동자 4만 명이 생활 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재차 파업.

27일 중국 《인민 일보》, 《의견 상이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표제 하에 불란서 공산당 총비서 토레즈와 기타 동지들에게 대답을 준 사설을 게재▶북경에서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의 중국 체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발표 ▶페루의 6천 명 인쇄 로동자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여 전국적 규모의 무기한 파업에 돌입.

3 월

1일 중국 국경 수비대가 중국 정부의 자주적인 철퇴 계획에 따라 중인 국경 지역에서 철퇴 완료▶분란 수상의 쏘련 방문과 관련한 쏘련—분란 공동 콤뮤니케 발표 ▶불란서 탄광 로동자 23만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 단행, 로동자들의 승리로 4월 5일 종료.

2일 북경에서 중국—파키스탄 국경 협정 체결.

3일 북부 칼리만탄 애국자들, 방송국을 설치하고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위한 방송 개시▶페루에서 쿠데타 발생, 군사 정권의 륙군상 린드리가 신 대통령으로 취임.

6일 영국 식민주의자들, 5천 명의 침략군을 브루네이에 투입.

7일 코스타 리카 인민 민주 행동당, 중미 대통령 회의를 반대하는 성명 발표▶벨기 수도 브류쎌에서 구라파 《공동 시장》 6개국 공산당 대표 회의 진행.

8일 씨리아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전국 혁명 리사회》가 정권 장악, 비타르를 수상으로 하는 신 정부 수립▶1962년 12월 8일부터 계속된 뉴욕 신문 로동자들의 파업 종료.

9일 일본 인민들, 《일한 회담》 분쇄 제8차 전국 통일 행동 전개.

11일 이태리 농업 로동자 200만 명, 생활과 로동 조건 개선 및 토지 개혁을 요구하여 파업 단행▶소말리 정부, 《케니아 북부 국경 지역에 대한 영국의 정책과 관련하여》 영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

12일 아르젠틴 륙군 총사령관 온가니야가 미국을 방문하고 쿠바를 침공하기 위한 《특별 폐단》과 라틴 아메리카 인민을 탄압하기 위한 《미주 경찰군》을 조직할 것을 예견하는 군사 조약을 미국과 체결.

13일 파란 수상의 멕시코 방문과 관련한 멕시코—파란 공동 성명 발표.

14일 케네디의 특사 머천트,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이태리, 불란서, 서독, 영국 등을 방문(2.22—3.14).

16일 일본 사회당에서 박 정희 군사 도당의 《군정 연장》 발표와

관련하여 《일한 회담 즉시 중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 발표▶불란서 철도 로동자들이 탄광 로동자들의 파업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24시간 총파업, 3월 27일에도 파업.

17일 독일 사회 통일당 대표단이 파란을 방문.

18일 불란서가 알제리아의 사하라 사막에서 지하 핵 시험 감행 ▶호주의 44 개 항구 부두 로동자들이 파업 ▶코스타 리카의 수도 산 호세에서 미국과 중미(살바도르, 코스타 리카, 과떼말라, 혼듀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대통령 회의 20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반꾸바 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중앙 아메리카 선언》 (산 호세 선언) 채택 ▶아르젠틴에서 3만 6,000 명의 전화국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22일 페루 남방 지역 국가 공무원 3만 명,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24일 벨기의 수도 브류쎌에서 1만 명의 주민들, 자국 령토에 외국의 원자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여 시위 단행.

25일 일본 인민들의 춘기 제 5 차 통일 행동 개시▶과떼말라 대통령이 반정부 유격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에 계엄령 선포.

26일 영국 런던에서 7천 명의 실업자들이 실업을 반대하여 시위.

28일 브라질의 니떼로이시에서 꾸바 옹호 미주 대회 30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꾸바 혁명을 옹호하며 꾸바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니떼로이 선언》과 《꾸바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29일 칠리의 교원 4만 명이 생활 조건 개선과 교육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파업 ▶희랍의 남부 농업 로동자들이 정부의 반동적 경제 정책에 항의하여 파업.

30일 과떼말라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페라르따 군사 독재 정권 수립.

31일 아르젠틴의 교원들,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

4 월

1일 라오스 림시 민족 통일 정부 외상 귀님 폴세나, 미제의 주구들에 의하여 피살.

2일 쏘련에서 우주 로케트 《루나—4호》 발사▶인도네시아와 비률빈 간에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 마닐라에서 조인.

3일 불란서와 아랍 련합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회복에 대한 협정 체결.

4일 알제리아 예멘 간의 공동 콤뮤니케 발표.

5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성명 발표, 남부 월남에서 미제의 독약 사용을 항의하고 그것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

8일 침략적 세아토 제 8 차 리사회 10일까지 진행▶카나다에서 총선거 진행, 전 수상으로 레스터 피어슨이 피선 ▶파리에서 불란서 대통령 드 골과 미 국무 장관 러스크 간에 나토의 핵 무력 창설 문제, 라오스 및 꾸바 정세 문제들을 토의.

10일 《나이제리아 사회주의 로농당》 창건.

11일 캄보쟈 정부가 남부 월남 괴뢰군의 국경 침범과 관련하여 콤뮤니케 발표.

12일 류 소기 주석, 4월 2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20일 중국—인도네시아 공동 콤뮤니케 발표▶오물랜드에서 뉴질랜드 공산당 대회 14일까지 진행 ▶영국 공산당 제 28 차 대회 15일까지 진행▶분란 공산당 제 13 차 대회 15일까지 진행.

14일 미, 영 정부 간에 바하마 도에 공동 로케트 기지를 건설할데 관한 협정 체결.

15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에서 라오스 사태와 관련하여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18일 북경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4월 인민 봉기 3주년 기념 집회 진행▶꾸바 카스트로 수상, 공군절 기념식에서 《저들이 우리 조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플라야 히론에서 소비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분쇄될 것》이라고 언명 ▶영국 정부가 제네바 협정을 유린하고 55 명의 장교들과 700 명의 해병들을 남부 월남에 파견.

20일 류 소기 주석 26일까지 버마를 방문하고 콤뮤니케 발표 ▶파떼트 라오군 최고 사령부 성명 발표,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군사 간섭 및 침략 책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노르웨이 공산당 대표자 회의 진행, 회의에서 새로운 당 강령을 채택.

21일 인도네시아 군사 대표단이 중국 방문 ▶라오스 캉카이에서 수반나 푸마와 수파누봉 간에 회담, 두 무력 간의 정화에 합의.

23일 케네디가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하고 라오스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

24일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 진행, 4월 30일 《쟈카르타 선언》 채택하고 폐회.

28일 꾸바 정부가 미국에 있는 꾸바 반혁명 분자들이 하바나 부근의 정유 공장을 폭격(4.25)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항의 성명 발표 ▶오지리에서 대통령 선거 진행, 아돌프 쉐르프가 재선.

5 월

1일 인도네시아가 서부 이리안의 행정권을 정식 인수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쎈토 각료 리사회 회의 진행.

2일 캉카이에서 라오스 애국당과 중립파 간의 회담 4일까지 진행▶미국 알라바마주의 버밍감에서 흑인 수천 명이 인종 차별을 항의하여 시위, 3일, 5일에도 계속.

3일 콩고 레오폴드빌에서 약 2,000 명의 경찰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반란.

4일 아랍 련합 공화국 대통령 나쎄르, 알제리아를 8일까지 방문하고 콤뮤니케 발표.

5일 라오스 애국당 위원장 수

파누봉이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여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에게 서한 발송 ▶토고 국회 선거 진행, 10일 니콜라스 그루니쯔키가 대통령으로 당선.

6일 캄보쟈를 친선 방문한 중국의 류 소기 주석과 시하누크간의 공동 성명 발표 ▶페루에서 60만 교원들이 교원의 권리를 무시한 정부에 항의하여 파업.

7일 서부 독일의 야금 로동자 40만 명 이상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8일 미국의 알라바마주 버밍감에서 흑인들이 인종 차별을 반대 항의하여 대중적인 시위 단행.

10일 불란서에서 20만 명의 의료 일'군들이 로동 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24시간 파업을 선포.

12일 불란서 로동 총련맹 제 34 차 대회 17일까지 진행.

13일 알지에에서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 21일까지 진행,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결의》 등을 채택 ▶쏘련 외무성, 벤꼽쓰끼—윈 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모쓰크바 주재 미국 및 영국 대사관에 항의 각서 전달.

15일 민주 월남을 친선 방문한 류 소기 주석과 호 지명 주석의 공동 성명 발표.

16일 웽그리야 수상 까다르 야노쉬 18일까지 파란을 방문.

17일 랑군에서 타이와 버마 간에 국경 안전 문제에 관한 협정 체결▶유고슬라비야가 인도에 군사 원조(3천만 루피)를 제공할 데 관한 협정 체결.

19일 비.지. 윌콕스를 단장으로 하는 뉴질랜드 공산당 대표단 중국 방문, 25일 북경에서 량당의 공동 성명 발표 ▶인도네시아 인민 협상 회의에서 수카르노에게 종신 대통령직을 부여하는 결정 채택.

21일 우루과이를 친선 방문한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우루과이와 무역 관계를 설정하며 우리 나라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는 데 합의 ▶수파누봉이 수반나 푸마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여 라오스의 두 애국 력량의 통일을 강화할 것을 호소.

22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베바에서 31개 국가 대표들의 참가하에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25일까지 진행 ▶카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침략적 나토 각료 리사회 진행, 회의에서 나토 핵 무력 창설 문제와 나토 전략 문제들을 토의하고 24일 페막.

26일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부 대변인, 인도 포로병의 석방 완료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3,942 명의 포로병과 26 명의 시체 및 유골을 인도).

27일 케니아에서 중앙 선거 진행, 5월 30일 죠모 케니아타를 수상으로 하는 신 내각 구성.

29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에서 성명 발표, 라오스 문제의 해결을 위한 6개 항목을 제기 ▶아르젠틴 로동 총련맹의 호소에 따라 로동자들, 전례 없는 대규모의 24시간 파업 단행.

31일 구라파 《공동 시장》이 미국의 닭고기 수입세를 인상하기로 결정.

6 월

4일 서전에서 서전, 노르웨이, 덴마크, 분란 및 아이슬랜드의 사회 민주 청년 동맹 대표자 회의 진행, 《북 구라파 사회 민주 청년 동맹》 창설을 결정.

5일 브라질의 산토스 항구의 부두 로동자 1만 7천 명이 당국의 로조 해산 명령에 항의하여 파업 ▶케니아,탄가니카, 우간다의 3 개국 수뇌자 회의에서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련방 창설을 표명한 공동 성명 발표.

6일 일본에서 6만 명의 광부들,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7일 《서반아 로동자와 인민을 지지하는 국제 련대 주간》 개시 (6.7—15).

10일 케네디가 아메리칸 대학에서 침략적인 《평화 전략》에 대하여 연설.

11일 미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기항 저지,《일한 회담》 분쇄 등을 위한 일본 인민의 제 2 차 통일 행동 전개.

12일 미국 미씨시피주 잭슨시의 흑인 지도자 피살, 이를 계기로 흑인들의 투쟁 격화, 6월 14일 미국 각지에서 시위, 집회 광범히 진행 ▶희랍에서 1만 1 천 명의 체신 로동자들이 총파업▶베네주엘라의 친미 독재자 베탕쿠르가 국내의 모든 공산당원들과 좌익 혁명 운동당 당원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

14일 쏘련에서 왈레리 빅꼽쓰끼 중좌가 조종하는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5》호, 16일에는 세계 최초의 녀성 우주 비행가 왈렌찌나 울라지미로브나 쩨레슈꼬바가 조종하는 《워쓰또크—6》호 발사, 6월 19일 무사히 착륙.

15일 이태리 전국에서 130만 고용농이 전반적인 토지 개혁 실시를 요구하여 24시간 총파업.

16일 일본 로동자들이 미 핵잠수함 일본 기항과 《에프—105》 전투 폭격기 배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 25일까지 진행 ▶ 남부 월남의 사이공에서 70만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

20일 쏘 미 량국이 모쓰크바—워싱톤 간의 직통 전화선 설치에 대한 협정 조인.

21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이 6.25와 관련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 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23일 알제리아 수상 벤 벨라와 씨리아 수상 비타르 간의 공동 콤뮤니케 발표 ▶케네디가 서독, 영국, 이태리 등 서구라파 나라들을 방문 (7월 3일까지).

24일 잔지바르와 펨바가 내부 자치권을 쟁취 ▶일미 《안보 조약》 반대 공동 투쟁 전국 협의회,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는 제 11 차 공동 투쟁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

25일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 일본 인민들 제10차 통일 행동의

마지막 투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 즉시 철거, 《일한 회담》 분쇄, 미국 핵 잠수함 기항 반대 등의 구호하에 시위 ▶불란서에서 23만 명의 소학교 교원들,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총파업 단행.

26일 아르젠틴에서 24만 명의 교원들과 학생들이 교원들의 임금 인상, 교육비 지출 증가를 요구하여 총파업.

27일 수카르노의 파키스탄 방문과 관련하여 공동 콤뮤니케 발표, 공동 콤뮤니케는 가까운 장래에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대회를 소집할 것을 호소.

29일 24일부터 모쓰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녀성 대회의 최종 회의에서 우리 나라, 중국, 알바니야 대표들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강령 및 선언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7 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7월 5일 모쓰크바에서 소집될 중쏘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동 회담에 파견할 대표단 명단을 발표 ▶북경에서 조선, 중국, 일본 3개국 직맹 및 로조 대표들이 반제 투쟁에 관한 공동 성명에 조인.

2일 카메룬 대통령 아호마두 아히죠가 남아프리카 및 포도아와 일체 통상을 중지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언명.

3일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에서 미국의 강압으로 《꾸바 려행 금지》에 관한 제안 가결. 칠리 반대, 브라질, 멕시코, 베네주엘라, 하이티는 기권 ▶이태리의 페르라르현에서 5만 명 고용농들이 전반적 토지 개혁의 실시를 요구하여 24시간 파업.

4일 알바니야에서 사회주의 국가 군대 친선 배구 경기(남자) 진행 (13일 폐막, 우리 나라팀 제2위)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13차 전원 회의 진행, 《당 사상 사업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물까 보고(6일 폐막).

5일 모쓰크바에서 중쏘 량당 대표들의 회의 진행, 20일 중단 ▶에티오피아 정부, 포도아가 앙골라와 모잠비크에 독립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포도아와 외교 관계 단절.

6일 미국 시카고에서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싸우는 최대의 단체인 《전국 유색 인종 향상 협회》 제 54 차 대회에서 전투적인 직접 행동의 확대에 관한 일련의 결의 채택.

7일 아르젠틴에서 대통령 및 국회 선거, 테로와 기만 속에서 진행.

8일 미국이 꾸바와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에 있는 꾸바의 모든 재산을 동결 ▶런던에서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에 관한 협정 조인.

10일 야노쉬 까다르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및 정부 대표단 쏘련 방문(22일 귀국), 23일 콤뮤니케 발표 ▶쟈카르타 청년 학생 대표 수백명, 《말레이시아 련방》 창설을 반대하여 쟈카르타 주재 말라이 대사관 앞에서 시위, 말라이에서 인민 사회주의 전선, 말라이 로동당, 싱가포르에서는 사회주의 전선 등이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성명 발표.

11일 우리 나라가 알제리아에 보낸 선물 전달식 알지에에서 진행 ▶세계 민주 청년 련맹 뷰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반대하여 일본 정부에 항의 전문 ▶이태리에서 전반적인 토지 개혁과 지주 토지 소유제의 청산을 위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시위와 군중 대회 진행 ▶불란서 로동자들, 정부의 파업 억압 법안을 반대하여 파업 및 시위 ▶에쿠아도르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군사 위원회가 정권 장악.

13일 아르젠틴에서 13만 명 제탕 공업 부문 로동자들 파업.

14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14일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서한과 관련한 공개 서한을 《쁘라우다》에 발표.

15일 쏘, 미, 영 3개국 핵 무기 시험 금지 문제에 관한 회담 모쓰크바에서 진행. 8월 5일 부분적 핵 무기 시험 금지 조약 조인.

16일 이태리 동북부의 파두아에 있는 이태리 공산당내 맑스-레닌주의자들, 성명을 발표하여 《새로운 혁명적 정당》의 창설을 호소 ▶벨기 공산당의 브류쎌 당 단체 련합체, 쏘련 공산당의 7월 14일부 공개 서한에 반대 항의하는 콤뮤니케 발표 ▶세네갈 정부, 포도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남아프리카의 비행기들과 선박들이 세네갈의 모든 항공로, 비행장, 항구들을 통과할 수 없으며 이 두 나라의 일체 상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성명.

17일 잔지바르에서 모함메드 샴레(잔지바르 및 펨바 인민당 지도자) 정부 성립 ▶미 대통령 케네디,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 자본의 해외 류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수지 특별 교서를 국회에 제출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전 인민이 단결하여 《말레이시아》에 대항하라고 호소 ▶인도네시아 발리도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집행 위원회 회의 진행,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방해하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결의 등 23개의 결의 채택(20일 폐막).

18일 100여만의 이태리 건설 로동자들, 새 단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파업.

20일 아이디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쏘련(20—23일), 꾸바(24—31일)를 방문 ▶아프리카의 18개 독립 국가, 구라파 《공동 시장》과 《련계 협정》에 조인.

21일 하노이에서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 체결 9 주년에 제하여 미제와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30여만 명의 대집회 진행.

22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 조선 정전 협정 체결 10주년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문 채택 ▶서반아 북부의 아스투리아 탄광 로동자 5천명이 파업 (11월까지 4개월 이상 계속).

24일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성원국 공산당 및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들과 정부 수반들의 회의 진행 (26일 폐막)▶세계 직련 서기국,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왕래의 자유를 요구하여 성명 발표 ▶꾸바 정부,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에 있는 꾸바 예금을 동결시킨 대응 조치로서 하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청사를 몰수 ▶화란에서 마레이넨 정부 구성.

25일 세계 민청, 조선 정전 협정 조인 10주년과 관련하여 미군 철거를 위한 조선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 민주 청년 동맹에 보내는 서한 채택 ▶미 제7함대, 대만 해협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군사 연습 진행.

26일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공산당 및 로동당 제1 비서들과 정부 수반들의 회의 진행 ▶케네디, 핵 시험 금지 조약과 관련한 방송 연설에서 미국이 필요할 때에는 이 조약에서 탈퇴하고 모든 형태의 핵 시험을 재개하며 핵 공격까지도 감행하겠다고 언명▶ 미 국무성, 미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겠다고 성명 발표.

29일 18개국 군축 위원회 회의 제네바에서 재개 ▶《말레이시아 련방》 결성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말라이, 비률빈 3개국 수뇌자 회의 마닐라에서 진행, 8월 5일 《마닐라 선언》 조인.

31일 중국 정부, 핵 무기의 전면적인 철저한 완전 금지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 수뇌자들의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는 성명 발표. 8월 2일 주 은래 총리 각국 수뇌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서한 발송.

8 월

1일 케니아, 탄가니카, 우간다, 잔지바르가 동부 아프리카 련맹 창설에 합의 ▶리비아 정부, 포도아와 남 아프리카와의 경제 관계 단절 ▶케네디, 기자 회견에서 핵 시험 금지 조약은 중국의 핵 무기 소유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미국에서 지하 핵 시험을 계속하겠다고 언명.

2일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외상 회의 진행.

4일 아프리카 12개국 재정상들, 아프리카 개발 은행 헌장에 조인 ▶미국, 서독, 불란서, 카나다 등 4개국이 《나토 국제 공수 핵 타격 무력》 창설.

5일 히로시마에서 제 9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 진행, 《국제적 공동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의》 채택하고 7일 폐막.

6일 기니아 정부, 포도아 및 남 아프리카와의 외교, 정치, 무역 및 문화 관계 단절 ▶불란서 대통령 드 골,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에 참가하라는 케네디와 맥밀란의 호소를 거절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스모스—19》호를 발사.

8일 모 택동 주석,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표들을 접견하고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미국 흑인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10일 쉐르마르크를 단장으로 하는 소말리 정부 대표단, 중국을 방문하고 공동 콤뮤니케 발표.

11일 아랍 련합 공화국 나쎄르 대통령, 제국주의를 청산할 때까지 전면적인 군비 축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12일 쎄일론에서 공산당, 평등 사회당, 인민 련합 전선이 《좌익 련합 전선》을 정식 결성 ▶미국이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 후 첫 지하 핵 시험 실시.

13일 뉴질랜드 공산당 총비서 윌콕스, 뉴질랜드 전국 비서국을 대표하여 중국 정부의 7월 31일부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14일 인도 뉴델리에서 2만 명 시민들, 독립 이래 최대의 반정부 시위 단행.

15일 알바니야 정부, 부분적 핵 시험 금지에 관한 모스크바 조약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벨기 공산당 브류쎌 주당 위원회, 쏘련 공산당의 공개 서한의 수정주의 내용을 폭로 규탄하는 결의 발표 ▶ 콩고(브라자빌) 대통령 율루, 로동자들의 폭동과 반정부 세력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사임, 림시 정부 수상으로 알폰세 마쌈바 데라트 취임.

16일 분란, 서전, 노르웨이, 덴마크 공산당 대표들의 회의 코펜하겐에서 진행 ▶카나다 수상 피어슨, 카나다군이 핵 탄두를 획득할 조건에 대하여 미국과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

17일 베네주엘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기타 나라 청년 및 학생 단체 대표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

18일 사이공(남부 월남)에서 불교도 약 1만 5,000 명, 최대의 반정부 시위 단행.

19일 영국 대도시들의 수백개 건설장들에서 15만 명의 로동자들,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총파업, 1주일 간의 파업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 ▶미 폭격기, 꾸바의 가시루다항을 공습하고 석유 탕크와 주민들에게 로케트탄을 발사.

20일 쏘련 수상 흐루쑈브, 유고슬라비야 방문 ▶인도 봄베이에서 정부의 과중한 세금 수탈을 반대하여 시작한 (1962년 11월) 공무원들의 파업은 100만 명 근로자들의 총파업으로 확대, 봄베이시 기능 완전히 마비, 1천여 명 체포 ▶수단 정부, 포도아와 남아프리카와의 일체 통상 관계 단절 ▶느고 딘 디엠 도당이 남부 월남 전역에 계엄령 선포.

21일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핵 무기의 전면적인 금지와 이를 파괴할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여 주 은래 총리에게

회답 서한.

23일 미국이 네바다에서 지하 핵 시험 감행.

27일 노르웨이에서 보수당 지도자 존링을 수상으로 하는 새 련립 내각 구성 ▶ 3천 명의 사라와크 주민들이 사라와크에 기여든 《유엔 조사단》을 반대하여 시위.

28일 아이디트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중국(8월 28일—9월 6일), 조선(9월 7일—15일)을 방문 ▶ 월남 민주 공화국 호 지명 주석, 미제와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 워싱톤 (미국)에서 25만 명의 미국 흑인들,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대 시위.

29일 중국 모 택동 주석, 중국을 방문한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미제의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과 인민 탄압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30일 세계 평화 리사회 의장 버널이 남부 월남에서의 미군 철거를 요구하여 성명 발표.

9 월

1일 월남 민주 공화국과 아랍 련합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4일 가나 정부, 1961년에 단절되였던 벨기와의 외교 관계 회복을 결정.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홍기》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와의 의견 상이의 유래와 발전》—《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개 서한을 평함》이라는 표제하에 편집부 론설 게재.

6일 미국 비행기 4대, 꾸바에 침입하여 폭격, 기총 소사 등 도발 행위 감행.

9일 미제와 사반나케트 도당이 파견한 우익 세력 군대가 평화 회담을 위하여 비엔티안에 와 있는 애국 전선당 대표단의 숙소를 포위 공격하는 도발 행동을 감행. 이를 규탄하여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국 정부 (13일)와 월남 외교부 (14일) 각각 성명 발표 ▶ 아르젠틴 철도 로동자 22만 명,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10일 국제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기구 총회, 우리 나라를 비롯한 13개국 대표들의 참가 하에 부카레스트에서 진행(14일 폐막)

11일 뉴질랜드 공산당 비서국,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집행 위원회 회의 우리 나라를 비롯한 30개국 대표들의 참가 하에 니코시아(싸이프러스)에서 진행,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조선에 관한 결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문건 등을 채택하고 12일 폐막.

12일 국제 의회 동맹 제 52 차 대회 벨그라드에서 진행(20일 폐막) ▶ 토이기가 구라파 《공동 시장》의 준 회원국으로 가입 ▶ 일본 《마쯔가와 사건》 피고 전원 무죄 석방.

13일 오만 혁명 민족 리사회, 민족 해방 전선을 조직하기로 결정

15일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포도아와 통상 및 경제 관계 단절 ▶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벤 벨라 당선 ▶ 미국 버밍감에서 인종주의자들, 흑인 교회를 폭파, 흑인 소녀 4명 즉사, 중상자 20여 명, 18일 이와 관련하여 미국 각지에서 수천명의 흑인과 백인들이 항의 시위 단행.

16일 《말레이시아 련방》 발족 ▶ 챠드 수도 포르라미에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폭동 발생.

17일 유엔 총회 제18차 회의 개막 (12월 17일 폐막) ▶ 미국 부대통령 존슨, 2주일 간에 걸친 북 구라파 국가들의 방문에서 전쟁 준비의 강화를 력설하고 귀국 ▶ 인도네시아 정부, 모든 영국인 재산을 몰수할 데 대한 명령 하달.

19일 세계 민청 서기국에서 꾸바 도시들을 폭격한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서서 로동당에서 수정주의 지도부를 반대하여 탈당한 당원들, 새로운 《서서 공산당》을 창건 ▶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미 침략군의 철거와 민주주의적인 민족 련합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남부 월남 해방 통신)

20일 체코슬로바키야 수상으로 요제프 레나르트 취임.

21일 인도네시아 정부, 말라야 정부의 외교 관계 단절에 대처하여 《말레이시아》와의 통상 관계를 단절, 인도네시아 민족 전선은 《말레이시아》 반대 활동 사령부를 설치.

23일 일본 수상 이께다가 비률빈,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방문(10월 6일 귀국) ▶ 브류쎌에서 구라파 《공동 시장》 각료 리사회 회의 진행, 회의에서 미국 닭고기에 대한 《공동 시장》의 수입 부과금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폐막 ▶ 제 3차 국제 기자 회합 알지에에서 진행.

24일 노르웨이에서 에이나르 게르하르드센 내각 구성.

25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위원장 아이디트, 중국 공산당 광동성 당 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광동성 및 광주시 각 기관 당 간부들 앞에서 《인도네시아 혁명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라는 제목으로 연설 ▶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 파란 방문, 30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 도미니카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26일 우간다 국회, 영국인 총독을 우간다인 대통령으로 교체하기로 결정 ▶ 미국—서반아 기지 대여 협정 (1953년 9월 26일 체결)의 유효 기간을 5년간 연기.

27일 중국 류 소기 주석 조선 방문을 끝마치고 귀국 ▶ 유엔 사무 총장 우 탄트, 유엔군의 콩고 주둔을 6개월간 더 연장할 것을 유엔에 제기.

28일 중국 외교부, 유엔 총회

제 18차 회의 의정에 또다시 《조선 문제》가 포함된 것을 규탄하는 9월 25일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레오폴드빌(콩고)에서 2천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기젱가의 석방과 그를 박해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여 시위 ▶남아프리카의 《범 아프리카 대회당》이 무장 투쟁으로써 남아프리카의 백인 통치를 전복하기로 결정.

10 월

1일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1 비서이며 웽그리야 로농 혁명 정부 수상인 까다르 야노쉬, 체코슬로바키야를 4일까지 방문하고 량국의 당 및 정부 활동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 ▶에티오피아 왕 하일레 셀라시에가 미국을 방문 ▶나이제리아 련방이 영 련방 내에서 공화국 선포 ▶우간다 정부, 남아프리카와 모든 통상 관계 단절 ▶인도네시아 정부,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을 위하여 4개의 《기동부대》 창설 ▶알제리아에서 불란서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

3일 혼듀라스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4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유엔 총회 제 18차 회의 의정에 또다시 《조선 문제》가 포함된 것을 규탄한 9월 25일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영국 식민지 감비아, 내부 자치 획득 ▶꾸바에서 5카발레리아 (1카발레리아는 13.43 헥터) 이상의 개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할 데 대한 법령 발표 ▶멕시코 민족 해방 운동 제 1 차 전국 대회 진행, 80명의 새 전국 위원회 창설.

5일 세계 민주 청년 련맹, 미국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박해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8일 씨리아—이라크 합동군 사령부 설치 ▶잔지바르 군주에게 임대(1895년)되였던 케니아 해안 지대를 케니아에 통합하는 조약을 잔지바르, 케니아, 영국 간에 체결 ▶알제리아—모로코 국경 충돌 사건 발생.

9일 이태리의 로마에서 7만 명의 건설 로동자들,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파업.

10일 바덴—바덴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60차 총회 진행, 1964년 도꾜 올림픽 경기에 남북 조선을 별개 팀으로 참가시킬 것을 결정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 아랍 련합 공화국 방문, 나쎄르와의 회담에서 쁠럭 불가담 국가들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성에 합의 ▶인도네시아 공산당 정치국,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의견 상이를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기초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데 대한 결정 채택 ▶중국 정부, 중인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각서를 인도 정부에 발송.

11일 유엔 총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인종 격리 정책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55개국 결의안을 찬성 106, 반대 1 (남 아프리카)로 채택.

12일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장 브레쥬네브, 아프가니스탄 방문 ▶아르헨틴에서 신 대통령으로 일리아가 취임 ▶카나다 퀘베크 시민들, 카나다의 핵 무장을 반대하여 시위.

14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유엔 조사단》의 남부 월남 파견을 규탄하여 성명.

15일 불란서 군대, 튜니샤의 비제르타 기지에서 완전 철수.

18일 중국 외교부, 《유엔 조사단》의 남부 월남 파견을 규탄한 10월 14일부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영국 수상으로 보수당 당수 홈(외상)이 취임 ▶쏘련 인공 위성 《꼬스모스—20호》 발사.

21일 남부 월남 근로자 및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직맹 위원회, 하노이에서 진행. 12월 20일(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창건일)을 《남부 월남 근로자들 및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의 날》로 할 것을 결정(23일 폐막).

22일 볼리비아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미국 방문(23일 귀국).

24일 중국 외교부, 미국이 유엔에서의 중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을 또다시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5일 탄가니카에서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반제 통일 전선》 정식 결성 ▶유고슬라비야 대통령 찌또, 미국 방문(10일간).

27일 서독 대통령 류브케, 이란 방문 ▶아랍 부흥 사회당 대회에서 씨리아와 이라크를 통합하기로 결정 ▶다호메 대통령 마가가 국내의 정치 위기로 국회와 내각을 해산.

28일 다호메군 총참모장 소글로 대좌를 대통령으로 하는 신정부 구성 ▶쟈카르타에서 10개 로조 대표단의 참가하에 아세아, 아프리카 로조 대회 예비 회의 진행, 1964년 상반년에 아. 아 로조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한 결의 채택 (11월 3일 폐막).

29일 아크라(가나)에서 아프리카 통일 기구 방위 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 (11월 2일 폐막) ▶방코크(타이)에서 세아토 군사 고문관 회의 개최, 회의는 남부 월남에서의 군사 행동과 라오스에 대한 군사 간섭을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30일 폐막).

30일 알제리아—모로코 정전 협정 체결.

11 월

1일 남부 월남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느고 딘 디엠 형제 피살, 새 괴뢰 군사 정권 조작.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인도와 련합하여 중국을 반대하고 있는 진상》이라는 표제의 편집국 론설 게재 ▶브라질 산 파울로에서 70여 만 명 로동자들, 임금 인상과 체포된 파업 로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파업.

4일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아랍 련합 공화국 방문, 알제리아 모로코 정화 협정 리행을 위한 아프리카 통일 기구

외상 회의 개최에 합의.

5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남부 월남 군사 정변 (11월 1일) 발생시 미 제 7 함대 병력을 남부 월남에 파견한 데 항의하여 1954년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에게 서한 발송.

6일 파리에서 진행된 나토 참가국 국회 의원 회의 군사 위원회 회의에서 나토 혼성 핵 함대를 창설하자는 미국안을 부결 ▶서독 대통령 류브케가 일본을 방문(9일 귀국)▶불란서 국영 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200만 명의 근로자들 파업.

8일 불란서와 아랍 련합 공화국간에 1956년 수에즈 운하 분쟁으로 단절되였던 외교 관계 회복.

10일 일본 공산당, 11월 9일에 일어난 일본의 미이께 탄광 가스 폭발 사건, 쯔루미 철도 충돌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이께다 정부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여 성명 발표 ▶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까하다》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단결과 발전을 위하여》라는 사설 게재 ▶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네포), 49 개국 선수 1,838 명의 참가 하에 쟈카르타에서 개막 (23일 페막).

11일 아크라(가나)에서 제 2차 전 아프리카 기자 대회 진행, 대회는 《범 아프리카 기자 동맹의 기본 목적》에 관한 결의와 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 차별, 아프리카의 통일 및 자유 옹호 투사들에 관한 결의 등을 채택하고 전 아프리카 기자 동맹을 창설 (16일 페막)▶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스모스—21호》 발사.

12일 씨리아에서 모함메드 하페즈 정부 구성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말레이시아》와의 국경 지대 정세에 비추어 전국에 경계 태세를 취할 데 대한 특별 명령 포고, 인도네시아 민족 전선 《말레이시아 분쇄 행동 사령부》 설치.

13일 다호메 정부, 일체 정당을 해체.

15일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진행▶방코크에서 비률빈, 인도네시아, 타이 3개국 외상 회의 진행 (17일 종료)▶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스모스—22호》 발사.

18일 이라크 대통령 아브델 살람 아레프, 바아스당 정부를 반대하는 군사 정변을 일으킴, 아레프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전국 혁명 리사회 조직.

19일 서남 아프리카 민주 단체들, 남아프리카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민족 해방 전선 결성.

20일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동남 아세아의 평화와 관련한 14개 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것을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회의 의장국(영국, 쏘련)들에 제의 ▶ 캄보쟈 정부, 미국 《원조》를 중지할 데 대하여 미국에 통고.

22일 중국—아프가니스탄 국경 조약 북경에서 조인 ▶ 미국 대통령 케네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 피살, 부대통령 존손 36대 대통령으로 취임.

23일 파란 당 및 정부 대표단, 웽그리야 방문▶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장 브레쥬네브, 이란 방문▶네팔 수상 툴시 기리, 쏘련 방문.

25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 쏘련 방문 ▶가네포(신흥 세력 경기 대회)총회에서 상설적인 신흥 세력 체육 경기 기구를 창설할 데 대한 결정과 가네포 헌장을 채택.

28일 미제가 《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남조선 주민들을 살상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이 미국 정부에 항의 전문을 발송, 세계 민청은 29일 성명 발표.

29일 세계 평화 리사회 회의, 80개 나라에서 온 450명의 대표 참가하에 와르샤와에서 진행(12월 2일 종료).

30일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회의 서기국 제 2 차 회의, 보고르(인도네시아)에서 진행, 4월 24일을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들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12월 1일 종료).

12 월

1일 베네주엘라에서 미제의 직접적인 간섭과 테로 폭압 속에서 《대통령 선거》 진행 ▶ 싱가포르의 31개 로조 단체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의 군비 확장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세네갈에서 대통령 및 국회 선거 진행, 대통령에 레오폴드 센고르 당선.

2일 이스라엘에서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 공무원 4만 명이 파업.

3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2기 제 4 차 회의 북경에서 진행 (6일 페막)▶쎄일론 공산당 내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 제 7 차 대회 소집을 결정, 35명으로 조직 위원회 구성.

4일 호주 공산당 내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 《호주 공산주의자》라는 새 리론 잡지 발행 ▶ 원자 포탄으로 남조선 인민들을 살상한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을 규탄하여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이 세계 각국 학생 단체들에 서한 발송,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기구 상설 서기국은 11일 성명 발표 ▶미국 정부, 구라파 《공동 시장》의 닭고기 수입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일부 품목들에 대한 수입세를 인상하고 1964년 1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5일 카이로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제 4 차 대회 진행, 12개국을 리사회 성원으로 선거 ▶중국 정부, 캄보쟈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회의 소집을 위한 11월 26일부 캄보쟈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여 회답 각서.

10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 쏘련 방문 ▶ 잔지바르 독립 선포.

12일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기구 상설 서기국,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결성 3 주년에 제하여 이 전선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케니아 독립 선포 ▶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미국 주재 캄보쟈 대사관 일'군들을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14일 중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 아랍 련합 공화국(14—21일), 알제리아(21—27일), 모로코(27—30일) 방문 ▶ 캄보쟈 왕국 정부, 1964년 1월 15일까지 캄보쟈에 있는 미국 《군사 원조 사절단》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16일 알바니야 인민 회의 제 5 기 제 4 차 회의 진행(17일 폐막) ▶쏘련 최고 쏘베트 제 6기 제 3 차 회의 개막, 화학 공업 문제와 국가 예산 문제를 토의하고 19일 페막 ▶파리에서 침략적 나토 리사회 회의 진행, 《다각적 핵 무력》 문제와 나토의 전략 계획들을 토의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페회 ▶알지에에서 아프리카 통신사 련맹 제1차 총회 진행(18일 페막) ▶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1만명의 로동자들이 물가 등귀를 반대하여 시위, 네루 정부, 200여 명을 체포.

18일 알제리아 정부 대표단, 쏘련 방문(28일 귀국) ▶분란 신정부 수립.

19일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테일러, 3일간의 인도 방문을 끝마치면서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까지 확대할 데 대한 계획을 협의했다고 공언 ▶탄가니카 대통령 니에레레, 기니아 방문.

20일 에쿠아도르의 각 정당들, 반독재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 해방 전선》 결성.

22일 싸이프러스에서 1960년 헌법의 수정안을 계기로 토이기계 주민들과 희랍계 주민들간에 무장 충돌.

23일 니제르에서 자국의 《안전상 리유》라는 이름 밑에 1만 6천명의 다호메 거류민들에 대한 추방령 발표 ▶구라파 《공동 시장》 각료 회의 페막, 농업 공동 정책과 대미 관세 인상 문제로 모순 표면화.

28일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 미국 방문.

조선 중앙 년감 (1964년)

1964년 8월 25일 인쇄
1964년 9월 1일 발행
발행소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인 조선 중앙 년감 편집 위원회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ㄱ—430557, 발행 부수 10,000부, 값 5원 50전